발 간 등 록 번 호
79-6500000-000374-01

제주문화원형 I 설화편 1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 연 구 원

발 간 등 록 번 호
79-6500000-000374-01

제주문화원형 I 설화편 1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 연 구 원

목 차

Ⅰ. 발간 개요

1. 취지와 범위 ····· 19
2. 방법과 내용 ····· 20
3. 일러두기 ····· 23

Ⅱ. 기존 자료 해제

1. 신화 ····· 25
1) 각시당본풀이 ····· 27
2) 고내본향 ····· 29
3) 고대장본풀이 ····· 31
4) 고도채비본 ····· 33
5) 고성신양수산본향당본풀이 ····· 35
6) 고전적본 ····· 37
7) 곤물당본풀이 ····· 39
8) 광정당본풀이 ····· 40
9) 광청아기본풀이 ····· 41
10) 구실할망본풀이(나주 김씨 집안의 조상) ····· 43
11) 궤눼깃당본풀이 ····· 45
12) 금덕리당 종신당 유수암당 ····· 47
13) 금덕본향 검은댁잇당 ····· 48
14) 금악본향 오일당 ····· 49
15) 나주 기민창조상본풀이 ····· 51
16) 내왓당 천ᄌᆞ또마누라본풀이 ····· 52
17) 널갯당 오일본향 ····· 54
18) 눈미 불돗당본풀이 ····· 55
19)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 57
20) 당나미문씨아기당본풀이 ····· 59

21) 도두본향 오름허릿당 ····· 61
22) 동복본향당본풀이 ····· 62
23) 동복본향당본풀이 1 ····· 63
24) 두리빌렛당 두리빌레 용해부인 할마님 ····· 65
25) 마누라본풀이 ····· 66
26) 마라도본향 애기씨 ····· 68
27) 명월본향 축일당 ····· 70
28) 문전본풀이 ····· 71
29) 버들남본 ····· 73
30) 부대각본 ····· 75
31) 비매닛당 비매닛할망당 ····· 77
32) 사계본향 큰물당 ····· 78
33) 삼공본풀이 ····· 79
34) 삼달본향당본풀이 ····· 81
35) 삼두구미본 ····· 83
36) 삼승할망본풀이 ····· 84
37) 상가본향 새당 할으방당 ····· 86
38) 서귀본향당본푸리 ····· 87
39) 선을안판관제주판관본 ····· 89
40) 세경본풀이 ····· 91
41) 세민황뎨본푸리 ····· 94
42) 세민황제본 ····· 96
43) 세화본향당 금상님본풀이 ····· 97
44) 세화본향당 벡주또본풀이 ····· 99
45) ᄉᆞ만이본풀이 ····· 101
46) 손당본향 소천국광 백주할망 ····· 103
47) 솥할망본 ····· 105
48) 시흥본향당본풀이 ····· 106
49) 신천본향 선씨일월 ····· 108
50) 알당(금성) ····· 109
51) 양씨아미본풀이 ····· 110
52) 양이목ᄉᆞ본풀이 ····· 112
53) 열리본향당본풀이 ····· 114
54) 영감본 ····· 115
55) 영등당(한림) ····· 117

56) 예촌보목효돈토평본향당본풀이 ····· 118
57) 오설룡 따님아기 본풀이 ····· 120
58) ᄋᆞ드렛당본풀이 ····· 122
59) 우렝이 김씨조상본풀이 ····· 124
60) 우렝이 신씨조상본풀이 ····· 126
61) 웃당본(토산) ····· 128
62) 원당할망본 ····· 130
63) 원천강본 ····· 131
64) 원텬강본푸리 ····· 132
65) 월정본향당본풀이 ····· 133
66) 이공본풀이 ····· 135
67) 이씨할망조상본 ····· 137
68) 자원당 ····· 138
69) 저지본향 허릿궁할망 ····· 139
70) 지장본풀이 ····· 140
71) 진안할망 ····· 142
72) 차사본풀이 ····· 143
73) 천지왕본 ····· 145
74) 천지왕본풀이 ····· 147
75) 초공본풀이 ····· 149
76) 칠성본풀이 ····· 151
77) 토산일뤳당본풀이 ····· 153
78) 평대본향 신선당 ····· 155
79) 피쟁이조상본 황정싱본 ····· 156
80) 하도본향 삼싱당 ····· 157
81) 함덕본향당본풀이 ····· 158
82) 해안본향 강구물동산당 ····· 159
83) 행원남당본풀이 ····· 160
84) 호근이ᄆᆞ르 ᄋᆞ드렛당본풀이 ····· 162
85) 화순본향 원당밭 일뢰중조 ····· 163

2. 전설 ····· 165
1) 가릿뱅디 ····· 167
2) 가파도 아기업개 바위 ····· 168

3) 가파도와 꿜파트 ····· 169
4) 갈구미 ····· 171
5) 강초간물(강초관물) ····· 172
6) 개미목 명당자리 ····· 173
7) 거슨샘이와 ᄂᆞ단샘이 ····· 175
8) 계첨 박규안(朴奎安) ····· 176
9) 고삭불 장사 ····· 177
10) 고성 고찬원 효자 ····· 179
11) 고성 홍효자 ····· 180
12) 고씨댁 장사 ····· 182
13) 고전적 ····· 183
14) 고전적 부친묘 ····· 184
15) 고종달이 ····· 185
16) 곱은소(1) ····· 187
17) 광정당 말무덤, 영천 손목사 ····· 188
18) 괴이리(槐伊里) ····· 190
19) 구진개와 추근디모들 ····· 191
20) 군산에 얽힌 설화(2) ····· 192
21) 군산의 명당(날개 돋힌 아기장수 설화) ····· 194
22) 기건의 관장 ····· 196
23) 김덕이여 ····· 197
24) 김치 판관과 강림 ····· 198
25) 김통정 장군 ····· 200
26) 김흥조 효자 ····· 202
27) 날개 돋은 아기 ····· 203
28) 날개 돋은 장사 구운문 ····· 205
29) 날개 돋친 아이 ····· 207
30) 날개 잃은 두 아기장수 ····· 209
31) 날래 담는 법을 책에서 찾아 ····· 211
32) 남이 참봉 영감 ····· 212
33) 노승원(노승이드르) ····· 214
34) 당팟당장(Ⅰ) ····· 215
35) 대림 선돌 ····· 217
36) 두모(頭毛)와 지미(地尾) ····· 218
37) 막산이(Ⅰ) ····· 219

38) 막산이와 정훈두 ····· 221
39) 막숙이라는 지명 유래 ····· 223
40) 만덕할망 ····· 224
41) 말머리 ····· 225
42) 명월천 팽나무 ····· 227
43) 모동장에 돌담 두른 안익생 ····· 228
44) 모동장을 민유로 돌린 김두규 ····· 229
45) 무우남밭 이좌수 (Ⅰ) ····· 230
46) 문국성과 소목사 ····· 231
47) 방선문(訪仙門) ····· 233
48) 방성칠의 싸움 ····· 234
49) 백록담(白鹿潭) ····· 236
50) 백중 ····· 237
51) 뱀굴 ····· 238
52) 뱃 속에 오래 살당 나온 아기 장수 ····· 239
53) 범하르방 ····· 241
54) 베락구릉 ····· 242
55) 변당장과 그 아들 ····· 244
56) 변만경과 벤줄래 ····· 245
57) 변인태 ····· 247
58) 별장 김기봉 장사 ····· 248
59) 부부석 이야기 ····· 249
60) 부훈장과 도채비 ····· 250
61) 북두칠성 ····· 251
62) 사돈이 죽으면 팥죽 쒀 간다 ····· 252
63) 사후참판 김명헌 ····· 253
64) 산방덕 ····· 254
65) 산방산 금장지(禁葬地) ····· 255
66) 산방산(山房山)과 방철(房哲)스님 ····· 256
67) 산방산에 묘 안쓰는 이야기 ····· 257
68) 산호 해녀 ····· 258
69) 삼성혈(三姓穴) ····· 259
70) 설문대할망 - 창세 ····· 260
71) 설문대할망 - 거구 ····· 263
72) 설문대할망 - 대식 ····· 267

73) 설문대할망 - 대근 ····· 269
74) 설문대할망 - 대의 ····· 271
75) 설문대할망 - 배설 ····· 275
76) 설문대할망 - 죽음 ····· 277
77) 설문대할망 - 당신 좌정 ····· 281
78) 섬을 개척한 김진사 ····· 283
79) 쇠죽은못〔牛死池〕(Ⅱ) ····· 285
80) 수영악(水靈岳) ····· 287
81) 수월봉(녹고ᄆᆞ루) ····· 288
82) 신대정원 ····· 289
83) 신칩[申宅] 며느리 홍할망 ····· 291
84) 심돌 강씨(姜氏) 할망 ····· 292
85) 씨름판 어부들과의 싸움 사건 ····· 293
86) 아흔아홉골(영실) ····· 294
87) 여우물 ····· 295
88) 연화못 ····· 296
89) 열녀 김천덕 ····· 297
90) 열녀 부씨의 처 ····· 299
91) 열녀 국지 ····· 300
92) 영산이골 ····· 301
93) 영주산과 무선돌 ····· 302
94) 오리수 ····· 303
95) 오별장(吳別將) ····· 304
96) 오찬이궤 ····· 305
97) 오찰방 ····· 307
98) 오찰방 누님 ····· 309
99) 오현단 ····· 310
100) 오 훈장과 그의 서모 1 ····· 312
101) 오훈장과 정지관 ····· 314
102) 용궁올레와 칼선ᄃᆞ리 ····· 316
103) 용머리 ····· 318
104) 용머리바위〔龍頭岩〕 ····· 319
105) 용소와 기우제 ····· 320
106) 용연(龍淵) ····· 322
107) 월계 진좌수 ····· 324

108) 유반석과 무반석 ····· 326
109) 이여도 ····· 327
110) 이재수의 난 1 ····· 328
111) 장군내의 여장군석과 힘센 마누라 ····· 329
112) 장군석(將軍石)과 오공(蜈蚣)동산 ····· 330
113) 장사 고삭배 ····· 331
114) 장사 김팔충 ····· 333
115) 장사 당팟 김당장 ····· 335
116) 장사 송하철 ····· 336
117) 장사 양태수 ····· 337
118) 장사 정운디 ····· 339
119) 장사인 현씨 남매 ····· 341
120) 장수 잃고 빠져 죽은 말 ····· 342
121) 장지(長旨)동산 ····· 343
122) 적객 임관주 ····· 344
123) 정방폭포와 서불과차 ····· 346
124) 정승과 정시 ····· 348
125) 조천 힘센 김씨 하르방 ····· 350
126) 주천석과 만산장 ····· 352
127) 지붕 위의 남자(도평의 여장사) ····· 354
128) 진좌수의 묘 ····· 355
129) 짚신 장수와 물장우리 황룡 ····· 356
130) 채똑똑이 ····· 357
131) 초제탄 ····· 358
132) 최동이 장사(Ⅰ) ····· 359
133) 충효 박계곤 ····· 361
134) 탈산봉 ····· 363
135) 평대 부대각 ····· 364
136) 한새미 강당장 ····· 366
137) 형제섬(쥐섬) ····· 368
138) 호종단(胡宗旦)과 차귀섬[遮歸島] ····· 369
139) 홍리 고대각 ····· 370
140) 효부 이야기 ····· 372
141) 효자 다리 ····· 373
142) 효자와 신선 바둑 구경 ····· 374

143) 힘 센 각시 이야기 ····· 375
144) 힘 센 거문덱이 이야기 ····· 376
145) 힘 센 머슴 먹쟁이 ····· 377
146) 힘 센 며느리 이야기 ····· 379
147) 힘센 이씨 머슴 하르방 이야기 ····· 380
148) 힘 센 장사 ᄌᆞ망이 ····· 381
149) 힘 센 할망 ····· 383
150) 힘과 기예가 뛰어난 강씨 ····· 384
151) 힘이 센 할머니 ····· 385

3. 민담 ····· 387
1) 개와 닭의 원한 ····· 389
2) 겸손을 배운 제자 ····· 390
3) 계모의 모략(1) ····· 391
4) 과거보는 선비 이야기 ····· 392
5) 괴상한 세 동무 ····· 393
6) 구렁이가 된 막내 ····· 394
7) 귀신대2 ····· 395
8) 말 한마디로 복 얻은 노인 ····· 396
9) 말(馬) 이야기 ····· 397
10) 멜 잡는 도채비 ····· 398
11) 사름 아니라는 욕 ····· 399
12) 산도채비 ····· 400
13) 신기한 호랑이 눈썹 ····· 401

Ⅲ. 현지 조사 자료

1. 신화 ····· 403
1) 구할망본풀이 ····· 405
2) 문전본풀이 ····· 407
3) 삼공본풀이 ····· 427
4) 세경본풀이 ····· 438
5) ᄉᆞ만이본풀이 ····· 483
6) 이공본풀이 ····· 488

7) 지장본풀이 ····· 512
8) 차사본풀이 ····· 523
9) 천지왕본풀이 ····· 541
10) 초공본풀이 ····· 544
11) 칠성본풀이 ····· 566
12) 할망본풀이 ····· 574

2. 전설 ····· 579
1) 가시리 당팟당장 ····· 581
2) 가시리 오벨장과 현씨 후손 ····· 585
3) 강초강물 ····· 587
4) 강칩 논과 막산이 ····· 588
5) 고성리 최동이 장사 ····· 591
6) 관덕정과 송씨 하르방 ····· 592
7) 관덕정과 인상냥 ····· 594
8) 광정당과 이형상 목사 ····· 597
9) 군산 명당자리는 금장지 ····· 598
10) 군산 왕자굴 ····· 599
11) 귀덕1리 할망당 ····· 600
12) 귀덕리 분동산과 도체빗불 ····· 603
13) 김녕사굴과 사또 ····· 605
14) 김녕사굴과 이형상 목사 ····· 606
15) 김녕사굴과 제주 목사 ····· 608
16) 김녕사굴 ····· 609
17) 김통정 ····· 611
18) 김통정 장군과 모기 장군 ····· 613
19) 김통정과 아기업게 ····· 614
20) 김통정과 아기업게의 말 ····· 615
21) 김통정의 불치 공출 ····· 616
22) 날개 달린 아기장수 ····· 617
23) 날개 달린 애기장수와 대꼿 ····· 618
24) 남방아 모자로 힘자랑한 하르방 ····· 620
25) 당팟당장의 등짐 ····· 621
26) 대정 막산이 ····· 622

27) 덕수리 불미와 뒷하르방 ····· 623
28) 독 안네 들어도 피허지 못헐 운수 ····· 625
29) 들음돌 든 강씨 할망 ····· 628
30) 들음돌 든 오조리 상군 해녀 ····· 629
31) 듬돌 거리 ····· 631
32) 마라도 할망당 ····· 633
33) 마라도 할망당과 애기업게 ····· 636
34) 막산이 ····· 638
35) 막산이구석 ····· 639
36) 매고무동산 ····· 640
37) 맷돌 들어 옮긴 할망 ····· 641
38) 맹수 엇인 아흔아홉골 ····· 642
39) 메고할망 ····· 643
40) 메고할망과 아홉성제 ····· 645
41) 멩도암 김칩이 큰어멍 귀신 ····· 646
42) 멩월천 펭나무와 종소감 ····· 648
43) 명월리 명의 월계 진좌수 ····· 650
44) 명월리 명의 진좌수 ····· 652
45) 명주할망여 ····· 653
46) 몰모르뜨동산 ····· 654
47) 무남밧 이 좌수 ····· 655
48) 문전하르방 ····· 657
49) 문필봉 ····· 659
50) 물영아리 신물 ····· 661
51) 바람 불게 허는 난두려 ····· 662
52) 박씨 효자 ····· 663
53) 배 모양을 닮은 중문 지형 ····· 665
54) 베 진 하르방 ····· 666
55) 베락구릉 ····· 667
56) 베른내와 노카지오름으로 만든 중문이름 ····· 668
57) 베염바리 집터와 막산이 ····· 670
58) 벰을 죽인 영천 이목사 ····· 671
59) 변인태의 기행 ····· 673
60) 별방 한무덤굴 웡이자랑 ····· 676
61) 부대각 하르방과 그 누님 ····· 678

62) 부대각과 장군혈 ····· 680
63) 비양도 할망당 ····· 681
64) 사계 용머리 동굴의 할망귀신 ····· 682
65) 사계리 ᄌᆞ무래물 ····· 683
66) 산방산 곱쉐돌 ····· 684
67) 산방산 금장지 ····· 686
68) 삼달리 독자봉의 멕을 뜬 고종달 ····· 687
69) 삼달리 충신 강성익 ····· 688
70) 상가리 변씨 형제 ····· 689
71) 생명을 중시한 고성리 홍 효자 ····· 695
72) 서호리 통물과 당 ····· 697
73) 선문대할망 ····· 698
74)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 699
75) 설문대할망과 우도 ····· 702
76) 설문대할망의 다리걸개 ····· 703
77) 설문대할망의 속옷 ····· 704
78) 세명주할망과 멩지 아홉 필 ····· 705
79) 송칩 도체비 ····· 706
80) 수령짓애기와 자청비애기 ····· 708
81) 수맥을 끊으려던 호종단 ····· 712
82) 수월봉과 녹고ᄆᆞ리 ····· 714
83) 쉐ᄆᆞᆯ ᄀᆞ르치는 폭낭 ····· 715
84) 쉐를 잡아먹은 남이 영감참봉 ····· 717
85) 쉐죽은못과 과부 ····· 718
86) 쉐죽인못 ····· 719
87) 신산리 박칩잇 할망과 들음돌 ····· 720
88) 신산리 센동산 홀어멍돌 ····· 721
89) 신산리 피 흘리는 돌 ····· 723
90) 신천리 금덱이여 ····· 724
91) 신풍리 원당할망 ····· 726
92) 신풍리 자운당 ····· 728
93) 썩은다리 누룩돌 ····· 731
94) 썩은섬 ····· 732
95) 아기무덤의 자장가 ····· 733
96) 아기업게당 ····· 734

97) 아흔아홉굴 ····· 735
98) 애삐리코지 유래 ····· 736
99) 애월할망 ····· 737
100) 여벵이의 장난 ····· 738
101) 역적수울 ····· 740
102) 연화못 ····· 742
103) 열녀문동산 ····· 744
104) 영등할망 ····· 745
105) 오름 만든 선문대할망 ····· 746
106) 오봉조 훈장과 서모 ····· 747
107) 오유학과 풋개귀신 ····· 749
108) 오조리 볼락장군 ····· 750
109) 오조리 식산봉과 과부상 ····· 753
110) 오조리 조규 ····· 754
111) 용궁올레와 칼산ᄃᆞ리 ····· 756
112) 용머리 잘린 내력 ····· 759
113) 용수 절부암 ····· 760
114) 우도 김진사 물통 ····· 762
115) 우도 돌페기 ····· 763
116) 우도 득성이코지 ····· 764
117) 월계 진좌수와 묫자리 ····· 765
118) 월림리 세굿동산과 도체비 ····· 767
119) 유수암 오방신장석 ····· 769
120) 유수암 이좌수와 강훈장 ····· 771
121) 유수암 종신당 ····· 772
122) 유수암 통정대부 강문장 ····· 773
123) 유수암 홍좌수 ····· 775
124) 이도령과 춘향이 춤추던 바위 ····· 777
125) 이어도와 토끼간 ····· 778
126) 이한우 선생의 가르침 ····· 779
127) 일로전쟁과 환해장성 ····· 781
128) 일출 구십구봉과 호랑이 ····· 783
129) 장개 안 간 효자 ····· 784
130) 장사 막산이 ····· 786
131) 장오리에 빠져 죽은 설문대할망 ····· 787

132) 저승서 살아온 신양리 저승팡 ····· 788
133) 절부 고씨와 신재우 판사 ····· 790
134) 제주 오롬 만든 설문대할망 ····· 793
135) 제주 사람 위신 지킨 고경준 선생 ····· 795
136) 조방장을 놀린 벤인테 ····· 797
137) 조초막동산의 유래 ····· 799
138) 졸이 장이 되다 ····· 800
139) 종다리로 들어온 호종달 ····· 802
140) 주인 잘 모신 영산이 ····· 806
141) 중문 주상절리대 ····· 808
142) 중산간 돗드르 ····· 809
143) 참판 김명헌 ····· 810
144) 천제연 논골과 채구석 ····· 811
145) 천제연 선녀 ····· 812
146) 최영 장군 ····· 813
147) 추자도 오씨와 황씨의 금혼 ····· 814
148) 추자도 지명유래 ····· 816
149) 충심을 다헌 고성리 홍 효자 ····· 817
150) 큰할망 ····· 819
151) 태인송로즉음(泰仁送路卽吟)과 현덕문 선생 ····· 820
152) 태흥3리 설촌 유래 ····· 822
153) 태흥리 설촌한 오씨 하르방 물 ᄆᆞ는 소리 ····· 823
154) 토산리 강갑댁 ····· 825
155) 토산리 김당장 ····· 827
156) 토산리 당팟당장 ····· 829
157) 토성 쌓은 김통정과 지집아이 ····· 831
158) 풍수가 고전적 ····· 832
159) 하가리 쉐죽은못 ····· 836
160) 하늘에서 내려 온 할망 ····· 837
161) 하도리 할미당의 신통력 ····· 838
162) 하르방 던진 오벡이터 할망 ····· 840
163) 한세미 강당장 ····· 841
164) 헌마공신 감목관 ····· 842
165) 형제섬의 물 ····· 844
166) 호근동 각시바위 ····· 845

167) 호근동과 서호동 나눈 내력 ····· 846
168) 호열제를 막은 신산리 본향 ····· 847
169) 호종단 ····· 848
170) 홍리 지장샘 ····· 852
171) 홍엄선 홍장군 ····· 854
172) 휏부리 장수물 ····· 856
173) 힘쎈 강갑댁 ····· 858
174) 힘쎈 진선달 ····· 859
175) 힘이 세지는 샘물 ····· 860
176) 검은덱이 허씨할망(#) ····· 862
177) 날개 돋은 아기장수(#) ····· 863
178) 덕을 베푼 만덕님(#) ····· 864
179) 말 안 듣는 벤인테(#) ····· 866
180) 설문대할망(#) ····· 868
181) 쉐죽은못(#) ····· 869
182) 신칩 며느리 홍할망(#) ····· 870
183) 열녀할망(#) ····· 871
184) 콩 한섬 하르방(#) ····· 872
185) 효자 고찬원(#) ····· 874
186) 힘쎈 강초관(#) ····· 875
187) 힘쎈 검은덱이(#) ····· 876

3. 민담 ····· 877
1) 가파도 도체비와 영장 ····· 879
2) 각시 셋 헌 정승 ····· 880
3) 갈치와 도체비 ····· 881
4) 고산리 도체빗불 ····· 882
5) 과부와 심방 ····· 883
6) 그슨대 ····· 886
7) 꿩 잡앙 망헌 집 ····· 888
8) 날아다니는 전복 ····· 890
9) 남선비 ····· 891
10) 낮도체비 ····· 893
11) 도깨비 조상과 도깨빗불 ····· 894
12) 도깨비 행세 헷당 원수 뒌 사위 ····· 896

13) 도깨비와 친구 ····· 897
14) 도체빗불 줍젠 허당 물에 빠진 하르방 ····· 898
15) 도체비와 도독놈 ····· 899
16) 도체비와 해월스님 ····· 900
17) 도체빗불 ····· 902
18) 뒈지고기와 도체비 ····· 903
19) 따라비오름 상여소리 ····· 904
20) 멜 들엇덴 ᄀᆞᆯ아주는 도체비 ····· 905
21) 물 ᄒᆞᆫ번 질레 가느니 아기를 나비켜 ····· 906
22) 바당에서 죽은 신산리 아홉 동서 ····· 907
23) 버버리 할망과 봉사 하르방 ····· 908
24) 벡발노인 따라 저승 갓당 온 사름 ····· 909
25) 복 엇인 푸나무 장사꾼 ····· 912
26) 불미귀신 도체비 ····· 914
27) 비 오면 나타나는 기신세 ····· 915
28) 사름 ᄂᆞᆯ 피 내오민 엇어지는 도체비 ····· 916
29) 사름 홀리는 도체비 ····· 918
30) 살인 누명 벗은 주인 ····· 920
31) 소곰밧 귀신 ····· 921
32) 소곰밧 헛게 ····· 922
33) 솟 우에 앚인 문어 ····· 924
34) 솟강알에 불 부찐 도체비 ····· 925
35) 쉐뿔에 쳐 죽을 운 ····· 926
36) 식게칩이 구신 ····· 928
37) 식겟날 큰 비 오는 집 ····· 929
38) 아기업게 말도 들으라 ····· 931
39) 애기무덤에서 나는 우는 소리 ····· 932
40) 여우누이와 오빠 ····· 933
41) 여자로 둔갑한 샘물의 도체비 ····· 935
42) 오설룡ᄯᅮ님아기 ····· 936
43) 올레서 만난 기신세 ····· 938
44) 왕의 후사가 뒌 영의정의 아들 ····· 939
45) 우스갯소리 ····· 944
46) 위기 면한 강소은 ····· 945
47) 잔칫집에 따라간 정읫골 벰조상 ····· 946

48) 저승 다녀온 명월리 할망 ····· 949
49) 저승 다녀온 우도 할망 ····· 950
50) 저싱 사흘 이싱 삼십년 ····· 951
51) 적둑베기 일러분 가마귀 ····· 953
52) 전생 업보로 만난 남편 ····· 954
53) 젊은 남자로 둔갑헌 도체비 ····· 957
54) 족은뚤과 마퉁이 ····· 959
55) 지붕우티 하르방 ····· 961
56) 청나라 황제가 된 부씨 ····· 962
57) 콩데기 풋데기 ····· 966
58) 콩데기영 풋데기영 ····· 967
59) 콩씨애기 풋씨애기 ····· 968
60) 파랑한 도체빗불 ····· 969
61) 풋버렝이 ····· 970
62) 한복 입은 여자로 둔갑헌 도깨비 ····· 971
63) 해와 둘이 뒌 오누이 ····· 973
64) 헛게 ᄯᅳ라 간 사름 ····· 974
65) 헛게 소리 ····· 975
66) 호랑이와 해님 달님 ····· 976
67) 힘쎈 벤할망 ····· 978
68) 힘쎈 할망 ····· 979
69) 꼬부랑개(#) ····· 980
70) 도체비와 반딧불(#) ····· 981
71) 재 닷 줄과 모래 닷 줄(#) ····· 982

<부록>

1. 설화 관련 도서 목록 ····· 985
2.「제주어 표기법」 ····· 990

Ⅰ. 발간 개요

1. 취지와 범위

‘제주 설화 등 문화원형 종합 기록화 사업’은『제주문화원형-설화편 1』을 발간하여 제주의 설화를 발굴하고 기록하여 연구자와 대중들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제주 설화(신화, 전설, 민담)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창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제주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제주 설화 관련 자료는 온라인 서비스(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기존 자료(설화) 해제와 현지조사 자료는 오프라인(책자)으로 발간하였다. 이는 연구자와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제주 설화 관련 자료 제공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책자) 게재 등 2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1) 온라인 게재

(1) 기존 자료(제주 설화) 각 편 관련 원문 제공

1950년대부터 2016년까지 발간된 제주 설화 자료(개인 저서, 읍・면지, 마을지, 국문학보, 백록어문, 공공기관 저작물 등)들을 수집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제주 설화 4,590편 중에 최종 선정 기준에 적합한 269편 대상 원문을 그대로 제공한다.

(2) 기존 자료(제주 설화) 해제 제공

제주 설화 관련 총목록을 수집하고 분석한 후 객관성을 띤 설화 1편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해제를 작성하였다.

설화 해제 목록 작성 시 설화 제목이 동일한 경우 발행일이 앞선 자료를 원문 제공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분류와 중분류로 구분하였다.

이 분류 기준은 설화 원문 목록, 설화 해제 목록, 현지조사 목록에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온라인용 설화 총목록 파일에도 반영하여 이용자들이 설화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대분류 : 신화, 전설, 민담

□ 중분류

- 신화 :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 전설 : 역사, 인물, 지명, 장사, 풍수, 신앙, 자연, 효자, 광포전설
- 민담 : 인물, 동물, 본격담, 세속담, 소담, 원혼담

(3) 현지 조사 자료 제공

기존 자료에서 최종 선정된 269편을 대상으로 2016년에 현지 조사한 설화를 수록하였다.

2) 오프라인 게재(책자 발간)

(1) 기존 자료(제주 설화) 해제 수록

(2) 현지 조사 자료 수록

2. 방법과 내용

1) 온라인 게재용 제주 설화 원문 제공 선정 기준

제주 설화 목록 중에서 연구진 협의를 거쳐 설화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대상을 선정하였다.

제주 설화 총목록 4,590편을 조사·분류한 후, 4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 최종 269편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저작물 이용 협의(개인, 공공기관 등)를 완료하였다.

설화 자료는 기록화된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신화, 전설, 민담의 틀 목록에 적합한 것 위주로 선정하였고, 설화 전승 지역별, 제보자별로 겹치는 목록은 제외하였다.

설화 목록 선정 기준은 1차 현지 조사한 자료에 한정하고, 제주의 정체성이 반영 된 이야기와 보편성을 띠며, 널리 전승되는 이야기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민담 중에는 제주의 특성이 반영되고 신화적인 요소가 포함된 것을 선정하였다.

다른 지방이나 제주 이외의 인물과 관련이 있는 설화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견이 반영된 이야기도 제외하였다.

2) 기존 자료(제주 설화) 해제 작성 기준

제주 설화 자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선정된 원문 269편 중 중복되는 작품을 제외하고 총 249편 대상으로 해제를 작성하였다.

각 편에 대한 해제 작성 시 해당 설화 관련 줄거리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특징을 서술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설화마다 이용자가 충분히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핵심어를 뽑아 반영하였으며 원전 서지사항과 제목과 내용이 유사한 설화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도 함께 게재하였다.

3) 현지 조사 수록 기준

기존 자료를 분석한 후 해제 작성 목록으로 선정된 설화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269편을 기준 삼아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70편을 수록하였다(온라인 255편, 책자용 270편).

2016년 제주 설화를 신규로 조사할 때는 기존에 선정된 목록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이 목록에 없는 이야기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과거에 조사된 설화와 최근에 조사한 설화 간에 화소, 이야기 분포 지역 등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는 비교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4) 제주 설화 관련 코드번호 부여 방법

설화는 원문, 해제, 현지조사를 구분하여 T(Text-원문), C(Construction-해제), W(Work-현지조사) 등의 약호를 사용하였고, 각각의 영역에 설화의 분류 기준에 따라 M(Myth-신화), L(Legend-전설), F(Folktale-민담)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좀더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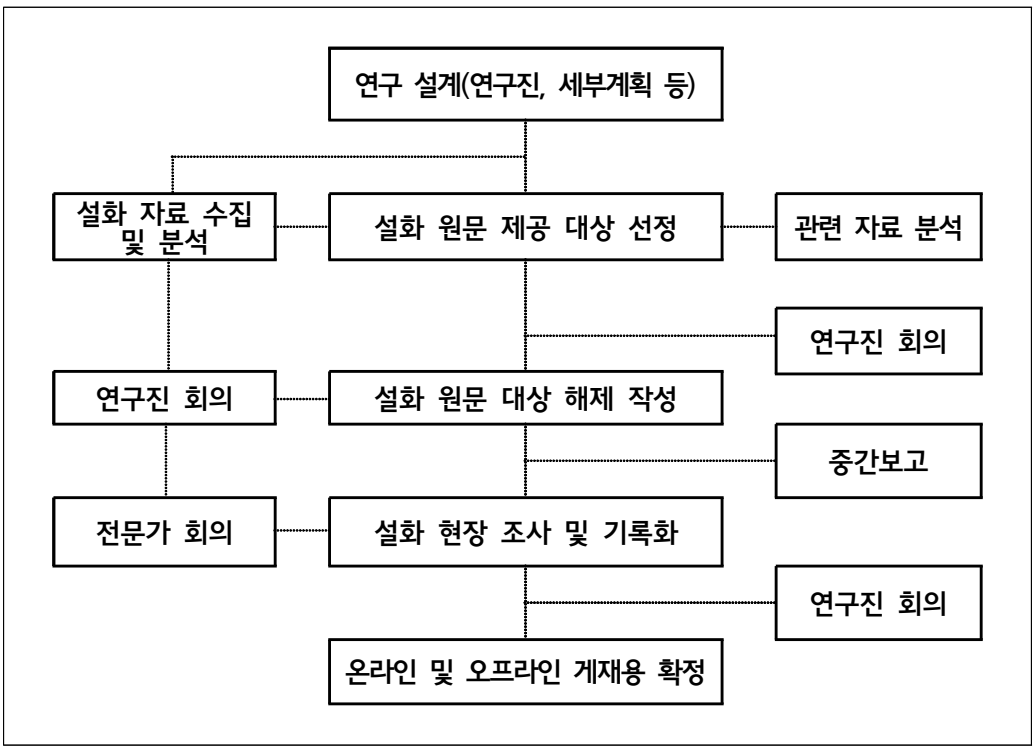
기존 설화 원문을 그래도 제공할 때 코드번호는 T(Text)를 앞부분에 적고, 신화M(Myth), 전설L(Legend), 민담F(Folktale)의 첫 이니셜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T_M_001>은 신화 원문 1번을, <T_L_001>은 전설 원문 1번을, <T_F_001>은 민담 원문 1번을 나타낸다.

기존 설화 해제를 제공할 때 코드번호는 C(Construction)를 앞부분에 적고, 신화M(Myth), 전설L(Legend), 민담F(Folktale)의 첫 이니셜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C_M_001>은 신화 해제 1번을, <C_L_001>은 전설 해제 1번을, <C_F_001>은 민담 해제 1번을 나타낸다.

현지 조사 자료를 제공할 때 코드번호는 W(Work)를 앞부분에 적고, 신화M(Myth), 전

설L(Legend), 민담F(Folktale)의 첫 이니셜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W_M_001>은 신화 현지 조사 자료 1번을, <W_L_001>은 전설 현지 조사 자료 1번을, <W_F_001>은 민담 현지 조사 자료 1번을 나타낸다.

5) 제주 설화 기록화 사업 수행 단계



3. 일러두기

1) 설화 원문은 원 자료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원문을 그대로 한글파일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일부 작품에서는 문자기록화 시기에 따라 현행 「한글 맞춤법」이나 「제주어 표기법」(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4-115호, 2014. 07. 18.)과 다를 수 있다.
2) 2016년에 조사한 현지조사 설화 제목은 주화소, 부화소를 중심으로 지명과 결합하여 정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은 이야기 간의 화소가 같아 연관성은 있으나 모두 제목을 다르게 하여 설화 각 편을 구분하였다.
3) 제보자가 이야기를 전달할 때 표준말과 제줏말을 번갈아 사용할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제보자가 발화한 내용 중에서 도깨비와 도체비를 둘 다 발음할 경우 본문에서는 두 단어를 모두 기록하였다.
4) 설화 제목(인명, 지명 등) 표기 방법은 제보자의 발음에 근거하여 기록하였다. 제보자가 제줏말과 표준말을 섞여서 발음한 경우, 제줏말을 제목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설화 제목을 정할 때는 이야기 제보자가 발음한 단어에 가장 가까운 제줏말로 기록하였다.
5) 2016년 채록한 설화 내용은 「제주어 표기법」에 맞게 표기하였다(부록 참조).
   다만 「제주어 표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하면 제보자의 발음(제주어 표기법에 맞지 않을 때)을 최대한 존중하여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6) 온라인-오프라인 게재 작품 구분 표시 방법
   2016년에 현지 조사한 설화 중에 온라인 서비스가 곤란한 내용은 오프라인(책자용)에만 수록하였다.
   책자에만 수록된 설화는 뒤로 배치하고 제목에 (#)을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7) 제주 설화 목록 파일에 사용된 부호(*) 안내
   설화 제목에 아래아 <ㆍ>가 들어간 경우 액셀프로그램에는 표시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단어는 '오'로 작성하고, 해당 단어 앞에 <*>를 표시하였다.

□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문순덕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강정식	(사)제주학연구소 소장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오창명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허남춘	제주대학교 교수
공동연구 (현지조사)	김선희	제주대학교 강사
	문경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송정희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제주지부장
	이현정	(사)제주학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	김은정	제주연구원 위촉연구원
	정이슬	제주연구원 연구보조원

Ⅱ. 기존 자료 해제

신화

C_M_001 각시당본풀이

1 개요

각시당본풀이는 제주시 삼도동에 있던 각시당에 얽힌 무속신화이다.

옥황상제 말젯딸[末女]이 부모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인간세상으로 귀양을 당하여 아이들의 산육을 돌보는 당신으로 좌정하였다.

2 내용

옥황상제의 말젯딸이 궁녀와 시녀를 굶긴 죄로 인간세상으로 귀양을 당한다. 말젯딸은 중의 행색을 하고 삼내나목골로 대밭으로 내려간다. 주민들의 꿈에 나타나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산육신의 구실을 한다. 주위가 부정하게 되니 막대동상 지경의 오랜 팽나무 아래로 옮긴 뒤에도 오랫동안 당신으로 섬김을 받는다.

3 특징

이달춘본 각시당본풀이는 줄거리로만 간략히 이루어진 자료이다. 당신본풀이 가운데 드물게 적강화소를 근간으로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옥황상제 말젯딸이 부모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인간세상으로 내쳐져 중의 복색을 하고 불도로 대접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할망본풀이의 멩진국따님 좌정담이 적강화소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시당본풀이는 특별한 사례일 수 있다. 당신이 천상적인 존재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옥황상제의 딸이라고 한 것은 요왕황제의 딸이라고 하던 것의 변형일 수도 있다. 각시당은 보편적인 사례로 보면 홀로 좌정한 여신의 당이다. 그러나 처녀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앙은 특별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해도 좋다. 보편적인 사례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보편적인 사례의 변모로 이해해야 마땅하다.

각시당은 제주시 삼도동 남문통에 있던 당이다. 옥황상제 말젯딸, 삼천벵메, 짐씨영감 등을 함께 모셨다. 제물로는 백메, 벡돌레, 놋기 당산메, 청감주, 계란안주 등을 올렸다. 옥황상제 말잣딸은 산육신임에도 일뤳당신과는 다른 성격을 지녔다. 불도라고 하면서 불

교적인 속성이 더해지자 돼지고기를 금기하는 신으로 관념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짐씨영감은 당의 내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인물의 영혼이다. 각시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전되었는데, 이는 시가지의 변모에 따른 것이다.

4 핵심어

옥황상제 말젯딸, 귀양정배, 적강, 삼내나목골, 산육신, 막대동상, 삼도동, 남문통, 짐씨영감 삼천벵메, 처녀당

5 원전 서지사항

각시당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

C_M_002 고내본향

1 개요

고내본향 본풀이는 애월읍 고내리의 본향당과 관련하여 전승되는 신화이다.

탐라 시절 천자국에서 제주를 욕심내어 차지할 요량으로 김통정을 보내었으나 김통정이 욕심이 생겨 돌아가지 않자 삼장수를 보내어 김통정을 처단하였는데, 이때 삼장수는 임무를 마치고도 벨궁ᄌᆞ따님아기에게 반하여 고내리에 머물러 당신이 되었다.

2 내용

옛날 탐라 때 제주도가 축산과 생산이 좋다고 하니 대국 천자국에서 김통정을 제주로 보내어 사정을 알아보게 하였다. 김통정은 모든 생산이 탐나 항파두리에 토성을 쌓아 쇠문을 달고, 성 위에 재를 깔고 말꼬리에 빗자루를 달아 말을 몰아 재를 날려 온 섬을 감추어 숨어버렸다.

김통정이 돌아오지 않자 천자국에서는 다시 황서, 을서, 병서 삼장수를 보내어 붙잡아 오게 하였다. 삼장수가 김통정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때 어떤 계집아이가 삼장수를 비웃으면서 무쇠문을 불로 달구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삼장수는 계집아이의 말 대로 무쇠문을 불로 달구니 문이 녹기 시작하였다.

김통정은 할 수 없이 임신중인 아내를 죽여두고, 무쇠방석을 수평선 근처 관탈 섬을 향하여 던지니 방석이 물에 뜨므로 그 위에 올라앉았다. 황서는 새로 변신하여 김통정의 머리 위에 앉아 괴롭히고, 을서는 새우로 변신하여 김통정의 자리를 괴롭히니, 김통정의 목이 흔들리면서 비늘이 들쳐졌다. 병서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은장도로 목을 베어 죽였다. 삼장수는 김통정의 목을 상관에 바쳤다.

한편, 용왕국 벨궁ᄌᆞ따님아기는 부모에 불효한 죄로 귀양을 당하여 고내봉 팽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삼장수는 벨궁ᄌᆞ따님아기의 고운 얼굴에 반하여 고내리로 찾아와 고내리 토지관, 곧 본향신이 되었다.

힘센 세칫하르방이 낚시를 갔다 오다가 본향당에서 굿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을 토지관이 자손을 괴롭힌다고 하고 자신을 먼저 모시라고 야단쳤다. 이리하여 세칫하르방도 따로 모시기 시작하였다.

3 특징

애월읍 납읍리 진유아 여무가 구연한 자료이다. 역사 속 인물인 김통정이 등장하고 있다. 김통정이 항파두리에 토성을 쌓아 무쇠문을 달고 재를 흩날려서 방비를 하여 진압하기 어려웠는데 아기 업저지가 하는 말에 따라 불로 문을 달구어 성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김통정이 주술로 관탈로 도망하자 역시 주술로 좇아가 목을 베었다는 이야기는 전설로 널리 전한다.

이 본풀이에서는 김통정과 삼장수를 모두 천자국 장수로 설정하였다. 이 삼장수의 본 모습은 <광정당본풀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래 토착적인 신격이었는데 김통정과 결부되면서 외래적인 신격으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삼장수를 달리 설정하다보니 요왕국말잣딸아기에 대응하는 벨궁ᄌᆞ따님아기와 인연 맺는 과정이 순탄하게 처리되지 못하였다.

한편 셋칫하르방 내력을 덧붙이기는 하였으나 이조차 순탄치 못하다. 셋칫하르방은 이동네 힘센 영감이었는데, 굿을 할 때 심방이 당신을 청하느라고 힘쓰는 데도 불구하고 신이 쉽게 응하지 않아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고 신에게 야단을 치는 배포를 보여, 그 자신도 당신으로 대접받기 시작하였다고 전하는 인물이다.

4 핵심어

대국, 천자국, 김통정, 황서, 을서, 병서, 삼장수, 항파두리, 토성, 무쇠문, 계집아이, 벨궁ᄌᆞᄯᆞ님아기, 관탈, 무쇠방석, 셋칫하르방

5 원전 서지사항

고내본향(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03 고대장본풀이

1 개요

고대장본풀이는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 고만호 댁에서 모시는 조상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고대장은 뛰어난 심방이어서 이형상 목사가 당을 철폐할 때 제주성 일대의 당을 지켜내었고, 조천읍 선흘리 안씨 댁 굿을 갔더니 그 집안의 조상신이 따라온 덕에 발복하였으며, 큰 가뭄이 들었을 때는 기우제를 하여 비를 내리기도 하였다.

2 내용

영천(永川) 이목사(李牧使) 시절, 이목사가 당과 절을 파괴하며 제주 삼문 안에 들어왔을 때, 마지막으로 남문 밖 각시당을 파괴하려고 심방을 불렀다. 이때 무근성(陳城洞) 고만호 대장이 팔자가 궂어 큰 심방이 되었는데, 목사가 고씨 심방에게 각시당의 영험함을 보이라고 명하였다. (또한 스님을 불러다가 불공을 하여 동헌에 눕혀 놓은 불상이 일어나게 하는 영험을 보이게 하였다. 스님은 영험함을 보이는 데 실패하였다.) 영천 목사는 각시당에 벵맷기(兵馬旗) 꽂아놓은 것을 보고, 굿을 하여 깃발이 동헌까지 걸어오게 하라고 하였다. 심방은 칠일 정성을 드릴 시간을 달라고 청하고, 집으로 돌아가 당주에 신원을 올려두고 도내의 심방들을 불러 7일 되는 날 동헌 마당에서 굿을 하였다. 굿을 하니 갑자기 천하가 요동하더니 깃발이 떨리기 시작하였다. 이를 본 영천 목사는 삼문 안 신당은 영험하다고 인정하고 그대로 둔 채 섬을 떠났다. 이로 해서 삼문 안 각시당, 광양당, 내왓당, 운주당, 고스락당, 칠머리당 등이 유지되었다.

옛날 순흥고을 안씨 포수 삼형제가 입도하여 제각기 나뉘어 살았다. 첫째는 어음리, 둘째는 납읍리, 막내는 선흘리에서 살았다. 첫째와 둘째는 사냥이 잘 되는데, 막내는 사냥이 잘 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았다. 막내가 하도 갑갑하여 점을 보니, 산신에 기도를 드리라고 하였다. 유명한 무근성 고씨 심방을 청하여 큰굿을 하였다. 고씨 심방이 굿을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에 상안체를 짊어진 소미가 난데없이 짐이 무거워져서 살펴보니 작은 뱀인 청만주에미, 흑만주에미가 들어 있었다. 고 씨 심방은 만주에미가 자신에게 태운 조상임을 알고 그대로 모셨다. 또한, 고 씨 심방은 허기져 쓰러진 중을 발견하고, 떡을 먹여 구해주었다. 중은 고씨 심방에게 기도를 갔던 집안의 부군칠성이 조상으로 따라왔음을 일러주었다. 고 씨 심방은 중을 자기 집에 하룻밤을 묵게 해주었다. 다음날 아침, 중은 고씨 심방에게 터가 좋으니 집을 짓고 살면 용수가 마를 때까지는 발복할 것이라고 하고, 아울러 부모의 묏자리를 찾아 주었다. 그 덕으로 고 씨 심방은 상통천문 하달지리하고 대정현감을 지냈다. 그 자손도 제주도내 주요 관직을 두루 맡았다. 그러나 용수의 물이 줄어들

자 자손들도 사그라지고 재산도 없어졌다.

옛날 제주에 칠년 가뭄, 구년 흉년이 들었다. 기우제를 지내도 소용이 없었다. 이때 고대장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내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금방 내릴 것이라고 혼잣말을 하였다. 이 말을 전해들은 사또가 고대장을 동헌으로 불러 기우제를 지내라고 하였다. 고대장은 도내의 심방들을 모두 불러다가 용소머리에 있는 당밭에 천막을 치고 사당클을 매고, 생짚으로 쉰닷 발 되는 용을 만들어 사당클에 올리고 꼬리는 용소에 담가 굿을 하였다. 굿을 마칠 때까지도 비가 내리지 않자 심방은 신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늘을 원망하니, 갑자기 큰비가 내렸다. 심방들이 용을 둘러매고 동헌 마당으로 들어가니, 관장과 관속들이 비가 그칠 때까지 잔치를 벌였다. 금새 가뭄이 해소되니 그 해부터 칠월 열나흘 백중 때가 되면 심방들은 백중대제일을 지내고 백중마량으로 곡식을 받아오는 법이 생겼다.

3 특징

조상신본풀이에 속하는 전승이다. 세 가지 개별적인 전승이 연속되어 있다. 고대장은 본래 심방이다. 대장은 대정(大靜)의 와음이다. 자손이 대정현감을 지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이야기는 이형상 목사가 당을 철폐할 때 굿을 하여 영험함을 보임으로써 제주성 인근의 당을 지켜내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야기는 남의 집에 굿하러 갔는데 워낙 굿을 잘하여 그 집의 조상신이 심방을 따라와 재복을 이루어주었다는 것이다. 셋째 이야기는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용연에서 기우제 격의 굿을 하여 비가 내리게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고대장은 뛰어난 심방이었다는 것이 요지이다.

4 핵심어

영천 이목사, 이형상, 당 오백, 무근성, 고만호, 각시당, 남문통, 벵맷기, 순흥고을, 안씨, 삼형제, 어음리, 납읍리, 선흘리, 부군칠성, 만주에미, 안체포, 용소, 기우제, 사당클, 백중대제일, 백중마량

5 원전 서지사항

고대장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

용담동 용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용소와 기우제(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C_M_004 고도채비본

1 개요

고도채비본은 날래기가 도깨비와 같은 고씨 성을 가진 사람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성산읍 시흥리 고도채비는 매우 날랜 사람으로 신축년 난리 때 총알을 피하며 동문을 열어젖혔으나 곧 붙잡혀 국문을 받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임금에게 뛰어난 활쏘기 실력을 보여 처벌을 피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았다.

2 내용

옛날 심똘(시흥리)에 고도채비라는 사람이 살았다. 고도채비는 매우 재빠르고 손으로 노루나 사슴을 잡을 정도로 사냥에도 뛰어났다. 신축년 난리 때 고도채비가 크게 활약하였다. 제주성 동문 위에서 서양신부가 양총으로 쏘는 것을 피하고 서양 신부를 죽이고는 천주교도들이 놀라 달아나는 틈을 타서 입성하였다. 그러나 나라가 약한 탓에 오히려 성교파를 옹호하면서 난리의 원인을 백성의 탓으로 돌리고, 3의사(오대현, 강우백, 이재수)와 삼읍의 선봉을 모두 잡아 국문을 하였다.

고도채비도 국문을 받게 되었다. 임금이 고도채비를 국문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활을 잘 쏘는지를 물었다. 고도채비는 물에 비친 새 정도는 그림자만 보고도 쏠 수 있다고 하였다. 임금이 고도채비에게 활을 내주고 큰 옹기대야에 물을 담아, 그 위에 새가 날아오거든 쏘아보라고 하였다. 얼마 후 물동이 위에 밥주리(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오자, 고도채비가 그림자만 보고 쏘아 맞혔다. 이를 본 임금이 크게 감탄하면서 양총 한 자루를 하사하였다. 고도채비는 총을 하사받고 제주도로 돌아왔다. 마을에서 총을 빌리고 싶어도 어사품이라서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

3 특징

특정한 집안에서 수호신으로 모시는 조상신의 내력을 담은 조상신본풀이 가운데 하나이다. 도채비는 도깨비다. 사람이 도깨비처럼 날랬기에 이와 같은 별명이 붙었다. 그리 오래

전의 이야기가 아니다. 개항기의 사정을 담았다. 임금에게 국문을 받을 정도이니 죽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나, 활쏘기 능력을 보여 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고 돌아왔다고 하였다.

조상신본풀이가 늦은 시기까지 생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4 핵심어

심똘, 시흥리, 사냥, 신축년 난리, 제주성, 동문, 서양신부, 양총, 천주교도, 성교파, 3의사, 오대현, 강우백, 이재수, 삼읍, 국문, 활, 물동이, 밥주리, 잠자리, 어사품, 고도채비

5 원전 서지사항

고도채비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05 고성신양수산본향당본풀이

1 개요

고성신양수산본향당본풀이는 성산읍 고성리 · 신양리 · 수산리 사람들이 함께 모시는 수산 울뤠ᄆᆞ루당의 내력을 담은 당신화이다.

중국에서 솟아난 하로산은 부모에게 버려져 구좌읍 송당리로 가서 금벡주와 혼인하여 살다가 돼지털에 찔린 금벡주를 부정하다며 마라도로 귀양보내고 용왕국 말잣딸아기를 작은부인으로 삼았는데, 용왕 말잣딸아기가 큰부인의 귀양을 풀어주게 하고 함께 살다가 수산리로 옮겨 당신이 되었다.

2 내용

하로산은 중국에서 솟아나 공부를 하다가 부모에게 거슬린 탓에 귀양정배를 당하여 제주 남방국으로 갔다. 송당리에 이르러 금벡주를 대부인으로 삼았다. 대부인이 목이 말라 홈에 고인 물을 마시다가 돼지털에 찔려 피가 났다. 하로산은 부정하다며 대부인을 대정 마라도로 귀양을 보내고, 용왕국으로 가서 말잣딸아기를 소부인으로 삼아 돌아왔다.

소부인은 대부인의 사정을 알고 귀양을 풀라고 하고 직접 대부인에게 갔다. 대부인은 아기 일곱을 낳아 기르고 있었다. 소부인은 아기 일곱을 데리고 먼저 출발하고, 대부인은 따로 나섰다. 삼부처는 송당에서 함께 살면서 자손을 많이 낳았다. 삼부처는 송당리에서 할 일이 없어 재산을 물려주고 수산리 울뤠ᄆᆞ루로 가서 좌정하였다.

3 특징

조옥선 심방이 전승하던 자료이다. 고성신양수산본향당은 성산읍 수산1리 울뤠ᄆᆞ루에 있다. 주신은 하로산또이다. 이 자료는 서사맥락이 순탄하게 처리되지 않았다. 첫머리에서 “본산국은, 아방국은 종달리 어멍국 멩호부인, 중국 대국서 솟아난 한집”이라고 되어 있다. 성산읍 온평 · 신산본향당, 구좌읍 종달본향당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정작 본풀이의 내용은 송당본향당본풀이와 관련이 많다.

끝부분에 가서야 “중국에서 솟아난 한집”이 곧 하로산임을 알 수 있다. 대부인과 소부인의 관계도 불분명하게 처리하고 말았다. 돼지고기 금기를 어겨 쫓겨나는 신과 용왕 말잣딸아기는 대개 같은 신격으로 설정된다. 용왕 말잣딸아기가 돼지고기 금기를 어겨 별거를 당한 뒤에 일곱 아기를 낳아 기르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산육·치병신이 되거나 해녀와 어부를 돌보는 생업수호신이 되는 법이다.

4 핵심어

하로산, 중국, 귀양, 송당리, 금벡주, 대부인, 소부인, 돼지털, 마라도, 용왕국, 말잣딸아기, 수산리, 울뤠ᄆᆞ루

5 원전 서지사항

고성신양수산본향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 관련 자료

C_M_006 고전적본

1 개요

고전적본은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고씨와 김씨 집안의 수호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고전적 자손이 장잇고을 현감살이하러 갔다가 귀향할 때 딸에게 선물로 준 옷감에 따라온 한양일월이 딸에게 병을 일으켜 굿을 하는데 양반집이라는 이유로 춤을 추지 못하게 하자 딸이 동이처럼 웅크려 죽고 말았다.

2 내용

명도암(현 제주시 봉개동) 고씨 댁은 산수의 영기(靈氣)가 좋아서 글장원, 활장원을 하는 글선비와 활선비가 많이 났다.

명도암 고씨 댁에 벼슬살이한 인물이 여럿 날 때, 고전적(高典籍) 자식이 상시관에 임명되어 장잇고을 현감으로 갔다. 고전적은 현감을 3년 살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파랑저고리, 연반물 다홍치마, 갑사댕기를 딸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때 파랑저고리, 연반물 다홍치마 서대상자, 오색상자에 한양일월조상이 따라왔다.) 아기씨는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하였다.

아기씨가 여덟 살 되던 해, 정의현 예촌 양씨 댁과 혼인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아기씨가 부모형제도 몰라볼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어 버렸다. 하루는 아기씨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서 찾을 수가 없었다. 아기씨를 돌보던 하녀 느진덕정하님이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장이현감이 선물로 준 연반물 다홍치마의 조각이 산중 새비낭(찔레나무) 가시마다 찢겨 걸려 있었다.

한편, 아기씨는 혼인하기로 한 예촌 양씨댁 울안 대밭에서 버들피리를 불고 있었다. 예촌 양씨 댁 머슴이 잠결에 피리소리를 듣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양씨 댁 일꾼들이 풍년가를 부르면서 모를 심는데, 찢어진 연반물 다홍치마를 입은 아기씨가 나타나 양손에 모를 들고 춤을 추었다. 아기씨 뒤를 좇던 느진덕정하님이 이를 보고 아기씨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사랑방으로 데려다 놓은 뒤 큰상전에게 고하였다.

장이현감이 무녀 이원신에게 알아보니, 이원신은 한양일월조상이 물색에 따라와서 이리된 것이니 큰굿을 하라고 하였다. 큰굿을 시작하여 대시왕연맞이가 가까워질 때, 죽어가던 아기씨가 연주청에 오물떡을 먹더니 시왕상 앞으로 나가 춤을 추었다. 이 모습을 본 현감이 양반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기씨를 사랑방에 가두었다. 아기씨는 동이처럼 웅크린 채 죽었다. 아기씨를 대신하려던 느진덕정하님 악셍덱과 굿을 마치고 돌아간 심방도 죽었다.

장이현감이 명도암 고장남밭에 세 사람의 묘를 마련하였다. 이 조상을 모시는 집안에서

굿을 하려면 대시왕연맞이 연주청에 오물떡으로 가문잔치를 하고 동이를 꾸며 동이풀이를 해야 한다. 명도암 고전적, 김전적 양사돈으로 전승되는 조상이다.

③ 특징

조상신본풀이 가운데 대표적인 자료이다. '고전적본'이라고 하였으나 '고전적따님아기본'이라고 할 만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 장이현감과 한양일월조상의 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른 조상신본풀이의 사례에 따르면 대개 이 둘은 정을 나누던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이고을은 정의현으로 풀이하기도 하나 조상신본풀이의 보편적인 사례에 따르면 바다 건너에 있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④ 핵심어

명도암, 상시관, 장잇고을, 장이현감, 한양일월조상, 정의현, 예촌 양씨, 느진덕정하님, 이원신, 악셍덱, 큰굿, 대시왕연맞이, 연주청 오물떡, 가문잔치, 동이풀이

⑤ 원전 서지사항

고전적본(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⑥ 관련 자료

C_M_007 곤물당본풀이

1 개요

곤물당본풀이는 안덕면 화순리 곤물당의 내력을 전하는 신화이다.

고성목은 급히 큰 길을 만들라는 목사의 명령을 받고 고민하던 차에 길이 생기는 꿈을 보았는데 실제로 길이 만들어져 위기를 벗어났으나 다시 위기가 닥칠 것을 염려하여 산방산으로 몸을 숨겼다.

2 내용

어느 목사시절 고성목은 과원을 지키고 사또에게 진상을 바치며 부자로 살았다. 목사가 순력을 돌게 되자 갑자기 석자 너비로 길을 내고, 다섯 자 두께 흙을 깔아 번듯한 길을 만들라고 하였다. 고성목은 고심하다가 길이 만들어지는 꿈을 꾸고 나가 보았더니 과연 길이 생겨 있었다. 목사가 보고 고성목은 인간이 아니라고 칭찬하였다. 고성목은 다시 위험한 일이 닥칠까 염려하여 남신(나막신)을 신고 "주우는 삼방덱이 네 주어라."고 하며 산방산으로 숨어버렸다. 성씨, 지씨, 양씨, 박씨 두 집안 사람들이 고성목이 살던 터에 당주를 만들고 본향신으로 삼았다.

3 특징

곤물당은 안덕면 화순리 곤물동네에 있다. 고성목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신력의 도움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다만 어려운 과제를 받아놓고 고민하던 차에 꿈에서 본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었을 따름이다. 사람들은 비슷한 일이 거듭 닥치면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몸을 숨긴 것이 뛰어난 선택이었다고 믿어 신으로 섬겼음직하다. '삼방덱이'는 산방덕인데, 다른 전승에서는 고성목과 산방덕을 관련지어 이야기하기도 한다.

4 핵심어

화순리, 고성목, 과원, 진상, 순력, 길, 남신(나막신), 삼방덱이, 당주, 본향신, 산방덕

5 원전 서지사항

곤물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 관련 자료

C_M_008 광정당본풀이

1 개요

광정당본풀이는 안덕면 덕수리 지경에 있던 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제주목, 정의현, 정의현을 대표하는 광양당신, 선앙당신, 광정당신은 삼형제로 용왕의 도움을 받아 김통정을 죽이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당신으로 좌정하였다.

2 내용

김통정이 항파두리에 들어와 토성을 쌓고 위에 재를 깔고 말꼬리에 빗자루를 달아매어 달리게 하니 세상이 캄캄해졌다. 이에 광양당, 선앙당, 광정당의 신 세 형제가 김통정을 잡으러 갔다. 김통정이 무쇠방석을 바다에 던져놓고 날아가 깔고 앉았다. 용왕이 새의 몸으로 변신하여 방석을 잡아당기니 김통정은 매가 되어 달아났다. 큰형 광양당신이 따라 날아가 김통정이 목을 든 틈에 비늘 사이로 찔러 죽였다.

삼형제는 활을 쏘아 차지할 땅을 가렸다. 큰형이 쏜 화살은 정의와 대정 사이에 떨어져 정의와 대정의 경계를 삼았다. 둘째가 쏜 화살로는 제주목과 정의 경계를 삼았다. 막내가 쏜 화살은 제주목과 대정 사이에 떨어져 그곳을 제주목과 대정의 경계로 삼았다. 그리고 큰형은 제주목 광양당, 둘째는 정의 선앙당, 막내는 대정 광정당에 좌정하였다.

3 특징

당신이 실재 인물을 징치하고 활을 쏘아 차지할 땅을 정한 뒤에 당신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들 당신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존재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존재가 외래적 존재인 김통정을 징치하였다고 한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김통정과 도술시합을 하였다는 내용은 가락국기의 수로와 탈해의 경쟁을 보는 듯하다. 활쏘기를 통하여 경계를 분명히 하고 살 곳을 정하였다는 내용은 삼성신화에서도 보인다.

4 핵심어

김통정, 항파두리, 말꼬리, 광양당, 선앙당, 광정당, 삼형제, 무쇠방석, 활쏘기, 도술시합, 삼성신화, 제주목, 정의, 대정, 안덕면 덕수리

5 원전 서지사항

광정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 관련 자료

C_M_009 광청아기본풀이

1 개요

광청아기본풀이는 구좌읍 김녕리 송씨 집안을 중심으로 전승하는 집안수호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로, '송동지영감본풀이'라고도 한다.

김녕리 송동지가 진상 차 서울 갔다가 광청아기와 사랑을 나눈 뒤에 홀로 제주로 돌아올 때 아기씨가 몰래 뒤따르다가 죽자 그 영혼이 송동지의 막내딸에게 빙의하여 자신을 조상신으로 모시게 하였다.

2 내용

동김녕 송동지 영감은 목사의 명으로 서울로 진상을 갔다. 진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광청 고을 허정승 집에 하루를 머물게 되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어 돌아다니다가 불빛이 비치는 방을 발견하였다. 그곳은 광청아기의 방이었다. 광청아기는 송동지와 눈이 마주치자 안으로 청하였다. 둘은 함께 술을 마시고 옷을 바꾸어입는 새색시놀이(각시놀음)를 하고 합방하였다.

송동지는 영암 덕진다리에서 배를 타고 제주로 돌아왔다. 이듬 해 송동지는 진상을 마치고 다시 허정승 댁으로 가서 머물렀다. 광청아기는 모습이 바뀌어 있었다. 송동지는 제주도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는 아기씨를 뿌리치고 나왔다. 송동지가 영암의 배진고달또에서 배를 띄우려고 할 때 아가씨가 배에 오르려고 하였다. 이물사공이 발판을 당기는 바람에 아가씨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송동지가 동김녕 포구로 배를 대자 막내딸이 흐트러진 자세로 바닷물에 뛰어 들려고 하였다. 광청아기 혼령이 막내딸에 빙의한 것이었다. 송동지는 심방을 불러다가 굿을 하였다. 송동지는 부자가 되고 셋째 아들은 무과에 급제하였다. 광청아기는 동김녕 송씨 집안에서 고팡(庫房)에 모시면서, 명절, 제사, 철갈이에 위하였다.

3 특징

조상신본풀이를 대표하는 전승이다. 조상신본풀이에는 제주 남성이 육지에서 여성을 만나 사랑을 나누다가 여성을 버리고 돌아올 때 여성의 영혼이 따라와 남성의 딸에게 빙의하여 조상신으로 대접받게 된다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광청아기본풀이도 바로 여기에 속한다. 여성의 영혼이 옷감을 따라온다고 하는 사례가 많다.

4 핵심어

동김녕, 송동지, 진상, 광청고을, 허정승, 새색시놀이(각시놀음), 영암, 덕진다리, 배진고달또, 빙의, 명절, 제사, 철갈이, 송동지영감본풀이

5 원전 서지사항

광청아기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

C_M_010 구실할망본풀이(나주 김씨 집안의 조상)

1 개요

구실할망본풀이는 나주 김씨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김동지는 서울 진상을 갔다가 버려진 아기씨를 몰래 데려다가 부부가 되었는데 아기씨가 물질하여 얻은 전복 구슬을 진상하여 벼슬을 하였고 죽은 뒤에는 그 집안의 조상신으로 모셔지게 되었다.

2 내용

조천읍 신촌리에 사는 김동지가 제주 특산물을 진상하기 위하여 서울로 갔다. 일을 마치고 서대문 밖에 이르니 벌써 날이 어두워졌다. 그때 어디선가 계집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다 여기고 찾아보니 논둑 아래서 아기씨가 혼자 울고 있었다.

아기씨는 자신은 허정승의 딸인데 부모 눈 밖에 나서 버려진 것이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김동지는 아기씨를 차마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육지와 제주 왕래가 금지된 터라 아기씨를 제주로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방법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몰래 아기씨를 도포자락에 숨기고 배에 올라 배 밑창에 숨겼다. 배가 무사히 제주도에 도착하자 밤이 들기를 기다려 아기씨를 몰래 집으로 데려다가 다락에 숨겨 길렀다.

아기씨가 자라 열여덟이 되자 사람들이 밭 밟는 소리, 물질하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 물질하기를 원하였다. 뜻대로 하게 두었더니 스스로 물질을 익혀 곧 무리 가운데 가장 실력이 뛰어난 상군 잠수가 되었다. 아기씨는 전복을 많이 따내곤 하였는데 전복마다 진주가 가득하였다. 이렇게 되자 김동지도 매우 기뻐하였다. 이렇게 된 뒤에 아기씨의 뜻에 따라 비로소 둘이 혼인을 하였다.

아기씨는 자신이 따낸 진주를 임금에게 진상하자고 하였다. 그대로 하였더니 임금이 상과 벼슬을 내려주었다. 김동지와 아기씨는 딸만 아홉을 낳았다. 아기씨는 딸들을 앉혀 놓고 제사, 명절 때와 굿을 할 때 자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풍악으로 놀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렇게 해서 구슬할망은 나주 김씨댁의 딸 자손을 따라 전승되면서 자손들을 번성케

해주는 조상신이 되었다.

③ 특징

조상신본풀이에 속하는 전승이다. 나주 김씨 집안의 수호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신을 주인공으로 삼는 조상신본풀이는 대개 주인공이 원혼이 되어 제향을 받는데 구슬할망은 행복한 삶을 마친 뒤에 조상신으로 모셔진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선묘설화, 작제건설화 등과 동궤의 전승으로 볼 수 있어서 서사문학사의 흐름을 살피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④ 핵심어

신촌리, 나주 김씨, 조상신본풀이, 김동지, 잠수, 물질, 전복, 진주, 아기씨

⑤ 원전 서지사항

구실할망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⑥ 관련 자료

C_M_011 궤눼깃당본풀이

1 개요

궤눼깃당본풀이는 구좌읍 김녕리 궤눼깃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송당본향당의 여섯 째 아들로 태어난 궤눼깃도는 무쇠상자에 담겨 바다에 버려지자 용왕국에 가서 사위가 되지만 너무 많이 먹는 탓에 부부 함께 무쇠상자에 담겨 쫓겨나 강남천자국에 가서 난리를 평정하는 공을 세운 뒤 제주도로 돌아가 김녕리 궤눼깃당의 당신이 되었다.

2 내용

소천국은 알송당에서 솟아나고 벡주또는 강남천자국 벡몰레왓에서 솟아났다. 벡주또가 천기를 살펴보니 배필이 송당리에 있음을 알고 찾아가 혼인을 하였다. 벡주또는 여섯 째 아이를 잉태하자 소천국에게 농사를 짓자고 제안하였다. 소천국은 오붕이굴왓에 있는 넓은 밭에 가서 밭을 갈기 시작하였다. 벡주또가 국 아홉 동이, 밥 아홉 동이를 지어 점심을 차리고 가져 가니 소천국은 길마를 덮어두고 가라고 하였다. 태산절 중이 지나가다가 밥을 달라고 하자 흔쾌히 허락하였는데, 나중에 소천국이 점심을 먹으려고 보니 남은 것이 없었다. 소천국은 배가 고픈 나머지 밭갈이하던 소를 잡아서 구워 먹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웃 밭에 있는 남의 소까지 잡아먹고, 배때기로 쟁기를 밀면서 밭을 갈았다. 다시 찾아온 벡주또가 그 모습을 보고 사정을 들은 뒤에 남의 소를 잡아먹는 도둑놈하고는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며 살림을 가르자고 하였다. 벡주또는 바람 위 당오름에 좌정하고, 소천국은 바람 아래 고부니ᄆᆞ르에 좌정하였다. 소천국은 사냥을 하면서 정동칼쳇딸을 아내로 맞아 고기를 삶아먹으면서 살았다.

벡주또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 세 살이 되니 소천국을 찾아갔다. 아이는 아버지 수염을 당기고 가슴을 치면서 놀았다. 소천국은 화가 나서 아이를 죽이려고 무쇠상자에 넣어 자물쇠로 잠근 뒤에 바다에 띄워버렸다. 상자는 용왕국 산호수 가지에 걸려 어지럽혔다. 용왕국대왕이 세 딸을 차례로 보내어 살피게 하고, 상자를 내리게 하여, 열게 하였다. 이 일을 두 언니는 못하고 막내딸이 해결하였다. 상자를 여니 옥 같은 도령이 나타나 강남천자국 난리를 평정하러 가다가 풍파를 만났다고 하였다. 용왕국대왕은 천하명장으로 알고 사위로 삼고자 하였는데 막내딸만 받아들이므로 둘을 혼인시켰다. 사위에게 무엇을 먹느냐고 하니 돼지나 소도 한 마리를 한 번에 먹는다고 하였다. 날마다 대접하였더니 창고가 모두 비어갔다. 요왕국대왕은 더 이상 먹일 수 없어 사위와 딸을 무쇠상자에 담아 물에 띄워 버렸다.

상자는 강남천자국에 닿아 갖가지 조화를 일으켰다. 황봉사를 불러 점을 보게 하니 천자가 예의를 갖추어 절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천자가 그 말대로 하니 상자가 열렸다. 도령과 아기씨가 있어 물으니 조선 제주도에서 세변 난리를 막으러 왔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천자가 도원수로 삼고 군사를 내주니 머리 둘, 셋, 넷 돋은 장수를 차례로 죽이고 난리를 일시에 평정하였다. 천자가 제후로 삼겠다고 하였으나 거절하고 상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역시 거절하였다. 그리고는 스스로 전선을 짓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제주도로 돌아갔다.

궤눼깃도가 비자림 근처에 이르러 포를 쏘니 소천국과 벡주또가 무슨 일이냐고 하녀에게 물었다. 하녀는 세 살 적에 죽으라고 무쇠상자에 담아 바다에 띄운 아이가 아버지를 치려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말에 듣고 소천국은 무서워서 고부니ᄆᆞ를로 가서 죽고, 어머니도 달아나다가 당오름에 가서 죽었다.

궤눼깃도는 사냥을 하여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군사를 해산시켜 돌려보낸 뒤에 좌정할 곳을 찾다가 김녕리 궤눼기로 갔다. 마을에 흉험을 주어 자신의 존재를 알려 사람들을 만나 자신에게 돼지로 제향하라고 하여 돗제를 받는 신으로 좌정하였다.

3 특징

당신본풀이를 대표하는 전승이다. 송당계 본풀이를 대표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송당본향당본풀이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당계 당신본풀이지만 궤눼깃도는 다른 형제의 본풀이와 다른 면이 있다. 형제들은 모두 본향신으로 좌정하면서 돼지고기를 금기한다. 그러나 궤눼깃도는 본향신이 아닐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돼지고기를 제물로 받는다.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받는 이른바 돗제의 신이다.

4 핵심어

웃손당, 송당, 송당본향당본풀이, 벡주또, 소천국, 궤눼깃도, 돗제, 당오름, 고부니ᄆᆞ르, 궤눼깃당, 김녕리, 알송당, 벡올레왓

5 원전 서지사항

궤눼깃당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

C_M_012 금덕리당 종신당 유수암당

1 개요

금덕리당 종신당 유수암당 본풀이는 애월읍 유수암리 유수암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김장수는 산신대왕, 산신백관의 도움으로 날랜 말을 얻어 외적이 쳐들어 왔을 때 그 말을 타고 장수로 나서서 소탕하여 공을 세운 뒤에 산신대왕, 산신백관을 위하는 당을 설립하였다.

2 내용

유수암당은 옛날 유수암리가 설촌할 때 김장수가 설립한 당이다. 김장수 시절 고내오름에 굴레 벗은 말이 하나 있었다. 이 말이 남의 곡식을 다 먹어버려도 붙잡지 못하였다. 하루는 김장수 꿈에 산신대왕, 산신백관이 나타나 말을 잡을 방도를 알려주었다. 김장수가 말을 붙잡아 올라탔더니 순식간에 제주 삼읍을 돌아오곤 하였다. 어느 해 중국에서 쳐들어와 마을 재물을 약탈하고 여인들을 겁탈하였다. 김장수가 제주목사에게 가서 사령을 빌려다 성제오름에 매복시켜두고 적군을 유인하여 한꺼번에 붙잡았다. 그 공으로 건공장군 벼슬을 받았다. 그 후에 김장수가 산신대왕, 산신백관을 위하는 당을 설립하니 마을 사람들도 무심할 수 없어 함께 모시기 시작하였다.

3 특징

유수암리 고일부 심방이 전승한 자료이다. 일반적인 당신본풀이의 내용과는 매우 다른 면모를 지녔다. 김장수라는 사람이 산신대왕, 산신백관의 도움으로 명마를 얻고, 외적이 쳐들어오자 장수로 나서서 소탕하는 공을 세운 뒤에 자신을 도와준 신들을 모시는 당을 설립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김장수는 당신이 아니고 당을 설립한 사람일 뿐이다. 당신인 산신대왕, 산신백관은 단지 꿈을 통하여 김장수에게 명마를 얻도록 도왔을 따름이다. 당신의 내력을 잊히고 당을 설립한 사람의 내력을 중심으로 전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핵심어

설촌, 김장수, 중국, 약탈, 겁탈, 제주목사, 성제오름, 건공장군, 산신대왕, 산신백관, 말, 유수암당

5 원전 서지사항

금덕리당 종신당 유수암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13 금덕본향 검은댁잇당

1 개요

금덕본향 검은댁잇당 본풀이는 애월읍 유수암리 검은덱이 마을의 본향당에 얽힌 신화이다.

홍좌수는 꿈에 본향신 송씨영감이 나타나 자신을 위하라는 말에 따라 당을 설립하고, 해변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할 때 역시 송씨영감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니 더욱 송씨영감을 정성껏 모시게 되었다.

2 내용

이 당은 마을을 설촌한 홍좌수가 설립하였다. 홍좌수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어 장성한 뒤에는 제주 목사와도 다툴 정도였다. 하루는 꿈을 꾸니 백발노인이 나타나 자신은 마을을 지키는 송씨영감이니 자신의 좌정처를 정하여 제향하라고 하였다. 홍좌수는 마을 사람을 모아 의논하여 당집을 짓고 송씨영감을 제향하기 시작하였다. 홍좌수가 잘 살아가니 해변 사람들이 홍좌수를 없애기로 하였다. 다시 홍좌수 꿈에 송씨영감이 나타나 아무 때 정명이 다할 것이라 하고 대처할 방도를 알려주었다. 날이 밝자 홍좌수는 제주 목사에게 찾아가 사령을 빌려 예방을 하여 목숨을 부지하였다. 홍좌수는 송씨영감의 은덕에 감사하며 본향을 잘 위하니 마을에서도 자손이 늘었다. 당에서 제를 지낼 때는 홍좌수도 언급하곤 한다.

3 특징

애월읍 신엄리에 거주하던 양태옥 심방이 전승한 자료이다. 당신의 내력보다 당을 설립한 홍좌수의 내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같은 마을 다른 동네의 당신본풀이인 <금덕리당 종신당 유수암당> 본풀이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해변 사람이 유수암에서는 '되놈'으로 설정되었을 뿐이다.

4 핵심어

홍좌수, 설촌, 제주 목사, 백발노인, 송씨영감, 검은댁잇당, 유수암리

5 원전 서지사항

금덕본향 검은댁잇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14 금악본향 오일당

1 개요

금악본향 오일당 본풀이는 한림읍 금악리 오일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최지국의 아들은 정좌수 따님을 보고 반하여 보자마자 달려들었으나 힘으로 제압 당하는 굴욕을 당하였다. 하지만 정좌수 따님이 마음에 두고 있어 결국 혼인하여 금악리 본향신이 되었고, 그 자식 일곱 오누이는 제각기 흩어져 인근 여러 마을의 당신이 되었다.

2 내용

오일한집은 육지서 들어온 최지국의 아들이다. 하루는 최지국의 아들이 마상총을 들고 사냥을 나섰다가 땔나무를 하러 나선 호근ᄆᆞ르 정좌수 따님을 만났다. 최지국의 아들이 정좌수 따님에게 반하여 달려들어 붙잡으니 정좌수 따님이 오히려 최지국의 아들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버렸다. 정좌수 따님이 땔감을 지고 떠나려 하니 최지국의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정좌수 따님은 자신에게 누님이라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였다. 최지국의 아들은 할 수 없이 누님이라고 하여 풀려났다. 정좌수 따님이 집으로 들어가니 동내에서 자꾸 혼삿말이 돌았다. 정좌수 따님은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에게는 이미 하늘에서 점지한 사람이 있으니 허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하루는 큰 비가 내리는데 최지국의 아들이 마상총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정좌수 따님은 아버지에게 저 사람이 내 남편감이라고 일렀다. 그 뒤에 둘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았다.

정좌수 따님은 검은오름 ᄃᆞ신ᄆᆞ들, 최지국의 아들은 알당밭 오일한집으로 들어섰다. 둘 사이에서 일곱 오누이가 태어났다. 이들은 모두 흩어져서 자리 잡았는데, 큰아들은 상대리로 가서 동명리 진근동 볼레남동산 일뤠중저를 아내로 삼고, 둘째 아들은 명월리 하원당 축일한집으로 가서 상계왓 축일한집을 아내로 삼고, 막내아들은 명월리 남문밧당으로 가서 남문밧당 옆의 ᄋᆞ드레중저를 아내로 삼고, 큰딸은 조수리 삼대바지 ᄉᆞ신용궁또 축일한집으로 가고, 둘째 딸은 저지리 당ᄆᆞ르 중허리 일뤠중저로 가고, 셋째 딸은 상명리 느지리캔틈 축일한집으로 가고, 막내딸은 금악리 객거리 마봉오지 축일한집으로 가서 좌정하였다.

3 특징

한림읍 명월리에 거주하던 문재용 심방이 전승한 자료이다. 최지국의 아들과 정좌수 따

님이 부부의 인연을 맺는 과정이 흥미롭다. 여성이 완력에 있어서도 오히려 우위에 있다고 하는 점이 특히 그러하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이 인근 여러 마을의 당신으로 좌정하였다고 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이들 신을 '금악계'라고 할 수 있다.

송당본향당을 근원으로 한 송당계, 한라산 서쪽 기슭에서 솟아났다고 하는 신들의 계보인 한라산계, 예래본향당의 딸로 이루어진 예래계와 달리, 남녀가 계보에 포함되는 점이 특이하다.

4 핵심어

최지국의 아들, 정좌수 따님, 마상총, 검은오름, ᄃᆞ신ᄆᆞ들, 알당밭, 상대리, 동명리, 진근동, 볼레남동산, 일뤠중저, 명월리, 하원당, 축일한집, 상계왓, 남문밧당, ᄋᆞ드레중저, 조수리, 삼대바지, ᄉᆞ신용궁또, 저지리, 당ᄆᆞ르, 상명리, 느지리캔틈, 객거리, 마봉오지

5 원전 서지사항

금악본향 오일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15 나주 기민창조상본풀이

1 개요

나주 기민창조상본풀이는 조천읍 선흘리 안씨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나주 제민창의 여신이 제주 사람을 따라와 그 집안의 조상신이 되는 한편 마을 사람들의 생업을 돌보는 당신이 되었다.

2 내용

순흥 안씨 삼형제가 육지에서 제주도로 들어와 각기 다른 마을에서 살았다. 조천리에 정착한 안씨 선주는 배를 많이 가진 부자였다. 제주에 칠년대한이 들자 제주 목사가 백성을 구제해달라고 부탁한다. 안씨 선주는 돈을 가지고 쌀을 구하러 육지로 떠난다. 수소문 끝에 나주 기민창[濟民倉]의 묵은 쌀을 처분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마침내 쌀을 산다. 쌀을 배에 가득 싣고 출항하려고 할 때 아가씨가 배에 오르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여 배 안을 두루 찾아보았지만 끝내 찾지 못한다. 제주 가까운 곳에 이를 때 광풍이 일어 배 밑창에 구멍이 생기면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한다. 안씨 선주는 하늘에 구해달라고 기도한 결과 파선을 면한다. 배 밑창을 확인해 보니 큰 뱀이 또아리를 틀어 구멍을 막고 있었다. 무사히 조천포구에 도착하자 안씨선주는 뱀을 집으로 모시려 한다. 뱀이 안씨선주의 집으로 가서 살펴보니 거처하기 마땅치 않아 조천포구 안쪽 '새콧알'의 구멍 속으로 들어간다. 그날 밤 안씨 선주의 꿈에 뱀신이 나타나 자신을 위하여 어부와 해녀를 차지해서 돌보아주겠다고 한다. 안씨 집안에서 수호신으로 위하고 어업 수호신으로 위하여 섬기기 시작한다.

3 특징

조상신본풀이 가운데 대표적인 전승에 속한다. 제주에서 육지로 여행하는 남자의 뒤를 따라온 처녀신이 조상신으로 좌정하는 사례에 속한다. 이 본풀이는 새콧당의 당신본풀이이기도 하다. 조상신앙이 당신앙으로 바뀌는 과정을 담고 있는 본풀이이기도 한 셈이다.

4 핵심어

안씨 선주, 제민창, 조상신, 처녀신, 뱀, 새콧, 당신본풀이, 칠년대한, 아가씨, 광풍, 어부, 해녀

5 원전 서지사항

나주 기민창조상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

C_M_016 내왓당 천ᄌᆞ또마누라본풀이

1 개요

내왓당 천ᄌᆞ또마누라본풀이는 제주시 용담동 내왓당에서 모시던 천자또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송당본향당 벡주또와 소천국의 아들인 천자또는 무쇠상자에 담겨 버려지자 용왕황제국 사위가 되었으나, 너무 많이 먹은 탓에 쫓겨나 강남천자국으로 가서 난리를 평정한 뒤에 제주도로 돌아가 내왓당의 당신이 되었다.

2 내용

소천국은 제주도에서 솟아나고 벡주또는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났다. 벡주또는 열다섯이 되니 천기를 보고 배필이 제주도에 있음을 알고 제주도로 가서 소천국을 만나 혼인하였다. 아이가 늘어가니 벡주또는 농사를 짓기를 제안하였다.

소천국은 오붕이굴왓 너른 밭에 가서 밭갈이를 하였다. 벡주또는 국도 아홉 동이, 밥도 아홉 동이 지어 점심을 마련하여 가져다 주니 소천국은 길마로 덮어두고 가라고 하였다. 태선절 중이 지나가다가 밥을 달라고 하자 먹으면 얼마나 먹겠느냐고 여겨 마음대로 먹고 가라고 하였다. 밭갈이 하다가 점심을 찾아보니 조금도 남은 것이 없었다. 배가 고픈 나머지 밭갈이하던 소를 죽여 구워 먹었으나 배가 차지 않아 이웃 밭의 남의 소까지 잡아먹고, 배로 쟁기를 밀면서 밭을 갈았다. 소천국을 다시 찾은 벡주또가 그 모습을 보고 사정을 들었다. 벡주또는 남의 소까지 잡아먹은 도둑놈과 함께 살 수 없다며 살림을 가르자고 하였다.

벡주또는 배 속의 아기를 낳아 세 살이 되자 소천국에게 데려다 주었다. 아기는 아비의 수염을 뽑고 가슴팍을 치면서 놀았다. 이에 소천국은 크게 노하여 불효자식이라 하며 아이를 돌함에 넣어 바다에 띄워 버렸다. 상자는 물 위로 3년, 물 아래로 3년을 떠다니다가 용왕황제국 산호수에 걸렸다. 용왕황제가 세 딸에게 차례로 열라고 하니 막내딸만 열 수 있었다. 상자 속에서 옥 같은 도령이 나와 강남천자국 난리를 막으러 간다고 하였다.

용왕황제국은 천하명장으로 알고 사위를 삼으려고 하였으나 위로 두 딸이 거부하여 막내딸과 혼인시켰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 소도 한 마리, 닭도 한 마리를 한 번에 다 먹는다고 하였다. 사위를 먹이다 보니 워낙 많이 먹어 창고가 모두 비어갔다. 용왕황제는 사위 부부를 쫓아내기로 하였다. 이때 막내딸은 아버지에게 무쇠 쪽박, 무쇠방석,

금동 쪽박과 옴 오른 망아지를 내달라고 하였다. 용왕황제는 달라는 대로 내어주고 둘을 돌함에 담아 바다에 띄워버렸다. 상자는 강남천자국에 닿았는데, 마침 병란이 일어난지라 천자또는 망아지를 타고 도원수가 되어 난리를 평정하는 공을 세웠다.

천자또는 큰상을 마다하고 옥황상제에게 축수한 결과 "제주땅 내왓당에 가서 다스리면서 소, 닭 전물제를 받으라."는 명을 받고 제주도로 돌아가 내왓당의 당신이 되었다.

③ 특징

이달춘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같은 심방이 구연한 궤눼깃당본풀이와 대체로 유사하다. 강남천자국에서 제주도로 돌아와 좌정하는 과정만 다를 뿐이다.

④ 핵심어

천자또, 소천국, 벡주또, 오붕이굴왓, 산호수, 용왕황제, 막내딸, 강남천자국, 전물제, 무쇠상자, 내왓당

⑤ 원전 서지사항

내왓당 천ᄌᆞ또마누라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⑥ 관련 자료

C_M_017 널갯당 오일본향

1 개요

널갯당 오일본향 본풀이는 한경면 판포리 본향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아내가 임신 중 돼지고기 금기를 어긴 것을 이유로 부부가 살림을 갈라 바람 위와 아래 따로 좌정하고 여신은 돼지고기를 받는 신이 된다.

2 내용

정씨하르방과 짐씨할망이 부부가 되었다. 하르방이 출타한 틈에 임신한 할망이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지자 돼지털로 콧구멍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온 하르방이 부정하다며 살림을 갈랐다. 하르방은 바람 위, 할망은 바람 아래 좌정하였다. 할망은 돼지고기를 받았다.

3 특징

널개는 한경면 판포리이다. 판포본향당은 오일본향 정씨하르방, 축일본향 짐씨할망을 모시는 곳이다. 오일본향, 축일본향으로 각기 명명된 것으로 보아 인근 여러 마을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본풀이를 보면 인근 여러 마을과는 다른 사정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남녀 부부신이 돼지고기 금기 파기를 이유로 별거를 하였던 사정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오일본향이 본향신의 구실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본풀이 내용만으로 이 마을 당신앙의 변화를 추정해볼 수 있다. 남녀신이 살림을 갈랐으며 바람 위와 아래로 따로 좌정하였다. 이는 본래 남녀신을 모시는 당이 따로 있었다는 뜻이다. 현재 남녀신을 한 곳에서 모시고 있으니, 이는 언제인가 사람들이 편의를 좇아 당을 하나로 합쳤음을 의미한다. 다만 제물을 달리하는 신을 한 데 모시게 되자 제일을 달리하여 의례를 별도로 갖추는 방식만은 유지하였다.

4 핵심어

널개, 판포리, 축일본향, 정씨하르방, 짐씨할망, 돼지털, 바람, 돼지고기

5 원전 서지사항

널갯당 오일본향(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18 눈미 불돗당본풀이

1 개요

눈미 불돗당본풀이는 조천읍 와산리 불돗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옥황상제 말잣딸아기가 불효한 탓으로 인간세상에 귀양 당하여 큰 돌의 모습으로 오름 위에 나타나자 주민이 이 돌에 대하여 기자하여 임신을 한 뒤에 찾기 어려우니 낮은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데 따라 고장남밭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여 당신으로 좌정한다.

2 내용

옥황상제 말잣딸아기가 불효하여 인간 땅에 귀양정배되었다. 말잣딸아기는 당오름으로 내려왔다. 이때 와산리 주민 하나가 자식이 없어 문점하여 뜬금없이 생긴 큰돌을 위하라는 점괘를 얻었다.

당오름 꼭대기에 큰돌이 있어 찾아 제를 지냈더니 과연 포태를 하게 되었다. 산달이 되어 다시 제를 지내려고 당오름 꼭대기를 오르고자 하나 다리가 무거워서 올라가지 못하였다. 쉬면서 내려와서 좌정하면 좋겠다고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였다. 출산을 한 뒤에 다시 제를 지내려고 찾아보니 미륵돌이 내려와 있었다. 좌정처를 정하면 모두 위하겠다고 하며 빌었다. 다음 날 찾아보니 고장남밧 폭낭 아래로 옮겨져 있었다.

3 특징

각시당본풀이와 함께 천신이 당신으로 좌정한 드문 사례에 속한다. 옥황상제의 딸이 불효한 탓에 인간세상에 귀양정배되었다. 인간세상에 내려와서는 커다란 돌덩이로 화하였다. 사람들은 이를 미륵돌로 삼아 자식 낳기를 기원하곤 한다. 신의 내력과 함께 처음 이러한 기원을 한 사람의 내력을 중심으로 본풀이를 꾸몄다. 그 구성이 독특하다. 전반부는 신 중심, 후반부는 사람 중심이다. 한편, 미륵돌이 왕석인 경우는 흔치 않다.

당신이 불도삼승또이면서 옥황상제의 딸로 설정된 것은 삼승할망본풀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이와 관련된 당으로 대표적인 것은 일뤳당이다. 그러나 일뤳당은 치병·산육

을 중심으로 하는 당이다. 포태는 일뤳당의 직능과는 거리가 있다. 포태는 당에서 기원하지 않고 불도맞이를 해서 기원하는 법이다. 제주도에서 언제부터 이러한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4 핵심어

옥황상제 말잣딸, 귀양, 왕돌, 미륵돌, 불도삼승또, 삼승할망본풀이, 치병, 산육, 일뤳당, 불도맞이, 포태

5 원전 서지사항

눈미 불돗당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

C_M_019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1 개요

눈미 양씨아미본풀이는 조천읍 와산리 양씨 집안에서 조상신을 모시게 된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양씨아미는 심방이 될 운명을 타고 났으나, 오라비의 반대로 끝내 심방이 되지 못하고 죽게 되고, 죽은 뒤에 집안의 조상신이 되었다.

2 내용

옛날 눈미 와산 양씨 집안은 천하거부로 살았는데, 아들 삼형제, 딸 하나를 자식으로 두었다. 딸 양씨아미는 어려서부터 심방을 흉내내기 시작하였다. 여덟 살 때 당새미에 물 길러 가다 허벅장단을 치는 바람에 허벅을 깨뜨려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그런가 하면 친구들과 양태 짜러 갈 때도 심방 노래만 불렀다.

열다섯에는 어머니가 죽어 전새남굿을 하는데, 아기씨는 방안에서 더 큰 굿을 하였다. 심방이 굿을 마치고 집을 나서자 아기씨가 그 일행을 쫓아 나섰다. 심방이 아기씨를 만류하자 아기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산중을 돌아다니며 굿하는 시늉을 하였다. 세 오라비는 아기씨를 찾아다니다가 아기씨가 굿을 하면서 헤매는 모습을 보았다. 큰오라비는 아기씨를 데려다 방안에 가두어 버렸다.

양씨아미는 말라가도 큰오라비는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다. 둘째와 셋째 오라비는 문구멍으로 물을 주었다. 양씨아미가 스무한 살 되던 해 큰오라비가 개고기를 먹게 하였으나, 아기씨는 날핏내가 나서 먹지 못하고 죽었다. 큰오라비는 아기씨 시신을 대충 묻고 말았으나, 둘째와 셋째 오라비는 형님 몰래 봉분을 갖추어 마련하고 서천꽃밭으로 가라고 축원해 주었다.

양씨아미가 서천꽃밭에 가서 물을 주니 꽃이 시들어 이 세상으로 내쳐졌다. 아기씨는 전새남 받으러 내리는 고전적 하르바님에게 자신을 데리고 가라고 간청하였다. 고전적 하르바님은 아기씨를 데리고 전새남을 받으러 갔다. 양씨아미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는 사

람이 없어, 둘째 오라비의 딸아기를 미치게 하고 그 아이의 입을 빌어 '큰오라비 자손은 망하게 하고 둘째와 셋째 오라비의 자손은 부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리 하여 둘째와 셋째 오라비 자손들이 아기씨의 원정을 달래기 시작하였다.

③ 특징

여성으로 심방이 될 운명을 타고 났으나 집안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 조상신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남성으로 같은 운명을 타고 난 경우에는 대체로 뜻을 이루거나 설령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지 않고도 조상신으로 대접받는 것이 예사이다.

④ 핵심어

당새미, 허벅장단, 전새남굿, 개고기, 날핏내, 고전적, 서천꽃밭, 양씨아미, 와산리

⑤ 원전 서지사항

눈미 양씨아미본풀이(김헌선 · 현용준 · 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⑥ 관련 자료

C_M_020 당나미문씨아기당본풀이

1 개요

당나미문씨아기당본풀이는 표선면 가시리 당나미문씨아기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문씨 아기씨는 어릴 적에 산에서 길을 잃고 7년 동안 헤매다가 사냥꾼에게 발견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산신백관의 화신이라 신통력이 있어 잃어버린 인궤를 찾아주기도 하였다. 죽은 뒤에는 당신으로 좌정하였다.

2 내용

옛날 가시리 문씨 영감이 늦게 딸을 얻었다. 문씨 아기씨는 일곱 살 때 산딸기를 따러 갔다가 길을 잃고 7년을 헤매었다. 그 동안 온몸이 가시에 긁혀 허물로 가득하고 나무처럼 되고 이끼가 돋았다. 아기씨는 인상식하며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굴을 의지하여 살았다.

호근리 허포수가 사냥하러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아기씨를 발견하였다. 허포수는 아기씨를 업고 문씨 영감 집으로 갔다. 문씨 영감은 허포수에게 사례하고 아기씨에게 음식을 주었다. 그러나 아기씨가 먹지 않으니 그 까닭을 물었다. 아기씨는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한라산 산신백관이라고 하였다. 아기씨는 사주를 보고 천기를 알았다.

정의현 원님이 인궤(印櫃)를 잃어 파직 당하게 되니 문씨 아기씨를 모셔오게 하여 찾아달라고 하였다. 문씨 아기씨가 점을 보아 인궤 있는 곳을 알려주니 과연 찾을 수 있었다. 인궤를 숨겼던 강통인이 제 발로 문씨 아기씨를 찾아 살려달라고 하였다. 문씨 아기씨는 배를 타고 육지로 도망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일러주었다. 강통인은 살게 되면 사례를 톡톡히 하겠다고 하여 아기씨 말대로 도망하여 목숨을 구하였다. 정의 원님도 연주청 오물떡으로 대접하고 인궤 찾아준 은혜를 갚았다.

문씨 아기씨는 부모에게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산신백관이니 죽으면 당남우영에 좌정하겠다고 일렀다.

3 특징

당신본풀이 중에 특이한 사례이다. 당신본풀이는 보편적인 면모가 강하다. 당나미문씨아기당본풀이는 이러한 당신본풀이의 보편성에서 크게 벗어나는 자료이다.

4 핵심어

문씨 영감, 인상식, 초근목피, 호근리, 허포수, 산신백관, 정의현, 원님, 인궤, 강통인, 연주청 오물떡, 당남우영, 가시리, 문씨 아기씨

5 원전 서지사항

당나미문씨아기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 관련 자료

C_M_021 도두본향 오름허릿당

1 개요

도두본향 오름허릿당 본풀이는 제주시 도두동 도두오름에 있는 도두본향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한라산에서 태어난 삼형제 가운데 큰형이 부모에게 불효하여 쫓겨난 뒤에 도두오름으로 가서 송씨할마님과 혼인하여 당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인근 마을의 22신위에 이르는 당신이 발원하였다.

2 내용

한라산에서 삼형제가 탄생하였다. 큰형이 부모에게 불효하여 쫓겨나 도들봉 오름에 와서 송씨할마님을 만나 혼인하여 함께 살았다. 하루는 먹고 살 방도를 찾자고 의논을 하였다. 도들봉 오름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인가가 많아 살 방도가 생길 듯하였다. 하루는 남쪽으로 돌아서서 산신에게 기원하기를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이라도 내려달라고 하였다. 마을사람들이 오름에서 두 노인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상히 여기고 유지들을 모아 의논한 결과 둘을 당신으로 모시기로 하였다. 그 뒤에 어느 고집 센 사람 한 명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당에 가서 담을 허물고 나뭇가지도 잘라버렸다.

할망 할으방은 마을에 재해를 주자고 하여 아이들은 허물이 생기게 하고, 잠수들은 물에서 죽게하고, 어부는 배를 뒤집히게 하였다. 그런 뒤에 할망 할으방은 이 마을은 앉을 곳이 아니라고 여겨 오름에서 내려와 인근 여러 마을의 당신이 되니, “흔도 두도 쑤물두도 가지갈른 송씨할마님”이라고 한다.

3 특징

제주시 삼도동 여무 문옥선 심방이 전승한 자료이다. 한라산에서 태어난 삼형제 가운데 큰형이 부모에게 불효하여 쫓겨난 뒤에 도두오름으로 가서 송씨할마님과 혼인하여 당신이 되었다. 서사성이 약하고 신의 성격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도두본향에서 22신위의 신이 발원하여 인근 여러 마을의 당신이 되었다고 하니 주목할 만하다. 그 계보가 서열을 기준으로 짜이지 않는 점에서 다른 당신들의 계보와 같지 않다.

4 핵심어

한라산, 삼형제, 불효, 도들봉, 송씨할마님, 산신, 허물, 잠수, 어부, 도두동, 도두오름

5 원전 서지사항

도두본향 오름허릿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22 동복본향당본풀이

1 개요

동복본향당본풀이는 구좌읍 동복리 본향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굴묵밭 할망은 심방으로 살다가 죽어 저승으로 갔으나 이승에서 하던 일을 대신할 존재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이승으로 돌아와 송악산에서 솟아나 상여화단을 타고 온 송씨 하르바님을 당신으로 좌정하게 한 뒤에 비로소 저승으로 갔다.

2 내용

굴묵밭 할망은 넋들임을 하면서 사람들을 돕다가 죽어 저승으로 갔다. 저승 최판관이 할망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돌보아줄 존재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꾸짖으며 이승으로 돌려보내었다. 할망은 이승으로 돌아가 새로운 당신을 기다렸다. 송씨 하르바님이 천기를 살펴 제주도 동복리에 좌정할 만함을 알고 상여화단을 타고 제주도에 이르렀다. 송씨 하르바님은 굴묵밭 할망의 인도에 따라 당신으로 좌정하여 제향을 받았다.

3 특징

동복본향당본풀이는 실재 인물이었음직한 굴묵밭 할망의 내력과 외래신인 송씨 하르바님의 내력이 결합된 특이한 사례이다. 대개 당신본풀이는 신의 내력을 앞세우고 신의 중재자인 심방의 내력을 간략하게 덧붙이는 것이 보통인데, 이 본풀이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4 핵심어

굴묵밭 할망, 최판관, 상여화단, 넋들임, 송씨 하르바님, 동복리, 천기

5 원전 서지사항

동복본향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 관련 자료

동복본향당본풀이(강정식, 《동복리 본향당굿》, 문화체육관광부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1)

C_M_023 동복본향당본풀이 1

1 개요

동복본향당본풀이는 구좌읍 동복리 본향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마을이 이루어진 뒤에 상여화단에 따라온 상여하르바님과 상여할마님을 당신으로 모셔서 매해 네 차례씩 굿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함께 좌정한 부부가 할마님이 돼지고기 국물을 먹는 바람에 부부가 별거하게 되는 일이 있어 당을 따로 하여 모시다가 뒤에 함께 모시고 젊은이들의 액막이를 위하여 시왕맞이를 하기 시작하였다.

2 내용

옛날 동복리 지경에는 마을이 없었다. 어느 해 이웃 마을 김녕리에 사는 박씨가 농사를 짓다가 거름용 해초를 구하기 위하여 동복 바닷가에 듬북을 채취하러 왔다. 박씨는 해초를 걷다가 목이 말랐다. 한쪽을 보니 샘이 있어 갈증을 해갈할 수 있었다. 물맛이 좋아 그곳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그 뒤로 사람이 늘어 마을이 이루어졌다.

어느 해 비바람이 일어 생업이 어려웠다. 원인을 찾아보니 바닷가에 상여화단이 떼밀려와 있었다. 사람들은 상여화단을 마을 안의 거리로 옮겨 놓았다. 정월 초사흗날, 초이렛날마다 상여에 제사를 지냈다. 한동안 마을이 평안하였다. 한 두 해가 지나고 사람들이 상여에 소홀해지자 풍파가 일었다. 그리 하여 정월 초이레, 삼월 열이레, 칠월 초이레, 구월 열이레 등 한 해 네 차례 굿을 하여 모시기 시작하였다.

상여를 따라온 신은 상여하르바님, 상여할마님이었다. 이들은 함께 좌정하여 마을 사람들의 제향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상여할마님은 돼지고기 국물을 얻어먹었다. 상여하르바님은 상여할마님이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며 살림을 가르고 말았다. 하르바님은 마을 거리 안에서 제향을 받고 할마님은 바람 아래 굴묵밭으로 옮겨 좌정하였다. 그리고 할마님은 해녀와 어부를 보호하는 일을 맡았다.

뒤에 사정이 있어 당을 옮겼다. 홍씨 심방이 마을의 운수를 보았더니 젊은이의 운수가 좋지 않아 시왕맞이를 하여 액막이를 하기 시작하였다. 나중에 할마님을 함께 모시기로 하였다.

❸ 특징

상여화단에 따라온 상여하르바님, 상여할마님을 모신다고 한 것은 특별하나, 부부가 돼지고기 금기를 이유로 살림을 가른다고 한 내용은 당신본풀이의 보편적인 전승을 따른 것이어서 전혀 특별하지 않다.

그러나 이는 이본인 박인주가 구연한 동복본향당본풀이와 다른 양상이어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❹ 핵심어

김녕리, 해초, 듬북, 이주, 비바람, 상여화단, 상여하르바님, 상여할마님, 돼지고기, 굴묵밭, 시왕맞이, 액막이, 동복리

❺ 원전 서지사항

동복본향당본풀이(강정식, 《동복리 본향당굿》, 문화체육관광부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1)

❻ 관련 자료

동복본향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C_M_024 두리빌렛당 두리빌레 용해부인 할마님

1 개요

두리빌렛당 두리빌레 용해부인 할마님 본풀이는 제주시 내도동 바닷가에 있는 두리빌렛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백동지, 김동지는 사신을 제치한 이형상 목사를 무사히 바다 건너에 태워주고 귀향하던 중 파선의 위기를 만났으나 구렁이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자 그 구렁이를 당신으로 모시기 시작하였다.

2 내용

백동지, 김동지 영감이 김녕리 궤눼기 사신(蛇神)을 제치한 이형상 목사를 무사히 바다 건너 태워 준 뒤에 제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 밑창에 구멍이 나서 파선의 위기에 직면케 되었다. 이에 살려 달라고 빌었더니, 난데없이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구멍 뚫린 배 밑창을 막아 주었다. 그 덕에 두 사람은 무사히 돌아 올 수 있었다. 김동지 부인이 그 구렁이를 치마폭에 담아다가 집에서 모시다가, 갯가 두리빌레로 옮겨 모셨다.

3 특징

내도동 두리빌렛당은 용녀부인을 모시는 곳이면서 제일이 초하루·보름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해신당의 면모에 해당한다. 본풀이를 통해서 볼 때 용녀부인은 전형적인 조상신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조상신적인 존재가 당신으로 좌정하여 해신에 해당하는 직능을 맡는 사례는 이 밖에도 더러 있다.

4 핵심어

내도동, 백동지, 김동지, 궤눼기, 사신, 이형상, 구렁이, 난파, 두리빌레, 용녀부인

5 원전 서지사항

두리빌렛당 두리빌레 용해부인 할마님(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25 마누라본풀이

1 개요

마누라본풀이는 마마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멩진국할마님은 마마신 대별상이 자신을 여자라고 업신여기자 대별상 아내의 해산을 도와주지 않다가 대별상이 용서를 구하자 비로소 가서 해산을 시켜주었다.

2 내용

옛날 멩진국할마님이 인간세상에 내려 생불(生佛)을 주려고 돌아다니다가 네거리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에게 마마를 주려고 요란한 행차를 하고 가는 대별상을 만났다. 할마님이 공손히 양무릎을 꿇고 두손을 모아 "제가 내려준 아기들은 고운 얼굴 유지할 수 있게 마마를 곱게 내려 줍소서." 하고 빌었다.

그러나 대별상은 눈을 크게 부라리면서 "여성은 꿈에만 나타나도 새물[邪物]인데, 남자 대장부의 행차에 여성이 웬일이냐? 괘씸ᄒᆞ다." 꾸짖고, 멩진국할마님이 탄생시킨 아이의 얼굴을 아주 얽게 만들어버렸다. 멩진국 할마님은 이를 괘씸하게 보고 나중에는 대별상이 자신에게 크게 사정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할마님이 생불꽃을 가져다가 대별상부인 서신국마누라에게 포태를 시키니 열두 달이 지나도 해산을 못하였다. 서신국마누라가 사경(死境) 헤매면서 대별상에게 생불할마님을 청해달라고 하였다. 대별상이 마누라가 죽게 된 마당이니 어찌 할 수가 없어 멩진국할마님을 찾아갔다. 가까이 가도 할마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대별상은 댓돌 아래 양무릎을 굻고 엎드리니 그제야 할마님이 아는 체를 하였다. 자신을 청하고 싶으면 중의 행색을 하고 다시 와서 엎드리라고 하였다.

대별상은 하는 수 없이 그 말을 따랐다. 대별상이 과거의 용서를 구하며 할마님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집까지 명주를 깔아 다리를 놓았다. 할마님은 그 다리를 밟고 서신국마누라에게 가서 해산을 시켜주었다.

❸ 특징

마누라본풀이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멩진국할마님이다. 그 까닭은 신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별상은 마마의 신이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멩진국할마님에게는 퇴치의 대상이어야 하는 존재일 뿐이다. 대별상은 자신의 본풀이에서조차 뒷전으로 밀려나는 존재인 셈이다.

❹ 핵심어

멩진국할마님, 생불, 대별상, 마마, 새물, 생불꽃, 서신국마누라, 포태, 해산, 명주

❺ 원전 서지사항

마누라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❻ 관련 자료

C_M_026 마라도본향 애기씨

1 개요

마라도본향 애기씨 본풀이는 마라동 아기업게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대정읍 상모리 해녀들을 따라 마라도로 갔던 업저지가 희생양으로 홀로 남겨져 죽은 뒤에 당신으로 섬겨지기 시작하였다.

2 내용

대정읍 상모리 알드르 해녀들은 무리를 지어 마라도로 물질을 다녔다. 어느 해 이 마을 해녀 셋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라도로 물질을 갔다. 해녀 가운데 이씨 집의 해녀가 갓난아기를 두고 갈 수 없어 물질을 가면서 아기와 업저지를 함께 데리고 갔다. 업저지는 허씨로 당시 14세였다.

해녀들은 마라도에 이르러 물질을 하려고 하였으나 때는 5월 장마여서 갑자기 파도가 거세어졌다. 물질을 포기하고 섬에서 빠져나가고자 하였으나 배를 띄울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사흘을 장막을 치고 지내면서 기다렸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 마라도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루는 해녀의 꿈에 산신대왕이 나타나 열네 살 처녀를 두고 가면 살 수 있다고 하였다. 해녀들은 자신들의 살 길은 달리 없다고 믿고 업저지만 남겨두고 배에 올랐다. 그러자 과연 파도가 잦아들어 배를 타고 뭍으로 나갈 수 있었다. 홀로 남겨진 업저지는 뒤늦게 배가 떠나는 것을 알고 함께 데려가라고 울부짖으며 소리쳤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렇게 업저지는 속절없이 굶어 죽고 말았다. 다음 해 4월 해녀들이 다시 마라도로 가서 보니 뼈만 남아 있었다. 이에 마을에서 그 자리에 당을 만들고 애기씨를 일뤠중저로 모시기 시작하였다.

3 특징

이야기만으로는 당신본풀이라기보다 전설에 가까운 내용이다. 실제로 전설로 많이 운위

되기도 한다. 처녀당본풀이에 속한다.

이는 그 중에서도 공동체에 희생당한 뒤에 당신으로 모셔지는 사례에 속한다.

4 핵심어

대정읍 상모리, 알드르, 해녀, 마라도, 물질, 산신대왕, 업저지, 일뤠중저, 아기업게당

5 원전 서지사항

마라도본향 애기씨(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27 명월본향 축일당

1 개요

명월본향 축일당 본풀이는 한림읍 명월리 축일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최주국 아들과 정좌수 따님이 혼인을 하여 낳은 자식들이 인근 여러 마을로 흩어져 당신이 되었다.

2 내용

최주국 아들은 부모의 눈 밖에 나서 쫓겨났다. 마상총을 들고 깊은 산속으로 올라가 열심히 사냥을 해도 소득이 없었다. 이때 정좌수 따님도 부모의 눈 밖에 나서 죽으려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최주국 아들과 정좌수 따님이 산속에서 만났다. 최주국 아들이 정좌수 따님의 손목을 붙잡으려고 하니 정좌수 따님이 부모 허락 없이는 허용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그래서 정좌수 따님이 최주국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그러나 이미 자식이 아니니 나가라고 해서 그대로 집을 나왔다. 둘이 부부가 되어 아기를 여럿 낳았다. 자식들은 인근 여러 마을로 흩어져 당신이 되었다.

3 특징

한림읍 옹포리에 거주하던 남무 김승은이 전승한 자료이다. 금악본향당본풀이와 대체로 유사하다. 금악계 당신의 본풀이이니 당연한 현상이다. 다만 정좌수 따님이 최주국 아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대목이 없는 점, 거듭해서 부모에게 쫓겨나는 점이 다르다.

4 핵심어

최주국 아들, 정좌수 따님, 마상총, 사냥

5 원전 서지사항

명월본향 축일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28 문전본풀이

1 개요

문전본풀이는 마루의 출입구를 지키는 문전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남선비는 곡식 장사하러 갔다가 노일제데귀일의 딸을 만나는데,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남선비를 속여 거지꼴로 만들고 남편을 찾아온 여산부인을 죽인 뒤에 일곱 아들까지 죽이려 하다가 똑똑한 막내아들 녹디생인에게 발각당하여 도망하다가 죽고, 여산부인은 아들들이 서천꽃밭의 꽃으로 살려내었다.

2 내용

옛날 남선고을 남선비와 여산고을 여산부인이 가난하게 살면서 아들 일곱을 낳았다. 하루는 여산부인이 자식도 많고 하니 무곡장사[貿穀商]나 해보자고 제안하였다. 남선비가 그리 하자 하고 가족을 이별하고 빌린 배를 타고 오동나라 오동고을로 갔다.

오동나라 오동고을에 이른 남선비는 노일제데귀일의 딸에게 속아 배도 잃고 오막살이에서 가난뱅이로 살았다. 여산부인은 남선비 소식이 없자, 일곱 형제가 만들어준 배를 타고 찾아나섰다. 오동나라 오동고을에 이르러 남선비와 만났으나 곧 노일제데귀일의 딸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의 옷을 입고 여산부인 행세를 하면서 남선비에게 노일제데귀일의 딸 행실이 괘씸해서 죽이고 왔다고 하였다.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남선비와 함께 배를 빌려 타고 남선고을로 향하였다. 남선고을 가까이 이르자 똑똑한 막내 녹디생인은 벌써 진짜 어머니가 아님을 알아챘다.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병을 핑계하여 남선비로 하여금 점을 보게 하고 점쟁이로 변신하여 일곱 형제 간을 내어 먹어야 낫는 병이라고 하였다. 남선비가 칼을 가는 것을 이웃집 청태산마구할망이 보고 그 사정을 알았다. 청태산 마구할망은 급히 일곱 형제를 찾아 사실을 알려주었다. 녹디생인이 남선비에게 가서 자신이 대신 형님들 간을 내어 주거든 마지막에 자신의 간만 아버지가 내면 될 것이라고 설득하고 칼을 건네받고 나왔다.

녹디생인은 칼을 받고 돌아와 형님들과 함께 깊은 산속으로 올라가다가 배가 고파 양지바른 곳에 앉아 졸다가 꿈에 나타난 어머님의 도움으로 산돼지의 간을 내어 집으로 갔다. 집 근처에 이르러 녹디생인은 형님들을 대기시키고 혼자 집안으로 들어가서 노일제데귀일의 딸에게 간을 주어 권하였다.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중병든 사람이 약을 먹는 것은 보지 않는 법이라고 하고 녹디생인을 내쳤다. 녹디생인은 방에서 나와 손가락으로 창구멍을 뚫

어 안을 들여다보니, 노일제데귀일의 딸이 간을 먹는 척 하면서 자리 아래에 묻고, 입 주위에 피를 바르는 것이었다.

녹디생인이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머리에 이나 잡아드리겠다고 하니, 중병 든 사람의 이는 잡지 않는 법이라고 하였다. 다시 방을 치워 드리겠다고 하니 역시 중병든 사람 방은 치우지 않는 법이라고 하였다. 녹디생인은 크게 성을 내면서 노일제데귀일의 딸 머리카락을 붙잡고 휘둘러 자빠뜨려놓고, 간 여섯 개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소리쳐 형님들을 불러들였다. 놀란 남선비는 달아나다가 정낭에 목걸려 죽고,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변소에 들어가 머리카락으로 부춧돌에 목을 메어 죽었다. 일곱 형제가 달려들어 노일제데귀일의 딸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니 온갖 물건, 동물, 곤충 등이 되었다. 일곱 형제는 서천꽃밭으로 올라가 황세곤간을 달래어 환생꽃을 따다가 오동나라로 가서 어머니를 살려내었다.

어머니는 삼덕조왕, 아버지는 올레 주목 정쌀지신으로 들어서고, 위로 다섯 형은 오방의 신, 여섯째는 뒷문전, 녹디생인은 일문전(一門前)으로 들어섰다.

❸ 특징

남선비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로,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철저히 악한 존재로, 여산부인은 그저 불쌍한 존재로 설정되었다.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악한 계모의 전형을 보여준다. 노일제데귀일의 딸과 녹디생인의 속이고 속이는 경쟁이 흥미를 일으키는 요소이다.

❹ 핵심어

남선고을, 남선비, 여산고을, 여산부인, 무곡장사, 노일제데귀일의 딸, 녹디생인

❺ 원전 서지사항

문전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❻ 관련 자료

C_M_029 버들남본

1 개요

버들남본은 땅귀신이 버드나무를 싫어하는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처녀가 땅귀신에게 잡혀갔으나 기지를 발휘하여 땅귀신을 죽이고 보화를 얻어 부자로 살았다.

2 내용

옛날 어떤 홀아비가 딸 삼형제와 함께 살고 있었다. 딸들이 장성하자 가난해서 살기 어려우니 산으로 올라가 땔나무를 해다가 팔아 생활하였다. 하루는 백발노인이 나타나 천금을 주면서 큰딸을 주면 부잣집 맏며느리로 중매해주겠다고 하고 큰딸을 데려갔다. 백발노인은 큰딸을 깊은 산골 좋은 집으로 데려갔다. 백발노인은 약속과 달리 큰딸을 소실로 삼았다. 그리고는 사람 다리뼈를 주면서 3일만에 먹으라고 하고 어디론가 떠났다.

큰딸은 눈물로 지새다가 마룻널을 열어 다리뼈를 감추었다. 노인이 돌아와서 "다리야!" 하고 부르니 마룻널 아래서 대답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큰딸을 죽이고 말았다. 노인은 다시 홀아비에게 가서 언니를 보러 가자며 둘째딸을 데려왔다. 노인은 둘째딸도 말을 듣지 않자 죽여버렸다. 그리고 다시 가서 거짓말로 속여 막내딸을 데려왔다. 노인은 막내딸에게 사람다리를 주면서 9일만에 먹으라고 하였다. 막내딸은 먹겠다고 하고 백발노인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노인이 생달걀이 싫고, 동쪽으로 뻗은 버드나무 가지가 싫다고 하였다.

노인이 집을 나가니 막내딸은 사람다리를 구워 손바닥만큼 만들고 포대기에 싸서 배에 찼다. 열흘 뒤에 노인이 와서 "다리야!" 부르니 막내딸의 배에서 대답소리가 들렸다. 노인이 안심하니 막내딸이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노인은 땅귀신 지귀라고 하였다.

막내딸이 달걀과 버드나무 가지를 싫어하는 이유를 묻자 노인이 자세히 일러주었다. 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도실나무도 싫다고 하였다. 막내딸은 소변을 보러가는 척하면서 준비해둔 달걀과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노인을 제압하였다. 막내딸은 두 언니의 시체를 찾아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고하였다. 언니들을 매장해 놓고 버드나무와 도실나무로 아름 가득 들고 노인의 집으로 갔다.

노인이 일어나려 하고 있으니 버드나무와 도실나무로 백대를 쳐서 죽이고 석상에 끌어다 놓고 돌멩이로 쳐서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버렸다. 집안을 조사하니 금과 옥이 많아 그것을 가져다가 큰 부자로 살았다.

3 특징

땅귀신이 처녀를 데려다가 사람 다리를 먹게 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시험하기를 거듭하면서 많은 처녀를 죽였는데, 똑똑한 처녀가 땅귀신의 약점을 알아내고 죽음을 면하였을 뿐 아니라 부자가 되었다.

다른 영웅적인 존재의 도움 없이도 죽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 이야기는 이장 풍습과 관련된 전승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4 핵심어

홀아비, 삼형제, 백발노장, 땅귀신, 지귀, 사람다리, 버드나무, 도실나무, 생달걀

5 원전 서지사항

버들남본(문창헌, 《풍속무음(下)》,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6 관련 자료

삼두구미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C_M_030 부대각본

1 개요

부대각본은 구좌읍 평대리 일대에서 부대각이라는 인물이 조상신으로 모셔지게 된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날개 달린 아기장수로 태어난 부대각은 장수의 위엄을 보였으나 집안 사람들의 방해로 능력을 펼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다.

2 내용

부대각은 삼형제의 막내로 태어났다. 큰형은 열다섯쯤 나고, 둘째 형은 열 살쯤 나고, 부대각은 다섯 살 적의 일이었다. 하루는 부대각의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소, 말을 보라고 내보낸 뒤에 아이들을 살피기 위해 가보았더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큰 소를 던지고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날 밤에 아버지는 아이들의 겨드랑이 아래에서 날개를 발견하고, 부씨 가문이 망할 것을 염려하여 인두로 큰아들과 둘째아들의 날개를 지졌다. 그 바람에 큰아들과 둘째아들은 죽고, 어리다고 그대로 놓아둔 막내아들 부대각만 살아 남았다.

부대각은 열다섯살이 되자 평대리와 제주성을 날아서 오고갔다. 하루는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가족 모두 제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남아 있던 부대각이 집안을 살피다가 외양간에 소도둑이 든 것을 보고 잽싸게 날아가 도둑을 잡았다.

부대각은 한양으로 날아가 남산에 이르러 '사람을 해치는 국마를 잡는 이에게 천금상을 봉한다.'는 방을 보게 되었다. 부대각은 자신이 잡겠다고 하였다. 남산에 올라가보니, 마침 국마가 내려오고 있었다. 부대각이 국마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무릎을 꿇도록 호통을 치자, 국마가 부대각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부대각은 상시관에 들어가 국마를 바치니 소원을 말하도록 했다. 부대각은 군사 삼천 명과 군함 서른세 척을 내주면 대국을 치겠노라 답하였다.

부대각은 큰 싸움을 앞두고 선묘라도 한번 볼 요량으로 제주도로 들어왔다. 하도리 수진포에 배를 대고 평대리로 가서 선산에 들렀다. 평대리 부씨 댁에서는 부대각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집안이 망할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선산에 있는 장군 모양을 한 바윗돌이 한 해 두 해 커지는 것 덕분에 저런 인물이 나왔다고 여기고 그 바윗돌을 쇠방망이로 쳐부수고 말았다.

부대각은 성묘를 마치고 배에 오르자 난데없이 날씨가 좋지 않아 배를 띄울 수 없어 군사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 부대각은 옥황에 무쇠방석을 내려달라고 등장을 올렸다. 물 위에 무쇠방석이 떠오르자, 부대각은 무쇠방석 위에 올라 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지 않자 부대각이 물 아래로 인도하라 명하니 방석과 함께 가라앉아 죽었다.

부대각은 바다에서 죽어 신체도 찾지 못하였으나, 부씨 댁에서는 가묘를 만들고 비석을 세워놓고 일년에 한 번 묘제를 지냈다. 집집마다 굿을 할 때는 부대각을 위로해야 덕을 받는 법이라고 전한다.

3 특징

부대각은 장사전설의 주인공으로도 널리 회자되는 인물이다. 부대각은 날개 달린 아기장수로 태어났으나 어떻게든 살아남아 장사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에 속하겠다. 다만 이러한 인물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는 것이 예사이나 부대각은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인물의 내력이 신화가 되고 그 주인공이 특정한 집안의 조상신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달리 보면 가문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한 인물이기도 하니, 당신본풀이에서 더러 보이는 유사한 사례를 함께 견주어 이해할 여지도 많음을 알 수 있다.

4 핵심어

겨드랑이, 날개, 아기장수, 장사, 제주성, 한양, 남산, 하도리, 수진포, 국마, 천금상

5 원전 서지사항

부대각본(김헌선 · 현용준 · 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6 관련 자료

평대부대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95)

C_M_031 비매닛당 비매닛할망당

1 개요

비매닛당 비매닛할망당 본풀이는 애월읍 어음1리 비매니 마을 할망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비매닛할망은 목이 말라 돼지발자국에 고인 물을 마셨는데, 남편이 부정하다며 따로 좌정하게 하였다.

2 내용

산신백관과 비매닛할망은 부부였다. 할망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하도 목이 말라 돼지발자국에 고인 물을 빨아먹고 왔다. 할으방이 날핏내가 심하니 무슨 까닭이냐고 물었다. 할망이 사실대로 고하였다. 할으방은 함께 좌정할 수 없다 하고 더러우니 바람 아래로 가라고 하였다.

3 특징

애월읍 소길리에 거주하던 남무 양시봉의 전승자료이며, 서사성이 매우 약하다. 부부인 남녀신이 돼지고기 금기를 어긴 것을 이유로 바람 위와 아래로 살림을 가르는 것은 당신 본풀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다.

제주도 서부지역에는 이러한 내용을 갖춘 본풀이가 드물지만 본래 그러한 것은 아님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4 핵심어

산신백관, 비매닛할망, 돼지발자국, 날핏내, 바람, 할으방(하르방)

5 원전 서지사항

비매닛당 비매닛할망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32 사계본향 큰물당

1 개요

사계본향 큰물당본풀이는 안덕면 사계리 본향당인 큰물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큰물당 하르방은 큰물에 논을 만들어 부자로 살다가 중을 만나 귀천을 깨닫고 주민들에게 논을 나누어 주었다.

2 내용

큰물당 조상은 한라산 섯어깨에서 무위이화(無爲而化)하여 솟아나 산방굴사로 내려섰다. 하르방은 산돼지 3백 마리가 노는 것을 보고 쫓으며 산방산 아흔아홉골을 다 돌았다. 나막신을 신은 채로 큰물로 내려서 산돼지 3백 마리를 잡아 피를 빼어 먹었다. 큰물머리에 좌정할 만하여 집을 짓고 살았다. 큰물 골짜기에 논을 만들어 농사를 지으니 큰 부자가 되었다.

하루는 중이 시주를 받으러 와서 절을 수리하기 위하여 왔으니 시주를 해달라고 했다. 하르방이 헌 절을 수리하면 무엇을 하느냐 하니 중이 귀천을 안다고 하였다. 하르방이 어떻게 귀천을 알 수 있느냐 하니, 중이 키 아홉 개를 매일 물에 씻어 이레동안 아침에 문전으로 올래까지 엎어놓고 타면 된다고 대답하였다. 하르방이 중의 말대로 하였더니 큰 비가 내려 수해가 나서 논의 벼가 다 휩쓸려 버렸다. 그때야 하르방은 귀천을 알겠다고 하고 논을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때 생긴 법으로 주민들은 해마다 큰물당에 벼 한 묶음씩 바쳤다.

3 특징

안덕면 사계리 여무 고인옥의 전승 자료이다. 전반부에서는 당신이 신의 면모를 뚜렷하게 보이나 후반부는 인간의 면모를 보인다. 하르방은 수렵을 하는 산신(山神)의 모습으로 나타나 귀천 모르는 부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중의 덕에 깨달음을 얻고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 당신으로 대접받는 존재가 되었다. 드물게 논이 있는 곳에 당이 있고 주민들이 당에 벼를 바치는 전통이 있는 점이 주목된다.

4 핵심어

무위이화, 산방산, 큰물당, 사계리, 아흔아홉골, 나막신, 산돼지, 시주, 키, 수해, 벼, 산신, 당신

5 원전 서지사항

사계본향 큰물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33 삼공본풀이

1 개요

삼공본풀이는 운명의 신인 가믄장아기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가믄장아기는 자신의 타고난 운명대로 산다고 말하였다가 부모에게 쫓겨났으나 마퉁이를 만나 마 파던 구덩에서 금덩이를 얻어 부자가 된 뒤에 걸인잔치를 하여 맹인거지가 된 부모를 상봉하여 눈을 뜨게 하였다.

2 내용

옛날 강이영성이서불과 홍운소천궁에궁전궁납이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살았다. 강이영성과 홍운소천은 걸식을 하며 살다가 서로 만나 혼인을 하였다. 첫째 딸을 낳으니 사람들이 은그릇에 가루를 타다가 먹여주니 은장아기라고 이름 지었다. 둘째 딸을 낳으니 사람들이 놋그릇에 가루를 타다가 먹여주니 놋장아기라고 이름 지었다. 셋째 딸을 낳으니 나무바가지에 가루를 타다가 먹여주니 가믄장아기라고 이름 지었다. 가믄장아기가 태어난 뒤로 점차 살림이 펴서 부자가 되고, 아이들은 고이 자라 열다섯이 넘어가게 되었다.

하루는 비가 촉촉 내리기에 강이영성 부부가 심심해서 딸들을 불러 누구 덕에 사느냐고 물었다. 은장아기와 놋장아기는 하느님 덕, 부모님 덕이라고 대답하나, 가믄장아기는 하느님 덕, 부모님 덕이기도 하고, 자신의 배꼽 아래 선 금 덕이라고 대답하였다. 강이영성은 크게 노하여 가믄장아기를 내쫓았다. 가믄장아기는 하직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다. 강이영성 부부는 그래도 가믄장아기가 염려되어 은장아기, 놋장아기를 내보내어 살피게 하였다. 은장아기, 놋장아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때리려고 하니 어서 가라고 오히려 내쫓는 바람에 지네와 버섯으로 변신하는 벌을 당하였다. 강이영성 부부는 두 딸이 되돌아오지 않자 어찌 된 일인지 확인하려고 뛰쳐나가다가 문 지방에 눈이 걸려 맹인이 되었다. 그리고 곧 재산이 없어져 다시 걸인이 되고 말았다.

가믄장아기는 검은 암소를 이끌고 돌아다니다 산중에서 허름한 오막살이를 발견하고 묵게 되었다. 그 집은 마퉁이네 집이었다. 마퉁이 3형제 가운데 막내가 마음씨가 좋아 가믄장아기는 막내 마퉁이와 동침한 뒤 부부가 되었다. 다음 날 마퉁이가 마 파던 곳에 가보니 구덩이에 금덩이가 가득하였다. 가믄장아기 부부는 금덩이 덕에 큰 부자가 되었다.

가믄장아기는 부모 생각이 간절하여 걸인잔치를 하기로 하였다. 걸인들이 모여드는데 강이영성 부부도 찾아왔다. 가믄장아기는 강이영성 부부에게는 음식 대접을 미루라고 해 둔 다음 따로 청하여 만났다. 부모에게 그간 살아온 내력을 말하라고 하니 강이영성은 살아온 내력을 풀어내었다. 가믄장아기가 자신의 존재를 밝히자 강이영상 부부가 크게 놀라는 바람에 눈을 뜨게 되었다.

3 특징

삼공본풀이는 강이영성 부부가 복을 타고난 가믄장아기를 얻고는 부자가 되었으나 가믄장아기를 내쫓자마자 곧 걸인이 되고 다시 가믄장아기를 만나자 복을 회복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믄장아기는 자신의 타고난 복을 믿고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삼공본풀이는 흔히 <내 복에 산다>계 설화와 같은 전승이라고 하며, 서동설화와도 연결되는 것으로들 이야기한다. 제주도 무속에서는 '노불리'라고 하면서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와 함께 무속의 중요한 근원을 담은 신화로 친다.

4 핵심어

강이영성이서불, 홍운소천궁에궁전궁납, 은장아기, 놋장아기, 가믄장아기, 검은 암소, 마퉁이, 금덩이, 걸인잔치, 걸인, 맹인, 배꼽, 선 금

5 원전 서지사항

삼공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

C_M_034 삼달본향당본풀이

1 개요

삼달본향당본풀이는 성산읍 삼달리 본향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서울 황정승 막내아들인 어매장군은 역적으로 몰려 중병이 든 아버지를 위하여 황소의 피를 빼어 먹인 뒤 제주도로 피난하여 당신이 되었다.

2 내용

황서국서 어매장군은 서울 황정승의 세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황정승은 병이 들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스스로 점을 쳤더니 황소의 피를 먹으면 낫는다는 답을 얻었다. 황정승이 백정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역적으로 몰린지라 나라에서 모든 백정을 잡아들여 버려 백정을 구할 수 없었다.

황정승은 세 아들에게 황소의 피를 뽑아달라고 하였으나 첫째와 둘째는 거부하고 막내 어매장군이 그리 하겠다고 하였다. 어매장군은 황소의 목을 참실로 묶고 고함을 쳐서 황소를 기절 시킨 뒤에 피를 뽑아 아버지에게 먹였다. 이렇게 하여 살아난 아버지는 어매장군에게 역적으로 몰려 죽을 테니 피난을 하라고 일렀다. 어매장군은 제주도로 피난하여 삼달리 당신이 되었다.

그 마을 김씨영감이 병이 드니 어매장군이 꿈에 나타나 자신을 제향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였다. 김씨영감이 어매장군을 대우하였더니 과연 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세상 일을 내다보는 능력을 얻게 되어 곧 부자가 되었다.

마을에 심한 흉년이 드니 김씨영감이 주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살려주었다. 나라에서 알고 통정대부 벼슬을 내려주었다. 김씨영감이 죽게 되니 나라에서 신위를 내어주었다. 이리 하여 어매장군 부부와 김씨영감을 당에서 함께 모시게 되었다.

3 특징

당신인 어매장군과 심방인 김씨영감의 내력이 연결되어 있다. 어매장군은 장수의 능력

을 지녔으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린 터라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 당연한 일을 하고도 제주도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영감은 처음으로 어매장군을 신으로 모신 덕에 영험한 심방이 될 수 있었다. 김씨영감은 자신의 능력을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쓴 덕에 벼슬을 받고 어매장군과 함께 당에서 모셔지는 존재가 되었다.

4 핵심어

황서국서, 어매장군, 서울, 황정승, 세 아들, 황소, 백정, 김씨영감, 통정대부, 흉년

5 원전 서지사항

삼달본향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 관련 자료

C_M_035 삼두구미본

1 개요

삼두구미본은 시체를 파먹는 괴물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한 여인이 삼두구미라는 괴물의 아내가 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나 기지를 발휘하여 괴물을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2 내용

삼두구미라는 할아버지가 터주나라 터주골에 살았다. 아내가 죽자 후처를 얻으러 다니다가 한 노인의 세 자매 가운데 큰딸을 얻었다. 삼두구미는 외출하면서 아내에게 사람 다리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였다. 아내는 다리를 마루 밑에 숨겼다. 돌아온 삼두구미가 다리를 부르니 마루 밑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므로 아내를 죽였다. 다시 둘째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 같은 방식으로 죽였다. 막내 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한다.

삼두구미는 막내딸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달걀, 무쇠조각, 버드나무라고 하였다. 삼두구미는 다시 같은 방식으로 아내를 시험하였다. 막내는 다리를 태워 얻은 뼈를 삼베에 싸서 자신의 배에 묶고 달걀, 무쇠조각, 버드나무 가지를 준비해두었다. 삼두구미가 돌아와 다리를 부르니 막내의 배에서 소리가 나므로 안심하였다. 막내는 삼두구미를 달걀, 무쇠조각으로 맞히고 버드나무로 때리니 삼두구미가 죽었다. 막내는 두 언니를 살려내었다. 이장할 때는 달걀, 무쇠조각을 함께 묻고 버드나무를 심는 법이 생겼다.

3 특징

삼두구미본은 특수본풀이에 속한다. 달리 '버들남본'이라는 자료로 전한다. 삼두구미(三頭九尾)는 머리 셋, 꼬리 아홉 달린 괴물이다. 흔히 시신을 파먹는 존재로 전한다.

삼두구미본은 묘를 옮길 때의 관습에 대한 기원을 전하는 이야기인 셈이다. 괴물에게 붙들려갔으나 괴물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그것으로 괴물을 퇴치한다는 이야기는 <최고운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 핵심어

달걀, 무쇠조각, 버드나무, 삼베, 다리, 막내딸, 이장, 삼두구미, 괴물

5 원전 서지사항

삼두구미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버들남본(문창헌, 《풍속무음(축사문) 下》,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C_M_036 삼승할망본풀이

1 개요

삼승할망본풀이는 산육신(産育神)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동이요왕 아기씨가 먼저 산신이 되었으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새롭게 부임한 멩진국 따님과 꽃가꾸기 경쟁을 한 결과 동이요왕 아기씨는 저승할망이 되고 멩진국 따님은 삼승할망이 된다.

2 내용

동이요왕 아기씨는 동이요왕과 서이요왕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기씨는 불효한 죄로 무쇠상자에 담겨 바다에 버려졌다. 이때 아기씨는 어머니로부터 아기 잉태시키는 법을 배웠으나 해산하는 법은 미처 배우지 못하고 쫓겨났다.

상자는 물 위에 3년, 물 아래 3년 떠다니다가 처녀물가에 닿았다. 아기씨는 상자를 열어본 임박사에게 자신을 삼승할망이라고 하였다. 임박사의 청에 따라 그 부인에게 잉태를 시켜주었으나 해산하는 법을 몰라 어미와 아기가 죽게 되자 처녀물가로 도망가서 울었다. 임박사가 옥황상제에게 해결해달라고 비니 옥황상제가 석가여래와 석가무니의 딸인 멩진국 따님에게 잉태와 해산의 방법을 가르치고 삼승할망의 일을 맡겼다.

멩진국 따님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동이요왕 아기씨를 만나 서로 삼승할망이라고 다투었다. 둘은 옥황상제에게 가서 결판을 내리기로 하고 옥황으로 갔다. 옥황상제의 명령에 따라 꽃가꾸기 내기를 한 결과 멩진국 따님이 승리하였다. 동이요왕 아기씨는 화를 내면서 멩진국 따님의 꽃을 꺾으면서 어린 아이들을 못살게 굴어 얻어먹겠다고 하고 저승할망으로 갔다. 멩진국 따님은 삼승할망이 되어 번성꽃을 가지고 잉태를 주고 산달이 차면 해산을 시키는 일을 하였다.

3 특징

안사인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삼승할망본풀이지만 구삼승할망인 동이요왕 아기씨의

내력과 삼승할망인 멩진국 따님의 내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우에 따라 구삼승할망본풀이 혹은 동이요왕따님아기본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삼승할망은 산신(産神)이다. 산신의 내력을 이처럼 갖추어 전승하는 사례는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다. 신구 산신의 대결양상을 흥미롭게 꾸미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4 핵심어

동이요왕 아기씨, 멩진국 따님, 동이요왕, 서이요왕, 번성꽃, 잉태, 해산, 옥황상제, 꽃가꾸기, 무쇠상자, 임박사, 저승할망, 삼승할망, 산육신

5 원전 서지사항

삼승할망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

C_M_037 상가본향 새당 할으방당

1 개요

상가본향 새당 할으방당 본풀이는 애월읍 상가리와 하가리에서 모시는 새당 할으방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상가리 새당은 초록동이라는 사람이 산신백관을 인도하여 당신으로 좌정하게 하여 이루어졌다.

2 내용

옛날 초록동이가 가난하게 살았다. 어느 날 '굴체(삼태기)'의 재료인 정동줄을 걷으러 산으로 갔다. 점심으로 수수범벅을 먹고 있는데, 산신백관이 나타나 맛보고 싶다고 하였다. 산신백관이 수수범벅 맛이 좋다고 하고는 초록동이를 따라 마을로 내려가 고내오름 큰신머들에 좌정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하루는 백관이 초록동이를 불러 사정을 말하였다. 초록동이는 무쇠활을 쏘아 흉험을 일으키면 모두 백관을 위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대로 하니 과연 사람들이 백관을 모시기 시작하였다. 나중에는 산신백관을 인도해 준 초록동이도 함께 모셨다. 옛날에는 말을 타고 당 앞을 지날 때는 하마해야 했다. 돼지고기 먹은 사람은 다니지 못하는 맑은 조상이다.

3 특징

당신본풀이 가운데 특이한 사례에 해당한다. 당신보다 신을 인도한 인물인 초록동이를 중심으로 전승한다. 당신인 산신백관은 초록동이가 인도하는 대로 좌정할 곳을 찾고 제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4 핵심어

상가리, 초록동이, 굴체, 정동줄, 수수범벅, 산신백관, 무쇠활, 흉험, 하마, 돼지고기, 할으방당, 큰신머들, 하가리, 새당

5 원전 서지사항

상가본향 새당 할으방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38 서귀본향당본푸리

1 개요

서귀본향당본푸리는 서귀포시 서귀·동홍본향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바람운님이 고산국과 혼인하였다가 미모가 뛰어난 지산국과 사랑에 빠져 도망하니 뿡개를 던져 좌정할 곳을 정하여 사람들의 교류를 금하고 제각기 다른 마을의 본향신이 되었다.

2 내용

제주 땅 설매국에 일문관 바람운님이 솟아났다. 바람운님은 활을 쏘면 삼천군병이 솟아나고 또 쏘면 삼천군병이 사라졌으며 상통천문하고 하달지리하였다. 바람운님은 바다 멀리 비오나라 비오천리 홍토나라 홍토천리에 고산국이라는 미색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청구름을 타고 가서 고산국을 만났는데 첫눈에 서로 반하였다. 둘이 부부의 연을 맺고 2, 3일 행복하게 지냈는데, 고산국보다 더 아름다운 미녀가 나타났다. 고산국의 동생 지산국이었다.

바람운과 지산국은 서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둘은 고민하다가 어두운 밤을 이용하여 함께 도망하였다. 이튿날 아침 고산국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산국도 천문에 정통하고 지리에 능달한 신인이어서 영기를 내둘러 따라가 한라산에 이르렀다. 바람운과 동생이 사랑에 취해 있었다. 분기 충천하여 뿡개로 돌을 날려 죽이려 하니, 동생은 도술로 안개를 피워 세상이 어두워졌다. 고산국은 동생의 도술이 더 뛰어나 안개를 걷어내지 못하였다. 할 수 없이 서로 해치지 말기로 약속하고 안개를 거두라고 하였다.

바람운이 향나무 가지를 꺾어 층암절벽에 찌르니 밤이 새어가며 동방에 달이 솟아오르면서 세상이 밝아졌다. 고산국은 동생에게 성을 지가로 고치고 각자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자고 하였다. 고산국이 인연을 끊고 한라산 아래로 가버리자 바람운과 지산국은 백록담, 해구무니, 달구무니에서 놀다가 좌정처를 정하려고 천리경, 걸륭쒜를 놓아 살오름 꼭대기로 가서 좌정하여 백차일을 치고 있었다. 웃서귀 김봉태가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섰다가 바람운을 만났다. 바람운은 김봉태에게 웃서귀로 길인도를 시켰다. 김봉태가 집 근처에 집을 지어 바람운과 지산국을 머물게 해주었다. 바람운과 지산국은 석달을 지내다 보니 말탄 인간 개짐승이 보기 싫어 다른 좌정처를 찾아 떠났다. 먹고흘궤에서 지내다가 그곳도 적당치 않아 다른 곳을 찾았다. 끝내는 서홍리 본향신으로 있는 고산국에게 의논을 청하였다.

고산국이 뿡개를 날리니 학담에 떨어지고, 바람운이 활을 쏘니 문섬 한골로 떨어졌다. 고산국은 학담을 경계로 하여 서홍을 차지할 것이니 당신네는 문섬 이북의 우알서귀를 차

지하라 하고, 두 마을 사람들이 서로 혼인도 못하고 왕래도 못하게 하였다.

바람운이 하서귀 신남 상가지에 서안상 받기 좋아 좌정하였으나 누구 하나 아는 체 하지 않았다. 하루는 웃서귀 오가 종손이 병이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입으로 바람운과 지산국의 사실을 내뱉었다. 이리 하여 오가에서 송씨 집에 알리니 송씨가 주민들을 모아 의논하여 당집을 짓고, 당을 맡을 심방을 정하고, 벵맷기를 만들고, 제일을 정하였다. 김봉태는 두 신위의 부하로 들어가서 제향을 받게 되었다. 두 신위는 우알서귀 본향이 되어 좌정하였다.

그전부터 소남머리 수진포 금상황제부인이 웃서귀 신남쪽을 바라보니, 어떤 신위가 좌정하기에 괴이하게 여겨 찾아갔다. 바람운을 만나니 우알서귀를 차지한 신이라 하니 부인도 자신이 하서귀 차지라 하였다. 바람운이 몰라본 잘못을 인정하니, 오히려 부인이 자신은 용왕을 맡겠다고 하며 물러섰다.

3 특징

고산국도 미색이지만 그 동생은 더욱 미색이어서 바람운이 고민하다가 사랑의 도피행각을 한다는 것이 다른 심방의 전승과 다르다. 고산국의 동생도 본래 이름은 고산국이지만 언니가 같은 성을 쓰지 말라고 하며 성을 지가로 바꾸었다고 한 것도 다른 심방의 전승과 다른 점이다. 바람운이 좌정처를 찾아다니다 고산국을 찾아 의논한 뒤에 뿡개 던지기로 결정한다는 것도 색다른 설정이다.

바람운이 좌정처에 이르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흉험을 주어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고 하는 것도 다른 마을 당신본풀이에서는 흔하나 서귀본향당본풀이에서는 굳이 필요치 않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김봉태의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먼저 자리잡은 금상황제부인이 본향신의 자리를 양보한다는 설정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4 핵심어

설매국, 바람운, 고산국, 지산국, 해구무니, 달구무니, 뿡개, 학담, 김봉태, 우알서귀, 서홍리, 홍토나라, 홍토천리, 비오나라, 비오천리, 소남머리, 수진포, 금상황제부인

5 원전 서지사항

서귀본향당본푸리(아키바 · 아카마스, 《조선무속의 연구 상》, 대판옥호서점, 1938)

6 관련 자료

C_M_039 선을안판관제주판관본

1 개요

선을안판관제주판관본은 조천읍 선흘리 안씨 댁의 조상신에 대한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선흘 안씨 집안에서 부군을 조상으로 모신 덕에 대대로 벼슬을 하였는데 제주판관을 할 당시 굿을 하면서 벼슬이 작다고 탄식하자 조상이 서운해 하며 고씨 심방을 따라가버렸다.

2 내용

안동(安東)에서 삼형제가 제주도로 들어와 한라산에 올랐다.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하고 선흘리 이데기머들에 이르러 각자 살 곳을 정하였다. 첫째는 납읍리, 둘째는 가시리로 가기로 하고, 막내는 선흘리에 머물기로 하였다.

삼형제는 베남ᄆᆞ를 큰 바위에서 귀는 주걱이요, 몸은 돌무더기인 부군(富君)을 만났다. 부군은 첫째와 둘째가 웃옷을 벗어 맞이하려 하였으나 거들떠 보지 않고, 막내가 윗옷을 벗어 맞이하니 옷 안으로 들어왔다. 삼형제가 부군을 동백나무 아래 좌정시키고 모시니, 대대손손 벼슬이 나왔다.

자손 가운데 제주판관(濟州判官)이 나오니, 성내(城內)에서 고씨 심방을 청해 굿을 하였다. 굿을 하는 도중 안판관(安判官)이 겨우 판관벼슬을 한다고 탄식하였다. 부군은 이를 듣고 서운해 하면서 심방을 따라가기로 하였다. 소미는 ᄀᆞ으니ᄆᆞ를에 이르자 상안체가 무거워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풀어보니 청만주에미가 들어 있었다. 고씨 심방은 안씨댁 조상이 따라온 것을 알고 큰굿을 하니, 이후에 고동지(高同知), 고첨지(高僉知), 별장(別將) 벼슬을 하였다.

3 특징

조상신이 자신을 홀대하자 굿하던 심방을 따라가 그 집안의 조상신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고대장본풀이에서도 나타난다. 일부는 칠성본풀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언급된다. 다만, 조상이 떠났다고 하는 전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판관 집안에서 전

승하는 본풀이에 이를 언급하는 점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조상이 떠났으니 더 이상 조상이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4 핵심어

안동, 삼형제, 선흘리, 이데기머들, 납읍리, 가시리, 베남ᄆᆞ를, 주걱, 돌무더기, 부군, 제주판관, 성내, 고씨 심방, ᄀᆞ으니ᄆᆞ를, 소미, 상안체, 청만주에미, 큰굿, 고동지, 고첨지, 별장

5 원전 서지사항

선을안판관제주판관본(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 관련 자료

C_M_040 세경본풀이

1 개요

세경본풀이는 농경신의 내력을 담은 무속신화이다.

인간세상의 자청비는 거듭 남장을 하면서 갖은 고난을 극복하고 하늘나라의 문도령과 사랑을 이룬 뒤에 오곡과 메밀 씨앗을 얻고 지상으로 내려와 농경의 신이 되었다.

2 내용

김진국 대감과 ᄌᆞ지국 부인은 부자로 살았으나 늦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이었다. 시주 받으러 온 중의 말을 듣고 절에 불공을 드렸으나 정성이 모자라 딸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과연 예쁜 딸을 낳게 되자 자청비라 이름짓고 고이 길렀다.

열다섯 살이 된 자청비는 하녀 느진덕정하님이 늘 빨래를 하니 손발이 곱다는 말을 듣고 함께 빨래하러 나섰다. 자청비는 하늘 옥황 문선왕의 아들 문왕성 문도령이 거무선생에게 글공부하러 가다가 물 한 모금을 청하자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워 건네 문도령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반하게 하였다. 자청비는 부모에게 친구와 함께 글공부하러 가겠다고 하고 오라비로 남장하고 문도령을 따라 서당으로 갔다. 문도령과 함께 숙식을 하게 되자 잠자리 사이에 대야에 물을 떠놓고 그 위에 수저를 걸쳐 이를 떨어뜨리면 공부를 망치는 법이라고 하여 접근을 막았다. 문도령이 자청비의 정체를 의심하는 바람에 오줌 멀리 누기와 같은 내기를 하게 되지만 기지를 발휘하여 승리할 뿐 아니라 자신의 여자임을 숨기는 데도 성공하였다.

자청비는 3년 뒤 하늘에서 혼인해야 하니 돌아오라는 편지를 받고 서당을 떠나는 문도령과 함께 귀향하기로 하였다. 도중에 목욕을 하고 가자 제안하고 문도령이 목욕하는 위쪽으로 가서 나뭇잎에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는 내용의 글을 써서 띄워 보내고는 먼저 집으로 향하였다. 사실을 알고 급히 뒤좇아 온 문도령과 하룻밤을 함께 지내고 떠나는 문도령에게 증표를 요구하여 복숭아씨와 얼레빗을 받아두었다.

자청비는 복숭아씨를 심고 기다렸으나 꽃이 필 때까지도 문도령 소식이 없자 심통이 나서 남종 정수남이를 게으르다며 나무랐다. 정수남이는 소 아홉, 말 아홉 마리를 이끌고 나무하러 가서 낮잠을 자다가 소와 말을 굶겨 죽이고도 모자라 그 고기를 다 먹어치우고, 연못에서 도끼를 던져 오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도끼마저 잃고, 도끼를 찾으려고 옷을 벗고 연못에 들어섰다가 옷을 도둑 맞는 지경에 이르자, 나뭇잎으로 성기를 가리고 몰래 집

으로 돌아가 장독대에 숨었다가 곧 발각되었다.

자청비는 정수남이가 산속에서 문도령이 선녀들과 놀이하는 것을 보다가 이 모양이 되었다는 거짓말에 속아 정수남이와 함께 문도령이 놀이하였다는 곳으로 향하였다. 자청비는 정수남이가 펼치는 갖가지 속임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끝내 겁탈까지 하려고 하자 정수남이를 죽이고 말았다. 자청비는 부모에게 사실대로 고하였으나 오히려 귀한 종을 마음대로 죽였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으로 가서 부엉이를 잡아주고 막내딸의 사위가 된 뒤에 주화(呪花)를 구해다가 정수남이를 살려내었다. 그러나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살린다는 이유로 다시 쫓겨났다.

자청비는 다시 정처없이 다니다가 주막집에 머물게 되었다. 비단 짜는 실력이 뛰어나 주모할머니의 수양딸이 되었다. 주모할머니가 짜는 비단이 문도령이 서수왕 따님에게 장가들 때 입을 옷임을 알고 대신 짜면서 자기 이름을 새겨 두었다.

자청비는 찾아온 문도령에게 창구멍으로 손가락을 들이밀라고 하고 바늘로 찌르는 바람에 문도령이 화를 내며 돌아가버려 만날 기회를 놓쳤다. 자청비는 상사병에 걸린 문도령이 자청비가 손발 씻은 물을 떠오라고 보낸 궁녀를 만나 함께 하늘로 갔다. 문도령 집에 이르러 나무에 올라 노래를 불러 드디어 상봉하여 증표인 얼레빗을 확인하고 병풍 뒤에 숨어 함께 살았다. 정체가 드러날 것을 염려한 자청비는 문도령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서수왕 따님과 파혼하고 자신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문도령 부모가 숯불 위에 놓인 칼날을 맨발로 타면 며느리로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대로 하다가 뒤꿈치를 살짝 베었으나 월경 탓이라고 하고 시험을 통과하여 혼인하게 되었다.

자청비는 자신이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의 막내딸과 혼인했던 사실을 말하고 문도령에게 보름씩 오가며 살라고 하고 보냈으나 보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편지를 보내었다. 편지를 보고 놀란 문도령이 엉겁결에 말을 거꾸로 탄 채 돌아오자 자청비는 손질하던 머리를 지푸라기로 급히 묶고 마중하였다.

둘이 행복하게 사는데 하늘 옥황의 청년들이 자청비를 탐내어 문도령을 죽이기 위하여 독약 탄 술을 먹이려 하자 자청비가 먼저 알고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으나 문도령은 거듭 이루어진 시도에 암살당하고 말았다. 이에 자청비는 다시 서천꽃밭으로 가서 환생꽃을 따다가 문도령을 살려내었다.

하늘 옥황에 큰 변란이 생기자 자청비가 문도령을 대신하여 장수로 나서 서천꽃밭에서 멸망꽃을 따다가 평정하고, 그 상으로 얻은 오곡씨를 가지고 7월 14일 인간 세상으로 내

려갔다. 도중에 만난 정수남이가 배고프다고 하므로 부자와 가난뱅이의 밭에 가서 얻어먹게 하고 그 대응을 보아 부자에게는 흉년 들게 하고 가난뱅이에게는 풍년들게 해주었다. 파종 시기가 늦어 조농사를 짓지 못함을 알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메밀씨를 얻어다 조 파종 시기를 놓쳤을 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정수남이는 하세경이 되었다.

③ 특징

안사인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세경본풀이는 본풀이 가운데 가장 풍부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애정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로 매우 드문 사례로 꼽힌다. 여성인 자청비가 지상과 천상을 넘나들며 주도적으로 사랑을 이루어갈 뿐 아니라 문도령에게 닥칠 위기를 내다보고 슬기롭게 대처하는가 하면 하늘나라의 변란을 평정하기까지 하는 모습이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축영대 양산백' 이야기, 함경도의 문굿 사설에서도 공통되는 내용이 있으나, 세경본풀이는 이들 이야기보다 훨씬 풍부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 정수남이가 소 아홉, 말 아홉을 잡아먹는 대식성을 보인다거나 자청비가 서천꽃밭의 꽃을 따다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한다는 내용은 제주도 본풀이 전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④ 핵심어

김진국, ᄌᆞ지국, 시주, 불공, 문도령, 거무선생, 버들잎, 정수남이, 대식성, 하늘 옥황, 서천꽃밭, 주화(呪花), 주모, 비단, 서수왕, 오줌누기, 환생꽃, 멸망꽃, 오곡씨, 메밀씨, 상세경, 중세경, 하세경, 축영대, 양산백, 문굿, 자청비

⑤ 원전 서지사항

세경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⑥ 관련 자료

C_M_041 세민황뎨본푸리

1 개요

세민황뎨본푸리는 사람은 적선을 하며 살아야 저승에서 보답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신화이다.

세민황제는 악행을 저지르다가 죽어 저승에 갔다가 이승의 빚을 갚으라는 원귀에게 시달리다가 이승으로 돌아가 빚을 갚는 한편 팔만대장경을 구하고 적선을 펼치는 삶을 살았다.

2 내용

세민황제는 포악할 뿐 아니라 불법(佛法)을 무시하면서 살았다. 그러다 죽어 저승에 가니 원귀들이 이승에서 진 빚을 달라고 둘러쌌다. 세민황제는 저승왕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승에서 적선을 한 매일장상 창고의 돈을 꾸어 먼저 갚고 적선을 하기 위하여 이승으로 돌아갔다.

세민황제는 매일장상의 돈을 꾸어 원귀들에게 갚은 뒤에 환생하여 매일장상에게 적선에 대한 지도를 받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팔만대장경을 내오기로 하였다. 세민황제는 호인대사에게 명하여 대장경을 가져오게 하였다. 호인대사는 절벽 틈에서 '빠른개비'를 만나 절벽과 바다를 건너 팔만대장경을 얻어왔다. 세민황제는 호인대사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매일장상을 불러 의논하며 저승 빚을 갚는 한편, 팔만대장경을 읽어 불법과 적선의 도를 마련하였다.

3 특징

서귀포 심방 박봉춘의 전승자료이다. 이 본풀이는 특수본풀이에 해당한다. 세민황제는 당태종인데 이처럼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이 무가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까닭은 알기 어렵다. 이승에서 못다한 일이 있어 죽어 저승에 갔다가 이승으로 돌아가서 일을 마저한다는 설정은 허웅애기본풀이에서도 볼 수 있다.

다만, 이 본풀이에서는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적선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이승의

삶이 저승에서도 이어진다는 관념이 엿보인다.

4 핵심어

세민황제, 불법(佛法), 저승, 원귀, 이승, 적선, 매일장상, 환생, 팔만대장경, 호인대사, 빠른개비

5 원전 서지사항

세민황뎨본푸리(아키바 · 아카마스, 《조선무속의 연구 상》, 대판옥호서점, 1938)

6 관련 자료

세민황제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C_M_042 세민황제본

1 개요

세민황제본은 사람은 적선을 하며 살아야 저승에서 보답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신화이다.

이승에서 적선을 하여 저승 부자가 된 매일이와 장삼이는 반대의 삶을 살았던 세민황제에게 돈을 꾸어주는데, 모두 함께 이승으로 돌아간 뒤에 세민황제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이승에서도 부자가 되었다.

2 내용

매일이와 장삼이는 가난하지만 적선을 하면서 살았다. 그 덕에 저승의 궤에 돈이 가득 차서 죽은 뒤 저승 부자가 되었다. 반면 세민황제는 남의 돈을 함부로 취하고 사악하게 살았다. 죽어서 저승에 가니 이승에서 피해입은 귀신들이 빚을 갚으라고 닥달하였다. 세민황제는 할 수 없이 매일이와 장삼이에게 돈을 꾸어 갚았다. 이들은 모두 회생하여 이승으로 돌아갔다. 세민황제는 매일이와 장삼이에게 진 빚을 모두 갚았고, 매일이와 장삼이는 이승에서도 부자가 되었다.

3 특징

조술생 구연본이다. 특수본풀이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역사 속 인물인 세민황제가 등장하나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다. 박봉춘 전승자료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는 매일이와 장삼이의 비중이 더욱 크다. 적선을 한 매일이, 장삼이와 남의 돈을 가로챈 세민황제를 적절하게 대비하여 구성하고 있다.

박봉춘본에 비하여 불교적인 색채가 약화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결국 이승의 삶에 관심을 둔 것도 그러하다.

4 핵심어

세민황제, 매일이, 장삼이, 적선, 빚, 저승, 이승, 부자, 귀신, 회생

5 원전 서지사항

세민황제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세민황뎨본푸리(아키바 · 아카마스, 《조선무속의 연구 상》, 대판옥호서점, 1938)

C_M_043 세화본향당 금상님본풀이

1 개요

세화본향당 금상님본풀이는 구좌읍 세화본향당에서 모시는 금상님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천하명장인 금상님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 죽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주술로 이겨내고 배필을 찾아 제주도로 가서 벡줏도를 만나 혼인하고 당신이 되었다.

2 내용

금상님은 서울 남산에서 솟아난 천하명장이다. 구척 장신에 전형적인 장수의 면모를 갖추었다. 금상님은 나라에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자 궁궐에 재해를 일으켜 자신을 알리려 하였다. 나라에서는 역적이라 하고 금상님을 잡는 자에게 상을 내리겠노라고 하였다.

수많은 장수들이 달려들자 금상님은 반항하지 않고 잡혔다. 아무리 금상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죽지 않았다. 무쇠 집에 가두고 석달 열흘 동안 불을 때었으나 금상님은 얼음 빙자(氷字)와 눈 설자(雪字)를 써붙이고 오히려 춥다고 야단을 치면서 스스로 무쇠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다. 금상님은 스스로 천기(天機)를 보아 배필이 제주도에 있음을 알고 세화리로 가서 벡줏도를 만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 혼인하고 살았다.

3 특징

이달춘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금상님은 전형적인 장수의 면모를 지닌 신이다.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 제주도로 들어왔다고 하였다. 비슷한 사례로 성산읍 삼달리 본향당의 어모장군이 있다.

장수신이면서 육식을 하기에 본향신인 벡줏도와 혼인하기 어려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비로소 혼인할 수 있었다. 육식을 하기에 본향신이 될 수도 없었다. 금상님이 자꾸 말라가자 정갈하게 씻어내라는 조건을 달고 돼지고기 제물을 받게

하였다고 한다.

현지에서는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바치는 돗제의 대상이 된다. 돗제를 지낼 때는 벡줏도와 금상님의 제물을 한 상에 차리되 두 신의 제물 사이에 백지를 두어 가린다.

4 핵심어

서울, 남산, 천하명장, 구척장신, 역적, 무쇠 집, 천기(天機), 세화리, 벡줏도, 돼지고기, 돗제, 삼달리, 어모장군

5 원전 서지사항

세화본향당 금상님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

C_M_044 세화본향당 벡주또본풀이

1 개요

세화본향당 벡주또본풀이는 구좌읍 세화리 본향당에서 주신으로 모시는 벡주또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벡주또는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받자 용왕국으로 가서 주술을 익힌 뒤에 제주도로 가서 멍동소천국의 겁탈 시도를 물리치고 당신으로 좌정하였다.

2 내용

벡주또는 서울 서대문 밖 임정국 따님으로 태어나 일곱 살에 부모에게 거슬린 죄로 외삼촌인 용왕천자국에게 갔다. 외삼촌에게 주술을 배우다가 열다섯이 되자 주술 주머니를 얻어 인간세상으로 갔다. 스스로 천기를 보니 외할아버지인 천잣도가 한라산에 계심을 알고 제주도로 갔다.

천잣도를 찾아 구좌읍 평대리 갓마리에 이르렀을 때 사냥을 하던 멍동소천국을 만났다. 소천국이 벡주또의 미모를 보고 안내해주겠다고 하였다. 벡주또는 소천국이 사는 곳에 소뼈, 말뼈가 많고 날핏내가 나는 것을 보고 그 정체를 알고 뒤돌아서려고 하였다. 이때 소천국이 벡주또의 손을 붙잡으니, 벡주또가 스스로 명도칼을 꺼내어 팔을 깎고 명주로 감았다. 천잣도를 찾아가 사정을 고하니 천잣도가 화를 내며 세화리와 소천국이 있는 갓마리 사람들이 서로 일체의 교류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3 특징

남녀신이 만나 혼인을 하고 식성이 문제가 되어 살림을 가르는 것이 당신본풀이의 가장 대표적인 줄거리이다. 이때 육식을 부정하다고 하는 신은 본향신이 되고 육식 금기를 어긴 신은 이렛당신이 되거나 수렵·목축의 신이 된다. 세화 벡주또본풀이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벡주또는 육식을 부정하다고 하면서 멍동소천국을 거부하였다. 사정이 다른 점도 없지 않다. 대개 식성 갈등이 문제가 되는 남녀신은 부부가 되었다가 별거하는 것이 예사이다. 그리고 이들은 별거하더라도 하나의 신앙권에 좌정하면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법이다. 그런데 벡주또는 멍동소천국을 아예 거부하고 말았을 뿐 아니라, 둘은 다른 신앙권에 좌정한다. 참고로 벡주또는 금상님을 배우자로 맞이한다. 금상님은 전형적인 장수의

면모를 지니고 그에 걸맞게 육식을 즐기는 존재였으나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혼인할 수 있었다.

벡주또와 소천국이라는 신명은 송당본향당본풀이에서도 등장한다. 따라서 세화 벡주또 본풀이도 같은 계통의 전승일 수 있다. 송당본향당본풀이에서 벡주또는 소를 잡아먹은 남편 소천국을 내치고 본향신이 되었다고 한다.

4 핵심어

서울, 서대문, 임정국, 용왕천자국, 주술 주머니, 천기, 천잣도, 한라산, 평대리, 갓마리, 멍동소천국, 날핏내, 명도칼, 육식, 신앙권, 송당본향당본풀이, 소천국, 벡주또, 소

5 원전 서지사항

세화본향당 벡주또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

C_M_045 ᄉᆞ만이본풀이

1 개요

사만이본풀이는 액막이의 근거로 내세우는 신화이다.

사만이는 백년해골을 조상으로 섬긴 덕에 정해진 수명을 넘겨 오래 살 수 있었다.

2 내용

주년국땅 소ᄉᆞ만이가 조실부모하여 거지로 살다가 15세가 되어 혼인하였다. 부인의 바느질 품팔이로 연명하면서 자식이 늘어 살 방도가 없었다. 하루는 부인이 머리카락을 잘라 주면서 장에 가서 쌀을 사오라고 하였다. ᄉᆞ만이는 장에 가서 돌아보다가 장사치의 말에 혹하여 쌀 대신 마세총[馬上銃]이라는 사냥총을 사왔다. 부인은 크게 원망하였으나 ᄉᆞ만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사냥을 다니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이 없던 차에 백년해골을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다가 조상으로 모셨다. 그 뒤로 사냥이 잘 되어 부자가 되었다.

ᄉᆞ만이가 33세가 되는 해 어느 날 백년해골이 꿈에 나타나 정명(定命)이 되어 차사가 잡으러 올 것이니 미리 제사상을 차려놓고 부인으로 하여금 굿을 하게 하라고 일러주었다. 그 말 대로 했더니 과연 차사가 ᄉᆞ만이를 잡으러 오다가 제사상을 보고 배고픈 김에 제물을 먹었다. 차사는 제사상의 주인이 ᄉᆞ만이임을 알고 차마 잡아갈 수 없어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저승 문서에 적힌 정명 30(三十)의 열 십자(十字)를 살짝 일천 천자(千字)로 고쳐놓았다. 염라왕이 따지자 문서대로 하였을 뿐이라고 우겼다. 그 결과 ᄉᆞ만이는 삼천년을 살았다.

3 특징

안사인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ᄉᆞ만이본풀이는 액운을 막아달라고 기원하는 제차인 액막이에서 구연한다. 인간의 수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원하면 그마저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백년해골을 신으로 섬긴다는 점에서 두개골 숭배라는 매우 오랜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자료에서는 ᄉᆞ만이 대신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을 대신 저승으로 데려갔다는 경우도 있다. 한 해 집안의 평안과 생업의 풍등을 기원하는 멩감제에서 구연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멩감본풀이'라고도 한다.

4 핵심어

주년국, 소ᄉᆞ만이, 조실부모, 품팔이, 머리카락, 마세총[馬上銃], 사냥총, 백년해골, 정명(定命), 꿈, 머리카락, 거지, 부자, 멩감본풀이

5 원전 서지사항

ᄉᆞ만이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

C_M_046 손당본향 소천국광 백주할망

1 개요

손당본향 소천국광 백주할망 본풀이는 구좌읍 송당리 본향당에서 모시는 백주할망과 소천국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백주할망과 소천국은 소천국이 밭갈이하던 소를 잡아먹는 바람에 별거하게 되고, 그 아들 송곡성은 아비를 찾아갔다가 불효한 탓에 무쇠상자에 담겨 바다에 버려졌으나 용왕국을 거쳐 강남천자국으로 가서 힘을 얻고 돌아가 부모를 제치고 권력을 쟁취한 뒤에 형제들을 전도의 당신으로 좌정하게 하였다.

2 내용

소천국은 하상천자국 소나무밭 아래서 태어나고, 백주할망은 왕대웃성 갈림길에서 태어난다. 소천국은 제주도로 들어와 가죽옷을 입고 사냥을 하며 산다. 백주할망은 중의 아기를 임신하여 부모의 미움을 산다. 무쇠상자에 담겨 바다에 버려져 열룬이에 표착한다. 둘은 혼인하여 송당으로 가서 산다. 자식이 많아지자 농사를 짓기로 하지만, 소천국은 밭갈던 소를 잡아먹고 만다. 이로 인하여 백주또가 소천국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여 살림을 가른다.

첫아들 송곡성이 자라 아비없는 자식이라고 놀림받자 아버지를 찾는다. 송곡성은 버릇없이 굴다가 소천국의 미움을 산다. 소천국은 송곡성을 무쇠상자에 담아 바다에 띄워 버린다. 송곡성은 용왕국에 닿는다. 송곡성은 용왕국 셋째 딸과 혼인하여 살지만, 식성이 과다하여 함께 살 수 없게 된다.

송곡성은 상자에 담긴 채 쫓겨나자 강남천자국으로 간다. 흉험을 주어 자신의 존재를 알린 뒤 난을 평정한다. 그 공으로 받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온다. 그 기세에 놀란 소천국과 계모는 죽어 당신이 되고, 형제 자매들도 모두 좌정처를 찾아 떠난다. 문곡성 부부는 한라산 ᄇᆞ름목에 좌정하여 만민의 제사를 받아먹고 그들을 지켜준다.

3 특징

두 세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송당본향당본풀이로는 1세대 이야기만으로 충분하나 송당본향당이 제주도 당신앙의 원조라고 하는 점을 내세우느라고 2세대 이야기를 길게 풀어낸다.

남신이 식성이 과다하여 살림을 가르거나 쫓겨나고, 여신이 부모에게 버려져 무쇠상자에 담겨 쫓겨나는 설정은 두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소천국은 흔히 한라산에서 솟아났다고들 한다. 소를 잡아먹은 탓에 별거를 당하는데, 이는 다른 당의 본풀이에서 돼지고기를 먹은 탓에 별거를 당한다고 한 설정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백주할망은 흔히 백줏도라고 하는 신이다. 대개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났다고 한다. 중의 아기를 임신한 탓에 부모의 미움을 사서 무쇠상자에 담겨 버려진다고 하는 설정은 송당본향당본풀이에서는 드문 사례이다.

4 핵심어

소천국, 백주할망, 사냥, 무쇠상자, 열룬이, 송당, 농사, 소, 송곡성, 불효, 용왕국, 식성, 강남천자국, 한라산, 백줏도

5 원전 서지사항

손당본향 소천국광 백주할망(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47 솥할망본

1 개요

솥할망본은 표선면 하천리 강씨 집안의 조상신 솥할망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바닷가에서 솥을 주워다가 솥으로 쓰려고 하였으나 아무리 불을 지펴도 물이 끓지 않아 고팡에 두었더니 꿈에 신이 나타나 자신을 조상으로 잘 위하면 자손들이 큰 벼슬을 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해서 조상으로 모셨더니 과연 꿈에서 들은 대로 되었다.

2 내용

바닷가에 올라온 큰 솥을 주웠다. 두 이레 열나흘 불을 때도 물이 끓지 않아서 고팡[庫房]에 가져다 놓았다. 어느날 밤 꿈에 "나는 수중 용궁에서 올라왔으니 잘 위하면 되로, 말로 분급해서 부자를 만들어 주마."라고 하였다. 그래서 항상 위하였더니 자손에 서귀진 조방장, 정의원, 대정원, 명월만호 같은 큰 벼슬이 나고 가문이 번창하였다.

3 특징

솥할망본은 성산읍 신풍리에 거주하던 여무 홍매화의 전승자료이다. 바닷가에서 주은 솥을 조상신으로 모셨더니 재복이 따랐다는 이야기이다. 신이 스스로 수중용궁에서 왔다고 하였으니 용왕국 따님아기와 관련지을 수 있어서 솥할망이라고 하는 여신으로 관념한 것으로 보인다.

4 핵심어

용궁, 부자, 서귀진, 정의원, 대정원, 명월만호, 벼슬, 솥

5 원전 서지사항

솥할망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48 시흥본향당본풀이

1 개요

시흥본향당본풀이는 성산읍 시흥리 본향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송갑사가 사온 천에 신이 따라와 그 딸에게 신병을 일으켜 자신의 존재를 알린 뒤에 당신으로 좌정하였고, 그 당을 맡던 부씨할망이 강도살해를 당하니 주민들이 범인을 찾아내어 징벌하였다.

2 내용

시흥리 송갑사가 양태 진상을 갔다가 저렴한 포목을 사서 한 배 가득 싣고 돌아왔다. 이를 본 딸이 국상(國喪) 중이어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땅을 파고 묻어버리라고 하였다. 송갑사는 그 말에 따라 항아리에 넣어 수령이 많은 팽나무 아래 파묻었다. 이로 인하여 송갑사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수의를 짓자고 포목을 꺼내려고 두껑을 열어보니 만주에미가 들어 있었다. 이를 보고 딸이 깜짝 놀라는 바람에 병이 들었다. 현씨일월에게 점을 보니 포목에 따라온 신이 있어서 그러니 굿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큰굿을 시작하여 초공연맞이에 이르니 죽어가던 딸이 자신의 방에 있는 무명으로 청룡, 백룡을 놀리라고 하였다. 그 말대로 하니 아기씨가 살아났다. 그 연유로 당신으로 모셨다.

두루웨할망 부씨할망이 열여덟에 당을 맡으면서 당에서 생활하였다. 어느 날 신흥리 한주 아들이 부씨할망을 구타하여 죽이고 곡식, 의복, 무구 등을 훔쳐낸 뒤에 당에 불질러 버렸다.

현씨 상단골이 범인을 전도를 다니다가 김씨 심방에게 가서 점을 보려고 하는데, 김씨 심방이 내어놓는 무구를 보니 부씨할망 물건이었다. 김씨 심방에게 물으니 한주 아들에게 샀다고 하였다. 현씨 상단골은 한주 아들을 데려다가 귀양정배를 보내고 부씨할망의 원수를 갚았다.

❸ 특징

이 자료는 당신의 내력과 당을 지키던 심방의 내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의 내력은 송갑사 따님아기의 내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송갑사 따님아기의 내력은 전형적인 조상신본풀이에 해당한다. 아버지가 뭍에서 가지고 온 천에 따라온 신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병을 앓고 굿을 통하여 신의 정체를 확인하고 모시기 시작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심방의 내력은 부씨할망이 강도살해를 당하고 무구까지 잃어버린 뒤에 단골들이 범인을 잡아 징벌한 사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매우 사실적인 내용이어서 늦은 시기까지 당신본풀이가 구비역사의 구실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❹ 핵심어

송갑사, 포목, 만주에미, 신병, 큰굿, 초공연맞이, 청룡, 백룡, 두루웨할망, 부씨할망, 시흥리, 한주 아들, 무구, 상단골, 귀양정배, 팽나무

❺ 원전 서지사항

시흥본향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❻ 관련 자료

시흥 한집본풀이(허남춘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C_M_049 신천본향 선씨일월

1 개요

신천본향 선씨일월 본풀이는 성산읍 신천리 본향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현씨일월은 양반집 딸로 태어나 무병을 앓았으나 오라비들이 적극적으로 무업을 할 수 있게 도우려 하다가 파선하여 죽으니 현씨일월도 따라 죽고 말았다.

2 내용

옛날 신하천리 현씨는 양반집이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다. 딸인 현씨일월은 세 살에 병이 들어 다 죽어가다가 일곱 살에 살아나고, 열다섯에 병이 들어 죽어가다가 열여덟, 열아홉에 살아났다. 오라비 형제는 무엇을 하든 살아나라고 하고, 심방이 된다고 하면 육지를 가서라도 무복을 사다줄 테니 살아나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라비 둘은 육지로 가서 옷감을 사서 신천리에 도착할 쯤 갑작스러운 바람에 파선을 당하여 죽고 말았다. 현씨일월은 낙담하여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

사람들이 물 길러 갔다가 현씨일월이 죽은 것을 보고 마을에 알렸다. 마을에서는 시신을 건져다가 신남밭에 묘를 마련해주었다. 이 마을에서 굿을 할 때는 현씨일월 몫으로 공싯상을 따로 차리고, 한편으로는 일월로 놀리고 한편으로는 심방으로 놀렸다.

3 특징

조천읍 신촌리에서 거주하던 정두삼의 전승자료이다. 현씨일월은 무병을 앓는 누이를 오라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병을 낫게 하려고 한 점, 오라비들이 누이의 무복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파선하여 죽은 점, 누이가 오라비들을 따라 스스로 죽음을 택한 점 등 전체적으로 보아 <예촌 양씨아미본풀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곧 현씨일월이 조상신의 면모가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면 당신으로 모시게 된 내력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4 핵심어

신하천리, 현씨일월, 심방, 무복, 신천리, 파선, 신남밭, 공싯상, 오누이, 당신

5 원전 서지사항

신천본향 선씨일월(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50 알당(금성)

1 개요

알당본풀이는 애월읍 금성리 알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금성리 김춘장이 다른 지방으로 장사를 다니다가 아기씨를 대우하여 덕을 보았는데, 제주로 돌아올 때 아기씨가 함께 따라오기에 고방에 모시니 부자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당신으로 모시게 되어 어부와 잠수가 모두 제향을 하였다.

2 내용

금성리 새서물 동네 김훈장은 육지를 오가며 장사를 하였다. 경상도, 황해도 등 돌아다니다가 전라도 지리산을 지날 때 아기씨를 만났다. 아기씨가 자신을 잘 사귀고 먹여주면 장사가 잘 되게 해준다고 하였다. 아기씨 요구대로 잘 먹이니 하는 일마다 잘되었다.

제주로 돌아올 때 아기씨가 자기도 데려가라고 하였다. 김훈장은 딱한 생각은 하면서도 혼자 몰래 배에 올랐다. 아기씨는 김훈장이 그리 할 줄 미리 알고 먼저 배에 올라 있었다. 그리고 김훈장을 은혜를 잊고 약속도 어겼다며 야단을 쳤다. 김훈장이 용서를 구하니, 고방(庫房)으로 모시라고 하였다. 김훈장이 아기씨를 모시니 집안이 부자가 되었다. 잘 위하다가 집을 뜯게 되니 대나무, 복숭아나무 아래로 옮겨 애기씨 선앙당으로 모셨다. 애기씨를 잘 위하면 어부와 잠수의 바다일이 잘 되어서 너나 없이 위하였다.

3 특징

애월읍 곽지리에 거주하던 이상문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다른 지방으로 간 제주 남성을 따라온 여성이 신이 되어 남성 집안의 조상신이 되는 것은 조상신본풀이에서 흔한 설정이다. 이로 보아 아기씨는 본래 한 집안을 돌보아주는 조상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중에 당으로 옮겨 모시게 되자 마을 어부와 잠수가 함께 모시는 당신으로 바뀌었음도 알 수 있다.

4 핵심어

금성리, 새서물, 김훈장, 경상도 황해도, 전라도, 지리산, 장사, 고방, 어부, 잠수, 선앙당

5 원전 서지사항

알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51 양씨아미본풀이

1 개요

양씨아미본풀이는 남원읍 신례리 양씨 집안의 조상신에 대한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양씨아미는 신병을 앓다가 드디어 심방이 되어 본격적으로 굿을 하려고 할 때 무구를 구하러 가던 오라버니의 죽음을 알고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고 조상신으로 모셔지게 되었다.

2 내용

정의고을 예촌 양좌수집에 양씨열이와 양씨아미 오누이가 외롭게 살았다. 누이동생인 양씨아미는 일곱 살 때부터 병이 들어 열다섯이 되도록 말라갔다. 양씨아미가 열다섯 되던 해 어느날, 예촌 마을 어느 집에서 큰굿을 하는데, 시왕맞이 차례가 되니 오라버니에게 자신을 업고 굿 구경을 가줄 것을 청하였다. 양씨열이가 동생을 업고 굿하는 집안 마당으로 가서 신자리 위에 앉혀놓으니, 양씨아미가 공싯상의 떡을 먹고 싶다고 하였다. 심방은 아기씨를 보고 사주를 그르쳐 심방이 될 사람이라고 말하며 떡을 주었다. 양씨아미는 떡을 두어 입 먹더니 눈물을 흘렸다. 심방이 마음이나 풀어주자며 노래를 불러가니,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던 양씨아미가 스스로 일어나 춤추며 놀았다. 한참 춤을 추고 난 양씨아미는 오라버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양씨아미는 자신이 심방이 된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과연 이후 하늘과 땅 일을 다 알게 되어 아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정의골 예촌 양댁이 천하거부로 사는데, 외아들이 사경에 이르자 양씨아미에게 점을 보러 갔다. 양씨아미가 굿을 하라 이르고, 직접 굿을 하려고 하였으나 굿을 할 무구와 의복이 없어 탄식하였다. 양씨열이가 심방에게 묵은 악기와 의복을 빌어다가 굿을 하고 있으면 자신이 육지로 가서 무구를 준비해 오겠다고 하였다.

양씨아미는 오라비의 말대로 심방의 악기를 빌어 굿을 하여 시왕맞이에 이르렀다. 아기씨가 점을 쳐보니, 오라버지가 수중고혼이 된 듯하였다. 아기씨는 얼른 복색을 차려 입고 무악기를 세 번 울리고, 예촌 열룬이의 혼연개 낭떠러지로 올라서더니, 동생 하나 살리려다가 오라비가 수중고혼이 되었는데 자신이 살아 무엇 하겠냐며 물속으로 뛰어들어 수중고혼이 되었다.

이리 하여 양씨아미는 예촌 땅 혼연개 아래 사는 양 씨댁으로부터 제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❸ 특징

안사인 심방이 전승하던 자료이다. 달리 양씨일월본풀이라고도 한다. 양씨아미는 남원읍 예촌(신례리 · 하례리) 양씨 집안의 조상신이다. 그런데 다른 심방들을 통해서는 예촌 양씨아미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심방이 될 운명을 타고난 여인이 심방이 되지 못하여 죽음에 이른다는 줄거리는 조상신본풀이에서 유사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❹ 핵심어

양씨일월본풀이, 정의고을, 양좌수, 양씨열이, 혼연개, 열룬이, 수중고혼, 떡, 공싯상, 신자리, 시왕맞이, 양씨아미

❺ 원전 서지사항

양씨아미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❻ 관련 자료

C_M_052 양이목ᄉᆞ본풀이

1 개요

양이목ᄉᆞ본풀이는 탐라양씨 명월파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제주 목사이던 양이목사는 백마 진상이 지나쳐 제주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죽었으나 그 뒤로 백마 진상이 없어져서 조상신으로 모셔졌다.

2 내용

옛날 탐라국 양이목사 시절, 제주에서는 백마 백 필을 진상으로 바쳤다. 양이목사가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진상할 백마를 보고 갑자기 욕심이 났다. 상시관에게 백마 진상 때문에 겪는 제주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해 진정하고 마장의 마부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상시관에게 진상하겠노라고 하였다. 백마 진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마부들은 양이목사의 말을 듣고 모두 기뻐하였다.

양이목사는 백마 백 필을 싣고 한양 고을로 가서 백마 백 필을 다 팔고, 그 돈으로 구한 물품을 전배독선 가득 사다가 팔았다. 양이목사는 이와 같은 방식을 세 번 거듭하였다. 이렇게 되자 상시관에서도 사정을 확인하고, 금부도사와 자객을 보내어 양이목사의 목을 베어오도록 하였다.

양이목사가 눈치를 채고 금부도사가 내려올 때에 맞추어 제주에서 가장 빠르다는 고동지의 배를 구하여 바다로 나섰다. 그러나 울돗목에 이르러서 금부도사와 만나고 말았다. 금부도사와 자객이 양이목사를 베기 위하여 칼을 휘둘렀다. 그러나 양이목사는 자객의 목을 베고, 금부도사를 무릎 꿇게 하였다. 양이목사는 금부도사에게 제주 백성에게 주어진 백마 진상의 과도함을 탓하고, 자신은 육지 백성들에게 백마를 나누어주고 제주 백성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해주었으니 잘못이 없다고 호통쳤다. 그 말을 듣던 금부도사가 펄쩍 뛰어 양이목사의 상투를 잡아채어 돛대 줄에 묶고 고사공에게 돛대 줄을 당기게 하여 양이목사를 돛대에 매달아버렸다.

금부도사가 양이목사의 목을 베니 그 육신이 바다에 떨어졌다. 육신은 곧 청룡, 황룡, 백룡으로 변하여 물속으로 들어갔다. 금부도사가 양이목사의 머리를 흰 보자기로 덮어 이물에 내려놓으니, 머리만 남은 양이목사가 고사공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자손들에게 탐라양씨 집안에서 굿을 하면서 내 슬픈 이야기를 풀어주면 우리 자손들을 만대유전 시켜 주겠노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금부도사가 임금에게 양이목사의 목을 바치고 그간의 사정을 고하자, 상시관에서는 제주에서 백마 백 필 진상하는 일을 없애주었다.

고사공이 전한 대로 양씨 장손 집안에서는 대대로 큰굿, 작은굿과 철갈이 등을 하면서 이 조상을 위한다.

3 특징

양이목사가 처음에는 진상용 백마에 욕심을 낸 것으로 설정된 점이 특이하다. 끝내는 백마 진상을 막아 제주 백성을 구제하는 공을 세운 것으로 처리되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전반부의 설정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 목사가 중앙의 권력에 대항하여 목숨을 바쳐 제주 백성을 구한 일은 없으나, 제주 사람들의 바람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핵심어

양이목사, 백마, 진상, 상시관, 금부도사, 자객, 고사공, 청룡, 황룡, 백룡, 큰굿, 작은굿, 철갈이, 제주 목사

5 원전 서지사항

양이목ᄉᆞ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

C_M_053 열리본향당본풀이

1 개요

열리본향당본풀이는 서귀포시 예래동 본향당에서 모시는 당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하로하로산과 족다리대서부인의 일곱 딸이 장성하니 함께 살기 어려워져 인근 여러 마을로 흩어져 이렛당신이 되었다.

2 내용

하로하로산과 족다리대서부인이 혼인하여 일곱 형제를 낳았다. 자식들이 열다섯이 넘으니 함께 살기 어려웠다. 각기 살 곳을 찾게 하니, 첫째는 대평리 주문도청, 둘째는 예래 망밧중저, 셋째는 사계리 청밧할망, 넷째는 화순리 원당밧일뤠중저, 다섯째는 감산리 도고세미일뤠중저, 여섯째는 창천리 닥밧일뤠중저, 일곱째는 예래 전신당일뤠중저로 갔다.

3 특징

열리본향당본풀이는 매우 간략한 내용이다. 자식 일곱이 되고 이들이 장성하니 함께 살기 어려워서 인근 여러 마을로 흩어져 제각기 이렛당신이 되었다고 하였다. 당신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지만, 자식 일곱이 차례로 이웃 마을 당신이 되었다고 하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다른 심방이 전하는 자료에는 그저 자식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꾸민 사례가 있다.

4 핵심어

하로하로산, 족다리대서부인, 대평리, 주문도청, 망밧중저, 사계리, 청밧할망, 화순리, 원당밧일뤠중저, 감산리, 도고세미일뤠중저, 창천리, 닥밧일뤠중저, 전신당일뤠중저

5 원전 서지사항

열리본향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 관련 자료

C_M_054 영감본

1 개요

영감본은 도깨비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영감신은 서울 김치백의 아들로 태어나 행실이 나쁜 탓에 동네에서 쫓겨나 송영감 집에 머물면서 부자가 되게 해주다가 송영감에게 내쳐지자 곳곳으로 흩어져 선앙으로 좌정하였다.

2 내용

김치백의 아들 삼형제는 서울 남대문 밖에서 솟아났다. 열다섯이 되니 동네 존장을 박대하고 처녀의 안 좋은 소문을 내곤 하니 마을에서 만주로 귀양을 보내었다. 삼형제는 송영감네 집으로 들어가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다음날 영감네가 너무 가난하니, 삼형제는 자신들은 잘 먹으면 잘 먹은 값을 하고 못 먹으면 못 먹은 값을 한다고 하였다.

영감이 무엇을 먹느냐 물으니, 삼형제는 소든 돼지든 닭이든 한 마리를 다 먹고, 수수떡, 수수밥, 돼지고기 안주, 소주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잘 대접하면 부귀영화 시켜주겠다고 하였다. 송영감이 이들을 잘 대접하였더니 삼형제가 거부가 되게 해주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삼형제가 분명 생도깨비이니 예방을 하지 않으면 삽시에 망할 것이라고 하였다. 송영감이 꾀를 내어 삼형제에게 경상도 안동땅을 도려내어 올레에 가져다 놓으면 계속해서 모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집을 떠나야 한다고 하였다. 삼형제가 그리 하마고 하였으나 끝내 실행하지 못하였다.

송영감은 삼형제를 묶어서 올레 나무에 묶어놓고 장검으로 세 도막을 내었더니, 삼형제가 일곱 형제로, 다시 아홉 형제로, 또 열두 형제로 벌어졌다. 송영감이 주문을 외우니 삼형제가 죽은 도깨비 혼령이 되었다. 송영감은 다시 도깨비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백마를 잡아 가죽을 올레의 담에 걸쳐놓고, 백마의 피를 울안에 뿌려놓았다. 이쯤 되니 도깨비들은 제각기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위로 삼형제는 서양각국, 버금 삼형제는 일본 대판, 그 다음 삼형제는 서울로 가고, 아래 삼형제는 강경 바닷가에 앉아 천기를 보니 제주도가 좋아 제주도로 가기로 하였다. 동복 장씨 선주, 김녕 차동지가 강경으로 곡식 장사를 갔다. 삼형제가 이들에게 자신들을 데려다 주면 부귀영화를 시켜주겠다고 하였다. 이리 하여 삼형제는 제주도로 들어와서 곳곳의 선앙으로 좌정하였다.

3 특징

한경면 조수리에 거주하던 여무 조술생의 전승자료이다. 요즘 전승하는 영감본풀이는 서사성이 그다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서사성이 충분히 갖추어진 사례이다. 도깨비가 능력이 많으나 안동땅을 떼어 옮기는 것만큼은 할 수 없었다는 대목이 흥미를 유발한다.

4 핵심어

김치백, 삼형제, 서울, 남대문, 송영감, 생도깨비, 안동땅, 백마, 대판, 동복, 김녕, 강경, 선앙

5 원전 서지사항

영감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55 영등당(한림)

1 개요

영등당 본풀이는 한림읍 한림리 영등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황영등은 외눈백이 섬에 잡혀온 어부들을 구해주고 영등굿으로 제향을 받는다.

2 내용

옛날 황영등대왕이 무위이화로 솟아났다. 용왕황제국에 들어가 동경국애기씨, 서경국부인, 선녀 등 셋과 함께 놀이를 하였다. 이때 한수리 고깃배가 풍파를 당하여 외눈배기 땅으로 휩쓸려 갔다. 영등대왕이 어부들을 왕석에 숨겨 두었다가 돌려보내면서 '가남보살 가남보살' 기도를 하면서 가라고 시켰다. 어부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고향이 가까워지자 안심을 하고 기도를 중단하였다. 홀연광풍이 불어 다시 외눈배기 섬으로 들어갔다. 영등대왕이 다시 살려주면서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영등달 초하루에는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어부들은 영등대왕 말을 명심하여 무사히 고향에 도착하였다.

외눈백이들은 영등대왕을 도막내어 바다에 버렸다. 머리는 소섬에, 발은 한수리에, 몸통은 성산리로 올랐다. 백성들은 영등대왕의 은혜를 생각해서 영등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3 특징

한림읍 옹포리에 거주하던 김승은 심방의 전승자료이다. 영등굿의 기원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외눈백이 괴물에 대항하여 영등대왕이 어부들을 구해주고 영등철마다 영등굿으로 제향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도 영등굿을 하면서 배를 타고 나가 베방선이나 씨드림을 할 때 잠수들이 두손 모아 '관음보살'을 외는 사례가 있다.

4 핵심어

황영등, 무위이화, 용왕황제국, 동경국애기씨, 서경국부인, 선녀, 한수리, 영등대왕, 가남보살, 영등당, 외눈백이, 소섬, 성산리, 영등제, 영등굿

5 원전 서지사항

영등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56 예촌보목효돈토평본향당본풀이

1 개요

예촌보목효돈토평본향당본풀이는 남원읍 신례리·하례리, 보목동, 효돈동, 토평동 사람들이 함께 모시는 조노깃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ᄇᆞ로못님은 백록담에서 내려오다 예촌본향당신들과 바둑으로 서열을 정하여 아래쪽 보목동에 좌정하기로 하고, 신중부인이 돼지고기 금기를 어기는 부정을 저지른 데 대하여 살림을 가르기로 한 다음, 인근 여러 마을 사람을 돌보는 본향신으로 좌정하였다.

2 내용

ᄇᆞ로못님이 아내 신중부인과 함께 백록담에서 내려오다 칠오름에 청기와집, 흑기와집이 있는 것을 보았다. ᄇᆞ로못님은 신중부인을 토평 허씨 과수에게 맡겨두고 다시 칠오름으로 갔다. 그곳에는 예촌본향신인 할로영산벡관님, 강남천자도원님, 칠오름도병서 셋이 바둑, 장기를 두고 있었다. 나이를 따져보니 조노기본향신인 ᄇᆞ로못님이 위이고, 예촌본향신이 아래였다. 예촌본향신들이 바둑을 두어 위, 아래를 가리자고 하고 ᄇᆞ로못님도 동의하였다. 이리 하여 바둑을 두는데, 예촌본향신들이 훈수를 두는 바람에 ᄇᆞ로못님이 지고 말았다. 그 결과로 예촌본향신은 위쪽 예촌에 좌정하고, ᄇᆞ로못님은 아래인 조노기로 내려가 좌정하였다.

예촌본향신 셋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밀양박씨가 지나갔다. 예촌본향신은 밀양박씨에게 자신들이 좌정할 곳을 알아보라고 하였다. 밀양박씨가 알아보고 비야기뒌밧이 좌정할 만한 곳이라고 하였다. 예촌본향신은 비야기뒌밧에 좌정하기로 하고, 밀양박씨로 하여금 당을 맡는 심방이 되라고 하였다.

ᄇᆞ로못님은 부인에게 가서 보니 날핏내가 났다. 그 까닭을 물으니 신중부인이 오줌 누러갔다가 돼지고기를 먹고픈 바람에 명주를 손에 감아 돼지 꽁무니로 손을 넣어 간회(肝膾)를 빼어먹었다고 대답하였다. ᄇᆞ로못님은 더러워서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며 신중부인으로 하여금 토평 막동골에 좌정하여 사냥꾼에게 설레산적을 비롯한 육고기를 받아먹으라

고 하였다.

ᄇᆞ로못님은 새금상따님아기를 첩으로 삼아 인근 여러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본향신으로 제향을 받았다.

❸ 특징

서귀포시 보목동 소재 궤눼깃당의 본풀이이다. 궤눼깃당은 예촌(남원읍 신리례·하례리), 효돈동, 토평동 등 인근 여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시는 본향당이다.

❹ 핵심어

궤눼깃당, ᄇᆞ로못님, 신중부인, 새금상따님아기, 밀양박씨, 조노기, 예촌본향신, 백록담, 칠오름, 할로영산벡관, 강남천자도원, 칠오름도병서, 비야기뒌밧, 간회(肝膾), 보목동, 청기와집, 흑기와집

❺ 원전 서지사항

예촌보목효돈토평본향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❻ 관련 자료

C_M_057 오설룡 따님아기 본풀이

1 개요

오설룡 따님아기 본풀이는 마소의 간을 내어 먹기를 좋아하던 아기씨의 영혼을 조상으로 모시게 된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오설룡 따님이 아기 때 밤에 몰래 나가 마소의 간을 빼어 먹어 마소가 죽어가니 아기의 손발을 잘라 다른 마을로 보내었는데, 남의 집 첩으로 살다가 죽어 돌아온 뒤로 다시 마소가 죽어가니 아기씨의 혼이 미친 것이라 하여 굿을 할 때마다 위하였다.

2 내용

오설룡 집안은 말도 백 수, 소도 백 수나 있고, 많은 종을 거느리면서 부자로 살았다. 자식이 없어 불공을 드려 딸을 얻었다. 아기씨가 구덕에서 자랄 때, 하루는 건강하던 말이 죽었다. 종들을 시켜 알아보게 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구덕에 누워있던 아기씨가 나와서 은대야에 물을 떠놓고 접시에 소금을 놓아 마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간과 창자를 꺼내어 물에 씻고 소금을 찍어 먹었다. 아기씨는 아무일 없던 것처럼 몰래 돌아가 구덕에 누웠다. 종은 상전이 알면 큰일 날 일이어서 제대로 고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상전이 부르니 직접 보라고 말하였다.

그날 밤 상전이 직접 아기씨의 행각을 보았다. 그대로 두면 집안이 망하겠다고 여기고 아기씨의 손발을 잘라버렸다. 죽으라고 해서 대정에 귀양을 보내니 첩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자식도 없이 죽어 친정으로 되돌아왔다. 그때 다시 건강한 말이 죽어갔다. 점을 치니 아기씨 같은 조상이니 산신일월로 모시고, 올레코사나 큰굿, 작은굿 할 때 잘 모시면 부자가 되게 해줄 것이라고 하였다.

3 특징

귀하게 얻은 자식이 요람에 있을 때 몰래 마소의 간을 빼어먹다가 손발이 잘려 버려졌다는 내용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설정을 담고 있다.

손발이 잘린 채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 그 영혼이 마소를 죽게 하여 조상신으로 모셔지게 한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4 핵심어

불공, 구덕, 은대야, 소금, 마소, 간, 창자, 산신일월, 올레코사, 큰굿, 작은굿, 오설룡 따님아기

5 원전 서지사항

오설룡 따님아기 본풀이(허남춘 외,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6 관련 자료

C_M_058 ᄋᆞ드렛당본풀이

1 개요

ᄋᆞ드렛당본풀이는 표선면 토산리 여드렛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토산 ᄋᆞ드레한집은 나주 금성산의 신이었는데 거처가 사라지자 바둑돌로 변하여 뱃사람을 따라 제주로 들어와 처녀로 변신하여 토산에 당신으로 좌정하였다가 파선하여 죽은 영혼들이 달려들어 겁간하는 바람에 죽자, 그 영혼이 강씨 아기에게 빙의하여 자신을 제향하도록 하였다.

2 내용

토산 ᄋᆞ드레한집은 나주 영산 금성산에서 솟아났다. 그 마을에 목사가 도임하면 백일을 채우지 못하고 봉고파직을 당하곤 하였다. 그 마을에 양이목사가 목사가 되기를 자원하였다. 양이목사가 행차하여 금성산을 지날 때 따르는 사람이 산의 영기가 있으니 하마(下馬)해야 된다고 하였다. 이를 무시하고 지나려고 하니 말발이 저려서 지날 수가 없었다. 양이목사는 따르는 사람 하나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커다란 청기와집에서 예쁜 아기씨가 긴 머리를 빗고 있었다. 양이목사가 제 몸을 보이라고 하니 아기씨는 커다란 뱀으로 변신하였다. 양이목사는 포수를 불러 기와집을 불태워버렸다. 한집은 바둑돌로 변신하여 서울 종로 네거리에 떨어졌다.

제주 강씨 형방, 오씨 형방이 미역 진상을 갔다가 바둑돌을 주웠으나 바로 버렸다. 제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바람이 없어 배를 띄울 수 없었다. 점을 치니 강씨 아기의 보자기를 풀어 보면 난데없는 보물이 있으니 선왕에게 바쳐 굿을 하면 바람이 불 것이라고 하였다. 그 말대로 하였더니 바람이 일어 배를 띄워 제주 온평리 포구에 도착하였다.

한집은 온평본향당의 멩호부인에게 명함을 드렸더니 이 마을은 자기가 차지한 곳이니 토산으로 가보라고 하였다. 한집은 토산리로 향하는데, 하천리에 이르렀을 때 개로육서또가 예쁜 아기씨가 지나는 것을 보고 팔목을 붙잡았다. 아기씨는 더러운 놈이 만진 팔목을 그냥 둘 수 없다며 장도를 꺼내어 깎고 명주천으로 동여매고, 토산 메뚜기ᄆᆞ루로 가서 좌정하였다. 한집이 용왕국에 가니 개로육서또를 거부하였다고 크게 나무랐다. 한집이 개로육서또를 불러보았으나 반응이 없었다.

오랜 가뭄으로 큰 흉년이 들자 한집은 느진덕정하님과 함께 빨래 하러 나섰다. 빨래를 하고 있을 때 바닷가로부터 도둑이 몰려왔다. 모진 돌풍에 배가 파선하여 선원이 다 죽었

는데, 그 영혼 몇이 한집을 쫓아왔다. 한집은 급히 도망하다가 결국 붙잡혀 겁간을 당하고 죽고 말았다.

한집의 혼정은 가시리 편안 강씨 집안의 외동딸에게 갔다. 강씨아기가 방아를 찧다가 갑자기 신병을 앓기 시작하였다. 조시문에게 점을 보니 마을 예청이 범접한 것이니 큰굿을 해보라고 하였다. 큰굿을 시작하여 초감제가 넘어가니 아기씨가 일어서서 연갑을 열어 옷감으로 굿을 해달라고 하였다. 연갑을 열어보니 옷감에 청만주에미, 흑만주에미가 말라 죽어 있으니, 백지에 뱀의 형상을 그려놓고 굿을 하였다. 다시 마을 예청도 대접해 달라고 하니, 소와 닭을 잡아 바치고 굿을 하였다.

3 특징

ᄋᆞ드렛당본풀이는 복잡한 전개양상을 보인다. ᄋᆞ드레한집은 처녀에서 뱀으로, 바둑돌로, 처녀와 뱀으로 거듭 모습을 바꾸어 간다. 전반적으로 조상신본풀이와 같은 전승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토산ᄋᆞ드렛당은 여신이 홀로 당신으로 좌정하였기에 다른 여드렛당의 근원이 되기는 하였으나 신들의 관계를 계보화하는 양상은 찾기 어렵다.

4 핵심어

토산리, 나주, 금성산, 뱀, 양이목사, 바둑돌, 강씨 형방, 오씨 형방, 가시리, 강씨아기, 온평본향당, 멩호부인, 하천리, 개로육서또, 용왕국, 장도, 만주에미, 초감제, ᄋᆞ드렛당, 여드렛당, ᄋᆞ드레한집

5 원전 서지사항

ᄋᆞ드렛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 관련 자료

C_M_059 우렝이 김씨조상본풀이

1 개요

우렝이 김씨조상본풀이는 제주시 외도동 우렝이 마을 김씨 집안 조상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양반 집 자손으로 태어난 김씨 하르방은 멩두를 발견한 뒤로 신기가 있어 결국 큰심방이 되었는데,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용연에서 기우제를 하여 비를 내리게 한 공으로 통정대부가 되고 관에서 지어준 큰집에서 부자로 살았다.

2 내용

김씨 하르바님은 본래 귀덕 양반 댁의 삼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열 다섯이 넘어 곽지리 고씨 댁에 장가를 들었다. 한 해는 처가에 세배를 하고 돌아가려고 곽지 위에 있는 세양거리를 지나는데, 난데없이 북소리, 징소리, 꽹과리소리가 들렸다. 말에서 내려 장남에게 큰 돌을 굴려보라고 하였다. 돌 아래를 보니 멩두 한 벌이 있었다. 멩두를 가지면 심방이 된다고 여겨 그냥 두고 돌아갔다.

그날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낫지를 않으니, 문점을 해서 굿을 시작하였다. 닷새가 되어 대신맞이가 당하니, 심방이 바른 말을 하라고 하였다. 누운 채로 사실대로 일렀다. 심방은 멩두를 모셔다가 굿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픈 몸을 이끌고 말을 타고 가서 멩두를 가져다가 큰굿을 하니 다시 건강을 찾았다.

하루는 여름철이라, 팽나무 그늘에 앉았더니, 무악기 소리가 뚜렷이 들렸다. 소리 나는 곳을 따라가다 보니 정의(旌義) 예촌마을에 이르렀다. 한 집에서 큰굿을 하고 있었다. 들어가서 술과 밥을 얻어먹었다. 자신도 심방이니 굿을 조금 해드리겠다고 하고 나섰다. 심방노릇은 할 줄 모르지만 글은 많이 아니 글로 이렇다 저렇다 읊었다. 그리고 나서 당부하기를 “사람들 동원해서 지붕을 헤집어 보시오.”라고 하였다.

그 집은 아들이 없어 대를 이어볼 요량으로 첩(妾)을 얻었는데, 본부인이 덜컥 아들을 낳아버렸다. 첩이 부아가 잔뜩 나서, 아들을 죽이려고 죽은 고양이를 여자 속곳에 싸서 상마루에 파묻었다. 그 바람에 아들이 곧 죽게 되었고, 이 때문에 굿을 하는 것이었다. 김씨 하르바님 말대로 하였더니 고양이가 있었다. 고양이를 불태웠더니 아기가 살아났다.

굿을 마치고 나오는데, 주인이 어디 사는 누구냐고 묻기에 대답을 해주고 나왔다. 두어 달 있으니, 예촌 그 집에서 곡식과 무명을 말에 잔뜩 싣고 찾아와 두고 갔다. 하르방은

일가친적을 불러다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는 마을을 떠나 이호이동 오도롱 골왓동네로 갔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심방노릇을 하여 큰심방이 되었다.

그렇게 사는데,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 김씨 심방이 목사에게 가서, 기우제(祈雨祭)를 해보겠다고 하고 목숨을 걸고 허락을 얻었다. 서른세 발을 길이로 용을 만들고, 꼬리는 용연 용수에 놓고 머리는 제상에 놓고 해서 굿을 하였다. 그리고 목사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내일 정오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과연 뒷날 열두시에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천둥, 벼락과 함께 큰비가 쏟아졌다.

이리하여 제주 백성들을 살려놓으니, 목사가 그만 하면 만백성을 살렸으니 심방을 그만두어도 좋다고 하고, 통정대부(通政大夫) 직함을 내어주고 외도 우렝이에 큰집도 지어주었다. 그곳에서 종들을 거느리면서 부자로 잘살았다.

3 특징

양창보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대부분은 멩두를 발견한 뒤 신병을 거쳐 입무하게 된 내력으로 채워졌고, 끝에 본격적으로 무업에 나서 큰심방이 되고 용연 기우제에서 능력을 보여 벼슬과 집을 받고 부자가 된 내력이 덧붙어 있다.

용연 기우제 관련 내용은 고대장본풀이에서도 볼 수 있다.

4 핵심어

귀덕, 곽지, 멩두, 예촌, 고양이, 오도롱, 큰심방, 용연, 용소, 기우제, 김씨 심방, 김씨 하르방, 외도동, 우렝이마을

5 원전 서지사항

우렝이 김씨조상본풀이(김헌선 · 현용준 · 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6 관련 자료

C_M_060 우렝이 신씨조상본풀이

1 개요

우렝이 신씨조상본풀이는 제주시 외도동 우렝이 마을 신씨 집안 조상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신씨 집안의 조상은 본래 가난하였으나 부자인 홍씨 집안의 사위가 되어 잘 살게 되었는데, 다시 가시리 강당장 따님과 연분을 맺어 얻어온 곡식에 따라온 뱀을 칠성으로 모셔 잘 살았다.

2 내용

옛날에 홍괄호라는 벼슬을 가진 하르방이 있었다. 홍괄호는 홍목사가 제주도에 도임하여 기생첩을 두어 낳은 아들이었다. 홍괄호는 이싱굴 위 높은ᄆᆞ를이라는 곳에 조그마한 초가집에서 살면서 장가를 가고 딸을 낳아 살았다.

뒤에 홍목사 조카가 다시 제주 목사로 내려왔다. 조카는 제주도에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홍목사의 부탁을 받은 터였다. 홍목사는 순력을 돌다가 이싱굴 높은ᄆᆞ를에 이르니 갑자기 소낙비가 내렸다. 급히 천막을 치고 비를 피하는데, 옆의 초막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사령을 시켜 알아보니, 홍괄호가 사는 집이었다. 목사가 다음날 홍괄호를 관덕정으로 오라고 하였다.

홍괄호가 관덕정에 들어가려는데 문지기들이 행색을 보고 붙잡았다. 문지기가 목사에게 확인한 뒤에야 겨우 안으로 들어갔다. 홍목사가 의복과 음식을 내주며 이레를 머물게 하였다. 그 사이에 홍목사는 관속들을 시켜 홍괄호의 집을 짓고 식량을 광에 채워 주었다. 이렇게 하여 홍괄호는 부자로 살게 되었다.

홍괄호의 딸이 열다섯을 넘어가니, 키가 크고 힘도 세어 당할 사내가 없어서 시집을 못 갔다. 가난한 신칩 하르방이 홍괄호의 딸에게 장가들기로 마음 먹었다. 홍괄호 따님아기가 신칩 시댁에 가서 사는 형편을 살피더니 도로 친정으로 돌아가 외손봉사를 하였다. 외손봉사로 내려오는 신칩의 전승이 계속 이어져 조상들을 위하면서 부자로 잘 살았다.

신칩 하르방이 걸시오름에서 밭을 갈다가, 정의 가시리 강당장 따님아기가 남편 병구완을 위해 대정으로 약을 지으러 가는 모습을 보았다. 신칩 하르방은 강당장 따님아기의 얼굴에 반하여 뒤쫓았다. 신칩 하르방이 강당장 따님아기에게 자신이 따라온 이유를 말하니, 강당장 따님아기는 하르방을 막산이구석으로 데려가서 큰 나무 사이에 올려놓고 나뭇

가지를 꺾어 그 사이에 가둬 놓고 가버렸다. 강당장 따님아기는 길을 가다 만난 어떤 남자에게 신칩 하르방을 살려 놓고 가라고 당부하였다. 덕분에 신칩 하르방은 간신히 나무에서 빠져나와 밭으로 가보니, 이미 소는 없어지고 쟁기도 부서져 있었다.

강당장 따님아기가 약을 지어 집으로 돌아갔으나 남편은 이미 죽어 있었다. 신칩 하르방은 포목장사를 하러 마을마다 돌아다니다가 가시리에 이르러 강당장 따님아기를 만났다. 신칩 하르방은 강당장 따님 집에 들어가 짐을 풀고 언약을 맺었다.

하루 이틀 뒤, 강당장 따님아기가 신칩 하르방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말 아홉 소 아홉에 곡식을 잔뜩 실고 가도록 하였다. 신칩 하르방이 집에 가니 딸들이 곡식을 헤아리다가 마대(麻袋)에 뱀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뱀을 칠성(七星)으로 모셨는데, 그 뒤로 부자로 잘 살았다.

❸ 특징

양창보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신씨 집안이 부자로 살게 된 내력을 여러 가지 사례를 엮어가면서 풀이하고 있다. 마음에 든 처녀에게 접근하였다가 오히려 힘으로 제압당하였는데 다시 그 처녀와 맺어지는 사례는 금악본향당본풀이와 같은 데서도 확인된다.

한편 곡식에 칠성이 따라와 부자가 되게 해주었다고 하는 대목은 고팡을 지키는 뱀신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강당장 따님아기가 모든 것을 내어준 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❹ 핵심어

홍괄호, 홍목사, 이싱굴, 높은ᄆᆞ를, 가시리, 강당장 따님아기, 칠성(七星), 외도동, 우렝이 마을, 신칩 하르방, 소, 곡식

❺ 원전 서지사항

우렝이 신씨조상본풀이(김헌선 · 현용준 · 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❻ 관련 자료

C_M_061 웃당본(토산)

1 개요

웃당본은 표선면 토산1리 토산본향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ᄇᆞ름운님은 불효한 탓에 상자에 담겨 요왕황제국에 가서 신중부인과 혼인한 뒤 함께 돌아와 토산에 좌정하는데, 신중부인이 돼지털 냄새 맡은 것을 부정하다 하여 마라도로 귀양 보낸 뒤에 후처로 맞이한 새로금상이 요구로 신중부인의 귀양을 풀어주었다.

2 내용

송당 금백조와 소천국의 아들이 부모에게 불효한 죄로 상자에 담겨 용왕국에 귀양을 당하였다. 상자는 물 아래 3년, 물 위로 3년 떠다니다가 용왕황제국 산호수 가지에 걸리자 깊은 밤중에 개가 짖었다. 용왕황제국이 세 딸을 보내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하니 막내딸만 상자가 걸려 있음을 알았다. 세 딸에게 상자를 내리게 하니 막내딸만 상자를 내릴 수 있었다. 세 딸에게 상자를 열라고 하니 역시 막내딸만 열 수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선관도사가 앉아 있었다.

선관도사는 송당의 셋째 아들로 불효한 탓에 귀양을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딸들 방으로 들라고 하니 막내딸 방으로 들어갔다. 갖은 음식을 차려도 아니 먹고 동침하지도 않고 처부모에게 인사드리는 법도 없었다. 막내딸이 황제국에 고하니 황제국이 까닭을 물었다. 선관도사는 좋아하는 술과 고기를 먹지 못하여 배가 고파 그렇다고 하였다. 황제국이 사위 하나 대접 못하겠느냐고 하면서 원하는 대로 음식을 차려주다 보니 창고가 다 비어갔다. 황제국이 막내딸을 불러놓고 남편과 함께 떠나라고 하였다. 황제국은 배를 내어주고 주술 주머니를 내어주며 둘을 보냈다.

송당으로 들어가니 느진덕정하님이 죽으라고 던져버린 상전이 돌아온다고 일렀다.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니 믿지 않고 문을 잠가버렸다. ᄇᆞ름운님이 주머니로 부모 눈에 콩깍지를 들게 하니 눈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였다. 문을 열어주니 부모에게 문안을 올렸다. 그간의 사정을 말하고 아내인 신중부인을 인사시켰다. 신중부인은 아기 일곱을 잉태중이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적에 분가한 아이라 함께 살 수 없으니, 토산 서당팥에 좌정하여 제향을 받으라 하였다. ᄇᆞ름운님과 신중부인이 부모에게 하직하고 집을 나섰다. 이때 신중부인은 ᄇᆞ름운님을 먼저 보내고 한라산을 구경하러 갔다. 구경 다니다가 목이 말라 돼지발자국에 고인 물을 빨대로 빨아먹는데, 돼지털이 콧구멍에 들어 불로 그슬리니 돼지

고기를 먹은 듯하였다. 서당팥으로 가니 ᄇᆞ름운님이 날핏내가 나니 부정하다 하며 마라도로 귀양을 보내었다. ᄇᆞ름운님은 저산국 따님 새로금상을 후처로 맞이하였다. 새로금상이 전처가 마라도로 귀양간 사실을 알고, 귀양을 풀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직접 마라도로 가보았더니 신중부인이 아기 일곱을 낳아 기르고 있었다. 새로금상은 사정을 이야기 하고 아기들을 데리고 먼저 출발하고, 신중부인더러 고동을 잡아먹으며 천천히 오라고 하였다.

새로금상은 산방산에 이르렀을 때 한 선비가 새로금상의 인물이 좋아 붙잡으려 하니 급히 달려 서당팥으로 갔다. 아이들을 확인해 보니 하나가 없어 급히 남장을 하고 되돌아가 아기를 데리고 가서 신중부인에게 맡겼다.

3 특징

박생옥 심방 구연본이다. 전형적인 송당계 본풀이의 서사맥락을 갖추었다. 신중부인은 용왕황제국 막내딸이면서 주술적인 능력을 지녔고, 일곱 아기를 낳았으며, 돼지고기 금기를 어긴 존재이니 이렛당신의 면모에 부합한다.

이 자료 말미에는 신직이 분명히 처리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4 핵심어

송당, 금백조, 소천국, 용왕황제국, 상자, 신중부인, 돼지발자국, 돼지털, 저산국 따님, 새로금상, 서당팥, 토산1리, 토산본향당, 느진덕정하님, ᄇᆞ름운님

5 원전 서지사항

웃당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토산일뤳당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C_M_062 원당할망본

1 개요

원당할망본은 양반의 소실이 되는 바람에 굿을 못하게 되자 자살하여 조상신이 된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원당할망은 제주 강씨형방이 서울 원당고을의 굿판에서 미모의 처녀를 데리고 왔으나 굿을 못하게 하자 처녀가 한을 품고 자살한 뒤 집안의 조상신이 되었다.

2 내용

성산읍 신풍리 강씨형방이 서울에 신연살이 갔다가 오는 길에 원당고을에 들러 점심을 먹었다. 동네 굿청에서 열다섯 처녀가 갑사 쾌자에 연반물 치마를 입고 굿을 하는데 천하일색이었다.

강씨형방이 유향소에 성명을 물으니, 도내의 심방이라고 하였다. 강씨형방이 그 처녀를 소실로 들여서 도포자락 속에 숨겨 들어왔다. 양반의 집에서 천인을 첩으로 들일 수가 없어서 따로 집을 지어 살게 하고 굿을 못하게 하였다. 할마님이 문을 닫아 놓고 춤을 추어도 가슴이 풀리지 않아 몸이 말라갔다. 춘삼월 한물 때에 문을 잠근 채 불을 질러 원통하게 이승을 떠났다.

할마님은 야속하고 원통하여서 양반과 같이 기일제사, 명절을 받아 먹을 수가 없으니 안칠성으로 위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안칠성, 밧칠성으로 나누어 성편, 외편, 동네로 줄기가 이어진 조상이다.

3 특징

성산읍 신풍리 여무 홍매화가 전승하던 자료이다. 원당할망은 애초에 무당 신분으로 제주 남성을 따라왔으나 굿을 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자결하였다. 양반 집이어서 심방일을 못하게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정은 조상신본풀이에서는 흔히 보는 것이다.

4 핵심어

신풍리, 강씨형방, 신연살이, 원당고을, 쾌자, 연반물, 유향소, 안칠성, 밧칠성, 원당할망, 심방

5 원전 서지사항

원당할망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63 원천강본

1 개요

원천강본은 역적으로 몰려 몸을 숨긴 남편을 붙잡히게 한 탓에 남의 사주를 보면서 살게 된 원천강의 내력을 전하는 신화이다.

원천강은 왕이 되려고 하다가 들키자 몸을 숨긴 남편을 실수로 붙잡히게 하였는데, 이를 원망한 남편이 원천강으로 하여금 평생 남의 사주나 보면서 살라고 하였다.

2 내용

원천강 남편이 왕이 되려고 하자 나라에서 잡으려고 하였다. 원천강 남편은 항아리에 숨어 이를 피하였다. 나라에서는 한 부인에게 아기를 업고 가서 찾게 하였다. 여인은 원천강에게 남편을 내놓으라면서 아기를 낳기만 하고 돌보지 않는다고 나무랐다. 이에 화가 난 원천강이 항아리를 열어 젖히자 나라에서 남편을 붙잡아갔다. 남편은 사흘만 버티면 하늘로 가서 왕이 될 터인데 일을 망쳤다며 부인에게 원천강이나 보면서 살라고 하였다.

3 특징

조술생이 구연한 자료로 특수본풀이에 해당한다. 원천강(袁天綱)은 당나라의 이름난 점쟁이인데 본풀이에서는 남편의 앞을 가로막는 하찮은 여인으로 등장한다. 원천강이나 보라고 하는 것은 점이나 보라는 뜻이겠다. 단 사흘 앞도 내다보지 못하였으니 평생 남의 앞일을 헤아리는 일을 맡으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다.

4 핵심어

특수본풀이, 항아리, 아기 업은 여인, 원천강

5 원전 서지사항

원천강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원텬강본푸리(아키바 · 아카마스, 《조선무속의 연구 上》, 대판옥호서점, 1938)

C_M_064 원텬강본푸리

1 개요

원텬강본푸리는 오늘이가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부모인 원천강을 만난 뒤에 원천강을 등사하면서 살았다는 내용을 담은 신화이다.

오늘이는 근본도 모르고 있다가 원천강이 부모라는 말을 듣고 무작정 찾아나서 여럿의 도움을 얻은 뒤에 원천강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도움을 둔 이들에게 보답을 하고 난 뒤 절을 돌아다니면서 원천강을 등사하면서 살았다.

2 내용

오늘이는 강남들에서 솟아나 근본도 모르고 학의 도움으로 자랐다. 백씨 부인이 원천강이 부모라고 하면서 서천강가에서 글 읽는 아이에게 물으면 가르쳐 줄 것이라 하였다. 글 읽는 아이를 찾아가니 아이는 가다가 연못의 연꽃에게 물으면 알 것이라 하고, 자기가 글만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연꽃에게 가서 물으니 큰 뱀을 찾아 물으면 알 것이라 하고, 자기의 운명을 알아보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큰 뱀에게 가서 물으니 매일이에게 가서 물으면 알 것이라 하고, 자기는 야광주를 셋이나 물어도 용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매일이에게 가서 물으니 가다가 우는 궁녀에게 물으면 알 것이라 하고, 자기가 매일 글만 읽어야 하는 운명을 알아보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옥황상제로부터 못물 푸는 일을 맡은 궁녀를 만나 함께 물을 퍼주고 한 별당에 이르러 마침내 원천강을 만났다. 부탁 받은 일의 해답을 들어 인간세상으로 돌아오면서 일일이 전해주었다. 그 뒤 절을 돌아다니면서 원천강을 등사하였다.

3 특징

박봉춘이 구연한 자료로 특수본풀이에 해당한다. 진성기가 수집한 <원천강본>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원천강본풀이가 갖추어야 할 내용을 두루 갖추고 있다.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이유로 사는지 모르지만 원천강을 통하면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4 핵심어

오늘이, 강남들, 학, 매일이, 연못, 연꽃, 큰 뱀, 야광주, 용, 궁녀, 옥황상제, 운명, 원천강, 백씨부인, 서천강가, 등사

5 원전 서지사항

원텬강본푸리(아키바 · 아카마스, 《조선무속의 연구 상》, 대판옥호서점, 1938)

6 관련 자료

원천강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C_M_065 월정본향당본풀이

1 개요

월정본향당본풀이는 구좌읍 월정리의 본향당에 얽힌 전승이다.

기자불공하여 태어난 황정승 따님이 구렁이로 변신한 탓에 무쇠상자에 담겨 버려지자 자신을 발견한 낚시꾼에게 조상신으로 대우받다가 다시 여자로 환생하여 배필을 만나 혼인하여 살다가 돼지고기 금기를 어긴 탓에 별거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2 내용

옛날 황토고을 황정승(黃政丞)이 40세까지도 자식이 없어 불공을 드려 딸을 얻었다. 황정승이 벼슬살이를 떠날 때 일곱 살 된 딸이 아비를 쫓아가다가 들에서 그만 길을 잃고 구렁이 몸으로 환생한다. 딸이 행방불명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황정승이 급히 돌아와 딸의 방문을 열어보니 큰구렁이가 서리어 있었다.

황정승은 구렁이를 무쇠상자에 담아 바다에 띄워버렸다. 상자는 물 위에 3년, 물 속에 3년 떠다니다가 뒷개[北村] 복덕개에 닿았다. 김첨지(金僉知) 영감이 새벽 볼락 낚으러 나섰다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았다가 큰 구렁이가 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그 바람에 구렁이는 영감의 딸 삼형제에게 흉험(凶驗)을 주어 일시에 병이 들게 하였다.

김첨지가 점쟁이에게 물으니 구렁이를 모셔야 된다고 하였다. 정성스럽게 제물을 마련하여 구렁이를 대우하니 딸 삼형제가 모두 병이 나았다. 이에 김첨지는 구렁이를 조상신으로 모시려고 하였다. 구렁이는 김첨지 집 뒷곁으로 가서 좌정하였다.

구렁이는 그 날 밤에 여인으로 환생(還生)하였다. 스스로 점을 보니 제주 남방국 신산국이 천상배필(天上配匹)이 됨을 알았다. 신산국을 찾아나서 돌아다니다가 월정리 비석거리에 이르러 신산국을 만나 서로를 확인하고 혼인하였다.

신산국은 사냥하러 한라산을 돌아다니고 황정승 따님은 일곱 아기를 낳아 돌보며 살았다. 황정승 따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구경 다니다가 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마셨다. 이때 돼지털이 코에 박히니 빼내어 불에 그을리고 손바닥에 놓아 부벼서 먹었더니 마치 고기를 먹은 듯하였다.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신산국이 부정한 냄새가 난다고 캐묻자 황정승 따님은 사실대로 일렀다. 신산국은 함께 살 수 없다며 살림을 가르자고 하고, 황정승 따님과 일곱 아기를 서당머체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살게 하였다. 황정승 따님이 떠나는 신산국에게

살 방도를 마련해달라고 하자 신산국은 주민들에게 두통, 복통 등 온갖 병을 일으켜서 얻어먹으라고 일러주었다.

황정승 따님은 주민들에게 갖가지 병을 일으켜서 주민들로부터 돗제로 대우받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서당머체에 자리잡은 황정승 따님을 서당국부인이라고 하였다. 신산국은 정월 열사흗날에는 자신이 있는 당커릿당으로 와서 함께 대제를 받으라고 일러두고 마을로 갔다. 그리고는 마을 유지를 불러 모아 자신을 제향하도록 하였다.

❸ 특징

구좌읍 행원리 이중춘 구연본이다. 주신은 신산국인데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서당국부인을 중심으로 하여 짜였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황정승 따님의 출생과 상주표착, 후반부는 신산국과 서당국부인의 혼인과 별거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는 칠성본풀이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갖추었다.

기자불공하여 태어난 아기씨가 벼슬살이 떠나는 아비를 좇다가 길을 잃고 구렁이로 환생하며 다시 무쇠상자에 담겨 바다에 버려진 뒤에 제주도에 이르러 신으로 대접받는다고 한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후반부는 가장 보편적인 당신본풀이의 내용을 갖추었다. 남신과 여신이 만나 혼인을 하고 살다가 여신이 돼지고기 금기를 어긴 탓에 살림을 가르고, 남신은 본향신이 되고 여신은 이렛당신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 전형적인 줄거리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❹ 핵심어

황정승, 구렁이, 김첨지, 신산국, 서당국부인, 당커릿당, 서당머체, 돼지털, 두통, 복통, 돗제, 대제, 유지

❺ 원전 서지사항

월정본향당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❻ 관련 자료

C_M_066 이공본풀이

1 개요

이공본풀이는 서천꽃밭의 주화(呪花) 관장신인 이공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빈부차를 극복하고 혼인한 사라도령과 원강아미가 아이를 가졌을 때, 사라도령이 꽃감관 벼슬을 살러가게 되어 원강아미도 함께 나섰으나 도중에 재인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려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할락궁이를 낳고 길렀는데, 할락궁이가 탈출하여 부자상봉하고 주화를 얻어 재인장자를 멸족시켜 복수하였다.

2 내용

한 마을 친구인 임진국과 김진국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 고민이었다. 임진국은 아이를 얻기 위하여 불공을 드리기로 하고 김진국에게 함께 하자고 권했다. 김진국은 워낙 가난하여 불공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이어서 임진국이 대신 제물을 차려 주기로 하고 함께 불공을 드렸다.

둘은 사이좋게 딸, 아들을 얻어 장래 사돈이 되기로 약속하였다. 임진국은 정성이 모자라 딸 원강아미를 얻고, 김진국은 아들 사라도령을 얻었다. 원강아미가 자라자 임진국은 사라도령이 가난하다며 혼인 약속 지키기를 거부하였다. 원강아미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설득하여 둘은 마침내 혼인을 하고 원강아미는 곧 임신을 하였다.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의 꽃감관 벼슬을 하러 가게 되어 둘은 이별할 위기에 처하였다. 원강아미가 임신한 몸을 이끌고 따라 나섰으나 도중에 지쳐 함께 갈 수가 없어 재인장자의 종이 되어 남았다. 원강아미는 거듭된 재인장자의 동침 요구를 받았으나, 갖은 핑계로 재인장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할락궁이를 낳아 길렀다. 할락궁이를 낳고 난 뒤에는 재인장자의 요구가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원강아미는 재차 핑계를 대어 재인장자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참다못한 재인장자로부터 할락궁이와 함께 갖은 벌역을 당하였다. 자신의 내력을 눈치 챈 할락궁이가 원강아미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캐묻고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할락궁이는 재인장자의 추격을 피하여 서천꽃밭에 이르러 서천꽃밭에 흉험을 주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사라도령을 만나 부자지간임을 확인하였다.

사라도령은 원강아미가 재인장자에게 죽임을 당한 사실을 할락궁이에게 알려주고 온갖 주화를 건네며 원수를 갚으라고 하였다. 할락궁이는 재인장자에게 돌아가 주화로 멸족시키고 죽은 원강아미를 살려내고, 원강아미를 인도하여 서천꽃밭으로 갔다.

3 특징

안사인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제주 무속에서는 이공본풀이는 '꼿불리'라고 하여 <초공본풀이>, <삼공본풀이>와 함께 무속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신화로 매우 중요시 한다. 할락궁이는 어머니 원강아미에게 온갖 괴롭힘을 가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한 재인장자를 서천꽃밭의 꽃으로 멸족시키는 복수를 하고 죽은 어머니를 살려 내었다. 서천꽃밭의 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그 밖에도 다양한 주술적 힘을 지녔으나 핵심은 이 두 가지에 있다.

4 핵심어

임진국, 김진국, 사라도령, 원강아미, 할락궁이, 서천꽃밭, 꽃감관, 재인장자, 부자상봉, 주화, 멸족

5 원전 서지사항

이공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

C_M_067 이씨할망조상본

1 개요

이씨할망조상본은 제주 남성을 따라온 육지 여성이 죽은 뒤에 조상신으로 모시게 된 사정을 담은 신화이다.

김씨 할으방은 육지로 갔다가 주막에서 하룻밤 정분을 나눈 이씨 할망이 막무가내로 따르자 함께 제주로 왔는데 할망이 죽은 뒤에 조상으로 모시게 되었다.

2 내용

옛날 김씨 할으방이 과거보러 육지에 갔다가 주막에서 하룻밤 유숙하게 되었다. 날이 밝아 과거를 보기 위해 나오는데 주막에서 만난 이씨 할망이 할으방 뒤를 좇았다. 할으방이 양반의 처지에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붙잡은 창옷섶을 털어버렸다. 이씨할망이 대홍단 저고리 고름을 잘라 버리니 김씨 할으방이 화를 내면서 할망을 제주도까지 데리고 왔다.

이듬해 이씨 할망은 병이 나서 죽었다. 김씨 할으방이 아파서 문점을 해보니, 이씨할망의 조화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씨 집안의 조상신으로 제향하게 되었다.

3 특징

이달춘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전형적인 조상신본풀이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육지를 여행하던 제주 남성이 여인을 만나 정을 나누었으나 홀로 귀향하려고 하지만 여인이 끝내 따라와 죽어 조상신이 된다고 하였다.

4 핵심어

김씨 할으방, 육지, 과거, 이씨 할망, 양반, 조상신

5 원전 서지사항

이씨할망조상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68 자원당

1 개요

자원당본풀이는 애월읍 하가리에 있던 자원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밭에서 김매던 사내가 비를 피하는 사이에 심심풀이로 흙으로 빚어 만든 동자석이 신령이 있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2 내용

옛날 자원당에서 한 사내가 김을 매다가 갑작스런 비가 내리니 울타리 곁에서 쉬게 되었다. 사내는 손에 붙은 진흙으로 동자석을 만들어서 담구멍에 세우면서 "널랑 여기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정이나 받아먹으며 살라."고 하였다. 일년이 지난 뒤에 그 사내가 병들어 문점을 하니, 손으로 만진 죄, 입으로 군소리한 죄, 눈으로 본 죄 때문이라고 하였다. 심방을 청해서 굿을 하니 병이 나았다. 하루는 사내가 그곳으로 가서 담구멍을 살펴보니 동자석이 그대로 있었다. '이게 무슨 신령이 있겠느냐?'하고 꺾어버리니 피가 불끈 났다. 그 뒤로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발을 벗어서 던지든지, 다님을 풀어 던지든지, 하다 못해 돌멩이라도 하나 던져서 인정을 걸어야 곱게 넘어갈 수 있었다.

3 특징

한림읍 수원리 여무 고봉아가 전승한 자료이다. 자원당은 실상은 당이 아니다. 우연히 흙으로 빚은 동자석이 신력을 발휘한다는 사례이다.

4 핵심어

동자석, 인정, 심방, 굿, 신발, 다님, 돌멩이, 자원당, 하가리

5 원전 서지사항

자원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69 저지본향 허릿궁할망

1 개요

저지본향 허릿궁할망 본풀이는 한경면 저지리 오름허릿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정좌수 따님이 홀로 임신한 탓에 집에서 쫓겨나 아이 일곱을 낳고 인근 여러 마을 당신으로 좌정시켰다.

2 내용

대정 호근ᄆᆞ르 정좌수 부인이 홀로 유태를 한 탓에 부모의 눈 밖에 나서 쫓겨났다. 검은오름 ᄃᆞ신ᄆᆞ들에 의지하여 아기 일곱을 낳았다. 아이들을 모두 키우기 어려우니 마을마다 흩어져 좌정하여 제향을 받기로 하였다.

큰아들은 한림읍 명월리 고림동 삼백관 산신대왕으로 보내고, 둘째 아들은 상대리 고완이본향으로 보내고, 셋째 아들은 용왕황제 용왕태자로 보내고, 넷째 아들은 하원당으로 보내고, 다섯째 아들은 판포리 큰당알 축일한집으로 보내어 좌정하게 하고, 큰딸은 저지리 허릿궁할망으로 가고, 둘째 딸은 상명리 느지리 케인터로 가고, 셋째 딸은 조수리, 넷째 딸은 금등리 족은당으로 가서 좌정하였다.

3 특징

한경면 고산리에 거주하던 여무 김기연의 전승자료이다. 기본 줄거리는 금악본향당본풀이를 바탕으로 한다. 최지국 아들은 잊히고 정좌수 부인이 홀로 유태를 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4 핵심어

대정, 호근ᄆᆞ르, 정좌수 부인, 검은오름, ᄃᆞ신ᄆᆞ들, 저지본향, 허릿굿할망

5 원전 서지사항

저지본향 허릿궁할망(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70 지장본풀이

1 개요

지장본풀이는 지장아기씨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지장아기는 친정과 시댁의 가족이 차례로 죽는 일을 겪고 새남굿을 하여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저승으로 보낸 뒤에 자신은 새의 몸으로 환생하였다.

2 내용

남산과 여산이 늦도록 자식이 없어 관음사에 불공을 드려 지장아기를 얻었다. 지장아기는 세 살적까지 부모와 조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그러나 네 살 때부터 조부모, 부모가 차례로 죽어 여섯 살이 되자 혼자 남게 되었다. 외삼촌 댁으로 가서 살았으나 학대를 받다가 쫓겨났다. 그러나 하늘이 붕새를 보내어 날개를 덮어주고 또한 밥과 옷을 주며 보살핀 덕택에 무사하였다.

지장아기가 착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열다섯에 문수의 댁에 시집을 갔다. 지장아기는 아들을 낳고 착하게 살아 재산도 물려받았다. 그러나 열여섯에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가 죽고, 열일곱에 시아버지가 죽고, 열여덟에 시어머니가 죽더니, 열아홉에는 남편과 아들마저 죽었다. 시누이에게 가서 곁방살이 하였으나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다.

지장아기는 빨래를 갔다가 지나가던 중을 불러 사주를 보았다. 가족의 새남굿을 하라는 중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누에를 쳐서 명주를 짜서 피륙을 마련하고 중의 행색을 하여 시주를 받아 제물을 마련하였다. 그리고는 새남굿을 하여 앞서 죽은 가족의 영혼을 저승으로 보낸 뒤에 지장아기는 죽어서 새 몸으로 환생하였다.

3 특징

안사인이 구연한 자료이다. 지장아기가 살아가는 동안 가족이 차례로 죽는 일을 겪은 뒤에 새남굿을 하여 영혼을 위로하고 자신은 새의 몸으로 환생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간단한 이야기임에도 그 의미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새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거나 못살게 구는 존재이다. 새는 사람들에게 자꾸 접근하여 못살게 굶으로써 굿을 하게 하고 그 굿을 통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지장아기는 새로 환생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은 불운한 삶을 살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

지장아기 자신은 새의 존재를 모르고 가족들이 속절없이 죽게 하는 일을 겪었다. 이들 새를 수시로 쫓아내야 편안히 살 수 있는 법이다. 결국 지장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새의 존재를 알게 하고 새를 쫓아내게 함으로써 더 큰 불행을 막게 하는 구실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핵심어

남산, 여산, 불공, 지장아기, 새남굿, 새, 붕새, 문수의 댁, 곁방살이, 환생, 사주

5 원전 서지사항

지장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

C_M_071 진안할망

1 개요

진안할망 본풀이는 성산읍 수산리 진안할망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열세살 처녀를 희생한 결과 성담을 견고하게 쌓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2 내용

옛날 고려 적에 왜구들이 자주 침입을 해서 성담을 두르게 되었다. 성담이 자꾸만 무너지는데 하루는 꿈에 산신이 나타나 열세살 처녀를 놓고 담을 쌓으면 좋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열세살 계집아이를 놓고 성을 둘렀다. 그후로 성담 쌓기가 잘 되었다.

3 특징

성산읍 수산리 여무 조옥순의 전승자료이다. 진안할망당은 처녀당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서도 공동체에 의해 희생당한 뒤에 당신으로 모셔지는 사례에 해당한다.

4 핵심어

고려적, 왜구, 성담, 산신, 처녀

5 원전 서지사항

진안할망(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72 차사본풀이

1 개요

차사본풀이는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차사의 내력을 담은 무속신화이다.

과양셍이 각시의 세 아들이 과거급제함과 동시에 죽자 강림은 김치원의 명령을 받아 저승으로 가서 염라대왕을 청하여 과양셍이 각시가 재물을 탐하여 버무왕의 세 아들을 죽인 사실을 밝혀 처벌하게 하고 자신은 염라대왕에게 발탁되어 차사가 되었다.

2 내용

옛날 동경국에 버무왕이 살았다. 아들 7형제를 낳았는데 위로 4형제는 잘 살았으나 아래로 삼형제는 단명할 운명이었다. 동개남 은중절 대사가 그 사정을 알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하여 삼형제를 데려다가 절을 지키게 하여 명을 이어주라고 일렀다. 버무왕은 시주 받으러 온 중의 말에 따라 삼형제를 절에 보내어 목숨을 부지하기로 하였다.

절에서 생활하던 버무왕 삼형제는 고향이 그리워져 잠시 말미를 얻어 고향을 찾아가다가 재물을 탐한 과양셍이 각시에게 살해당하고 시체는 연못에 버려지고 말았다. 버무왕 삼형제는 꽃으로 화하여 나타나니 과양셍이 각시가 곱다고 집으로 가지고 가서 걸어두지만 오갈 때마다 걸리적거린다고 화로에 불태워 버렸다. 꽃은 구슬로 화하는데 과양셍이 각시가 입에 물고 놀리다가 그만 삼키게 되자 그것이 잉태로 이어졌다. 과양셍이 각시는 아들 세 쌍둥이를 낳았다. 세 아들은 자라서 과거에 동방급제하였으나 귀가하자마자 동시에 급사하였다.

과양셍이 각시는 김치원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김치원이 해결하지 못하자 과양셍이 각시는 온갖 욕을 해대었다. 난처해진 김치원은 똑똑하고 능력있는 강림에게 누명을 씌워 염라대왕을 붙잡아 오라고 시켰다. 속절없이 죽게 된 강림은 혼인한 뒤에 계집질하느라고 돌아보지도 않던 큰각시에게로 갔다. 큰각시는 조왕과 문전에 정성을 다하여 기원하고 김치원에게 올바른 저승문서를 받게 하여 강림을 저승으로 보내었다.

강림은 조왕과 문전신의 도움을 받으며 우여곡절 끝에 저승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염라대왕이 주술로 변신하며 피하는 것을 붙잡아 이승으로 가서 돕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다. 이승에 이르러 보니 자신의 첫 제삿날이었다. 오랜만에 강림 부부는 함께 잠을 자다가 이웃 영감의 고발로 동헌으로 붙잡혀 가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약속대로 나타난 염라대왕은 과양셍이 각시가 버무왕의 세 아들을 죽인 사실을 밝히고, 버무왕 세 아들은 환

생시키고 과양셍이 각시의 사지를 찢어 죽였다.

염라대왕은 강림을 데리고 가서 차사의 일을 맡겼다. 차사의 일을 맡은 강림은 처음에 적베지를 까마귀에게 잘못 맡겨 아무나 저승으로 데려가는 바람에 질서가 엉망이 되고 말았다. 강림은 다시 동방삭을 잡아오라는 임무를 맡았다. 강림은 숯 씻는 모양을 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드디어 동방삭을 잡아가는 데 성공하였다.

❸ 특징

안사인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이승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끝내 저승 염라왕을 불러다가 처리한다는 전승은 다른 지방에도 있다.

차사본풀이는 이러한 공통의 전승을 바탕으로 하여 제주도에서 발전시킨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끝에 동방삭 전승이 덧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❹ 핵심어

버무왕, 7형제, 삼형제, 꽃, 구슬, 과거, 과양셍이 각시, 김치원, 염라대왕, 조왕, 문전, 저승, 까마귀, 적베지, 차사, 동방삭

❺ 원전 서지사항

차사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❻ 관련 자료

C_M_073 천지왕본

1 개요

천지왕본은 처음 인간 세상이 열릴 때, 해와 달 둘 가운데 하나씩을 떨어뜨린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천지왕은 부친을 박대하여 제사도 모시지 않는 쉬맹이를 징치하기 위하여 바구왕을 찾았다가 그의 딸 서수암이와 인연을 맺어 대별왕, 소별왕을 낳았다. 두 아들에게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해와 달 둘씩인 것을 활로 하나씩 쏘아 정리하고 초목이 말하는 것과 귀신과 인간 분별 없는 것을 해결하였다. 소별왕이 욕심을 내어 속임수로 이승을 차지하여 천지왕의 명령을 어긴 탓에 인간세상에는 무질서한 것이 많게 되었다.

2 내용

쉬맹이는 부자이지만 아버지가 나이 들자 음식을 줄였다. 아버지가 배고프다고 하자 죽어서 제사를 받지 않겠다면 그 몫으로 잘 대접하겠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그리 하겠다고 하자 증서를 요구하여 받았다. 쉬맹이는 아버지에게 음식을 잘 대접하였으나, 아버지는 61세에 그만 죽고 말았다.

쉬맹이는 시신을 거적에 싸서 띄워버리고, 제상에는 물 한 모금 떠놓는 일 없이 지냈다. 섣달 그믐이 되니 저승에서는 감옥문을 열어놓고 이승에 명절 먹으러 갔다오라고 내보내었다. 다들 떠났는데 쉬맹이 아버지만 남았다. 천지왕이 불러 사정을 물었다. 천지왕은 그래도 명절 때는 대접을 할 것이라 하고 쉬맹이 아버지를 이승으로 보내었다. 그러나 쉬맹이는 물 한 모금 얻어먹지 못하고 저승으로 돌아왔다. 이를 알고 천지왕이 군졸을 보내어 쉬맹이를 붙잡아오라고 하였다. 군졸들이 쉬맹이 집에 갔다가, 개, 말, 소가 무서워서 되돌아왔다. 그러자 천지왕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쉬맹이를 잡으러 갔다. 역시 개, 말, 소가 지키고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군사에게 명하여 갖은 흉험을 일으키라고 하였으나 쉬맹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천지왕은 쉬맹이를 붙잡지 못하자 바구왕집으로 갔다. 바구왕에게는 총맹부인 사이에 낳은 예쁜 딸 서수암이 있었다. 그날 밤 천지왕은 서수암이와 인연을 맺었다. 천지왕은 아들 형제를 낳거든 대별왕, 소별왕이라 이름짓고, 딸 형제를 낳거든 대밸대기, 소밸대기로 이름을 지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증표로 얼레빗과 박씨, 다님을 내주었다. 아울러 2월 첫 돗날 박씨를 심어 줄기가 벋어가는 대로 타고 아버지를 찾아오라고 일렀다.

서수암이는 아들 형제를 낳아 대별왕, 소별왕이라 이름을 지었다. 형제는 영특하여 서당에 보내니 선비들이 시기하여 홀어미 자식이라고 놀렸다. 아이들은 어머니로부터 천지왕이 아버지이고, 증표를 두고 간 사실도 들어 알았다. 형제가 박씨를 심고 줄기가 벋으

니 그것을 타고 옥황으로 올라가서 천지왕을 만났다. 서로 가진 증표를 맞추어보아 부자지간임을 확인하였다.

천지왕은 대별왕에게 이승을 차지하라고 하고 소별왕에게는 저승을 차지하라고 하였다. 소별왕이 욕심을 내어 대별왕에게 내기를 해서 이기는 자가 이승을 차지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수수께끼, 꽃가꾸기 내기를 하였으나 지고 말았다. 소별왕은 다시 잠자기 내기를 하자고 하고, 몰래 꽃을 바꾸어버렸다. 대별왕이 알아차렸으나 이승을 소별왕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저승을 차지하기로 하였다.

이승에는 해도 둘, 달도 둘일 뿐 아니라, 욕심 센 놈, 도둑놈이 많고, 초목이 말을 하고, 귀신과 사람 분간을 할 수 없었다. 소별왕은 대별왕에게 다시 이승과 저승을 바꾸어 다스리자고 하였으나 대별왕이 그럴 수 없는 법이라고 거절하였다. 대별왕은 대신 큰 법을 다스려주겠다고 하였다. 활선생 거자를 불러다 활로 해와 달 하나씩을 쏘아 떨어뜨려 주었다. 초목이 말을 하는 것은 후추가루를 뿌려서 막고, 귀신과 사람은 남정중 화정려를 불러다가 저울로 달아 무게로 가렸다. 대·소별왕이 천지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탓에 인간세상은 도둑이 많고 불목하는 사람이 많고, 나쁜 일이 많이 생겼다.

3 특징

표선면 표선리에 거주하던 이무생 심방의 전승자료이다. 부자이면서도 재물을 아껴 부친의 제사도 지내지 않는 쉬맹이를 징치하는 과정이 길게 풀이된다. 쉬맹이 징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와 달을 활로 쏘아 조정하는 일도 대소별왕이 직접하지 않고 활선생 거자를 시켜서 한 것으로 설정되었다. 귀신과 사람 구분하는 일도 남정중 화정려를 시켜서 처리한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천지왕본풀이 관련된 다양한 전승을 가능한 대로 받아들인 결과인 듯하다.

4 핵심어

쉬맹이, 바구왕, 총맹부인, 서수암이, 대별왕, 소별왕, 활선생, 거자, 후추가루, 천지왕, 해와달, 이승, 저승

5 원전 서지사항

천지왕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천지왕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C_M_074 천지왕본풀이

1 개요

천지왕본풀이는 처음 인간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은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하늘 천지왕과 지상 총멩부인의 아들 대별왕과 소별왕이 활을 쏘아 해와 달을 하나씩 떨어뜨린 뒤에 이승 차지를 위하여 내기를 벌였으나 소별왕이 속임수로 이승을 차지하는 바람에 인간 세상은 영원히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2 내용

천지개벽하고 인간 세상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해와 달이 둘씩이어서 사람들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 죽을 지경이었다. 옥황상제 천지왕이 해와 달을 하나씩 먹는 꿈을 꾸고 인간세상의 총멩부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갔다.

총멩부인은 가난해서 저녁 지을 쌀조차 없어 수명장자에게 쌀을 얻으러 갔는데, 수명장자는 쌀에 모래를 섞어 빌려주었다. 총멩부인은 여러 번 쌀을 씻어 밥을 지어 천지왕에게 대접하였으나, 천지왕이 뜬 첫술에 바로 모래가 씹혔다. 천지왕은 수명장자의 악행을 듣고, 벼락장군·벼락사자, 우레장군, 화덕진군·화덕장군 등을 불러 수명장자의 집을 불태우고, 그 자식들도 벌레와 소리개로 변신시켜 버렸다. 그리고는 천지왕은 총멩부인과 비로소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천지왕은 하늘로 돌아가면서 형제가 태어나거든 대별왕, 소별왕이라 이름을 지으라고 하였다. 총멩부인이 증표를 요구하자 박씨를 주면서 자신을 찾을 때 이것을 심으라고 하였다. 총멩부인은 홀로 대별왕, 소별왕 형제를 낳아 길렀다. 형제는 자라 열다섯이 되자 서당에 글공부를 갔는데,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았다. 형제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형제는 어머니로부터 천지왕이 아버지임을 전해듣고, 박씨를 심고 그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형제는 박 줄기가 용상에 감겨 있으니 용상을 타고 놀다가 그만 용상 왼쪽 뿔이 부러지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임금은 왼뿔 없는 용상에 앉게 되었다. 이어 형제는 인간 세상에 해와 달이 둘씩이어서 살기 어려운 것을 보고 커다란 활로 해와 달 하나씩을 쏘아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이승과 저승을 나누어 맡기로 하고, 수수께끼, 꽃가꾸기 내기를 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소별왕은 내기를 해도 이기지 못하게 되자 잠자기 내기를 하자고 해놓고 꽃을 바꾸어 놓아 승리를 가로채었다. 대별왕은 소별왕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승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은 앞으로도 살인, 역적질, 도적질, 간음 등 무질서가 계속되리라고 하였다.

3 특징

정주병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전체적인 맥락이 그다지 자연스럽지 못한 편이다. 수명장자의 징치 과정이 들어있으나 그다지 상세하지 않다. 천지왕과 대·소별왕의 부자상봉도 분명히 처리되지 않았다. 대별왕, 소별왕 형제가 하늘로 올라가 스스로 해와 달을 하나씩 떨어뜨린 뒤에 이승과 저승을 나누어 맡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후반부에서 천지왕은 사라지고 두 형제가 주도적인 구실을 한다.

해와 달을 조정하는 사양신화(射陽神話)는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중국과 대만 등지에도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곳에서 전승되어 왔다. 함경남도 <창세가>, <셍굿>, 경기도 <시루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4 핵심어

총멩부인, 대별왕, 소별왕, 활, 증표, 박, 수명장자, 벼락장군, 벼락사자, 우레장군, 화덕진군, 화덕장군, 용상, 벌레, 소로기, 이승, 저승, 수수께끼, 꽃가꾸기, 잠자기, 살인, 역적질, 도적질, 간음, 사양신화, 남중국, 대만, 함경남도, 창세가, 셍굿, 경기도, 시루말, 해와 달, 천지왕

5 원전 서지사항

천지왕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

천지왕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C_M_075 초공본풀이

1 개요

초공본풀이는 무조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ᄌᆞ지멩왕아기씨는 황금산 중의 주술로 잉태하는 바람에 집에서 쫓겨나 남편을 찾았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홀로 삼멩두를 낳아 길렀다. 성장한 삼멩두가 과거급제를 하자 선비들이 시기하여 ᄌᆞ지멩왕아기씨를 가두는 바람에 삼멩두는 원수를 갚기 위하여 굿법을 마련하여 어머니를 구하고, 다시 유씨부인을 심방으로 만들어 무업이 이어지게 하였다.

2 내용

임정국 대감은 부자로 살았으나 50세 가깝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였다. 마침 황금산 절의 중으로부터 불공을 드리면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불공을 드렸으나 정성이 모자라 딸을 얻었다. 딸의 이름을 ᄌᆞ지멩왕아기씨라 짓고 고이 길렀다.

ᄌᆞ지멩왕아기씨가 15세에 이르렀을 때 임정국 부부는 옥황에 벼슬살이하러 가게 되었다. 부부는 딸을 방에 가두고 자물쇠로 잠가 하녀에게 구멍으로 음식을 주면서 보살피게 하였다. 황금산 절의 중들이 ᄌᆞ지멩왕아기씨에게 가서 임신을 시키고 오자는 내기를 하였다. 이때 주자선생이 먼저 나서서 시주를 핑계로 접근하여 잠긴 문을 요령으로 열고 ᄌᆞ지멩왕아기씨가 시주를 내주는 틈에 머리를 세 번 쓸어 임신을 시켰다.

ᄌᆞ지멩왕아기씨는 하녀로 하여금 증거물로 주자선생의 고깔과 장삼 귀퉁이를 끊어 놓으라고 하였다. ᄌᆞ지멩왕아기씨가 임신하게 되자 하녀는 임정국 대감에게 연락을 하였다. 임정국 대감이 돌아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하다가 내쫓았다.

ᄌᆞ지멩왕아기씨는 집을 나와 황금산 절로 주자선생을 찾아가 만났다. 주자선생은 찰벼 두 동이를 내주며 껍질을 까라는 과업을 내주는데, 새들이 날아와 대신 까주었다. 주자선생은 중은 살림을 할 수 없다며 불도땅으로 가라고 하였다. ᄌᆞ지멩왕아기씨는 하는 수 없이 물러나 아기를 낳았다. 9월 8일에 오른쪽 겨드랑이로 본멩두, 18일에 왼쪽 겨드랑이로 신멩두, 28일에 명치로 살아살축 삼멩두를 낳았다.

삼형제는 자라 서당에서 심부름을 하면서도 재에 글을 쓰며 열심히 공부하였다. 삼천선비가 과거보러 갈 때 따라나섰으나 배 3천 개를 따내면 동행하겠다는 선비들의 잔꾀에 속아 배좌수의 배나무에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배좌수는 용이 배나무에 감겨 있는 꿈을 꾸고 삼형제를 도와주었다. 삼형제가 서울에 도착하였으나 시험장의 문이 닫혀 있어 하는 수 없이 답안을 쓴 종이로 돌멩이를 싸서 던져 넣어 급제하였다. 그러나 삼천선비가 시기하여 중의 자식임을 밝히는 바람에 과거가 취소되고 말았다. 이에 삼형제는 다시 활쏘기로 능력을 보여 과거에 급제하였다.

삼형제가 유가하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삼천선비는 ᄌᆞ지멩왕아기씨를 감금하고 하녀를 꼬여 어머니가 죽었다고 알리게 하였다. 삼형제는 낙담하여 벼슬도 포기하고 유가 행렬을 모두 돌려보낸 뒤에 외할아버지인 임정국 대감을 찾아갔다. 임정국 대감은 어머니를 구하려면 심방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삼형제는 너사메너도령 3형제를 의형제로 삼고 무악기를 마련하여 굿을 하여 어머니를 구해내고 신전집을 마련하여 어머니를 살게 하였다.

삼형제는 대장장이를 불러 무구를 만들고, 신칼로 삼천선비를 죽여 복수한 다음 삼시왕이 되었다. 한편 유씨부인은 6세에 주은 엽전 탓에 병이 들어 매 7세가 될 때마다 크게 아파 죽을 고비를 겪었다. 유씨부인은 77세 되던 해에 ᄌᆞ부장자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자 굿을 하여 살려냄으로써 최초의 심방이 되었다.

❸ 특징

안사인 심방의 구연본이다. 안사인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초대 기능 보유자이다.

초공본풀이는 무조신(巫祖神)의 신화이다. 다른 지방의 당금애기, 제석본풀이와 같은 계통의 이야기이다. 다만 초공본풀이는 이들 이야기에 유씨부인의 내력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씨부인의 내력을 추가하는 한편, 무구를 갖추는 과정을 구체화하고, 신들의 관계를 알맞게 설정함으로써 무조신화에 합당한 내용을 마련하였다.

❹ 핵심어

임정국, 황금산, 불공, ᄌᆞ지멩왕아기씨, 절, 주자선생, 삼형제, 삼멩두, 삼천선비, 과거, 활쏘기, 너사메너도령, 유씨부인, 심방, 옥황

❺ 원전 서지사항

초공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❻ 관련 자료

C_M_076 칠성본풀이

1 개요

칠성본풀이는 뱀신이면서 부신(富神)의 기능을 하는 칠성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칠성아기는 일곱 살에 길을 잃었다가 중의 조화로 임신하여 부모에 의하여 무쇠상자에 담겨 바다에 버려지자, 제주에 이르러 일곱 아기와 함께 뱀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사람들에게 부신으로 섬겨졌다.

2 내용

옛날 장나라 장설룡과 송나라 송설룡 부부는 부자였으나 오십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 절에 불공을 드려 딸을 얻었다. 아기씨가 일곱 살 나는 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벼슬살이를 떠났다. 아기씨는 살창 안에 가두어 느진덕정하님에게 음식을 주며 돌보게 해두었다.

어느 날 아기씨가 어디론가 사라져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었다. 느진덕정하님이 상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알렸다. 아기씨는 집을 나서서 띠밭으로 갔다가 길을 잃고 울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지나던 중이 아기씨가 자기네 절에 불공하여 태어난 사실을 알고 오장삼에 싸서 장설룡대감댁 하마석 아래 묻어두고 집으로 들어갔다. 장설룡대감이 아기씨 간 곳을 찾아달라고 하니 하마석 아래를 파보라고 일러주었다. 아기씨를 찾아내고 보니 벌써 임신 중이었다. 장설룡대감은 양반 집에 웃음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하여 아기씨를 무쇠상자에 넣고 바다에 띠워버렸다. 상자는 물결 따라 다니다가 함덕리 바닷가에 닿았다.

그때, 일곱 잠수가 물질을 하려고 나섰다가 상자를 발견하고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었다. 송첨지영감이 낚시를 나섰다가 이를 보고 상자 속 물건은 잠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상자는 영감이 가지자고 중재를 하였다. 그리하여 상자를 여니 뱀이 들어 있었다. 영감은 낚싯대로 떠 던지고 잠수들은 비창으로 떠던졌다. 이로 인하여 영감과 잠수들은 온갖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가물개 이원신에게 점을 치니 남의 나라에서 온 신을 박대한 탓이니 굿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말대로 칠성새남굿을 하니 병이 나을 뿐 아니라 재산이 불어 부자가 되었다. 잠수와 영감이 서모오름 앞에 칠성당(七星堂)을 만들어놓고 모시니 다른 사람들도 함께 모시자고 하여 함덕마을이 부촌이 되었다.

일곱 칠성은 제주성 안으로 가기로 하였다. 사람의 눈길을 피하며 길을 가서 도성 안으로 들어가 칠성골[七星洞]에 이르렀다. 물 길러 나선 송대장[宋大靜] 부인이 치마폭으로

맞아들여 고방으로 모시기 시작하자 누구나 알 만한 부자가 되었다.

뒤에 칠성은 제각기 흩어져 살기로 하였다. 일곱 아기는 추수할망, 이방·형방(吏房刑房), 옥(獄)지기, 과원(果園)할망, 창고(倉庫)지기, 광청할망, 부군칠성(富君七星)으로 들어섰다. 어머니는 고방의 안칠성으로 들어섰다.

❸ 특징

중의 조화로 임신한 아기씨가 상자에 담겨 버려지자 제주에 이르러 자식과 함께 뱀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부신으로 제향을 받았다.

이는 일반신본풀이에 속하지만 조상신본풀이와 유사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주술로 임신하고 홀로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고초를 겪다가 제향을 받는다고 한 것은 <초공본풀이>와도 유사하다.

❹ 핵심어

장나라, 장설룡, 송나라, 송설룡, 하마석, 함덕, 서모오름, 잠수, 송첨지, 뱀, 칠성새남, 칠성당, 제주성, 칠성골, 송대장, 추수할망, 이방, 형방, 옥지기, 과원할망, 창고지기, 광청할망, 부군칠성, 안칠성, 고방

❺ 원전 서지사항

칠성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❻ 관련 자료

C_M_077 토산일뤳당본풀이

1 개요

토산일뤳당본풀이는 표선면 토산리 본향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ᄇᆞ로못도가 부모에게 죄를 짓고 무쇠상자에 담겨 버려지자 용왕국에 가서 용왕 막내딸을 작은부인으로 맞이하여 되돌아온 뒤에, 돼지털 냄새를 맡는 부정을 탓하며 큰부인을 마라도로 귀양보내니 작은부인이 귀양을 풀라고 하고 직접 찾아가 큰부인의 일곱 아이를 데리고 돌아와 당신으로 좌정하였다.

2 내용

ᄇᆞ로못도는 송당본향당 벡주또와 소천국의 아들이었다. 이미 혼인한 상태인데 부모가 죄를 마련하여 ᄇᆞ로못도를 무쇠상자에 가두어 바다에 띄워버렸다. 상자는 용왕국 산호수 가지에 걸렸다. 개가 자꾸 짖어가니 요왕국이 세 딸에게 사정을 알아보게 하였으나 막내딸만 제대로 알아보았다. 다시 세 딸에게 상자를 내리라고 하였으나 역시 막내딸만 내려놓을 수 있었다. 세 딸에게 상자를 열라고 하였으나 막내딸만 열 수 있었다. 상자 속에는 고운 도령이 앉아 있었다. 세 딸의 방으로 들라고 하였으나 도령은 막내딸 방으로 들어갔다. 식사를 차려갔으나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무슨 음식을 먹느냐고 물으니 “벡메[白飯], 벡돌레 ᄌᆞ소지(燒酒) 계알(鷄卵) 안주”를 먹는다고 하였다. 사위 하나 대접 못하겠느냐 생각하고 먹이다 보니 모든 창고가 비어갔다. 할 수 없이 무쇠상자에 사위와 딸을 넣고 바다에 띄워 버렸다.

ᄇᆞ로못도는 제주에 이르러 주술로 어머니 눈에 콩깍지가 들게 하였다. 어머니는 세 딸에게 눈에 든 가시를 내어달라고 하였으나 딸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때 ᄇᆞ로못도 부부가 당도하여, 며느리가 자신이 해드리겠다고 하고 주술 부채로 콩깍지를 내어주었다. 어머니가 며느리의 주술에 감탄하고 콩깍지를 내어준 공을 갚겠노라고 하였다. 며느리는 땅과 물을 조금 나누어달라고 하였다.

이때 큰부인은 시어머니가 작은부인에게 얼마나 많은 땅을 나누어주는지 궁금하여 땅을 돌아보려고 나섰다. 돌아다니다 보니 목이 말라, 돼지발자국에 고인 물을 빨아먹다가 돼지털이 코에 박히니 돼지고기를 먹은 듯하였다. 가장에게 갔더니, 날핏내가 나니 부정하다고 야단치고 마라도로 귀양을 보내버렸다.

작은부인이 그 사실을 알고 큰부인의 귀양을 풀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직접 마라도로

가서 보니 큰부인은 아기 일곱을 낳아 기르고 있었다. 작은부인은 아기를 데리고 대로로 집으로 향하고, 큰부인은 따로 바닷가로 고동 따위를 캐먹으면서 집으로 향하였다.

작은부인은 웃토산[上兎山] 서당팟에 이르러서 확인해보니 아기 하나가 없어 되돌아가 아기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서당팟에 좌정하였다.

3 특징

이 본풀이는 서사맥락이 매우 혼란스럽다. ᄇᆞ로못도가 부모에게 죄를 지어 무쇠상자에 담겨진 것이 이미 큰부인을 아내로 둔 상태였다. 작은부인으로 데려온 용왕국 막내딸이 돼지털 때문에 마라도로 귀양간 큰부인과 일곱 아기를 데려왔다.

마무리가 부실하여 큰부인과 작은부인 가운데 누가 이렛당신이 된 것인지 알기 어려워졌다. '큰부인은 서당팟일뤠중저라고 하고, 작은부인은 요왕황제국 족은딸아기'라고 한 원문의 서두부를 확인해야 사정이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있다.

4 핵심어

ᄇᆞ로못도, 송당본향당, 벡주또, 소천국, 용왕국, 막내딸, 큰부인, 작은부인, 서당팟일뤠중저, 요왕황제국 족은딸아기, 산호수, 무쇠상자, 주술, 돼지털, 마라도, 귀양, 토산리, 서당팟, 주술, 콩깍지, 웃토산

5 원전 서지사항

토산일뤳당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

웃당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C_M_078 평대본향 신선당

1 개요

평대본향 신선당 본풀이는 구좌읍 평대리의 본향당이었던 신선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공주아미는 무쇠상자에 담겨 제주도에 이르러 신선또를 만나 혼인하여 딸 일곱을 낳았으나 돼지고기를 먹는 바람에 살림을 갈랐다.

2 내용

공주아미는 강원도 철산에서 솟아났다. 부모에 불효한 죄로 무쇠상자에 담겨 바다에 버려졌다. 상자는 물결 따라 다니다 평대리 바닷가에 닿았다. 신선또가 지나다가 열어보니 공주아미가 나왔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공주아미가 천상배필 신선또를 찾아왔다고 하니, 신선또가 자신이 신선또라고 하였다. 둘은 혼인하여 딸 일곱을 낳았다.

공주아미는 잔칫집에 갔다가 돼지고기를 얻어먹었다. 신선또가 날핏내를 맡고 추궁하여 돼지고기를 먹은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땅과 물을 갈랐다. 공주부인은 신작로 위쪽을 차지하여 서당할망으로 제향을 받았다.

3 특징

우도면 여무 김병생의 전승자료이다. 신선당의 본풀이라면 신선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짜야 하지만, 이 자료는 서당할망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부모에 불효하여 상자에 담겨 떠다니다가 표착하여 신으로 좌정하는 것은 당신본풀이에서는 흔한 설정이다. 그런가 하면 돼지고기를 먹은 탓에 부부가 살림을 가르는 것도 그러하다.

4 핵심어

공주아미, 강원도, 철산, 불효, 무쇠상자, 평대리, 신선또, 돼지고기, 날핏내, 서당할망

5 원전 서지사항

평대본향 신선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79 피쟁이조상본 황정싱본

1 개요

피쟁이조상본 황정싱본은 백정 집안에서 조상신을 모시게 된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황정승이 중병이 들어 소 아홉을 잡아먹어야 낫는데 두 아들이 반대하여 딸과 막내아들이 몰래 소를 잡아 먹여 낫게 해 주었다.

2 내용

황정승은 산신으로 대접하는 신이다.

옛날 황정승은 아들 삼형제와 딸 하나를 두었다. 황정승이 뇌병(腦病) 같은 병으로 삼년을 앓아 말랐다. 황정승은 자식들에게 아홉 달에 소 아홉 마리를 잡아 먹여달라고 하였다. 위로 아들 형제는 반대하고, 막내아들과 딸만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다.

하루는 누이가 작은오라비에게 함께 소를 잡아 아버지를 먹이자고 하였다. 작은오라비가 누이에게 대장간에 가서 칼을 만들어 올 수 있겠냐고 물었다. 누이는 아버지를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면서 대장간에 가서 칼을 만들어다 명주전대로 말아 선반에 올려 두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오누이가 그 칼을 가져다 소를 잡은 뒤에 다시 칼을 전대로 말아 선반 위에 올려 놓았다. 아버지의 말대로 아홉 달에 소 아홉 마리를 잡아 먹이니, 아버지의 병이 나았다.

백정집에서 굿을 하려고 하면 이 본풀이를 풀어야 하는 법이다.

3 특징

제주시 삼도동에 거주하던 김오생 심방의 전승자료이다. 피쟁이조상본이라고도 하고 황정싱본이라고도 한다. 피쟁이는 곧 백정이다. 황정싱은 황정승(黃政丞)이겠는데, '황'은 황소에 이끌리어 붙인 것으로 보인다. '정승'은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소를 잡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백정을 낮추어 보지 말라는 뜻이 담겼을 수 있다. 중병에 걸린 아버지가 소를 잡아 먹여달라고 하는데도 두 아들이 따르지 않은 까닭은 알기 어렵다.

4 핵심어

황정승, 삼형제, 뇌병, 대장간, 백정, 피쟁이조상본, 소 아홉 마리

5 원전 서지사항

피쟁이조상본 황정싱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80 하도본향 삼싱당

1 개요

하도본향 삼싱당 본풀이는 구좌읍 하도리의 본향당인 삼싱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도걸호 도집사가 할망과 함께 좌정하였다가 할망이 차린 조반에 티끌이 있는 것을 이유로 살림을 갈라 도집사는 연두막에 좌정하고 할망은 각시당에 좌정하였다.

2 내용

고구려 때 도걸호 도집사가 강진 부산땅에서 들어와 별방 마을 연두막에 좌정하였다. 도집사가 어디로 나가려고 하니 할망이 차려온 조반에 티끌이 들어 있었다. 도집사는 괘씸하게 여겨 바람 아래로 살림을 가르라고 하였다. 할망에게 각시당으로 가서 따로 좌정하고 들고 나는 자손에 제향을 받으라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연두막에 좌정하여 자손에게 명과 복, 생불을 주겠다고 하였다.

3 특징

구좌읍 하도리에 살았던 강봉언 심방의 전승자료이다. 도집사와 각시당 할망 부부가 살림을 가른 이유가 특별하다. 일반적으로는 돼지고기 금기를 어기는 것인데, 이 자료에서는 조반에 티끌이 들어 있다는 것 때문이다.

4 핵심어

고구려, 도걸호 도집사, 강진, 부산, 별방, 연두막, 각시당

5 원전 서지사항

하도본향 삼싱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81 함덕본향당본풀이

1 개요

함덕본향당본풀이는 함덕리 서물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함덕리 김첨지가 낚시를 할 때마다 미륵돌이 걸려오더니 꿈에 신이 나타나 자신이 용왕국 딸이라고 하고 자신을 모시면 잠수와 낚시배를 돌보아주겠다고 해서 당신으로 모시기 시작하였다.

2 내용

함덕 김첨지하르방이 백발 되는 낚싯줄에 천근되는 뽕돌, 미늘 좋은 큰낚시에 터우를 타고 나가 고기를 낚았다. 그런데 자꾸 미륵돌만 걸려 올라오기에 버려두고 왔다. 두물날도 마찬가지였다. 서물날 다시 낚시를 가니 역시 미륵돌만 걸려 올라왔다. 심심해서 잠이 드니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 '나는 용왕국(龍王國) 무남독녀(無男獨女) 딸아기다. 인간을 돌보자고 인간에 나왔노라. 알가름[下洞] 팽나무 아래로 모셔서 한물 두물 서물날 나를 위하라. 그리 하면 모든 잠수(潛嫂)와 오가는 낚시배를 잘 돌보아 주마.'고 하였다. 이에 김첨지하르방은 미륵돌을 모셔다가 당신으로 모시고 제향하기 시작하였다.

3 특징

낚시줄에 걸려 올라온 돌멩이를 미륵이라 하면서 당신으로 모시는 사례를 담은 본풀이이다. 이로 보면 서물당은 함덕리 알가름이라고 하는 동내에서 바다 생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모시던 당임을 알 수 있다. 당신의 성격으로 보아 본향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문의 서두에 '서울 먹자골에서 솟아난 급서황하늘'이라고 하는 신이 소개되었고 이 신은 용왕국따님과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임을 알 수 있고, 이 신이 본래 함덕리의 본향신이었을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4 핵심어

김첨지, 서물당, 미륵돌, 용왕국, 무남독녀, 알가름, 잠수, 낚시배, 함덕리

5 원전 서지사항

함덕본향당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

C_M_082 해안본향 강구물동산당

1 개요

해안본향 강구물동산당본풀이는 제주시 해안동의 본향당인 강구물동산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천지왕의 아들 대별왕, 소별왕이 낟알을 맛본 죄로 인간에 귀양 당하여 당신으로 좌정하였다.

2 내용

대별왕, 소별왕은 천지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구월 8일 인간 세상에 내려서서 구경을 하였다. 농부가 농사짓는 것을 보다가 이삭 하나를 따서 낟알을 입에 넣고 씹어 보았다. 대별왕, 소별왕은 옥황으로 올라가니 천지왕이 인간의 녹내가 난다고 하고 인간의 녹명을 먹었으니 옥황에 둘 수 없다며 인간으로 귀양을 보내었다. 대별왕은 해안 강구물동산에 좌정하고, 소별왕은 오드싱 섯머세에 있다가 동머세로 가서 좌정하였다.

3 특징

연동에 거주하던 강제길 심방의 전승본이다. 당신이 천지왕의 아들 대별왕, 소별왕이고, 이들은 인간의 음식을 먹은 탓에 하늘에 있지 못하고 인간 세상으로 귀양을 당하였다. 천지왕, 대별왕과 소별왕은 천지왕본풀이에 등장하는 신이다.

4 핵심어

대별왕, 소별왕, 천지왕, 낟알, 귀양, 강구물동산, 오드싱, 섯머세, 동머세, 해안동

5 원전 서지사항

해안본향 강구물동산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C_M_083 행원남당본풀이

1 개요

행원남당본풀이는 구좌읍 행원리 남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중이대사는 강원도에서 제주로 들어와 행원리에 이르러 흉년들게 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린 뒤에 남당으로 가서 남당한집과 함께 좌정하여 바다 생업을 돌보는 신이 되었다.

2 내용

중이대사는 강원도 철산에 있는 절의 중이었다. 절이 없어지자 한라산을 구경하려고 제주도로 들어왔다. 북촌에 이르렀더니 환갑잔치 하는 집이 있어 갔더니 돼지고기 삶은 물에 소면을 말아주는 것을 보고 있을 곳이 못된다고 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행원리에 이르러 보름을 기다려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오분작할망을 만나 인사를 드리니 신영무루 문씨고냥할망에게 인도하기에 그곳으로 가서 함께 좌정하였다. 칠팔월이 되어 산중 구경을 나섰다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그리하여 마을 농작물이 흉년들게 해 버렸다.

유지들이 의논한 결과 난데없는 대사가 나타난 사실을 알고 대사를 청하여 물어보기로 하였다. 중이대사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흉년들게 하였다고 하니, 유지들이 중이대사로 하여금 좌정하기를 권하였다. 중이대사가 남당으로 가니, 남당한집은 중이대사가 돼지고기 국물에 만 소면을 먹은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좌정하기를 허락하고, 배와 잠수와 어장을 함께 돌보기로 하였다.

3 특징

이 본풀이는 전체적인 맥락이 자연스럽지 않다. 중이대사는 중이므로, 애초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다. 그래서 북촌리 환갑잔치에 가서도 돼지고기 삶은 물에 만 소면을 대접 받고도 뿌리치고 돌아섰다. 그런데 남당한집은 돼지고기를 먹었지만 용납한다고 하였다. 앞서 돼지고기를 먹은 것으로 처리하고, 남당으로 들어설 때는 돼지고기 먹은 탓에 남당한

집보다 낮은 서열의 신으로 좌정한다고 해야 적절하다.

대개 남당은 돼지고기를 제물로 받는 당이다. 그러므로 중이대사가 본래의 속성을 버리고 돼지고기를 받는 신이 되는 것이 옳고, 남당한집도 돼지고기를 받는 신이니 둘이 함께 좌정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4 핵심어

중이대사, 강원도, 철산, 북촌, 돼지고기, 소면, 남당한집, 오분작할망, 신영ᄆᆞ루, 문씨고냥할망, 유지, 흉년, 배, 잠수, 어장, 행원리

5 원전 서지사항

행원남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 관련 자료

C_M_084 호근이ᄆᆞ르 ᄋᆞ드렛당본풀이

1 개요

호근이ᄆᆞ르 ᄋᆞ드렛당본풀이는 안덕면 감산리 여드렛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이씨할망은 훈장의 딸로 태어나 오좌수를 만나 정분을 나누었으나, 첩이어서 설움을 받다가 죽은 뒤에 당 올레에 묻혀 오씨 집안 사람들이 주로 모시는 당신이 되었다.

2 내용

이씨할망은 조천 이훈장의 딸로 태어났다. 아기씨는 일곱 살에 신병 든 것이 열다섯이 되자 집을 떠나 동냥하면서 돌아다녔다. 정읫골[旌義縣]로 갔다가 호근ᄆᆞ을[好近里] 오좌수(吳座首)를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시는 축첩(蓄妾)을 아니하는 때여서, 오좌수가 몰래 집으로 도망가버렸다.

아기씨는 수소문하다가 호근리(好近里) 오좌수의 집을 찾아갔다. 큰부인이 남의 처녀 신세를 망쳤으니 살 도리를 마련해주라고 해서, 울타리 바깥에 집을 짓고 아기씨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게 하였다. 다시 3년이 지나 오좌수가 죽으니, 오좌수 큰아들은 양반(兩班) 집에 축첩하였다고 본 척도 하지 않았다. 아기씨는 끝내 신병이 나서 죽고 말았다. "당에 온 사람에게 서숙이나 얻어먹고 행세(行勢)하라."며 아기씨를 당올레에 묻었다. 이리 하여 이씨할망은 오씨(吳氏) 집마다 흉험(凶險)을 주고 제향을 받았다.

3 특징

이씨할망은 어려서부터 신병을 앓다가 걸식하며 돌아다니는 것으로 나쁜 운을 이겨내고, 다시 남자를 만나 인연을 맺었으나 거듭하여 버려지는 설움을 당하였다. 끝내는 당신이 되었으나 남자 집안의 자손들로부터 제향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대체로 조상신본풀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4 핵심어

조천, 이훈장, 이씨할망, 축첩, 정읫골, 호근리, 호근ᄆᆞ을, 오좌수, 양반, 당올레, 안덕면 감산리, 여드렛당

5 원전 서지사항

호근이ᄆᆞ르 ᄋᆞ드렛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 관련 자료

C_M_085 화순본향 원당밭 일뢰중조

1 개요

화순본향 원당밭 일뢰중조 본풀이는 안덕면 화순리의 원당밭에 좌정한 이렛당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원당밭할망은 예래본향당의 둘째 딸로 왜배가 드는 것을 구경하다가 돌보던 아기가 소에 차여 죽게 한 까닭에 부모 눈 밖에 나서 화순리 원당밭으로 좌정하였고, 다른 자매들은 부모가 갑자기 가난해지는 바람에 제각기 인근 마을로 흩어져 이렛당신이 되었다.

2 내용

아버지 열리 당올래당 하르방, 어머니 중문이 불묵당이 말도 아홉, 되도 아홉, 홉도 아홉, 키도 아홉 부자로 살았다. 자식은 딸을 일곱 성제 낳았다. 당올래당 한집이 우리는 귀천을 모른다고 하니, 종이 듣고 귀천을 알고 싶냐고 하고 말, 되, 홉, 키를 모두 씻고 엎어놓으라고 하였다. 그 말대로 하였더니 흉년이 되어 딸 일곱을 각기 분산시키게 되었다. 큰딸은 서난드르 큰당에 좌정하고, 둘째 딸은 화순리 원당밭에 좌정하였다.

옛날 왜배에서 왜놈들이 온다고 하니, 둘째 딸은 아기구덕을 지고 조순ᄃᆞ리로 올라가 아기 구덕을 잔디밭에 내려두고 바닷가로 가서 구경하였다. 아기 있는 곳에 가서 보니 아기는 소와 개가 싸우는 바람에 소 발에 차이고 뿔에 찔리고 개에 물리고 해서 죽어 있었다. 둘째 딸은 부모 눈 밖에 나니 원당밭에 좌정하였다.

셋째는 사계 청밧할망으로 좌정하고, 넷째는 감산리 좌정하고, 다섯째는 색달리 좌정하고, 여섯째는 예래 좌정하고, 일곱째 막내는 세숫물을 잘 떠놓아 불묵당 옆에 좌정하였다.

원당밭할망은 소에 차인 까닭에 사람들이 당에 갈 때에는 소고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3 특징

안덕면 화순리에 거주하던 고선여 심방의 전승자료이다. 이야기의 맥락이 순탄치 않다. 원당밭할망이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아기가 소에 차여 죽는 바람에 부모 눈 밖에

났다는 대목은 흔히 보기 어려운 것이다.

예래본향당이 부자였다가 종의 말을 듣고 말, 되, 홉 등을 씻고 뒤집어 놓았다가 일시에 망하였다는 것은 더러 볼 수 있는 전승이다. 다만, 대체로 종이 아니라 중으로 설정되는 것이 예사이다. 사계리 <큰물당본풀이>에서도 유사한 대목을 볼 수 있다.

4 핵심어

당올래당, 불묵당, 서난드르, 왜배, 조순ᄃᆞ리, 소고기, 안덕면 화순리, 원당반할망, 예래본향당, 원당밭, 이렛당신, 청밧할망, 소, 개

5 원전 서지사항

화순본향 원당밭 일뢰중조(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Ⅱ. 기존 자료 해제

전설

C_L_001 가릿뱅디

1 개요

구좌읍 평대리 남쪽에 있는 가릿뱅디와 관련된 전설이다.

2 내용

옛날 구좌읍 평대리 남쪽에 가릿뱅디라는 곳에서 장서방이 움막을 짓고 마소를 키우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마소의 수가 줄어드는 듯해서, 그 이유를 캐기 위해 밤을 새며 지켜보기로 했다. 어느 날 밤 가릿뱅디 논밭 한 가운데서 하얀 개 한 마리가 소 한 마리를 물고 사라졌다.

장서방은 동네 사냥꾼에게 이 개를 잡아주도록 부탁했다. 사냥꾼은 장서방과 함께 밤을 새다가, 하얀 개 한 마리가 마소에게 달려들자 사냥꾼이 활을 당겼다. 화살이 빗나가자, 뒤를 쫓았다. 개는 구좌읍 김녕리로 도망가서 입산봉으로 숨어버렸다. 이후 가릿뱅디의 물이 말라서 벌판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입산봉에서는 난데없이 물이 솟아났다. 그 물이 고여 논밭이 되었다. 그 개는 물귀신이었다. 후세 사람들은 말라버린 벌판이라 해서 가물뱅디라 했는데, 나중에 소리가 변해서 가릿뱅디라 하였다.

3 특징

물이 말라버려서 가물뱅디라 하다가 소리가 변해서 가릿뱅디로 불렸다는 이야기이다. 물귀신으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다.

4 핵심어

평대리, 가릿뱅디, 장서방, 움막, 논밭, 마소, 하얀 개, 가물벵디, 입산봉, 김녕리, 물귀신.

5 원전 서지사항

가릿뱅디(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가릿뱅디(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C_L_002 가파도 아기업개 바위

1 개요

대정읍 가파리의 본섬인 가파도에 있는 아기업개 바위와 관련된 지명 전설이다.

2 내용

예전에는 가파도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 어느 해에 모실개(모슬포)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갔다. 물질이 끝나고 이곳을 떠나라고 하자, 풍랑이 심해졌다. 삼사일을 기다려도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다. 선주가 잠을 자는데, 한 할머니가 꿈에 아기 업은 처녀를 섬에 놔둬야 떠날 수가 있다고 했다. 하루를 더 기다려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더 있으면 굶어 죽게 되었다. 선주는 아기업개를 태우지 않기 위해 심부름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태우고 배를 띄웠다. 그들은 무사히 모슬포로 돌아왔다.

3년 뒤에 선주와 사람들이 가파도에 가보니, 바닷가 바위에 뼈만 남아 있고, 그 옆에 아기업은 처녀와 같은 모양의 바위가 서 있었다. 아기업개 처녀가 홀로 남아 바닷가에서 슬피 울다가 죽게 되고, 돌로 굳어서 바위가 되었다고 믿었다.

3 특징

마라도 아기업개당 전승과 같은 내용이다.

4 핵심어

가파리, 아기업개 바위, 가파리 아기업개 바위, 아기업개, 모실개, 모슬포, 처녀

5 원전 서지사항

가파리 아기업개 바위(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마라도 본향 애기씨(진성기, 《제주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C_L_003 가파도와 꿜파트

1 개요

조선 효종 때 제주도에 표착한 네덜란드인 하멜의 표착지(漂着地)와 관련되어 있다.

2 내용

가파도는 남제주군 대정읍 남쪽 바다 위에 떨어져 있는 섬인데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다. 1653년(효종 4년)에 네덜란드 사람 하멜(Hamel) 일행 36명이 스페르웨르(Sperwer)호를 타고 대만을 거쳐 일본으로 가던 중, 폭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어 제주도에 표착한 사실이 있다.

하멜 일행은 제주도에서 1년 간 머문 뒤 육지로 압송되어, 14년이란 긴 세월을 갇혀 지내다가 탈출하여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

그 후 그는 네덜란드에서 기행기(紀行記)로 난선제주도난파기(蘭船濟州島難破記)를 써서 발표했는데, 제주도는 꿜파트(Quelpaert)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였다. 그 사실에서 하멜 일행이 표착했던 곳이 제주도 남쪽 섬인 '가파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

3 특징

1653년(효종 4년) 7월 하멜은 상선 스페르웨르(Sperwer)호를 타고 타이완을 거쳐 일본 나가사키[長崎]로 향하다 태풍을 만나 일행 36명과 함께 제주도에 표착(漂着)하였다. 당시 제주 목사 이원진(李元鎭)은 하멜 일행을 체포하여 10개월 동안 감금하였고, 이듬해 한양으로 압송하였다. 하멜은 1666년 9월 탈출에 성공하여 1668년 7월 고향으로 귀환했다.

네덜란드로 돌아간 하멜은 그해에 국내에서는 『하멜 표류기(漂流記)』로 알려진 보고서 『난선제주도난파기(蘭船濟州島難破記) Relation du Naufrage d'un Vaisseau Hollandois』를 발표하였다.

이 전설은 하멜이 제주도에 표착에서 조선에서의 억류, 탈출과 귀국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하멜이 지은 『난선제주도난파기』에 제주도가 처음으로 유럽에 '꿜파트'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과 하멜의 제주도 표착지를 가파도로 추정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편 조선시대 숙종 때의 제주 목사 이익태의 『지영록(知瀛錄)』에 의하면, 하멜의 제주도 표착지가 한경면 수월봉 부근인 한경면 고산리 한장동과 대정읍 신도2리 일대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구전 자료와 사료의 기록이 다름을 보여준다.

4 핵심어

꿜파트, 가파도, 하멜, 표착지, 네덜란드

5 원전 서지사항

가파도와 꿜파트(진성기, 《남국의 전설》, 교학사, 1981)

6 관련 자료

C_L_004 갈구미

1 개요

갈구미(渴玖媚)는 주인공 이름이고 혼자 살다가 자신의 사후 남들이 시신을 거둬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행기(물그릇)에 몸을 누이고 죽은 사람의 이야기이다.

2 내용

갈구미는 혼자 토성(애월읍 고성리 소재 항파두리) 밖에 살면서 지조를 지켰다. 토성 내에 거주하던 김통정은 갈구미가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 여겨서 발로 바위를 밟아서 샘물이 나오게 만들어 주었다. 그 샘물을 '횃부리, 빌레물, 장수물' 등이라 부른다.

갈구미는 혼자 살기 때문에 사후에 시신을 거둬 줄 사람이 없어서 까마귀의 먹이가 될 것을 염려하여 땅에 묻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빌레물에 행기(물그릇)를 띄워 두면 지나가던 사람이 눈여겨 볼 것이라 생각하고, 그 시신을 건져서 땅에 묻어 줄 것이라 믿었다. 갈구미는 죽을 때가 되자 행기에 몸을 눕히고 편안히 잠들었다.

3 특징

갈구미 전설은 김통정 장군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이다. 김통정은 삼별초를 이끌고 항파두리(애월읍 고성리)에 토성을 쌓고 투쟁하다가 전사하였다. 김통정 어머니가 토굴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종신당' 전설이 있는데, 이는 '갈구미' 내용과 유사하다.

4 핵심어

갈구미, 김통정, 토성, 행기(물그릇), 삼별초, 항파두리, 토성, 횃부리, 빌레물, 장수물

5 원전 서지사항

갈구미(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005 강초간물(강초관물)

1 개요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강초관물과 관련된 지명 전설이다.

2 내용

신촌리 동수동 입구에 강초관물이 있었다. 6백여 년 전, 신촌리에 사는 강 초관(哨官)이 상(喪)을 당해 지관을 청해 구산(求山)을 다녔다. 지관을 여러 곳을 찾아다니다가 강초관물 자리를 찾았다.

지관은 정자리를 골라, 그곳에 장사를 지내고, 혹 돌이 박혀 있으니 돌을 파지 말고 얕게 장사를 지내라고 했다. 장삿날 일꾼들이 광중을 파다가 돌이 박힌 것을 보고 그것을 파내려 하니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갔다. 뒤이어 그 자리에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 비둘기는 그 묘맥(苗脈)의 정기였다. 정기가 날아갔으니 그곳에 장사를 지낼 수 없었다. 그 뒤 샘이 계속 솟아서 못이 되었는데, 강 초관이 묘를 쓰려던 자리여서 그 물을 강초관물이라 했다.

3 특징

사람에 따라서 '강초간물' 이야기로도 일컬어진다.

4 핵심어

강초관물, 강초간물, 신촌리, 동수동, 강 초관, 지관, 구산

5 원전 서지사항

강초관물(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006 개미목 명당자리

1 개요

개미목은 한라산 백록담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에 있는 지명이다.

개미목이 명당자리임을 알아채고 문씨가 제주 목사에게 사정하여 부친의 묘 터로 쓴 이후 날개 달린 장사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2 내용

제주 목사가 풍수지리에도 능통해서 밤이 되면 개미목에 가서 명당을 확인했다. 그 부하인 문사령이 이를 알고 자신이 성공하려고 그 터를 달라고 애원한다. 마침 부친이 사망하자 그곳에 매장했는데, 그 날부터 힘이 세지고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

문사령은 갑자기 힘이 생기자 주체하지 못하여 서울 경복궁까지 휙휙 이동했다. 조정 대신들이 문사령을 잡기 위하여 도서관에 불을 놓았는데 그 덫에 걸려서 결국 잡히고 만다. 포졸들은 문사령을 포박하여 개미목 묘지에 가서 땅을 파헤치자 소가 움직이고 있어서 베어 버리니 문사령의 힘도 사라졌다.

3 특징

'개미목 명당자리' 전설은 아기장수 전설과 유사하다.

4 핵심어

개미목, 목사, 문사령, 개미목밧, 상뒤꾼, 날개, 서월, 도적, 경복궁, 도서관, 용

5 원전 서지사항

개미목 명당자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고전적 부친묘(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은 아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은 장사 구운문(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은 장수(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힌 부대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날개 돋힌 아기장수(강정마을회, 《강정향토지》, 1996)

명당에 얽힌 이야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산방산 금장지(禁葬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파혈된 명당(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힘센 장사 ᄌᆞ망이(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007 거슨샘이와 ᄂᆞ단샘이

1 개요

표선면 토산리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이에 있는 거슨샘이와 ᄂᆞ단샘이 관련 전설이다.

2 내용

토산리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이에 거슨샘이와 ᄂᆞ단샘이가 있다. 물이 같은 구멍에서 나오는데, 한 줄기는 한라산 쪽으로 거슬러 흘러서 거슨샘이라 하고, 한 줄기는 바다 쪽으로 흘러내려서 ᄂᆞ단샘이라 한다.

옛날 제주도에 날개 돋힌 장수가 났다. 그 소식이 중국에까지 알려지자, 황제가 호종단을 보내 산혈(山穴)과 물혈[水穴]을 뜨라고 했다. 종달리로 들어온 호종단이 명혈(名穴)을 뜨다가 토산리 너븐밧[廣田]에 이르렀다. 그 곳에서 밭을 갈던 농부에게 어떤 고운 처녀가 와서 놋그릇(행기) 물을 떠다가 길마에 잠시 숨겨달라는 청에 응했더니 처녀가 물속에 뛰어 들어서 사라졌다. 그 처녀는 ᄂᆞ단샘이와 거슨샘이의 수신(水神)이었다.

농부가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명혈을 그린 산록(山麓)을 가진 호종단이 다가와서, 고부랑낭(구부러진 나무) 아래 행기물(놋그릇물)이 어디 있는지 묻는 것이었다. 고부랑낭(구부러진 나무) 아래 행기물(놋그릇물)은 바로 길마에 숨겨놓은 행기물을 뜻하는 것이었다.

농부는 모른다고 잡아뗐다. 호종단이 찾다가, 산록에 있는 행기물을 찾지 못하고 서쪽으로 사라졌다. 그래서 종달리에서부터 토산리까지는 호종단이 물혈을 떠 버려서 생수가 솟는 곳이 없지만, 이 거슨샘이와 ᄂᆞ단샘이는 살아남은 것이라고 한다.

3 특징

4 핵심어

거슨샘이, 거슴샘, ᄂᆞ단샘이, ᄂᆞ단샘, 황제, 토산리, 호종단, 산혈(山穴), 물혈[水穴], 종달리, 명혈(名穴), 너븐밧(廣田), 농부, 놋그릇(행기), 처녀, 길마, 수신(水神), 행기물

5 원전 서지사항

거슨샘이와 ᄂᆞ단샘이(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008 계첨 박규안(朴奎安)

1 개요

추사 김정희가 제주에 유배를 올 당시 만난 제자 박규안(朴奎安)에 관한 전설이다.

2 내용

추사 김정희가 제주에 유배 왔을 때 애월읍 곽지리가 문촌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왔다. 이때 박규안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영특함을 높이 평가하여 수제자로 삼았다. 그 후 추사 선생이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올라갈 때 박규안의 재능을 아까워하여 한양으로 함께 데리고 갔다.

박규안은 추사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과거시험에서 장원급제하였다. 한양의 선비들은 박규안을 시기해서 계략을 세워 죽여 버리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추사 선생은 사흘 낮, 사흘 밤을 슬피 울다 친필로 명정을 남국사인지관(南國詞人之棺)이라고 써서 유해와 함께 곽지로 보냈다 한다.

3 특징

박규안(1824~1850)은 추사 김정희의 문하생으로 박계첨(朴季瞻)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추사가 대정에 유배 왔을 때 그의 서예 솜씨를 인정하고 잘 가르쳐 주었다고 전한다. 일설에는 추사가 유배에 풀려 돌아갈 때 함께 따라가 글씨를 배웠는데 질투하는 이로부터 독살을 당했다고 한다.

이 전설은 추사가 제주에 유배올 당시의 제자로 서예에 두각을 보인 박규안을 추사에게 문장을 익혀 장원급제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4 핵심어

김정희, 계첨, 박계첨, 박규안, 곽지리

5 원전 서지사항

계첨 박규안(朴奎安)(오성찬, 《제주의 마을 곽지리》, 도서출판 반석, 2002)

6 관련 자료

박계첨과 바당해(海)字(오성찬, 《제주의 마을 곽지리》, 도서출판 반석, 2002)

C_L_009 고삭불 장사

1 개요

한림읍 명월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힘센 고삭불 장사가 열 명이 넘는 사람이 할 일을 혼자서 한 이야기이다.

2 내용

한림읍 상명리에 사는 힘이 센 고삭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처가는 한경면 두모(頭毛)리였다. 처가에서는 일꾼들이 없어서 꼴을 베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고삭불은 자기가 사람들을 불러 갈 것이니 점심이나 넉넉히 해오라고 했다. 처가에서는 장남 열 명 정도의 점심을 해 가지고 가보니, 고삭불 혼자 밭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처가에서는 화가 나서 점심을 그대로 두고 집으로 가버렸다. 고삭불은 그때야 일어나 점심을 모두 먹은 뒤 혼자 꼴을 베고는 처가에 가서 다 베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밭에 가보고서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에는 꼴을 묶는 것이 문제였다. 처가에서는 다시 고삭불을 불러 꼴을 묶게 하고는 음식을 넉넉히 주었다. 고삭불은 혼자 한꺼번에 운반해 버렸다. 흉년에 많이 먹는 사위가 걱정이 된 장인이 딸에게 곡식을 가져가라고 한다. 고삭불은 곡식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적떼를 만났는데, 도적떼들이 고삭불인 것을 알고 그냥 보냈다고 한다.

3 특징

고삭불은 장사이며 대식가로 도적떼들이 두려워 할 정도의 영웅의 면모가 보이지만 영웅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음식을 얻기 위해 여러 번에 나눠 일을 하는 재치를 발휘한다.

4 핵심어

고삭불, 한경면 두모리, 한림읍 상명리, 장사, 알곶디, 곶자왈, 도둑

5 원전 서지사항

고삭불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남이 참봉 영감(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와 정훈두(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8)

장사 고삭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장사 김팔충(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외도동향토지》, 2005)

장사 정운디(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조천 힘센 김씨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최동이 장사(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한새미 강당장(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홍리 고대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힘센 장사 ᄌᆞ망이(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010 고성 고찬원 효자

1 개요

조선 숙종 때 효자로 정려(旌閭)된 애월읍 고성리 고찬원(高贊元)의 효행 일화이다.

2 내용

고찬원은 부친을 일찍 여의고 노모만 모시고 사는데,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 어머니를 업고 밥, 죽 등을 구걸하며 노모를 살렸다. 노모의 나이가 많고 병까지 겹쳐서 거동을 못하게 되자 노모 곁을 떠나지 않고 병간호를 계속했다. 그의 지극한 효성이 알려져 목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목사가 그 실상을 알아보고자 평복차림으로 고찬원의 집을 찾아갔다. 마침 하절기로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는데, 고찬원은 조그만 평상을 만들어 어머니를 눕히고 곁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목사 일행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찬원은 부채질을 멈추고 평상에서 내려서서 손님을 맞이했다. 이에 제주 목사가 인효(人孝)는 되겠지만 천효(天孝)는 안 되겠다고 하였다. 노모를 위하는 마음이 지극했다면 누가 오든 신경을 쓰지 말아야 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목사는 돌아와 곧바로 효자완문을 내려 인효임을 천명했다.

3 특징

1834년에 편찬된 『효열록』에 의하면, 고찬원은 애월읍 고성리 사람이다. 보병(步兵)으로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관창에 들어가 번을 설 때에는 어머니를 업어서 성안까지 오고, 번을 서고 돌아갈 때에는 어머니를 업고 구걸하며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드렸다. 이 전설은 고찬원이 효자로 정려된 내력을 기술하면서 효행에 있어 인효(人孝)와 천효(天孝)의 등급을 매겨 이야기 전개에 재미를 덧붙였다.

4 핵심어

고찬원, 인효, 애월읍 고성리, 천효, 효자

5 원전 서지사항

고성 고찬원 효자(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6 관련 자료

C_L_011 고성 홍효자

1 개요

조선 영조 때 효자로 정려(旌閭)된 성산읍 고성리 홍달한(洪達漢)의 효행 등에 관한 일화를 담은 전설이다.

2 내용

홍효자는 아버지가 병환에 눕게 되자 침식을 잊고 구병에 힘썼다. 구병하면서 홍효자는 매일 아버지 똥을 맛보았다. 아버지의 똥이 날이 갈수록 단맛이 더해가자, '똥 냄새가 궂어야 사람이 오래 사는 법인데, 똥 냄새가 단 것은 속히 세상을 떠날 것 같다.'고 하면서 앙천통곡(仰天痛哭)했다 한다. 홍효자는 또한 살생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병간호하는데 가죽옷을 입은 채 마루방에서 몇 달이고 지내자니 이가 몹시 생겼다. 어느 따뜻한 봄날, 홍효자가 이를 잡는데, 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주워서 땅바닥에 조심조심 놓아주는 것이었다.

마침 말총장수가 지나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한번 골려주려는 생각에 가죽옷을 시루에 넣어 찌면 이가 한꺼번에 없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홍효자가 이 말을 듣고 따라 했다가 이도 다 죽고, 가죽옷도 못 입게 되었다고 매일 탄식했다고 한다. 그 말총장수가 말총을 다 사고 육지로 나가려 했지만 석 달 열흘을 기다려도 바람이 자지 않아 배를 띄우지 못했다. 점쟁이에게 물어보니, 천하대효(天下大孝)의 마음을 거슬려 놓은 죄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홍효자에게 용서를 빈 후에야 배를 띄워 갈 수 있었다고 한다.

또 홍효자는 제사에 쓸 고기라도 살생을 피해야 한다고 해서 곧은 바늘로 고기를 낚고 그것을 산 채로 물그릇에 넣어 제상에 올렸다가 제사가 끝나면 다시 바다에 놓아 주었다 한다.

헌종 임금이 승하했을 때 평대리 다랑쉬오름에 올라가 분향하고 북향사배(北向四拜)를 하여 통곡했다 한다. 향냄새가 서울까지 번져 제주의 홍효자가 분향하는 향냄새라는 것을 궁중에서도 알았다고 한다. 그 후 효자비가 내려졌는데, 비가 세워진 곳의 지명을 '효자문거리'라고 한다.

3 특징

1953년 간행된 『증보탐라지』에 의하면, 홍달한(1666~?)은 옛 정의현(旌義縣) 고성리(古

城里) 사람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지극한 효도로서 섬겼다. 어머니가 병에 걸려 대변을 맛보아 병의 증세를 살폈고 손가락을 베어 그 피로 약을 타서 드시게 하여 천수를 누리도록 하였다. 상을 당하니 묘소에 여막을 짓고 기거했다. 탈복을 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삼년을 더 추복(追服)하였다.

1720년(숙종 46년)에 숙종이 승하하자 초하루와 보름에 단을 설치하고 분향하며 북쪽을 향하여 곡함을 어버이가 돌아가신 것처럼 하였다. 1744년(영조 20년)에 일이 알려져 정문(旌門)을 세웠다.

이 전설은 홍달한의 효행과 인품, 임금에 대한 충정 등을 전하는 이야기인데, 효행의 대상이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바뀌어 있고, 북향사배의 대상이 숙종이 아닌 헌종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제주에서 피운 향냄새가 서울의 궁궐까지 퍼졌다는 등 홍달한의 행적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4 핵심어

홍달한, 홍효자, 성산읍 고성리, 천하대효, 효자문거리, 효자, 말총장수, 가죽옷, 시루, 앙천통곡, 북향사배, 향냄새, 효자비

5 원전 서지사항

고성 홍효자(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6 관련 자료

효자 홍달한 이야기(오성찬, 《제주의 마을 고성리》, 도서출판 반석, 2002)

C_L_012 고씨댁 장사

1 개요

애월읍 광령2리에서 날개 달린 아기와 관련된 힘센 장사 이야기이다.

아기장수가 날개를 잃었으나 보통 사람보다는 힘이 센 장사로 지내는 이야기로 장사설화이다.

2 내용

옛날 힘이 아주 센 사람이 있었는데,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 있었다. 부모는 역적에 몰릴까 봐서 그 날개를 인두로 지져 버렸지만 힘은 남아 있었다. 그의 아들과 힘자랑을 하는데 아들이 소 끈을 상투에 묶고 나무에 묶어서 잡아당기자 나무가 뿌리채 뽑아지기도 하였다. 그 부자간이 양쪽에서 소를 던지면 받고 다시 던지고 할 정도로 장사로 지냈다.

3 특징

아기장수 설화는 광포형 설화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다만 제주도의 아기장수 설화는 결말이 육지와 달리 비극적이지 않다. 날개는 잘리지만 죽지는 않고 보통 사람보다 힘이 센 사람으로 살아간다. 여기서는 그의 아들도 장사로 나온다.

4 핵심어

날개, 역적, 장사, 고씨, 무수내(무수천)

5 원전 서지사항

고씨댁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6 관련 자료

군산의 명당(날개 돋힌 아기장수 설화)(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감산향토지》, 2002)

날개 돋은 아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은 장사 구운문(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친 아이(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5·26집, 2013)

날개 잃은 두 아기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5집, 1999)

뱃 속에 오래 살당 나온 아기 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0·21집, 2005)

베락구릉(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장수 양태수(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정승과 정시(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013 고전적

1 개요

조선 현종 때 문과에 급제한 제주시 이호동 출신의 고홍진(高弘進)에 관한 전설이다.

2 내용

고전적이 전적(典籍) 벼슬을 하지 않았을 때는 가물개 고생원이라고 불렸다. 고생원의 지리 실력은 너무나 유명해서 그가 본 묏자리라면 도내에서는 누구도 티를 잡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 고생원은 서자 태생이었다. 그래서 집안과 친구 심지어 스승인 명도(明道) 선생에게도 적잖은 차별을 받았다. 스승이 세상을 떠나자 구산(求山)을 맡아 서귀읍 토평리 서쪽 큰ᄃᆞ리굴이라는 곳에 자리를 보았다.

몇 년 후 소목사가 제주 목사로 부임해 와서는 고생원이 글공부할 때 선생님이 서자라 해서 학대한 것이 억울하여 일부러 풍질에다 묏자를 보아 놓은 것을 알게 되었다. 고생원을 하옥시키고 며칠 후 소목사는 인통(印筒)이 무릎에서 자꾸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고생원을 불러 해몽을 하니 어영도대장의 유지가 도착하겠다는 것이었다. 해몽은 사실이 되어 소목사가 신안(神眼)에 감탄하여 고생원을 서울로 같이 데려갔다. 그리고 고생원이 문과 벼슬을 원함에 소목사는 전적 벼슬을 시켜 주었다.

3 특징

고홍진(1602~1682)은 1618년 제주로 유배 온 간옹(艮翁) 이익(李瀷)의 문하에서 명도암(明道菴) 김진용(金晉鎔)과 함께 공부를 하였으며, 사학과 지리학, 풍수지리에 뛰어났다. 효종 때 제주 목사 이원진(李元鎭)과 함께 『탐라지(耽羅志)』를 편찬했으며, 그의 소개로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문하생으로 들어갔다. 1666년 식년시(式年試)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전적이 되었다.

이 전설은 제주사절(濟州四節)의 하나로, 풍수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고홍진에 관한 일화인데, 그 이면에 깔린 역사적 사실을 통해 제주 사람들의 입신출세와 다른 지방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4 핵심어

고전적, 고생원, 명도, 소목사, 고홍진, 가물개, 인통, 신안, 전적 벼슬

5 원전 서지사항

고전적(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6 관련 자료

고전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김창봉과 고전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C_L_014 고전적 부친묘

1 개요

조선 현종 때 문과에 급제한 제주시 이호동 출신인 고홍진(高弘進)이 전적(典籍) 벼슬을 하게 된 내력담이다.

2 내용

고전적이 전적 벼슬을 하기 전에 부친이 돌아가셨다. 부친을 토롱(土籠)을 해 놓고 일년이 거의 다 지나도록 아들들은 구산(求山)을 해서 안장(安葬)할 생각을 안했다. 고전적은 형님이 적자(嫡子)이고 맏형이니 부친의 장사를 형님이 결정하리라 믿었고, 형은 풍수에 뛰어난 동생을 믿어 서로 방심하고 있었다.

형제의 이러한 사정을 눈치 챈 고전적의 형수가 중재하여 결국 형이 고전적에게 구산을 청하고, 고전적이 부친 묏자리를 정해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묏자리에 상두꾼들이 하관할 땅을 파는데 물이 조금씩 흘러나왔다. 상두꾼들이 장사를 지내지 못하겠다고 웅성대었다. 그러자 고전적은 입었던 상복을 벗어 물이 흘러나오는 구멍을 덮고는 하관하도록 상두꾼들을 독려했다. 묏자리가 옥녀 하문(下門)형이기에 오히려 터진 것이 좋은 징조였다. 이후 고전적은 서자 출신이었지만 전적 벼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3 특징

고홍진(1602~1682)은 1618년 제주로 유배 온 간옹(艮翁) 이익(李瀷)의 문하에서 명도암(明道菴) 김진용(金晉鎔)과 함께 공부를 하였으며, 사학과 지리학, 풍수지리에 뛰어났다.

효종 때 제주목사 이원진(李元鎭)과 함께 『탐라지(耽羅志)』를 편찬했으며, 그의 소개로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문하생으로 들어갔다. 1666년 식년시(式年試)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 그런데, 이 전설은 풍수로 유명한 신안(神眼)이라 불리던 고홍진이 학업이 아니라 부친의 묘를 잘 써서 출세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4 핵심어

고전적, 고홍진, 신안(神眼), 이호동, 고전적 부친묘

5 원전 서지사항

고전적 부친묘(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지관 김귀천(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C_L_015 고종달이

1 개요

제주에서 장사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지혈과 수혈을 끊기 위해 중국의 왕이 파견하였다는 고종달이에 관한 전설이다.

2 내용

제주도는 혈맥이 뛰어나므로 머리가 총명하고 힘이 센 장군이 태어날 곳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진시황은 고종달이를 파견하여 제주의 혈맥을 끊게 했다.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가 쇠판을 붙여놓고, 정의현에서부터 혈맥을 끊으면서 홍리 지장새미에 다다랐는데, 밭 가는 농부의 도움으로 지장새미의 수혈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 후부터 제주도 서쪽은 생수가 잘 나오고, 동쪽은 수혈이 끊겨 생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 한다.

한편, 수혈을 뜬 주머니 끈이 협재 동굴에서 끊어지고, 제주를 떠날 때 산지에 빠져버려 이곳에 아직까지도 많은 양의 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고종달이가 산방산의 지혈을 끊어버려 화순항이 더 넓어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3 특징

고종달이는 사서에 호종단(胡宗旦)이라 기록되어 있는 인물로, 고려 예종(재위 ; 1106~1122) 때 중국에서 온 귀화인이다. 송나라 복주(福州) 출신으로 태학에 입학하여 상사생(上舍生)이 되고, 절강성에 있다가 상선을 타고 고려에 들어왔다. 예종의 후대를 받았는데 당시 탐라(제주)에 들어와 산수지기(山水之氣)를 제압하였다고, 인종 때 벼슬이 기거사인(起居舍人)에 이르렀다 한다.

이 전설은 고종달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고려시대 탐라국이 고려에 복속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역 해안에 발달한 용천수와 하천 및 각종 지형과 관련하여 그 혈맥이 끊겼기 때문에 이러한 외세에 대항할 인물이 생겨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 핵심어

고종달이, 진시황, 지장새미, 혈맥, 수혈, 지혈

5 원전 서지사항

고종달이(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고종달의 단혈(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광양당신과 호종단(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물징거와 고종달이(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호종단(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호종단과 차귀섬(진성기, 《남국의 전설》, 교학사, 1981)

C_L_016 곱은소(1)

1 개요

표선면 성읍리와 성산읍 신풍리 경계에 있는 곱은소와 관련된 지명 전설이다.

2 내용

성읍 마을과 신풍 마을 사이에 곱은소라 부르는 큰 못이 있다. 처녀가 바위 밑에 곱아(숨어) 있는 것과 같은 소라는 데서 곱은소라 하고, 신령이 살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가끔 이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소를 지나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놋그릇 뚜껑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안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신령이 보이는 이변이라고 했다.

3 특징

4 핵심어

곱은소, 성읍리, 신풍리, 처녀, 바위, 놋그릇 뚜껑, 신령

5 원전 서지사항

곱은소(1)(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곱은소(2)(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C_L_017 광정당 말무덤, 영천 손목사

1 개요

조선 숙종 때 제주 목사 이형상의 음사훼철과 관련하여 안덕면 덕수리에 있었던 광정당에 얽힌 일화를 담은 전설이다.

2 내용

안덕면 덕수리에 광정당이 있고, 그 주변에는 말무덤이 많이 있다. 이 말무덤은 모든 사람들이 말을 타고 광정당 앞을 지날 때 말에서 내리고 지나가야 하는데,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려다가 다리가 부러져 죽은 말을 묻은 무덤이다. 제주원에 영천 손목사가 부임했다. 제주도에 부임한 뒤 지역실정을 살펴보니, 당오백 절오백으로 해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손목사는 이러면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먼저 당을 부수기 시작했다. 제주도 서쪽으로 당을 부수며 안덕면 덕수리 광정당에 이르러 손목사가 그 앞을 지나려고 하자 말다리가 부러지고 또 지나려면 부러지곤 했다. 군졸들에게 물으니, 광정당의 영기가 세어 이곳을 지나갈 때 하마(下馬)하지 않으면 말다리가 부러진다는 것이었다.

손목사는 광정당을 관장하는 무당을 불러 광정당의 귀신을 불러오도록 했다. 무당이 굿을 하여 광정당의 신을 부르자 무게가 스무 관(貫)쯤 되는 큰 뱀이 기어 나왔다. 손목사는 큰 칼로 뱀의 목을 확 잘라버리고 군졸들에게 숯으로 뱀을 불사르게 하니, 뱀은 두 마리 꿩이 되어 한 마리는 서쪽으로 날아가 안덕면 덕수리 '일뤠당'에 좌정하고, 남쪽으로 날아간 것은 안덕면 사계리 '큰물당'의 당신이 되었다.

당과 절을 정리한 손목사는 자손이 끊겨 단장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된 '골총'들을 청결하게 정리하고 혼령들도 위로해 주었다. 그런데, 당귀신과 절귀신들이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등장을 드렸다. 이것을 알게 된 골총귀신들도 등장을 드리러 옥황상제에게 올라갔다. 재판 결과 골총귀신들이 이긴 것 같다. 골총귀신들이 손목사의 꿈에 나타나 이제 곧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당귀신 절귀신이 쫓아와서 목사님을 해치려 한다고 했다. 손목사가 제주를 떠나 배가 육지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려할 찰나에 배에 디디고 섰던 한쪽 발이 불구가 되었고, 집에 가서보니 당귀신 절귀신으로부터 아들 세 형제가 모두 죽음을 당해 있었다. 골총귀신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손목사도 제주에서 죽었을 것인데, 일찍 피신해서 발 한쪽만 불구가 되었다 한다.

❸ 특징

이 전설의 주인공은 1702년(숙종 28년) 제주 목사로 부임하여 제주의 누속(陋俗)을 개혁하여 유속(儒俗)으로 바꾸고자 했던 이형상(1653~1733) 목사인데, 영천 손목사로 바뀌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형상은 1702년 6월에 도임하였다. 재임 당시 광양당(廣壤堂)을 철폐하고, 삼읍(三邑)의 음사(淫祠)와 불우(佛宇) 1백 30여 소를 불태우고 무당 4백여 명을 각기 귀농시켜 일을 하게 하였다. 대정현 음사 광정당(廣靜堂)을 불 질러 태우고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을 철폐하였다.

이형상 목사는 대정현에 유배된 죄인 판서 오시복(吳始復)과 정의현에 유배된 유생 유항(柳伉)의 방면(放免)을 청하는 장계가 문제되어 이듬해 6월에 관작을 삭탈 당하자 떠났다. 영천(永川)은 이형상 목사가 제주를 떠나 영광 군수직을 사임하고 학문과 후학 양성을 위해 머물던 곳이다.

❹ 핵심어

이형상, 손목사, 광정당, 말무덤, 안덕면 덕수리, 일뤠당, 큰물당, 골총, 안덕면 사계리, 당귀신, 절귀신

❺ 원전 서지사항

광정당 말무덤, 영천 손목사(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❻ 관련 자료

광정당과 뱀(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53)
광정당과 이목사(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당 오백 절 오백(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백목사와 토산당(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C_L_018 괴이리(槐伊里)

1 개요

구좌읍 한동리의 옛 이름인 괴이리(槐伊里)와 관련된 전설이다.

2 내용

괴이리(槐伊里)는 구좌읍 한동리(漢東里)의 옛 이름이다. 괴이리라 부르던 때, 외국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다, 풍파를 만나 배가 파선되어 어부들만 헤엄쳐 나왔다. 이집저집의 외양간이나 처마 밑에 몸을 숨기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구해주지 않아 모두 얼어 죽고 말았다.

그 뒤 이 마을에는 간혹 바다에서 불씨가 날아와 여러 채를 태우곤 했다. 이를 도체빗불이니, 조홧불(造化之火)이니 했다.

마을 회의를 열었더니, 얼어 죽은 어부의 원혼 때문이라고도 하고, 마을 이름의 괴(槐)가 붙어서, 집집마다의 재목(木)에 악귀(鬼)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고치자고 했다.

3년을 두고 논의한 끝에 한라산 동쪽 마을이라 해서 마을 이름을 한동리(漢東里)로 바꿨다. 100여 년 전에 이렇게 고친 뒤에는 '조홧불'이 사라졌지만, 범천총과 같은 인물은 나지 않는다고 한다.

3 특징

4 핵심어

한동리, 괴이리(槐伊里), 도체빗불, 외국 어부, 조홧불, 조화지화(造化之火), 범천총, 재목, 악귀

5 원전 서지사항

괴이리(槐伊里)(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도체비불과 한동리명(漢東里名)(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C_L_019 구진개와 추근디모들

1 개요

성산읍 신풍리에 있는 구진개와 추근디모들과 관련된 지명 전설이다.

2 내용

성산읍 신풍리 해안에 구진개라는 자그마한 포구가 있다. 구진개 앞바다는 물발이 세서 항해하던 배가 부서지는 경우가 많았다. 왜구(寇)가 도망가려고(進) 했던 포구라는 데서 구진개라 했다.

어느 해에 왜구들이 구진개에 배를 세워놓고 마을을 침탈하고, 포구를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물살이 세져서 도망칠 수가 없었다. 왜구들이 하는 수 없이 한라산으로 도망쳤다. 마을청년들이 뒤를 쫓고 정읫고을 군사들이 산을 막고 있어서, 왜구들은 모두 섬멸되었다. 왜구들이 도망가려고 했던 포구는 구진개라 부르고, 왜구들이 섬멸당한 곳은 추군디모들이라 했다.

3 특징

'구진개'나 '추군디모들'은 모두 한자말이 아니라 고유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지명인데, 한자말로 해석하여 만들어낸 지명 전설로 추정된다.

4 핵심어

구진개, 추군디모들, 신풍리, 포구

5 원전 서지사항

구진개와 추군디모들(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020 군산에 얽힌 설화(2)

1 개요

안덕면 소재 군산(軍山)의 용출(湧出)에 얽힌 전설이다.

2 내용

옛날 서귀포시 예래동 강씨로 학문이 깊은 사람이 군산 앞 '만지세'에 살고 있었다. 하루는 어떤 동자(童子)가 글을 배우겠다고 찾아왔다. 1년 쯤 글을 배우고 나니 그 재조(才操)가 비범하여 뭇사람을 능가하게 되었다.

하루는 동자가 스승께 하직 인사를 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스승은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혼잣말로, '이 앞 내소리가 귀에 항상 거슬린다.' 하였다. 스승의 말을 받아 듣고 동자는 "앞으로 머지않아 벽력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것이니, 그때는 집에 문을 닫고 그 소리가 멎을 때까지 기다리소서." 하였다.

동자가 떠나고 얼마 없어 뇌성벽력이 천지를 진동하고 안개가 천지를 가리길 7일간 이어지더니 산이 하나 생기고, 내는 그 산 건너편으로 옮겨져 있었다.

일설에 이 산은 중국에서 왔다고 한다. 중국에 서산(瑞山)이 없어졌는데, 중국인이 제주에 일이 있어 왔다가 이 창천(倉川) 앞에 있는 산을 보니 중국에서 없어진 그 서산이었다고 한다.

3 특징

군산의 용출과 관련한 이야기는 《고려사절요》 등의 사료에서 확인된다. 이 전설은 화산 분출에 의해 갑자기 생겨난 군산의 존재를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 비범한 인물이 조화를 부려 중국에서 옮겨온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군산 용출과 관련한 전설이 1953년 담수계(淡水契)에서 편찬한 《증보탐라지》에는 우도(牛島) 용출 전설로 소개되고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007년(고려 목종 10년)에 상서로운 산[瑞山]이 남쪽 바다 가운데서 솟아오르니, 산이 처음 나올 때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땅울림이 우레와 같아 7주 만에 안개가 걷혔다. 산의 높이가 100여 길이요, 둘레가 40여 리이다. 초목은 없고 연기가 그 위를 자욱하게 덮어, 바라보니 석류황(石硫黃) 덩어리 같았으므로 사람들이 두렵고 놀라워 감히 다가가지 못하였다. 왕이 태학박사 전공지(田拱之)를 파견하여 그 형상을 그려서 갔다.>

4 핵심어

군산, 서산, 예래동, 만지세, 동자, 스승, 창천, 중국

5 원전 서지사항

군산에 얽힌 설화(2)(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국문학보》제4집, 1972)

6 관련 자료

군산에 얽힌 설화(1)(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국문학보》제4집, 1972)

C_L_021 군산의 명당(날개 돋힌 아기장수 설화)

1 개요

안덕면 감산리에서 날개 달린 아기와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날개 달린 쌍둥이가 태어난 것이 조상의 묏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묏자리를 이장하는 이야기이다.

2 내용

김성신과 그의 처 박씨 간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다. 외출 할 때 각각 다른 아기 구덕에 쌍둥이를 눕혔는데 돌아와 보니 구덕이 바뀌어 있었다. 이런 일이 종종 생기자 어머니는 외출하는 척하고 방안을 살피자 쌍둥이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옷을 벗겨 보니 날개가 돋아 있었다.

조상의 묘 때문이라 생각하여 지관과 의논하여 이장하기로 결정한다. 이장을 하는데 시신이 황소가 되어 있었다. 이때, 비둘기 두 마리가 나와 가파도 쪽으로 날아가 버렸고, 그때 안개가 뿌옇게 끼었다가 개이고 보니 황소가 없어졌다. 후에 부모가 집에 돌아와 보니 쌍둥이는 죽어 있었다. 그 후 군산의 묘지는 금악리 박씨가 묘를 써 그 집안이 잘 되었다.

3 특징

'군산의 명당' 이야기는 군산의 정상이 범상치 않은 장소임을 말해 주는 이야기이다. 군산은 금장지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의 합동 기우제가 열리던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곳에 조상의 묘를 써서 장차 나라를 뒤집을 만한 비범한 아이를 낳게 되자 오히려 가문의 몰락을 염려하게 된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승되는 '날개 달린 아기장수' 설화이다. 보통 이 유형의 이야기에는 부모들이 아이의 겨드랑이에 난 날개를 태우거나 잘라 없애고, 그 때문에 아이는 힘을 잃거나 죽음에 이르게 된다. 위의 이야기에서는 조상의 묘를 이장했더니 아이들이 죽었다고 했으니, 다른 지역의 이야기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군산 및 풍수설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꾸며지다 보니, 이와 같은 변이형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4 핵심어

김성신, 박씨, 군산, 아기장수, 명당, 쌍둥이, 날개, 묘, 이장, 황소, 비둘기, 가파도, 한림읍 금악리, 금장지

5 원전 서지사항

군산의 명당(날개 돋힌 아기장수 설화)(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감산향토지》, 2002)

6 관련 자료

고씨댁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은 아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은 장사 구운문(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힌 아이(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5·26집, 2013)

날개 잃은 두 아기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5집, 1999)

뱃 속에 오래 살당 나온 아기 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0·21집, 2005)

베락구릉(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산방산에 묘 안쓰는 이야기(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 제7집, 1982)

장수 양태수(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정승과 정시(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022 기건의 관장

1 개요

조선 세종 때 제주에 목사로 왔던 기건(奇虔)의 행적 중 제주에 관장(棺葬)을 전파한 내용을 담은 전설이다.

2 내용

지방 풍속이 본래 장례를 치러 매장하는 예법이 없어서 시신을 구렁에다 버리는 자가 많았다. 기건이 목사가 되었을 때 널을 갖추고 염(斂)하여 장사지내는 법을 가르쳤다.

고득종이 시묘살이를 하여 예를 숭상한 것으로 일찍이 태종조에 그 가문이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장사를 치르지 않고 시묘살이를 하는 자가 있었겠는가? 근거가 없는 것이 정도가 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기씨의 이러한 조치는 곧 주인이 없는 시신들에 대한 것으로, 기씨의 행적을 분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는 꿈에 3백여 인이 나타나 기씨의 앞에서 절을 하며 "공의 음덕을 입어 (뼈가) 드러나는 것을 면했으니 공으로 하여금 반드시 어진 자손이 생겨나서 능히 집안의 명성을 번창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공의 세 아들이 후사가 없었는데, 찬(穳)이 아들 다섯을 낳으니 형(逈), 괄(适), 원(遠), 진(進), 준(遵)이다. 진의 아들 대승(大升)은 문장과 학문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다.

4 핵심어

기건, 관곽(棺槨), 염장(斂葬), 시묘살이, 관장

5 원전 서지사항

기문 전설(奇聞 傳說)(담수계(淡水契),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1953)

6 관련 자료

기건목사(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C_L_023 김덕이여

1 개요

표선면 하천리 바다에 있는 김덕이여와 관련된 전설이다.

2 내용

바닷물 속에 잠겨 있거나, 물 위로 노출되기도 하는 반석(盤石)을 여라 한다. 하천리 포구 남쪽 4킬로미터 쯤 바다에 늘 물속에 잠겨있는 여 가운데 김덕이여가 있다. 김덕이라는 해녀가 발견한 여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해녀들이 물질을 나갔다가, 갑자기 북풍이 불어왔다. 대부분 해녀들이 모두 물 밖으로 나왔는데, 김덕만 보이지 않았다. 동네 청년들이 먼 바다를 바라보니, 물결 사이에서 까맣게 보이는 물체가 있었다. 청년들이 배를 준비하여 그곳으로 가니, 바로 김덕이 서 있었다. 다행히 썰물 때여서 김덕은 여에 발을 디디고 설 수 있었다. 그 뒤부터 이 여를 김덕이여라 부른다.

3 특징

4 핵심어

하천리, 김덕이여, 반석, 여, 김덕, 해녀

5 원전 서지사항

김덕이여(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024 김치 판관과 강림

1 개요

조선 광해군 때 제주 판관으로 왔던 김치(金緻)의 행적 중 저승으로 간 옥졸 강림(姜林)과 관련된 전설이다.

2 내용

김치가 판관이 되었을 때 어떤 한 여인이 “세 명의 재주있는 아들이 나이가 모두 10여 세인데 한꺼번에 모두 요절해 버렸으니 원망할 곳이 없어 감히 고합니다.”라고 호소하였다. 김치가 서첩을 써서 옥졸인 강림에게 주면서 “너는 저승사자를 잡고 와라.”라고 하니, 강림이 그 일을 면제해 달라고 애걸했지만 되지 않자, 결국 서첩을 가지고 한라산에 가서 재계하고 제사를 지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문득 공중에서 “김 판관의 서첩은 어길 수 없다.”면서 즉시 한 신인(神人)이 붉은 관에 검은 적삼을 입고 와서 강림에게 “나는 저승사자이니 함께 가기를 청한다.”라고 하였다. 강림이 잡아와서 고하니, 김치가 그 관복을 연신 바라보며 “아무개 집의 세 아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었다 하니 그대가 저승사자로 어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한가?”라고 하였다.

신인이 말하기를, “그 여자를 잡아들여라.”하니, 드디어 잡아들어 계단 아래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신인이 성난 목소리로, “너는 간통한 사내가 있으면서 본 남편이 병들었는데도 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아들 셋을 낳았지만 요절한 것은 악행에 대한 응보인데 어찌 감히 원망하다고 하느냐?” 하였다. 그 여인이 부끄럽고 두려워 하며 물러나자 신인이 김치에게 청하기를, “강림은 진정 일을 시킬 만 하니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작별하니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때 강림은 여러 군졸들과 나란히 뜰 가운데 서있었는데 갑자기 땅에 엎어져 죽었다. 소주인(蘇州人) 오서신(吳書紳)이 제주에 표류해 와서 김치의 시를 봤을 때, ‘산이 높아 쌓인 눈 봄 지나도 남아있고, 드넓은 바다에 멀리서 불어온 바람 온종일 불어대네.’라는 구절에 이르러 곧 계단에서 내려와 절을 하였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 “이 사람은 속세의 사람이 아니다. 죽으면 명사관(冥司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한다.

❸ 특징

김치(1577~1625)는 1609년 3월에 제주 판관으로 도임(到任)하고 1610년 9월에 교체되어 떠났다.

이 전설은 역사적 실존인물인 김치의 행적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저승차사 강림이 저승으로 가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화적 허구에 사실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❹ 핵심어

김치, 강림, 저승사자, 명사관

❺ 원전 서지사항

기문 전설(奇聞 傳說)(담수계(淡水契),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1953)

❻ 관련 자료

C_L_025 김통정 장군

1 개요

고려 삼별초난 때 김통정 장군의 대몽항쟁과 관련있는 전설이다.

2 내용

김통정 장군은 700여 년 전 삼별초를 인솔하여 진도를 거쳐 제주도에 들어왔다. 싸움에 유리한 지형인 항파두리에 토성을 쌓을 때 흉년이 들어 역군들이 인분을 다투며 먹었다는 말이 전해온다.

김방경 장군이 고려군을 이끌어 김통정 장군을 잡으러 올 때면 연막작정으로 토성 위에 재를 뿌려 말꼬리에 빗자루를 달아매어 채찍질을 가해 성 위를 달리게 하기도 했다. 김방경 장군이 새로운 전략으로 대병력을 동원해서 화북포구와 한림항으로 들어오자 전세가 불리한 김통정 장군은 성안으로 후퇴해서 성문을 닫아버렸다.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아기업저지의 도움으로 성문이 무너지고 고려군사들이 쳐들어오자 김통정 장군은 도술을 부려 비양도 앞바다에 쇠방석을 띄워 날개를 벌려 날아가 버렸다.

김통정 장군은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비늘이 덮여 있어 칼로 죽일 수 없었다. 김방경 장군도 도술을 부려 모기로 변해 김통정 장군 주위를 맴돌다 목 사이 비늘이 벌어진 틈으로 바늘을 찔러 죽였다.

고성리 흙붉은 오름은 김통정 장군이 달아나기 직전에 직접 죽인 애첩과 딸이 흘린 피가 물들어 붙여진 이름이라 하고, 토성을 탈출하면서는 제주 도민을 고생시킨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물이라도 먹고 살라.”는 뜻에서 암반을 밟아 샘물이 솟아나게 했는데, 이 샘물을 장수물이라고 한다.

3 특징

김통정(?~1273)은 1270년 배중손(裵仲孫)이 원종의 개경 환도에 반대하여 삼별초를 거느리고 대몽항전을 할 때 장수로 참가했다. 이후 김통정은 진도에서 몽골군과 격전 중 별

장 이문경(李文京)을 시켜서 확보한 제주로 1271년 5월 여몽연합군에 의하여 진도가 함락되자 제주도로 들어왔다.

김통정은 애월읍 고성리에 내외성을 쌓아 항전하였지만 1273년 4월 160척의 배와 수륙병 1만여 명을 이끌고 온 김방경(金方慶)의 정벌군에 의하여 패망하였다. 그러나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 목매어 자살하였다.

이 전설은 삼별초의 제주 입도와 토성 건설, 패망까지의 사건전말을 김통정 장군을 주인공으로 하면서 항파두리 주변의 산과 샘 등의 지물을 토성 함락 사건과 결부시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4 핵심어

김통정, 김방경, 이문경, 흙붉은 오름, 항파두리, 삼별초, 토성, 도술, 비양도 앞바다, 쇠방석, 장수물

5 원전 서지사항

김통정 장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026 김흥조 효자

1 개요

조선 철종 때 현 한림읍 대림리 출신 김흥조(金興祚)가 효자로 정려(旌閭)된 내력을 이야기한 전설이다.

2 내용

김흥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위독한 병으로 앓아누워 있었다. 무더운 여름철 김흥조가 사탕수수가 먹고 싶어 껍질을 벗기다 잘못하여 손가락이 베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내리자 겁이 난 흥조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상처 난 곳을 입으로 불어달라고 졸랐다. 병든 아버지였지만 아들이 불어달라고 하자 입으로 불어주었다. 그때 손가락에서 나는 피가 아버지의 입으로 떨어져 흘러들어갔다. 죽을병에 걸려 누워있던 아버지가 아들의 피를 먹게 되자 금방 병이 나아버렸다. 이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동네 사람들은 대림에 효자가 났다고 칭송을 했고, 어사가 행차할 때 진정을 드려 효자완문이 내려졌다.

3 특징

한림읍 대림리 도로변에 세워진 김흥조의 정려비에는 그의 행적에 대해 “타고난 성품이 어버이를 섬김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침저녁으로 문안을 살피고 맛난 음식으로 봉양하며 예의로서 뜻을 갖추어 봉양하며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병이 위급하여 끝내 회생할 가망이 없자 하늘과 땅의 신령에게 기도하며 밤낮을 흐느껴 울다가 손가락을 베어 피를 입에 흘려 넣으니 거의 끊어졌던 목숨이 다시 살아났다. 마을과 이웃 사람들이 모두 하늘이 낸 효자라 칭송하였다. 철종 정사년(1857)에 면리에서 실적을 들어 첩보를 관청에 올리니 바로 완문이 내려졌다. 같은 임금 경신년(1860)에 어사가 와서 또한 표창하는 글을 내려 크게 드러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려비의 내용이 효행을 실천하기 위한 김흥조의 적극적 태도에 초점을 둔 기술이라면, 이 전설은 김흥조의 효행이 우연의 결과로 처리되어 이야기되고 있다.

4 핵심어

김흥조, 사탕수수, 대림리, 효자, 봉양, 손가락, 효자 완문

5 원전 서지사항

김흥조 효자(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027 날개 돋은 아기

1 개요

한림읍 명월리에서 날개 달린 아기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말머리 이야기이다.

가난한 부부가 날개 돋은 영웅을 지관의 도움으로 묏자리를 이장하여 얻었으나 이를 두려워하여 날개를 잘라내자 아이는 죽었다. 이때 하늘에서 말이 내려와 자신이 데리고 갈 날개 돋은 영웅이 죽은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죽어 돌이 된 이야기다. 지명유래담이지만 장소는 정확하지 않다.

2 내용

말머리도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돌 모양의 말이 무릎을 꿇어앉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마을 근처에 자주 묏자리를 보는 지관들이 와서 그곳 자리를 살피는 것을 알고, 유심히 눈여겨 보아두었다.

지관들이 돌아간 틈을 타서 시아버지 산소를 그곳으로 이장하였다. 그 뒤 태기가 있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겨드랑이로 날개가 돋아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그 아기는 날개를 치면서 여기저기 날아다녔다. 이를 본 어머니가 이웃 사람들에게 알리니 이웃 사람들은 나라에서 알면 큰일 날 것이라고 하면서 날개를 잘라버리도록 권했다. 날개를 잘라버리자, 아기는 금세 죽어버렸다. 이때 하늘에서 아기가 탈 말이 내려와 마을 어귀에서 무릎을 꿇은 채 죽었으며, 말은 죽은 뒤 돌로 변하였다.

3 특징

날개 달린 아이의 죽음과 그 아이를 데리러 온 말의 죽음이다. 이와 같이 날개 달린 인물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된다. 날개는 영웅을 뜻하고 영웅은 반역을 꾀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날개 달린 아이는 날개가 잘리게 되거나 죽게 되는 육지에서 전해오는 전형적인 아기장수 설화이다.

여기서는 날개 달린 아이와 함께 그 아이를 데리러 온 말도 같이 죽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아기장수의 탄생은 풍수설화와도 연관이 있다.

4 핵심어

몰머릿도(말머리도), 아기 장수, 날개, 말, 지관, 군앙지진

5 원전 서지사항

날개 돋은 아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6 관련 자료

고씨댁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군산의 명당(날개돋힌 아기장수 설화)(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감산향토지》, 2002)

날개 잃은 두 아기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5집, 1999)

날개 돋은 장사 구운문(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친 아이(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5·26집, 2013)

뱃 속에 오래 살당 나온 아기 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0·21집, 2005)

베락구릉(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산방산에 묘 안쓰는 이야기(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 7, 1982)

장수 양태수(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정승과 정시(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028 날개 돋은 장사 구운문

1 개요

안덕면 창천리에서 전해 오는 힘센 장사 구운문 이야기이다.

구운문은 날개가 돋았다는 소문이 나 있는 인물이다. 그는 왜구의 침입을 빨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또한 마을의 힘든 일을 해결하는 장사이다.

2 내용

안덕면 화순리에 구운문이란 장사가 있었는데, 그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는 소문이 나 있었다. 하루는 왜놈의 배가 쳐들어오자 관가에서 그를 시켜 성안에 알리도록 했는데, 그는 날아서 잠깐 사이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또 어느 해엔 그 동네 보리밭에 소들이 내려와 보리밭을 망치니 주인이 구운문에게 소를 내쳐달라고 부탁을 한다. 구운문은 혼자 힘으로 그 소들을 처치해 버렸다. 그는 그 값으로 보리 한 짐을 져 가기로 밭주인과 약속했는데, 그 밭의 보리가 겨우 그에게는 한 짐밖에 안 되었다.

3 특징

이 이야기는 날개 달린 장수설화이다. 날개 달린 장수설화는 아기일 경우에 날개가 잘리거나 죽게 되는 이야기로 실패하는 결말이 많지만 여기서는 성인이라는 점이 다르며 성공담에 가깝다. 나라의 큰 위험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해 국가적 영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왜구의 침입을 빨리 알리는 것으로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4 핵심어

화순리, 날개, 장사, 구운문, 소, 보리

5 원전 서지사항

날개 돋은 장사 구운문(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고씨댁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군산의 명당(날개돋힌 아기장수 설화)(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감산향토지》, 2002)

날개 돋은 아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친 아이(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5·26집, 2013)

날개 잃은 두 아기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5집, 1999)

뱃 속에 오래 살당 나온 아기 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0·21집, 2005)

베락구릉(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장수 양태수(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정승과 정시(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029 날개 돋친 아이

1 개요

서귀포시 중문동 하원리에서 날개 달린 아기와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아기장수 설화로 아이의 날개를 잘라버리는 이야기이다.

2 내용

태어나서 일주일 쯤 된 아이가 누운 자리에 그대로 있질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몰래 아이를 지켜본다. 이에 아이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관가에 고하자 관가에서 나온 사람들이 날개를 잘라버렸다. 그 장수가 난 묏자리에 가서 보니 황금 송아지가 무릎을 꿇어 있었다고 한다.

3 특징

날개 달린 아이와 풍수설화이다. 이와 같이 날개 달린 인물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역에 발견된다.

날개는 영웅을 뜻하고 영웅은 반역을 꾀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날개 달린 아이는 날개가 잘리게 되거나 죽게 되는 다른 지방에서 전해오는 전형적인 아기장수 설화와는 달리 날개가 잘리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 있다. 여기에 풍수설화가 접목되어 있다.

4 핵심어

날개, 아기 장수, 황금 송아지, 화순, 군산

5 원전 서지사항

날개 돋친 아이(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5·26집, 2013)

6 관련 자료

고씨댁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군산의 명당(날개돋힌 아기장수 설화)(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감산향토지》, 2002)

날개 돋은 아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은 장사 구운문(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잃은 두 아기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5집, 1999)

뱃 속에 오래 살당 나온 아기 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0·21집, 2005)

베락구릉(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산방산에 묘 안쓰는 이야기(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 제7집, 1982)

장수 양태수(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정승과 정시(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030 날개 잃은 두 아기장수

1 개요

대정읍 상모1리에서 날개 달린 아이가 태어나 이 사실이 걱정이 되어 묘를 이장하다가 아이가 죽게 된 이야기이다.

2 내용

안덕면 감산리 앞, 이도시라는 마을에 김보선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 집안에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다.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 아이들이 자꾸 자리를 바꿔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가 하루는 물질하러 가는 척하고 아이들을 몰래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에게 날개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상의를 했다.

결국은 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묘를 이장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황소가 날뛰며 하늘로 가서 두 아이는 죽게 되고, 그 집안마저 망하게 된다.

3 특징

날개 달린 아이의 죽음과 풍수설화이다. 이와 같이 날개 달린 인물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역에 발견된다.

날개는 영웅을 뜻하고 영웅은 반역을 꾀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날개 달린 아이는 날개가 잘리게 되거나 죽게 되는 육지에 주로 분포되어있는 전형적인 아기장수 설화이다.

4 핵심어

대정, 감산리, 이도시, 김보선, 쌍둥이, 날개, 아기 장수, 묏자리, 황소

5 원전 서지사항

날개 잃은 두 아기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15, 1999)

6 관련 자료

고씨댁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군산의 명당(날개 돋친 아기장수 설화)(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감산향토지》, 2002)

날개 돋은 아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은 장사 구운문(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친 아이(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5·26집, 2013)

뱃 속에 오래 살당 나온 아기 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0·21집, 2005)

베락구릉(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산방산에 묘 안쓰는 이야기(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 제7집, 1982)

장수 양태수(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정승과 정시(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031 날래 담는 법을 책에서 찾아

1 개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현 제주시 도련동 출신 이계징(李啓徵)에 관한 일화이다.

2 내용

이락당(二樂堂) 이계징(李啓徵)이 나이 들었을 때 그의 며느리가 하루는 마당에 날래(곡식)를 널어놓고 바다에 물질을 가버렸다. 이락당이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방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락당은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여 부지런히 '소나기 올 때 날래 담는 법'을 찾기 위해 책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사이 책은 비에 흠뻑 젖어 더러는 떠내려가 버렸다. 저녁때가 되어 며느리가 물질에서 돌아와 보니 시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책을 뒤적거리고만 있었다. 며느리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시아버지를 어찌할 수는 없었다.

3 특징

이계징(1840~1914)은 제주시 도련동(道蓮洞) 매촌(梅村) 출신이다.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에게 배웠다. 집은 가난하였지만 학문을 좋아하여 당시 글씨와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 전설은 글공부 밖에 모르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선비의 모습을 이계징이라는 실존인물의 일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4 핵심어

이계징, 이락당, 날래

5 원전 서지사항

날래 담는 법을 책에서 찾아(오성찬, 《제주의 마을 함덕리》, 도서출판 반석, 2002)

6 관련 자료

C_L_032 남이 참봉 영감

1 개요

한림읍 명월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남이봉 이야기이다.

마소 복이 많은 '남이'라는 종이 천 마리가 넘는 소떼를 관리하며 매일 소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 전설이다.

2 내용

마소 복이 많은 '남이'라 하는 종의 이름을 딴 남이봉이란 봉우리가 한림읍 명월리(明月里)에 있었다. 그는 소를 돌보러 산에 올라가면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송아지의 귀를 잡고 못살게 굴었다. 그러면 그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른 소떼들이 몰려들면 소를 잡아먹었다.

하루는 주인이 그가 어떻게 천 마리나 되는 소를 관리하는지 미행을 해보니 하루에 한 마리씩 소를 잡아먹고 있었다. 깜짝 놀란 주인은 스스로 소를 돌볼 것을 결심한다. 그러고는 종처럼 행세를 했는데도 소떼들은 그를 따르지 않았다. 주인은 할 수 없이 다시 남이에게 소를 돌보도록 하였는데, 그가 죽자 소들도 모두 죽었다고 한다. 이후 소를 관리하는 사람은 남이봉에 올라가 '남이참봉영감'이라고 외치며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마소 번식이 잘 되었다고 한다.

3 특징

주요 모티프는 소를 관리하는 이야기와 대식가 이야기이다. 주인공 남이는 세경본풀이에 나오는 정수남이처럼 소를 잡아먹는 대식가이다. 그리고 마소 복을 타고 나서 소를 잘 관리하였다. 후에 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로 신적인 존재로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신화이면서 지명유래전설이기도 하다.

4 핵심어

눈오름, 남이봉, 송아지 울음소리, 소, 남이참봉영감

5 원전 서지사항

남이 참봉 영감(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고삭불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와 정훈두(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8)

장사 고삭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장사 김팔충(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외도동향토지》, 2005)

장사 정운디(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조천 힘센 김씨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최동이 장사(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한새미 강당장(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홍리 고대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힘센 장사 ᄌᆞ망이(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033 노승원(노승이드르)

1 개요

한림읍 상명리와 월림리 경계에 있는 노승이드르와 관련된 지명 전설이다.

2 내용

한림읍 월림리 북쪽에 망오름이 있고, 그 앞 넓은 들을 노승이드르 또는 논싱이드르라 하고, 한자로는 老僧苑(노승원)이라 한다.

망오름의 봉우리 부분은 둥그렇게 되어 나무가 자라지 않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삭발한 중 모습처럼 보인다. 망오름 앞에는 작은 오름이 세 개 있는데, 시오름이라 한다. 이 시오름은 잔대를 세 개 올린 형상으로 보인다. 곧 망오름과 시오름의 형세가 중이 내려서서 잔대를 올리고 절을 하는 모습이고, 그 아래에 노승배불(老僧拜佛)하는 형체라 하여 노승원, 노승이드르라 부른 것이다.

3 특징

19세기 후반에 풍수지리설이 등장한 뒤에 만들어진 전설이다. 망오름의 본디 이름은 '느조리오롬>느지리오롬'이고, 이 오름 꼭대기에 봉수를 설치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한자차용표기로 晩早望(만조망)이라 하다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망오름'이라 불렀다. 이 망오름 남서쪽에 자그마한 봉우리가 셋 있는데, 그것을 시오름(세오름)이라 부른다.

시오름 바로 동쪽 들판 지대를 민간에서는 '노승이드르, 노싱이드르, 논승이드르, 논싱이드르'라 부른다. '드르'는 고유어인데, '드르' 앞에 붙은 '노승이, 노싱이'는 한자어라 할 수 없다. 사람에 따라서 '노싱이드르, 논싱이드르, 노승이드르' 등의 이야기로 일컫는다.

4 핵심어

노승원, 노승이드르, 노싱이드르, 논승이드르, 논싱이드르, 월림리, 망오름

5 원전 서지사항

노승원(노승이드르)(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노싱이드르(김영돈 · 현용준 · 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034 당팟당장(Ⅰ)

1 개요

표선면 토산2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힘센 장사 당팟당장 이야기이다.

도둑이 당팟당장의 힘을 알고 개과천선을 하여 농사를 짓고, 마을 사람들이 당팟당장을 쫓아내지 못하게 한 장사이야기이다.

2 내용

당팟당장이 대정에 가서 곡식을 빚지고는 지게 짐으로 지고 올 때였다. 도둑이 나타나서는 지고 가는 곡식을 달라는 것이었다. 당팟당장은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고 허락을 했다. 도둑은 그것을 지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얼마나 무거웠던지 지고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당팟당장은 도둑의 상투를 풀어 머리카락을 지게발에 묶어 맨 채 끄덕끄덕 지게를 지고 갈 길을 재촉했다. 도둑의 심보를 단단히 고쳐줘야겠다는 심사에서였다. 한참 걸음만 재촉하다 보니 도둑은 머리털만 지게발에 남겨둔 채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한 3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당팟당장은 다시 곡식을 빚져다 먹기 위하여 대정지방으로 가서 이집 저집 기웃거리고 있을 때였다. 마침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집이 있어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는 주인을 만나 곡식을 빚져 받기로 약속받고 일을 거들어줬다. 바로 그날 저녁 때였다. 그 집 주인은 당팟당장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말문을 열고는 3년 전에 만났을 때를 이야기했다. 자신이 제일 힘이 센 줄 알았는데 당팟당장을 만나고는 마음을 고쳐먹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팟당장은 그날 밤 그 집에서 후한 대접까지 받고 이튿날에는 곡식 스무 말까지 공짜로 얻어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당팟당장은 이 마을 광산 김씨 일가의 사람이었다. 그 집안은 명문가였기 때문에 사돈도 가려가며 했다. 그런데 당팟당장은 천한 집안의 여자를 데려다가 살림을 차렸다. 종문에서는 회의를 소집하고 당팟당장에게 처와 헤어지든가 아니면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화가 난 당팟당장은 집안사람들의 말에 따라 당장 집을 모두 뜯어내고는 커다란 지게에 집 가지를 모두 진 채 “이래도 나보고 이 마을을 떠나라고 하겠느냐?”고 소리치며 자기에게 이 마을을 떠나라고 꾸짖은 친척네 집마다 돌아다니며 울담을 헐어가기 시작했다. 그때야 친척들도 오히려 당팟당장에게 사정하면서 제발 이 마을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3 특징

당팟당장은 힘이 센 장사이다. 도둑이 자신만 힘이 센 줄 알고 있다가 당팟당장의 힘을 알고 도둑질을 그만둔다. 천한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마을 사람들이 외면해도 그는 꿋꿋하게 자신의 힘을 과시해 자신과 여자를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만든다. 여기에는 대식가이야기는 없다.

4 핵심어

당팟당장, 광산 김씨, 대정읍 대정리, 구제기곶, 산방산, 도둑, 표선면 토산2리, 당팟

5 원전 서지사항

당팟당장(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별장 김기봉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장사 당팟 김당장(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3(제주도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1983)

장사 송하철(성읍마을회, 《성읍마을》, 2015)

힘센 머슴 먹쟁이(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5집, 1988)

C_L_035 대림 선돌

1 개요

한림읍 대림리와 수원리 경계에 있는 선돌과 관련된 지명 전설이다.

2 내용

한림읍 대림리에는 본디부터 높이 서 있는 바위가 있는데, 선돌 또는 입석(立石)이라 부르고, 입석(立石)이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이 마을을 입석리(立石里)라 했다. 이 선돌이 서 있는 서쪽이 형세가 비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 돌 위에 더 많은 돌을 올려놓았다. 수원리에서는 이 돌이 닭의 볕 모양이라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선돌 위에 쌓은 돌을 허물어버렸다. 그러나 대림리에서는 이 돌의 지세가 배 모양이라서, 돌을 놀려놓아 돗대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 돌을 올려 쌓곤 했다.

어느 날 한 지관(地官)이 "대림리는 선돌 있는 쪽으로 성을 쌓으면 부흥하겠다."라고 하니, 대림에서는 성을 쌓았다. 그런데 마을이 점차 기울어가자, 이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속았다고 해서 성을 허물어버렸다. 지세가 배 모양인데 성을 쌓아서 배가 지나가는 것을 막아서 마을이 기울어진다고 생각했다.

3 특징

자연스럽게 서 있던 돌을 중심으로 마을의 흥망이 달려있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고, 사람에 따라서 '대림의 선돌, 대림리 선돌, 선돌' 등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4 핵심어

대림리, 선돌, 대림선돌, 입석리, 수원리, 배, 돗대

5 원전 서지사항

대림 선돌(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대림의 선돌(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C_L_036 두모(頭毛)와 지미(地尾)

1 개요

대정읍 가파리의 본섬인 가파도에 있는 아기업게 바위와 관련된 지명 전설이다.

2 내용

구좌읍 종달리에 지미봉(地尾峰)이 있는데, '지미'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이곳이 제주도 땅의 꼬리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고구마 모양의 타원형 섬인데, 종달리 정반대 방향 바닷가에 두모리(頭毛里)가 있다. '두모'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이곳이 섬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 특징

근대의 한자 표기를 풍수지리적으로 해석하여 만들어낸 지명 전설이다. 그러나 '지미봉'은 고문헌과 고지도에 只尾岳(지미악) 또는 指尾岳(지미악)으로 표기되고, 두모리는 豆毛村(두모촌) 또는 釜浦村(부포촌) 등으로 표기한 것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지명 전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핵심어

두모(頭毛), 지미(地尾), 지미봉(地尾峰), 두모리, 종달리

5 원전 서지사항

두모(頭毛)와 지미(地尾)(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두모(頭毛)와 지미(地尾)(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C_L_037 막산이(Ⅰ)

1 개요

안덕면 창천리에서 전해 오는 이야기로, 대식가이면서 힘센 장사 막산이가 자신의 배를 채우지 못해 도둑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2 내용

창천리 마을 '베염바리 집안'에 종으로 일하는 막산이는 힘이 센 장사였다. 배가 커서 항상 배를 채우지는 못했다. 어느 해에 그는 50명 사람이 해야 할 논 만드는 일을 혼자서 해내고 그들이 먹을 점심을 혼자서 다 먹어치우기도 하였다. 그렇게 일을 잘했으나 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종으로 부릴 집이 없어서, 결국 한라산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며 살았다.

막산이는 도둑의 영웅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옛날 주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만 주인의 꾀에 빠져 관가로 잡혀갔다. 나중에는 도둑질을 안 하고 살았다고 한다.

3 특징

막산이가 50명 사람의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그의 식성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대식가이면서 장사인 영웅적인 인물이지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결국 도둑이 되는 이야기이다.

4 핵심어

막산이, 베염바리 집안, 장사, 옷귀리(남원읍 의귀리), 김씨, 군산, 안덕면 창천리, 막산이구석(한라산 중턱에 있는 굴), 도둑

5 원전 서지사항

막산이(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고삭불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남이 참봉 영감(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와 정훈두(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8)

장사 고삭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장사 김팔충(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외도동향토지》, 2005)

장사 정운디(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조천 힘센 김씨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최동이 장사(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한새미 강당장(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홍리 고대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힘센 장사 ᄌᆞ망이(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038 막산이와 정훈두

1 개요

대정읍 일과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힘센 장사 막산이와 정훈두 이야기이다.

힘이 센 막산이 장사설화와 국마(國馬)를 잡아먹고 사는 막산이를 잡은 정훈두 이야기가 함께 전승되고 있다.

2 내용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힘이 센 막산이라는 안덕면 감산리 강별장네 종이 있었다. 어느날 강별장 소유의 군산 오름 쪽의 논이 비가 많이 와서 냇물이 불어 그 논이 망가져버렸다. 강별장은 막산이에게 논을 수리하기 위해 60명의 일꾼을 빌려 오라고 했다. 그런데 막산이는 일꾼을 다 빌었다고 하고는 60명이 먹을 밥을 혼자서 다 먹어 버렸다.

강별장이 집에서 논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먼지가 부옇게 끼어서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날이 저물어서 막산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일을 다 끝냈다고 했다. 강별장은 막산이가 혼자 그 많은 음식을 먹고 또 혼자 그 일을 다 한 것을 알고는 이제까지 막산이를 굶게 키웠다고 생각하여 종 문서를 내주면서 어디든지 가서 살라고 했다. 막산이는 막산이 구석이라고 하는 굴에서 살았는데 배가 아주 컸기 때문에 나라의 말을 다 잡아먹고 소도 다 잡아 먹어버렸다.

나라에서는 막산이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일반 여론이 정훈두 밖에 막산이를 잡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해서 정훈두에게 부탁을 했다. 정훈두는 술 한 허벅과 돼지 한 마리를 잡아주고, 50~100명이 같이 가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낙을 하고는 막산이가 사는 굴로 찾아갔다.

막산이가 취한 틈을 타서 사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어 막산이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막산이는 탈옥을 하여 밤에 정훈두를 찾아갔는데, 정훈두는 막산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숨어 있다가 막산이 목을 베어서 돌 위에 매달았다. 이렇게 해서 정훈두는 나라에서 훈도(訓導) 벼슬을 나라에서 받게 된 것이다.

3 특징

막산이는 많은 사람이 같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그의 식성을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없어 결국 산으로 들어가 마소를 잡아먹으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에서 막산이의 영웅적인 면모가 보인다. 그러나 결국 정훈두라는 인물로 인해 영웅답게 대접받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

4 핵심어

안덕면 사계리, 강별장, 막산이, 정훈두, 창곤내, 안덕면 창천리, 안덕면 감산리, 밥, 장사, 군산오름, 막산이구석

5 원전 서지사항

막산이와 정훈두(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4집, 1998)

6 관련 자료

고삭불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남이 참봉 영감(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장사 고삭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장사 김팔충(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외도동향토지》, 2005)

장사 정운디(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조천 힘센 김씨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최동이 장사(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한새미 강당장(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홍리 고대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힘센 장사 ᄌᆞ망이(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039 막숙이라는 지명 유래

1 개요

서귀포시 법환동 포구인 막숙과 관련된 지명 전설이다.

2 내용

서귀포시 대륜동(법환동) 바닷가에 막숙(幕宿)이라는 곳이 있다. 예전에 군사들이 야영지로 이용했던 곳이라는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고려시대에 삼별초가 애월 고성리에 토성을 쌓고 여몽연합군에 대항하다가, 패배하여 범섬으로 도망가서, 여몽연합군이 이곳에서 숙영하게 되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여러 날 법환리 해안가에 군막(軍幕)을 치고 주둔하게 되었다.

또한 왜구가 자주 침공하여 이곳에 막을 치고 주둔했다는데서 막숙이라고 했다고 한다. 막숙 위에는 외는동산이 있는데,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곳에서 큰소리를 질렀다는 데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3 특징

여몽연합군 또는 왜구가 막을 치고 숙영했다는 데서 붙여졌다는 지명 전설이다. 사람에 따라서 '막숙개, 막숙포, 막숙' 등의 이야기로 일컫는다.

4 핵심어

막숙, 법환리, 법환동, 외는동산(웨는동산), 고성리, 여몽연합군, 범섬

5 원전 서지사항

막숙이라는 지명 유래(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040 만덕할망

1 개요

조선 정조 때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당시 굶주린 도민을 구휼한 김만덕(金萬德)의 선행 이야기이다.

2 내용

만덕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고생하다가 장성하여서는 교방에 몸을 의탁하고 살았다. 본래 자비심이 두터웠고 근검절약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래서 갑인년(정종 18년) 흉년에는 아사지경에 이른 수많은 제주 빈민을 구제하였다. 이 일을 당시 제주 목사 이우현이 임금님께 알렸다. 이에 임금님이 만덕의 소원을 물으니, 만덕은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다고 하였다.

임금님은 여러 가지 편의와 안내자를 정하여 주어 금강산을 구경하게 하였다. 만덕이 유람에서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은 별장을 지어주었다. 영의정 채제공이 지은 만덕 할머니의 전(傳)이 지금까지 전해온다.

3 특징

김만덕(1739~1812)은 1793년에 이어 1794년까지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어 제주도의 백성들이 전염병과 기근으로 굶어죽게 되자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육지에서 쌀을 사다가 백성들을 구휼하였다. 이러한 김만덕의 선행을 영의정 채제공이 보고하자 정조는 김만덕의 대궐 구경과 금강산 유람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 전설은 어린 시절 고아가 되어 기생에 입적하였던 김만덕이 재산을 모아 갑인년에 제주 기민을 구휼하였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전설이다. 후반부에 주민들이 별장을 지어주었다는 얘기는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이다.

4 핵심어

만덕할망, 구휼, 흉년, 채제공, 김만덕, 금강산

5 원전 서지사항

만덕할망(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53)

6 관련 자료

C_L_041 말머리

1 개요

제주시 용담동에서 대식가와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자, 용담동의 말머리란 곳의 지명전설이기도 하다.

정서방은 대식가인데, 그의 대식성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이야기이다.

2 내용

배 큰 정서방은 배가 몹시 커서 한 섬 쌀밥과 돼지 한 마리를 먹어야 겨우 배가 차는 사람이다. 정서방의 부모가 정서방을 먹여 살리지 못해 관가에 해결해 주도록 요청한다. 관가에서 보니 정서방이 먹성만큼 힘도 장사라 나라를 해칠 우려가 있기에 죽이기로 결정을 하였다.

정서방은 마지막 소원으로 실컷 먹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관가에서는 쌀 한 섬의 밥을 하고 소를 한 마리 잡아 주었다. 정서방은 한 번에 다 먹고 자신을 죽이려면 큰 바윗돌을 팔과 다리에 묶어 배에 실어 바다에 던지라 한다. 3일 동안 가라앉지 않고 올라온 정서방을 부모가 살라고 하지 않자 그때야 물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그 후 바닷가에 커다란 백마가 바닷물 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왔다. 이 말은 정서방이 탈 말이었는데 주인을 불러 보았으나 대답이 없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말이 머리만 내밀었다가 들어가 버렸다고 해서 이곳을 '말머리'라 부른다.

3 특징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기장수설화'와 같은 유형의 이야기이다. 제주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기장수설화'류의 주인공들은 날개가 달렸거나, 혹은 날개가 없어지더라도 힘이 매우 세거나 특별한 능력을 지니기도 한다.

배 큰 정서방 이야기는 힘센 장사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가 죽은 곳에서 말이 솟아올라와 그가 하늘이 내린 영웅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주인공의 죽음으로 바다에서 솟

아 올라온 용마도 같이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정서방이 바다에 빠져 3일 만에 다시 올라와 부모에게 '내가 사느냐? 죽는냐?'를 묻는 장면에서 부모가 살아도 그 배를 채울 수가 없으니 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제주의 가난과 이 때문에 죽어야 하는 비애가 묻어난다.

4 핵심어

용담동, 다끄내, 말머리, 정서방, 배, 백마, 장수

5 원전 서지사항

말머리(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6 관련 자료

용머리바위〔龍頭岩〕(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장수 잃고 빠져 죽은 말(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증편한국구비문학대계 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①》,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C_L_042 명월천 팽나무

1 개요

한림읍 명월리 마을 안에 있는 팽나무가 명월천의 액운을 막아주어서 명월리가 건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2 내용

명월천은 명월리 중앙을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살수(殺手:마을에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는 의미)의 액운을 지녔다고 믿었다.

명월리 설촌 당시부터 팽나무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개간하면서도 팽나무를 자르지 않고 보호수로 남겨두었다. 그래서 팽나무가 명월천의 액운을 막아주어서 마을의 안녕을 유지시켜준다고 믿고 있다.

3 특징

명월천 양쪽에는 아름드리 팽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팽나무숲 가운데에 월대가 있다.

4 핵심어

명월리, 명월천, 팽나무, 월대, 설촌

5 원전 서지사항

명월천 팽나무(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043 모동장에 돌담 두른 안익생

1 개요

일제강점기 때 현 대정읍 신도리 출신 안익생(安益生)에 관한 전설이다.

2 내용

안익생은 여산인(礪山人)으로 조선시대 국우에게 낙인찍기 위하여 해마다 모동장(毛洞場)에 목책을 두르느라고 주민들의 노고가 매우 심했으므로 그가 서둘러 목장주변을 돌로 둘러쌓아 노역을 제하였다. “목장 소가 상함이 없고, 마을 사람들도 편했다.”는 찬문을 내린 바 있다.

3 특징

모동장은 1705년 대정읍 신도리·무릉리·영락리 일대에 설치되었던 우목장(牛牧場)이다.

이 전설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공마(貢馬) 상납을 위해 제주도 도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충을 알 수 있다.

4 핵심어

모동장, 안익생, 공마, 우목장

5 원전 서지사항

모동장에 돌담 두른 안익생(오성찬, 《제주의 마을 신도리》, 도서출판 반석, 2002)

6 관련 자료

C_L_044 모동장을 민유로 돌린 김두규

1 개요

일제강점기 때 대정읍 신도리 출신 김두규(金斗奎)에 관한 전설이다.

2 내용

김두규는 김해인(金海人)인으로 경술국치 후에 일본인들이 모동장(毛洞場)으로 역둔토(驛屯土)를 삼으려 하자 끝까지 법을 내세워 민유가 되게 하였다. 더욱이 사람들에게 소나무를 심도록 권했으므로 이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목재와 땔감으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또한 그는 경성(京城)의 공진회(共進會)에서 신서란 뿌리를 옮겨다 마을에 전파하였다.

3 특징

모동장은 1705년 대정읍 신도리·무릉리·영락리 일대에 설치되었던 우목장(牛牧場)이다. 이 전설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때 제주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암울한 시대적 환경에 처한 가운데 한 인물의 선견지명으로 활기를 찾게 되는 마을의 모습을 알 수 있다.

4 핵심어

김두규, 모동장, 역둔토, 신서란

5 원전 서지사항

모동장을 민유로 돌린 김두규(오성찬, 《제주의 마을 신도리》, 도서출판 반석, 2002)

6 관련 자료

C_L_045 무우남밭 이좌수 (Ⅰ)

1 개요

서귀포시 중문동에 전해 내려오는 눈빛이 날카로운 이좌수 이야기이다.

중문동에는 사는 무남밭 이좌수가 저승사자의 출현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여 백성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부당한 목사의 지시를 바로 잡는다는 이인담이다.

2 내용

서귀포시 중문동에 힘이 센 장사이고 학식이 있는 이좌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제주도에서 영웅이었다. 그는 눈의 정기가 매우 무서운 사람이었다. 하루는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여우였다는 것을 알고는 붙잡았다.

이좌수는 목사가 대정에 방문하여 순력하는 일을 잘 마치기 위해 목사가 와도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목사는 자신을 무시하는 줄 알고 이좌수에게 고개를 들고 눈을 뜨라고 한다. 하지만 목사는 이좌수가 뜨는 눈이 너무 무서워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었다. 목사는 순력을 하는 동안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하였다. 하지만 이좌수를 보고는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순력하고 돌아갔다.

이좌수는 자신이 죽을 날을 알고 있었다. 꿈에 친구 현형방이 찾아와 자신의 제사상이 부정한 것을 알리고 이좌수의 죽는 날을 알려준다. 이좌수는 그날 어머니께 절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

3 특징

주요 모티프는 신이한 능력을 가진 이좌수이야기이다. 이좌수는 힘이 센 장수이면서 여우를 잡고 백성의 입장에서 관원들의 잘못을 고치도록 하는 영웅이다. 영웅담이면서 이인담이다.

4 핵심어

서귀포시 중문동, 대정읍 대정리, 무우남밭, 이좌수, 눈의 정기, 목사, 여우, 저승

5 원전 서지사항

무우남밭 이좌수(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범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오별장(吳別將)(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C_L_046 문국성과 소목사

1 개요

조선 현종 때 곡성현감(谷城縣監)을 지낸 애월읍 어음리(於音里) 출신 문영후(文榮後)와 숙종 때 제주 목사 소두산(蘇斗山)에 관한 일화이다.

2 내용

애월읍 납읍리에 문국성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용모가 장군의 형세로 풍채가 으리으리하고 힘이 장사였다. 문국성은 서울에 올라가 장안을 주름잡아 거리낄 데가 없었다. 임금님이 문국성의 행세를 보고 국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당시 국지리(國地理)로 있는 소목사를 제주 목사로 보내어 문국성의 선묘를 탐색하고 조치를 강구하고자 했다.

소목사는 순력을 하면서 일부러 납읍리에 들려 문국성의 부친을 불러 선묘를 보겠다고 했다. 납읍오름에 있는 선묘를 둘러 본 소목사는 묘가 호형(虎形)에 썼는데, 호랑이 눈알에 묻었으면 영웅 열사가 날것인데 호랑이 눈썹 가에 묻어 아쉽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문국성의 아버지는 소목사의 계략인 줄 모르고 호랑이 눈알 위치에 있는 묏자리를 정해진 위치에서 조금 아래에 묻었다. 이로 인해서 문국성은 영웅이 되지 못하고 그 집안도 망해 버렸다 한다.

3 특징

문영후(1629~1684)는 1666년 식년시(式年試) 문과에 급제한 뒤 전라북도 남원의 오수찰방(獒樹察訪)과 곡성현감(谷城縣監)을 역임하였다. 복서(卜筮)를 잘하여 장래를 예측, 적중시키는 일이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 그때문에 풍수지리에 밝은 고홍진(高弘進), 의술로 유명한 진국태(秦國泰), 풍채가 뛰어난 양유성(梁有成)과 더불어 '탐라사절(耽羅四絶)'이라 불렸다.

소두산(蘇斗山. 1627~1693)은 1675년 6월 제주 목사에 부임하여 다음해 2월에 떠났다.

전적 고홍진(高弘進)과 함께 교류하면서 도내의 풍수지리에 대한 논의 등으로 많은 일화를 남긴 인물이다.

이 전설은 당대를 풍미했던 재능 있는 제주 사람이 다른 지방 이방인에 의해 그 재능이 좌절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4 핵심어

문국성, 문곡성, 문영후, 소목사, 소두산, 애월읍 납읍리

5 원전 서지사항

문국성과 소목사(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6 관련 자료

C_L_047 방선문(訪仙門)

1 개요

제주시 오라동 한내 가에 있는 방선문과 관련된 전설이다.

2 내용

방선문은 제주시 오라동의 절경으로, 영주십경의 하나로 알려졌다. 어느 해 중복 날에 선비들이 방선문을 찾아서, 반석 위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중복 날에 하늘에서 선녀들이 이곳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간다는 얘기를 들은 한 선비가 야심을 품었다.

다른 선비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선비는 남아서 숨어 있었다. 아침이 되자,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했다. 바위틈에 숨어서 이를 엿보고 있었는데, 한 선녀가 이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선녀들은 황급히 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옥황상제가 이상히 여겨 물으니, 목욕하는 장면을 인간이 봤다고 했다.

옥황상제는 오방신장(五方神將)을 보내 그 선비를 잡아오도록 했다. 선녀들이 목욕하는 장면이 아름다워서 숨어 엿봤다는 선비의 말에, 옥황상제는 "너는 백사슴이 되어서 백록담(白鹿潭)이나 지켜라."라고 했다. 그 뒤 선비는 백사슴이 되어 백록담을 지키게 되었다. 한라산에 비가 오려면 흰 사슴이 나와서 울어대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3 특징

방선문(訪仙門)의 경치가 아름다워서 인간들은 물론 하늘나라의 선녀들도 찾는 곳이라는 배경이 있는 전설이다.

4 핵심어

방선문, 선비, 반석, 바둑, 선녀, 옥황상제, 오방신장, 백사슴, 백록담, 흰 사슴, 오라동

5 원전 서지사항

방선문(訪仙門)(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048 방성칠의 싸움

1 개요

1898년 제주에서 발생한 민란인 '방성칠 난'의 전말을 설명한 전설이다.

2 내용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인 임술년 가을, 제주 목사 임우대는 조사관 강백흥을 지금의 안덕면 동광으로 파견하였다. 강백흥은 그 마을에 며칠을 유숙하며 세금을 정하였는데, 그 세액이 엄청났다.

어느 날 밤 동네 장정들이 장대를 들고 강백흥의 숙소를 찾아가 세액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즉석에서 거절하였다. 분노한 장정들은 그를 끌어내어 매질을 시작했고, 강백흥은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

이튿날, 장정들은 아예 제주관아에 쳐들어가 탐관오리들을 축출하기로 결의하였다. 방성칠이 앞장을 선 난민은 영문이방 김승백을 죽이고, 임우대를 배를 태워 강제 송환시켜 버렸다.

이후 신임 목사가 부임할 때까지 방성칠이 임시로 행정을 맡아보았다. 얼마 되지 않아 신임 목사 정기원이 부임하여 방성칠을 잡아들여 관덕정 앞에서 목을 쳐서 죽여 버렸다. 그날 밤 목사는 몰래 사령을 보내어 방성칠의 아들에게 부친의 시체를 인수하여 갈 것을 통고하였다. 아들은 밤중에 몰래 아버지의 시체를 장사지냈다.

3 특징

방성칠(房星七. 1849~1898)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에 살던 남학(南學) 간부였다. 1894년 그의 형과 아우, 아들 둘을 데리고 제주도에 들어와 안덕면 서광리에 거주하며 화전을 일구고 남학을 포교하며 살았다.

그런데, 당시 제주 지역은 서울에서 파견된 세리(稅吏)의 지나친 조세 수탈로 농민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다. 세리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1898년 2월 7일 방성칠을

장두(狀頭)로 하여 서광리 일대 화전민 수백 명이 제주성 내의 관아에 몰려가 화전세·목장세 및 호포의 과다징수와 환곡의 폐단을 바로 잡아 달라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은 자신들의 받아들여지지 않자 3월 1일 주성 안으로 쳐들어가 인부(印符)를 빼앗고, 목사 이병휘와 대정군수 채구석을 구타하여 성 밖으로 내쫓았다. 하지만 남학당 중심의 민란 지도부와 일반 농민간의 결속력 약화 등으로 인해 난은 실패로 끝나고, 방성칠은 애월읍 귀일리에서 붙잡혀 죽었다.

이 전설은 1898년에 일어난 제주 민란의 전말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당시 민란에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주목사 이병휘를 임우대로 잘못 전달하는 등 역사적 사실이 구전(口傳)되면서 전설로 변화됨을 보여준다.

4 핵심어

방성칠, 강백흥, 난민, 제주 민란, 정기원, 제주 관아, 김승백, 관덕정, 사령, 탐관오리, 임우대

5 원전 서지사항

방성칠의 싸움(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53)

6 관련 자료

C_L_049 백록담(白鹿潭)

1 개요

한라산 백록담과 관련된 지명 전설이다.

2 내용

한라산은 신선이 놀던 산이다. 신선들이 흰 사슴을 타고 절경을 구경하다가 백록담에서 맑은 물을 먹인 데서 백록담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

옛날 교래리 감발 내 옆에 살던 포수가 백록(白鹿)을 쏜 일이 있었다. 그는 140살까지 살았는데, 평생 포수로만 살아왔다. 어느 날 산중을 돌며 짐승을 찾고 있었는데 사슴 한 마리가 내달았다. 포수가 얼른 총을 놓고 달려가서 칼을 빼 사슴의 가슴을 찔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백록(白鹿)이었다. 칼을 얼른 빼고 물러나서 큰 죄를 지었다고 빌어서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3 특징

신선이 타고 다니는 백록을 쏜 사냥꾼이 백록에게 빌고 목숨을 구했다는 전설이다.

4 핵심어

백록, 백록담, 흰 사슴, 사슴, 교래리, 감발내

5 원전 서지사항

백록담(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백록담(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C_L_050 백중

1 개요

백중은 목축신을 가리키고, '백중제'는 목축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뜻한다.

백중이라는 목동은 가축과 곡식의 번성을 위하여 옥황상제를 사칭한 죄로 죽게 되었고, 농민들은 그의 용기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2 내용

이야기 주인공인 백중이 어느 날 옥황상제가 '거북이'를 불러서 비를 내리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옥황상제가 요구한 '석 자 다섯 치의 비'가 내리게 되면 홍수가 나서 가축과 곡식이 물에 잠길 것을 염려하였다.

백중은 마을을 구하기 위하여 옥황상제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거북이를 다시 불러내어 '다섯 치의 비와 바람이 불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옥황상제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백중에게 벌을 주려고 했는데, 백중이 먼저 눈치 채고 바다에 투신하고 말았다. 이후 농민들은 백중의 지혜로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그의 공을 치하하고, 그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3 특징

이 이야기는 백중제의 유래를 알려준다. 농경시대에는 매년 음력 7월 14일 밤에 목장에 제관들이 모여서 '백중제'를 지냈는데, 지금은 일부 마을에서 목축 의례로 전승하고 있는 정도이다.

4 핵심어

백중, 옥황상제, 거북, 마소, 제사, 차사

5 원전 서지사항

백중(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64)

6 관련 자료

백중제(진성기, 《남국의 전설》, 교학사, 1981)

C_L_051 뱀굴

1 개요

조선 중종 때 제주 판관 서련(徐憐)이 구좌읍 김녕리 뱀굴에 사는 요사스러운 뱀을 물리쳤다는 전설이다.

2 내용

구좌면 김녕리에 '뱀굴'이라는 커다란 동굴이 있었다. 길이가 약 200여 간, 높이 약 5간, 넓이가 대략 6간이나 된다는 굴이다. 옛날 이 굴에 큰 뱀이 살고 있었는데 크기가 굴의 반이나 되며 큰 귀를 가지고 있었다 한다. 이 뱀은 갖은 요망스런 짓으로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15세 되는 예쁜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일 년 내내 풍우의 재앙이 그치지 않았다. 조선 중종 10년(1515)에 서린이 제주 판관으로 부임하여 이 내력을 듣고는 군교 수십 명을 데리고 가서 제를 지낼 때 굴에서 나온 뱀을 죽였다. 그런데 서련은 관아에 돌아온 뒤로 의식불명으로 신음하다가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서련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3 특징

서련(1494~1515)은 1511년 무과에 장원급제하고, 1513년 2월에 제주 판관으로 도임하여 1515년 4월 10일에 죽었다. 제주에서의 행적은 잘 알려지지 않는다. 다만, 김녕 사굴과 관련한 이 전설의 내용으로 읍지(邑誌) 등에 실려 전한다.

이 전설은 서련이 제주 판관으로 부임한 후 김녕리 민간에 행해지던 폐습을 없앤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련이 객지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죽자 이러한 전설이 더욱 힘을 얻어 제주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핵심어

서련, 서린, 뱀굴, 사굴

5 원전 서지사항

뱀굴(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53)

6 관련 자료

C_L_052 뱃 속에 오래 살당 나온 아기 장수

1 개요

한경면 청수리에서 전해오는 아기장수 이야기이다.

날개 달린 아기가 임신기한을 넘겨 자신이 정한 기한을 채워 태어나게 되면 천하의 왕이 될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조금 일찍 나와 천하의 왕이 되지 못했다는 전설이다.

2 내용

옛날에 뱃속에서 아기가 기한이 넘어도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기한을 다 채우고 나왔으면 천하의 왕이 될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아기를 빨리 꺼내 버려서 왕이 되지 못했다.

아기는 날개를 달고 나왔는데 날개를 숨기고 자란 후에 천하의 센 사람이 되려 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벗겨 날개를 잘라버려 영웅이 되지 못했다.

3 특징

이는 날개 달린 아기장수 설화이다. 이와 같이 날개 달린 인물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된다. 날개는 영웅을 뜻하고 영웅은 반역을 꾀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날개 달린 아이는 날개가 잘리게 되거나 죽게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이다. 그런데 제주에는 날개 달린 아기장수가 죽지 않고 영웅으로 살았다는 쪽이 더 많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자신이 임신 기한을 정하고 그 정한 기한을 채우지 못해 왕이 되지 못한 이야기로 되어 있고, 날개를 몰래 숨겨 살다가 나중에 잘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임신기한과의 관계는 특이한 모티프이다.

4 핵심어

날개, 아기장수. 뱃속, 왕, 영웅

5 원전 서지사항

뱃속에 오래 살당 나온 아기 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0·21집, 2005)

6 관련 자료

고씨댁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군산의 명당(날개돋힌 아기장수 설화)(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감산향토지》, 2002)

날개 돋은 아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은 장사 구운문(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잃은 두 아기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5집, 1999)

날개 돋친 아이(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5·26집, 2013)

베락구릉(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장수 양태수(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정승과 정시(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053 범하르방

1 개요

남원읍 남원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눈빛이 날카로운 범하르방이 도적을 잡아 관가에 바친 이야기다.

2 내용

힘이 장사이고 눈의 정기가 날카로운 범하르방(범과 같은 영감)이란 사람이 육지부에서도 잡지 못한 도적이 제주도에 들어오자 그 도적을 잡아 관가에 바쳤다.

3 특징

주인공인 범하르방의 눈빛이 매우 무서운 이야기로 이인담이다.

4 핵심어

범하르방, 구좌면(구좌읍), 좌수, 장사, 눈빛, 도적, 구제기곶, 각록

5 원전 서지사항

범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무우남밭 이좌수(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오별장(吳別將)(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C_L_054 베락구릉

1 개요

제주시 도두동에서 날개 달린 아기와 관련한 베락구릉(못) 이야기로, 날개 달린 아기장수설화이다.

부모가 아기의 날개를 잘라버리자 벼락이 쳐 아이뿐만 아니라 집안이 망해버린 내용이다.

2 내용

부모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너무 일찍 다녀왔다. 이상히 여긴 부모는 비 오는 날 심부름을 다시 시켰으나 돌아온 아이의 신발이 젖어있지 않았다. 아들에게 술을 먹이고 아들의 겨드랑이를 들추어 보자 날개가 달려 있었다. 부모는 집안을 위하여 날개를 끊었다. 그 순간 집은 온 데 간 데 없고 그 자리에 못이 하나 패어졌다.

3 특징

일반적으로 날개 달린 아기장수 설화는 날개를 자르면 아기장수만 죽는데, 이 이야기는 아기장수와 부모뿐만 아니라 집안 망하고 그 자리에 큰 못이 생긴 이야기로 지명전설이기도 하다. 하늘이 내린 영웅을 알아보지 못한 부모의 잘못을 벼락을 쳐 벌을 주는 내용이다.

4 핵심어

제주시 도두동, 다호부락, 번개, 베락구릉, 날개, 아기장수, 못, 베락

5 원전 서지사항

베락구릉(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6 관련 자료

고씨댁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군산의 명당(날개돋힌 아기장수 설화)(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감산향토지》, 2002)

날개 돋은 아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은 장사 구운문(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잃은 두 아기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5집, 1999)

날개 돋친 아이(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5·26집, 2013)

뱃 속에 오래 살당 나온 아기 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0·21집, 2005)

베락구릉(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장수 양태수(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정승과 정시(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055 변당장과 그 아들

1 개요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전해오는 변당장 이야기이다.

글을 모르는 변당장이 어렵게 돈을 벌어 땅을 샀지만 사기를 당한 이야기와 그의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시켜 군수가 되어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인물전설이다.

2 내용

중문에 변당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가난하여 글도 모르고 근근히 생활을 꾸려 가는 형편이었다. 열심히 일을 해 땅을 사게 되었는데 변당장이나 땅을 파는 사람이나 둘 다 글을 몰라 땅을 파는 사람이 문서를 만들기로 하고 변당장은 땅도 안 보고 계약을 했다.

다음날 문서를 받고 땅을 보려고 하니 땅 주인이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보라고 하였다. 다음 해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 땅주인을 찾아갔는데 그때야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글을 못 깨우친 것을 한탄하였다.

변당장은 아들이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글을 가르쳐 군수가 되게 하였다. 군수가 된 아들은 가뭄이 들어 논농사가 망치게 되니 제주에서 사용하는 벤줄레라는 따비로 농사를 짓게 해 가뭄에도 싹이 나게 하였다.

3 특징

변당장과 그 아들 변군수 이야기는 인물 전설이다. 변당장은 자신이 글을 몰라 사기를 당하자 그의 아들은 글을 가르쳐 군수가 되게 하였다. 군수가 된 아들은 가뭄에 농사를 짓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줘 크게 칭송을 받게 된 이야기이다.

변당장이 사기를 당하는 내용은 매우 해학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변군수의 이야기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4 핵심어

서귀포시 중문동, 변당장, 밭, 문서, 사기, 글, 아들, 만경군수, 벤줄레라는 따비

5 원전 서지사항

변당장과 그 아들(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056 변만경과 벤줄래

1 개요

조선 정조 때 문과에 급제하고 이후 만경 현령(萬頃縣令) 등을 지낸 서귀포시 중문동 출신의 변경붕(邊景鵬)에 관한 전설이다.

2 내용

같은 마을 출신인 김명헌(金命獻) 참판의 수제자였던 벤만경은 문과에 급제하고 만경군수가 되었다. 벤만경이 군수로 부임하여 얼마 안 되어 논에 모종을 내게 되었는데, 한기가 심하여 모종을 낼 수가 없었다. 비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제주 놈이 원(員)이 되었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 백성들을 다 굶어죽게 한다고 불평했다.

이에 벤만경은 제주의 밭농사식으로 모종을 내도록 했다. 대장장이들을 불러모아 벤줄레의 그림을 그려 똑같이 만들어 이것으로 땅을 파고, 흙덩이를 곰배(공방메)로 부수어 씨를 뿌리는 방법을 가르쳤다. 씨를 뿌려 놓자 마른 땅에서도 볍씨의 싹이 트고, 모를 심을 때가 가까워지자 벤만경이 손수 축문을 지어 기우제를 드리니 큰 비가 쏟아졌다.

모심기가 끝나고, 그 해는 전에 없던 대풍년이 들었다. 만경 백성들은 벤군수의 덕을 칭송하여 벤군수가 만들어낸 농기구를 벤[邊]자를 붙여 '벤줄래'라 이름하고, 또 공방메를 '벤조시'라 이름 붙였다.

만경 백성들은 벤만경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공적비를 논밭 가운데 세우고, 병충해가 생길 때 이 비석 앞에서 빌기만 하면 병충해가 삽시에 없어진다고 한다.

3 특징

변경붕(1756~1823)은 현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태어난 후에 대정읍 신도리로 이주하였다. 어릴 때부터 학문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난 변경붕은 11살부터 김명헌(金命獻)에게 수학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문과에 낙방하였으나, 1794년(정조 18년) 제주위유안핵순무시재어사 심

낙수(沁樂洙)가 도임하여 치룬 과거에 합격하였고, 이듬해인 1795년(정조 19년) 식년 전시(殿試)에 제주직부(濟州直赴)로서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변경붕은 봉상시, 성균관 전적, 대정 현감, 만경 현령, 연서 찰방, 사헌부 장령 등의 내외 관직을 거쳐 이조 참의에까지 이른다.

변경붕은 만경 현령 재임 시 한발대책으로 대용작물의 재배를 권장하여 기민(飢民)을 구제한 공으로 공덕비가 세워졌다.

이 전설은 제주 사람이 문과에 급제하여 다른 지방에서 벼슬살이를 하면서 선정을 베푼 사례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제주 섬 백성으로 천시받던 제주 사람의 위상을 선양하고 있다.

4 핵심어

벤만경, 벤줄래, 벤조시, 만경 현령, 변경붕

5 원전 서지사항

변만경과 벤줄래(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6 관련 자료

배질러 벤 당장(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C_L_057 변인태

1 개요

서귀진(西歸鎭)의 진졸(鎭卒)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꾀가 많았던 변인태(邊仁泰)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를 담은 전설이다.

2 내용

변인태는 서귀진의 진졸이었다. 비록 낮은 신분이기는 했지만 말재간이 좋아서 항상 위기를 넘기거나 윗사람들의 잘못을 꼬집곤 하였다. 또한 거짓말을 잘하였다. 하루는 밭에서 김을 매던 일꾼들이 변인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야, 변인태, 자네 거짓말을 잘 한다는데 거짓말을 좀 해봐라."고 하니, "지금 서귀진에 왜놈의 배가 쳐들어 와서 목안에 가서 알려야 하기 때문에 바쁘다."고 하자 일꾼들이 혼비백산하여 산 속으로 내달아 버렸다.

하루는 조방장이 진졸보다 더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불만을 품어 같은 진졸에게 '엇떠바리'와 '게두어리'라는 이름을 붙여 새로 온 조방장의 첫 아침 식사상을 진졸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꾀를 내기도 하였다. 어느날 조방장이 변인태를 골탕 먹이려고 함부로 베면 안 되는 소나무와 가시나무로 새로 만든 큰 나무 쟁기를 성안에 있는 자기 집에 갖다 놓으라는 심부름에 불만을 품고 "자기의 집이 성 안에서 가장 크다."는 조방장의 말을 핑계로 목사가 근무하는 동헌으로 짊어지고 가서 조방장을 골탕 먹인 일도 있었다.

3 특징

변인태의 생몰년은 알 수 없다. 이야기에 서귀진과 제주목사, 진졸, 금송(禁松) 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 인물로 추정된다.

이 전설의 이면에는 조선시대 군사행정체제 중에 중간 관리자라 할 수 있는 조방장의 근무 실태를 고발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또한 주인공 변인태의 익살을 통해 비록 미천하게 태어난 섬의 백성이지만 그중에는 영민한 자질을 갖고 있는 백성들도 있음을 보여준다.

4 핵심어

변인태, 진졸, 거짓말, 서귀진

5 원전 서지사항

변인태(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058 별장 김기봉 장사

1 개요

애월읍 하가리에 별장 김기봉이라는 장사가 있었는데 초가 한 채를 지을 정도의 나무를 짊어지고 다닐 정도로 장사였다는 이야기이다.

2 내용

별장 김기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초가 한 채 지을 나무를 짊어져서 다닐 정도로 힘이 장사였다. 힘이 장사여서 그냥 별장이라 했다고 한다.

3 특징

보통 장사이야기에는 대식가의 특징이 나타나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해 굶주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힘이 센 일화만 소개되고 있다.

4 핵심어

김기봉, 장사, 힘, 별장, 애월읍 하가리

5 원전 서지사항

별장 김기봉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힘센 머슴 먹쟁이(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5집, 1988)

당팟당장(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장사 당팟 김당장(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편》, 1983)

장사 송하철(성읍마을회, 《성읍마을》, 2015)

C_L_059 부부석 이야기

1 개요

성산읍 수산2리에 있는 부부석은 두 개의 커다란 돌기둥이 마치 부부와 같이 모여 있는 모습이다.

두 개의 돌기둥이 큰 비에 각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마을 안까지 떠내려 와서 정착되자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부부석이라 불렀다.

2 내용

성산읍 수산2리에는 부부석이라고 부르는 2개의 돌기둥이 있었는데, 큰 비에 이 돌기둥이 갈라지고 헤어지게 되자 이 돌기둥이 울었다고 전해온다.

돌기둥이 물줄기에 떠 밀려서 이동할 때 나는 소리를 돌기둥이 우는 소리로 들었고, 이들이 울면서 합해졌다고 믿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물길에 서 있던 부부석이 큰 물줄기에 갈라지고 각자 물길을 따라 움직였다. 부부 중에 누가 먼저 이동했는지는 모르나, 그 부부석은 서로 헤어져서 각자 하천을 따라 마을로 흘러들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후 수산2리와 수산1리 주민들은 이 부부석을 자신들의 마을로 가져가려고 노력하였는데, 결국에는 원래 있었던 수산2리로 옮겨갔다고 전해온다.

3 특징

4 핵심어

부부석, 수산1리, 수산2리, 암매, 물질, 물골, 웃동네, 알동네

5 원전 서지사항

부부석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2집, 1994)

6 관련 자료

C_L_060 부훈장과 도채비

1 개요

부는 성씨이고, 훈장은 교직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리키며, 제줏말 도채비(도체비)는 표준어 도깨비에 해당된다.

구좌읍 한동리 부훈장(夫訓長)은 훈장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좌읍 덕천리로 매일 드나들었는데, 도깨비의 도움을 받아서 밤길을 무사히 다녔으며, 부훈장과 도채비는 마치 벗과 같이 지냈다는 이야기이다.

2 내용

부훈장은 구좌읍 한동리 사람으로 어린 시절부터 한학을 공부하여 지혜가 뛰어났다. 구좌읍 덕천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매일 한동리와 덕천리를 드나들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부훈장은 도깨비를 잘 다스려서 밤길을 다닐 때는 등불을 밝혀 줄 정도였다. 또한 도깨비는 물고기 떼를 몰아주고 조업을 도와주는 등 사람들에게 이로운 대상으로 전해온다.

3 특징

4 핵심어

부훈장, 도채비, 한동리, 덕천리, 나막신, 산도채비, 어부, 백지

5 원전 서지사항

부훈장과 도채비(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85)

6 관련 자료

도깨비(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도깨비(Ⅱ)(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도깨비가 주고 간 선물(오성찬, 《제주의 마을 추자도》, 도서출판 반석, 2002)

도깨비 이야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夫訓長과 도채비(부영성, 《구좌읍지》, 태화인쇄사, 1986)

산도채비(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생불도채비(오성찬, 《제주의 마을 곽지리》, 도서출판 반석, 2002)

C_L_061 북두칠성

1 개요

효자 아들 일곱 명이 죽어서 북두칠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2 내용

남편과 사별한 아내는 아들 일곱 형제를 키우며 살게 되었다. 그런데 아궁이에 불을 아무리 많이 때어도 어머니는 항상 발이 차갑다고 했다. 큰아들은 이를 이상히 여기고 어머니를 미행하였는데 어머니는 맨발로 개울을 건너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발이 차갑지 않도록 동생들과 힘을 합쳐 돌을 가져다가 다리를 만들었다.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돌다리를 건너온 어머니는 돌다리를 만들어 준 사람이 죽으면 북두칠성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다.

3 특징

이 이야기는 효불효(孝不孝) 설화에 속한다. 즉 어머니가 밤길을 다니는데 발이 젖지 않도록 돌다리를 놓아 준 것은 효행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연애를 인정하면서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불효라 할 수 있다.

4 핵심어

북두칠성, 큰아들, 초가, 초신, 하르방, 일곱 성제

5 원전 서지사항

북두칠성(김영돈・현용준・현길언,《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효자 다리(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백록어문》제6집, 1989)

산터를 다툰 부자(진성기,《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64)

C_L_062 사돈이 죽으면 팥죽 쒀 간다

1 개요

사돈이 죽으면 초상집에 팥죽을 쒀 가서 상주들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이다.

저승사자 역할을 맡은 초란이의 돌출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초상이 나면 초란이가 제일 싫어하는 팥죽을 쑤어 먹었다.

2 내용

인종 때 죽을 기한을 넘긴 김부기를 잡아가기 위하여 저승사자가 필요했다. 유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하인인 초란이가 저승사자가 되도록 허락한다. 일시적으로 저승사자 역할을 담당한 초란이는 일주일만에 사람으로 되돌아왔다. 그 후 초란이는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팥죽만은 두려워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입관하기 전에 팥죽을 쑤어서 상주들에게 드리고, 귀신도 예방하는 풍속이 생겼다.

3 특징

'사돈이 죽으면 팥죽을 쒀 간다.'는 이야기는 제주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상례에 속한다. 사돈댁에 초상이 나면 허벅(물동이)에 한 말 정도의 팥죽을 담고 가져가서 상주들과 일꾼들에게 먹이던 의례이다. 지금은 팥죽을 잘 먹지 않아서 다른 음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4 핵심어

인종, 유신, 김부기, 초란이, 대신, 변소, 쇠막대기, 사돈, 팥죽, 저승사자

5 원전 서지사항

사돈이 죽으면 팥죽 쒀 간다(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3집, 1995)

6 관련 자료

사돈이 죽으면 팥죽 쒀 간다(강정마을회, 《강정향토지》, 1996)

C_L_063 사후참판 김명헌

1 개요

조선 정조 때 대정현 중문리 출신 김명헌(金命獻)이 죽어서 참판이 된 사연을 다룬 전설이다.

2 내용

중문리(中文里) 감사물이라는 곳에 김명헌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인품이 뛰어나고 문장에 능해 젊었을 때부터 과거시험을 보러 서울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충분한 실력이 있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아 낙방하길 수차례, 어느덧 늙어 80세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나라에서 과거가 있다고 하자 그는 노구(老軀)를 이끌고 상경하여 시장에 들어가서는 "落榜三三 老齡九九(낙방 9번에, 몸은 81세 되었네)"라고 쓰고는 내려와 버렸다. 이를 본 시관(試官)들은 그의 열정에 놀라 논의하여 참판의 교지를 내려주었다.

그러나 그 교지가 그에게 왔을 때 그는 노환으로 이미 세상을 떠나 관 속에 누워 있었다. 죽어서야 생전에 소망하던 벼슬을 얻게 되었는데, 교지를 관 두껑 위에 얹자 관이 드르렁, 드르렁 울었다고 한다.

3 특징

김명헌(1714~1795)은 1794년 어사 심락수(沈樂洙)가 내려와 치룬 시취(試取)에 책(策)으로 2위를 하여 특명으로 급제시켰다. 당시 81세로 응시했는데, 책(策)의 글귀 중에 "行年九九 落第三三(나이 81세에 낙방이 9번)"이라는 글귀가 있어 특별히 급제시킨 것이었다. 과거에 급제했지만 나이가 많아 벼슬을 못하여 돌아가니 호조참판에 증직하였다.

이 전설은 김명헌의 행적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서술하면서도 김명헌의 과거에 대한 열정을 과장하여 그가 마지막 과거시험은 바다를 건너 서울에 가서 치렀다고 서술하고 있다.

4 핵심어

김명헌, 사후참판, 81세

5 원전 서지사항

사후참판 김명헌(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국문학보》제7집, 1975)

6 관련 자료

C_L_064 산방덕

1 개요

산방산 산방굴사에서 태어났다는 산방덕과 관련된 전설이다.

2 내용

산방산 남쪽 허리에 산방굴사에서 산방덕이라는 처녀가 태어났다. 이팔청춘이 되자, 인간세계의 사람이 아닐 정도로 일색이 뛰어났다. 이는 산방산이 낳은 암굴의 여신이었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고승이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산방덕의 미모를 탐하는 남자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 주관이라는 직을 가진 남자가 산방덕을 빼앗으려 했다. 고승에게 누명을 씌워 귀양을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산방덕을 감언이설로 유인했다.

산방덕은 인간세계의 삶을 한탄했다. 그래서 다시 산방굴에 들어가 바위가 되어 버렸다. 지금도 그 굴 안 바위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산방덕의 눈물이라고 한다.

3 특징

4 핵심어

산방덕, 산방산, 산방굴사, 처녀, 암굴, 여신, 산방덕의 눈물, 주관

5 원전 서지사항

산방덕(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6 관련 자료

C_L_065 산방산 금장지(禁葬地)

1 개요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의 금장지(禁葬地)와 관련된 지명 전설이다.

2 내용

안덕면 화순리 산방산은 돌산이다. 예로부터 이곳에서 잡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산 꼭대기에 평평한 곳이 있는데, 이곳에 산을 쓰면 장수가 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가뭄이 계속되어 흉년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느 해에 가뭄이 계속 되자, 산방산 위에 무덤을 만들었다고 알려져서, 산을 뒤졌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새로 쓴 무덤을 확인했는데, 산방산 한 귀퉁이에 굴을 파고 그 속에 시체를 묻은 것이었다. 사람들이 시체를 꺼냈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고, 심지어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나 있었다. 날개를 끊어서, 다른 곳에 옮겨 장사를 지냈다. 그러자 갑자기 비가 내렸다.

그 시체를 그냥 두었으면 하늘로 올라가 큰 장수가 날 뻔했다고 수군대었으나, 비가 내렸으니 다행이라고 했다. 그 뒤 그 장소는 명당터로 알려지고, 그곳에 산을 쓰면 역적이 나올 수도 있고,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 수도 있으니, 금장지로 정하여 산을 쓰지 못하게 했다.

3 특징

금장지에 산을 쓰면 장수나 역적이 나오거나,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든다는 데서 붙여졌다는 지명 전설이다. 이와 같은 전설은 서귀포시 예래동 굴메오름(군산)에도 전한다.

4 핵심어

산방산, 금장지, 명당터, 장수, 날개, 화순리

5 원전 서지사항

산방산 금장지(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066 산방산(山房山)과 방철(房哲)스님

1 개요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에 살았다는 방철스님이 불교에 입문하여 대사(大師)가 되기까지의 내력을 이야기한 전설이다.

2 내용

아주 오랜 옛날 지금의 안덕면 사계리 마을에 가난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부부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자식이 없어 산방산에 가서 백일기도를 드려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귀동(貴童)이었다. 그런데, 귀동이 7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병들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도 어머니가 돌아간 후 1년이 못되어 돌아가 버렸다.

천애고아가 된 귀동은 걸인이 되어 이집 저집 밥동냥을 하고 다니다 어느 날 산방산 기슭에 쓰러졌다. 산방산 암자에서 도를 닦던 고승 혜일법사(慧日法師)가 귀동을 데려와 살펴보니 비범한 아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혜일법사의 가르침을 받게 된 귀동은 5년 동안에 천자문에서 시작하여 사서삼경을 다 읽었다. 그리고 15년 동안 불경을 공부하여 계(契)를 받고 법명을 방철(房哲)이라 하였다.

혜일법사의 상좌가 된 방철은 혜일법사의 배려로 팔도를 두루 돌아다니고 금강산 유점사에 들어가 천일기도를 드려 도를 깨치게 된다. 이후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산방굴사에 정착하여 괴로운 사람을 치료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구제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불공을 드리다 90세에 세상을 뜨니 사람들은 생불이라 일컬었다.

3 특징

산방산은 고려 말 우왕 때 고승 혜일(慧日)이 들어와 절을 짓고 불법을 전파하다 죽었다고 전하는 장소이다. 그런데 이 전설은 혜일이 아니라 고아로 걸식하며 살아가던 귀동이라는 아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의 출생에서 혜일과 만남, 이후 생불로 이어지기까지의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4 핵심어

혜일, 귀동, 산방산

5 원전 서지사항

산방산(山房山)과 방철(房哲)스님(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067 산방산에 묘 안쓰는 이야기

1 개요

풍수설화와 관련된 산방산 금장지 이야기이다.

산방산에 있는 금장지에 묘를 쓰면 마을에 가뭄이라는 징벌이 내렸다는 풍수담이다.

2 내용

산방산 평평한 곳에 묘를 쓰면 장수가 나고 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해 비가 오지 않자 사람들이 산방산에 올라가 확인해보니 묘가 있었다. 그 묘에서 나온 신체에 날개가 돋아 하늘로 오르면 그 자손이 장수가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가뭄이 드니 그 묘를 없애야 했다. 묘에서 나온 자손을 찾아 끌어내니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한편 마을에서도 기우제를 지냈다.

3 특징

명당자리에 묘를 쓰면 가뭄이 든다는 풍수설화이다. 이곳이 풍수적으로 명당이지만 묏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죽은 자를 위한 명당과 살아 있는 자를 위한 명당은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4 핵심어

산방산, 장수, 기우제, 날개, 금장지, 명당자리, 묏자리, 가뭄

5 원전 서지사항

산방산에 묘 안쓰는 이야기(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 제7집, 1982)

6 관련 자료

군산(軍山) 금장지(禁葬地)(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C_L_068 산호 해녀

1 개요

해녀가 거북의 목숨을 건져 준 사례로 용궁을 방문하게 되고, 산호꽃을 선물로 받아서 일생동안 마마(천연두)를 앓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2 내용

모슬포에서 살던 해녀가 물질하러 금로포(안덕면 사계리)에 갔다가 바다 웅덩이에 빠진 거북이를 살려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녀는 용머리(사계리 앞바다) 근처에서 전복을 캐러 물속으로 자맥질을 했는데 조개로 된 대궐이 보였다. 대궐 안에서 할머니가 나오더니 자신의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해녀를 영접했다. 할머니는 해녀에게 꽃을 꺾어 주면서 이 꽃만 있으면 마마(천연두)를 면할 수 있다고 일러주었다. 그 후 해녀는 한평생 마마에 걸리지 않았다고 전해온다.

3 특징

4 핵심어

산호, 해녀, 모슬포, 마마, 금로포, 사계리, 대모, 용머리, 전복, 조개, 궁궐

5 원전 서지사항

산호해녀(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산호수(珊瑚樹)와 마마신(痘神)(진성기, 《남국의 전설》, 교학사, 1981)

용궁올레(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은혜 갚은 개구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은혜 갚은 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은혜 갚은 뱀(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069 삼성혈(三姓穴)

1 개요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삼성혈(三姓穴)과 관련된 전설이다.

2 내용

삼성혈은 모흥혈(毛興穴)이라고도 한다. 고씨, 양씨, 부씨 세 신인이 나왔는데, 서열을 정하기 위해 활을 쏘았다. 고씨가 큰형이 되고, 그 다음이 양씨, 부씨 순으로 정해졌다. 세 신인이 활을 쏘았던 곳은 제주시 화북동으로, 지금도 삼사석(三射石)이 남아 있다.

세 신인이 수렵을 하다, 바닷가에 이르니 세 개의 상자가 바다에 떠왔다. 각각의 상자를 열었더니 각각에 여인 한 사람과 오곡의 씨가 있었다. 서로 배필을 정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다. 이들이 제주 사람들의 선조다.

3 특징

고, 양, 부씨 세 신인이 활을 쏘아 서열을 정하고, 바다로 흘러온 상자를 통해 배필과 오곡의 씨를 얻어서 살게 되었다는 전설이다.

4 핵심어

삼성혈(三姓穴), 모흥혈(毛興穴), 화북동, 삼사석(三射石), 상자, 고씨, 양씨, 부씨

5 원전 서지사항

삼성혈(三姓穴)(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삼성혈(三姓穴)(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C_L_070 설문대할망 - 창세

1 개요

설문대할망은 제주도의 지형과 관련하여 전승되고 있는 신화 속 거인창조여신이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신화 속 인물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조여신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으며, 설문대할망은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하늘과 땅을 밀어 우주를 열게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의 지형을 형성한 것이다. 제주도의 산, 바다, 섬, 바위 등의 자연물 전체를 설문대할망의 작품이라고 할 정도이다. 제주도 전역에 전승되고 있는 광포 설화이다.

2 내용

1) 한라산과 오름

옛날에는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는데 아주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와서 하늘은 위로 가게하고 땅은 밑으로 가게 한 후, 물바다로 사람이 살 수 없으니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흙을 파올려 제주도를 만들었다. (「설문대할망」,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도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710-714쪽)

제주도에는 많은 오름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 오름들은 할머니가 치맛자락에 흙을 담아 나를 때 치마의 터진 구멍으로 새어나온 흙이 쌓여서 된 것이라 한다.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22쪽)

오백장군의 어머니인 설문대할망은 키가 크고 힘이 셌다. 흙을 파서 삽으로 일곱 번 떠 떤진 것이 한라산이 되었고, 도내 여러 곳의 산들은 할망이 신고 있던 나막신에서 떨어진 흙이다. (「설문대할망」, 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6, 106쪽)

몸이 커서 삽으로 열두 번 걸어치니 한라산이 되고, 할망 나막신에 묻은 흙을 터니 사방 오름이 되었다. (「설문대할망」,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2집, 2006, 310-311쪽)

한쪽 발은 한라산에, 다른 한쪽은 일출봉 신산오름에 놓고 삽으로 흙을 부어 오름들을 만들었다. 몸이 큰 거인이라고 했다. (「설문대할망」,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0·21집, 2005, 351쪽)

설문대할망은 육지 할망인데, 한쪽 가달은 육지에 다른 한쪽은 제주에 놓고 삽으로 육

지 흙을 퍼서 한라산을 만들었고, 조금씩 떨어진 흙이 영아리나 붉은오름 같은 작은 산(오름)이 되었다. (「설문대할망」,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2집, 2006, 329쪽)

2) 한라산과 산방산

할망이 몸을 굽혀서 빨래를 하는데 한라산이 좀 높으므로 봉우리를 꺾어 던지니 산방산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라산은 암산이 되고 산방산은 숫산이 되었다.(「설문대할망」,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511-512쪽)

※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 백록담과 산방산의 형성

한 사냥꾼이 사슴을 향해 활을 쏘았으나 빗나가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맞추자 상제는 화가 나 한라산 봉우리를 뽑아 던졌다. 그것이 산방산이 되고 뽑아버린 자국이 지금의 백록담이 되었다고 한다.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36쪽)

3) 오름의 분화구

제주도 오름들은 할머니가 삽으로 흙을 날라 가면서 한 줌씩 집어 놓은 것이라 한다 구좌 다랑쉬오름은 할머니가 흙을 집어 놓고 보니 너무 많아 보여서 주먹으로 봉우리를 탁 쳐서 산봉우리가 움푹 파인 것이다. (「설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7, 24쪽;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8쪽)

3 특징

설문대할망은 하늘과 땅을 나눴고 물속에서 흙을 퍼 올려 제주도를 만들어 창조신적 면모가 잘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설문대할망이 흙을 날라 제주의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었다는 지형창조신화다.

4 핵심어

설문대할망, 제주도, 오름, 흙, 산방산, 백록담, 오백장군, 다랑쉬오름, 일출봉, 신산오름

5 원전 서지사항

설문대할망(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설문대할망(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0·21집, 2005)
설문대할망(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2집, 2006)
설문대할망(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선문대할망(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설문대할망(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도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6 관련 자료

설망도할망(남원읍 의귀리, 《의귀리지》, 2012)
설망도할망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1집, 1992)
설맹이할망과 백사장(오성찬, 《제주의 마을 표선리》, 2002)
설맹이할망과 백사장(표선리원로회, 《표선리 향토지》, 1996)
설멩듸할망(성산읍 수산리, 《수산리지》, 1994)
설문대신화 본풀이(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애월읍 역사문화지》, 2013)
설문대 할머니(진성기, 《제주도설화집 제1집》, 제주도관광안내소출판부, 1960)
설문대할망과 설문대 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설문대할망(서홍동, 《서홍로》, 1996)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10집, 1994)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7)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8집, 2011)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9집, 2012)
설문대할망 설화(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20집, 2013)
설문대할망 설화(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21집, 2014)
설문대할망과 설문대 하르방(오성찬, 《제주의 마을 고성리》, 도서출판 반석, 2002)
설문대할망을 신봉하던 '애월할망'(오성찬, 《제주의 마을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1987)
설문대할망의 '솥바리'(오성찬, 《제주의 마을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1987)
설문대할망의 한라산 창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64)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전설》, 교학사, 1981)
설문대할망(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제주도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설문대할망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7집, 2010)

C_L_071 설문대할망 - 거구

1 개요

설문대할망은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전승되고 있는 거녀설화이고, 신이담(神異譚) 중 초인담(超人譚)에 속하는 설화이다.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을 베고 누워 다리는 관탈섬에 걸쳤다고 할 정도로 거구의 몸집에 대한 이야기이다. 제주 해안에서 관탈섬까지의 거리가 20km이고, 해안에서 한라산까지의 거리가 15km라고 본다면 40km에 해당하는 거대신의 이야기다. 시간이 갈수록 거대신의 모습은 거구의 신에서 거인으로, 다시 등신대(等身大)의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

2 내용

1) 큰 키

선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는데 얼마나 키가 컸던지 한라산을 베고 누으면 다리가 제주 앞바다 관탈섬에 걸쳐졌다고 한다.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22쪽; 「설문대할망」,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8쪽)

할머니는 키가 커서 한라산과 일출봉 사이를 한 발자국에 놓았다고 한다.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24쪽)

할망은 키가 커서 한쪽 발은 한라산을 딛고 한쪽 발은 산방산을 딛고 섰다고 한다.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25-26쪽)

옛날 마고할망이라는 키 큰 할망이 있었는데 한쪽 발은 한라산을 딛고 한쪽 발은 표선면의 한모살을 딛고 서 있었다고 한다.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26쪽)

할망이 한라산을 베고 누우면 발이 바닷물에 닿았다. 할망이 한라산과 관탈섬을 양 발로 디디고 서 있었다고 한다. (「설문대할망」, 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105-106쪽)

한라산을 만든 거대한 신이 바로 선문대할망이다. 한라산을 베고 누우면 다리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설문대할망」,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34-35쪽)

바다를 건너와도 발등에 물이 차지 않고, 명주 50동으로 소중이를 만들어도 밑댈 옷감

(처지)가 부족할 만큼 큰 여신이었다. (「설문대할망」,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10집, 1994, 127-128쪽)

2) 거구와 바위 구멍

서귀포 법환리 앞바다에 있는 섶섬에는 커다란 구멍 두 개가 뚫려 있는데 이것은 할머니가 누울 때 잘못 발을 뻗어 생긴 것이라 한다. (「설문대할망」, 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105-106쪽)

한라산을 베고 누워 물장구를 치다가 발가락으로 밀어 법환 범섬에 구멍 두 개가 생겼다. (「설문대할망」,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2집, 2006, 310-311쪽)

3) 거구와 빨래하기

선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는데 제주 앞바다 관탈섬에 빨래를 놓아 밟고 팔은 한라산 꼭대기를 짚고 서서 빨래를 했다고 한다.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22쪽;「설문대할망」,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34-35쪽)

선문대할망이 한라산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한쪽 다리는 관탈섬에, 한쪽 다리는 서귀포 지귀섬(혹은 대정 마라도)에 딛고 성산봉을 빨래통으로 삼고 우도를 빨래판으로 삼아 뻘래를 했다.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23쪽; 「설문대할망」,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34-35쪽)

빨래할 때 왼 발은 성산일출봉에 오른쪽은 마라도를 딛고 서서 서귀포 쪽의 직기섬에 놓고 빨래를 했다. 북쪽 바다에서 빨래를 할 때, 추자도와 완도에 발을 딛고서 보길도에 옷을 놓고 빨래를 했다. (「설문대할망」,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8쪽)

왼쪽 발은 한라산을 딛고, 오른쪽 발은 산방산을 딛고 서서 태평양 물에 빨래를 할 정도로 몸이 컸다. (「설문대할망」,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8쪽)

4) 거구와 길쌈하기

성산에는 바위 위에 다시 큰 바위를 얹어놓은 것이 있는데 설문대할망이 김쌈을 하다가 등잔이 낮으므로 바위를 놀려놓고 그 위에 등잔을 올려놓았다고 하는데 그 바위를 등경돌이라 한다.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24쪽; 「설문대할망」,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8-69쪽)

5) 두럭산

제주도에는 산들을 오름이라 부르는데, 산이라 부르는 것이 다섯 있어 오대산이라 한다. 한라산, 성산(청산이라고도 한다), 성읍 영주산, 안덕 산방산, 그리고 김녕의 두럭산이다. 대부분의 산은 위용이 있는데 두럭산은 산일 할 만한 것이 못되는 바닷가 조그만 바위다.

그런데 이것을 산이라 하는 이유는 한라산과 대(對)가 되는 산으로, 한라산에 운이 돌아와 장군이 나면 두럭산에서는 장군이 탈 용마가 난다고 하여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옛날 키가 큰 설문대할망이 한라산과 청산(성산)을 밟고 앉아 이 두럭산을 빨래판으로 삼아 빨래를 했다고 한다.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16-17쪽)

❸ 특징

거인의 창조신화적 성격이 속화(俗化)되면서 단편적 전설로 변이된 것으로 보인다. 거녀의 이름은 지역에 따라 '선문대할망, 설문대할망, 설명두할망'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대할망의 큰 키에 관한 이야기와 다리를 뻗어 지형이 형성되는 모습에서는 창조신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❹ 핵심어

선문대할망, 한라산, 관탈섬, 일출봉, 용담, 산방산, 마고할망, 표선면의 한모살, 성산포, 목포, 소중이, 법환, 범섬, 가파도, 지귀섬, 빨래, 우도, 설명두, 길쌈, 오대산, 두럭산, 설문대할망

❺ 원전 서지사항

선문대할망(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설문대할망(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2집, 2006)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10집, 1994)
설문대할망(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❻ 관련 자료

설망도할망(남원읍 의귀리, 《의귀리지》, 2012)
설망도할망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1집, 1992)
설맹이할망과 백사장(오성찬, 《제주의 마을 표선리》, 2002)
설맹이할망과 백사장(표선리원로회, 《표선리 향토지》, 1996)
설멩듸할망(성산읍 수산리, 《수산리지》, 1994)

설문대신화 본풀이(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문화원연합회,《애월읍 역사문화지》, 2013)
설문대 할머니(진성기,《제주도설화집 제1집》, 제주도관광안내소출판부, 1960)
설문대할망(김영돈·현용준·현길언,《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설문대할망과 설문대 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설문대할망(서홍동,《서홍로》, 1996)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국문학보》제14집, 1997)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국문학보》제18집, 2011)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국문학보》제19집, 2012)
설문대할망 설화(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국문학보》제20집, 2013)
설문대할망 설화(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국문학보》제21집, 2014)
설문대할망과 설문대 하르방(오성찬,《제주의 마을 고성리》, 도서출판 반석, 2002)
설문대할망을 신봉하던 '애월할망'(오성찬,《제주의 마을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1987)
설문대할망의 '솥바리'(오성찬,《제주의 마을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1987)
설문대할망의 한라산 창조(제주도,《제주도전설지》, 1985)
설문대할망(진성기,《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64)
설문대할망(진성기,《남국의 전설》, 교학사, 1981)
설문대할망(현용준·김영돈,《한국구비문학대계 9-1 제주도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설문대할망(현용준·김영돈,《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도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설문대할망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국문학보》제17집, 2010)

C_L_072 설문대할망 - 대식

1 개요

설문대할망은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전승되고 있는 거녀설화의 주인공으로 대식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설문대할망이 키가 큰 만큼 먹는 양도 많아 오름 세 개에 솥을 얹어 밥을 해서 먹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선문대할망이 먹는 만큼 배설도 많아 배설물이 산이 되었다고 한다.

2 내용

애월면 곽지리에 흡사 솥덕 모양의 바위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은 할망이 솥을 앉혀 밥을 해먹던 곳이라 한다. 할망은 앉은 채로 애월의 물을 떠 넣었다고 한다.

3 특징

거인의 창조신화적 성격이 속화(俗化)되면서 단편적 전설로 변이된 것으로 보인다. 설문대할망의 큰 키에 관한 이야기가 대식가이야기와 결합한 모습이다. 반면 솥을 얹어 밥을 했다는 오름이야기를 보면 지형창조신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4 핵심어

설문대할망, 구좌면, 송당리, 바위, 솥, 밥, 애월읍, 곽지리, 세화, 오름, 대식

5 원전 서지사항

선문대할망(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6 관련 자료

설망도할망(남원읍 의귀리, 《의귀리지》, 2012)

설망도할망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1집, 1992)

설맹이할망과 백사장(오성찬, 《제주의 마을 표선리》, 2002)

설맹이할망과 백사장(표선리원로회, 《표선리 향토지》, 1996)

설멩듸할망(성산읍 수산리, 《수산리지》, 1994)

설문대신화 본풀이(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애월읍 역사문화지》, 2013)

설문대 할머니(진성기, 《제주도설화집 제1집》, 제주도관광안내소출판부, 1960)

설문대할망(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설문대할망과 설문대 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설문대할망(서홍동, 《서홍로》, 1996)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10집, 1994)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7)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8집, 2011)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9집, 2012)

설문대할망과 설문대 하르방(오성찬, 《제주의 마을 고성리》, 도서출판 반석, 2002)

설문대할망을 신봉하던 '애월할망'(오성찬, 《제주의 마을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1987)

설문대할망의 '솥바리'(오성찬, 《제주의 마을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1987)

설문대할망 설화(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20집, 2013)

설문대할망 설화(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21집, 2014)

설문대할망1,2,3,4(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설문대할망의 한라산 창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64)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전설》, 교학사, 1981)

설문대할망(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제주도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설문대할망(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도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설문대할망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7집, 2010)

C_L_073 설문대할망 - 대근

1 개요

설문대할망은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전승되고 있는 거녀설화이다.

설문대하르방과 설문대할망이 성기로 사냥을 하는 이야기이다. 설문대할망의 음부는 생산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2 내용

할망이 가랑이를 벌리고 오줌을 누려 하는데, 포수에게 내몰린 사슴들이 할머니의 음부 속으로 숨어버렸다. 사슴(각록) 여러 마리가 숨을 정도로 넓었다고 한다. (「설문대할망」, 현용준·김영돈『한국구비문학대계 9-1 제주도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00-202쪽)

설문대할망에게는 남편인 설문대하르방이 있었는데, 하루는 하르방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자, 할망에 하르방에게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 남근으로 나무를 두들기면서 오줌을 세게 갈겨대라고 일러주었다. 그 말대로 하니 산돼지와 노루가 도망을 가다가 할망의 음부로 모두 숨어들어가니 그것을 잡아다 일년 반찬을 해 먹었다고 한다. (「설문대할망」,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도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710-714쪽)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이 함께 사는데, 배가 고프자 하르방이 제안하여 하르방은 성기로 고기를 몰고 할망은 섭지코지 앞의 물에 가서 가랑이를 벌리고 앉아 음부에 고기를 담았다고 한다. (「설문대할망」,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1985, 705-706쪽)

3 특징

거인의 창조신화적 성격이 속화(俗化)되면서 설문대할망의 성기로 사냥을 하는 모습으로 희화화시키며 단편적 전설로 변이되는 과정이 보인다.

4 핵심어

할망, 가랑이, 오줌, 포수, 사슴, 음부, 설문대할망, 설문대하르방, 남근, 산돼지, 노루, 고기, 고래, 물개, 오백형제

5 원전 서지사항

설문대할망(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설문대할망(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도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6 관련 자료

선문대할망(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설망도할망(남원읍 의귀리, 《의귀리지》, 2012)
설망도할망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1집, 1992)
설맹이할망과 백사장(오성찬, 《제주의 마을 표선리》, 2002)
설맹이할망과 백사장(표선리원로회, 《표선리 향토지》, 1996)
설멩듸할망(성산읍 수산리, 《수산리지》, 1994)
설문대신화 본풀이(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애월읍 역사문화지》, 2013)
설문대 할머니(진성기, 《제주도설화집 제1집》, 제주도관광안내소출판부, 1960)
설문대할망과 설문대 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설문대할망(서홍동, 《서홍로》, 1996)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10집, 1994)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7)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8집, 2011)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9집, 2012)
설문대할망 설화(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20집, 2013)
설문대할망 설화(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21집, 2014)
설문대할망1,2,3,4(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설문대할망을 신봉하던 '애월할망'(오성찬, 《제주의 마을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1987)
설문대할망의 '솥바리'(오성찬, 《제주의 마을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1987)
설문대할망의 한라산 창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64)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전설》, 교학사, 1981)
설문대할망(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제주도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설문대할망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7집, 2010)
설문대할망과 설문대 하르방(오성찬, 《제주의 마을 고성리》, 도서출판 반석, 2002)

C_L_074 설문대할망 - 대의

1 개요

설문대할망은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전승되고 있는 거녀설화이다.

제주 사람들이 거인인 설문대할망의 옷을 마련해 주면 제주와 육지를 잇는 다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지만 명주 한 동이 모자라 옷을 못 만들어 그 꿈이 무산되는 이야기이다. 다리가 만들어지지 못한 패배담 속에는 제주도가 육지와 고립된 섬이라는 제주 사람들의 격절성이 내재되어 있다.

2 내용

1) 속옷 지어주기와 다리 놓기

할머니는 키가 너무 커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속옷 한 벌을 만들어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했다. 속옷 한 벌을 만드는데 명주 100통이 드는데 제주 백성들은 99통밖에 모을 수 없어 속옷을 만들지 못했고, 할머니는 다리를 놓다가 중단했는데 그 자취가 조천과 신촌 앞바다에 남긴 여(바위)라고 한다.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22-23쪽; 「설문대할망」,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34-35쪽)

할망은 속옷 한 벌만 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는데 명주를 모아 보니 99필밖에 안 되어 속옷을 만들다가 사타구니 부분의 옷감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했고, 그래서 다리도 놓아주지 않게 되었다.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25쪽)

할머니의 속옷 한 벌을 만드는데 명주 100통이 드는데 명주가 99통밖에 없어 옷을 못 만들었다고 한다.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26쪽)

설문대할망은 몸이 거대한 할머니였다. 명주로 속옷을 만들어주면 제주도에서 진도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했는데 도민들은 명주 쉰 통을 들이고도 옷을 짓지 못했다고 한다. (「설문대할망」,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511-512쪽)

이 할머니는 도민들에게 명주 백 동(1동은 50필)을 모아 속옷을 한 벌 만들어주면 본토까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도민들은 있는 한 모았으나 한 동이 모자랐고 육지와의 다리는 놓다가 말았다. 그 다리를 놓던 흔적이 조천에 있는 엉장

매코지라고 한다. (「설문대할망」, 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105-106쪽)

설망도할망이 속옷을 만들어주면 다리를 놓아준다고 하여, 있는 명주를 다 모아 속옷을 만들다가 모자라 다 만들지 못하니, 다리도 놓다 말았다. 명주를 모두 모았는데 속옷 하나 만들지 못하니 그 할망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설망도할망 이야기」,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1집, 1992, 224쪽; 「설망도할망」, 남원읍 의귀리, 《의귀리지》, 2012, 403~404쪽)

설문대가 목포와 제주 사이 깊은 바다에 들어도 무릎 밖에 안 닿았다. 도민에게 옷 한 벌 해주면 목포와 제주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하였다. 돈을 모아도 옷 한 벌 사줄 수 없어 다리를 못 놓았다. (「설문대할망 설화」,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20집, 2013, 97~98쪽)

속옷을 지어주면 소섬과 성산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하였는데, 명주 7동을 들여도 부족해 결국 다리를 못 놓아주었다고 한다. (「설문대 할망」,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7, 204쪽)

명주 백 동만 모으면 소중기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목포까지 다리를 놓아서 걸어다니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한 동이 쉰 필이고, 한 필이 스무 자라, 백 동을 마련할 수 없어 부족해서 결국 옷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다리도 실패하였다. 조천 엉장매코지(응장벽ᄒᆞ지)에 시작한 흔적이 남아 있다. (「설문대할망」,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2집, 2006, 310-311쪽)

한라산의 봉우리도 99봉, 골도 99인데 100개면 왕도 나고 범도 났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풍수 이야기를 하면서, 성산 일출봉도 99봉인데 설문대할망이 그곳 돌 위에 불을 얹어놓고 바느질을 했다고 한다. 명주도 99동밖에 없었는데, 100동을 채웠으면 속옷이 만들어지는데 실패하였다고 한다. 99동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치마에 흙을 담아 한라산으로 가다가 흘린 것이 오름이 되었다고 한다. 모두 100에서 하나 부족한 사연들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설문대할망」,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1집, 1995, 261-261쪽)

2) 할머니의 감투

설문대할망 감투가 오라동 한내에 있었는데, 모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경주 이원흠족감석이라 쓰여 있었다고 한다. (「설문대할망」,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도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710-714쪽)

제주시 한내 위쪽에는 큰 구멍이 파인 바위가 있는데 이것은 할머니가 쓰던 감투라고 한다.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22쪽)

오라 내창에 큰 돌이 있었는데 할머니의 족두리라고 한다. 바둑판도 있었다고 한다. (「설문대할망」,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9집, 2012, 119쪽)

오라 한내 '고지렛도'라는 곳에 모자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선문대할망의 감투라고 한다. (「설문대할망」,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34-35쪽)

❸ 특징

설문대할망은 거대함으로 인해 불행하였다. 설문대할망은 키가 너무 커서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다. 터지고 헌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고래굴같은 자신의 음문을 가릴 수 없었다. 설문대할망은 항상 탐라 백성들을 위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문대할망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속옷 한 벌만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하였다. 설문대할망의 속옷을 만드는 데는 명주 100통이 필요하였으나 1통이 부족하여 옷을 다 만들지 못해 결국 제주와 육지는 다리를 놓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❹ 핵심어

할머니, 할망, 설문대할망, 설망도할망, 설문대, 속옷, 명주, 조천, 신촌, 할망, 다리, 한림, 육지, 제주도, 무명, 모슬포, 알뜨르, 진도, 엉장매코지, 목포, 표선면, 백사장, 감투, 이원흠, 족감석, 족두리, 바둑판, 고지렛도

❺ 원전 서지사항

선문대할망(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설문대할망(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5)
설문대할망(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1집, 1995)
설문대할망(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2집, 2006)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7)
설문대할망(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설망도할망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1집, 1992)
설문대할망 설화(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20집, 2013)

6 관련 자료

설망도할망(남원읍 의귀리, 《의귀리지》, 2012)

설맹이할망과 백사장(오성찬, 《제주의 마을 표선리》, 2002)

설맹이할망과 백사장(표선리원로회, 《표선리 향토지》, 1996)

설멩듸할망(성산읍 수산리, 《수산리지》, 1994)

설문대신화 본풀이(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애월읍 역사문화지》, 2013)

설문대 할머니(진성기, 《제주도설화집 제1집》, 제주도관광안내소출판부, 1960)

설문대할망과 설문대 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설문대할망(서홍동, 《서홍로》, 1996)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10집, 1994)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7)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8집, 2011)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9집, 2012)

설문대할망 설화(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21집, 2014)

설문대할망과 설문대 하르방(오성찬, 《제주의 마을 고성리》, 도서출판 반석, 2002)

설문대할망을 신봉하던 '애월할망'(오성찬, 《제주의 마을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1987)

설문대할망의 '솥바리'(오성찬, 《제주의 마을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1987)

설문대할망의 한라산 창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64)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전설》, 교학사, 1981)

설문대할망(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제주도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설문대할망(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도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설문대할망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7집, 2010)

C_L_075 설문대할망 - 배설

1 개요

설문대할망은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전승되고 있는 거녀설화이다.
설문대할망의 오줌발이나 배설물에 따라 지형이 형성된 이야기이다.

2 내용

성산과 우도는 붙어 있었는데 할망이 한쪽은 식산봉을 디디고 한쪽은 성산일출봉을 디디고 오줌을 쌌는데 오줌 줄기가 세었기에 육지 한 조각이 잘려나가 우도(소섬)이 되었다. 지금도 성산과 우도 사이에는 조류가 세다고 한다.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24-25쪽; 「설문대할망」,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8-69쪽)

설문대할망이 비양도에 발을 걸치고 오줌을 누어 백록담에 물이 고이고, 그 남은 물이 스며들어 제주에는 물이 풍부하다고 한다. (「설문대할망 설화」,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21집, 2014, 118쪽)

3 특징

설문대할망은 거인의 창조신화적 성격이 잘 나타나는 설화이다. 설문대할망의 큰 키에 관한 이야기에서 다리를 뻗어 지형이 형성되는 모습에서는 창조신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또한 할망이 싸는 오줌발에 성산포 땅이 뜯겨 나가 소섬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에서도 지형창조신으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핵심어

설문대할망, 성산, 우도, 식산봉, 성산일출봉, 오줌, 우도, 소섬, 비양도, 백록담

5 원전 서지사항

설문대할망(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선문대할망(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설문대할망 설화(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21집, 2014)

6 관련 자료

설망도할망(남원읍 의귀리, 《의귀리지》, 2012)
설망도할망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1집, 1992)

설맹이할망과 백사장(오성찬, 《제주의 마을 표선리》, 2002)
설맹이할망과 백사장(표선리원로회, 《표선리 향토지》, 1996)
설멩듸할망(성산읍 수산리, 《수산리지》, 1994)
설문대신화 본풀이(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애월읍 역사문화지》, 2013)
설문대 할머니(진성기, 《제주도설화집 제1집》, 제주도관광안내소출판부, 1960)
설문대할망(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설문대할망과 설문대 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설문대할망(서홍동, 《서홍로》, 1996)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10집, 1994)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7)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8집, 2011)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9집, 2012)
설문대할망 설화(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20집, 2013)
설문대할망과 설문대 하르방(오성찬, 《제주의 마을 고성리》, 도서출판 반석, 2002)
설문대할망을 신봉하던 '애월할망'(오성찬, 《제주의 마을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1987)
설문대할망의 '솥바리'(오성찬, 《제주의 마을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1987)
설문대할망의 한라산 창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64)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전설》, 교학사, 1981)
설문대할망(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제주도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설문대할망(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도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설문대할망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7집, 2010)

C_L_076 설문대할망 - 죽음

1 개요

설문대할망은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전승되고 있는 거녀설화이다.

설문대할망이 자신의 큰 키를 자랑하다 물장오리에 빠져 죽은 이야기 혹은, 오백장군의 죽을 끓이다가 죽 솥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이다. 여성영웅의 시대가 끝나고 남성영웅의 시대가 오면서 앞 시대의 주인공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주인공의 패배적인 전설담을 이루게 되었다.

2 내용

1) 물장오리에서의 죽음

키 큰 선문대할망은 제주도 안의 물이 얼마나 깊은지 시험해 보았다. 용담에 들어가니 물이 발등에 찼고, 서귀포 홍리물에 들어가니 무릎까지 닿았다. 이렇게 시험을 해보다가 마지막으로 물장오리에 들어갔는데 빠져 죽고 말았다. 물장오리는 밑이 터진 깊은 물이었기 때문이다.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23쪽)

할머니는 자신의 키가 큰 것을 늘 자랑했는데 용연물이 깊다 하여 들어갔더니 겨우 발등에 찼으며, 홍리물(서귀포)은 무릎까지 찼다. 그러나 한라산 물장오리 물은 밑이 없는 연못이라 나오려는 순간 그만 빠져죽고 말았다고 한다. (「설문대할망」, 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105-106쪽)

흙을 모두 치마에 싸서 가다가 흙을 흘려버리니 오름이 되었다. 한라산에 가 누웠다가 물장오리 물이 크다고 하니 목욕하러 거기 들어섰다가 빠져죽었다. (「설문대할망」,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10집, 1994, 127-128쪽)

2) 죽솥에 빠져 죽음

흉년이 든 해에 아들들이 도둑질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먹일 죽을 끓이다가 가마솥에 빠지고 말았다. 아무 것도 모른 채 죽을 먹던 아들들은 갑자기 죽이 맛있다는 것에 의심을 하고 죽솥을 저어 보았더니 거기에 뼈가 나왔고 그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확인하고는 울다가 화석이 되고 말았다. (「설문대할망」, 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105-106쪽)

집안이 가난해서 오백형제에게 식량 도둑질을 시켜 보내고 아버지는 죽을 끓이다가 팥죽에 빠져 죽고, 그 죽을 먹은 아들들은 아버지의 뼈를 발견하고 슬피 울어 눈물이 얼어붙어 오백장군 바위가 되었다. 화가 난 할망이 한라산 꼭대기를 던지자 떨어져 나와 산방산이 되었다. (「설문대할망」,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2집, 2006, 310-311쪽)

설문대할망에게는 오백장군이 있었는데 죽을 끓이다가 죽솥에 빠져 죽었다. 장군들은 놀라 얼어붙어 버렸고 500장군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막내는 차귀도 바위가 되었다. 뒤에는 이 할망이 영등할망이라고 하면서, 정월 열나흘에 들어와 보름에 나간다고 했다가, 다시 이월 보름에 나간다고도 했다. 할망의 정체를 혼동한 흔적이다. (「설문대할망」,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6집, 2000, 366-368쪽)

영실기암: 영실에는 오백장군이 있는데 실은 499개다. 옛날 한 어머니가 아들 500을 두었는데, 죽을 끓이다가 죽솥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를 모르는 아들들은 죽을 먹다가 어머니의 뼈를 발견하고 부끄러워, 막내 동생은 차귀섬으로 달려가 바위가 되었고, 형들은 통곡하다가 바위로 굳어져 영실 바위가 되었다. (「설문대할망」, 제주도, 《제주도 전설지》, 1985, 36쪽)

3) 기타의 죽음

치맛자락으로 흙을 싸서 바메기오름을 만들었는데, 바메기오름 동그란 물을 디디니 옴박 들어가버렸다고 한다. (「설문대할망」,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10집, 1994, 267-268쪽)

제주도에 고양부 3을나가 태어난 시기에 설문대할망이 제주를 통치하러 왔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설문대할망」,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8쪽)

※ 죽음과 관련된 마고할미 이야기: 매고할망

매고라는 예쁜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이웃 총각이 여인을 흠모하여 이 남편을 몰래 죽이고 속여 결혼하였다. 함께 살며 아들 일곱을 두었는데 나이가 들어 전 남편을 죽

인 사실을 실토하였더니 남편을 관가에 고발하고 아들 일곱을 모두 자기 손으로 죽였다. 여인은 홀로 토굴 속에 들어가 결국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아들과 엄마의 죽음, 마고 신화의 변이형태를 볼 수 있다. (「설문대할망」,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968-970쪽)

❸ 특징

설문대할망이 자신의 큰 키를 자랑하다 한라산 물장오리의 깊이를 짐작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빠져 죽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죽음과 오백장군의 이야기가 결합된 이야기로 설문대할망은 오백장군을 낳아 한라산에서 살고 있었다. 식구는 많고 가난한데다 마침 흉년까지 겹쳐 끼니를 이어갈 수 없었다. 할머니는 아들들에게 밖으로 나가 양식을 구해 오라고 했다. 오백 형제들은 모두 양식을 구하러 나가고, 할머니는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백록담에 큰 가마솥을 걸고 불을 지핀 다음, 솥전 위를 걸어 돌아다니며 죽을 저었다. 그러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디어 어머니는 죽솥에 빠져죽어 버렸다.

설문대할망은 단순히 물에 빠져 죽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오백 장군과 결합하여 죽 솥에 빠져 죽는 더욱 비극적인 이야기로 탄생하였다. 또한 이 오백 장군들이 모두 영실기암 등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지형창조신으로의 모습도 간직하고 있다. 설문대할망과 영등할망을 혼동하는 이야기 전승도 보인다.

❹ 핵심어

한라산, 물장오리, 선문대할망, 용담, 서귀포, 홍리물, 용연, 바닷물, 용소, 오백장군, 영실기암, 죽, 솥, 산방산, 바메기오름

❺ 원전 서지사항

선문대할망(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설문대할망(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설문대할망(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6집, 2000)

설문대할망(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2집, 2006)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10집, 1994)

설문대할망(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6 관련 자료

설망도할망(남원읍 의귀리, 《의귀리지》, 2012)

설망도할망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1집, 1992)

설맹이할망과 백사장(오성찬, 《제주의 마을 표선리》, 2002)

설맹이할망과 백사장(표선리원로회, 《표선리 향토지》, 1996)

설멩듸할망(성산읍 수산리, 《수산리지》, 1994)

설문대신화 본풀이(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애월읍 역사문화지》, 2013)

설문대 할머니(진성기, 《제주도설화집 제1집》, 제주도관광안내소출판부, 1960)

설문대할망과 설문대 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설문대할망(서홍동, 《서홍로》, 1996)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7)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8집, 2011)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9집, 2012)

설문대할망 설화(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20집, 2013)

설문대할망 설화(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21집, 2014)

설문대할망과 설문대 하르방(오성찬, 《제주의 마을 고성리》, 도서출판 반석, 2002)

설문대할망을 신봉하던 '애월할망'(오성찬, 《제주의 마을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1987)

설문대할망의 '솥바리'(오성찬, 《제주의 마을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1987)

설문대할망의 한라산 창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64)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전설》, 교학사, 1981)

설문대할망(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제주도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설문대할망(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도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설문대할망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7집, 2010)

C_L_077 설문대할망 - 당신 좌정

1 개요

이 이야기는 표선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당신본풀이이다.

당개할망 혹은 설문대할망의 좌정 경위의 이야기이다.

2 내용

옛날 한라산에서 솟아난 당개할망은 저 바당 한집과 사이에 아들이 7형제였다. 명주 99동을 모아 속옷을 만들어주었는데 음부를 가릴 한 동이 모자라 결국 육지를 잇는 다리를 놓지 않게 되었다.

그때 7형제 중 다섯 형제는 한라산 5백장군을 거느리고, 아들 하나는 할망의 부름으로 와서 죽을 쑤다가 죽에 빠져 죽어버렸다. 이 아들은 소섬을 차지하는 신이 되고 다섯 아들은 한라산 오백장군 오백 선생을 거느리며 좌정하고, 설문대할망은 표선리 한모살에 쌓아서 만든 공이 있었는데 거기를 좌정처로 삼아 당개할망이 되었다. 나주목사가 여기에 와 설문대할망의 영험함을 보고 두려워하며 돌아갔다고 한다.

3 특징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대략 살펴보면, 배설물로 지형을 만들거나 성기로 사냥을 하는 등의 형태로 설문대할망이 희화화되거나 죽을 끓이다가 빠져 죽는 비극적인 존재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표선리 당개 포구의 해신당에서는 설문대할망이 해녀들을 보호해 주고 부(富)를 가져다주는 당신(堂神)으로 나타나며, 제주의 뱃사람들은 설문대할망을 그들을 지켜 주는 수호신으로 믿었음을 보여 준다.

설문대할망은 창세신이었다가 전설로, 다시 당신으로까지 변이되는 과정 속에 있으며, 현재 신성한 이야기로 전승되는 특이한 경우다.

4 핵심어

한라산, 당개할망, 바당, 한집, 명주, 속옷, 음부, 다리, 죽, 오백 장군, 설문대할망, 표선리, 한모살

5 원전 서지사항

설맹이할망과 백사장(표선리 원로회, 《표선리 향토지》, 1996)

6 관련 자료

선문대할망(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설망도할망(남원읍 의귀리, 《의귀리지》, 2012)

설망도할망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1집, 1992)

설맹이할망과 백사장(오성찬, 《제주의 마을 표선리》, 2002)

설멩듸할망(성산읍 수산리, 《수산리지》, 1994)

설문대신화 본풀이(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애월읍 역사문화지》, 2013)

설문대 할머니(진성기, 《제주도설화집 제1집》, 제주도관광안내소출판부, 1960)

설문대할망(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설문대할망과 설문대 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설문대할망(서홍동, 《서홍로》, 1996)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10집, 1994)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7)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8집, 2011)

설문대할망(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9집, 2012)

설문대할망 설화(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20집, 2013)

설문대할망 설화(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21집, 2014)

설문대할망과 설문대 하르방(오성찬, 《제주의 마을 고성리》, 도서출판 반석, 2002)

설문대할망을 신봉하던 '애월할망'(오성찬, 《제주의 마을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1987)

설문대할망의 '솥바리'(오성찬, 《제주의 마을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1987)

설문대할망1,2,3,4(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설문대할망의 한라산 창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64)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설문대할망(진성기, 《남국의 전설》, 교학사, 1981)

설문대할망(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제주도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설문대할망(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도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설문대할망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7집, 2010)

C_L_078 섬을 개척한 김진사

① 개요

조선 헌종 때 우도를 개척한 진사 김석린(金錫麟)이 우도에 들어가게 된 사연을 다룬 전설이다.

② 내용

김석린(金錫麟)은 경주김씨로 제주시에서도 훌륭한 가계를 자랑한다. 김석린은 청운의 뜻을 품고 한양의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성균관에 입학한 김석린은 신판관(申判官)의 집에 방을 얻어 숙식하며 면학하였다.

그때 김석린은 신판관의 딸과 눈이 맞아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신판관의 딸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 김석린은 이 때문에 대과급제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당시 고향에는 그를 기다리던 처자가 있었다. 김석린의 마음은 복잡하여 사람이 없는 곳으로 숨어살고 싶었다. 그래서 우도에 가보니, 우도는 섬 전체가 암산(巖山)이 아니고 평평한 초지여서 우도에서 살기로 결심하였다. 상경하여 임금님을 배알하고 우도를 훌륭한 목장으로 만들고자 하니 허락해 주십사 말씀을 올렸다. 임금인 철종은 김 진사의 인물과 의지에 탄복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개척하고 그 섬을 지키라고 분부를 내렸다.

우도 기경(起耕) 허가를 받은 김석린은 신씨 부인과 함께 우도로 들어갔다. 지금의 영일동 서남쪽 '진사터'에 마련하고 음료수가 될 수 있도록 봉천수를 받기 위해 '진사통'을 팠다.

이후부터 우도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고, 초지가 개간되고 인가가 흩어져 오늘날(1973년 기준)의 11개 마을의 시초가 되었다.

③ 특징

김석린(1806~?)은 조선후기 우도 개척자로 제주 성안 출신이다. 1828년 생원시험에 합

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1842년 우도 개간 허가가 내려져 1844년 우도로 들어가서 개척자들을 격려하며 입경자(入耕者)의 자제들을 모아 훈학하였다.

이 전설은 김석린의 우도 개척 내력을 기술하면서 그 공적을 칭송하는데 치중하다보니 역사적 사실에 있어 다소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헌종 때의 우도 입경허가가 철종으로 바뀐 점, 이원조 목사의 계청(啓請)에 의해 이루어진 우도 입경허가가 김진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4 핵심어

김진사, 김석린, 진사통, 개척, 우도, 신씨 부인, 신판관

5 원전 서지사항

섬을 개척한 김진사(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국문학보》제5집, 1973)

6 관련 자료

C_L_079 쇠죽은못〔牛死池〕(Ⅱ)

1 개요

애월읍 하가리에 살던 과부가 천여 평의 밭을 하루에 급히 다 갈고 갈증이 있는 소를 끌고 못으로 가 물을 먹이던 중 소가 죽었다는 데서 이 못을 소죽은못이라 한다는 지명 전설이다.

2 내용

애월면 하가리에 과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다. 하루는 일꾼을 빌어 천 여 평 되는 밭을 갈기로 하였다. 과부는 일꾼에게 아침식사를 대접하고 점심도 광주리에 담아주면서 밭 갈러 보냈다.

과부는 점심 때 쯤 얼마나 밭을 갈았는지 확인하러 가보니, 일꾼은 보이지 않고 쟁기에 밥이 담긴 광주리만 매달려 있었다. 한 참을 찾았더니, 일꾼은 나무 그늘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화가 난 과부는 직접 소를 몰아 밭을 갈기 시작해서, 날이 저물기 전 일을 마쳤다.

숨 가쁘게 일을 마친 과부도 목이 마르고, 소에게도 물을 먹여야 했기에 물가로 갔다.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보니 소가 그 자리에 쓰러져 그대로 죽어버렸다. 갑자기 너무 많은 물을 마신 탓이었다. 그 뒤부터 이 물을 소죽은못[牛死池]라 했다.

3 특징

제줏말로 기록된 자료들을 보면 '쉐죽인못' 또는 '쇠죽은못', '소죽은못' 등으로 기록하고, 현지 조사를 해 보면 '쉐주기' 또는 '쉐주깃못'이라 하는 것을 볼 때, 본디 이름은 '쉐주기'나 '쉐주기못, 쉐주깃못' 등으로 불렸을 것을 추정된다.

그런데 '쉐주깃못'을 '쉐죽인못'을 인식하면서 '쇠죽은못' 또는 '소죽은못'으로 전하면서 '소가 (물을 먹다가) 죽은 못' 또는 '소에게 (물을 먹이다가) 소을 죽게 한 못'으로 인식하여 전하게 된 듯하다.

4 핵심어

하가리, 쇠죽은못, 우사지(牛死池), 과부, 소, 농사, 밭, 물

5 원전 서지사항

쇠죽은못〔牛死池〕(Ⅱ)(제주도,《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소죽은못(Ⅰ)(김영돈 · 현용준 · 현길언,《제주설화집성 (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소죽은못(Ⅱ)(김영돈 · 현용준 · 현길언,《제주설화집성 (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소죽은못(진성기,《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쇠죽은못(현용준,《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쇠죽은못〔牛死池〕(1) (제주도,《제주도전설지》, 1985)

쉐죽은못 (《한국의 발견 제주도》, 뿌리깊은나무, 1983)

C_L_080 수영악(水靈岳)

1 개요

남원읍 수망리 북쪽에 있는 수영악(水靈岳: 물영아리)와 관련된 지명 전설이다.

2 내용

남원읍 수망리 북쪽에 수영악(물영아리)이라는 오름이 있다. 꼭대기에 분화구가 있고, 그곳에 물이 고여 연못을 이루었다. 이 오름 북쪽에 있는 오름은 물이 고여 있지 않아서 여믄영아리(염은영아리)라 하고, 이 오름에는 물이 고여 있어서 '물영아리'라 했다.

수망리에 처음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할 때, 소를 놓아 먹이던 젊은이가 소를 잃어버려서 헤매다가 이 오름 꼭대기에 이르러서 쓰러졌다.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소값으로 이 오름 굼부리에 못을 만들어 놓을테니, 소를 부지런히 키우면 궁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눈을 떴더니 날이 저물어 있었다.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데도, 이상하게 옷은 하나도 젖지 않았다. 천둥소리와 번갯불이 번쩍이던 사이에 정신을 잃었다. 뒷날 아침에야 정신을 차렸더니, 날이 개어 있었다. 산꼭대기 넓게 패어 있고, 거기에 물이 차서 출렁거리고 있었다. 젊은이는 마을로 내려와 이 사실을 알리고, 부지런히 소를 쳤다. 그 뒤부터 이 오름을 물영아리라 부르고,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3 특징

'물영아리' 이야기로도 알려져 있다.

4 핵심어

수영악, 물영아리, 여믄영아리(염은영아리), 젊은이, 수망리

5 원전 서지사항

수영악(水靈岳)(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081 수월봉(녹고ᄆᆞ루)

1 개요

한경면 고산1리 바닷가에 있는 수월봉(녹고ᄆᆞ루)과 관련된 지명 전설이다.

수월봉은 고산리 바닷가에 있는 높은 동산으로 '녹고ᄆᆞ루'라고도 한다.

2 내용

350여 년 전 한경면 고산리에 수월이라는 처녀와 녹고라는 총각 두 남매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홀어머니가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고, 병세가 점점 심해갔다. 여러 약을 써 봤으나, 효과가 없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백 가지 약초를 적어 주면서, 그것을 달려 먹이면 병이 낫는다고 했다.

수월이와 녹고가 백방으로 다니면서 아흔 아홉 가지 약초를 구했으나, 한 가지를 구하지 못했다. 그 약초는 오갈피인데, 높은 바위나 산비탈에서 자란다고 했다. 바닷가 높은 동산을 살피다가 오갈피를 발견했는데, 절벽 가운데쯤에 있었다.

수월이가 녹고의 팔을 잡고 절벽으로 내려가 약초를 캐고 녹고에게 주니, 남매는 기뻐서 서로 팔을 놓아버렸다. 그 순간 수월이는 절벽 밑으로 떨어져버리고, 녹고는 넋을 잃고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다. 그 자리에서 녹고는 바위로 굳어지고, 녹고의 눈물은 샘물이 되어 솟아나오고 있다. 후에 이 동산을 녹고물오름, 물나리오름, 녹고ᄆᆞ루, 수월봉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3 특징

효성이 지극한 남매 수월이와 녹고와 관련된 지명 전설이다. 사람에 따라서 '녹고ᄆᆞ루, 녹고물, 녹고물오름, 물나리오름' 등과 관련된 전설이라고 한다.

고산1리 바닷가에 있는 수월봉과 관련된 지명 전설. '녹고물'과 '녹고물오름'에서 확인되는 '녹고'는 고지도에서 확인되는 高山(고산) 또는 高丘山(고구산) 등의 한자차용표기의 본디 소리인 '높구메'의 변음으로 실현된 것으로 추정된다. 水月峰(수월봉)은 '수월이오름'의 한자차용표기로 추정된다.

4 핵심어

수월이, 처녀, 녹고, 총각, 수월봉, 녹고ᄆᆞ루

5 원전 서지사항

수월봉(녹고ᄆᆞ루)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수월봉과 녹고물 (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C_L_082 신대정원

1 개요

조선 고종 때 제주 판관 신재우가 한경면 용수리 절부 고씨를 위해 정려(旌閭)를 대신하여 절부암(節婦岩)에 석각(石刻)을 새기게 된 사연을 담은 전설이다.

2 내용

대정원 신재우는 조천리 출신 양반이었다. 신대정원이 대정원 직책을 맡기 전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지만 그때마다 될 듯 될 듯하면서 합격되지 않았다. 남대문 앞 점쟁이에게 점을 쳐보니, 머릿속에 열녀의 혼이 들어 있어 낙방한다는 것이었다. 신제우가 열녀의 혼을 해혼(解魂)시키겠다고 기도를 했다. 과연 며칠 후에 치러진 과거에 급제하고 원의 직함을 받고 대정원으로 부임하였다.

신제우는 부임하자마자 각 마을의 열녀를 조사하게 하고, 그 중에 용수리 절부암에서 죽은 열녀의 혼이 아직 해혼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신제우는 절부암(節婦岩)이라 써서 열녀비를 세우고 자본을 내놓아 삼월보름날마다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축문까지 써주었다. 이렇게 해서 절부암 열녀의 혼이 해혼 되었다 한다.

3 특징

신재우(1840~1903)는 조천읍 신촌리 태생으로 1862년 제주찰리어사 이건필이 내도하여 과거를 실시할 때 합격하고, 이듬해 서울에서 치러진 정시(庭試)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사헌부지평 등을 역임하고, 1866년 10월 전라도 장성의 청암 찰방으로 재임 중 제주 판관으로 제수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절부암 마애석각의 주인공 제주 고씨는 1853년 강사철과 혼인하였다. 그해 11월 13일 차귀도에 대나무를 베러갔다 남편이 바다에 빠져 죽자 11월 15일 절부암에 있는 후박나무에 스스로 목을 매어 남편의 뒤를 따랐다. 그런데, 고씨가 목을 매어 자결한 3일 후인 11월 18일 기적(奇蹟)이 일어났다.

강사철의 시신이 고씨 부인이 목을 맨 엉덕동산 아래에 떠올랐다. 신재우는 벼슬살이를 하다 돌아온 다음 해인 1867년 절부 고씨와 강사철의 합장묘에 비문을 지어 세우고, 절부암 석각을 새겼다.

이후, 1898년 6월 7일 대정군수 신재우는 '절부고씨 분향설치 권선록(節婦高氏 焚香設

置 勸善錄)'을 짓고 스스로 먼저 50냥을 내놓고, 소속관원의 의연금을 합쳐 70냥을 용수리와 고산리 두 마을에 나누어주면서 매년 음력 3월 15일에 절부 고씨를 위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이 전설은 이러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핵심어

신대정원, 신재우, 절부암, 절부 고씨, 강사철, 조천리, 용수리, 정려, 해혼

5 원전 서지사항

신대정원(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용수 절부암(진성기, 《남국의 전설》, 교학사, 1981)

절부암(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C_L_083 신칩[申宅] 며느리 홍할망

1 개요

애월읍 광령2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힘센 장사 홍할망 이야기이다.

홍할망은 여성 장사이다. 힘이 세서 늦게 결혼을 하였으나 그 덕분에 좋은 묏자리를 얻어 잘살았다는 이야기이다.

2 내용

홍할망이 힘이 너무 세어서 과년하도록 시집을 못가고 있다가 24세가 넘어 신씨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었다. 아주 가난해서 마를 파러 갔는데 장사지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만 먹고, 홍할망에게는 음식을 주지 않자 돌을 던져 힘자랑을 하고 얻어먹고는 달구를 해 주기도 했다. 또 같은 묏자리를 가지고 다투게 되었을 때도 힘으로 물리쳐서 그 곳에 장사를 지냈다. 그 후 집안이 잘 되었다.

3 특징

여성 장사 설화와 풍수설화가 결합되어 있다. 힘이 센 홍할망은 힘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였으나 결국 힘 덕분에 좋은 묏자리를 얻어 발복하게 된다.

4 핵심어

세우리동산, 신칩[申宅]의 며느리, 홍할망, 힘, 우엥이, 광산 김씨

5 원전 서지사항

신칩[申宅] 며느리 홍할망(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C_L_084 심돌 강씨(姜氏) 할망

1 개요

성산읍 시흥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힘센 장사 강씨 할머니가 듬돌을 든 이야기이다.

2 내용

힘이 센 강씨 할망이 성산읍 시흥리에 살았다. 하루는 새벽에 물을 길러 길을 지나다가 듬돌이 발에 채이니 들고 밭에 던져버렸다. 마을 청년들이 듬돌을 밭에 던져버린 사람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청년들이 듬돌을 밭에서 꺼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강씨 할망이 보고 우스워서 듬돌을 번쩍 들어 길거리에 내던졌다고 한다.

3 특징

힘이 센 여성 장사설화이다. 마을 청년들 간의 자존심이 걸린 힘겨루기의 핵심인 듬돌의 이야기가 아주 힘이 센 여성 장사설화로 전승되고 있다.

4 핵심어

성산읍 시흥리, 심돌, 부 씨, 강 씨 할망, 들음돌, 듬돌, 여성장사

5 원전 서지사항

심돌 강씨(姜氏) 할망(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지붕 위의 남자(도평의 여장사)(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7집, 2001)

C_L_085 씨름판 어부들과의 싸움 사건

1 개요

일제강점기 때 성산면 면민과 일본인 어부들 간의 싸움 사건을 다룬 전설이다.

2 내용

모년 음력 4월 16일 정의면(旌義面) 중앙청년회 주최로 성산면 면민대운동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면민뿐만 아니라 성산에 기항하고 있는 건착선 선원 수백 명이 참가했었다. 씨름 결승전에서 고성리 오신표(吳信杓)가 뱃놈을 눕혔는데, 뱃놈들이 심판에 불복하고 검질(건초) 단에 불을 붙이는 등 행패를 놓기 시작했다.

오조리(吾照里) 출신 고승운(高承雲)이 뱃사람 셋을 때려눕히자 뱃사람들이 달아났고, 이 사건으로 뱃사람과 일인(日人) 여럿이 죽었다. 사람들이 죽자 사건이 확대되어 일본 경비선이 출동하고 형사들이 깔려 사건에 연루된 여러 사람이 광주형무소에 잡혀갔다. 당시 온평리(溫坪里) 출신 정의중앙청년회장 오은삼(吳殷三)이 재판을 할 때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런 놈들을 그냥 뒀으면 면이 망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3 특징

1927년 4월 학교 운동회장에 고기 잡는 왜인(倭人)들이 난입하여 무인지경으로 방자하였다. 이때 고은삼(高殷三) 등 화가 난 청년들이 몽둥이로 때려 물리쳤다. 이때 왜인 두 사람이 죽었다.

이 전설은 일제강점기에 발생했던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화자(話者)의 직접적인 목격담이 반영되고 있다.

4 핵심어

면민대운동대회, 오신표, 고승운, 오은삼, 씨름판, 어부, 뱃사람, 성산면, 정의면 중앙청년회

5 원전 서지사항

씨름판 어부들과의 싸움 사건(오성찬, 《제주의 마을 고성리》, 도서출판 반석, 2001)

6 관련 자료

청년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오주언(吳周彦)이 투옥되다(성산읍 신풍리, 《냇가의 풍년마을》, 2006)

C_L_086 아흔아홉골(영실)

1 개요

제주시 해안동 남쪽에 있는 아흔아홉골과 관련된 전설이다.

2 내용

제주시 해안동 위쪽에 아흔아홉골이 있다. 크고 작은 골짜기가 마치 밭고랑처럼 무수히 뻗어 내렸다. 골짜기가 아흔아홉 개 있다고 해서 아흔아홉골이라 부른다.

골짜기 하나가 더 있어서 백 골이 되었다면, 제주도에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가 나고, 장군이나 임금이 날 수도 있었는데, 한 골이 모자라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

옛날에 백 골이었을 때, 맹수가 많았다고 한다. 그때 중국의 한 스님이 제주에 와서 맹수를 없앤다고 하면서, '대국 동물대왕 입도(入島)'를 외치라고 했다. 백성들이 그 말을 외쳤더니 맹수들이 백 골에 모여들었다. 그리곤 스님이 다시 "너희들은 살기 좋은 곳으로 가라! 이제 너희들이 나온 골짜기는 없어지리니, 만일 너희들이 또 오면 종족이 멸하리라."라고 외쳤다. 그러니 맹수들이 사라지면서, 골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 그 뒤 제주에는 맹수가 없고, 골도 하나 없어졌다고 한다.

3 특징

4 핵심어

아흔아홉골, 영실, 스님, 골, 호랑이, 사자, 맹수, 해안동

5 원전 서지사항

아흔아홉골(영실)(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오백장군(영실)(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C_L_087 여우물

1 개요

서귀포시 호근동 아래쪽에 있는 여우물과 관련된 전설이다.

2 내용

서귀포에서 법환에 이르는 사이에 여우물이 있는데, 늘 여우가 나타나서 '여우물'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 관리가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게 되었다. 비가 내리는 밤에 혼자 지나가는 여자를 만났다. 여자가 먼저 관리에게 벗해서 가자고 하자,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했다. 관리는 그 여자를 말 앞자리에 태우려고 하자, 뒷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보통 여자가 아니고 여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여자를 뒤에 태우고, 말이 마구 달리니, 여자가 천천히 가자고 애원했다. 관리는 바쁘다고 하고는, 도포고름을 풀어 여자를 자기 몸에 꽁꽁 묶고는, 말에 채찍질을 가했다. 마을에 들어서자 여자가 내려달라고 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내달리니 여우인 여자가 관리 등에서 몸질을 쳤다.

관리는 말을 달려 집으로 들어섰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동여매었던 끈을 푸니, 여자가 휙 나동그라졌다. 그러자 관리의 집에서 키우던 개가 그 여자를 물어 흔들었다. 결국 여우로 변하며, 피를 흘리고 마당 가운데로 나동그라졌다. 관리는 그렇게 여우를 잡았다. 그 뒤부터 여우물에는 여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3 특징

4 핵심어

호근리, 여우물, 여인, 여자, 관리, 선비, 개, 여우

5 원전 서지사항

여우물(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여우물(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여예물(여우물)(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C_L_088 연화못

1 개요

애월읍 하가리에 있는 연화못과 관련된 전설이다.

2 내용

애월읍 하가리 남쪽에 연화못이 있다. 하가리가 설촌 되기 전에는 산림지대였다. 고려 충렬왕 때 홍통구라는 도적이 이곳에 들어와 살면서 도적질을 일삼았다. 한 여인이 잡혀 가서 하녀로 살았다.

목사 겸 판목사인 이원황이 부임한 뒤, 이런 사연을 듣고 군사들을 끌고 가 토벌했다. 그 뒤 그 일대를 불태워버리고, 집터를 못을 만들어버렸는데, 그 못이 연화못이다. 여인도 싸움 때 죽임을 당했다. 관청에서는 이 여인에게 뚝이라는 직함을 내리고, 향교 제신으로 모셨다.

연화못 가운데 육각정이 있는데, 이 정자를 지을 때 연못을 파니 불에 타나 남은 나무들이 나왔다고 한다. 조선 세종 때 하가리가 설촌되자, 연못 주변에 돌과 흙을 쌓아 우물을 만들고, 연꽃이 자생하자 연화지(蓮花池)라 했다.

제주 목사 한응호(韓應浩)가 하가리 사람 양씨를 시켜 연꽃을 보호하도록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도사(島司)가 송어, 초어(낙지), 자라, 미꾸라지 등을 기르게 하면서 연(蓮)이 없어졌다. 그 뒤 다시 심어서 지금은 연이 많다.

3 특징

4 핵심어

하가리, 연화못, 여인, 연화지(蓮花池), 뚝, 한응호(韓應浩), 이원황, 일제강점기, 연꽃, 도사(島司), 홍통구, 도적

5 원전 서지사항

연화못(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연하못(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연화못(김영돈 · 현용준 · 현길언, 《제주설화집성(Ⅰ)》,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089 열녀 김천덕

1 개요

조선 선조 때 애월읍 곽지리 출신 김천덕(金天德)이 열녀로 정려(旌閭)된 내력을 다룬 전설이다.

2 내용

김천덕은 곽지 사람으로 사비(寺婢)였다. 그의 남편 곽연근(郭連根)은 배를 잘 다루어 소문이 삼읍에 퍼졌다. 그래서 관청에서는 중국에 바칠 진상선을 실어가는 책임자로 임명하게 되었다. 진상물을 실은 곽연근의 배가 화탈도(火脫島) 근처에서 침몰되어 김천덕은 과부가 되었다.

하지만 김천덕은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며 매년 명절 때에는 밥상을 차려놓고 화탈도를 향해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한편 명월진의 여수(旅帥)는 김천덕의 아버지 김청(金淸)을 꾀여 김천덕을 아내로 삼으려 하였다. 김천덕은 자신이 혼인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아직도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올 것이란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매일 정한수를 떠놓고 바다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는 김천덕을 보고 지나가던 목마른 선비가 마실 물을 청했다. 김천덕은 급히 마시면 체할까 하여 버드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 위에 띄워주었다.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고운 걸 알고 그 선비는 김천덕에게 함께 살자고 애원했다. 김천덕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와 목을 매고 죽고 말았다. 그 후 임제(林悌)가 김천덕전(金天德傳)을 지었고, 선조 10년(1577) 제주 목사에 의해 열녀라는 칭호를 받았다.

3 특징

1577년에 제주에 왔던 백호(白湖) 임제(林悌)가 지은 김천덕전(金天德傳)에는 김천덕(1514~?)이 과부가 된 이후 귀양을 온 자가 김천덕을 꾀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그 자가 거짓으로 관가에 알려 곤장 80대를 맞게 하려고 했다. 김천덕이 옷 한 벌과 소 한 마리, 무명 30필을 주어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또한 명월진의 여수가 김청(金淸)을 꾀여 몰래 아내로 삼으려 한 사실을 뒤늦게 알자

목을 매고 죽으려고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이후 머리카락을 자르고 미친 척하니 아버지도 더 이상 혼인을 강요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김천덕의 전설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話者)에 따라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전설은 명월진 여수의 꾐에 넘어가 아버지 김청이 딸인 천덕을 혼인시키려 하자 그 사실을 안 김청이 머리를 깎아 중이 되고 이후 목을 메어 자결한다는 내용이다.

4 핵심어

김천덕, 김청, 임제, 김천덕전, 곽연근, 배, 열녀, 정한수, 화탈도, 곽지리

5 원전 서지사항

열녀 김천덕(오성찬, 《제주의 마을 곽지리》, 도서출판 반석, 2002)

6 관련 자료

C_L_090 열녀 부씨의 처

1 개요

조선시대 남원읍 의귀리 부씨의 처가 열녀로 정려(旌閭)된 사연을 다룬 전설이다.

2 내용

조선시대 남원읍 의귀리에 미모가 뛰어난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싸움터에 나아가 죽어 과부가 되고 말았다. 하루는 남편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의 장교가 공무로 마을에 들렀다가 과부를 보고 한 눈에 반해버렸다.

장교는 기회를 엿보다가 과부에게 달려들어 같이 살자고 요구하며 과부의 한쪽 손목을 붙잡았다. 과부는 먼저 손목을 놓으면 요구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장교가 손을 놓자 과부는 재빨리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도끼를 들고 나와서 한 번 정한 배필을 어길 수 없다고 하고, 장교에게 잡혔던 손목을 자르고 자결해 버렸다. 이 소문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 열녀 정문이 내렸다.

3 특징

이 전설의 주인공이 실존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과부가 스스로 손목을 잘라버렸다는 이야기는 조천읍 조천리 '열녀 국지' 전설의 갈래 중 하나로 확인된다.

열녀 국지의 경우, 미색을 탐하는 남자들을 피해 남편의 고향마을에 거주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와 미색을 탐하는 남자가 손을 잡자 손목을 잘라버렸다는 두 갈래의 이야기가 전한다.

애월읍 곽지리 김천덕의 경우는 과부가 된 딸을 탐하는 명월진 여수(旅帥)에게 아버지가 혼인시키고자 하는 사실을 김천덕이 알고 목을 메고 자살하려고 했지만 주변사람들이 말려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가 자신을 탐하는 남자 때문에 스스로 자결한 이야기, 머리카락을 자르고 미친 척하니 아버지도 더 이상 혼인을 강요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 등 두 가지로 전해온다.

이 전설 또한 열녀의 행적이 있는 과부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열녀로 정형화되어 전해온다.

4 핵심어

의귀리, 열녀 부씨, 손목, 열녀 정문, 장교, 과부

5 원전 서지사항

열녀 부씨의 처(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64)

6 관련 자료

C_L_091 열녀 국지

1 개요

조선 인조 때 열녀로 정려(旌閭) 된 사비(私婢) 국지(國只)의 이야기이다.

2 내용

국지는 조천읍 신촌리에 살던 처녀였다. 어느 날 우물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미남인 고관이 길을 지나다가 물을 한 그릇 달라고 했다. 국지는 그 고관에게 마음이 끌렸다. 얼굴을 붉히며 물바가지에 버드나뭇잎을 훑어 놓아 고관에게 올렸다. 고관이 버드나뭇잎 띄운 것을 책망하자, 갈증에 급히 마시면 체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다고 했다. 고관은 칭찬하며 국지의 손을 꼭 잡아주고는 훌훌 지나가 버렸다. 처녀는 사모의 정으로 명주로 손을 싸서 일생동안 풀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고관을 그리워하며 홀로 일생을 살다가 죽었다. 이 말이 나라에까지 전해져서 열녀비가 내려졌다.

3 특징

1653년 편찬된 『탐라지』에는, "사비(私婢) 국지(國只)는 품관(品官) 홍질(洪質)의 첩이다. 젊어서 남편을 잃었다. 사람들이 그녀의 재산과 미모를 탐하여 호세(豪勢)로 위협하는 자가 많았다. 하지만 국지는 그가 생계로 삼던 일을 버리고 남편의 일가로 거처를 옮겨 살며 평생토록 절개를 지켰다. 숭정 7년(1634)에 정문(旌門)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이후 1834년경에 편찬된 『효열록』의 내용도 비슷하다. 이 전설은 사료의 기록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주인공의 이름만 빌려 전해온다.

4 핵심어

국지, 열녀, 신촌, 고관, 버드나뭇잎, 우물

5 원전 서지사항

열녀 국지(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092 영산이골

1 개요

성산읍 난산리 통오름 자락의 '영산이골'에 곡산 강씨 선조의 묘소가 자리하게 된 사연을 다룬 전설이다.

2 내용

성산읍 난산리 '통오름' 옆에 '영산이골'이라 일컫는 골짜기가 있다. 골짜기의 이름이 붙여진 내력은 다음과 같다.

옛날 오조리(吾照里)에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부친이 돌아가자 우선 출빈(出殯)을 해 놓고, 지관(地官)을 청해와 묏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100여 일을 헤매 다녀도 적당한 자리를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집에 마소를 돌보는 영산이라는 목자가 자신이 봐 둔 곳이 있으니 한 번 가보자고 청하여 주인과 지관을 안내하였다. 지관이 영산이가 안내한 곳을 살펴보니 과연 명당이었다. 주인이 기뻐 그 자리에 부친을 안장하니 명당자손들이 곧 태어나는 듯했다.

세월이 흘러 그 집에서 평생 종살이를 하던 영산이가 죽자, 그 주인집에서는 선조의 묏자리를 찾아준 공적을 생각하여 그 선조의 묏자리 옆으로 가서 묻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은 묘제를 지낼 때 영산이 묘에도 꼭 묘제를 지내오고 있다. 그래서 그 지경을, 영산이가 본 묏자리가 있고, 또 그의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이라 하여 '영산이골'이라고 한다.

3 특징

영산이는 성산읍 곡천강씨 집안에서 종으로 살았던 조선후기 실존 인물이다. 이 전설은 조선후기 제주에 유교식 장례 풍습이 정착되면서 이와 더불어 음택풍수가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핵심어

영산이, 영산이골, 통오름, 성산읍 난산리, 골짜기, 묏자리

5 원전 서지사항

영산이골(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093 영주산과 무선돌

1 개요

성산읍 난산리 동남쪽의 영주산 아래에 있는 무선돌 관련 지명 전설이다.

2 내용

난산리 동남쪽 2㎞ 떨어진 곳의 영주산 아래에 무선돌이라는 큰 바위가 있다. 영주산은 여자가 앉아 있는 모습이고, 무선돌은 남자의 모습을 닮았다.

옛날 부잣집 딸과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총각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효성이 지극한 총각이 나무를 해오다가, 허벅에 물을 길어서 가는 처녀를 본 뒤, 그 처녀 생각만 했다. 그 뒤 총각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불효자 소리를 듣게 되고, 심지어는 정신병자처럼 행동했다.

어느 겨울날, 홀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동네에서는 더욱 총각을 비난했다. 심부름을 갔다 오던 처녀가 총각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던 중, 처녀의 아버지에게 들켜버렸다. 평소 총각을 못마땅해오던 처녀의 아버지는 처녀를 내쫓아버렸다. 그 후 처녀는 총각과 살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어서 마을을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총각과 처녀는 각각 산과 바위로 변해버렸다. 처녀는 영주산이 되고, 총각은 무선돌이 돼버렸다.

총각은 홀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 죄로 무선돌이 되어, 산이 된 처녀만 쳐다보는 상태가 되었다. 처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마을의 처녀 총각을 보살펴주는 수호신으로서 산이 되었다.

3 특징

효도를 다하지 못한 총각과 마을을 떠나 살려는 처녀가 산이 되고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다.

이 전설에 등장하는 영주산은 지금 성읍리에 있는 영주산을 이르고, 무선돌은 영주산 남쪽 봉우리에 있는 돌을 이른다고 한다.

4 핵심어

처녀, 총각, 영주산, 무선돌, 난산리

5 원전 서지사항

영주산과 무선돌(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영주산과 무선돌(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 제7집, 1982)

C_L_094 오리수

1 개요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오리수와 관련된 지명 전설이다.

2 내용

남원읍 수망리 서쪽 내에 오리수가 있다. 이 오리수물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는데, 윗물은 식수로, 아랫물은 마소용이나 빨래용 등으로 썼다.

옛날 구산(求山)에 미쳐 재산을 거의 날린 집안이 있었다. 그 집 큰아들은 그날도 아침 일찍 부친의 묏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길가에 앉아 쉬다가 깜박 잠이 들었다. 꿈에, 앉은 자리에 묘를 쓰면 당대에 제주 목사가 날 것이라는 노인의 음성이 들렸다. 조심할 것은 하관할 때 솜으로 귀를 틀어막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바꾸지 말고 장사지내라고 했다.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이장하는 날 솜으로 귀를 틀어막고, 장사를 지내려는데, 하관 자리에 큰 바위가 있었다. 두 동생이 바위 위에 아버지를 장사지낼 수 없다고 했으나, 형은 노인의 말만 생각했다. 그러다가 일꾼들이 뭐라 하는 것 같아서 귀를 막았던 솜을 빼 버렸다. 그러자 동생들이 소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바위를 들어내고 장사지내기로 했다.

일꾼들이 바위를 들어내려니, 오리 두 마리가 바위 아래에서 날아오르더니 수망리 앞 내의 오리수로 와 앉았다. 그 자리에 장사를 지냈으나, 집안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큰형이 오리가 날아든 곳을 찾으려 애썼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 뒤 그 물을 오리수물이라 했다.

3 특징

사람에 따라서 '올리소, 올리수, 오리소, 오리수물' 등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4 핵심어

오리수, 오리수물, 수망리, 구산, 꿈, 묘, 장사 일꾼, 오리

5 원전 서지사항

오리수(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095 오별장(吳別將)

1 개요

표선면 토산1리에서 전해 오는 오별장 이야기이다.

2 내용

표선면 토산리에 한 눈에 동공이 둘인 오별장이라는 영웅이 태어났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있어 무서운 사람이었다. 하루는 정자 앞에 말을 탄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오별장이 쳐다만 보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또 동네 사람이 오별장의 선묘 옆에 묘를 써도 되냐고 물으니 자신의 선묘에서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쓰라고 했다. 그렇게 그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었다.

오별장이 태어나게 된 것은 선묘의 자리가 명당이기 때문인데 훌륭한 자손이 태어나면 선묘를 이장하라는 지관의 말을 듣지 않아 오별장 집안은 망하고 말았다.

3 특징

선묘의 자리를 명당에 써서 오별장이라는 영웅이 태어났지만 이장을 하라는 말을 듣지 않아 집안이 망해버렸다는 풍수설화이면서 이인전설이다.

4 핵심어

표선면 토산1리, 오별장, 풍수, 지관, 눈, 하마, 명당, 동공

5 원전 서지사항

오별장(吳別將)(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무우남밭 이좌수(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범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096 오찬이궤

1 개요

대정읍 무릉2리 들판에 오찬이궤라는 굴이 있는데, 오찬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궤라는 데서 붙인 지명전설이다.

2 내용

오찬이라는 사람은 힘도 세고, 머리도 좋은 사람으로, 도둑질을 했다. 민가에서 곡식도 훔치고, 면화 따위도 훔쳤다. 정운디라는 사람이 힘이 센 막산이를 잡자, 대정현감이 오찬이도 잡아오라고 했다.

오찬이는 일본식 조총으로 부기를 갖추고, 30여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서 마을을 습격하고 다녔다. 정운디가 오찬이를 잡으려고 오찬이궤로 갔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워 오찬이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려고 왔다고 하여 허락을 받았다. 대정현감과 약속하기를 며칠 간 오찬이 밑에서 기회를 살피다가, 아무 날 아무 시에 복병과 함락하기로 한 것이었다.

오찬이가 도둑질을 나갔다가 처녀 한 사람을 데려와 부인으로 삼았다. 한 달쯤 뒤에 총과 칼로 무장한 ᄉᆞ장들이 오찬이궤 주변에 매복하였다. 정운디는 한 달여를 살면서 오찬이궤 안에 있는 총들을 모두 밖으로 옮겨 놓아야만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약속한 날에 오찬이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도둑질을 해 와서는 돼지를 잡고 술을 마셨다. 모두 술에 취해 곯아떨어지니, 정운디는 굴 안의 총을 모두 밖으로 옮겨 놓고, 숨어 있는 ᄉᆞ장들에게 신호를 보내 굴 입구를 막아, 오찬이 일당을 사로잡았다. 오찬이는 사형시키고, 부하들은 몇 년씩 징역을 살게 했다.

그 뒤 대정고을에는 도둑 피해를 입지 않았다. 정운디가 죽자 대정읍 동일리에 방묘로 매장했다. 어느 날 농부가 정운디 묘 옆을 지나다가, “닥밧 정운디도 계략이 뛰어나 막산이와 오찬이를 잡았지만 죽은 뒤에 땅에 드니 그것이 끝이로구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운디의 혼이 이 농부를 혼나게 했다. 점쟁이를 찾으니, 정운디에게 용서를 빌고 굿을 해서 살아났다고 한다.

❸ 특징

오찬이궤에 살았던 도둑 오찬이를 물리친 전설과 계략이 뛰어났던 정운디와 관련된 전설이다.

❹ 핵심어

오찬이, 오찬이궤, 정운디, 대정현감, 농부, ᄉᆞ장, 막산이

❺ 원전 서지사항

오찬이궤(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❻ 관련 자료

오찬이궤(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C_L_097 오찰방

① 개요

조선 후기 벽사찰방(碧沙察訪)을 지낸 대정읍 인성리 출신 오영관(吳榮冠)에 관한 전설이다.

② 내용

대정고을에 오찰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오찰방을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소 아홉 마리를 먹어 낳았기 때문에 힘이 장사였다고 한다. 어느 날 마소에게 먹이를 먹이려고 들에 나갔던 오찰방은 밭에 들어가 곡식을 마구 먹는 말을 한번 메어 쳤는데 그 말이 즉사해 버렸다.

아버지가 제주 제일가는 상마를 죽여 버렸다고 화를 내어 담뱃대로 때리려고 하자 오찰방은 산방산 꼭대기로 도망가 바다 쪽으로 뛰어 내렸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한탄하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들은 먼저 집에 와 있었다.

오찰방의 이러한 신기한 일거일동을 의심한 아버지는 아들의 겨드랑이에 병아리 날개만한 날개가 돋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대로 두면 역적이 되어 삼족이 멸할 수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고합주 한 동이를 먹이고 오찰방의 날개를 지져버렸다. 오찰방은 잠에서 깨어 날개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몇날 몇일을 통곡한 후에야 날개를 자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다.

이후 대정고을 넓은팡이란 곳의 도적떼 40명을 별방의 변찰방과 함께 물리쳐 없애고 그 공으로 조정으로 불려갔다. 조정에서는 변찰방에게 찰방벼슬을 주고, 오찰방에게는 30일의 시한을 주어 구월산의 도적을 물리치고 오라는 명을 내렸다. 25일 만에 도적을 물리치고 돌아온 오찰방은 찰방 벼슬을 받고 많은 보화를 받아 귀향했다고 한다.

③ 특징

오영관(1694~1755)은 1722년 무과에 급제하고, 전라도 장흥 소재 벽사찰방을 역임하였

다. 젊은 때부터 용력이 대단하여 씨름판에서 독무대였고, 싸우는 두 소를 말리는 힘을 가졌다고 전한다.

이 전설은 오영관이라는 실존인물의 괴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의 태생을 날개 달린 아기장수로 설정하였다.

이후 그의 무과 급제에 따른 관직 진출에 대해 변방에서 올라온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인물이 혼자 도적떼를 물리침으로써 벼슬을 얻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여 재미를 더하였다.

4 핵심어

오찰방, 오영관, 날개, 대정고을, 날개 달린 아기장수, 벽사찰방, 넓은팡

5 원전 서지사항

오찰방(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64)

6 관련 자료

C_L_098 오찰방 누님

1 개요

대정읍에서 힘센 장사 오찰방과 오찰방 누님 이야기이다.

힘이 센 오찰방 누이가 사냥꾼인 김씨의 사냥을 도와주게 되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2 내용

오찰방 누이는 오찰방보다 힘이 셌다. 오찰방은 어머니가 소 아홉 마리를 먹고 태어났고 누이는 열 마리를 먹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누이가 열네 살 되던 해에 고사를 꺾으러 산에 갔는데 거기서 산돼지를 사냥하는 토평에 사는 김씨를 만난다. 김씨는 산돼지를 총으로 쏘아 사냥을 했는데 산돼지가 바로 죽지 않고 오찰방 누이에게로 달려 들었다. 누이는 아무런 힘든 기색 없이 한손으로 산돼지를 잡아 사냥꾼 김씨에게 준다. 김씨는 잡은 산돼지를 오찰방 누이와 나누지 않고 혼자 모두 차지하려다가 오찰방 누이에게 손목을 잡히게 된다. 오찰방 누이는 자신이 남자 손목을 처음 잡는 거라 당신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하고 열다섯 살이 되자 토평 김씨에게 시집을 간다.

3 특징

오찰방 누님은 여성 장사가 사냥꾼을 만나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제주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오찰방 이야기에서 오찰방 누이의 결혼이야기이다.

보통은 오찰방 누이의 이야기는 오누이 힘겨루기 정도만 덧붙여져 전승되는데 여기서는 오찰방 누이가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보통은 남자가 여자 손목을 잡아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여자가 남자 손목을 잡아 결혼이 성사되는 이야기이다.

4 핵심어

오찰방 누님, 오찰방, 서귀포시 토평동, 토평 김씨, 산돼지, 사냥꾼, 정의현

5 원전 서지사항

오찰방 누님(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099 오현단

1 개요

조선 숙종 때 사액된 귤림서원의 내력을 이야기한 전설이다.

2 내용

오현단은 제주시 이도1동 오현 학원 구내에 있다. 1577년 제주 판관 조인후가 창건한 김충암 선생의 묘(廟)가 그 첫 모습이었다. 그 자리는 가락천(속칭 가락쿳물) 동편이었다. 그 후 현종대왕 6년(1665)에 판관 최진남이 성남 장수당 북쪽(현재의 위치)에 묘를 옮겼다. 그 후에 송규암, 정동계, 김상헌 세 선생이 귀양으로 와 살았었고, 숙종 8년(1682)에는 하사금이 있었다 하며 그 16년(1690)에는 송시열 선생이 도래하였다.

형조판서였던 김충암 선생은 간신의 모략을 입어 정덕 14년 본도에 귀양 왔다. 가청 40년에는 벽보사건(낙서사건)에 혐의를 입은 송규암 선생이 귀양 왔다. 광해군 7년에는 간신의 술책에 속아 큰어머니를 가두고 8세 된 동생을 시살하는 등 어둡고 모진 정치를 하는 광해군에게 간언하다가 화를 산 참관 정동계 선생이 귀양 왔다. 다음으로 국정의 어지러움을 품하시던 김상헌 선생이, 숙종 15년에는 정실 왕비가 후궁의 간계로 폐위되어 고향이 여주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 부당함을 국왕에게 진언하던 송시열 선생이 본도에 유형 오게 되었다.

이 다섯 선생이 미개했던 제주 도민에게 유교경전을 가르치고 인륜을 밝혀 고량부 손자들에게 여러 가지 밝은 빛을 보게 하였다. 세월이 바뀜에 따라 사원은 허물어져갔다. 이에 뜻있는 여러 사람들이 옛 성현의 뜻을 이어 받고자 이 터전에 오현학원을 세웠다.

3 특징

오현단은 1871년(고종 8년) 귤림서원이 철폐된 이후 오현(五賢)의 위패를 모실 곳이 없게 되자 1892년(고종 29년) 제주 조천읍 출신의 선비 김희정(金羲正, 1844~1925)이 제주유림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오현의 위패 대신 조두석(俎豆石)을 세워 제사를 지내면서 생겨난 이름이다.

귤림서원은 1519년(중종 14년) 기묘사화로 인해 이듬해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1521년(중종 16년) 사사(賜死)된 충암(冲庵) 김정(金淨, 1486~1521)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578년(선조 11년) 제주판관 조인후(趙仁後)가 가락천 동쪽에 자리한 적거유허지에

충암사(冲庵祠)를 창건하여 위패를 모신 것에서 기원한다.

1660년(현종 1년) 이괴 목사가 현 오현단 자리에 학사인 장수당(藏修堂)을 짓고, 1665년(현종 6년)에 판관 최진남(崔鎭南)이 장수당 남쪽으로 충암묘를 이설하여 김정(1520년 제주 유배)을 비롯하여 송인수(1534년 목사)·김상헌(1601년 안무어사)·정온(1614년 대정현 유배) 등 4현을 봉향하여 서원의 규모를 갖추고 귤림서원이라 하였다. 이후 귤림서원은 1682년(숙종 8년) 사액 되었고, 1695년(숙종 21년) 송시열(1689년 제주유배)을 추향(追享)하면서 제주유림의 정신적 구심체가 되어왔다.

이 전설은 이와 같은 귤림서원의 기원과 그곳에 모셔졌던 다섯 현인이 제주에 오게 된 사연을 전하고 있다. 전설은 비교적 역사적 사실에 근접하여 전해지고 있는데, 하지만 김상헌과 관련된 내용은 좀 다르다.

김상헌은 당시 제주에서 발생한 길운절의 난을 다스리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어사로 다녀가서 오현의 한 분으로 추앙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반면 전설에는 그가 제주에 유배왔었다고 전해온다.

4 핵심어

오현, 오현단, 귤림서원, 제주시, 가락천, 김충암, 송시열, 김상헌, 귀양, 숙종, 조인후, 광해군, 고량부, 오현학원

5 원전 서지사항

오현단(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64)

6 관련 자료

C_L_100 오 훈장과 그의 서모 1

1 개요

조선 순조 때 정의서당 훈장을 지냈던 오봉조(吳鳳祚)와 그의 서모의 이야기이다.

2 내용

성산읍 오조리에 오봉조라는 훈장이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자랐다. 그 계모는 매우 현명하고 인자한 분이었다. 비록 계모였지만 자식교육에 대한 사랑은 그를 따를 어머니가 없을 정도였다.

계모는 본래 양반 가문이었지만 자식 교육을 위해 물질을 해서 번 돈으로 독선생(讀先生)을 청하여 봉조를 가리켰다. 하루는 마당에 보리를 널어두고 물질을 갔다가 소나기가 쏟아지자 보리를 담기 위해 허겁지겁 바다에서 집으로 달려왔다. 그런데 마당에 널어뒀던 보리가 멱서리에 담겨져 마룻바닥에 놓여있었다. 독선생과 봉조가 담아놓은 것이었다. 어머니가 독선생까지 모셔놓고 아들 교육에 힘쓰는데,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보리를 담았다고 꾸짖었다.

그 후 봉조는 계모의 질책에 더욱 분발하여 어디 가서 겨루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실력을 쌓았다. 그 당시 제주도는 변방에 위치한 섬이라고 해서 과거에 급제해도 현령 벼슬밖에 내려주지 않았다. 봉조도 예외는 아니어서 늘 한탄하고 있었다. 후에 제주에 부임한 황최언(黃最彦) 목사가 정의향교 옆에 서당을 만들어 봉조를 훈장으로 초빙했다.

3 특징

오봉조(1730~1815)는 어려서 모친을 여의고 계모인 청주한씨(淸州韓氏)에 의해 양육되었다. 여러 차례 문과에 응시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벼슬길에 나가지 못했다.

정의서당(旌義書堂) 훈장을 지내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문하생으로 전 현감(前縣監) 강성익(姜聖翊), 전 현감(前縣監) 고명학(高鳴鶴), 전 현감(前縣監) 부종인(夫宗仁) 등을 배출하였다. 「정의향교흥학발(旌義鄕校興學跋)」이 전한다.

이 전설은 입신출세를 위한 방편으로 유학(儒學)에 전념하던 조선 후기 제주 지역 교육 풍토의 일면을 보여준다.

4 핵심어

오봉조, 오 훈장, 서모, 황최언, 정의서당, 오조리, 독선생, 계모, 청주한씨, 정의향교흥학발

5 원전 서지사항

오 훈장과 그의 서모 1(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도훈장 오봉조(오성찬, 《제주의 마을 오조리》, 도서출판 반석, 1986)

오 훈장과 그의 서모(Ⅱ)(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C_L_101 오훈장과 정지관

1 개요

조선 순조 때 정의서당 훈장을 지냈던 성산읍 오조리(吾照里) 출신 오봉조(吳鳳祚)와 성산읍 고성리(古城里) 출신 정지관(鄭地官) 사이의 이야기이다.

2 내용

250여 년 전 성산읍 오조리에 오훈장이 있었다. 한학에 능하여 3읍 도훈장(都訓長)을 지내니, 제주목사도 무시 못 할 만큼 명성이 높았다. 오훈장은 또한 지리에도 능했다.

같은 시기 고성리에 유명한 정지관이 있었다. 지리로 말하면 정지관이 오훈장보다 훨씬 밝았다. 그러나 오훈장은 정지관을 어렸을 때 가르쳤기 때문에, 정지관의 지리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나무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

정의현(旌義縣) 안에서는 상사가 나면 으레 정지관과 오훈장을 청했다. 만일 오훈장에게 의논하지 않으면 자신을 깔보았다 여겨 오해를 받게 되기 쉽고, 그렇게 되면 3읍 도훈장인 오훈장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어느 해 난산리(蘭山里) 김씨 댁에 상사가 났을 때 그 집에서는 정지관이 정해 준 자리 대신 오훈장이 정해준 자리에 장사를 치렀다. 그리고 삼 년 안에 그 집안에 흉사가 자주 나서 큰 손해를 당했다. 그제야 김씨는 크게 후회했다. 이 말이 오훈장의 귀에 들어가자 정지관의 기를 죽이고자 오훈장은 정지관에게 시험 삼아 어머니 묏자리를 봐 달라고 했다.

정지관은 오훈장에게 어머니의 묏자리가 양시지지(養屍之地)라고 하여 옮기라고 했다. 묏자리를 파보니 과연 시체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눈을 뜨고 있었다. 이에 오훈장은 정지관에게 묏자리를 하나 봐 달라고 사정을 했다. 정지관이 '노공잇술'이란 곳에 가서 묏자리를 정해줬지만 오훈장은 자리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장사를 지내지 않았다.

이후 정지관의 모친이 죽자 그곳에 장사를 지냈다. 오훈장이 그때 가서 묘를 쓴 것을 보니 과연 좋은 자리였다. 그제야 오훈장이 정지관을 불러놓고 통꽃이를 내어 놓으며, "요 통꽃이로 내 눈알을 빼어 주게." 하며 크게 후회하였다고 한다.

3 특징

오봉조(1730~1815)는 어려서 모친을 여의고 계모인 청주한씨(淸州韓氏)에 의해 양육되었다. 여러 차례 문과에 응시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벼슬길에 나가지 못했다. 오봉조는 정의서당(旌義書堂) 훈장을 지내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의 문하생으로 전 현감(前縣監) 강성익(姜聖翊), 전 현감(前縣監) 고명학(高鳴鶴), 전 현감(前縣監) 부종인(夫宗仁) 등을 배출하였다. 「정의향교흥학발(旌義鄕校興學跋)」이 전한다.

그런데 이 전설에서는 직함에서 전해지는 일반적 이미지로서 오훈장의 교육적인 면모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가르친 제자라 하여 정지관의 의견을 무시하는 고집불통의 시골 선비로 묘사되어 있다.

4 핵심어

오봉조, 오훈장, 정지관, 성산읍 오조리, 정의현, 청주한씨, 정의서당

5 원전 서지사항

오훈장과 정지관(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102 용궁올레와 칼선ᄃᆞ리

1 개요

성산읍 신풍리 바다에 있는 용궁올레와 칼선ᄃᆞ리와 관련된 지명 전설이다.

2 내용

신풍리 바다 속에 용궁(龍宮)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라 하는 용궁올레가 있다. 이 용궁올레 가까운 해안에는 용의 머리와 같이 생긴 기암괴석이 있어서 이 일대를 용머리라 부른다. 그래서 이 일대를 남해용궁으로 가는 길로 생각하고, 가뭄이 들 때 정의향교가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한다.

용머리 앞에서 바다 속으로 곧게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일대의 바닷물이 유독 파랗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궁으로 들어가는 올레(대문)라 하고, 이곳에서 해산물 채취를 금했다.

어느 날 송씨 해녀가 용궁올레에서 큰 전복 하나를 봤다. 바다 속 깊은 곳에 있는 전복을 빗창으로 따려고 콱 찔렀는데 정신이 아찔했다. 갑자기 햇빛이 쨍쨍 비치고 강아지가 크게 짖으면서 꼬리를 쳤다. 강아지를 따라 들어가니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동남동녀는 물론 호화로운 집들이 보였다. 어여쁜 시녀가 다가와 어디서 왔냐고 묻자, 정읫고을 신풍리에 사는데 전복을 따다가 이곳에 왔다고 했다. 이곳은 남해용궁으로, 용왕이 알면 집에도 못가고 죽을 것이라 하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다.

송씨 해녀는 인간세상을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용궁을 한번 보고 싶어서 뒤돌아봤다. 그러자 용궁 수문장이 눈앞에 나타났다. 송씨 해녀는 집에 아흔 살의 시아버지와 여든 살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수문장이 놓아 주니, 들어올 때 봤던 강아지를 따라 용궁에서 나오니, 그곳이 전복을 따던 용궁올레였다.

용궁올레 바로 옆에는 칼날같은 바위들이 솟아 죽 이어져 있어서 '칼선ᄃᆞ리'라 했다. 남해용궁에서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다리라는 것이다.

3 특징

화산폭발로 용암이 바닷가에서 굳어져서 긴 올레와 같이 형성되고, 날카로운 다리와 같이 형성되어 있어서 남해용궁으로 통하는 올레로, 또는 더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날카로운 다리로 인식하게 되었다.

사람에 따라서 '용궁올레', '칼선ᄃᆞ리' 등의 이야기로 일컬어진다.

4 핵심어

용궁올레, 칼선ᄃᆞ리, 남해용궁, 강아지, 남해용왕, 수문장, 신풍리, 전복, 송씨 해녀, 용궁

5 원전 서지사항

용궁올레와 칼선ᄃᆞ리(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103 용머리

1 개요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산방산 앞에 있는 용머리와 관련된 전설이다.

2 내용

산방산 앞 바닷가에 용머리라는 언덕이 있다. 산방산 줄기가 언덕으로 뻗어 내린 것이다. 그 모양이 용이 머리를 들고 바다로 내려가는 것 같다고 해서 용머리라 했다.

진시황(중국 진나라) 때 제주도에 왕후지지(王侯之地)가 있어 왕이 태어날 우려가 있다는 말이 돌았다. 진시황이 풍수 술법에 능한 고종달이를 보내 맥을 끊으려고 했다. 고종달이가 산방산 일대를 샅샅이 뒤지다가 바로 용머리를 확인하고, 용의 꼬리 부분을 한 칼로 끊었다. 그리고 등 부분을 두 번 끊었는데, 끊자마자 바위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산방산이 도르르하게 신음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왕이 나지 않았다. 이 용머리 부분은 묘하게도 꼬리 부분, 등 부분의 바위가 뚝 끊어져 있다. 고종달이가 그때 끊어버린 것이라고 한다.

3 특징

4 핵심어

용머리, 고종달이, 진시황, 왕후지지(王侯之地)

5 원전 서지사항

용머리(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6 관련 자료

C_L_104 용머리바위〔龍頭岩〕

1 개요

제주시 용담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명전설로 백마가 용머리 바위가 된 이야기이다.

2 내용

백마가 나타난다는 소문을 들은 장수는 백마를 잡기로 결심한다. 이를 위해 허수아비를 세워 두고 백마가 경계심이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이 허수아비로 위장하여 백마 목덜미를 잡았다. 백마가 하늘을 향해 세 번 울음을 울자 먹구름이 일고 천둥이 치고 억수 같은 비바람이 쏟아져 내렸다. 얼마 후에 날은 개었으나 그 자리에는 백마가 물속에 잠긴 채 바윗돌로 굳어져 있었다.

3 특징

자신의 용력을 자랑하기 위해 백마를 죽인 힘센 장사 이야기이다. 장사는 기지를 발휘해 허수아비를 세우고 결국 백마를 잡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백마는 하늘을 향해 세 번 울고 죽어버리고 용머리바위만 남았다는 이야기이다. 지명전설에 기지담이 덧보태진 형태이다.

4 핵심어

백마, 힘센 장사, 용머리, 용담동, 용, 허수아비, 세 번의 울음

5 원전 서지사항

용머리바위〔龍頭岩〕(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6 관련 자료

말머리(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장수 잃고 빠져 죽은 말(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증편한국구비문학대계 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①》,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C_L_105 용소와 기우제

1 개요

제주시 용연에서 기우제를 올리게 된 내력을 담은 전설이다.

2 내용

몇 백 년 전에 제주에 크게 가뭄이 들어 제주 백성이 다 굶어죽게 된 때가 있었다. 목사가 크게 걱정하여 몇 번 기우제를 지내도 비는 오지 않았다.

무근성에 사는 고씨 심방[巫堂]이 지나가는 소리로 '용소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이 목사의 귀에 들어가 고씨 심방이 동헌으로 불려갔다.

목사는 고씨 심방에게 용소에서 기우제를 올리게 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각오하라고 했다. 고씨 심방은 목욕재계하고 쉰대 자 용을 짚으로 만들어 꼬리는 용소에 담그고 머리는 제단 위에 걸쳐놓아 이레 동안 굿을 시작했다.

천상천하의 모든 신들을 청해 들이고 굿을 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이레째 되는 날 고씨 심방이 눈물을 흘리며 신들을 돌려보내는데, 갑자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성안 백성들은 모두 나와 용을 메고 풍악소리에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목사와 모든 관속이 나와 용에게 사배(四拜)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큰 놀이를 베풀었다. 이때부터 용수는 기우제에 효험이 있다 하여, 가뭄이 들 때마다 여기에서 기우제를 지내게 되었다.

3 특징

용연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 산천조에 한천[大川]을 소개하면서 '용추(龍湫)가 있어 가뭄이 든 해에 기우제를 드리는 곳'이라는 기록이 문헌상에 나타나는 최초의 기록이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 후기에 간행된 읍지류에 답습되어 비슷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전설에 등장하는 고씨 심방[巫堂]은 구한말 돈으로 대정 현감직을 사서 벼슬살이를 했던 '고대정'이라 불렸던 인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물설정을 통해 용소에서 올렸던 기

우제의 모습을 보다 사실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 같다.

4 핵심어

고씨 심방, 용소, 용연, 기우제, 용, 가뭄

5 원전 서지사항

용소와 기우제(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고대장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용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C_L_106 용연(龍淵)

1 개요

제주시 용담동 바닷가에 있는 용연(龍淵)과 관련된 전설이다.

2 내용

제주시 용담동 해안에는 용의 머리를 닮은 기암괴석이 있는데, 용두암(龍頭岩)이라 한다. 용두암 서쪽(동쪽의 잘못)에 용연(龍淵)이 있는데,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예로부터 칠년대한(七年大旱: 7년 동안의 큰 가뭄. 오랜 가뭄)에도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

옛날 칠년대한에 구년흉년(九年凶年)이 들었다. 여러 번의 기우제를 지내도 효과가 없었다. 제주목 안에 사는 고대정이라는 사람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또가 고대정을 관아로 들이고, 제물을 차려줄 테니 기우제를 지내라고 했다. 고대정은 원래 심방이라서, 제주 섬 안의 유명한 심방을 모아 7일 정성의 굿을 하면서 기우제를 지냈다.

굿하는 날, 용연 위 언덕인 당팟 당클에 제물을 차리고, 날 짚을 연결하여 쉰다섯 발의 용을 만들었다. 용의 꼬리는 용연에 담그고 머리는 굿막까지 올려붙이니, 금방이라도 물을 통해낼 듯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굿을 한 지 7일이 지나고, 굿판에 청한 천상천하의 신들을 돌려보내야 했다. 그때까지 여전히 비가 오지 않았다. 마지막 축원을 드리니, 사라봉(紗羅峰) 꼭대기에, 검은 구름이 용트림하듯이 솟구쳤다. 그러자 여러 제비들이 만들어 놓은 용의 몸으로 들어가 발이 되었다. 요란한 무악에 맞춰 용은 동헌으로 달려 나가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용이 동헌 마당에 이르자, 동헌 사람들은 큰 절을 올렸다. 용트림이 계속 되고, 비는 밤새 내렸다.

날이 밝자, 백성들은 쟁기를 매고 산으로 올라,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그 뒤 이곳을 두고 비를 몰고 오는 용이 살고 있는 물이라 해서 용연이라 했다.

3 특징

용연(龍淵)이라는 지명이 붙게 된 연두가 담긴 전설이다.

한편 민간에서는 이곳을 '용소(龍沼)' 또는 이의 변음인 '용수'로도 부른다. 또한 다른 한자어 '용담(龍潭)'으로 바꾸어 부르기도 한다.

4 핵심어

용담동, 용연(龍淵), 용두암(龍頭岩), 당팟, 굿, 기우제, 고대정, 당클, 굿막, 사라봉, 기암괴석, 구년흉년, 동헌, 용

5 원전 서지사항

용연(龍淵)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고대장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용소와 기우제(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C_L_107 월계 진좌수

1 개요

조선 후기 한림읍 명월리 출신 진국태(秦國泰)가 명의가 된 사연과 의술 행위를 다룬 이야기이다.

2 내용

한림읍이 명월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진국태라는 좌수가 있었다. 그가 어려서 서당에 다닐 때였다. 몸이 아프지 않은데도 날로 얼굴이 핼쑥해져 갔다. 훈장이 그 이유를 물으니, "새벽에 서당에 오다 보면, 웬 처녀가 길가에 앉았다가, 저의 입에 구슬을 물려줍니다. 내가 뱉어내면 이번에 그 여자가 구슬을 입에다 넣곤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훈장은 그 처녀가 구슬을 물려주거든 꿀꺽 삼킨 다음 맨 먼저 하늘을, 그 다음엔 땅을, 맨 나중에는 사람을 쳐다보라고 했다. 그 이튿날 아침에도 그 처녀는 여전히 구슬을 그의 입에다 물려주었다.

진국태는 훈장의 말대로 구슬을 삼켜버렸다. 그런데 맨 처음 쳐다본 것은 하늘이 아닌 사람이었다. 그 처녀는 진좌수가 구슬을 삼켜버리는 것을 보자 달려들어 구슬을 내어놓으라고 하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훈장이 호통치자 처녀는 도망을 쳤는데 아흔아홉 개의 꼬리가 보였다. 처녀는 수백 년 늙은 여우가 둔갑했던 것이다.

이후부터 진좌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일을 잘 알게 되었다. 특히, 구슬을 삼킨 직후 맨 처음 본 것이 사람(처녀)이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잘 알게 되어 명의가 되었다. 진국태의 의술과 관련한 일화는 다양하다.

병으로 앓아 누운 남편을 위해 약을 처방받으러 온 여자가 오는 도중에 강간을 당했고, 그 때문에 남편의 병이 낫게 되었다는 이야기, 간부와 짜고 산돼지의 빳빳한 털로 남편을 죽인 부인의 죄상을 밝힌 이야기, 자신의 의술을 시험하기 위해 거짓으로 죽은 체한 아이를 멀리서 보기만 하고는 진짜로 죽었다고 알려준 이야기, 창호지 한 조각으로 순산하게

한 이야기 등. 그의 신통한 의술은 중국에까지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진좌수에게 병을 고치고자 찾아왔을 때는 이미 이승을 떠난 후였다.

❸ 특징

진국태(1680~1745)는 풍수(風水)의 고홍진(高弘進), 문영후(文榮後), 풍채(風采)의 양유성(梁有成)과 함께 의술로 널리 알려져 '탐라사절(耽羅四絶)'이라 불렸다.

이 전설은 진국태가 명의가 된 과정과 그의 의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잘 보여준다.

❹ 핵심어

한림읍 명월리, 진국태, 진좌수, 서당, 구슬, 처녀, 늙은 여우, 의술

❺ 원전 서지사항

월계 진좌수(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64)

❻ 관련 자료

C_L_108 유반석과 무반석

1 개요

유반석은 안덕면 화순리 동쪽 마을에 있는 바위이고, 무반석은 서쪽 마을에 있는 바위이다.

한 마을 안에서 동동네(유반석)와 섯동네(무반석)가 힘겨루기를 하면 항상 섯동네가 이겼다. 동동네 사람들이 꾀를 내어 힘의 원천인 무반석을 부셔버리자 힘의 균형이 깨졌다는 이야기이다.

2 내용

안덕면 화순리에는 유반석과 무반석이라는 큰 바위가 있다. 유반석이 있는 동동네 사람들은 무반석이 있는 섯동네 사람들에게 힘에서 항상 밀렸다. 이 마을에 들어와 살던 어떤 손님이 마을 형상을 보고 그 원인을 찾아내었다. 밤이 되면 유반석과 무반석이 서로 불을 비추는데 그 세기가 달랐다. 그래서 그 손님이 동동네 사람들에게 섯동네 사람들이 힘이 센 이유를 알려주었다. 동동네 사람들은 꾀를 내어 섯동네 사람들이 무반석을 깨뜨리도록 했으며, 그때 비둘기가 날아갔다. 그 후 섯동네 사람들의 힘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동동네 사람들에게 밀리는 처지가 되었다.

3 특징

4 핵심어

화순리, 유반석, 무반석, 동동네, 섯동네, 펄물집, 형국, 비둘기, 손님, 정기, 장사(葬事)

5 원전 서지사항

유반석과 무반석(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고성 선돌(임신석)(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거욱대(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109 이여도

1 개요

이여도는 '이어도'로도 불리는 무인도이다.

이여도에서 딴 살림을 차린 남편을 찾아간 본처의 설득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2 내용

한 남편이 아내를 두고 무인도인 이여도에 가서 딴 살림을 차렸다.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본처는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배를 만들어서 이여도로 남편을 찾아간다.

남편은 아버지와 아내가 같이 돌아가기를 청하자 모두 배를 타고 고향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항해 도중 풍파를 만나 가족들이 전부 사망하였다. 고향 사람들이 그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 주었다.

3 특징

이여도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이상향으로 알려진 섬이다. 이 전설에서도 이여도의 위치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여도는 제주 민요에도 자주 등장한다.

4 핵심어

이여도, 무인도, 남편, 아내, 시아버지, 뱃노래, 제사

5 원전 서지사항

이여도(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110 이재수의 난 1

1 개요

1901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재수 난의 발단에서 결말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전설이다.

2 내용

이재수는 대정골 출신으로 사또의 심부름을 하는 아주 천한 신분이었다. 그 당시 승당(성당)의 작폐가 아주 심하였는데 선교 무리들의 행패가 심해지자 제주 사람들이 이에 대항해서 난을 일으켰다.

이재수는 처음 양반 신분의 김훈장이 일으킨 난에 가입했는데, 김훈장이 붙잡혀가자 대정읍 동일리 등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며 장정들을 모집하여 무리를 이끌었다. 그리고 황천이라는 일본사람에게 칼을 얻어 대정고을의 선교인들을 많이 죽였다. 이후 강우백과 합세하여 제주성으로 진격하여 들어가 관덕정 마당에 선교인들을 잡아다 죽였다. 난은 성공했지만 임금의 허락없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한양으로 잡혀 갔다. 이재수는 죽는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임금 앞에서 담배 하나를 얻어 피우고는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다.

3 특징

이재수(1877~1901)는 구한말 제주 신축민란의 주동자로, 대정읍 인성리 출신이다. 본래 대정군의 관노(官奴)였지만 갑오개혁 이후 노비제가 폐지되면서 향장 오대현(吳大鉉)의 하예(下隷)가 되었다. 민란 당시 인성리 이강(里綱)으로 있으면서 2차 봉기 시에 오대현이 관군에 붙잡히자 서진장(西陣將)이 되어 난군을 이끌었다.

이 전설은 이야기 전개에 있어 역사적 사건인 이재수 난의 발생 배경과 전개, 결말에 대해 비교적 간단하고 알기 쉽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다만, 오대현이 김훈장으로 바뀌고,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담배를 피웠다는 내용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적 사실이 변형됨을 알 수 있다.

4 핵심어

이재수, 강우백, 승당, 대정골, 선교인, 관덕정, 제주성, 성당, 장정, 신축민란, 인성리

5 원전 서지사항

이재수의 난 1(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이재수의 난 2(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C_L_111 장군내의 여장군석과 힘센 마누라

1 개요

제주시 도평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힘센 장사 이야기이다.

마을에 힘센 여장사가 많아 남자들이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관에게 말을 듣고 여장군석을 부숴버린 이야기이다.

2 내용

도평 마을에 힘센 여장사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마을의 남정네는 마누라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루는 지붕 위에 던져진 남자를 본 도인(지관)이 마을 남정네를 위해 해결책을 마련해 주었다. 도인의 말대로 장군내의 여장군석을 부숴버리자 그 뒤부터는 힘센 여장사들이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3 특징

도평 마을에 있는 장군내의 여장군석 때문에 여장사가 많이 태어난다는 이야기이다. 이 여장군석이 지관의 조언에 따라 파괴되어 마을에 더 이상 여장사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4 핵심어

벵뒤, 도평동, 장군내, 여장군석, 신안, 힘, 여장사, 콕(호박)

5 원전 서지사항

장군내의 여장군석과 힘센 마누라(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증편한국구비문학대계 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①》,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6 관련 자료

지붕 위의 남자(도평의 여장사)(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7집, 2001)

힘센 각시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2집, 1994)

힘센 며느리 이야기(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2집, 1987)

힘센 할망(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0·21집, 2005)

힘이 센 할머니(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112 장군석(將軍石)과 오공(蜈蚣)동산

1 개요

한경면 고산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장군석과 오공동산 이야기이다.
차귀도 장군석과 동문기동산 지명전설이다.

2 내용

오백 장군의 어머니인 설문대할망은 가난하고 식구가 많기 때문에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았다. 설문대할망은 죽을 끓이다가 솥에 빠져 죽었는데 이 사실을 모른 오백 장군은 그 죽을 먹는다. 막내 장군이 이 사실을 알고 형제들에게 알려 사백구십구 장군은 울다 지쳐 돌이 된다. 이것이 한라산 영실기암이다. 막내만 형들과 같이 있기 싫어 집을 떠난다. 막내는 어머니가 자주 찾아가던 지공님을 찾아가 자신이 가고 싶은 나라를 말한다. 지공님은 막내에게 서해로 가면 된다고 말하여 주지만 혼자가기 힘들 것을 생각하여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된다.

막내가 자구내에 도착하여 잠시 쉬고 있는데 청룡과 백호가 나타나 자신들의 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 막내 장군이 도망을 치다 차귀도에 들어가 장군석이 되었다. 지공님은 청룡과 백호가 무서워 잠시 뒤로 물어난 것이 지금의 동문기동산이 되었다.

3 특징

장군석과 오공동산은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설문대할망 전설과 지명전설인 오공동산전설이 결합되어 있다.

오공동산은 지렁이 형태의 오름이다. 설문대할망이 이 오공동산의 신인 지공님을 자주 찾아갔다고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러한 설정으로 막내아들은 오공동산 지공님을 찾아가게 된다. 자신이 불효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세상으로 떠날 것을 고민하다 지공님의 조언을 듣게 된다는 설정이 이 두 이야기를 결합하고 있다. 그런데 막내아들은 다른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아 결국 차귀섬에서 죽게 되어 장군석이 된다는 결말이다.

4 핵심어

설문대할망, 오백 장군, 장군석, 오공동산, 동문기동산, 영실기암, 자구내, 차귀도, 서해

5 원전 서지사항

장군석과 오공동산(고산향토지발간위원회, 《고산향토지》, 2000)

6 관련 자료

C_L_113 장사 고삭배

1 개요

한림읍 상명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힘센 장사 고삭배 이야기이다.

힘이 센 고삭배가 나뭇짐을 나르고 처갓집에서 장정 열다섯 명이 할 일을 혼자 다 해결한 이야기이다.

2 내용

한림읍 상명리에 힘이 센 고삭배라는 사람이 살았다. 삼간집을 지을 만한 나무를 등에 지고 산에서 내려오다 그 짐을 짊어진 채 용변을 보고 그대로 일어났다고 한다.

처갓집에서 꼴을 벨 일이 있었는데, 고삭배는 처갓집에다 열다섯 명 분의 점심을 해오라고 하고는 그 일을 혼자 다 하고 그 밥을 다 먹었다. 장인이 꼴을 묶을 것이 걱정이 되어 고삭배에게 부탁을 했다. 고삭배는 꼴을 다 묶어주고 집까지 운반도 해 주었다.

3 특징

고삭배는 대식가이면서 장사이다. 이는 제주도 장사이야기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대식가이면서 장사인 것이다. 하지만 장사 이야기는 주로 주인공이 배를 채우지 못해 죽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에는 특별한 결말이 없다.

4 핵심어

한림읍 상명리, 고씨, 장사, 고삭배, 고장군, 소

5 원전 서지사항

장사 고삭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고삭불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남이 참봉 영감(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와 정훈두(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8)

장사 김팔충(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외도동향토지》, 2005)

장사 정운디(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조천 힘센 김씨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최동이 장사(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한새미 강당장(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홍리 고대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힘센 장사 ᄌᆞ망이(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114 장사 김팔충

1 개요

제주시 외도동에서 전해오는 대식가이면서 힘센 장사 김팔충 이야기이다.

2 내용

성산읍 성산리에 대식가 장사 김팔충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하루는 제주시 현사동 감은모살에 가서 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자신에게 팔아주지 않자 배를 들고 냇가에 갖다 놔 버렸다.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며 다음에는 고기를 팔아드리겠다고 사정하고, 그 배를 다시 바다에 놔달라고 청하니 장사 김팔충은 배를 감은모살에 갖다 놓았다.

처갓집 소막에 울담과 남방아가 없어 고민을 하니 장사 김팔충이 해결해 준다. 일을 해주고 처갓집에서 밥 아홉 동이, 술 아홉 동이를 먹었는데도 집에 와서 다시 밥을 먹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

장사 김팔충은 많이 먹고 그만큼 똥을 쌌는데 그 크기가 동산만큼 했다고 한다. 나중에는 굶어 죽었다고 한다.

3 특징

김팔충은 대식가이고 장사이다. 힘이 센 대식가로 영웅의 면모를 지녔지만, 능력을 발휘하는 내용은 없고, 거대한 식성을 지니고, 배를 옮길 정도로 힘이 셌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용변을 보는 이야기가 재미있게 전승되고 있다.

4 핵심어

성산읍 성산리, 김팔충, 장사, 배, 용변, 밥

5 원전 서지사항

장사 김팔충(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외도동향토지》, 2005)

6 관련 자료

고삭불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남이 참봉 영감(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와 정훈두(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8)

장사 고삭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장사 정운디(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조천 힘센 김씨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최동이 장사(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한새미 강당장(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홍리 고대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힘센 장사 ᄌᆞ망이(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115 장사 당팟 김당장

1 개요

표선면 성읍리에서 전해오는 힘센 장사 김당장 이야기이다.

힘이 센 장사 김당장이 자신의 톱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함께 가서 나무를 베어주는 이야기이다.

2 내용

김당장네 톱을 사람들이 빌리면 그도 톱과 같이 따라간다. 톱을 빌린 집에 가서 대접을 받으면 잘 얻어먹었다고 하고 그 사례로 나무를 베어준다.

3 특징

힘센 장사설화이다. 특이한 점은 자신의 큰 톱을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자신도 같이 가서 얻어먹고 일을 해준다는 것이다. 힘센 장사이지만 영웅적인 면모는 보이지는 않는다.

4 핵심어

표선면 성읍리, 표선면 토산리, 장사, 당팟 김당장, 톱

5 원전 서지사항

장사 당팟 김당장(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6 관련 자료

당팟당장(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별장 김기봉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장사 송하철(성읍마을회, 《성읍마을》, 2015)

힘센 머슴 먹쟁이(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5집, 1988)

C_L_116 장사 송하철

1 개요

표선면 성읍리에서 전해오는 힘센 장사 송하철 이야기이다. 송하철이 활을 휘어 줄을 매다는 것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장사전설이다.

2 내용

옛날에 세병장(洗兵場)이라는 곳에서 마을을 동서로 나눠서 힘겨루기를 했다고 한다. 대활을 가지고 휘어서 줄을 묶는 힘겨루기를 했는데 송하철이 그것을 성공하여 동쪽 마을이 이겼다.

3 특징

장사 송하철은 장사전설에 속한다. 마을을 동서로 나눠 힘겨루기를 하는 이야기이다. 힘겨루기이야기인 경우에 보통은 씨름을 하거나 듬돌을 든다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에는 활을 휘어 줄을 매는 내용의 힘겨루기이다.

4 핵심어

세병장, 남문밧, 성읍리, 송하철, 장사, 활, 힘겨루기

5 원전 서지사항

장사 송하철(성읍마을회, 《성읍마을》, 2015)

6 관련 자료

당팟당장(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별장 김기봉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장사 당팟 김당장(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힘센 머슴 먹쟁이(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5집, 1988)

C_L_117 장사 양태수

1 개요

서귀포시 영천동에서 날개 달린 아기와 관련된 힘센 장사 양태수 이야기이다.

날개 달린 아기장수로 태어난 양태수는 부모에 의해 날개가 잘리지만 힘센 장사로 잘 살았다.

2 내용

양태수는 날개를 달고 태어난 장사였다. 어느 날 부모가 그 날개를 잘라 버렸다. 양태수는 자신의 날개가 잘린 것을 보고 탄식을 하였다. 양태수는 지금처럼 농사를 지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배 한 척을 얻어 장사하기로 했다.

양태수는 배를 이용하여 육지를 오가며 쌀장사를 하는데 왜놈들이 나타나 쌀을 약탈하려고 했다. 그때 양태수는 힘이 장사인 것을 보여주고 왜놈들을 모두 잡았다고 한다.

3 특징

날개 달린 아기장수로 태어나 날개를 잘리지만 힘센 장사로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제주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날개 달린 아기장수 설화는 비극적이지 않은 결말을 가지고 있다.

4 핵심어

양태수, 날개 달린 아기장수, 왜놈, 쌀, 영천동

5 원전 서지사항

장수 양태수(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고씨댁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군산의 명당(날개 돋힌 아기장수 설화),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감산향토지》, 2002)

날개 돋은 아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은 장사 구운문(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친 아이(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5·26집, 2013)

날개 잃은 두 아기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5집, 1999)

뱃 속에 오래 살당 나온 아기 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0·21집, 2005)

베락구릉(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정승과 정시(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118 장사 정운디

1 개요

안덕면 화순리에서 전해오는 정운디라는 인물의 장사 전설이다.

남방아를 아주 쉽게 만들고, 팡돌을 혼자 거뜬히 옮기고, 도적떼를 물리치고, 도적떼 왕을 잡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여기에 오찰방이라는 장사와 힘겨루기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 있다.

2 내용

안덕면 사계리에 머슴 정운디라는 장사가 살고 있었다. 주인이 남방아를 만들어 오라고 하니 나막신을 신은 채 산에 올라가 그 자리에서 남방아를 만들어 주인집 울담 옆에 던져 놓았다. 한번은 사람들이 팡돌을 옮기지 못해 고민하자, 정운디가 혼자 팡돌을 옮겨 사람들이 비로소 그가 힘이 센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어느 날은 정운디가 씨름판에서 항상 이기므로 대정에 사는 오찰방이 정운디를 한번 이겨 보려고 도전하였으나 실패하여 집으로 돌아와 분해서 병이 날 정도였다. 오찰방 부친이 이를 보고 정운디에게 가서 오찰방과 씨름하여 한번만 져달라고 부탁한다. 정운디는 그 부탁을 받고 오찰방과 씨름하여 져 준다. 이때만 꼭 한번 오찰방이 정운디와 씨름을 하여 이겨봤다고 한다.

정운디가 주인 심부름으로 쌀을 운반하는데 70여 명의 도적떼를 만나 모두 사로잡아 큰 공을 세우게 된다. 정운디만큼 힘이 센 새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배가 커서 그의 식량을 감당하지 못해 함부로 그를 데려 쓰지 못하였다. 그는 늘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한라산에 올라가 도적떼의 왕노릇을 하며 살았다. 그는 대정 모관에 오가는 사람들의 재물을 노략질하고 나라에 진상할 좋은 소를 잡아먹어 버려서 관에서도 큰 골칫거리였다.

대정고을은 정운디에게 새샘을 잡아오라고 했다. 정운디는 새샘을 잡으려면 일단 배불리 먹어야 한다며 쌀 두 섬과 소 두 마리를 받아먹었다. 그래도 부족하여 힘을 길러야겠다며 쌀 두 섬과 소 두 마리를 받아먹고는 장정을 거느리고 새샘을 잡으러 간다.

정운디는 새샘을 만나 수작을 부리다 소다리뼈로 새샘의 팔을 꺾어버린다. 그때 순식간에 장정들이 모여들어 새샘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정운디는 새샘이 옥에서 탈출할 것을 미리 알고는 자신이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새샘이 탈출할 수 있는 입구에 숨어 있다 칼로 새샘을 죽여버렸다.

3 특징

이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광포설화로 장사전설이다. 이야기는 모두 5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다. 남방아 만들기, 팡돌 옮기기 등 제주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 그리고 도적떼 이야기로 그 뒤를 이어 가는데 중간에 제주도에서 유명한 오찰방 전설이 삽입되어 있다.

다른 에피소드는 정운디의 활약에 힘입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찰방 이야기에서는 오찰방의 아버지 부탁으로 정운디는 씨름에서 져준다고 한다. 이 대목이 특이한 점이다.

4 핵심어

안덕면 사계리, 정운디, 이(李)댁, 닥밭, 닥밭정운디, 산방산, 장사, 남방아, 팡돌, 오찰방, 도적, 새샘, 용변, 한림읍 명월리, 움부리, 웃한길, 넙은팡, 제주목

5 원전 서지사항

장사 정운디(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고삭불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남이 참봉 영감(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와 정훈두(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8)

장사 고삭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장사 김팔충(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외도동향토지》, 2005)

조천 힘센 김씨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최동이 장사(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한새미 강당장(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홍리 고대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힘센 장사 ᄌᆞ망이(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119 장사인 현씨 남매

1 개요

성산읍 시흥리에서 전해오는 힘센 장사 현씨 남매 이야기이다.

힘센 현씨 남매 중 누이가 동생의 힘자랑을 못하게 재치를 발휘한 이야기이다.

2 내용

대봉씨 부친네가 힘센 자식을 낳아보겠다고 해서 소를 열 마리 잡아먹였는데 딸을 낳자, 그 뒤에도 열 마리를 먹였을 때 또 딸을 낳을까 봐서 아홉 마리를 잡아 먹이니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은 힘이 장사여서 항상 씨름대회에서 1등을 했다. 다른 마을에 가서 1등을 하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누이가 남장을 해 자기 동생과 씨름을 해서 이기고, 위기를 모면했다.

3 특징

주요 모티프는 오누이 힘겨루기이다. 제주 지역에 전해 오는 장사이야기들은 보통 아기장수 설화와 오누이 힘내기 설화 유형이 많다.

4 핵심어

대봉씨, 장사, 현씨 남매, 소, 씨름, 갈가집터, 오누이 힘겨루기

5 원전 서지사항

장사인 현씨 남매(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홍리 고대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C_L_120 장수 잃고 빠져 죽은 말

1 개요

제주시 도평동에서 용두암과 관련하여 전해오는 백마 이야기이다.

2 내용

한라산 어승생오름에서 백마가 달려 왔지만 그 말을 탈 수 있는 장수가 없어 용두암에 빠져 죽었다.

3 특징

백마가 자신을 태울 장수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야기이다.

4 핵심어

어승셍(어승생오름), 장수, 백마, 김통정, 바당(바다)

5 원전 서지사항

장수 잃고 빠져 죽은 말(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증편한국구비문학대계 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①》,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6 관련 자료

말머리(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용머리바위〔龍頭岩〕(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C_L_121 장지(長旨)동산

1 개요

애월읍 하가리 연화못 옆에 있는 장지동산과 관련된 지명 전설이다.

2 내용

애월읍 하가리 연화못 옆에 장지동산이 있는데, 쟁기리동산 동산 또는 긴ᄆᆞ루(진ᄆᆞ루)라고도 한다.

하가리에는 고내봉 밑, 학교 앞 벵겟동산, 학교 동쪽 장지동산, 제석동산 등 오릉(五陵)이 있다. 장지동산은 한라산 쪽에서 뻗어 내렸는데, 오릉 중에 이 동산만 생기(生氣)이고, 나머지 네 곳은 사기(死氣)이다. 그래서 장지동산이 하가리의 중심 맥으로 생기가 뻗어 나오면 마을이 번창한다고 해서, 곰솔을 심었는데 대부분 죽어 버리고 몇 그루만 남아 거목이 되었다.

3 특징

하가리 장지동산과 관련된 지명 전설이나, 민간에서 '진ᄆᆞ루'라 부르고, 이를 한자차용 표기로 쓴 것이 장지(長旨)이다. 여기에 동산을 덧붙인 것이 장지동산이다. 쟁기리동산은 '생기리동산'의 변음으로 추정된다. 풍수지리와 한자를 이용해서 지명 전설을 만들어 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4 핵심어

하가리, 연화못, 장지동산, 쟁기리동산, 긴ᄆᆞ루, 진ᄆᆞ루

5 원전 서지사항

장지동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122 적객 임관주

1 개요

조선 시대 영조 때 대정현에 유배왔던 임관주(任觀周)가 안덕면 창천리 창고천 암벽에 새겨놓은 시와 관련된 전설이다.

2 내용

창고천의 석굴 남쪽 500m 쯤의 거리에 적객(謫客) 임관주(任觀周)가 유배생활을 마치고 육지로 돌아갈 때 남겼다고 전하는 한시 한 수가 암벽에 새겨져 있다.

始出荊門日 先尋枕下川 蒼巖三曲立 短瀑晩楓邊 丁亥秋

(意譯)

귀양살이 마치는 날에

가까이 있는 시내를 찾았더니

푸른 바위는 세폭으로 굽이 둘러 섰고

폭포는 단풍 사이로 지고 있더라.

연대는 '정해추(丁亥秋)'라 하였으니 1887년이 아닌가 하는데, 적객 임관주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말로만 전해지고 있다.

3 특징

임관주(1732~?)는 1767년 정언(正言) 재임 중 영조가 지은 <유곤록(裕昆錄)>의 내용과 수원부사의 천거 미속행에 따른 영조의 처분과 언관에 대한 영조의 태도 등 10여 가지에 달하는 조목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그해 6월 제주 대정현에 유배되었다.

하지만 늙은 아버지가 있다는 이유로 유배 된 지 석 달 만인 9월에 석방되었다. 그렇지

만 그는 제주를 바로 떠나지 않고 창고천을 시작으로 산방산, 천제연, 용연, 백록담까지 제주도를 두루 유람하고 떠났다.

이 전설은 사료의 열람이 어려웠던 시대에 제주로 유배왔던 역사적 인물의 행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설화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핵심어

임관주, 창고천, 석굴, 유배, 한시, 안덕면 창천리, 대정현, 암벽, 정해추

5 원전 서지사항

적객 임관주(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국문학보》제4집, 1972)

6 관련 자료

C_L_123 정방폭포와 서불과차

1 개요

중국 진(秦)나라 때 방사(方士) 서불(徐市)이 서귀포에 왔다가 정방폭포 암벽에 '서불과차(徐市過此)'라 새기고 돌아갔다는 내용을 담은 전설이다.

2 내용

중국 진시황은 세상을 모두 손아귀에 넣고 권세를 부리면서 술과 여자와 노래에 파묻혀 살았다.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강해서 신하들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꾀 많은 서불이라는 신하가 동쪽의 영주라는 곳 영산 한라산에 불로초가 있다고 속이고 동남동녀 5백명을 주면 캐어오겠다고 하였다.

진시황은 곤륜산에서 좋은 재목을 베어다 큰 배를 여러 척 만들고 서불 일행을 보냈다. 서불일행은 제주도에 도착하여 불로초를 캐는 대신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 전역을 구경하며 돌아다녔다.

정방폭포에 이르러 그들이 이곳을 지나갔다는 뜻으로 바위 위에 '서불과차(徐市過此)'라 새기고 동쪽으로 다시 뱃길을 떠나갔다. 애초부터 불로초를 캐겠다는 것은 공연한 구실이었다. 지금도 폭포 상단 위에는 서불이 남긴 글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한다.

3 특징

서불은 중국 진(秦)나라 때 신선의 술법을 닦는다는 방사(方士)이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의하면, 기원전 219년 진시황의 지시로 바다에 나갔다가 신선 이야기를 듣고 진시황에게 삼신산에 가서 불로장생의 약초를 구해 오려고 했더니 신선이 동남동녀와 함께 오곡 종자와 백공의 제품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진시황이 동남동녀 3천명과 백공(百工) 등을 데리고 가도 좋다고 하였다.

서불은 기원전 210년 60척의 배에 동남동녀 3천명 백공 5천명과 3년 동안 먹을 식량을 준비하여 진황도를 출항하였다고 한다. 서불 일행은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을 거쳐

일본에 도착하고 그곳에 머물러 왕이 되어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설은 사료에 전하는 서불의 전설과 서귀포(西歸浦; 서불이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는 지명과 관련하여 제주도에 널리 퍼져있는 전설이다.

또한 정방폭포 암벽에 서불과지(徐市過之) 또는 서불과차(徐市過此)라는 각자(刻字)가 새겨진 내력을 전해준다.

4 핵심어

서불, 서복, 정방폭포, 진시황, 불로초, 서불과차

5 원전 서지사항

정방폭포와 서불과차(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서불과 불사약(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64)

C_L_124 정승과 정시

1 개요

한경면 용당리에서 전해오는 지관에 관한 이야기이다.

지관은 정확하게 명당자리를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명당자리를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와 지관이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묏자리를 명당자리에 묻게 하여 자손들이 부자가 되게 하지만 마을은 가뭄에 시달리다가 결국 묏자리를 없애서 가뭄을 해결한다는 이야기와 날개 달린 아기장수 이야기가 함께 삽입되어 있다.

2 내용

지관(地官)을 정시라 하는데, 원래 정시는 명당을 제대로 알리지 않게 되어 있었다. 명당을 제대로 알렸을 경우에는 정시가 죽게 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정시질을 하다가 늦게야 아들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아들은 머리가 좀 모자라서 며느리는 아들보다 좀 나은 사람으로 맞이한다.

정시는 죽어가면서 아들 부부에게 유언을 하는데, 몸뚱이는 땅에 묻되, 머리는 따로 미리 파 놓은 샘에 가서 놓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머리를 샘에 놓고 올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만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어기게 되어 뒤를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인지 마을은 가물게 되고 사람들은 가뭄에 몹시 시달리게 된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이들 정시아들 부부를 의심하게 되어 이들을 추궁하였다.

그 결과 며느리가 정시인 시아버지 장사를 치를 때 유언에 따라 시신(屍身)의 머리만 샘에 넣었고, 되돌아올 때 뒤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는 사실을 실토하였다.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정시의 머리를 놓았던 샘을 찾아가서 그 뚜껑을 열어보니 황소가 있었다. 그 마을에 살던 또 마을 사람들이 황소를 죽이자 그때부터 가뭄이 끝나고 비가 왔다.

한편 다른 정시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 이들은 점점 자라면서 날개가 돋아나오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 성장하자 이들은 별밭에 가서 밭 가운데에 성을 쌓아놓고 그 위를 넘나들면서 형, 동생을 가려내는 시합을 하였다.

그런데 이 소식이 중국에까지 전해지자 날개 달린 장수들을 죽이려고 조선에 쳐들어 왔다. 처음에는 쌍둥이들이 이들과 싸움에 고전하게 되었지만 할아버지 머리가 용이 되어 그 도움을 받고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3 특징

지관에 관한 이야기로 풍수전설이다. 지관이 명당자리를 말하면 죽게 된다는 이야기와 지관 자신이 죽으면서 자신의 묏자리를 명당에 묻으라 하고는 자신의 자손들이 부자로 살게 된다.

그러나 명당자리에 묘를 쓰고 돌아오는 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어겨 마을에 재난이 닥치게 되어 결국 그 명당자리를 파헤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날개 달린 아기 장수전설이 삽입되어 있다.

날개 달린 아기장수 이야기는 날개가 잘리거나 죽게 되는 결말이 아니라 장수가 되어 나라에 큰 전쟁이 났을 때 장수로 나가 싸우는 이야기이다. 이때 날개 달린 장수가 지게 되니 조상인 지관 할아버지가 용이 되어 도와준다는 결말이 독특하다.

4 핵심어

정시, 지관, 명당, 소, 용, 날개 달린 아기장수, 쌍둥이, 굴루기(남녀 쌍둥이), 한경면 용당리, ᄌᆞ남케, 삼방산(산방산), 임씨, 금장지, 영기산, 황쉐(황소), 벵디물, 한경면 용수리, 대국(중국)

5 원전 서지사항

정승과 정시(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고씨댁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군산의 명당(날개돋힌 아기장수 설화)(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감산향토지》, 2002)

날개 돋은 아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은 장사 구운문(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친 아이(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5·26집, 2013)

날개 잃은 두 아기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5집, 1999)

뱃 속에 오래 살당 나온 아기 장수(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0·21집, 2005)

베락구릉(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산방산에 묘 안쓰는 이야기(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 제7집, 1982)

장사 양태수(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C_L_125 조천 힘센 김씨 하르방

1 개요

애월읍 광령2리에서 전해오는 힘센 장사 김씨 하르방 이야기이다.

조천 김씨 하르방이 힘센 장사를 만나 힘겨루기를 하는 이야기이다.

2 내용

조천 김씨 하르방은 힘이 세었는데, 솥을 많이 지고 가는 부대각을 보고는 말(馬)을 걸고 씨름을 했는데 져서 결국 말을 빼앗기고 말았다. 너무나도 원통해서 그것을 찾으러 갔으나, 상대방 부대각이 엄청나게 밥을 먹는 것을 보고 포기해 버렸다. 그래도 힘이 장사이고 배짱이 좋았다. 그 하르방이 죽어갈 때 총을 쏘면서 자신을 데리고 갈 차사가 있냐고 했다고 한다.

3 특징

장수의 힘겨루기이다. 여기에 제주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부대각이란 인물 이야기도 삽입되어 있다.

4 핵심어

조천읍 조천리, 김씨 하르방, 말, 부대각, 힘, 화전,

5 원전 서지사항

조천 힘센 김씨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6 관련 자료

고삭불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남이 참봉 영감(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와 정훈두(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8)

장사 고삭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장사 김팔충(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외도동향토지》, 2005)

장사 정운디(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최동이 장사(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한새미 강당장(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홍리 고대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힘센 장사 ᄌᆞ망이(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126 주천석과 만산장

1 개요

조선 시대 광해군 때 제주성에 표류해 온 유구국 왕자가 타고 온 배에 실려 있던 것으로 알려진 보화에 대한 전설이다.

2 내용

조선 시대 광해군 3년(1611)에 일어난 일이다. 일본이 유구를 침입하여 왕을 잡아갔다. 왕자는 부왕을 찾으러 배에 갖가지 보물이 싣고 일본으로 떠났다가 제주도 산지항에 표도(漂到)하고 말았다.

목사 이기빈이 군졸을 거느리고 선창으로 나가서 사유를 알고는 그의 처지를 동정하여 후하게 대접하였다. 그러나 군졸들이 배 안에 많은 보물이 있을 것이라 하면서 목사를 부추겨 빼앗으려 하였다. 이 사실을 알고 유구의 왕자는 주천석과 만산장이라는 두 개의 보물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주천석은 네모진 돌로 가운데가 움푹 패었는데, 그 곳에 물을 넣으면 곧 술로 변한다는 것이다. 만산장은 거미줄을 물들여 짠 휘장으로 아무리 큰 물건도 덮을 수 있는 보물이었다. 왕자는 보물을 바다 속에 던져버렸고, 화가 난 목사는 왕자의 부하를 모조리 도살하고 배 안의 보물을 압수하였다.

왕자는 죽기 직전에 자기가 죽어가는 이유를 글로 써 놓았다. 목사는 유구의 왕자가 변경을 침입하였기 때문에 주살하였다고 거짓으로 장계를 올렸다. 그러나 진상이 드러나서 목사는 처형을 당했다.

3 특징

실록에 의하면, 1611년 제주 목사 이기빈(李箕賓), 판관 문희현(文希賢)이 남경(南京) 사람들과 안남(安南)의 장사치들이 물화를 싣고 표류해 오자 처음에는 여러 날 예우하다가 배에 실은 보화에 욕심이 생겨 모조리 죽이고 물화를 몰수하고, 자취를 없애고자 그

배까지 불태웠다. 이기빈과 문희현 등을 모두 잡아다 엄하게 국문하여 율문에 따라 죄를 정하였다(광해군 4년 2월 10일조).

이 전설은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하면서 상인이 유구국 왕자와 배에 실은 보화로 주천석과 만산장을 등장시키면서 이야기에 흥미와 재미를 더하고 있다.

4 핵심어

주천석, 만산장, 유구국 왕자, 이기빈, 문희현, 표도

5 원전 서지사항

주천석과 만산장(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64)

6 관련 자료

주천석과 만산장(담수계(淡水契), 「명소고적(名所古跡)」,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1953)

C_L_127 지붕 위의 남자(도평의 여장사)

1 개요

제주시 외도동에서 전해오는 힘센 장사와 장군석 이야기이다.

도평에 여장사가 많이 나서 남자들이 힘들어 했는데 장군내에 있는 여장군석을 깨뜨려 여장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2 내용

도평에는 '장군내'에 여장군석이라는 큰 바위가 있어서 옛날부터 힘센 여장사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남자들이 수난을 많이 당했는데 한번은 지관의 도움으로 여장군석을 깨뜨려 버림으로써 마을에 더 이상 여장사가 나오지 않았다.

도평에 유명한 홍씨 할머니가 있었는데 외도에서 가져 간 도평 듬돌을, 바닷물을 길러 갔던 할머니가 보고 듬돌을 치마에 싸서 되찾아 오기도 했다.

3 특징

주요 모티프는 여성장사 이야기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면 지붕 위로 던져서 올려버렸다는 이야기와 듬돌을 되찾아 온 이야기이다.

여기에 풍수전설로 도평 마을에 있는 여장군석 전설이 같이 전승되면서 마을에 더 이상 여자장사가 안 태어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4 핵심어

제주시 도평동, 장군내, 여장군석, 여장사, 뜸돌, 지관, 신안, 풍수지리, 홍칩이 할망

5 원전 서지사항

지붕 위의 남자(도평의 여장사)(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7집, 2001)

6 관련 자료

장군내의 여장군석과 힘센 마누라(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증편한국구비문학대계 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①》,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심돌 강씨(姜氏) 할망(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힘센 각시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2집, 1994)

힘센 며느리 이야기(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2집, 1987)

힘센 할망(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0·21집, 2005)

힘이 센 할머니(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128 진좌수의 묘

1 개요

조선 후기 의술로 이름난 한림읍 명월리 출신 진국태(秦國泰)에 관한 전설이다.

2 내용

월계 진좌수가 세상을 떠나고 여러 해가 지난 뒤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났다. 그런데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어 치료를 하지 못해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다.

하루는 육지에서 살던 친구가 진좌수의 후손을 찾아와서 진좌수가 살았을 때 의술로 신통했으니 죽었지만 무슨 영험을 보여줄지 모른다 하여 진좌수의 묘소를 찾아가 기도를 드려보라고 했다. 후손은 답답한 마음에 진좌수의 묘소를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 일주일 째 되는 날 밤 꿈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큰 침을 들고 와서 자신의 몸에 침을 놓기에 깜짝 놀라 깬다. 날이 밝자 집으로 돌아오니 차도가 있어 며칠 만에 깨끗이 병이 나았다.

3 특징

진국태(1680~1745)는 풍수(風水)의 고홍진(高弘進), 문영후(文榮後), 풍채(風采)의 양유성(梁有成)과 함께 의술로 널리 알려져 '탐라사절(耽羅四絶)'이라 불렸다. 진국태와 관련하여 제주 전역에 그의 의술과 관련된 전설이 전한다.

이 전설은 죽어서도 산 사람을 치료할 만큼 그의 의술이 뛰어났음을 보여준다.

4 핵심어

진국태, 진좌수, 탐라사절, 묘, 한림읍 명월리, 의술

5 원전 서지사항

진좌수의 묘(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월계 진좌수(Ⅰ)·(Ⅱ)·(Ⅲ)·(Ⅳ)(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C_L_129 짚신 장수와 물장우리 황룡

1 개요

애월읍 어음1리에서 풍수전설과 관련하여 전해 오는 물장오리 이야기이다.

짚신 장수가 우연한 기회에 황룡과 흑룡의 싸움에서 황룡을 도와 부자로 살다가 흑룡에게 복수를 당하는 이야기이다.

2 내용

한 짚신 장수가 재료를 구하려고 한라산(漢拏山)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잠깐 낮잠을 자는데 꿈에 황룡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 달라고 하였다. 잠을 깨고 미심쩍어하면서도 물장오리로 갔다. 아니나 다를까 황룡과 흑룡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황룡은 지는 척하면서 그 사람이 있는 데로 후퇴하였다. 그 사람은 몽둥이로 흑룡을 쳐 죽였다. 황룡은 다시 꿈에 나타나 어느 곳에다 집을 지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집터는 30년이 지나면 떠나야 한다고 일러준다. 짚신 장수는 30년 동안 부자로 잘 살았다.

짚신 장수는 30년 후 그 집터를 떠나야 한다는 황룡의 경고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하루는 앞마당에서 곡식을 타작을 하고 있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외손자가 놀러왔다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가겠다고 하며 떼를 썼다. 손자가 집으로 돌아간 날 밤, 갑자기 서해바다가 요동을 치면서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흑룡이 원수를 갚으려고 3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것이다. 그 집은 그 폭우로 온데간데없이 없어지고 말았다.

3 특징

한라산 물장오리에서 매일 싸우는 흑룡과 황룡의 이야기와 황룡이 이길 수 있게 도와준 짚신 장수가 부자로 살다가 30년 후 흑룡에게 복수를 당하는 이야기이다.

흑룡의 복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황룡이 짚신 장수에게 30년이 지나면 이사를 가라고 한 말을 짚신 장수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풍수전설의 측면도 보인다.

4 핵심어

짚신 장수, 한라산, 물장오리, 황룡, 흑룡

5 원전 서지사항

짚신 장수와 물장우리 황룡(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C_L_130 채똑똑이

1 개요

조선 시대 고종 때 대정 현감 채구석(蔡龜錫)이 '채똑똑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내력담이다.

2 내용

어느 해, 채구석이 진사 교지를 받고자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 거리에 들어서서 시장을 구경하다 모자를 하나 골랐다. 여러 모자 중에서 가장 좋은 모자였다. 채구석은 대궐에 들어가 일을 마치고 찾아가겠다 하고 모자를 상인에게 부탁했다. 채구석을 협수룩한 시골 선비로 본 상인은 채구석이 모자를 찾으러 오자 자꾸 다른 모자만을 내놓았다. 채구석이 계속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자 결국 채구석이 맡겼던 모자를 내놓게 되었다. 채구석은 모자를 살 때 상인이 자기를 속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상인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그 안에 바늘을 감춰 뒀었다. 상인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였다.

채구석이 제주로 돌아와 주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사람들이 채똑똑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3 특징

채구석(1850~1920)은 한림읍 한림리 출신이며, 1874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894년 제주 판관 당시 제주에 흉년이 들자 자신의 봉급을 털어 굶주린 백성을 돌보았다. 1895년 대정 군수로 재임하였고, 1898년 화전민 방성칠(房星七) 등이 가혹한 세금에 저항하여 난을 일으켰을 때 그 책임을 지고 면직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대정 군수로 부임하였다.

1901년 이재수(李在守)의 난이 일어나자 난군과 천주교도 사이의 유혈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프랑스의 압력으로 파면되고 3년간 금고생활(禁錮生活)을 하였다. 이후 중문(中文)에 거주하면서 1908년 천제연폭포(天帝淵瀑布)의 물길을 성천봉(星川峯) 아래로 끌어와 5만여 평의 논을 개간하였다.

이 전설은 채구석이 관직에 나가기 전의 행적을 알려주면서, 그가 본래 영리한 사람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4 핵심어

채구석, 채똑똑이, 진사교지, 모자, 대궐, 바늘, 상인, 한림읍 한림리, 대정 군수

5 원전 서지사항

채똑똑이(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131 초제탄

1 개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제주시 도련동 출신 이계징(李啓徵)의 아우에 대한 우애를 이야기한 전설이다.

2 내용

이락당(二樂堂) 이계징(李啓徵)은 효자였을 뿐만 아니라 형제간의 우애도 남다른 데가 있었다. 그의 아우 이후징(李厚徵)이 고종 16년(1879) 10월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해난사고를 당했다. 이락당은 동생의 사고 후 식음을 전폐하고 가슴앓이를 하던 차에 산발한 채 서우봉(犀牛峰) 북녘 기슭 바닷가 '쇠발콥' 부근 언덕에서 바다를 향해 아우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수면 위로 아우의 시신이 떠올랐다.

이락당은 아우의 시신을 업고 집으로 돌아와 산 사람처럼 함께 자고 이야기 하다 3일이 지난 후에야 시체를 묻었다. 그가 동생의 시체를 불러 떠오르게 해서 그 후부터 이곳의 지명을 '초제탄(招弟灘)'이라고 불렀다.

3 특징

이계징(1840~1914)은 제주시 도련동(道蓮洞) 매촌(梅村) 출신이다.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에게 배웠다. 비록 집안은 가난하였지만 학문을 좋아하여 당시 글씨와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제주 군수 김중배(金重培)는 그의 출중한 효심과 우애에 감복하여 이계징의 집으로 찾아가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고 전해온다.

4 핵심어

이계징, 이락당, 초제탄, 매촌, 이후징, 해난사고, 쇠발콥

5 원전 서지사항

초제탄(오성찬, 《제주의 마을 함덕리》, 도서출판 반석, 2002)

6 관련 자료

C_L_132 최동이 장사(Ⅰ)

1 개요

애월읍 고성리에 전해 내려오는 힘센 장사 최동이 이야기이다.

최동이는 한꺼번에 백 명의 밥을 먹을 정도로 대식가이면서 장사이다. 이런 최동이에게 음식을 넉넉히 주니 집을 한 채 지을 나무를 해 온 이야기이다.

2 내용

최동이는 양씨집의 종이었는데 아주 힘이 세었다. 음식도 백 명이 먹을 분량을 한꺼번에 먹고서 며칠 동안 먹지 않고 지낼 정도였다.

옛날 제주의 인심이 후해서 동네 사람이 집을 짓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가 와서 나무·흙·보리짚 등을 모아다 주기도 했다.

반면 최동이는 그에게 음식만 넉넉히 주면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다. 마침 어떤 집안에서 최동이에게 음식을 주자 집 한 채 지을 정도의 나무를 이틀 동안에 혼자 져 오기도 했다고 한다.

3 특징

대식가와 장사전설이다. 대식가이면서 장사인 경우 주인공이 제대로 밥을 얻어먹지 못해 비극적 결말을 맞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잘 얻어먹고 일을 했다는 결말이어서 평범하고 긍정적으로 그려졌다.

4 핵심어

양씨, 애월읍 고성리, 최동이, 힘, 대식가, 장사

5 원전 서지사항

최동이 장사(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고삭불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남이 참봉 영감(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와 정훈두(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8)

장사 고삭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장사 김팔충(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외도동향토지》, 2005)

장사 정운디(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조천 힘센 김씨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한새미 강당장(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홍리 고대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힘센 장사 ᄌᆞ망이(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133 충효 박계곤

① 개요

조선 정조 때 애월읍 애월리 출신 박계곤(朴繼崑)이 충효로 정려(旌閭)된 사연을 다룬 전설이다.

② 내용

조선 숙종 때 애월읍에 박계곤이 살았다. 큰 글공부는 안 했지만 글재주가 좋고 충성심과 효심이 뛰어났다. 숙종 임금이 승하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자진하여 30명의 역군을 거느리고 능을 쌓으러 서울로 올라갔다.

각 도에서 모여든 역군들이 각각 노래를 지어 불러 자랑할 때 박계곤은 '대만민회천안(代萬民回天顔)'이라는 후렴구를 지어 칭찬을 받았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풍을 만나 배가 부서져 목숨이 경각에 달린 때에, 나무 조각 하나를 뜯어내어 "하느님이 나를 살릴 터이면 보살피소서"라고 혈서로 써서 바다에 띄우고 몸을 바다에 던졌다.

이 나뭇조각이 한림읍 옹포리 바닷가에 떠올랐다. 마침 박계곤의 처가 바닷가에서 허벅에 물을 긷는데, 이 나뭇조각이 허벅 속으로 들어오자 비로소 남편의 죽음을 알고는 친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박계곤의 죽음이 궁중에까지 전해져 '충효 박씨 정문'이 내려졌다.

③ 특징

1841년의 《탐라지초본》과 1953년의 《증보탐라지》에 의하면, 박계곤(1675~1731)은 독포촌(獨浦村. 현 한림읍 옹포리) 사람으로, 1710년 12월 제주 목사 최계옹을 따라 진상품을 싣고 출항하여 사서도 근처에서 파선하게 되자 널조각에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소서(哀我父母). 얼마 없어 영원히 이별하게 되나이다(幾乎永訣). 하느님, 이를 불쌍히 여기신다면(天其矜怜), 아버님 집으로 흘려보내소서(漂送父家). 하늘에 빌며 통곡하고 절합니다(祝天拜哭)."라고 써서 바다에 띄워 보냈다.

신기하게도 널조각은 그 날로 독포리 포구에 도착하였고, 그의 부친이 포구에 나왔다가 그 널판을 주워 보고 백시구 목사에게 급히 알려 모두 구조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평소 박계곤의 효행이 지극하니 하늘이 응감한 것이라 하였다.

또한 1720년 6월 숙종 임금이 승하했을 때 자진하여 능역(陵役)에 참가하여, "돌아가신 대왕의 커다란 덕이여(先大王之盛德兮) 가련한 제주 사람 급여가 없도다(可憐濟州民之無

祿)", 끝에는 "만민을 대신하여 임금께서 돌아오시기를 바라오(末云代萬民而顧回天顔)"라고 노래를 지었다.

인원황후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상히 여겨 특별히 왕릉의 제물을 내리고, 또한 쌀과 포(布)도 내려주어 돌아가는 길의 경비로 삼게 하였다. 1794년 어사 심락수(沈樂洙)가 장계(狀啓)를 올려 정려(旌閭)되었다.

이 전설은 박계곤과 관련하여 읍지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을 일련의 사건으로 재구성하여 엮어낸 이야기이다.

4 핵심어

박계곤, 박효자, 심락수, 풍랑, 박계곤의 처, 허벅, 최계옹, 애월리, 충효박씨 정문, 인원황후

5 원전 서지사항

충효 박계곤(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6 관련 자료

C_L_134 탈산봉

1 개요

표선면 하천리에 있는 탈산봉과 관련된 전설이다.

2 내용

탈산봉은 표선면 하천리 서쪽에 있는 산이다. 제주도의 산(오름)들은 대부분 한라산을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는 듯이 서 있다. 그러나 이 봉우리만은 대열에서 이탈하여 우뚝 서 있는 듯이 보인다.

그래서 이탈(離脫)하여 산[立] 봉이라는 데서 탈산봉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이 산의 몸체가 고와서 이 마을에는 미남미녀들이 많이 난다고 한다.

3 특징

4 핵심어

하천리, 탈산봉, 미남미녀, 동남동녀, 한라산, 오름

5 원전 서지사항

탈산봉(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135 평대 부대각

1 개요

조선 영조 때 전라도 다경포진(多慶浦鎭) 만호(萬戶)를 지냈던 구좌읍 평대리 출신 부시웅(夫時雄)의 일화를 다룬 전설이다.

2 내용

구좌읍 평대리에 부(夫)씨 부부가 살고 있었다. 커다란 용이 자기 몸 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꾼 부인이 임신을 하였는데, 식욕이 좋아 소 한 마리를 잡아 젓을 담가 놓고 이것을 다 먹었다. 그리고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이들이 어찌나 큰지 보는 사람마다 놀랐다.

쌍둥이는 열 살이 못되어 숙성함이 십 팔구 세 소년과 같았고, 힘이 장사일 뿐만 아니라 머리도 영리하였다. 부씨 부부는 자식이 너무 뛰어난 것이 염려가 되었다.

어느 날 부씨 부부는 다른 마을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숨어서 아들들의 거동을 살펴보았다. 부모가 나간 줄 알고 쌍둥이는 웃통을 벗고 명주로 돌돌 감은 날개를 퍼덕거리며 놀았다. 이 광경을 숨어서 지켜본 부모는 걱정이 태산같았다.

관가에서 아는 날이면 집안이 망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는 수 없이 맛있는 음식에 술을 마련하여 쌍둥이에게 먹이고는 날개를 자르기로 하였다. 아버지가 장도칼을 가지고 와서 눈물을 머금고 작은아들의 날개를 찍자, 큰아들은 멀리 달아나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작은아들은 마당까지 날아갔다 더 날지 못하고 떨어졌다. 작은아들만이 집에 남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부대각이다.

부대각은 힘이 장사라서 세상에 당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힘센 사람을 보면 '부대각 자손'이라고 한다. 부대각의 묘는 현재 평대리 남쪽 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3 특징

1953년에 편찬된 《증보탐라지》에는 부시웅이 "힘이 세어 대호(大虎)라 하였으며 무과에

급제하고 다경포(多慶浦) 만호에 이르렀다."고 기술되어 있다. 부시웅은 대각(大脚)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으로 보아 체구가 보통사람보다 훨씬 크고 힘이 장사로 소문난 인물이었던 것 같다.

이 전설은 주인공의 비범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의 출생에 날개 달린 아기장사 전설을 도입하여 이야기에 신비감을 더해주고 있다.

4 핵심어

부대각, 부시웅, 날개, 아기장수, 쌍둥이, 명주, 부대각묘, 평대리, 다경포진, 만호

5 원전 서지사항

평대 부대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부대각본(김헌선 외,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C_L_136 한새미 강당장

1 개요

한림읍 명월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힘센 장사 강당장 이야기이다.

힘센 장사 강당장이 열두 사람이 할 일을 혼자하고 배를 던져 버린 이야기이다.

2 내용

한림읍 동명리(東明里) 한새미란 동네에 배 큰 강당장이란 힘센 장사가 있었다. 그가 경계를 맡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일주일 씩 교대하게 되었었다. 강당장은 배가 커서 한꺼번에 먹어서 가면 부처처럼 먹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한다. 그 모습이 보기 싫어 기간이 되기 전에 보내 버렸다.

강당장이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열두 장남이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면서 그에게 같이 먹자고 청한다. 그는 배도 고파서 그들이 먹을 것을 혼자 모두 먹어 버렸다. 그리고는 미안해서 밭을 좀 갈아 주겠다고 하고는 열두 장남이 갈 밭을 혼자 일을 하였다.

한번은 어부들이 그에게 고기를 팔아 주지 않자 그들의 배를 들어서 길가에 던져 버렸다. 다음날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려니까 배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어 강당장에게 다음부터는 고기도 그냥 드리겠다고 청하니 배를 다시 옮겨놨다고 한다.

3 특징

힘센 장사이면서 대식가 이야기이다. 많이 먹는 이야기이다. 열두 사람이 할 일을 혼자 한 이야기, 배를 옮긴 이야기로 되어 있다.

힘센 장사가 대식가인 경우가 많은 데 보통은 배를 채우지 못하고 굶어 죽는 내용이 많지만 여기서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시련을 견뎌낸다는 이야기이다.

4 핵심어

한림읍 동명리, 한새미, 배큰강당장, 힘, 장사, 제주목, 한림읍 옹포리

5 원전 서지사항

한새미 강당장(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고삭불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남이 참봉 영감(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와 정훈두(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8)

장사 고삭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장사 김팔충(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외도동향토지》, 2005)

장사 정운디(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조천 힘센 김씨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최동이 장사(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홍리 고대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힘센 장사 ᄌᆞ망이(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137 형제섬(쥐섬)

1 개요

안덕면 사계리 앞 바다에 있는 형제섬과 관련된 전설이다.

2 내용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앞 바다에 두 개의 작은 바위섬이 있는데, 이를 형제섬이라 한다. 이 섬에 쥐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쥐섬이라고도 했다.

제주4·3사건 때 형제섬에 살았던 사람이 경험한 것이다. 쥐가 들볶아서, 큰 고양이 한 마리를 부엌에 풀어놓았다. 밤이 되자 고양이가 시끄럽게 날뛰고 울부짖어서 부엌문을 열어 보았더니, 쥐들이 달려들어 고양이를 뜯어 먹고 있었다. 이 일로 당시 제주도에는 고양이가 멸종할 뻔했다.

지금도 형제섬에 고양이가 많다. 형제섬의 바위 모양이 쥐 모양이라서 쥐가 많이 산다고 한다. 요즘은 쥐들이 소라를 잡아먹고, 풀뿌리를 파먹으며 산다고 한다.

3 특징

형제섬에 쥐가 많이 살고 있어서 쥐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지명전설이다.

4 핵심어

사계리, 형제섬, 쥐섬, 산방산, 쥐, 고양이

5 원전 서지사항

형제섬(쥐섬)(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C_L_138 호종단(胡宗旦)과 차귀섬[遮歸島]

1 개요

한경면 고산1리 차귀섬[遮歸島]과 관련된 전설이다.

2 내용

고려 16대 예종 때 일이다. 중국에서는 제주도에서 유능한 인재가 나온다는 얘기가 돌아서, 호종단을 불러 제주도에 있는 13혈(穴)을 막아버리라고 했다. 호종단이 제주에 와서 남원 감목 김씨를 비서로 쓰고, 표선면 옥기[衣貴里]의 혈을 막았다. 김씨에게 혈을 막은 침을 지키라고 하고, 호종단은 다음 혈을 찾아 떠났다. 그러자 김씨는 침을 반쯤 빼버렸다, 호종단이 돌아와서 김씨에게 그곳에 집을 짓고 살게 했다. 김씨는 그 뒤 묘령의 여인을 만나 가정을 꾸려 오래도록 살게 되었다.

호종단이 서홍리에 도착하기 전에, 물귀신인 백발노인이 농부에게 해기에 물을 가득 담아 소길마 속에 숨기고, 누가 와서 찾더라도 모른다고 하라고 부탁했다. 얼마 뒤 꼬부랑 나무 아랫물을 찾는 사람이 나타났으나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호종단이 자기 술서를 찢어버리고 떠났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지장샘물이 나오고 있다.

호종단이 고산 앞바다 차귀섬 부근에 이르렀을 때, 한 마리 매가 폭풍으로 변해 배를 침몰시켰다. 한라산 수호신이 매로 변하여 호종단의 횡포에 복수를 한 것이라고 한다. 뒤에 호종단이 돌아가는 것을 막았다고 해서 이 섬을 차귀섬(전에는 竹島)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3 특징

4 핵심어

차귀섬, 차귀도(遮歸島), 호종단(胡宗旦), 김씨, 감목, 물귀신, 백발노인, 고산, 지장샘물, 서홍리, 죽도(竹島), 매, 한라산 수호신

5 원전 서지사항

호종단(胡宗旦)과 차귀섬(遮歸島)(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6 관련 자료

C_L_139 홍리 고대각

1 개요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힘센 장사 고대각 이야기이다.

고대각은 힘센 장사여서 도둑이 가져간 빚을 몇 배로 돌려받았다는 이야기와 오누이 힘내기 결합된 이야기이다.

2 내용

홍리에 고대각이라는 힘센 장사가 살았다. 그의 부친은 소를 많이 가진 부자여서 힘센 아들을 얻기 위해 임신한 아내에게 소 여러 마리를 먹였다고 한다. 아내가 소 열두 마리를 먹었을 때는 딸을 낳고 열 마리를 먹었을 때는 아들 고대각을 낳았다.

하루는 밭에 도둑이 들어 밭벼 한 짐을 가져가 버렸다. 그것을 지켜본 고대각은 다음날 도둑을 만나 그 이유를 물었지만 도둑은 나중에 갚겠다고 당당히 말을 한다. 몇 년 뒤에 그 도둑이 쌀장사가 잘 되어서 고대각에게 빚을 받으러 오라고 한다. 그리고 저 배에 있는 쌀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가지고 가라고 한다. 고대각은 그 배에 있는 쌀가마니를 모두 짊어지고 가버린다. 고대각이 다른 마을에 가서 씨름을 하며 힘자랑을 하는 것을 보고 누이는 걱정이 되어 누이가 남장을 하여 고대각을 씨름으로 이겨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그 후로 힘자랑을 함부로 하지 않아 큰 화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3 특징

힘센 장사 고대각이 밭에 도둑이 들었지만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나중에 크게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에 오누이 힘겨루기가 삽입된 이야기이다.

4 핵심어

홍리 고대각, 소, 쿨굴왓, 쌀, 도둑, 빚, 씨름, 오누이 힘겨루기

5 원전 서지사항

홍리 고대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고삭불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남이 참봉 영감(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와 정훈두(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8)

장사 고삭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장사 김팔충(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외도동향토지》, 2005)

장사 정운디(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장수인 현씨 남매(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조천 힘센 김씨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최동이 장사(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한새미 강당장(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힘센 장사 ᄌᆞ망이(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140 효부 이야기

1 개요

한 며느리가 친정아버지가 묻힐 묘 터가 명당인 것을 알고, 친정 식구들을 속이면서까지 그 곳을 시아버지 묘 터로 삼아서 가문이 번창하게 되어 효부라고 칭송되었다는 전설이다.

2 내용

한경면 판포리에 진씨 성을 가진 여자가 귀덕리(한림읍) 경주 이씨 집으로 시집을 갔다. 하루는 친정아버지가 오빠에게만 자신이 사후 묻힐 묘 자리를 알려주는 것을 엿들었다. 이 효부는 친정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시아버지를 명당에 안장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다.

친정아버지는 자신이 죽으면 귀덕2리 소못연대에 있는 좋은 자리에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며칠 후 사망하였다. 이때 효부는 시아버지가 사망했으나 묘 터를 정하지 못한 터였는데, 친정아버지가 지정한 묘 터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다. 한밤중에 물허벅(물동이)으로 물을 길어다가 명당에 물을 가득 채워버렸다. 다음날 친정 상주들이 가서 보니 물이 가득 고여 있어서 할 수 없이 판포리로 돌아가서 매장했다.

그 뒤를 이어 효부는 시아버지를 귀덕2리 명당에 묻었으며, 이후 이씨 집안에서는 훌륭한 인재가 태어나고, 가문이 부흥하였다. 나중에 귀덕 이씨 집안 후손들이 판포리 진씨 집안에 찾아가서 사죄했다.

3 특징

이 이야기는 며느리 입장에서 친정보다는 시집의 가문을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4 핵심어

귀덕2리, 판포리, 경주 이씨, 진씨, 효부, 소못연대, 개광(開壙), 봉덕불, 개광, 유언, 행상, 묘 터, 명당

5 원전 서지사항

효부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국문학보》제9집, 1989)

6 관련 자료

C_L_141 효자 다리

1 개요

효자 아들이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다닐 때 발이 시냇물에 젖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도록 돌다리를 만들었는데, 이를 효자다리라고 불렀다.

구좌읍 김녕리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2 내용

20대에 남편과 사별한 여자가 두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 하루는 아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곱게 단장하고 집을 나서는 어머니를 몰래 따라가 보았다. 이 여자는 남자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발이 젖지 않게 신발과 버선을 벗고 냇물을 건너 다녔다. 이에 효심이 지극한 아들은 어머니가 편히 냇물을 건너다닐 수 있도록 어머니 몰래 돌다리를 만들었으며,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다리를 '효자 다리'라고 불렀다.

3 특징

'효자 다리' 이야기는 효불효(孝不孝) 설화에 속한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돌다리를 만든 것은 효행이지만, 아버지에게는 불효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제보자는 '열녀 다리'라고 말하였지만, 그 내용을 보면 효자 다리가 맞는 표현이다.

4 핵심어

효자 다리, 아들, 어머니, 보선, 열여덟, 구좌읍 김녕리

5 원전 서지사항

효자 다리(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6집, 1989)

6 관련 자료

북두칠성(김영돈 · 현용준 · 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142 효자와 신선 바둑 구경

1 개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약초를 캐러 간 효자(덤기)가 신선들의 바둑놀이에 심취하여 시간가는 줄 모른다는 데서 유래된 이야기이다.

2 내용

매촌이라는 마을에 효자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자 온갖 방법을 다 써 봐도 마땅한 치료법이 없었다. 어느 날 백발노승이 효자에게 중복날 신선 3명이 한라산 정오릿물에 내려와서 바둑을 둘 것이고, 그 주변에 꽃이 있으니 그것을 따다가 어머니께 드리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일러 준다. 다만 풀을 뜯을 때 신선들의 바둑놀이를 절대로 구경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했다.

효자는 노승이 알려준 곳을 찾아가 보니 신선들이 바둑 두는 주변에 풀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열심히 그 풀을 뜯은 다음 바로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둑 구경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효자가 살았던 동네도 없어지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그간의 사정을 들으니 효자가 인간 세계로 돌아온 것은 몇 만 년이 흐른 뒤임을 알게 되었다. 효자는 할 수 없이 다시 신선들의 놀이터로 돌아가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3 특징

이 이야기는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약초를 마련한 효자가 인간계와 신선계의 경계지대를 넘나들다가 마침내 신선이 되었다는 신이한 이야기의 성격을 지닌다.

4 핵심어

매촌, 신선, 바둑구경, 바둑놀이, 덤기, 효자, 노승, 한라산, 정오릿물

5 원전 서지사항

효자와 신선 바둑 구경(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창간호, 1986)

6 관련 자료

고성 홍효자(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C_L_143 힘 센 각시 이야기

1 개요

성산읍 수산1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힘센 각시 이야기이다.

부부 싸움을 하던 중에 부인이 남편을 지붕 위로 던져 버린 후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자 딴청을 피우며 넘어가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2 내용

힘이 센 각시가 남편과 싸우다가 남편을 지붕으로 집어 던져 버렸다. 그때 친구가 놀러 오자 지붕 위의 남편은 호박 따러 왔다고 둘러대었다.

3 특징

힘이 센 여성 장사 이야기와 부부 싸움을 감추려는 거짓말이다. 남편이 아내보다 힘이 약해 부부 싸움에서 졌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이야기이다.

4 핵심어

힘 센 각시, 호박, 지붕, 남편

5 원전 서지사항

힘 센 각시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국문학보》제12집, 1994)

6 관련 자료

장군내의 여장군석과 힘센 마누라(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증편한국구비문학대계 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①》,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지붕 위의 남자(도평의 여장사)(백록어문학회,《백록어문》제17집, 2001)

힘센 며느리 이야기(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백록어문》제2집, 1987)

힘센 할망(백록어문학회,《백록어문》제20·21집, 2005)

힘이 센 할머니(김영돈·현용준·현길언,《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144 힘 센 거문덱이 이야기

1 개요

애월읍 유수암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거문덱이에 사는 힘이 센 여자가 우연히 힘이 센 형제를 만나 씨름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2 내용

거문덱이에 사는 힘센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다가 우연히 힘이 센 형제가 연자방아(물방에)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된다. 다음에 또 물을 길러 왔다가 동생을 만나 씨름을 하자고 청한다. 동생이 씨름에 지고 있는 것을 형이 보게 된다. 힘이 센 여자가 형을 발견하고 형에게 가서 다시 씨름을 청한다. 여자가 두 번 씨름을 해서 그런지 힘이 약해져서 형에게 진다.

3 특징

힘이 센 여자가 힘을 자랑하는 이야기이다. 형제와 씨름을 하는데 결말은 힘이 센 형에게 진다.

보통은 여자가 이기는 이야기로 끝나지만 여기서는 두 번의 씨름으로 첫 번째는 힘이 센 여자가 이기고, 두 번째는 힘이 센 형이 이기는 것으로 끝난다. 남성우월주의가 조금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4 핵심어

힘이 센 여자, 거문덱이, 형제, 씨름, 물방에

5 원전 서지사항

힘 센 거문덱이 이야기(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2집, 1996)

6 관련 자료

C_L_145 힘 센 머슴 먹쟁이

1 개요

남원읍 하례1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힘센 장사 먹쟁이 이야기이다.

힘센 머슴 먹쟁이는 보리 서른세 가마니를 한꺼번에 옮길 정도로 힘이 셌다. 힘들게 일을 하여도 밥을 얻어먹지 못하고 산으로 들어가 소를 잡아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먹쟁이굴의 지명전설이기도 하다.

2 내용

남원읍 의귀리에 사는 경주 김씨 집에 힘센 머슴이 있었다. 조천 사람이 의귀리에 와서 배를 만드는데 식량이 부족해서 경주 김씨 집에서 식량을 얻어 왔다. 배를 다 만들고 육지로 장사를 나가고 올 때 보리를 사오자 힘센 머슴이 그 삯을 받으러 왔다.

머슴은 배 안에 있는 보리 서른세 가마니를 등에 지고, 두 가마니는 손에 든 채로 산을 넘어갔다. 길을 가다가 변을 볼 때도 가마니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일을 볼 정도로 힘이 셌다.

머슴은 시장끼가 있어 주변을 돌아보니 연기가 나는 곳으로 보았더니 도둑들이 소를 잡아먹고 있었다. 머슴이 음식을 얻어먹은 후에 도둑들이 심부름을 하라고 하자 도둑굴에 불을 내어 도둑들을 모두 죽이고 남은 소를 먹어 버렸다.

주인 김씨 딸이 먹쟁이를 빌려달라고 하니 김씨가 데려가라고 했다. 딸에게 일을 시키고 밥은 의귀리 아버지 집에 가서 먹으라고 했다. 주인은 일한 집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해서 먹쟁이는 결국 산에 올라가 굴에 살면서 소를 잡아먹다가 죽었다. 그 굴 이름을 '먹쟁이굴'이라고 한다.

3 특징

주요 모티프는 힘센 장사 이야기와 대식가 이야기이다. 세경본풀이에 나오는 정수남이처럼 소를 잡아먹는 대식가로 명확히는 나오지 않지만 주인공의 이름이 먹쟁이인 것을 봐

서도 알 수 있고 주인집이나 주인 딸집에서 밥을 안 준 걸 봐서도 대식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지명전설이기는 하지만 장소는 정확히 알 수 없다.

4 핵심어

의귀리, 장밧, 경주 김씨, 조천포구, 힘, 머슴, 보리, 용변, 도둑, 산적, 먹쟁이굴, 의귀리, 옷귀리, 소, 굴, 산

5 원전 서지사항

힘 센 머슴 먹쟁이(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백록어문》제5집, 1988)

6 관련 자료

당팟당장(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별장 김기봉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장사 당팟 김당장(현용준·김영돈,《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장사 송하철(성읍마을회,《성읍마을》, 2015)

C_L_146 힘 센 며느리 이야기

1 개요

성산읍 온평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힘센 며느리 이야기이다.

어린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부모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지붕 위에 올라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으니 각시가 올렸다는 말은 안 하고 호박 따러 왔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2 내용

어린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부모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어린 아들이 지붕 위에서 울고 있는 것이다.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 부모가 몰래 숨어서 보니 어린 아들이 각시를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니 각시가 어린 아들을 지붕 위로 던져 버린 것이었다.

부모는 모른 척하고 지붕 위에 있는 아들에게 왜 거기에 올라갔냐고 물으니 아들은 각시가 혼날까 봐 호박을 따러 왔다고 하고는 익은 호박을 따고 내려왔다고 한다.

3 특징

힘센 여장사 이야기이다. 하지만 힘센 여장사 이야기가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고 어린 아들이 자신의 각시가 혼이 날까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재치를 발휘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는 이야기가 중심에 있다.

4 핵심어

힘센 며느리, 어린 아들, 호박, 지붕

5 원전 서지사항

힘 센 며느리 이야기(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2집, 1987)

6 관련 자료

장군내의 여장군석과 힘센 마누라(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증편한국구비문학대계 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①》,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지붕 위의 남자(도평의 여장사)(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7집, 2001)

힘센 각시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2집, 1994)

힘센 할망(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0·21집, 2005)

힘이 센 할머니(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147 힘센 이씨 머슴 하르방 이야기

1 개요

구좌읍 동복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힘센 장사 이씨 하르방 이야기이며 장사전설로 머슴 할아버지가 소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켜 죽게 만든 이야기이다.

2 내용

이씨 집에 머슴살이 하는 할아버지에게 주인이 품삯을 잘 주지 않았다. 하지만 머슴 할아버지는 이틀에 할 일을 한 나절에 끝마쳐 버렸다. 머슴이 일을 마치고 점심 먹는 사이에 너무 힘들었던지 소는 그 자리에서 죽어 버렸다.

3 특징

힘이 센 머슴과 함께 일을 한 소는 너무 지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죽는다. 소가 지쳐 죽을 만큼 머슴은 장사라는 것이다. 소는 농사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머슴이 소를 죽게 함으로써 품삯을 안주는 주인에게 앙갚음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

주로 이런 경우 머슴이 대식가로 나오고 소를 잡아먹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여기서는 소가 죽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핵심어

이씨, 머슴 하르방, 소, 힘, 품삯

5 원전 서지사항

힘센 이 씨 머슴 하르방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0집, 1990)

6 관련 자료

C_L_148 힘 센 장사 ᄌᆞ망이

1 개요

한림읍 명월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힘 센 장사 ᄌᆞ망이 이야기이다.

힘 센 장사 ᄌᆞ망이는 장사이면서 대식가 이야기이다. 머슴 ᄌᆞ망이는 매일 소를 한 마리씩 잡아먹을 정도로 대식가이며, 일도 잘했다. ᄌᆞ망이 직업이 소치기여서 그가 관리하던 소들은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았다.

2 내용

ᄌᆞ망이는 힘도 세지만 그만큼 밥도 많이 먹었다. 그는 머슴살이를 했는데, 추수를 마치고 곡식더미를 밭에 쌓아 두었다. 주인이 이를 지키도록 했으나, ᄌᆞ망이는 태연히 누가 훔쳐가겠냐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와 버렸다. 그날 밤 ᄌᆞ망이는 혼자 밭으로 나가 쌓아둔 곡식을 혼자 다 집 안으로 날라왔다.

그는 또한 타고난 소치기였다. 방목하는 소를 휘파람으로 불러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에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주인이 그를 멀리 보내 버렸다.

주인이 대신 소들을 불러 모으려고 애를 써 보았으나, 한 마리의 소도 주인에게로 모여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주인은 다시 ᄌᆞ망이에게 소치는 일을 맡기지 않을 수 없었다.

3 특징

장사이면서 대식가이고 소치기 머슴 이야기이다. 세경본풀이에 나오는 정수남이처럼 주인공은 대식가이다. 소를 관리하는 솜씨는 매우 뛰어나다.

주인공의 모습은 신의 모습처럼 느껴진다. 테우리신의 이야기가 설화로 전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4 핵심어

힘 센 장사, 진근이(동명리 진근동), 검악(금악리), ᄌᆞ망이, 소, 검은오름, 소치기

5 원전 서지사항

힘 센 장사 ᄌᆞ망이(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고삭불 장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남이 참봉 영감(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막산이와 정훈두(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8)

장사 고삭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장사 김팔충(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외도동향토지》, 2005)

장사 정운디(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조천 힘센 김씨하르방(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최동이 장사(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한새미 강당장(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홍리 고대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C_L_149 힘 센 할망

1 개요

한경면 청수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힘센 할망 이야기이다.

힘 센 할머니가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남편을 지붕 위로 던져 버린 이야기이다. 이때 동네 사람이 왜 지붕에 올라갔냐고 물으니 호박을 따러 왔다고 딴청을 피우며 재치 있게 넘어간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2 내용

옛날에 힘 센 할망이 있었다. 하루는 하르방이 말을 안 들으니 힘센 할망은 하르방을 지붕 위에 던져버렸다.

동네사람이 왜 지붕에 올라갔냐고 물으니 하르방은 창피해서 호박 따러 왔다고 했다.

3 특징

힘이 센 여성 장사 이야기와 부부 싸움을 감추려는 거짓말이다. 남편이 자신이 아내보다 힘이 약해 부부 싸움에서 졌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이야기이다.

4 핵심어

힘 센 할머니, 초가집, 호박, 지붕

5 원전 서지사항

힘 센 할망(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0·21집, 2005)

6 관련 자료

장군내의 여장군석과 힘센 마누라(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증편한국구비문학대계 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①》,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지붕 위의 남자(도평의 여장사)(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7집, 2001)

힘센 각시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2집, 1994)

힘센 며느리 이야기(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2집, 1987)

힘이 센 할머니(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L_150 힘과 기예가 뛰어난 강씨

1 개요

서귀포시 중문동 대포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힘센 장사 강씨 이야기이다.

평범한 사람보다는 힘이 센 강씨가 양식과 무명을 바꾸기 위해 성산읍 마을에 갔다가 마을 청년들과 듬돌 들기 내기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고, 비록 언청이지만 퉁소불기 내기 시합에서도 이겼다는 위기극복담이다.

2 내용

힘센 강씨가 성산읍 마을에 무명과 곡식을 바꾸러 갔다. 듬돌이 있기에 앉아서 쉬고 있자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에 왜 앉느냐고 하며 듬돌을 들거나 앉은 자리를 혀로 핥으라고 하였다. 강씨는 듬돌을 들고 큰 밭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강씨가 언청이인 것을 알고 퉁소를 불자고 내기를 하였다. 강씨는 12마디를 불어 이번에도 이겼다.

3 특징

장사설화로 듬돌 들기와 퉁소불기 시합에서 이겨 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야기이다. 마을마다 힘을 상징하는 것은 듬돌이다. 마을에 찾아온 청년을 듬돌 들기로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이처럼 마을 힘의 상징인 듬돌에 외지인이 앉았으니 마을 청년들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위협을 가하려고 내기를 걸었으나 강씨는 힘과 지략으로 위기를 극복하였다는 이야기이다.

4 핵심어

강씨, 넷기, 성산포, 수망리, 물루레, 듬돌, 들름돌, 퉁소, 장사, 대정, 언청이, 두방이

5 원전 서지사항

힘과 기예가 뛰어난 강씨(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6 관련 자료

C_L_151 힘이 센 할머니

1 개요

애월읍 어음1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힘센 할머니 이야기이다.

힘이 센 아내가 자신을 때리는 남편을 지붕 위로 던져 버린 이야기이다. 이때 동네 사람들이 보고 왜 올라갔냐고 물으니 아내 이야기는 못하고 딴청을 부리며 넘어가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2 내용

몸집도 크고 힘도 센 할머니가 있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아침밥을 짓는 할머니를 때렸다. 할머니는 잠잠히 있다가 조용히 할아버지를 마당으로 불러냈다. 마당에 나오자마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들어 지붕위로 내던졌다. 마침 새벽일을 나가는 동네 머슴들이, 왜 지붕위에 올라갔느냐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즉석에서 호박을 따러 올라왔노라고 둘러대어서 창피스러움을 면하였다.

3 특징

힘이 센 여장사이야기와 부부 싸움을 감추려는 거짓말이다. 아내보다 힘이 약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남편이 기지를 발휘하는 이야기이다.

4 핵심어

힘이 센 할머니, ᄌᆞ물케할망, 은펭이 각시, 호박, 지붕, 애월읍 어음1리

5 원전 서지사항

힘이 센 할머니(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장군내의 여장군석과 힘센 마누라(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증편한국구비문학대계 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①》,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지붕 위의 남자(도평의 여장사)(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7집, 2001)

힘센 각시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2집, 1994)

힘센 며느리 이야기(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2집, 1987)

힘센 할망(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0·21집, 2005)

Ⅱ. 기존 자료 해제

민담

C_F_001 개와 닭의 원한

1 개요

사람들이 닭을 길러서 잡아먹는 데에 개와 닭이 원한을 품고, 협력하여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다는 이야기이다.

닭은 3년 이상 기르면 안 되고, 개는 7년 이상 기르면 안 된다는 경고의 이야기이다.

2 내용

사람들이 토종닭을 3년 이상 기르고, 개를 7년 이상 기르면 사람으로 변해서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 부자가 닭 100마리를 길렀는데 사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라 집에서 기르는 닭을 잡아먹었다. 이 집에는 10년 정도 기른 개도 있고, 5~6년 기른 닭도 있었다.

하루는 이 닭(장닭)이 할아버지가 되어 나타났다. 그 집에 있던 개에게 "우리가 이 집에서 오래 살았으니 친한 사이가 아니냐."고 하면서 주인이 닭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 원수를 갚겠다고 했다.

장닭은 주인이 타는 말을 타고 뱀 굴로 찾아가서 사왕(뱀 우두머리)에게 도움을 청한다. 뱀 무리들이 주인집 울타리를 빙 둘러있기로 약속하며, 삼해유(三亥油 : 일 년이 해년 해월 해일에 빤 기름)가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한다. 부자 아들이 이 사실을 엿듣고 집 울타리에 삼해유를 뿌리니 모여 있던 뱀들이 모두 죽었다. 이후 집에서 닭은 3년, 개는 7년 이상 기르면 사람으로 변할 수 있고,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전해온다.

3 특징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가축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생명을 존중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사람들과 가축이 오래 지내게 되면 가축이 영물이 되어서 사람을 해롭게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4 핵심어

개, 닭, 계불과 삼년, 구불과 칠년, 사굴(뱀굴), 사왕, 삼해유

5 원전 서지사항

개와 닭의 원한(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창간호, 1986)

6 관련 자료

C_F_002 겸손을 배운 제자

1 개요

이 전설은 학력이 아무리 높아도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스승을 존경해야 한다는 지혜를 알려준다.

2 내용

오랜 옛날 부잣집 아들이 서울에 가서 태학관을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왔다. 부친이 서당 선생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라고 했다. 그가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마침 한 여인이 문방사우를 들고 와서는 시집 식구들의 비문을 지어달라고 청했다.

선생님은 제자에게 비문 짓기를 권하여 비문을 지었는데 그 여인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훈장이 직접 비문을 지어주니 여인은 흡족해하고 돌아갔다. 이 광경을 부친에게 이야기하자, 부친은 아들에게 사람은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겸손해야 하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3 특징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치는데는 부모와 스승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이다.

4 핵심어

겸손, 제자, 소학교, 태학관, 성균관, 여자, 선생님, 아버님, 비문, 부인

5 원전 서지사항

겸손을 배운 제자(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겸손해서 얻은 쌀(오성찬, 《제주의 마을 고성리》, 도서출판 반석, 2002)

C_F_003 계모의 모략(1)

1 개요

본처의 아들을 못살게 군 계모의 계략을 지혜롭게 밝혀낸 며느리의 이야기이다.

2 내용

계모의 심술로 전처 아들이 자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계모는 집안 재산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전처의 아들을 헤치려는 계획을 세운다. 계모는 하인에게 전처 아들이 장가드는 날 신혼방에 들어가서 신부의 치맛자락 잘라 오라고 시킨다. 신랑은 밤중에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정신을 놓아버렸다.

신부는 그날 이후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고, 범인을 찾아 나섰다. 신부는 마침내 신랑 집에 당도하여 계모가 사용하는 궤 안에 감춰둔 치맛자락을 찾아내어 오해를 풀게 되었다. 신랑은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계모는 쫓겨나게 되면서 집안이 평화를 찾았다.

3 특징

집안의 행복과 불행은 어머니의 역할에 달려있음을 전해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이다. 특히 계모의 전횡을 풍자한 「장화홍련전」, 「콩쥐팥쥐전」 등의 화소를 내포하고 있다.

4 핵심어

계모, 어머니, 후처, 족은각시, 큰아들, 족은어멍, 신랑, 신부, 치마폭, 결혼, 점쟁이

5 원전 서지사항

계모의 모략(1)(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계모의 모략(2)(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다슴어멍(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F_004 과거보는 선비 이야기

1 개요

어떤 사람이 아홉 번 과거시험에 낙방하고 좌절하여 죽으려고 할 때 지나가던 한 노인의 도움으로 과거시험에 합격한 선비 이야기로 남원읍 의귀리에서 전해온다.

2 내용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과거시험에 아홉 번이나 응시했는데 떨어지자 살아갈 용기를 잃고 목을 매어 죽으려고 했다. 때마침 백발노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선비의 사연을 듣고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노인은 선비에게 "내일 특별시험이 있을 테니 시험관이 문제를 내면 '매 연자(鳶字)'라 대답하면 합격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다음날 고사장에서 시험관이 문제를 내기도 전에 선비는 '빙빙 연'이라 말을 해놓고 나니 당연히 시험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고사장 밖으로 나와 버렸다. 그때 모르는 응시생을 만나자 자신은 오답을 말했지만 그대는 정답을 말하라고 알려준다. 결국 한 응시자의 지혜로 두 사람 모두 과거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3 특징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섣불리 낙담하지 말고 침착하게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

4 핵심어

과거, 특과, 낙방, 어떤 노인, 신선, 매연, 어떤 선비, 시골말

5 원전 서지사항

과거보는 선비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1집, 1992)

6 관련 자료

C_F_005 괴상한 세 동무

1 개요

짐승 말을 알아듣는 사람, 관상을 잘 보는 사람, 음식 맛을 잘 아는 사람의 신이한 행동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2 내용

각자 특이한 재능을 지닌 세 친구가 있었다. 세 사람은 까마귀 우는 소리를 듣고 짐승이 죽어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처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쓴다. 재판장이 아무리 문초를 해도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하여 곤란해지자 그의 아내의 지혜로 세 사람을 시험해 본다.

짐승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재판장이 숨겨놓은 참새의 말을 알아들었고, 관상을 보는 친구는 재판장을 스님의 자식이라 하였고, 음식 맛을 잘 아는 친구는 탁주 맛을 보더니 묘 터에서 수확한 곡식임을 알아 맞힌다. 재판장은 세 친구에게 그들이 지닌 신이한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신신 당부하였다.

3 특징

4 핵심어

동무, 짐승, 관상, 음식 맛, 가마귀, 제비, 각시, 밥상, 대축술, 스님, 재판장, 천리터

5 원전 서지사항

괴상한 세 동무(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 7집, 1982)

6 관련 자료

C_F_006 구렁이가 된 막내

1 개요

세 형제가 10년간 수학한 후에 큰 형은 신선이 되고, 둘째는 평양감사가 되었으나, 막내는 욕심이 많아서 구렁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2 내용

세 형제가 도학을 배우기 위하여 깊은 산 속에 있는 스승을 찾아가서 10년간 공부했다. 세 형제는 각자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기로 하고 헤어졌다. 둘째는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평양감사가 되었다. 어느 날 가마 타고 순행하다가 우연히 형을 만나서 형을 따라 산 속으로 들어가 동삼을 먹었는데, 형과 며칠 사는 동안 세상의 시간은 한 없이 흘러 버렸다. 막내는 욕심쟁이여서 구렁이로 환생되어 있었는데, 큰형이 사람으로 환생시켜 주었다.

오랜만에 세 형제가 한 자리에 모이니 막내에게 복숭아 3개를 따오라고 시켰다. 막내는 아직도 욕심이 많아서 하나는 몰래 먹고, 3개를 가져와서 하나씩 나눠 먹었다. 신선이 된 큰 형은 그 사실을 알았고, 막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구렁이로 돌아갔다. 평양감사였던 둘째는 형과 헤어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나 몇 백 년이 흐른 뒤라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다시 형에게 돌아와 신선이 되었다. 막내는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구렁이가 된채 살아간다.

3 특징

4 핵심어

구렁이, 막내, 도학, 하르방, 셋놈, 삼성제, 평양감사, 동삼, 신선, 서문, 복숭아, 큰형, 삼형제, 세형제

5 원전 서지사항

구렁이가 된 막내(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구정승과 뱀아들(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F_007 귀신대2

1 개요

사방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길 한가운데서 전봇대처럼 커다란 물체를 만나게 되는데, 이를 '귀신대'라고 한다.

2 내용

사람들이 밤길을 갈 때 산이나 건물이 아닌 커다란 물체를 만날 때 겁에 질려서 죽기도 한다는 말이 있다. 만약 이런 물체를 만나면 '이것이 귀신대구나' 해서 겁을 먹지 말고 침착하게 대하면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굿을 하거나 온갖 방법을 다 쓰게 된다.

만약 귀신대를 만나면 정신을 차리고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 톡톡 두드리면서 돌가루를 만들면 그 냄새에 귀신대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이다.

3 특징

전깃불이 없던 시절에 어두운 곳을 지나게 되면 놀라지 말고 돌멩이라도 부딪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의미로 귀신을 대적하는 예방법으로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4 핵심어

귀신대2, 돌가루, 전봇대, 심방, 푸다시

5 원전 서지사항

귀신대2(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10집, 1994)

6 관련 자료

귀신대1(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10집, 1994)

C_F_008 말 한마디로 복 얻은 노인

1 개요

짚신을 짜면서 생활하는 노인이 도적떼를 위기에서 구해 주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많은 재물을 받았다는 이야기이다.

2 내용

초신(짚신) 만들기를 생업으로 하는 노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서른 냥이 든 돈주머니를 들고 시장에 갔는데 어느 엄부럭총각이 술 먹기를 권한다. 노인은 고민하다가 돈주머니를 바닥에 놓고 술잔을 받았는데, 엄부럭총각이 한순간에 돈주머니를 낚아채고 달아나 버렸다.

노인은 체념하고 시장을 배회하고 있는데, 한 처녀가 자기네 주막에서 엄부럭총각이 노름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그 총각은 노인의 돈을 밑천 삼아 노름판에서 돈을 따고, 원 주인이 오니까 돈을 돌려주었다. 노인이 돈주머니를 갖고 집으로 오는 길에 세 명의 도둑을 만난다. 그때 지나가던 사또가 이들의 행동을 의심하면서 노인에게 물으니, 노인은 자신이 이들(도둑)에게 진 빚이 있어서 벌어서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둘러대고, 도둑들의 신분을 감춰 주었다. 이에 감동한 도둑들은 노인의 소재를 확인한 다음 며칠 후 삼백 명이 옷과 쌀을 가져다주었다.

노인은 도둑을 위기에서 구해준 말 한마디 덕택에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

3 특징

4 핵심어

초신, 엄부럭총각, 사또, 도둑, 서른 냥, 돈전대, 노인, 말 한 마디

5 원전 서지사항

말 한마디로 복 얻은 노인(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7집, 1990)

6 관련 자료

C_F_009 말(馬) 이야기

1 개요

한경면 두모리 김씨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주인의 죽음을 집안에 알린 충성스러운 말(馬)의 용감한 행동이 전해온다.

2 내용

두모리에 사는 김씨 부자가 향교(제주시 소재)에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날 조부의 제삿날이라 말을 타고 부지런히 집으로 가는 중에 한림읍 수원리까지 오니 너무 배가 고파서 참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때 횃불을 켜고 장사지내는 사람들이 보이자, 아버지는 거기로 조문하고 술 한잔을 얻어먹고 오겠다고 가버렸다. 아들은 말과 같이 한참을 기다려도 아버지가 오지 않자 현장을 가보니 상복을 입은 사람들은 허수아비였고, 아버지는 죽어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부둥켜 앉고 울다가 실신하였다. 홀로 남은 말은 두모리 집으로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친척들을 데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왔다. 충직한 말 덕택에 아들을 살리게 되었다.

3 특징

4 핵심어

말, 항교, 두모리, 수원리, 상제, 방장대, 허제비, 아버지, 아들

5 원전 서지사항

말(馬) 이야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6 관련 자료

새소리를 아는 사람(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F_010 멜 잡는 도채비

1 개요

멸치잡이 때 만선이 되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깨비 이야기이다.

제줏말 '도채비'(도체비)는 표준어 '도깨비'에 해당하고, 제줏말 '멜'은 표준어 '멸치'를 뜻한다.

2 내용

구좌읍 한동리 지경에 도깨비가 많이 나타난다는 말이 있다. 멸치잡이를 하기 전에 나이든 공원이 제물을 준비하고 도깨비를 청해서 대접했다. 음식을 대접받은 도깨비는 보답으로 멸치어장에 풍년이 들도록 도와주었다. 다음 해에는 마을에서 도깨비 대접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고, 멸치어장도 흉년이 들었다.

3 특징

4 핵심어

멸치, 도깨비, 한동, 제물, 계장, 공원, 영감, 응감, 대축(옥수수), 범벅, 오메기떡, 멸치어장

5 원전 서지사항

멜 잡는 도채비(평대리지편집위원회, 《평대리 : 비자림 군락의 촌》, 1999)

6 관련 자료

도깨비 이야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도깨비(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도깨비(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도깨비(Ⅱ)(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도채비(1)(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C_F_011 사름 아니라는 욕

1 개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제주시 도련동 출신 이계징(李啓徵) 관련한 전설이다.

2 내용

이락당(二樂堂) 이계징(李啓徵)의 며느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 그 시아버지에게 청원을 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집에 다녀오더니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에게 아주 욕을 해주고 왔다고 하였다. 며느리가 궁금하여 무슨 욕을 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이계징은 사람이 아니라고 욕을 했다고 했다.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라는 욕은 욕 중에서 큰 욕일 수 있다.

3 특징

이계징(1840~1914)은 제주시 도련동(道蓮洞) 매촌(梅村) 출신이다.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에게 배웠다. 집은 가난하였지만 학문을 좋아하여 당시 글씨와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 전설은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는 유학의 교훈을 몸소 실천하면서 한편으로는 일상과의 소통에는 매끄럽지 못했던 조선시대 선비의 모습을 이계징이라는 실존인물의 일화를 통해 보여준다.

4 핵심어

이락당, 이계징, 욕, 도련동

5 원전 서지사항

“사름 아니”라는 욕(오성찬, 《제주의 마을 함덕리》, 도서출판 반석, 2002)

6 관련 자료

C_F_012 산도채비

1 개요

도깨비(도채비)는 죽은도깨비와 산도깨비로 구분되는데, 죽은도깨비는 불빛으로 나타나고, 산도깨비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도깨비를 잘 모셔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이다.

2 내용

한경면에 살던 사람이 산도채비를 성심껏 모셔서 부자로 잘살게 되었는데, 더 이상 산도채비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자 꾀를 내여 내쫓을 궁리를 하였다. 산도채비는 주인과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했다. 주인은 제주시 관덕정 앞 마당을 뜯어오라고 하자 산도채비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패하였다. 그래서 산도채비는 주인을 섬기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멀리 달아나 버리고, 주인은 힘을 들이지 않고 산도채비를 떼어냈다는 이야기이다.

3 특징

4 핵심어

도채비, 죽은도채비, 산도채비, 관덕정, 주인

5 원전 서지사항

산도채비(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도깨비(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도깨비(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도깨비(Ⅱ)(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도깨비 이야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도채비(1)(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도채비불과 漢東里名(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부훈장과 도채비(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산도채비(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C_F_013 신기한 호랑이 눈썹

1 개요

어떤 사람이 호랑이가 뽑아준 눈썹 한 가닥으로 온갖 짐승을 잘 보게 되고, 팥죽 장사를 하면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2 내용

옛날 아주 가난한 사람이 푸나무 장사를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하루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집을 나선다. 호랑이를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하자. 호랑이는 자신의 눈썹을 하나 뽑아주면서 그것을 지니고 서울 팥죽 장사하는 여자를 찾아가면 살 도리가 있다고 일러준다.

호랑이 눈썹을 눈에 대어보니 말, 양, 돼지, 쥐, 고양이 등 온갖 짐승이 보였다. 호랑이 눈썹을 지니고 있어서 그런지 팥죽 장사가 아주 잘 되어서 집도 사고 부자가 되었다. 그 후 그 여자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다가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

3 특징

4 핵심어

호랑이, 눈썹, 푸나무 장시, 사름, 풋죽(팥죽), 서월, 각시, 아기덜, 심바람(심부름)

5 원전 서지사항

신기한 호랑이 눈썹(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학술조사보고서》제7집, 1982)

6 관련 자료

Ⅲ. 현지 조사 자료

신화

W_M_001 구할망본풀이

2008년 5월 26일, 조천읍 대흘2리 만덕사, 강정식 조사.
이용순(여, 1947년생, 한림읍 귀덕리)

당시 서귀포시 동홍동에 거주하는 양진생 심방 댁 신굿의 불도맞이에서 구연한 자료이다. 엎드린 자세로 바랑을 부딪치면서 구연하였다. 할망본풀이로 구연한 자료이나 일반적인 구할망본풀이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대신 보인다.

인간할마님은 옛날 임박사 임부주 시절에 이탁헐 때에, 인간 아방 몸에 흰 피 석 돌 어멍 몸에 감은 피 석 돌 열 돌 ᄎᆞᆫ짐 질런 인간 소셍허난, ᄒᆞᆫ 설이 나던 헤에 하르바님 쉬염 물뜬 쥐 두 설 아바지 쉬염 물뜬 쥐 할머님 젯가슴 어멍 젯가심 두든 쥐, 동네 방장 박접헌 쥐 널은 날레 허튼 쥐목 일가방상에 불목헌 쥐목을 마련허난, 무쉐젱이 불러단 무세설캅을 탕 앚안, 동이와당 멀리 띄어부난 물 알에 물 우이 떵 뎅기단, 무우남 상가지예 걸어지난 임박사 부인 물짐 지레 간 보난,

"귀신이냐 셍인이녠?" 허난, "귀신이 올 수가 잇십네까. 저는 셍인뒙니다." 이 고단 인간할마님이 엇이난, 할마님으로 들어사젠 허연 들어사난, ᄒᆞᆯ 돌 두 돌 만에 포테를 자리혈로 들어강 주민, ᄒᆞᆫ 돌 두 돌 서넉 돌 뒈민 낙테를 불러주곡, 열 돌 넘엉 구에문 못네 열려 출산법을 마련 못허난, 어멍도 죽을 사경 허멍, 아기도 죽을 환경이 당허난, 임박사 옥황드레 금바랑으로, 아침 저녁으로 등장 드난, "어떵 허난 인간에서 칭원헌, 자가 이런 수원을 허겟느냐?"

금부도서 네려완 베려보난, "임박사가 칭원헌 수원이 뒙니덴." 허여난, 그때엔 "어떵 헌 수원이냐." "인간할마님을 내리와줍센." 허난, 옥황상저 ᄯᅮ님아기나, 베울 일 다 베완, 불러다 놓안 널랑 인간드레 내려강 인간할마님으로 들어사렌 허난, "저 ᄀᆞᄯᅳᆫ 여성이 어찌 할마님 자격이 잇십니껜?" 허난 "말 ᄒᆞᆫ 마딜 허여도 기뜩허덴." 허난,"게거들랑 ᄒᆞᆯ 일곱 자 걸렛베 내여줍서. 은ᄀᆞ세 은씰 은바늘 내여줍서. 어깬할망 구덕할망 내여줍센." 영 허난, "말 ᄒᆞᆫ 마딜 ᄒᆞ는 걸 보아도 기특허덴." 허연,

내여주난 ᄉᆞ월 초파일날 등불을 밝혀 인간드레 노각성 ᄌᆞ부줄을 둘러탄, 높은 산은 우

들르고 데 닦아, 안치장을 허고 만상족두리를 거느령, 오란 앚안 천리 서 만릴 보난에, 임박사 메누리 아기 못헤주언 구에문 열련 순산법을 못허난, 이거 인간할마님 들어산, 각진 장판 걷어간다. 모비단 이불 걷어간다. 복덕자릴 ᄀᆞᆯ아 놓안, 아기어멍 ᄇᆞ뜬 심줄은 늦추와 간다. 늦은 심줄은 ᄇᆞ뜨완, 머리로 식은뚬 다르르기 떨어지난, 구에문 열려 종이붓 벳견 고운 얼굴 고운 메치 왓구낭. 사을밥 허연 몸 모욕 시겨두언 올레 바꼇 나오난,

동이용궁할마님이, “내가 준 ᄌᆞ손인데 누가 주언 수에 구에문을 열려 순산법을 마련허엿이녠?” 허여근, 싸움허젠 허난 “싸우믄 꼭같은 여성이 뒌덴.” 허연, 옥항드레 등장 드난 금부도사 내여놓안, 불러단 얼굴도 꼭 ᄀᆞ뜨고 귀도 ᄀᆞ딴, 인간할마님엔 동이용궁할마님 꼿동일 내여놓안 꼿을 싱경, 이싱 저싱 ᄎᆞ질 허렌 허난 꼿동일 내여놓안 꼿을 싱건 베려 보난, 인간할마님 싱근 꼿은 불린 웨불리고 가지는 수만 가지 퍼럭버럭 환싱이 뒈고 동이용궁할마님이, 싱근 꼿은 불린 수만 불리가 뒈연, 가지는 웨가지가 뒈엿구넹 허난 그땐 “널랑 인간 ᄎᆞ질 허고 동이용궁할마님이랑 저싱 ᄎᆞ질 허렌.” 허난 언제 ᄒᆞᆫ번 원수 갚음 허젠 허연 꼿 하날 꼭 허게 꺾어앚언 그냥 저싱드레 도올라부난, 아기덜 인간 탄싱허민 빌너럭징도 불러주고, 밤역시 낮역시, 석 ᄃᆞᆯ 안네도 인간 엇어져불고 서천꼿밧 가고 영헙디다.

- 핵심어 : 인간할마님, 임박사, ᄉᆞ월 초파일, 동이용궁 할마님, 순산법, 아기, 빌너럭징, 서천꼿밧, 구에문, 순산법

W_M_002 문전본풀이

2006년 8월 16일 남원읍 태흥리 강금춘씨 댁, 강정식 조사.
강치옥(여, 1938년생, 제주시 용담동)

남원읍 태흥리 강금춘 심방 댁의 큰굿(신굿)에서 구연한 것이다.

옛날이라
엿적에 남선골에
남선비 사옵디다덜
여산골 여산부인
살읍디다.
가난허고 사난헌디덜
아기덜 솟아나난
아덜은 일곱 성제
솟아나
이 아기덜
ᄒᆞ건 살리저
남선비 굴미굴산 올라
곧은 남 비여다
푸나무 장사허멍
아기덜 구명도식 시겨바도
가난은 질이공서 뒈여지난
남선비 ᄒᆞ를날은
하늘옥황 굴미굴산 도올라
곧은 남 비여다근
베를 지어놓앗구나.
ᄒᆞ를은 성창에 내리와
ᄇᆞ름 부는 대로
절국 가는 대로
가당 무곡이나 받아당 무곡장사 허영
이 애기덜 살리저 베를 띄운 것이
ᄇᆞ름 부는 대로

절국 가는 대로
가단 보난 오동나라 오동골로
들어가는구나.
성창에 베를 메여두고
ᄒᆞᆫ 자추 올라사난
눼일저데 귀일이 뚤 얻어 만나
“우리 집이 가민
안사랑도 좋아지고 밖사랑도 좋아지곡
내웨사랑 치사랑 좋아지난
우리 집이 가근에 주인이나 멎읍서.”
“어서 걸랑 기영 허저.”
어서 눼일저데 호탕에 들언
가고 보난
거적문 남돌처기
데죽나문 꼬까마기 집에 앚안
ᄒᆞ를 이틀 삼일 살아가난
눼일저데 허는 말이
“아이고 남셍원아
나영 ᄀᆞᆮ이
바둑 장기 두어 봅서.
나가 지면 저 올레에 정 덖엉 안네쿠다.
남셍원이 지거들랑
전베독선이나
나를 줍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두어 장개
두어 바둑 허단 보난
남선비
전베독선 다 풀아먹엇구나.
ᄒᆞ를 이틀 사는 것이 ᄒᆞᆫ ᄃᆞᆯ 두 ᄃᆞᆯ
연삼년 살단 보난
거적문 남돌처기
데죽나문 꼬까마기 집이
앚아 체죽단지

개만 떼려가는구나.
ᄒᆞ를날은 어서도
여산골 여산부인
남선비 오랎이카부덴
ᄉᆞ신요왕 성창에
어서나 가고 보난
남선비 오도가도 아니 허난
집으로 돌아가근
아덜덜 일곱 성제 불러놓아
“서룬 아기덜아
느네덜 어서 할로영산
올랑 곧은 남이나 비여다가
베나 지여 놓아도라.
어서 걸랑 기영 헙서.”
이 애기덜 일곱 성제
굴미굴산 도올라
곧은 남 비여다근
베를 지어 놓앗구나.
여산부인님
어서 그 베 타근
가젠 허여가난 일곱 성제가 “어마님아 우리 일곱 성제
아버님 시체나 ᄎᆞᆺ이쿠다.”
“아이고 서룬 아기덜 느네덜 어디를 어디라렌
ᄎᆞᆺ앙 거냐.
이디 집이 살앎이민
나냥으로 강 ᄎᆞᆺ아봥 어서 오마.”
“어서 걸랑 기영 헙서.”
여산부인 베를 띄와 가는 게
ᄇᆞ름 부는 대로 절국 가는 대로
가단 바려보난
오동나라 오동골로 들어나가는구나.
베는 메여두고
ᄒᆞᆫ 자추 올라사난
지장밧디 새 ᄃᆞ리는 애기씨가

“이 새야 저 새야 밥주리 ᄋᆞᆨ은 새야
너미 욕은 척 허지 말라 남선비 ᄋᆞᆨ은 깐에도
눼일저데 호탕에 드난
전베독선 다 풀아먹어두고
거적문에 남돌처기
데죽나문 꼬까마기 집이 앚안
체죽단지 개 ᄃᆞ렴져 후어 쑤어 쭈죽.” 허엿구나.
“아이고 서룬 아기야 느 ᄀᆞᆺ사 미신 말 ᄀᆞᆯ안디?
ᄀᆞᆺ사 ᄀᆞᆯ아난 말
ᄒᆞᆫ 번만 다시 ᄀᆞᆯ아주민
아이고 나 고운 뎅기도 클러주마.
고운 구실도 내여주마.”
“아무 말도 아니 ᄀᆞᆯ앗수다.
아이고 나 이 제 저 제 넘어 가당 보민
요 새야 저 새야 밥주리 ᄋᆞᆨ은 새야
너미 ᄋᆞᆨ은 척허지 말라.
아으 멎은 그물에 들민
죽어나 진덴 허고
남선비 ᄋᆞᆨ은 깐에도
눼일저데 호탕에 드난
전베독선 다 풀아먹고
거적문에 남돌처기
대죽나문 꼬까마기 집이 앚안
체죽단지 개 ᄃᆞ렴젠 허연 후어 쑤어 쭈죽 허엿수다-.”
게거들랑
고운 뎅기도 클러주고 고운 구실도 내여주어 두고
“어느 만쭉이나 가민 가지느니?” “요 제 넘곡 저 제 넘엉
가당 바려봅서.
가집네다덜.”
여산부인 그 말 들언 요 제 넘고 저 제 넘언 가단 보난
거적문 남돌처기 데죽남 꼬까마기 집에
앚아근 체죽단지 개 ᄃᆞ렸저.
아이고 여산골 여산부인이 들어가멍 “집이나 ᄒᆞ끔 빌립서.”
“아이고 우리 집이 집 빌릴 거 엇입니다덜.”

“게거들랑 방이라도 흔 칸만 빌려줍서덜.”
“아이고 방 흔 칸도 빌릴 거 엇입니다덜.”
“겜으로사
난 디 나는 사름
집을 지엉 날 수가 잇입니까?
헛간 방이라도
흔 칸만 빌려나 줍서.”
“어서 걸랑 기영 헙서덜.”
헛간 방 흔 칸을 빌엇구나.
“어서 게거들랑
솟이나 흔번 빌려줍서.”
“어서 걸랑 기영 헙서덜.”
여산부인님
솟뚜깽이 열안 보난
체죽만 쑤어부난
체 누넹이만 눌엇이난 여산부인님
뒷밧디 놀려들언 삼소세 걷어다근
초펀 이펀 제삼펀 싯엇구나.
쏠을 놓아 밥을 지어
남선비암피 들러다 노멍
“아이고 요 진짓상이나 받아봅서.”
어서 게건 진짓상을 받으는디
어서 여산부인님
“이제야 게고 나도 남선골에 살 떼엔
이추룩 굼벵이쏠 놓안 밥 헌 거 먹으멍 살앗수다마는
이디 완 살단 보난덜
체죽만 먹단 보난
눈 아울라 어두어지엇수덴.” 대답을 허여가난
“어서 우리 게거든
통성명이나 허여보게.”
“어서 걸랑 기영 헙서덜.
아이고 난 남선골 남선비가 뒈여집니다.”
“나는 여산골에
여산부인 뒈여집네다.”

그때야 남선비 어서
“우리 큰부인 날 춪안 오랏구나.”
“아이고 남인 낭군님아
남선골에 아기덜 일곱 성제
내불어돈 오랏이메
어서 이제랑 집으로 돌아가근
아기덜 일곱 성제 거느령 어서 살기
어지 허오리까?”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여산부인님 남선비 홀목 심언 저 올레레
걸엀이난
눼일저데 어디 간 체 흔 줌 빌언 치마깍에 싸앚언
흔질흔질 들어오단
남선비 저 올레레 걸엀이난
“아이고 요 놈으 ᄌᆞ석아
저 놈으 ᄌᆞ석아
날라근 체 빌멍
메날 죽 쑤엉 봉그랑케 멕이단 보난
지나가는 간난이년 돌아다 놓고
웃음 놀이개 허엀구나.”
“아따 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큰부인
날 춪안 오랏이난
난 이젠 남선골로 돌아가근
아기덜 일곱 성제 거느령
어서 살젠 감덴.” 골으난
그때야 눼일저데가
“아이고 서룬 성님아 날도 ᄀᆞ찌 둘앙 그릅서.
나도 ᄀᆞ찌 강
물이라도 질어다놓곡
굴묵이라도 짇으멍 얻어먹엉
어서 살쿠덴.”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남선비 눼일저데 돌아앚언 오단 보난
주천강 연네물을

근당 뒈엿구나.
그때야 눼일저데가
엇인 언강을 부리멍 “서룬 성님아
베 탄 오젠 허난 더윈덜 아니 먹곡 뚬인덜 아니 낫수가.
옵서 우리 저 물에 강
등에 물이나 놓아근 어서 가게.”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아이고 남셍원아 저 앞이 성창드레 걸엄십서.
우리랑 등에 물을 놓앙 가쿠다.”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어서 여산부인
눼일저데년 돌아앚언 ᄀᆞ찌 간 것이
연못디 어서 가난
“야 느부떠 굽으라 느 등에 물을 놔동 나도 빌엉 노키여.” “서룬 성님아
그게 무신 말입니까 우로 네린 물은 발등에 지는 법이난 서룬 성님부떠
굽으민 어서 물 놓앙 드려두고
나도 빌엉 물을 노쿠다.”
“어서 기영 허라.”
여산부인
웃저구리 벗언 엎더지난 눼일저데년
ᄒᆞᆫ 번 두 번 삼시번
줴어놓단 물르레 자락 거밀리난
여산부인님
ᄉᆞ르륵기 ᄀᆞᆯ라앚아 죽어가는구나.
눼일저데년 여산부인님 옷저구리 벗엉 나두난
줏어 입언 성창에 돌려간
남선비앞이 간
“아이고 눼일저데년 헹실이 궤씸허난 죽연 물르레 밀려두곡
어서나 오랏수다.”
남선비 폭기 고정 들언
“아이고 그 년 저 년
잘 죽엿저 그 년 떼문에
나 전베독선 다 풀아먹고 메날 체죽만 먹단 보난
눈 아울라 어둑어지엇구나.”
이 말 ᄀᆞᆯ으난덜

어서 눼일저데년
베를 둘러타곡 남선비허곡
남선골로 들어오라간다.
집으로 오라가난
아기덜 일곱 성제 성창에 마중을 가근
“아바님 어머님 오는디
어서 마중을 가보게.” 녹디셍인이 굴으난
“어서 기영 허라.” 일곱 성제 성창에 마중은 간 베려보난
“아바님은 우리 아바님이뒈 어멍은 우리 어멍 아니 뒈엾수다.
서룬 성님아
아버지영 어머니영 오는디 ᄃᆞ리나 ᄒᆞᆫ번 ᄀᆞᆯ아봅서덜.”
“어서 기영 허라.” 큰성님은
멩긴 벗언 ᄃᆞ릴 논다.
셋성님 관디 벗어 ᄃᆞ릴 놓고
말잣성님
옷저고리 벗언 ᄃᆞ릴 논다.
네 번쳇 성님
바지 벗어 ᄃᆞ리를 놓아간다.
다섯 번체 성님이영 ᄋᆞ섯 번체 성님이영
헹경 벗엉 보선 벗엉
ᄃᆞ릴 놓앗구나.
녹디셍인 칼선ᄃᆞ리 놓아가난
“아이고 아버님이영 어머님영 오는데 는 무사
칼선ᄃᆞ리 놓앐이니?”
“아이고 아버님은 우리 아버님 뒈여도
어멍은 우리 어머님
아니 뒈난 칼선ᄃᆞ리 놓앐수다.”
“아이고 나가 느네 어멍이여.”
“우리 어머님 분명허건
아바지 홀목 심엉
우리 올레 ᄀᆞ리쳥
우리 집으로 ᄃᆞᆯ앙 글읍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어서 눼일저데

남선비 홀목을 심어앚언
집으로 둘안 가는 것이
이 골목은 저 골목
어서나 들어가가난
“아이고 요거 봅서 우리 어머님 뒈엿이민 무사 우리 올레 모릅네까?”
“서룬 아이덜아
베 탄 가곡오곡 허단 보난
수질도 나불고
멀밋기도 나부난
오꼿 정신 엇언 올레를 몰랐이난 아버님 홀목 심엉
집으로 둘아 글라.”
“어서 걸랑 기영 헙서만은
우리 집이 가민 일곱 성제 진짓상 출리는 거 바도
알 도레 잇입네다.”
어서 집으로 둘앙 간 게
진짓상을 출려보뒈
아버님 받던 상
어서 큰아덜에 주어불고
큰아덜이 받던 상
셋아덜에 주어불고
셋아덜이 받던 상 말젓아덜에 주어간다.
말젓아덜 받던 상
네 번찻 아시신디
주어나 가는구나 네 번체 아시가
받던 상은 다섯 번체
아시신디 주어불곡 다섯 체 받던 상 ᄋᆞ섯 번체 주어 나가는구나.
ᄋᆞ섯 번체 받던 상
녹디셍인신디 들러가곡 녹디셍인 족은아덜
받던 상은
아버님신디 들러갓구나-.
“아이고 요거 베려봅서 우리 어머님이 분명허민 진짓상으로 틀리는 거 바도
알을 도레가 잇입네다.”
아이고 요년 눼일저데년
앚안 아기덜 곧는 말은 들언 보난

“아이고 요디 앚앙 살당 이 아기덜앞이 다심애기 눈 밧것디 낭 살지 못허키여 어떵 허영
이 아기덜 여산을 내여근
죽여나불콘?” 헌 게
ᄒᆞ를날은 이 아기덜 일곱 성제가 일천서당 글공비
어서나 나갓구나.
저 방 안네 누어근
동서르레 탈탈 둥글멍
“아라 베여 자라 베여
아이고 남인 낭군님아 신벵이 낫이메 어디 강 문여 단점을 지엉 옵서.”
“아이고 어디 강 점을 지느니?”“이 제 넘곡 저 제 넘엉 가당 봅서.
삼도전에 세커리
멜망텡이 둘러썬 앚앗이메서리
어서 강 점을 집센.”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남선비 어둑은 눈에
질르로 걷단 보난 눼일저데년 울담 발안 삼도전 시커리 간
멜망텡이 들러썬 앚앗구나 남셍원 갓이난
“아이고 옵디가?”“우리 큰부인
신병이 나난
어서 문여 단점 지어줍서.”
“어서 걸랑 기영 헙서 눼일저데년 앚아둠어
손꾸락 오그력페왁
단수육갑
오헹팔괄 지프는 첵 허단
“아이고 남셍원아 집이 가근
아기덜 일곱 성제
애나 내영 멕이민
신병을 풀릴 듯헙니덴.” 허난 남셍원은
그 말 들언 질르로 돌아오는 것이
눼일저데년은
울담 발안 방 안에 오란 누워둠어 “아야 베여 자라 베여.”
동서르레 탈탈 둥글엄이난
남선비 들어오난
“아이고 남인 낭군님아 점은 지난 미신 말 ᄀᆞᆯ읍디가?”“아기덜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으민
신병을 풀린덴 ᄀᆞᆯ아렌.” 허난 “게건 어떵 허영 아기덜 애를 내영 먹읍네까? 게거들랑
다시 ᄒᆞᆫ 밧디만 더 점을 지엉 ᄒᆞᆫ 궁에 지거들랑 아기덜 애라도 내여주민
나가 먹엉 살아나근
아덜 일곱 성제
어서 나쿠덴.” 허난 그 말 들언 “어디 강 점을 지느니?” “요 제 넘곡 저 제 넘엉 가당 보민
삼도전 ᄉᆞ커리에서 어서 풀ᄇᆞ른 바구니 둘러썬 앚앗수다 어서 강 점을 지엉 옵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남선비 그 말 들언
질르로 소곡소곡 어서 가단 보난
눼일저데년은 ᄇᆞᆯ써가라 울담 발안 삼도전 ᄉᆞ커리에 간 풀ᄇᆞ른 바구니 둘러썬
앚아나 가는구나.
남선비 ᄎᆞᆺ앙 간
“우리 부인 신병 나난
문점이나 지와줍서.” “어서 걸랑 기영 헙서.”
눼일저데
앚아 단수육갑
오헹팔괄
짚으는 첵허단
“아이고 신병이랑 아기덜 집이 강 일곱 성제 애나 내영 먹으민 신병을 풀릴 듯헙네다만은
아기랑 낳거들랑
ᄒᆞᆫ 베에 아덜 성제썩 십에 ᄒᆞᆫ 착만 낲이민 날 거난
어서 갑센.” 허난
그 말 들언 남선비
집으로 돌아오라 가는구나.
눼일저데년 ᄇᆞᆯ써가라 울담 발안 방 안네 오라근
누워나둠서
“아라 베여 자라 베여.” 누워 둥그는 척 허엾이난 남선비 저 올레로 들어오난
“아이고 이번은 간 점 지난 미신 말 ᄀᆞᆯ읍디가?”
“이번도 가도
아기덜 일곱 성제 애 네영 먹으민
신병은 풀린덴 허고 아기덜 낳거들랑 ᄒᆞᆫ 베에 아덜 성제썩 십에 ᄒᆞᆫ 착 낫이민
일곱 성제 난덴.” ᄀᆞᆯ아렌 허난

“아이고 게거들랑 아기덜 애라도 내여줍서.
나가 먹엉 살아나근
아기랑 낳거들랑
아덜 성제썩 십에 흔 착 낲이민
아덜 일곱 성제 나주쿠덴.” 허난 “어서 기영 허라.”
남선비 그 말 들언
정지에 간 숭켜글(?) 실근실근 굴아간다덜.
뒷집이 청테산
마구할망 불 담으레 간 보난
칼 굴앎이난 “아이고 요 남셍원아 어떵 허연 그 칼 굴앎이니?”
“우리 부인 신병 나난덜
어디 간 들으난 아이고 아기덜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으민
신병은 풀린덴 허고
아덜 일곱 성제
나주켄 허난
아기덜 애 내젠 칼 굴앎수덴.” 허난
불 담으레 갓단 할망
불갈레죽 던져 두고 먼 올레 돋 듯
저 올레 가단 보난 아기덜 일곱 성제 일천 서당 글공비 간 오단
앚안 끈여 바둑 노념을 허였이난
“아이고 요 서룬 아기덜아
느네 집이 강 베려보난
느네 아방 느네 어멍 신병 나난 어디 간 점 지난 어서 느네덜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으민 신병은 풀린덴 허고
느네 어멍 아덜 일곱 성제 나켄 허난
느네덜 애 내젠
느네 아방 칼 굴앎저 어서 강 보라-.”
그 말 들어근
일곱 성제
소곡소곡 들어오라간다.
서룬 아시 족은아시 녹디셍인
“서룬 성님덜아 이 올레 사십서.
나가 문처 들어가근

아바님신디 강 봥
칼 ᄀᆞᆯ앐이민
아멩이나 거짓말을 허고
아무 수단을 부려도
칼을 빼영 나오쿠다.”
“어서 기영 허라.”
실금실짝 간 베련 보난
아버님 칼 ᄀᆞᆯ앐구나 “아버님아 어떵 허연 그 칼 ᄀᆞᆯ앐수가?”
“서룬 아기덜
느네 어멍 신병 나난
느네덜 일곱 성제 애 네젠 허난
칼을 ᄀᆞᆯ앐이녜.”
“아이고 아버님아 잘 허였수다만은 허뒈
아바님 어둑은 눈에
우리 일곱 성제 애 내여불민
ᄒᆞᆫ 짐썩 나강 무덤을 허젱 허여도 일곱 번을 지엉 나가야
무덤을 헐 일이난
아이고 아버님아 그 칼을 나를 주민 우리 성님덜 ᄋᆞ섯 성제 애 내영 오곡
어서 날라근에
아바님 손으로
나 하나 죽영 애 내여근
우리 일곱 성제 어머님 멕영 살리곡
어서 ᄒᆞᆫ 짐만 지어당 묻어불민 좋아질 듯헙니덴.”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아이고 이제 어서 “부모 ᄒᆞᆫ번 가민
생전 못 오는 거곡 자식은 나민 자식이난 아버님 잘 허였수다.”
그 말 들언
실금실짝 칼을 내여주는구나.
녹디셍인 칼을 빼영
먼 올레에 나가근
서룬 성님덜 ᄃᆞᆯ아앚어
소곡소곡 굴메굴산 올라가는구나.
가단 보난 지치난
“아이고 우리 여기서 ᄒᆞ끔 쉬영이나 가저.”

담 어염에 앚아근
ᄒᆞ끔 쉬단 보난
꿈에 선몽을 시겨간다.
어머님 혼정 든 게
“아이고 요 서룬 애기덜아
느네덜 무정눈에 ᄌᆞᆷ을 자민
어찌 명을 잇엉 살겟느냐?
어서 버뜩 께여근
ᄒᆞᆫ 자추만 올라사민
노리 사슴 ᄒᆞᆫ 머리…….”
((…))
올라사난
노리 ᄒᆞᆫ 머리가
소곡소곡 ᄂᆞ렸구나.
일곱 성제가 동서남북으로 모여들언 심언 베려보난
어서 다 눌지언
“서룬 도령님아
나를 살려주민
어서 ᄒᆞᆫ 자추만 올라사민
산톳 일곱 머리가 소곡소곡 ᄂᆞ렸이난 하나 씨전종 버려두곡 날랑은 살리곡
어서 일곱 성제
살을 도레가 잇입네다.”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아이고 요거 녹디생이 칼이, 칼로 노리 꼴렝이 확 끊언 벡짓장 춤 불라근
페적을 시겨두고
ᄒᆞᆫ 자추 올라산다.
산톳 일곱 머리가 소곡소곡 ᄂᆞ려오랐구나-.
하나 씨전종 버려두고
ᄋᆞ섯 머리
애를 내여간다.
“어서 성님덜아
집으로 ᄃᆞᆯ아글읍서.”
먼 올레 들어오난
“서룬 성님덜 이 올레 삿다근에

서룬 성님덜아
살앗걸랑
동서남북 막으멍
혼정으로 둘려들곡 어서 이제 몸천으로 둘려들곡
죽엇걸랑 어서 동서남북 막앙 어서 혼정으로 둘려듭서덜.
삼시번만 웨치건 어서 동서남북 막으멍 둘려나 듭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덜.”
녹디셍인 서룬 성님덜안티 그 말 골아두고 애 ᄋᆞ섯 개 손에 줴언
실금실짝
들어가는구나.
“아이고 어머님아 요거 서룬 성님덜 애 내여 오랏이난
요거 먹엉 살아납서.”
어서 안네난
“아이고 창문을 실쭉 올안 들어가난 애아침(?) 먹는 사름 애 먹는 거 아니 보난
창문 베낏드레
어서나 나고가라.”
애 ᄋᆞ섯 개 어멍 주어두고 어서 나오멍
손꼬락에 춤 불라
창궁기를 똘라가는구나.
창궁기 똘란 창문 베꼇디 사둠어 베레연 보난
애는 먹는 체 마는 체 입바위레 피만 삭삭 불라두고
초석 알르레
애 ᄋᆞ섯 개 묻어간다.
“아이고 하나만 더 먹엇이민 나 살아지켜.” 골으난
녹디셍인 문을 올안
실금실짝 들어간다.
“아이고 어머님아 나 죽기 전이 어머니 미리네(?)
머리에 니나 ᄒᆞᆫ번 잡아동
죽으쿠다.” “아이고 중병 살아온 디 니 아니 잡나.”
“어머님아 게거들라근에
눠난 디 자리나 ᄒᆞᆫ번도 치와 보쿠다.”
“아이고 중변 든 사름은 자리 아니 칩나.”
그때야 녹디셍인
용심 나난

이불 걷어 벡장 웃디 지쳐두고
어서 허운데기 심언
눼일저데 심어단 어서 방구석에 질러나 두고
초석 걷언 베려보난덜
애 ᄋᆞ섯 개 소랑소랑 잇엇구나-.
“아이고 요거 산톳 애도 못 먹으멍
사름 애는
아기덜 애는 어떵 먹젠 허엿느냐덜?”
어서 양착 손엔
애 ᄋᆞ섯 개 둘러잡안
지붕상상 ᄌᆞ추ᄆᆞ를 올라나 산다.
“서룬 성님덜
살앗걸랑
몸천으로
동서남북 막으멍
ᄃᆞᆯ려나 듭서.
죽엇걸랑 혼정으로라도
동서남북 막아근 ᄃᆞᆯ려나 듭서.”
지붕상상 ᄌᆞ추ᄆᆞ를 올라산
“요 동넷 어른덜아
다심어멍 허여근 사는 애기덜
우리덜 방 정다십서.”
삼시번을 웨치난
서룬 성님덜
동서남북으로 몸천으로
어서나 ᄃᆞᆯ려들어 가가난
남선비 저 올레로 ᄃᆞᆫ다근
정낭에 걸령 죽어간다.
눼일저데년 ᄃᆞᆯ아날 디 엇이난
벤소 칙간 ᄃᆞᆯ려들어
이른ᄋᆞ돕 광페머리
드들팡에 목을 메여 죽엇고나.
일곱 성제가 눼일저데 심어다근
마당 가운디 앚져놓고

“아이고 우리 어멍 죽은 원수 갚음 어떵 허영 허여 보코?”
머리랑 박박 비여다근
저 바당에 던져부난
노렝이 듬북 서련헌다.
데가리 돌라다가
저 바당에 던지난
돗도고리 마련허는구나.
눈은 똘라 던지난
천리통도 마련헌다.
코는 돌라 던지난
짐통으로 마련허곡 귀는 돌라 던져부난
전화 수화기 마련헌다.
입이랑 돌라다 던져부난
마이코 방송 시겨간다.
손톱 발톱 돌라단
저 바당에 던지난
굼벗 딱지 서련헌다.
손은 끊어 던지난
글갱이로 마련허고
발은 끊어 던지난
곰베로 서련헌다.
전각머리 끊어단 던져부난
드들팡에 마련허고
베똥 돌라 던지난
비말 딱지로 마련헌다.
젯통이 돌라 던져부난
가짓갱이 서립허고
베떼기 돌라 던지난
물이슬도 마련헌다.
갈릿대 꺾어단 던지난
얼레기여 청빗이여
마련허는구나.
베설은 홀탄 던져부난
서답 벳줄 허여간다.

또꼬냥은 돌라 던져부난
야 물미주리로 마련을 시겻구나 남선비
좋아허단 거
돌라다 던지난
대전복에 소전복
마련을 시겻구나.
허다가 남은 거
방엣혹에 놓안 톡톡 삣안 허풍ᄇᆞ름 불리난
모기여 곡다기여 마련을 허엿구나-.
어머님 원수 갚음
허여두고
“어머님 시체나 춪아보저.”
일곱 성제가
베를 둘러 타
가는 게 오동나라 오동골
들어가는구나 주천강 연네못디 간 베려보난
물은 곳득 허엿이난 “멩천 ᄀᆞ뜬
하늘님아
물이나 뻑짝 뻑따불민
어머님 시체나 춪이쿠덴.” 종낭 훼초리로
삼시번을 두드리난
어서 초ᄒᆞ를 보름
물찌가 뒈엿구나.
물은 뻑짝 뻑딴 베려보난
불써라 어멍 죽어 연삼년 넘어
솔 석어 물이 뒈엿고나.
뻬 삭아 진토가 뒈엿고나.
“어서 서룬 성님덜아
어머님 눠난 디 흑이라도 내불지 말앙
문딱 동그랑케
메와놓앙 나둡서.
날라근 서천꼿밧 도올랑
옥항에 도올르민 인정이(?) 살릴 꼿 타곡 뻬 오를 꼿 솔 오를 꼿
오장육부 거릴 꼿

ᄎᆞ례ᄎᆞ례 타다 놓앙
어머님 살리쿠다.”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어서 족은아시
옥항에 서천꽃밧디 도올라 가는구나.
뻬 오를 꼿 ᄉᆞᆯ 오를 꼿 오장육부 ᄀᆞ릴 꼿
ᄎᆞ례ᄎᆞ례 ᄆᆞᆫ딱 타앚언 ᄂᆞ려오란 보난
서룬 성님덜 ᄋᆞ섯 성제가 어머님 누어난 디 흑은 ᄆᆞᆫ딱 메왕 나두렌 허난 ᄇᆞᆨᄇᆞᆨ허게 근어다근
흑은 메완 나둔 게
헐 일은 엇어지난
물 놓안 ᄆᆞᆫ작ᄆᆞᆫ작 뀌연 동그랑케 메와놓고
꾹꾹 ᄒᆞᆫ 구르나씩
손꼬락 하나씩 꼭꼭 ᄯᆞᆯ른 게 ᄋᆞ섯 고냥 ᄯᆞᆯ라근 나두엇이난
“아이고 서룬 성님덜아 어머님 누어난 디 흑이라도 메와놩 나두렌 허난
아이고 요거 무신 장난을 허연 나둡디가?” 용심 나난
가운디 바락 쥐여부난
어서 시리 상구녁
마련 시깁디다.
어머님 누어난 디
어머님아 ᄉᆞᆯ 썩어
어 누어난 디 뎃부룩이여 뎃봉으지 허여
어서 낫이난
사름 죽은 고리안동벽 신동벽도 만들기
마련을 시겻고나.
“어머님아 살아납서.”
삼시번을 두드리난
어머님 우들렝이 살아나난
“어머님아 물 알에
연삼년 살젠 허난
얼엇구나 추엇구나
실렷구나.
어머님아 어서덜
삼덕조왕을 마련허영

ᄒᆞ르 삼시번 불 숨걸랑 똣똣허게 얻어먹곡
시릿떡 칠 때라근
숭엄 주기나 마련헙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어서덜
어머님 원수 가픔 허엿이난덜
서룬 아바님
저 올레 정낭지기 사렌 시겨두고
어서도
어머님엔 삼덕조왕 마련허여 두고
큰성님이랑
갑을동방 청제장군 삼아간다.
셋성님 경신서방도
삼아간다 말잣성님
병오남방 적제장군 세와간다.
네 번쳇 성님이랑 헤저북방 흑제장군 세와두고
다섯 번체
ᄋᆞ섯 번체 성님이랑 중앙 황데장군으로
세와두고
일곱 번체
녹디셍인
문전 뒤에 앚앙
일문전 문전제 지나면은
지붕상상 ᄌᆞ추ᄆᆞ를로 억만 수궤 입고상량(立柱上樑)허는
문전에서 문전 뒤에 앚앗당
문전제 지나나민 상 받아먹곡 문전에 받아난 걸라근
어머님 셍각허영
어머님 삼덕조왕에
억만 수궤 무어드리쿠다-.

- 핵심어 : 남선비, 하늘옥황, 여산골, 여산부인, 일곱성제, 남셈원, 마구할망, 칼, 돗도고리, 삼덕조왕

W_M_003 삼공본풀이

2006년 8월 14일 남원읍 태흥리 강금춘씨 댁, 강정식 조사.
강대원(남, 1945년생, 애월읍 수산리)

남원읍 태흥리 강금춘 심방 댁의 큰굿(신굿)에서 구연한 것이다. 장구를 받아 앉고 스스로 치면서 구연하였다. 뒷부분에서는 앞의 내용을 간추려 사설로 삼고 노래로 불렀다. 삼공본풀이를 구연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옛날이라 엿적

우엣녁은 강이영성 이서불 삽디다 알엣녁은 홍수문천 구에궁전 애기씨가 살앗수다.

예허근

살앗는디

[음영] 이에 흔 헤는 칠년 한기가 듭디다. 구년 수기가 들어가는 것이

흉년 들어 먹어 살 수 없어지어

[말] 강이영성 이서불은 눈 소문은 못허고 귀 소문 입 소문을 허여 들어놓고

알엣녁 시절 좋덴 허난

직부찰리

둘러메고

예허근

[말] 알엣녁드레 도ᄂᆞ리고 알엣녁 홍수문천 구에궁전

애기씨도

예 눈 소문 못허고 입 소문 귓소문 들언

이에 우잇녁이 시절 좋덴 허난 얻어먹엉 살젠

우잇녁드레

흩 일곱 자

이예 허근

직부찰리

전데 호름줌치 둘러메여 예허근

우잇녁에

[말] 도올라 가는디 질 노변에서 강이영성허고 홍수문천 구에궁전 애기씨허고 마주 걸어 갑데다에ㅡ.

마주 걸어 가는디

[음영] 이에 강이영성 이서불이 문저 홍수문천 구에궁전 애기씨앞드레 "어드레 가는 애기씨가 뭡니까?" 말을 허난 "난 알에……." 홍수문천 구에궁전 애기씨가 허는 말이 "난 알엣녁……." 이에 게 삽네다. "홍수문천 구에궁전 애기씨가

뒈여지여 사곱니다근."

[음영] "이예 어드레 가는 길잇과?" "우리 알엣녁이 칠년 한기에 구년 수기가 들어 살 수 없고 흉년 들어 이에 눈 소문은 못허여도 귓소문 입 소문 들은 게 우잇녁 시절 좋덴 허난 얻어먹엉 살젠 우잇녁드레 올랐수다." "어드레 가는 도령이 뭡네까?" "난 우잇녁 강이영성 이서불이우다. 우리 우잇녁에도 칠년 한기 구년 수기 들어 살 수 엇어 눈 소문은 못허여도 귓소문 입 소문 듣는 것이 알엣녁 시절 좋덴 허난 얻어먹엉 살젠 알엣녁드레

도ᄂᆞ렸수다에ㅡ."

강이영선 이서불, 홍수문천 구에궁전 애기씨

[말] 이에 말말 허는 게 통성명이 뒈고 강이영성 이서불 허는 말이 "우리 흔 ᄉᆞ주 흔 팔저 뒈여지난 [음영] 옵서 이에 흔 술 밥을 빌거들랑 반 술씩 두 술 밥을 빌거들랑 흔 술씩 얻어먹어 살기 어찌 허오리까?" "어서 걸랑 기영 헙서."

허여 가는 것이

남인 낮인 들민 놈으 집 품팔이

이에

허여 얻어먹어근 살곡 밤이는

물가레 의지허여 인밤을 세여 가는 것이

[말] 아이고 젊은 것덜이라 ᄀᆞ만이 누웡 잘 수 읏어지연 오꼿 흔 번 두 번 자파리허여 갑디다. 홍수문천 구에궁전 애기씨 포테가 뒈여

갑데다에ㅡ.

포테 앚어

아호 열 둘

춘삭을 차는 게

[음영] 이예근 구에궁전 애기씨 똘아기 탄셍헙네다. 동넷 사름덜 “얻어먹는 거와시덜 아이고 몰가레서 애기 낫저.”

덖엉 눌 이불자리

이불 의복

아기 멕일 거여 어멍 멕일 거여 에허근

음식을 허여다 줍디다.

[음영] “이 아기 이름을 뭣으로 지으리.” 은과 ᄀᆞ찌 금과 ᄀᆞ찌 이아 봉근 애기로구나. 낳은 애기로구나. 은장애기

큰똘 이름 성명

지왓구나.

[음영] 또 다시 이에 아기 ᄃᆞᆯ앙 궐이궐식허여 가는디 포테 갖엇구나 홍수문천 구에궁전 애기씨

포테를 가저근

낳는 것이 또 똘을 난다.

놋장아기 이름 지와

[음영] 이에 ᄋᆞᆨ은 아긴 걸 아방 업곡 두린 아긴 어멍 업곡

이리 허여

[음영] 이에 품팔이 생활을 허여 갑디다.

품팔이, 생활을 허여근 가는디

아하근

이제는

여 뒈여지고

사곱디다.

[음영] 또 다시 홍수문천 구애궁전 애기씨가 포테 갖어 열 ᄃᆞᆯ 준삭 차 낳는 것이, 똘애기 낫구나.

이 애긴 가문장애기로

이름 성명 지웁디다.

[음영] 가문장아기로 이름 성명 글자

이에 지와 놓고

이에

ᄋᆞᆫ은 아긴 걸릅곡 두린 아긴 아방 업곡 어멍 업어 궐이궐식허영 살아가는디

[음영] 이에 가문장아기 탄싱허난 부가허곡 지가 허게 이에 논전답 강전답 좋아지고 좋은 집 나

살아갑데다에ㅡ.

[음영] 살아가는 것이 비가 오고 ᄇᆞ름이 불어 ᄒᆞ를은 나갈 수가 읏어지난 강이영성 이서불 홍수문천 구에궁전 애기씨 네웨간이

큰똘아기, 불러간다.

[음영] "누구 덕에 살겠느냐?" "하느님이 덕이고 지하님이 덕이고 아버지 어머니

덕입네다." "나 똘아기 착실허고 정녕허다. 니 방으로 나고 가라."

[음영] 둘쳇 똘 놋장아기 불러놓안 "누구 덕에……." "하느님이 덕이고 지하님이 덕이고 아버지 어머니

덕이우다." 말을 허난

[음영] "나 똘아기 정녕허다.

니 방으로 나고 가라."

[음영] 족은똘아기 가문장아기 불럿구나 "누구의 덕에 살겠느냐?" "하느님의 덕 지하님의 덕 아버지 어머니 덕이우다만은 나의 베똥 알에 ᄀᆞ른 선그뭇 덕입니덴."

일러 갑데다에ㅡ.

"나 똘 아기 아니로다. 나고 가라." 입던 의복,

[음영] 감은 암쉐에 주워 실어 늦은덕 정하님 거느려 부모 눈 바꼇 형제간 눈 바꼇 나올레

군문 바꼇 나간다.

동드레 질이 낫고 서드레도 질이 난다.

[음영] "느도 지집 나도 지집 시 지집이 오라 가게." 발 가는 냥

가는디 허근

[음영] 큰성 은장아기 나오란 허는 말이 "서룬 동셍 ᄒᆞᆫ저 가라. 아바지 어머니 메 들러 ᄯᅳ리젠 오랐저. 욕허젠 오랐저. ᄒᆞᆫ저 가라."

[음영] 전송허는 게 정신 앗뜩허여 올레 높은 팡돌 우이 삿단 내려사는 것이 황지내로 변식을 허고 큰돌 알르레

들어간다.

둘쳇 성 놋장애기 나고오란

“서룬 동싱 훈저 가라.” 아바님과 어머님이

[음영] 메 들러 뚜리저 욕허저 오랐저. 훈저 가라.” 팡돌 우이서 전송허는 것이 정신 앗뜩허여 팡돌 알르레 내려사는 게 ᄉᆞ르륵 허게 녹아 예에

용달버섯 환셍 뒌다.

[음영] 가문장아기는 가불고, 이에 강이영성 이서불 아방은, “이것덜 동셍 감젠 나간게만은 어딜 간고.” 휘옥허멍 일문전 대천한간으로 나오젠 허난 일문전 대천한간에서 천변숭엄제훼를 불러줘 천봉사를

멘들아 갑데다.

[음영] 이예 조왕에서 홍수문천 구에궁전 애기씨 어멍은 일허단, 조왕 문전으로 나가젠 헌 것이 조왕에서 숭엄조훼 주고 안명천지

시겨 갑데다에ㅡ.

이하 안명천지, 시겨근, 가는디, 또 이저는

[음영] 하르방은 할망, 할망은 하르방 불러 웨여가는디, 동네에 피청 ᄀᆞ뜬 도둑놈덜은 유기제물 문짝 들러가불언, 아이고 먹어볼 게 읏어지엿구나. 좋은 집도 내불이여두고 하르방 할망이 훈 몽둥이 지퍼 어듬더듬 궐이궐식을 허여

갑디다에ㅡ.

가문장아기, 늦은덕 정하님광

가단 보난 예헤

[음영] 월메월산 신마퉁이 마 파는 딜 가졋구나. “야 늦인덕아. 저디 가근에 마퉁이안티 들어보라. 어느 만쭉이 인간처나 잇겟느냐?” “예 경 헙서.” 늦인덕 정하님은 마 파는 큰 마퉁이앞이 간 “아이고 요 마 파는 어르신님아, 미안헙주만은 이디 어느 만쭉이나 가민 인간처 잇수과?” 이예 대답도 아니 허고 마 북북 파단 뚝 허게 꺾어지난 “아이고 오널 제순 다 봣저. 여자는 꿈에만 시꾸와도 새물인디, 만 꺾어져 불엇노렌.” 허고 후욕만발 허엿구나. 인간처 잇는 디 ᄀᆞᆯ아주도 아니 허여

갑디다에ㅡ.

이에 오란

[음영] “아무거옌도 아니 ᄀᆞᆫ고양 마 파단 마 꺾어지난 휘욕만발만 헙디다.” “어서 가

게.” 가단 보난 또로 셋마퉁이 마 파는 디로구나. “저디나 강 들어보라.” “그디 가도 마 파단 이예 마 꺼꺼지난 휘욕만 허고 아무거옌도 아이 골읍디다.”

“기영 허냐?

오라 가게.” 가단 보난

족은마퉁이 마 파는 디 있었구나 있어지여 이리 허난

에헤근, 또 이전

[음영] “이예 저디나 강 들어봥 오라.” 그디 늦인덕 정하님 간 “아이고 요 마 파는 어르신임아, 미안헙주만은양 이디 어느 만쭉이 인간처나 잇수겐?” 골으난 마 파단 네비여돈 서른오돕 닛바디 허와덩싹 웃이멍 “요 제 넘곡 저 제 넘엉 가다보민 쪼꼴락헌 비조리 엄막집이 잇수다. 그디 강이나 들어봅서.” “예 고맙수덴.” 허연 오란 “요 제 넘곡양 저 제 넘엉 가당 보면은예 비조리 엄막집이 잇젠 허였수다.”

“어서 가게. 오라 가게.” 시 지집이 요 제 저 제 넘어가단 보난

[음영] 아닐 케 아니라 비조리 엄막칩이 잇고 안은 보난 벡발노장 할마님이 잇엇구나. “아이고 할마님아 집 ᄒᆞ쏠 빌립서.” “아니 뭽네다. 우리 집이 마퉁이덜

마 팡 오랑 허민

[음영] 나를 이에 죽이젱 허곡 욕헙네다. 아니 뭽니다.” “아이고 난 디 난 사름 집 지엉 낫곡 밧 지엉 납니까? 이에 구들 혼착 못 빌리거들랑 이예 정짓구석이라도 좋수다.” 말을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헙서.”

예 이젠

[음영] 정지 혼 착 빌언 놓고, 밥 허영 먹젠 “솟이나 ᄒᆞ쏠 빌립서.” 솟 빌언 이예 쏠 싯언 놓젠 보난, 마 잔뜩 숢아먹어나난 눌엇구나. 이예 초불 이불 재삼불 청소세 벡소세 허여단, 씻언 이예 놓고, 밥을 허젠 허는디 와랑치랑 베락 천둥 소리가 납데다. 베락 천둥 소리가 나지언 허난 “이거 할머니 무슨 소리우꽈?” “우리 큰마퉁이 마 팡 오는 소리우다.” 온 건 베려보난

체얌 본 마퉁이로구낭은.

[음영] 마 씻언 숢안 가운디는 옴치 엇이 이녁 먹고 양끗 톤아 어멍 준다. 또로 들어가불고 또로 조금 잇이난, 베락 천둥 소리로구나. “이건 무신 소리우까?” “우리 셋마퉁이 마 판 오는 소리우다.” 오란 보난

두 번체 본 마퉁이여.

[음영] 마 씻언 숣안 가운딧 ᄆᆞ작은 이녁 먹고 양끗은 톧안 어머님 주어

갑데다에ㅡ.

싯어 메여주고, [음영] 또로 밥 허젠 허는디 베락 천둥 소리가 난 "할마님 이건 무슨 소……." "우리 족은마퉁이 마 판 오는 소리우다." 족은마퉁인 마 판 오멍 올레에 베려 보난 송아기도 메여졋구나. 이예 서른ᄋᆞ덥 닛바디 허와덩싹 웃으멍 들어오라, 예 마 숣안 가운딘 끊언 어머님 주고 양끗은 톧안 이녁 먹어 갑디다. 안네 들어가부난 솟을 제처이 또 씻언 쏠 놓아 밥 허여 할마님앞이 들어가난 "우리 조상 적 아이 먹어난 거 아이 먹쿠다." 큰성 셋성앞이 큰아덜 셋아덜앞이 가져가도 "우리 조상 적 부모 안 먹어난 거 안 먹쿠다." 족은아시 족은마퉁이 서른ᄋᆞ덥 닛바디 허와덩씩 웃이멍 그 밥상을 받아갑디다. 우로 풀풀거리멍

먹어가는디

[음영] 큰성도 베리고 셋성도 베려가난 "먹구정 허우꽈?" "맛 조냐?" "예." "게거들랑 ᄒᆞ끔 도라보저." 쏘곱으로 숫구락 찔런 뜨신 걸로 거련 안네난 이 손에 놩 둥글이곡 저 손에 놩 둥글이곡 허는 사이예 족은마퉁인 밥 ᄒᆞᆫ 사발 문짝 먹어

갑데다에ㅡ.

문짝 먹어사고는

또 다시

이제근

뒈여지여 삽데다근

네려사는

아하헤근 이연

[음영] 이하 가문장애기씨가 늦은덕 정하님보고 허는 말이 "저디 가근에이 할마님앞이나 큰마퉁이앞이나 셋마퉁이앞이나 족은마퉁이앞이나 들은 말이나 본 말이나 싯거들라근에 오랑 예숙 제끼겡 일러보라." 늦은덕 정하님은 할마님앞이 가 "들은 말 본 말 웃다." 큰성 셋성앞이 가도 "들은 말 본 말……." 족은아시앞이 족은 마퉁이앞인 ᄀᆞᆯ으난 서른ᄋᆞ답 닛바디 허와덩씩 웃이멍 오란 앚안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들은 말 본 말 아이 뒌 말 허여가는 게, 가문장애기허고 늦인덕 정하님은 족은마퉁이 입을 바지 저고리 두루메길 멘들아 가는 게

날이 세여 갑디다.

“어머님앞이 선신 갑서. 큰성 셋성앞이 선신 갑서.”

영 허여, 보내여 가는디, [음영] “아이고 이거 동네 훈장 벨캄 주서 참봉이 오란 이거 절허였수…….” 이예 할마님도 놀레고 큰성 셋성도 놀레곡, 이예 큰성 셋성은 마 파레 가불고, 이예

족은마퉁인, 떨어졋인디 [음영] 가문장아기영 늦인덕 아기영 “옵서 어제 마 파난 디 구경이나 강 보게.” 큰성 마 파난 디 간 베려 보난

개똥물에 솜작지만 널엿구나.

[음영] 이하 셋성 셋마퉁이 파난 디도 간 보난 개똥물에 솜작지만 둥글없구나.

족은마퉁이, [음영] 마 파난 딘 간 보난 퍼렁헌 물에 이예 돌멩이 나산 데껴분 건, 줏어당 풀민 일셍 부제로 살당도 남을 거로구나.

그걸 줏어앚언 오라근

[음영] 족은마퉁이 장안에 장설 보내여

올 때라근

[음영] 종하님 쏠 상 옵서.

일시예 천하거부가 뒈여 갑데다에ㅡ.

천하거부제가 뒈여지고 이헤근

[음영] ᄀᆞ만 써 가믄장아기 생각을 허난 족은마퉁이ᄀᆞ라 “옵서 우리 두 일뤠 열나흘이나 석 둘 열흘 벡일이나 걸인잔칠 헤 보게.”

“어서 걸랑 기영 헙서.”

걸인잔치, [음영] 허여간다. 이예 초펀 이펀 제삼펀 멧 번씩 오라근 얻어먹는 거와시덜은 얻어먹엉 가는디

아이고, 눈 익숙은 하르방 할망 거와신 아니 오라 갑디다

[음영] 아니 오라가난 ‘어떵 허민 조리.’ 걱정허는디

열락서산 해 지여가고

[음영] 야 저 올레로 ᄒᆞᆫ 몽뎅이 지픈 하르방 할망이

어듬더듬 오라간다.

[음영] 일허는 하님덜 불러놓고 허는 말이 “저 올레로 지금 ᄒᆞᆫ 몽뎅이 지펑 오는 거와시랑

[음영] 어둡도록 물 ᄒᆞᆫ 적 주지 말라. 우으로 앚건 알로 멕여가단 떨어치와 불곡, 알로

앚건 우으로 멕여가당 떨어치와, 불곡 가운디로 앚거들랑 양끝으로

멕여가당 떨어치와 불곡

[음영] 어둡도록 물 흔 적 주지 말렌." 허난 "어서 걸랑 경 헙서."

일허는 하님덜은

[음영] 가문장애기씨 곧는 데로 "우으로 앚으민 알로 멕여가다근에 떨어졋젱 허영 떨어치와 불곡, 알로 앚으민 우로 멕여가당, 이예 떨어치와 불곡 가운딜로 앚으민 양끝으로 멕여가당

떨어치와 불게."

[음영] 허여가는디 열락서산 해는 오꼿시리 지엿구나.

날은 어들어들 허여간다.

[음영] 하르방 할망이 시장은 허기에 버쳐지고, 물 흔 적 못 얻어먹고, 흔 몽둥이 지펀 저 올레레 나가가난, 일허는 하님덜 불러놓고 가문장애기씨가 "저 올레에 나가는 하르방 할마님 거와시 사랑방으로

청허여 들이라에ㅡ."

ᄉᆞ랑방에, 청허여 들연, 이에 앚져놓고 [음영] 이예 도레칠반상(統營漆盤床)에 일허는 하님덜ᄀᆞ라 "상다리가 뿌러지게

출려오라."

출려다근

놓고서는 이제는 뒈여집데다.

[음영] 살려놓고선 이에 하르방 할망앞이 들러 갖단 노난, "아이고 냄세가 쿠싱쿠싱헌게, 아니 먹어난 음식 엇이 문 올른 거 닮다." 영 허엿는디

이에근

[음영] 가문장아기씬 들어오랏구나. 들어오란 허는 말이 "하르바님 할마님 이예 들은 말이나 잇걸랑 헙서." "아이고 우린 눈도 영 막아져불곡 들은 말이 어디 시멍 본 말이 어디 시리." "게거들랑 하르바님이랑 북을 심곡, 할마님이랑 장구 심엉, 나의 역사를 곧거들랑 흔번 들어 봅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이예 일러 가는디 가문장아기

[놀레]

오널오널 오널 오널은

어제 오널 오널이라
날도 좋아서 이 오널은
네일 장삼 오널이면
성도 원만 가실서냐.
엿날이라 그 엿적엔
우잇녁에 강이영선 이서불
알엣녁 홍수문천
구에궁전 아기씨
살앗수다 살아가는디
칠년 한기 구년 수기
들어사난 살 수 없어
놈이 귓소문
입 소문을 들어근에
얻어먹어 살젠 허연
강이영선 이서불은
알엣녁 내리곡
알엣녁 홍수문천
구에궁전 애기씬
우잇녁 갈 떼에
로편에서 만나놓고
말 말 허는 게
통성명이 뒈여지고
영 허여근 궐이궐식 살다가
뚤 삼형젠 솟아나근 영 허시난
ᄒᆞ를은 부가허게 잘살 떼에
눈 비 오라근 헐 일 없어
큰뚤 셋뚤 족은뚤 불런
질문허는 게
큰뚤 셋뚤 ᄒᆞᆫ 말 허난

ᄀᆞ따지난 나 똘엔 허고
족은똘은 ᄒᆞᆫ 말 틀련 사는 것이
부모 형제간 눈에
시찌 나고 ᄀᆞᆯ리 나근
월메월산 들어오란 사곱데다.
구름산도 서금설짝 넘고 갑서.
ᄇᆞ름산도 서리서설 넘고 갑서.
큰 셋똘은 황지네 용달버섯 환셍 뒈고
하르방 할망은 천봉서 뒈고
족은똘은 월메월산 들어오란
족은 신마퉁이 만나 부귀영화
사옵데다 사시는데
부가허고 지가허게 잘 살아지난
어멍 아방 만나젠
걸인잔치 올립디다.
만낫구나 어멍 아방
족은똘 만납디다.
이 놀레로 구름산도
서리설설 넘어 갑서.
ᄇᆞ름산도 서리설짜꿍
넘어 갑서 넘고 갑서.

이 놀레론 ᄆᆞ친 간장 메친 시름 아주 헐싹 풀려갑서ㅡ.

하르방 할망은 “나 똘아기 적실허덴.” 허연 어름 씨는 게 상잔 두 개 뎅글랑 허게 떨어집디다. [천문점] 떨어지어사 영 허난 잘 공들영 영 허민 고맙수다.

- 핵심어 : 홍수문천, 구에궁전애기씨, 강이영성, 놋장아기, 품팔이, 가문장애기, 은장애기, 마퉁이, 월메월산

W_M_004 세경본풀이

2006년 8월 16일 남원읍 태흥리 강금춘씨 댁, 강정식 조사.
강치옥(여, 1938년생, 제주시 용담동)

남원읍 태흥리 강금춘 심방 댁의 큰굿(신굿)에서 구연한 것이다. 중간에 마이크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바람에 녹음이 되지 않은 대목이 있다.

옛날이라 옛적,
짐진국 대감 삽데다.
조진국이 부인님도 사옵디다.
천하거부 잘살아도 ᄂᆞᆷ광ᄀᆞ찌
나이는 이삼십 당허여도
남녀 ᄌᆞ식 엇어근 호호 근심 ᄒᆞ옵디다.
ᄒᆞ를날은
어서 짐진국이 대감님이
달구경 별 구경
어서 나고 가저.
저 올레 나가근
동네ᄆᆞ을 어른 춘장(尊長) 어른덜
아기 엇인 짐진국 대감 오랎이난
"어서 바둑 장기 들러불라."
그걸 보고 ᄒᆞᆫ 자추 올라사난
꼿[花] 본 나비 꼿드레 날아든다 불 본 나빈
불드레 ᄂᆞᆯ아든다.
어멍 본 아기덜
어머니 쿰더레 ᄂᆞᆯ아든다.
그걸 보아 산으로 혼 자추 올라산
산 구경 물 구경 ᄆᆞᆫ 허여 앚언
내려오단 보난
비저리 초막에서
아이 새끼 하나 놓안
황천데소(仰天大笑) 웃음을 웃엇구나-.

그걸 보고
데감님은
그디 울담 너머 바레여가난
아기 엇인 짐진국이 데감님 바레엀이난
황천데소
웃음을 설러나 간다.
그걸 보고 집으로 돌아완
안사랑에 문을 잡앙 누워간다.
저냑 진짓상 들러가난 아니 받앙 물려나간다.
어서 조반상(朝飯床)도
들러 가난,
진짓상 아니 받앙 물려나 간다.
“어떵 허난
진짓상 아니 받앐수가?”
데감님 허는 말이
“우리보단 천하거부(天下巨富) 못 살아도
아이 세끼 하나 놓앙
웃음을 웃없인디
우리가 천하거부 잘살아도 자식 엇엉
호호 근심허여근
무얼 허리.
나 죽어불젠 문을 잡안 누웟노라.”
“대감님아,
이 문 열려근
진짓상이나 받으민
웃을 일이 잇입네다.”
대감님 그 말 들언
문을 열어 진지상
흔 술 두 술 제삼(再三) 술
떠놓고 진짓상 물려두고,
“부인님아, 게거들랑
웃을 일이나 허여봅서.”
“어서 걸랑 기영 헙서.”
진짓상 물려두고 굴방에 들어가

은단펭(銀唐甁) 서단마개 막앗구나.
서단펭엔 은단마개
막아놓고 춤실로 펭목개기 졸라 묶어
방바닥에 오라근
요레 동글 저레 동글
둥글여봐도 웃음은 아니 나고,
설움이사 나는구나.
앚아 호호 근심허여나 가는구나.
누워 걱정을 허단 보난 ᄒᆞ를날은
동개남[東觀音]은 상중절[上佐寺]
대서중이 짐진국 대감님네
저 올레에 들어사며 나사며,
“예. 소승은 절이 뭽니다.”
들어오난 대서님
“어느 절간 대섭니까?
어느 절에 소섭니까?”
“동개남 상중절에
대서중이 뒈옵니다.
우리 당(堂)은 헌 당도 떨어지고
헌 절도 떨어지난,
권제삼문(勸齋三文) 받아당근
헌 당 헌 절 수리(修理)허여
멩(命) 없는 잔 멩을 주저,
복(福) 엇는 잔 복을 주저,
ᄌᆞ식 생불(子息生佛) 엇는 자
ᄌᆞ식 생불 환셍(還生)을 시겨주저
권제를 받으레 내렷수다.”
어서 게거들랑
짐진국이 데감님
권제는 내여줜 데서님 나가가난
짐진국 데감님이
“우리 부베간(夫婦間) 팔ᄌᆞᄉᆞ주(八字四柱)나 ᄀᆞ남(考覽)허여봅서.”
팔저ᄉᆞ주 고남헌 것이
“대감님아 부인님아

아이고 남녀 ᄌᆞ식 엇어 호호 근심을 허렌 허엿수다.”
“어찌 헙네까?”
“우리 절간 법당(法堂)
어서 송낙지도 구만 장
가삿베[袈裟布]도 구만 장(九萬張)
대벡미(大白米) 일천 석(一千石) 소벡미(小白米) 삼천 석(三千石)
멩실 복씰 출려나 놓고
마흔ᄋᆞ덥 상청ᄃᆞ리 고비첩첩 개여놓앙 우리 절간 법당에 오랑
원수룩(願水陸)이나 드리민
어서 ᄌᆞ식 셍불 잇어질 듯허옵니다.”
대감님은
송낙지도 구만 장 출려논다.
어서 대벡미 소벡미
출려나 논다.
가삿베 출려놓고
대벡미로 소벡미여
멩실 복실 출려논다.
어서 마흔ᄋᆞ덥 상청ᄃᆞ리
[말] 물멩지 강멩지 고리비단 능라비 출려놓고
절간 법당드레 소곡소곡 벡 근 체와 올라가는구나.
대서에 선신(現身)ᄒᆞ고
부처님에 선신허여
어서 상탕에는
어서 선옥미 지여
중탕에랑 모욕허고
[말] 하탕에 손발 싯어 어서 절간 법당에 수륙을 드려
가는구나.
석덜 열흘
벡일을 체우난 “대감님아 벡 근 준삭(準朔)을
허엿이민
남저 ᄌᆞ식
[음영] 잇어질 듯헌디 벡 근이 못네 차난 여자 생불
있을 듯허여진다.
아이고 어서 또 이제 게알안주

소주 ᄌᆞ소지 먹엇이민
남저 ᄌᆞ식 잇일 건디
청감주에 ᄌᆞ소주
먹어나 붸여노난
여자 생불 잇어질 듯헙니다.”
“어서 걸랑 기영 헙서.”
집으로 데서 “이제야
석 ᄃᆞᆯ 열흘 벡일 준삭 체와두고
집으로 돌아가근에
천상베필(天上配匹) 무어봅서.”
어서 데감님 부인님은
집으로 소곡소곡 들어오라근
천장베필을 무엇더니,
석 덜 열흘 벡일 준삭 차난
세금세금 틀ᄃᆞ레 정갈리
장에 장칼내
밥에 밥내 나고
아홉 열 덜 춤질 실러 해복(解腹)허난
궁녀(宮女) 아기가 솟아나는구나.
ᄒᆞᆫ 설 두 설 세 설이 뒈여가난,
“대감님아 부인님아
옵서. 우리 애기 이름 성명이나 지와보게.”
“어서 걸랑 기영 헙서.”
어서 이 아기
어서 [불청]
어서 ᄌᆞ청비
이름 성명 지우젠 허난
구시월 뒈여근
나뭇섭 다 떨어지엉
이 애기 ᄌᆞ청비
이름 성명 지와가간다.
이 아기 ᄒᆞᆫ 설 두 설 세 설
열다섯 십오 세 근당허여가난
상다락을 무어간다 중다락을 무어간다.

하다락 무어놓고 어서 봄 ᄀᆞ을이영
겨울 들어가민
하다락 노념ᄒᆞ고
봄 석 둘 근당허민
중다락에 노념허곡 여름 ᄒᆞᆫ 달은
상다락 노념허여근
상당클에 중당클 하당클에
노념허여 간다.
열다섯 십오 세가 근당허난,
ᄒᆞ를날은 늦은덕정하님이
주천강 연네못데 연서답 가가난
ᄌᆞ청비도
‘아이고 나도 게거들랑
연서답이나 가보저.’
어서 늦인덕정하님 ᄃᆞᆯ란
주천강 연못디 나가도
팡돌에 간 앚이난,
궁글작작 헤여나 간다.
늦은덕정하님이 ᄀᆞᆫ는 말이,
“아이고 아기씨 상전임아 초펀 시집 가민
초살렴은
궁글작작 허영
못살 팔자 뒙니다.”
그게 미신 말이리요.
하나 두 개 앚아근 뽈앖이난,
하늘 옥황(玉皇)에
문왕성(文王星) 문도령(文道令)
서천서약국(西天西域國)
글 공비 활 공부
연삼년을 살레 가단 보난
연서답 ᄲᅮ는 애기씨가 천하일섹 고와지난
문도령이 허는 말이
“아기씨 상전임아.
물이나 ᄒᆞ끔 떠 줍서.”

“물은 떠 안네젠 헤여도 바가지가 없십니다.”
문도령 페주박 찻단 클런 주멍 “요 바가지로 물 떠 줍서.”
“어서 걸랑 기영 헙서.”
ᄌᆞ청비 ᄒᆞᆫ 번 두 번 삼시번
확확 헤쳐 두고,
물을 떠들러
청버드낭섶 ᄒᆞᆫ 잎생이 훌터놓안
주엇더니 “아기씨 상전임,
얼굴은 천하일섹 고와도,
ᄆᆞ음쎄는 못네 고와질 듯허옵네다-.
아 어떵 허난 물에 티가 들엇이민
건져두엉 주건만은
없는 티를 놓안 주없수가?”
“아이고 도령님아 먼 길을 헹 허는 거 닮으난
물에 체허민
약도 엇입네다.
ᄒᆞᆫ 펜(便)으로 천천이
뿔앙이나 먹읍서.”
그 말 들언 보난
‘아이고 요거 어서 이치가 잇는 말이로구나.’
아 이거 문도령은
어서 그 말 들언 보난
어서도 “어딜로 가는 도령입니까?”
“나는 하늘옥황 문왕성 문도령
서천세약국
글 공비 활 공부
가는 질이우다.”
“아이고 우리 집이 오라방도 연삼년 전이 어서
친구 벗 잇이민 가젱 허엿인디
친구 벗이 하나 엇이난
못네 간 잇입네다.
나가 집이 강
우리 오라방 것득 보내걸랑 ᄀᆞ찌 가기
어찌 허오리까?”

“어서 걸랑 기영 허라덜.”
문도령
어서 세와두고
ᄌᆞ청비
연서답을 걷우 설러
집으로 ᄃᆞᆯ려들어
어서 이 당 저 당
하나씩 걸쳐 두고,
“아바님아, 어머님아.
나도 글 공비 활 공부나 서천서약국
연삼년을 어서 살레 가쿠다.”
“아이고 지집년이 남도 낫저. 글 공비가 간덴 소리가 뭐일러냐?”
“아바님아 어머님아.
우리 집이 어느 오라방
잇입니까 나라도
강 글공부 활공부
허영 오라사
내일만이라도 아바님네 살다근
인간을 돌아가민
축지방(祝紙榜)이나 써근 부찔 일은 아닙니까?”
어서 그 말도 들언 보난
그럴 듯헤여지난 “어서 게거들랑
글 공비 활 공부
어서 가라.” ᄌᆞ청비
그 말 들언
남ᄌᆞ방에 ᄃᆞᆯ려들언
남복 입성 출려가는구나.
일천 장에 베릿돌에
삼천 장에 먹을 ᄀᆞᆯ고
안음 ᄀᆞ득 줌 ᄀᆞ득
안아앚언 주천강 연못디
와라차락 ᄃᆞᆯ려간 보난
문도령 삿구나.
“아이고 아까 ᄌᆞ청비 아가씨가 갓인디

ᄌᆞ청비 얼굴이 닮아지다.”
“ᄒᆞᆫ 아방 생기고
ᄒᆞᆫ 어멍 난 아기가
얼굴이 뜰릴 리가 잇습니까 나는 ᄌᆞ청도령
뒈여나 집니다.”
“어서 게거들랑 ᄀᆞ찌 동헹허영
어서나 가 보게.”
ᄒᆞᆫ 자추를 넘어간다.
아무리 허영 봐도
여자헹착 닮아지난
“옵서 우리 게거들랑
어서 씨름이나 ᄒᆞᆫ번 허여 보게.”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씨름을 붙어보뒈
ᄌᆞ청도령 이겨나간다.
“어서 게거들랑
어서 문왕성
문도령광 게거들랑
오줌이나 ᄀᆞᆯ길락 허여 보게.”
“어서 걸랑 기영 허라.”
문도령 오줌을 ᄀᆞᆯ긴 것이
아홉 방축 반을 ᄀᆞᆯ겨 간다.
ᄌᆞ청도령은
붓뚜깽이 내여놓안,
오줌 누는 디 찔러놓안
ᄀᆞᆯ겻고나 열두 방축 나간다.
오줌을 ᄀᆞᆯ겨도
이겨나 가는 구나.
서천서약국
소곡소곡 들어가난 거무선성안티
선신 드리난
“너네덜 ᄒᆞᆫ 날 ᄒᆞᆫ 시간에
오랏이메
ᄒᆞᆫ 방에

줌을 자멍 글 공비 어서 허라.”
“어서 걸랑 기영 헙서.”
혼 방에 줌자젠 허난
ᄌᆞ청도령이
버릇 씨여 가는구나.
“아이고 문도령아, 느 어서 글 공비 오라가난
느네 아바님영 어머님영
아무 말도 아니 ᄀᆞᆯ아냐?”
“아무 말도 아니 ᄀᆞᆯ읍디다.”
“아이고 우리 아바지 어머닌 오젠 허난 어서
은대양에
물을 떠다 놓앙
은제(銀箸) 놋제(鍮箸) 걸쳐근
방바닥 가운디 놓앙
누웡 줌을 장 그거 아니 떨어지민
글도 자원(壯元)헌다 활도 자원헌덴 ᄀᆞᆯ아렌.” 허난
“느네 부모들 ᄀᆞᆯ은 대로
어서 게거들랑
은대양에 물 떠다 놓앙
은제 놋제 걸쳐 놓앙
줌을 자렌.” 허난
ᄌᆞ청빈 그 말 들언
은대양에 물을 떠다 놓고 은제 놋제 걸쳐 놓안 줌을 자는 게
ᄆᆞ음 놩 줌을 잔다.
문도령 그것 떨어지카부덴
여수줌만 자단 보민,
아침인 글 공비 어서 가민
수국수국 졸당 보민,
글도 떨어지어 간다.
활도 떨어지어나 가는구나.
ᄌᆞ청빈 글도 자원 활도 자원
허여나 가는구나.
어서 ᄒᆞ를날은
석 ᄃᆞᆯ 열흘 백일 준삭을 체와 글 공부 활 공부

연삼년(連三年)을 살단 보난,
ᄒᆞ를날은 하늘옥항 문도령
아바님 펜지 어머님네
가마기 젓ᄂᆞᆯ개예
어서 편지 서신을 띄와나 가는구나.
‘어서나
글도 장원 활도 장원허영 서수왕 애기
어서 장개가렌.’
편지 서신 떨어지엇구나.
ᄂᆞᆺ 싯단 문서 ᄂᆞᆺ 싯단 베려 보난
편지 봉간 말을 허여 가는 게
ᄌᆞ청비
“어서 나는 올 적에 ᄀᆞ찌 오곡
갈 적에도 ᄀᆞ찌 가켜.” 글도 자원 활도 자원 허엿구나.
“어서 걸랑 기영 허라.”
거무선생신디 간 “난 올 적에 ᄀᆞ찌 오난 갈 적에도 ᄀᆞ찌 가쿠다.”
“느네덜 게거들랑
어서 가는 김에 너희덜이 가는디
삼베중이나 들엉 느네덜 둘이 돌아 선신허난
돌아나 보라.”
문도령은
삼베 입어 입언 가난
남저 헹착이 닮아져 간다.
ᄌᆞ청도령
꿰를 씨는 게
엿날도 셋주멩기 ᄃᆞᆯ아메고
활질데 ᄃᆞᆯ아메여 거문선생안티
선신을 드리난
아이고 남자 헹척이 뒈엿구나.
“어서 ᄀᆞ찌 가라.”
“어서 걸랑 기영 헙서.”
거문선생안티 하직 허여두고 어서 문도령광 ᄌᆞ청도령
ᄀᆞ찌 오라 가는구나.
주천강 연못디

근당허여가난,
“문도령아
오라, 느영 나영
흔 방에서 줌자멍
연삼년 동안 살아도
몸모욕(一沐浴) 흔번 못허여 밧이난,
우리 저 물에 가근
몸모욕이나 허여근 어서 가게.”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어서 이제야
연네못에 근당허난
“아이고 문도령아 는 글도 떨어지고 활도 떨어지엇이난
알통에서 모욕허라.
날라근 글도 자원 활도 자원
허엿이난 웃통에 강
모욕허영 어서 가키여.”
“어서 걸랑 기영 허라.”
문도령 어서 웃저고리만
벗어두고 손발만 싯어간다.
문도령 알통에 우알로 문딱 벗어두고
놀려들언 동서르레
휘단 베려보난
ᄌᆞ청비 청버드낭 흔 섭 훌터놓고
글 삼제(三字)를 벡여근
알통드레 띄와두고
웃저고리 입어앚언
어느 만쭉 돌아나 가불엄구나.
동서르레 문도령
휘단 베려보난,
아이고 ᄌᆞ청비가 글을 썻구나.
그제사
‘아이고 요거 ᄌᆞ청비안티 나가 속아지엇구나.’
어서 문도령
제게 나완 옷 입언

가젠 허난 바짓가달 ᄒᆞᆫ 착에
양착 들여놓안,
일어사민 이레 펑당 저레 펑당
시러지어 가가난
“아이고 요 어리석은 문도령아,
ᄒᆞᆫ 착에 ᄒᆞᆫ 가달썩 어서 입어 앚엉
ᄃᆞᆯ려오민 미쳐진덴.” 허난,
문도령 그 말 들언
어서 옷 벗언 ᄒᆞᆫ 착 가달에 ᄒᆞᆫ 착씩
입어앚언 어느 만쭘 ᄃᆞᆯ아난 가단 베려보난,
먼 올레에 간
ᄌᆞ청비 ᄀᆞ만이 삿구나.
용심 내여가난,
“아이고 느 너미 용심 나지 말앙 나가 ᄆᆞᆫ처 들어강
우리 아바님 어머님신디 강 선신문안 드려뒁
나오랑 ᄃᆞᆯ아가커메 어서 삿이렌.”
“어서 걸랑 기영 허라.”
ᄌᆞ청비
그 말 ᄀᆞᆯ아두고
소곡소곡 안사랑에 들어간.
“아바님아 어머님아,
아이고 난 글도 자원허연 오랏수다. 활도 자원허연 오랏수다.”
“나 ᄠᅳᆯ애기 착허다.
느 방에 들어가라.”
“아버님아 어머님아.
아이고 친구 벗이 잇인디
친구 벗이
헤는 서산열락(西山日落)에 지어불고,
갈 길은 멀어지난,
우리 방이 옵서 ᄒᆞ릇밤 세엉 가캔 허엾이난,
어찌 허민 좁니까?”
“열다섯 십오 세
넘엇걸랑 우리 방에 ᄃᆞᆯ아오곡
열다섯 십오 세가 아니 뒈엿건

느 방에 둘앙 강
좀 제와근 보내여 주렌.” 허난
“아이고 아바님아 어머님아,
열다섯 십오 세가 아니 뒈엿수다.”
“어서 게거들랑 느 방에 둘앙 강
좀 제왕 보내여주라.”
“어서 걸랑 기영 헙서.”
ᄌᆞ청비 나오란 문도령 둘아앚엉 간에
연삼년 동안
글 공비 활 공부 허멍
어서 앚아 생각
눠 생각허뒈 신멧벵이 나신디덜
ᄒᆞ룻 처낙
품사랑 허난
신멧병 풀려나 간다.
먼동금동
데명천지(大明天地) 붉아가난
하늘옥황 사름이란
문도령 가젠 허여가난
“아이고 문도령아 본메 본짱이나 하나 줘동 어서나 가렌.” 허난
용얼레기 ᄒᆞᆫ 짝 꺾어 주어간다.
어서 문도령
하늘옥황 올라가불고
ᄌᆞ청비 “어느제 나민 다시 올 거냐?”
도실씨(桃實ㅡ) ᄒᆞᆫ 방울 주어돈 어서 가멍
“연방축 알에 심어놓앙
에서 순이 나고
잎 피영 꼿이 피영
열메가 열어 가민
다시 나 얼굴 ᄒᆞᆫ번 봐진덴.” 골아두고
하늘옥황 올라가분다.
어서 ᄌᆞ청빈
연방축 알에 심어놓아 물을 주고 순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열어 가도

따먹어 봐도 문도령 얼굴은 혼번 못네 나난
ᄌᆞ청비
신멧병이 나는구나.
ᄒᆞ룰날은
먼 올레에 ᄆᆞᆯ팡돌
우이 올라산 베려보난 속네 살치 장남들
우마 농애 ᄆᆞᆯᄆᆞ시
어렁떠렁 ᄆᆞᆯ아앚어 올라가
할로영산 가근
장작이여 지들커영
허연 싣건 내려
어렁떠렁 ᄂᆞ려오멍 아질레기 진달래꼿 꺾어 ᄆᆞᆯ머리에 꼽아주고
ᄂᆞ려나 오라가난
ᄌᆞ청비 그 말 들언
실금실짝 방 안네 들어가멍
야 장남덜 눌굽에 누언 ᄌᆞᆷ만 잤이난,
“아이고, 요 어서 정이엇인 정수남아.
낮ᄌᆞᆷ만 자지 말앙 느도 요 동네 살칫 장남덜
허여앚엉 오는 거
어서나 보렌.” 허난
“느도 강 ᄌᆞᆷ자지 말앙 어서 할로영산 강 지들커 허영 오멍
아진베기 진달레
강 혼 가지
꺾어다 도렌.”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헙서만은
나 가젱 허민 갈중이 정벵이 출려줍서.
황기 도치 출려 줍서.
ᄆᆞᆯ 아홉에 쉐 아홉
질메 지왕 내여 놉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갈중이 점벵이 출려준다 황기 도치 출려주고
ᄆᆞᆯ 아홉에 쉐 아홉
질메 지완 내여노난
정이엇인 정수남이

어렁떠렁
올라나 가는구나.
할로영산 올라가근
동드레 벋은 가지 쉐 아홉 메여간다.
서르레 벋은 가지
물 아홉 메여두고
동드레도 자빠졍
흔줌을 잔다.
서르레 자빠지어
흔줌을 잔다.
자단 베려보난
헤는 서산열락이 지어불고
‘어떵 허민 좋고?’
일어난 황기 도치
둘러 메여
쉐 아홉 눈 나미에다
흔번을 찍언 베려보난
쉐 아홉도 덩글렝이 자빠진다.
서르레 돋은 가지
흔번 도치 찍언 보난
물 아홉 덩글렝이 자빠지엇구나.
쉐 아홉 물 아홉 문딱 죽어부난
질로 죽은 멩기남은
벡단수풀 피와 놓고
익엇이냐 흔 점이여,
설엇이냐 흔 점이여.
허단 베려보난,
쉐 아홉도 다 잡아먹어간다.
물 아홉도 다 잡아먹엇구나.
어 황기 도치 둘러메고
이구십팔(二九十八) 물케 가죽
짊어지어 어렁떠렁 ᄂᆞ려나 오는구나.
오단 베려보난 올리통에 올리 흔 쌍 떳구나.
‘아이고 요거 올리나 흔번 마쳥 강 아기 상전님 눈에 들영 살주긴.’

올리통에 올리 마치젠
황기 도치 던지난
올리는 ᄑᆞ르릉 놀아나불고
황기 도치 물 알르레
ᄉᆞ르륵기 굴라앚아 가는구나.
‘아이고 이제랑 황기 도치라도 건졍 가주겐.’
갈중이 점벵기
벗어두고 연못디 뛰여들언
황기 도치 건지저
휘단 베려보난
헤변년덜 지들커 허연 오단 보난
야 갈중이 점벵이 벗어 나두난 구불텡이 떼영 가불고
이구십팔 몰케 가죽
부련 놔두난 아이고 요거 하나씩 들렁 갓이민
지겟가달 놓아근
궤기나 허민 등드레 물이나 아니 헐쳥
아주 좋아지켜 ᄒᆞᆫ 장썩 들러앚언
문딱 돌아난 가부난
정이엇인 정수넴이
야 황기 도치도 못네 건지고 물 우이 나완 보난,
갈중이 점벵이 다 일러불고
동드레여 서르레여
베련 보난 끅줄도 번들번들
개낭 잎도 번들번들 허엿이난
개낭 뚝뚝 꺾어다 놓고
끅줄 걷어다 놓안
존등이에 놓아
핑핑 감안,
집으로 들어오젠 헌 게
자 올레로 못 들어오난
어서 뒤으로 돌려든 게
자 어서 장항뒤에 돌려들없구나.
삼년 묵은
간장 주젱이 둘러씨언

앚앗이난,
늦은덕에 정하님은
조반 허젠 장 거리레 간 베려보난 장 주젱이 걷어 간 게
어서 삼년 묵은 간장 주젱이가
엉기덩기 춤을 추워 간다.
“아이고 요거 귀신이냐 셍인(生人)이냐?”
“아이고 난 귀신이 아니라 정이엇인 정수넴이가 뒈여지다.”
늦은덕정하님은 어서 ᄌᆞ청비신디 간
“아이고 ᄌᆞ청 정이엇인 정수넴이
어서 삼년 묵은 간장 주젱이
둘러씨언 엉기덩기 춤을 추난
어서 어떵 허민
좁니까?” 어서 죽일 팔로 들러간다.
“앞밧디랑 작시 걸라.
뒷밧디 벌텅 걸라.”
ᄌᆞ각놈[刺客ㅡ] 불러놓고
칼춤을 추어가난
아이고 정수넴이 허는 말이
“나 죽이지 말앙 나 게도 본 말이나
들은 말이나
어서 구경헌 말이나
ᄒᆞᆫ 마디 곧걸랑 들어봥 죽여주민 원이 엇수덴.” 허난
“어서 ᄀᆞᆯ으라.”
“할로산(漢拏山)
할서요산,
간 베려보난
하늘 옥황에서 문도령
인간드레 궁예(宮女) 시녜(侍女) 시녀청
ᄃᆞᆯ안 ᄂᆞ려오란엥에 저 놀음 노룩이 허던 거덜
웃음 노룩이 허는 거 보단 보난
헤는 서산열락 져불고
쉐 아홉 ᄆᆞᆯ 아홉 ᄆᆞᆫ딱 촐 기릅고 물 기루난 다 죽어부난
죽은 거 내불지 못허연
질로 죽은 멩개남은

벡단숫불 피와 놓고
익엇이냐 흔 점 설엇이냐 흔 점 허단 베려보난 나
이구십팔 물쿼 가죽
문딱 잡아먹어
이구십팔 물케 가죽 짊어지고
황기 도치 들러메연 오단 보난
올리통에 올리 흔 쌍 살앗이난
어서 올리 마치젠
황기 도치 던지단 베려보난
올리는 푸르릉 놀아나고
헤벤년덜
가마기발 허연 오다근
아이고 이구십팔 물케 가죽 부련 나두난 ᄒᆞ나씩 문딱 들러앚언
둘아나부난
아이고 죽도 살도 못허고
갈중이 점벵이 다 일러불고
홀 수 엇이 영 허연 오랏수덴.”
영 골으난,
“아이고 나도 가민 봐지느냐?”
“어서 가민
아기씨 상전임
봐집네다.”
“어떵 허영 가느니?”
“아이고 나 따시 가젱 허민 갈중이 점벵이 출려 줍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어서 이제야
갈중이 점벵이 출려 준다.
ᄌᆞ청비
가젠 허여가난
석자 오치 물드무를이여
물무제미 출려 놓고
어서 물 타근
가젠 허민 “아기씨 상전 먹을
징ᄀᆞ를 닷 뒈 소금 닷 뒈 노와근 범벅허고

나 먹을 징심이랑
는젱이ᄀᆞ를 닷 뒈에 소금 혼 줌 노나마나 허영
만듭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는젱이ᄀᆞ를 닷 뒈 소금 혼 줌 노나마나 만들고
징ᄀᆞ를 닷 뒈 허여
소금 닷 뒈 놓아
범벅을 만들아 가는구나.
“아이고, 가젱 허민 ᄆᆞᆯ머리 ᄀᆞᄉᆞ(告祀)나 지넹겨삽니다.”
“ᄆᆞᆯ머리 ᄀᆞᄉᆞᆫ 어떵 허영 넹기느니?”
“술 혼 춘이 출려 놉서.
ᄃᆞᆨ 혼 머리 출려 놉서.
어서 미녕 석 자 출려 놉서.”
“어서 기영 허라.” ᄃᆞᆨ 혼 머리에 술 혼 춘이 출려 노난
어서 술 혼 잔
비완 ᄆᆞᆯ 귀드레 훅 지치난 ᄆᆞᆯ은 귀 톡톡 터난, “아이고, 요거 그만 먹켄 헤엿수다.”
“게거들랑
정수남아 느 ᄆᆞᆫ딱 먹어불라.”
술 혼 춘이
어서 ᄃᆞᆨ 혼 머리
안주 출련 ᄆᆞᆫ딱 먹어놓고
ᄆᆞᆯ은 타젠 허난
구젱잇닥살 안장 굽에 놓안 ᄆᆞᆯ안장 지와노난
ᄆᆞᆯ은 타젠 허난 와들렝이 들러키난,
“아이고 아기씨 상전님아 요거 새 ᄆᆞᆯ이난, 안장 그믓 아니 낫수다.
나부터 ᄆᆞᆫ여 탕
안장 그믓 내우걸랑
어서 아기씨 상전 탕 글읍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정수넴이
ᄆᆞᆯ을 둘러 타는구나.
ᄌᆞ청비 앞이 산
ᄆᆞᆯ 이껀 걸어가난
아무리 걸어봐도 ᄆᆞᆯ은 아니 세와주고 베고프고 시장허고 허기 버쳐지고
발도 아프고 영 허난

“아이고 정수남아. 오라 우리 여디서 쉬엉 가곡
정심이나 먹엉 가게덜.”
“어서 걸랑 기영 허라덜.”
어서 물 알에 네련
정심을 먹젠 허난
“아이고, 오라 ᄀᆞ찌 앚앙 먹게. 느영 나영 먹게.”
“아이고, 아기씨 상전임아
종광 한집이 ᄀᆞ찌 먹없이민 어서 넘어가는 사름 보앙
아이고 두갓이옝 ᄀᆞᆯ으민 뭣이옌 대답헙네까덜?
아기씨 상전님이랑
이 동펜이 앚앙 먹곡 날랑 저 굴헝에 강 먹쿠다.”
“어서 걸랑 기영 허라덜.”
어서 징ᄀᆞ를 닷 뒈 소금 닷 뒈
놘 범벅 헌 거 ᄌᆞ청비 내여놓안,
ᄒᆞᆫ 적을 끈언 먹으난 짠짠허연 목이 ᄏᆞᆫᄏᆞᆫ 물라간다.
어서 정수넴이
어서 즌뎅이ᄀᆞ를 닷 뒈 소금 ᄒᆞᆫ 뒈 노나마나 허여근 만든 거
굴렁에 간 앚아근
먹어나 가가난
“아이고 정수남아 나 징심은 짠 못 먹키여. 느 징심이나 ᄒᆞ끔 도라.”
“아이고 아기씨 상전님아.
그게 무신 말입니까? 상전임 먹다 남은 거 종이 주는 법이고
종이 먹다 남은 거
개를 주는 법입네다.”
“아이고 게거들랑 요 나 먹단 거영 ᄆᆞᆫ딱 갖당 먹어불라.”
정수넴이 ᄆᆞᆫ딱 갖다단
순작만썩 풩빙애기만썩
ᄆᆞᆫ딱 먹어놓고
뽕그랑케 먹어놓고
ᄌᆞ청빈 짠짠헌 거 먹으난 목이 ᄏᆞᆫᄏᆞᆫ 물랏구나.
“아이고야 정수남아. 오라, 우리 어디 강 물이나 ᄒᆞᆫ 적 먹엉 가게.”
“어서 걸랑 기영 헙서.”
ᄒᆞᆫ 자축 넘어가단 베려보난,
냇고랑치에 내가 ᄂᆞ렸이난

“오라, 우리 저 물 먹젱 허민 먹엉 가게.”
“그 물은 먹젱 허민,
아이고 나무 돌굽 문딱 석어 ᄂᆞ려온 물이난
못네 먹읍네다.”
ᄒᆞᆫ 자추만 넘어사면
“오라, 우리 이 물 먹게.”
“그 물은 먹젱 허민,
먹는 법이 잇입니다.”
돌혹에 물은 ᄀᆞᆯ랏이난 그 물 먹젠 헌 게
“아이고 아기씨 상전임아 이 물은 먹젱 허민
우알 활딱 벗어동
엎더지어근
또꼬냥 하늘 우트레 비작허여사
먹어나 집니다.”
정수넴이 “게거들랑
나부떠 먹는 거 보앙
아기씨 상전임아
어서나 먹읍서.”
“어서 기영 허라.” 정이엇인 정수넴이 갈중이 점벵이
우알로 활딱 벗어두고
아이고 “어서 나 먹는 거 방 이추룩 먹읍서.”
ᄌᆞ청비도 그 말 들언 우알로 벗어두고
엎더지언 물을 먹젠 허난,
“아기씨 상전님아,
요 졸레석이나 왕 심엉 ᄃᆞᆼ깁서.”
졸레석 심언 ᄃᆞᆼ겨 가난,
손주먹은 ᄇᆞ록 허여 가난,
“아기씨 상전님아,
옵서 우리
어서나 입이나 맞추와 보게.”
“나 입 맞춥젱 말앙 우리 집이 강
어서 꿀단지에
입이나 데민 더 맛이 좋아진다덜.”
“어서 게거들랑

홀목이나 잡아보게."
"우리 집이 가근
은단펭 술 데민 더 맛이 좋아진다."
아기씨 상전임아
어서 그게사 용심 뒈여가난
정이엇인 정수넴이 동드레도 퍼짝
서르레도 퍼짝 허여가난
어서 용심 내여가난
ᄌᆞ청비 말을 헌 게
"야, 느 용심 내지 말앙
어서 저 나뭇가지
청버드낭섭에 나 옷 네류와 주민
입어근 우리 이 밤 저 밤 세영 가젱 허민
어디 강 도롱담이나 다와사
밤을 세영 갈 것이 아니겟나?"
어서 경 허렌 허우덩싹 웃이멍,
옷 네류와 주난
ᄌᆞ청비 입어 앚이고
어서 이제 넘어간다.
동드레 벋은 가지
서르레 휘와 놓고
서르레 벋은 가지
동드레 휘와 놓안
도롱담 다와 놓고
ᄌᆞ청비 담 안네 옴막 들어강근
"아이고 정수남아, 늘라근에
고사리 꺾으멍 문딱 이 담고냥 막으라.
날라근에
안네 앚앙 ᄀᆞ리치키여."
"어서 걸랑 기영 헙서."
ᄌᆞ청비 그 말 들언 담 안네 옴막 들어앚이고
정이엇인 정수넴이
베낏디서,
고사리 꺾으멍

담고냥은 막는 게
ᄒᆞᆫ 고냥 막으민,
두 고냥 뻬여간다.
두 고냥 막당 바려보민
시 고냥도 뻬여간다.
붉도록 정수넴이 담고냥 막단 베려보난
어서 해는 아침 붉아가난
정수넴이 '요거안티 속앗구나.'
ᄌᆞ청비안티 속아졋젠
따시 이제 동드레도 퍼짝
서르레도 퍼짝 허여
용심난 죽일 팔로 들러가난
"아이고 요 정수남아, ᄂᆞ 용심 나지 말앙 ᄂᆞ 머리에 니나 잡아주커메 나 동무립에 왕 엎더지지라."
서른ᄋᆞ덥 닛바디
허위덩싹 웃이멍
얼음 ᄀᆞ뜬 동무리에
구름 ᄀᆞ뜬 동무리에
어서 메발톱닮은 ᄃᆞ가리가 허우젝기 엎더지난
구뚱벡인 걷언 보난,
훍은 놈이여 줌진 놈
아망 박삭 궤엿이난,
훍은 니 장쉬(將帥)로 벌여 간다덜.
줌진 니 세끼 치중(一種) 벌여 두고
중엣 니로만 오독똑 죽이단 베려보난 정수넴이 무정눈에 오꼿
줌이 들엇구나.
졸단 베려보난
ᄌᆞ청비
쿰에 쿰엇단
장도칼 내여놓안
정이엇인 정수넴이
죽여나가는구나.
바락 죽여두고
"어서 요 ᄆᆞᆯ아 저 ᄆᆞᆯ아

영마의 물이로다.
오라난 ᄀᆞ르 칠 다라
어서 집으로 어서 글라.”
물을 들러 타고 집으로 들어오라 가는구나.
거리 안네 들어오난
“어떵 허난 양반이 ᄌᆞ식이
어서 사름을 지나가난
놀핏내도 낲이니.
놀낭내도 낲이냐.”
“아이고 아무리 양반이 ᄌᆞ식이라도 산길을 행허단 보난,
물발에 개염진들 아니 차고
놀핏낸들 아니 납니까?”
ᄇᆞ름 알로 지나간다.
집으로 들어강
“아바님아, 어머님아.
정이엇인 정수넴이 행실이 궤씸허난
죽여두언 오랏수다.”
“이년아 저년아,
우리 집이 어서 벨진밧디 둘진밧
세경땅 농서 농업허는 정이엇인 정수넴이 죽여부난
어떵 허영 농서 지느니?” 죽일 팔로 들러간다.
야 ᄌᆞ청비 죽이젠 허여가난
“아이고 아바님아 어머님아…….”
“어서 열다섯 십오 세 이복 입성 앚어
ᄆᆞᆫ딱 기어나라 쑤아나라.”
나오젠 허여가난
열다섯 십오 세 이복입성 포따리에 줏어 싸 집으로 나가는 것이
먼 올레 나간다.
가단 베려보난
주모땅 근당헌다.
주모 할망
주모 베 짧이난덜,
“아이고 지나가는 아이 물이나 ᄒᆞ끔 떠 줍서.”
“아이고 여자이 헹착이메 느 냥으로 강 떠먹엉 어서 가라.”

“아무리 여자이 헹착이라도
양반이 ᄌᆞ식이 헹착이난
어서 강 물을 떠옵서.”
어서 주모 할망
물 뜨레 가부난,
베틀 우에 앚안
잘각잘각 짜는 게
미녕을 짜가난
“아이고 서룬 아기야,
ᄒᆞᆫ 세가 늦이민 두 세가 늦어진다.
두 세가 늦이민 세 세코가 늦어지난,
그 미녕 짜지 말라.”
ᄌᆞ청비 그 말 들어 ᄒᆞᆫ 세를 돋군다.
두 세를 돋구완
멩지를 짜단 보난,
주모 할망 짠 거보다 더 좋게 짜가난
“서룬 아기야, 어들로 가는 애기씬디?” “아이고 난 어서
아방 눈에 ᄀᆞᆯ리 나고,
어멍 눈에 시찌 나난
갈 디 올 디 엇이
나가렌 내좇아부난
나 갈 디 올 디 엇수덴.” 허난,
“게거들라근
나영 ᄀᆞ찌 살멍
날라근 어서 쉬양똘 허고
늘라근에
수양어멍 삼앙
우리 ᄀᆞ찌 살게.”
“어서 걸랑 기영 헙서.”
주모 어멍 삼아놓고
“아이고 어머님아, 영 허영 짜민 어딜로 갈 미녕입니까?” “하늘 옥황 문도령
어서 장개가젠 허난
관디(冠帶) 도폭(道袍) 지을 멩지 짧저.”
글 삼제(三字) 벡여가는 게

나는 지알에 ᄌᆞ청비
미녕 끗데에
ᄌᆞ청비 이름 성명 지와간다덜.
어서 물멩지 강멩지
어서 관디 도폭 지을 멩지에
글 삼제를 벡여놓고
주모 어멍안티
멩지 짠 하늘 옥황 올려 보낸다.
어서 문도령
그거 풀언 베련 보난,
어서 ᄌᆞ청비
이름 성명 지왓구나.
“요거 어느 누게 짠 미녕입니까?
멩집니까?” 허난
“아이고 우리 집이 수양 양젯뚤 미녕 짠 보네고
멩지 관디 도폭 지을 멩지 짜가난
어서 짠에 보냇젠.” 헌 게 자청비 이름 성명 지왓구나.
“아이고 어떵 허영 만납니까?” “이 밤 저 밤 야삼경(夜三更) 짚으건
인간에 내려오민
우리 ᄌᆞ청비
쉬양뚤아기 만나진덴.” 허난,
“어떵 허영 값이니?”
“어서 하늘 옥항 멩지 짱 보낼 때예 인간에 ᄌᆞ청비난
인간에서
사름 살리는 꼿
ᄒᆞᆫ 두 송에 꺾어앚엉 내려오렌.” ᄀᆞᆯ은 게
그 말 들언 어서 문도령
인간에서 사름 살리는
꼿 ᄒᆞᆫ 송이 꺾어 앚이고
소곡소록 밤 야삼경
짚으난 네려온다.
창무뚱에 완 산 어뜩어뜩 굴메만 허여가난,
“너 귀신이냐 생인이냐?” “난 귀신이 아니라
하늘 옥황 문왕성 문도령

뒈어진덴.” 허난
“나에 ᄀᆞᆯ은 대로
게건 헤영 왓느냐?”
“헤영 왓수다.”
“게거들랑 창궁기로 게건
인 살릴 꼿이나
어서나 던져보라.”
인 살릴 꼿 창궁기로
드리쳐 가가난
ᄌᆞ청비 돔박꼿 꺾어당
나뒀단 창궁기로 바껏드레 던지멍
“요거 어서 인 살릴 꼿 아니여.”
꺼꿀로 바까 던져주고
어서 오젠 허여가난
“야저, 문도령이 적실허건 창궁기로 바농기 내여노라.”
“어서 기영 허라.”
바농기 어서 내여노난
어서 어가라 꼭 질르난 피가 불끈 나는구나.
“아이고 인간에 사름은 네려오란 보난
부정 서정 허엿고나.”
어서 문도령 하늘 옥항드레 도올라 가불엇구나.
ᄌᆞ청빈
그 꼿 앚언
“서룬 아기야 나 눈에도 ᄀᆞᆯ리 나고 나 눈에도 시찌 낫저덜.
어서 나고 가라.”
ᄌᆞ청비 나가는 것이
인 살릴 꼿 갖언
문도령 정이엇인 정수넴이
죽은 딜로덜
소곡소곡 가단 베려보난 정이엇인 정수남이 불써가라 죽언
솔 썩어 물이 뒈고 뼈 살아 진토가 뒈엾이난
“아이고 정이엇인 정수남아 살아나라.”
ᄌᆞ근ᄌᆞ근 놓안
뼈 오를 꼿 솔 오를 꼿 오장육부 그릴 꼿

ᄎᆞ례ᄎᆞ례 놓안 어서 족낭훼뿌리로
삼시번 두드리난 정이엇인 정수남이 오들렝이 살아난다덜.
ᄌᆞ청비 ᄃᆞᆯ아앚언
집으로 들어간 게
“아이고 아바님아 어머님아 정이엇인 정수넴이
살려오랏수다.
어서 마탕 별진밧 ᄃᆞᆯ진밧 세경땅 농서 농업 허영 어서나 삽서.”
“어서 기영 허라.
어서 양반이 ᄌᆞ식이 어떵 허난 사름 죽엿다 살렷다
허엿이니.
앞밧딜랑 작시 걸라 뒷밧디랑 버텅 걸라.”
조각놈 불러놓고
죽일 팔로 들러가난
그때야 어서 자청비 어머님은
아이고 난 인간에서 나 죽이젱 말앙
인간에 아바님이 몸에
서서 인간 탄생허젠 허난
절간 법당 강
수룩 드령 난 아기난
“아바님아 어머님아
날 죽이지 말앙 머리 삭발 시겨주민
어서 절간 법당 강
어서 분처님에 원수룩 드리멍 줴나 삭허영 살쿠덴.”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머리 삭발 시겨간다.
ᄒᆞᆫ 침 질러 굴송낙,
두 침 질어 비렁 장삼
염질(念珠) 목덕(木鐸) 거느리고
은기에 놋기 거느리고
야 어서 웃데 절간 법당데레 올라가저.
동개남 상주절
간 베려보난,
하늘 옥황 궁예 시녜덜 네려오란 비세ᄀᆞᆮ이 울없고나.
“아이고 느네덜 무사 그디 앚안 울없이니?”

“우리덜 하늘 옥황이
궁예 시녜청인디
하늘 옥항 문왕성 문도령
연삼년 전부떠
신멧벵이 낫인디,
인간에 네려강 ᄌᆞ청비 먹는 물이라도 떠다주민
먹어근 살아나켄 허여도
인간에 내려오란 베려보난
ᄌᆞ청비 먹는 물이 어디 시멍
몰라지언 울없수다.”
“게거들랑 나가 ᄌᆞ청비
먹는 물을 떠줄 테니
나를 ᄀᆞ찌 ᄃᆞᆯ아앚엉 하늘 옥황더레
올라가겟느냐?”
“어서 걸랑 기영 헙서.”
ᄌᆞ청비 그제야
어서 거릿제도 지나두고
비우제 지난다.
난데엇이 데우방에 수천리가 쏟아지어
비가 네리난,
두루박에 물을 떠근
올라가젠 허난
궁예청 시녜청
어서 ᄌᆞ청비
두루박이 타앚엉
하늘 옥황 올라가는구나.
올라가는 게 문도령 사는 집안에 소곡소곡 들어간다.
들어사멍 나사멍
“소승은 절이 뵙니다.”
들어가난,
문도령 아바님 어머님
시권제 내여준다덜.
ᄌᆞ청비 받젱 허난 ᄒᆞᆫ 착 손은 우머니 속에 곱져두고
ᄒᆞᆫ 착은 전뎃귀 입에 물고덜

흔 착으로만 받젠 허난 입에 물엇단 귀는 “어서 높이 들러 놎이 스르르르 비와줍서.
흔 방울 떨어지면
멩도 떨어지고 복도 떨어집니다.”
높이 들러 놎이 ᄉᆞ르르 빕단 보난
입에 물엇단 전뎃귀 더럭 알르레 털어진다덜.
쏠은 손아지고 헐어간다덜.
문도령 아바님전
“아이고 요 중 저 중 궤씸헌 중이여.
흔 방울 떨어지민
멩도 떨어지곡 복도 떨어진덴 허멍
어떵 허난 쏠은 알르레 손아진 것이 그데로 나값이니?
흔 방울도 떨어지지 말앙 문딱 줏어앚엉
어서 가라.”
“어서 걸랑 기영 헙서만은,
은지(銀箸) 놋지(鍮箸) 내여줍서.”
은지 놋지 내여주난
쏠 흔 방울씩 문딱 전데레 줏어놓단 베려보난,
헤는 서산열락이 지엇구나.
야 갈 디 올 디 엇어간다.
먼 올레 나와근
펭개남 잇이난
펭개남 우이 올라나 앚아
아이고 저냑때난
ᄇᆞ름돌이 둥그렁케 떠오라간다.
나모에 앚아둠서덜
ᄌᆞ청비
놀레를 불러나간다.
“저 돌은 붉긴 붉아
세계 각국 다 비추와도
하늘 옥황 문도령 얼굴만은
못네도 고와지다덜.”
놀레 불러간다.
문도령도 창문 율안 “저 돌은 붉긴 붉아도
지알에 ᄌᆞ청비 얼굴만은 못네 고와지덴.” 놀레를 불럿구나.

문도령 그 말 들언
먼 올레에 나완 보난
펭개남 우에 ᄒᆞ꼼만 헌 아이 중이 앚앗구나.
“너 귀신이냐 생인이냐?”
“아이고, 난 귀신이 아니라 인간에 ᄌᆞ청비가 뒈여지다.”
“ᄌᆞ청비가 뒈여지건
이 낭 알르레 어서 네려오라.”
“어서나 기영 허저.”
소곡소곡 네려완은
송낙을 벳견 보난
ᄌᆞ청비가 분명허다.
어서 뚯뚯ᄒᆞᆫ 홀목 심언
문도령은 실금실짝 들어가난,
그날 처낙
품사랑 허엿구나.
연삼년 동안 신멧벵
풀려가는구나.
밤이랑 품사랑 허곡
낮에는 펭풍 뒤에 좀을 자간다.
늦인덕에 정하님
ᄌᆞ반 허저 세숫데양 물 떠당 주당 보민
문도령 세수허여 나민
ᄌᆞ청비도 나와근
세수도 허여가난
세숫물이 팍팍 뒈여 가는구나.
난데엇이 조반상도 들여보민
밥사발이 박박 비여가난,
늦인덕에 정하님
밥그릇 들이쳐 두고
펭풍(屛風) 두에서 헤끄만 헌 아이 중이
나오란 앚안 밥을 마주 앚안 먹어가난
문도령 아바님 어머님신디 간에
“아이고 어제 그지겟날
중이 애기 오라선게

문도령은 중이 여자 둘아다 놓안
밤에는 품사랑 ᄒᆞ고 낮에는 펭풍 두에 좀을 잤수다."
어서 죽일 팔로 들러간다.
죽일 팔로 들러가난 ᄌᆞ청비 역력허고 똑똑허난,
아이고 문도령신디
예숙을 제끼저
"야, 아바님 어머님신디 강 예숙이나 제껑 옵서."
"무시거옌 ᄀᆞᆯ아근 예숙을 제끼느니?"
"어서 가근
묵은 장이 둡니까.
세 장이 둡니까.
식은 밥이 좁니까.
ᄃᆞᆺ인 밥 좋읍니까."
(녹음중단 : 배터리교체)
"어서 먹을 떼엔
ᄃᆞᆺᄃᆞᆺ헌 거 좋뎅 허여도 제게 먹엉 둘을 땐 식은 밥만이 못허덴." 허난
"아바님아, 어머님아.
나도 새로 새 장개 아니 강 묵은 장개가쿠다."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죽일 팔로 들러간다.
"이게 무신 말이리야.
어서 영 허나
게거들랑
우리 집이 메누리로 살커건
칼썬ᄃᆞ리나 발아들곡 발아나라."
"어서 기영 헙서."
하늘님이 허는 일이여 부모 허는 일
막을 수가 없어지난,
아이고 "칼썬ᄃᆞ리 발아들곡 발아나렌." 시겨가난
ᄒᆞᆯ 수 엇이
가메솥에는 물은 팔팔 끓여가곡
어서
가메솥에 칼은 걸쳐논다.
ᄌᆞ청비

“칼쏜ᄃᆞ리 발아들곡 발아나렌.” 허난
ᄒᆞᆯ 수 엇이
동서드레 국궁ᄉᆞ베(鞠躬四拜) 드려간다.
어서 칼쏜ᄃᆞ리 발아나곡
발아들곡 허건
떨어지건 나를 죽여주곡 살리커건
나를 넘어가게
시겨나 줍서.”
국궁ᄉᆞ베 드려두고
칼쏜ᄃᆞ리레 올라사근,
발아들곡 발아나젠 허난
난데엇이
데우방에 수천리가
쏟아진다.
칼도 식어간다.
물도 식어간다.
마지막 발단 보난
칼로 발뒤치기 끊어지엇구나.
치메깍에 ᄀᆞᆯ아 앚안
“아이고 아바님아 어머님아. 칼쏜ᄃᆞ리 발아 들곡 발아 낫수다.”
칼쏜ᄃᆞ리 발아들고
피가 ᄇᆞᆯ끈 나는 게
치메깍에 ᄀᆞᆯ아 앚이난
“어떵 허난 ᄂᆞᆯ핏내 낢이니?”
“우리 여자라건 열다섯 십오 세가 넘어근
ᄒᆞᆫ 구녁 창 보민
ᄒᆞᆫ ᄃᆞᆯ에 ᄒᆞᆫ 번씩
제 구실이 잇입니다.”
“어서 게거든,
어서 살라.”
부베간 정이 무어 살젠 허난
“아이고 우리 집이 살커걸랑
시부모 아바님
관디 도폭이나 지어근 올려보라.”

ᄌᆞ청비 관디 도폭 지젠 허난
앚아근에
주충 ᄀᆞ뜬 눈물이
연주반에 비세 지듯
앚안 관디는 지젠 허난
눈물은 ᄒᆞᆫ 방울이 떨어지민 금바둑 옥바둑 시겨나간다.
이제는 동안마당 관디 도폭 입엉
회의를 열리난
어서 문도령 아바님전
관디 입언 동안 마당 갓이난
“요거 어느 누게가
지은 관디나 입언 오랏인디?”
“우리 집이
지알[地下]에 ᄌᆞ청비
메눌애기 지엇젠.” ᄀᆞᆯ으난
어서 이제 회의 끗나난
집으로 돌아오멍
베련 보난 얼굴이 천하일섹
고왓고나.
“어떵 허영
문도령 죽여불어사
우리도 ᄌᆞ청비 빌엉
관디나 ᄒᆞᆫ번 지엉 입어나 보저.”
어서 집이 들어간
어서덜 일청년덜
모여다 놓고
어서 문도령
거리잔치 술 먹으렌
청발허여 가는구나.
ᄌᆞ청비 더 ᄆᆞᆫ처 알아
설멩지 ᄒᆞᆫ 줌 잔뜩 가슴에 쿰져놓고
“어서 강 술을 먹으렌 허건
설멩지레 먹는 체 마는 체허멍
ᄆᆞᆫ딱 비와동 그냥 옵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문도령 거리잔치 술 먹으레 가난
먹으렌 어서 모다 들엉
나도 권허저 나도 권허저
주어가난 먹는 체 마는 체 입 바위레 속속 데멍
어서 앞가슴에
설명지 쿰은 디레 문딱 비왓구나.
마지막 끗나난
집으로 돌아오단 보난
삼도전 시커리에
병신이 앚아둠서,
“아이고 문도령님아, 나 술 혼 잔 먹엉 갑서.”
‘어서 이제 겜으로사
벵신이 나를 쉑이리옌.’
어서 물안장 우에서
술 혼 잔 받안 호로록기 먹은 게
어서 문도령
ᄉᆞ로록기 죽어간다.
안장 우에 앚앗단 알르레 떨어지난
어서 물은 영마(靈馬)이 물이라
문도령 사는 집이
와라차라 둘려간
잇돌 앞이 간 물만 독독 지어가난,
발로 독독 지완
문드렌 베려보난,
아이고 물만 오란 문도령 아니 오랏구나.
어서 ᄌᆞ청비
물을 둘러타근에
“아이고 오라난 질 ᄀᆞ리쳥 어서나 글렌.” 허여
어서 가단 보난
문도령 죽언 어서 물안장에 떨어지엇이난
물안장 우에 싣거앚언
집으로 둘려들언
안사랑에 문을 잡아 눅져두고

앞밧디영 뒷밧디
둘려들언 주월 제열 심어다근
실로 줄라 무꺼놓아
문딱 이불 소곱에
속속 묻어두고 문 중간 눅져두고
어서 마리에 나앚아
베틀 우이 앚안 미녕만 잘각잘각 짰이난,
동네 일청년(一靑年)덜
둘려들언 "아이고, 문도령 어디 갓수가?"
"우리 문도령은 거리잔칫 술 잔뜩 먹언 오란
술 취허연 저영 콧소리허멍 누원 잢수다."
창무뚱에 간 산 베려보난 주월이영 제열이영 ᄇᆞ르릉 ᄇᆞ르릉 소리 나는 것이
아이고 콧소리로 들언 문딱 일청년덜
문딱 속아간다.
정이야 ᄌᆞ청비
어서 무쉐방석 하나씩
핑핑허게 들어 던지멍,
"아이고 그디덜 앚앙근에 허지 말앙 요 마리에 앚앙 놀당 갑서."
무쉐방석 하나씩
핑핑허게 들어 던지난
무서웁고 서꺼우난,
문딱 다 둘아난 가불엇구나.
그때야 ᄌᆞ청비
'문도령을 살리저.'
남저 헹착을 출려놓고
화살대 짊어지고
서수왕 서펜드레
와라차라 돋단 보난,
어서덜 아이덜 서이가
부엉새 하나 잡아
"느 잡앗저. 나 잡앗저."
싸움 고고럭 허엿이난,
"아이고 느네덜아 쌉지 말앙 나 돈 혼 푼씩 주거들랑
그 부엉새

나를 주렌.”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헙서.”
어서 ᄌᆞ청비
애기덜 돈 ᄒᆞᆫ 푼씩 주엉 ᄆᆞᆫ딱 달레여 두고
부엉새 잡아놓고
서수왕 서펜이
ᄃᆞᆯ려들언 부선감네 집이 오란
화살대에 생이 ᄒᆞᆫ 마리씩 어서 마치고
서천꼿밧드레 지와나 가는구나.
울담 넘언 바레여가난 부선감이 “어떵 허난 남이 서천꼿밧드레 울 너머 바레염느냐?”
“아이고 일로 부엉새 하나 지나가난
화살대를 놓앗인디
부엉새는 맞아 죽엇인디 아니 죽엇인디 몰라도
화살이나
아까우난
줏엉 가젠 바레엀수덴.” 허난
“게거들랑 저 올레로 들어왕 ᄆᆞᆯ이나 세와두고
서천꼿밧 들어강 화살이나 줏엉 가렌.”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헙서.”
문도령 ᄌᆞ청비 어서
실금실짝 들어가근
먼 올레 간 ᄆᆞᆯ팡돌에 간 ᄆᆞᆯ은 세와두고 총껍 ᄒᆞ나 풀언 ᄆᆞᆯ 세를 놓안 똑기 ᄌᆞᆯ라 묶어두고
서천꼿밧디 간 베려보난,
부엉센 맞아 죽엇이난 화살대 하나 줏언 나오랏이난에
어서 부선감이
“야, 그만허민 너 활을 잘 쏘앐이난 우리 집이
밤 야삼경 짚으믄
서천꼿밧디 왕
부엉부엉 각시 말다 서방 말다
부엉부엉 허당 가불민
서천꼿밧데
ᄆᆞᆫ딱 수레멜망 악심이 들없이난 우리 집이 누엉 자당
밤 야삼경 짚으건
부엉새 하나 잡아주민

어서도 우리 집이 말젓똘애기
ᄌᆞ원사위 시겨주커메 어떵 허겟느냐?”
“어서 걸랑 기영 헙서.
어서 게건 물이나 촐이나 헤여 줍서.”
“어서 기영 허라.”
물은 은마판에 밀축을 쑤엉 줘도
물은 아니 먹없수다덜.
그때야 ᄌᆞ청비
나가근
물 뺨을 좌우ᄂᆞ다 잡아 두드린 첵
허여 가멍
총컵을 끊어간다.
은마판 밀축도 먹어간다덜.
어서 부선감네 집이 부인님은
“아따가라 그만허민 우리 집보다
더 높은 대감 집이 아덜이라근
ᄌᆞ원사위 헐 만허난.” “어서 기영 헙서덜.”
ᄌᆞ원사우 허저
어서나 허는디
밤 야삼경 짚으난
어서 각시 말다 부엉 서방 말다 부엉부엉 허여간다.
ᄌᆞ청비 먼 올레 나간
웃저구리 벗어두고
헹크랑케 물팡돌 우이 갈라졋이난
어서 부엉새는 놀아가단
딧딧허덴 베떼기레 완 앚이난 심어놓고
화살대 창궁기로 내와두고
꼽아놓고 어서 집 안네 들어완
물팡돌 알러레 떨어치와 두고
누원 잤이난,
낮 뒈도록 줌을 잤이난
“아고야 는 낮 뒈도록 줌을 잤이민 어찌나
부엉새를 마치겟느냐?”
“아이고 언치낙 밤이 저 먼 올레 간 부엉부엉 허여가난

창궁기로 화살을 놓앗인디
어서 부엉새 죽엇인디 몰랏인디
강 바려 봅서.”
부선감은 나간 베려보난,
부엉샌 맞아 죽엇구나.
말젯뚤아기
ᄌᆞ원사위 시겨간다.
ᄒᆞ를 이틀 삼일을 누웡 잔다.
ᄒᆞ룻 처낙도 품사랑 아니 허엿구나.
“아이고 아바님아 어머님아. 어떵 허난 저영
도기 놉은 사우 허연
ᄒᆞ루 처낙 품사랑도 아니 허엾수다.”
어서 부선감이
“어서 말젯뚤아기 ᄌᆞ원사위 시겻는디
어떵 허난 너를 ᄒᆞ루 처낙도
품사랑을 아니 허염느냐?”
“아이고 난 아버님아 어머님아, 서울 상경
과거 보레 가는 질이라
여자라 헌 것은
꿈에만 시꾸와도
세물(邪物)이라 어서 황기 뒈영
과거에 낙방을 뒐 일인디
ᄒᆞ룻 처낙 품사랑 허영 가민
과거낙방 뒈카부덴
품사랑 아니 허엾수다.”
“아이고, 그 말도 맞아지다. 어서 게거들랑 어서
품사랑 허젱 허민 ᄒᆞᆫ저 제게 서울 가근
과거 당선허여 앚엉
오랑 품사랑 허여주라.” “어서 걸랑 기영 헙서.”
“어거 게거들랑
아바님아 어머님아.
서천꼿밧디 꼿구경이나 시겨줍서.” “어서 기영 허라.”
어서 기선감 들어가멍

요거 뻬 오를 꼿 술 오를 꼿
오장육부 그릴 꼿
사름 살릴 꼿이여
ᄒᆞ나씩 골아가난 문딱 똑똑 꺾어
우머니 속에 문딱 곱져앚언 집으로 둘려오고
어서 용얼레기 ᄒᆞᆫ짝 꺾언 문도령
앞에 받앗단 어서 말젯똘애기신디 주어두고
어서 집으로 둘려들언
문도령 살리려
ᄎᆞ례ᄎᆞ례 뻬 오를 꼿 술 오를 꼿 오장육부 그릴 꼿
ᄎᆞ례ᄎᆞ례 놓안 "아이고 문도령아 살아납서."
삼시번
종낙 휏부리로
와작착이 두드리난,
문도령 오들렝이 살아난다.
ᄒᆞ를 이틀 삼일을 살안 보난,
"아이고 요거 거짓말 허민 나가 줼 헤지난
줴가 뒈영
아니 뒈켜."
ᄒᆞᆯ 수 엇이 게거들랑
"아이 문도령아 서수왕이 서펜이 가거들랑
선보름 살앙 오건 나신디랑
후보름도 살곡
나신디 선보름 살건
그디 강 후보름이나 살앙 어서 옵서."
"어서 기영 허라." 문도령
서수왕 서펜이
어서 가젱 허난
"용얼레기 ᄒᆞᆫ 짝 강 내여놓앙 맞추앙 정궁 제깍 맞아지건
살당 옵센." 허영
보내난 선보름도 살아도 아니 오는구나 후보름 살아도
아니 오라간다.
석 둘 열흘 벡일 살아 아니 온다덜.

연삼년 살아도 아니 오라가난
‘아명 허민 어떵 허리.
나 팔자 나 ᄉᆞ주야.’ 열두 폭 대푱단 불림치메덜
적졍 널억 적졍 널억
연삼년 동안 발롸도 발레여도
펜지 서신을 ᄒᆞ룬 띄와가는구나.
“아버님은 다 늙어가고 ᄒᆞᆯ 수 엇이
아이고 문도령아
어서 이제랑
집으로 돌아와근
아버님영 어머님영 모상 살겐.
날라근에
인간에 도ᄂᆞ령
세경땅에 농서 농업 지엉
어서나 살키엔.”
문도령 그 말 들으난
“오꼿 나가 이거 전처에 빠지민 후처에 잊어불고
후처에 빠지난
전처 생각은 오꼿 잊어불엇고렌.” 제게 오젠
ᄆᆞᆯ을 들러 탄 것이
꺼꿀로 들러 탄다.
ᄆᆞᆯ안장도 꺼꿀로 지왓구나.
어서 사모관대 꺼꿀로 씨언
집으로 ᄃᆞᆯ아오는 것이
제게 오젠 허여가난
어서 꺼꿀로 씨어앚언
ᄃᆞᆯ려오라 가는 것이
집으로 ᄃᆞᆯ려드난
ᄌᆞ청비
“아이고 날 오죽이나 베리기 싫어사 저추룩 앞 막으멍 오리야.
나도 오기 전에 제게 가불주긴.”
ᄌᆞ청비
열두 폭 대홍단 불림치메

적졍 널억 적졍 널억 연삼년 발레연 나두엇단
저 질레에 걸어가난
흔 폭썩 찢은 것이
세비낭에 거시난
어서도 청나비에 홍나비
몸으로 환셍 시겨두고
“어서 아바님아
어머님아 나 이제 네려가젠 허였이난
아이고 오곡씨나 내여줍서.”
“어서 기영 허라.”
어서 오곡씨 내여주난
쌀 건 엇이덜
하나씩 두 개씩
내여준 게 쌍 앚언 오단 보난
모멀씨영 ᄂᆞ멀씨영
잊어불엇구나.
다시 도올라강 싸앚엉 ᄂᆞ려오젠 간 베려보난
“모멀씨 ᄂᆞ멀씨 잊어부난 싸줍서.”
소중이 벗언 쌀 것 엇이난
싸앚언 오는 것이
모멀은 초벌 허영 벗어지민
따시 걸고
모멀 그 식이 나게 마련허고
모멀 초벌 허영 벗어지민 ᄂᆞ멀도 것지저
모멀도 갈리저
헤여 가는구나.
소곡소곡 네려오단 베려보난
저 이제 세경땅에
농서 농업 헤여근
우마 농애 거느련 농서 농업 허였이난
“아이고 정심이나 많이 가졍 왓건
날 흔 적 줍센.” 허난
“아이고 지나가는 간나이년 줄 거 엇다 우리 장남덜

멕여근 농서 질 징심
아니 가전 오랏구나.”
“요 놈으 밧디 열두 숨험(凶險)이나 주어보저.”
조랑 불리건
황조여 문딱 벗어져불고
산디에 가거든
나빈데도 시겨불곡
콩에랑 가건들랑 ᄋᆞ름도 ᄋᆞᆯ지 말곡 나붐데 시겨두곡
부리예 감비역이여
문딱 시겨두고
ᄒᆞᆫ 자축 네려사단 보난
할망 하르방이 쉐도 ᄆᆞᆯ도 엇이난 ᄀᆞᆯ갱이로 ᄇᆞᆨᄇᆞᆨ 근으멍
농서 허엾이난
“하르바님아 할마님아 정심이나 많이 가졍 왓건
지나가는 아이 ᄒᆞ끔 줍서.”
“어서 기영 허라. 저디
우알짝 차롱에 잔뜩 거령 오랏이메
ᄒᆞᆫ 착엣 걸랑 냉겨불민 우리 할망 하르방이 ᄒᆞᆫ 자썩 먹곡
ᄒᆞᆫ 착 걸랑 잔뜩 먹엉 가렌.” 허난
귀신이 몸이라근
응감만 허여두고
“아이고 하르바님아 이 밧디 용시 허민
어느 만이 납니까덜?”
“우리 할망 하르방
잔뜩 ᄒᆞᆫ 짐썩 졍 가곡
가문 암쉐 ᄲᅮᆯ 오그라지게 ᄒᆞᆫ 바리 잔뜩 싣겅 가민
ᄒᆞᆫ 바릿데 ᄒᆞᆫ 섬 ᄇᆞ드낫이 날 듯 날 듯허여진덴.” ᄀᆞᆯ으난
게거들랑
ᄒᆞᆫ 바룻데 ᄒᆞᆫ 섬 나곡 ᄒᆞᆫ 바릿데 두 섬이랑 네와줍서.
여름이랑 열걸랑 쒜여름 무쉐여름 열려주곡
어서 이 밧디 게건
어서 쉐 ᄇᆞᆼ뎅잇징 제촐 허곡
광란찡 장남에 제촐 허곡

조랑물 헤갈랑
황주도 제촐 헙서 ᄀᆞ라지도 제촐 헙서
데우리도 제촐 헙서
산디에 나부역 콩디랑 나붐데
제초 시겨 줍서.
아이고 어서 부젯집 집이랑 쉐여 문딱 ᄇᆞᆼ뎅잇징 불러주어두곡
어서 장남에 광렝잇징 주곡
젱기에랑
벳보섭에 살이살성
불러주어 두고
어서 열두 숭엄 주어두고
이 밧디 용시 허거들랑 하낫도 씨를 사지 말렌 ᄀᆞᆯ아두고
ᄒᆞᆫ 자추 네려상 할망 하르방
농서 허는 디 가난
하도 말을 ᄀᆞᆯ아노난 이 밧디 용시 허건
상눌도 눌게 헙서 중눌도 눌게 헙서.
하눌도 눌게 허영 어서
먹을 연 입을 연
세경땅에서
네와줍센 허영
축원허여 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제서 용시 허영
게거들랑
정이엇인 정수넴이
세경 신중 마누라님
난산국은 본산국
과광성
신풀엇십니다.

- 핵심어 : 짐진국, 조진국, 동개남, 상중절, 천상베필, ᄌᆞ청비, 주천강, 하늘옥황, 문도령, 청버드낭섶, 문왕성, 서천서약국, 용얼레기, 정수넴이(정수남이), 주모할망, 칼 쏜ᄃᆞ리, 치메깍, 화살대, 서천꼿밧, 수레멸망 악심, 오곡씨, 농업, 세경땅

W_M_005 ᄉᆞ만이본풀이

2006년 4월 16일, 조천읍 대흘2리 만덕사, 강정식 조사.
문병교(남, 1933년생, 제주시 용강동)

조천읍 조천리 김순렬씨 댁 굿당에서 벌인 시왕맞이굿의 액막이에서 구연한 자료이다. 요령을 흔들면서 구연하였다.

옛날이라 옛적에 동이용궁, 벡정싱 큰아덜로 테어나근, 열다섯 [요령] 십오 세가 뒈여지난 과거 보아근 과거 낙방이 뒈여지난, 이아~ [요령][불청] ᄒᆞ를날은, 사냥을 좋아허여지언, 굴미굴산 신산곳 도올라강 [요령-] 사냥을 갓다근에, [-요령] 호렝이 입에 물려가난, ᄉᆞᆯ 간 곳도 없어지고~ 뻬 간 곳도 없어지어, 어느 누게가 물 ᄒᆞᆫ 직 주는 자가 없어지곡 초ᄒᆞ루 보름 허여주는 자가 없어지난,

ᄒᆞ를날은 주년국땅 소서만이가, 살아잇는디, [요령] 소서만이는~ 열다섯 십오 세가 뒈여지어근, 이아 입장갈림허영 살아가는디, 이아 아기덜은 오망삭삭 [요령-] 이 아기 인간에 솟아나난, [-요령] 이 아기덜 열다섯 십오 세가 뒈여가난, 집안간은 가난허곡 서난허여지난~, [요령] 베고픈 애기덜은 밥을 달라 울어가곡 얼어 추워가민 옷을 달라 울어가난,

ᄉᆞ만이는 이아 곧 서른이 ᄉᆞ고전명이 뒈여지언, [요령] 아이고 ᄒᆞ를날은 ᄉᆞ만이 부인 ᄒᆞ는 말이로뒈, "서룬 낭군님아 낭군님아. 이아 굴미굴산 신산곳 도올라강 푸나무라도 허여당 장터에 [요령-] 나가 풀아근, [-요령] 이 애기덜 그날 그날 입에 풀칠이나 허영 사는 게 어떵 허오리까?" ᄉᆞ만이는 [요령-] 그 말을 들어놓고, 뒷날 아첨 [-요령] 날이 세여가난 굴미굴산 신산곳 도올라가근, 푸나무를 ᄒᆞᆫ 짐 [요령] 허여다가 장터에 나가, 푸나무 ᄒᆞᆫ 짐을 풀아놓고~, 이아 돈 [요령] 두 돈 오 푼을 받앙~ 집으로 돌아사근 오젠 허단 보난, 이아 전빵(廛房)엔 바려보난 지레 맞인 마세조총을 풀앐이난, ᄉᆞ만이가 하는 말이로뒈, [요령-] "아이고 이것은 뭣을 [-요령] 허는 겁니껜?" 허난,

장서꾼이 허는 말이로뒈, "이거를 창 가면은 집이 가졍 강, 이아 굴미굴산 도올라가면 오를 목엔 데각록도 쏘아가곡, 네릴 목엔 [요령] 소각록도 쏘아가난, 집안간에 [요령] 부제팔명을 ᄒᆞᆯ 수가 잇젠." 허난, "아이고 그리 허면 이것은 얼마나 가는 겁니껜?" 허난, 이아 [요령-] "두 돈 오 푼만 주민 풀아주멘." 허난 ᄉᆞ만이는, [-요령] 나무 풀아논 돈을 두 돈 오 푼 주고 이아 지레 맞은 마세조총을 둘러메연, 집으로 들어오라가난~, [요령] ᄉᆞ만

이 부인 허는 말이로뒈, “아이고 서룬 낭군님아 낭군님아. [요령] 그것은 뭣을 둘러메여 오는 겁네까? 아기덜은 베가 고파 울어가는디, 쏠 혼 뒛박도 아니 산 오랎수가?” [요령] “이아 서룬 가숙아 아뭇소리도 허지 말아근 앞집이 강 장례(長利) 빗지곡, [요령] 뒷집이 강 원에(元利) 빗져당 네일날 내가 굴미굴산 신산곳 도올라 갈 테니, 나 먹을 밥을 정심밥을 출려노렌.” 허난 ᄉᆞ만이 부인은 곧는 대로, 앞집이 강~, [요령] 장례 빗지곡 뒷집이 강 원에 빗져다가 ᄉᆞ만이 정심 먹을 밥을 출려놓아 약도리에 짊어지언, ᄉᆞ만이는 뒷날 아첨 천앙ᄃᆞᆨ은 [요령-] 목을 들러 니기방방 울어간다 지앙ᄃᆞᆨ은 [-요령] 촐릴 들러근 니기방방 울어가난, ᄉᆞ만이는 [요령] 지레 맞은 마세조총을 둘러메곡, 굴미굴산~ [요령-] 신산곳을 도올라가는 것이, [-요령] 어떵 허난 벡보 베낏딜로, “ᄉᆞ만아~, [요령-] ᄉᆞ만아 ᄉᆞ만아.” 불르는디, [-요령] 부르는 소리가 나난 ᄉᆞ만이는,

‘어떵 허난 이 근처에 집도 없곡 아무것도 없는디 어찌허여 나를 불르는 자가 잇는고?’ 허여, ᄉᆞ만이는 ᄉᆞ만이 불르는 딜로 촞아가고 보니, [요령-] 철년 말년 묵은 골총이로구나~. [-요령] 벡년조상님이 앚아둠서 허는 말이로뒈, [요령] ᄉᆞ만이를 불러가는구나. ᄉᆞ만이는 “아이고 조상님아 어떵 허난 나를 불릅디가?” “너 이놈아 들으라.” 허니, “너가 사냥을 즐겨허여지어 오널 사냥을 나온덴 허난, 나가 너를 촞앗노라. 나는 열다섯 십오 세가 뒈영 과거를 보아 과거 낙방을 뒈여지난, ᄒᆞ를날은 사냥을 나오랏다가 호렝이 입에 물려가난, 뻬 간 곳도 없어지고 [요령] 솔 간 곳도 없어지고, 어느 누게 물 혼 직 주는 자가 없어지고, 이아 [요령] 초ᄒᆞ를 보름 허여주는 자가 없어지난, 너가 사냥을 좋아허여 사냥을 나온덴 허길레 나를 너를 불러놓고, 나를 너이 집이 모상 강 안고팡에 모사놓고, 초ᄒᆞ를 보름을 [요령-] 허여 주면~, [-요령] 너는 오를 목에 데각록도 쏩게 허여주마 네릴 목엔 소각록도 쏩게 헤여주멘.” 허난,

아이고 ᄉᆞ만이가 잇다 ᄒᆞ는 말이로뒈, “아이고 조상님아 조상님아 나허고 테운 조상님이건 요레 들어옵서.” 약도리를 벌리난~, [요령-] 뗑뗑구르르 뗑뗑구르르, [-요령] 아이고 들어오는 벡년조상을 모사 앚언 집으로 들어오난 ᄉᆞ만이 부인 허는 말이로뒈, “아이고 서룬 낭군님아 어떵 허난 이아 오널은 굴미굴산 신산곳 도올라 가지 아니연, 어떵 허연 집으로 돌아옵디가?” [요령] “이아 서룬 가숙아 아뭇 말도 말곡, 열두폭 홋단치말 입엉 오라근 조상을 받으라.” ᄉᆞ만이 부인님은~, [요령] 열두 폭 홋단치마 입언 나오란 치마통을 벌겨놓고, “조상님아 우리허고 테운 조상이건 요레 들어옵센.” 벌기난,

뗑뗑구르르 [요령] 치마통드레 들어사난, 안고팡에 간 자리를 좌정시겨 놓고, [요령] 초ᄒᆞ를 보름을 잘 허여 지내여 가는구나. ᄉᆞ만이는 그때부떠 이아 굴미굴산 신산곳 도올라

가면, [요령] 오를 목에 데각록도 쏘아간다 네릴 목엔 소각록도 쏘아다가 앞집인 앞다리 뒷집이는 뒷다리 [요령] 허멍 허단 보난, 삽시간으로 부제팔명이 뒈여지는구나. [요령] ᄒᆞ를날은 ᄉᆞ만이는 사냥을 나갓는데 ᄉᆞ만이 부인은 정짓간에서 불 솜단, 고팡간에서 벡년조상이~, ᄀᆞ만이 앚아 생각허난 모릿날 ᄉᆞ오시가 뒈면, 저싱 염레왕 췌판관에 몸을 받은 삼체서 시관장님이, 인간에 ᄉᆞ만이를 잡으레 온덴 허난,

벡년조상님은 '아따 이거 ᄉᆞ만이를 잡아가불면, 내가 누구안테 물을 얻어먹을 수가 잇겟는가?' ᄉᆞ만이를 살리젠 허여, "ᄉᆞ만아 [요령-] ᄉᆞ만아 ᄉᆞ만아~." [-요령] 아이고 허여가난 ᄉᆞ만이 부인은 불 솜단, "아이고 이 조상 우리 집이 오란 잘 먹곡 잘 입곡~, 초ᄒᆞ를 보름 잘 허여가난 노실허엿구나~." 불 솜단 부지뗑이 가졍 간 [요령]눈구녁을 꿰여다가 뒷밧디레 핑 허게 들러데껴부난, [요령-] 뗑뗑구르르~, [-요령] 아이고 벡년조상은 뒷밧디서 "ᄉᆞ만아 ᄉᆞ만아." [요령] 불르단 보난, 야 ᄉᆞ만이는 그 날은 굴미굴산 신산곳 도올라가도, 노리도 하나 못 마치곡 [요령] 깍록도 못 마치고 날은 어둑아지난 집으로 네려오는디, 어떵 허난 뒷밧디서 ᄉᆞ만이 부르는 소리가 나는구나.

가고 보니 벡년조상이 나오란, "ᄉᆞ만아 ᄉᆞ만아." 허엿이난, [요령] "아이고 조상님아 조상님아 어떵 허연 이디 나옵디가?" "너 이놈아 말 말아라. 야 너 모릿날 ᄉᆞ오시가 뒈민, 저싱 염레왕 췌판관에 몸을 받은 삼체서 시관장이, 너를 잡으레 온덴 허니, [요령] 내가 너를 잡아 가불면 물은 내가 누구안테 얻어먹을 수가 잇겟느냐? 너를 살리젠 허연 너를 불럿노렌" 허난, "아이고 너네 각신, 이야~ 불 솜단 부지뗑이 가젼 오란 나보고 노실허엿젠 허연, 눈구녁을 꿰여단 [요령] 뒷밧디레 던져부난 내가 여기 나왓노라 에-." "아이고 조상님아 조상님아~. [요령] 과연 전 잘못허엿습네다. 아이고 여저 숭을 볼 수가 잇습네까? 여자라 헌 건 오름드레 돌아앚앙 오줌 싸민, 치맛깍 젖는 줄 모른 건 여자이 ᄆᆞ음 아닙네까? 에헤-. [요령] 하다 숭볼 수 없습네다." [요령] 허연 아이고 벡년조상이 허는 말이로뒈 "ᄉᆞ만아 ᄉᆞ만아. 날라근엥에 잇어난 자리로 갖다근엥에 모사두곡, 널랑 ᄒᆞᆫ저 집으로 강~, [요령] 안느로는 이아 ᄉᆞ당클을 메여놓고 기리야기 양상기 버리줄을 메여놓곡 [요령] 대통게 소통게를 걸어놓고, 이야 널랑근 [요령] 타는 ᄆᆞᆯ 밧갈쉐를 대령허여 놓고 질삼베 웨삼베 꼬리비단 능화지를 대령허여 놓고, [요령] 대벽미 주석 삼동이 ᄎᆞᆯ려놓곡 각서출물을 초하정 ᄎᆞᆯ려놓아근에, 테역단풍 좋은 딜로 원앙삼이 물 ᄀᆞ으로 강 높은 펭풍을 둘러치어놓고 높은 제상 싱거놓앙, 각서출물 올려놓앙~, [요령] 펭풍 뒤에랑 이아 ᄉᆞ만이 지방을 썽 부쪄 두곡, 널랑 벡보 베낏딜로 강 업데허영 잇이면, 모릿날 ᄉᆞ오시가 뒈면 알 도레가 잇이리라." [요령] ᄉᆞ만이는 집으로 들어오란 보니 [요령] ᄉᆞ만이 부인님은, 아이고

벌써 안으로는 ᄉᆞ당클을 메여놓고~, 베낏깃딜론 큰 대를 세와놓고 삼버리줄 메여놓고 아이고 시왕당클 메여놓안~, [요령] 굿을 헤여가는구나.

아이고 ᄉᆞ만이가 들어오난 "서룬 낭군님아 낭군님아. ᄒᆞᆫ저 타는 ᄆᆞᆯ [요령] 밧갈쉐예 이거 다 대령허여 놓앗이난 실러근엥에 테역단풍 좋은 딜로 갑서. 원앙삼에 물 ᄀᆞ으로 강 [요령] 높은 펭풍 높은 제상 둘러치어 놓앙, 각서출물 초하정 위벌이곡 신벌이어 놓앙 지방을 썽 펭풍 뒤터레 부쪄동, 벡보 베꼇딜로 강 업데허영 잇입서~." [요령] ᄉᆞ만이는 ᄀᆞᆫ는 대로 다 허연 ᄎᆞᆯ려놓아 가근, 아이고 다 높은 평풍을 둘러치여 놓고 각서출물 초하정 위벌이고 신벌여 놓앙, 지방을 썬 평풍 뒤터레 간 톡 부쪄두고, 벡보 베낏딜로 간~, [요령-] 업데연 잇이난, [-요령] 모릿날 ᄉᆞ오시가 뒈여가난~, [요령] 저싱 염레왕 췌판관에 몸을 받은 삼사자 시관장님이, 인간더레 소곡소곡 네려산다. [요령] 아이고 앞이 오는 ᄒᆞᆫ 사자님이 ᄒᆞ는 말이로뒈, "아이고 내가 신발이 다 떨어지연 걸어갈 수가 없어지는구나."

가운디 오는 사자님이 말을 ᄒᆞ뒈 "나는 베가 고파 걸어갈 수가 없어진다." 조름에 오는 ᄒᆞᆫ 사자님이 말을 ᄒᆞ뒈, "어들로 [요령-] 상촉네가 건득건득 나옵네다~. [요령] 우리 상촉네 나는 딜로 ᄎᆞᆺ아가보면 알 도레가 잇어질 듯허옵네다." "어서 걸랑 기영 허자." 아이고 상촉네를 마치며 알르레 소곡소곡 네려서단 보난, 원앙삼이 물 ᄀᆞ으로~, 불이 베롱허게 싸 잇이난, [요령] 삼체서 시관장님은 들어사고 보니, 각서출물을 초하정 위벌이고 신벌여 놓아, 앗이난, 기아니 불구염치로 들어산, 베고픈 처서님은 [요령] 밥을 먹어간다. 떡 그린 처서님은 떡을 먹어간다. 술 그린 처서님은 술을 먹어가는구나. 신발 없는 사자님은 신발을 얻어 신어가는구나. 베가 봉그랑케 먹어놓고, [요령] 일어사근 나오젠 허연 벡, 펭풍 뒤트레 확 바련 보난, [요령] ᄉᆞ만이 지방을 썬 부쪗구나에~. [요령]

한 처서님이 잇단 허는 말이로뒈, "아차 이거 우리가 ᄉᆞ만이 음식을 ᄎᆞᆯ려 논 거, 다 얻어먹곡, ᄉᆞ만이 신발 ᄎᆞᆯ려논 걸 얻어 신엇이니, 요것을 어찌 허민 좋겟는가~?" [요령] ᄒᆞᆫ 처서님이 잇다 하는 말이로뒈, "아이고 기거들랑 우리 비명에도 천명 아닙네까 비명에도~ [요령][불청], 그리 말고 붉은 헌페 찍어진 곽곽이로 대령허영 가는 게 어떵 하오리까?" "어서 기거들랑 [요령] ᄒᆞᆫ 처서님이랑 ᄆᆞᆫ여 저싱을 들어가, 췌판관에 강 [요령] 문서첵을 갖다 놓고, 주년국 소서만이랑, ᄉᆞ만 삼철년을 [요령-] 살당 오렝 허영 ᄌᆞ아두고~, [-요령] 붉은 헌페 찍어진 곽곽이라근~, [요령] ᄀᆞᆫ 서른이 ᄉᆞ고전명으로 달아두곡 오렌."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허오리다~." 아이고 문서첵을 갖다 놓고 다 달아두고 오란, [요령-] 곽곽이를 잡아앚언 저싱을 들어간 [-요령] 염라대왕님안테 간 바찌난, 염라대왕 허는 말이로뒈, "너 이놈덜아 어찌해서 주년국 소서만이를 잡아오렌 허난, 곽곽이를 데령허엿느냐~.

너 이놈덜 인간에 가가지고 ᄉᆞ만이안티 간 눼물을 얻어먹엇구나.” [요령] 삼체서를 죽일 팔로 허여가난,

염레왕에 몸받은 사자님이 잇다 하는 말이, “아이고 [요령-] 염레왕님아 염레왕님아-. [-요령] 죽일 자도~ [요령] 밥을 멕이곡, 죽일 자도 담베를 흔 데 피왕 죽이는 법 아닙네까? 우리 그리 말아근 문세첵을 갖다 놓고 잘 조사허여방 죽이는 게 어떵 허오리까?” “어서 게거들랑 문세첵을 갖어오라.” [요령-] 문세첵을 갖다 노니, [-요령] 초장 걷어 [불청] 지엿구나. [요령] 그때야 염레왕 허는 말이로뒈, “아차 이거 내가 몽롱을 허엿구나. [요령] ᄁᆞ딱 허엿이민 조컨 체서를 다 죽일 뻔 허엿구나에-.” [요령] 아이고 이제는 [요령] “어서 게건 주년국 소서만이랑~, [요령] 서경 너른 땅 들어사근엥에-, 야 ᄆᆞᆯ ᄆᆞ시덜 다 돌아뎅기멍 돌보곡~, [요령] 삼멩감으로 들어사근엥에, 이야 칠뤌 열나흘날 벡중사리 돌아오거들랑, 글로 상 받아먹기 설련을 허라.” [요령] “그걸랑 기영 허오리다.” ᄉᆞ만이는, 드릇멩감으로 들어상, [요령] 칠월 열나흘날 돌아오면 벡중사리허영 글로 상 받아먹기 설련 허엿습네다.

이아 [요령-] 인간에 강림사자는 [-요령] “널라근엥에 인간에, 강림사자로 뎅기렌.”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하오리다.” 그 법으로~, [요령] 우리 인간 중생덜~, 집안간으로 액이 떨어지곡 모든 액년이 불헹허여지면, 이아 천오방액상을 출려놓앙 천오도액을 막아줍센 허영, [요령] 원정축원 올리는 법 아닙네까. [요령] 이아 엿날이라 엿적에 주년국땅 소서만이가~, 출린 대로 액상을 출리젱 홀지라도, 어찌 출릴 수가 잇십네까에-. [요령] 이아 대액이랑 못 막을지라도 소액으로라도 막아 주옵소서.

- 핵심어 : ᄉᆞ만이, 굴미굴산 신산곶, 사냥, 푸나무, 백년조상, 호렝이, 정심밥, 저싱염레왕, 처서님, 강림사자, 드릇멩감

W_M_006 이공본풀이

2006년 8월 14일, 남원읍 태흥리 강금춘씨 댁, 강정식 조사.
강치옥(여, 1938년생, 제주시 용담동)

남원읍 태흥리 강금춘 심방 댁의 큰굿(신굿)에서 구연한 것이다.

엿날 옛적 원진국 대감님 삽디다.
천하거부 잘 살앙
논전답 유기제물 좋와지곡
종하님 거느령 살아도
어서 이삼십이 근당허여도
아기 없어 호호 근심 헙디다.
짐진국 대감님도
살아근 어서 가난허고 서난허여
질이공서 삽디다.
ᄒᆞ를날은 동개남 상주절
대서중이 원진국이 대감님네
집이라 들어사멍
나사멍 "소승은 절이 뵙니다."
"어느 절간 법당이서 옵디가?"
"동개남은 상주절에
대서중이 뒙네다."
"어찌 허여 이 국에 근당허오리까?"
"우리 당은 헌 당도 떨어지고
헌 절도 떨어지난 권제삼문 받아다근
헌 당 헌 절 수리허여 멩 엇는 자
멩을 주저 복 엇는 자
복을 주저 ᄌᆞ식 생불 엇는 자 ᄌᆞ식 생불 환생도
시겨주저 권제를 받으레 네렷수덴." 허난

어서 그 원진국이
대감님이 권제 내여준다.
대서중 말을 허뭬
원진국 데감님이 “어서 우리 부베간 ᄉᆞ주팔자나 고남을 허여봅서.”
“어서 걸랑 기영 헙서.”
원진국이 대감님이 ᄉᆞ주팔저
고남을 헌 것이 어서 “ᄌᆞ식 엇어 호호 근심을 허렌 허엿수다.
그러거든
우리 절간
법당에 영급이 좋고
수덕이 좋으난
원진국 대감님아
우리 절간 법당에 오랑근에
원수룩이나 드려 봅서덜.”
“어찌 출령 가옵네까?”
“송낙지도 구만 장
가삿베 구만 장
대벡미도 일천 석
소벡미도 일천 석이여
어서나 마흔ᄋᆞ덥 상청ᄃᆞ리랑
고비첩첩 개영 놓아근
우리 절간 법당
벡근을 준준이 체와당근에
수룩이나 드려 봅서.”
“어서 기영 헙서.” 게거든 원진국은 그 말을 대서중이
ᄀᆞᆯ아두언 가난
[말] 원진국 대감님은 짐진국 대감님네
집에 가근
[음영] “아이고 짐진국 대감님아 나영 ᄀᆞ찌 동개남 상주절에 강 원수룩 드령
짐진국이 아덜을 나나

나가 아덜을 나나
어서 짐진국이
똘을 나나 나가 아덜을 나나
우리 양사돈 무으기가 어찌 허오리까?"
"어서 걸랑 기영 협서만은
아이고 짐진국 대감님은 가난허고 서난허난
아이고 어떵 허영 어서 수룩체가 엇이니
절간 법당이
어찌 강 수룩을 드립니까?" 아이고 원진국 대감님 허는 말이 "짐진국아 게거들랑 나 출륜 짐 보렌.
어서나 ᄀᆞ찌 가근
우리 절간 법당 강 수룩 드령 아덜을 나나 똘을 나나
양사돈을 무으기가 어찌 허겟느냐?"
"어서 걸랑 기영 협서."
게거들랑
원진국 데감님은
송낙지도 출린다.
가삿베도 출려논다.
대벡미여 소벡미여 어서 출령 벡근을 체와간다.
마흔ᄋᆞ덥 상청ᄃᆞ리 고비첩첩 개여놓아 간다.
출려나 놓고
[음영] 짐진국 대감님은 가난허고 서난허난 수룩체가 엇이난 ᄒᆞ르 삼 끼니 먹을 거
ᄒᆞᆫ 때를 줄엿구나.
정성 마음 정성 허영
동개남은 상주절
소곡소곡 올라갓구나.
절간 법당 간 수룩을 드린 것이 원진국 대감님은
어서 벡 근을 못네 차고
짐진국 대감님은 가난허곡 서난허여도
ᄆᆞ음 정성을 잘 허난

벡 근 준준 체와간다.
그게 어서 원진국이여 짐진국이여 원수룩을 드련 베려보난 원진국은
뚤을 소생허고
짐진국은 아덜을 소생허엿구나 이 애기덜
훈 설 두 설 세 설이 나가난
“옵서 이 아기 이름 성명이나 지와보게.”
“어서 걸랑 기영 헙서.”
원진국은 이름을 지우는 게
뚤아기 원강아미로 일름을 지왓구나 짐진국
사라데 대왕으로
일름을 지왓구나.
열다섯 십오 세가
어서 넘어가난
[음영] 짐진국 대감님은 아이고 이거 어릴 때부떠 구덕혼서 허연 나둔 것이 원진국에 대감님네신디 가근
우리 양사돈 허젱 골레 갓다근
말 못허연 가난허난
집으로 돌아오곡 따시 가도
못네 골아간다.
[말] 훈 번 두 번 가도 못 골안
세 번체 가도 곧지 못허연
따시 돌아가가난 원진국 부인
어서 원강아미 말을 허뒈
[음영] “아이고 아바님아 원진국 대감님은 우리 집이 무신 말 골으레 오랏단
말 못허연 가는 게 미신 일입네까?”
[말] 그때야 원진국이 허는 말이 “아이고 원강아미야
우리덜
절간 법당에 수룩 드령 날 때에
[음영] 아이고 나가 아덜을 나나 뚤을 나나 양사돈 무으기로
구덕혼서 허여노난

[음영] 오랑 말 곧젱 허당 곧지 못허연 너미 가난허게 살아부난
그대로 값젠." 헌 게
그때야 원강아미 그 말 들언
[음영] "아이고 아바님아 게거들랑 허급을 허여 붑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짐진국 대감신디
양사돈을 무어근 허급을 허여간다.
[음영] 사라도령허고 원강아미허고 부베간을 삼앗구나 어서 혼연풍덕을 허난
그때야 원진국
대감님이
어서 살아간 게
[음영] 아기덜 원강아미 어서 구덕혼사허난 이 애기덜 어서 부베간 삼안
살단 보난
어서 아기는 젓덕ᄀᆞ찌 베여놓고
[음영] 사라대왕은 하늘옥항에서
꼿감관 메기저
잡히레 오라간다.
ᄒᆞ를날은 원강아미
[음영] 물허벅 젼 물질허레 값이난
"하늘옥항에서 온 꼿감관지기여
아이고 이 ᄆᆞ을 사라대왕 사는 디가 어느 만쭉이나 가민
가집네까?" 허난
원강아미 그대야
[음영] 거짓말 허연 "요 제 넘곡 저 제
넘엉 갑서.
가집니다덜."
어서 속여 두고
물 질언 완 제게 비와두고
"사라도령 앞이 에고 곱아붑서 ᄀᆞᆺ사 [불청]
하늘옥황에서

꼿감관 메기저 잡히레 오랐수다.
어서나 곱아붑센.” 허난
“아이고 그거야 무신 말이러냐?
아이고 이거 잡히레 오민 홀 수 엇이 마기무간 아니로…….
어서 꼿감관을 메기저
“가야 뒌덴.” 허난
그때야 “사라대왕님 아이고 게거들랑
나도 ᄀᆞ찌 돌앙 글읍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음영] 원강아미야 사라대왕ᄀᆞ찌 가켄 허난 돌아앚엉 가는 것이
어서 저싱더레
서천꼿밧드레
[음영] 올라가젠 허난 발은 콩ᄀᆞ슬ᄀᆞ찌 붓고 아기는 쳇ᄃᆞᆨᄀᆞ찌 베여노난
원강아미
걸음을 못네 걸어간다.
헤는 서산열락 지도록
[음영] 걸어바도 발은 콩ᄀᆞ슬ᄀᆞ찌 뿔언 걷질 못허여 가난
가단 보난
[음영] 아이고 어욱페기 하나 잇이난 “옵서.
우리 저 어욱페기
으지허영
이 밤이나 세영 가게.”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어욱페기 으지허연
밤을 세단 보난
초경ᄃᆞᆨ이 울어나 가는구나.
“아이고 저 ᄃᆞᆨ은 어디서 우는 ᄃᆞᆨ소립네까?”
“철년장제집이서
우는 ᄃᆞᆨᄉᆞ리가 뒈여진다.”
ᄒᆞ끔 잇이난 이경ᄃᆞᆨ이 울어나 가는구나.

“아이고 저 둑은 어디서
우는 둑소리가
뭽네까?”“말년장제집이서
우는 둑소리가 뭬여진다.”
어서 붉아가난
따시 둑소리가
나가는 게
“아고 이 둑은 어디서 우는 소립네까?”
“철년장제
말년장제집이서
우는 둑소리가 뭬여진다.”
어서 그데야
[음영] 원강아미가 허는 말이 “게거들랑 아이고 남인 낭군님아
날라근
철년장제집이 가근
종으로 풀아동
어서 갑서.
[말] 아무리 허여도 걸음을 못 걸없이난 저 집이 강 철년장제집이 강 종으로 풉센.”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사라대왕 원강아미
둘아앚언 철년장제집이 간
[음영] 먼 올레 간 사둠서
“아이고 이 종 삽서 이 종 삽서.”
어서 굴아가난
철년장제집이서 허는 말이
“어서 큰똘애기 나고 보라.”
[음영] 나고 베려보난 “아이고 아바님아 그 종 사지 맙서.
그 종 사민
우리 집이 망헐 종입네다.”
“셋똘애기 나고 보라.”

셋똘애기 나고 보난
“아이고 아바님아 그 종 사지 맙서.
그 종 사민 우리 집이 씨멸족 허는 종이 뒈난
사지 맙센.” 허난
“족은똘애기 나고 보라덜.”
“어서 그 종 삽서.
아버님아 그 종 상 나두민
아바님 심심허곡 야심헐 땐
훈번 장난이라도 헐 만허난 어서 삽센.” 헌 게
“어서 걸랑 기영 허라덜.”
종을 사젠 허난
“얼마나 받겟느냐?”
“어서 은 벡 냥 돈 벡 냥도
어서나 줍서.”
[음영] “어떵 허난 경 하영 도렌 허엾이녠.” 골은 게
“베 안네 든 애긴
아덜인지 똘인지
몰르난
어서 아기 헤연
은 벡 냥 돈 벡 냥
어서 줍센.” 허난
은 벡 냥 돈 벡 냥
주어근 그 종을 산다.
어서 게거들랑
[음영] 원강아미가 말을 허뒈 “종광 한집이 이별을 허젠 허민
맛상 출령 주어사
어서 이별을 헙니다.”
“어서 걸랑 기영 허라.
느네 근쳇 법대로
어서 허렌.” 허연 맞상을 출려다 주난 어서 사라도령

어서나 먹어가고
[음영] 원강아민 남인 낭군이영 이별허젠 허난 목 알르레
밥이 아니 ᄂᆞ려가는구나.
어서 사라대왕
[음영] 그 밥을 다 먹언 어서 나가젠 허난 이별허젠 허난
“종광 한집이
이별을 허젱 허민
[말] 먼 올레 나강 전송허여사 가는 법입네다.”
“게거든 기영 헙서.
당신네 근쳇 법대로 어서 헙센.” 허난 어서 먼 올레에 사라대왕
나고 가는구나.
[음영] 원강아미도 그 조름에 똘라가근 “남인 낭군님아 아이고 벤 애긴 나민
이름은 뭐옌 지읍니까덜?”
“어서 베인 아긴
아덜랑 낳거들랑 할락국이로 일름 성명 지우곡
똘랑 낳거들랑
할락데기 일름을 지와불라.”
“어서 걸랑 기영 헙서.”
어서 그 말 ᄀᆞᆯ아두고
저레 가가난
[말] 원강아미 남인 낭군님 바리지 못헐 때ᄁᆞ장
어서 전송을 허여두고
아이고 이젠 집으로 돌어완 방 안네 앚이난
ᄒᆞ를 이틀 사는 것이도
어서 철년장제가
밤 야삼경 짚으난
문을 들그렉기 ᄋᆞᆯ안 들어오라 가난
“아이고 이 근쳇 법은
어떵 허는지 몰라도
우리 근쳇 법이사

베인 애기 나근에
석 덜 열흘 벡일 뒈여근
몸조리허여사
어서 허급을 헙니덴.” 허난
“어서 게건 기영 허라.”
원강아미 베인 애기 난
석 둘 열흘 벡일 몸조리허난
철년장제가
다시 문 열안 어서 들어오라가난 어서 저 원강아미
철년장제신디 “아이고 이 근쳇 법은 어떵 허는지 몰라도
우리 근쳇 법이사
[음영] 이 아기 낭 훈 설 두 설 ᄋᆞ섯 다섯 설 뒈영 막뎅이 ᄆᆞᆯ 탕 금마답에
노념을 허여사
몸 허락을 헙니다.”
[음영] “어서 게거들랑 당신네 근쳇 법대로 어서 허라.”
“어서나 기영 헙센 허라.”
[음영] 아이고 다섯 설이 뒈여근 막뎅이 ᄆᆞᆯ 탄 금마답에 노념을 허여가난
철년장제가
다시 문 ᄋᆞᆯ아근
들어오젠 허여가난
[음영] “아이고 이 애기 열다섯 십오 세 뒈영 어서
드릇 노변
어서 농서 농업허여사
[음영] 몸 허락헙니덴.” 허난
“어서 게건 당신네 근쳇
법대로 어서 허라.”
[음영] “어서 경 헙서.” 이 아기 열다섯 십오 세가 뒈연
어서 ᄆᆞᆯ잠데 거느리고
어서 후망 농데 거느려 세경땅 농사 농업 허여근에
[음영] 뒐 때가 뒈여가난 ‘철년장제가 오민 나도 이번은 오민

미신 말을 굴아근 어서 보네콘.' 헌 게
철년장제
큰부인신디 가근
[음영] "아이고 따신 오민 무신 말을 그짓말 허영 보넵니까?"
"게거들랑
물마깨 갖다당 머리맛디 놓앗다근
[음영] 다시 들엉 문 열앙 들어가건
어서 누게 헤여근
물마깨로 발뎅이 뭇아 불렌."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헙서."
[음영] 어서 원강아미 물마깬 덩드렁마깨 머리맛디
찬 누엇단에
[음영] 철년장제가 문 열안 들어가난 아이고 요 개 들어왐덴 간
발뎅이 간 뭇아 부난
어서 죽일 팔로
들러나 가는구나.
죽이젠 허여가난
족은똘애기가 허는 말이
[음영] "아이고 그 종 죽어불민 우리 집 은 벡 냥 논
돈 벡 냥
망헙네다.
죽이지 말아근
뒌 벌역이나 시겨 붑서."
"어서 무슨 벌역을 시기느니?"
철년장제 똘애기가
[음영] "아이고 아바님아 어서 게거들랑
원강아미 어멍이랑
어서
ᄉᆞ 실을 미녕으로 메 불로
짜는 게

일천 동이 어서 뻬올리렌 허곡
어서 할락궁이랑
솟기를 뽐으데
일천 동이 ᄁᆞ올리렌
어서나 ᄀᆞᆯ읍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어서 원강아미
실을 뻬둬
일천 동이 뻬올리곡
어서 할락궁인
솟끼를 꼬둬 일천 동이 꼬아 올리곡
[음영] 어서 누웡 졸당 보아도 문딱 꼬아지곡
영 허는 게
다 이제 허여가난
“아이고 요것도 아니 뭴로구나.” 영 허는 게
“어서 게거들랑
할락궁이라근
어서 세경 너른 땅 강
좁씨 닷 말 닷 둬
[말] 문딱 삐영 ᄇᆞᆯ려동 어서 오렝 헙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어 원강아미
어서 실을 뻬는데
[음영] 일천 동이 문딱 뻬올리곡
짜올리곡 허여가고
어서 할락궁인
어서 좁씨 닷 말 닷 둬
[말] 어서 주워근 벌써 세경 너른 땅 강
문딱 삐여동 ᄇᆞᆯ려두엉
어서 오렌.” 허난

[음영] 할락궁이 좁씨 닷 말 닷 뒈 앗안 간 어서
세경 너른 땅 간
문딱 삐여둰
불려두언 어서 오난도
“어서라 멜망 날에 좁씨 삐엿이난
흔 방울도 떨어지지 말앙 문딱 강 줏어앚엉 어서 오렝 헙서.”
“어서 기영 허라.” 저 할락궁이
좁씨 닷 말 닷 뒈
문딱 삔 디 가근
어서 줏엉 오젠 간 베려 보난
개염지덜 겨을살이 살저
좁씨 물어앚언
땅 속에 들어가젠
모드레기 모두완 나둿이난
문딱 줏어담안
꼬까막데 저울대로
저울연 보난 좁씨 흔 방울이 떨어지엿구나.
‘아이고 좁씨 흔 방울
어디 강 줏이콘.’
허단 베려 보난
잔 개염지 흔 무리가
[음영] 좁씨 흔 방울 물어근
땅 속에 들어강
겨울살이 살젠
물어앚언 오는 게 “요것 따문
[음영] 아이고 너 떼문에 나
따시 흔 번 걸음 걸엇젠.”
개염지 존등메기 바락 불라부난
삼동멕이 서룬 장기 서립허엿구나.
[음영] 그때야 조씨 흔 방울 줏어놓안 집이 완 저울이난 꼬까막대 저울대로

벡 근 준준이 차게 저울엿구나.
뒌 벌역을 시겨도
문딱 허여가는 것이
“어떵 허코?”
아이고 그때야 철년장젠
비는 족족 오라가고
할락궁이
[음영] “아이고 어머님아 콩이나
흔 줌 볶아줍서.”
[음영] “아이고 우리ᄀᆞ찌 종살이 살멍 어서 강
어디 강근
콩을 구허여다근
[말] 느 볶아줄 콩이 어디 잇이느니?”
“아바님아
어머님아
요만 못헌 집이도
겜으로사 나 볶아줄 콩이사 흔 줌 봉가집네다.
콩 눌어난 디 가근
콩깍지나 떨엉 봅서.
나 볶아줄 콩이나 흔 적 강 줏어다근
볶아줍센.” 영 ᄀᆞᆯ으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어서 콩 눌어난 디 간
[음영] 원강아미 콩각지 문딱 털단 베려보난
콩 흔 작뒈 줏어근
솟디 놓안
달달 볶앖이난
[음영] 할락궁이 “아이고 저 올레로 ᄃᆞᆯ려들멍 어머님아 어디서
저 올레 누게 완 불렶수다.
얼른 강

어서 바려봅서.”
원강아미
올레에 나가근 트멍에 어서 남죽 벤수기
문딱 곱져두고
[음영] “아이고 어머님아 콩 캂수다 제게 왕 어서 콩 젓입서.”
원강아미
들어오란 베려보난
[음영] 남죽이여 베수기여 문딱 곱져부난
아무것도 엇어가난
[음영] “아이고 어머님아 콩이나 젓읍서 손으로 훼훼 젓읍서.”
어서 원강아미
손으로 훼훼 젓단 베려보난
[음영] 어서 할락궁이 손 홀모개기 심엉 꼭기 누뚤멍 “아이고 어머님아 바른 대로 굴읍서. 우리 아바님이
어디 갓수가?”
[음영] “아이고 느네 아방 철년장제여.” “우리 철년장제 ᄀᆞ뜨민
우리덜
무신 때문에 뒌 벌역이나 시깁니까덜.
바른 대로 어서 굴읍서.”
“아이고 이 손을 노라. 어서 골아주마.”
홀목을 내부난
원강아미 말을 허뒈
“느네 성진 땅은 짐진국이여.
웨진 땅은
원진국이여.
느네 아바님
[음영] 아이고 하늘옥황 꼿감관 메기난
사라데왕은
어서나 가고
나는 이거 원강아민디

어서 이 집이 종으로 풀아두언
어서나 갓덴.” 허난
“아이고 게거들랑
아이고 어머님아 게거들랑
모멀돌레 두 덩어리만 헤여 줍서.”
[음영] “아이고 우리 종살이 살멍 어디 강
모멀 허여당
어서 모멀돌레 멘드느니?”
“어서 모멀 눌어난 디 가근
모멀 코지나
들렁 베려보민
나 볶아줄 거 나 이저 모멀펌벅 허여 줄 거
ᄒᆞᆫ 작박 줏어집니다.”
“어서 기영 허라.”
모멀 눌어난 디 간
ᄆᆞᆫ딱 모멀 코지 들르단 베려보난
ᄒᆞᆫ 작박을 봉갓구나.
ᄀᆞ레에 놘 박박허게 ᄀᆞᆯ아근
모멀펌벅 두 덩어리 멘들앗구나.
두 덩어리 멘들아지난
먹지는 아니 허고
모멀펌벅 두 덩어리
쌍 앚이고
저 올레레 나가근
[음영] “아이고 어머님아 죽어질지라도
나 간 곳을 ᄀᆞᆫ지 맙서.”
“어서 기영 허라.”
할락궁이 모멀펌벅 두 덩어리 짊어지고
저 올레 나간다.
철리를 뛰엿구나.

철리동이 내여놓아
들이 쿵쿵 내어 쿵쿵
주꺼나 가는구나.
어서 모멀펌벅 흔 덩어리 앚다단
철리동이신드레
훅 허게 던지멍
“아이고 느도 종이여 나도 종이난
[말] 아이고 날 물레 오지 말앙 요 모멀펌벅이나
먹어근
어서나 돌아가라.”
[음영] 어서 이제 철리동이
모멀펌벅 펌벅 먹어놓고 물을 먹단 보난
말리를 뛰엿구나.
말리동이 내여놓안
드리 쿵쿵 내여 쿵쿵
주꺼나 가가난
어서 할락궁이
[음영] 모멀펌벅 흔 덩어리 따시 말리동이신디레 훅 허케 던지멍 “느도 종이여 나도 종이여 늘랑 요 모멀펌벅이나
먹어근
집으로 돌아가라.”
어서 기영 말리동이
모멀펌벅 먹어놓고
물을 먹단 보난
어서 가다근 어서 할락궁이
발등 칠 물 넘어간다.
즌등 친 물 넘어간다.
목 친 물 넘어간다.
말리를 넘어가는구나.
하늘옥황 도올라 갓구나.

하늘옥황 도올란 간 베려보난
[음영] 서천꼿밧디 궁여청 시녀청덜
어서
연못디 가근
물 떠당 물 주렌 허난
가난허곡 부제여 서난허영
[음영] 부제칫 애기덜은 놋그릇에 물 떠당은 서천꼿밧 물 잘 주민
꼿도 번성 시겨가곡
[음영] 가난허고 서난허여 질이공서 뒈영
못사는 애기덜
인간에 살 때에
못산 애기덜은
어서 서천꼿밧 물 주렝 허영
[음영] 차롱착에 밥 먹곡 남박세기예
밥을 먹곡
사기그릇에 밥 먹던 아기덜
어서 차롱착에
물 거령 들르민 잘잘 새나불민
서천꼿밧디
물 못 주민
어서 꼿감관앞이
[음영] 족낭 훼꼬리로 알엣 정고리 얻어맞앙
메 맞곡 어서
남박세기예 밥 먹던 아기덜
[음영] 남박세기예 물 거령 가젠 허민 어서 벳 맞앙
와싹 벌러지영
금 나불민 벌러지영 물 떠다 주고
영 허민 메 맞곡
어서 사기그릇에 물 떵 가당 베려보민
발 차근 ᄂᆞ려졍 벌러지여 불민

사기그릇으로 어서 서천꼿밧디
물 못 주민
꼿감관앞이
메 맞앙 이 아기덜
비세깥이 우는 아기덜
살앐구나.
저 부젯집잇 애기덜
물 잘 주엉 서천꼿밧디 물 잘 주민
번성 환생 시경
메도 아니 맞고 욕도 아니 맞아근
허는디 이 아기덜
가난허곡 서난헌 애기덜은
그때야 인간드레 돌아앚앙
"날 나주던 나 아버님아 나 어머님아
우린 무사 멩 줄르게 납디가
복 줄르게 납디겐?" 영 허여근
인간드레 돌아앚앙 비새깥이 울어불민
인간에 형제간덜 살곡 동싱덜 살다근
눈ᄀᆞ리게 비ᄀᆞ리게
어서 급헌 어서 급징 불러주고
정셋징 불러주곡
[음영] 영 허영 아기덜 형제간덜 급허게
죽어나 가곡 영 허는 게
그때야 불도맞잇법
내왕 어서 인간드레 간 아기덜
인정 다과이 보내엿수다덜.
에서 이제
서천꼿밧
어서 도올라 강
연네못디 가근

어서 나뭇가지 청버드낭 가지 위에 앚앙
어서 사라도어
[음영] 할락궁이 상손가락 깨물언 피를 똑똑
연못드레 짜놓앗구나.
어서 그 물 떠다
[음영] 서천꼿밧데 물 주난 꼿이 문딱 시들어가는구나 그디
“어떵 허난 난데엇이
[음영] 서천꼿밧디 문딱 시들없이니?”
“아이고 그런 게 아니라
무지럭 실총각이 오란
청버드낭 가지예 상가지예 앚아
[음영] 상손가락 깨물언 피를 문딱
물르레 짜논 것이
우린 그 물 떠다근 서천꼿밧 주난
[말] 서천꼿밧데 문딱 시들없수덴.”
영 골으난
“어서 게거들랑
강 들어보라
귀신이냐 생인이냐?”
“어서 기영 헙서.” 간
들언 베려보난
[말] “야 너 귀신이냐 생인이냐?” “난 귀신이 아니라
인간이 할락궁이 뒈여진다.
우리 성진 땅은 어서 짐진국이고 웨진 땅은
원진국이고
우리 아바님은 서천꼿밧 사라대왕
꼿감관으로 오랏고
우리 어머님은
원강아민디
나는 할락궁이 뒈여지덴.” 영 골으난

그때야 어서 사라대왕신디 가근
[음영] “아이고 하라 할락궁이노렌 골앖수덴.”
영 골으난
“어서 게건 돌아오라.”
“어서나 기영 헙서.”
[음영] 할락궁이 돌아단 어서
이제 사라대왕신디 바찌난
[음영] “아이고 너가 나 아기가 분명허민 어서 물을
은대양에 물을 떠놓고
손꾸락 깨물엉
피를 짜논다.”
사라대왕 피를 짜놓는 건
할락국이허고 사라대왕허고 피가 합수가 뒈엿구나.
“너는 나 ᄌᆞ식이 분명허구나.
느네 어머님은
느 오라부난 어서 죽엇구나.”
“어서 기영 허엿수다.
[음영] 아이고 아바님아 게거들랑
서천꼿밧디
메 살릴 꼿 꺾어 줍서.”
어서 뻬 오를 꼿
솔 오를 꼿 오장육부 그릴 꼿
[음영] ᄎᆞ례ᄎᆞ례로 ᄆᆞᆫ딱 따놓아
꺾어 놓아놓고
멜망꼿이여
악심꼿이여
어서 웃음꼿이여
ᄆᆞᆫ딱 걲언 ᄃᆞ로 잡아 놓고
그때야 “아버님아
나 인간 네령 어머님 강 살령 오쿠다.”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인간드레 철년장제 집드레
소곡소곡 가단 보난
먼 올레 들어간 게
철년장제 집이서 할락궁이 들어오민
죽일 팔로 들럿구나.
[음영] “아이고 나 죽는 건 ᄒᆞ끔도 칭원 아녀우다만은 나 좋은 재주나
부련 오랏이난
좋은 재주나 ᄒᆞᆫ번 피우건
어서 보아라.”
웃음꼿을 내던지난
황천데소 웃음을 웃엇구나.
사 그대는
할락궁이 싸움꼿을 내여논다.
싸움꼿을 내여노난
느 머리 나 머리
머리 메딱 허는구나.
싸움을 허엿구나.
그때야 악심꼿 멜망꼿 내여던지난
ᄆᆞ딱 씨멜족 ᄆᆞ딱 시겻구나.
족은똘아기 “아이고 상전임아 날랑 살려줍서.” “나가 상전가?
느가 상전이주.”
여서 할락궁이 대답헌 게
나 살려줍서 하난 족은똘애기 살려두고
“어서 우리 어멍
어디 어디 묻혓느냐?”
“청뎃섭에
[음영] 목을 ᄀᆞᆯ려단 어서
ᄀᆞ대왓에 묻엇덴.” ᄀᆞᆯ으난
할락궁이

어서 청대 ᄀᆞ대왓디 가근
[음영] 흑 다 ᄆᆞᆫ딱 판 베려보난 어서
뻬끗마다
ᄉᆞᆯ끗마다
뎃뿌루기 ᄀᆞ작허엿구나.
ᄆᆞᆫ딱 줏어 ᄌᆞ근ᄌᆞ근
못아놓고 대를 대꼬젱이
고젱이 허여단
어서 흑을 ᄆᆞᆫ딱 떼여두고
ᄌᆞ근ᄌᆞ근 줏어놓안
고리안동벽 신동벽
멘들아 놓아 두고
“어머님아 살아납서.”
삼시번 두드리난
오들렝이 살아나는구나.
원강아미 철년장제집이
어서 이제 허고로
ᄃᆞᆯ아앚언 하늘옥황드레
할락궁이 올라가젠 영 허난
[음영] “어머님아 어서 어머님이랑 저승 가근
유모어멍 삼아근에
저싱은 애기덜 열다섯 십오 세 미만 안덜
간 애기덜야
어서 밥을 주곡 옷을 주곡덜
영 허멍 어서 삽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근.”
할락궁이
어머님 ᄃᆞᆯ앙 앚언
[음영] 하늘옥황드레 올라가단 생각허난 ‘아무래도
철년장제 집이 족은ᄯᆞᆯ애기 ᄃᆞᆯ앙 가민

아니 뭴 일이곡
경 허난
어서 철년장제 집이
족은똘애기
[음영] 아이고 요것도 살령 무시것 허리.' 요것도 문딱
거총데기
뒈여지난
할락궁이 그때야 족은똘애기도 어서 죽여 두고
어머님 둘아앚언
하늘옥황 서천꼿밧
도올라가는구나.
[음영] 올라가난 "어머님은 서천꼿밧디 하다 열다섯 십오 세 미만 안네 죽은 애기덜 유모어멍 삼앙
어서 삽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어서 이제 원강아미
하늘옥황드레 도올라 갓구나.
어서 사라대왕
어서 서천꼿밧 꼿감관 허곡
어서 원강아미
서천꼿밧 유모어멍 삼아근
이 아기덜 문딱 그늘루곡
영 허영 사다 할락궁이
거느리곡 ?찌 살앗구나.

- 핵심어 : 원진국, 짐진국, 동개남 상주절, 원강아미, 사라대왕, 구덕혼사, 사라도령, 철년장제 말년장제집, 할락궁이, 좁씨, 세경, 개염지, 콩, 콩각지, 모멀펌벅, 서천꼿밧, 꽃감관, 청버드낭, 멜망꼿, 악심꼿, 웃음꼿, 싸움꼿, 하늘옥황

W_M_007 지장본풀이

2006년 8월 16일 남원읍 태흥리 강금춘씨 댁, 강정식 조사.
강대원(남, 1945년생, 애월읍 수산리)

남원읍 태흥리 강금춘 심방 댁의 큰굿에서 구연한 것이다. 심방 집 굿에서 이와 같이 노래할 때는 흔히 '만지장'이라고 한다. 한편 강대원 심방은 이를 말미장귀 방식으로 구연하였는데, 근래 들어 일본에서 굿하던 영향으로 편리함을 좇아 이와 같이 구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하늘 청도전
벡하늘 벡도전
도전이 풀이로 에~
신가심 열립서.
바국성 본 풉네다.
지국성 본 풀자.
원살아 본이우다.
신살아 본이우다.
난산국 본이여
여산국 본이여
난산과 여산이
ᄌᆞ식이 없어서
무후야 헙데다.
송낙지 구만장
가사지 구만장
물멩지 동하전
강멩지 동하전
데벡미 일천 석
소벡미 일천 석
동 천금 은 만 냥
벡 근을 체와서
동개남 상중절

황금산 금법당
원수룩 갑디다.
원수룩 드리난
세양짓 땅에서
지장이 아기씨
ᄌᆞ지명왕 아기씨
솟을라 납데다.
ᄒᆞᆫ 설이 나던 해
철 몰라지는고
두 설이 나던 해
어머님 무릅에
온조세 불린다.
세 설이 나던 해
아바님 무릅에
온조세 불린다.
네 설이 나던 해
할마님 무릅에
다섯 설 나던 해
하르바님 무릅에
온조세 불린다.
ᄋᆞ섯 설 나던 해
어머님 죽는고
일곱 설 나던 해
아바지 죽더라.
ᄋᆞ덥 설 나는 해 할마님
아홉 설 나던 해 하르바님
다 죽어 가는고
어딜로 가리요.
지장이 아기씨
외삼춘 집으로
수양을 갑데다.

수양을 가난에
외삼춘 댁에선
개 먹던 접시예
제밥을 주더라.
술랍을 덜렌다.
오장을 썩이고
간장을 썩인다.
어름과 구름은
짓녹아 가는고
지장이 아기씬
빌너럭 세더라.
팔이 세는고
죽을라 허고서
삼도전 세커리
네던저 갑데다.
옥항에 부엉세
짓놀라 오는고
지장이 아기씨
흔 놀개 끌리고
흔 놀개 덮은다.
하늘이 옷 주고
지하가 밥 줍데다.
그런 송 저런 송
살아사 갑디다.
열다섯 십오 세
원구녁 찹디다.
원구녁 차난
착허덴 소문이
동서로 납데다.
동으로 오는 건
은장이 거리여

서으로 오는 것은
놋장이 거리여
은장과 놋장은
다 제쳐 놓고서
서수왕 서편에
문수에 덱에서
문혼장 오는고
허급을 헙디다.
ᄉᆞ주가 가는고
지남청 놓아서
[불청] 나더라.
들글러 납디다
좋은 택일허여
막펜지 오는고
이버지 오더라.
세스방 오는고
세각시 가더라.
가는 날 저녁
씨집간 날 밤이
씨집을 가난에
씨집 가난
하늘이 캄캄 땅이 왁왁
천지가 둔갑이 뒈고
천상베필 뭊고
여레섯 나난
아덜 난다.
열일곱이
씨어멍 죽고
열여덥
씨아방 죽는고
열아홉

남인 가장 죽고
곧 쓰물을 나난
생남자 아울라
다 죽어갑디다.
지장이 아기씨
나년이 팔저여
나년이 ᄉᆞ주여
어딜로 가리요.
씨누이 방으로
셋방을 가난
씨누이 나똘년
씨누이 테헌다.
ᄒᆞᆫ 지방 넘으난
죽일 말 허는고
잡을 말 허더라.
두 지방 넘으난
니 벼룩 닷 뒈여
ᄀᆞ는대 질구덕에
허우쳐 담고서
지장이 아기씨
삼도전 세커리
들어 가고
내던져 두고서
헐 일 없어근
쉬은 자 구뎅기
허위여 파고서
굴묵낭 웨지둥에
잡나무 서리
올렷구나.
올려놓고
청지애 덮어

엄막 지어간다.
연뽕낭 싱것구나.
서천서약국 들어가
누에씨 타다근
누에씨 올린다.
누에를 깨왓구나.
누에밥 멕엿구나.
누에줌 제와간다.
고치씨 타는고
물멩지 ᄀᆞ리여
강멩지 ᄀᆞ리
ᄲᆞᆸ아 놓고서
지장 아기씨
성클 들여근
물멩지 동하전
강멩지도 동하전
ᄲᆞᆸ아 논다
고리비단 능라비
서미녕 서마페
ᄎᆞᆯ렷구나.
ᄎᆞᆯ려나 놓고
지장이 아기씨
연천강 연네못 간
연서답을 들여간다.
들려가고
조그만 애기씨영
예숙을 제끼난
예숙이 지더라.
물멩지 단속곳
다 벗어 주는고
동으로 오는 건

대서가 옵데다.
서으로 오는 건
속하니 옵디다.
대서님아 속하니
나 팔저 골립서
나 ᄉᆞ주 골립서
ᄉᆞ주역은
내여 논다.
초장 걷어
초년 판단
초복은 좋수다.
이장 걷어 중년
제삼장은 말년
허여 놓고
중복 말복 궂이난
씨아바지 씨어멍
씨초상 남인 가장
셍남자 아울라
초세남 올립서
이세남 친정부모 형제
삼세남 올립서.
지장이 아기씨
데서야 소서야
영험도 영허고
걸험도 걸허다.
물멩지 동하전
강멩지 동하전
이에 올올이 발헤여
실실이 발헤여
초감젯 ᄃᆞ리
불돗ᄃᆞ리

할마님ᄃᆞ리 노각성 ᄌᆞ부줄ᄃᆞ리 걸렛베
금바랑 옥바랑 북두칠원대성군
멩ᄃᆞ리 복ᄃᆞ리
천신일월ᄃᆞ리
초공 이공ᄃᆞ리
삼공ᄃᆞ리 삼시왕
데ᄃᆞ리 양 어깨
대시왕 데ᄃᆞ리 양 어깨
팔만금사진ᄃᆞ리
시왕 ᄆᆞᆺ고 네린
대명왕체섯ᄃᆞ리
영가체서 영갓ᄃᆞ리
눈물수건 똠수건
다 ᄎᆞᆯ려 간다.
ᄎᆞᆯ려 놓고
또 이전
이예 씨부모 초상님네
친정부모 초상
옛 아닙데다.
에 하근
ᄎᆞᆯ리다가 남은 건
열 대자 들연
아강베포 무엇구나.
ᄒᆞᆫ 일곱 자 들여놓고
호롬전데
석자 오치 호름줌치 ᄎᆞᆯ렷구나.
웨오 들러 ᄂᆞ다 메고
ᄂᆞ다 들러 웨오 메어
낮에 들면은 해난 가위
밤인 들면 불썬 가위 마련헌다.
호호 방문 홉홉히

메왓구나.
메와나 놓고
지장이 아기씨
짓넙은 사라예
물 잡아 큰다.
물 잡아 크고
이엣 굴묵낭 방애에 도게남 절굿데로
이여이여 이여 방애
시콜 방애 세글러간다.
이 집안
메눌아기 똘아기
동네야 청비발 아기덜
문 불러 세우라.
이여방애 이여방애
새콜방애 잘도 진다.
체 앞체 들이라.
체할망 불르라.
흔 바퀴 탁 치난에
체 알엣 ᄀᆞ를은
좀질도 좀질어
주는편 헌다.
체 우엣 ᄀᆞ를은
부정헌 ᄀᆞ르여.
짓 넙은 사라예
물 잡아 옇고
짓 밀어 간다.
제석궁 벡시리에
허위여 담나.
제석궁 메솟디
올렷구나 삼덕 궤왕
수인씨 불런

불화식 시견
단짓물이랑
아야도 허리야
새각시 물리라.
아야도 허리여
허리띠 끼우라.
단지 물렷구나.
바국성 하늘로
지국성 하늘로
초공 이공 삼공전 하늘로
삼시왕
명부전 하늘로
ᄉᆞ제님 하늘로
예 올려간다.
지장 아기씨
씨부모 초상
친정부모 초상
초세남 이세남
삼세남을
디련 허난
청세 몸에 벡세 몸에
청나비나 벡나비
곤곤나비 줄전나비
도환셍 헙던
지장밧데
세 앚아 옵디다.
쓸 주며 ᄃᆞ리저.
물 주며 ᄃᆞ리저.
주어라 훨쭉
주어 저 새
새는 낫낫치

ᄃᆞ렷수다.
지장이 아기씨
당이민 당마다
절이민 절마다
지장이 보살로
살아근
갑데다.
이 지장은
누가 일룬 지장
전싱팔자 궂인
당주별캄
텍주
곧 예순님 일룬 지장
전싱팔자 기렴헌
성은 강씨 신네
예슨싯님 억만 들어 상신충
일룬 지장
당줏애기
곧 서른 설
신이 밥 먹곡
신이 옷 입곡
신이 헹궁발신허는 최씨 궁녀 서른흔 설 일룬 지장
큰똘 사위
외손지
셋똘 사위
일룬 지장
만지장
신풀엇수다.

- 핵심어 : 난산국, 여산국, 동개남 상중절, 황금산 금법당, ᄌᆞ지명왕 아기씨, 외삼춘댁, 은장, 놋장, 서수왕, 천지, 천상베필, 지장이아기씨, 누에씨, 연천강, 연서답, 초감제, 불돗ᄃᆞ리, 바국성, 지국성, 초세남, 이세남, 삼세남, 전심팔자, 당줏애기

W_M_008 차사본풀이

2006년 4월 16일 조천읍 대흘2리 만덕사, 강정식 조사.
강연일(여, 1953년생, 구좌읍 하도리)

조천읍 조천리 김순열 집안의 시왕맞이굿에서 구연한 자료이다.

옛날이라 옛적에, 동개남은 상중절, 서개남 금벡당은, 부처 지컨 대서님이, 사옵데다. 동경국은, 범을왕이 삽디다. 김춧ᄀᆞ을은 김추원님 삽디다. 강림이 강파도가, 사옵디다.

과양땅은 과양생이, 사옵디다. ᄒᆞ를날은, 부처 지컨 큰대서님, 허는 말이,

"야 소서야 소서야. 나는,

모릿날 ᄉᆞ오시가, 근당허민,

나이도 연만허여지곡 인간 녹이 떨어지영 모릿날 ᄉᆞ오시가 뒈민

인간 종명헐 거난, 일만 신도덜을, 불러당, 남 천 바리 들여근, 하늘 옥황으로, 술아 화장시겨주곡,

널라근, 대서 헹착 완연히 출려근, 동경국을 당허민, 동경국 땅 범을왕 아덜덜 [말] 삼삼은 구 아홉 성제 솟아난 우이로 삼형제 알로 삼형제는

열다섯 십오 세를, 넹기지 못네 허고, 가운딜로 남은, 저 아기덜 삼형제도

[말] 열다섯 십오 세를 넹기지를 못헐 듯허난, 저 아이덜을 ᄃᆞ아당, 절간 법당으로 오랑

부처님 공양헤여근, 멧 년 동안 부처님을, 공양허엿이민, [말] 이 아이덜 잘허민 열다섯 십오 세, 멩과 복을 잇어줄 듯허는구나-."

그때예, 부처 지컨, [말] 큰대서님은, 유언 남긴 대로, 모릿날 ᄉᆞ오시가 근당허난, 솟꼭 허난 인간 종명, 뒈여 가옵데다에-.

소서중은, 대서님, [말] 굴을 대로 일만 신도덜을 불러단,

낭 천 바리를, 들여근, 옥황으로, 부처 지컨 큰대서님 술아 화장시겨 가는구나에-.

소서중은 대서님, 대서님 굴은 대로, 대서 헹착을 완연히 숩숩이 출려앚엉, 동경국엔 헌디를, 소복소복 ᄂᆞ려가단 바련 보난에, [말] 동경국 땅에 범을왕 아덜 삼형제가, 글서당에 간 오단,

펭제남 그늘 알에, 앚앗구나. [말] 바련 보난, 얼굴도 좋아지고 몸도 풍성 강성 좋아지연, "야 너네덜 삼형제는, 몸도 풍성 강성 좋아지고 얼굴도

관옥이여, 만은 허뒈, [말] 어떵 허난에 느네덜은, 열다섯 십오 세를 넹기기가 어려울 듯허덴." 대서님 일러가옵데다에-.

이 아이덜 삼형제는, 비세ᄀᆞ찌 울멍덜, 집으로 들어간, “멩 쫄르게 우릴 나준 아바님아, 멩 쫄르게 우릴 나준 어머님아.” “서룬 아이덜아. [말] 그 말이 미신 말고. 그런 험헌 말을. 어느 누게가 그 말을 ᄀᆞᆯ아줘닌?” 허난, “아버님아 어머님아, 넘어가는 데서님이, 그 말을 일러 줍디다에-.”

동경국 땅, 범을왕, [말] 네웨간은, “야 수장남덜아 아무딜 강 대서님을 ᄎᆞᆺ아앚엉은에 우리 집더레 ᄃᆞᆯ앙 오렌.” 일러가는구나에-.

수장남 수벨감덜은, 어딧 영이랑 [말] 거역을 헐 수가 잇습네까. 상저님네 ᄀᆞᆯ은 대로 올레 바낏드레 곧 나상 대서님을

ᄎᆞᆺ아앚엉 나사젠 ᄒᆞ젠 허난, 짓알로 도ᄂᆞ리멍, [말] “소승 절이 붸옵네덴.” 허멍, 대서님은 벌써 동경국 땅 범을왕이 집인 줄 알안 올레 안트레 소곡소곡 들어오라 가옵데다에-.

대서님은, 들어오란, “에어~, 주인 어르신네야, 권제삼문이나, 내여줍셍.” 허난, [말] 동경국 땅이 범을왕 네웨간님은

권제를 떠다근, 높이 들러 ᄉᆞ르르르, 권제삼문 내여주어 갑디다. 권제삼문을 내여주고, [말] 동경국 땅에 범을왕이 허는 말이, “대서님아 대서님아. 원천강

화주역이나 가집데가?

오용팔괄 [말] 단수육갑이나 짚읍네껜?” 허난, 대서님 허는 말이, “ᄉᆞ주역 화주역 풀이도 가지곡 오용팔과를 짚읍네덴.” 허여 가옵데다에-.

“대서님아, 이왕 전사 우리 집이, 우리 올레 안네예, 발을 들여놓안, [말] 들어오랏이난 원천강 화주역 붉은 책을 내여놩, 화주역이나 풀어줍센.”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헙서.” 대서님은, 원천강 화주역 붉은 책을 내여놓안에, 초장 이장, [말] 제삼장을 걷어갑디다.

손가락을 오그력 페왁, [말] 오용팔괄 단수육갑을 짚어보단, 대서님 허는 말이, “어떵 허난, 집안 안네는,

아덜덜 낳는 게, 삼삼은 구 [말] 아홉 성제가 솟아날 꿰가 뭽네덴.” 허난,

아이고 동경국 땅 범을왕이는, 대답허는 말이, [말] “아이고 그 말도 맞습네다. 아홉 성제 솟아낫수덴.” 허난,

어떵 허난, 대서님 ᄀᆞᆫ는 말은, “나 점꿰엔, [말] 우이로 삼형제 알로 삼형제는 열다섯 십오 세를, 넘기지 못허영 멩이 절란헌 꿰가 뒈고, 가운딜로 남은 저 삼형제도 열다섯 십오 세, 넹기지 못허영, 인간 녹이 떨어질 꿰가 뒈옵네덴.” 일러갑디다에-.

원천강 화주역을 내여놓안, 그 말을 일르난, 대서님전, 동경국 땅 범을왕님이 허는 말이, [말] “아이고 데서님아 게민, 죽을 점은 허곡 살 점은 못헙니까? 어떵 허영 저 아이덜을, 살을 도레를 ᄀᆞᆯ아줍센.” 허난,

대서님은, 고개를 자우력 자우력 허단에, [말] “암만 이 아이덜이 양반이 집이서, 소셍

을 허여 낫주만은, 우리 절간으로 올려보내영

촌촌, 각리각리, [말] 권제를 받으멍 부처님 공양을 헸이민, 잘허민, 열다섯 십오 세 멩과 복을, 잇어질 듯허옵네다에-."

그 말을 ᄀᆞᆯ아두언에, 대서님, 올레 바꼇, 소곡소곡 나고간다. [말] 동경국 땅이 범을왕 내외간 허는 말은, "아이고 이젠 헐 수가 엇수다. 양반이 집이서 우리 애기덜이 탄생허영 솟아낫주만은, [음영] 죽음광 삶이 맞삽네까. 데서님 ᄀᆞᆯ은 대로, 법당으로 올려 보내영 저 아이덜 삼형제, 열다섯 십오 세 멩과 복을, 잇엉 오렌 허기가 어떵……."

"어서 걸랑 기영 허자." 그때옌, 홍비단, 녹비단, 벡비단, [음영] 삼삼은 구 아홉 필을 ᄎᆞᆯ려놓안 내여놓아 가는구나.

대벽미도 일천 석, 중벽미, 소벡미, [말] ᄎᆞᆯ려놓안 "서룬 아이덜아 너네덜, 어서 절간 법당으로 올라강, 부처님 공양을 허영, 열다섯 십오 세 멩과 복을 잇엉 오라에-."

그때옌 서룬 아기덜, 아바님 어머님, [음영] ᄎᆞᆯ려논 걸 짊어지고 아바님전 어머님전, 하직인사를 올려 가옵디다. [말] "아버님아 어머님아 잘 살앐입서. 게민 우리가 강, [음영] 절간 법당으로 올라강, 부처님 공양을 허영 열다섯 십오 세 [말] 멩을 잇어지민, 돌아오쿠덴." 일러두어 가옵디다에-.

서룬 나 아기덜, 그만 허난, 올레 바낏, 나산에, 삼형제가 [말] 동경국 땅을 올라 벗어난,

동개남 상중절을 ᄎᆞᆺ아앚언, 소곡소곡, 올라오라가는구나. [말] 대서님은 벌써 이 동경국 땅 범을왕 이 아이덜이, 올 줄을 알안, 야~

"저레 가고 보라. 니눈이 반둥개가, 들이 쿵쿵, 네 쿵쿵, 주꺼가는구나. [말] 양반이 질에 헹착에는 앞발을 동동 들렁 주꾸는 법이난 어서 가고 보렌." 허난~, 아닌 게 아니라 동경국 땅 범을왕 아덜덜 삼형제가, 오는 길이 뒈난, 앞발을 동동 들런 주꺼가는구나에-.

그때옌, 대서님, 나간에, [말] 이 아이덜을 ᄃᆞᆯ아단 부처님 앞에서, 무럽을 꿇련 앚져가는구나-.

그 날, 그 시에, 대서님은, [음영] 은ᄀᆞ세를 앚어들언, 이 아이덜 삼형제, 머리 삭발을 시겨가옵데다에-.

부처님, 앞에서, 머리 삭발 시겨두언, 대서님, 상탕에는 메를 짓고, 중탕에는, 갱을 끌리고, 하탕에는, [음영] 물을 ᄃᆞᆺᄃᆞᆺ허게 데완, 서룬 아이덜, 몸모욕을 판칙허게 싯쳔~,

그 날 저녁, ᄌᆞ근ᄌᆞ근, 헤여 소서헹착을, 이 아이덜, [말] 삼형제 ᄎᆞᆯ려가옵데다에-.

그 날 처녁, 저 법당으로, [말] 예보단으로 ᄌᆞ근ᄌᆞ근,

상당 중당 하당 무어, ᄌᆞ근ᄌᆞ근, [음영] 예물을 올려가는구나. 뒷날로부턴 이 아이덜 그만 허난,

중이 몸이 뒈연, 촌촌, [음영] 각리각리 권제를 받으레 뎅기멍 살아오는 도중에, [말] ᄒᆞ를날은 권제를 받으레 뎅기단, 높은 동산 우이 간 앚안,

몸도 지치고 영 허연, 동경국을 향허연, [음영] 돌아앚안 동경국을 바리난, 난디엇이 홀연광쭝에, 아바님 어머님 보구정 허난,

일시 분도 못네 춤안, 법당으로 돌아오란에, [말] “아이고 대서님아 대서님아. 우린 아명허여도 아바님 어머님 보구정 허연, 일시 분도 못네 춤으쿠다. 우리가 강, 아버님 어머님을 강 보앙 오랑, 부처님 공양을 허영, 열다섯 십오 세 멩과 복을, 잇이쿠덴.” 일러가옵데다-.

대서님은, 그때옌, [말] 언뜩 생각허난, 죽엉 간 큰대서님 꿈에 선몽시긴 생각이 나는구나. “너네덜 아니 강은 아니 뒈크냐?”

“대서님아, 대서님아. [음영] 그런 말씀허지 맙서. [불청] 물 그려운 건,

[불청] 먹으민, 앞가슴이나, 잔질룹니다만은, [음영] 대서님아 아멩 헤도 우린 아바님 어머님 [말] 보구정 허난 일시 분도, 못네 춤으쿠덴.” 허난 대서님,

“게걸랑 느네덜, 가기랑 가라만은, [말] 과양땅엔 헌 딜 근당허건 어떵 헌 일이 잇어도 매우 조심헤영 넘어가렌.”

대서님이 일러가옵데다-.

서룬 아기덜, 가젼 온 거, 홍비단, 흑비단 벡비단, [음영] 삼삼은 구 아홉 필을 내여놓안, “이걸 앚엉 어서 강 게걸랑, 아버님 어머님 베영 오렌.” 허난,

서룬 아이덜, 하도 좋안, ‘어는 제랑 가코. [말] 아버님 어머님을 보콘.’ 허연, 가단 보난, 난디엇이

시장기가 탕천허연, 흔 펜 바려보난에, 과양성이 문펴가, [음영] 부쪄 잇고, 그 올레에 탁 근당허난, [말] 하도 베고팡 앞드레 흔 발자국씩 노민 뒤트렌 두 발자국씩 무너나멍, 그 올레를 ᄂᆞ시 넘어가지 못허연, “아이고 요 집이라도 들어강 우리 식은 밥이라도 잇걸랑 ᄒᆞ쏠 줍센.” 허젠 허연, [음영] 삼형제가 짓알로 도ᄂᆞ리멍, “소승 절이 붸옵네다에-.”

과양생이, 집으로 들어강, 과양생이 각시는 바련 보난에, [말] “이거 어떵 허난, 이거 중이 떼죽덜이 뎅겼이? 야~, 수장남덜아. 저 중덜을 강, 내훈들러불렌.” 허난,

수장남 수벨캄은, 놀려들언에, 그 큰성님 [말] 셋성님 귀 잡안 확확 내훈들르난, 족은아시 허는 말이, “아이고 우리도 원레 중이 몸이 아닙네다.

우리는, 동경국 땅에, 범을왕에, [말] 아덜덜 삼형제가 뒙니다만은, 열다섯 십오 세가 멩이 절란헤연, 절간 법당으로 간, 권제를 받으멍 부처님 공양헤영 열다섯 십오 세 멩과 복을 잇젠 간 살단, 하도 아바님 어머님 보구정 허연 가는 길이난, 식은 밥이라도 잇걸랑, 흔 숟가락씩 줍센.” 허난,

과양생이 지집년, 정젯간에, 들어간, 식은 밥 세 덩어리, [음영] 물빡에 놘 닥닥 ᄲᆞᆺ안, 줌아앚언 숟가락 세 개 걸쳔, 이 아이덜을 오란 주난, 이 아이덜 삼형제는,

그 밥 흔 숟가락씩 거려 먹으난, 시장기가 믈리난, 정신이나 나간다. [말] 이 아이덜 삼

형제, 시장기가 몰리난, 이거 놈이 거 공히 먹곡, [음영] 공히 쓰민 아니 뒈는 법이난,

홍비단 흑비단 벡비단, 삼삼은 구 아홉 필, [음영] 짊어지언 뎅기단 거 부련, 이걸 훈 치썩 끊언, 과양생이 각시를 주난, 과양생이 각시는 천하 거부제로 살아도, 요런 비단 본 도레가 엇이난, 욕심이사 생겨가옵데다에-.

'어떵 허여근, 나가 요 아이덜을, 어떵 허영 죽여두어근, [말] 나가 요 비단을 ᄎᆞ질허콘.' 허연, [음영] 욕심이사 생견 과양생이 지집년은,

정짓간에 들어간, 간장을, 그때옌, 도임상을, 출려앚언, [말] 들런에, 오란에 아따 그땐 엇인 언강을 지치멍, "요 도령님네야. 요레 오랑 요 밥상덜이나 받읍서.

이태벡이, 먹던 [불청], 한한주가 뭽네다." 하도 권허멍, 다 멕여근, [말] 아이고 이 아이덜은, 술도 못 먹곡 시장긴 난디, [음영] 술을 훈 잔씩 하도 권허난 권에 부데껸, 받안에 훈 잔씩 먹으난, 아이고 소르르 허게 줌이 들언, 자빠지어 가옵디다-.

과양생이 각시는, 삼년 묵은, 간장물에, [말] 오년 묵은 춤지름에 수왕수왕 께와단, 오른귀로 웬 귀더레 질엇구나. 그만이 대서님, 과양땅을 멩심허영 넘어가렌 일러주엇건만,

아이고 그 말도, 오꼿 잊어먹언에, [불청], [말] 께와단, 웬 귀로 오른 귀더레 오른 귀로 웬 귀더레 질어부난,

서룬 아이덜 그만 허난, 어어~, 과양생이 집이서, 훈 날 훈 시에, 다 죽어갑디다. [말] 과양생이 각시는 이 아이덜 죽여노긴 허고 아이고 이거 놈이 알민 이거 안 뒐 거난, "야~ 수장남 수벨캄덜아 이 아이덜을 강 느네덜 어디로 강 처릴 헤동 오민, 너네 종문세도 벳겨 주마." 어 영 허만,

어~ 수장남 수벨캄덜은, 옛날은, 지게를 지어근, [음영] 짐덜영 이거 짊어졍 뎅기던 시절이 뒈난, 지게를 앚어 들어놓안,

이 아이덜~ 삼형제, 지게에 하나씩 짊어지언에, 주천강, 연네못디옌 헌 디엘, 춪앙 간, 물은 지펏인고라 물러레 팡팡허게 다 드르쳐 가옵디다에-.

물을 드르쳐 돈, 집으로 돌아온다. [말] 과양생이 각시는, 수장남덜ᄀᆞ라 "어디레 간 어떵 잘 허연댜?" "아무 걱정도 맙서. 우리 아무도 개도 지도 모르게 간, 잘 저 주천강 연네못딜 간, 던져불어돈 오랏수덴." 허난,

"게걸랑 너네덜, 물 물 멕이레 간 첵이나 허여근, [말] 강 보앙 오라. 난 아명허여도 ᄆᆞ음을 놓지 못허켄." 허난, 수장남 수벨캄덜은 물덜을 이꺼앚언,

주천강 연네못딜, 물 물 멕이레, 가는 첵 허연, 간 보난, [말] 다른 날은, 물덜이 물을 잘 먹는디, 그날따라 물은 아니 먹고, 앞발만 팡팡팡팡 지어가난 물러렌 바련 보난,

아이고 아이고 곱닥헌 삼석 벡이 고장이, 피엿이난에, 집으로 오란, [말] "간 보난 어떵 허엿어닌?" 허난, "아이고 상제님아 간 보난 아무 흔적도 엇입디다만은 그자, ᄒᆞ룻밤 사이에 물더렌 바려보난 곱닥헌 삼석 벡인 고장이 피연 물에 둥갈둥갈 텀십디덴." 일러가는

구나에-.

과양생이 각시는, '필아곡절, 이상헌 일이로구나.' [말] 이제랑 나냥으로 강 거둥이나 보앙 오젠 연서답을 질구덕드레 담아앚언,

주천강 연네못, 간 보난, 아닌 게 아니라, [말] 푸린 꼬장, 붉은 꼬장, 노린 꼬장, 삼석 벡이 고장이 피엿이난, 과양생이 각시는~ 물마깨로 물을 앞드레 활활 젓이멍, "나에게 테운 고장이건 나 앞드레 옵센." 허난,

아닌 게 아니라, 흔 고장은, [음영] 빵끗빵끗 웃는 헹텍을 허멍,

동글동글 떠오고, 흔 고장은, 용심이사, [음영] 나는 헹착을 허멍 동글동글 떠오라 가고, 흔 고장은~ 비세같이 우는 헹착을 허멍, 동글동글 떠오라 가옵디다에-.

과양생이 각시는, 하도 이 고장을 고난에, [음영] 고완 그만 그냥 둘 수가 엇이난, 독독 꺾어앚언,

질구덕에 담아앚언에, 집으로 돌아오란, 앞문전에, 밧문전에, [말] 셍기지둥에 꼿앙 가멍 오멍 하도 보난, 보젠 허연 꼿아간다. 과양생이 어디 간, 들어오라 가난 이 놈으 고장은,

앞살작도 팍허게 메고, [음영] 과양생이 나가젠 허민 뒷설작도 [말] 박 메곡, 과양생이 각시 안트레 쏠 거리레나 장 거리레 들어와가민, 허운데기 박박 메난,

"요 놈의 고장, 하도 고완에, [말] 나가 가멍 오멍 보젠, 걸어놔뒁져만은, 행실은 궤씸허덴." 허연, [음영] 박박 보변, 정동화리에 놘, 불천수를 시겨가는구나에-.

옛날은, 모든 것이, [말] 어려운 시절이 뒈난,

에~, 어~ 앞집이, 마구할마님은, [말] 불이나 ᄒᆞ쏠 빌젠 과양생이 집드레 오란, "사름이나 잇이냐?" "누게꽈?" "나 불이나 ᄒᆞ쏠, 불ᄀᆞᆷ이나 빌젠 오랏젠." 허난, "저 솟밋디나 게 걸랑 강 봅서."

솟밋디 간 바련 보난, 불은 엇젠 허난에, 과양생이 각시는, [말] 생각허난 ᄀᆞᆺ사 나 꼿 ᄉᆞᆫ 도레가 잇이난, "게걸랑 저 정동화리나 강 근엉 봅서. 나 ᄀᆞᆺ사, 꼿 ᄉᆞᆫ 도레가 잇수덴." 허난,

할마님은, 정동화리, 오란에, 근언 보난, "불은 엇고, [음영] 곱닥헌 삼석 벡이 구실이 잇젠." 허연, 손에 앗아 네엿이난, [말] 과양생이 지집년은, "아이고 요 할마님아. 불 담앙 갑센 허엿주. 그 구실을 앗읍센 헙디겐?" 허연,

박 허게 구슬을 뻬연에, 손에 놓안에, 이레 동골, 저레 동골 허단에, [음영] 입드레 논 게, 목 알러레 ᄉᆞ르르 허게 삼석 벡이 구실이

ᄂᆞ려 가옵데다에-.

[불청], 그날부터, [음영] 몸에는 텟기가 들어산,

들금들금, 틀ᄃᆞ레도 먹고저라. 오미저도 먹고저라. 장에는, 장네가 나고, [음영] 물에는 펄네가 난다. [말] 흔 ᄃᆞᆯ 두 ᄃᆞᆯ 열 ᄃᆞᆯ, 준삭 차난,

과양생이 지집년, 아덜이사 낳는 게, 흔 날 흔 시에, 아덜 삼형제가 솟아나는구나에-.

과양생이 지집년, 하도 좋안, 서울 상시관으로, 보골 올리난, [말] '어디 우리 인간이 흔 베에 아덜 삼형제를, [음영] 날 수가 잇겟느냐. 개삼승이나 흔 베에 아덜 삼형제를…….' 체 서 말을 상시관에서 ᄂᆞ려와 가옵디다에-.

그때엔, 과양생이 각시는, "누는 건 눔 소리, 자는 건 잠 소리, 웡이 자랑 웡이 자랑." 허멍 이 아이덜 삼형제, 키와 가는 게, 흔 술 두 술 [음영] 일곱 술이 근당허난, 동네에 한문서당에 글 공부를 놓아가옵데다에-.

이 아이덜 삼형제, 한문서당에, [말] 글공부를 놓안, 한문 선셍님이, 하늘 천을 짚으민, 이 아이덜은 벌써 선생님보단 앞상,

따 짓제를 짚어간다. 열다섯, 십오 세가, 근당허난에, [말] 동네에 삼천선비덜이 서울 상시관으로, [음영] 과거를 보레 가는 듯헤여가난, 이 아이덜 삼형제 허는 말이, [말] "아버님아 어머님아 우리도 ᄀᆞ찌 저, 삼천선비덜허고 서울 상시관으로 강, 과거를 강 보앙 오쿠덴." 허난, 생각허난

"아이고 나 아기덜아, [말] 느네 서울 상시관이 어딘 중 알암디? 서울 상시관에 강, 관에 들어가민, [음영] 어느 놈 어떤 발땅에사 맞아 죽을티, 손땅에사 죽을티 몰르난, 서룬 애기덜아 아까운 나 아기덜아, 너네덜 가질 말렌." 허난,

삼형제가, ᄀᆞᆫ는 말은, [말] "아바님아 어머님아, 그런 말씀 허지 맙서. 우리가 강, 서울 상시관에 강 과거를 허영, 과거급제를 헤야만이, 큰사름이 뭘 게 아닙네껜." 허난,

그 말도 들언 보난에, 맞아 뷈다. [음영] "게걸랑 어서덜, 느네덜 삼형제도, 어서 삼천선비덜ᄒᆞ고 ᄀᆞ찌 강, 과거급제를 허영 오라-."

이 아이덜 삼형제, 아바님 어머님, 허락을 받안에, 삼천선비덜ᄒᆞ고, 서울 상시관으로, 들어간, 삼천선비덜은, 앞이 들어간, 과거를 보아가는디, 삼천선비덜은 과거낙방이 다 뒈여가옵디다에-.

이 아이덜 삼형제, 과거급제 뒈여 갑데다. 큰성님은 [음영] 장원급제 베실을 네리와준다.

셋성님은, 문성급제, 족은아시는, [말] 팔도 올라 도자원,

베실을 ᄂᆞ리와주고, 성방 이방, 나졸 폿졸덜, [음영] ᄂᆞ류와주난 이 아이덜 삼형제는, 과거급제허엿저.

과거급제허엿저. 와라차라, 차리차라, [말] 집으로 들어오라 가는디, 과양생이 각시는, [음영] 마당에 나상, '어는 제랑 우리 아덜덜이, 과거급제를 허여보콘.' 허연, 저 울담을 바리노렌 허난, 와라차라 자라치라,

설렁설렁 들어오라가난에, [말] 이녁 애기덜인 중은 몰르고, 과양생이 각시 허는 말은, "아이고 어떤 년, 속으로 난 애기덜은 머리가 좋안 과거급제를 허연 오랏인고. 그자 흔 날 흔 시에 목도메기 부러지렌."

후욕만발 허단 보난에, 올레 안터레, 와라차라허게, 들어오는 건, 바련 보난, [음영] '아이고 이거 나 속으로 난 나 애기덜이로구나. 이거~,

내 ᄆᆞ음에서사, 그런 애기덜을 내여 주리라. [음영] 이거 어느 조상, 산에서나 이런 애기덜을 네왓인곤?' 허연,

여~ 상을 출련, 들러앚언에, 일문전으로 오란에, [말] "서룬 애기덜아, 과거급제허영 오랏이난, 우리 ᄆᆞ음대로 뒌 일이 아니난 너네덜 삼형제는 어서 오렌." 허연,

상을 출려 놓안에, 상 앞이서, 삼형제가, 절 삼베를 시기난, [음영] 이 아이덜 삼형제, 일어나지 못허연, 과거급제를 허연 오랏건만은, 훈 날 훈 시에, 일어나지 못허연, 삼형제가 죽어가옵데다에-.

그때옌, 과양생이 지집년, 울어보아도 소용이 없고, [말] 아침이 소지 석 장, 정심이 소지 석 장, [음영] 저녁에도 소지 석 장,

ᄒᆞ루 아홉 장, 석 ᄃᆞᆯ 열흘, 벡일 동안을, [말] 동안 마당으로 소지를 들여 가옵데다. "훈 날 훈 시에 간 우리 애기덜, 과거급제를 허연 오랏수다만은, 어떵 허연 훈 날 훈 시에 도다 죽어가난, [음영] 김추원님아 이 소지 절체를 허여 줍센." 허연,

석 ᄃᆞᆯ 열흘, 벡일 동안을, 소지를 들여도, [말] 소지 절체를 못허난, 과양생이 각시가, "개거뜬 김치원아 소ᄀᆞ뜬 김추원아. 요만헌 소지 절체를 못허면은, 봉고파직을 허렌."

아가리질 허여 가난에, 김추원님은, [음영] 부애가 후려 난, [말] "나가 원 살이를 못 살민 못 살앗지 저런 저 과양생이 지집년안티 나가 요런 아가리질 들엉, 어떻게 나가 살린."

어~ 안느로 문을 잡안 누어 가난에, 마마님은, [말] "아이고 어떤 일로 영 안으로 문을 잡읍디가?" "나가 원 살이를 못 살민 못 살앗지 저런 과양생이 지집년안티, 요런 아가리질을 들언 나가 원통해서 이렇게, [음영] 문을 잡앗노렌." 허난, 그때옌,

"예~ 경 말앙, 이 ᄆᆞ을에~, [말] 창 안네도 아홉 각시, 창 베낏디도 아홉 각시, 이구십팔 열ᄋᆞ덥 각시 거니령, [음영] 사는 강림이 강파도가 잇습네다. 강림이 궐을 부찌렌." 허니,

"어서 걸랑 기영 허라." "강림이 궐, 강림이 궐, 강림이 궐. 강림이 동안 마당으로 잡아들이라-.

강림이, 동안 마당으로, 잡아들이라." 김추원님은, [말] "야~, 너가 강림이가 뒈느냐?" "저가 강림이가 뒈네다. 어때서 나를 이렇게, 딱 허게 걸언 나를 잡아 들엿수겐?" 허난,

김추원님 허는 말이, [말] "너 석 덜 열흘 벡일 동안, 회의를 열렷는디 너가, [음영] ᄒᆞ르도 이거 회의에 참석을 아니 허연, 석 덜 열흘 동안, 회의 참석을 못네 허난, 너 궐을 부쳣저. 장 안네 목심을 잡힐 테냐, 저싱을 들어 강, 염라대왕을 잡혀 올 테냐?" 허난,

강림이는, 헛 허게 대답허는 게, [음영] "김추원님아 나 죽을 떼 죽어도, 저싱을 들어 강, 염라대왕을, 잡아오겟습네다에-."

"게걸랑, 어서 걸랑 기영 허라." 강림이, '저싱을 강, 염라대왕님을 잡아 오쿠덴, [말]

아이고 대답은 허엿건만은, 저싱 길이 어딜런고? [음영] 아이고 나 이거 무신 줴가 뒈연 이런, 야~

ᄉᆞ켱을 당핷인고?' 강림이, 그때엔 셍각을 허난, [음영] '아이고 이거 나 다 마은 줴옌 헌 건, 큰각시 울린 줴벢이 엇인디 [말] 장개 가는 날 처냑, 제우 ᄒᆞ르 처냑 ᄃᆞᆯ안 누원 내불어돈, 막 각처 주로 뎅기멍 장 안네도 아홉 각시 허곡, 장 베낏디도 아홉 각시, 이구십팔 열ᄋᆞ답 각시 얻엉 후려 뎅기멍, 큰각시 울린 줴나벢이 엇인디, 이거 이제랑, [음영] 아이고 나 저싱을 가민, 어~, 집으로 돌아오라질티, [음영] 아이고 말아질티 몰르난 이제랑, 우리 큰각시나 춪앙 강, 만단ᄉᆞ실 말이나 ᄀᆞᆯ아동,

저싱을 들어가젠.' 강림인, 큰각시 사는 드레, 들어가단 보난, 강림이, 큰각신, 우알녁짝 누리 ᄌᆞ메 허연 [말] 방에를 지없이난, [음영] 아이고 멋이 펏득허연 바련 보난,

강림이가, [음영] 올레 안트레 허울허울 들어오라가난, [말] 강림이 각시는, 하도 서룬 낭군님 상에도 애ᄃᆞᆯ란,

방엣 놀레로, "오널은, 저 올레예, [음영] 정살낭이 ᄋᆞᆯ아졋입디가?

까시낭이, 걷어졋입디겐?" 허멍, [음영] 방에 놀레를 불르멍~, 방에를 지단, 생각은 허난 '아이고 이거 경 헤도 각시덜 얻언 뎅기단도, 날 큰각시옌 허연 잊어먹지 안 허연 날 춪안 오랏구나. 이거 무정헐 수가 없고나.' 영 허연,

강림이 큰각신, 정젯간으로, 들어간, 도임상을, 출려 놘, 그거 앚언 오란 바련 보난에, 강림이, 안으로, 문을 잡앗이난, [말] "아이고 이 문 ᄋᆞᆸ서. 이 문 ᄋᆞᆸ서. 저 어른 헌 생각은 안 허곡 나 그까짓 말 ᄀᆞᆫ 것에, 애ᄃᆞᆯ란 영 안으로 문을 잡읍데가? 이 문 ᄋᆞᆸ센." 허난, 강림이 그땐

문을 설칵 ᄋᆞᆫ 건 바련 보난, 통데왈 ᄀᆞ뜬 [불청]에, 누니 바지에, [말] 눈이 붓게 울엇이난, "아따 요 어른아. 나 그까짓 말 ᄀᆞᆫ 것에 경 웁데가? 저 어른 헌 생각은 안 허곡." "아이고 이 사름아 그게 아니여.

난 저싱을, 들어가게 뒈엿노렌." 허난에, 강림이 큰각신, [음영] "저싱은 가젱 허민 저싱 글을 가져야 가는 법인디, [말] 저싱 글을 가젼 옵데가?" "가젼 오랏어." "어서 내여놉서."

내여논 건 바련 보난에, 에 이싱 글, [음영] 흰 종이예 검은 글을 썬 앚언 오랏이난,

그때옌 강림이 큰각신, "요 어른아 요 어른아. [음영] 아이고 ᄒᆞᆫ 일 알고 두 일 모른 요 어른아. 요거 이싱 글입네다. 저싱 글은

붉은 종이예, 흰 글을 써야만이, 저싱을, 들어가는 법인디, [음영] 이건 이싱 글이 뭡네다. 어서 동안 마당 들어강, 저싱 글을 강, 바깡 옵서-."

강림이 큰각시 ᄀᆞᆫ는 대로, 동안 마당 들어오란에, "김추원님아, [음영] 저싱 글을 내여줍센." 허난, [말] 김추원님 허는 말은, "야~ 강림아. [음영] 저싱 글은 뭔 글이 뒈느녠?" 허난, 아이고 강림이 허는 말은,

“김추원님아, 이레 잘 바려봅서. [음영] 이 글은 흰 종이에 검은 글을 쓰난 이승 글이 아닙네까? 저승 글은 붉은 종이에 흰 글을 써줍서-.”

그때예, 저싱 글 바꽌 가난 법으로, 우리 사름은, 죽으민, [음영] 주도법을 마련헌다. 그 법으로, 이거 붉은 주도에, 옛날은 먹덜토 엇곡 영 헐 떼난

계란 허영, 붉은 종이에, 주도를 헤영 글을 썽, 마련이 뭽데다. [말] 강림이 큰각시, ‘이 왕정사 남인가장님 저싱을 들어가젠 허는디,

저싱 헹착이나 출려 보저.’ 남방사주, 저고리에, 붕에바지, 조이 낙콕 반 발, 웨코 보선을, [음영] 문딱 ᄌᆞ근ᄌᆞ근 출려놓아 간다.

[불청] 헌다. 체 알에 ᄀᆞ를은, 줌짊도 줌질다. 체 우잇 ᄀᆞ를은 홁음도 홁다. 영 허영 줌진 ᄀᆞ를을 지어놓안, 벡시리를, 초징 이징, [음영] 제삼징을 놓안 지어간다. 강림이 큰각시 저싱 헹착을 완연히 출려 가옵데다-.

“아이고 요 어른아, 요 어른아. [음영] 저싱 헹착을 출려놓안 ᄒᆞᆫ저 일어낭, 어서 저승을 들어 갑서. 어느 무정눈에 경, 줌을 잘 생각이 납디겐?” 허영, 강림이 눈을 반짝 허게 텅 보난, 강림이 큰각시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연, ᄌᆞ근ᄌᆞ근, 저싱 헹착을 출려 가옵데다에-.

강림이, 큰각시 출려논 거, 짊어지언, [음영] 올레 바꼇디 곧 나사노렌 허난 어떤 애기씨는, 빈 허벅을 쓱 지언 질을 갈라간다 그때는 강림이가, 큰소리로 후욕만발을 허여간다. “어째서

여자옌 헌 건, 꿈에만 시꽈도, [음영] 제수가 없는 법인디 내가~ 저싱 길에 헹착에 빈 허벅이 뭐일러옌.” 혼욕만발 허난 애기씨는, ᄒᆞᆫ펜드레 베씩허게 산 게, 담은 와르릉 허게 멀어젼, 물허벅은 바싹허게 벌러지난 법으로, 옛날은, ᄂᆞᆯ귀양풀이 허레 가민, 사기 허영 살성덜 ᄃᆞ렷수다만은 이젠, 사기덜토 엇어져불고,

신식 기화가 뒈여지난에, [음영] 콩 ᄒᆞᆫ 줌 허여당, 콩으로 사기 살이살성을, ᄃᆞ리는 법 지법이 뒈엿수다에-.

강림이, 물락물락, 저싱드레, 가노렌 허난, [음영] 아이고 아이고 어떤 늑신네 할마님이,

아그랑 작데기 짚으고 허연, 강림이, 제게 걸어가민, 할마님도 제게 가곡, 강림이, [말] 지쳥, ᄒᆞ쏠 ᄎᆞᆫᄎᆞᆫ이 걸어가민 할마님도 ᄎᆞᆫᄎᆞᆫ이 걸으멍, 높은 동산 잇이난 할마님, 높은 동산 우이 간 앚안 지쳔, 호이호이 허멍 혼부역이 씨연,

앚아가는구나.

강림이는, [말] 절 삼베를 강 쏫국쏫국 허여가난 할마님은, “어떵 허난 이거 젊은 도령이 우리 ᄀᆞ뜬 늙은이안티 절을 허엿이닌?” 허연, 허난 강림인 그땐 “아이고 할마님아, 나는 강림이가 뒈옵네다에-.”

할마님, 그때예, “야~ 강림아 강림아. [음영] 너 허는 행실은 궤씸허여도, 너의 큰각시 정성이 기특허난, 너 저싱 길을 인도허젠, 나가 나삿노라. 어서

벡시리를 내여노렌.” 허연, [음영] 할마님영 강림이 벡시리 내여놓안, 정심밥으로 먹어간다. 할마님 허는 말이, “야 강림아 요거 흔 비랑 냉경, 앚엉 뎅기당 보민, 느 쓸 도레가 잇일 거옌,”

일러두언에, 그 말이 떨어지자말자, 바련 보난에, [음영] 아이고 할마님은 어느세 감감무레가 뒈연, 할마님은 간 디 온 디가 엇어불엇구나-.

강림이, 가당 보난에, 일문전 녹디생이 하르바님이, 나오란, “야 강림아. 요레 바리라.” [음영] 그레 바련 보난, 요 질은 이른ᄋᆞ덥

공거릿질, 얼크랑 덜크랑, 얼크러진, [음영] 아이고 이거 저싱~,

이른ᄋᆞ덥 공거릿질이 근당허여져, “강림아, 요 질은, 너가 저싱을 들어갈 질이여-.”

아이고 아이고 강림이, 바련 보난, [음영] 아이고 하늘이 ᄀᆞ뜩 지하가 소뿍,

앞도 콤콤 뒤도 콤콤, 어떵 허연, [음영] 막금, 동서남북 막금허연, ‘아이고 어떵 허영 요 질로 나가 저싱을 들어가코?’

허연에, 강림이, 들어오난, “야 강림아, [음영] 이레 오라. 나가 몬 ᄀᆞᆯ아주멘.” 허연, 일문전 하르바님은,

요 질은 천왕씨 이알로, 천앙감사 신병서, 원강감서 원병서나, 어서도서, 짐추염라, 테산대왕, [음영] 범 ᄀᆞ뜬 ᄉᆞ천대왕이 들어갈 질이여, 초제 진간뎅

이제 초간대왕 제삼 송교대왕, [음영] 제네 오간 다섯은 염라대왕님이 들어갈 질,

ᄋᆞ섯은 번성대왕, 일곱 테선대왕, [음영] ᄋᆞ덥은 평등대왕이 들어갈 질, 아홉 도시데왕, 열 십 오도전륜대왕, 열하나 지장 생불, 자도 우도,

십육ᄉᆞ제, 삼멩감 삼처서, 들어갈 질, [음영] 몬딱 임신님네 ᄎᆞ근ᄎᆞ근 ᄎᆞ례ᄎᆞ례로 ᄀᆞ리치단, 흔 펜드레 ᄀᆞ리친 건 바련 보난, 왁왁허연 동도 서도 몬 왁왁허연, ‘어떵 허영 요 질로 저싱을 가코?’

아이고 석 잣 너비, 섭섭으로, ᄃᆞ리를 놓안, [말] 가단 보난, 털벙것덜 쓰멍 질토레비덜이 잇이난, 아이고 누웟이난, 강림이가 “어떵 허연 영 눕디겐?” 허난, “우리는

저싱 염라대왕님이, 질토레비덜이 뭽니다만은, [말] 모릿날 ᄉᆞ오시가 근당허민, 이싱에서 원복장젯똘 단똘애기 전세남을 받으레 ᄂᆞ릴 거난, 염레왕 ᄂᆞ릴 거난 질을 딲으단, 하도 시장기 난 영 누웟수덴.” 허난, 그때엔 강림이 그 벡시리 흔 빗, 앚언 뎅기던 거 내여놓앙, 꺾으멍

질토레비덜을 주난에, 그걸 ᄒᆞᄊᆞᆯ씩 먹으난, [말] 시장기 ᄆᆞᆯ려간다. 질토레비가 아이고 이거 놈이 거 공이 먹곡 공이 쓰민 아니 뭘 거난, 강림이ᄀᆞ라 허는 말이, “아이고 영 허연 기왕지사 험헌 고단을 ᄂᆞ리난, 이싱은 오젠 허민 이싱,

어~ 삼혼이나 불런 옵디겐?” 허난에, [말] “삼혼정을 아니 불렷수덴.” 허난에, “게걸랑 속적삼 입읍디가?” 허난 “입엇수덴.” 허난, [음영] “게걸랑 속적삼을 벗어내민, 우리가 삼

혼을 불러 안네걸랑,

저싱을 들어삽서-."

강림이, 속적삼을 내여놘, [말] 벗언 주난, 질토레비덜은 이구산에 올라간,

"강림이 복, 강림이 복 강림이 복." [음영] 연세번을 불르난, 강림이는 저싱 초군문에 당도허여 가는구나-.

ᄀᆞ만이 간 업데연 바련 보난, 첫 번째 ᄂᆞ리는 가마도 빈 가마요, [말] 두 번째 ᄂᆞ리는 가마 빈 가마, 세 번째 네 번째 ᄂᆞ리는 가마도 빈 가마요, [음영] 다섯 번째 ᄂᆞ리는 가마 속에는, 염라대왕이 앚안,

ᄂᆞ리는 가마가 뒈난에, 강림이, 홍사줄을, [음영] 다르르 풀어놓안, ᄉᆞ문절박 강림이 염라대왕을 시기젠 허난, 그때

염라대왕님 허는 말이, [음영] "아이고 아이고 강림아 강림아.

ᄒᆞᆫ 베코만 눅여도라. [음영] 인정 주마 ᄉᆞ정 주마." 허연,

그때에, [음영] 인정덜 하영 걸어난 법으로,

이간 군문 안네에, 불쌍허고 적막강산 헌, [음영] 김씨 동안대주님, 이름 좋은 김○○씨, 신사셍

예순에 ᄋᆞ섯님, 안으로 안성방, 김○○ 씨 경인셍

쉬은에 일곱님, 낳은 아기, [음영] 이거 큰뚤 셋뚤은 ᄆᆞᆫ 놈이 역 씨집덜 갓수다. 족은년 뚤아기

김○○이, 임술셍, 스물다섯, [음영] 이 아기 이 ᄌᆞ손덜, 도숙으로덜 ᄆᆞᆫ딱 인정덜 하영 걸엇수다에-.

인정 받아놓안에, [말] 염라대왕님이 허는 말이, "야 강림아 강림아 이제랑, 나는 이싱드레 원복장젯뚤 전세남 받으레 ᄂᆞ리는 길이난, 너도 나영 ᄀᆞ찌 이싱에 ᄂᆞ려강,

어~, 전세남을 받기가, 어떵 허느니?" "어서 걸랑 기영 헙서." 강림이, 염라대왕님, 졸 차앚안, 원복장젯집으로, 물랑물랑 가단 보난에, [말] 허제기라 헌 신이 성방은, 시왕을 이제 ᄀᆞ뜨민 맞앙 신청궤로 ᄆᆞᆫ딱, [음영] ᄌᆞ근ᄌᆞ근 살려 옵센 허는디, 강림이는 살려옵센 아녀부난,

올레에 절진을 허연, 허대기라 헌 심방, [말] ᄉᆞ문절박은 탁 시기난, 똑똑허고 역력헌 수소미가 나산, "어제 그젯날 저싱 들어간, [음영] 강림ᄉᆞ제 관장님도, 오리정 신청궤로 살려 옵서-."

그때에, 그 법으로, [음영] 들어간, ᄉᆞ젯상으로 간 상을 받아난 법으로, 이제 지금도 이거, 큰굿 허영 대신을 맞젠 허민, 옛날은 열 말 쏠 나께도적 크게 헤영, ᄒᆞᆫ 말치 헤영, 올령 허곡 영 헷수다만은 이젠,

신식이 뒈여부난, 나께시리도, ᄒᆞᆫ 뒈 짜리도, [음영] 치영 올리곡, 영 헙내다. 이거 나께

시리 치영 올리곡 이 술 흔 뒈 세우곡 허는 법은 이거, 강림ᄉᆞ제 나시
놓는 법이 뒈옵대다에-.
염라대왕님은, 강림이, 똑똑허고 역력허난, [말] 큰뎃고고리에 간 ᄑᆞ리몸으로 환싱허연, ᄇᆞ짝 부떤 잇이난 강림이는 벌써 눈치를 알안,
홍사줄을 내여놓안, 염라대왕을, [음영] ᄉᆞ문절박을 시기난 염라대왕 허는 말이, "야 강림아 강림아 똑똑허고 역력허다 너는 이제랑, 이싱을 ᄂᆞ려사라-."
그때예, 강림이 허는 말이, "염라대왕님아 나 저싱을 들어올 때 벌써 저싱 삼혼을 불런, 벌써 죽은 몸이 뒈엿인디 어떵 허영 나가 이싱을 갑내껜?" 허난 그때엔,
염라대왕님, 곧는 말씀, [음영] "강림아 등뗑이를 내물렌." 등뗑이를 내무난,
앞이는 잉금 왕짜, 뒤에는, ᄂᆞᆯ림 비짜를 글 석 짜를 딱 허게 세겨간다. [말] 벡강생이 헹기를 내여주멍 염라대왕님이 허는 말이, "야 강림아 강림아. 벡강생이 졸차 가당 보민, 알아볼 도레가 잇일 거옌." 일러가옵디다에-.
강림이는, 염라대왕님, 골은 대로, [음영] 벡강생이 조차앚언 이싱드레 불랑불랑 오노렌 허난, 헹기수 헹기물이 근당허연, 벡강생이가 물러레 팡 허게 빠지난,
강림이도, ᄀᆞ찌, [음영] 물러레 팡 허게 빠젼, 눈을 반짝허게 떤 보난,
아이고 저 어떤 디산디, [말] 불이 요 촛불ᄀᆞ찌 베롱허엿이난, '아이고 저 집은 누게네 집인곤?' 허연, 강림이가 그 불싼 딜 찾안 간 보난,
강림이 큰각시, 강림이, [말] 저싱 간, 이거 삼일을 살안 오란 보난, 벌써 이싱에선 삼년이 넘언, 강림이 첫 식게 허연, 강림이 큰각시 올레에 오란,
시걸멩을 비와두언, "야 이 문 ᄋᆞᆯ라 이 문 ᄋᆞᆯ라. [말] 난 강림이가 뒈노렌." 허난, "앞집이 김서방이건 낼랑 옵서. 낼랑 오민 식게 퉤물 안네쿠덴." 허난, "난 김서방이 아니고 강림이가 뒈노렌." 허난, "게걸랑 낼랑 옵센." 허난, "난 강림이가 뒈노라. 강림이가 뒈노렌." 서너 번을 ᄀᆞ난, "게걸랑 창궁기로 관딧섭이나 내뭅센." 허난,
관딧섭을 내밀언 바련 보난, [음영] 아이고 아이고 복짝 삭은 바농 하나, [말] 본메 본짱, 문딱 이거 저싱 간, 뎅길 때 문드리멍 털어지단 삭고 허연 귀도 문 ᄐᆞᆫ아져 분, 바농 ᄒᆞ나가 잇이난 "이거, 내 낭군이 완연허구나-."
그때예는, 문을 슬짝 ᄋᆞᆯ안, [말] "이구십팔 열ᄋᆞ덥 각시덜은 문 어디 갓이?" "아이고 난 모르쿠다." "저 사름은 어떵 허연 ᄀᆞ자 잇어?" "아이고 요 어른아 난, 일년 뒈영, 소상이나 넹기곡 대상이나 넹기곡, 대상 넘으민 담제나 넹겨 두곡, 담제 넘으민~,
에~, 어~, 첫 식게나 넹겨 두어동, [말] 나도 아무 디라도 존 디 잇걸랑 가젠 허난 이거 오널 저 어른 왓수덴." 허난, "요거 조강지처가 조강지처로구나-.
아바님네 다 모셔 오라. 어머님네 모셔 오라." [음영] 아바님은 오단 "서룬 아덜아, 저싱 간 살안 오라져닌?" 허멍 오른 풀을 폭 허게 심어난 법으로, 성편을 마련허고, 어머님

은 오단 “서룬 아덜,

저싱 간 오라져닌?” 허멍, [음영] 웬 풀을 폭 허게 심어난 법으로, 웨편을 마련허고, [말] 강림이 허는 말은 “아버님아, 나 죽언 저싱 간 엇어부난 미신 생각납디겐?” 허난, 아바님 대답허는 말은,

“미신 생각이 나느니? 느 저싱 간 엇어부난에, 그자 ᄆᆞ디ᄆᆞ디 느 생각나렌.” 허난, “아버님이랑, 인간에 살당 나이 연만 헤영, 에~ 인간에 종명허민,

어~ 왕대 끊어당, [음영] 일곱 ᄆᆞ작 지펑, 방장대 지펑, 연삼년 공을 갚아 안네쿠다에-.

서룬 어머님아, [음영] 어머님은 나 죽은 엇어부난, 미신 생각납디겐?” 허난,

“서룬 나 아덜아. [불청] 무신 생각나느냐? [말] 기자, 너 저싱 가는 날부떠 나 가슴이 그자 먹먹허연.” [음영] “아이고 어머님이랑 살당 인간에,

종명허민, 동드레 벋은, [말] 머구낭 끊어당, [기침] [음영] 방장대 지펑, 연삼년 공을 갚아 안네쿠다-.

아버님 갑서, 어머님도 갑센.” 허고, 형제간덜은, 옷 우이 ᄇᆞ름이로구나. 그때엔, “ᄉᆞ랑 ᄉᆞ랑 내 ᄉᆞ랑, 좁쏠ᄀᆞ찌 줌진 ᄉᆞ랑, 보선ᄀᆞ찌 모난 ᄉᆞ랑, [말] 이 ᄉᆞ랑 저 ᄉᆞ랑.” 허단, 아이고

그때예는, [불청] [말] “강림이 어는제랑 강, 염라대왕을 잡앙 오커니 강 보라.” 이거 머리는 두 개가 뒈고 몸은 하나가 뒈고, 동안마당에 김추원님, 야 이거~ 또 김추원님안티 간,

어~ 밀고를 허연, 이서방, 김서방, [말] “어떵 허연에 이거 강림이 저싱 강 염라대왕님을 잡아 오렌 헤연 놔두난, [음영] 저싱은 아니 가고, 이싱에서 훈품 자리 허연, 낮인 펭풍 뒤에 살림 살고, 밤이는~,

훈품 자리 허염젠.” [불청], 강림이 동안마당, 잡아가난, “어떤 일이냐?” “나 등뗑이를 바려봅서. [음영] 모릿날 사오시가 근당허민, 동안마당으로 염라대왕님이 ᄂᆞ릴 겁네다-.”

“거짓말이 아니냐?” “아닙네다.” [말] 강림이 장 안네 하옥을 시기난 아닌 게 아니라, 모릿날 사오시가 근당허난, [음영] 좁은 목에 베락 치듯,

넓은 목에, 번개 치듯, 음상덤상 헤여간다. 강림이, 그때옌, 아이고 “어~ 모릿날 ᄉᆞ오시가 근당허민, [말] 어 거짓말이 아니냐?” [불청] ᄂᆞ련 보난 다덜 간간무레 뒈여불고, “다덜 어디 갓이니?” “난 모르쿠다.” 염라대왕 ᄂᆞ련 보난 아무도 엇언. “야-, 이 집은 누게가 짓엇느냐?” “강테공 서목시가 짓엇수다.” [음영] “게걸랑 강 강테공~ 서목시 강, 잡아오렌.” 허난 강테공 서목시 둘아 오난 “멧 지둥 세왓이니?” “스물네 지둥 세왓수다.” “ᄆᆞᆫ딱 세여보라.”

ᄆᆞᆫ딱 세여가단, “요거 하나는, 나 손메가 아닙네덴.” 허난에, 염라대왕님, 큰톱을 앚어들언, [음영] 슬금슬짝 싸단 보난, ᄌᆞ짓피가 불끈 나는구나-.

그 법으로, 옛날은, [음영] 새 집은 짓엉, 이거 상량식 헐 땐 ᄃᆞᆨ머리 끊엉, 네 지둥에 피

칠을 허곡, [말] 이제 지금도 신이 성방덜은 시왕을 맞젠 허민, 붉은 도폭을 입엉, 시왕을 맞는 법 마련이 뒈옵데다에-.

"이싱 왕도 왕입네다. [말] 저싱 왕도 왕이 아닙네까? 어떵 허연 날 청헙디겐?" 허난, "아이고 그게 아닙네다 이 ᄆᆞ을에 ᄒᆞᆫ 날 ᄒᆞᆫ 시에, 아덜 삼형제가 솟아나고 ᄒᆞᆫ 날 ᄒᆞᆫ 시에 아덜 삼형제 죽언, 석 ᄃᆞᆯ 열흘 벡일 동안 소지를 들연, [음영] 소지 절체를 못네 허난, 염라대왕님을 청헷습네다에-."

"게걸랑 과양생이 지집년, ᄃᆞᆯ아오라." ᄃᆞᆯ아오난, [말] "너 동경국 땅이 범을왕이 아덜덜을 죽엿느냐?" "죽엿수다." "어디 간 묻엇느냐?" "앞밧디 간 묻엇수다." 간 판 보난 아무것도. "너 이레도 바른 말을 못허겟느냐? 어떻게 헤엿느녠." 허연, [음영] 하도 답두리 허난, [말] "아이고 염라대왕님아, 잘못허엿수다. 주천강 연네못딜 간, 던져불엇수데-."

염라대왕님, 함박 가진 이, [말] 족박 앚인 이, 벡성덜 모다 들렌 헤연, 물을 ᄆᆞᆫ딱 펀 보난, 아이고 아이고 서룬 애기덜, 동경국 땅에 범을왕이 아덜덜, ᄉᆞᆯ은 ᄆᆞᆫ딱 녹안,

시네방천, 흘러불고, [말] 뼈만 ᄉᆞᆯ그랑허엿이난, 염라대왕님 피 오를 꼿 ᄉᆞᆯ 오를 꼿 오장 육부 돋을 꼿 피연 설기 돋을 꼿 ᄌᆞ근ᄌᆞ근 놘, 금봉체를 연세번을, 착착 둘러치난, 동경국 땅 범을왕 아덜덜, 삼형제가 살아 나가옵데다-.

[말] "염라대왕님아 봄즘이난 너미 자졋수덴." 허멍, [음영] 와들랑 허게 살아나난,

"느네덜 삼형제랑, [말] 아버님 국 어머님 국을 향헤영, 동경국을 향헤영 가라."

"어서 걸랑 기영 헙서." "쉐 아홉도 내여 노라. [말] 일곱 장남 내여 노렌." 허난, 쉐 아홉 일곱 장남이 기자 도 동경국 땅,

어~ 과양생이 지집년, [말] 하도 묶언 이레저레 막 후려 뎅겨부난 갈기갈기 찢어젼, 아이고 과양생이 각시 찢어지단 남은 몸천은, 굴금낭 방에에 놓안 닥닥 ᄲᆞᆺ안, 허풍 ᄇᆞ름 불려부난, [음영] 모기 ᄀᆞᆨ다기 몸으로 환싱이 뒈연,

과양과양 허멍 ᄂᆞᆯ아뎅깁니다. 그때옌 염라대왕님, [말] "김추원님아, 강림이 몸천을 가지쿠가 삼혼정을 가지쿠가?" 삼혼정을 "몸천을 가지쿠덴." 김추원님 ᄀᆞᆯ아부난,

강림이 염라대왕은, 삼혼정을 ᄉᆞᆯᄉᆞᆯ 쓸언에, [말] 옥황으로 도올라 가부난, 벌서 강림이는 죽은 몸이 뒈난, 김추원님이 "야 강림아 너 저싱 가 오라난 말이나 ᄀᆞᆯ아나 보라 들어나 보저." 펀펀. [음영] "너 저싱 가 오랏젠 허연 큰양 허연, 나 ᄀᆞᆫ는 말에 대답을 안 허염……."

[불청] 그때옌 간, [음영] 아이고 툭 허게 건드난, 벌써 강림이는 죽은 몸이 뒈연, 둥글랑탕 걸러지는 건 보난, 콧 궁기로 눈 궁기로 입 궁기로, 쉬ᄑᆞ리가 웽웽 ᄂᆞᆯ아난 법으로,

옛날은, 우리 사름 죽으민, [말] 멩지 솜으로 ᄆᆞᆫ딱 궁기궁기 막앗수다만은 이젠, [음영] 신식이 뒈여부난, 궁기 막는 법도,

엇어져 불엇수다-.

“강림이 죽엇구나. 강림이 큰각시한티 [말] 부고를 전허라.” 부고를 전허난, 강림이 큰각신 생각을 허연 보난, “아이고 원통허구나. 어떵 허연 우리 낭군님 강림이를 죽입데가. 강림이 저싱 강 염라대왕님을 못 잡아 오랏입데가. 미신 떼문에, 죽입디겐?” 허멍

하도 누원 둥글어부난에, [말] 머리는 왕상헤연 한 펜더레 바리난, 산딧집이 잇이난, 산딧집 앗안 확 허게 묶어난 법으로, 옛날은 성복 전이 우리 사름 죽으민, 여자 상제덜은, 산딧집 허영, 머릴 묶엇수다만은 이젠 그 법도 몬,

엇어져불엇수다-.

강림이, [음영] “아이고 아이고 기왕전사, 죽은 낭군님 울어 보아도 소용이 없고, 곱아 보아도 소용이 엇언, 이제랑 ᄎᆞ례ᄎᆞ례나 출령, 엄토감장이나 허여 보젠.” 허연, 강림이 큰각시가, 우리 사름 죽으민 몬 이거, ᄎᆞ례를 내와 가옵디다.

강림이, 초소렴 이소렴 대소렴 허여간다. 섭섭허고, [말] 좋은 호상 허영 하나도 떨어지지 안 허영 몬딱, ᄌᆞ근ᄌᆞ근 입졍,

일곱 메예, 열두 메작, 허여간다. 입관을 헌다. 섭섭허다. [말] 아이고 상이와단 꾸명, 무지무지 은지 너른 땅에 강 ᄒᆞᆫ 질 못헌 땅을 판,

어~ 상개판 중개, 하개판을, 덮어가도, 섭섭허고, [말] 용미 제절을 빠도 섭섭허고 봉분을 싸도 섭섭허고, 옛날은 초우제 삼우제, 이우제 삼우제 이젠 몬 산에서덜 허영 오랎주만은 옛날은, 집이 오랑 몬딱~

제를 지내여도, 섭섭허고, [음영] 옛날은 ᄒᆞᆫ 둘 두 번 초ᄒᆞ를 보름을, 지내여도 섭섭허고, 이젠 몬 신식이 뒈난, ᄒᆞᆫ 둘 ᄒᆞᆫ 번, 삭망도 허곡 벡일 탈상덜토 핢수다만은 옛날은, ᄒᆞᆫ 둘 초ᄒᆞ를 보름 두 번 삭망 상식허곡,

일년이 돌아오민, 소상을 허여도, 섭섭허고, 대상을 지내여 보아도, 섭섭허고, [음영] 대상 넘으민 담제를 지내여도 섭섭허고, [말] 담제 넘엉 첫 식개를 지내여도 섭섭허고, 팔뤌 둘이 뒈영, 산에 강, 벌초를 허여봐도 섭섭헌 건 메 ᄒᆞᆫ 가지고, 우리 사름 죽엉 몬딱 이거, ᄎᆞ례ᄎᆞ례 출령, 엄토감장 허는 법은 강림이 큰각시가 몬, 네운 법이 뒈엿젠 허옵디다에-.

염라대왕님, “강림아, [말] 이싱에 강 ᄎᆞ례ᄎᆞ례 살당 옵센 허영 너 강, 적베지나 강 부쪄동 오라.” “어서 걸랑 기영 헙센.” 허연 강림이는 적베질 이젠 등에 짊어지연, 이싱드레,

불랑불랑, 오노렌 허난, [말] 가메기가 “야 강림아 너 어디 감디?” “아이고 난 이싱드레 염라대왕님이 강 ᄎᆞ례ᄎᆞ례 살당 연ᄎᆞ례로 옵센 강 적베지 부쪄동 오렌 허연 나 이싱에 적베지 부찌레 가노렌.” 허난,

가메기 허는 말이, “강림아 강림아. [음영] 아이고 너 이싱 길이 어딘 줄 알암디? 그 적베질 날 주민, 나가 너 대신 젓놀개예 부쪙, 강 나가 적베지를 부쪄 주멘.” 허난,

강림이, 적베지 [음영] 가메기드레 일림을 주어부난,

가메기는, 젓놀개에 부쪄 앚언, [말] 이싱드레 ᄑᆞ딱ᄑᆞ딱 오노렌 허난 이싱에선 원도 아니란, 물 피젱인 물을 잡젠 말톱 물발톱을 빤, 훅 허게 데끼난,

가메기는, [말] 지나 마쳠시카부덴, 담 우이 간 조짝 앚앗단 ᄑᆞ딱 허게 놀아오난,

어~ 산담 알러레, 적베지 툭 허게 떨어져난 법으로, 베염은 아홉 번 죽엉, [말] 열 번 도환싱 허곡 몸도 어리룩 어리룩 헤여불곡 베염은 몸도 석석허곡, [음영] 어~ 구사십셍이거 뒈연 적베지 들러먹어 나부난, 구렝이 몸도 문 석석허여 불곡, 어리룩 어리룩 허엿젠 허옵디다에-.

가메기, 놀아가단 보난, [말] 아이고 젓놀개가 헉숙허연 "아이고 아마 떠부라. 나 이거 적베지 어디서 일러먹어졋인고? 곳사 이거 나 물 잡는 디 잇언 나 물피라도 ᄒᆞᆫ 굴레 얻어먹어보카, 물꽝이나 ᄒᆞ나 얻어먹어보카 허연 앚앗단 이거, 아이고 나 놀아난 도레벢이엇인디 그디나 춪아……."

[불청] 뒈돌아 간, [음영] 앚아난 담을 춪젠 오란 보아도, 구름도 넘어 가부난, 담은 못 춪안, 바련 보난, 애 썬 막 뎅기노렌 허난 똥소레기덜이 잇이난 똥소레기, 야~ 가메기 허는 말, "똥소레기덜아 너네덜 나 적베지나 봔댜?" "아니 봣젠." 허난,

"아이고 나 적베지 보앗건, [말] ᄒᆞᆫ적 게 여러 말 곧게 날 ᄌᆞ들르지 말앙 도라." "야 가메가, 우리가, 적베질 봣이민 널 주주 우리 아니 봣저."

아이고 그때옌 가메기, "아이 갈 디 어른 갑서. 어른 갈 디 아이 갑서. [말] 남녀노소 엇이 그자 막, 저싱도가 베가 차게 갑센." 그자 이녁 ᄆᆞ음데로 깍깍깍 울어부난,

우리 사름 죽는 법은, [음영] 아이고 가메기 잘 허엿이민 ᄎᆞ례ᄎᆞ례 살당, 나이 옌만 허영 나이 ᄎᆞ례로 저싱을 갈 걸,

가메기가, 잘못허연에 아이 갈 디 어른 갑서 어른 갈 디 아이 갑서. [말] 남녀노소 엇이 막 저싱 들어 갑셍 그자 막 ᄆᆞ음데로 깍깍깍 울어부난, 아이고 우리 사름 죽는 법은,

ᄎᆞ례가 엇엉, 이수농장법이 뒈여근, [음영] 부모님 놓아뒁 ᄌᆞ식도 문처 죽곡 이거 급헌 사고도 나게 허곡 이거 사름 죽는 법은 이거 가메기 잘못허여부난, ᄎᆞ례가 엇어근 저싱도가 막 베가 차게, 시퍼런 처녀덜토,

저싱을 들어가근, 가메기 잘못허여부난, 우리 사름 죽는 법은, [음영] ᄎᆞ례가 엇엉, 이수농장법, 건물 건ᄃᆞ리가 뒈엿젠 허옵디다에-.

염라대왕님은, [말] 저싱 초군문이나 돌아보젠 간 보난, "야~ 강림아 강림아 이레 오라 보라 너 이거 어떤 일이냐. 이싱에 강 ᄎᆞ례ᄎᆞ례 살당 나이 옌만 허영 나이 한 대로 허영 ᄎᆞ례로, 저싱을 옵센 허영 너 적베지 강 부쪄동 오렌 허연 나두니 이거 어떤 일이냐 이거? 남녀노소 막 엇이덜 오랏느냐?" [음영] "아이고 염라대왕님아, 나 적베지……."

강림이, 곧는 말이, [음영] "가메기를 주어불엇수덴." 허난,

가메기, 어~ 염라대왕님, [음영] “가메기 잡아들이라~.” 가메기,

잡아 오란에, 그때옌, [말] 송낙 막뎅이 앚어들언 하도 가메길 메로 테살 허연 두드려 테작헤부난,

가메긴 몸도 거멍 허여불고, [말] 눈도 헤뜨글락 헤뜨글락, 가메기 궤기 먹으민 잊어먹곡 안창 두루 섞어졍, [다 풀엇수다. 내붑서.] 아이고 가메기 궤기 먹으민 몸도 거멍. 몸도 이거 하도 메 맞아부난 멧독이 올라 검엉 허영 속은 희곡, 것은 검곡 가메기 하도 맞아부난,

앙글조침 앙글조침 영 허는 건, [음영] 하도 이거 메 맞아부난 멧독이 올란 가메긴 영 뒈엿젠 허옵디다-.

염라대왕님, 허는 말은, [말] 강림이가 똑똑허고 역력은 허여 낫인?라, “야 강림아 난 동방섹이 삼철년을 잡히젠 허민 아이로 베왁, 어른으로 베왁 못 잡히난 느가 강 나 대신 강, 동방섹이 삼철년이나 강 잡앙 오라.” “어서 걸랑 기영 헙센.” 허연,

강림이는, [말] 못허는 일도 엇어낫인?라, 거멍헌 숫을 기자, 수단을 부련 굴체에 하나 담아앚언 주천강 연네못딜로 발강발강 싯없이난, 동방섹이 삼철년은 넘어가단 바련 보난, 강림이가 거멍헌 숫을 싯없이난, [음영] 동방섹이는, 강림이안티는 드난,

수단에 뿔련, [말] “이거 어떵 허난 젊은 도령이 숫을 싯없인곤?” 허난, 강림이 허는 말은 수단으로, “이거 거멍헌 숫 굴체에 놩 이거 물에 놩 싯어가민 헤영허게 싯어졍 약제로 쓰민, [음영] 죽는 사름도 살아나곡, [불청]

아무 때도 쓴덴 허연에, [음영] 이거 숫을 싯없수다.“ [말] 동방섹이는 멍청허영 강림이안틴 드난, 수단에 뿔련, ”나는 동방섹이 삼철년을 살단 바도, 거멍헌 숫 숫에 이거 물에 놩 싯어가믄 물에 헤카짐이나 허주, 흰덴 말은 이거 처음 들엇노렌.”

그때옌 강림이, “올타 요 게 동방섹이 삼철년이로구나.” 그때옌 홍사줄을, 다르륵 풀어 놓안, [음영] 강림이, 동방섹이 삼철년 잡혀왓덴 말 잇습네다-.

처서님, 난산국 풀엇십네다. [음영] 성은 강씨 개사셍 신이 제자,

어찌 신전님에 본을 [음영] 몬 알 수가 잇습네까. 들은 대로 베운 대로,

열에 흔 말 곡지, 앞이 굴을 말씀, 뒤에 곧곡, 뒤에 굴을 말, [말] 앞이 굴앙 선후도착이 뒐지라도,

줴 감수 시겨줍서.

- 핵심어 : 과양셍이, 아덜 삼형제, 범을왕, 동경국, 원천강, 화주역, 아홉 성제, 홍비단, 흑비단, 벡비단, 수장남, 서울 상시관, 강림이, 김추원, 염라대왕, 절 삼베, 녹디셍이, 심육ᄉᆞ제, 가메기, 저싱

W_M_009 천지왕본풀이

2008년 5월 25일, 조천읍 대흘2리 만덕사, 강정식 조사.
양창보(남, 1934년생, 한림읍 귀덕리)

양창보 심방이 서귀포시 동홍동에 거주하는 양진생 심방의 신굿에 수심방의 소임을 맡아 초감제를 하면서 구연한 자료이다. 대개 꽃가꾸기 내기에서 대별왕의 꽃은 번성꽃이 되고 소별왕의 꽃은 시들어가니 소별왕이 몰래 바꾸어놓는다고 하는 것이 예사이다. 그러나 양창보 심방은 단순히 꽃가꾸기에서 소별왕이 이긴다고 하고 말았다. 한편 이 대목에서 소미로 하여금 공싯상에 올려두었던 고리동반을 서로 바꾸어 놓게 하였다.

하늘 ᄎᆞ지는 천지왕, 땅 ᄎᆞ지는 지부왕 천지왕 네려사저 허시는대
엣날 엣적 수명장제 삽디다 아덜이사 삼형제 솟아나난
가난허고 서난허난
아이고 어멍은 사난 ᄒᆞᆫ 떼에 밥 삼시를 허영 멕이젠 허믄 ᄊᆞᆯ도 하영 드난 "아이고 어멍 죽엉 삼년상(三年喪)도 허젱 허믄 ᄊᆞᆯ도 들고 돈도 들 것 ᄀᆞ뜨난
"어머님아 어머님아 대소상(大小祥) 허는 목에 ᄒᆞ를 밥 ᄒᆞᆫ 떼만 줄이쿠다." "기영 허라."
ᄒᆞ를 ᄒᆞᆫ 떼 굶져간다.
경 허여도 ᄊᆞᆯ은 덜레는 것 닮지 안 허난 "삼시 먹을 거 ᄒᆞ를 ᄒᆞᆫ 떼만 안네쿠다." "기영 허렌." 영 허여
ᄒᆞᆫ 떼만 안네멍 양 떼는 굶졋구나 영 헤여 가니
어멍은 남대 육대 ᄆᆞᆯ란 죽엇구낭.
저싱에 옥문(獄門)에 앚앗수다.
팔월 열나흘날 섣달 그믐날은 옥문을 열령 나강근 기일제서(忌日祭祀)를 받으렌 헤연 나올 떼에
염라대왕님을 돌단 보난 ᄒᆞᆫ 대서 기자 비세ᄀᆞᆮ이 서창허게 울엇이난 "너는 어떵 허연 아니 나고 가느냐?"
"나는 산 때에 대소상헐 거 다 먹언 오랏이난 대소상을 아니 허였수덴." 영 허난 "아이고 이것사 무슨 말고."
천지왕에 선신(現身)헌다.
"네려상 정신이나 고쪄동 오라. 멜망(滅亡)을 시기라." 영 허난 천지왕이 네려온다.
'어디 강 주인을 멎으리오.' 총명부인 집안에 들어간 "주인을 멎으쿠덴." 허난 손님을 박대를 못허난 "기영 헙서."

들어가난 아이고 밥은 허여놓젱 허여도 쏠이 엇이난

수명장젯집이 간 장리(長利)를 빗져오는 게, 쏠을 내여주멍

굽에다는 흙은 작지를 놓고 중간엔 좀진 작지를 놓고 우에는 모살을 놓고 모살 우에는 쏠 ᄒᆞᆫ 줌 허꺼 놓앙 말로 대접헤여 간다.

영 허연 밥을 짓는 것이 쏠을 씻는 것 보난 하도하도 돌도 일어나고 몰레도 일어나난 그땐 심어단 "아이고 이거 어떵 헌 일이냐?" 영 허난 "천지왕님을 ᄒᆞᆫ 떼를 헤영 멕이젠 허난 쏠이 엇언 수명장젯집이 간 장리를 빗젼 오랏수다." 영 허난

"이것사 무신 말고?

숭엄제훼(凶險災害) 주어보저."

황밧갈쉐 지붕 우이 올려 흥대를 허여가난 아이고 수명장제 말젯똘아기 수멩이 [불청]간 "아바님이 어떵 허난 쉐 지붕 우이 올란 흥대질 허엾수다." "하도 ᄋᆞ름에 더운 떼 부종(付種)을 허여부난 오장(五臟)에 환덜 아니 드느냐? 경 허난 마불림 검불림 허엾이녜."

이것도 아니 뒈켜 정지 부억에 말치솟을 마당에 걸음을 걸어가니

"어떵 허난 솟이 마당에 걸음을 다 걸엾수다." 영 허난 "아이고 말도 말라. ᄋᆞ름에 하도하도하도 불도 ᄉᆞᆷ아노난 솟에 환덜 아니 부뜨느냐?"

영 허여간다.

"아명 허여도 아니 뒈켜." 머리예 무쉐 철망(鐵網)을 잔뜩 씨우난

잔뜩 씨우난 "아이고 머리는 답답허다." 아덜 시성제(三兄弟) 불러놓고 "나 대문 지방에 눕거들랑 황기 도치로 ᄒᆞᆫ번 나 머리를 께여도렌." 영 허난 "아이고 기영 헙서." 큰아덜 께젠 허난 ᄂᆞ시 아방 ᄎᆞ마이 아방님 대가리레 황기 도치를 네려놀 수가 없어간다.

이리 ᄒᆞ고,

셋아덜도 불러다 "이거 도치로 네려노라." 영 허난 셋아덜도 "아이고 아바님 머리에 어떵 어떵 허영 도치로 네려노리."

족은아덜 불러다 "어~ 이거 황기 도치로 어름 네려 찍어불라." 부모 말 들으면 아이고 효자나 나카부덴 영 허연 "이레 눕서." 황기 도치로 ᄒᆞᆫ번 네려 찍젠 허난 무쉐 철망을 해제(解除) 시겨불엇구나.

영 허영은

삼천군벵(三千軍兵) ᄂᆞᆯ려들언 멜망 시겨두고

천지왕이 올라가저 영 허난

그 날 밤에 유숙(留宿)헌 것이 그만 언약을 멪어신ᄀᆞ라 아기를 베연 올라가젠 허난 "아이고 천지왕님아 베인 아기 나민 일름은 뭣옌 지웁니까?" 영 허난

"큰아덜은 대별왕

족은아덜은 소별왕 이름 지와도라."

영 허영 그 아기 아기 난 건

올라가젠 허난
“본메 본짱 내여줍서.” ᄀᆨ씨 ᄒᆞᆫ 방울 내여주난 ᄀᆨ씨를 싱그난 영 허영 ᄀᆨ씨는 싱그난 아이고 옥황드레 막 하늘르레 쳐다보멍 ᄀᆨ순 멀리듯 헌다 허는 게
영 허영 마련시겨두고,
대별왕 소별왕이 탄생허엿구나.
이 아기덜 열다섯이 넘으난
큰아덜은 대별왕
족은아덜은 소별왕 “저싱에 ᄎᆞ지허라. 이승을 ᄎᆞ지허라.” 영 허난 그 대별왕이 말을 허뒈 “서룬 동싱아
여~ 형님아 옵서 우리 여숙이나 제껑 이기는 사람이랑 인간에 터주허곡 지는 사람이랑 저싱드레 보네게.” “기영 헙주.”
영 허영 “어떤 나문 동삼철(冬三節) 무론(毋論)허고 입이 아니 늘고 지곡 어떤 나미는 겨울 들믄 입을 집니까?” 영 허난 “아이고 동싱아 서룬 성님 그 말 맙서. 왕대 족대 ᄌᆞ죽대는
쏙이 청청 구리여도
동삼철 무론ᄒᆞ고
입이 아니 집니다.” “어떤 밧덴 풀이 짓곡 어떤 밧대는 ᄒᆞᆫ 밧디도 풀이 짓곡 풀이 안 메 ᄆᆞᆯ르는 디도 잇곡 허느니?” 영 허난에,
동싱이 하는 말이 “어~ ᄒᆞᆫ 밧디라도 동산도 잇곡 굴렁도 잇곡 허난 동산엔 메 ᄆᆞᆯ랑은 풀을 잘 크질 안 허곡 굴렁엣 풀이 큽니다.” 영 허난 “서룬 성님 그 말 맙서. 어떵 허난 머리예 대가리 머리는 질고 발등에 털은 무사 아니 집니까?” 영 허난 “그 말도 옳은 말이여.”
“오라 게건 꼿씨 들일락 허여 보게.”
수둠 주고 물 주엉 꼿씰 들이난,
영 허영 에허~ 소별왕은 꼿씨 들이난 번성꼿(蕃盛-)이 뒈고 대별왕은 금뉴울꼿 뒈난 자단 께여난 보난 동싱 앞이 꼿은 번성이 뒈엿구나 영 허영은
[<그걸 꼿씨를 바꾸라. 고리동반덜 바꾸라. 이레저레덜 바꾸아 보저.>]
동싱 앞이 꼿은 성님 앞이 가고 성님 앞이 꼿은
영 허영 어 영 허영
먼동금동 대명천지 붉앗수다.
영 헛이난 저싱 ᄎᆞ지는 대별왕 이싱 ᄎᆞ지는 소별왕
남정중 화정려 법으로
ᄉᆞ천은 속진 ᄉᆞ지 송년 뒈엿수다.

- 핵심어 : 천지왕, 지부왕, 데소상, 염라대왕, 총명부인, 대별왕, 소별왕, 번성꼿, 금뉴울꽃, 꼿씨, 이싱, 저싱

W_M_010 초공본풀이

2006년 10월 29일, 조천읍 대흘2리 만덕사, 강정식 조사.
강대원(남, 1945년생, 애월읍 수산리)

장구를 받아 앉아 스스로 치면서 구연하였다. 굿당에서 사갓집 굿을 하다가 본멩두의 탄생일을 맞아 특별히 구연하였다. 본래 심방집에서는 집을 떠나 있는 탓에 초공본풀이를 구연하는 것으로 대신한 셈이다.

옛날이라 옛적
뒈곱디다.
[음영] 어허근, 노실땅 천하임전국 상시당
[잠시 중단]
대감님 사옵디다에.
임진국이 부인님 사옵디다 열다섯 십오 세가 넘곡
[음영] 이십 스물 넘어사
에헤근
예 입장결혼을 허연
[음영] 삼십 서른 넘어가도록 ᄉᆞ십 나도록 논전답 좋아지고
강전답 좋아지고 수벨캄은 수장남 거느리여근
[음영] 예 잘 삽디다만은 ᄌᆞ식 생불 없어
호이 탄복 헐 때
황금산은 도단땅 부체 지컨 대서님은
지국성에 도네리고
[음영] 권젤 받아
[잠시 중단] 아허근
또 이제는
헌 당도 서립허고 헌 절도 수리허저
허여근 사곱디다 사시는디
[음영] 이에 대서님은 이 집 저 집 호호 방문 이에 권제
받으레 뎅기다가
[음영] 천하 임전국 집안 먼 문간에 들어사며 나사며 짓알으로 굽어 신천허며
"소승은 절이 뷈옵니다."

일러가난 수벨캄 수장남을 불러
[음영] “먼 올레에 당헌 대서님을 진 안느로 청허렌.” 허연
진 안으로 청베 청발허난
[음영] 여릿돌 알로 굽어 신천허며 재처이 “소승은 절이 뷉네덴.” 허난
“권제를 내여주라.” 권제를 내여준다.
권제를 받아사난
[음영] 천하 임전국 대감님 허는 말이 “오헹팔괄이나 단수육갑이나 지플 줄 압니까?” “ᄇᆞ듯 소명은 허오리다. ᄉᆞ주역을 볼 줄 아오리까?” “ᄇᆞ듯 대명 허오리다.”
일러근 사옵디다.
일러근 사시는디
[음영] “경 허거든 우리 ᄉᆞ주 팔자나 판단허여 줍서.”
ᄉᆞ주 팔저 판단허여간다.
[음영] “논전답 강전답 좋아지고 수벨캄 수장남이 잇어지여도 부가허게 잘 살아도 ᄌᆞ식 생불 없어 호이 탄복 걱정 근심 뒈는 점꽈가 납니덴.”
일러산다.
[음영] 일러가난 “어떵 허민 뒈쿠가?” “금법당을 ᄎᆞᆺ아 들어강, 석 ᄃᆞᆯ 열흘 벡일 원불수룩 드리믄 ᄌᆞ식 생불 잇일 듯헌덴.”
일러갑대다에ㅡ.
일러사난 그땟날은 허어근
또 이제는
일러산 허난 아허근 이제사
뒈옵대다근 이에
[음영] 예 대서님은 일러두고 황금산 도단땅 절간으로 도올라불고 임정국 대감님 수벨캄 수장남 늦인덕
불러놓고
“강답에 강나록 수답에 수나록 짝ᄊᆞᆯ 없이나
[음영] 에헤 벡 근을 체우라.” 이에
강멩지 물멩지도
[음영] 송낙지여 가사지여 소벡미여 소지 정성
은 만 량 드끈
벡 근을 체와 마발 위에 시껀 황금산 도단땅으로
원불수룩 드리레 들어간다.
들어가고 어허근
이제사근

뒈곱대다.
알로 네려사곱시며
[음영] 땅나구리 니발 굴려 주껏구나 대서님
아하근
예 또 이전
[음영] 문지기 지컨 속하니 불러 진안으로 청허여 앗안 간 거 부처님 연당 알로 대축남은 은저울대로 저울려
어
[음영] 원불수륙 드려가는디 석 돌이 넘어가도 좋다 굿덴 말 엇이난, 김진국 부인은, “예 임전국 대감님 옵서 닐랑, 예 우리 원불수룩 드려나건 대서님ᄀᆞ라 법당, 하직시겨 도렝 허영 집으로 네려가기…….”
“어서 걸랑 기영 헙서.”
가옵대다.
[음영] 예 아침이 뒈엿구나. 원불수룩 드리난, 김진국 부인님이 “대서님아 우리 법당 하직 시깁서.” “아이고 경 헙서. 예허근 집이 강 좋은 날 좋은 시 천상베필 무엉 허민
[음영] 예 ᄌᆞ식 생불 잇이쿠다.” 일럿구나 법당 하직허여 임전국 대감님 김진국 부인은, 집으로 돌아 [소리] 옵대다에ㅡ.
[음영] 집이 오란 좋은 날 좋은 시 천상베필 날을 받고 베필을 무엇더니
석 돌 열흘 벡일
[음영] 당허여가난 김진국 부인님이 요샛말로 입덧 옷에 옷내 밥에 밥내 장에 장내
나간다.
[음영] 아호 열 돌 찻구나 애산 신구월 대보름날 ᄌᆞ시가
당허여사난
[음영] ᄌᆞ지명왕 아기씨 탄생을 허고 열다섯
십오 세
[음영] 상다락 중다락 하다락 무어주는디 열다섯 십오 세
넘엇는디
[음영] 이에 “임전국 대감님 천하문장 살레 오라. 예 김진국 부인님
지하문장 살레 오렌.” 일럿구나.
[음영] 서란장이 네리난 예 “이 아길 어떵 허영 나코?”
아하근
[음영] 문 ᄀᆞᆺ인 방안이로구나. 이른ᄋᆞᆮ 고무살장
무어놓고
[음영] “궁기로 밥 주고 궁기로 옷 주곡 허엀이민

예 강 오랑
[음영] 종이 문세 삭 시기켄.”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헙서.” 늦인덕에 부탁을
허여두고
[음영] 천하문장 지하문장 살레
갑대다에ㅡ.
그때 황금산도 도단땅
[음영] 절간 법당에서 선비덜이 글공비 활공비 재주공비
허여간다.
[음영] 날이 저물고 일출동방, 이에 대ᄇᆞ름ᄃᆞᆯ이 뜨고,
ᄃᆞᆯ이 나오랏구나.
[음영] 앚아근 노는디
이허근
[음영] 대서님이 나오라 수수꺼끼를 내여간다. “너히들 우리 절간 법당이 오라 예 공들여 낳은 애기가 지금 예 이른ᄋᆞᆷ 고무살장 속에서는
가두와지엿는디
[음영] 이 아기에게 강 본메를 두고 오는 자
잇엇는디
이에 이 절간 법당 ᄆᆞᆫ딱 물려주키여.”
[음영] 영 허난 아무도 대답을 아녀는디 황할남이 수제저가
멩둣 아바지가 대답허여간다.
[음영] “예 만약실, 본메를 못 두고 오면 어찌 허겟느냐?”
[음영] “예 메 ᄒᆞᆫ 대씩이라도 멧 대우꽈? ᄯᆞ립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약속을 허고 대서 헹착 출려, 임정국 집안으로 멩둣 아바지 황할남이 소곡소곡
도ᄂᆞ려삽디다에ㅡ.
도네리여 그 뒷날은 또 이전
뒈옵디다근
올리옵긴
황송은
ᄒᆞ오욥뒈근
예허근
[음영] 권제 받으레 도ᄂᆞ련 늦인덕은 못 알아듣고, 먼 문에 당도허엿는디, 궁 안네 가두와진 자지멩왕 늦인덕 정하님
불러간다.
불러놓고선

허는 말이로구낭아.
예허근 또 이전 뒈옵디다근
[음영] “아바님 어머님이 오는 듯허다. 저 올레 나고보라.” 간 보난 하늘이 긋득헌 철쭉대 짚으고
귀ᄃᆞ리 둠쑥 굴송낙을 입엇구나.
아강베포 등에 지어 웬 손엔 금바랑 ᄂᆞ단 손엔 옥바랑 천앙낙화 잡앗구나.
[음영] “어느 당 대서며, 어느 당 소서가 뭽니껜?” 일러사 갑디다. 일런 허난 [잠시 중단]
일러근 [얼버무림]
뒈여근
뒈여지어 삽디다.
아허근
등에 전대는
이젯날은
[음영] 권제 받으레 오랏수다
일럿구나.
예 또이 늦은덕 정하님 오란 허는 말이
“아바님 아니고 어머님도 아니 오랏수다.”
금법당에 부처 지컨 대서님은
[잠시 딴 소리]
뒈엇구나 뒈고 허근
뒈어지어 사곱디다근
권제 받으레 “어떤 일로 권제 받으레
네련 들엇고렌.” 일르난
“궁 안네 가두와진 애기 멩과 복이
떨어질 듯허연 권제 받으레 네렷수덴.” 일러가옵디다.
이리 허난근 아하근
이에 예산
늦인덕이
돌앙오란
[음영] “권제 받으레…….” “권제 내여주라.” 늦인덕이 권제 앗안 나가난 “이예 늦은적 정하님 손으로
이예 ᄒᆞᆫ 말 준 것광 ᄌᆞ지 애기씨 ᄒᆞᆫ
[음영] 손으로 ᄒᆞᆫ 홉 준 게 맞사집네껜?” 허난

또로 늦은덕은 오란
아이고근
[음영] “나 손으로 훈 말광 상전님 손 훈 홉이 맞서질 아녀덴 헸수다.” “아바지 즁근 문에 어머니 어머니 즁근 문에 아버지 수레로 나갈 수 엇으난
권제 못네 네어주난
니 준 거라도 받앙 가렌 일러사렌.”
일릅대다.
드려가멍 그때엔
늦인덕이 또로 멩둣 아바님신디, 네려가근
[음영] 허는 말이 “닫은 문도 올앙 올 수 엇고 영 허우덴.” 허난
권제 못네 내여주켄 허난
그땟날은
“게민 문 올아주민
권제를 내여줄 티옌?”
들어보렌 헙디다.
드려가며
알로 네려근
아하
[음영] “문 올아주민 권제 내주켄 헸수다.” 예 천앙낙훼 동서르레 삼시번 왕글왕글
흥글치난
거부통쉐 정궁정깍 열려지난
[음영] 하늘이나 볼까 지하나 볼까 인간이나 볼까 예
청너울 벡너울 흑너울 들러씨연
나고오단 안고팡 들어간 보난
아바지 어머님 먹던 항은
좀이 일고 개미줄이 잔뜩 씨엿구나.
이예 ᄌᆞ지멩왕 애기씨 먹던 밥상이
쏠항은 곱닥허여지엇구나 권제 앗안 나오는 사이예
멩둣 아버지 황할남이는
[음영] 훈쪽 손은 우머니 속에 곱져간다
전뎃귀 물언 ᄃᆞᆼ겻구나
예 나오며 예 “훈쪽 손은 어디레 갓느냐?” “하늘 옥황 단수육갑 짚으레 갓수다.” “전뎃귀 느정 귀라 물엇느냐 느 귀라 물엇느냐?”
[음영] 일러간다 일럿저 “높이 들러 낮이 스르르 비웁서. 높이 들러 낮이 스르르 비웁

서.”
[음영] 전뎃귀 물엇단 네부난 알르레 권젯쏠은 잘락 비와지난
[음영] “아이고 이거 방울방울 줏어 놉서. 흔 방울이 떨어지민 멩도 떨어지고 흔 방울이 떨어지민
복도 떨어집니다.”
일러 갑대다.
드려가며
또 이제는
알로 네려
드려가며
또 이젠 네려근
사옵시면은
[음영] 무남제 내여놘 예 방울방울 줏어놀 적에 아이고 하늘 옥황 단수육갑 짚으레 갓덴 헌 웬쪽 손이 우머니 속에서 나오란, ᄌᆞ지멩왕 애기씨, 상가메 웨로 시 번 ᄂᆞ다 시 번
어름 씨난
아허근
어름 씨난에 에허근
[음영] 아이고 ᄌᆞ지멩왕 아기씨 춤막춤막 놀레멍 발딱 안으로 들어가멍 “개 ᄀᆞ뜬 놈으 중 쉐 ᄀᆞ뜬 놈으 중, 양반이 집이 못뒌 놈 중이로구나.”
후욕만발 허여가난
황할남이 멩둣 아바지
허는 말이
[음영] “지금은 나신디 욕했주만은 애산 신구월이 건당허여가민, 날 ᄎᆞᆺ아올 일이 날 거난.”
일러근 나고나가난
[음영] “그 중 저 중 말 궤씸허다. 본메 본짱 도라.” 늦은덕 정하님안티 ᄀᆞᆯ으난 늦은덕 정하님은 ᄂᆞᆯ려들언 니 송낙 귀 흔짝 ᄇᆞ려 앚고 이 장삼도 흔짝 ᄇᆞ려 앚고 철쭉대도 꺾어
앚엉 간다.
[음영] 아이고 이른ᄋᆞ둡 고무살장 속에 들어가젠 허난 문 아니 ᄌᆞᆼ그난 “문 ᄌᆞᆼ가동 가렌.” 허난 또로 뒈돌아오라근에
문을 ᄌᆞᆼ가갑대다에ㅡ.
천앙낙훼로 왕글장글 왕글장글 왕글장글 내훈들러가난
거부통쉐 ᄌᆞᆼ가진다.
아이고 그 날 후론

흔 둘 두 둘 석 둘이 넘어가난
[음영] 옷에 옷내 밥에 밥내 장칼내
나 먹을 수 없었고낭아.
[음영] "멋을 먹엉 살아나쿠가?" "신산곳 도올라 웨미ᄌᆞ나 틀ᄃᆞ레나 탕 오라."
웨미저 틀ᄃᆞ레
타단 안내여도 "낭에 낭내 난 못 먹키여."
[음영] "게민 멋 먹쿠가?"
시큼세금 뎅유지나 소유지
마련허난
[음영] "아이고 그것도 낭내 난 못 먹으키여. 대천바다, 예 대전복이나 소전복이나 허영 오라."
"바당내 난 먹을 수 엇다."
'큰일낫구나 어떵 허리.'
[음영] 허여 가는 게 ᄌᆞ지멩왕 아기씨 베는 불어가옵대다에ㅡ.
베는 불어가는디
[음영] 서란장을 띠왓구나. "삼년 살 공서 일년 일년 살 공서 단 석 둘에 ᄆᆞ깡 옵서. 단 사흘에 ᄆᆞ깡 옵서." 예 임전국 대감님 조진국 부인님앞이
서란장 보네연
[음영] 다 살안 오란 거부통쉣문 ᄋᆞᆯ앗구나
ᄋᆞᆯ아 예 이녁 방에 가고
[음영] 늦은덕 정하님 불러 "아버지신디 어떵 허여 선신 가겟느냐?" "풀 죽은 치메 저고리 입엉 갑서. 허리 지딱베딱 허여 갑소서.
헤거울에 ᄃᆞᆯ거울에 분상식
허영 갑서."
[음영] 아버지신디 선신 갓구나 "아이고 서룬 애기 요 동무릅드레 오라." 앚앗는디
"어떵 허연 머린 메방석이 뒈고
벤 두룽베가
뒈엿느냐?"
"아이고 아이고
[음영] 아버지 어머니 신 땐 ᄒᆞ루에 멧 번씩 머리 감장 헤주던 게 이예 흔 번도 아니 허여줫수다 머린 메방석 뒈엿수다.
[음영] 눈은 흘그산이우다.
[음영] 문 궁기로 언제민 아버지 어머님네 공서 살앙 오린 허멍 드러 비비멍 울어부난 예 눈은 흘그산이 갓수다." "무사 본명두 뒈여 ᄆᆞᆯ똥코가 뒈엿이냐?"

[음영] “하도 울멍 콧물만 풀어부난 코만 풀어부난 이예 물똥코 뒈연.” “입은 무사 하도 울멍 영 허연 허여부난
작박입이 뒈엿수다.”
[음영] “베는 어떵 허연 두룽베 뒈엿이냐?” “예 아버지 어멍 신 때엔 홉 삼시 떼를 주고 읏이난 줄 땐 주고 아이 줄 땐 아니 줘부난 베짱난…….” “어떵 허연 조롬은
부룽쉐가 뒈엿이니?”
[음영] “아이고 앚아난 디 오독독 하도 눠부난
부룽쉐 뒈엿수다.”
“발은 어떵 허난, 곰베발이 뒈엀이니?”
“어는 제민 오코
[음영] 어머님덜 산 기다리는 것이
예허근 곰베발이 뒈엿수다.”
[음영] “서룬 아기 고생헷저. 니 방으로 나고가라.” 나고 간
어머님앞이 선신 가젠 허난
또 이젠
풀 산 치메 허연
[음영] 입언 분상식 발상식 거울상식 헤거울에
돌거울에 허연 갑디다.
[음영] 간 허난 “서룬 애기 이레 오라 보저.” 동무릅에 앚젼 예 아버지 질문을 허는디 질문 허여가난 ᄌᆞ근ᄌᆞ근 대답을 헙디다. 겐디 아명 헤여도 어머님은 이상헤 베연 예
[음영] “묶어 논 저고리 콤을 클러보라.”
저고리 콤 클른다.
또 이저는
아허근 이젯날은 뒈어 삽대다.
[음영] 예 앞가슴 헤쳔 보난 아이고 젯머리도 젯줄도 파랗게 사고 젯머리도 새까망허게
“궁 안체도 ᄇᆞ름이 들엇구나.
[음영] 버텅 걸라. ᄌᆞ객놈 불르라.” 죽이젠 허여가난 늦인덕 정하님이 “나가 잘못이우다.” 예 늦인덕 정하님 죽이젠 허민 똘애긴 “나가 잘못이우다 무사 늦인덕이 줴가 잇수가?”
허여가는 게
[음영] “ᄌᆞ식 ᄒᆞ나 아이 난 폭 허저.” 입단 이복 멩듯네를 내여놓고서 이에
싣거 앚어근 아버님 이별허여 군문 잡아 등져 감고나.
군문ᄃᆞ리 들젠 허난
예 올레 바꼇, 나가기 전이 어머님 열두 폭 치메, 헤여준다.

아바님은
“가당 질 막히건 요 걸로 다리 놩 넘어가라.”
금봉 도리체 내여준다.
금봉 도리체 내여주언
[불청]
또 이제는
예하 드려가며
알로 네려
갑니다.
[음영] 이아 올레 바꼇 나가난 동서르레 질이 난다. 늦인덕, “느도 [불청] 멩둣 마둣질이 오랏이니 우리 발 가는양 가게.”
가단 보난
예헤 아야산 당허여 넘어간다.
예 건물 건ᄃᆞ리
동에 청산 남에 적산 청수와당 적수와당
벡산이 벡수와당 흑산이 흑수와당
넘어가단 보난
운 퍼져 알은 좁은
[음영] 산이 잇엇구나 이에 옛날 시갑머리 육갑에 갈라 다와
시녁 갈 때에
머리 옂은 본이로구나.
머리 건지허연,
건지산,
넘어간다 은지 허여 나오며
[음영] 멩둣말은 건지산으로 올려두고 조심조심 허여 올라가난
조심ᄃᆞ리 낫수다에ㅡ.
벡몰레왓
당허엿구나.
넘어산 [불청]
[음영] 이 대목에도 가민 싸움이 많읍네다.
[음영] 이에 황금산 멩둣 아바지 천기를 집떠보난, ᄌᆞ명왕 아기씨 늦인덕 정하님 춪아오다근 예 강변에서 앚아 졸앖구나.
산신이 등장 드난
요왕국으로

[음영] 이에 전갈을 부쪄, 요왕국에서 예 거북이 흔 쏨
내여놓고 헤여근
[음영] 거북이 등에 탄 넘어갓젠 허는 사름
또 다시
예 거기서 [음영] 멩둣마 등에 탄 넘어갓젠 허는 사름, 자단 께난 베려보난 예 ᄃᆞ리 물멩지 ᄃᆞ리 강멩지 [불청] 능나비 서미녕 서마페 ᄃᆞ리를 놓아지난, 그걸 붋안 넘어갓젠 허는 사름
이리 헙니다.
어느 말이 맞고 틀린지를 모르난 어디,
[음영] 물멩지 강멩지 고리비단 능나비 서미녕 서마페 ᄃᆞ리로구나 꿈에 선몽대로 놔졋이난 그 ᄃᆞ릴 붋안 넘어간 게
초공ᄃᆞ리 마련 헤엿젠 허곡
당줏ᄃᆞ리 마련을 허엿젠 헙니다.
넘어사 초군문 당헌다.
[음영] 예 초군문에 간 보난 예 귀 엇은 송낙이여 훈착 풀 엇은 장삼이여 철쭉대 꺾어진 거 [소리] 걸어지엇구나.
걸어지엇이난
[음영] 마추난 오독똑이 맞아지고 초군문 넘어사난 쪼꼴락헌 애기 중이
[음영] 요레저레 요레저레 질을 닦앐구나. ᄌᆞ지명왕 아기씨 허는 말이로구나 "어들로 가민 황금산을 찾아가겟느냐?"
일러갑디다.
예 가단 보난
[음영] 열두 대문이 당헙디다 그냥 넘어갈 수 읏엇구나
예~
[음영] ᄌᆞ지명왕 애기씨 열두 폭 치메 복 허게 ᄇᆞ리멍 열두 문에 인정 걸어 넘어사난
[음영] 남은 건 허리벰이 아니 남앗구나. 늦인덕 정하님 열두 폭 치메 입엇구나. ᄋᆞ섯폭썩 갈라 입어산 게 요샛말론 앞치메ᄀᆞ추룩
뒈여삽대다에ㅡ.
이하근 애기 중이
예 ᄌᆞ지명왕 애기씨 늦인덕 정하님앞이근
말을 허뒈 [음영] "이디서 기다립서." 기다리엿구나 이예 허근 황금산 주접선생 멩두 아버지가 예 은세양 놋세양에 ᄎᆞ나록 두 동이 내여줍디다
허근
[음영] "이걸 짭쏠 없이 께여와사 낮제 넘넨." 허난 아이고 손꼽으로 그거 께단 버쳔 울

단 버쳔 줌이 들엇구나 천왕세 지왕세
인왕세 네린다.
[음영] 네려 오조조조조조 허며
문짝 께며
[음영] 나사고 귓설미예 세소리 난 "요 세 저 세 놈이 애간장 타는 줄
모른 세야.
[음영] 주어 훨쭉" 드리난 새들 놀아나는 부람에 그만 체는 문짝 놀아나고 짭쏠 없이 문짝 츠나록 두 동이 께여지어
삽대다에ㅡ.
[음영] 츠나록 두 동이 께여근
[음영] 이예 황할남이 주접선성앞이 올리난, "날 춪앙 온 건 분명허건만은 나는 중이라 부부간 출려 살 수 없구나." 그때에 츠나록 두 동이 은세양 놋세양 놔주는 법으롭서 엿날에 시왕맞이나 불도맞이나 일월맞이나 초이공맞이나 당주연맞이나 신청궤 헐 때민 상잔에 쏠 놓앙
케우리기도
마련허엿구나.
어딜 가리
불돗땅을 네려가렌 헙디다.
불돗땅을 [음영] 네려가젠 허난 먼 길이여 시왕 곱은연질 내여줘
갑디다에.
네려오단 보난 왕대월산 금하늘 질이 당헌다.
가도 가도 왕대월산 진침헌
길이로구나.
금봉 도리체
내여논다.
[음영] 확 허게 잡아치난, 질이 훤허게 나는디 가단 베려보난, 이예 큰큰헌 대 하나가 가운디 구짝 사지엇구나. 수갓집에는 대 하나 좌우쪽에 예
[음영] 심방칩인 대 시 개 셉는 법
마련도 뒈엿수다.
적금산 불돗땅 춪아 갓구나
춪아가난
예허근
[음영] 이젠 씨어멍이 "아이고 절간 중도 각시 허영 살리야." 이예 얼굴 모른 메누리 인서드리레 왓수덴 허난 인서를 받고 "어쩔 수 엇구나." 초우드레 당허난

본멩두
이헤근
솟아나저
[음영] 알론 아버지 본메 아니 두엇구나.
웬 ᄌᆞ드렝이
헤쳐근
나온다.
열ᄋᆞ드레 당허난
신멩일
[음영] 오른 ᄌᆞ드렝이 헤쳐근 나오고 쓰무ᄋᆞ드렌 당허난
아허근
[음영] 성님네 나오라난 딜로 안 나오켜.
[불청] 헤쳐근에
또 이제는
뒈곱대다.
이에
나고간다.
[음영] 초여드레 본명두 웡이자랑 열여드레 신명두 왕이자랑 쓰무ᄋᆞ드레
살아살축
삼멩이도
웡이자랑 노는 것도 글소리여 자는 것도 글소리
[음영] ᄒᆞᆯ 일곱 설 난 일천서당 글공비 시겻수다.
천하문장 뒈여 갑대다.
[음영] 이예 양반잇 집이 ᄌᆞ식덜 게움 투기헤가난 선생님 굴묵하님으로 들어사고, 재에서, 소리 이예 공부를 허난
잿북이옌 벨리도 지엇수다에ㅡ.
열다섯 십오 세 나가난
[음영] 양반이 집이 ᄌᆞ식덜
과거 과거를 가는디덜
[음영] 중이 ᄌᆞ식이엔 뒤똘라가멍, 이에 돌멩이로 맞추언 떨어치와부난, 넘어가던 대서는 이에 “앞이 가는 선비덜은 과거 아니 뒈여도 뒤에 가는 세 성제는 과거 합격 헐로구넨.” 일러부난
그때엔
점점 갈수록 금강산이로구나 양반잇 집 ᄌᆞ식덜앞이

이에근
폭력을 받아갑대다.
베짓골 당허엿구나.
당헤여사근
이리 허난
그땟날은
[음영] 베나무에 올려두고 선비들은 도망가비엿구나. 예 베는 타놓고 네려올 수 엇어, 이예 츤 ᄂᆞ릇 츤 이슬을
맞아가는디
[음영] 베좌수 꿈에 베나무에 청룡 벡룡 흑룡이 이에 얽어지고 틀어진 듯 께여난 나오란 이에 베나무 우트레 베려보난 시커멍 허여서 "사름이냐 귀신이냐?" "사름이우다." "네려오라." "네려가지 못허쿠다." "무사?" "베 이추룩 잔뜩 타부난……." "게거들랑 허리띠 클르라."
이예 허리띠 클르난
[음영] 알르레 문딱 괄괄 손아지여
가부난 이예 베낭을 네려온다.
"어디 가는 애기덜코?
어디 가는 도령덜이 뒈겟느냐?"
"과거 보레 갑네다."
ᄉᆞ실 말 일럿구나.
베정싱이
종이 필묵 내여준다 글 쓰는 게 문장이라.
뒷날 아침 께여난
[음영] 이에 과거 보레 가는디 불써에 아이고 시간 늦으난 동문 남문 서문 딱 ᄌᆞᆼ가부난
넘어갈 수 없어진다.
궁이 아덜 삼성제가
[음영] 필먹을 내놓안 종이에 글 씨어 상시관 앞으로
던졋구나.
던지난
[음영] 상시관은 줏언 페완 반 "이에 천하 문장이로구나.
이거 어느 누가 쓴 거냐?"
[음영] 과거 간 선비덜은 대답을 못허고, 이에 문지기를 불러 "과거 못 들어온 선비가 잇겟느냐?" "예 잇십니다." "불러들이라."
불러들여

[음영] “너희덜 이 글을 썻느냐?” “예 썻수다.” “씨엇이민 또 써보라.”
씨는 게 똑 ᄀᆞ따지엇구나.
큰아덜 장원급제 셋아덜 문성급제 족은아덜 팔도자원 허여가난
[음영] 아이고 양반이 집이 ᄌᆞ식덜
게움 투길 허여 갑대다.
[불청]
[음영] 이아허 열두 가지 추물 ᄎᆞ담을 지깍 출려단 주난 아이고 성은 묽은 거 셋성이영 먹고
족은아시 어거지로도 먹어가는디
[음영] 역겟징이 납디다 아궁잇것 먹기
마련헙대다에ㅡ.
과거 낙방허연 [음영] 예 부에 용심이 난, 이에 장안을 돌단 보난
선비덜이
활쏩기를 허엾구나.
[음영] 이예 그 활을 빌어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부수와간다.
[음영] 이예 옥황드레 쏘는 게, 저싱 염레문ᄁᆞ지 마쳣젠 허옵디다.
[음영] “이거 어느 누가 뒈겟느냐?”
“예 녹하단풍 ᄌᆞ지멩왕 아기씨 낳은 아덜
[음영] 궁이 아덜 삼성제 뒙니다.” “아덜 너미 낫저 어멍 짚은 궁에
가두라.”
지픈 궁에 가두왓구나.
[음영] 과거도 불합격허고 울멍불멍 이에 집드레 네려오는디
청만주에미는 앞을 갈라
[음영] “이 놈으 만주에미 갈 때도 질칼란 재수 궂언 올 때도 질칼랎구나.” 야그마지 불르난 펜지를 물엇단 바깟구나.
이에 께연 보난 늦은덕 정하님이 글씨여.
이에 와랑와랑 어주에 삼녹거리 넘어도 적금산
올라간 보난
이허근
[음영] 어머니 방은 ᄏᆞᄀᆞᆯ허엿구나 소중이 ᄒᆞ나
걸어지엇구나.
그걸 갖언
[음영] “웨진 하르버지 할머니 잇는 디 ᄀᆞ리치라.”
간 ᄀᆞ리치난 아버지 황금산을

도올르저.
황금산을 도올를 적에
신력으로 어진 ᄆᆞ음 순흔 ᄆᆞ음 먹어지어간다.
[음영] 간 울고불고 통곡허연 “아이고 서룬 애기덜아 어멍 보레 오랏구나.
저 올레로 오랏구나.”
이허근
[음영] “뭣이 좋더냐?” “과거는 당대뿐이여 만대유전헐 건
그 가운대 벌련 독개 풍헌 좁디다.”
[음영] 서룬 아기야 그보다 더 좋은 거
마련헌다.
하늘 ᄀᆞᆯ룬 신공싯상도
마련허여 주고
아버지 본 남천문에
하늘 천쩨(天字) 올레 문쩨(門字) 양쪽에 ᄃᆞᆯ 월쩨(月字) 날 일쩨(日字)
이헤근
날 일쩨에 ᄃᆞᆯ 월쩨
겍(刻)을 세겨 ᄆᆞᆨ게 쓰렌 헤여 주어근
가옵대다.
이리 허여산
ᄒᆞ옵신디
또 이제는
알로 네련
[음영] “서룬 애기덜아 어멍을 살리커거들랑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땅 들어가라.”
“어서 걸랑 기영 헙서.”
신산곶 도올라 물사오기여
씰사오기 먹사오기 첫동 ᄆᆞ작은
동네 울뿍 둘쩻 ᄆᆞ작 울랑국 범천왕 싯쩨 닛쩨 다섯쳇 ᄆᆞ작은
삼동막 살장귀 설련허고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땅
네려오단 보난
또 이제는
너사무 너도령 삼형제 앚아 울없구나.
“갈 곳 없수다.”
“우리영 ᄀᆞ찌 글라.”
어주에 삼녹거리 유저남 텡저남 비여당

가지 놉은 신전집 무어간다.
마흔읏듭 상간주
서른읏듭 중간주
쓰물읏듭 하간주 무엇구나.
게수나문 비연 상당클
준지나문 비여 이에 게수나문 비여단
중당클
준지나문 비난
아웨남이나 신풍남이나
허여다 하당클 마련허여근 갑디다.
이예 디리 울려 쒜울음 네 울려 삼동막 살장귀영
[음영] 북영 두들젠 허난 이에 이거 낭토막에 고망 터준 거라부난 소리 아이 나난
옆밧디
사릅 송아기
가죽 벳겨 물련
터럭 지와근
이에 또 이젠
북을 마련허여간다.
이에 돋는 노리
장귀 가죽
마련허엿구나.
이에 왕대월산 금하늘 들어가근
왕대 뿔리 파단 북체 설련허고
이에 왕댓 ᄆᆞ작
끊어놓고 장귀체 설련허여
드리 울려 네 울려간다 어머님 짚은 궁에 들어
얕은 궁
네놀립디다.
[음영] 이에 어머님 허는 말이 “아방국 보앗느냐?” “예 보앗수다.” “무슨 본메 주더냐?” “남천문 줍디다.” “난들 본메 엇겟느냐?” 어머님 ᄎᆞ나록 두 동이 께난 모욕상잔 두 갤
마련시겨 줍디다.
“웨진땅 ᄀᆞ리쳐 줍서.”
외하르방 신 디를 찾아가곡
또 이제는

[음영] 어머님은 올레 잇고 일천기덕 지와앚언 갓구나.
외할마니 베석자리를
베와준다.
외하르바님은 가메 우판 문을 열어 준다.
[음영] 열어주고 "예 진 거 부리라." 부리난 이에 "어머닌 어디 갓이니?" "저 올레 잇수다."
애긴 어멍 보저 어멍은 애기 보저 [음영] 일로 붋악 절로 붋악 그 대목에 이에 시왕 곱은연질도 밧넨 헙디다만은
이치가 맞아진 일이 아닙대다.
이아
[음영] 헌대 궁이 아덜 삼성제 외손지덜 하르버지 옆드레 베려보난
아이고 그디 보난
이에근 홍빗상 홍빗살
좋아지엇구나
[음영] "저거 하나 줍서 양반이 집 원수……." "서룬 아기덜아 그것은 아니 뒌다. 붉게 쓰라." ᄒᆞ난 신칼 붉을 명쩨(明字) 칼 두쩨(刀字) 살장
내여주어 갑디다.
외하르버님 본메
[음영] 아바지 어머니 이허근
삼본 허영
[음영] 어주에 삼녹거리 또로 오랏수다. 오랏인디 이거 ᄀᆞ만이 영 놔두민 낭상잔 낭천문 낭칼이라부난 좀이 먹으민 만대유전 못 시길로구나.
동이와당 쒜철이 아덜 불러근
벡몰레 일뤠
예 쒯ᄀᆞ를 허여 이옛
저
정대장
아끈 도간 한 도간에 간
[음영] 쒯물 녹여 이예 천문 상잔
신칼을
[음영] 멘들아보난 이예 천문 상잔 놀 그릇이 엇어
지엇구나.
[음영] 놀 그릇 멘드는 것이 산판이 뒙대다. 영 뒈고 경 허단도 쒯물이 남으난 대제김도 마련 소제김도 마련허여

갑대다에ㅡ.
그걸 앚언
[음영] 집이 오란 어머님이영 잇는디
옥항에서
[음영] 서란장이 온다.
서란장이 네려오라근 허난
[음영] 어머님신디 “이거 돈 주어도 풀지 말곡양 누게 도렌 허여도 주지 말곡 ᄀᆞ만이 영 놔두민 전득 받을 ᄌᆞ손이
날 게우다.”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음영] “기영 허곡 우리 보케거들라근에 생각나거들랑 어머님 동으로 먼동 금동 대명천지 붉아올 적에 동산세별 보아근
이예 시름 십서.
이에 동풍이 불건 서풍으로
서풍이 불건 동풍으로
이에 ᄇᆞ름 불어
ᄇᆞ름 으지 뜻 불어 뜻 으지
ᄇᆞ름 불어 뜻 으지여
[음영] 뜻도벽에도 살앐입서.” 옥항으로 등신으로
도올라갑대다에ㅡ.
[음영] 올라간 옥항상제에
명령 받아간다.
“큰성은 저싱질 셋성은 이승 ᄎᆞ질 허곡
[음영] 족은아시 예 살아살축 삼멩일랑
인간 ᄉᆞ주팔저
ᄆᆞᆫ 만물 제 짐승 ᄎᆞ질 허영 사라.”
영 허난 그때예 예 “쓰물ᄋᆞ드레 살아 삼멩일은
양반이 원수 갚음허라.”
유정승 단똘애기
노념놀이 허면서 삼녹거리예
이예 돈제비 간제비 육간제비
또 이젠
뒈여지어 사옵대다.
ᄋᆞ섯 갤 허연 실엔 묶언 놔두난

그거 줏언 놈이나 뻬앗으카 홑 일곱 설에
줏어근
뎅기는 게 피일차일 금뉴울꼿 눈이 어두와
갑디다.
열일곱은 나는
눈이 뜨어가고 죽도 살도 아니 허여 가난
[음영] 유정싱 내외간은 "느 풀저 느 ᄉᆞ주대로 이예 살렌." 허여 열일곱 나난 부모 눈에 ᄀᆞᆯ리 시찌 나고
낮엔 내난 가위
밤엔 불썬 가위
마련을
허여근
가곱디다.
벌이 벌식허여 사는디
[음영] 알엣녁 ᄌᆞ북장제 웨똘아기 죽어 일곱 메에 묶어 심방 우전 게벡헷젠
이리 허난
소문 들언 간
[음영] "팔저 전승 궂인 애기, 팔저 전승 그르친 애기가 뎅기멍 어찌 죽언 일곱 메에 묶어논 애기 살려놀 수 잇이냐 진맥이나 헤보쿠다." "예 아니 뒌덴." 허여도 그 옆에 앚앗단 일간지 어떤 사름인지 몰라도 이예 "어린 아이 말도 귀 넘언 듣지 말렌 허엿이난 혼번 들어보주긴." 헌 것이 허락을 허고
ᄌᆞᆷ 게벽헌 문
때연 간 진멕을 허난 삼시왕에 걸렷구나에ㅡ.
시간 바빠집네다 시간 바빠지어산, 영 헌 것이
[음영] 일문전으로 대천난간 초석 페완
놀은 펭풍 싱건
이에 놀은 탁상 싱건 생쏠 시 사발 올려간다 연찻물 올려간다.
청감주 허여다근
삼잔을 걸어간다.
이에 생 촛불 밝혀 갑디다.
또 이전
알로 ᄂᆞ려
사옵시면
또 이전은

예허근
축원발괄 헌다.
이리 허여 삽고
[음영] 이에허 대벽지 내여놓곡 은닌 타인 금린 옥린 감봉수레 벡지왈대김을 누울려 죽은 애기 머리맛디 베와놓고 "내가 이 여릿돌에서 벡보밖이 가기 전이 아기 숨소리 나건 삼시왕에 역가 바칩서." 일러두고 이예 문 앞이 출렷단 거 문딱 치와두고
유씨 엄마 대선성이 [음영] 여릿돌에서 올레 어귀밖이 나가기 전이
"어멍아
물 줍서.
[음영] 예 베고프우다 죽 줍서 밥 줍서." 허여가난 얼른
다 좇아가고
[음영] 유씨 엄마 대선성을 붙잡아, 이예 "삼시왕에 역가
바치커메서믄
[음영] 이예 굿을 치여줍센." 허난
[음영] '뭣으로 굿을 허린?' 소문 들으난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땅 ᄌᆞ지멩왕 애기씨 앞이 예 조상도 잇저 일천기덕도 잇저 삼만제기도 잇저 [소리] 영 허난에
또 이제는
조상을 전득 받젠 갓수다.
그때 삼시왕에 도ᄂᆞ리단 보난
[음영] 저 올레 업대허연 잇엇구나.
이헤근
[음영] 너사무 너도령 삼성제보고 "저 올레 업드려 잇는 아기 호름전대
압송허곡
[음영] 이에 청허여 불러들이렌." 허난 불러들여 "어떤 일이 뒈겟느냐?" "조상 잇젠 허연 영 허연 오랏수덴." ᄉᆞ실 말을 허난
예 조상도 내여준다 일천기덕 삼만제기 내여준다.
너사무 너도령 소미 선생
삼성제
[음영] 내여주엇구나. 초권 이권 삼권 무당설
내여주어 갑대다에ㅡ.
그걸 내여주언
이리 허난에
무당서
초권 이권 삼권 보며

삼시왕에 역가 바찌난
[음영] 그 아기 살아나고 그 굿 ᄆᆞ까
이헤 허근
또이 너사무 너도령 삼성제앞이
[음영] 다른 멀 아이 줜 씰 보답 쏠 돈
ᄆᆞᆫ짝 내여주엇구나.
[음영] 글로 허연 소미선생 가불고 유씨 엄마 대선생은 조상 업언 집이 오랏구나. 이에 눅는 침방 우전 궤 우이 조상을 놓젠 허난 놈이 오랑 베릴 듯
안고팡에 들런 간
[음영] 조상을 모시젠 허난 모실 디가 엇이난
게수나무 상당클
[음영] 달아메연 올려노난 좋긴 허나 허뒈 누게가 문을 오랑 열민 바질 듯허난, 물레 물쎅 기지 벌엉 간 거 허연
막으난
[음영] 좋안 지여도 조상이 들고나고 헹헐 궁기가 엇엇구나 ᄀᆞ세로 궁기 궁기 똘라산게 신청 ᄀᆞ리멧법
마련뒈엿수다에ㅡ.
영 허연
[음영] 예 쓰물일곱 서른일곱 마흔일곱 쉰일곱 예순일곱 이른일곱 난
예허근
[음영] 초역례 이역례 삼역례 대역갈
바쪄산 게
전승 궂은 신헤 헤여근
[음영] 초역례 이역례 삼역롈 바쪄사 이예 제 아무리 굿을 잘허여도 삼역롈 못 바찌민 쿼지도 못 입곡, 도폭도 못 입곡 관디도 못 입언 그 옛날은 굿을 허엿젠 헙디다만은 요즈금은 역갈 바찌나 아이 바찌나, 이중춘이 삼춘 말적 아니라도 오널 나상 닐 큰심방 말을
들은뎅 헙니다.

- 핵심어 : 천하임전국, 황금산, 자국성, 권제, 금법당, 김진국, 본메, 임정국, 옥황, 단수육갑, 곰베발, 금봉, 거북이, ᄌᆞ지명왕 애기씨, 시왕맞이, 불도맞이, 일월맞이, 초이공맞이, 당주연맞이, 적금산, 배정심, 남천문, 외할마니, 외하르바님, 삼시왕, 게수나무

W_M_011 칠성본풀이

2006년 8월 16일 남원읍 태흥리 강금춘씨 댁, 강정식 조사.
강대원(남, 1945년생, 애월읍 수산리)

남원읍 태흥리 강금춘 심방 댁의 큰굿(신굿)에서 구연한 것이다.

엿날 가나목골 미움산 장설룡이 대감님 송설룡이 부인님이 살앗수다.

열다섯 십오 세 넘어 이십 쓰물 넘어

예 입장결혼허고 논전답 강전답 좋아지고 수별캄 수장남 거느리여 부귀영화로 살아근 가옵디다 헌디

삼십 서른 넘어 ᄉᆞ십 굽이 뒈여도 ᄌᆞ식 생불 없어 호이 탄복헐 제

동개남은 상주절 서개남은 몽롱절

예 법당 직헌 대서님 도ᄂᆞ리엿구나.

먼 문간 당허여 "소승은 절이 뭽니덴." 허난 수별캄 수장남 불런

진 안느로 청허여 간다.

청허여근

또 이전

권제 내여주고 ᄉᆞ주역을 보난 "원불수륙을 드리민 ᄌᆞ식 생불을 잇일 듯……." 일러 갑대다에ㅡ.

벡근 장대를 준준이 체완

마발 위에 싣건 금법당 도올랏구나.

이에 대축남은 은저울대로 이에 저울여놓고

낮도 영청 밤도 극락 석 돌 열흘

이에 벡일 정성을 드리렌 허난 흔 돌 두 돌이 넘어간다 석 돌이 넘엇구나.

벡일 굽을 놓앗구나.

놓안 허난

이헤근

이제는

좋다 궂다 말도 엇이난 송설룡 부인님 "대감님아 봅서 우리 이젤랑 예 수룩 드려나건 법당 하직시겨 도렝 허영 집이 네려가게." "어서 걸랑 허자." 뒷날 아적이

예하근
수륙 드려
“법당 하직
시겨 줍센.” 허난
집이 강 좋은 날 좋은 시 [불청] 시겨줍센 허난
“에허 궁합을 멪어
알 도리가
잇십니다.”
일러도 갑디다.
일러근
가는디
또 이제는
[불청]으론
네려근 삽디다.
이에 법당 하직허여 집이 오라 천상베필 무어 송씨 부인 포테 가져 아호 열 둘 준삭 차난 칠성아기 솟아나옵디다-.
솟아나
이 아기덜
아허근
[불청]
열다섯 십오 세 나가난 장 송상 베슬 송 승상 베슬 살레 오렌 허연 이 아기 문 곶인 방 안네
가두와 갑대다.
늦인덕정하님 불러 “궁기로 밥 주고 궁기로 옷 주어
이헤근
우리 강 올 때랑 아기 키왔이민 종이문세 살……,”
“어서 걸랑 기영 허저.”
영 허여근
또 이전
뒈여지여 사곱대다.
야 그때 [불청] 칠성아기 문틈으로 나오란 아바님이 가는디 어머님이 가는디 보저 전송 올레 베낏디 오란
곱앗구나.

아버지 탄 가메
어머니 탄 가메
가가난
먼 발로 좇아가단 삼도전 시커림
들어갑디다에-.
시커리 가난 아하
아바지 탄 가메 동드레
어머니 탄 가메
서르레 간다.
칠성아긴 아버지 탄 가메도 못 좇안 가고 어머니 탄 가메도 못 좇아간
울단 보난
아이고 아버지 탄 가메 어머니 탄 가메 간 곳 엇고 열락서산 헤 지엇구나 ᄂᆞ릇이 네렸구나.
어딜 가민 조리.
청세왓디
놀려들언
어욱페기 훈 줌 으지허여 예 잇노렌 허난 동으로 삼베중이 오라갑대다.
“앞에 가는 대서님
날 ᄃᆞᆯ앙 갑서.” 본숭만숭 “두 번째 오는 대서님
날 ᄃᆞᆯ앙 갑서.”
본숭만숭
삼시번째
오는 “대서님 날 ᄃᆞᆯ앙 갑서.” 옆 눈으로 슬쩍 보난 월궁에 시녜청 ᄀᆞ뜬 애기씨가
뒈여 삽대다에-.
뒈여지여 이리 허난
또 이전
그땟 날은
예하근
예 천앙낙훼 대서가 내놔 왕글장글 흥그난
열두 심뻬 칠성아기 ᄆᆞᆯ랑거린다.
ᄆᆞᆯ랑거려
사고

청세 비연 오장삼 꼬안 멘들안 이에 담아간다.

청세 비여 ᄉᆞ멧기 꼬안 도망 가카부덴 틀틀 묶언 아강베포에 지언 뎅기멍 낮인 정 뎅기곡 밤인 몸짐을 드려간다.

집이서 늦인덕정하님은

아허근

궁기로 밥 줘도 아니 받고 궁기로 옷 줘도 아이 받고 물 줘도 아니 받아가난 이상허다 궁기드레 눈 쏫안 베려보난 아무것도

읏엇구나에-.

큰일낫저 소문 들어도 소문 못 듣고 장설룡 송설룡 부인앞이 예 펜지서란장 드렷구나.

“송상 베슬 삼년 살 거 일년 일년 살 거 석 ᄃᆞᆯ 석 ᄃᆞᆯ 살 거 단 사흘에 ᄆᆞ까앚엉

ᄂᆞ려옵서예-.

애기씨 상전 간 곳 엇수다.” 오란 베려보난 아이고 아닐 케 아니라 읏엇구나 동서남북 이예 소문 듣자허뒈 소문 들을 수 없어지엿구나.

허위탄복 장설룡에 대감님 뒈는디

ᄒᆞ를 저냑은 꿈에 선몽을 허엿구나.

“늴 날은양 삼베중이 아버지 우리 집이 올 거난양 처얌 오는 중도 권제 주엉 보네곡 두 번째 오는 중도 권제 주엉 보내곡 삼세 번째 오는 대서랑 권제 주엉 문점을 헙서 알 도레가 잇입니덴.”

일러 갑대다에-.

모릿날을 기다렷구나 기다린디 아닐 케 아니라 삼베중이 오라 갑대다 앞이 오는 대서도 권제 주언 보내고 두 번체 오는 대서도 권제 주언 보내고 삼세 번째 오는

대서로다.

이에 안네 가민 알카부덴 먼 올레 큰 팡돌 알르레 오장삼은 ᄉᆞᆯ짝 숨겨두고 안네 들어간 권제 받으난 이에

문점을 허여갑대다에-.

“이 아기는

부르민 대답허고 웨민 들만 헌 디 잇수다.” “그 중 저 중 궤씸허다.” 이하 수별캄 수장남 불러놓고 “총베 물 적졍 ᄉᆞ문절박 시기라.” ᄌᆞ지 어남 봉은 안개 주어 대서님은 간 디 온 디 엇이 도망가비엿구나.

ᄌᆞ지 어남

걷엇구나.

ᄌᆞ지 어남 걷어근

이리 허난
그땟 날은
뒈여지어
사옵디다.
아이고 대서는 간간무중허고 야 올레에서 아기 우념소리 난 이에 수별캄 수장남덜ᄀᆞ라 "어느 쪽인지 ᄎᆞᆺ아보라." ᄎᆞᆺ단 베려보난 먼 올레 팡돌 알에로구나 "팡돌 알에서 아기 울음소리 났수다." 팡돌을 잦현 베려보난
오장삼이 잇입디다.
오장삼을
풀어간다.
헤싼 베려보난 머리는 사름이 머리요 이에 베는 두룽베가 뒈고 몸은 베염이 몸천이
뒈엿구나.
"큰일낫저." 야젱이 불러 무쉐설캅 짜 이에 무쉐설캅 짜놓고 이 칠성아기 먹을 거 잔뜩 싣거 강나목골 미움산 질친밧디서 귀양정베 마련허는 게 든물엔 서이와당 쌀물엔
동이와당
뜨고 다녀
가옵대다.
뜨고 다니다 이에 대한민국 이에 포구마다 ᄃᆞᆯ아뎅기다 제주절도로 들어오는 게 초담은 고산 차귀 당산봉으로 이에 쌀물에 동드레 흘러가는 게 이에
소섬은 진질깍드레
흘러가단
든물이 나난 함덕은 서모봉 알 무숭기 알에서 노념허다 후루에기 절고개로 무숭기 웃드레
오릅디다-.
도올라근
그때야 함덕광 신흥 열시 거림 뗀디
이아 일곱 잠수가
물질 갓단
이아 무쉐설캅 올른 걸 봉가놓고 "느 봉갓저 나 봉갓저." 싸와 갑디다 그때에 대흘이리 송동지 하르방 아침 물때에 고생이 낚아당 정심 반찬이나 허젠 낚으레
네려오단
일곱 ᄌᆞᆷ수가 싸왔이난 "야야들아 느네덜 ᄒᆞᆫ 동네 살곡 ᄒᆞᆫ 물에 들곡 무사덜 뭣덜 놘 ᄃᆞ톰……." "아이고 나 봉갓인디양 저년 봉갓구나." "아니우다 나 봉갓인디 저년 봉갓고렌."

“그 안네 은이 들고 금이 들고 느네덜 갈랑 앚곡이 그 겁풀이랑 나나 주라 첵갑이나 허마.” “어서 걸랑 기영 헙서.” 송동지 영감이 어떻게 무쉐설캅을 읋앗인디 모르쿠다만은 무쉐설캅을 엽디다 읋아놓고

요거 은이여 금이여 앗으라 대가린 메쪽 새는

새는 멜록 눈은 헤뜩

“아이고 덜럽다 추접스럽다 독살스럽다.” 일곱 줌수가 “우리 저영 헌 거 놘 싸와지엇구나 물에 들게.” 물에 드난 아무것도 못허연 나오란 그날 처냑 인밤 세고 줌자단

깨여가는 게

아야 머리여 일곱 줌수집이 늿발이여 망둥이여 손이여 베여 발이여근

아파 죽어 갑디다

필연곡절 이상허다 가물개 이원 신네앞이 가고

문점허난

“눈으로 본 줴척 입으로 속절지 줴척 손으로 지은 줴척이우다.” “게민 어떵 허민 좋구가?” “이걸 잘 모시민 좋구다.” 그디 간 일곱 줌수 집이서 모시는 것이 초담에 함덕부떠 예 칠성제법도 나왓수다.

일곱 줌수 집이 부귀영화 뒈여근 갑대다 헌디 이에 진대 ᄀᆞ득 져단 바쪄가난 이하 잘 살아가는디

또 이전은

아이고 함덕 급서황하늘 토조지관은 ‘ᄌᆞ손덜 낫인디나 오늘은 젼 왃인가 낼이나 젼 왃인가 만날 바도 빈 구덕 갈 떼민 젼 가곡 이상허다.’ 순력 돌단 보난 생각 웨엣 놈덜앞이 이에 위망허엾구나 아그랑 작대기로 걸려 캐우리는 것이 함덕 이에 헤수욕장드레 털어집대다.

낮엔 ᄎᆞᆫ 볏에

뜨겁구나.

밤인 ᄎᆞᆫ 이슬에 춥구나 야 숨부기낭 알르레 좌정허는 게 젊은 것덜 놀레 오랑 밤인 똥싸곡 오줌싸곡 ᄀᆞᆯ겨가난 “아이고 이거 우리 서룬 아기덜 좌정 못허키여 일곱 이뚤이 제주성안 구경 좋덴 허난 놀레 가게.” “경 헙서.” “낮이랑이 에 소롯질 숲속으로 밤이랑 대롯질로 가게.” “어서 걸랑 기영 헙서.” 그디 버염 일곱 잇어난 디

일뤳당으로

본메 지와두고

이엣 오는 것이 함덕 만샛동산 오란 ᄎᆞ촐영기 불린다.

여 함덕초등학교 앞인 오난 열녀문거리 ᄎᆞ촐영기

아이고 짐도 질다 진드르 벨리 지와간다 넘어상
이에 버렁 오랑 버렁은 삼양삼동이우다 ᄎᆞ촌영기 불련 동주원 오라
예하근
ᄎᆞ촌영기 불련 넘어사난 내창이 잇엇구나 “아이고 우리 이꺼장 오젠 허난이 모은 구둠이여 하영 쒜엿저 모욕허영 가게.” “어서 걸랑 기영 헙서.” 묵은 옷 벗어 세비남 우트레
걸쳐두고
일곱 애뚤이
몸모욕을 헙디다 몸모욕을 허여
에허근
나산은 보난
물이 벤직벤직허여 베릿네 벨리 지왓구나 그 동산 막 오르난 숨이 차난 ᄀᆞ으니ᄆᆞ를
벨리 지완
지금 여상에 오란 선비 나졸 포졸덜 활쏩기 허여근에 무과급제 받앐구나.
ᄎᆞ촌영기 불려두고
이에 동문 서문 남문 ᄌᆞᆼ가지어 묵은성 알은 수쳇고망이 잇엇구나 개 고넹이 들락날락헐 만헌 디여 글로 들어오란 관덕정 집 앞이 벳돌 우이 자빠졋이난 선비덜 추접허다 침 바까 가난
예 올라사는 게
지금 구시청 앞골목으로 일곱 줌수 이에 일곱 애뚤이 올라가단 베려보난 나졸 포졸덜 줴 엇인 양반덜 심어다 놓안 두드려 테작허엾구나 아이고 이제랑 객섯골 글로
넘어산다.
넘어사는 것이 에 또 이전은
뒈여지여
삽대다.
야 물이 졸졸 ᄂᆞ리는디 그냥은 못 넘엀구나 남 신 디만 왈칵달칵 넘엀구나
남신달칵 나뭇골
이하 동문로타리 알녁쪽은 보난 야 높직헌 동산이 잇어 베부른동산 글로 뒈걲어 또로 관덕청드레 오는디 선비덜
모여 갑대다.
선비덜
모여가난 “아이고 저디 갓당 우리 웃드레 춤 바까분다.” 버염 일곱이 이야 넘어가난 칠성통 마련허고 산짓물에 간

노노렌 허난

남문통 송칩이 똘인가 메누린가 연세답 가난 하나 뿔앙 하나 하나 뿔앙 하나 들어앉는 것이

일곱 애똘이 문딱 들어앉나.

아명 젖인 세답은 지엇주만은 허뒈 집이 간 세답을 하나 털민 하나 하나 털민 하나 하나 털민 하나

베염 일곱이 야 물에서 본 거 문 털어지난 젖인 세답 문 널어두고 열두 폭 치메 입언 나오란 "나에게 테운 조상이건 요 치메통드레 듭서." 치메통에 들엇구나 야 고팡으로 간 야 빕젠 허난 글로 절로 고망 난 어느 쪽을 위헐 철이 모르고 뒤에 나간 베려보난 공초헌 땅이 잇엇구나 글로 간 유저 텡저남 알로

모사 갑대다에-.

예허근

모사가난 그 집인 부각부각 부각부각 부귀영화 시겨 갑대다에-.

부귀영화

시겨근

가는 것이

또 이제는 동내서 수군거려 간다 이야 이거 예 버염 일곱 모신 딘 오줌싼 거 똥싼 거 단지 망대기 문짝 던져가난 "지렁내 똥내 난 못 살키여 문딱 갈라지게." "경 헙서." "큰똘아기 어딜로 갈티?"

"창밧할망."

두 번쩬 동헌할망

시 번쩬 과원지기 니 번쩬 마병 군기할망 다섯 쩬 창지기할망

ᄋᆞ섯 쩬 "뒷칠성으로

가쿠다." "어머님은 어딜로 가쿠가?" "난 안칠성으로……." "서룬 어머님 질 잘 값수다." "게거들랑이 정월 이월 삼월 ᄉᆞ월에 금요랑 소리 왕글젱글 나거들랑 날 춪아오라 떡영 궤기영 하영 받앙 나뒁당 느네덜 문 갈라주마."

"어서 걸랑

기영 헙서."

- 핵심어 : 가나목골, 미움산, 장설룡, 송설룡 부인님, 칠성아기, 백일정성, 천상베필, 오장삼, 올레팡돌, 남문통 송칩, 창밧할망, 동헌할망, 마병 군기할망, 창지기할망, 뒷칠성, 안칠성, 떡, 궤기

W_M_012 할망본풀이

2006년 8월 13일, 남원읍 태흥리 강금춘씨 댁, 강정식 조사.
마치순(여, 1948년생, 표선면 표선리)

남원읍 태흥리 강금춘씨 댁의 신굿에서 수심방을 맡아 불도맞이에 해당하는 '월일광불도 칠성맞이'에서 구연한 자료이다. 선 채로 요령을 흔들면서 구연하였다. 할망본풀이(삼승할망본풀이, 멩진국따님아기본풀이), 구할망본풀이(구삼승할망본풀이, 동이요왕따님아기본풀이), 마누라본풀이의 내용이 두루 망라된 형태이다.

천왕불도 할마님 지왕불도 할마님 인왕불도 할마님네 홍씨 박씨 서씨여레 할마님네, [불청] 불도 네공전 금벡당 불도할마님네덜,

에~ 구불법 할마님이 먼저 탄생허엿수다 구월구일 탄생허시고 생불 할마님은 삼월 삼진날 예 삼진 정월 초사흘날 탄생허엿수다. 동이용궁 할마님이 에헤 아방국은 동이용궁 어머님은 서이용궁 뒈여지여, 이십 쓰물 삼십 서른 넘어강도 헤기 허멍 아방 몰라 강벨 섣둘 꿈에 선몽허여 [불청] 애기가 포테뒈면 두 석 달에 이거 물로 네려불고, 인간벡성 벌어질 수가 없어집대다.

동이용궁 할마님 포테가 뒈연 탄생헤연 보난, 구월구일날 탄생이 뒈엿십니다. 에헤 이 아기 훈 설 두 설 열세 설 뒈여지난 아버님 삼각쉬도 거스려 갑디다. [불청] 젖가슴도 [불청] 갑니다. "천하에 못쓸 ᄌᆞ식을 탄생이 뒈엿구나 어서 나고가라." 헤여가난, 에 서룬야 동이용궁 부인님은, "아이고 애기야 나고 인간세상에 나가근 훈 가지 재주는 잇어산다.

인간이 생불할망이 엇어지난, 느가 강 생불할망 노릇을 허렌." 허연, 아방 몸에 검은 피 어멍 몸에 흰 피, 일곱 둘 열 둘 준삭 체왕 포테 주엉 몸 헤산법을 ᄀᆞ리치젠 허난, 동이용궁대왕 "어떤 일이냐 어서 나고 가렌." 헤연 무쉐설콱을 차노난, 에헤 임박사 임보루주 댁에 가근 무세설콱에 놓안 저 바당에 띄와부난, 동바당 흥당망당 서바당 흥당마당 석삼년 석삼년 어허 살단 보난 선유물 바당에 무쉐설콱이 똑 허게야 떠올렷구나.

이때야 임박사 임보루주 이십 쓰물 삼십 서른 사십 마흔 근당허여도 애기가 엇어지언 선유물 알에 도ᄂᆞ려갓구나. 무세설캅 올란 보난 임박사 임보루주 개문개탁 글 삼 제를 씨여지연 시난, 개문개탁을 헤연 보난 월궁에 시녜 ᄀᆞ뜨고 초신에 박당 ᄀᆞ뜬 어여쁜 애기씨가 앚앙 잇이난, "아이고 어떠헌 귀신이꽈 생인이꽈?" "귀신이 무사 오느니. 나는 야 생불할망이 뒈엿구나." "아이고 잘 오랏수다.

우리가 부베간이 귀헌 거를 없어도, 야 ᄌᆞ식 없어 호호탄식이 뒈여지옵니다. 에헤 야 우

리 애기 어멍 몸에 포테나 시겨줍서.” 아방 몸에 감은 피 어멍 몸에 흰 피로 몸에야 포테 석 둘 열흘 야 열 둘을 ᄀᆞ만 체왕, 에 포테는 주어놓고 몸 헤산법은야 야 베우지 못허연 왁왁 허여부난, 아이고 웬 줏갱이 긋아도 야 피만 나고, ᄂᆞ단 줏겡이 긋아봐도 피만 나고, ‘아이고 영 허당 애기어멍 살 디 애기 죽고 애기 죽은 디 어멍 살고 어멍 죽을로구나.’

임박사 임부루주 옥황드레 금바라 옥바랑, 신연벡무 전조단발허영 석 둘 열흘 벡일기도 허난, “어떤 인간이 이 모양 어~ 금바랑 전지를 석 둘 열흘 벡일을 울렸이닌?” 허난, “아이고 인간에야 임박사 임보루주, 할마님 포테네련야 몸 헤산을 못 시기난 어허 어멍 살리곡 애기 살려줍센 헤여서 금바랑 소리로 울렸수덴.” 허난,

그때엔 옥항상제님이 “인간생불 할망이 엇어지엇구나. 어서 생불할망을 ᄂᆞ려사렌.” 허난, “어느 누구가 생불할망 뭘 ᄌᆞ격이나 잇느냐?” 어~ 만조벡관 제대신드레 멩령을 ᄂᆞ리우난, 에 “멩진국땅 멩진국뚜님애기가, 똑똑허고 역력허난 이 애기 인간생불 할망으로 ᄂᆞ리는 게 어찌난 뒈옵니껜?” 허난 “기영 허거들랑 어서 강 멩령을 네리우렌.” 허연, 만조벡관 제대신야 [불청] 집으로 들어간 야 “옥항상제님 명령을 네려오시난, 멩진국뚜님 애기씬 어서 인간이 ᄂᆞ려상 임박사 임부루주 부인 열두 구에문 열리지 못허연 죽을 ᄉᆞ경 일럿이난 어서 ᄂᆞ려강, 몸 헤산을 시기렌.” 허난

멩진국 대왕님 허는 말이 “아이고 우리 애기 ᄌᆞ식은 아이고 대곡 어떻게 생불할마님이 뭘 수가 잇습니껜?” 허난 그때에 멩진국뚜님 애기씨, “아이고 아버님아, 이거 옥황상제님에 멩령을 받아 거역을 헐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 야 인간 멩진국 생불할마님을 ᄂᆞ려사켄.” 허연, 예 옥황상저님에 예~ 들어갈 디 한간대천 어간을 헤여, 옥항상저님이 들어삿이난, 옥항상저님이 허시는 말이, “어찌허여 여자가 한간대청 문전을 어간헤여 들어오랏이닌?” 허난,

그때엔야 멩진국뚜님애기 허는 말이 “옥항상저님아 똑똑허고 역력헌 남자덜 놔돈 어찌허여 이런야 버릇 없는 여릿녀를 이거야 생불할망으로 ᄂᆞ려사렌 허엿습니껜.” 허난 그때에 옥항상젯님도 ᄒᆞᆯ 말이 엇언, 아이고 기열 석에도 “어서 강 생불할망으로 들어강, 임박사 임부루주 부인 살려사 허켜.” “어떵 허여 나가 몸 헤산을 시킵니껜?” 허난, 아이고 기열 석엔 “어서 춥실 ᄒᆞᆫ 줴 일곱 걸리 걸러메고 은주랑 철쭉대 [불청] 멩지장 장옷 게명티 저고리야 [불청] 불림친 치마에, [불청] 감티에 나막창신에 멩둥버선, 할마님 헹착을 출령 노각성 ᄌᆞ부연줄로 어서 ᄂᆞ려사라.”

영 헤영 옥황상제님이 멩령을 받아, 안방이 들어사젠 허난 한간대청으로 들어가근, 상ᄆᆞ를 활짝 열언 들어간 보난 애기어멍 죽을 ᄉᆞ경이 뒈엿구나. 아이고야 할마님은 [불청], 에헤 애기어멍 알엣 베 웨우 ᄂᆞ다 삼세번 쓸어가난, 애기 머리 돗언 야 애기 고양 탄생을 허난, 아이고 할머님아, 야 이거 세베여 놓아 벳도롱줄 쫄리곡야 북덕자리 옛날에 북덕자

리에야 영 헤여산다. 아흐레랑 치셋메 헤영 올리곡 애기 어멍 몸 모욕시기곡 애기 몸 모욕시경, 첫젓을 물령 먹게 허곡, 치셋메 초일뤠 치셋메 열일뤠 치셋메 쓰무일뤠 치셋메 헤영 올리는 법을 마련 허영,

할마님 멩진국 할마님 몸 돌라놓안 치셋메를 받젠 허엾이난 동이용궁 뚜님애기 "어떠헌 년이 나가 생불을 주엇인디 너 무음대로 몸 헤산을 시켯느녠?" 허멍, 느 머리 메딱 나 머리 메딱, 싸움질을 헤여가난 아이고 옥황상제님에 등장을 드난, "털망도사 네리우라." 옥황드레 올라가, [불청] 아이고 얼굴도 흔 모습이요 나이도 흔 동갑이여 메치도 흔 메치요 골리울 수가 엇이난 옥황상저님이 멩령을 네리와간다.

"너이들 서천세약국 들어가, 은동이 놋동이에 꼿씨를 타당 싱거근, 번성 환성허는 잘랑이승 생불할망으로 들어사곡, 금뉴울이 지는 자가 저승 구할망으로 들어사게." 멩령을 네리와갑디다.

서천세약국 들어강 은동이에 놋동이에 꼿을 심어가는구나. 멩진국 할마님야 생불꼿은 불리는 삼불리고 가지는 수만수천 가지가 번성이 뒈여가고, 동이용궁 할마님 싱근 꼿은, 가지는 아홉 가지 아이고 금뉴울이 뒈여가난 옥황상제님 명령을 네린다. "멩진국 뚜님애기 널랑 어서근 인간생불 할망으로 들어사라. 야 동이용궁 뚜님애길랑 구할망으로 들어사라." 그때엔 구할마님 성질을 파락 네멍 야 할머님 앞이 꼿사발 상가지를 확 허게 꺾으멍 나고 가는 것이, "[불청] 활수 좋고 야 똑똑헌 년도 할마님 포테 네류왕 놔두민 날랑 궂인 물로 흘러불게 허곡, 애기야 벡일 넘엉 아장아장 걸엾이믄 확 급헌 걸음 놀려, [불청]" 헤여가난 그때엔야 멩진국할마님이, "아이고 원통헐 게 있습니까. 옵서 날라근 웃섯질로 사커메 구할마님이랑 알상실로 상을 받으라." [불청] 그때에 화잇잔(和解盞)을 내여놓아 할마님은 초사흘 초일뤠 열사흘 열일뤠 쓰무사흘 쓰무일뤠 할마님 상을 받곡 동이용궁 할마님이랑 흔 아흐레 열나흘야 에헤 열아흐레 열나흘야 열나흘야 에헤 스무아흐레 스무나흘 에헤 흔 둘 일곱야 상불 받기로 헤여 갑디다.

동이용궁 할마님에 화잇잔 나누엉 물 알로 숙여주고 멩진국 할마님 노각산 주부연줄로 어서 간 살앗는디, 어별상 흐르 천명 만명 포테를 주곡야 탄생을 시겨 갑디다. 에헤 흐를 날은 늦인덕 정하님에게 에헤 아침 이슬 받아먹엉 물 이슬 받아먹엉 어여쁜 애기씨 탄생을 시겨, 에 늦인덕이 정하님구라 이 애기 봤이렌 헤여두고, 에헤 동순력으로 누려상 서순력으로 서순력으로 누려산 동순력으로 돌단 집이 오란 보난 아이고 애기 이거 이야 흔 침을 질러부난, "어떵 헌 일이녠?" 허난 "아이고 야 이거 큰일낫입니덴." 허연

할마님 동순력 서순력 누려살 때에 에헤 홍진국 어진국 대별상 누려사가단 상가메 벌련 독게 돌려 가메를 가가난 높은 어른이 연이난 솔짝허게 흔쪽드레 사가난 불호령을 헤여간다. "어떠헌 여자가 이거, 양반이 행찻길에 앞을 질을 칼랐이녠?" 허난 "어느 누게 뒈엾

인?” 허난 “얼굴 ᄎᆞ지 홍진국 대별상이 뒈여진덴.” 허난, “나가 생불을 아니 뒈연 어찌야 이거 홍진국야 너이 대별상이 뒐 수 잇느녠?” 허연 집이 오란 보난 애긴 춤질을 실러주난, 늦은덕 정하님신디, 안문서도 들러오라 밧문서도 들러오렌 허난, “홍진국 어진국 대별상 양오 메눌애기에 할마님이 ᄂᆞ려삿수덴.” 허난 “아이고 그거 잘 뒈엿구나.” 열 ᄃᆞᆯ을 ᄀᆞ만 차도 몸 헤산을 아니 헤여주어가난, ‘아이고 어진국 대별상 큰일이 낫구나.’ 어서 어진국 대별상 부인님은 “할마님에 강, 어서 등장 드령 애기 몸 헤산 시겨 줍센.” 허난

어허 베낏들로 ᄂᆞ람지 ᄀᆞᆯ아놓안, 엎대여 벡 보 베낏디서 굽어 승천허멍 “할마님아 과연 잘못허엿수다. 어떵 헙니까. 우리 ᄌᆞ부애기 몸 헤산 고양 시겨줍센.” 허연 빌어가는구나. 에헤 석 ᄃᆞᆯ 열흘 벡일 빌어 “이제도 비느냐?” “빌없수다.” 경 허걸랑 대오방 수천리를 불러주라. 대오방 수천리를 불러주어 “이제도 비느냐?” “빌없수다.” “ᄌᆞ작벳을 불러주라.” ᄌᆞ작 “이제도 비느냐?” “이제도 빌없수다.” “기영 허거든 어서 일 강 잇이라.” ᄇᆞ름 풍파 불러주어도 “이제도 빌없수다.” “어서 강 잇이라. 가믄 몸 헤산시겨 주켄.” 헤연 할마님야 어진국 대별상야 메눌애기, 은질 ᄀᆞ뜬 손 금질 ᄀᆞ뜬 손으로 삼세번 웨우 ᄂᆞ다 씰어 애기 어멍 머리 돛언 애기 낫구나. 얼굴도 눈도야 코도 입도 엇이 박박세기가 뒈여지난 “아이고 할마님아 어떵 헌 일입니까?” “너이덜 애기 탄생시겨 도렌 허엿지 얼굴 곱고 고운 몸메 내여도렌 빌엇느녠?” 허난,

“아이고 할마님아 과연 잘못허엿수다. 어떵 헙니까 살려줍센.” 허난 할마님, 은질 ᄀᆞ뜬 손으로 은ᄀᆞ세 내여놓아 우이로 알르레 딱 허게 ᄂᆞ려 긋이난 애기씨, 고운 몸메가 뒈여지난 아이고 어진국 대별상님도 할마님에 엎드려 굴복허여 “할마님 영급 좋은 할마님이우다 수덕 좋은 할마님이우다 할마님전 상을 바찌쿠다.” 헙대다.

할마님 금세상에, 노각산 ᄌᆞ부연줄로 삼진 정월 초사흘날 초일뤠 열사흘 열일뤠 스무사흘 스무일뤠 할마님 상을 바쪄, 멩 없는 ᄌᆞ순덜 멩을 제겨 줍서. 복 없는 ᄌᆞ순덜 복을 제경 할마님 열다섯 십오 세 너비 네웁곡야 수둠 주멍 물 주멍 키와주는 할마님 아닙니까.

- 핵심어 : 생불할망, 동이용궁 부인님, 불도할마님, 옥항상제, 멩진국 대왕님, 멩진국 할마님, 서천세약국, 꼿씨, 홍진국, 대별상

Ⅲ. 현지 조사 자료

전설

W_L_001 가시리 당팟당장

2016년 10월 18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이현정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조사자] 그 당팟당장 얘기도 알고 계시지예?

[제보자] 아, 그거는 이제 그, 실지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전설이 아니고.

[조사자] 당장, 당장이라는 게 벼슬 이름입니까?

[제보자] 예, 직함 이름이지요. 저, 그 헹교(鄕校)에서, 그, 학생 반장 아니고…. 뭐, 그 직접 담임 교사?

[조사자] 담임 교사.

[제보자] 지금으로 치면은, 학셍들 직접 가르치는 이 저, 거 이제는 그 선생이여. 선생인데, 그 당팟 그 그러니까 이제 그 당팟 이제 그, 당장이는 성이 이제 김씨고.

[조사자] 김씹니까?

[제보자] 김씨고, 이제는 이게 이제 그, 손자…가 가시리에 살앗어.

[조사자] 표선 가시리 말씀하시는 거지예?

[제보자] 어, 어. 아주 오래지 안 했습니다. 그런디 이제, 그 당팟당장이는 아주 이제는 힘이 쎈 분네. 근디 남 먹는 것에 흔 삼사 배를 먹어. 그러니까 언제나 곤란헤. 왜 그러냐 허믄 엿날에 일을 하루 헤도 하루 일당 몫이 얼마를 주지, 일 많이 한 양으로 주지를 않는단 말이여.

이게 힘이 쎄니까 힘든 일은 많이 헐 텐데, 그러니까 생활이 언제 나아지는 곤란헙니다. 곤란허니까 주로 이제 뭣을 헤서 사냐 허믄 이 양반은 이제는, 산에 가 가지고, 이 집 짓는 나무. 이것을 베요. 아무거나 베는 게 아니라, 이제 예전 칩은 한 칸 두 칸, 인거 칸 수가 길이가 꼭 같으기 때문에 멧 자 되는 나무 멧 개 이 쓰인 나무 숫자 허면은 집 한 채 나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에 가서 그 나무를 이제 이런 이제 뭐 대들보 헐 나무 이거 포헐 나무, 우에 연목 헐 나무, 이거 다 이제는 비어서 이제는 그 집 한 거리가 치면은 예전에 우리 이제 이, 그 동촌 제주도 풍속은 집을 지을 때는 일가나 동네에서가 무작정 공짜로 다 일을 헤줍니다.

그니께 뭔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 제주도에서는 집 없는 사름은 없어. 왜 없느

냐 그러면, 아들, 예를 들면 세 성제 나면은, 살던 집은 큰 아덜 물려주고, 둘째 셋째네 집을 지어줘야 뒐 거 아니요? 그런디 그래 줄려고 하면은 이제는 흔 번에는 안 되니까. 매년 다니면서 나무 큰 거 적은 거 대개 상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하면은 얼마만츰

"큰 나무가 멧 개 필요허고, 얼마만츰 큰 나무가 멧 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나무만 준비를 헤 두면은, 대개 이제 초가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하면은, 대개 삼개월 멕혀요. 이제 우리 어릴 때꺼지도 게믄 이제 그냥 집일 시작허면은 그냥 ᄌᆞ반도 자기 집에서 먹고 점심만 그 집에 가서 먹고, 동네 사름 일가 사름이 전부 가서 공동으로 일헤줍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제, 목수만, 게 목수는 먹줄 테우고

"여기 고망 파시오. 이 나무 깎으시오."

하면은 서툴든 뭣이든 다 따라가지고, 그래서 한 삼개월 헤서 이제, 이제 집을 끗메치고. 이제 그런 나무 운반도 다 그냥 공짜로 가서 헤주고.

그러니께 이제 이 양반은 벌이가 뭐냐 그러면은 그냥 농사지어선 그 배를 못 채우니까, 못 채우니까, 이제 산에 가서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제 한 집 거리민 나가 이 집 거릴 나무를 헤 놧으니까.

"이걸 좀 갖다주시오."

그러면 동네에서 싫든 좋든 이제, 엿날에는 그 마차가 요즘ᄀᆞᆺ이 없으니까 소, 말 다 끌고 가서 나무에다가 구멍을 뚭거나 줄로 묶어 가지고 소에 달아가지고 끌고 오거든요. 아, 근디 매 년 집을 지으니까, 한 짐(웃음), 한 해만 지어야지, 그 집, 집 일만 매년 허니까 좀 이제 불평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불평을 허니까.

이제는 ᄒᆞ루는, 이런 집인데 이 우이에 이거 이 서까래, 이거 제일 적은 나무거든요. 힘이 세니까. 집 한 채 치 서까래를 그냥 한 짐에 지엇어, 요 집에 가서 나가 매년 이 동네 살아서 집을 매년 지엇어, 수고스러우니까.

"나 이제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제 집에 가서 얘기 헌데, 그대로 간 거 아니요, 제주도 길이 쫍잖아요. 그 나무를 지우가면 담, 담이 다 무너져, 다 무너져. 그 동네를 다 돌아다녀. 겐 동네 어른이 보니께, 집집마다 인사하멍 그 동네 담이 남, 남지 살아그네 남지를 않에 가지고, 그걸 쌓노라고 헤도 또 일이 되것어, 으잉? 그 동넷 할망.

"아이 제발 너, 저 그 섭섭헤서 그러지만은 그러지 말고, 그냥 어, 저, 이 동네 그냥, 살어라."

헤서 그래서 이제는 그 살곡 뭐 이자 힘센 뭣 설화는 뭐 그 양반은 많주, 이제.

[조사자] 그믄 당팟당장이렌 헨 어른은, 그 동네에서 하도 그 배가 하도 커노난, 멕이기 힘드니까.

[제보자] 예.

[조사자] 영 헨 도외시헤 분 거구나, 영 무시헤 분 거지예?

[제보자] 예예, 그니까 좀 이제 안 좋게 봣주. 기니까 좀 이제 먹을 거 없으면 일가 집에도 가서 좀 핑계헤서 허곡. 예를 들면은 이제 흔 번은 배가 고프니까, 그 누님이 쪼끔 그 동 우에서 아마 생활했는데, 그 누님헌테 가서.

"밥을 좀 주시렌."

허니까 아이 밥이 요기 그니까 보통 사름 한 번 먹을 거, 시 번 먹을 거나 줘야 되는데.

"아이, 밥이 남은 게 이거벢인 없어가지고 아이 이것만 이제 먹으라고."

이래서 주면서, 아이 그 농담 비슷허게

"야게! 밥을 헤 주면 뭐 일이라도 허멍 밥을 줍센 헤야지. 그냥 와서 밥 ᄃᆞ렌 허믄 어떵 허느니?"

그 초가집 그 앞에 난간 있잖아. 보니까 난간이 헐렁헐렁 허고 있거든, 다 떨어져가지고, 그니까.

"아이 그믄 나 밥 값 헹 와서 먹으쿠다."

허멍 나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는 그냥 통나무 이만축 헌 것을 그냥 얼른 베어가지고는 난간 헐 만이 길이로, 이제 끊어가지고 메고 왔어. 그래서 그 문을 지는 난간 위로 그것을 탁 누면서.

"이만허민 이거 난간이민 이 집 무너질 때ᄁᆞ지 안 헐 거우다게. 경 헨 난간 헷이메 밥 줍서 헷어." 이제.

[조사자] 밥 얻어 먹고, 빌엉 먹고예.

[제보자] 예, 밥 얻엉 먹고, 이제 모든 그 힘으로만 그래서 산 양반이야. 에 그거는 이자 실지로 있었던 분네입니다. 게 거 손자도 힘은 모르지만 체격이 우리 기억으로 아주, 좀 보통 분네보다는 좀 컷어, 그 사람들이.

"저거 당팟당장이 저 손자." 라고.

[조사자] 집안이 체격이 막 좋앗인게마씨?

[제보자] 그랬던 모냥이야.

[조사자] 응, 난 집안이구나.

[제보자] 예, 그러니까 그리 이제 힘도 세고 또 요즘 같으면 조금 좀, 어, 뭐라고 할까 좀, 그런 좀 농담도 잘헷어. 그런 좀, 그 좀, 뭐 지기로 그냥 좀 어떻게 말로 떼우기도 잘헷고.

[조사자] 음, 말로 떼우기도 잘허곡.

[제보자] 응 잘했고.

[조사자] 그믄 잘 먹기만 한 게 아닌게마씨예?

[제보자] 어, 그냥 무작정 이 사름은 배고프니까 없을 때는 좀 신세를 졋주만은 그냥 무슨 심보가 나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도 뭘 알아지고 그니께, 주로 그 집을 헤서 먹고, 집 지어서 먹고 살기는 했는데(웃음), 집은 허믄 동네 사름들 다 지어 줘야 되니까. 매년 집을 지으니까 동네 사름들이 불펜헷어. 좀 그런 뭣은 잇고, 무슨 심보가 나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그 동네에서 아주 춤 어려운 일, 그 어려운 일 뭐냐 그러면은, 말덜을 훈련시길 때에, 방목을 하는 때문에 줄 던져서 그 말이 걸려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아주 그 잘허는 사람인디, 그리 체격은 안 좋은 이 사름은 체격이 좋으니까 그것을 잘헷어 아주 그 사나운 말은 그 사람이 전부 잡았고, 또 그 셍마를 말 타는 것 ᄀᆞ르칠 때에 그니까 우리 이제 지금 뭐 ᄌᆞ랑말, ᄌᆞ랑말 하지만은 제주돗 말 중에도 옛날은 이 딱 안 허고 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아주 큰 말덜은 그 훈련시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원체 체격이 좋고 힘이 세니까 그냥, 완장도 안 허고 셍말 타면은 말 배로 그냥 팔을 요리 까가지고는 뭐 말이 백 번 뛰어도 안 떨어져가지고, 제 힘에 말이 피곤헤가지고 그냥, 말 잘 들을 정도로 요리 만들고 헷어. 그런 것을 또 이제 업으로 이제는 헷고.

[조사자] 어, 잘도 수완 좋은 어르신이네예.

[제보자] 그니까 힘이 세니까 그때는 그런 힘센 것을 빌어서 헐, 일헐 사름이 없어서 이제는 그 고생을 헌 것이지. 요즘 같앗으면은 헌 디, 그때는 그런 힘센 일을 그리 맨날 잇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만 지어서는 얼마 수입이 안 뒈고 그러니까. 그추룩 집을 지어서 먹고 살앗지.

- 핵심어 : 가시리, 당팟당장, 힘 쎈 사람, 나무, 담, 배가 큰 사람

W_L_002 가시리 오벨장과 현씨 후손

2016년 10월 18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이현정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제보자] 응. 중문이 그 유명헙니다. 그 양반이, 그 집, 그 부잣집, 뭔 집이라고 했는데 거 있었네. 이쪽에서는 그 하여튼 힘 쓰기로는 근세에는 그 당팟당장이고, 그보담 썩 오랜 때에는 것도 실지 인물, 가시리 저 오벨장이라고.

[조사자] 오벨장예.

[제보자] 그 체격은 안 크고 힘이 세가지고 힘이 좋아난마씨 거긴?

[제보자] 응. 그래서 과거해서 무과도 허고, 서울 가서 베슬도 허고.

[조사자] 겐 별장이구나.

[제보자] 응. 겐 별장인데, 이 저 보통 듣기로는 그 양반은 보통 사람 힘 드는 것을 열 사람 몫은 든다고 해요. 그니까 이제 예전에는 자기 산소가 요리 있으면은 딴 사람이 옆이 가서 산 쓰면은, 다퉈서 못 쓰게 하거든요. 어 그런데 그 양반네 산이 저 세화리 그 이제 그 돈오름? 그기가 있는데 어디 저쪽으로 저 현씨 댁에서 와서 거 가까운데 산을 쓰려고 허니까. 아 저거 현씨덜도 갔어.

[조사자] 현씨?

[제보자] 응. (불청)

"이제 나는 일가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그 산 쓰려고 하믄 일가들이 다 가서 다투거든요. 그 자손이 많으면 한데.

"나는 일가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일가들 모여와서 다투지는 안 헐테고, 이제 그 뭐 그 철퇴 아주 큰 이제는 보통 한 사람은 들 수 없는 그걸 들고 가서

"내가 이 우리 산소에서 이것을 던질 테니까, 그 던진 길이 바깟테만 쓰면은 나는 말하지 안 혀겠다."

그니까 이 안네는 쓰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께

"그 사람이 걸 던져 봣자 뭐 요즘말로 허면 멧 미타 못 단질 거라."

헤서, 그 현씨들은 그 산 가까이 가서 산자릴 잡아놨는데, 아 그러나.

"그거 좋다. 우리 다투지 말고 그러자."

그니까 그냥 그 양반은 그냥 그 뭐, 그냥 아마 흔 아마 이삼백 메다가 더 넘지? 그리 던져서 지금도 그 산소 가믄 그 현씨 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던지니까 할 수 없이 그 (웃음) 현씨덜은 그 바깟디로 나가서 이제 산을 쓴디, 그 현씨들 말로는 "그 뒤에 지관덜을 들어보니까 우리 집 운이 좋아가지고, 그 가까운데보담 차라리 먼 데가 자리가 더 좋다고 해서, 아 그 오벨장이 저 힘두 세서 뭣했지만은 또 우리도 그냥 욕심내서 갔다가 그 운이 좋아서 그렇게 멀리 썻다."

그래서 그 두 집안이 사이덜 좋게 지내요, 지금도.

[조사자] 아, 사이가 좋아마씨?

[제보자] 어.

[조사자] 다행인게마씨. 그게 세화 돈오름.

[제보자] 돈오름.

[조사자] 돈오름에 있습니까?

[제보자] 오벨장 후손도 가시리에 있을 거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현씨들은 저 하예린데 아덜이름이 현○○가 농헵에 오래 근무했어, 그 현씨 종손인데.

[조사자] 현씨 후손들이예?

[제보자] 예.

- 핵심어 : 가시리, 오벨장, 현씨 후손, 세화리, 돈오름, 산소, 지관, 철퇴

W_L_003 강초강물

2016년 10월 18일, 조천읍 신촌리 허재군씨 댁, 이현정 조사.
제보자1: 허재군(남, 1948년생, 조천읍 신촌리)
제보자2: 전옥순(여, 1953년생, 조천읍 신촌리)

[조사자] 강초강물 얘기나 흔 번 더 해주십서.
[제보자1] 거난 그거는 내가, 그, 깊이를 못 들어버리니까, 그.
[조사자] 아시는 것만.
[제보자1] 그, 강초, 강초란 말이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이 부떠졋는가를 내가 모르지, 대충 말만 들은 것이, 그, 묫자리를 쓰젠 헷인가, 어떵사 헷인가.
[조사자] 거기에?
[제보자1] 응, 했는데, 그거를 돌을 이렇게 빠노니까, 비둘기가 날아갔다고.
[조사자] 비둘기가 날아갔다고?
[제보자1] 응.
[조사자] 그믄은 돌이 막, 큰 돌?
[제보자1] 어, 고망 이만이 허지 이만.
[조사자] 아름, 한아름, 이렇게.
[제보자1] 어어, 한아름.
[조사자] 거기에 저 뭐냐, 무덤을 쓸라고, 묘를, 묫자리를 쓸라고 파 냇인디, 물이 나와 불엇구나? 겐 안 쓴 거 아니?
[제보자2] 물이 아니고 비둘기가 나왓덴 허는….
[제보자1] 물이 아니라 비둘기가.
[조사자] 아, 비둘기가 나왔다.
[제보자1] 그걸 빠 불언, 걸 인제 돌 빠 부니까 거기 인제 웅덩이가 돼가지고 물이 고인 거지. 게서 이제는 수도도 잇고, 삼다수가 저라 다 하주만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엇으며는 그 주변일대 사름덜이 밧데 강 일허당, 그디 강 물 길레 강 게서 먹고 허주.
[조사자] 맞아 길어당 먹고예.
[제보자1] 그 옆에가 또 우리 밧이 잇어낫고.
[조사자] 응.
[제보자1] 밧이 잇어낫고.

- 핵심어 : 강초강물, 묫자리, 큰돌, 비둘기, 웅덩이

W_L_004 강칩 논과 막산이

2016년 12월 1일, 애월읍 애월리 애월리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제보자1: 양병연(남, 1928년생, 애월읍 애월리)
제보자2: 000(남, 애월읍 애월리)

[조사자] 막산이? 막산이는 뭐꽈?

[제보자1] 그 말들을 못 들없인가…. 애월도 아니고 곽지도 아니고 옛말인디. 전설인디. 도노미 강댁에 살앗주기. 막산이구석이라 헤가지고. 일름도 막산인지 먼지 모르고 힘이 세엇어. 힘이 세니까 식량을 ᄆᆞ음대로 어디 주인을 잡아도 먹을 것이 ᄆᆞ음대로 못 먹어. 못 먹으니 이제 들로 나가가지고 소 도둑질허멍 잡아 먹엉 살았거든. 게니 막산이구석이라고 애월 바른 디 원 동녁쪽에 잇어, 움탕헌 디. 거기에 집을 짓엇어.

[조사자] 움탕한 디?

[제보자2] 강칩이 종살일 허는디 멘날 배고파. 논을 짓는디 논을 치는디. 백명이 든다. 막산이신디 두고 허는 말이

“백 놈을 줄 테니까 너가 허라”.

“가겠습니다”

헤 가는 디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혼자 작업하고 잇거든. 게니 백 놈이 밥을 헤 놧는디 알앙 허라. 그놈이 글쎄 백 놈 밥을 혼자 다 먹엇다는 그 말이라. 이해가 되? 경 헹 논를 치는디. 논이 삼천평인디. 그 ᄉᆞ방에 가마기새 때가 막 날아뎅겨. 돌멩이고 뭐고 막 알아뎅겨. 결국 밧을 만들엇다 이 말이여. 경 헤가지고 도저히 이놈을 데령 살 수가 없다. 경 헹 어디가냐 허면 원동 그 짝에 그땐 막산이밖에 엇엇는디 헌 이천평 이상 되는 땅을 노놔주고 너는 여기 살라 헤가지고 움막을, 작은 집을 지어줫다 말이라. 겐디 살면서 먹어볼 것이 없다 그말이라. 게난 지나가는 물도 잡아 먹어불곡. 쉐도 잡아 먹어불고. 다 먹엉 살젠. 게난에 정부에 고소 들어가기를 영영 헹

“원동 그 짝에 지나가는 물도 잡아먹곡 쉐도 잡아먹곡 허니 도저히 농사지엉

살 수가 없습니다.”

허니까 이놈을 잡젠 허니 잡을 수가 없어. 워낙 힘 세노니. 그때는 기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게난 정부에서 생각허기를 이름을 알아보라 허니까 강칩이 일름을 대니.

[조사자] 무슨 강칩마씨?

[제보자2] 무슨 강칩산디…. 일름은 막산이라고 하면 잘 알 거요. 게난 동네 이름을 막산이라고 지엇어.

[조사자] 동네 이름이 막산이꽈?

[제보자2] 예. 막산이. 원동 막산이 살아난 디가 막산이. 막산이라고 지명이 있어요. 원동 막산이. 정부에서 이젠 백 명 먹을 술을 닦앗다고. 백 명 먹을 술을 ᄒᆞᆫ 춘이에 만들어가지고 이놈을 잡을라고, 조금만 먹어선 취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놈을 잡았다 허여.

[조사자] ᄒᆞᆫ 춘이에 담앙?

[제보자2] 백 명 먹을 술을 ᄒᆞᆫ 춘이에 담앙 멕엿다 ᄒᆞ여. 워낙 힘이 세니까.

[제보자1] 막산이 전설이 길어. 저 강정 논이 막산이가 멘든 거. 물꼬 텅.

[조사자] 기꽈?

[제보자1] 아까 ᄀᆞᆯ은 거게. 백 놈 먹을 밥을 헤다 주면 지가 알아그네 물꼬 트켄 허난. 백 놈 밥을 헹 가멍 베려 보니, 그 가는 딘 가마기 떼가 막 놀앐거든게. 먼 일인고 헹 강 베려 보니, 사람은 읏고 막산이 혼자 싯거든. 게난 거 먹엉. 삽질을 허멍. 옛날에 뭔 쇠(鐵)가 셧어. 낭으로 헌 거. 경 헤서 강정 논을 만들엇다. 겡 내중에 죽엇다 헷주. 도노미 강댁에서 장남이 그추룩 들에서 쉐만 잡아먹고 ᄆᆞᆯ 잡아먹곡 헤가니까니

“이거 잡아불어야지 못 쓰키여”

헤가지고 관에 신고해가지고 도노미 강댁이 장남이, 김칩이 장남하고 강칩이 장남하고 둘이. 강칩이 장남은 열리엔 헌디 돌이 영 잇는디 돌을 영 안앙 들렁 탁 박치난. 김칩이 장남은 다시 그 돌을 웃끗 빼어가지고 박힌 걸 빼어가지고 팍 닫으난

“자네가 더 세네.”

김칩이 장남이 세댄 헨. 둘이 가가지고 막산이 가가지고. 이거 혼자는 버칠 테니까 강 잡아가지고 잡앗이니 집군들 오랜 웨울리렌 허난. 김칩이 장남이 문저 들어간 그걸 잡안 웨울르키니 뒤엣 장남이 막 울르멍 들어간 걸 잡안. 감옥에 강 바치난. 갇혀 뒁. 의리엇이 감옥을 뛰엉 나올 거다 각오를 헤가지고 두 놈이 김칩이 장남이영 강칩이 장남이영 이녁 누는 방에 문을 방 베꼇데 문뚱에 영 곱고 방에 사람 모양으로 멘들앗어. 아닌 게 아니라 관에서 나와가지고 죽이젠 기냥 문을 확 열엉 허는 동안에 다시 막대기로 두드려가지고 또 돌아갓젠 허는 거. 돌아간 이제 거기 다시 가두우난. 가두어가지고 헌디 감옥에서 죽엇젠 헌 말이 잇어. 거기서 죽으난.

[조사자] 강칩이? 김칩이?

[제보자1] 강칩이. 강칩이 장남이 경 헹 다시 심어가니까. 이제 거기서 죽엇는디. 원수를 풀더라 헤여. 강칩이서. 강침이 들어가가지고 막산이가 원수를 푸는디.

[조사자] 아, 강칩 종이라 부난?

[제보자1] 응. 강칩이 장남이 감옥에 가게 헤 부난. 어떻게 원수를 푸느냐 허며는 ᄀᆞ을에 조는 막 익었는디 그때에 강칩이 누게 제ᄉᆞ라. 제ᄉᆞᆫ디. 우영 조밧디서 사람이 죽나 사나 하는 소리가 나니까. 제ᄉᆞ니까 강 볼 수도 없고, 제 지내두고 이튿날 아침에 강 내려보니 조도 판찍허고 헷는디 장남이 죽엇거든. 조밧디서. 조는 멜라지지도 안 허고 장남이 그냥 거기서 죽으난 원수풀이 헷다 허여. 영혼으로 오랑 죽엿다 헤가지고 그런 전설을 우린 들언. 춤말인지 그짓말인지 모르커라.

[조사자] 그건 어느 마을 전설이꽈?

[제보자1] 어느 ᄆᆞ을에 전설이렌 ᄒᆞ질 못허크라. 우리가 들은 말이난.

- 핵심어 : 막산이, 강정, 논, 도둑질, 원동, 강칩

W_L_005 고성리 최동이 장사

2016년 11월 18일, 제주시 용담동 양동의씨 댁, 문경미 조사.
양동의(남, 1931년생, 제주시 용담동)

[조사자] 양씨 가문에 머슴으로 잇엇댄 헷인가 그런 말 헙디다. 굉장히 힘이 세고.

[제보자] 한마디 그 얘길 하니까 들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옛날에 곡식을 찧을 때 옛날엔 정미소가 없어서 곡식을 보리라든가 벼라든가 이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이런 남방아가 있어 남방아가이, 가구도 멘들고 말이지, 우리집에도 있어. 우리 집은 그때 좀 부농 농가였었지. 밧이 많이 잇엇어. 그러다보니까 농사도 많이 지어야 하니 머슴들이 몇 명 있었던 모양이여.

지금 얘기하는 그 사람은 소위 최동이라고 그래서 힘이 셌던 모양이여. 그래서 그 남방아를 산에 가서 멘들어 올 때 계획을 수립을 해서 모든 준비를 갖출 때 그 기간을 그 작업하는 기간을 한 일주일 줬던 모양이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양식이니 뭐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며는 거 귀찮게 양식이니 뭐니 갖고 갈 필요 없이 흔꺼번에 밥을 ᄒᆞ고 흔꺼번에 갖고 가면 흔꺼번에 먹고 가서 해 오겠다고, 그런 말이 잇어이.

그래서 작업을 해서 인저

"왔습니다."

하고 인저 집안이 어르신한티 보고를 했단 말이여. 그니까

"물건은 어떻게 두고 너희들만 와서 다 했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 그 남방아를 그 사람 혼자서 모자 쓴 거 모양으로 머리에 턱 올려 쓰고 말이여. 그래서 우리 동네 고성 가운데 와서 그걸 내려 논 모양이여. 내려 놔서 여기 와서

"보십시오."

하고 했던 모양이여. 뭐 그런 얘기지 뭐.

- 핵심어 : 최동이, 장사, 머슴, 남방아, 고성리

W_L_006 관덕정과 송씨 하르방

2016년 12월 20일,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마을회관, 송정희 조사.
김춘옥(여, 1939년생, 구좌읍 종달리)

[제보자] 엣날에 송씨 하르부지가 잇엇어이. 그 하르부지가 이제 이 저 목순데 우리 어디 관덕청을 짓젠 허면은 목수 그 자격증을 따야만 이 관덕정을 짓게 뒈어. 겡 헹 종달리 하르부지딘 영 가는데 걸어가다 보니깐 이제 저 북촌 북촌 그 펭나무 잇는데 갓인디 새벽 한 시쯤 뒌 때라. 어떤 사름이 키도 작으만헌 사름이 와가지고 톡 앚아가지고

"아 난 인간이 아니고 귀신인데, 제사를 얻어 먹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헌 거라. 게난 어디서 완디 허니깐 성읍리. 엣날은 도청이 성읍리라서 엣날에. 또 도청이 제주시 갓주만은. 엣날엔 그 성읍리랏어. 게난 거기 사는데 이제 처갓 쪽 따라 가지고 내가 죽어부니깐 이제 신촌에 와서 사니깐 제사를 십년 동안 얻어먹질 못한다는 거라. 거기 오면은 닥 울어부난 구신은 닥 울민 돌아와야 뒈여. 이, 돌아오면서 그 우리 종달리 하르부지를 잡고

"나 식게 얻어먹게끔 우리 아덜네 집이 이제 형제고 딸 하나인데 가다보면은 신촌에 제사 넘어나 불 싸 잇일 거라."고.

엣날은 막 밥 돌리고

"잇수과? 잇수과? 잠자는 디 잇수과? 잇수과?"

허멍, 이제 나를 때니깐

"불 싼 집만 찾아가면은 뜰림엇이 나 제삿날이난. 이제 응감을 못허여도, 이제 그디 가서 제사 퉤물 얻어 먹고, 이제 허면은 그 전달만 잘헤주면은 이제 관덕정 짓는 이제 목수 자격증을 자기가 들어서 이제 헤 주겟다."

겅 헷어. 겐디 이제 아닌 게 아니고 이젠 가다 보니깐 그런 집이 잇엇어. 강보난 이름 말하고 뭐허난 '아, 뜰림엇이 이 집이로구나.' 헤나난

"예. 제가 아무것에 아들이우다."

영허난

"아 저, 아부지가 아까 금방 만낫는데, 이제 식게멩질을 얻어 먹지를 못허니깐 성읍릴 이사를 오던 겅 안 허면 날 이레 천리를 헤 주라. 신체를 천리헤달라고 이제 막 부탁을 헌 거라."

겐, 그 하르부지 종달리 송씨 하르부지가 이제 강 말허니깐 뒀어. 이젠 범작이 합격헤그네 관덕정도 짓게 뒈불곡 이제 그 아덜이 이제 저 이사헤 왓다 허는 거라. 천리. 아버지를 천리헤다가 이제 응 신촌에 와서 묻어서 제사도 얻어먹게 뒈곡 우리 종달리 송씨 하르부지는 이제 관덕정에 합격헤가지고 관덕정을 짓엇다 헤여. 옛날에 그런 말이 잇어.

- 핵심어 : 송씨 하르방, 관덕정, 목수, 종달리, 북촌, 귀신, 제사

W_L_007 관덕정과 인상냥

2016년 10월 18일, 조천읍 신촌리 허재군씨 댁, 이현정 조사.
허재군(남, 1948년생, 조천읍 신촌리)

[조사자] 어른덜이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놀이 삼아 들려주셨잖아예? 고런 얘기 그냥 들려주시믄 제일 좋고마씨.

[제보자] 거난 이제 내가 해야 헐 얘기는, 어, 흔 열 일고 여덜 살 정도 될 때, 우연찮허게 이제, 여럿이 있는 데서 헌 얘기가 아니고, 그 할아버지 얘기가 원래 이, 말이 무거운 할아버지라 시작을 해서 노면, 허면은 말을 잘 허는데 평상시에 말을 잘 안 혀는 분인데, 우연찮허게 어느 날 이제 봄날에 이제 그, 나무 집 그, 저, 촌에 곱으면 먼문이라 그러주. 먼 문 앞에 햇빛 이렇게 짝 발르니까, 거기 이제 앚아가지고 이제, 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내가 이제 질문은 허지도 안 했는데, 거 뭐를 빙자해가지고 할아부지가 이제 말을 트기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헌 것이 거 관덕정 거, 건물 지은 얘기를 그걸 허더라고.

[조사자] 예.

[제보자] 거 이제 꼭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거 할아버지, 그니까, 허는 말씀이 관덕정을 저걸, 이제 딱 지어가지고, 이제 상냥식을 해야 되는데. 상냥식을 헤야 되는데, 거기서 거 유능헌 지관이, 지관이 인제 그 상냥식을 이제 '어느 날 멧 월 메칠 날 멧 시에 이제, 상냥을 해야 되는디, 인상냥을 해야 된다.'는 거라.

[조사자] 인, 상, 냥.

[제보자] 응, 인상냥. 사름으로 상냥을 해야 된다는 거라. 보통집에 가정집에 저기 헐 때는 닭으로 허거든. 닭으로 모가지 탁 잘라가지고. 그래서 허는데, 그거는 인상냥, 사름으로 어 상냥을 허렌 인상냥을 해야 된다고, 어, 그렇게 허니깐 아, 이게 사름들 다 깜짝 놀란 거지.

"어떻게 인상냥을 헐 수가 있느냐?"

"누가, 누가 거 무, 나가가지고 거, 목을 짤르면서 상냥을 헐 수가 있느냐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이라고 상당히 아우성이 난 거주.

"그래도 인상냥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 지관이 허는 얘기가. 그래서 그 지관이 그, 멧 월 메칠 날, 멧 시에 그, 상냥을 이제 택일을 딱 해서 내놓는데

"요 시간대에 동문."

지금 동문이옌 허믄 제주시에 가믄 동문통, 서문통, 남문통 이렇게 되있잖소게? 동문통이라는 것이

"동문으로, 동문으로 지게를, 지게를 진 사름이 나타났을 적에, 상냥을 해라."

[조사자] 그 사람으로?

[제보자] 아니, 게니까 그…

"그 사람, 그 지게 지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상냥을 해라."

[조사자] 아, 상냥을 하라고, 그때.

[제보자] 응.

[조사자] 예.

[제보자] 건데 거기에 이제, '과연 그 시간대에 그 사름이 나타날 것인가?'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 거지. 모든 사름덜이 그래가지고 다 사름들이 다 상냥날 저기가 날이 되니까, 사름덜이 다 집결되연 있고, 저기덜 헨 있는데. 그 시간이, 딱 되니깐 어디서야 나타났는지, 거 지게에다가 가마솟.

[조사자] 예.

[제보자] 큰 가마솟 있잖여? 가메솟을 이렇게 놔서 지어가지고, 그 솟을 이렇게 노면은 이제 솟뚜껑은 이렇게 엎으잖아. 이렇게 뒤짚어서 놔야이, 뗏꾸리. 응, 이저, 저 지게끈 이게 얽메는 거 보고 뗏구리옌 허주게?

[조사자] 뗏구리?

[제보자] 응, 뗏구리.

[조사자] 예.

[제보자] 거 뗏구리로 이렇게 이제, 이제, 걸려 메는 거여. 게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고 딱 나타나니깐, 그 희한하거든 그게게 모던 사름들이.

"우아아아!"

해가지고 소리를 질른 게,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와아아아!"

하멍 소리 질르니까, 인제 그 솟을 진 가마솟 진 사름이 '이거 어떤 일인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두리번두리번거리다가, 발뿌리에 걸려가지고 발이, 발뿌리에 돌을, 돌뿌리에 발 걸려가지구 그냥 팍 앞더레 쓰러진 것이, 이, 뗏구리가 그렇게 굵질 안 허주게, 새끼줄 이렇게 가늘게 실 꼬운 거니까, 그걸로 해서 이렇게 헌 거니까 이게, 솟뚜껑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목을 가서 탁 친 거여. 이 그것이 인상냥이란 거여.

[조사자] 그래서 그 사름으로 인상냥했구나?

[제보자] 어, 그러니까 그 지관이 옛날도 그렇게 그, 에, 그, 저기헌 사름덜이 그렇게 유능헌 사름들이 그 시간대에 그거를 딱, 거 맞혀가지고, 날짜며, 시간이며,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자] 거난 막 유명한 지관 얘기구나.

[제보자] 그렇주.

[조사자] 그만큼 지관이 막 용했다는 얘기구나예?

[제보자] 용했다는 얘기.

[조사자] 그 지관 성씨나 뭐 이런 거는 말 안 헙디가?

[제보자] 그런, 그런, 그런 얘기는 없고.

[조사자] 없고.

[제보자] 그런 얘기는 없고.

[조사자] 응, 그렇구나예.

[제보자] 응.

- 핵심어 : 관덕정, 상냥식, 인상냥, 지관, 뗏구리, 솟뚜껑, 돌뿌리

W_L_008 광정당과 이형상 목사

2016년 10월 23일, 안덕면 사계리 김여옥씨 댁, 문경미 조사.
김여옥(남, 1918년생, 안덕면 사계리)

[조사자] 호종단과 광정당 이야기는 알아마씨?

[제보자] 광정당은 호종단이가 오라가지 안 헷어. 거기 물 탕 넘어가단은, 하마 안 허영 그냥 탄 냥 넘어가단은 물 다리가 절단하는 거라. 겡 허난 이형상 목사, 이형상 목사 온 때다가 그렇게 한다 하니, 그냥 넘어가보자고. 그자 물 탕 넘어갓당 물 다리가 절거든. 저니 이자 무당을 청하라고.

[조사자] 뭘 청하라고?

[제보자] 무당을 청하라고. 무당을 청헤그네 귀신. 귀신이라는 게 베염이주게. 베염인디. 게서 심방 청헤다그네 귀신을 광정당 그 당이, 당인디 집도 엇인 디라. 거기 큰 왕돌이 비짝비짝허연 동산진 거거든.

[조사자] 큰 왕돌만 붙여정 동산 된다는?

[제보자] 경 허난 그디 왕돌 트멍으로 그 소곱에 귀신이 잇엇단에 나오곡 굿허곡 허는 디주. 겐디 그 이형상 목사가 물 탕 넘어가곡 헤여네 귀신이 오니 아닌 게 아니라 물다리가 저는 거라. 경 헹 그놈이 베염이 귀신이 나오난. 당신이 그놈을 잡아그네 그놈의 벰을 매질헌 거라이. 경 허니 그 뱀이 물 한 마리를 다 먹엇다느니 그런 거라이. 전설이난 경 헷인지 말앗인지 모르나, 말은 경들 허메.

- 핵심어 : 광정당, 이형상 목사, 무당, 심방, 베염, 굿, 호종단

W_L_009 군산 명당자리는 금장지

2016년 11월 3일, 안덕면 감산리 감산리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김유헌(남, 1940년생, 안덕면 감산리)

[조사자] 명당자리가 따로 잇수과?

[제보자] 텐트 친 형태에서 장군이 앉아서 장졸을 지휘하는 형치다. 게서 군산이라. 군사 '군'자에 메 '산'자. 저기 장군이 앉아서 장졸을 지휘하는 형치다 해서 군산.

[조사자] 그런데, 명당자리는 그 중간에 잇어마씨?

[제보자] 명당자리는 저 깃대 모양으로 봉우리가 두 개 보이거든. 지금 뾰쪽허게. 게난 요 사이에 그 명당자리에 누가 산을 쓰면은 그게 아주 명당이니까 산을 쓰며는 비가 안 오거나 비가 계속 와 불던가 조화가 일어나. 그래서 옛날엔 막 ᄀᆞ물아가면은 저디 강 막 찾는 거라. 혹시나 산 쓰지 안 헷나. 무덤. 그게 안 썻을 경우에는 기우제 기우제를 거기 가서 또 헤여.

- 핵심어 : 명당자리, 군산, 장군, 무덤, 기우제

W_L_010 군산 왕자굴

2016년 10월 23일, 안덕면 사계리 김여옥씨 댁, 문경미 조사.
김여옥(남, 1918년생, 안덕면 사계리)

[조사자] 저 군산에 대한 전설 아는 거 엇수과?

[제보자] 군산에 왕자굴이 있다 하는 거라. 그 사람이 열리 사람인디. 옛날 제주도 말로 연애를 했는지 아기를 낳는지. 쌍둥이를 낳은 거라. 쌍둥이를 낳는디 구덕에 쌍둥이를 똘똘 눕질 거 아니라. 눕져동 어멍은 동네 집이나 베꼇디 나강 오랑 보민. 어멍은 대강을 알거든. 겐디 구덕을 바꽝 눕는 거라. 물애기가. 곳난애기들이. 곳난애기들이 구덕을 영 바꽝 눕는 거라. 아 또 어디강 눕져도그네 어디 강 오랑 보민 또 구덕을 또 바꽝 눴어.

'하 이상하다. 곳난애기가 누가 오랑 애기들 손 봥 바꽝 눕질 수는 엇일 거고. 이상하다.' 허연. 엿본다고 하루는 어디로 가는추룩 헤그네 올레에 담에서 ᄀᆞ만이 곱앙 베려 보난 그놈덜이 구덕에 눕진 물애기들이 나오란 날아뎅기듯 집 천장에도 날아뎅기고 집안 우 밑에도 날아뎅기고 두 개가들 장난치듯이 구덕도 바꽝 눕곡. 경 허난 근젠 영 풀을 들렁 보난 놀개 젓겡이로 놀개가 무룩하게들 돋앗이나네.

엿날엔 그 역적으로 몰리거든. 나라에서 심어당 죽여불어. 경 허카부덴 그 아으들을 놀개를 그창 죽엿다는 거라. 죽엇는디 군산에 산을 썻는디. 그 집이서 그 산을 천리헷다고 허여. 천리헹 보거들랑. 앞발은 앞발은 꾸겨지고, 뒷발은 막 일어사고. 앞발이 일어삿이민 그 사람들이 장사가 되어.

[조사자] 앞발은 어떵마씸?

[제보자] 앞발은 꾸겨지고.

[조사자] 굽혀지고?

[제보자] 꼬그라젼. 땅에 영 이고 뒷발만 일어산 거라. 게난 앞발이 영 일어사 비엇이민 그 아으들이 죽지 안헹 그 산 음덕으로 살아나곡 그 아으들이, 장군이나 왕이 뭘 건디. 그 아이들 물애기 때난 다 그차부난 다 죽엇다는 거라. 근디 그디 산터ᄀᆞ라 왕자굴터라 하는 거라. 앞발만 일어섯이믄 그 아이들이 왕이 뭘 건디 죽엇다 하는 그런 전설이.

- 핵심어 : 군산, 왕자굴, 쌍둥이, 애기, 날개, 구덕, 장사, 열리, 음덕

W_L_011 귀덕1리 할망당

2016년 11월 23일, 한림읍 월림리 고정녀씨 댁, 이현정 조사.
고정녀(여, 1939년생, 한림읍 월림리)

[제보자] 할망당이엔 허영.

[조사자] 할망당?

[제보자] 응?

[조사자] 귀덕1리에?

[제보자] 응, 할망당. 막 쎄여.

[조사자] 막 쎄여.

[제보자] 귀덕당은.

[조사자] 어떵 헨 쎄덴 헙니까?

[제보자] 몰라 신이 쎈 신인ᄀᆞ라이? 귀덕은 도새기도 옛날엔 질왕 풀레 저 한림장에 가젠 허믄이, 요 귀덕 넘어사가믄 꺼럭 뽑앙그네.

[조사자] 꺼럭, 뽑앙그네.

[제보자] 터럭, 그 터럭 뽑앙이? 귀덕 쪽더레 던져뒨 강 풀곡 헤낫어. 경 당이 쎄난에.

[조사자] 경 안 헤나믄.

[제보자] 경 아니혀믄 그 도새기 아팡 죽넨사헨 것인디 몰라. 경들 허난 그런거 봐나긴 헷주게. 어무니네 도새기 풀레 갈 때 영. 장 가는 사름도, 이 동네 왕 도새기 사믄 가당 그추룩 헤영 가고. 저 금성 곽지 사름덜토 상 가멍 그추룩 허고.

[조사자] 할망당이꽈? 거기가?

[제보자] 할망당, 할망당이엔 허는디. 이제도 그긴 당 모셔.

[조사자] 모셔, 가 본 적은 있으시고마씨?

[제보자] 응, 당 모셔.

[조사자] 그믄 거기 갈 때는 뭐 가졍 갑니까? 제일에.

[제보자] 그디 제일에? 어, 고기허곡.

[조사자] 고기, 뒈지고기 말씀허시는 거마씨?

[제보자] 뒈지고기도 가졍 강, 겅 큰 신 때나, 베에덜 제사허는 사름 어떤 사름 뒈지고기 가져오곡, 그냥 가정집이 사름덜은 옥돔이?

[조사자] 옥돔예.

[제보자] 옥돔 하나허곡, 밥 두 보시나 세 보시 걸영그네, 강 올리곡. 절허곡 이녁 속으로 소원 비는 거주기게. 아이덜이영 펜안허렌 허영. 돈도 올리곡.

[조사자] 돈도 올리고?

[제보자] 응, (불청) 천원짜리 그자.

[조사자] 물색이나 지전같은 건 안 헹 가고?

[제보자] 물색도 허는 사름은 헌다.

[조사자] 허는 사름은 허고.

[제보자] 응, 지전 헹 강 이녁냥으로 술곡.

[조사자] 그 할망신은 남편은 엇덴헙니까?

[제보자] 남편 잇인 말도 안 혀. 견디 그 당은 막 쎄연이, 옛날 저 이북 사럼이. 4·3사건에, 그 아저씨가 태주임, 태주임 헹그네.

[조사자] 태주임?

[제보자] 응, 주임으로 오란 순경, 주임이라낫주게. 게난 그, 미신타파 거를 막 선동헤연 허멍 헤연 그 당을, 당을 부솨 불엇어. 부솨 불고, 오줌 싸 불언. 당 모시는 디, 영 그 쪼끄만허게 영 헤네 고냥ᄀᆞ찌 네왕 싯주기. 게믄 그래 잡식헹 떤지곡 헤낫주기. 건디 그 아저씨가 그레 오줌 싸 불고 허난이. 거기가 막 이만이 붓언이.

[조사자] 오줌 싼 데가?

[제보자] 오줌 싸 부난에 오줌 싸는 디가 막 붓언. 걷지도 못허곡. 거난, 이, 당장 굿허렌 헨 굿 막허고. 그때 동네에서 돈 모연에 허고 헤낫어.

[조사자] 겅, 겅 헤도 그 사람 동네에서 돈 모아줫다예?

[제보자] 그땐 순경 주임이믄 큰 높은 사름이고, 4·3사건 때난 ᄒᆞ꼼만 눈치 사름, 말 잘못허믄 총 ᄀᆞᆯ견 몬 죽여불 때 아이가. 거난 그 사람 눈에 들이젠 허믄 벨 짓도 다 헷저. 그땐 ᄉᆞ뭇 4·3사건 때 이북 사름덜이영 오란, 저 학교에 사믄, 우리도 국민학교 나 4학년 땐디. 4학년 땐가 3학년쯤 뒐 거라. 학교도 못 강. 그디 그 피란민덜 왕 막 사난, 경 동네서 밥허젠 허믄 장작도 ᄒᆞᆫ 집이 두, 두 쪽썩. 그런

거 모여당 그디 다 바쪙 그디서 밥 헹 먹고. 쏠도 흔 홉썩, 흔 뒈썩 다 ᄒᆞ당 경 허연 모여 가고 헤낫어. 그 사럼덜 멕이젠.

[조사자] 겐 당에 오줌 갈견? 그 사름도 진짜 독헌 사름이다예?

[제보자] 어, 미신타파옌 허멍 헨에 그거 겨난, 허믄 안 뒌덴 막 동네 청년들이영 헤도

"그까짓게 무신 신, 신이 시냐."

헨에 그 사름게 낫주기. 겐디 그, 그 아저씨네 이북서 결혼헨 나이도 한 어른인디, 우리 외가로 친척되는 이모가 그 아저씨영 결혼헷주기.

[조사자] 예. 겐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거 안 헨?

[제보자] 안 헨, 그때 지나난에 어디 다른 데레 발령난 갓인고라, 우리 서귀포 살레 간 보난, 서귀포 간 보난 잇언게? 겐 서귀포 살단 또 서울 간. 견디 그때 4·3사건 때하도 사름들이영 하영 죽이난산디, 그 아저씨네 잘되지 안 혓젠 막 굴아.

- 핵심어 : 귀덕1리, 할망당, 도새기 꺼럭, 미신타파, 오줌, 태주임, 뒈지고기

W_L_012 귀덕리 분동산과 도체빗불

2016년 11월 23일, 한림읍 월림리 고정녀씨 댁, 이현정 조사.
고정녀(여, 1939년생, 한림읍 월림리)

[조사자] 아까 도깨비불 얘기.

[제보자] 도깨비불 얘긴 요저 금고 가기 전에.

[조사자] 예.

[제보자] 거기, 저, 큰, 저 뭐가 잇어. 넙작팡이옌 허여근에 그디이.

[조사자] 넙작판?

[제보자] 그디 무신, 무신 게고 헌다만은 이젠 오래부난 잊어불언 굴아지크라? 그디, 그디가 푸린 뭣이 불 있어이, 불, 살라졍 신 것굽이 딱. 그게, 파르릉 허게 놀믄, 것이 요 초소신드레 분동산이옌 헌 그 동산더레 왕, 막 활활 타. 집에 불난 것굽이, 경 불 타당 그게 한참 막 우리 재미졍들 보믄이, 아이덜이 보당 보믄 그게, 또 파랑 헤끌락 헤영이? 요, 요 사발만이도 안 뒈당, 그게 엇어지곡. 또 어떤 땐 또 그게 페렝허게 놀믄 저 수원 알러레 저 어디 용흥동 잇인 그레도 놀곡.

[조사자] 용흥동.

[제보자] 그쪽더레 놀아나곡 경 헤낫어.

[조사자] 아, 그믄 저 분동산에는 도깨비불 난덴 헹그네.

[제보자] 분동산 도깨비불 난 거, 원에도 나고, 우리 큰어머닌 밤이, 옛날은 보멀도 줏으레 가주기이? 그냥 등불 엇이믄 강 그냥 손으로도 영 영 바당에 강 물 때 맞촨 강으네, 영 헨 줏엉으네 모이곡 허주게. 겐디 우리 큰어머닌 막 바다에 그런 거 허레 좋아헹그네 잘 갓어. 거난 새벡이 갓인디, 요 아래 바로 초소 옆에 원이 잇주게, 소원이옌 허영. 소원이옌 허영, 원이 잇인디. 그디 가멍 보난 원담에 불이 베롱허게 싸젼.

거난, 막 갯것이 일찍 잘 가곡 허는 할망이 잇어낫어. 담배칩이 할망, 담배칩이 할망허여그네 요 돈카름 동네 할망. 거난 우리 큰어머닌 그 어른으로 알안에

"에그, 삼춘은 벌써 옵데가? 옵데가?"

허멍 원 대답 안 혀난에

“벌써 완에 막 물도 뭣 핷젠.”

허멍 헤가난, 그 불이 화악 헹 우는 것같이 하멍이 파닥파닥 하멍 물 착착 하멍 없어져 불언. 것이 도깨비주게이? 것이 완전 헛거. 경 허연 오고렌 하멍. 게도 우리 큰어머니, 게도 바당에 잘 가낫어. 몸 허레도 잘 가곡, 보멀 줏이레도 잘 가곡. 겐 보멀 강 흔 구덕 헤당 숧으믄 둣날 모다들엉들 막 깐. 옛날은 무시거 허지 안 현 때난.

[조사자] 그믄 큰어머니는 도깨비불 봥으네, 저 뭐, 도체비불 봥으네 뭐 놀랑 넋드리고 뭐 이런 건 없고?

[제보자] 아이고, 그추룩 안 혀고, 우리 큰어머니 원체 직성이 쎄곡 할망이 강흔 어른이난이? 경 넋 난 허곡은 안 헤 봔.

[조사자] 그 분동산이렌 헌 디는 사름들 잘 안 가났습니까?

[제보자] 무사 낮이사 강 물에 들레도 강 막, 저, 불 살랑 불추곡. 옛날은 보리낭 이연 앚앙 가고 하난, 그런 냄새나믄 도체비도 안 난덴 헌디, 분동산, 분동산. 무신 뜻인진 몰라도 분동산, 분동산 허난 영 높으덴 허영 그 뜻으로 분동산이옌 허는 건지 어떵 헌지, (불청) 친정에 놀러왕 보난 그디 막판에 초소 짓언, 졍 집 짓어 불고 헷어라게.

[조사자] 게믄 분동산은 낮에는 겅 사름들 가도 밤에는 도깨비 나온덴 안 갔겠네?

[제보자] 아니, 밤이 다니고 허주게. 갯것이고 허난. 아니 이제까지사 안 혀낫인디, 이젠 그디 다 판에 개간헨 ᄒᆞ끔벢이 안 남안, 그 안에 이 저 초소, 군인 초소 짓어부난, 해경. 해경 초소 짓엇주기.

- 핵심어 : 귀덕리, 분동산, 도깨비, 도체빗불, 원담, 밤, 갯것, 용흥동

W_L_013 김녕사굴과 사또

2016년 11월 9일, 구좌읍 세화리 조흥순씨 댁, 송정희 조사.
제보자1: 김순자(여, 1947년생, 구좌읍 세화리)
제보자2: 조흥순(여, 1924년생, 구좌읍 세화리)

[제보자1] 경 허곡 또 이런 말도 헤낫주게. 이제도 또 어디 가민 잇일 거라. 사굴 벰굴이, 거기가 이제 저 뭣고, 그 큰 벰이 지가 살앗인디, 이제 그 마을 사람덜보고 그 이제 벰이, 처녀 하나씩 강 바찐 거라. 계속 강 처녀 하나 바찌렌 허난 막 그 후에 상 페와 놓고 헤그네, 막 그냥 드리데멍 제 지내곡 뭐하곡, 헤그네 막 절 허곡 헤그네 이제 강 처녀가그네 내비동 오면은이, 걸 그대로 잡아먹엇어.
경 헹 잡아먹엇인디 우리도 그디 강 구경헷인디, 뛈띠기굴도 잇고이 안 봔? 만장굴 가기 전에 굴이 잇어. 지금은 영 메와졋인지 몰라도 우리 초등학교 소풍도 가낫주게. 만장굴은 멀언 못 가곡 그디 가면은 운동허는 굴도 잇어. 운동허는 이렇게 밑에 뛰는데 잇곡 벰이 잘도 커난 모냥이라. 겐디 벰이 잇언지 몰라도.

[조사자] 벰 두 마리가?

[제보자1] 잇엇인디 계속 이제 일년에 흔 명씩 처녀 한 명썩 잡아먹으나 처녀도 막 그냥 일류로 완전 예쁜 처녀덜만 골라당그네이 경 헤신디 흔 번 이제 그 소문을 들은 거라. 사또가, 그 소문을 들언 이제, 이제 우리 마을에 이렇게 이렇게 헨 잇이니깐, 이젠 이젠 살지 못허켄 허는 거라. 이젠 헨 허난 이제 말 탕 와네 이제 벰을 죽여, 죽이레 간 거라. 겡 쏘아네 겡 쏘안 오다가 뒤돌아보지 말렌 헌 거 아니. 겐디 쏘안 오다가 뒤돌아보난이, 죽엇어, 그 사또가. 돌아보지 말앙 와 불렌 헌디.

[제보자2] 돌아봐 부니깐 죽어.

[조사자] 건 누가 골아줜마씨? 돌아보지 말렌 헌 건?

[제보자1] 뭐 할망이 골아준 거지. 할망덜이.

[조사자] 사또한테?

[제보자1] 사또한텐 뭐 몰라 무당사 말헤줫인지 몰르지. 자꾸 신 완전 신으로 모셔낫어. 멧 십 년 동안을 멧 년 동안을.

[조사자] 벰을?

[제보자1] 벰을.

- 핵심어 : 김녕리, 사굴, 벰, 사또, 처녀

W_L_014 김녕사굴과 이형상 목사

2016년 10월 23일, 안덕면 사계리 김여옥씨 댁, 문경미 조사.
김여옥(남, 1918년생, 안덕면 사계리)

[제보자] 김녕리에 그 당이 잇다 허여. 뱀, 사굴이라고. 난 관광은 안 가보고 전설로 듣는 말만 곧는 거거든. 거기서 그 당시는 거기 굿을 허젠 허며는 처녀 열댓살 난 처녀. 희성으로. 희성 알아져?

[조사자] 희생물?

[제보자] 희생이랜 헌 건 거기 제물. 희생으로 헤네. 올래 ᄎᆞ례로. 올래, 이 집 헤나민 저 집, 저 집 헤나민 또 저 집, 경 헹에 굿을 허는디. 이형상 목사가 들어온 때라. 들어온 땐디 아 그렇게 사람을 희생으로 헨. 그 해에 운수가 좋아그네. 편안히 살고 경 굿을 허민 경 허영 산다 허는 그 말을 아랫사람들이 그 목사들ᄀᆞ라 곧은 거거든.

게난 형상 목사가

"나도 굿 구경을 헐 수가 잇느냐?"

"구경은 헐 수가 잇수다" 허니. 이제는 나오란

"처녀 물어간다." 허니

아랫사름덜을 모르게 헌 걸테주, 몰라도. 칼을 준비헌 거라. 벰을 죽이자고. 두루막 소곱에 칼을 디물앙 강 구경을 헌 거라.

게난 무당은 달랑달랑 막 굿허멍 귀신을 청헤 온 거라. 게난 그 굴 소곱으로 베염이 ᄎᆞ마가라 사름 하나 들러먹는 벰이, 게난 그 디 밥이니 떡이니 돈 헤그네 영 단 모냥으로 헤그네 당 멘든 거거든. 그 우터레 밥이영 떡이영 그디 온갖 재물을 딱 올리고 또 처녀 이쁘게 출려네 치마저고리 입졍 당에 앚졍. 죽을 자리 귀신이 나왕 물어가려거든. 거기 곹이 제물이영 곹이 올렷거든. 게난 영천 목사는 또 구경헐 거 아니라. 무당은 막 북 닮은 거 두드리멍 귀신을 청헤연 단 우터로. 슬슬 올라가네 그 처녀를 푹허게 물언 뒷걸음으로 알레로 ᄂᆞ려 오라가나네 ᄃᆞᆯ려들엉 영천 목사가 모가지를 졸랏다는 거라. 제주돗말로 모가지 따당 죽여도 네 다신 이런 짓하지 말라고 영천 목사가.

그자 절오백 당오백을 다 부솨 불라고. 다 부솻다는 거라. 광정당 이런 큰 당덜. 절오백이면 제주도 전 체주. 절간도 오백, 당도 오백. 그때 영천 목ᄉᆞ 명령으로 경 막 다 부솨 불언. 그루후제 광정당이 소소한 당덜이 다시 생겨난 거라.

[조사자] 아하, 다시.

[제보자] 게난 영천 목ᄉᆞ가 그날 저녁엔가 ᄌᆞᆷ을 잔 거라. 꿈에 게난 늙은 하르방이 들은

말만 곧는 거지. 나대로 새로 곧는 것도 아니고.

[조사자] 예. 예.

[제보자] 아니 들은 말도 들은 걸로 골을 수는 없다는 거라. 겐디 그날 저녁인가 그 담날 저녁인가 좀을 자는 거라. 영천 목사가 온 디 수백년이 넘는다 하여. 수백년이 넘엇일 거라. 헌디 이젠 꿈에다가 당귀신이 옥황에 회 보레 갓젠. 귀신덜이 꿈에 회 보레 강 오란그네 영천 목사를 죽인다고. 아, 절오백 당오백은 다 부솨 불고. 골총, 골총이라는 것은 사람이 땅에 묻으민 그 주손이 엇인 거. 주손이 엇엉 내불민 골총이 뒈언. 벌초도 안 혀고, 풀도 아니 그챵 내 분 거기라 골총이엔 허는 거라. 골총 이신 밧 임재랑 골총에 풀도 다 그챠 주라 헌 거라. 명령이 꿈에.

그 골총 귀신이 절오백 당오백 귀신은 옥황에 회 보레 강 오란그네 영천 목수를 죽이젠 허는 거라고 꿈에. 그 골총 귀신이 오랑 골아줘. 경 헹 깨난 보난 꿈이고. 이녁이 절오백 당오백은 다 부솨 불렌 허난 경 허고 골총은 수리 잘 허랜 허고 골총귀신이 오란 골아주고. 아 의심이 난 거라. 게난 영천 목사가 고향, 육지 양반이거든. 육지 고향더레 가 분 거라. 고향더레 가네 그디 가 부난 거긴 집이 없거든. 그자 앚앙 심심허민 그 친구들이 춪아오랑 장기, 바둑이나 딱딱 두고 지내는디. 아들 삼 형제가 골에 갔다는 거라. 죽었다는 거라. 그 고향서.

[조사자] 잘 안 뒈 불엇구나.

[제보자] 절오백 당오백 귀신이 아들을 죽엿인지, 그래서 죽엿다 허지는 않는디. 경 헹 죽엿는지 말앗는지 아들 삼 형제는 죽엇다 허는 거라 그때.

[조사자] 자손은 엇인가마씸?

[제보자] 아덜 삼 형제, 그때 그 당시에. 아들 삼 형제를 죽엿는디 심상허여. 영천 목수가. 친구들 오면 심상허게. 다른 집 아들 죽으민 여기 우리 소인들은 수못 오죽 아들을 찾을 거라게. 허지만 심상허게 장기나 두고, 각시는 막 여주 무음이고 시 성제를 다 흔 날 흔 시에다가 오꼿 죽여노니 울멍 뎅기멍 그자 들어 울멍 뎅겻거든. 게고 남편은 심상허영 처음부터. 이제 남편보고

"당신은 무음이 얼마나 커서 그렇게 아들 삼 형제를 죽여도 그렇게 심상허느냐?"고 퍼붓은 거라. 대야 던지면서 각시가. 아들 삼 형제를 죽여놓고 오죽 헐 거라. 남편신디 퍼붓은 것이지.

경 허난에 남편이 영천 목수가 허는 말이 부인보고 놋대야에 물 가져오라고. 물 떵 가져오난 그 물 거려진디 씻어가나네 핏물이 잘잘 흘리는 거라.

"내 속을 어떵 아냐고."

[조사자] 아, 놋대야에 물 떠 오난.

[제보자] 그 물 거련 눈으로 영영 씻어가난에 눈으로 피가 누린 거라. 영천 목수 눈에, 경 헷다는 거라.

- 핵심어 : 김녕리, 뱀, 사굴, 영천 목사, 당오백, 절오백, 굿, 아들 삼 형제, 놋대야

W_L_015 김녕사굴과 제주 목사

2016년 12월 14일, 표선면 성읍1리 송순원씨 댁, 송정희 조사.
송순원(남, 1937년생, 표선면 성읍1리)

[조사자] 김녕사굴 얘기해 줍서.

[제보자] 김녕사굴에.

[조사자] 예.

[제보자] 처녀를 일 년에 한 번씩 바친단 말여. 받치는 디, 그 베엠이가 그 베엠이가 처녀를 들러먹어 불어. 들러먹어 빈디, 제주도 제주도 목사가 제주도 오는 목사가 제주도 오니깐, 그 김녕 사굴에서 일 년에 ᄒᆞ나씩 처녀를 먹어분덴허는 베엠이가 잇다고 허니깐,

목사가 이젠 그딜 김녕을 오는데, 제주시에서 말을 타고 이디 김녕ᄁᆞ지 왓잖아, 왓는데, 오니깐 이젠 그 목사가 베엠이가 나오면 칼로 쳐서 베엠을 죽일려고 왓단 말여. 목사가, 완 아닌게아니라 베엠이 나완 처녀를 먹젠 허니깐 칼로 쳐동가는데, 칼로 쳐 죽여동 돌아간. 제주시로 가는데, 그 왓다 갈 적에 그 누가 그 엣날 일 아는 사름이 쳐서 갈 때 목, 목사가 관사에 들어갈 때ᄁᆞ지랑 뒤돌아보지 말라. 이 말을 헷단 말여. 헷는디 이 사람은 제주시에 다 들어가지니깐 에 이젠 다 왓으니깐 괜찮겟지 헹 확 뒤로 돌아본 게 말에서 직사를 헤서 죽엇어. 그 얘기는 나도 들어난 기억이 잇어.

[조사자] 그 돌아보지 말렌 헌 사람은 누구?

[제보자] 점쟁이가 헌 거주게. 점쟁이. 뒤로 돌아보지 말라. 겐디 그, 그렇게 죽어부난에 김녕에선 그 처녀를 일 년에 ᄒᆞ나씩 안 바쳐도, 그 베엠이가 죽어버리니깐.

- 핵심어 : 김녕리, 김녕사굴, 베엠, 처녀, 제주 목사, 점쟁이

W_L_016 김녕사굴

2016년 11월 26일, 성산읍 오조리 채종학씨 댁, 이현정 조사.
채종학(남, 1946년생, 성산읍 오조리)

[조사자] 오조리에는 벰 엇수과?

[제보자] 어?

[조사자] 선생님? 벰, 잘 안 나와난마씨? 예전에?

[제보자] 아니, 여긴, (불청), 아, (웃음) 벰이 옛날사 흔헌 게 벰이엿주만은 벰에 대헌 전설은 없어.

[조사자] 김녕사굴 얘기는 들어 보션마씨?

[제보자] 어, 김녕사굴 얘기야 들엇지.

[조사자] 예 그 어떤 얘기렌 들어나션마씨?

[제보자] 아, 그니까, 늘게, 매해마다 이제, 처녀를 이제, 제물로 바쪄그네, 헌데, 그, 제주 그 목사가 이제 그, 소위 벰을, 죽엿다고.

[조사자] 죽엿다고?

[제보자] 응. 게서 거 이쪽에 이제, 김녕사굴 이쪽에 또 움퍽 패인 디는 그게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패인 데라고.

[조사자] 벰 대가리?

[제보자] 응.

[조사자] 벰이 그믄은 막 큰 벰이렌 헙디가?

[제보자] 아, 김녕 무슨, 만장굴에 살 정도니까게.

[조사자] 두껍고.

[제보자] 거, 옛날 거니까 우리 어린 때는 만장굴을 벰굴, 벰굴 헤낫거든.

[조사자] 만장굴을마씨?

[제보자] 게 나중에야, 그니깐 만장굴을, 저, 김녕사굴이옌 헷거든이. 게, 김녕벰굴, 이, 저, 만장굴은 굴 얘기는 우리 어린 때는 무시 거 아니고, 우리, 국민학교 때 트

럭으로 수학여행을 뎅긴다 옛날에 이게. 이저, 것도 돈으로 들어차능게 아니고 쏠로 영 뒈나그네게 그걸 풀안. 게 우리 동남국민헉교니까, 그 당시엔 학생덜이 한 천한 이삼백 명 뒈낫주. 거믄 그, 일개 학급꺼지는 트럭, 흔 서너 댈 헤야 뒈거든게. 근데 또 인제 포장뒌 길도 아니고, 그, 비포장 도로라노니까, 뭐 가다가 이제 고장나민 이젠, 뭐, 중간에, 그, 잇는 국민학교 강당, 이, 저, 교실에서 자곡. 이제 무시거 허는데. 게난 옛날 우리 학교 뎅길 때만 헤도, 김녕사굴이옌 헷지, 만장굴이옌 헌 얘기는 근래 그 이후에 나온 거게.

[조사자] 음, 그 이후에? 그믄은 늘 수학여행 같은 거 트럭 타고 가면 선생님이 거기, 김녕사굴에 가서 벰 이야기 헤주시고 영 헷겟다예.

[제보자] 응, 벰 이야기 헤주곡 이제, 그 제주 목산가, 어느 목산지 요즘은 거 잊어비엇저 마는 게도 이제 그, 벰을 이제, 항상 이제 매해마다 그, 좀, 꼿다운 아가씨덜을 이제, 제물로 바찌니까, 이, 저.

[조사자] 어떵 죽엿댄 헙디가? 기억 안 낲수과?

[제보자] 아게, 뭐, 그때 우리 드, 듣 대충 듣기로는 뭐, 춥 활로 눈을 쏘으니까, 이제, 죽지 않에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칼로 이제, 뭐허니까 이제 그, 목을 치니까, 그 목이 떨어져 나가믄서 이쪽 그 패인 디가, 여, 그니까 그디, 김녕사굴 보민 저, 북서쪽으로 좀 패이는 디가 잇주게.

[조사자] 음, 북서쪽으로마씨?

[제보자] 응.

[조사자] 신기허네.

[제보자] 거난 그디가 그 벰 대가리 튀어져, 떨어져가지고, 목을 치니까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저, 흔 디라고 이제, 그 당시엔 우리 얘기 들엇는데 근데 그런 이제 설화 ?뜬 것도 많이 정립이 뭣일 거여게.

- 핵심어 : 김녕사굴, 제주 목사, 벰, 대가리, 아가씨, 제물, 활, 칼

W_L_017 김통정

2016년 10월 23일, 안덕면 사계리 김여옥씨 댁, 문경미 조사.
김여옥(남, 1918년생, 안덕면 사계리)

[조사자] 김통정 장군 얘기 들어봣수과? 삼별초 얘기.

[제보자] 애월 토성 그 성 안에서 살앗주게. 성 안에서 살고. 그땐 김통정 장군이 물을 막 질루완 잇언. 게난 오래 산 거라. 물도 경 질루곡 헌 거 보민. 게난 토성으로 물 꼬리에 비차락. 불치 한 망탱이씩인가 다헤그네. 성 위에 민짝 끌앙 거기 물 탕 자락 끗엉 둘으민 그놈이 막 놀렷젠 허멍. 헐 수 없이 허는 거주게. 경 허당 강한 병력이엔 헌 말이라. 강화병력이 아니고 강한 병력, 강한 군인. 거디 군인 나라에서 보내그네 백두로 오란 제주도에는 백두가 대항이라낫어.

[조사자] 대한?

[제보자] 대항. 큰 항구. 글로 강 탁 대어그네 군인들. 강한 병력이엔 해도 그때에 오라가나네. 바깟데서 김통정 장군이 군인들, 베낏디서 김통정 장군 군인들 잡으레 오라가나네, 성 안트레 다 들어가게 허고. 성문을 탁 종가둰 경 헤동 들어가 버렸거든. 들어가 부난 그때에 아기업게를 아기보는 아이, 그 아이를 베낏디 같이 놀당 그만 들어갈 땐 몰랏거든.

게난 문 닫자 하고 문 덖으멍 볼 생각도 아니허고 그 아이만 나가 잇고 허난 철문이난 딱 잠가둥 들어 강 딱 즘가부니까 그 군인들 서울서 온 군인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아이도 들어가지 못헨. 게난 목 돌멩이로 문을 맞치는 거라, 군인들이 부솽 들어가자고. 아기업게 말 들으랜 헌 말이 그 말이주. 게난 그 아기업게가

"경 돌로 맞치민 철문이 부숴져? 숫불로 헤그내 쇠를 녹여사 문이 녹아그네 열아지지."

게난 숫이 어디 잇어게. 게난 그 군인들이 전부 거기 곶밧 잇어낫거든. 곶밧에 작은 낭들을 잔뜩 모다 데며낭 불을 붙이난. 허난 와랑와랑 숫불보다 더 클 거 아니라 불이. 게난 그 쒜문이 녹안게 '아기업게 말도 들어보라.' 헌 것이 그 말이라고.

김통정 장군을 잡으레 가가난 김장군이 군인이나 장군이나 그자 잡히민 죽으카 부덴 헹. 그 성 밖에 튀는 것이 김통정 장군이 틱하고 튀나네 땅이 움막 기어들언게 물이 출락하게 나오란. 그물이 그자 한참 가물어도 끈어지진 안은다 하여. 나 한번 가오랏어. 한 이십년 전이. 노인덜 관광으로.

[조사자] 그 장숫물이랜 헌디 갔었지요?

[제보자] 다른 사람들은 그 내력을 모르고 난 그 내력을 들어나난. 그디 안내원고라 "여기 저 김통정 장군이 튀어난 물 낫젠 헌 게 어느 쪽이고?" 허난 저기우덴 허멍 ?리치난 크진 안 허우댄.

- 핵심어 : 김통정, 삼별초, 불치, 장숫물, 불미, 애기업게

W_L_018 김통정 장군과 모기 장군

2016년 10월 12일, 애월읍 광령3리 광령3리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김명훈(여, 1953년생, 애월읍 광령3리)

[조사자] 김통정 하르방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만 ᄀᆞᆯ아봅서.

[제보자] 게난 도사리 아기업게. 그 아기업게를 그 문을 어디서 전투가 들어왔저 허니까. 잡으러 왔덴 허니까. 철로 문을 다 헤가지고. 덖엇는데 그 아기업게를 못 들여놔 분거라. 아기업게를. 잊어불언 놓지 못해가지고 급허게 허노랜. 그 아기업게를 못 드려놔 부니까. 아기업게가 밖에 잇일 거 아니꽈예. 문 잠가부난. 게난 거기서 와네 이거를 어떵 문을 열어주느넨 물으니까. 두 일레 열나흘 불미 궈그네네 허며는 쉐가 녹아서 열어진댄. 경 허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문을 열엇어. 그 문짝.
모기 장군. 모기 장군이랜 헷구나. 모기 장군, 게난 그 문을 던지니까 바다까지. 문이 날라갔어요. 바다까지 날라갔댄 허여. 모기 장군이 그 문을 뜯어서 던지니까. 그거에서 가서 탈려고. 장수발자국 디딘 디마다 물이 솟아. 장수물이 그래서 그 첫 번 디딘 디. 그다음 디딘 디 있고, 또 다음 디뎌서 바다에 가서 그 철문에 탓는데, 모기로 환생해가지고 가서 앵앵 허니까 모기 털젠 영영 ᄒᆞ는(팔을 올려 휘두르는 모양) ᄇᆞ름에 갑옷 입은 디 이디(겨드랑이) 칼 맞아서 죽었댄 허여. 그런 말벰이 몰라.

[조사자] 아하, 김통정 장군이 모기 장군이꽈?

[제보자] 아니, 모기 장군이 싸우레 와가지고. 김통정 장군 말고 모기 장군이 그 김통정을 죽엿다고 허여.

[조사자] 아아….

[제보자] 불미로 궈가지고 문을 바다까지 모기 장군이 던졋어. 게난 그거를 따라 강, 도망가노랜 따랑 죽인 것이 세 발자국에 바다까지 튀었다는 거. 경 헹 디뎌난 디마다 물이 솟앗다.

[조사자] 그것 말고 또?

[제보자] 그것벰이 그디 물 먹으레 가며는 그 말을 말 허니까. 장수물 이거 김통정 장군 첫 번 디딘 발에서 나고 저 어딘 가믄 거긴 안 봐봤어요. 두 번째 발자국 또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발자국 해서 쇠 위에 바다에 가서 탔는데, 잡을 수가 없으니 모기로 환생해가지고 앵앵 하는 트멍에 영허니까 일로 칼 맞안 죽엇덴 헸저. 그 말벰이 안 들엇어.

- 핵심어 : 김통정, 모기 장군, 갑옷, 불미, 장수물

W_L_019 김통정과 아기업게

2016년 10월 13일, 애월읍 고성1길 골목, 문경미 조사.
강양자(여, 1942년생, 애월읍 고성1리)

[제보자] 애기업게, 식모를 안 데리고 들어갓어. 안 데리고 들어 가난양. 그 집을 어떵 헹 좋을지 몰란. 영 밖에 보난 애기업게가 서 잇이난. 이 집을 어떵 허민 테와지느넨. 아니 어떵 행 부솨지느냐. 부술 거 없댄. 녹입샌. 불 때믄 녹이믄 사람도 죽고 집도 녹은댄. 겨난 이젠 불을 땐 거라. 두 일레 열나흘인가 불을 때난. 녹는 거라예. 녹아가난 김통정은 날개 달리난 활짝 뛰언 화딱 바닷물로 뛰난, 그 옆에 장수발자국이라고 발자국이 잇거든예. 물 고이는 데. 장수발자국 탁 거기 짚고 모자 벗고 휘딱 던지난. 큰관탈? 김통정이 모자 벗언 던진댄 헙니다.

큰관탈인가 족은관탈인가, 관탈. 날 좋은 때 보이는 거. 난 확실히 몰라도 경헹 돌아나고 남은 식군 다 죽엇잰. 게난 제주도 속담은 '아기업게 말도 들을 탓이라'고. 아기업게 말도 들어야 된다. 들을 건 들어야 된다.

[조사자] 음. 아기업게 말도 들어야 된다?

[제보자] 아랫사람 말이라고 안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속담이 잇지.

- 핵심어 : 김통정, 장수발자국, 관탈, 아기업게

W_L_020 김통정과 아기업게의 말

2016년 10월 13일, 애월읍 고성리 강정씨 댁, 문경미 조사.
강정(남, 1928년생, 애월읍 고성리)

[제보자] 김통정이 몽고군이 들어와서 위험하니까 문 덖엉 들어갓거든. 들어가난 아기업게는 내불엇단 말이라. 내부난. 아기업게를 같이 들어갓이며는 어떵 안 헷일 건디. 아기업게가 몽고 사람한티

"쉐문 불 살랑 녹이믄 저 문을 열어질 거 아니냐."

아기업게 말 들어내 몽고군이 그 쉐문을 녹연. 김통정 군사를 처단한 거지. 뭐 그거주 무슨. 김통정은 놀개가 있었다 허여. 문 여난 도망가난. 비양도 한림이옌 허지. 거기 날아갓다고 그렇게 우린 듣는디.

- 핵심어 : 김통정, 몽고군, 쉐문, 비양도

W_L_021 김통정의 불치 공출

2016년 10월 14일, 애월읍 고성리 고성리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김재화(여, 1930년생, 애월읍 고성리)

[조사자] 재 막 날리는 전설? 다른 전설 엇수과?

[제보자] 옛날에 김통정 사는 디 공출을 허랜 헷지. 공출을 허랜 허난 무슨 공출을 허느냐 허면. 재. 무슨 걸 케와그네 케우민 불치가 나잖아. 불치가 나나네. 그걸 몬딱 공출허랜 허나네. 저 성으로. 항파두리 성 싯잖아. 높은 성이 잇이나네. 그 재를 그만짝 그 성더레 몬짝 뿌렸거든. 저 나라에서 싸우레 나아가가민 물 타그네 물 똥구멍에 비차락, 꼬리에 찔러그네 그 말을 막 돌려가며는 그 불치가 팍팍 팍팍팍 놀아가며는 그 사람들이 바레지 못하거든. 경 헤낫젠 말을 들엇주. 바레지 못헤야 물 탕 돈는 사름이 죽지 안 하거든. 불치로 팡팡팡 헤 부난 사름을 봐져게. 경 허난 옛날은 공출을 이제 불치로 공출을 허라, 불치로 공출을 헌디. 경 허난 김통정 죽어가멍 허는 말이 나 죽어불며는 공출을 나온다. 공출은 하간 거 용시헌 거를 허멍 바치라 헌다.

옌날엔 당신 산 때는 불치로 공출을 허렌 허여네 불치로 공출헨. 그 사람이 죽어부난 공출이엔 헌 건. 밧에 용시헌 거 몬딱 해다그네 바치랜 헤 부난 먹을 거 엇어낫저. 그거벰이 들은 거 엇어.

- 핵심어 : 김통정, 공출, 재, 불치, 비치락

W_L_022 날개 달린 아기장수

2016년 10월 18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이현정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조사자] 혹시 날개 달린 장수 얘기도 알고 계십니까? 애기를 낫인디 날개가 나근에 어떵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션마씨?

[제보자] 인제 그거는 제주시에서도 예기를 자주 헷주, 저녁에. 이제 거, 뭣이냐, 제주도가 원래 이제, 이, 웨딴 섬이라가지고 지형이, 산이 산맥이 있어서 내려오다가 불뚝 솟아야 그 섬이 힘이 세는디, 우리 할라산은 산맥이 엇단 말이요, 그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백두 산맥이 내려오다가, 지금 백두대간, 딱 끈겨가지고, 할라산이 불룩 솟앗어. 보이지는 않지마는 바닷속으로 맥이 잇다. 잇을 거라고 에. 요렇게 생각을 허는데, 건 이제 좀 풍수적인 분덜이 많이 얘기를 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맥이 바닷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꺼지는 우리 제주도는 왕이 난 일이 없고, 또 이제는 짐승 중에 호랑이, 호랑이가 없고, 호랑이가 없는 것은 이 지형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물속이 들어간 것이 이제, 오래 되면은 언젠가는 이, 제주도에서 이제는, 이제는 왕이 이제는 날 거라고, 요렇게 하는데, 중국 사름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또 이제 육지에서도 혹시나 허면 그런 분네가 알아가지고 예전에 이제는 조금 좀 이제 그 이상헌 좀 뭐 생김새가 뭣하게 생겼다든지, 그런 ᄉᆞ문 나며는 이게 이제 왕이 뭘 뭣이 아닌가 헷어. 이제는 그 이제 없애버렸다고 그래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어, 어느 집에서가 이제 그, 아덜을 이제 ᄒᆞ날 낳는데, 아 요 겨드랑이 밑에가 쩨깐허게 날개 비슷헌 것이 달렸어. 거 이제 걸 남헌테 얘길 말았으면 뭘 건데, 아 하도 이상허니까, 점점 커가니까 아 이 사름헌테 이 날개가 이게, 달렸다고 이제 이게 ᄉᆞ문이 나니까는 거 이제 서울에서 그 그런 그, 보는 그 이제 아마 궁궐이 임금님 돌아가믄 땅도 보는 어지리가 이제는 궁궐에서 보내가지고 정말로 그러면은 그걸 가서 보라고 허니까, 와서 봐가지고는, 이게 아마 이렇게 왕이 날 뭣일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 쥐 없이 잡혀서 이제 죽여불라고 헤서 없애불엇다고 그래.

[조사자] 아, 죽여불엇댄마씨?

[제보자] 예, 인제 그 왕이 날 것을 걱정헤가지고.

[조사자] 예기가 그래도 어떵 돌아돌아 궁궐에까지 들어 간 거네예? 게믄예?

[제보자] 예, 게 이제.

- 핵심어 : 아기장수, 날개, 산맥, 겨드랑이, 소문, 궁궐

W_L_023 날개 달린 애기장수와 대꼿

2016년 11월 26일, 성산읍 오조리 채종학씨 댁, 이현정 조사.
채종학(남, 1946년생, 성산읍 오조리)

[제보자] 저기 보면 저 식산봉 옆으로 저, 오게 되면은, 이거 다리 있는 옆에, 돌섬이 잇수다게.

[조사자] 그니까 식산봉 옆이 다리가 잇는디.

[제보자] 응, 그 옆에다가.

[조사자] 예, 그 옆이.

[제보자] 응.

[조사자] 돌산이 잇다고마씨?

[제보자] 예, 게, (기침) 그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아니, 애기나면, 이제 애기장수가 태어낫는데, 아까 식으로 그 날개도 이제 튼, 지엇는데. 세상을 아주 어지럽게 헐 뭐라고 누가 얘기헷던 모냥이라마씨.

[조사자] 어. 편하게 사투리 쓰셔도 뒈마씨.

[제보자] 거난 처치허젠 허니까. 거 아무래도 처지가 허기 어려왓던 모냥이라마씨. 게서 이제 그 식산봉 앞이 돌이, 장군석이라고 돌이, 잇는데. 지금은 숲에 가려분 데. 이제 그, 장군석을 일단은 심도 쓰고 칼 께나 쓰는 무기를 쓰는 저, 장사를 데려다가 이제, 소위 애기장사를 이제, 애기장, 애기장사라고 했으니까.

[조사자] 애기장사.

[제보자] 예, 애기가 아니고 애기 흔, 애긴 애긴데 아마 어린 장사엿던 모냥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어떠 어떤 식으로 이제, 잠을 잘 때 뭐는 이젠, 목을 쳐라.

[조사자] 음.

[제보자] 경 헌데 그, 말대로 이제 목을 치니까, 그 식산봉 주위에 보믄 이제 사름식으로 이렇게, 목 닮은, 그뜬 게 잇고. 이 바위가 높이가, 한 사미터? 게 또 우에 얹어 잇는 바위가, 이제 뭐 흔 사럼 두 사람 안을 정도 이제, 돌이 뒛는데. 이젠 그,

아주 그 당시에 유명헌, 좀 소문낫던 이제 좀 잘 아는 분이. 확히 죽은 거 안 죽은 거를 알려면은 대나무꼿이 피어야, 게 대나무꼿이 피면은 그, 애기장수가 죽은 줄 알아라.

[조사자] 음, 좀 보시는 분이?

[제보자] 예.

[조사자] 예, 겅 골앗구나예?

[제보자]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없으니까, 대나무 이제, 꼿이 다 핀 모냥이야.

[조사자] 아.

[제보자] 거, 대나무꼿은 어떤 이제, 뭐는 대나무가 딱, 이제 가물, 가물아 갈 때 그니깐 갓 죽어갈 때.

[조사자] 가물아 갈 때.

[제보자] 음, 이제 그 대꼿을 피운다 그래요. 게서 이제 걸, 저, 대꼿이 피니까. 그 애기장사가 이제, 죽은, 확실히 다음 언제, 살아나지 않고, 건데 사실은 인제, 거, 우린 그 소리 들으면서, 과연 그 애기장사가 세상을 교란시킬 인물이엇는지.

[조사자] 응.

[제보자] 세상을 이롭게 헐 뭐엿는지, 건 모르겟어. 허튼 간에, 뭐, 죽이렌 헌 어떤 뭐에 결과적으론 좀 희생뒌 걸로 이런 얘기를 들엇어. 식산봉 그 보믄 인제 그, 장군바위라고, 잇는데게, 그게 애기장사 바위를 그걸로 칭헷는지, 그 어떤지는 모르것으나. 수산봉 뒤쪽 그, 이게 보면은 그니까 바위가 있어요 거기.

[조사자] 그러면 식산봉에 있는 바위 중에.

[제보자] 예.

[조사자] 짱굼돌이렌 허는 바위 잇지예? 창굼돌, 그게 그 바위 아니마씨?

[제보자] 아예 창굼이 아니고 장군, 장사, 장군.

[조사자] 장군돌, 아. 장굼돌이렌예?

[제보자] 응, 식산봉 주위에 그 저, 어디, 그 전망대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쪼끔만 내려가믄 걸 볼 수가 있어요.

- 핵심어 : 날개, 애기장수, 대꼿, 돌섬, 식산봉, 장군석, 장굼돌

W_L_024 남방아 모자로 힘자랑한 하르방

2016년 12월 7일, 남원읍 태흥3리 오봉남씨 댁, 김선희 조사.
오명옥(남, 1934년생, 남원읍 태흥3리)

[제보자] 힘 쎈 하르바지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고 하니, 힘 쎈 하르방…. 이 하르방이 산에 강 큰 나무를 비엇어이. 그것을 방에를 만들라고, 지금 같으민 붙이면서 만들 건데 통째로 파서 만들라고 큰 낭을 어디 가서 비엇어, 산에서. 방에를 만들라고 자구질도 하고. 옛날은 산감이라고 잇어.

[조사자] 산감이 뭐꽈?

[제보자] 산감이라는 것은 산림계. 산림계통에서 발견해서 잡으러 갔다 말이여. 가니까 그 방에 만들던 거를 모자 쓰는 식으로 '턱'허게 썽 앚앗어. 산감들이 겁낭 도망가 불엇다고 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오라가니까 '턱' 쓰고 ?만히 앚앗어. 산감들이 너무 겁낭 도망 가 불엇다고 헤여.

- 핵심어 : 하르방, 방에, 방아, 남방아, 산감, 모자, 힘쎈 하르방

W_L_025 당팟당장의 등짐

2016년 12월 7일, 남원읍 태흥3리 오봉남씨 댁, 김선희 조사.
제보자1: 오봉남(남, 1922년생, 남원읍 태흥3리)
제보자2: 오명옥(남, 1934년생, 남원읍 태흥3리)

[조사자] 재미난 얘기 또 잇수과?
[제보자2] 관팟당장이나 헤봅서.
[제보자1] 당팟당장은 그거는 토산이야기라서 잘 몰라요.
[제보자2] 토산 얘기도 뒌댄마씸.
[조사자] 토산 거라도 알아지는양 굴아줍서.
[제보자1] 토산은 토산에서 관팟이라는 지경이 잇어이. 동네 ᄋᆞ디 가믄 검은코지, 어디 가믄 알드르코지허듯이.
[제보자2] 동네 지명.
[제보자1] 관팟이라는 동네 지명인데. 토산에도 웃토산 가면 ᄋᆞ디는 무슨 벨진밧이여, ᄋᆞ디는 무슨 관팟이여, ᄋᆞ디는 가믄 무엇이라 헷지. (지명 당팟과 관팟을 발음 때문에 헷갈린 것으로 보임. 후에 녹음에서 당팟당장이라고 정정함.)
거기서 광산 김씨 하르방인디 힘이 워낙 세었어요이. 힘이 세어서 내가 집을 지을라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 놨으니, 소를 조금 빌렷이라고 했어. 근디 알 빌리니까. 저 무지한 한 영감이 쉐등어리 다 벗어진다고 쉐를 안 빌렸어. 게니까 자기 혼자 가서 그 남 빈 것을 지엉 오는디. 옛날은 질이 넙지 아니헷주게. 게니까 그걸 이렇게 비틀려서 ᄎᆞ례로 가믄 헷주만은 기자 구짝 갓어. 게니까 담들이 다 넘어져 버렸지. 남들 농사짓는 밧들만 헷이믄 헷주만은 이 집 동네 들어오란도 그대로 걸어 들어오니까 울담이고 뭐고 다 허물었어. 그니까, 야, 쉐 빌려준만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제보자1] 당팟당장은….
[제보자2] 관팟당장….
[제보자1] 아니 당팟당장. 당팟당장은 아들이 삼 형젠디 삼 형제 다 힘이 세었어요. 근디 손자도 창부라고 해서 힘이 셌는데 남양호에 강 죽어불고. 근디 그 당팟당장 바로 아들은 삼 형제가 있었는데 다 우리가 알아져.
[조사자] 울담 넘어진 건 누가 다왓댄마씸? 하하.
[제보자] 다 이녁집이 이녁이 다와사주. 누가 다와. 밧 임제가 다와사주. 에에. 헐 수 엇주, 뭐.

- 핵심어 : 하르방, 광산 김씨 하르방, 남 지기, 당팟당장, 울담

W_L_026 대정 막산이

2016년 10월 18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이현정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조사자] 그러면 그 당장어르신 말앙, 또 많이 먹는 사람 혹시 예기 알고 계십니까?

[제보자] 여기는 없곡 이제 대정은 막산이라고 있지.

[조사자] 막산이마씨.

[제보자] 응.

[조사자] 막산이가 많이 먹어난마씨?

[제보자] 많이도 먹곡, 그 양반도 힘도 세곡 그랬어.

[조사자] 힘도 세고, 어떤 일이 있었댄 헙디가, 그 막산이는?

[제보자] 가만 있자 그, 예 그, 그리해서 그 남의 집 그 사람은 그 머슴인데, 머슴인데 그게 이제 많이 먹으니까 아마 그, 이제 그 주인이 아마 좀 일허는 것 보담 너무 양식이 떨어지니까 아마 그래서 거 집을 나가가지고, 아마 대정 동광인가 막산이골이라고 그 양반 살든 뭣이 있을 거요. 그래서 그 양반은 힘두 세곡 동작도 빠르고 여기에서 듣기로는, 그런 집을 져서 먹어 살 일 안 혀고, 그냥 뭐 뭐냐 그, 소 먹이는 끌 말리운 것도 그냥 뭐 뭐 흔 뭐 열 사름 몫을 허곡, 그래도 그리 그 양반도 그리 많이 먹었어. 그 주인집에서도 못 멕엿다고. 어, 그래서 허니까 그 막산이골에 가서 자기만 살면서 그 외롭게 살았다고.

- 핵심어 : 대정, 막산이, 막산이골, 힘 센 사람, 많이 먹는 사람, 대식성

W_L_027 덕수리 불미와 뒷하르방

2016년 10월 23일, 안덕면 덕수리 길가, 문경미 조사.
제보자1: 윤일부(남, 1942년생, 안덕면 덕수리)
제보자2: 박성대(남, 1941년생, 안덕면 덕수리)

[조사자] 집안에 산도체비 모셨댄 헌 말은 들어봣수과?

[제보자1] 옛날엔 불미헐 때, 도체비를 모셧주. 사고 나지 말랜. 불미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허고, 저 사람도 허니까. 불미허는 집은 전부 잇엇어. 뒷하르방 모신다 헷어.

[조사자] 그걸 뭐랜 골아마씨?

[제보자1] 뒷하르방 모신다 헷어.

[조사자] '뒷하르방 모신다'라고 골아낫수꽈?

[제보자1] 무슨 음식을 해도 제일 몬저 올리고 거기.

[조사자] 뒷하르방, 그럼 어르신네 조상님네도 봐낫수과?

[제보자1] 덕수 송칩이엔 허는디 송칩허고 김칩이 많아. 우리도 불미헐 땐 그거 모셔 낫주. 제 지내고.

[제보자2] 그때만. 내가 불미헐 때만.

[조사자] 매일 모시는 집은 어디 잇어마씨?

[제보자1] 제사 때마다 모시는 디, 그건 김칩하고 송칩이주.

[조사자] 그 집에 강 조사하면 나오겠네. 얘기가. 그 자손들?

[제보자] 자손들 몰라.

[조사자] 그럼 어디에 모셔졍 잇어난마씨?

[제보자1] 뒷마당 나무 아래 모셧주.

[조사자] 무슨 나무?

[제보자2] 아무 나무라도 집 뒤에다 나무가 있든가 대왓이 있든가 그 가운데 뭣고 여기 곱으믄 주쟁이랜 헹이네 영 단지 하나 모시는 거 잇어. 그거를 뒷하르방이랜 모셔. 허거나 장 팡 뒤에나 게 아니믄 마루 뒤에나 나무가 있는 그 밑에는 가

서 그것을 모시는 거주. 멀쩡헌 디 모시는 것이 아니고.

[조사자] 그러면은 거기에 제사를 지내거나 명절을 할 때에는?

[제보자1] 거기다가 잡식을 올리는 거주.

[제보자2] 칠성이라는 것은 안칠성 있고, 밧칠성이 있는데, 안칠성은 고팡이라고 안방 안방에다 모시는 게 안칠성이고, 밧칠성은 밖에다 모시는 게 밧칠성이라.

[조사자] 그것도 모션마씨? 여기도.

[제보자1] 모셨주.

[조사자] 그러면 아까 그 무슨 하르방?

[제보자1] 뒷하르방 모시는 집은 거의 다 그거 연관된 거를 다 가지고 있어. 뒷하르방 모시는.

[조사자] 뒷하르방 있는 집은 안칠성?

[제보자1] 거의 잇어 구십 프로 이상 돼.

[조사자] 밧칠성도?

[제보자1] 그게 뒷하르방이주. 뒷하르방을 밧칠성이라고 하는 거주.

[조사자] 아 그 의미로. 불미를 이 지역 사람들은 많이 했던 모양이구나예. 그런데 김씨하고 송씨집에서?

[제보자2] 불미는 아무 성씨나 했는데, 주로 뒷하르방 모신 디가 김칩 송칩이주. 불미 안 허는 집도 모셧주.

[조사자] 지금까지 모시는 집은 없겠다예. 불미 엇어져 부난.

[제보자2] 이젠 '지제'라고 해서 부락 차원에서 없애불엇주.

[제보자1] 자꾸 뭔 '도체비 도체비' 하는 것도 듣기 싫고. 자연적으로 없어졋주.

[조사자] 도체비신이렌 허는 게 그거로구나 불씨를 관장하는.

- 핵심어 : 산도체비, 도체비, 뒷하르방, 불미, 안칠성, 밧칠성, 주쟁이, 불씨

W_L_028 독 안네 들어도 피허지 못헐 운수

2016년 10월 22일, 성산읍 신산리 김옥종씨 댁, 이현정 조사.
김옥종(남, 1924년생, 성산읍 신산리)

[조사자] 영산이골 얘기 골아주십서.

[제보자] 영산이골이렌 헌 것은, 엿날에, 그, 근체에 살았던 모냥이라. 그, 강씨 하르방이.

[조사자] 강씨 하르방마씨?

[제보자] 응, 예. 그, 거기, 그, 영산이골 묻은 하르방 ᄌᆞ손이 지금 저 오조리.

[조사자] 오조리, 성산.

[제보자] 응, 오조리 있어, 잇어낫주게. 지금도 그 ᄌᆞ손덜이 거 오조리에 살고 잇어. 근디, 그 당신 아멩헷자 소, 물을 많이 길뤗든 거지. 사럼은 여기, 안 산 때라. 저, 그, 통ᄋᆞ럼이옌 헌 읍이, 이제, 저, 혼 삼벡메다 내려왕 거기 보민, 대나무가 잇곡.

[조사자] 대나무마씨?

[제보자] 어, 또 저 양헤. 그, 그 ᄉᆞ시에 사럼이 살앗던 모냥이라. 게난 그, 영산이가 그, ᄆᆞ, ᄆᆞ쉬 보는 목동이라. 게, 목동인, ᄆᆞ쉬 보레 늘 뎅기는디. 그, 주인 하르방이 죽었던 모냥이라, 그. 그, 게난, 그, 좋은 터 봉글랴고 지관 데령, 3년 동안을 헤도 땅을 못 찾인 거라.

[조사자] 응, 그 주인 하르방 묫자리를예?

[제보자] 예, 못찾, 땅을 못 찾이니까. 3년나도 ᄆᆞᆺ 찾이니까 이젠 그, 3년을, 그 집에 왕 밥을 얻어먹었어. 그 지관이. 아, 게난, 그 지금도 양셈이
'야 이건 너무 오래 헨,' 이 주인을 좀 폐단시기곡 허니까. 이, 좀, 그, 조왕할망.

[조사자] 예, 조왕할망.

[제보자] 밥 헤, 응, 밥 헤 주는 할망이, 좀 뭐옌 시, 싫은 소린 안 혈까? 헤서 자꾸 영귀 지울영 들은 거라게.

[조사자] (웃음) 예. 들으난 영산이가
"무사 경 핷우겐?"
"아, 이 사름아! 내가 3년을 여기 살아도 땅을 ᄆᆞᆺ 찾앗는디, 저 주인이 '아, 좀 ᄌᆞ들지 안 헐 건가?' 그래서 내가 이거 듣젠 허는 거."
게 이 영산이가 허는 말이, 거, 저, 사
"좀 좋은데 잇수다."
"어디 잇수과? 강 ᄀᆞ리칩서."

아, 그, 저, 둘안 그 영산이골을 둘안 간 거라. 둘안 가난, 보니까 벌통지지라. 벌통, 벌통지지는 그러니까 뭐냐믄 거, 벌통지지민 ᄌᆞ손이 막 벌 모냥으로 벌어지는, 그 땅이라. 응, 겨니까 이젠, 영산이가 이젠 ᄀᆞ리쳐부니까, 이젠 영산이가 벌 쏘앙 죽게 뒈엇어. 죽게 뒈니까, 그, 지관이.

"이제, 너는, 그, 땅, 하르방 묻어, 그 시간에 땅을 파민 벌이 나와서 너를 쏘아 죽인다. 그레니까 너는 저, 독 안네 들어가서."

우엣 솟 우엉 덮어 불민 벌은 못 들어가거든, 경 헨 이제 영장을 헹 완 보니까, 독 안네 그 영산이는 놔둬, 갇혓던, 영장하레 간 거거든. 완 벤, 아, 솟두껑 딱 보는디, 죽여불었어.

[조사자] 아, 솟 안에, 독 안에 담아져.

[제보자] 독 안에, 그, 죽어부니까, 그, 솟두껑 덮은 속에 벌은 못 들어가거든? 못 들어가니까, 저게, 그, 뭐지지, 모든 사럼들은 그, 뭐옌 ᄀᆞᆺ넨 허믄 벌 ᄊᆞ앙 죽엇젠 허지. 벌 ᄊᆞ앙 죽은 게 아니야.

[조사자] 거믄 어떵 헨 죽은 거꽈?

[제보자] 솟두껑 덮어부난, 질식헨 죽어버린 거라.

[조사자] 질식헹 죽어분 거.

[제보자] 게난, 죽기, 죽게 되근 솟두껑이라도 열 거주만은, 벌 들어 강 ᄊᆞ아분덴 헤 부니까, 아, 아니, 열란, 안네서 질식헤 분 거.

[조사자] 거난, 어떵 헤던, 어떵 헤서든 죽을 사럼은 죽는 거구나예?

[제보자] 어, 게난 그, 우리 요새, 에, 우리 우에 사럼덜은 다 말이 그거라. '그날 운수는 독 안네 들어도 피허지 못헌다.' 그 말헤.

[조사자] 그 날 운수는 독 안네 들어도 피헐 수가 엇다.

[제보자] 피헐 수가 엇다.

[조사자] 영산이 보고예?

[제보자] 응.

[조사자] 그믄은 그 좋은 땅을 ᄀᆞᆯ아줘 부난. 그 벌로 죽은 거네예?

[제보자] ᄀᆞᆯ아줘 부난.

[조사자] 어, ᄀᆞᆯ아줘 부난. 안 ᄀᆞᆯ아줫으면 살아실 건디.

[제보자] 응, 살앗일 건디. 겨난, 그, 영산이, 그, 주인 하르, 하르방 묻은 디 ᄒᆞᆫ 멧미타, ᄒᆞᆫ 오십메다? 앞이 ᄌᆞ만허게 묻엇어. 묻언 잇는디, 그, 우리가 중간에 그, 오조리 그, 종손안티

"아, 거 다음에라도 ᄒᆞᄊᆞᆯ 졸바로 모, 거시헤야 헐 거 아니냐?"

허니까 쪼꼼 손 봣어, 그 어른이. 그 어른이 지금 돌아가셔 비엇는디.

[조사자] 돌아가셨어요?

[제보자] 지금은 뭐, 살앗이믄 백설 거즘 뒐 거라, 하르방이. 게연, 그, 담을 우리가 뭐옌 굴으니까 영 헨 조끔 손 봥, 뭐 제라허게 손 보지 안 혀고, 그냥.

[조사자] 그냥 돌 영 헨 영 싸아 놓는 정도였구나예?

[제보자] 어, 어, 묻어 놘.

[조사자] 경 헤도 주인 하르방 좋은 땅에 묻어 주켄 헨 자리는 봐 준 거 아니예?

[제보자] 거난, 거기가 즈음 묘제를 허는디, 지금.

[조사자] 아, 지금도 합니까?

[제보자] 어, 묘제를 허는디. 영산이가 앞에 묻으난, 흑 거, 술이라도 흔 잔 강, 헸일 거라게. 나 생각이.

[조사자] 할아버님 생각에는 아마 따르지 안앐일 건가.

[제보자] 응, 거기 묘제허멍 그냥 거시기 허젠 안 헸일 것이다. 내 생각이 이건디, 나도 저거, 어, 또, 즈음 뭐, 여기 신산리 생겨나도 아닌 때에 흔 일이니까, 잘 모르거든? 멧 년 뒐 철을 몰르니까.

[조사자] 응, 오래 뒛주게마씨.

[제보자] 응, 아 게난 내가 그자, 어디서 이거 들었느냐면. 에, 삼달 하동, 그, 옛, 그 정, 우리, 그, 중간 젊은 때에, 에, 그, 가푼이옌 헌 아방. 아방이.

[조사자] 가풍이? 가푼이.

[제보자] 예.

[조사자] 예.

[제보자] 그디 북군군수로 있었단, 지금은 늙언.

[조사자] 고향에, 죽엇일 거라마씨?

[제보자] 죽엇일 거라. 게는, 그 하르방이, 이제, 눈 뭐 팡팡 오고 일 허는디. 아, 그 하르방이 이제 옛말을 자꾸 곧는 거라. 경 헨 그 영산이옌 헌 말을 잘, 게니까 들엇는디 거. 겐디 이디 저, 강씨덜은 그 내가 자꾸 굴으니까 혹 생각은 헤도, 어떵 헨 죽은 철은 모르거든.

[조사자] 기주마씨.

[제보자] 게난, 그 말이 그거 전해오는 말이, 그날 운수는 독 안네 들어도 못 피헌다. 이거(불청) 벌 쑤앙 죽은 것도 아니, 질식헨 죽어분 것도, 뭐지.

[조사자] 기구나예. 게 경, 아까 영산이골 얘기는 그때 북군 군수 지내셨던 그 할아버지흔테 들으신 거고?

[제보자] 응.

- 핵심어 : 영산이골, 강씨 하르방, 묫자리, 벌통지지, 독

W_L_029 들음돌 든 강씨 할망

2016년 10월 18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이현정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조사자] 여기 보면은 강씨 할망이라고예?

[제보자] 예.

[조사자] 들음돌.

[제보자] 아, 것도 여기 지금 멧 그, 그 후손들은 일본 가가지고 없는데.

[조사자] 아, 일본 가 불었습니까?

[제보자] 예 그 저 없는데 아주 이제는 그 저 힘이, 것도 실지로 있었던 그 할망이야. 이제 그 힘이 셋어. 콩, 제일 그 곡식 중에 무거운 것이 콩입니다. 그니께 그 콩 한 섬은 남자덜도 들지 못해요. 열 말이니까. 이 할머닌 그니까 콩 타작헤가지고 그거 허면은 그, 흔 섬을 그냥 그냥 집에 이제는 들고 가고 이렇게 헷어. 보통 그냥 힘 세다고 소문은 난 할망인데, ᄒᆞ루는 물을 길어서 오는데, 예전에는 이제 동네 마당에 그 들음돌이라고 큰 돌을 그냥, 한 ᄉᆞ름이 겨우 들, 돌을 헤서 그 걸 들어서 누가 얼마나 힘센 거 이런 경쟁을 많이 허거든요. 겐 물 길러 갓다오는디, 그냥 그 흔 놈이 폼 재서 내 흔 번 들어보겠다고 헤서 그냥 겨우 땅에서 요리 들만츰 헷어. 요리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거지고 허니까, 물허벅 진차 양 그거 못 들멍 그, 그거 돌 들레 가면 그걸 들러 옆이 밧으로 뚝 던져 불엇어.(웃음)

그래서 아니 그, 허긴 지금 우리 저기 리사무소에서 조금 올라가민 그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인데 지금은 그 기와집이 지어졋는디, 이제 예전에 우리 동네 돌이 그 사거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저기 뭐냐, 우리 어린 때는 그 돌이 그 밧 안네 있어서 그 전하는 말론 인제 그 할망이 던져 부니까 이레 누가 들러 낼 사름이 없어서 요리 헷다고 허는데, 쭉 흔 70년댄가 옛 도로 확장 헤가지고 헐려고 그 담 무너뜨리니까, 그 굴려냇어. 그러니까 그 돌 누가, 지금 엇어.

- 핵심어 : 들음돌, 강씨 할망, 힘 센 사람, 콩, 물허벅

W_L_030 들음돌 든 오조리 상군 해녀

2016년 11월 26일, 성산읍 오조리 채종학씨 댁, 이현정 조사.
채종학(남, 1946년생, 성산읍 오조리)

[조사자] 상군 해녀 중에 물질 완전 잘 하는 해녀가 있었는데 뭐 이랬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거 있습니까?

[제보자] 아이, 뭐, 그런 일화덜은 많죠 뭐. 이제 그, 게도 이제 원래가 송칩이 그저 송 볼락장군 그 손자뻘 저 되는 헌, 무시건데. 이제 그, 키도 아주 굉장히 막 크, 저, 여자 분이라도 키도 크고.

[조사자] 음.

[제보자] 이제 물질도 잘허고 이제, 오조리에서 이제 그, 왜정 때 잠수회장을 오래 했어요.

[조사자] 잠수회장?

[제보자] 회장, 그 당시엔 잠, 저, 해녀회 회장이라고 안 그러고, 좀녀회장이라고.

[조사자] 좀녀회장예?

[제보자] 응. 게, 좀녀회장 걸 뭐허면서 이제 뭐 이렇게 헤 보면은. 어디 그 소위, 일본 인제 그, 관청이나 이런데. 이제 그, 물건을 이젠 '못 둬주겟다.'고. 왜냐면은 이, 성산포에서 이제, 어업조합이라고 그 당시 헤서 그 일본놈들이 멘든 건데. 거난 예를 들어서, 전복이나 고둥 이런 이제 해산물을 헤 오면은.

[조사자] 갖다 바쳣구나, 다.

[제보자] 아이, 갖다 바치는 일단은 돈은 주긴 주는데, 그게 이제 그, 소위 그, 검량허는 것이 자기 멋대로 거든. 또 요디 사럼덜은 무식허고 허니깐 그자, 이거 얼마다, 얼마다, 게 이런 식으로 허니까. 이제 그, 소위 그, 금늉조합을 상대로.

[조사자] 예.

[제보자] 거난 금늉조합은 이제 왜놈덜이 금늉조합이니까, 상대로 이제, 이제 그, 소위, 투쟁을 헌 거지. 게서 이제, 거, 뭐, 여자니까 뭐 영창까진 안 갓지만은. 좌우지간 그, 이런 저거 소위, 그 당시에 이제, 경찰서에 저 오라가라. 옛날은 이제 성산포가 경찰서였으니까, 왜정 때는. 주, 큰, 저 뭐엿으니까. 그런 식으로 인제 그, 저

헷던 게 좀 그런 분이 잇고.

[조사자] 거기가 송칩이?

[제보자] 어, 그래서.

[조사자] 송칩이 며느리? 손자 며느리?

[제보자] 송칩이 딸이에요, 딸.

[조사자] 딸이구나.

[제보자] 어.

[조사자] 그믄은 그, 볼락장군네 그.

[제보자] 네, 같은 가지, 가지.

[조사자] 어, 같은 가지.

[제보자] 원래 그, 지골이 장대덜 했어요. 힘덜, 저, 뭣덜이. 그러니까 그, 그 어른이 그, 임신을 했는데도 옛날은 물허벅으로 물을 질었잖아요게.

[조사자] 예.

[제보자] 거믄 각 동네 그 당시엔 동네 동네마다 들음돌이란 게 있어요.

[조사자] 예, 힘자랑허는 거예?

[제보자] 응, 근으로 흔 백근 정도 되는 것도 있고, 흔 백 이십 근꺼지 잇는데. 그 젊은 친구덜이 이제 그, 저, 그 돌덜을 이제 들을려고 이제 헤가니까, 제대로 못 들러 가니까. 이젠 임신하고 이제, 물허벅을 진 이제, 그 어른이, 이제 그걸 이제, 들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좀 굉장히 힘도 게니까 사름덜이 이제, 그 분 말을 안 들을 수가 엇고. 오조리 그, 잠수회장, 저 줌녀회장도 아주 오래 했어요. 우리가 알기로.

[조사자] 아.

[제보자] 게서 이제, 뭐 우리 흔 중학교 흔 일이 학년 때꺼지 줌녀회장을 했는데. 지금 살아잇으믄 저 흔 백 삼십 설이나 대중 뒛을 테주만은.

[조사자] (웃음) 진짜 오래됐다예? 겅 힘이 좋구나? 그 집안이.

[제보자] 아, 거니까 그, 거기 저, 손자 되는 그 분도 심이 그렇게 좋았던 모냥이야.

- 핵심어 : 들음돌, 상군해녀, 송칩 딸, 줌녀회장, 어업조합, 투쟁, 물허벅

W_L_031 듬돌 거리

2016년 10월 2일, 한경면 용수리 김성준씨 댁, 김선희 조사.
제보자1: 김성준(남, 1946년생, 한경면 용수리)
제보자2: 김성아(여, 1948년생, 한경면 용수리)

[조사자] 저 아래 길은 뭐렌 골아마씸?

[제보자2] 저 절부암ᄀᆞ라. 등돌거리엔 헷야.

[조사자] 등돌거리마씸?

[제보자1] 절부암ᄀᆞ라 그때는 등돌거리엔 헷어. 등돌거리. 옛날 등돌거리엔 헹으네게 그건 어떤 말인지 모르켜만은 등돌이 동클락헌게 잇어이. 요만큼헌 게.

[조사자] 예, 예. 등돌이.

[제보자1] 아니, 듬돌. 이만이 헌 게. 동그락헌게 션게. 우리 용수 힘 좋은 사름들이 올려놔. 몽글락헌거. 듬돌이 굉장히 무거운 돌이라.

[조사자] 돌이 잇어난마씸?

[제보자1] 그걸 들렁 올려놨저. 게난 그 듬돌을 어떻게 할망이, 기운 센 할망이 살앗는디이. 우리는 모르고 들은 말만이고. 그 기운 센 할망이 그 듬돌을 ᄌᆞᆸ진물에 물 길러 왓당 치메통에 안앙 듬돌거리에 강 놔분댄 헤라.

[조사자] 어디마씸?

[제보자1] 앞동네 잇인 듬돌을 저 치메통에 담앙, 물허벅 지고 치메통에 담앙 듬돌거리저, 절부암 동네더레 강 놔부난. 치메통에 담당 듬돌거리에 강 내불엇댄 헤여.

[조사자] 아, 앞동네에 있던 거를 저 뒷동네 강 내불어마씸?

[제보자2] 무사 겅 헷인지 우리도 몰라게이.

[조사자] 듬돌은 뭐에 쓰는 거꽈?

[제보자1] 그냥 동그락헌 거. 동그락헌 놈인디.

[조사자] 완전 힘 센 할망이다예.

[제보자2] 으게. 힘 센 할망이주게.

[제보자1] 우리 친구들은 제우 한번 들르는 돌인디 그 돌을 앞동네에서 저 뒷동네에 가져

가 불어. 경 헹 그 뜸돌 강 놔부난 거기를 듬돌거리 듬돌거리에 곧는 거. 그디가 듬돌거리가 된 거. 거기 우리 옥을 때까지만 해도 그 돌이 셔난디 갑자기 엇어져 불엇어.

[조사자] 갑자기 엇어져 불언 마씸?

[제보자1] 앞동네 놀이터 거기 셔 낫주게.

[조사자] 듬돌거리가 어디꽈?

[제보자2] 저 절부암 동네.

[제보자1] 절부암 조금 넘어가민 거기 놀이터 잇저게. 이제 놀이터헌 디 거기가 듬돌거리 옌 헌다게.

[조사자] 거기 돌이 잇어낫구나예.

[제보자1] 아니, 아니. 돌은 원래 여기 서난 건디, 거기 가곡. 돌이 이레 가곡 저레 가곡. 옛날은 물이 엇언 여기 좁진 물만 길어왓주게. 요디 좁진물. 거난 그 할망 좁진 물에 물 질레 왓단 보난 그걸 헤 가졍 왓댄 말이주게. 그게 올 때마다. 우리 어린 때도 이해가 안 가. 이 돌멩이를 치메통에 담앙 가 불엇젠 허난.

- 핵심어 : 절부암, 등돌거리, 등돌, 듬돌, 할망, 기운 센 할망, 치메통, 좁진물

W_L_032 마라도 할망당

2016년 11월 16일, 대정읍 마라리 라양옥씨 댁, 문순덕(김은정 · 정이슬) 조사.
제보자1: 라양옥(남, 1943년생, 대정읍 마라리)
제보자2: 강신형(여, 1945년생, 대정읍 마라리)

[조사자] 할망당이, 어떵 헹 할망당이 생겻인지, 뭐 이런 옛날이야기 그냥 셍각나는 대로 헤 주시문 뒈쿠다.

[제보자1] 우리가 알건 데는 할망당도 사람덜 살기 전에 여기가 이, 저 뭣고, 숲으로 나무로 우거졌답니다. 이 섬을.

거니까 가파도에서도 모슬포에서도 나무 허레 온답니다. 일년에 한 번씩. 뗄감 허레, 뗄감 허레 왔는데, 그 중에 저 모슬포에서가 그 나룻베 타고, 옛날 그 돛단베 타고 마라도로 나무 허레 왓다가예. 많이 온 모냥입니다.

한 오륙십 명 왓일 테지. 뭐 그렇게 왔으니까. 나무 헤서 딱 실코 나갈라고 허니깐 바람이 이렇게 동풍이 불어오다가 반대 방향으로 서풍이 불었답니다. 서풍이 세차게 불어오니까 그 뭣고, 선장님이 판단허기를 이거 안 뒛다. 그 선장님이 그 날 밤에 여기서 마라도에서 잠을 자니까 꿈에 선몽을 했답니다. 나갈 때는 아가씨 하나 놔두고 가라고.

꿈에 선몽을 했으니까 바람이 방향을 딱 바꾸니까 선장님이 딱 머리에 생각헌 게 그게,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 놔두고 가야뒈겟다 헤서 그디 아가씨 하나 있으니까 그 뭣고 아가씨가 저기 저 옛날 아기업게질이. 머슴살이 하는 아가씨가 있으니까, 아가씨 저기 가서 저, 저기 쩌기 가서 저 뭣고, 아기 지성귈 내 나뒀으니까 그거 ᄒᆞ꼼 갖고 오라고 시겻답니다.

[조사자] 음, 아기 지성귀?

[제보자1] 그래 갔다오겠다고 그 아기가 딱 나가, 딱 내리니까 이제 또 바람이 방향으로 바꽜답니다. 그러니까 이때다 허구서 돛 달고 그자 모슬포로 나가부니까.

다음 헤 와 보니까, 그 할망당 헌 자리에 와서 보니까, 그 아가씨가 그디서 엎더져서 울다가 죽엇지. 굶어 죽고 울다가 죽엇으니, 그래서 할망당이라고 헷어.

애기업게당이라고 헤서, 옛날 일년에 한 번씩 제를 지네고,

또이, 스스로 바다 신이라고 헤서 여기 사시는 어머니덜 매일, 한 달에 한 번썩은 거기 가서 제를 지냈습니다. 전부 다. 이 동네 분들. 사람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무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게도 바다에서도 큰 뭐 사고 안 나고, 갯바위에서도 사고 안 나고, 해녀분덜도 사고 안 나고 헤서 살안, 살앗수게. 이제까지게. 다 이제 중간에 세상이 바꽈져 가니깐 뭐 그 나이 든 분덜 다 돌아가셔 불고 허니깐 일년에 한 번씩 여기 있는 해녀만 그레 가서 제를 지내고 이렇게….

[조사자] 일년에 한 번은 어느 달에?

[제보자1] 정월달에 강 거기 가서….

[조사자] 정월에? 경 허문 그날 제 지넨 거는 할망제옌 굴읍니까? 뭐옌….

[제보자1] 예, 할망. 할망젤 지내는데 여기선 그자 어머니덜이 바다에 다니니까 바다신, 바다에서 무사안녕을 비는 제죠. 예.

[조사자] 정월에. 삼춘도 갑디강?

[제보자1] 가주게.

[조사자] 삼춘, 제주도 말로 평소 쓰는 말로 굴아줍서.

[제보자1] 사투리로?

[조사자] 예. 그냥 평소 쓰는 말로.

[제보자2] 여기 오난 어머니덜 허는 거 베왓수게게. 베완에. 거기 가그네 그자 여기는 그자 할망덜이 저 뭐, 메나 허곡 그자 지숙이나 허곡 헹 강, 경 헹 올려그네 그자 정성뿐이주.

[제보자1] 또 일 년에 한 번씩 저 포젯단이라고, 아까 오면서 본 포젯단이라고예. 여기가 일 년에 한 번썩 정월달에 포제 한 번 지내고. 유월달 한 번 지내고 헤서 일 년에 두 번 지냅니다. 겐 저기 농사, 농포젠가 그렇게 헷어. 저 여기 사는 어르신덜이 일 년에 두 번씩 가서 제를 지냅니다. 정월 초승에 가서 한 번 지내고, 유월 초승에 가서 한 번 지내고 헷어이. 무사안녕을 비는….

[조사자] 게난 그….

[제보자1] 농사가 잘 됩라고.

[조사자] 아, 농사 잘 뒈렌. 경 허문 그 마을제 지내건 디는 언제쯤부터….

[제보자1] 그니까 우리가 태어낭 보니까 계속 지내고 잇입디다. 우리 조상님덜이.

[조사자] 경 허난 언제 그만 둔 거 닮수과? 마을제 지내는 걸.

[제보자1] 언제, 사십 년이 넘었습니다. 사십 년이 넘엇어. 그거 그만둔 지가.

[조사자] 경 허믄 저 새마을운동 이루후제?

[제보자1] 예예, 그 거 나가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무속 다 없애불라 헤서 떼려부술 때 그 당시에 거의 없어졌을 겁니다.

[제보자2] 그때….

[조사자] 거문 아까 할망당, 그 할망당이나 저건 또 애기업게당이렌 굴앖구나예. 이 동네에서는 애기업게당이렌 굴앗수과?

[제보자1] 아니 아니, 여기 동네에서는 할망당이라고 허는데, 이제 그 전설을 들어보니 애기가, 애기업게가 거기서, 저 뭣고 처녀 아가씨가 죽었다니까, 죽어서 그, 위헌다니까 애기업게당이라고 허는 거주.

[조사자] 아, 거난 이 마라도 사람들은 할망당이렌 곧는구나예?

[제보자1] 어, 그자 할망. 아가씨가 그때 처녀로 죽었지만은 할망이라고 이해허는 거지.

[제보자2] 할망 뒛주게. 이제도록 살앗이민.

[제보자1] 제줏말로 할망.

[조사자] 경허난 할망당 전설은 이제 그런 정도로 알려져 있고.

- 핵심어 : 마라도, 할망당, 애기업게당, 포젯단, 할망제, 바다신

W_L_033 마라도 할망당과 애기업게

2017년 2월 21일, 대정읍 하모리 이정자씨 댁, 문순덕(김은정·정이슬) 조사.
강순화(여, 1935년생, 대정읍 가파리)

[조사자] 삼춘, 원래 태어난 곳이 어디꽈?

[제보자] 아버진 영락린디 우리 아버지가 처가살이허여네. 가파도서 태어나고 살고.

[조사자] 삼춘, 이제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가파도 할망당 있지 않으꽈? 할망당, 하르방당?

[제보자] 아니, 할망당.

[조사자] 상동하고 하동에 있는 게 할망당?

[제보자] 상동에. 할망당이 하동으로 갈라온 거. 왜냐하면 이제 베 대는 딘 포구가 엇어. 포구가 엇엉 허곡. 하동은 포구가 너미 좋게 만들안. 어선은 뎅겻인디 글로 포구를 만들앙 글로 다녔주게. 할망당은 상동에 할망당이 잇어.

[조사자] 어떵하난 할망당 만들엇인지 들어본 적 잇수가?

[제보자] 할망당 만든 건 연날에 우리도 어머니들안티 듣고 할머니들안티 들은 말이주게. 가파도 쎈 그 바당에 쎈 물건 내불어 동 마라도를 갓젠. 마라도를 가난 그때 사람 안 살 때난 물양석 싸고 갓주. 사공이 베에서 좀이 드난 오늘은 띠우지 못헌 댄. 인 지숙을 허여 두고 띠우라. 사람을 놔두고 띠우라.

인 지숙을 허여 두고 띠어사지 그렇지 않으민 당신네 가당 중간에 가당 사고난 댄. 게난 그 중간에가 쎄주게. 연날엔 베가 요만헷을 거주게. 우리 할아버지 하르방이 테 탕 왓댄 헨. 테로 노 젓고 헹 모슬포 왓다갓다. 테로 고기도 낚으고. 그런 테지 모르지예.

경 하당 이젠 그디서 살당 이젠 오게 뒈난 아기들 다 둘앙 강 물량석 싸고 헹 강 둘아강 살당 오게 뒈난 언뜻 좀을 부치난 탕 간 선장안티 설명을 드련.

"인 지숙을 허여 놓고 가라. 가야 너네 이 바당을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영 허난 모딱 베에 올랑 아기들 다 둘앙 베에 올랑 아기업게 둘앙 갑디다.

"아기걸랭이 내비러동 와젓져게. 그디 강 아기걸랭이 가졍 오라."

경 허는디 베를 띠와 불엇젠. 그때부터 그게 할망당이 뒈언. 강 보난 뼈만 그 자리에 수악헷어랜. 뼈만 수악허난 마라도 할망당 갈 때 어린 나이에 아기업게난

저고리치메 다헹 갑니다.

[조사자] 이제. 할망당 갈 때는.

[제보자] 이제도 마라도 사람들 할망당에 갈 때 물색저고리허고 치메허고 헹 이제 곱으민 인형같이 거기 가서 건답디다. 게도 우리는 그렇지 아녀. 우리는 아래만 뎅겨도 아랜 연날에 아래서만 무슨 아무 영업이라도 알동네에서만 잇주. 웃동네는 포구가 엇어노난 베를 안 대엇주. 아래서 허기 때문에 웃할망을

"이제 우리 갈라 오자, 알르레 할망을 갈라 오자."

헤서 할망당 뎅기는 사람 이제도 이제도 뎅기는 사람 우에 뎅기고 아래 뎅기고 합니다만은 어머니가 하는 말이

"시작을 말라. 우이 뎅기지 마랑 아래만 뎅기라."

겅 헹 아래만 뎅겻수다.

[조사자] 아, 게난 흔 사람이 우에 다니당 아래로 갈라왕 아래당을 다니면 우에당도 뎅기고 아래당도 다니고.

[제보자] 예. 다녀난 사름은 우에 당 뎅기고 아래당 뎅기는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가 욬으난

"시작을 말라. 우에 당 뎅기지 말고 아래당만 뎅기라."

겅 헹 아래당만 뎅기난 우리가 이추룩 늙엇수다게.

[조사자] 삼춘, 아까 아기업게 그거는 마라도 할망당은 경허난 당을 만든 거꽈?

[제보자] 응. 아기업게할망당.

[조사자] 가파도 상동에 할망당은?

[제보자] 그게 갈라왔답디다.

[조사자] 아, 마라도에서 갈라온 거?

[제보자] 예. 경 헌디 우리 어머니들은 곧는디 만약에 심방에 가파도 큰심방이 갈 거 아니꽈? 겡 허민 어디 큰뭍에서 갈라갓댄 합디다. 할망당을 갈라갓젠.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는 마라도 할망이 그 할망이 그 할망이다. 상동으로. 그 아기업게를 할망으로 모시자. 경 헨 뒤에 강 베려보난 뼈만 수악허영. 그 자리에서 어머니네 살 때 아기업게 겅 허난 마라도할망당 갈 땐 치메저고리를 허고 간다 허여.

[조사자] 할망당 생긴 유래는 경 헌 거구나.

[제보자] 그 아기업게를 할망으로 모시자. 경 헨 뒤에 강 배려보난 뼈만 수악하영. 그 자리에서 어머니네 살 때 아기업게. 경허난 마라도 치메저고리를 하고 간다.

- 핵심어 : 가파도, 할망당, 마라도, 할망, 포구, 배, 상동, 하동, 아기업게, 우에당, 아래당

W_L_034 막산이

2016년 11월 21일, 제주시 노형동 월랑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김희숙(남, 1936년생, 제주시 노형동)

[제보자] 거기 사그네 둘이 가가민 둘이만 가면 싸왕 안 뒌댄 뭐 허고 해그네, 사람이 원체 힘 센 사람이 살아가지고, 번게왓디 게난 하도 봉개 사람이 경 헤부니까 나라에서 그 사람을 뭐해네 거기다가 집 짓엉 못살게끔 물 파 불엇어. 땅 파 불엇어. 그런 말도 잇어.

[조사자] 아하, 다시 골아봅서. 번게왓이라는 데가 어디 있는데마씸?

[제보자] 해안 경인데 바로 위에 올라가믄.

[조사자] 거기 뭐허레 잘 다년마씨?

[제보자] 나무 허레 뎅기주게. 산에 나무 허레. 나무 허레 갈 때나 지들커 허레 갈 적에 두 사람만 가면은 둘이만 가민 싸운댄 허고, 이제 셋 이상 다섯이나 가면 내버려도, 절대 한 두 사람만 가면 그 사람한테 젭혀그네. 나무 허레 못 가. 그렇게 힘 센 사람이 살았댄 허는 거지.

[조사자] 아, 그 사람 이름이나 별명이나 그런 거.

[제보자] 막산이주. 막산이.

[제보자] 그게 나라에서 물을 파 불엇수다. 땅 파 불언. 왜냐면 그기 사람을 살게 하며는 힘 센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람 살 땅이 안 뒌댄. 사람 못살게끔 만들어 불엇어.

- 핵심어 : 막산이, 해안, 번게왓, 힘

W_L_035 막산이구석

2016년 10월 18일, 안덕면 창천리 지경 밭, 문경미 조사.
강명선(여, 1937년생, 안덕면 창천리)

[조사자] 여기 전설, 옛날 이야기 잇입디다예.

[제보자] 잇어.

[조사자] 어떤 얘기꽈?

[제보자] 계메 난 잊어불언에. 막산이. 옛날 강칩이 하르방이. 옛날 군산 앞이 논이 한 바당이라. 막산이가 강 논 발라그네 나룩 심으랜 헹 나두난. 군산 꼭대기에 하르방 올라 강 보난 ᄀᆞ만히 눠 잠만 코롱코롱 잢어. 게난에 그 막산이가 오십명 먹을 점심을 헤영 오랜. 오십명 헤야 논을 발라그네 나룩 심는다고. 게난 오십명 먹을 점심을 헹 강 보난 잠만 코롱코롱 자는 거라. 하나 거셔보지도 안 허영. 게난 아이 후닥닥 다울련 점심을 주난 다 먹언.

[조사자] 혼자?

[제보자] 혼자 막산이가. 혼자 다 먹언. 아이고, 오후엔 그자 연기가, 연기가 아니고 구둠이주게. 막 혼자 논을 발라가난. 군산 앞이 캄캄. 수증기하고 흑먼지가 올라완 캄캄. 경 그걸 다헷어. 혼자. 게난 할망이 못 질르켄. 일을 아무만이 헤도 오십명 먹을 밥을 다 먹엇이난 어떵 앞으로 길르느닌. 내쫓아 버련. 내쫓아 부난 막산이 구석이라고 저 동광 서광 위에 잇어.

[조사자] 막산이 뭐?

[제보자] 막산이구석. 막산이가 거기서 살단 배고판 죽어불언. 그 산중에. 게난 막산이구석. 막산이구석. 그게 배염바리 전설.

[조사자] 아, 내쫓겨 부난 거기 강 죽어불언?

[제보자] 응. 거기 강 죽으난. 거기서 죽은 자리가 막산이구석.

- 핵심어 : 군산, 막산이, 막산이구석, 하르방, 배염바리, 강칩이 하르방, 동광, 서광

W_L_036 매고무동산

2016년 12월 15일, 한경면 용수리 서안생씨 댁, 김선희 조사.
서안생(여, 1932년생, 한경면 고산리)

[조사자] 매골동산은 뭐꽈?

[제보자] 매고무동산은 저 거세기 질로 죽 가당 보면은 ᄋᆞᆫ 중간에 집 짓어진디 싯지? 용수 가기 전이. 한 질가에 그디가 매고무동산이라.

[조사자] 그디 무사 매고무동산이꽈?

[제보자] 그 제국시대에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많이 심어다가 그디서 막 귀를 만딱 끈엉 그디 묻엇젠 헤여게. 경 헤여 부난에 매고무동산, 매귀미동산, 매귀매동산. 그 알러레 가민 붉으내옌 헌디가 셔. 게난 그 귀 그차진 피가 글로 흘르기 때문에 붉으내.

[조사자] 붉은 피가 그리로 흘러 들러강은에마씸?

[제보자] 어. 경 헹 붉으내. 막 내가 그디로 흘르주기게. 경 헤영 그디가 붉으내.

- 핵심어 : 매고무동산, 매귀미동산, 매귀매동산, 매골동산, 붉으내, 귀 그차진 피

W_L_037 맷돌 들어 옮긴 할망

2016년 12월 7일, 남원읍 태흥3리 오봉남씨 댁, 김선희 조사.
오봉남(남, 1922년생, 남원읍 태흥3리)

[조사자] 여기는 힘 쎈 할머니 얘기는 엇수과?

[제보자] 힘 쎈 할머니, 요디 오대희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저 서녁편이 왕 살았는데 옛날에는 이문간이렌 헤영 집 잇지이. 그건 큰 집인데 가운델로 딱 헤영 통하게끔 이문간을 내엇는데. 이문간에 선반 만들어 놧어.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헌디. 그 할머니가 정ᄀᆞ레를 도구리옌 헌디 놔서 이렇게 헷지이. 소들이 짐을 싣경 들어와가니까 이거를 어느 저를에 뭐하지 못하니까 우끗 들어서 그걸 그 우티이 올려놓앗댄 헤여. 대희 증조할망이. 도구리차 ᄀᆞ레차 들러서 그 선반 우티레 들렁 놧젠.

- 핵심어 : 할머니, 힘 쎈 할머니, 이문간, 선반, 정ᄀᆞ레, 도구리

W_L_038 맹수 엇인 아흔아홉골

2016년 12월 10일, 제주시 이도1동 윤성인씨 댁, 이현정 조사.
윤성인(여, 1930년생, 제주시 이도1동)

[조사자] 제주도에 무사 아흔아홉골만 잇덴 헙니까?

[제보자] 아, 골은 아흔아홉골이기 떠문에, 다른 육지에는 전부 모든 중생이 동물이 다 나오는디, 제주도에는 그, 백골이라사, 그, 중생이 다 나올 건디, 동물이. 제주도는 아흔아홉골이기 때문에 흔 골이 모지래서, 제주도는 호랑이, 범, 사자, 그런 것이 엇어.

[조사자] 음. 그면은 그, 아흔아홉골만 잇다는 디가? 어디 한라산 얘기 하는 거마씨?

[제보자] 아니, 저, 어디고.

[조사자] 그, 오백장군 잇인디?

[제보자] 어, 오백장군 잇인디.

[조사자] 그믄 거기가.

[제보자] 거기가.

[조사자] 영실.

[제보자] 영실.

[조사자] 영실에 봉우리가.

[제보자] 영실, 영실이 아니고, 천왕사.

[조사자] 천왕사?

[제보자] 응. 천왕사에 아흔, 아홉, 아, 아흔아홉골은? 아홉, 천왕사는 오백장군이 있고. 오백장군이 잇고, 아흔아홉골은 ᄀᆞ만 잇어 봐. 어디가 아흔아홉골인지는 모르큰게.

[조사자] 건 모르겟고.

[제보자] 응.

[조사자] 어, 어쨋든 그 아흔아홉골이 엇어.

[제보자] 어, 거기 하나가 모지래서, 육지허고 여기 제주도허고 달라.

[조사자] 아, 그게 달라.

[제보자] 응.

- 핵심어 : 아흔아홉골, 맹수, 중생, 동물, 호랑이, 범, 사자, 오백장군, 천왕사, 영실

W_L_039 메고할망

2016년 10월 12일, 애월읍 광령1리 광령1리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강재생(여, 1938년생, 애월읍 광령1리)

[제보자] 옛날에 이제 곧이 결혼허난 여자가 잘도 이뻐나서양. 신랑을 사농허레 글랜 친구가 데령 간. 이제 활로 쏘아부난 남자 죽어부난 오란에

우리 신랑 어디레 갓수겐 허난, 사농 뎅기당 보난 어디사 있어불어삿인디 종문 소식헹 찾지 못허구렌 경 헹 그 여자광 살앗어양. 그 ᄉᆞ나이 죽여 분 사름이. 경 헹 살당. 아기 아홉 오누이. 아홉 오누이 나난 이젠 이 여자가 어떵 안허주기. 여자 독머리에 업더정. 나 머리에 니 잡아주렌 허난. 엿날은 막 니 궤난양. 그 여자가 신랑 머리에 니 잡아가난. 킥킥킥 웃언. "무사 웃없수과?" 허난,

비 오라가난 막 부글레기 나난. 느네 ᄉᆞ나이 살로 쏘난, 그 귓구멍으로 피 솟는 거, 똑 마당에 비오는 것 담댄, 경 곧아 부난. 이젠 그 여자가

"어디 죽엇이니?"

그 시체가 봐지느넨 허난. 막 뎅기당 보민 봐진댄 허난. ᄀᆞ리치렌, 나 그 사람신디 막 포시 헐 일이 잇젠. 그건 바른 대로 곧으민 안 ᄀᆞ리쳐 주카부댄. 이젠 간 빼다기 신딜 ᄀᆞ리치난 치메통에 탁 담아놧어양. 신랑. 본 냄편 신랑. 꽝을 다 담안. 이제 곧으면 경찰세 법이 강. 이제 나광 산 사름이. 이제 본 ᄉᆞ나이 신랑 죽여부난 이 사람 심엉 죽여도랜. 경 강 고소헌 거라양. 게난

"이제 어떵 헐티?" 허난.

그 사람 몸에 난 애기 아홉 오누이인디. 다 죽여도랜. 경 헤도 ᄒᆞ나 니 적시 놔두켄 허난. 나 적시 아니 놔둬 다 죽이랜. 게난 아기 아홉 오누이가 다 죽연. 하나 할망은 크게 무덤 만들안. 그 무덤 안에 들어 앉안. 무신 옛날 눈 비에기들 위에 보민 그거 곧앙 무슨 풀이랜 헌다마는? 저, '익모초'. 그거 씨 허연 지름허연 지름 멧 통 허연. 불 쌍 들어 앉안.

[조사자] 돌담 속에마씨?

[제보자] 예. 무덤 속에 막 판 들어간 거주게. 들어간 그 지름 불 꺼지거들랑, 영 그 구멍 막아도렌 동네 사람ᄀᆞ라, 경 헷젠 허멍. 이거 우리 밧이민 이디 무덤이 잇어낫어예. 우리 밧디 농사허레 밧더레 ᄒᆞᆫ실에 뎅기멍 요것이 무덤이랜 헹 느량 들어낫수다. 나 어린 때에. 그 저 정년이엔 헌디. 이제 관광대학. 길 호끔 우트레 올라간 디. 무덤 잇어낫어. 막 무덤도 컨. 막 무덤도 커난에, 산 소굽에 들어가난 먹

을거영게 불 쌀 거영게 다 준비헹 들어 앚으난 크게 무덤을 집을 만든 겁주게. 경 헨 들어 앉앙, 동네 사럼들ᄀᆞ라 이디 지름불 꺼지거들랑 도 막아도렌 경헷젠 헌디 왜정시대에 무신 보물 봉가가젠 무덤을 다 파 불엇어양.

[조사자] 도굴헷구나?

[제보자] 경 헷인ᄀᆞ라 무덤을 막 판, 보물 모두 봉가가젠, 경 헹 우리 밧디 뎅길 때 옛날에 경 헤난디 그 후제 통 몰라마씨. 이제 나 결혼헹 이디 왕 살아부난. 친정 밧이난 밧디 안 뎅기난.

[조사자] 그럼 그 친정이 어딘데?

[제보자] 광령3리.

[조사자] 그럼 그 무덤은 지금 어디 잇수과?

[제보자] 거디 밀어불엇이민 싹 밀어불엇일거고, 아니 밀엇이민 그디 표시 실 거우다. 질 어염이난. 관광대학으로 영 올라가는 근디 그땐 길이 경 넓지 안 헤낫수다. 길 좁으난 좁은 어염에 영 밧 안으로 시낫인디. 길 늘라 불고 원 어떵 ᄒᆞᆫ ᄎᆞ레 몰라마씨. 그 디가 관광지 뒈난. 몬 질 밀어부난 무덤도 ᄒᆞᆫ디 밀어불엇안디 모르쿠다.

[조사자] 그럼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계속 들은 거꽈?

[제보자]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네 밧 벗이난
“이거 메고할망무덤이여, 무덤이여.”
경 허난. 그 말만 들으난.

[조사자] 더 생각헤 봅서. 더 붙일 말은 없고?

[제보자] 몰라마씸, 기자 ‘아이 아홉 오누이 나도 ᄒᆞᆫ 보람 없다’
허난. 아이 아홉 오누이 나난 막내 아덜은 할머니 직시로 나둡서. 허난 그 ᄉᆞ나이 살인헷젠. 더러운 종놈이 다 끊으랜 아홉 오누이 다 죽여 불엇젠 경 ᄀᆞᆯ으메. 난 그 말벢인 나 모르쿠다게.

[조사자] 잘도 모지직헌 할망이다예.

[제보자] 모지직헌 할망이고 말곡. 이녁 신랑 결혼허연게 한창 살젠 허는디 친구가 데령간 쏘왕 죽여 부난게 그거 포쉬험으로. 그 내중에 산 사름 아기들이난 나쁜 살인헌 핏줄 끊으켄 다 죽이렌 헌 겁주기게.

[조사자] 그 할망은 핏줄이 아예 없나?

[제보자] 아무것도 읏언. 경허난 무덤은 다 할망으로 허연 들어간 아기가 셧이민 그걸 뭐 보수허여그넹에 어드레 크게 만들주만은 기냥 밀어불엇일 거우다. 그때도 왜정시대 보물 파간 무덤 막 판 흑 막 내쳐낫어마씀.

[조사자] 아고, 고맙수다.

- 핵심어 : 메고할망, 할망, 무덤, 신랑, 사농

W_L_040 메고할망과 아홉성제

2016년 10월 16일, 애월읍 광령2리 광령2리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신○○(여, 1943년생, 애월읍 광령2리)

[제보자] 메고할망이 어떵 살당 죽은 건지. 젊을 때에 하도 곱닥한 할망이난. 동네 사람이게 그 할망이영 같이 살젠. 메고할망 양손을 잡아 사농 글렌 간에.

"닐랑 일로 걸라, 날랑 일로 가키여."

헤그네. 가그네 쏘안 죽여둥. 경 헤둰 완게. 니네 남편은 가두언 춪지 못허연.

그 후제 호끔 다정허게 살앗다 말앗다 허멍 헤여가난 이젠, 그 남자영 어떵 같이 살게 뒀어. 그 남편 죽여 둔 남자와 몰르고 살게 뒀인디. 그 사름이 다정허나네.

그때엔 그 옛날엔. 여자나 남자나 머리에 니도 많이 일어낫주게. 니 이나네 니 이레 엎더지멍 니 잡아주켄 주나네. 오늘같이 비온 날. 경 허는디 마당에 막 물이 부글레기. 비 많이 와가믄 거품 ᄇᆞ각ᄇᆞ각 허잖아양.

경 헤가난 그 거품이 ᄇᆞ각ᄇᆞ각 헤가난 그 남자가 키득키득 웃으멍 헤가난,

"무사 경 웃엄딘"

헤난,

"니네 남편 옛날에 사농 가네 총으로 맞췅 죽은 때에 피 부끄는 게 저처럼 바각바각 부꺼랜."

경 골으난 이제 그때부턴 그 여자가 이젠 뭐 아고 그거 어떵헨 가르쳐주랜, 그 남자 신 때에 막 고생헹 살아나구랜. 꿰로 그거 춪아내언 가르쳐주난.

엿날엔 그런저런 뭐가 서낫주게. 치마덜 막 입언 다닐 때난. 여자들은 치마 입엉 간에 여기 노난 풀이 잡초 무릇헷이난 풀 헤싸내 영 보난 치마레 만딱 그럴 막 붙여놔그네 지금은 경찰이주만 그때는 관가에 가져갓댄 허여.

지금은 경찰이라예. 관가에 강 이 사람이 영허영 우리 남편 죽엿젠. 게난 같이 왕 산 남편광은 애기가 아홉 개 낫어마씨. 아들이 아홉 성제.

아홉 성제 낫인디 그 아홉 성제를 그 경찰이서

"어떵 다 죽이느냐. 하나는 살리우지."

"내가 난 아들이라도 남편을 죽여부난에 막 괘씸헌 거 아니꽈."

허난 그 아덜 몸에 애기가 아홉인가 열인가 나도 할망이 하나 살리느냐 살리지 말앙 다 죽여불렌 헨 오라네. 할망 산 날 죽은 디가 이 ᄆᆞ을에서는 찾지 못핬우다. 무슨 땅굴 판에 들어가네에 살멍

"이 불 꺼지걸랑 나 죽은 줄 알라."

헌디. 원 어딜로 어떵 헹 들어갓인디 뭐헷인지 거길 아직도 찾질 못핬어.

- 핵심어 : 메고할망, 아홉 성제, 사농, 남편, 부글레기, 치마

W_L_041 멩도암 김칩이 큰어멍 귀신

2016년 9월 29일, 제주시 봉개동 봉개마을회관, 김선희 조사.
고완신(여, 1932년생, 제주시 봉개동)

[조사자] 봉개에 귀신 얘기는 엇수과?

[제보자] 귀신 들령 헤난거?

[조사자] 도체비나 귀신 얘기 같은 거마씸.

[제보자] 그런 얘기 잇어낫어. 그건 옛날에 명도암 김칩이서 큰 사름이 낫어. 나난 이제 곧으민 대학원 헷댄 허는 거주게. 그런디 서울을 글 공부를 갓어.

[조사자] 예.

[제보자] 가난 삼년 동안 글을 헷어. 이제 글을 헤영 보난 그디서 기생이 붙엇어. 그말은 글공부를 하러 그딜 가난 족은각시로 기생이 붙으니까. 이제 그 기생이 막 옷도 좋고 같이 살앗어. 이제 멩도암에는 큰각시가 살앗어. 그걸 공부를 다 헹 오젠 허난 족은각시를 떼어져서 올 거 아니?

[조사자] 예.

[제보자] 경 허단 보난 ᄇᆞ름이 열나흘 두 일뤠를 불엇어. 베를, 엿날은 비영기가 엇으난 베만 탕 오거든.

[조사자] 예, 예.

[제보자] 게난 베를 못 띄와 노난. 두 일뤠 열나흘을 살당 보단에 그 각시가 그 족은각시가 아일 데려 오당 보난 죽음에 일럿어. 솔칵. 나무로 학꼬를 짠. 열두폭 치메에 고장중이 속곳 다 벗어 놓고. 은비녜, 금비녯대 빠 놩으네. 이젠 솔칵 뒤에 놔 놩으네 띄왓어. 띄와두난 ᄇᆞ름이 잣어. 자난 그 배를 띄완 이제 멩도암 나신 사름이 완.

오단 보난 벳머리에 둥글둥글 그 학꼬가 떠서 산짓물 ᄃᆞ리에 왕 보나네 베가 그 학꼬가 가만히 잇엇어. 오던 사름더레 저걸 건지렌. 하, 이상한 일이 잇젠. 베 앞에 이게 잇젠 오란 건지렌 건졍 보난. 기생 얻엉 살아난 그거라. 그 옷 벗엉 나둰 바당물에 빠졍 죽언 그 학꼬에 들언. 곧이 왕 보난 학꼬를 건져 아졍 보난 이건 족은각시구나, 안 되겠다, 건져 아졍 왕 오란 보난 큰각시는 멩도암 오란 보난 미쳣어. 벌써 미쳣어. 큰각시가 족은각시 감정으로 구신을 들련. 벌써 구신이 들련. 눈은 살풋살풋 오안헌디 완 보난 웬더레도 살풋살풋 오른편에도 살풋살풋. 멩도암 엿날 주민이 사름들이 찾앙 보난 큰각시가 벌써 미쳐서 겅 헌 거라.

족은각시에 미쳥. 경 허난 저 안베비동산, 안베비동산. 멩도암 동녁펜이서 굿을 열나흘을 헷어이. 열나흘 두 일뤠를 이젠 허니까. 구신을 들려 아장 그 족은각시가, 입에서 곧는 거라.

"나는 이디서 홑적삼을 데껑, 그 적삼 불려강 아진 더레 나를 모사ᄃᆞ라. 애기들을 괴롭히고 허물이 나면 ᄌᆞ순들이 아이고 당에 강 밥헹 강 빌어사켜."

헹 강 올리곡. ᄋᆞᆫ 당이옌 헌 디가 잇어. ᄋᆞᆫ 당카름 서녁펜이 그 당을 모셧주. 이제 두 일뤠 굿을 허난 그 당 아진 밧이 오란 적삼이 아지난 거기를 모삿어. 경 허민 짐칩이 정월초하룻 날은 메셩 감땐 막 질구덕에 잔뜩 지엉 가믄. 초이틀뒈민 정월에 마스크허고 질러레 봐도 말을 아니 ᄀᆞᆯ아. 잔뜩 물건을 먹을 걸 지곡. 붉은 허벅 실 멘딱 헤영 아졍 강 그 당에 강 올려 두곡. 이제 ᄌᆞ순들 좋게 헤줍센 심방 ᄃᆞᆯ앙 가는 사람도 싯곡, 그냥 가는 사름도 싯곡. 그냥 케우령 그냥 그디 강 먹으렌 헤동 오곡. 경 허당 당을 나가 이 ᄉᆞ태 넘으난 그 밧을 빌엉 허단 보난 육지 사름이 와. 오난 도자가 낫어.

그루후젠 그놈이 땅을 다 멜랏어. 멜라네 이젠 헤 부난 그 밧 에염더레 세를 놓안 그 사람들이 밥을 올령 헤낫어. 멧남은 김칩이서 밧을 빌어 먹어가난 이젠 구신을 못 모사. 거난 멩도암더레 가는 공지가 조금 셔. 게난 그 공지에 간에 담뱅뱅 다왕 푹낭 ᄋᆞᆫ만히 큰 아래 강 다시 모산 그 짓을 헸어. 겨난 김칩이서는 겅 허는 거라.

[조사자] 아, 예.

[제보자] 게난 이게 구신 말. 엿날 구신뒈영 헤난 말. 지금도 멩도암 조금 알력편이 질 에염에 공지에 모산. 그디 강 애기가 아프나 어른들이 아파가믄 그디 강 대접을 허는 거주게. 경 허는 거.

- 핵심어 : 큰각시, 족은각시, 안베비동산, 멩도암, 멩도암 김칩이, 구신 모시기

W_L_042 멩월천 펭나무와 종소감

2016년 10월 19일, 한림읍 명월리 오관봉씨 댁, 이현정 조사.
오관봉(남, 1931년생, 한림읍 명월리)

[조사자] 저, 그리고 또 하나는 멩월천이 있잖아예.

[제보자] 멩월천.

[조사자] 멩월천에 펭나무.

[제보자] 펭나무 이거 군락지지.

[조사자] 근데 멩월천에 있는 펭나무는 막 유명헤낫댄 헷인디, 거기에 얽힌 얘기는 뭐 엇인가마씨?

[제보자] 멩월천에게, 이것이 지금 펭나무 군락지라고 헤가지고, 어, 이것이 인젠 지역력이 이 역사책에서 나와 있는 이것이 멧 년도에 말이여, 이것이 군락지로 선정이 되엿지. 도에서, 그래서 이거 군에서 다 관리를 허지 지금. 문화재 어, 관리국에서.

[조사자] 펭나무 중에는 막 그 왜, 오래되거나 영하믄 신 들엇댄 헤그네 막 옛날에 이야기 나와나고 경 헤진 않았습니까?

[제보자] 아니, 여기에는 이, 여기는 본래 이 펭나무가 이 부락에는 펭나무가 없으면 삶을 살 수가 없었던 모냥이라.

[조사자] 무사마씨?

[제보자] 에, 그래서 이, 에, 헤가 이기 바다가 훤히 뵈이고 헤서 좋질 않다고 헤가지고 이것이, 자, 이거 천연적인 자원이지. 아 그렇게 헤가지고, 그렇게 인제 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옛날부터 종소관이라고 헤가지고. 이건 부락에서 그 우리 멩월에선 이 나무가 엇이면은 헤가 이기 비촷어. 바다가 비촷어 좋질 않다고 허니까. 이 나무를 갖다가, 어, 잘 보호헷지. 그, 그 보호허는데, 나무덜 자꾸 그 끊어불어 가니까, 종소감이라고 있어.

[조사자] 종소감.

[제보자] 어, 종소감이라고 선정헤가지고, 나무를 지키는 종소감. 에 이렇게 헤가지고 지키는 사름이 종소감이라고 헤가지고, 선출을 헤가지고 낭을 지키지.

[조사자] 그믄 막 사람들이 막 베가젠 헤믄 그 사람이 베지 못허게 하는 거구나예?

[제보자] 그래, 그렇지게. 만약에 이, 집, 집데레 벋는 가지라도 잇이민 끈어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끈지 못허게 종소감을 헤가지고 허고. 어, 그런 전설이 있고. 지금 멩월 향지에도 나와 잇지만은 4·3사건 때, 에 우리가 소개를 헤엿지. 소개를

헤여가지고, 어, 우리가 옹포 간스메공장에 제국시대에 일본놈이 거기 간스메공장을 했어요. 거기 헐 적에 거기서 소개 멩령을 받아가지고 갓을 적에. 그때 군인덜이 다 이북청년덜이란 말이야. 막 들어와가지고 제주4·3사건 때 지원벵 와가지고 허니까, 그때는 국가에서 뭐, 기름이 전연 없엇지. 뭣을 헐려면은 불을 떼가지고 밥도 헤 먹엇지 그러니까, 그때 군인덜이나 경찰관덜이 밥을 헤 먹을라니까 화목을 나무를 께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모든 걸 헤 먹었지.

그래서 우리가 옹포 공장으로 집단적으로 가가지고 소개를 헤가지고, 거기서 집단 생활을 허는 과정에서, 한림 국민학교에 군인덜 주둔헷지. 지서에 경찰관던일 주둔, 있어가지고 불을 떼일려고 허니까 기름도 없고 허니까 멩월에 펭나무가 있으니까, 옹포 민보단에서, 옹포 민보단에서 멩월에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멩월 나무를 가서 비여가지고.

"좀 사용을 헐 수 없느냐?"

이렇게 헤가지고, 우리 이 소개, 소개민덜 멧 사름을 불러가지고, 그 옹포 공장에서 허니까, 그땐 사름이 다 죽을 때랏지예? 말 잘못헨 팡팡 쏘을 때라노니까, 그래서 이젠 에, 그런 질문을 허니, 허니까 우리는 소개민이라노니까, 옹포 사름덜이 그렇게 민보단에서 경 헤여도 뭣이라고 말을 안 뒌다고 말을 못헷지, 무서웟어. 그러니까 흔 사름이 있다가 죽을 각오를 헤가지고.

"그것은 우리 멩월에서는 보호허는 이 나무니까, 그 나무는 벨 수, 베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해방이 뒈여 가지고 올라가서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나무는 우리 멩월서 보존허는 나무기 때문에 그 나무는 벨 수가 없고, 건 저, 삼연대대 가는 디, 솔나무덜이 길가에 있는 거, 그걸 베다가 사용허세요."

헤난 전설이 있어.

어, 오○○씨옌 헌 사름이, 오○○. 그 사름이 이 당시에 종소감이랏지, 그래서 옹포, 그때는 말만 잘못헤도 심어다근에 총으로 쏭 죽여불엇지, 죽을 각오를 헤가지고

"멩월에 있는 하천에 있는 나무는 절대적으로 끊질 못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해방이 되어서 올라가서 이제, 멩월에 이제, 정착을 허게 되는데 나무들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 나무는 우리가 허락헐 수가 없고, 저 멀리 가면은 길가에 솔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베여다가 하세요."

이렇게 허는 전설이 있고.

- 핵심어 : 멩월천, 펭나무, 군락지, 종소감, 4·3사건, 옹포 민보단

W_L_043 명월리 명의 월계 진좌수

2016년 12월 7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문경미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조사자] 한림읍에 월계 진좌수 얘기는.

[제보자] 아 그 진좌수는 것도 영조 땐데, 영조 때에 우리 제주도에 유명한 것이 양유석인가 보성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얼굴이 가장 뛰어났고 월계 진좌수는 의술이 뛰어났고 ᄀᆞ만있자 제주 사절 해가지고, 뛰어난 사람이, 양유성. 이 사람은 얼굴 곱기로 유명허고. 그 다음에 고홍진, 고홍진은 풍수로 유명하고. 문영후라고 헌 사람이 현감인데, 이 사람은 점 잘 짓기로 유명하고. 그 당시에 요것이 '제주 사절'. 진국태는 의술을 잘했는데, 이제는 뭐냐 그러면은 요즘같이 약을 해서 팔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누가 아파가지고 간 사람을 진찰해 보고, 뭔풀 뭔풀 뭔풀 떼다, 그때는 약들 그렇게 아마 우리 제주도는 말려가지고 그런 기술이 없었던 모양이요.

그래서 이 양반은 거의 이제는 들어 맞추는데, 육지에서 임금님, 요즘 말로 허면 청와대, 담당 의사가 귀양을 어쩌다가 잘못 왓어. 내의원에 왔는데, 그러니까 섬에 오니까 벵 잘 고치기로 나가 최고라고 아주 폼 쟀을 거 아니여이. 쟀을 건데, 어쩌다가 그 양반이 다니다가 잘못해가지고, 것보고 뭐라고 한다마는. 열매 열아서 요사이 몸에 좋다고 허고. 가시나는 나무 아 구지뽕나무. 그것 잘못 다니다가 가시에 얻어 쒜엇어. 서울서 귀양 온 아주 유명한 의원이.

"아, 이건 의서에도 없고 이 나무에…"

독이 좀 있는 모양이여. 우리 어린 때도 그걸로 바늘로 했을 때에. ᄀᆞ메기 잡아당 그 나무에 가시헤당 열아 먹어난. 우리 어린 때도 처음 몇 개는 열앙 버려두고, 그 다음부터 열아 먹으랜 허메. 가시가 아마 독이 있는거 같애. 아 이양반이 여름인데 이거 찔러가지고 이제는 거 이제는 안 낫아서 하니까 쩔쩔매는데. 그러니까 누구가 아, 진좌수가, 좌수는 요즘 같으면 도의회 의원, 지금 향사당, 거기가 향청이거든. 좌수니까 거기 있었단 말이여. 관청 가까이 있으니까 진좌수

한테 베아보며는 나을 게 아닌가 하니

“아이, 나가 모른데 지가 뭣 아느냐.”

요즘 말하면 쪽팔려가지고, 서울서 임금님 담당흔 의원인디 말이여. 그래서 인제 안 허는디. 그니까 이것이 점점 안 낫고 번지고 헤서 점점 더 아파가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이제는 아이고 이거 좀 진좌수라도 뵈아 봐야 이제는 허겠다고. 아마 자기는 직접 얘기는 못허고 옆에 사람한테 좀 얘기했던 모양이요.

그러니까 이제 진좌수한테 갓어, 이리저리해서 아, 귀가시낭 우리 제주돗말로

“가시낭에 쏘여가지고 그때 못 낫어 부니까 점점 것이 더 붓고, 더 넓혀져가지고, 그건 좀 약은 없는가?” 하니까.

아니 그니까 거 열매를 똑 따면은 그 하얀 진액이 나와.

“그 열매가 익으면 좋지만 아직 덜 익엇주마는 ᄋᆞ름 따가지고 그거 불르면 나을 거를 그거 그렇게 고생헐 거 머 잇어.”

그 말 듣고 와가지고는 얘기허니까 그걸 따다주니까 ᄇᆞ르니까 그자 얼마 없어서 나아 버렸어.

그래서 그 서울 임금님 돌보던 의원보다도 진좌수가 더 나았다 소문이 낫어. 명의로.

- 핵심어 : 월계, 진좌수, 명의, 제주사절, 구지뽕나무, 명월리, 귀가시낭

W_L_044 명월리 명의 진좌수

2016년 10월 24일,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씨 댁, 문경미 조사.
김한보(남, 1934년생, 한림읍 대림리)

[조사자] 저쪽 명월쪽 얘기지만, 명월리 폭낭에 대한 무슨 전설적인 이야기 안 들어봣수과?

[제보자] 명월리 폭낭 관계는 전설 같은 건 없고 과거부터 명월리는 설촌이 상당히 오랜 부락입주. 명월리에 진좌수란 분이 있어가지고.

[조사자] 예. 그 진좌수란 분의 아는 얘기 골아주쿠과?

[제보자] 진좌수란 사람이 어릴 때에 명월서 자라면서 지금이 어디고, 아마 월령으로 추측되는데, 거기에 글공부를 다니는디. 아이가 매일 하도 영특하여 다니고 그러는데, 몸이 점점 빠져갔다 말입니다. 어째서 공부해서 영 대움해가지고 이러는가 이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들으니 자기가 와가며는 예쁜 각시가 와가지고 놀다가라고 그러고 놀고. 또로 구슬을 자기 입에 물었다가 먹으라고 헤가지고 입에 물고 바끄고 먹고 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뎅긴다고 하니까. 아, 그러냐구 그러니 이젠 서장이라고 선생을 서장 서장 헤 낫는디. 이번엔 그리 말고 오다가 그렇게 하거든 하늘 바리고 땅 바리면서 사름 바리면서 삼켜 버리라고 그러면 너는 춤 모든 것을 통달할 것이다.

아 이러니 그 말 믿고 와가니까 이젠 또로 역시 이쁜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짓을 헤가니까 그걸 세 가질 다 셀 건디 할 건 디 딱 살피면서 해 가니, 돌연변이해가지고 여우로 변해가지고 해가니까

"아이고 사람 살려."

이렇게 해가니까 그러니까 여우는 도망쳐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어른이 모든 병에 대해서는 춤 그 어른 곧는 말이 다 약이 되고, 또 이슬이 되고. 그래가지고 모든 병을 고쳤다고 ᄒᆞ고. 또 우리 어린 때마저도. 옛날에 말라리아라고 해가지고 열병, 열병으로 열나고 아플 때는 진좌수 무덤에 가가지고 하룻밤만 자나믄 다 나아낫다구.

[조사자] 진짜 경 헷수꽈?

[제보자] 그런 전설이 잇엇어 전설이. 전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명월리 향지에 보면은 그 외에 이곳 저곳에서 와가지고 병을 고쪄 갓다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나와마씨.

- 핵심어 : 명월리, 진좌수, 서장, 각시, 구슬, 여우

W_L_045 명주할망여

2016년 12월 2일, 우도면 오봉리 오봉리노인회관, 문순덕(김은정 · 정이슬) 조사.
제보자1: 고호수(남, 1938년생, 우도면 오봉리)
제보자2: 한두영(남, 1940년생, 우도면 오봉리)

[제보자2] 저 우리 동네에 명주할마니여가 잇수다. 해안가에. 게난 그 명주할망이 이제 물찌 때만 뒈면 그 여에 가서 천초, 우밀 헷어. 그 할망만.

[조사자] 명주할망?

[제보자2] 예, 명주할망. 그러면 그 여를 지금까지도 명주할망여, 명주할망여라고 헤서 이제….

[조사자] 그 명주할망여는 어디 잇인 거우꽈?

[제보자2] 삼양동, 늙은이물 아래.

[조사자] 삼양동 그….

[제보자2] 늙은이물이옌 허문 뒙니다. 늙은이물 아래 명주할망여.

[조사자] 늙은이물 아래. 거문 저 삼양동이 해녀탈의장 있는 쪽이꽈?

[제보자1] 예예, 탈의장으로 약간 저 거시기 남쪽더레 와가민….

[제보자2] 명주할망이옌 헌 사람이, 물찌 때가 뒈면. 저 우뭇가사리 뽑젠 허면, 물찌 때라야 우뭇가사릴 뽑거든마씨. 그 여에 들어가. 그 여에 들어강 천초를, 계속 천초만 튿은 거라. 그래서 그 할망이 그 여를 독점했기 때문에 이제 명주할망여엔….

[제보자1] 그 여가 육지와 한 오미터 뒈여예.

[제보자2] 물이 싸야, 물이 쌀 때 아니민 사람이 들어가질 못허여.

[제보자1] 물 나민 사람이 걸어다니질 못허여. 아 저, 물들면 싸도 이러큼 발 올려서 다녀. 그 할마니만 자꾸 가민 그 여에 이녁 혼차만 허니까 그 할망여라 이름을 붙였다는 거….

[조사자] 아, 경 헨 명주할망여.

- 핵심어 : 명주할망여, 우도, 명주할망, 늙은이물, 삼양동, 우미, 물찌

W_L_046 몰모르뜨동산

2016년 11월 9일,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병원 병실, 문경미 조사.
윤문수(남, 1933년생, 안덕면 덕수리)

[제보자] 옛날에 덕수 앞에 몰모르뜨동산이랜 잇인디.

[조사자] 몰모르뜨?

[제보자] 예. 그 동산엔 물을 탕 가면 내령 가야 뒌댄 헤낫수다.

[조사자] 무사마씨?

[제보자] 게난 몰모르뜨랜. 그 동산엔 가면 물이 다리 부러져 분댄 헤난. 그냥 가당은 사람 탕 그냥 가당은 내령 가지 않으면 물이 다리가 부러져 불어. 게난 몰모르뜨.

[조사자] 그게 어디 지경이꽈?

[제보자] 어디 흔적이 엇어. 그땐 길이 막 좁아나난. 그니까 어느 원님이 한 번 말을 타고 가다가

"내령 가야 뒙니다."

하였는데, 내령 가지 아니허고 가난 말이 노시 안 가난

"뭣이 있느냐?"

허난 광정당이 있다고. 당을 모셔낫는디. 거기 옛날에 막 큰 구렁이가 나와낫다고 허여.

- 핵심어 : 몰모르뜨동산, 물, 다리, 광정당, 구렁이, 원님

W_L_047 무남밧 이 좌수

2016년 12월 16일, 서귀포시 중문동 이성무씨 댁, 김선희 조사.
이성무(남, 1943년생, 서귀포시 중문동)

[조사자] 중문에 무남밧 이 좌수 얘기 해주세요.

[제보자] 무남밧은 이름이 나무 이름 무남밧이냐, 어떤 사람은 그 이짝에 진밧디서 문 앞에 있는 밧이다 해서 문압밧이라고도 해석하고 무남이 나무가 있다고 해서 무남밧이라고도 하고 그건 그 알칩인데.

[조사자] 알칩이?

[제보자] 윗집 알집 할 때. 그 무남밧 이 좌수라는 분은 고부 이씨인데, 1719년 숙종 45년이 되더라고이. 이 사람이 크지만 눈빛이 상당히 빛났다고 헤이. 호랑이 눈빛이라고. 눈을 뜨면 참새가 탁탁탁 떨어지고, 사람이 질려버려낫어.

[조사자] 기세가요?

[제보자] 그렇지. 그래서 엄청나게 눈에 정기가 있었는데 강아지도 왕왕하다가 이 사람이 눈을 번쩍 하면 벌벌 떨면서 짖지 못했다고 하고. 제주 목사가 그렇게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한번 눈 정기 싸움을 하는 데 이좌수가 눈을 번쩍 뜨니 목사가 질려버리는 거야 눈빛이.

좌수라는 게 마을 대표적인 이장 같은 걸 좌수라고 하는 거 아녜요? 그래서 목사가 날 잘 도와달라 한 일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목사와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옛날은 그 목사가 제주에 순찰을 하게 되면 길을 닦아야 하잖아요. 안덕에 가면 화순에서 덕수 넘어갈 때 구제기왓자왈이라고 구제기옷이라고 틀이 있어요. 우리말로 틀이엔 하고 탈이엔 하는데 거기가 곶자왈이지.

[조사자] 예, 예.

[제보자] 거기를 길을 잘못 닦았다고 자주 구박을 주는 거야.

[조사자] 목사가 이 좌수한테.

[제보자] 게난 좌수가 원망하는 거야. 맨날 오는 영리들마다 이 골을 지날 때마다 길을 잘

안 닦았다고 벌로 벌포를 자꾸 징수하니까 주민들이 당하는 거지. 민원이 많아지니까 이 좌수가 화가 나서 폐습을 없앴다고도 하고. 관덕정 앞이 갔다가 쳐다보니 날아가던 참새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조사자] 예, 예.

[제보자] 이 좌수란 분은 대정현청 있잖아요, 보성 초등학교 자리인데. 일 보러 대정현청에 자주 갔다 올 때인데 중문 우남동 부근에 소부리당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소부리당길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예쁜 색시로 변한 여우가

"하르방, 하르방 나도 같이 테워다 줍서."

허멍 애걸을 하니까

"이레 타라."

헤영 허리끈을 볼끈 세게 묶었어.

[조사자] 그 색시를.

[제보자] 예. 그니깐 색시는

"무사 영 세게 묶엄수과?" 하니깐.

"내 말은 빗살처럼 빨리 달리는 말이여. 잘 안 묶으민 니 털어졍 죽나."

이렇게 해서 오는데 채찍으로 말을 후려치니까 말은 중문에 당도하고. 지금은 그 알칩에 사는, 거기 정낭은 나무 세 개 놓잖아요. 말에서 딱 튀어나오면 정낭을 뛰어 넘으니까, 집에 개가 흰개, 노랑개, 검은개가 나와서 달려들어서 몸에 풀었던 색시를 푸니까 여우야. 그런 얘기가 있어. 보니까 꼬리가 세 개여 뭐여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목사가 이 좌수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한양에서 태어났다면 어영대장감이다."

라고 했다고 해요.

- 핵심어 : 무남밧, 이 좌수, 여우 색시, 호랑이 눈빛, 구제기왓자왈, 대정현청, 소부리당, 소부리당길, 흰개, 노랑개, 검은개

W_L_048 문전하르방

2017년 2월 21일, 대정읍 하모리 이정자씨 댁, 문순덕(김은정·정이슬) 조사.
강순화(여, 1935년생, 대정읍 가파리)

[조사자] 가파도에서도 문전제 하지 않습니까?

[제보자] 예. 합니다.

[조사자] 무사 문전제 햇인고예.

[제보자] 문전하르방이라고예. 문전하르방이라고 여쓱 허민 '문전 모를 공사가 이시랴. 문전 모를 공사가 시랴.' 어디서 들어오민 우리 노인당에서도양 어떤 사람이 강 우리 놀앐이난 이젠 경 놀지 않는디 예순나믄 그추룩 놀앗어마씀. 일흔댓끗지도 놀앗주. 어떤 사람이 들어왕 댓번에 마이크 심으난 하는 소리가 "문전 모를 공사가 없는디 게도 이디 들어올 때는 '노인회장이 누게고 어떵 허꽈?' 허영 인사헹 들어오주. 아주 노래만 허믄 제일이랜?" 골아낫수다.

[조사자] 문전하르방은 어떵 허영 문전하르방이랜 한 말은 안 들어봅디가?

[제보자] 문전하르방은 정수냄이로 허연 정수냄이가 문전으로 먹형 하여간양 저청비 노일제대 그게 그디 들어가십디다.

[조사자] 삼춘, 한번 골아봅서.

[제보자] 게난 이제 문전하르방이 이제 춤 연날에 정수냄이 여쓱 허믄 정수냄이 그 사람이 아이 일곱 개 놔둰 아들 일곱게 놔둰 족은각시 허영 문도 거적문 ᄒᆞ영 사는디 강 아들들이 찾앙 강

"아부지, 아부지 무사 이추룩 헹 삽니까? 옵서."

ᄒᆞ멍 영 헹 강 살게 허난.

그때에 족은각시가 아이 일곱개 애 헹 먹으믄 저 빙이 좋켜 허영 하르방신디 아무디 강 점지어 봅서. ᄒᆞ민 그 사람이 얼른 하르방 가기 전이 걸음질 허영

"멩텡이 쓴 중이 있습디다. 멩텡이 쓴 중신디 강 들어봅서."

허민 그 사람이 멩텡이 썽 아장

"아기 일곱개 먹어사 살큰게."

족은각시가. 경 허믄 아부지신디 왕 하는 소리가 한번은

"아무디 강 봅서."

거기 강 점 져도 그 사름. 그 사람이 족은각시가 그추룩 하난 아방이 칼을 골앐

이난

"아부지 무사 칼 곱니까?"

"느네 어멍 애 일곱개 내엉 먹어사 빙이 좋댄 핸저. 경 헤라."

"알앗수다."

"게민 아부지 애 일곱개 내엉 오쿠다."

헹 큰아들이 이제 산에 강 보난 도새기가 새끼 난 것이 일곱개. 여섯개 헤영 완

"아부지. 날랑 어머니 먹어낭 끝에 날랑 잡앙 어머니 멕입서."

경 헤동 이제 그추룩 허난 어멍이 먹어. 이제 먹어. 허난 그 사람은 먹는추룩 막 이추룩 영 헹 베려보난 그추룩 헤가난 그땐 큰아들이 여섯 형제 모어들라. 헹 치우쳉 보난 다 자리 아래 놘. 정수냄이가. 자리 아래 노난 그때에 아버지 돌아당 그 아방을 문전으로 먹게. 우리 일곱 성제가 아방이 문전으로 헤영 먹게 허자.

자청비 말 거느리젠 허믄 아주 멀어. 문도령이 자청비광 문도령 좋아나난 어멍넨 그디 가지 말앙 아마도 다른 디 장개가랜. 다른 디 장개가랜 허난 아맹 헤도 자청비신디 가켄 허난 아니 뒌댄 허난, 하루는 문도령이 허는 소리가

"묵은장이 둡니까? 새장이 둡니까?"라.

"야야, 새장은 새것만이 맛이고, 묵은장은 깊은 맛이 있고."

"묵은 옷이 좁네까? 새옷이 좁네까?" 하난

"새옷은 입으민 일도 못하고 묵은옷이 만만헹 좋나." 허난,

"나, 정수냄이 똘신디 장개 아이 가쿠다. 나 자청비신디 가쿠다."

허난 시어멍은 우리 메누리로 들어오는 사람은 클에 아장 벨거라도 허는 메누리. 베틀에 아장 멧 개라도 허여 넹기는 메누리 허주. 소소한 메누리 안 허켄 허난. 정수냄이 똘신디 가난 그 사람보고 춪아오랜 헹 가난 정수냄이 똘은 막핀질 술안 먹어불엇젠.

새각시 상 받으민 우 걸엉 알르레 놓는 게 그 식이랜. 정수냄이 똘식. 가지깽이에 거령그네 새각시 뜨기 전이 알르레. 이젠 안핼인디사 우린 헷수다. 우린 허연.

[조사자] 이런 옛날말을 누게안티 들어봅디가?

[제보자] 하르방, 할망한테. 그리고 우리 어머니네가 일년에 한번썩 안택을 헷주게.

[조사자] 안택고사 헤낫수가?

[제보자] 응. 안택을 허믄 심방 빌엉 ᄆᆞ멀떡하고 돌레떡 허영그넹 그 심방말 허여 가민 들음만 허여. ᄀᆞ만 아장 들어. 이거 심방 말.

- 핵심어 : 문전하르방, 문전제, 정수냄이, 족은각시, 안택, 심방, 자청비, 문도령

W_L_049 문필봉

2016년 12월 1일, 애월읍 애월리 애월리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양병연(남, 1928년생, 애월읍 애월리)

[제보자] 애월도 마찬가지고, 곽지도 마찬가진디 애월 청년들이 옛날엔 세난 셍이라. 어느 ᄉᆞ또가 넘어 가는디 물 탕 넘어가는 디 청년들이 ᄉᆞ똔 줄은 모르고

"기냥 내려가지고 걸엉 가라."

물 탕 넘어가지 못허게 헷거든. 허니까, 다음에는 괘씸허거든. 사또가 뒈가지고 그렇게 당헤노니 오죽 뻘쭘헐 거라. 다음엔 와가지고 이제 물을 영 허젠 허니까 탕 넘어가젠 허니 못허게 허니까 아, 그러냐고

"이 ᄆᆞ을에 형국이 상당히 좋은디, 저기 저 담 빠진 밧이라고 담을 털어치와 버리면 ᄆᆞ을이 더 잘 뭘 건디."

경 헹 골아뒁 넘어가 버렸거든. 청년들은 그때는 물캉물캉 센 때니까이 그냥 올라강 담돌을 털어쳐 불엇어. 털어처 부난 거기서 비둘기가 놀아가기를.

[조사자] 비둘기가?

[제보자] 비둘기. 한 ᄆᆞ리는 상가에 놀아가고. 한 ᄆᆞ리는 납읍에 가고. 한 ᄆᆞ리는 도노미 가고.

[조사자] 도노미?

[제보자] 예. 도노미는 봉성. 경 헹 세 ᄆᆞ리가 날아강 경 놀아낫다.

[조사자] 그런 말을 어른들, 할아버지가 옛날부터 막 들어난 얘기꽈?

[제보자] 들어난 얘기주.

[조사자] 그 돌맹이는 털어졍 잇어마씨?

[제보자] 어, 잇어. 이제 잇어. 겐디. 곽지, 곽지에도 그와 비슷헌 거. 양반이 넘어가는디. 물 탕 넘어가지 못허게 곽지에서도 헷인디. 청년들이 세가지고 헤엿거든. 허니 다음 중으로 춪안 와가지고 넘어가젠 허니 막으니까. 곽지는 솟바니 어염에 돌이 쭈짝하게 하나 잇어낫는디

"저거를 털으처 불며는 곽지 사름들이 다 문장이 될 건디 저 돌 하나로 헤가지

고 곽지서 흔 사람밖에 문장이 아니 남나" 영 굴아뒁 넘어가 버렸거든. 아 청년들이 그대로 싹 웃으면서도이, 없애버리니 문장이 하나도 아니 난. 그런 전설이요 그거.

[조사자] 그거 문필봉 아니꽈?

[제보자] 문필봉이주. 돌이 쭈짝허게 싯지? 그거 엇어낫어. 몇 년 전에사 그거 헷어

[조사자] 아아, 무너뜨려 불엇인디….

[제보자] 옛날엔 잇어낫는디 없어불엇당 다시.

[조사자] 그러면 그 중은 몽니부련 그렇게 헌 거라마씨?

[제보자] 게 몽니부련 헌 거주게. 이녁을 나무려가지고 못살게 굴엉.

- 핵심어 : 문필봉, 곽지, 비둘기, ᄉᆞ또, 돌, 문장, 애월리, 몽니, 납읍리, 봉성리, 곽지리

W_L_050 물영아리 신물

2016년 12월 7일, 남원읍 태흥2리 태흥마을회관, 김선희 조사.
오명옥(남, 1934년생, 남원읍 태흥3리)

[조사자] 물영아리는 뭐꽈?

[제보자] 영아리는 오롬 이름이고. 물이엔 하는 것은 오롬 봉오리에 축구장 모양으로 물이 고여 있어. 물이 흔 사미터 될 거야, 깊이가. 평수로 아마 흔 오천 평될 거야. 물영아리는 오롬 이름.

[조사자] 물영아리에 재미난 이야기는 엇어마씸?

[제보자] 재미난 이야기는 모르고.

[조사자] 우측으로 여문영아리라고 있어. 그 사이에. 여문영아리, 물영아리 사이에 신물이라고 있어. 신물.

[조사자] 거기 무사 신물이렌 헤마씸?

[제보자] 신물이렌 허는 것은 그디가 아무리, 봉천수 같던데,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이 보뜨지 안 한댄 헤여. 그디서 나는 디가 있는 모양이라. 확실히 나는지는 모르고 들어난 말이.

- 핵심어 : 물영아리, 영아리오롬, 여문영아리, 신물, 봉천수

W_L_051 바람 불게 허는 난두려

2016년 10월 18일, 구좌읍 하도리 김군자씨 댁, 송정희 조사.
김군자(여, 1940년생, 구좌읍 하도리)

[조사자] 토끼섬 옆에 무슨 바위섬 닮은 데서 서가지고 뭐허믄 바람 막 분덴 허는 얘긴 안 들어봣수과?

[제보자] 거기 올라가믄, 거기 올라강 웨면은 소리치면은 바람이 분다고 말은 헤.

[조사자] 다른 얘기 엇어마씸? 그 바위섬을 할망당이라고 안 헤마씸?

[제보자] 아니,

[조사자] 거기 이름이 뭐마씸? 토끼섬 옆에 바위섬?

[제보자] 뭣산지. 토끼섬 옆에 난두려.

[조사자] 난두리?

[제보자] 난두려, 난두려.

[조사자] 난두려, 난두려.

[제보자] 난두려. 거기 난두려 난두려 헤여.

- 핵심어 : 하도리, 난두려, 바람, 섬, 토끼섬

W_L_052 박씨 효자

2016년 10월 24일, 애월읍 신엄리 신엄리마을회관, 문경미 조사.
박강부(남, 1939년생, 애월읍 신엄리)

[조사자] 어르신은 박씨 가문에 몇 대, 어떵 연결된 거꽈?

[제보자] 박씨 가문이 구대 손마씸. 이 할아버지 살던 집에 지금 살고 잇어. 우리 집안덜 다 뿔뿔이 다 분가헨 딴 디 나간디, 이 할아버지가 옹포서 나고 도두리서 크고 젊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는 신엄 안에 나 사는 집에서 살단 돌아가셧어마씨.

제단도 우리집 옆에 우영팟에 잇엇다가 베염이고 머고 막 난 제단 안에 돌아다녀가니까 일로 이사온 거라마씸. 옹포서 나고 청년 때는 도두리서 크고, 왜냐믄 지금 곧으면 도에 일 봤으니까, 거기서 다니기가 힘드니까. 견디 내가 보기에 조상들한테 들은 말이주만은 도두리서 아침 인사를 옹포 왕 부무님안티 인사허영 또 출근허영 또 옹포 왕 퇴근허영 인사 드려동 도두리 강 또 인사드리고.

[조사자] 휴식을 취하고, 또 아침에 인사드리러 오고.

[제보자] 경 헹 헌 걸로 웃대 조상들 앞에 계속 물려받는 말이거든 그 말이.

[조사자] 그 정도로 효도가 깊었구나예. 이 분에 대해서 들은 대로 골아줘 봅서. 어린시절에 어떵 살고 이 분이.

[제보자] 어린시절엔 잘 모르고, 겨난 나서 크고 돌아가실 때 신엄서 돌아가션 지금 저 아시아방송국 원내자리 옆에 묘소가 잇는디, 거기도 큰아들 주손 꿈에 다른 데 어딘가 모셔낫는디 거기는 잘 모르고 꿈에 나 일로 이묘헤 도랜 허연. 겐디 지팡이를 딱 놩 여기 묻어 도랜 허연. 헌디 깨난 이상허다 허연, 찾아가 보니까 거기 풀이 죽엇더라 허여마씨. 지팡이 식으로. 그래서 거기 지금 모션. 합묘로 모션 잇고.

[조사자] 이 분은 무슨 벼슬을 헷수과?

[제보자] 지금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대통령 셔난 셍이라마씨. 들은 말로 여기 세금받은 거, 세금하고 조곡들. 옛날엔 돈이 아니고 조곡, 곡물 이런 걸 받으민 그걸 싣거 그네 위에 강 바치곡. 그런 일을 헷다 말이우다. 경허고 그런일 헷고.

게난 숙종왕이 죽언 돌아가시난 이제 그 각 도에서들 책임자들 파견인가 헤연 조문식으로 갓던 모양이라마씸. 가난 홀기라고 하관하면 짱다리는 홀기를 헷다 그래마씸.

홀기는 시는 도두리 남씨가 지었고, 우리 할아버지는 그걸 불렷고 홀기 경 불런 헹 잘허니까 숙종왕비가 다 초청허연 식사를 헤연 헌디 우리 하르바지는 엿

날엔 종이허면 한지밖에 엇이니까. 종이 몇 장만 도랜 헨 그것에 자기 앞으로 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싼, 왕비가

"거 뭐허레 쌌이니?" 허니까

"이거 이제 나라에서 준 음식을 나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갖다드리려고 쌌우다."

허난 거기에서 뭐 훈생이라. 어떻게 된 판인지 경헨 헹 오단 풍랑을 만난 베가 파손뒈 부니까 사수도? 사수도에 들어간게. 무인도에 들어간. 해조류 같은 거 죽지 안 헹 살젠 허난 그런 거 헹 먹언 먹으멍 살멍 뱃쪼가리에 혈서를 썬 물에 띄우난 영영 헨 사수도에 잇노랜 띄우난 그게 나 생각에도 이치에 맞는 말인지 어떤 말인지 하늘이 도운 건지 옛날엔 할망들이 허벅 졍 허영 바닷가에 물 지레 가니 나무쪼가리가 자꾸 허벅드레만 들어가. 던져 불어도 왕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곡 허니 모친이 이제 걸 가졍 간 하르바지한테 베우니까 아이구 빨리 관아에 연락헤사켄. 왜냐하면 사수도에 영 헹 와 잇구랜. 조각을 이거 가졍 빨리 관아에 가사켄 관아에 간 가져간 머 헹 왓다해마씨. 완 그자 생활 계속헌 겁주 뭐. 더 이상은 뭐….

[조사자] 그분 딸이 또 뭐했다고 하던데요?

[제보자] 딸은 약혼자가 이향숙이라고 향 제, 숙 제 그분인디. 약혼인가 헌 셍이라마시.

[조사자] 딸 이름은 뭐꽈?

[제보자] 옛날 여인네는 이름이 엇엇주게. 겨난 돌아가셔부니까 그냥 혼자 산 거라. 약혼만 했는데도. 경 헤연 몸종 고소락이렌 데련 허는디, 고소락이렌 헌 그 분이 그렇게 이뻐낫댄마씸. 경 우리 신엄 청년들이 가만히 놔두질 안 헤난 셍이라. 게난 고소락이 그 할망이 일 년에 딱 한번 섣달 그믐날사 세수허고 목욕허고 머릴 빗엇다 이말이여.

[조사자] 너무 고와 부난?

[제보자] 겨난 이제 두루에, 쉽게 말해서 경헹 정신병자 행세를 헤분 거라. 일부러 머리도 막 풍쳥 다니고. 게난 같이 지금 삼대문이 뒌 거라마씸 지금. 효열충으로 해서, 딸은 열녀가 되고, 노비는 충신이 뒈언. 삼성녀로. 겐디 삼성녀로 뒌 게 옛날도 우리나라 남한 안에는 우리 박씨뿐이고, 개성에 한 군데 있고, 함흥에 한 군데 있다 허여마씨. 한국에는 세 군데란 말이지.

[조사자] 그 삼정문이?

[제보자] 삼정문이. 게난 보통 일이 아니주.

- 핵심어 : 신엄리, 박씨효자, 사수도, 삼정문, 고소락, 도두리, 이향숙, 효열충

W_L_053 배 모양을 닮은 중문 지형

2016년 12월 16일, 서귀포시 중문동 이성무씨 댁, 김선희 조사.
이성무(남, 1943년생, 서귀포시 중문동)

[제보자] 중문의 땅 모양은 배 모양이었어요.

[조사자] 배요? 바다에 떠다니는 배 모양이요?

[제보자] 예. 배 모양인데 이 배 모양이 어디를 향했냐 하면 지금 이렇게 되었거든요. 배 형국인데. 배 모양에 따른 지역 이름이 있는데 젤 높은 동산은 갑실이 동산이고, 저 밑에 족은 동산이 있는데 배 밑 부분인데 여기 치돌이동산, 여기는 백구라고 하는데 원래는 백구가 아니고 뱃굽물. 한번에 소가 백 마리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백구가 아니고 배 밑에 고인 물이라고 해서 뱃굽물.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초등학교 동쪽, 지금 푸른마을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가 닻밧. 배를 정박하면 닻을 놓잖아요. 그 닻을 놓고, 또 그 닻을 놓으면 배를 연결한 벌잇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벌이왓.

[조사자] 벌이왓.

[제보자]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이 배 형국의 이름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 중문이라는 배는 항해하는 배가 아니고 메인 배, 정박한 배인데 언젠가 때가 되면 출항을 할 거거든요. 중문의 이름에 맞게 문화의 중심이 된다. 먼 훗날 중문이.

[조사자] (배 형국을 그린 중문 지도를 보면서) 이게 한라산 방향인거죠?

[제보자] 그렇지, 한라산 방향인 거지. 배의 모양에 따라 설명도 있는 게 우리 중문이다. 중문에는 또 전설이 외부에서 들어 온 사람이 장사 같은 걸 하면은 비교적 잘 돼. 외부 사람이 오면.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땅값 많이 오르고 집도 많이 짓고. 오는 사람이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또 여기서 번 돈을 가지고 딴 데 가면 재미가 없어. 그런 전설이 있어.

- 핵심어 : 중문, 배 모양, 갑실이동산, 뱃굽물, 벌잇줄, 벌이왓

W_L_054 베 진 하르방

2016년 12월 1일, 애월읍 애월리 애월리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양병연(남, 1928년생, 애월읍 애월리)

[제보자] 고내에도 베 진 하르방이라고. 그게 먼 말인고 허며는, 고내에 애월보단 설촌이 먼저 닮아. 베 세금 고기 낚은 세금을 많이 물려가니까 이놈이 하르방이 부엣질에 베를 지언 간에 관덕정 앞이 그 무신거 헌디 집덜 하영 짓은디 옛날에는 그디 관이라 낫거든. 경 문뚱에 강 ?로 탁 놔 부난 사름 뎅김이 불편하거든.

"이거 어떤 일이냐?"

"고내 아무 가이가 이렇게 헷다." 하니까

"불르라." 허연.

"우리 베를 오랑 지어가곡 세금내지 말라."

경 헨 간 베 진 하르방 베 진 하르방 허주. 지언 가곡 지언 오곡.

[조사자] 아, 베 진 하르방이라고. 고내리에 전설 속의 인물이 있었구나.

[제보자] 그 직계손들이 여기 잇어.

- 핵심어 : 베, 고내리, 하르방, 관덕정, 세금

W_L_055 베락구릉

2016년 11월 18일, 제주시 노형동 광평마을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현영수(남, 1941년생, 제주시 노형동)

[조사자] 그런데 거기 벼락이 쳐난마씨?

[제보자] 아메도 모르쿠다마는 '베락구릉, 베락구릉' 허니까. 베락구릉이라고 하는 데가 물이 고여낫입주게. 돌에 구멍 똘라져가지고 물은 잇어낫어. 게난 벼락이 쳐가지고. 옛날 구릉이라고 잇지예. 물 있는 데를 구릉이라고 헷어. 사투리로. 구릉구릉 물 잇는 디를 구릉이라고.

[조사자] 아하, 물 고인 데를 구릉이라고 핸마씨?

[제보자] 예, 제주돗말로. 봉천수 하늘에 내려오는 물도 땅을 영 파가지고 구릉을 만들어가지고 먹엇지. 구릉이엔 헌 거는 사람 먹는 물은 '구릉'. 쉐 먹는 물은 '못'.

[조사자] 아하,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구릉이란 말이 그런 뜻이 있었구나예.

[제보자] 사투리로 소 먹는 물은 못이고, 사람 먹는 봉천수 물은 구릉.

[조사자] 그런데 용천수렌 헤가지고.

[제보자] 용천수는 생수 나온 것을 용천수고, 봉천수는 하늘에서 물 떨어졍 고인 것을 봉천수.

[조사자] 그러면 봉천수 중에도 구릉과 못으로 분리된다고?

[제보자] 예. 그런데 쉐 먹는 물은 못. 옛날 그렇게 우린 경 불러낫어. 우리는.

- 핵심어 : 베락구릉, 구릉, 용천수, 봉천수

W_L_056 베른내와 노카지오름으로 만든 중문이름

2016년 12월 16일, 서귀포시 중문동 이성무씨 댁, 김선희 조사.
이성무(남, 1943년생, 서귀포시 중문동)

[조사자] 원래 이름이 중문입니까?

[제보자] 우리 중문이라는 이름은 기록 상에는 그 고려 말에 제중원, 이왕원, 중문원이 있는데 중문원은 지금 천제연 매표소 그 쪽에다가 중문원이 있었고 나중에 다니다 보니까 이왕원은 그 동광 육거리 약간 북쪽에 원물오름이 있어요. 안덕 충원묘지. 원물오름이 이왕원이 거기 있더라고 보니깐.

[조사자] 이향원이요?

[제보자] 이왕원. 근데 제중원은 가다 보면 원자리라고 있던데 평화로 중간쯤에. 거기가 제중원이었나 확실히 잘 모르는데 다니다 보니까 세 개의 원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중문이란 그 이름이 나왔었고.

중문은 어떻게 해서 중문이냐 하면 구전에 의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 중문을 보면은 북쪽에 노카지오름이라고 있어요. 그 오름은 분화구가 없어서 완전히 깔대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오름을 필봉이라고 해요. 여기도 오름을 보면 분화구가 있는 오름은 암오름, 그런 분화구가 없는 오름은 쪼작하게 튀어난 원추형 오름을 숫오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노카지는 숫오름이 되는데 결국은 모양이 뾰족하니까 필봉, 붓끝이 뾰죽하잖아요.

하고 그 베른내오름, 보통 베린내라고 표기가 되는데 베린내가 아니고 베른내라고 해야 맞아요, 베른내. 그 뜻은 뭐냐하면 천지연 하류에 보면 내가 엄청나게 깊고 넓고 파헤져 있다 해서 베른내. 고기를 배를 베른다고 하잖아요. 베리다라고 하면 칼로 간다든가 해서 만든다는 뜻이고. 벨르다 하면 크게 넓게 깊게 파인 내라고 해서 베른내! 거기에 붙은 오름이 베른내 오름. 근데 거기에는 그 화산에 의해서 형성된 건데 그 오름에도 분화구가 있는데 말굽 분화구가 터저 나와 버리고. 그것이 용암이 흘러서 그 주상절리로 훌러 들어서 용암들이 덮혀 있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엉뚱하게 외딴 데서 용암이 흘러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가까운 여기 지형을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 같아요. 베른내오름에는 분화구에다가 못이 있어 못. 지금은 없고 한데.

[조사자] 지금은 없고 마씸?

[제보자] 지금은 물이 말라 버리고 헌디. 옛날에 내 어릴 적에만 해도 물이 있었거든. 거기 소도 먹이고. 그래서 분석구라고도 하고 분화구라고도 하고 그 분화구에다가 못이 있는데 베른내오름에 그 물 고이는 데를 벼루.

[조사자] 벼루.

[제보자] 벼루라고 생각했고 거기서 해서 벼루와 붓 사이에 가운데 중간에는 글이 있다, 글. 그래서 중문이라고 지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구전으로 전해오는 건데 그게 제일 정확하지 않은가 해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잘 지은 이름인 것 같고.

[조사자] 동네 이름으로는 최고인 거 같네요.

[제보자] 중문 이름 참 좋아. 중문 이름 가운데 놓고 뺑 돌려도 중문이야. 중국 사람은 와서 왜 중문이라고 했냐고. 중국어를 중문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중국말을 지역이름을 지었냐 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고려 말부터 중문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고, 기록 상에는 태종 16년인데, 1416년 그때에다가 이 정의, 대정현을 만들면서 중문이름이 올라갔는데 중문, 동중문, 상중문 이렇게 세 개 마을이 중문이라고 등록이 돼죠, 대정현에다가. 중문은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이 대정현에서 모슬포 상하모리 합친 거 다음으로 두 번째로 컸어요. 인구 통계를 보면. 중문 이름은 이렇게 해서 됐어요.

- 핵심어 : 중문, 제중원, 이왕원, 중문원, 노카지오름, 필봉, 베른내, 베른내오름, 벼루, 붓

W_L_057 베염바리 집터와 막산이

2016년 11월 3일, 안덕면 감산리 감산리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김유헌(남, 1940년생, 안덕면 감산리)

[제보자] 베염바리 집터 그거는 있고. 그거는 옛날 베염이 이렇게 사려 있는 형체로 돼서 있는데, 머리만 요렇게 나온 건데, 쟁반만큼 그게 나안지며는 여길 떠라 그거거든. 그때는 다 패망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더 살았는데 싹 망헹 없어진 거라. 사람들이 그 아들이 우리 동창인데, 죽고 손자 하나 남았는데, 베염 형체가 쟁반만큼 나앉으며는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해서 그게 잇수다 전설.

[조사자] 그런데 베염이 진짜 잇어낫수과?

[제보자] 베염이 아니고 베염같이 되어 있어. 돌이 베염같이 되어 잇어. 그래서 꼭 베염의 머리같이 되어 있거든. 베염바리집, 베염바리집, 강칩.

[조사자] 그건 전설이 아니고, 진짜 전설같이 진짜 뒈 불엇네예. 막산이 얘긴 들어봣수과?

[제보자] 예. 막산이굴. 막산이가 굴에 살았는데, 막산이굴 막산이굴 하는데, 막산이가 베염바리집 종이라. 그 당시에는 삽이 없잖아. 삽이 없는데. 저 대평 가다 보면 송청굴이라고 논이 좀 잇어. 제주돈 논이 잘 없는데, 그게 전설에 의하면 장남을 일헐 사람을 빌라고 허니까. 그 논 만드는데 일헐 사람을 빌리젠 헌 거라.

"칠십 명을 빌라."

막산이한테 그래노니까

"알았습니다."

주인한테는 허고

"다 빌었습니다." 했는데.

일흔 사람분을 밥을 헤 놓으니까 혼자 밥 먹은 거라. 혼자 밥 먹었으니까

"이건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해서 나무로 삽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허니까 그 주변이 안 보였다는 거라. 흙먼지로 그렇게 해서 논을 다 만들었다는 거라 막산이가. 그러니까 칠십명 분을 먹고 칠십 명 허는 일을 헌다, 이 말이주. 창천리 막산이굴이라는 데가 어디 잇일 거라. 그 다음에는 그 베염바리 집에서가 도저히 먹이지 못허니까 나중에는 열리인가 어디론가 갔다가 돌아갔다고 허여.

- 핵심어 : 베염바리, 베염, 논, 종, 막산이굴, 열리, 집터, 창천리

W_L_058 벰을 죽인 영천 이목사

2016년 12월 1일, 애월읍 애월리 애월리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양병연(남, 1928년생, 애월읍 애월리)

[조사자] 당 오백 절 오백 이야기는?

[제보자] 건 들어봣지. 영천 이목ᄉᆞ가 제주도에 왕 봐려 보니, 백성들 사는 것이 참 험허고 미신만 가졍 잇거든. 이거 안 뒈겟다 헤가지고. 사굴, 베염 죽이고 절 오백 당 오백 치고. 겐디 내중에 배염을 죽엿는디 절 오백도 치면서 깃대를 일려 세우두록 비념을 허라. 깃대를 세우도록 비념을 허라. 도를 닦으라 헤도 저 능당이엔 헌 거는 동쪽에 능당이엔 헌 당이 잇는디 그 당에는 깃대가 반은 일어서다가 부러져 불엇다 허여. 게난 그 당은 신이 잇다 허곡. 그 나머진 일어사젠도 안 허고 허난 ᄀᆞ만이 막 쓸어 잦혀 불엇주게. 당이고 절이고 쓸어 잦혀 불엇주게. 이제 그 대신 피총이란 수리허라 헷어. 피총이엔 헌 건 총. 임제 없는 산. 벌초 안 허는 산.

[조사자] 그걸 피총이랜 헤마씨?

[제보자] 옛날 말로는. 골총 된 거. 그걸랑 수리허라. 게난 골총 있는 밧은 돈을 덜 주엇어. 그거 수리허젠 허난. 인력 드난. 경 허멍 헌 시대가 잇엇주. 경 헌디 이제 베염을 죽이젠 허니깐이 지금에 지사거든. 목사가이 목사 이방 목사 비서지. 그 비서이 똘을 꼭 일 년에 한번 멕여야 뒌다 베염에게. 그래서 이것도 안 뒛다 헤가지고 이제 베염을 죽이게 되는디, 장정들을 뽑아가지고 베염이 나올 시기를 타가지고 가니까 베염이 혹시나 영 나오니까 그게 장정들이 칼로 가르젠 허는디 끊으면 붙으곡 끊으면 또 붙으곡 허거든. 경 허난 재 헹 갓당 끊으면 재 지치곡 끊으면 재 지치곡 붙으지 못허게 경 허멍 그 베염을 죽엿는디. 피 한방울이 그 영천 이목ᄉᆞ 도포에 붙엇다 허여. ᄒᆞ꼼 튄 거라. 게난 그날 ᄌᆞ냑은 이제 영천 이목ᄉᆞ 꿈에

"당신 빨리 가노라 오노라 ᄒᆞᆫ 말 엇이 빨리 확 허여그네 고향을 가라. 당신 죽이젠 절 오백 당 오백 신이 막 논의를 하고 있다."

그 굴아준 귀신은 총에서 나온 귀신들. 수리헤 주난. 게난 이제

“아이고 이제 경 헐로구나.”

헤가지고 그냥 가노라 오노라 엇이 물ᄆᆞ룰 넘어갈 때ᄁᆞ정이랑 뒤를 베리지 말렌 헷어이. 베를 확보시켜가지고 물ᄆᆞ루를 넘어강 베려보니 주위에 파도가 확 그냥 일어나서 물ᄆᆞ루를 넘어가 부난 베는 못허고, 고향에 가도 후를 전하지 못허더라 허여. 그런 전설.

[조사자] 벰을 죽여부난?

[제보자] 어.

- 핵심어 : 이목사, 영천, 벰, 절 오백 당 오백, 피총, 귀신, 당

W_L_059 변인태의 기행

2016년 12월 7일, 남원읍 태흥3리 오봉남씨 댁, 김선희 조사.
제보자1: 오봉남(남, 1922년생, 남원읍 태흥3리)
제보자2: 오명옥(남, 1934년생, 남원읍 태흥3리)

[조사자] 뱅인태, 벵인태 하던데 그 얘기는 혹시 들어낫수과?
[제보자1] 예, 예.
[조사자] 그거 골아줍서.
[제보자2] 거짓말을 잘해났다고.
[조사자] 아, 벵인태가?
[제보자2] 그때는 서귀진 변인태?
[제보자1] 응, 서귀진 변인태.
[제보자2]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그 사람은 곧는 말마다 거짓말, 거짓말만 한다고.
[제보자1] 병이 아니고 변이지.
[조사자] 변, 변인태, 게난예?
[제보자1] 변인태를 놓고 벵인테, 벵인테 헷지이.
[조사자] 서귀진 변인태예.
[제보자1] 서귀진 조방장 밑에.
[제보자2] 하인, 하인예?
[제보자1] 예. 요즘 같으민 연락병이라.
[제보자2] 게난 나가 들은 말로 한번 곧지이. 그 사름이 뭘 하레 가는지 모르지만은 산더레 부지런히 올라가곡 올라가곡 헤가니까 일허단 사람이 밧디서 일하던 사람이 변인태를 봐지니까
"야, 너 거짓말이나 혼마디 헤둥 가라."
하난 답변하는 말이
"말도 맙서. 일본베가 지금, 이디 들어오는디 거짓말 허는 저를이 엇수다."
허멍이 가불엇다 말이다. 가부니까 일허단 사람이 겁난. 거짓말 허는 줄은 몰르고. 겁난 이 사람도 곧이 도망을 갓어. 내중은 보니까 거짓말.
[조사자] 맨날 경 거짓말만 헤마씸?
[제보자2] 예.
[제보자1] 아, 거 거짓말도 장난이.

[제보자2] 장난으로게.

[제보자1] 장난이 워낙에.

[제보자2] 게난 사람이 ᄋᆞ망지기는 헤난 사람이주기. 말이 좋고. 그런 사람이주게.

[제보자1] 그 서귀진 조방장이라는 사람 밑에 변인태란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이 말해서 일허단 사람 다 도망허고. 혼번은 거짓말을 잘헌다 잘헌다 허니 무신 거짓말을 허고 허니 일허는 사람 다 도망가게 헤난 다음에는 조방장 각시가, 조방장이 성 안 간. 요즘 같으민 제주시이.

[조사자] 예.

[제보자1] 그디 강 볼 일을 보는디 변인태보고 각시를 요기까지 데려다 주렌.

[제보자2] 아니지. 각시가 데려다 조방장을 데려다 도렌 헌 거 아니꽈?

[제보자1] 아니, 아니. 조방장 각시. 서귀진 조방장이난예. 게난 그 밑에 변인태 맞주. 헌디 저, 그디 쪼금 담 다왕 이지 만들어 봔.

"저, 마님이랑 그디 잡서. 날랑 저디 강으네…."

[제보자2] 건 제주시 강 걸어 오단에 날 어둑언.

[제보자1] 아니 가단게.

[조사자] 아, 가단.

[제보자1] 그 아지망을 데리고 가다가 날이 어두우니까 산에서 담 다왕

"마님일랑 이 안이 잡서. 날랑 저 베끗디 강 자저. 무신 소리들은 하영 날 거우다. 저 무신 뭐 구신도 나오랑 헐 거고."

아씨를 겁을 줘 놓고 이젠 눅져두고 저편이 강. 춤 아닌 게 아니라 혼 백보 베끗디 강 잇어둠서 헛소리를 막 헷지. 허니까 마님은 강.

"야, 아이고 이디 오라, 이디 오라."

"아이고, 나 어떵 마님 ᄌᆞ끗디 갑니까?"

"아이고 관계엇다게, 들어오라. 들어오라."

거난 들어오난 도 베꼇더레 들어 상 누니까

"아니 이디 들어오랑 ᄌᆞ끗디 오라."

허는 것이 그때 마님을 그 때엔 타 먹엇댄 헤라.

[조사자] 자기가 소리 내운 거 아니우꽈?

[제보자1] 자기가 소리 내왕 그거지게.

[제보자2] 그게 꾀주, 꾀.

[조사자] 아이고.

[제보자1] 이레 오라, 이레 오라 허단 보난. 변인태는 꾀로 경 헌 거주만은. 그 아주망은 얻어 속안 몸을 바쳣덴 허주.

견디 변인태가 아니 그 조방장이

"하도 입맛이 엇어 밥 못 먹으켜. 넌 뭔 반찬에 밥 먹엄디."

"아, 요 뒷벵디 강으네 순작 잡아당….."

순작이라는 새가 잇지이.

"그거 먹으민 참 입맛 좋습니다."

"그믄 냴랑 순작 잡으레 곹이 글라, 순작 잡으레."

"경 헙주."

몽뎅이들 하나 썩 심고 변인태랜 허는 사람은 보리를 골앙 보리범벅을 만들엉, 아주 거칠게 보리범벅을 만들엉 참 뚤러메곡 가는디. 근디 순작이란 새가 어떻게 허냐 허민 발로 붋을 때 뒈민 날아가곡. 날아가곡 헤여.

[제보자2] 날아도 흔 이삼십 메다 밖에 안 날아. 잘 못 날아.

[제보자1] 저 앞 담만이 앞이 강 아지민 강 심어야켄 헤연 경 헹 그디 강 춪아가정 가당 보민 발 영 붋으젠 허민 화다닥 날아가 불곡. 그거 아진 줄 알민 뚜리믄 뒈주만은.

[제보자2] 새가 요만이벢이 안 헤여.

[조사자] 지금도 봐져마씸?

[제보자2] 지금도 순작 잇어.

[제보자1] 그렇게 해서 흔 아침부터 그 낮 비슷해가니까 배고픔은 ᄒᆞ고, 조방장은 배고픔은 허고 어떵 허믄 좋으코 허난 변인태는 범벅 앗아냉 뚝뚝 끊어먹거든.

"그믄 그거 이레 아져오라. 나도 흔번 먹게. 이레 아져오라 나도 ᄒᆞ꼼 주라."

"아이고 나리 먹질 못헐 음식이우다. 나나 먹주." 헤영.

"아져오라. 사람이 못 먹을 음식도 있느냐?"

가져 가니까 그렇게 맛이 좋아.

"이거 순작 잡지도 안 헌 때 맛 좋으민 순작 잡으민 얼마나 더 맛좋을 줄 압니까?"

하하. 순작 잡지도 못헤영 돌아왓는디. 돌아왕 각시보고 보리범벅 만들라고. 하하. 보리범벅, 집이 오랑이사 보리범벅을 먹어질 겐ᄀᆞ라. 하하하. 드르에 가사. 그렇게 거짓말을 헷다고 헤여.

[제보자2] 게난 시장이 반찬이주게.

[조사자] 막 애써나난 거 얼마나 맛 좋을 거라예.

[제보자1] 하하하하.

[제보자2] 그 사람은 거짓말을 허는 것을 알면서도 당해. 아무래도 말이 좋아난 셍이라.

[조사자]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당하는구나예. 하하하.

- 핵심어 : 변인태, 거짓말, 서귀진 벵인테, 조방장, 조방장 각시, 속임수, 순작, 보리범벅

W_L_060 별방 한무덤굴 웡이자랑

2016년 10월 21일, 구좌읍 세화리 부신남씨 댁, 송정희 조사.
부신남(여, 1920년생, 구좌읍 세화리)

[조사자] 여기 별방에 웡이자랑이렌 헌 디 알아지쿠과?

[제보자] 저 ᄒᆞᆨ게집더레 가는디. ᄒᆞᆨ게집더레 가는디, 한무덤굴이렌 허는디.

[조사자] 한무덤굴?

[제보자] 응. 그디 ᄒᆞᆨ교집으로 영 멘수동더레 ᄒᆞᆫ,

[조사자] ᄒᆞᆨ게집이 뭐꽈? 학교?

[제보자 딸] 학교. 국민학교.

[조사자] 응. 가는 그 길에? 응. 거기는 무사 웡이자랑이꽈?

[제보자] 엣날에 이제, 양반이 집이 똘인디, 처녀가 아기를 베연. 아, 엣날 할망덜 말 ᄀᆞᆫ는 거 들으난, 처녀가 아기를 베난, 근, 산 때 그디 아기 저, 아기구덕이영 물, 물막 항에 헤다 놓고, 쏠도 막 놓고 헤네 묻엇덴.

묻으난 그 아기가 나네, 그디 그 여자가 키ᄂᆞ 인ᄀᆞ라, 막 살렴살게 솟이 다 앚어네 밥 헹 먹게 멘들아낫젠. 한무덤굴이렌 허는디, 우리 멘수동 우리 외가에 외가죽. 외가에 외하르방에서 먹어그네 글로 영 가는디, 우리 아바지영 오라그네, 먹엉 가멍 우리 아바지 담베 먹곡, 허멍 ᄀᆞ찌 걸어강 가믄 그디 한무덤굴, 막 무신 웡이자랑하멍 구신 나온덴 허멍,

구신이 엣날에 그 묻어부난, 처녀가 묻어부난, 부제칩이 똘인디, 양반집 똘이 처녀가 아기를 베연, 묻어부난. 그디 난 키우멍 웡이자랑 헤영, 밤이민 헛게소리가 난다고 헤영. 그딘 밤인 넘어가젠 허믄 ᄆᆞᄉᆞ와. ᄒᆞᆨ교집으로 우터레 가지 말고 저 동더레 멘수동 오는 질 셔낫어. 겐디 이젠 질 널루와 불고, 그디 다 밀어 불엇어. 그디 산이 큰 산이 잇어낫어. 겐디 그디 엣날 경 ᄀᆞᆯ아나, 그딘 낮이도 넘어가젠 허믄 ᄒᆞ쏠 어두와가민, 우리 하르방네 집이 식게 먹으레 가젠 허믄, 아바지는 저 밧디 강 어두워사 오곡, 난 붉을 때 우리 아바지, 우리 어머니가 뭔 제

물 헹 출령 지엉 가라 허믄, 집은 알아지난, 그디 글로 넘어가젠 허믄, 헤영 또 이 알녁이 이 성동네 편으로도 가는 질이 잇지. 글로 가젠 허민 멀어도 글로 강 돌아가곡 헤낫어 엣날에.

[조사자] 게난, 무사 그 부자집 처녀가 아기를 벳뎬마씨?

[제보자] 아긴 누게 벤 중을 몰랑 곤지….

[조사자] 근데 묻어불 때, 땅에.

[제보자] 그 여자는 아기 베영 커가난 알아도, 누가 벳젠 말은 아이 들엇어. 거 게난 웡이자랑 웡이자랑 웡이자랑 밤이믄, 글로 비 오젠 허민 난다 허난, 그걸 그자 그 산이 잇어낫어 큰 산이, 산이 잇이난 그 산이 막 짚이 파네 막 살렴살게 막 집을 짓어네. 땅 알로 짓언 그디 경 아기구덕이영 다 헤다 논 셍이라. 경 헹 노난, 게난 부모네가 헤 준 거지. 부자칩이난 쏠도 몃 삼 년 먹을 거, 또 물도 막 질어다 놓아, 나무, 솟도 다 앚지곡 장이영, 경허난 그디 살멍 그 애길 난 키완 어떵, 사름이사 곧앗인지 구신사 곧앗인지 몰르지. 비 넘어가젠 허믄 비 왐직헌 날은 글로 넘어간 때는 엣날 하르방 할망이나 하르방덜이나 들은 거지. 웡이자랑 웡이자랑 난덴 글로. 혼잔, 글 ᄒᆞ쏠 넘어가기가 ᄆᆞᄉᆞ와. 그 산에서 나오지는 안 허주만은 들으민 썹지건허지 뭐.

- 핵심어 : 별방, 한무덤굴, 웡이자랑, 아기, 무덤, 부잣집 처녀

W_L_061 부대각 하르방과 그 누님

2016년 11월 24일, 구좌읍 종달리 송미영씨 댁, 송정희 조사.
고순안(여, 1947년생, 구좌읍 하도리)

[조사자] 선생님. 혹시 옛날에 '날개 달린 아이가 잇어낫저.' 허는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봅디가?

[제보자] 날개 달린 아기가 아니고 그 부칩이, 부칩이 저 부대각 하르방이 에 아기 벤 때에 똘 벤 뗀 아들 베졋이카부덴 똘 벤 뗀 아들 베졋이카부덴 쉘 잡아 먹곡, 똘 벤 뗀 아들 베졋이카부덴 영 허난 물을 잡아 먹엇어. 겡 헹 놩 보난 똘 낳고 아들 낳거든 게난 부대각 하르방이 이 놀게 속에 이제 하나 저 헹 나왓어. 겡 헹 부대각 베슬 헤여네. 헹 보난네. 하르방 장수이니깐 응 장수니깐 오천 명 군사도 목을 걸렌 허곡 칠천 명 군사덜토 목을 이젠 막 기냥 옛날 그 나라에 세벤 나면은 그 하르방이 부대각 그 죽여그네 천하장군 부대각 베슬헤연 겡 헤네 오난 하르방이 이길 장수는 없거든. 똘은 저 김녕을 가곡 아덜은 펭대라. 응, 펭대서.

[조사자] 아들이 부대각이꽈?

[제보자] 응, 아들이 부대각 경 헤나난 이제 부대각 하르방 이길 장수 엇이난 똘이 김녕 시집을 가난 똘도 막 기냥 장수라. 여자 여자 장부라. 대장부라. 경 허난 하, 그 누님이 남ᄌᆞ옷을 입언. 저 김녕 사굴잇잖아? 만장굴. 아주 큰 모살밧디 잇어. 그디 월정광 그 김녕 그 사이에 옛날은 문 발롸낫주. 경허난 이제 싸움을 허젠 허난 이제 누님이 나오란, 부대각 하르방을 눕젼 헷어. 혼 번 눕지 혼 번 씰엉 눕지곡 두 번 씰엉 눕지곡 세 번을 딱 씰엉 놘 딱 발 영 헹 이 무럽으로 탁 구난, 나 누군줄 알겟냐? 겐 베레보난 누님이라. 게난 누님도 똑똑허곡 영력허민 남ᄌᆞ 여자 대장부로구나. 부대각 하르방도 누님을 못 이겻덴 허는 거라. 그런 장수도 베슬을 헹 부대각 베슬을 헤여도, 게난 김녕 사름덜 영 베레봐 봐. 여자덜이 얼마나 장군ᄀᆞ추룩 이야 사름이 허는 거 남ᄌᆞ는 ᄒᆞ끔 굴앗고 여자는 김녕 여자덜은 완전히 억세여. 영 보민.

[조사자] 그, 저, 날개 달린, 날개 짤라버렸다는 얘긴 안 들어봣우과?

[제보자] 그 짜른 말은 엇어. 겅 헤연 살다네 돌아갓젠 헌 말 허죽. 경 헤영 부대각 하르방 엣날 부칩이 감요가 잇어낫어 감요. 엣날 시집가곡 장게가면은 그 감요헤그네 엣날 저 뭐냐? 독 주실에 가면은 뭐냐? 아이고 나도 금방 곧젠 허민.

[조사자] 담요?

[제보자] 아니 아니.

[조사자] 감요?

[제보자] 감요가 아니곡 이제 저 물 타곡 뭐헹 엣날 사극에 나오잖아게. 게 중전마마나 이큰 베슬헤난 사름덜 아니 아니 여자가 시집갈 때 하메 하메.

[조사자] 가마, 가마.

[제보자] 가마. 응. 가마에 타그네 영 허주게. 엣날은 가메를 탕 시집도 가곡 물 탕 장게도 가곡 경 헤. 겅 허난 부대각 감요가 그 가마가 그디 가메 집을 짓어. 집을 짓어그네. 그디 모사난.

- 핵심어 : 날개 달린 아기, 부대각, 힘, 누님, 가마

W_L_062 부대각과 장군혈

2016년 12월 7일, 남원읍 태흥3리 오봉남씨 댁, 김선희 조사.
오봉남(남, 1922년생, 남원읍 태흥3리)

[조사자] 성산면 시흥리 얘기마씸?

[제보자] 부칩이 부당장이라 해서 막 힘센 분이 있었는데 그 부모네가 산 때에 처음 임신이 되니까 소를 아홉 머리 사다가 멕엿어. 그니까 산달이 되어서 애를 낳는 거 보니 딸을 낳았어. 딸이 커가멍 보니까 드르에 가서 어욱페기에 가서 오줌을 싸믄 어욱페기가 일어났다고 헷어. 그만큼 기운이 셌다고. 경 허고 그 다음엔 임신되었는데 이제 소를 한 마리 잡엉 멕엿어. 에이 또 딸 나민 어떵 허리 헷어.

근디 성산에 왜놈들이나 무슨 사름들이 오란 씨름을 하는디, 부대각 아들, 소 한 마리 먹은 사름이 씨름을 허는디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 하니까 우리가 저 사람헌테 질 수가 싯냐 해서 모다들엉 그 사람을 패닦으젠 헷어. 깡패짓을 허젠 할 때, 누이가 남자 옷을 입엉 내가 혼번 헤 보켜. 헤영 지네 오라방을 오라방인 줄 모르게 이겻어. 거난 부대각인가 하는 사람이 사흘을 밥을 안 먹엇어. 나 이기는 사람도 세상에 있으니. 혼번은 누이가

"야, 이디 나오란 나 얼굴 혼번 바려 보라. 나는 아니라냐?"

훅 허게 일어낭 얼굴 보멍,

"누이나 나 이기주. (하하하)"

다른 사람들한테 매 맞을까 봐서 그 예방책으로 강 오라방을 누루떳다 허는 거주.

그 후에 일본놈이 허는 말이 저, 부대각이엔 허는 사람 집이 계속 난다니 어떤 일이냐? 저 산 ᄌᆞ순으로 기운 센 사람이 난댄 허니까, 어느 혈기냐 허니까, 저기 장군혈이 잇는디 그 돌 형국에 산을 썼는데 힘 센 사람들만 난다고 허니까 일본놈들이 그 돌을 그찻어. 부수와 불언. 게난 그 돌이 피가 막 낫다 헤. 그 뒤로는 힘센 사람이 아이 나와.

- 핵심어 : 부칩이 부당장, 소 아홉 마리, 부대각 아들, 씨름, 혈기, 장군혈, 일본놈, 돌에서 피가 남

W_L_063 비양도 할망당

2016년 12월 7일, 한림읍 비양리 비양도마을회관, 문순덕(김은정 · 정이슬) 조사.
윤부웅(남, 1947년생, 한림읍 비양리)

[조사자] 당에 대한 이야긴 뭐 없습니까? 하르방당, 저기가 하르방당입니까?

[제보자] 할망당.

[조사자] 아, 할망당.

[제보자] 할망당이란 건 그 처음에 그, 김씨란 그 할망, 아마 그 남편 그런 거 같애. 확실허게. 그래서 그 남편 뒈는 분이 비양도 처음에 왔다가 이제 거 어디여, 금릉에서, 당할망 금릉에서 왔답니다. 헤서 그때부떠 저거 당이 생겻다고. 이제 아마, 그 모시는 할망.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그때 당시 대부분 이런 거 부술 때라가지고 한 멧 년 안 허다가 그로후제, 옛날엔 크게 했습니다. 한 삼일짜리, 뭐 돼지 잡고. (불청) 그때 당시 먹고 살기 힘들 때라도, 에, 마을이 굿이라니까 돼지 잡고 이삼일 동안 밤낮으로 굿헌 모양이우다. 그 후에 그런 거 하지 말라 헤가지고 중단시겨놧다가 한 지는 거의, 시작헌 지 한 이십 년 뒈여.

건디 저것이 비양도는 당할망이 쎄다 헙니다. 쎄다 허는데 아직까지는 그, 바다 가서 비양도 사람들이 희생뒌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예. 견디 한 삼 년 전에 비양도에 큰 베덜이, 한림에서 (불청) 왔는데, 거기서 한 두 척이 이제 한 사람, 한 분이 (불청) 돌아가시고, 베에서 한 두 분은 충돌사고도 당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가 2004년도에 이장을 허면서 에, 마을에 이제, 그전에는 사고가 없었는데, 당할망을 잘 모셔야 헌다 헤가지고, 그 주민들한티 회의를 가져가지고, 어촌계에서 도와주고 이제 (불청) 한 번 크게 했습니다. 거문 다 그때덜 와서 베를 가진 사람덜은 할머니한티 말이여 부주도 헹 다 올리고.

- 핵심어 : 비양도, 할망당, 금릉, 당할망

W_L_064 사계 용머리 동굴의 할망귀신

2016년 11월 3일, 안덕면 화순리 길, 문경미 조사.
강옥순(여, 1941년생, 안덕면 화순리)

[조사자] 용머리 해안에 대한 얘기도 안 들어봤수과?

[제보자] 용머리 해안엔 용머리 중간에 요렇게 내려가다 보면 나무가 잇엇어. 예전 간 사람은 모르니까. 모르지만은 거기 몰라서 가다가 떨어져 물 속으로 떨어져. 용머리 알로 물 들어간데 옛날 일본 군인들 와서 굴 판 데가 있어. 굴 판 데로 들어가 보며는 물 위에 조금 낮은 모래가 그때는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며는 그 위에 떨어져서 죽어 있다고. 지금은 뭣이 아니주만은 그 용머리 저 고개 우리 어릴 적에는 무서워서 넘어 다니질 못했어, 어두우며는. 이제 할머니가 애기구덕에 놔서 흥그는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무서워서 못 다녔어. 지금은 그런 거 없으니까.

[조사자] 왜 그런 소리 나신고예?

[제보자] 옛날에 애기 보던 할머니가 애기어머니가 바다에 가서 안 돌아오니까 애기는 울고 해서 가다가 애기하고 그 할머니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조사자] 아, 용머리 해안 위에 절벽? 어디마씸?

[제보자] 뒤에 절벽이 아니고 아까 내가 얘기한 디. 지금 나무로 덮어져서 모르지마는 이렇게 굴처럼 냇가처럼 있어. 거기서 떨어져 들어가며는 일본 군인들이 파 논 굴로 들어가져. 딴 디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밤에 애기 흥그는 소리가 난다고. 애기 재우는 소리. 우리 어릴 적에는 그 소리 듣고 무서워 어둑은 후젠 그쪽으로 오도 않고.

[조사자] 이젠 관광지 됍부니까.

[제보자] 관광지고 뭐.

- 핵심어 : 용머리, 굴, 일본군인, 애기구덕, 할망귀신, 용머리 해안

W_L_065 사계리 ᄌᆞ무래물

2016년 12월 15일, 서귀포시 서귀동 강창홍씨 댁, 김선희 조사.
강창홍(남, 1947년생, 서귀포시 서귀동)

[조사자] 사계 이야기도 아는 것이 있습니까?

[제보자] 하멜 표류기라고 산방산 앞에 있거든. 하멜이 와서 우리 동네 앞으로 왔다고 해서. 산방산 앞에 바닷가야. 그 앞에 물이 있거든. ᄌᆞ무래물이라고. 우리 동네 사람만 쓰는 물이 있어.

그 우리 동네서는 하멜이 와서 그 물을 먹었다 해서 ᄌᆞ무래물. 하멜이 뭐 협재로 왔다, 뭐 했다 하던데 사계에는 거기로 왔다고 해서 하멜 표류기까지 해서 비석도 세워 놓고 배도 그리 갖다 놓고 했잖아. 하멜이 바로 산방산 바로 앞 바다로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 ᄌᆞ무래물이 잘 나지 않아. 풀도 막 나고. 여름에 보면 그 샘물같은 것이 있을 뿐이고. 우리 동네는 그 물을 거의 길어다 마셨거든.

하멜이 거기로 올라왔다 해서 하멜 표류인데, 다른 학자들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왔다 하는데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동네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얘기가 있고.

- 핵심어 : 사계, 하멜, 산방산, ᄌᆞ무래물, 하멜 표류

W_L_066 산방산 곱쉐돌

2016년 11월 3일, 안덕면 화순리 길가, 문경미 조사.
강옥순(여, 1941년생, 안덕면 화순리)

[조사자] 전설이나 이런 건 엇수과? 예를 들어 우리 제주도에 설문대할망이니, 다른 옛날 예기 들은 적은 엇어마씨? 산방산은 영 헷저, 군산은 영헷저 하는 얘기.

[제보자] 산방산 꼭대기에 요렇게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지팡이를 짚은 것처럼 서 있는 돌이 잇어.

[조사자] 돌이 잇어마씨?

[제보자] 곱쉐돌이라고. 그것이 산방산이 한라산 아들이기 때문에 한라산서 뛰어내리다가 곱쉐가 됐다고 해서 한 돌이 잇어. 난 사계에서 태어나서 커났기 때문에 거기 나무허레 가서 그 돌도 구경하고 그래서 산방산이 뒤 우로는 요렇게 내려가고 앞으로는 그렇게 경사지니까 한라산에서 아들아 어디 가느냐고 부르지 않았으며는 바닷물에 가서 서 있을 건데, 그만 가라고 부르는 바람에 요렇게 돌아사부니까 산방산 앞으로는 등어리가 그렇게 절벽이 되었다고.

[조사자] 그런 말을 들언마씨?

[제보자] 그리고 산방산 앞으로 동쪽으로 올라가면 절간 있잖어여. 절간 잇든 디로 올라가믄 굴사에 가민 굴이 요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며는 우에는 펜펜한 절벽으로 딱 뒛어. 돌 한덩어리로. 딱 됐는데, 어디 틈도 없는 데도 가운디로 물이 뚝뚝 떨어져. 그래서 거기서 백일 기도도 드리고.

[조사자] 전설로 누구의 눈물이라고 얘기 하잖아마씨?

[제보자] 한라산 아들이 눈물이라고.

[조사자] 아아, 한라산 아들의 눈물이랜 헤마씨? 왜?

[제보자] 모르지 건.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저거는 사계리서만 얘기하는 소리야. 한라산 아들이 눈물이라고, 아들아 어디 가느냐고 하니까 돌아사면서 대답한 게 그냥 저기 서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등어리처럼 절벽이잖아요.

[조사자] 산방산에 명당자리가 있다 하든데 그 말은 안 들어 봔마씨?

[제보자] 명당자리, 그 굴사가 명당자리야.

[조사자] 굴사가 명당자리? 산을 쓰면 안 뒈마씨?

[제보자] 거긴 무덤 쓰며는 산방산에 가서 무덤 쓰면 비가 안 와 불어.

[조사자] 아, 그런 말을 전설처럼 들었구나예.

[제보자] 비가 안 와서 기도 드리고 뭐 하다가 버치면, 산방산에 누가 산을 썼는가 헤서 그때는 사람 동원해서 가서 보지.

[조사자] 그런 적도 잇어낫수꽈?

[제보자] 동원해서 가서 보면은 산방산에 가서 산을 쓸 수 없고 누가 가서 자살해서 떨어져 죽은 거 있어.

- 핵심어 : 산방산, 곱쉐돌, 한라산, 지팡이, 무덤, 명당자리, 한라산 아들의 눈물, 산방굴사

W_L_067 산방산 금장지

2016년 10월 23일, 안덕면 덕수리 길가, 문경미 조사.
윤일부(남, 1942년생, 안덕면 덕수리)

[조사자] 산방산에 묘 안 쓰는 이야기. 아까 그 처음 이야기한 그거 한번.

[제보자] 장숫돌이란 그 우트레 그 지역으로 묘를 쓰면 비가 안 온단 말이여.

[조사자] 무사 경 굴안마씨?

[제보자] 전해오는 말로 들은 말인데, 산방산에 비가 안 와 ᄀᆞ물아 가민 산방산에 누가 산이나 안 썻나 하고.

[조사자] 아, ᄀᆞ물아 가면.

[제보자] 예. 비 안 와 가면 그런 말을 했고. 옛말에 천리를 허니까 비가 왓댄 허고.

- 핵심어 : 산방산, 장숫돌, 금장지, 비

W_L_068 삼달리 독자봉의 멕을 뜬 고종달

2016년 12월 11일, 성산읍 삼달리 삼달리노인회 사무실, 이현정 조사.
강재성(남, 1939년생, 성산읍 삼달리)

[조사자] 고종달 설화는 혹시 들어보션마씨?

[제보자] 고종달이란 어른이, 그, 이, 저, 우리 부락에, 저, 독자봉, 저기, 여기 보이는데.

[조사자] 독자봉?

[제보자] 응.

[조사자] 예.

[제보자] 독자봉은 우리 생수가 나완에, 이, 저, 밧벵디옌 헨 저 바다ᄁᆡ지 흘르는 생수가 잇엇는데. 그, 동쪽으로 제주시로 헨 동쪽으로부떠 그, 멕을 떠불면은, 그 물이 안 난다고 헷어, 동쪽으로 ᄌᆞ근ᄌᆞ근 떠오면서 여기두 떠부니까. 요기도 물이 안 나곡, 겐 서귀포 쪽더렌 다 가지 못허니까, 서귀폰 지금 물이 생수가 나. 서귀포 쪽엔게, 우리가 그, 저, 할아버지 생긴 때 그 말을 들엇는디. 고종달이가 그, 물, 생수 멕을 떠부니까, 여기는 물을 안 나고. 응, 서쪽으루 ᄌᆞ근ᄌᆞ근 떠가다가 다 허지 못헨 거, 뭐, 무슨 일로써 그 멕을 떠비엿는진 모루지만은, 응, 게서 서쪽에는 지금도 서귀포 가믄은 물이 나는 데가 지금도 잇주게.

[조사자] 무슨 일로 제주도 그 물을 다 끈어비엇는지는 모르시고?

[제보자] 응, 것도 모르고 내용은 확실헌 거는 모르고, 멕을 떠불면은 뭐, 물이 안 난다, 나지 못허게 헌다고 헷어. 그 말은 들은 적이 잇는데.

[조사자] 기구나예.

- 핵심어 : 삼달리, 독자봉, 멕, 고종달, 생수

W_L_069 삼달리 충신 강성익

2016년 12월 11일, 성산읍 삼달리 삼달리노인회 사무실, 이현정 조사.
강재성(남, 1939년생, 성산읍 삼달리)

[제보자] 그 우리 선조 6대조, 집행장령 그 어른이 그, 지금 비석거리라고 저기 그 잇는데, 비석을 세와 놧어. 우에 그 임금한테 가지 못허니까. 여정이 많아서 가지 못허니까. 거기서, 그, 저, 뭐여, 그. 배례를 헤서 가지 못헌 그, 뭐를, 에, 가지 못헌다고 헤서 그, 비석을 조그만이 세와 낫어, 응, 우리 그 종씨덜이 나중에는 지금, 그, 그거를 보존허기 위헤서 팔각정도 만덜고, 비석도 흔 서너 개 세워 놘 지금 누가 그, 만덜엇다 허는이.

[조사자] 아, 그러면 지금 비석 세워 논 자리가….

[제보자] 응.

[조사자] 그 임금을 베레 못 가니까, 거기서 이제.

[제보자] 응, 거기서 절허엿지, 배례(拜禮).

[조사자] 절한 자리구나예? 배례한 자리예?

[제보자] 응.

[조사자] 아, 그거를 이제, 기리기 위헷어.

[제보자] 응, 기리기 위헤서 문중 후손덜이 에, 기금을 모아서, 거기 팔각정을 씨원 만덜엇주.

[조사자] 아, 그 6대조, 그 분께서는 어떤, 어떤 분마씨? 따로 뭐 벼슬이나 이걸 받으셧수과?

[제보자] 어, 벼슬 이거 그저, 뭐, 장령 벼슬을 헷다고 헷어, 응.

[조사자] 아, 그믄 충신이엇네예.

[제보자] 응.

- 핵심어 : 삼달리, 충신, 강성익, 집행장령, 배례, 팔각정, 충신, 비석

W_L_070 상가리 변씨 형제

2016년 10월 16일, 애월읍 유수암리 강충희씨 댁, 문경미 조사.
강충희(남, 1938년생, 애월읍 유수암리)

[제보자] 상가리에 변상철이라고 있어. 변상철. 힘도 세고 기세도 당당하고. 이름이 변, 성좌. 형은 변성좌고 아우는 변상철, 성좌 형은 어질고 순하고 착하고, 아랫 동생은 성격도 괄괄하고 기운도 세고 대담허여. 헌데 하루는 형은 밧에 김 매레 나가고 점심 먹을려고 동고량에 밥 거려서 문간에 달아매놨다고 쉬지 말라고. 동네 팽나무 그늘에 와서 쉬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배가 몹시 고프니 먹던 밥이라도 있거든 조금만 주십시오."

하도 보기기 불쌍해서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점심을 주어버렸어. 스님이 이제는 너무 감사해서 보답할 길은 없고, 납읍인데

"상가리에 가며는 이러 이러한 당이 있는데, 당대 발복해서 과거에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강 집을 지어 사십시오."

이제 게난 떠나 간 거라. 떠나가 부니까. 이제는 성좌렌 허는 성이 아니 성보로구나,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허고 동생이 같이 살었거든. 어머니 앞에

"저 상가 강 살겠습니다."

"상가엔 왜 가느냐?"

"상가에 영 정 헌 당이 하나 있는데, 그 당대 과거볼 자리엔 헙니다. 그디 강 살아 보쿠다. 아이도 아직 어리고 허난 그디 강 살아그네 해 보쿠다."

이걸 성보(동생)가 들었어.

[조사자] 동생이?

[제보자] 동생이 들은 거라. 동생은 열세살 정도 밖에 안 난 때라. 게난 들었는데 동생이 귀가 온짝(솔깃)하는 거라마씸. '당대에 과가가 난다? 요거….' 성 가부니까 마음이 동해가지고 '성이 가기 전에 내가 강 살아야지' 쉐막살인양 그때 어떵 헨 열세살 난 놈이 어떵 데껴두고 쉐막살이 튼언에 싣경 자기냥으로 쉐에 어떻게 싣경 완 상가 완에 춪앙 완에 집을 세와 불엇어 딱.

어멍이 알아가지고

"아이고 영 정 헤가지고 아시가 강 영 헤 불엇저" 그젠 성이

"아니, 이럴 수가 잇수과."

"어떵 허느니, 기왕 경 뒌 거. 홀 수 없다. 니가 이 집 춪이헹 살라."

"난 마우다. 아무래도 몬저 강 헌 사람이 임제주 뭐."

아신 경 허는 거라. 형제간에 이렇게 알력이 생겨나니까 성도 양보허지 안 허고, 아시도 못허켄 허고. 일가친척도 모연 아시를 달래고, 나도 못허켄. 형제가 막 싸원. 예편이영 아들이영 도란 저 어디 가 불엇어. 중문이 가 불엇어 중문이. 중문이 강 살아 버렸어. 경 가 부니까 아 이사람 대단한 사람이주게. 성보랜 헌 사람이. 담력도 있고 영헌디.

자라나서 서울에 변칩이 과거 하나 본 사람이 잇엇수다. 나 서울에 둘앙 가줍센 아마 부탁을 허니까 간 거라. 둘앙 갔는데 판사댁으로 다 모인 거라. 이 사람도 나도 가 봐야지 허멍. 강 보니까 낭간 밑에 신발이 쭉 벌렸는데, 다 좋은 신발이라. 자기는 짚신 신고 갔다 말이지. 좋은 신발들 앞더레 쫙 밀어두고 자기 짚신을 턱 놓고 들어갔는데, 강 대감 앞이 절을 허면서

"감찰과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하고 절을 하면서 방구를 빡 뀌어버렸어요. 대감 앞이서 방구를 뀌어놓고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앞에

"좋은 자리에, 어른 앞에서 왜 방귀는 뀌느냐?"

옆에 사름보고 그렇게 한 거라.

"대감님 감찰과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 니 헐 만하다."

옆에 놈도

"저도 그래서 왔습니다."

"니가 무슨 감찰이냐? 놈 끼는 방귀나 얻어가지."

감찰을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지내면서 허는데 하도 ?물어서 가물다 가물다 버치니까 임금이 기우제를 지낸다고 해. 기우제를 지낼려고 허니까 그날은 비가 올 것 같애요. 그냥 기우제를 안 지내도. 비가 올 것 같은데 기왕 출린 거니까 빨리 기우제를 지낸다니까 구경을 가겠다고 백성들이 다 구경을 가는데 대감들은 비 올 걸 예상헹 다 비옷을 가지고 갔더랩니다. 왕이 헌관이 돼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거라. 기우제가 거의 끝나가니까. 허니 대감들은 비옷을 입은 거라. 입고. 왕은 예복을 입은 채라서 비옷을 못 입은 거라. 옷이 다 젖어. 곤룡포가 다 젖어가니까 거기

비위 좋은 사람이니까 영 보다가

“상감께서 비를 맞고 계신데 어느 대신이 비옷을 입을 수 있을꼬?”

그렇게 말해 버린 거라. 비옷을 다 벗어버리니까 대감들이 비를 쫄딱 맞았어요. 어떤 놈이 이런 말했냐고 조사해라 하니까, 임금이 ‘그 사람 죽을로구나.’ 하고 알았어요. 알고 불렀어요.

“니가 변감찰이냐?”

“예. 그렇습니다.”

“빨리 내려가라 고향으로. 여기 있다가는 죽는다.”

“여기서 죽을 테니까 빨리 내려 가라. 그리고 가서 너는 국마감찰을 해라. 물을 길르는데 국마감찰을 해라.” 하고 내려 보내버렸어요.

제주도에 왔는데, 이것들이 대감 이것저것 수소문을 허는 거야. 보니까 제주 국마감찰로 경 헹 데려갔다는 거야. 그걸 알아가지고 임금 앞에 상소를 해서 제주에 암행어사를 내려 보낸 거야. 그놈을 찾아서 혼을 내줄라고. 제주에 와서 어사가 와서, 들어보니까 상가 변성보라는 거야. 그래서 찾아가서

“나는 서울에서 제주에 유람을 왔는데, 말이나 한 필 있으면 좋겠는데, 값을 잘 추려 줄테니까 물 한필 어떻게 헐 수 없겠느냐.”

“이게 나랏물인데 어떻게 함부로 헌단 말이요.”

“그렇지만 몰래 허면 되지 않겠소.”

“이거 고얀 놈이로다. 니가 어떤 놈이냐. 나랏말을 훔쳐서 팔아달라니 니가 도둑놈 아니냐.”

그냥 어깨를 잡아 짓눌러서 주먹으로 패려고 하니까. 마패를 내놔가지고 그만하면 해먹겠다 하고 그냥 가 버렸어요. 일설을 떨친 거예요.

강칩에서가 사돈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통정대부사람이 가서

“혼인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아들을 팔려고 하니까 거기서 옛날엔 사주를 줬어요. 사주를 줬는데, 사주를 내보고 못하겠다 안 하면 허락을 하겠소. 다시 와서 이렇다 저렇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똘 사주를 준 거라. 그런데 어디 강 들어봐도 남자가 먼저 죽는다. 어디 그럴 수가 있느냐. 소문 들으니까 화북에 육지사람이 택일 잘하는 사람이 왔다 하여. ‘거기 가 봐야겠다.’

닭 한마리 잡아서 차롱에 잘 거념허고 술 흔 병 질어 놓고 해가지고 말 타서 화북까지 가서 보니까 방안으로 상방으로 문둥까지 사람이 꽉 찬 거라. 꽉 찾는데, 어느 아들이 택일하는 선생까지 만나서 택일허연 날이 저물어도 못허게 생겻

어. 조금씩조금씩 움직영 들어가다가 어떻게 문둥에서 기다리단 상방 안트레 들어오니까 웃방 안트레 금방 들어와지니까 이제는 이야기헌 거라.

"선생님, 여기 음식을 올릴까 해서 간식을 장만해 왔습니다. 음식이나 받아주십시오." 보니까 술하고 닭 한 마리라. 선생이 딱 보고

"술들은 나눠 잡수쇼. 이건 귀가 움직이니까 나만 먹겠소."

그걸 벽장 우트레 올려놔두고

"어디서 오십디가?"

"저는 신우면에서 왔습니다."

"허 멀리서 왔구나. 여러 어른들 미안하지만 멀리서 오셨다고 하니 먼저 봐두고 다음 보겠습니다."

선생이 그리하겠다는데 누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동의를 얻어서 사주를 보니까, 이거

"상군살 내렸다고 했지요?"

딱 허는 거라.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헹 손가락 뭐 짚으고 이리저리 뭐 허더니만

"그만하면 됐습니다. 한 십분만 더 공을 들인다면 더 오래 살게 할 건데, 여자가 빨리 죽어버려야 또 새장가갈 거 아닙니까."

여자가 먼저 죽게 택일했어.

"그러나 하여튼 삼 형제 날 거고. 장자는 귀한 자식 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 그 택일 받아왕 잔치헨. 아닌 게 아니라 아들 삼 형제 낳고 여자가 먼저 죽었어. 그렇게 감찰은 사내답게 벼슬을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그 형 성좌엔 헌 분은 중문이 가서 사기당헌 거라. 한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변생원님, 보니까 돈도 좀 있는다 싶은데, 논이나 하나 사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여기서 팔아간 땅을 대신해 땅을 사야겠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가지고 허는 참인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논 좋은 곳입니다."

허연. 옛날엔 땅 번지가 없어노니까 옆에는, 앞에는 뭐 이런 식으로 허니까 저 이것 뒤에는 백동동산 앞에는 허구대왕 동도다리, 서도다리 뭐 영 헤영 써졋어.

썻젠 헤연 글 몰르니까 적엇젠 허연.

"새봄 나민 가쿠다 그때랑 ᄀᆞ리쳐줍서."

"경 헙서" 헤연.

돈 백 냥을 줜 그 논을 샀는데, 봄나난 ᄎᆞᆺ앙 간에 보나네 두가시가 밥 먹단에

"조금만 기다립서"

헹 소나이가 나가멍

"논 갈앙 갑서양."

하면서 나간. 이 여자가 드러눠서

"이제랑 왕 논 갑서." 허난

"뭐이 어째."

발질로 두루 차두고 헤연에 오단 어떤 사람 만나난 영 보난에 그추룩 동도다리 서도다리…. 뒤에는 백동동산…. 이렇게 헷인게.

"이거 그 집이 마누라 삿인게마씸, 논이 아니라." 게부난

"아이고 속앗다."

헹 집에 완에 '내 이 아이만큼은 글을 시켜가가지고 사람답게 만들엉 놈 앞에 업신여김 받지 않게 허겠다.' 허가지고 절대 이 아이한테는 일을 시키지 말라.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예펜광 다짐을 헨. 헷는데 서당을 보냇는디 재주가 좋게 글을 잘 읽엇어. 마침 서당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밧을 갈레 가게 되었는데, 어멍이 아이보고

"너 이 점심을 갖당 아버지한테 강 안네둬이네 전헹 가라." 경 허난.

"경 허쿠다."

이젠 밧 가는디 점심 ᄀᆞ졍 가난 아이가 왓이난

"이 점심 너 염치로 가져왓냐? 어멍이 보내줘 가져왓냐?"

"어머니가 가는 길에 갖다 둬 가랜 헹 왓수다." 허난

"글라, 가게. 서당도 갈 거 없다."

밧 갈던 장비 다 설러앚지고 집에 와네

"우리가 야이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글만 읽게 하기로 했는데, 어떵 헨 점심 심부름을 시켯인고. 난 살지 안헹 죽어불켜."

하고 칼로 배를 확 그어불려는 것을 자식광 다 모다졍 말련

"다신 영 안 허쿠다." 헨.

막 ᄉᆞ정 헹 목숨은 건져 완. 경 헹 야이가 글을 읽언에 대정향교에서 읽고, 나

중에 제주향교에도 왕 읽었는데, 사람들이 다들 나무련. 남들은 다들 옷도 좋게 입었는데 옷도 남루한 옷 입고, 글도 '똥글, 똥글'하면서. 경 헹 허당. 마침 그때 어사 와서 민정을 살펴놓고 과거를 열었단 말이여. 야이는 과거 이름이, 하여간 과거를 봤는데, 어사가 보니까 글이 아름다워. 급제한 세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붙여놨어요.

임금이

"글이 있더냐?"

"세 사람 급제한 글이 있습니다."

"더는 없더냐?"

"여기 가작으로서 변아무개 글이 있습니다."

떡 보더니만

"무슨 소리야. 이게 장원일세."

임금이 딱 그렇게 하는 거라. 가작에서 장원급제가 뒈 분 거라. 그렇게 벼슬을 줘어 사간부 장령까지 줘어. 나중에 여기 와서 살었어요. 십년 동안 살었는데, 정동벌립 그걸 걸어두엉 나갔는데, 아버지가 만졌던 걸 내가 왜 손을 대느냐. 가만히 먼지가 뽀얗게 낀 거라. 그걸 보니까 대감살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허무한 거다. 나중에 산소를 벗하여 시나 쓰고 허다가, 다시 교지가 내려서 병조참판, 호조참판, 공조참판까지 참판 셋을 했어요.

[조사자] 원래 이분은 납읍 사람이꽈?

[제보자] 원래는 납읍 사람인데 변성좌는 상가로 가고, 이 사람은 중문에 강 살고 유수암으로 다시 아들이 이 강칩에 사위로, 아들따라 여기 왕 살다가 여기서 참판 교지가 내리니까 서울 가서 참판 살다가 내려왔는데, 과거는 대정(중문)이 과거지만은 참판은 유수암 참판이다. 그래서 이 유수암은 문무칠가 난다고, 무과 넷 문과 셋.

[조사자] 문무칠이 난다고요?

[제보자] 이 유수암에서 난다고 한다.

[조사자] 아까 뭐렌 골앗수과?

[제보자] 과거는 대정(중문) 과거지만은 참판은 유수암 참판이다.

- 핵심어 : 유수암, 과거, 참판, 대정, 문무칠, 변상철, 변성좌

W_L_071 생명을 중시한 고성리 홍 효자

2016년 10월 18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이현정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조사자] 어떤 기록이 남아 잇이카마씨?

[제보자] 그 분네를 찬양허는 기록이. 그니까 이제 전설로는 그 이 홍 효자는 왜 그냐 그러면은 이제 그 제사를 모시려고 허면은, 이제 고기도 이제는 낚아와야 되고, 뭐 이제 돼지고기도 써야 되고 그러니깐 불교식으로 허면 살생허는 것은 이거 죄악이니까 안 되거든. 그니까 이제 사름,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이건 이제는 죄악이라 그렇지만 예법으로 이제 고기를 올려서 허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헐 고기를 낚으러 가도 낚시로 낚으지를 않고, 바늘에다가 이껍을 대어서 고기를 낚아. 그면,

[조사자] 바늘에 이껍을예?

[제보자] 옳지, 게면은 그 고기가 빠져 불 거 아니야. 그래도 물려서 올라오는 고기는 이것은 천명이 되가지고 너는 제사용품으로 쓰라고 허는 것이라고 해서 자기 조상 이제는 그 이제 제사를 이제는 모시고.

[조사자] 마음이 어떵 막 여려난 분인게예?

[제보자] 어,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부모가 이제는 돌아가니까. 이제는 그 동네 사름들이게도 그 산 옆에다 요리 돌로 싸 주잖아요. 그것을 동네 사름을 빌질 안 허고 자기 혼자만 매일 돌 주어다가 그 담을 쌓는데, 돌 주어서 보민 엣날에 돌 요레 허민 속에 개미집이 있는 돌이 있습니다. 그러믄 그 개미는 전부 거기 파 돌안(손으로 돌을 긁어내는 시늉을 한다.)

"나도 우리 부모 돌아가서 슬픈 데이, 개미도 지 에미가 죽으민."

허니까 그러고 해서 이제는 자기 혼자 그 개미 살리기 위해서 동네 사름 안 빌어가지고 그 부모 산담 옆이 이제는 산담을 했고, 그래서 그리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살려내려고 했던 이거는 전설입니다.

[제보자] 기록에는 없고, 한 번은 아 들에 갔다 오는데, 이제 길가에 고라니가 딱 하나가 누워 있어. 그래서 죽었는가 해서 보니까 안 죽었어. 그니까 죽었으면은 봉가다가 잡아먹을 텐데

"아, 이 살았으니까 난 거 죽일 수가 없다."

해서, 와서 아마 이제 앚아서 놀다가

"아, 이 드릇 갔다가 오는데 말이여. 고라니가 길가에 드러 누워가지고, 아 난

죽었으면 갓당 잡아먹으려고 허는데, 보니깐 살아있어가지고 이 짐승을 죽일 수가 없어서 나 그냥 왔어."

허니까 동네사름들이

"야! 우리 그거 가서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조사자] (웃음)

[제보자] 가, 가보니까는 그 홍 효자가 올 때는 고라니가 누워서 가만 있었는데, 동네 사람 다글락 가니까 그냥 누워서 도망 가 불었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 이제 살리려고 했다는 전설이 그 분네헌테는 많습니다.

[조사자] 그러면 그런 전설은 어디서 들으션마씨?

[제보자] 그건 뭐 그런 건 헹교에서 듣고.

[조사자] 향교에서 듣고 그믄 향교에서 홍 효자에 그 모든 걸 살리려 했던 ᄆᆞ음씨를 갖당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네도 이렇게….

[제보자] 아유, 물론이죠. 그니께 이제 그 홍 효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이제 그 소위 이제 그 유가 사상이 기본 인자 하나인데 그 인이라고 허는, 사름인 변에 두 이, 모든 것을 살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이제 그, 누구냐 그 정도전 불씨잡변 있잖여. 불교를 공격허는 것이 살생허지 말아라. 겉으로 보기엔 말은 좋지만은 살생을 부득이 헐 땐, 소 흔 마리를 죽이면은 백 사름은 한 끼를 먹는데, 그거를 안 허면은, 다른 걸, 적은 걸 잡아먹으면은 살생을 멧을 허냐 그 말이여, 거니깐 많은 걸 살리기 위해서 헐 수 엇이, 적은 걸 죽이는 거 이건 그 자연의 원리에 맞추어서 이것을 해야지 무작정 하나도 죽이지 말아라, 그믄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정도전이가 그 중덜보고

"너넨 그러면 상추 안 먹냐? 상추도 생명이여, 배추도 생명이여."

그래서 말이 살생을,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여. 그니께 자연 원리로 보통 먹고 먹히고 허게 돼 있기 때문에 원리로 그렇게 된 원리를 따라야지, 그냥 무작정 한 쪽으로만 살생해선 안 된다. 그러나 다만 이제 모든 것을 가급적이면은 살려주기로 해야 돼. 아 그니까 다시 말허면은 조금 이제 덜 먹으면은 생명이 많이 살아나는 거 아니여.

[조사자] 근데 어르신 기억력이 진짜 좋으시우다예? 그때 들어난 얘기가 어떵 영 다 생각나셨인고?

[제보자] 아니, 중간에 건 무사 흔 번 두 번 들은 게 하이튼, 만날 죽으로 밥으로 들은 거요. 어디서 기억나는 게 아니고.

[조사자] (웃음)

- 핵심어 : 고성리, 홍 효자, 생명, 낚시, 이껍, 개미, 고라니

W_L_072 서호리 통물과 당

2016년 12월 7일, 서귀포시 서호동 허노생씨 댁, 김선희 조사.
허노생(여, 1932년생, 서귀포시 서호동)

[조사자] 이 동네에 당은 엇어낫수과?

[제보자] 당 잇어낫주만은 이젠 젊은 때는 당도 잘 뎅겨낫주만은. 저 어디, 통물이렌 헌디. 통물 그레 간 디 당 잇어낫주게. 경 허당 이젠 사람들이 뎅겺인디 말앐인디도 몰라. 일름은 그냥 당이주. 그때 심방덜 저 굿하는 심방 있잖아. 우리 부락엔 그런 당이 엇어낫주게. 어느 심방이 당을 출리켄. 경 헷인디, 이 가름 안에는 안 뒈곡, 저 멀리로 강 헤연. 이디 ᄌᆞ끗디는 안 뒌댄 헤영. 저 어디 통물더레 가는디 잇어낫주게. 이젠 사름 무시거 엇일 거라. 여드레에 섣달 무시거에 헹으네 기자 ᄒᆞ꼼 불편한 사름덜 그디 강 무시거엔 곧곡 하는디.

이젠 그런 거 엇어. 기자, 아프민 병원에 강 죽어불곡. 그런디 강 뎅기는 사름 잘 엇일 거라. 통물은 나는 물인디 무산디는 모르고. 수도 나기 전엔 그 물 지어 당 먹곡 허멍 살앗주.

- 핵심어 : 당, 통물, 심방, 여드레, 서호리

W_L_073 선문대할망

2016년 12월 1일, 애월읍 애월리 애월리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양병연(남, 1928년생, 애월읍 애월리)

[제보자] 선문대할망이 키가 크니까 산짓물에서 서답을 뽤다가 그레 영 허니까 짚을 디가 엇어. 짚을 디가 엇언 한라산을 짚어가지고 서답을 영 놀렷다 허여이. 그게 너무 높으니까 서답마께로 꼭대기를 확 후려 버리지. 것이 날아가서 산방산이 뒈엇다 그런 전설 같은 것들이 많이 잇어.

[조사자] 서답마께로 어떵 헤 부니까?

[제보자] 서답마께로 너무 높으니까 걸로 걸겨 불엇다 말여. 한라산을 때렷다 말이주. 때리니 것이 놀아나가지고 산방산이 뒈엇다. 그런 말은 들엇어.

[조사자] 어떤 말 들어낫수과?

[제보자] 또 선문대할망이 키가 크긴 해도. 무신 물고 연동 골프장 헌디 거 무신 물? 물장오리, 거기 깊으지도 않은 딘디 거기 빠져 죽었다 허여.

[조사자] 선문대할망은 어디서 온 할망마씨?

[제보자] 게메 걸 모르지. 그런 내용을 몰라.

- 핵심어 : 선문대할망, 산짓물, 산방산, 서답마께

W_L_074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2016년 10월 18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이현정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조사자] 설문대할망이랑 설문대하르방 얘기, 기억나셨우과?

[제보자] 설문대 이제 할망은 여기서 뭐 전설도 많주만은, 어 이제 지금 성산 그 일출봉이 위가 불룩 들어갔잖아요.

[조사자] 예.

[제보자] 한라산 백록담 불룩 들어갔잖아요. 거 이게, 설문대할망이 빨래허려고 성산일출봉 붋고, 한라산 정상 뻡고 헤서 빨래 헤 버리니까, 거기가 푹푹 들어갔고. 그 빨래허다가 그냥 소벤 봐가지고 그냥 소벤을 봐 버리니까, 지금 이 동네 내가 큽니다. 그 내가 이제 생겼다고 요렇게 하고.

[조사자] 내 이름이 뭡니까?

[제보자] 여기가 지금은 천미천 그러는데, 원래는 진손내에요.

[조사자] 진손내.

[제보자] 예, 이 왜정 때부터 천미천 그래요. 이제 걸 제주도에서 뭐 두 번짼가 크답디다. 그래서 그 내가 생겼다고 허고, 우선 그 설문대할망은 기냥 혼자 할망 살았다고 허지만, 요 쪽에서는 그리 큰, 원래 음양은 원리로 둘을 음양이 맞춰서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제 설문대할망 시절에 지금 그 저기 신양리 거기 섭지코지 그러는데, 어떤 분네는 섭지하르방이라고 허고. 또 어떤 그기는 또 설피하르방이라고 허는데 이게.

[조사자] 설피하르방?

[제보자] 응 그, 선문대만츰 헌 이제 하르방이 이제는 거기 살았는데 이제, 두 하르방 할망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체격도 비슷허고 허니까 같이 살자고 부부가 되자고 해서 약속을 했는데, 둘이가 엄청나게 먹으니까 먹을 것이 없단 말이야.

그 이제 하루는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 그 하르방이

"아, 그르지 말고 이 바다에 고기라도 잡아서 먹자."

그랬어 이제.

그, 이제 설문대할망보고 지금 성산 그 광치기해변허고 그 우도,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옷 벗고 발 딱 벌겨서 앚으라."

그래서 이제 앚게 허고 그 이제는 그 설피하르방은 지금 신양리 그 바닷가에 가믄 그 불뚝헌 바위가 있습니다. 그 서귀포 외돌개 모냥으로, 그것이 이제 그 하르방 짚엇던 그 지팡이 짤이라고 해요. 그 이제는 지팡이를 이제 그 이제는 꼽았가 그것을 딱 뿐질러 가지고 가서, 그냥 저 먼 바다에서부터 그냥 바다를 그냥 요리저리 휘저으니까는 고기들이 그냥 전부 겁이 나가지고는 그냥 그 우도허고 소섬허고, 성산 그 허고, 사이에 그 할망 벌려 앚인 그 지금, 음부로 그냥 고기들이 싹 이제는 들어가니까, 그 이제 할머니보고 나오라고 해서, 그 고기를 그 성산 이제는 거기 벌려 놔가지고, 이제는 끼니로 살고 했다고. 그래서 그 지금 섭지코지 앞에 그 이제 그 뾰족헌 돌이, 그것이 그 설피하르방 지팡이라고 하고.

[조사자] 지팡이, 그 뿐질러분 지팡이 그 나머지.

[제보자] 예, 나머지라고 허고. 거기 또 보면은 강아지 비슷헌 생긴 돌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그 돌은 그 설피하르방 이제 데리고 다니던 강아진데 그 하르방 죽어부니까 그게 돌이 되어서 꼭 강아지 모냥으로 생겨서 있다고.

[조사자] 설피하르방.

[제보자] 어떤 분넨 설피하르방이엔이라고 하고, 어떤 분낸 섭지하르방이엔 허고, 어떤 분넨 그 거기가 섭지코지가 그 섭지하르방 살아부니까 섭지코지라고 헌다고 그리 그래요. 예, 어디 요쪽에만 전하는 말이야, 그니까 세상에 원리가 딱 음양을 맞춰서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조사자] 할망이 있으면 하르방이.

[제보자] 하르방이 있는 것이라고.

[조사자] 그 지금까지 그믄 하셨던 예기들이 그때 향교에서 그 이틀 밤 머무르셨을 때, 다 앚아가지고 서로 했던 예기니까?

[제보자] 그러지 뭐.

[조사자] 그 제일 처음에 해 주신 그 송씨 해녀 그, 상군 예기는 것도, 그 향교에서?

[제보자] 아마 그것은 이 동네에서도, 이 동네만이 이 동네에서 들어졌을 거여 (불청).

[조사자] 그럼 이 동네에서 그런 예기 들으실 때는 어떤 상황에서 들으셔난마씨?

[제보자] 여기는 이제, 그 요즘도 저 뭐 제주시에 그 정초 되면 마을제 포제 허잖아요. 포제 땜에 삼일 합숙헙니다.

[조사자] 하긴 옛날엔 뭐 놀짓거리가 없으니까.

[제보자] 없으니까. 그러고 아니 요즘에는 이제 뭐, 거기 또 일반 사름가서 화투도 치곡, 예전에는 제사에 그러면은 정신 풀려서 못 쓴다고 일절 그 잡기를 안 허지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 앚을 수는 없고, 자연히 뭐 예기가 나오기 마련이죠. 대개 동네 같으민 집안 얘기 그런 마을에 전설 얘기 뭐. 지명에 대한 전설 뭐 이런 얘기, 이제 또 이제 저기 뭐냐, 헹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에 대한 역사 얘기, 그 집안 문중에 대한 전설 얘기. 게 그 당팟당장이 같은 것도 그 김씨덜 이제 허는 예기거든.

[조사자] 아, 김씨들이 당팟당장 얘기를 허고.

[제보자] 응, 물론 남도 허주만은, 이제 그 그민 그 자손은 어디 산다고, 그니까 내가 손자 가시리 있는 걸 알은 거 아냐.

[조사자] 응, 그렇구나예. 그믄 송씨 아까 송씨 할망같은 얘기는 포제에, 포젯날 포제 준비하젠 헤믄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얘기.

[제보자] 응 자연스럽게 그 인제 얘기가 나오고.

[조사자] 응, 자연스럽게 예기가 나오고, 설문대할망 얘기는 어디서, 어디서 들으션마씨?

[제보자] 그것도 아마 헹교서 듣지 안 했는가?

[조사자] 향교에서. 하르방 예기는 저쪽, 저 뭐냐 섭지코지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제보자] 하르방 얘기도 아니, 그 동네가 아니고 것도 헹교에서 듣지 안 했는가 싶어.

[조사자] 향교에서. 다니셨던 향교는 어디….

[제보자] 그건 정의 헹교죠.

[조사자] 정의 향교, 정의 향교에 계속. 그믄 정의 향교 같은 데는 이제 몇 마을이 모다집니까? 그런 날이믄.

[제보자] 저 지금 서귀포 법환에서부터 여기 시흥리까지.

[조사자] 시흥리까지 쭉. 막 다 예. 다 거기 자제분들 하고 그 다음에 향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고 다 모여가지고예.

[제보자] 그렇주.

- 핵심어 : 설문대할망, 설문대하르방, 진손내, 설피하르방, 음부

W_L_075 설문대할망과 우도

2016년 12월 2일, 우도면 오봉리 오봉리노인회관, 문순덕(김은정 · 정이슬) 조사.
고호수(남, 1938년생, 우도면 오봉리)

[조사자] 일출봉하고 우도봉하고 원래 땅이 이어져낫인디 어떵 허난 갈라져 불었다 헌 이야기를 들어난 거 있으면 ᄒᆞ끔 영 잘 ᄀᆞᆯ아줍서.

[제보자] 저기 설문대할망?

[조사자] 예.

[제보자] 설문대할망예. 설문대할망이 그 아마 밖이서 소변을 누었어. 오좀을 누니까 다리를 걸치고, 저 종다리에 걸쳐서 오좀을 누니까 그게 바다가 뒈엇다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종달리나 저 성산포나 거기와 우도에서 걸쳐 부떠난 섬인데 거기서 오좀을 눠 가니까 그 오좀이 흐름에 물이 뒈엇다. 바다가 뒈엇다.

[조사자] 게난 삼춘은 그 말을 언젯적 들어난 거 닮수가?

[제보자] 아 그전부터 웃어른덜이 내려오는 그 말이 잠깐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그 어떤 학설은 아니고,

[제보자] ᄉᆞ오십 년 정도 뒛주.

- 핵심어 : 일출봉, 우도봉, 설문대할망, 종달리, 오좀, 성산포, 우도

W_L_076 설문대할망의 다리걸개

2016년 11월 23일, 한림읍 월림리 고정녀씨 댁, 이현정 조사.
고정녀(여, 1939년생, 한림읍 월림리)

[조사자] 설문대할망 얘기는 들어나셧지예?

[제보자] 설문대할망은 매날 이제도 허는구나. 테레비에.

[조사자] 테레비에?

[제보자] ○○○ 라디오 방송에 오널도 헨게.

[조사자] 기마씨?

[제보자] 응. 옛날 거보단 이제 더 많이 골아.

[조사자] 이제 더 많이 골아?

[제보자] 응, 처음보담. 설문대할망은 인저 하도 키도 키곡, 다리도 길곡 헤연 무신 한라산에 앚아그네, 저, 어디고, 차귀도에 발 한 착 걸리곡, 무신 비양도에 발 헌 착 놓곡 앚아그네 헷젠 그런 말덜은 막 골아낫어.

[조사자] 아, 옛날에?

[제보자] 응, 할망이 하도 크고 허난에 차귀섬에 발 헌 착 걸치곡, 비양도에 발 헌착 걸치곡 허영 앚앙.

[조사자] 앚앙 뭐헷덴 헵니까?

[제보자] 뭣사 헤낫인디 경 헤낫젠들 막 곧기만 헨.

[조사자] 오줌싸는 얘긴 안 합니까?

[제보자] 오줌도 싸삿인디 어떵 헷인디 몰르컨게, 그런 건 얘기헷인디, 경들 막 골아. 이제도 어떵 헌 때 어떤 사름덜 경 골아. 설문대할망ᄀᆞ찌 저 할라산 꼭대기 앚앙 차귀도에 발 걸치곡, 비양도에 ᄒᆞᆫ 착 발 걸쳐 봐덜, 걸쳐 봐덜 허멍.

- 핵심어 : 설문대할망, 다리걸개, 차귀도, 비양도, 할라산, 오줌

W_L_077 설문대할망의 속옷

2017년 2월 21일, 대정읍 하모리 이정자씨 댁, 문순덕(김은정·정이슬) 조사.
강순화(여, 1935년생, 대정읍 가파리)

[조사자] 설문대할망이랜 헌 말 들어봣수과?

[제보자] 설문대할망은 가파도선 설문대할망이 미녕 일곱 필 허여도 처지헤서 죽엇젠. 속옷을 처지 엇엇젠 허여. 미녕 일곱 필 들어도 이런 속옷을 처지헹 못헷젠. 그만큼 큰 모냥이라. 설문대할망은 한라산 물에 빠졍 죽엇저. 옛말인지.

[조사자] 호꼼 더 잘 ᄀᆞᆯ아봅서.

[제보자] 그 이상은 들어보지 않안. 가파도선 겅 ᄀᆞᆯ아. 설문대할망이 얼마나 커야 미녕 일곱 필 들어도 처세가 엇이 할망 속옷 만들민 요렇게 요디 처세가 잇어야 속옷이 뒈주게.

[조사자] 허리 하는 걸 처세랜 ᄀᆞᆯ읍니까. 게난 처세가.

[제보자] 엇어. 일곱 필 들어도 만들게 없어. 그만큼 크다는 말이지. 설문대할망이 그렇게 커난 셍이라. 한라산, 영실에 그 물에 빠졍 죽엇저. 겐디 근디 우린 터져시카부댄 헷인디 비 안 오민 물른댄.

- 핵심어 : 설문대할망, 처세, 속옷, 한라산, 가파도, 미녕 일곱 필

W_L_078 세명주할망과 멩지 아홉 필

2016년 10월 22일, 성산읍 신산리 김옥종씨 댁, 이현정 조사.
김옥종(남, 1924년생, 성산읍 신산리)

[조사자] 세명주할망 얘기는 어떤 얘기꽈?

[제보자] 세명주할망이옌 그걸 우리도 거 어디 학, 어른덜한티 들은 말인디. 성산허고 한라산 주위에 그, 다리 벌견 걸칠 정도가 되니까, 멩지를 아홉 표를 헷어.

[조사자] 아홉 표?

[제보자] 응, 멩지를 아홉 필.

[조사자] 필.

[제보자] 필을 헹, 그, 속곳 하나를 옛날은 ᄉᆞ중이, ᄉᆞ중이 헷는데. 물질허는 더레 그거 하나를 못 멘들엇어.

[조사자] 못 멘들안마씨?

[제보자] 응, 아홉, 멩주 아홉 필. 그런 그 속담, 말이 있어.

[조사자] 아, 그믄 막 커난 모냥이주마씨? 세명주할망이?

[제보자] 경헌 거지.

[조사자] 그믄 속옷은 무사 만들엇댄 헙디까? ᄉᆞ중이는.

[제보자] (웃음)

[조사자] 무사 만들언마씨? 사럼들이 만들어준 거?

[제보자] 그 ᄉᆞ중이야.

[조사자] 예.

[제보자] 할망이 그 멩지 아홉 필을 헤, 아홉 필을 헹 멘들아도 몸, 모지렛다.

- 핵심어 : 세명주할망, 멩지, 아홉 필, 속곳, ᄉᆞ중이, 거녀

W_L_079 송칩 도체비

2016년 11월 9일,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병원 병실, 문경미 조사.
윤문수(남, 1933년생, 안덕면 덕수리)

[조사자] 불 모시는 거 있잖아예?

[제보자] 옛날에사.

[조사자] 그거 어떤 건지 나온 거 엇어마씨?

[제보자] 칠성할망이라고 정월 칠일 날 아침에 가서 아이들 머 헤난 거 떡이나 무슨 거 만들엉 가가지고 무신 거 험벅 곹은 거 올리고.

[조사자] 어디 올려마씨?

[제보자] 낭 잇수게 낭, 낭에 막 돌아메메.

[조사자] 집집마다 불미공예하는 사람들 집에 도체빗불을 모셧젠 허든데?

[제보자] 그 불무공예는 것이 아니라 아니. 불무공예는 옛날 불미허는디 솟 아졍 ᄒᆞ루 막 불 숣아가민 숣아가민

"불낫다!"

영 헤난 모양이라.

[조사자] 집에 모시는 건 뭐마씨? 집집마다 뒷곁에?

[제보자] 주로 송칩이. 우리 할마님도 송칩이 할망인디 물려와가지고 그걸 받는디, 장팡 뒤라고 바로 부엌 뒤에, 그걸 모셔가지고 어디에 뭘 가져오민 꼭 그레 먼저 타당 올리고 경 허는 거 봣수다.

[조사자] 안 모시믄 어떵 된다는 거 엇수꽈?

[제보자] 주로 그건 송칩이 그자, 큰똘이 물려 간다니까 큰똘신디 물려 준다고, 중간에 허당 설러불엇주게. 혹시 실런지도 모르쿠다만은. 집에 모시는 것도.

[조사자] 이제는 모시는 집 엇수과?

[제보자] 글쎄 잘 혹시 잇일란지 모르쿠다마는.

[조사자] 그러면, 그 장팡 뒤에. 모양은 어떤 모양? 모시는 모양이.

[제보자] 시루 있지, 떡 시리. 그걸 엎어놔가지고. 그 고망난 딜로 드리쳐마씨.

[조사자] 고망난 딜로 음식 같은 것을 드리쳐? 그럼 딸한테 물린다 하면 시집갈 때 그 시리를 주는가마씸?

[제보자] 그땐 뭐 시리가 집집마다 잇일 때니까 뭐.

[조사자] 그럼 덕수리에서는 송칩에서만 그런 거 하고, 다른 디선 그런 거 안 헷수과?

[제보자] 주로 송칩에서 허난, 송칩이 도체비랜 허나. 그거 물려올 때도 송칩이 하르방이 물려오고. (명절이나 제사 등) 아무것도 뭐 헤나면 거기다가 정성을 드려.

[조사자] 무사 덕수리에만 이런 게 있을까예?

[제보자] 불무 따문에.

- 핵심어 : 송칩, 낭, 도체비, 불무공예, 장팡

W_L_080 수령짓애기와 자청비애기

2016년 12월 14일, 제주시 봉개동 봉개마을회관, 김선희 조사.
고완신(여, 1932년생, 제주시 봉개동)

[조사자] 노래 말앙 골아난 재미난 얘기 잇수과?

[제보자] 옛날에 하늘 우이 자청비하고 하늘 애기씨하고 그것가 일름을 잊어불엇단. 시작하믄 골아지는디. 하늘 우이 수령짓애기하고 자청비애기인가? 저 옛날에 글공비 할공비하러 가는 사름이 연내못에서 빨래하는 수령짓애기가 잇엇어. 수령짓애기가 하도 애기 이쁘고 고우나, 자청비애기가 하는 말이

"곱기도 곱다, 물이나 훈번 주어."

허난 빨래하는 자청비 하는 말은 물을 주난. 수령짓애기는 남자는 그 수령짓애기주. 맡아가지고

"애기씨 곰도 곱다. 무사 버드낭닙을 물에 놩 줬이니?"

이제 경 물으니, 그 자청비애기가 하는 말이

"밥에 체한 것도 약이 잇고, 음식에 체한 것은 약이 잇입니다. 근디 물에 체한 건 약이 엇입니다. 게난 이걸 버드낭닙으로 물을 호호 뿔앙 먹으며는 체가 안 뒈난에 이제 물에 체허는 약이 엇이난 천천히 먹게시리 헹 줬수다."

경 허난 그 자청비애기가 빨래를 허는디 그 남재가 하도 이뻐. 이쁘난이

"어드레 가는 사름이우꽈?"

남자신디 물으난, 남자 하는 말은

"나는 글공비, 할공비하러 가다가 하도 연내못에서 빨래하는 것가 이쁘고 고우나네 말을 했다."

"아이고 우리 오빠도 글공비 할공비하러 가젠 허엿다는데 벗이 엇엉 못 값수다."

"게민 곹이 갈 수가 이시냐?"

"아이고 우리 올레에 팡돌 우이 강 아잣입서. 내가 우리 오빠를 인도헤영 곹이 글공비 할공비하러 가게 허쿠다."

허난, 집이 왕. 빨래 ᄒᆞ는 동 마는 동 헤가지고 오좀항에 강 적정, 옛날 비누도 아무도 엇인 때난 오좀항에 그 서답은 잘 못허난 오좀항에 담가두곡. 이젠 남재 방에 오빠 방에 강으네 옷을, 남자 옷을 몬딱 골아 입었어. 골아 입고 왕대막

댕이 그창 가지고 나왓어. 왕

“우리 오빠 왓수다.”

“아이고 곳사 수령짓애기가 꼭 닮은디 어떵 허난, 똑 그 애기씨 아닌가?”

허난, 자청비애기 하는 말은

“우리 오빠하고 나는 얼굴이 똑 같읍니다.”

경 허난 같이 갓어. 가난 그 남자가 하도 이상해 비어. 얼굴이 꼭 여자 닮아벤디 남자가 되었는가 헤연, 아이고 우리 오좀이나 골길락 헤 보게. 경 ᄒᆞ난 그 대막댕이를 강알에 대연 오좀을 골기난 그건 아홉 촉을 골겻어. 남자는 다섯 촉벢이 오좀을 잇어가지 못헷어. 경 허난

“아, 이거 남자랏구나.”

하난, 이제 글공비 할공비하러 가난 은동이에 물을 떠 놧어. 은동이에 물을 떠 놓고 대막댕이를 그차당 걸쳐둠서

“이디랑 나가 눕고, 이디랑 니가 눅자. 우리가 이 막댕이가 은동이에 떨어지민 글공비를 못하난 조심히 눅자.”

거난 그걸 믿어가지고 그 수령짓애기는 이제 그 동이에 대막댕이가 떨어지지 않게 힘을 썽 누웟어. 눈디 하루는 세수를 하러 나왓어. 나오난 가마귀 놀개에 펜지를 아져당 그 자청비애기 아바지가 너는 재게 왕 시집을 가라 경 허난, 이젠 어뜩 남자영 왕 세수를 허는디 여라 보켜 허난 박박 부병 옴막 들러 먹으불엇어, 새각시가. 들러먹어부난 이젠 아바지가 시집을 가렌 헌 걸 확 부병 먹어부는디, 그 남자는 세수를 하단

“아이고, 애기야 무시거 왓이니?”

“우리 누이 시집 값이난 잔치ᄒᆞ난 오렌 헸저.”

거난 남자, 수령짓애기도

“나도 가켜. 느네 누이가 시집을 값이난 나도 가켜.”

막 좇아와가난 이제 하는 말이

“늘랑으네, 우리가 공부를 다헹 가난 모욕을 하젠 하민 삼년 묵은 때를 밀젠 허민 오래고 시간이 걸리난 ᄒᆞᆫ자ᄒᆞᆫ자 들어강으네 모욕을 허믄 얼마나 좋으니.”

겨난 ᄉᆞ나은 매매 알층에서 곰곡 그 자청비애기는 우층에서 모욕을 하켄 헤동 모욕은 안 허고 버드낭섭에 박박 훑엉 글을 썽 알층더레 물이 ᄂᆞ려갈 거 아니. 게난 알층더레 띄와불엇어. 띄우난 한참 수령짓애기는 몸을 곰당 보난 버드낭이 떠 ᄂᆞ어. 버드낭을 영 보난. 나는 시집을 갑니다. 기추룩 썽 ᄂᆞ려불엇어.

"아이고 이젠 큰일낫저. 내가 속아졋구나. 내가 재게 강 이 여자를 만나봐사켜."

헤영 이젠 막 뛰어 오단 보난 미쳣어. 자청비애기를 만나난 이때꺼정 속앙 이추룩 아잣이난 "나는 어떵헐 거냐?" 허난

"늘랑, 팡돌 우이 왕, 우리 올레에 팡돌 우이 아장 이시면 몬딱 여자옷을 아져당 주건 입엉 우리 아바지 어머니를 속여ᄃᆞ라."

"어서 게건, 경 허라."

그 남자는 이제 팡돌 우이 아잣이난 지 입던 여자옷을 몬딱 갖당 그 남자를 입젼. 그날 ᄒᆞ루치냑을 잣어. 잔디 이제 시집을 가게 되난

"이젠 우리 아바지 몰래 가라."

겨난 이제 수령짓애기는 가서 어멍ᄀᆞ라 삼년 묵은 장을 먹엉 죽으멍 ᄒᆞᆫ댄 말이.

[조사자] 장물마씸? 간장물?

[제보자] 이젠 간장이고 옛날이는 장물이라. 장물을 삼년 묵은 거. 삼년을 묵으면 ᄌᆞᆺ앙 짜거든. 그걸 먹어 이제 죽으멍 어멍ᄀᆞ라 뭔 말을 헤간고 허난

"날랑 아무 길목에 강 묻어달라."

경 헹 죽엇어. 겨난 어멍은 아들 ᄀᆞᆫ는 양 묻엇어. 묻으난 그 사람은 시집을 가는 날이라. 가는 날인디 그 목에 가면은 생이가 쿱, 게난 새각시는 술 한 펭에 잔 하난 쿰엇어. 쿰엉 가다가 그 목에 가난 생이가 그 가메를 들렁 가는디 이레 호르륵, 저레 호르륵 하도 이뻐.

[조사자] 생이가마씸?

[제보자] 응, 생이가. 경 헹 이제 들렁 가는 하님. 옛날은 하님이엔 허주. 하님ᄀᆞ라

"나는 저 생이를 아이 심어주민 시집을 안 간다. 이제 이 가메를 노라."

허난 노앗어. 노난 그 생이를 심으레 들러 가당, 두 사람은 그 생이 심으레 막 ᄃᆞ려 간 거 아니, 가메를 놔둰. 새각시 영 가메 안이 아진디. 경 헹 막 ᄃᆞ려가난 생이 못 심엉 왓어. 그 무덤에 가난 새각시가

"수령짓애기야, 혼이야 잇걸랑 무덤이나 벌러지라."

술을 쿰엇다가 잔에 비왕 ᄒᆞᆫ잔을 산더레 비왓어. 비우난 무덤이 딱 벨라졋어. 벨라진 딜로 화르륵이 들어갓어. 이젠 생이 못 심고 돌아뎅기던 사람은 왕 보난 새각시는, 무덤은 벨라졋고 새각시 너울너울 치메는 그 무덤에 딱 봉해진디. 그 옛날은 사람이 죽으민 입젠 호상을 허는디 색깔을 검은 거 놓고, 붉은 거 놓고, 파란 거 놓고 헹 호상을 행 나두민 어려운 시상이라나부난 이 옷을 빌어다가 새각시 시집을 갓어. 겨난 그 옷이주. 그 옷이난 붉은 것도 싯곡, 푸린 것도 싯곡.

무덤 우인 영 무덤은 합져진디 번들번들한 거 아니. 겨난 하님들은 이제 치메깍을 박박 즙아당기멍 그 새각시를 나오카부댄 데끼멍. 치메깍은 허난 이제 '흑나비 되라, 검은나비 되라, 붉은 나비 되라, 노랑나비 되라.' 허멍 그 치메를 다 그치멍 데껴 불엇어. 데껴 부난 나비가 되언. 나비에 보민 그 나비에 놀개에 보민 검은 것도 싯곡, 파랑 것도 싯곡. 붉은 것도 싯곡. 나비가 뒈엇어. 견디 이제 경 허다가 고장이 난. 그 목에 가민 고장이 난 산 우이 하도 바록바록하난. 이제 장게가젠 허단 사람은 이제 말로 용심이 난 거라. 장게를 못 들엉 용심이 나난. 그 목에 가민

"이 놈우 고장을 안 나게시리 하겠다."

허난 멀리 파당 묻엇어. 응 새각시하고 그 무덤을 파가지고 두 개를 헤다가 양쪽 펜이 묻엇어. 게민 옛날엔 두루웨기엔 허주. 두루웨기엔 허민 저기 벋음이, 저기 쉰대를 벋어 가. 벋음이. 막 알러레 벋어 가. 겨난 이 놈이 두루웨기줄이난 이 산에 얽어져 봣당, 저 산에 얽어져 봣당 혼정으로 다가.

"이것도 아니다. 혼저 파당 냇가에 강 묻어 불어사켜."

그 두루웨기줄로도 못 만나게 ᄒᆞ곡 혼정으로도 못 만나게 ᄒᆞ곡 냇가에 강 묻어 불엇어. 경 헹 묻어 부난 이젠 자청비애기하고 수령짓애기가 만나지 못헤 불엇어. 혼정으로도 못 만나난. 이젠 하늘나라에 가난 여름에 영 누민 하늘나라에 갈라진 디가 잇어. 겨난 칠월 칠석날이민 가마귀 곡디가 헤영허여. 겨난 그 가마귀 곡디로 혼정으로 만나민 가마귀가 올라 아적 올라 아적허민 가마귀 곡디가 헤영해여. 경 허는 것도 잇어. 경 허난 이 다음부터 시집을 가젠 허민 어머니가 가메에 올라가는 시간이 뒈민 가메 우터레 소곰을 앚어당 잘락하게 소곰을 데껴. 겨난 그거 무사 그건고. 그건 새ᄃᆞ림으로.

[조사자] 새ᄃᆞ림으로?

[제보자] 가다가 똘을 풀민 그 시집간디 못 살앙 새 ᄃᆞᄃᆞ림이엔.

- 핵심어 : 수령짓애기, 자청비애기, 버드낭잎, 글공비, 오좀 긑기기, 흑나비, 노랑 나비, 붉은 나비, 두루웨기줄, 치메각, 혼정, 가마귀 곡디

W_L_081 수맥을 끊으려던 호종단

2016년 12월 7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문경미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조사자] 호종단 전설 많은 거 골아줘 봅서.

[제보자] 그러니까 우리 정의 쪽에서는. 아니 그니까 호종단이가, 어딧 사람인지 전설에는 거기 나오니까 이제 제주도가 한라산이 있어가지고 영산이기 때문에 땅은 산맥이 좋으면 땅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뛰어난 사람이 많이 나겠다고 해서,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호종단이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맥을 끊길라고 끊어버리겠다.

게민 뭔 말이냐 그러며는 그 말은 불을 놔가지고 지맥을 뜨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원리가 두 가지가 합쳐져야 좋은 것입니다. 음과 양이 합쳐지는 모형이요. 그러면 땅이 좋고 나쁜 것은 무엇을 보냐 하며는 산맥도 보지마는 우선 물을 봐야 해. 산으로 흘러 온 것이 좋고, 나가는 방향이 좋아야 돼. 그니께 보통 명산 앞에는 물이 고입니다. 명당이라고 요렇게 하는 거요. 우리 제주도는 물 고인 데가 없죠. 그러니까 비온 때만 고인 것을 보고 이렇게 잡는데. 예전에는 호종단 오기 전에는 아마 제주도도 이렇게 물이 없지는 안 헷던 모양이겠지.

그래서 제주도는 가가지고 산맥이 좋으니까 물을 다 떠가지고는 땅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려야 뒈겟다. 그러면 뛰어난 사람이 못 나오게. 그래서 와가지고 쭈욱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물 나는 원천을 뜬다는 말은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조사자] 경 헹 우리 제주도가 그러니까 막앙이네 건천 뒈 불엇인가마씨?

[제보자] 그랬다고 얘기해. 그런데 호종단보다도 또 이제 그니께 어느 시대에든지 간에 나는 놈보다 뛴 놈이 있다고 아주 뛰어난, 그게 또 뒤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아도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의 쪽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생수가 토산리는 거슨새미라고 ᄒᆞ는 샘ᄒᆞ고, 서귀포 서홍동에는 지장샘ᄒᆞ고, 요것이 제일 유명한 샘인데. 딴 데를 다 뜨고 이제는 지장샘도 알아가지고 뜨러 가는데, 그때 토산에는 호종단보다 더 뛰어난 숨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밧을 가는데, 하루는 밧을 갈러가면서 놋그

릇을 가지고 가니까, 예전에는 놋그릇이 제사 때벢이는 집안에서는 안 쓰거든.

부인이

"뭣ᄒᆞ러 밧 갈러 가면서 놋그릇을 제사하는 놋그릇을 가져 가냐?"

"다 뭐 쓸 데가 잇어."

그래서 밧을 갈러 가는데. 옛날 밧 갈러 갈 때는 장대를 지고 가기도 허지만은, 소에 실고 가는데, 소에 싣글 때는 질메라고 해서 요리 짐 지는 도구가 있습니다.

[조사자] 영 고부러진.

[제보자] 옳지. 그걸 가지고 밧 옆에다가 그걸 옆에 내려놓고, 장대를 밧가는 장대를 내려놓고는 놋그릇에 물을 하나 떠다 놓고는 쉐질메 밑으로 뚝 놔가지고 딱 덮어놔. 사람들은 '멋허젠 저 놋그릇을 덮어놓는 것인고,' 그래서 밧을 가는데, 호종단이가 이제는 물을 뜨러 온 거여. 지명을 잘 모르니까 밧 가는 노인보고

"영감, 여기 거슨샘이라고 허는 샘이 어디요?"

"아, 거슨샘이, 그 그 그 밑에 그 저 쉐질메 그 밑에 거기가 거슨샘이요."

"아, 이게 거슨샘이?"

"아 이거 그릇에 물이지마는 거 이제 하늘에서 연기가 내릴 때는 물이 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물이 없고 해서, 아침에 고인 물이 그대로 나 먹으려고 둔 거 거기가 거슨샘이요."

그니까 호종단이가 그것을 이제는 거슨샘으로 알고 떠서. 뜨니까 토산리에 샘물은 지금도 막지 못했다. 그리고 서귀포 지장샘도 그래서 거기도 끊지 못했다. 그래서 호종단보다 더 뛰어난 사름이 제주도도 잇엇주만은 세상에 나타나질 않고 숨어서 살았다.

[조사자]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 있다 이런 말이로구나예.

[제보자] 남았다 그 뜻이라.

[조사자] 지맥이나 수맥 이런 거 끊는 얘기들이 고전적이나 호종단이 얘기에 막 나오잖아마씨.

[제보자] 그 얘기는 가는디 마다 동네 마다도 있고.

- 핵심어 : 명당, 호종단, 거슨새미, 지장샘, 놋그릇, 한라산, 수맥, 샘, 물, 서홍동

W_L_082 수월봉과 녹고ᄆᆞ리

2016년 12월 15일, 한경면 용수리 서안생씨 댁, 김선희 조사.
서안생(여, 1932년생, 한경면 고산리)

[조사자] 수월봉에도 전해오는 이야기가 잇수과?

[제보자] 녹고는 오빠고, 수월은 누나고. 옛날부터 경 ᄀᆞᆯ아난.

[조사자] 아, 오누이마씸?

[제보자] 경 허영 두 오누이주게. 녹고도 오꼿 털어정으네 죽엇젠 말이 셔. 거기서 오누이가 다. 경 헤영 유명헤영 녹고ᄆᆞ리가 뒈엇주기.

- 핵심어 : 수월봉, 녹고ᄆᆞ리, 오누이, 오빠, 누이, 죽음

W_L_083 쉐물 ᄀᆞ르치는 폭낭

2016년 11월 23일, 한림읍 월림리 부원여씨 댁, 이현정 조사.
부원여(여, 1923년생, 한림읍 월림리)

[조사자] 무슨 폭낭?

[제보자] 쉐물 ᄀᆞ르치는 폭낭이옌 헤낫저. 저 ᄋᆞ디 거.

[조사자] 쉐물 ᄀᆞ르치는 폭낭?

[제보자] 어.

[조사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

[제보자] 무신 뜻, 무신 뜻게. 물들 허여다근에 막 와당와당 헤가면은, 그디 강 영 앞발 들러지게 돌아메여근에, 오래오래 나가믄 ᄒᆞ썰 머리 수그러진다 허는 말이지?

[조사자] (웃음) 아, 어.

[제보자] 어, 그거지. 경 허난 거, 엿날에부터 그거 쉐말 ᄀᆞ르치는 폭낭 폭낭 헤낫저.

[조사자] 그럼 진짜 그 폭낭에다가 쉐하고 물을 메달아? 말 안 들어나믄?

[제보자] 응, 어, 게 말 아이 들엉 막 허믄 걸리믄 와당탕 와당탕 허고 헤가면은, 어떵 허영 끗어다근에. 물이 다리 니 개 아니냐?

[조사자] 예.

[제보자] 니 개니까 앞발 두 개 들러지게 영 오래오래 돌아메거든?

[조사자] 예.

[제보자] 돌아멧다근에, 오래오래 돌아멧당 클러 노믄 ᄒᆞ쏠 물이 수그렁 헨 어질엇주게. 경 헨, 경 헌, 경 헌덴 헤낫저게.

[조사자] 어, 신기헌 낭이다예. 저거예?

[제보자] 어, 신기헌 낭. 겨난 이제 거난이 소뭇 소곱은 궂여도 ᄒᆞᆫ 페기 살아둠서 이거 그것이여, 요거. 요딧거.

[조사자] 예, 요거, 요거.

[제보자] 응, 요거, 요, 요딧 거.

[조사자] 요딧거예?

[제보자] 응.

[조사자] 그 노인회관 경 여기 들어가는 데 여기 세워진 거예?

[제보자] 어, 게. 이, 저, 무신 거 ᄑᆞ는 집 앞이 그 앞이 거, 그거.

[조사자] 예, 예.

[제보자] 읖이.

[조사자] 그거.

[제보자] 그걸 쉐물 ᄀᆞ르치는 푹낭이옌 헤낫저게. 겨난 뭐 어디 막 전인, 쉐물이 하낫주기게. 하나난, 쉐물 ᄀᆞ리치믄 쉐물을, 쉐영 그거를 영 안장 지왕 탕 뎅기고 질메 주왕 짐 싣그곡 허젠 허민, 막 걸지민 와당와당 허면 몹씰 물이 셔낫주기. 경 허난 그거 허영 걸령 어떵 허영 막아산덜, 베 허영 던젼 야게기에 씨와지믄 망이 이추룩 멧 사름이 드난, ᄃᆞᆼ경 그디 ᄀᆞ지당 앞발 들러지게 영 ᄃᆞᆯ아멧당 클러놩. 경 허민 좀 물이 수그럿지.

- 핵심어 : 폭낭, 쉐, 물, ᄃᆞᆯ아멤, 신기헌 낭, 몹씰 물

W_L_084 쉐를 잡아먹은 남이 영감참봉

2016년 10월 19일, 한림읍 명월리 오관봉씨 댁, 이현정 조사.
오관봉(남, 1931년생, 한림읍 명월리)

[조사자] 응, 그러면 옛날에 여기에 뭐, 참봉 영감, 남이 참봉 영감이라고 혹시 들어 보셧수과?
[제보자] 남이 영감 참봉이라고 있었지.
[조사자] 예. 그 사람 얘기 아십니까?
[제보자] 그 사름은 남이 참봉이라는 것은 저 눈오럼을 이야기 허는 건데.
[조사자] 눈오름마씨?
[제보자] 예. 지금 저 어, 들불축제 허는 디. 거기에서 남이 참봉이라고 헤가지고 소를 많이 키웟어.
[조사자] 소.
[제보자] 응, 그 오럼 남이 참봉. 그렇게 헤가지고 거기서 소를 키와가지고, 거기서 소를 자꾸 잡아먹어 불엇다 헤여. (웃음)
[조사자] 남이 참봉이?
[제보자] 응, 그 놈의 소를 가서 보는데, 이 돈을 받아가지고 쉐를 봐달라고 허니까, 갖당 보는데 쉐도 풀아먹엇일 테주게. 그런 말이 남이 참봉이라고, 어, 남이 참봉.
[조사자] 소를 잡아 먹엉 어떵 헷댄마씨?
[제보자] 잡아먹어 분 거주게. 그거 뭐, 뭐 자기가.
[제보자] 풀진 안 허고게. 풀도 하곡게, 잡아도 먹엇일 테주게. 궤기도 길르고 허곡게.
[조사자] 그믄 원래 경 소 잡아 먹을 만큼, 경 먹성이 막 좋앗인가?
[제보자] 게믄게 잡아그네 이 사름도 주곡, 저 사름도 주곡 허믄게, 놈이 쉐 수백 ᄆᆞ리를 갖다가 기르는 사름이니까 보넨, 봐달라고 하니까.
보니까게 좌우지간 나도 잘 몰라. 그렇게 잇어노니까 이게 결과적으론 쉐가 줄어들어 가거든. 헤노니까, 이건 (불청) 이놈이 남이 참봉이, 남이 쉐를 보는 놈이 남이 참봉. 그렇게 (불청), 헤노니까 그것이 그렇게 헤가지고 내중엔 발각이 뒌 것 같애.
[조사자] 발각이 되서 어떻게 뒛댄 한 얘기는 못 들어보고마씨?
[제보자] 응, 어 건 모르곡. 응, 남이 참봉.
[조사자] 그믄 눈오름에 소치레 다니던 사름이구나?
[제보자] 어, 눈오름에서 목장에서 쉐를, 소를 기르지, 소는. 응, 목장에서.

- 핵심어 : 남이 영감 참봉, 눈오럼, 먹성, 목장, 쉐

W_L_085 쉐죽은못과 과부

2016년 10월 14일, 애월읍 상가리 상가리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강성화(여, 1931년생, 애월읍 상가리)

[조사자] 쉐죽은못의 내용이 뭐꽈?

[제보자] 쉐죽은못이, 나 곧지 안 혼가? 홀어머니가 과부가 옛날 남편은 죽어불고 과부가, 밧 가는 머슴을 둘안 살앗거든. 밧 가는 머슴을 데련 사니까. 밥을 주면서 "밥이 일 허여. 밥이 일 허여"

그 말을 허니까. 밥이 일허느냐 보젠. 밧 갈레 가네, 밥은 그 찬디 영 허영 밀려 그네 밧 가는 양지머리에 밥은 걸어두고. 좀만 들구 잣다. 밧은 반은 갈앗이카부댄 간 보난. 밧은 아니 갈고 좀만 자는 거라.

"무사 이 밧을 아니 갈앗이니?" 허난.

"밥이 일헌댄 허연 그디 밥 걸어뒀수다."

경허니까. 화가 난. 날로 밧을 갈자고 오후에 열여덟 말지기 다 갈았다 ᄒᆞ는 거야, 오후에. 여름 밧 열여덟 말지기를 가난 쉐도 물 기르완 그 물에 오란 데이난 막 물 먹언 그냥 푸더젼 죽어불고. 사람도 거기 완 물 먹으난 그냥 쓰러젼 죽고. 경 허난 쉐죽은못. 쉐죽은못.

[조사자] 그러면 그 종은 안 죽고?

[제보자] 종이야 죽을 리가 셔게.

[조사자] 게니까 결국은 종은 안 죽었네.

[제보자] 어. 종은 아니 죽고. 과부 홀어멍허고 쉐만 죽었다 그 말이주게.

- 핵심어 : 쉐죽은못, 쉐, 밥, 못, 과부, 종, 물

W_L_086 쉐죽인못

2016년 10월 16일, 애월읍 상가리 상가리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제보자1: 변충영(남, 1935년생, 애월읍 상가리)
제보자2: 강성화(여, 1931년생, 애월읍 상가리)

[제보자1] 홀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밧을 갈젠 허니까. 장남이가 와가지고. 장남 밧 가는 사람 비니까.

"밥이 일허여, 밥이 일허여"

밥이 일헌다고.

[제보자2] 엿날에 홀어멍이 밧을 빌언 남ᄌᆞ어른 빌엉 밧을 갈젠 허난.

[제보자1] "밥이 일허여, 밥이 일허여."

게난 그 할머니가 동고량착에 밥을 걸어단 내완 ᄃᆞᆯ아멩 나두니까 밧이 갈아져게. 부에가 팍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할머니가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밧을 간 거라. 다 가니까 쉐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쉐죽인못'이라고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말은 있는데.

[조사자] 어머니가 다시 해석해 봅서. 똑 같이, 쉐죽인못?

[제보자1] 쉐죽인못. 홀어멍이 종을 ᄃᆞᆯ앙 살앗거든. ᄃᆞᆯ앙 사난 하도

"밥이 일허여, 밥이 일허여."

밥을 먹어사 일헌댄. 그 밥 자랑을 하도 밥 줘도랜 공치사를 허난 이젠 밥을 거련, 밧 가는 이 밥 먹으멍 이 밧 갈랜 헹 나두난. ᄀᆞ만이 눤에 밥은 밧 가는 장기 잇잖여. 양주머리 간 톡 걸엉 놔둰. 밥 공치사를 하도 허난, 밥이 일허냐고 보랜. 밥은 걸엉 놔두난 들어 ᄌᆞᆷ만 잤이난. 간 보난 밧은 한 번 갈앗이카부댄 간 보난. 천팔백 평이랜 헤구나 그 밧이. 천팔백 평 짜린디 밧은 아니 갈앙 양주머리에 밥만 걸엉 놔뒀이난. 하도 화가 난. 이젠 내가 그 밧을 갈켄. 홀어멍이 밧 오후에 천팔백 평짜리 밧을 다 갈앙 나사난. 쉐도 거기 가난 물이 셔, 그 밧 읎이. 그 물을 강 먹으난 쉐도 죽고 사람도 지쳔 죽고 헷젠. 쉐죽인못. 쉐죽인못. 전설로 내려오는 말이지만 그게 맞은 말이라.

- 핵심어 : 홀어멍, 밥, 쉐, 못, 쉐죽인못

W_L_087 신산리 박칩잇 할망과 들음돌

2016년 10월 22일, 성산읍 신산리 김옥종씨 댁, 이현정 조사.
김옥종(남, 1924년생, 성산읍 신산리)

[조사자] 막 힘쎈 사럼 이야기 잇입니까?

[제보자] 힘쎈 사럼?

[조사자] 예.

[제보자] 어, 여기, 이, 신산리에 잇어낫지. 박칩 할망, 박칩잇 할망이라.

[조사자] 박칩 할망마씨?

[제보자] 응.

[조사자] 어떵 힘이 막 겅 쎄낫댄마씨?

[제보자] 건디, 난, 옛날에, 그 들음돌 잇잖여이?

[조사자] 예, 등돌예?

[제보자] 응. 그거를 자꾸 여러이, ᄆᆞ다상 자꾸 들을라고 우로 하면 거 힘자랑이지. 아, 할, 그 할망이 물허벅을 지연에, 엿날에 허벅으로 물 질어다 먹엇거든? 물허벅을 진냥, 너네들 거 무시거 허느녠 막 오끗 들렁 밧더레 드, 던젼.

[조사자] (웃음) 밧더레 던져 불언마씨?

[제보자] 응.

[조사자] 겐 밧더레 던져 부난 어떵 헨 그거.

[제보자] 어떵 헨 뭘 어떵 그데가 할망이 힘자랑 헨 거 갖당 던져분 거주.

[조사자] 아, 갖당 던져 불언.

[제보자] 응, 정남덜 들르는 사람은 들러지고 못 들르는 사럼은 못 들곡 헸이난, 느 거, 느네 거 뭣들 허느녠 허멍 물허벅 진냥 오꼿 밧더레 던젼.

[조사자] (웃음) 그 할망이 박칩이 할망이라?

[제보자] 응, 엿날, 경, 엿날 어른덜 경 ᄀᆞᆯ으난.

[조사자] 아, 이 수산리에 어른덜이 경 ᄀᆞᆯ아난마씨?

[제보자] 으음, 으음, 신산리 어른이 그렇게 헨.

- 핵심어 : 신산리, 박칩잇 할망, 들음돌, 힘자랑, 힘 쎈 사럼

W_L_088 신산리 센동산 홀어멍돌

2016년 10월 22일, 성산읍 신산리 김옥종씨 댁, 이현정 조사.
김옥종(남, 1924년생, 성산읍 신산리)

[조사자] 어디 있인 거마씨? 홀어멍돌.

[제보자] 요디 강 진물.

[조사자] 질물.

[제보자] 응. 에, 있어. 센동산옌 헌디.

[조사자] 센동산?

[제보자] 응, 게난 옛날엔 이 겨고, ○○마트 잇잖이. 이, 마트, 마트 터엔 집을 안 짓어낫어.

[조사자] 무사마씨?

[제보자] 홀어멍돌 밟으니까, 홀어, 그디 살민 홀어멍 생긴다고 헷어, 안 짓넨 헷어.

[조사자] 거믄 홀어멍돌은 왜 홀어멍돌마씨? 누가 돌이 뒌 건가.

[제보자] 혼자 사난 홀어멍돌이옌 헌 거주.

[조사자] 혼자 사난.

[제보자] 응, 혼자 쭈욱 허게 크주게 돌이. 그 바닷가에 있어.

[조사자] 그믄 그, 지금 ○○마트 터가 홀어멍돌이 딱 보이는 데마씨?

[제보자] 예, 이쪽더레 비추주게. 비추니까, 그 홀어멍 생긴댄 헷어, 거 집을 엇어낫어. 겐디 이젠 재깍 다 집 들어사 비엇주.

[조사자] 어, 홀어멍돌.

[제보자] 응.

[조사자] 거기 무신 얘기가 있어난 거 닮은디예? 홀어멍돌이옌예?

[제보자] 얘기사 무시거, 얘기가 그자, 그거주. 홀어멍돌이옌 하난, 으 홀어멍들 비추어 준 덴 집을 안 지엇주.

[조사자] 아, 언제서부터 계속? 원래가?

[제보자] 오래.

[조사자] 막 오래 전부터?

[제보자] 어, 오래.

[조사자] 그믄은 마트는 언제 생견마씨?

[제보자] 응?

[조사자] 이 마트는 언제 생견? ○○.

[제보자] 마트, 마튼 요 흔 십 년.

[조사자] 십 년.

[제보자] 응, 뒛일 거라.

[조사자] 그믄 한참 집이 안 생기다가, 저 마트가 들어온 거구나예?

[제보자] 응.

[조사자] 십 년 전에.

[제보자] 어, 저디 들어왕 이, 저, 마트허는 사름이 저, 강○○인디. 그 마트 팔아뒨 그레 막 집 짓언에. 저, 집세 받으멍 먹엉 살아.

[조사자] 겐 거긴 홀어멍 안 뒌?(웃음)

[제보자] 홀어멍 안 뒌.(불청)

[조사자] 홀어멍 안 뒌마씨?(웃음) 아이고, 참. 아, 홀어멍돌이옌 헌 게 잇구나.

- 핵심어 : 신산리, 센동산, 홀어멍돌, 집터, 진물

W_L_089 신산리 피 흘리는 돌

2016년 10월 22일, 성산읍 신산리 김옥종씨 댁, 이현정 조사.
김옥종(남, 1924년생, 성산읍 신산리)

[제보자] 요기 가면은 저, 뭐이가, 예배당.

[조사자] 예배당.

[제보자] 바로 앞이, 조끔 서쪽이. 거 돌 이름을 잘 몰르것는디. 돌이 잇어, 쭈짝하게. 어, 뭐 흔 엇이 크지도 안 허고 ᄋᆞ새만 허게 쭈욱 허게 이제 잇는디. 그 돌에서 피가 나와낫다 헷어.

[조사자] 언제, 어떨 때 피가 나마씨?

[제보자] 하이튼, 우리 넘은 일이니까. 그 뭐가 언제 거시기 헌지는 몰라도, 그런 말이 나낫엇어. 난디, 그 돌 누게 거찌도 안 혀.

[조사자] 거찌지도 안 헤마씨.

[제보자] 응, 응. 지금도 있어.

[조사자] 지금도 잇어마씨?

[제보자] 응, 그 예배당 올레 그 안터레 들어가민. 게, 그 밧은 그, 거시기 아, 아래 그 예배당 ○○이네 집터라 난디, 그 ○○네 집터 뒤꽝이난 그 ○○이네 밧이라 밧도. 근데 그 돌 누게 거찌도 안 허여.

[조사자] 피가 나왓댄마씨 거기서?

[제보자] 옛날.

[조사자] 옛날.

[제보자] 피가 나와낫다.

[조사자] 어, 무사 피가 낫인고.

[제보자] 거난, 그 돌, 유명헌 돌이라.

[조사자] 유명한 돌이라마씨? 여기 이 신산리에서?

[제보자] 예. 그 묘지에 강 봐도 잇주. 그 돌이. 겐 이름을 내가 거, 잊어불엇어 그래.

[조사자] 이름이 잇수과, 그 돌에?

[제보자] 예, 무신 돌이옌 헌 이름이 잇는 덴디, 걸 생각지 못허는 거. 옛날이난.

- 핵심어 : 신산리, 피 흘리는 돌, 묘지, 예배당

W_L_090 신천리 금덱이여

2016년 10월 22일, 성산읍 신산리 김옥종씨 댁, 이현정 조사.
김옥종(남, 1924년생, 성산읍 신산리)

[조사자] 그 다름이 아니라예, 저번에, 금덱이여 얘기 해주셨잖아예?

[제보자] 응, 응.

[조사자] 그거 흔 번 다시 들려주십서.

[제보자] 금덱이여는, 그거, 신천리에가 가깝주.

[조사자] 신천리?

[제보자] 근데, 그, 금덱이거, 여가, 원래 금덱이옌 한 어른이 이름이라.

[조사자] 아, 원래 이름예?

[제보자] 예, 경 헌데 그, 거리가 멀지. 좀 멀어도, 아마도, 그 당시는 그 할망이 그, 저, 그 여를 찾인 거라. 바당이여 바당, 바르.

[조사자] 응, 바당에.

[제보자] 응, 거리 멀지. 이 곶디 (불청) 육지에서 뭐, 거리를 흔, 흔 여기서 흔, 흔 삼천메타 더 될 거라.

[조사자] 삼천메다?

[제보자] 예, 그래서 거기, 그, 할망이, 거, 물질을 그 거기 뎅긴 거라게. 건디, 거기는 큰 배덜토 막, 글론 넘어가곡 넘어오곡 헤여. 그니, 게난 수심이 짚은 거지.

[조사자] 예.

[제보자] 게난 그 할망이옌 헨, 그서, 모든 셍, 모든 걸 뭐허니까, 다 잡아 올렷던 모냥이라 옛날에. 경 헨 할, 할망이 이젠, 그, 이름을 지어, 하, 저, 여를 할망 이럼으로 지은 거라. 게사, 금덱이여, 금덱이여.

[조사자] 그러면 그 할망 이름으로 여 이름을 지은 게, 놈들은 거기 가그네 물질을 못헹 와마씨?

[제보자] 못헤, 못헤.

[조사자] 무사 못헤마씨?

[제보자] 바다 거리 멀고, 수심 짚곡 허니까, 잘 못허지. 거 아무나 가지, 가질 못헤.

[조사자] 아무나 못 가마씨?

[제보자] 응, 아무나 못 가.

[조사자] 어, 그럼 그 금뎩이란 할망은 잘도 물질을 잘했던 모냥이라예?

[제보자] 잘허니까 그랬지.

[조사자]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셔난마씨?

[제보자] 아, 어디서 들었느냐고.

[조사자] 예.

[제보자] 아, 그, 항, 항상, 이, 신산리로 거기, 옛날에 우리 어린 때는, 그, 자리 걸으레, 거, 여기서 갓거든.

[조사자] 자리?

[제보자] 응.

[조사자] 물궤기?

[제보자] 응, 자리 허레 들어가곡 신천리, 표선리, 이, 저, 삼달 세상끄장은 거기 자리 걸으렌 간.

[조사자] 겐 거기 가믄 거기에 모인 사럼들이 금뎩이여를 보멍으네 저기에 금뎩이여가 있인디, 거기 물질허는, 잘 허는 할망이 경 헨 이름이 부떳다.

[제보자] 응, 할망이, 어.

[조사자] 아, 경 말헤난마씨?

[제보자] 게난 그 할망 이름을 거시기 헷어, 거 금뎩이여랜 이름 지워둔 거주게.

- 핵심어 : 금뎩이여, 신천리, 할망, 물질, 수심, 신천리

W_L_091 신풍리 원당할망

2016년 11월 20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이현정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조사자] 여기 신풍리에 처녀귀신허고 관계된 데…. 곱은갠가?

[제보자] 처녀, 뭐 처녀는 처녀구신이지. 요기 지금도 강씨덜이 여기 살어, 강씨가 여러 파니까. 그런데 원래 이제 덕천분넨데. 덕천분넨데, 덕천에서 여기 이제 정의현감으로 헌데, 이방으로 따라온, 왓어. 그 강, 오래지는 안 해요. 지금 헌 칠 팔대 벢이는 안 뒛을 거여. 그래서 이제 이방으로 헤서 오는데, 이제 제주시서 요레 오는데. 저기 어디 원당봉 밑을 지나는디. 어떤 집에서 무당 청헤가지고 굿을 허는디. 그 무당이 아주 이제는, 처녀 무당인디 얼골도 이쁘고 그랬는가 벼.

그러니까는 이제 욕심내가지고, 거 무당은 천민이니까.

그때는 뭐 그 이제 이방이 "나랑 ᄀᆞ찌 살자."고 데리고 왔소.

어, 이제,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여기 이제, 그니까 본부인은 잇고. 사는데. 어, 데리고 오니까 이제는 그 무당은 못허게 헷단 말이여. 아 근디 거, 무당은 직업이 무당이니까, 무당을 허고 싶은디 이제이, 양반 따라와가지고 무당을 이제는 못허게 뒛소. 경 헨 이제, 음력으로 이제 뭐 삼월 십오일이옌 허던가? 이 동넷 사름들이 다 이제, 여기는 예전에는 이 동네 이제 해녀는 없습네다. 이 산촌이라가지고. 그 이제 삼월 ᄇᆞ름 뒈면은 그, 저기 뭐야, 보말. 그거 잡으러 옛 동네 사름덜이 거기 간 때에, 이제는 그냥, 집에 불 부쪄가지고 자살헤서 죽어불엇소.

이제 굿을 이제, 저기, 못허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제는, 그르니까 자식도 아마 없었던 것 같고. 어, 보통 이 허는 말이.

"나는 죽거든 그 ᄌᆞ숙도 없으니까 제사도 특별히 헐 것이 없고, 어, 이제 그 제사 때마다 그냥, 부엌에다가 좀 밥 한 그릇 떠 줬으면 좋겠다."

허고 ᄋᆞ런 말을 했어. 이제 그 양반이 이제 돌아,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서 장사를 이제 지냈는데, 그래서 그 집에서는 이제는 그, 이제, 제산 안 허고 그 이제는 제사 때마다 부엌에다가 이제, 그, 좀, 제물을 좀 체려 놓는, 체려 놔. 그런데 이제, 이제, 뭐냐 그러면 이게 무당으로 그 원통헤서 이제, 죽은 것이 뒛어. 원당봉에서 왓기 때문에 원당할망 그래.

[조사자] 아, 원당할망.

[제보자] 예. 원당할망 그래요. 무덤도 잇고. 그런디 이제, 이 집이 딸덜이 어디 시집가면은 아프고 뭣허고 헤서 굿을 허면은.

"친정이 어떤 구신이 원통헌 구신이 쫓아왓다."
고 헷어. 또 이제 어
"그 구신을 이제는 잘 대접을 헤야 뒌다."
그래서 이게 친정에서 하도 그러면은 그 부엌에다가 이제 떠노라고. 으렇게 헤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이제, 저 그 강칩허고는 결혼 잘 안 허지.

[조사자] 강칩이하고는 결혼 안 헙니까?

[제보자] 그 구신 부떠온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또, 그러게 되니까 이제는, 그, 이제는, 뭣이냐. 그 이제 원망할망 부떠 온다고 헤서 잘 그걸 안 헤. 그래도 이게 여러 대가 되니까, 그거이, 그 구신 있는지 것도. 그, 똘 가정에서 또 외손지가 나서 또 시집가믄 또 그러고 그러고 헤서 많이 번졌어. 하이튼 이 근방에 그 원당할망 그 모르는 집이 께나 이제는 많지. 이제 많은데, 지금 그 종손도 여기 살고, 무덤도 저기 있고.

[조사자] 딸로, 딸로 옮경 다녔구나예?

[제보자] 딸한테만, 딸한테만, 어, 딸한테만. 아들 ᄌᆞ식을 못나니까, 똘한티만 이제 (불청) 나가. 그래서 딸로 이제, 모르고. 외손자헌테라도 이제, 뭣 장가가고 허면 또 아프고면은 굿하면 아이고 원당할망 따라왔다고 거 모셔야 된다고 으렇게 허고 헌데 이제, 이 양반이 무덤이 둘이여.

[조사자] 무덤이 둘입니까?

[제보자] (웃음) 어 웨 이제는 무덤이 둘이냐? 이건 이제 그 자손덜이 어렴풋이 그렇게 전허는데. 하나는 원래 그 시신을 묻어, (불청) 적이 있어. 시신을 이제 묻은 무덤이고, ᄒᆞ나는 그, 굿허는 그.

[조사자] 멩두?

[제보자] 무구.

[조사자] 멩두.

[제보자] 어, 그것을 쉐라서 시체에 ᄀᆞ찌 못 묻으니까 욦이 이제 묻엇어. 하나는 그 이제, 멩뒤 묻은 무덤이고, 하나는 그 원당할망 무덤이고.

[조사자] 어디 있습네까?

[제보자] 으 가까운 디 있어.

[조사자] 가까운디 있습니까? 지금도 사름들 가마씨? 거기.

[제보자] 아이, 무덤에는 안 가고, 집에서만 그 제사 때에 부엌에다가 이제 체려 놓지. 그러고 잘못허면은 이제, 딸 아니라도, 이제, 그, 뭐, 그, 무덤가에 가서 모르고 뭣 풀을 좀 배분다던지 헤도 이제, 또 따라올 때가 있고. 이제 그래서 쪼끔 이제, 뭐 거기 관계되면은 예전에는 그, 원당할망 따라온다고 헤가지고 헌디. 그 이제는, 예전엔 아주 꺼리었지요.

- 핵심어 : 신풍리, 원당할망, 처녀귀신, 곱은개, 원당봉, 무당, 딸, 시신, 멩두, 강칩

W_L_092 신풍리 자운당

2016년 10월 18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이현정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조사자] 그 다음에 얘기를 막 많이 하셧인디예, 자운당 얘기도 하셧인디.

[제보자] 아, 자운당은 그것은 그, 여기 내에 있는 당인디 요즘은 거기 이제 다니는 사름이 없습니다. 웨이냐 그러면은 그 토산당 뱀 구신 이제 그 처녀로 구신이 여기 이제 그 동네 당이 우리 동네 이 개로육ᄉᆞ 첩으로 왔다고 그렇다고 여기두 보니까. 당 비슷허게 그 말을 썼는데, 그 말이 이제는 어쩌냐 그러면은 이제 그, 에 실지로 그 이제 그 토산당이 구신이 시집 온 실지는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돌아가서 저 신흥리 우에 가시나물이라는 헌 멧 호만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무당허는 분네가 지금은 돌아갔어. 그 양반이 거기서 원래 나고 자라고 무당이기 때문에 그 내력을 잘 알아. 그러면 그 토산당 원래 당 멧던 그 심방을 신황돌이라고 성이 신씹니다. 이쪽 무당덜은 거의가 다 신씹니다. 거 신황돌이 계통이요, 계통인데, 그래서 그 토산당 그때 신황돌이 꺼지는 토산에 그 당에서만, 다니오. 그러면은 신전이 우리 동네 그 정의고을 안에서는 거의가 다 토산, ᄒᆞ루에 제일을 다 ᄆᆞ쳣다고 해요.

마을이 많은데, 그런데 늙어가니까, 아덜이 셋인데 이제는 그 자기 그 토산당 당골을 다 아덜 셋헌티 갈라 줫어.

'어느 아덜은 어느 동네 어느 동네 당골을 해라.' 어느 이제, 갈라 줫어. 그러고 자기는 큰아덜은 그 이젠, 토산당을 그때는 의지를 허고, 여기는 이제는 그 신, 신두행이라고 세 번째 아덜이 여기 이제 신풍이나 이 하천이나 요쪽 당골을 이제 했소.

그러니까 이제는 따로 당을 안 만들고 여기 본향에다가 같이 모셔서 이제는 게 딴 데는 보통 구신이 둘인데 여기는 삼부처란 말이여. 게난 그것에 따라가지고 이제는 토산당이 여기 땅에 이제 그 첩이 됐다고 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는 허는데, 이제는 그니까 그 당을 갈라 주니까 거기서도 의식을 헐 거 아닙니까, 이제. 이제 다음부떠는 이제는, 요, 이제는 아덜헌티 가서 이제는, 그래서 거기 의식을 이제는, 이제는 저 뭣이냐, 이제는 거행을 허고 이제는, 그니께 여기 와서도 이제는 토산당을 이리로 모시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거기에

서 의식을 허고 오는데, 이제는 토산서 걸어서 그때는 다 오니까. 여기 내에 그 이제 자운당이라고 허는 그때는 자운당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바윈데.

[조사자] 바위.

[제보자] 거기에 이제는 와서, 앞아서 이제는 이제, 피곤허니까 쉬는데, 이제는 목이 말라서 그 엿날에 수도 엇곡 허니까 내에 고인 물을 이제는, 그냥 이제는, 이젠 먹거든요. 이젠 먹는데, 먹어야 되는데, 그냥 고인 물을 먹을 때니까. 아무 생각 안 혀고. 그 이제는 표시로 그러니까, 이제 그 토산당 그, 신 표시로 무당덜 그, 대에다가 하얀 종이 꽂아 가지고 요래 안 헙니까.

이제 그 길을, 이제는 모시고 이제는, 오는데 그니께 그 길을 모시고 올 때는 아무것도 안 혀고 그 길을 그냥 죽 이제 모시고 와야 된데, 피곤허니까 거기서 쉬는데 그 모시고 오는 이제 두 번째 그 이제 무속인이 이제는 그런 걸 이제 모르고, 목이 마르니까 그 밑에 있는 그자 물을 마셔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높은 신 모시고 오다가, 딴 일을 했다고. 딴 일을 했다고 이제는, 이제는. 이 그런 것은 아닌데, 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제는 토산당이 일부나마 거기 이제는 그 머물러서 앞아서 쉬었던 이제는 곳, 다시 말하믄 거 모시고 오는 무속인이 마셨지만은, 이제 토산 그 당, 신이 마신 거나 마찬가지 아니요. 모시고 올 때에.

[조사자] 메 한 가지.

[제보자] 예, 그래서 이제는 그 특별히 이제는 그, 좀 사사롭게 뭣 이제는, 그 빌 일이 있을 때, 특히 이제 뭐 이제, 그 어린 애기덜 조금 뭐 감기가 들었든지 요럴 때는 이제, 그 답답허니까 물 마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답답헌 일 있을 때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빌어서, 그것이 이제 그러니 자운당이 된 거요.

[조사자] 아, 신을 영 헨 가지갈랑 모셔올 때.

[제보자] 모셔오는 데, 그니까 모셔올 동안엔 딴 건 아무 짓 말고, 걸 모셔와야 되는데. 거 이제 모시고 오는 사름이 그 이제 두 번짜 이제 무속인이니까, 그런 걸 법돌 몰라가지고. 원래 아부지 당멘 심방이 아니고 아덜이니까.

[제보자] 응, 아덜이니까. 게니까 아덜에 밑엣 심방이지.

[조사자] 예, 기지마씨.

[제보자] 아덜은 그냥 오고, 게니까 쉬다가 물 있으니까, 목 마르니까 그냥 그 물을 마셔 버리니까. 이제는 거, 그 모시고 올 때는 모시고 온 사름헌테 그 토산당에 다 그 이제는 의지해서 있는데 물을 마셔부니까 이제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자운당이 된 거야.

[조사자] 오는데 그 심방이 대에 그 흰 종이로 영 헨.

[제보자] 어, 그걸 이제 지고 옵니다.

[조사자] 지고.

[제보자] 그 귀신대, 메고 옵니다.

[조사자] 아, 메고 옵니까?

[제보자] 어, 그니께 표선리 당멘 심방도 신씨였고, 이 우리 동네도 이제는 신씨였고 이제 최근꺼지도 신씨죠. 지금 뭐, 이제 그 아덜덜은 무속을 안 허는데, 그니까 지금 여기 사는 그 할머니, 그 무속인이 아, 그 메느리가 또 했구나. 메느리는 무속은 아니고 할머니가 무속인 허고 당메고 그 신씬데, 그 할머니는 김씨고 근데, 그 분 돌아갈 때까지도 그 무속인덜은 그, 장례허는 의식도 유가 의식을 허면서도, 돌아가면 그때부터 무속인덜이 와가지고 굿을 헙니다. 그래서 상여 나갈 때도 그 깃발을 지고 그, 쫄병 무속인이 지고 맨 앞에 가는 걸 봤어 우리가. 게니까 그 기, 깃발이 다시 말하민 그 귀신에 이제 표십니다.

[조사자] 신기하다예, 겐 자운당이 원래 당 이름은 아니엇고.

[제보자] 아니엇고.

[조사자] 경 물을 마셔부난?

[제보자] 예, 마셔부니까 이제, 이제는 그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났거나, 이제 요런 사름은 거기 가서 이제 빌면은 낫는다고….

[조사자] 어떵 헨 빕니까? 그냥 물일 거 아니?

[제보자] 그냥, 영 바위 요리 있고 그냥.

[조사자] 아, 바위가 있습니까? 거기 냇가에.

[제보자] 예, 돌이 여 불룩허게 이제 그 있어, 그 아래에 조금 이제 물 고이는 거 있고 헌디, 지금은 저 내다 (불청)허게 내부니까, 엇어져 불었을 거야.

[조사자] 그믄 옛날에 빌 때는 거기에 뭐, 제물 같은 것도 가져 가신가마씨?

[제보자] 제물은 우리 어린 때는 뭐 이따, 간혹 엽전 두 어개 봉가왓지.

[조사자] 엽전 두어 개?

[제보자] 가서 돈 올리고 아마 빌거나(웃음) 그러니까.

[조사자] (웃음) 그러면 그거 가져 오션마씨?

[제보자] 어른들이 엿 사 먹으면 (불청) 아픈다고 줍지 말라고 해도 우리 갔다가 엿 사 먹엇주.

[조사자] 아, 아픈다고 줍지 말라고 했구나.

[제보자] 응.

- 핵심어 : 신풍리, 자운당, 처녀구신, 바위, 고인 물, 귀신대, 배탈, 엽전

W_L_093 썩은다리 누룩돌

2016년 10월 23일, 안덕면 화순리 화순리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양춘자(여, 1927년생, 안덕면 화순리)

[조사자] 썩은다리 누룩돌 무사 그거 세워졋수과? 이 동네하고, 내용이?

[제보자] 강칩허고 양칩허고 장군이 니가 쎄다 네가 쎄다, 게난이 이제 썩은 다린 강칩이고, 양칩인 저 돔베나ᄆᆞ루. 막 큰 돌이 큰 돌이 잇는디 요만헌 돌 야개기 알에 톡 젭져지난 아, 홍칩하고 아아 박칩박칩인 싸우니까 이젠 이기젠 허난 충열이 외하르방 홍서방 보리개역 ᄒᆞᆫ 말만 낸 잇어. 나는 저 알동네 부제 동네 역사를 ᄀᆞᆫ는 거 들엇주. 이제 강칩하고 양칩하고 성 아시를 ᄀᆞᆯ리젠 싸완. 싸와가난에 양칩은 돔배나ᄆᆞ루 저 돌로 잘 뒈엇저 이제 강칩은 썩은다리에 탁 세와졋어.

[조사자] 예, 잇수다.

[제보자] 그 탑으루 잘 살앐저. 경 헨 허난, 이젠 멜라불락 헤연이 어느 사름이 쎄느냐 허연 이젠 강칩이서 홍칩이 하르방 ᄆᆞ른 개역 ᄒᆞᆫ 말 먹는 하르방을 빌언에 ᄆᆞ른 개역 ᄒᆞᆫ 말을 멕이고, 양칩이 돌을 멜라도라. 양칩이 돌은 보난 저거 간단하게 썩은 다리 멜랏거든, 멜르난. 강칩인 힘이 약허나네 힘 쎈 사름 빌언 돔베낭이엔 헌 거 야게기 알레 톡 젭져두고 못허여게. 궨 돌산 우리 궨 돌산 양칩이 산 잇잖으나 궨 돌산이 그거 보고 그 산 앞이 장군 발자국추룩 큰 궤가 잇어. 돌 궤가 잇어 이제. 비 오민 ᄒᆞᆫ 이십 명은 들어.

[조사자] 어느 펜이꽈? 썩은다리 아래?

[제보자] 썩은 다리가 아니고 거세기 저, 궨 돌 궨 돌. 그것이 그 돌로 헤서 양칩이 연날 양칩이 하르방 바로 앞이야이, 장군 꼭 사름 발자국ᄀᆞᆮ이 탁 돌이 탁 찍어졋어. 돌에 이제 찍어젼 현재 잇어. 겨고 ᄆᆞᆯ, ᄆᆞᆯ 가죽 탁 우린 그 동네 사니까 하르방덜이 ᄀᆞ르쳐주난 알앐주. 알아지느냐. 그 밧충 잇어. 장군 발충ᄒᆞ고 ᄆᆞᆯ발충 잇어. 이제 돌 야게기 벳겨진 것도 현재 잇어.

[조사자] 경 헨 어떵 헨?

[제보자] 그뿐 아니라.

- 핵심어 : 썩은다리, 누룩돌, 홍칩하르방, 장군, 보리개역

W_L_094 썩은섬

2016년 12월 15일, 서귀포시 서귀동 강창홍씨 댁, 김선희 조사.
강창홍(남, 1947년생, 서귀포시 서귀동)

[조사자] 서귀포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보자]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니고 들은 풍월로. 서건도가 원래는 서귀읍 당시에 법환리 소유였어이. 지금은 개인 소유야. 예전에는 법환리 소유인데 그 앞이 썩은섬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돌고래 떼가 넘어가면서, 고래 떼가 넘어가면서 자꾸 걸려서 죽었어. 고래가 자꾸 걸려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썩은섬이라고 되었지. 그 당시 서귀읍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걸 처리하기 힘드니까 중문으로 넘겨 버린 거라.

썩은섬은 참고적으로 개인 소유인데 이제 우리는 썩은 냄새만 보고 중문쪽으로 보내버린 거지. 니네 가져가라 해서 보니까 지금은 강정 산 일번지가 되었을 거야. 서건도라고 되고. 썩은섬을 서건도라고 하는 거야. 돌고래 사체가 하도 떠올라서 썩은섬이라고 해. 옛날은 악근천이라고 강정 법환 경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강정으로 넘어갔지. 썩은섬이 넘어가니까 경계가 완전 바뀐 거지.

- 핵심어 : 서건도, 썩은섬, 돌고래 떼, 강정, 법환

W_L_095 아기무덤의 자장가

2016년 11월 24일, 구좌읍 종달리 송미영씨 댁, 송정희 조사.
고순안(여, 1947년생, 구좌읍 하도리)

[제보자] 그 이제 하도리 멘수동 강 이 섯동네 가기 전에 세 갈레로 난 길 잇잖아. 세 갈레로 난 길 그 옆에 어린 아기 무덤 잇어낫어 어린 아기. 어린 아기 무덤 허면은 막 밤중에는

"웡이자랑 웡이."

그 구덕 흥그는

"웡이자랑 웡이자랑."

겅허멍 소리 흥그는 거 나. 겅 헹 싹 가면 눈 번뜩허게 터그네. ᄉᆞ지 잇인 사름은 겅 허곡, 그디 넘어가젠 허믄 웡이자랑 웡이자랑허는디 무서웡 못 가키영 혼자 안 강 ᄋᆞ라 사람 말 ᄀᆞᆯ으멍 가민 아무 기척도 엇어. 겅 헤난디 잇덴 그걸을 ᄆᆞᆫ딱 파네 뭐 헤도네 그디 질 멘들곡 뭐 헤낫덴 허는 우리 어린 때 ᄒᆞᆫ 열댓술ᄁᆞ지는 그런 소리가 잇어낫어.

- 핵심어 : 하도리, 아기무덤, 웡이자랑, 자장가, 멘수동

W_L_096 아기업게당

2016년 10월 23일, 안덕면 사계리 김여옥씨 댁, 문경미 조사.
김여옥(남, 1918년생, 안덕면 사계리)

[조사자] 마라도 전설은 알아마씨?

[제보자] 전설은 모르고, 거디 아기나네. 거기 물질허여 메역 곹은 거. 해녀들. 아기어멍이 주. 긴디 아기 둘앙 간 해년가. 아기 든 때거든. 아기업게 둘앙 히고 아기 눕졍 재우고 돌아올 때, 집더레 돌아올 때 뱃길이거든. 꿈에다가 아기업겔 둘앙 가민 집더레 돌아올 때 벳질이거든 바닷질. 이기서 베에 침몰헹 죽나구네. 꿈에. 경 헌댄 허난 그때 아기업게를 막 베 봉그젠 물건은 거기서 다 몰리완 메역 곹은 거. 몰리완 흔 며칠 산 거주게. 경 헤네 물건 헤 꿈에 경 허난.

그 아기업게랑 내 비둬 가주 헨. 가믄 바다에서 베가 침몰헹 죽나 허난. 베 띄울 때에 아기업게도 왓거든. 같이 오자 헐 거 아니라게. 거짓말이지 거. 저기 아기 눕져난 디 아기 지성긴가 뭘 잊어불어동 왓댄. 그거랑 가져오라고. 경 헹 아기업게는 가지레 가 부난 베는 확 띄완 가 부난. 막 짖아강 울멍 불러도 그냥. 꿈에 경 헤도 그 아기를 싣경 오민 베 바다에 침몰헤 분댄 허난 경 헹 아니 싣경 오랑 그 아인 거기서 굶어 죽언. 아기업게당이라 헌 거 아니라게.

- 핵심어 : 마라도, 아기업게, 아기업게당, 해녀, 물질

W_L_097 아흔아홉굴

2016년 12월 14일, 표선면 가시리 한신화씨 댁, 송정희 조사.
한신화(여, 1921년생, 표선면 가시리)

[제보자] 아흔아홉굴인디 저 흔 굴 부족헤여네이 흔 굴 부족헤연 왕도 곰도 못 낫어. 제주도. 응. 이제 아흔아홉에 백을 체왓이민이 왕도 나곡 곰도 나곡 벨 걸 다 날 건디 아홉이라부난 열을 채우지 못헤여 부난에 왕도 곰도 못 낫어.

- 핵심어 : 아흔아홉굴, 제주도, 왕, 곰, 백

W_L_098 애삐리코지 유래

2016년 12월 7일, 남원읍 태흥3리 오봉남씨 댁, 김선희 조사.
오봉남(남, 1922년생, 남원읍 태흥3리)

[제보자] 을로 또 이레 가믄 우리 동네가 산거시라는 바다가 옛날 메역도 잘 나고 헷는디. 을로 애삐리로 나는디. 애삐리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믄 베가 들어올 때는 관선 자리라 해서 관베 매난 자리를 관선 자리라 헷어. 또 대스렁코지란 말은 관베가 들어와가나면 마중 사난 동산이라는 말이고.

또 저 애삐리라는 말은 베 떠날 때 이별을 헷어. 여기 있는 사름들이. 이렇게 손 흔들고. 그래서 이별코지라는 말을 오래 가가니까 애삐리, 애삐리 했거든. 어른들도 그런 얘기들을 헤여. 이별할 때 하는 말인 거 같으다고. 애삐리코지렌 허는 디가 잇어이. 우리 동네광 큰 동네 경계라. 이 우리 동네 안에 들엇주만은 큰 동네 사름들이 자기네 바당이렌 허멍 그리저리.

- 핵심어 : 산거시, 애삐리, 관배 매난 자리, 대스렁코지, 이별코지, 애삐리코지

W_L_099 애월할망

2016년 11월 18일, 제주시 노형동 정존마을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김임생(여, 1931년생, 제주시 노형동)

[조사자] 애월할망이랜 ᄒᆞᆫ 얘기 들어낫수과?

[제보자] 애월할망이랜 ᄒᆞᆫ 얘긴 못 듣고, 머리 막 갈르랜 ᄒᆞ는 할망? 나가 잘 알주기게. 우리 동네양, 옹포 할망인디, 그 사람은 하치베짓 두루에짓 ᄀᆞᆮ이 허멍 ᄊᆞᆯ 깡통 요만헌 거 끊엉이네게 애월장이고 할림장이고 뎅기멍 막 ᄊᆞᆯ 거련 막 헤낫주게. 건 무시거 ᄒᆞᆫ 할망, 그 할망은 애월할망 아니고 할망 막 저 뭐 하는 할망은 하르방 모르게 ᄉᆞᆯ짝이 쉐 잡앙 도둑질허영. 저 하르방 모르게 게난 도둑질이주게. 경 헤영 산에 강 막 기도 드리곡. 그런데 그 할망 아들들이 그렇게 잘 뒀어.

일분서. 박씨라고. 그 할망은 박씨 아닌디 아들들이. 게난 옛날은 애월 하물이 막 커그네네, 아랜 목욕ᄒᆞ곡 위엔 먹는 물이엉 영 니기 반듯한 물통인디 그 물에 들어가그네네 저 숨 못 뜨나네 발 ᄀᆞᆺ인 것도 막 건저그네 허고, 막 길 같은 거 깨끗허게 허고, 막 그 할망 경 헤난. 거시기 사름들ᄀᆞ라 앞도 반뜩이 갈랑 뎅겨야 우리나라가 반듯ᄒᆞᆫ댄 허멍 막 경 머리 앞 토라지게 갈랄젠 야단ᄒᆞ는 할망 셔낫주게.

[조사자] 봐난마씨?

[제보자] 우리 늘 ᄀᆞᆮ이 살앗주게. 삼춘 허멍 늘 ᄀᆞᆮ이 살앗주게.

[조사자] 그 분을 애월할망이랜 ᄀᆞᆯ아낫수가? 애월리 사람들은?

[제보자] 애월할망이주게. 전설인지 뭣인진 몰르고 할망이 경 헤난 할망.

[조사자] 근데 왜 소를 잡아?

[제보자] 한라산에 강 기도 드리젠. 소를 잡앙 다른 사람들을 영 ᄀᆞᆮ이 끼영게 소를 잡앙 한라산에 강 기도드령. 경 허믄 하르방이 집이 못 들어오게. 이젠 ᄒᆞᆫ번은 동세가 동세 앞세원에 형님 그릅서. 나영 ᄀᆞᆮ이 우리집이 그릅서, 그릅서 막 헨 가네 물정 간 첵헨 가난 막 하르방 야단허난 저 마리레 물 팡팡팡팡 비와둰에 도망가 불엇젠 ᄀᆞᆯ안게 그 할망.

[조사자] 그게 몇 살 때 들었던 얘기마씨?

[제보자] 우리 한 삼십대 전이지. 이십대지. 육십 년 넘엇지게.

- 핵심어 : 애월할망, 옹포, 하물, 한라산, 박씨, 물통, 애월리, 소

W_L_100 여벵이의 장난

2016년 12월 7일, 남원읍 태흥3리 오봉남씨 댁, 김선희 조사.
제보자1: 오봉남(남, 1922년생, 남원읍 태흥3리)
제보자2: 오명옥(남, 1934년생, 남원읍 태흥3리)

[조사자] 당팟당장은 등짐으로 담을 다 무너분 거꽈?
[제보자1] 영 짐을 진 거난 게.
[제보자2] 길로 영 내려오니까 담이 쓰러져 불엇지.
[제보자1] 영, 비틀려왕 오랏이믄 허주만은 일부러게 그렇게게.
[조사자] 밧 임제는 어떵 헙니까게. 하하하.
[제보자1] 홀 수 엇주.
[제보자2] 그때는 마차도 차도 아무것도 엇인 디니까 소를, 동네 소를 빌려서 나무를 혼 두 개씩 이렇게 싣거서 내려와 낫는데 그 나무 헐라고 소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동네 아니니까 아무도 안 빌려주난에, 그 하르방은 힘은 세니까 자기 힘대로 산에 강 남 비엉 길로 영 내려오니까 다 씨러져 불엇지.
[제보자1] 영 비틀양 오랏이믄 허주만은 일부러게.
[제보자2] 게난 동네 주민들이 ᄉᆞ정을 해서 제발 말아 달라고 그런 얘기야.
[제보자1] 그 하르버지, 당팟당장 하르방 가운뎃 아들될 거구나. 여벵이라고.
[제보자2] 여벵이가 관팟당장 바로 아들이라낫수과? 그믄 그리 오래지 않은 거구나예.
[제보자1] 관팟당장이 아니고 당팟.
[제보자2] 아, 당팟, 당팟.
[제보자1] 관팟은 우리 외가칩이가 관팟이고.
[제보자2] 같은 광산 칩이 아니꽈?
[제보자1] 같은 집이라도게 권당으로는 멀주게. 토산에 당팟이 잇고. 관팟이 잇주.
[조사자] 아까 그 사람은 누구마씸?
[제보자1] 여벵이.
[조사자] 여벵이 얘기 ᄀᆞᆯ아줍서.
[제보자1] 여벵이는 그이가 장난을 잘헤여. 저, 소 소름 등어리에 별양을 잘 지엇어. 찌르쉐. 찔레 잘허는 쉐. 그 닮다고 해서 찌르쉐, 찌르쉐. 한번 담다 하민 옛날은 그냥 벨양이 뒈 불었어.
[제보자2] 옛날 어른들은 심심하면 벨로 지으는 게 그게 잇어 낫주게.

[제보자1] 찌르쉐엔 헌 사름이 있는데 그 분이 항상 이 지경 왕 그믈 놔서 고기를 잡앗는디. 죽이라는 고기가 잇지.

[조사자] 누가 찌르쉐꽈? 여벵이가 찌르쉐꽈?

[제보자1] 아니, 아니. 찌르쉐옌 흔 분이 그 그물을 놓고 고기를 잡앙 가는데 여벵이는 그 분이 고기를 잡앙 오가는디 여벵이는 이승검은모루로 토산 가당 보믄 이승검은모루렌 허는 디가 잇는디 실은 나무가 영 팍하게 덮어져 노니까, 아닌게 아니라 덖어졍 좀….

[제보자2] 거기가 사당모루 아니꽈?

[제보자1] 아니. 사당모루는 동녘펜이고.

[제보자2] 아, 이승검은모루는 이 방우동으로 올라가는 디지예.

[제보자1] 응. 그 이승검은모루 지대에 가서 한편이 강 숨엉 아잣어. 그디 오라가니까.

"진 거 놔두고 가라."

하고 호퉁이를 했어.

"지고 가는 게 뭣구. 두고 가라."

부지런히 강 도렝인가 죽인가 하는 고기가 두 개가 걸어가가믄 재게 걸어가가믄, 고기 두 개가 '시라 시라' 헤가믄, 아이고. 술쩩이 걸으민 ?만히 잇당으네 재게 걸어가가민 또 '시라 시라'.

[제보자2] 가죽이 어떤 형태냐면 이런 식(고기 비늘을 가리키며)으로 된 물건이라. 비늘이.

[조사자] 아, 물고기끼리 부딪쳐서 소리가 나마씸? 시라시라시라. 하하하.

[제보자2] 이렇게 해 가민 시라시라시라.

[제보자1] 그래서 홀 수 엇이 그것을 던져주고 집에 올라갓어. 올라간 뒷날 아첵이, 여벵이는 그 찌르쉐 집엘 가고 찌르쉐엔 허는 어른은 또 고기 부린 디 이제 가고.

[조사자] 찾아보젠?

[제보자1] 응, 찾아보젠 간 보난 엇고. 경 헹 올라오노렌 허난. 올라가는데 여벵이가 찌르쉐보고

"어제 고기 졍 오단 어디 내 불엇어. 난 아지당 장만헤 놧어. 가건 먹엉 가."

"너 장난이랏구나."

"난 장난 아니라. 저 댓겨빗광 난 봉강 왓어."

이렇게 하면서 장난을 하영 하였댄.

- 핵심어 : 당팟당장, 등짐, 여벵이, 당팟당장 아들, 별양 짓기, 숨어서 놀리기, 시라시라, 장난

W_L_101 역적수울

2016년 10월 6일, 제주시 봉개동 동회천마을회관, 김선희 조사.
신준희(여, 1930년생, 제주시 봉개동)

[조사자] 역적수울 얘기도 헤줍서.

[제보자] 응. 역적수울.

[조사자] 예.

[제보자] 엿날 우리집이 놀러 온 할아버지들한티 들은 말인디 도독놈 둘이 그디 시방도 도독놈들 살았일 테주. 낭도 시랑시랑허고 막 덤불도 짓곡. 시방도 막 덤불이라.

[조사자] 덤불이꽈.

[제보자] 응. 시방도 낭들도 막 시양시양ᄒᆞ곡. 시방도 막 도독놈들 살암직헤여. 대왓도 잇곡.

[조사자] 대왓도 잇고.

[제보자] 응. 경헌디 그디 살멍 저 웃한질로 저레 가곡 이레 가곡 손님들을 봐그네, 봐지믄 그레 뛰어가그넹에 그때에 사름들을 ᄆᆞᆫ 심엉 하근 거 ᄆᆞᆫ 털어다놩 사난. 그것들 살아부난 역적수울 역적수울이렌 허는 거주.

[조사자] 게난 역적수울이 어디쯤이꽈?

[제보자] 역적 수울? 회천. 회천 역적수울.

[조사자] 거기가 물 나는 디꽈?

[제보자] 응. 물 나는 디. 산물 나는 디. 게난 거기가 절간도 잇곡. 우리 엿날은 그 물 지어당 먹엇주게. 이디 원 물 엇어부난에. 그 물 먹단에 이에 하간디 집들을 짓엉 가난에 물 나오는게 보난에 겨울이가 곱이 나완에, 거기 막 웬보말, 보말, 요만 썩한 보말들 물 질레 가믄 영 돌에도 부텅 달달달들 막 떨어지주게. 물이 싼 허주게. 물이 막 곱주게. 땅으로 막 내려오는 물 기자, 하영도 아니 엉덕 기자 엉덕 알러레 졸졸졸졸 내려오주게. 다 그물들 지어당 먹엇어.

[조사자] 그 물들 먹을 때 역적수울 얘기가 나왔구나예.

[제보자] 응, 무사 역적수울, 역적수울 헤냣이믄 거기 도독놈들 살멍 그 저 웃질로영 알질

로영 사름들 왔다갔다 하는 사름들 심엉 하간 거 털어 앗아불어나난.

[조사자] 아, 예.

[제보자] 경 헹 그디서 살멍 경 헤부난 역적수울, 역적수울 헤여낫댄. 다른 것이 역적수울이 아니고 도독놈 살아나난 역적수울 헸댄.

[조사자] 아, 도독놈 살아나난.

[제보자] 응.

[조사자] 거기 무사 도둑들이 살앗인고예?

[제보자] 틑엉 먹젠게. 도독놈들은 어려우난. 시방은 있는 집이들 알아근에 그 나쁜 사람들 잇주만은 엿날은 도독질게.

[조사자] 어려우난예.

[제보자] 난 아무디도 뎅기지 않으난 집 안에 앉앙 들은 말이주게.

- 핵심어 : 역적수울, 도독놈, 회천, 산물, 도독질

W_L_102 연화못

2016년 10월 14일, 애월읍 하가리 연화못 근처, 문경미 조사.
임치구(남, 1935년생, 애월읍 하가리)

[조사자] 여기 하가리는 요 쉐죽은못하고 연화못에 대한 전설 내려오는 얘기가 있더라구예.

[제보자] 연화못이 전설에 의하며는, 내가 간략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며는.

[조사자] 한 뭐?

[제보자] 한응호 목사가 18세기 초에. 한응호 목사가. 이쪽에 초도순시 차에. 오라게 되니까. 지금 주차장 하는 곳이. 이곳이 막동물이라고 하는데.

[조사자] 막동물?

[제보자] 막동물. 막동물. 그디 물통이라낫지. 그때. 막동물이란 것은 이 물 떠다다가 돼지도 주고 그릇도 씻고 허는 막동물이라낫어. 막동물. 막동물이라고 해서 여기는 거 보초 서낫다고.

[조사자] 아하.

[제보자] 어디 외인이 오는가 하고 보초 사고. 지금 여기 주차장이. 또 중간에 보며는 셋동물이라고 해서 숭키, 말하자며는 나물 같은 거. 깨끗이 씻는 장소라낫어.

[조사자] 아하.

[제보자] 막바로 연화못은 당초에 못이 아니랏어. 산적들이 살앗거든. 산적들이.

[조사자] 예.

[제보자] 산적들이 살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담배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해가지고 갖은 짓을 해가지고 여기 지나갈라며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거든. 그러다가 산적들이, 대장이 하루는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어.

떡할머니라고 해서 밥을 짓는 식사를 하는 사람이지. 밥을 짓는 할머닌데

"대장님, 저녁에 반찬은 있는데, 내일은 반찬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했어. 왜냐며는 이런 것을 관가에 민가에 가서 안 아르키며는 한응호 목사가 초도순시하면서 위험허니까. 관가에 가가지고 지금 산적 대장이 긴급회의

를 해가지고 언제는 한응호 목사가 일로 지나갈 것이다. 예측을 한 거야. 그래서 관가에 아르켜서, 역시 한응호 목사가 오니까 못 지나가게 하고, 소위 지금 말하면 경찰이랄까 따라 온 거야. 게난 여기를 완전히 멸살시켜 버렸어. 멸살시켜서

"아, 안 되겠다."

이대로 놔둬서는 위험하니까. 못을 만들자. 만들어가지고 급수장으로 해가지고, 우마라고이. 쉐 말을 멕이고, 연못이 요쪽 버드나무 이쪽에는 여자목욕통, 저쪽은 남자목욕통, 저쪽에는 우마 급수장이라고 해서 물 막고. 그래서 저쪽에 연통이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것은 고기들이 놀고 있고 연꽃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부락에 제도가 이장이라고 있지만, 동장이라고 하지만은 경민장이라고 했어. 경민장. 제도가. 경민장 제도가 있는데, 게서 경민장 보고 고소리로 덖은 술을, 고소리 알아? 고소리. 오면서 목사가 그 술을 먹으면서 시조를 읊었다고 하는데.

- 핵심어 : 연화못, 목사, 초도순시, 산적, 연꽃, 막동물, 고소리

W_L_103 열녀문동산

2016년 12월 16일, 서귀포시 중문동 이성무씨 댁, 김선희 조사.
이성무(남, 1943년생, 서귀포시 중문동)

[조사자] 혹시 이야기 중에 효자 이야기 잇어마씸?
[제보자] 열녀문.
[조사자] 아, 열녀문. 중문에도 열녀 이야기가 있습니까?
[제보자] 열녀 잇주게. 가만 있어보자, 열녀 이야기. 갑자기 하려니까…. 열녀문 헌 디가 지금은 토지 분할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경계를 잘 모르니까 그냥 토지가 높은데다 그냥 세워서 열녀문 했지. 지금은 그 열녀문이 개인 땅에 들어가서 조그만하게 비석만 남아 있어.
[조사자] 사연이 있는 열녀문 아니예?
[제보자] 응. 1794년 정조 18년에 출생해서 중문 출신 김창은 씨와 결혼을 했다고 해요. 남편이 병이 깊어서 중퇴에 이르니까 호흡해서 자기가 죽으려고 했어. 근데 남편이 죽고 말았다. 그 사람 죽으면 염습 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한테
"너는 잘 자라서 조부모님을 잘 모시고 대가 안 끊기게 잘 이어라."
하고 따라 죽었다고 해요.
[조사자] 같이 돌아가신 거 마씸?
[제보자] 장례식 다 끝내고. 그때 나이가 열아홉 살이라고 해.
[조사자] 에…. 아이고.
[제보자] 1813년 순조 13년인데 그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순조가 1814년 정표를 내려. 열녀문 정표. 나주 김씨 집안에서는 지대가 제일 높고 동산에 폭낭이 있었어. 거난 거기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는 거기 세웠는데 옛날은 비석 돌이 산방산 돌 하면 잘 가야 칠십년 간다고 해. 다 풍화돼 버려. 요즘은 옥석 하니까 반영구적이지만은. 그래서 비석을 했는데, 그때부터 열녀문동산이 되었는데.
[조사자] 아, 열녀문동산.
[제보자] 비석에는 뭐라고 되었냐면 이 내용에 비석에 써져 있어. 지금은 초라하게 건재사 옆에 묻혀져 있어서. 길 옆에 있으니까 관심있는 사람은 볼 수 있지만은. 옛날의 그 폭낭도 엇어져 불고. 집 지어져 불고 하니까.
[조사자] 그래도 다들 열녀문동산 하면 다 알 거 아니꽈예?
[제보자] 응. 그렇지. 열녀문동산.

- 핵심어 : 중문 열녀문, 열녀, 열녀문, 열녀문동산, 폭낭, 나주 김씨, 비석

W_L_104 영등할망

2016년 12월 1일, 애월읍 애월리 애월리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양병연(남, 1928년생, 애월읍 애월리)

[제보자] 영등할망은 제주도에 들어오젠 허며는 섣달그믐날 우도에 와가지고 이제는 주간 명월이엔 하는 가, 것고라 '동어귀'엔 했거든. 옛날에는. 거기 왕 섣달그믐날. 바릇 잡아 먹엉. 정월 초하룻날은 제주 산지 바다로 온다 허는 거주.

[조사자] 일단 우도로 와서.

[제보자] 우도로 와서 뒷날 제주로 들어온다 이거주. 게니 할망이 돗으게 출령 오며는 제주도가 똣으고, 우장이나 썽 오며는 그 어간에 일주일 어간에 비가 많이 오고. 추우며는 똣으게 입어왓다 허는 말이다.

[조사자] 또 영등할망 올 때는 어떵 해야 뒈마씨?

[제보자] 영등할망 올 때는 제주도 풍속이, 영등할망 들어온댄 허민 서답도 내널지 못허고 베꼇디. 경 헌댄 헷주게.

[조사자] 내널지 못하는데, 널면?

[제보자] 내노면 벌거지들이 구데기라고 벌거지들이 집 안에 인다. 경 헹 진짜로 안 널엇주게. 이제도 우린 정성햇어. 지금도 우리는 밖거리 사는 사람보고 그때 당허며는 서답 널지 말라. 바깟더레 널지 말라 경 골앗어.

- 핵심어 : 영등할망, 우도, 서답, 구데기

W_L_105 오름 만든 선문대할망

2016년 12월 14일, 표선면 가시리 한신화씨 댁, 송정희 조사.
한신화(여, 1921년생, 표선면 가시리)

[제보자] 설문대할망은 옛날에 막 커. 할망이, 흔들흔들 흔들흔들 걸령 경 허난 선문대할망이렌도 헷어, 응, 그건 알아저.

[조사자] 그 할망 얘기헤 줍서.

[제보자] 응?

[조사자] 그 할망 이야기, 그 막 큰 할망.

[제보자] 선문대할망이 무시거 이야기 골을 게 엇어.

[조사자] 그 할망이 뭐 오름도 만들엇저.

[제보자] 아, 그 선문대할망이 막 크난 흑 ᄒᆞᆫ 줌 줍아당 논 것이 오름이 뒛어. 막 손도 크고 허난에이, 또 저 물도이 물 물도 그 할망이 ᄒᆞᆫ 허벅 지어 놓은 것이 통이 ᄀᆞ득앗어 물이. 통이 ᄀᆞ득앗어. 경허난, 이디 ᄒᆞᆫ자국 놓곡 저디 ᄒᆞᆫ자국 놓곡 허는 것이 ᄒᆞᆫ자국은 천리 ᄒᆞᆫ자국은 말리 경 뎅겻지.

[조사자] 경 헹 그 할망이 어떵 헹? 어떵 헹 죽언마씨?

[제보자] 할망이 아판 죽엇주게.

[조사자] 아판?

[제보자] 응. 아판 죽엇주.

- 핵심어 : 설문대 할망, 선문대 할망, 오름, 흑, 물

W_L_106 오봉조 훈장과 서모

2016년 11월 20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이현정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조사자] 오조리에 오훈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예?

[제보자] 오봉존데, 거 이제 실지로 있었던 인물이고. 이제 과거에는 급제를 못헷어, 그 양반이. 그런디 문장이 아주 뛰어나요. 문장이 뛰어나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그 학자 만나기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이제 오훈장이 어릴 때에 이제, 어무니가 일찍 죽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계모가 오셨는데. 이제 아주, 거 오조리니께 해녀에요. 신분이 좀 낮고 해년데, 그 양반도 이제, 뭐, 와가지구 아덜 둘 낫어. 아덜 둘을 낫는데, 자기 난 아덜은 머리가 좀 시원치를 못헷던 모냥이야. 이게 뛰어난 분네주. 오훈장은 그 큰 아덜은 머리가 영리해, 이제 한 집에서 여러 사름 공부허면은 이게 이제는 셍활이 어려우니까.

[조사자] 뭴 것도 안되는 거지.

[제보자] 당신이 난 아덜덜은 일만 시기곡(웃음) 이제, 오훈장을 이제는 그 이제, 공불 시겨요. 공불 시긴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큰 공부를 시기려고 허면은, 독서장이라고 이제 거, 선생 청헤가지고, 여러 사름 아니고 한 사름만 지도를 허게 중점적으로 ᄀᆞ리쳣어.

[조사자] 응, 지금 일대일 과외허는 것추룩예?

[제보자] 아, 그래서 이제 집에서 공부를 헷는데. ᄒᆞ루는 이제 바다에 해녀허러 가 분 때, 마당에는 ᄇᆞ리타작 헤가지고 다 널어 놓고 갓어. 이 비가 막 온 거 아니여? 거니까 이제 그 ᄇᆞ리를, 거 오훈장이 이제 다 담앗어. 담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이제 그 어무니가 이제, 해녀허러 와가지구 좀 얼굴빗이 좀, 어째 좀 기분이 안 좋은 거 같아.

'아이, 내가 보리를 좀 늦게 담앗다고 그러는가….' 헷어.

"아이, 그냥 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보리를 부지런히 담느라고 했는데, 조끔 멧 개는 젖었습니다." 고 허니까.

"내가 독서장 청헤가지고 공불 시기는데, 내가 보리 담으라고 공부시기냐?"

아, 보리는 뭐 지금 젖이면 다음에 말려서 허면 뭴 것이고, 아, 거, 선생 혼자만 청헤가지고 허는디, 그래서 이 어무니가 이제 화가 난. 그래서 이제 죽자 살자 이 분네가.

"춤, 나 낳아주도 안 현 어무니가, 이렇게 날 이렇게 헌데 내가 공부를 부지런히 헤서…."

그래도 이제, 진사는 뒀는데, 과거에는 떨어졌어. 이 양반 이제, 춤 과거에 거의 한이여. 어무니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ᄀᆞ리쳐 줬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어무니가 돌아가면 친어머니 복하고, 그 서모 복 차등이 있습네다. 복이, 상복도. 그래서 그 이제 서모가 돌아갔는데, 여기 요 고○○ 이 분네가 조문을 왔소.

요즘에야 무슨 아이고 뭐, 상복이 뭐 입건 저거 입건 상관은. 그때 그, 문자허는 사름덜이 무슨 그 예법에 어그러졌다 하믄 큰 사회 거 문제여, 이 제자가.

"아, 이거 선생님, 쪼끔 실례를 헌 거 같읍네다."

허난 경 헨, 서모가 돌아간디 친모허고 같은 복을 입엇다 그 말이여. 그르니까 오훈장이 알아 맞춰가.

"생각을 헤 봐라, 우리 어무님 아니면은, 나가 자네ᄀᆞ뜬 제자를 두겟는가?"

그래서 그, 춤, 어무니를 아주 친어머니허고 ᄀᆞ찌 이렇게 허고, 이제, 이제, 이 양반이 그 서당을 지어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아주, 제주도에서 이제 명문장입네다. 아, 거, 탐라지에 관리가 아니어도, 탐라지에 계속 그, 글이 올른 건 이 양반 그 글벆이 엇어.

- 핵심어 : 오봉조, 훈장, 서모, 공부, 보리, 상복, 예법

W_L_107 오유학과 풋개귀신

2016년 12월 7일, 남원읍 태흥3리 오봉남씨 댁, 김선희 조사.
제보자1: 오봉남(남, 1922년생, 남원읍 태흥3리)
제보자2: 오명옥(남, 1934년생, 남원읍 태흥3리)

[조사자] 말과 상관한 이야기는 엇수과?

[제보자1] 견디 ᄋᆞ기 하르버지네 ᄆᆞᆯ이 아무리 바령밧이 가두와 놔도 밤에 직허지 안 허면 ᄒᆞ나라도 뛰어나왕 나가 불어. ᄒᆞ나 뛰어나면 다들 뛰어나. 정남들신디 직허라 하믄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헤여. 강 아잣당 모ᄉᆞ왕 무시거 어지리난, 구신, '아니 뒈쿠다, 아니 뒈쿠다.' 한다 말이여.

[제보자2] 구신 나왔다고.

[조사자] 귀신 나왓댄마씸?

[제보자1] 뭐이 그렇게 무서운 게 있느냐 헤서 이렇게 오란 담 옘에 임시 영 헹 아잣이니 아닌 게 아니라 뭐 구신이 오란 어지리거든. 거난 "뭐여!" 허난 앚인디 앚앙, 거난 다신 아니 나와.

[조사자] 하르방이 무서운 하르방이구나예.

[제보자2] 그 당시에 풋개옌 허는 게 잇엇어이.

[제보자1] 풋개 줏으라, 풋개 줏으라 헤주.

[제보자2] 땅에서 나는 거. 열매 열면은. 게난 그게 하르버지한테 구신이 와서 풋개 먹으라, 풋개 먹으라 헤서 귀신이 얘기를 하니까.

"뭣 풋개 말이냐!"

하니까 싹 엇어져 비엇댄 헤여.

[제보자1] 게 단 사람들은 다 놀래엇어, 그것에 놀래서 지커질 못 헤엿지. 겐 하르버지가 오란 ᄒᆞᆫ번 호령ᄒᆞ난 다음부터는 안 다녀.

[조사자] 게난 여긴 귀신 안 나오큰게예.

[제보자1] 그 후에부터 이 동네는 그런 게 많이 없었어. 놈이 동네로 비교허민. 힘은 어땠는지 몰르는디 하르버지 기세가 좋앗주. 하르버지가 그때 훈장이었는데 오유학이라곤 향교만 열심히 다니는 분을 놓고 유학이라고 헷주. 그런 직함이 잇인 분이주. 요즘은 돈 가지어도 할 수 잇주만은 그 시대엔 자격이 없으면 못 벌엇어.

- 핵심어 : 바령밧, ᄆᆞᆯ, 구신, 귀신 출몰, 풋개, 풋개 먹으라, 불호령, 오 유학

W_L_108 오조리 볼락장군

2016년 11월 26일, 성산읍 오조리 채종학씨 댁, 이현정 조사.
채종학(남, 1946년생, 성산읍 오조리)

[조사자] 송칩에?

[제보자] 예, 볼락장군이옌 헤가지고 이제, 그, 건 심이 엔간이 셋던 모냥이라마씨. 터위남이 열두 개를 드는데.

[조사자] 무슨 나무에?

[제보자] 터위, 터위.

[조사자] 터위?

[제보자] 예.

[조사자] 터위남.

[제보자] 응.

[조사자] 예, 열두 개?

[제보자] 예, 그걸 이제 그, 저, 대틈고지에서 그 뭐야 그, 터위남 한 베 만들 거를 이제 막 지어 왓덴 헤마씨.

[조사자] 혼자?

[제보자] 예. 거난 걸 다 지진 못헤십주만, 어떤 간에 그 정도로 이제, 심이 에 쎄니까, 겐 저 지엉 네려오단 보면은 옛날은 길이 좁으니까, ○○게가 벌어질 거 아니꽈게.

[조사자] 아, 예, 그렇지.

[제보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길 지날 떼 강근에 읖으로 그니까 이렇게 오면, 그 나무가 기니까 다 이제 담을 허물어 버리니까, 이제 '옆으로 이제, 영 와줍센.' 헹 그네.

[조사자] 예.

[제보자] 게, 쭉 가주민은 인젠 막 그 동네서 인제, 술 대접허고 뭐허곡 이제, (불청)

[조사자] (웃음) 아.

[제보자] 뭐 그런저런 얘기도 있곡, 또 이제 요거게. 저기 앞바르에도 일출봉 앞에 앞바르.

[조사자] 앞바르.

[제보자] 이제 거기 이제 그, 어디, 쉽게 말헹 지금 생각허믄 외선이라.

[조사자] 외성.

[제보자] 외선, 외선.

[조사자] 외선, 예.

[제보자] 그 외선인데, 이제, 그, 볼락장군이 가그네, 베, 흔 그 큰 배 그러니까 적은 벤 아일 테고, 이게 큰 베 이제, 그 이 저 이음을 묘시, 제일 앞에 걸 묘시라 그럽니다게.

[조사자] 요시요? 묘시?

[제보자] 묘시, 응. 거 묘시를 잡앙 흔들곡 무시거 허면은 겁나가지고 '이제 따시는 이제 안 오겠다.'고 막 이래서 이제 도망가고.

[조사자] 어으, 힘 막 쎄낫구나마씸?

[제보자] 어, 그니까 이제, 거 볼락장군이 모친상을 당했는데, 저 성읍리에서 이제, 저, 목안, 정의, 대정 이제, 각 고을 뭘로 이제 씨름을 헷던 모냥이라. 거니까 저, 여기가 정의골입주게.

[조사자] 예.

[제보자] 정의골이 형편엇게 이제, 그, 저, 진 모냥이라. 그니까 정읫고을 이제 현감이, 이제 그, 하도 이제, 좀 무시거 허니까.

"거 송 아무개 이제, 데려오라."

[조사자] 응.

[제보자] 아, 데려오라 허니깐, 옛날은 상중에 삼베옷을 입지 안 헷수과게? 두건 쓰곡.

[조사자] 예.

[제보자] 거난 이제, 그, 볼락장군, 송 볼락장군이, 그, 높은 그, 소위, 뭐 목사옌 이제 그, 고을 원님덜이 있는데.

"저 씨름 허다근에 살인난 거는 죄가 아니꽈양?"

[조사자] 아.

[제보자] "씨름허다 죽으면은 거 죄가 아니지 않느냐?"

게서 이제 옛날은 모, 그디는 모래도 엇는 데니까 테역밧이옌 헌 건 잔디밧, (웃

음) 잔디밧을 손으로 딱 뜨니까, 상대방 그 씨름꾼, 저 씨름허레 나온 선수덜이 "나 죽어도 못허겟다."

그래서 인제 정의골이 저, 일등을 헷다고 허는 얘길 거난 거, 것도 인제 송칩이 하르방.

[조사자] 그 볼락장군.

[제보자] 응, 그 얘기.

[조사자] 건 어디, 누구헌티 들으션마씨?

[제보자] 아이, 건, 이제 그, 볼락장군 얘길 거 많이덜 헙주게.

[조사자] 아, 그믄 웃대 어르신들부터 계속 하고, 하고, 하고, 내려온 거구나예?

[제보자] 어, 아 거난 막 뭐, 멧 백년 뒌 저 뭐는 아니고.

[조사자] 아, 음.

[제보자] 거난 그디 그, 그 손자덜이 지금 일본 가 버리고, 또 외손자덜은 지금, 외손, 아, 외손자쯤 되는 분덜은 여 오조리 살아낫수다게.

[조사자] 그믄, 그 쪽은 다 송칩이?

[제보자] 아, 예.

[조사자] 송칩이지예? 그쪽예? 음.

- 핵심어 : 오조리, 볼락장군, 심 센 사람, 터위남, 담, 외선, 씨름, 송칩잇 하르방, 큰베

W_L_109 오조리 식산봉과 과부상

2016년 11월 26일, 성산읍 오조리 채종학씨 댁, 이현정 조사.
채종학(남, 1946년생, 성산읍 오조리)

[조사자] 아, 과부상예.

[제보자] 어, 이제 거니깐 이, 그, 오조리 이제 그 뭐가, 소위 그, 좀 풍수지리적으로 얘기허면은, 저 식산봉이 이저, 머리, 이제, 젊은 여자 이제 머리 풀어, 저 풀어 헤쳐 가지고 저 우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부가 많이 잇다고 이제.

[조사자] 응, 근데 저쪽에 뭐, 다른 선생님덜이 얘기하는 전설 보면 옥녀가 한 남자를 막 사랑하다가 죽언마씨? 결국에?

[제보자] 아니게, 그런, 그 얘기는, 우리 어린 때는 뭐, 그딧 물에 빠져 죽은 뭣, 그, 저, 무신, 뭐, 불미술에 이제 그 남자허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무시거옌 허는데.

양반허고 상놈 이런 식으로 헤가지고 결혼 못허니까 그 옥녀가 죽어 벳댄. 이제, 그, 이제, 그 얘기를 거 좀, 그, 우리 그, 리사지에는 걸 실려 잇는데 우리 어린 때는 이제 그런 얘길 거 우리가 들을 수 잇는 건 거지게.

이, 농노를, 농노를 닦으레 가믄 이제, 그 당시에 반이 지금도 반이 잇주만은, 반이 잇잖아게게. 반이 잇이믄 이제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 가곡 이제 막 이제 가잖아게.

이제 가믄 일허다가 이제, 좀 쉬곡 이축 헐 때는 짝 이런 얘기덜 저런 얘기덜 허지게. 이저, 그런 중에 예를 들엉 식산봉 쪽에 그저 질 닦으레 가면은, 아, 이제 그, 노인네덜이 이제게 아, 이거, 저, 식산봉은.

"이만저만 헤가지고 이제, 그, 좀, 과부상이옌 헌다."

이런 식으로 헤그네, 그건디.

- 핵심어 : 오조리, 식산봉, 과부상, 풍수지리, 젊은 여자, 머리, 우는 형상, 과부

W_L_110 오조리 조규

2016년 11월 26일, 성산읍 오조리 채종학씨 댁, 이현정 조사.
채종학(남, 1946년생, 성산읍 오조리)

[제보자] 아, 거난 그런 말, 거, 자손덜은 들으민 뭐허는데, 옛날, 하르, 저, 분덜이. '요 조규ᄀᆞ찌.' 허여, 조규.

[조사자] 조규?

[제보자] 응. 건 조규옌 헌 하르방 실제 인물인데.

[조사자] 예.

[제보자] 엿날 성읍리 가서 인제 공불 허젠 하믄은, 이제, 돈, 엿날은 돈이 없으니까 쌀로 다 실러 날랏거든. 이제 쌀도 이젠, 여기 저, 벼곹은 게 없으니까. 저, 밧디서 킵는 육도, 산디.

[조사자] 밧벼, 산디예?

[제보자] 응, 이제 그걸 헤가지고 이제, 뭐 허는디. 걸 성읍리꺼지 져 가질 못허잖아게.

[조사자] 음.

[제보자] 거니까 소에 이제, 이제 멧 바리 실렁으네 이제, 뎅기면서 공부를 시겻는데. 건데 그, 그렇게, 그, 헤서나 그, 졸업을 헤도. 학교를 나와도, 옛날엔 한문이것지, 서당이니까. 지금 석천교. 근데 베운 걸 이제, 써 먹질 못허니까. 게난 뭐, 뭘 베와도 제대로 이제 그, 값어치를 못허는 사럼보고 이제 '아이, 요 조규ᄀᆞ찌' 조규, 조규.

[조사자] 조규. 게믄 그 하르방이 어떵 헷댄마씨?

[제보자] 아, 그니까, 겐 얘기를 뭘 베웁고도 허지 못허는 사럼헌티 빗대어그네.

[조사자] 빗대어서, ᄌᆞ규같이.

[제보자] 어, 어. 거고 또 이제 그, (불청) 말 안 듣고, 이제 말썽만 부리는 사럼한티는 '벤인테ᄀᆞ찌.'

[조사자] '벤인테ᄀᆞ찌.' 이렇게 하고.

[제보자] 게 뭐 그런 식으로 저, 그자 뭐, 우시갯소리로들. 그 다음에 조규옌 헌 분은, 이 오조릿분 맞아요.

[조사자] 아, 오조리 사람이꽈?

[제보자] 어, 오조리 저, 지금 살아계시믄 나이 헌 백사십 설 뒛일 거.

[조사자] 얼마나 공부를 못헷고, 속만 쎅여시믄 겅 말헷이카예?

[제보자] 아이, 공부를 못 헌 건.
[조사자] 못한 거지. (웃음)
[제보자] 아니, 아, 공부는 잘헷다 그, 저, 헤여.
[조사자] 아, 잘헤? 또 공부는예?
[제보자] 응, 저, 잘헷는데. 근데 원래 또 처갓집이, 고성.
[조사자] 고성.
[제보자] 응, 고성. 이, 저, 정칩이니까. 고성, 원래는 짐칩허고, 광산 김칩허고 동래 정씨, 저, 이, 씨족 마을로 이뤄진 디주.
[조사자] 예.
[제보자] 게 지금도 라이벌이 쎄주, 지금도.
[조사자] 정씨랑 짐씨랑예?
[제보자] 김씨랑. 근데 그 어른이 이제, 원래 정칩이 사위주. 게 원래, 촌에서 이제 그, 뭘 허면은 거기도 저, 좀 내로라허는 집안이지. 거난, 무슨 얘기냐면 오조리같은 경우 이런 걸 개촌이라 그러고.
[조사자] 개촌.
[제보자] 또 저, 수, 고성은 양촌이엔 허지.
[조사자] 예.
[제보자] 게 쉽게 말하믄 이젠, 거, 양반촌이고.
[조사자] 바닷가 마을허고 중산간이라부난 경 헌 거 아니마씨?
[제보자] 아니, 거 때문에 헌 게 아니고, 고성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위, 이 양반덜이 왓어 이제, 한다는 얘기고. 개촌은 해변가 마을이라는 뭣도 잇주만은, 해변가 마을에는 또 이제 그, 양반덜이 안 산다 이거주. 저, 무시거 허니까. 그러고 개촌이옌 허는 말이 양반덜이 안 사는 상놈덜이 사는 그, 뭐는 아니주만은.
[조사자] 맞아마씨.
[제보자] 근디 개촌이 이제 생활이 척박허니까, 이제. 양반덜은 안 살아, 양반덜은 이제. 경 헤도 농토나 뭐나 이제, 많이 가져사 허고. 게난 뭐 그거, 그거지 뭐. 다, 아는 거, 뭐가. 아, 옛날에나 낫이믄 거 잘 기억헹 나둘 건데.
[조사자] 그믄 고성에 그 정칩이랑 결혼한 거네? 그 조규 어르신은?
[제보자] 응, 거 하르방이 정칩이 이제, 사위주 사위.

- 핵심어 : 오조리, 조규, 서당, 석천교, 고성리, 양반촌

W_L_111 용궁올레와 칼산드리

2016년 10월 18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이현정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조사자] 용궁올레 얘기 좀 헤주십서.

[제보자] 용궁올렌 이제 그 용궁올레 여기 지명인데, 여기 우리 신풍리하고 신천리 그 경계에 있는 바답니다.

[조사자] 아, 굽갈라, 그믄은 그…, 바다로 신풍, 신천리가.

[제보자] 아니 건 경계는 아닌디, 그 경계에서 보면은 날씨가 좋아서 파도가 안 치는 날은 바다, 굽은 물빗이라도, 이륵 길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보통 용궁올렌데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 적은 배도 그리로는 잘 안 가, 피헤서 다녀. 거 이제 남해용궁문이라고 헤가지고.

[조사자] 그 하얀 물줄기가?

[제보자] 에, 물줄기가.

[조사자] 남해용궁….

[제보자] 에, 그래서 이제, 그 연안 지명은 용ᄆᆞ루라고 하고, 그 바다 하얀 부분은 용궁올레, 용궁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라고 요렇게 헷어, 그 이제 건들이면은 이제, 파도가 센다고 헤서 베도 잘 안 다니고. 또 해녀덜도 거기는 별로 뭐 거 해산물도 잘 안 나곡 허니까 잘 안 가곡. 이제 그런디, 요즘은 모르지만은 근디 이제 여기 이제 지금은 다 그 후손들이 이제 저 서귀포 가서 사는디, 그 이제 송씨 그 문중에 이제 그 그니까 원래 이 동네는 해녀가 없었습니다. 우리 제주도 뭐 지금은 그냥 다 그냥, 해녀, 해녀하니까 다 해년 거 같아도 바다 동네는 해녀 있곡, 이 산천 동네는 원래는 해녀가 없곡. 또 해녀를 허는 집에는 신분이 이제 뭐 중인 계급이고. 아 요렇게 헌데 이제, 이 동네 유독이 송씨만은 이제 그 주민에 속헤가지고 그 해녀가 있었는데 거기 저그 송씨 해녀가 이제는 그 바다를 그 해녀하러 가는데, 그 분네랑 아주 해녀를 잘 허니까 겁없이 그 이제는 용궁올레에도 아마 이제 그 뭐 해산물 채취하러 갔던 모양이라.

[조사자] 물질을 잘헤낫구나예?

[제보자] 예, 잘헷어. 아주 이게. 에 가는디 이제는, 아주 그냥 그 큰 전복이 보이니까, 그거를 떼러 갔는데, 정신이 아찔헤가지고 이 없어져 불엇어.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갑자기 눈 앞이 나타난 것이 그냥 아주 고래등과 같은 기와집, 그것이 이제 남해

용궁이여, 거기에 문지기가

"이거 어떤 백성이 여기 왔냐?"

잡아서 남해용궁으로 안으로 이제 잡혀들어 갔어, 들어갔는데 이제는 들어가서 이제 이건.

"느가 왜 이제는 여기를 왔느냐?"

"아, 이리저리 헤서 나는 전복을 떼러 왓지, 여기 들어오려고 아니헤서 왔습니다."

"여긴 인간이 오는 곳이 아닌데."

아, 이게 이게 아마 그 해녀가.

"집에 늙은 부모가 있고 이제는 좀 나를 이제 돌려 보내줍서."

사정사정헤서 이제.

[조사자] 문지기한테예?

[제보자] 응, 어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 돌아왔어. 그 해녀가 이제, 그니까 그 전복은 못 잡앗지만은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와서 그 물 우에 거기서 이제 뭐, 강아지를 인도헤서, 이, 따라가서 헤서 인도를, 강아지가 인도를 헷다든가 뭣 헷다든가, 따라서 이제 물 밖이 나와보니까는 이제는 아마 기절했다가 살아났는가, 이 테왁만 둥둥 떠있어가지고 이제, 떠 밀려와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해녀가 아주 제일 우리 동네에서는 그 상군.

[조사자] 상군으로예.

[제보자] 어, 유명한 해녀가 뒛주.

[조사자] 용궁갔다 와부난 상군뒌 거구나예?

[제보자] 응, 상군뒈연.

[조사자] 그러면은 그거랑 같이 칼손ᄃᆞ리옌 헹으네 같이.

[제보자] 그 옆에가 이제 칼산ᄃᆞ리가 있습니다. 그 용궁올레 바로, 용궁올레는 바다에서 물빛으로 보고, 우리는 그 들어가 볼 수는 없고, 그 이제, 그 바로 그 붙은 곳에, 바위가 요리 일케 (한 손을 위로 높게 올린다.) 길게 뒌 데 걸 보고….

[조사자] 얼마, 얼마나 깁니까, 이만큼? (양팔을 길게 벌린다.)

[제보자] 아이 더 길어 뭐.

[조사자] 더 길어.

[제보자] 뭐 재보진 안 혓지만 상당히 길지 아마? 한 한 이십 메다 되지 않을까, 십 메다 뒈지 않을까? 그리 싶어.

[조사자] 게믄 그건 무사 칼산ᄃᆞ리옌 합니까?

[제보자] 이제 그니께, 그 이제 엿날 전설로 거기 용궁 문이고, 거기를 이제 그 지키기 위헤서 그 이제는 칼을 꼽아놧다 그러고. 거기에 관계, 그 쪽에는 전부 용궁에 관한 전설입니다. 그 저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뚝 뚤버졋어.

[조사자] 구멍이예?

[제보자] 그래서 이 동네서는 거기를 그 바위를 창꿈돌이라고 허고.

[조사자] 장꿈돌?

[제보자] 어, 저 쪽 신천에서는 이제, 고망난 돌이라고 합니다. 고망난 돌이라고 허는데, 에, 고망난 돌이라고 헷어. 이 동네서는 이제 거기가 이제 엿날 이제 용궁 신선덜이 와서 살던 곳이라고 어렴풋이 뭐 그렇게 헸어. 큰 줄거리 얘기는 없는데, 저기 그 김상헌 선생『남사록』에….

[조사자] 예,『남사록』.

[제보자]『남사록』에 뭐 직접 와 보지는 안 허고, 말만 들어서 기록헌 거 같은데, 정의현에서 뭐 이십 린가 여기에, 그 팔운석이라고 이제는 있다고 헤서, 요 기록이 이제 있습니다게. 그, 그 이제 전설은 없곡 이 팔운석이라고 헌 거 이제, 뭐냐 그러면은 중국 소설엔가 구운몽 잇잖아. (종이에 팔운과 구운을 한자로 쓴다.)

[제보자] 팔운, 이제 이거 구운 아닙니까? 이 구운이 하나 둘 헤서, 숫자를 셋어, 멘 이제는 끄트머리 숫자입니다이. 십자(十)가 쓰면 일자(一)가 들어가믄 안 맞아. 그렇잖아요? 그니까 이제, 그 구가 젤로 오래 사는 숫자이고, 제일 숫자이고 헤서 구가 두 개 부찌면은 구월 구일 뒈믄 중양헤서 멩질로 치거든. 겐 이제 구운 되면은 오래 살곡, 사람이 부러울 것이 없는 다 가진 것이주. 그 부러울 것 없는 이제 그 집안이 그 구운몽에 나오는 그 아덜 멧 성제가 그냥 죽 그냥 뭐 베슬허는 놈, 문학허는 놈, 부족헌 거 없이 심지어는 천민 아덜까지 다 있어. 산 거주. 거믄 여기도 그 구운은 누각을 지으려고 그 남해용궁에서 이제는 했는데, 하나가 부족헤서 못 지엇다 헷어. 그 이제, 남해용궁 신선 사는 곳이라고 헌 그런 이제, 뜻으로 거기를 이제 팔운석이라고 기록이 뒛어, 그래서 지방에서는 그냥, 그냥이 창문 같다고 헤서 창굼돌이러는데, 그 공식 이름은 그 이제 팔운석이요.

[조사자] 팔운석.

[제보자] 이 그 팔운석의 뜻은 아까 말헌 이제 그, 신선이 와서 이제 살려고 허다가, 하나가 부족헤서. 그니까 아홉 구름 중에 아마 뭐 하나가 부족허니까, 팔운이주, 구운인디.

[조사자] 겐 못 짓고 그냥 돌멩이들만 팔운석이옌 헨 남앗다.

[제보자] 예, 그니까 그러니까 이젠, 아무래도 그 근방에 다 그 지명이 용ᄆᆞ루고 허니까, 그런 거 용에 관한 그런….

- 핵심어 : 용궁올레, 칼산ᄃᆞ리, 남해용궁문, 송씨 해녀, 창꿈돌

W_L_112 용머리 잘린 내력

2016년 12월 15일, 서귀포시 서귀동 강창홍씨 댁, 김선희 조사.
강창홍(남, 1947년생, 서귀포시 서귀동)

[조사자] 사계 용머리 해안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없습니까?

[제보자] 용머리 전설은 다른 건데 그 용머리가 처음 얘기에는 앞으로 쭉쭉 자라고 있었다고 해. 어느 목사가 와서 칼로 어디를 못 나가게 잘랐다 하거든. 용머리에 가면 검은굴이라고 있어. 시커멓게. 밝은 굴하고 검은굴 두 개가 있어. 굴이 두 개인데 밝은 굴은 우리가 관광다니고 올라다니고 하는 데인데 검은굴은 그 조금 지낭 한 칠팔십 한 거의 백메다 가믄 금만 그어져 잇어이. 칼로 딱 자른 식으로. 사람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틈이 나 있어. 시커메. 우린 검은굴이라고 하는데 원래 용어는 모르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자] 머리가 있었는데 머리를 잘라 버렸구나예.

[제보자] 그렇지. 용두암에서 용두가 자라나는데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머리를 잘라 버리니까 나가지 못했다. 원래 용두암은 죽죽 앞으로 나갔었다 이거지. 용머리가 나가는 건데 못 나가게 자르니까 그 다음 동네에는 뭐가 있었다 허주만은. 어두운 고망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거기를 안 들어가. 우에서 보기만 하지. 너무 컴컴해서 무서워.

[조사자] 무사마씸? 컴컴해 부난마씸?

[제보자] 어? 컴컴하고 좁고. 너무 습기차고, 으스스헤이. 그 다음 밝은 골 한 데는 바로 위에 관광객들 다니기도 하는데 거기는 그런 전설은 아니고 그냥 다니거든.

- 핵심어 : 용머리 전설, 칼로 자르기, 검은 굴, 밝은 굴, 금, 용두암, 용두

W_L_113 용수 절부암

2016년 10월 2일, 한경면 용수리 김성준씨 댁, 김선희 조사.
제보자1: 김성준(남, 1946년생, 한경면 용수리)
제보자2: 김성아(여, 1948년생, 한경면 용수리)

[조사자] 절부암 얘기 해줍서.

[제보자1] 절부암, 뭐. 강사철이 그 하르방. 옛날 그 죽도가 저 차귀섬 아니가. 옛날 그디 대 끈으레 갔당 ᄇᆞ름 만낭 죽어 불엇어. 베가 풍랑에.

[조사자] 혼자 갓수과?

[제보자1] 응, 하르방이. 게난 할망은 그때 전설 그거 뭐 마찬가지. 써진 거나. 거기서 바당으로 두루 돌아다녀 봣자 춪지 못하난 절부암 낭에 목 메영 죽어 불엇주기. 게난 목 메영 죽으난 그디 이젠 그 무신거 하르방이 올란. 시체가 떠오르난 그 앞이. 옛날은 그 앞ᄁᆞ지 물이 와낫에. 우리 메와 부난 해도.

[조사자] 예, 예.

[제보자2] 질 안 헌 때는 거기 콩콩 바당물이라낫주게.

[제보자1] 그레 질 안 헐 때는 원담들 족족 해영 그거에 물 딱 들곡. 물 하영 들민 바로 그 낭 아래ᄁᆞ지 물이 들곡 헤낫주. 이제 비석도 그 안네 다 잇잖아게.

[조사자] 예, 경허고 시체 뜨난 어떵마씸.

[제보자1] 경 허영 이젠 씨어진 대로 그대로.

[조사자] 잘 모릅니다. 골아줍서.

[제보자1] 게난 이제 곧으민 도지사인가? 저 엿날 그 하르방이 중국 이야기하고 꼭 같으덴 헤영 위에 보고헤영 그것이 절부암으로 전설로 내려오는 거. 이건 실제주게.

[조사자] 예, 예.

[제보자1] 이건 실지로.

[제보자2] 그 할망 초신 멧 배 하영 ᄃᆞᆯ아매곡. 하르방 신어난 초신.

[조사자] 예.

[제보자2] 할망가 초신 등어리에 지고 허연, 이 몰레부리 다 ᄃᆞᆯ아뎅겻댄 허여. 저디ᄁᆞ지.

옛날은 걸엉만 뎅겻이난. 춪젠 몰레부리 다 뒤졋댄.

[조사자] 하르방 시체 춪젠예?

[제보자2] 으. 협재끄지. 그땐 걸엉 시예들도 걸엉 다녓져. 그 옛날.

[조사자] 경허난 초신 등에 지고.

[제보자2] 초신, 하르방 신어난 거 잇이난. 그거 등어리에 지곡 헤연. 협재 몰래까지 막 그레 헤여 봐도 생전 하르방을 찾지도 못하고 허난 이제, 할 수 엇이 살 길이 막막할 거 아니냐. 하르방 하나만 믿어내 경 헤영 살당 오난 이젠 할 수 엇이 그 낭에 목 메여다불언.

[조사자] 아이고.

[제보자2] 죽어지난 이젠 하르방 그날 할망신디 올라온 셍이라. 경 허난 그것이 전설.

[조사자] 예.

[제보자1] 거난 시체 춪으난 할망 하르방 곧지 묻언. 합장으로 묻언. 요 고산 당목이 바로 우에. 우리도 이 절부암제 아니 헌 때 그디 제 허레 갓다왓어.

[제보자2] 삼월 보름날 그 할망네만이 허는디 엇나. 동네서 몬딱 다 가그네 헤영. 이젠 하근디서 다 와.

[제보자1] 게난 옛날에 그 할망제 허젠 허난 용수 해녀들이 돈을 ᄒᆞ꼼씩 모도와근에 밧 하나 조그만헌 거 산. 절부암 밧.

[조사자] 그건 해녀들이 산 거꽈?

[제보자1] 응. 해녀들이 모안. 옛날 할망들이.

[조사자] 왜 그렇게 헨마씸?

[제보자1] 그 밧에서 나오는 걸로 제사지내겐 헌 거주게. 게난 이제까지 삼월 보름으로 결정뒈엉, 음력 삼월 보름으로 결정뒈엉 허는 거라.

[제보자2] 이것도 이칩이 할망 살 때 그 할망 주장으로 헤엿댄 헤라게. 이칩이 아니랏이민 허지도 못할 거.

- 핵심어 : 용수, 절부암, 강사철, 죽도, 차귀섬, 목 메 죽은 할망, 초신, 하르방 시체, 용수 해녀들, 삼월 보름

W_L_114 우도 김진사 물통

2016년 12월 2일, 우도면 오봉리 오봉리노인회관, 문순덕(김은정 · 정이슬) 조사.
한두영(남, 1940년생, 우도면 오봉리)

[조사자] 김진사 이야기 뭐 아는 거 잇우과?

[제보자] 김진사도 우리는 그자 들음만, 들음만 헷인디….

[조사자] 들음만 헌 거.

[제보자] 우리가 알기론 김진사가 1842년도에 개경 허가, (불청) 개경 허가를 나오고, 또 1833년도에 그분이 우도에 들어완 살앗던 모냥이라.

[조사자] 예예.

[제보자]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우도에서 진사 벼슬을 했기 때문에 관청에 가서 건의헐 사항도 그 어른이 그만헌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게서 그분이 관청에 가서 '우도가 이렇게 사름이 살고, 사람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행정구역 인가를 내줘야 뭘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행정구역 인가를 1844년도에 행정구역 인가가 나왔다 헤여. 그분이 건의했어.

근데 그 분이 우도에 살기는 영일동 튼밧집이엔 했는데. 옛날 그 디에 이젠 집을 지언 살면서 통을 팟다 헤여. 우물을 파서 이제 그 물을 먹었기 때문에 진사통이라고 이렇게 전헤지고 잇수다게. 진사통. 물통 팔 땐 우리도 모르고, 옛날이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진사통 진사통' 헤서 지금도 진사통이라고 헙니다.

- 핵심어 : 우도, 김진사물통, 김진사, 진사통, 진사, 영일동

W_L_115 우도 돌페기

2016년 12월 2일, 우도면 오봉리 오봉리노인회관, 문순덕(김은정 · 정이슬) 조사.
제보자1: 고호수(남, 1938년생, 우도면 오봉리)
제보자2: 한두영(남, 1940년생, 우도면 오봉리)

[제보자2] 사람 이름허고 지명허고 연관뒈는 데가….

[조사자] 꼭 지명 아니어도 좋수다만은. 옛날 여기 우도 저기, 소영 말이영 키워나니까 혹시 그 테우리….

[제보자2] 아 춤, 조돌페기.

[조사자] 건 어떵?

[제보자2] 소섬은 돌페기, 돌페기옌 허는 건 뭐냐면은 그 하우목동에 조씨 조돌페기란 사람이 소를 잡으라고 허면은 돌로 소를 죽인 거라마씨. 그렇게 헤서 그 조돌페기라고 헷수다게.

[조사자] 아, 그 사람을….

[제보자2] 소섬 돌페기 허는 말이 거기서 전래가 뒛수다게.

[제보자1] 아까도 (불청) 그 돌페기란 건 그 돌로도 헷주만은, 그 옛날에는 그 쒜가 엇지 안 혀꽈예. 궹이도 엇고, 쉐시랑도 엇언. 우도에서 농사를 지을라며는 엿날에는 돌로 만든 농기계가 잇주예. 그걸로 하도 땅을 파서 농사지으니까 돌페기렌 헷다는 그런 설도 잇고예.

- 핵심어 : 우도, 돌페기, 조돌페기, 하우목동, 소섬

W_L_116 우도 득성이코지

2016년 12월 2일, 우도면 오봉리 오봉리노인회관, 문순덕(김은정 · 정이슬) 조사.
제보자1: 고호수(남, 1938년생, 우도면 오봉리)
제보자2: 한두영(남, 1940년생, 우도면 오봉리)

[조사자] 득성이코지예. 거 한 번 골아줍서.

[제보자1] 예, 득성이코지란건예. 아, 어떤 사람이 저 우에 종다리서예. 종다리서 우도는 옛날에 그 소덜을 많이 키우지 안 헷수가예. 아, 보니까 우도에 왓어예. 뭘 저, 아이, 종다리서 농사를 짓다가 그 사름이 우도에 와서 득성이 보니까, 종다리 그 머슴이 자고 잇거든예. 거니까 그 코지에서 '득성아, 득성아' 불럿어. 게서 깨왓다는 그런 설이 잇어. 득성이코지라고 잇고,

[조사자] 그 득성이코진 어디 있는 겁니까?

[제보자1] 쩌, 거시기 산호사와 동천진동 그 사이에.

[조사자] 산호해수욕장 있는 그쪽에?

[제보자1] 예.

[제보자2] 산호사허고 하우목동 포구와 산호사, 그 사이에. 그 저 쪼끔 주짝허게 나온 여가 잇수다게. 그디가 종다리허고 가까웁주마씨. 2.8키로미터벢이 안 뒙주.

[조사자] 아, 경허난 득성아, 득성아, 불르난….

[제보자2] 예. 득성이는 사람이주. 득성이옌 헌 사람이 종다리에 있는 하인 보고 '께낭 일 헤라.' 그렇게 고함쳐….

[제보자1] 보니까 잠자고 잇이니까 거기서 불럿어. 그 머슴을 불러서 일을 시켰다는 거라.

[제보자2] 날이 밝았으니까 일을 헤라고 헤서 득성이가 그 코지에 사서 종다리에 있는 하인 저….

[조사자] 아, 득성이가 득성이코지에 산 종다리를 바라보면서, 하인은 종다리 사니까.

[제보자2] 예, 하인보고 일어나서….

[조사자] 일헤라, 일헤라.

[제보자2] 그 자리가 득성이코지…. 게난 득성이렌 헌 사람이 겅을 했기 때문에, 그 지명을 득성이코지라고….

- 핵심어 : 우도, 득성이코지, 득성이, 하인, 종다리, 산호해수욕장, 하우목동, 산호사

W_L_117 월계 진좌수와 묫자리

2016년 10월 19일, 한림읍 명월리 오관봉씨 댁, 이현정 조사.
오관봉(남, 1931년생, 한림읍 명월리)

[조사자] 월계 진좌수가 어떤 사람마씨?

[제보자] 월계 진좌수가 본래 멩월 출신이고.

[조사자] 예, 명월.

[제보자] 에, 옛날에 소학당이라고 어디 서쪽이 서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에, 공부를 허레 배우레 가는 도중에, 자꾸 중간에서 곱닥흔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어, 좀 말을 헷다 헤여.

[조사자] 꼬실라고?

[제보자] 응, 꼬실려고. 아 그렇게 헤가지고, 서당에 가면은 선생이 허는 말이,

"너는 왜 그렇게 어, 몸이 약해지냐? 얼굴이 더, 점점 빠지고 있다. 너 뭔 일이 있느냐?"

"뭔 일은 엇는데, 내가 오는 도중에 어떤 아가씨가 와가지고, 에, 구술을 갖다가 입에 물라고 헤여가지고 이제, 헤도 이렇게 헌 안 물었습니다. 안 물었는데, 에, 그런 아가씨가 서너 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선생헌테 얘길 허니까, 선생이 허는 말이.

"그러면은 그 구슬을, 에, 입에 놓고, 노라고 할 때는 첫째는 에, 하늘을 보고, 어, 두 번짼 땅을 보고, 세 번째는 사람을 보라."

이렇게 헤가지고 허라고 이젠, 지시를 헷어. 이젠 그래서 이젠 그 말을 들어가지고 이젠 그것이, 에 음 또 가는 도중에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멧 번을 헌 모냥이야. 그런, 그래서 헤가지고 허니까, 그 선생 허는 말을 들어가지고, 몸이 상당히 쉐약헤가니까. 그 말을 들어가지고 이젠 그런데 선생 허는 대로, 그걸 했어. 헤엿는데, 그것이 좀 그걸 심지고, 하늘을 베려시민 천지 박사가 뭘 거고, 땅을 봣이민 지리학이 박사가 뭘 건데 사름을 보니까 넌 으, 의사.

[조사자] 의사.

[제보자] 의사를 어, 허라. 이렇게 헤 가지고 헤엿는데. 그 사름이 그, 결과적으론 죽어가지고 지금 동명 경에 어디 저거 산, 산이 있어. 동명 경. 동명리라고 잇지? 동명리. 동명리에 그, 어디 그, 월계 진좌수 어 산이 잇어. 어, 그래서, 에, 거 어떤 말인진 모르지만은 에, 그 사름이 그때에 이, 에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름을 보라 영 헤노니까 사름을 봐 노니까 좀 벵에 대헤가지고 좀 뭣이 있는 거 같애. 그래서 사름이 아파가면은 그 월계 진좌수 산에 가가지고, 좀 이불도 ?장 가가

지고, 눅곡 영 허면은 좀, 낫다고 헤여.

[조사자] 그럼 이불이랑 다 들렁 강 거기 무덤에서.

[제보자] 어, 거기에서. 봉분에 봉분 안네 가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허고, 바로 이 집에 (손가락을 뻗어 위치를 가리키며), 여기, 이 집.

[조사자] 요기?

[제보자] 응. 이디 이젠 집을 아니, 이 집에 살던 사름이 날보단 서너 네 살 우잇 사름인데, 에, 여기 살면서 아파가지고 헐 적에. 에 것도 진칩이 사름인데, 진간데. 진 거세긴데. 에, 그 산에 가가지고, 메칠 간을 다녓어. 다니니까 좀 나앗다고 헤여. 이렇게 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죽엇는데. 그, 거 이디 ○○이 아덜 이름이 뭣고? 그 진…. ○○ 그 큰 아덜, 진○○이. ○○이옌 헌 사름인데.

[조사자] 진○○

[제보자] 응, 그레 가서 저디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이불이영 ᄀᆞ정 가가지고, 메틀 간을 갓다가. 아 그렇게 헤가지고 허니까 조끔 낫다고 이런 이야기를 허니까, 모르지. 난 인제 모르지, 그런 그 전설이 있어.

[조사자] 몇 년 전마씨, 이게.

[제보자] 뭐 한 그 사름이 가서 헐 적에는 날보다 혼 인제 혼 아흔쯤 낫일 거라. 아흔쯤 낫는데. 흔 삼십년?

[조사자] 삼십년?

[제보자] 지금 전에 뒛일 거야. 삼십년.

[조사자] 명월에 그믄 지금 진좌수 후손들은 안 삽니까?

[제보자] 여기, 원래 그 후손들이 어디 있긴 있어. 저 고림동에도 있고, 뭐 진칩이 사럼들이 다 후손으로 봐야지.

[조사자] 아까 무슨 동마씨? 구….

[제보자] 동명리.

[조사자] 동명리, 아까는 구 무슨 동에도 있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보자] 아니, 아니.

[조사자] 동명리에 후손들이 있고?

[제보자] 아, 저 고림동에, 고림동에도 있어. 그러니까 저 동, 후손들은 그 진칩이 사럼들이 거 후손들이지.

[조사자] 어, 그렇구나.

[제보자] 그런 지가 그, 월계 진좌수는 경 오랜 사름도 아닌 거 같애.

[조사자] 오랜 사람 아닌 거 닮아마씨?

[제보자] 어, 응.

- 핵심어 : 월계 진좌수, 명월리, 구슬, 으사, 봉분, 묫자리

W_L_118 월림리 세굿동산과 도체비

2016년 11월 23일, 한림읍 월림리 부원여씨 댁, 이현정 조사.
부원여(여, 1923년생, 한림읍 월림리)

[조사자] 그믄 옛날에 이 동네 뭐, 도깨, 도체비 나왓다. 이런 얘긴 들어보션마씨?

[제보자] 그런 말이사게 엿날에사 저, 비나 오젠 허믄 도체비가 하간디 발견됀 헤낫구나만 은게.

[조사자] 어떵, 어떵헹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덴마씨?

[제보자] 어떤 무슨, 어떤 무신 요만이, 질이는 요멘이 허고, 펠록펠록 펠록펠록 허멍. 나도 그런 거 봐낫어.

[조사자] 봐낫어마씨?

[제보자] 응.

[조사자] 월림에 어디에 도체비가 잘 나온덴 헙니까?

[제보자] 저디 저디 저, 이젠 잘 아이 나온다게.

[조사자] 어디서 잘 나온덴마씨? 옛말에.

[제보자] 엿날엔, 저래 저, 세굿동산이옌 헌디 이, 욜로 영 큰 일 허레 가민 그디 영 질도 크니까. 크주, 춤, 크게 안 혀고 헌 때난 그 소낭밧 설덕에 나낫지만.

[조사자] 아까 무슨 동산마씨?

[제보자] 세굿동산, 세굿동산.

[조사자] 세, 세.

[제보자] 세, 굿, 동, 산.

[조사자] 세굿동산.

[제보자] 응.

[조사자] 어, 그 세굿동산이옌 헌 데가 도체비가 많이 나와?

[제보자] 어, 거기 많이 나.

[조사자] 그믄은 거기는 나.

[제보자] 비나 오람직 허면은 나왓주기게.

[조사자] 아, 비 많이 오면.

[제보자] 비, 저, 많이 올 것이 아니고. 구월이 나면은 구월 마ᄇᆞ름 불엉 껀 허게 비오란 좋지 아니헤게. 그때는 그게 그 도체비덜이 왕성헤거지고 펠록펠록 그 질레 뎅기멍, 요영 베리멍 헤낫저.

[조사자] 그믄 그 도체비 때문에 놀라난 사람네도 많았겠네?

[제보자] 아니, 놀래는 사름 엇어.

[조사자] 그믄 도체비 나오믄 그냥 도체비구나 영 해?

[제보자] '저거 도체비 낫구나 비 오켜.' 영 허주기게.

[조사자] 도체비 나오믄 비 옵니까?

[제보자] 어, 게. 비 오람직 헤사 그런 것도 나오주기게. 날이 어중간 칙칙헤서 이 ᄇᆞ름도 이렇게 하니ᄇᆞ름이난 쎄면은 삭삭허고, ᄇᆞ름이 마ᄇᆞ름이나 동쪽 ᄇᆞ름이나 불어가사 도체비도 나곡 허는 거.

[조사자] 아, 기구나예.

[제보자] 응.

[조사자] 그믄 도체비가 사람헌테 해꼬지허거나 이런 건 엇고?

[제보자] 아이, 엇고게.

- 핵심어 : 월림리, 세굿동산, 도체비, 비, 마ᄇᆞ름

W_L_119 유수암 오방신장석

2016년 10월 16일, 애월읍 유수암리 강충희씨 댁, 문경미 조사.
강충희(남, 1938년생, 애월읍 유수암리)

[제보자] 우리 마을에는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게. 그것을 신장석이라고 하는데. 동쪽에는 천제장군석, 속칭 선돌선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보통 무슨 왓. 무슨 밧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유독 선돌선, 선돌이라는 건 입석을 말하는데, 그리고 밖으로 봤을 때는 붓봉오리, 필봉이라고 합니다. 또 서쪽에도 돌이 있습니다. 큰 왕석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백제장군석이라고 합니다. 층이 많아요. 층다루라고 하는데. 층 위에서 장수가 변방을 내다보는 수비장군. 그다음 양쪽에는 모남돌이라는 광석이 있습니다. 모남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적제장군석이라고 합니다. 붉을 적자. 그다음 북쪽에는 두광석이라고 해서 큰 왕돌이 있는데, 이걸 흑제장군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길목을 지킨다고 해서 수문장군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솔동산석이라고 해서 돌이 좀 작아예. 크지도 않은 건데 그 조그마한 동산 위에 돌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저울추형 같다고 해서 비록 작지만 참관을 요량할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를 황제장군석이라고 합니다. 이 돌을 일컬어서 솔동산이라고 합니다. 왜 솔동산이냐, 동서남북의 사방 신장석을 거느리고 있다. 중앙에서가 거느리고 있다 해서 거느릴 솔자를 써서 솔동산. 이렇게 칭해옵니다.

그래 이 연원이 어디서부터 생겼냐 ᄒᆞ며는 옛날에 유수암에 강언망이라고 아주 풍채가 늠름하고 영걸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안 강풍헌이라고 해서. 신안이라고 하면 귀신같이 밖을 본다. 풍헌은 지금 읍면장이 풍헌인데. 신안강풍헌이라고 해서 풍수지리에 달통한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또 제자가 있었어요. 이대상이라고 문과급제한 사람. 근데 이 이대상이라는 분도 비보를 잘했습니다. 강풍헌이 동쪽마을에 살아요. 한번은 동산에 올라가서 사방을 관망하면서 있었는데 제자가 찾아갔어요.

"너 왔느냐. 비복을 잘 한다지?"

"잘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도 어지간허니까 소문이 났겠지." 하면서

"저 밖에 말 두 마리가 누워 있다. 하나는 적다말이고 하나는 자라말이다. 어느 말이 먼저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그 제자한테 물었어요.

"적다말이 먼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 난 자라말이 먼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럼, 기다려 보기로 하자."

하고 기다리는데, 적다말이 먼저 일어날 것처럼 꿈틀꿈틀 허는데, 갑자기 자라말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니까 선생이 이긴 거라.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자라말이 먼저 일어날 것을 일측했습니까?"

"적다는 불을 상징하는 거고, 자라는 연기를 상징하는 거다. 불이 일어나기 전에 연기가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자라말이 먼저 일어날 걸 예상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계속하는 중에

"갑인년에 대흉년에 우리 마을에서 한 사람의 아사자도 없이 무사히 지난 이유를 네가 알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다. 그 이대상도 갑인년에 문과급제하였어요. 그 태풍이 오기 전에. 태풍은 음력 팔월 이십칠일 추석이 넘어서 왔어요.

"사뭇 풀 한 포기 남김없이 곡식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갑인년 대흉년이라고 하면 정말 풀 한 포기 없이 싹 쓸어버린 흉년인데.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한 사람의 아사자도 없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오방신장석의 보호가 있어서 그렇다."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마는 강서후라는 통정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부자였어요. 그분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사람마다. 흉년에 대비해서 곡식을 좀 쌓아두는 경향이 있고 그랬다가 흉년을 나는데.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오방신장 말을 헤여.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을은 돌림병 같은 흉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백년 동안 돌림병 같은 나쁜 병이 사람은 물론 가축에도 없어요.

- 핵심어 : 오방신장석, 솔동산, 입석, 필봉, 말, 갑인년, 선돌선, 백제장군석, 층다루, 황제장군석, 강언망, 감풍헌, 적다말, 자라말

W_L_120 유수암 이좌수와 강훈장

2016년 10월 16일, 애월읍 유수암리 강충희씨 댁, 문경미 조사.
강충희(남, 1938년생, 애월읍 유수암리)

[제보자] '이좌수 난리'라고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구한말에. 그 당시에 전세, 전세라면 화전밧 갈아먹으면 세금 내는 뭐 그런 세금이 아주 독했습니다. 그때 이좌수가 아주 직성이 강직하고 이제 아주 곧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좌수 모친이 사망해가지고 마지막 대상 때, 하귀리 김진사가 와서 김지라고, 진사가 있었습니다. 진사가 와서

"좌수로서 이렇게 세금이 독하고 민생이 어려운데 그대로 방관만 할 거냐. 이걸 그냥 두지 말고 바로잡을 연구를 하자."

해서 이좌수하고 김진사하고 송개홍이라는 사람 있었어.

[조사자] 송개홍?

[제보자] 송개홍, 예. 힘이 장사고 정말. 건데. 이 사람들이 모의를 해서 바로잡자고 약속을 했는데, 김진사가 관청에 갔다가 아전들 보고

"너 이놈들 너무 먹당 배 터진다이."

이렇게 엄포를 노니까 아전들이 답례로 돈을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하귀까지 와서 김진사에게 바치니까, 김진사가 그 돈 먹고 물러앉아 버린 거야. 이러니까 이제는 일이 안 될 거 같으니까 송개홍 보고 김진사란 놈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누구에게 얘기하냐 하면, 아라동에 강문장이라고 이좌수의 사위인데 강문장이 거기서 훈장질하면서 학생 수가 제주향교보다 더 많아.

때마침 단발령이 내렸습니다. 머릴 다 깎으라. 경 헹 이좌수가 뎅기다 보니까 그런 단발령 광고가 붙어 있는 거라.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불평을 하니까 군중을 선동하는 놈이라고 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 불엇어요.

그러니까 송개홍하고 아라동 강문장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작당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며 군중을 거느리고 가서 옥문을 부수고 이좌수를 꺼내오고 김진사를 타도하려고 싸우는데, 이좌수는 광평에서 김진사의 졸개들에게 칼 맞아서 죽었어. 송개홍은 김진사의 집을 다 불지르고 김진사도 죽였죠. 송개홍도 나중에는 자결해 버리고 아라동 강훈장이라는 선생은 나중에 도망쳤는데 아들과 조카들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강훈장만 유수암에 와가지고 몰래 남의 밥 얻어먹고 살다가 세상을 마쳤어요.

- 핵심어 : 이좌수, 강훈장, 김진사, 아라동, 유수암, 송개홍

W_L_121 유수암 종신당

2016년 10월 16일, 애월읍 유수암리 강충희씨 댁, 문경미 조사.
강충희(남, 1938년생, 애월읍 유수암리)

[조사자] 김통정에 대한 것은 이 마을에서는 어떤 거?

[제보자] 그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없는가? 김통정 장군이 올 때에 거기에 아주 높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산세가 아주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까 저 동산 아래 샘물이 솟아오르는 게 보였다.

'아. 여기 사람 살 만하다.' 그래서 암자를 하나 지었어요. 그 암자 이름이 '태암감당'이라. 신을 모시는 당을 '감실'이라고 해요. 불사를 했는데. 다음 해에는 창건을 해서 '태암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염주를 만드는 무환자 나무를 심고, 뜰 한 모퉁이에는 '태암사'라는 석비를 세웠습니다. 통정 장군 휘하에 있는 세력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돌아보고서는 좋으니까 군데군데 집들을 지었습니다. 집들을 지어서 사는데 조그만 촌락이 된 겁니다.

또 김통정 장군 모친이라고 하는 분이 수하를 데리고 와서 저쪽 양지 바른 곳에 흘러가는 물 가까운 곳에 가서 흙으로 무덤처럼 토옥을 지어 그 속에 살면서

"무덤에 불빛이 안 보이거든 입구를 막아 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살다가 언젠가 '불빛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죽었구나.' 해서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자연적으로 무덤이 된 겁니다.

[조사자] 그럼 그 유수암천 옆에?

[제보자] 네. 유수암천 흘러가는 저 밑에 양지바른 곳에.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종신당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명을 마쳤다고 해서 종신당. 칠십일년도에 제대했는데 제대행 와 보니까 도굴당했어요. 그 말엔 뭐 촛대도 나왔다 뭐도 나왔다 허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려서 평지되어 버렸어요.

[조사자] 밭입니까? 길입니까?

[제보자] 밭. 길 옆에 밭. 한쪽으론 길이고 한쪽으론 밭.

[조사자]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통정 장군의 모친?

[제보자] 그 스님이 태암감당 태암사를 지은 그 스님이 척화스님이라고 전해옵니다.

- 핵심어 : 종신당, 유수암천, 태암감당, 태암사, 김통정, 척화스님

W_L_122 유수암 통정대부 강문장

2016년 10월 16일, 애월읍 유수암리 강충희씨 댁, 문경미 조사.
강충희(남, 1938년생, 애월읍 유수암리)

[제보자] 이 분이 육십수세 되는 해. 노인이죠. 옛날엔 환갑이 넘었으니까 노인. 음력 사월만 되면은 풀이 돋아요. 마굿간에 매었던 소와 말들을 내보냅니다. 망종이 되어야 보리도 익고 씨를 뿌리고 낫가리를 헤여야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수월 초순에 소와 말을 들에 놨는데 어찌됐나 하고 돌아보레 나갔어요. 나갔는데 보니까 저 상동에 검은덱이, 상동에 사람이 이제 바로 쉐 부자가 되가지고, 부자발명을 허는 사람이 있는데 젊은 사람인데 암소랑 그 일부리는 일소를 다 몰아들이는 거예요. 밧으로 다 몰아가지고 한밧에 가두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필시 무슨 농사를 지으려나 보다.' 하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아닌게 아니라 장남이 소를 몰고 와서 밧을 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씨앗을 뿌려서 밧을 갈까하고 뿌릴 씨앗이 있다며는 좁씨밖에 없는데 콩도 아니고 팥도 아니고 지금 뿌릴 건 조 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필시 조농사를 지으려나보다. 망종이 멀었는데, 예부터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할망보고 밧 갈러 나갈테니 좁씨 좀 내 놔서 달라하니, 할망이 펄쩍뛰면서

"지금 망종도 아니 되었는데 이 하르방 어떵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해 봐야겠다고 해서 종놈들 시켜가지고 쟁기지고 소 몰고 갈아가지고 훈 오백평 갈아가지고 씨 뿌리고 밧을 불리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해요.

"지금 농사철이 아닌데 무슨 농사를 짓느냐?"

"조농사 짓는다."

아 강문장 정신이 돌앗나불엇다 야단들 해요. 그래서 하도 그냥 웃고 떠들고 하니까

"에이, 그만하자." 하고.

겨우 그 조그만 오백평짜리 밧 하나만 갈고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씨앗이 잘 나서 잘 커요 그냥.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리철이 끝나서 농사를 하니까. 마침 한기가 들어서 씨가 잘 서지 않아요. 허니까 강문장만 농사를 잘 하는데. 망종 전에 한 거니까 추석 전에 수확을 했습니다. 추석 전에 수확을 헤가지고 ᄒᆞ니

"허이구, 이추룩 해도 되는 거로구나."

아 이렇게 이제 허면서 수확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갑인년인데 정조 십팔 년 갑인년인데 음력 팔월 이십칠일 날 난데없는 태풍이 몰아닥쳐서 싹 쓸어서 그냥 풀 한포기 남아나지 않고 곡식은 커녕 풀 한포기 남아나지 않고 다 뭐 폐허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처에서 먹을 것을 두고 아귀다툼을 하는 양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보니까 씨앗을 준비해서 명년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게 못한 거예요. 또 간 사람도 먹어버렸어요. 그냥.

[조사자] 먹을 게 엇이난예.

[제보자] 유수암 강문장이 농사를 지어서 좁씨가 있단다 하니까 대정 정의 할 거 없이 향교에 많이 다녔으니까 만나지 못한 사람은 편지로 '좁씨 한 홉만 청구하옵니다.' 그 서생 나중에 감사의 편지 답신까지 문답(서류담는통)으로 하나가 넘었어요. 그런데 돈 받고 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다 주었어요. 이 사실을 나라에서 아니까 통정대부 교지를 내려 주었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했죠. 그런데 그 검은덱이 사람은 밭문서가 문답으로 하나라 거기는 망했어요. 정찬 후손들이 잘 되었어요. 굶어죽은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유수암은 강씨촌이 된 겁니다.

- 핵심어 : 강문장, 갑인년, 통정대부, 유수암, 조농사, 좁씨, 검은덱이

W_L_123 유수암 홍좌수

2016년 10월 16일, 애월읍 유수암리 강충희씨 댁, 문경미 조사.
강충희(남, 1938년생, 애월읍 유수암리)

[제보자] 유수암 땅이 처음에는 항파도성의 김통정 장군이 삼별초군을 이끌고 웅거할 때에 여기에 조그마한 촌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몽고군이 제주도를 점령해서 여기를 목마장으로 삼아가지고 수탈과 착취를 할 때에 발각이 돼서 이제 모두 평정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무주공산으로 있다가 이조 선조 때 지방토호의 한 사람인 홍덕수란 사람, 좌수였어요. 제주지방군청의 좌수였는데 그 사람이 고달천, 극락천 등등에 사는 사람들을 이곳에 모으고 자기도 식솔과 일가친척들을 데리고 와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일을 했죠.

샘물 이것을 수축해서 먹는 물과 채소 씻는 통과 빨래하는 통을 구별했고, 소와 말이 먹는 못을 만들어 놓고 또 물이 흘러가는 곳을 수로를 잘 정비해서 그 유역에 논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게도 하였고,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버리든가 아무렇게나 묻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옴으로써 조상숭배사상을 아주 고취시켜 장례절차를 다 마련했어요. 그분이 이웃마을과 교통도 하게 하고 제사지내는 법도 다 만들었고, 자기가 사당을 직접 지어서 조상숭배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분이 그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방토호이고 사치생활을 하면서 노비들을 많이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호령해서 뭘 갖다 바쳐라 하고 어려운 사람들 것을 많이 착취하고 갈취하는 나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노비를 데리고 유수암 동동네 토성 속에 내가 있는데, 거기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인근마을 상귀나 하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산에 가서 농기구 만들기 위한 나무를 한다든지 땔감을 해간다든지 해서 등짐을 해서 내려가고 있으면 “내 집에다가 두고 가라.”고 호령을 했어요.

안 듣는 사람은 노비를 시켜서 매닥질을 하고 아주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들고 오던 짐을 홍좌수 집에 두고 맨몸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뒷날은 고달천 거기 가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 집에 두고 가라고 호령을 하는 거야. 그러면 무서워서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서민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노비들 중에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홍좌수가 제주성내를 갔다가 돌아온다는 말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노비 중에서 ‘기회는 왔다. 이 사람을 죽여야 우리 서민과 약자들이 산다.’ 그렇게 여섯 명이 모의를 해 놓고 기회를 보는 거라. 그런데 김상남이라는 사람이 이

건 옳지 않다 해서 해안 쪽을 내려가서 신작로, 일주도로, 밤중에 홍좌수를 찾아서 만났어요. 홍좌수가 밤중에 찾아온 걸 보니까 종놈이라.

"네가 웬 일이냐?"

"주인님 지금 여섯 명이 주인님을 해꼬지하려고 어신내에 와서 잠복해서 결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어, 그러냐. 알았다."

그래가지고 좌수는 날이 밝으니까 제주 목사한테 가서

"나를 해꼬지하려는 몇몇 사람이 엇이네에 있다고 합니다. 매복한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군사가 필요하니 군사 십여 명만 나에게 딸려 보내 주시오."

하니까 군사 십여 명을 붙여줬어요. 군사들은 길로 오지 않고 우회해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느 재나 오나 하고 길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헌데 길 우쪽으로 군사들이 돌아와서는

"네 이놈들"

하고 호령하니까 놀라서 군사들이 휘둘른 칼날에 저승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홍좌수는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시침 딱 떼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에 와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태연하게 밥을 먹고 종들을 불러서는

"너희들은 밑에 가서 굴을 파라."

고 시켰어요. 그러니 굴을 깊이 파 들어갔어요. 그 여섯 사람의 가족들 삼십 명이 되는 사람을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들어가니까 장정들을 시켜가지고 굴을 막았어요. 그렇게 삼십 명 가까운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을 속칭 '주거니굴왓'이라고 합니다.

[조사자] 아하, 주거니굴왓.

[제보자] 그렇게 했는데, 홍좌수가 그렇게 악행을 했는데, 슬하에 딸밖에 없었어요. 딸밖에 없어서 죽으니까 외손봉사를 허는 거죠. 외손봉사를 하다가 대가 끊어지니까요 밑에 정주왓이라는 데에 장묘로 모셨어요. 해마다 마을 청년회에서다가 그래도 마을 설촌한 사람이니까 벌초는 해 준다 해서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사자] 끝은 별로 안 좋다예.

[제보자] 예. 홍좌수가 감나무를 심었던 곳을 '감낭우영', 유자나무 심었던 곳을 '유자다로', 꽃나무 심었던 곳을 '고장밧', 사당을 지었던 곳을 '사당우영'이라고 속칭이 붙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 핵심어 : 유수암, 김통정, 홍좌수, 엇이내, 주거니굴왓, 김상남, 강낭우영, 유자다로, 고장밧, 사당우영

W_L_124 이도령과 춘향이 춤추던 바위

2016년 12월 7일, 서귀포시 서호동 허노생씨 댁, 김선희 조사.
허노생(여, 1932년생, 서귀포시 서호동)

[조사자] 요 동네 얘기 헤줍서.

[제보자] 호근동에 각시바위, 우리 서호리에 고근산. 몰라게, 잊어비엉 알아지크라. 고근산 생기난 우리 마을이난에 고근산 의지로 헹 우리 잘산댄 헤여.

[조사자] 아, 의지헤영. 각시 바위는 무사 각시 바위마씸?

[제보자] 몰라, 옛날. 무신 이도령인가, 춘향이 왕 막 춤추당으네 각시가 강 털어져 부난 죽엇주게. 경 허난 그때 일름을 각시바위. 우리도 그거 들은 소리. 중간에 들은 소리.

- 핵심어 : 호근동, 서호리, 각시바위, 고근산, 이도령, 춘향이

W_L_125 이어도와 토끼간

2016년 11월 9일, 구좌읍 세화리 조흥순씨 댁, 송정희 조사.
제보자1: 김순자(여, 1947년생, 구좌읍 세화리)
제보자2: 조흥순(여, 1924년생, 구좌읍 세화리)

[제보자1] 또 그 어디냐 그 이어도 그디가 이제 엣날에는 거기서 임금도 잇어나곡 저 왕도 잇어나곡 다 잇덴 허드라고. 이어도 섬이 이젠 물로 뒈 빗덴 허는 거라. 거기가 엣날에 그 저. 뭐냐? 거 바당 속에 임금ᄀᆞ라 뭐렌 허느니?

[조사자] 용왕, 용왕.

[제보자1] 용왕님, 용왕님. 용왕님 살곡 이제 그 이제 뭐헤신디 그 뭐냐 이제 그 이제 거기 공주가 아파가지고 아파서 이제 허니깐 그 토끼간을 먹으민 낫넨 헌 모냥이라. 이제 그 토끼 토끼 거북이가 이제 그 헤염쳐네 이제, 테와네 나와네 토끼간 보네 어떵 어떵 헤난 잘 몰라.

[조사자] 거기가 이어도마씸? 용왕 사는 데가?

[제보자1] 거기가 엣날에 섬이라렌 섬. 섬이 아니고 이제 저 육지. 그 그 후에 그디가.

[조사자] 나중에 물 속에 들어가비언?

[제보자1] 응.

[조사자] 응 이어도가. 경 헹 거기 사는?

[제보자1] 용왕덜이 살앗덴 허는 거라. 거기. 게난 이제도 절로도 허주게 요왕맞이. 심방도 헹 가고 가민 이제 용왕님이 헹 거기 지 쌍 묻곡. 또 다 그디 강 이제 밥허곡 고기 굽곡 떡도 헹 가지양?

[제보자2] 이제 잘 안 헹.

[조사자] 게난 공주는 아프난 토끼간은 구헹 먹언마씨? 거북이가?

[제보자1] 구헹 먹엇일 거라게. 경 허곡 그때 용왕님 용왕님 살앗덴 허드라고. 저디 이제 서편이 가민 그 이어도렌은 안 허고 아, 서편이 가민 섬이 물속에 큰 섬이 바당 가운데 잇는 거라. 큰 섬이 이제.

[조사자] 거긴 이어도렌 안 허고?

[제보자1] 응. 그 섬이 엣날에 밖에. 이제 그 제주도ᄀᆞ치 올라 왓덴 허는 거라. 엣날 사름덜은. 가운디 섬은 그거 뭐헌 것도 아니라양?

- 핵심어 : 이어도, 용왕, 공주, 토끼간, 용왕맞이

W_L_126 이한우 선생의 가르침

2016년 11월 20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이현정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제보자] 육지서 좀 글 ᄒᆞ는 사름도 제주 가면은 거, 내가 가서 잘ᄒᆞᆫ다고 ᄒᆞᆫ 번 재고 오겟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허고 그런단 말이여. 그런데 이제, 이름이 아마 창현, 김창현이고, 이용식이라고 헌 양반이 전라도 강진 양반이여.

[조사자] 전라도 강진요? 네.

[제보자] 글을 아주 잘 지어. 그래서 인제, 제주도를 인제, 유람 오면서 '내가 가서 제주도 가서, 이제는, 좀 어디 가서 좀 폼 좀 재고 올라.'고 ᄆᆞ음 먹고 왓단 말이여. 그래서 이제 베에서, 옥이 깨져서 하늘과 땅이 움직거린다. 게, 여기 이제 베 타서 오니까. 물결이 ᄋᆞ리 일 거 아니요. 그 하연 것이 옥ᄀᆞᆮ아서 이 물겔이 깨어지니까. 게서 글자가 아, 이제 거 잘 지어진 걸로 폼을 재고 제주도에 왓어. 와가지구 이제는, 그때에 지금 저 대기고등헉교 잇는 바로 그 밑에가 메촌이여, 멘촌. 메촌, 메촌 헷어 옛날에는 그래.

인제 근데 거기 이제 이한우라는 학자가 한 분 계셔. 이한우라고 헌 분네여. 이 그 양반이 이제 거기 사름이여. 그 양반 기념비가 화북초등학교 입구에 가면 세와져 잇어. 그래서 이제 선비끼리 만나니까, 이 김창현 이 분네가 이제 폼 재가지고

"내가 오늘 나가 베에서 그 한 수, 구절을 얼른 생각낫는데."

아, 그, 뭐 기억, 자기 속으루는 자랑을 허면서도

"글이 됐는지 말았는지, 한 번 좀 봐주십시오."

헤서 요렇게 이제는 써서 ᄋᆞ리 보엿어. 그리고 이제 이한우가 봣어, 봣는데.

옛날은 ᄋᆞ렇게 이제, 이, 여러 사럼 이제 과거 공부를 어떻게 허냐 허면, 이게 글 짓는 거요. 요렇게 이제 선생님이 제목을 내주면은 요게 ᄋᆞ레 글을 지으는 거요. 지면은, 이제는 요렇게 요 점 찍잖아, 요거 잘됐다는 부분이요, 요거 점 찍은 것은. 점을 많이 맞으면은 이제, 그것이 그것에 따라거지고 허는데. 안 뒈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요렇게 이건 안 됐다는 거여.

[조사자] 일자로 긋는구나?

[제보자] 예, 그러면은 요거 맞으면은 요거 두 점이 감해. 요 점도 맞고 요거 맞고 그른디, 요거 맞아불민 요 두 점이 마이너스 해야 돼요. 이거이 제일 이제는 저기, 안 됐다는 뜻이라. 그니께 이제, 아까 말헌 거 이렇게 써서 이제 놔보여

"뭐 글이 됐는지 모르것습니다, 봐 주십시오."

허니까 요리 보고는, 옆에 이렇게 붓이랑 베루랑 있는데, 걸로 요리 해서 요리 점을 찍거나, 줄을 긋거나 그렐 거 아니요? 아, 근데.

[제보자] 그 붓은 놔두고 저기 저, 화로여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조사자] 화로?

[제보자] 응, 저거 화로요. 저 안네 숫 잇잖어. 일부러 일어삿어 가서 숫을 갓다가 숫으로 이렇게 딱 그냥, 그어 분 거여.

[조사자] (웃음)

[제보자] 이 선비로서는 이 엄청난 챙피여. 이, 이게 작데기 맞는 것이. 아, 근디. 붓으로도 안 허고 일부러 가가지고 숫으로 이렇게 헌단 말이여.

[조사자] 왜 그랬지? 먹물이 아깝다 이건가?

[제보자] 먹물이 아깝다 이거지, 이거, 이거. '글도 아닌 거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글 지었다고 허느냐?' 이거 그, 먹물 아까워 그니께 숫으로 이렇게 그어빈 거여. 아, 그니까 이제, 이, 이 양반이

"아, 이거 좋잖습니까? 옥이 깨어지니까 천지가 움직여 물겔이 동글동글 옥ᄀᆞ따서 그 표현이 잘 되지 않았습네까?"

"무슨 놈으 물겔이 깨진디 천지가 동허냐? 만약에 여기다가, 우레 뢰자. 우레가 깨어지면은 천지가 움직거린다면은 말이 되지만은."

시라고 허는 것은 그냥, 그냥 풍월 헌다고 그냥, 아무 글자나 그, 멋진 글자 갔다 부찌민 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게, 이게, 우레가 깨지믄 천지가 움직거린다믄 그런대로 말이 되지만은, 바닷물겔 깨진디 무슨 놈으 천지가 움직거려?

[조사자] 그렇죠.

[제보자]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여. 게, 시는 이게 풍월이라고 좀 허풍 많이 허는 거요. 그러지만은 그니께 이 사름이 기가 푹 죽언.

"아, 나가 이거 제주도 와서 잘못허다가 가는 디마다 코 다치것다."

제주도에 오래 살앗어. 이 양반도 우리 제주도에, 이제, 시 지어놓은 것이 많어. 그래서 이제는, 홈부러 그렇게 그, 제주도를 허지 않는다.

[조사자] 괄시허지 않았다.

[제보자] 어, 그렇게 와서 구경을 헌 사름은 제주도 괄시를 안 헷고. 그렇지 안 헷어. 반촌놈들은 서울 촌놈덜은 그 말새끼 나믄은 보내라 그랫어.

- 핵심어 : 이한우, 이용식, 과거 공부, 숫, 먹물

W_L_127 일로전쟁과 환해장성

2016년 10월 22일, 성산읍 신산리 김옥종씨 댁, 이현정 조사.
김옥종(남, 1924년생, 성산읍 신산리)

[조사자] 이 성산리에는 유명한 옛말이 뭐가 잇이카마씨? 할아부지.

[제보자] 글쎄, 엿말 유명헌 춤, 거시기가 엇는디. 저기, 내가 흔 가지, 흔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잇는디.

[조사자] 예, 골아주십서.

[제보자] 저, 진머리옌 헌 디 잇어. 진머리가 올레가 난산릿 바당인디.

[조사자] 아, 진머리 올레가 난산리 바당마씨.

[제보자] 응, 견디, 저, 일로전정.

[조사자] 전정?

[제보자] 일로전쟁.

[조사자] 아, 일로전쟁.

[제보자] 예, 전쟁 때에 이 바다에 그 왜놈덜이 완, 이제, 여길 공격헐라고 쭈욱허게 와 잇는디. 그걸 방지허기 위헤, 허기 위헤서, 성을 싼 거라. 게서 온펭리 가민 볼펜이 그 성이 잇고.

또 신산이도 요짝더레 쪼꼼 잇고, 이펜더레 막 잇엇는디. 그, 이, 도로, 저, 일주도로 거, 아스팔트 헐 때에, 그딧 돌을 막 부수와당 아스팔틀 헤 불엇어. 게서 그 성이 저쪽으론 쪼꼼 남아잇는디. 이쪽으론 엇어져 비엿주.

엇어졋는디, 저기 이제 새로 그기 좀 싸긴 쌋어. 쌀 때 그 뭐, 그 옛날 저, 거시기가 아니라부니까. 막, 게난, 그걸 왜 싸느냐면 일로전장 때 왜놈들이 오니까. 여기서 그, 방어허기 위헤서 성을 싸안 이제, 이 안넨 뭐이냐민, 불치, 이거 잘 들을 말이라.

불치 잇지, 불치. 저 불 때는. 재, 어, 재. 그거를 끍안. 이제, 물을 탄 막 둘리면은 그, 꽤 몬지가 막 올라오거든 재가, 그러민 연막탄이라 그게. 요새로 ᄀᆞ뜨민.

[조사자] 기마씨?

[제보자] 어, 요샌 전장헐 때 연막탄을 씁지만은, 그 당시는 재 끌안 말 탕 막 둘렷어. 경헨 그거 성을 싸난 거라.

[조사자] 안 보이게.

[제보자] 응, 연막탄. 그 불치 막 물 탕 둘리니까, 막 그 불치가 올라가거든?

[조사자] 아, 예.

[제보자] 겨니까 그 긋디 잘 안 보여.

[조사자] 그렇게 안 보이게 헹그네, 그때 성을 쌓은 거마씨?

[제보자] 응, 응, 성을 쌓앗지.

[조사자] 아이고, 왜놈들헌티 안 보이젠예?

[제보자] 응. 경 헨, 거기에 그 당시서도 조금 뭐, 총, 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모르는디. 막 죽언 말, 그 진물 그리 난산리 땅이 저 바단디 그리 막 올려 비렷든 모냥이라. 올려 부니까 난산리는 양반이노렌 허멍, 그걸 안 치운 거라.

[조사자] 시체를?

[제보자] 응.

[조사자] 사람 죽은 시체를?

[제보자] 응, 응 시체를 안 치운, 아 (불청) 거 썩고 냄새나고 할 거 아냐? 거난, 그, (불청) 묻어분 거지. 겨난 난산리 사럼덜은 걸 내분 거라게. 내부난, 이제 신산에서 가 거 다, 치왕 묻어둰 바당도 난산리 안 줜 신산리에서 관리헤 분 거주. 겐 난산리가 바당이 엇고. 우리 성산읍에서 바당 잇는 디가, 수산은 잇어낫어. 우리 욱을 때꺼지도 잇엇는디, 지금은 온펭리에서 관리헹 바당이 안 뎅겨.

거고 또 여기는 난산리가 또 바당이 잇인디 신산리 줘 부난 엇고, 저 삼달리도 하동에 바당이 잇고. 신풍이도 하동에 바다 잇곡, 그렇지. 신천리도 바다 잇고 다 잇는디, 난산리 허곡 저, 수산 허곡 지금.

[조사자] 엇구나, 아이고.

- 핵심어 : 진머리, 일로전쟁, 왜놈, 성, 온평리, 물, 불치

W_L_128 일출 구십구봉과 호랑이

2016년 11월 26일, 성산읍 오조리 채종학씨 댁, 이현정 조사.
채종학(남, 1946년생, 성산읍 오조리)

[조사자] 어, 성산일출봉 관련된 전설은 없습니까?

[제보자] 성산일출봉 관련 전설, 전설을 벨로 뭐, 뭐, 성산 쪽에서 걸 수집, 채집헤 보던가게.

[조사자] 성산, 여기가 더 잘 보이는디, 더 잘 보이기는.

[제보자] 아니, 보여, 보여도. 그 (한숨).

[조사자] 뭐, 예를 들면은 소허고 말허고 갓는데, 일러먹엉 어떵 비니까 찾앗다더라. 뭐 이런 얘기덜.

[제보자] 아니, 그런 얘긴 저 그거, 우리 영 (불청) 식산봉 봉우리가 구십구봉인데.

[조사자] 식산봉.

[제보자] 아, 저, 일출봉.

[조사자] 일출봉.

[제보자] 어게. 하나만 봉우리가 더 잇엇이믄 이제, 저 소위 이제, 저, 백호랑이가 흔, 아, 호랑이가 저, 산다 그러더라. 근데 이제게. 거 그런 식으로 거, 좌우지간.

[조사자] 이야기가 계속 잇엇구나예? 아흔아홉.

[제보자] 어, 구십구봉. 게난 또 그 거 뭐는 또 이은상, 옛날에 이은상 선생의 시에도 잇어요 저. 일출 구십구봉을 본 대로 이뤄라 헌다. 다 웹진 못허겟는데.

[조사자] 어, 맞아예. 그런 얘기는 좀 많아.

- 핵심어 : 일출봉, 성산, 식산봉, 구십구봉, 백호랑이

W_L_129 장개 안 간 효자

2016년 12월 7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문경미 조사.
오문복 (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조사자] 효자 이야기 잇수꽈?

[제보자] 효자는 이변이 있어야 표창이 됩니다. 그대로 효도했다고 소문나서 뭐 올려서, 표창 안 되는 거요 그거는. 그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가 겨울에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울면서 잉어가 툭 튀어나오니까 심었다든지, 꿩고기 드릴려고 하니까 꿩이 집으로 날라들었다든지 그런 이변이 있어야 되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 제주도 효자들은 전부가 그런 거여. 그니까 후기까지도 나가 아마 여섯 살 때. 우리 할머니 돌아간 거 기억을 허는데, 이 동네 아까 성균관에 가보니까 남았어. 옛날에는 동네 고기가 어렵거든. 우리 할머니가 막 아파가지고 오래허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가 없어서 못 사다드리는디. 우리 어머니가 고사리 걲으러 갔다가 요 밧에서 요리 넘어가려고 퉁 넘어가는데, 그때 꿩이 딱 발에 밟혔어. 그니까 꿩이 알 날려고 숨어 앉았다가 그래서 허니까 일가에서 아이고 이변이라고, 하늘님이 아주 그냥 주라고 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하여튼 그때 도에서 표창을 했단 말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표창이고, 정려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비석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거 헐 때는 아주 그런 이변이 있어야. 효녀, 효자로 표창이 되는데, 여기 고성리에도 홍효자라고 유명한 효자가 있는데, 효도는 잘했는데 그런 이변이 없어. 그래서 여러번 신청을 해도, 정려가 안 내린 것입니다. 해서 이변이 없이 효자가 된 것은 그 양반뿐이여. 여기 정씨라고 한 사람이 와서 정기를 찢고, 그때 목사들이 와서 참 효자라고 해서, 후기에 후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증명을 허는 데에서. 그 효자 증명을 하는데, 저쪽 애월인가 가며는 진대석라고 진효자가 있어. 광령인가.

진효자는 원래는 무식헌 사람. 집도 가난했고, 그런데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

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 비석에 그 내용이라고 써졌을 거요. 조금, 써졌다고. 옆에 또 이제 자식들이 부모 모시고 산 사람이 며느리가 또 버릇이 없어가지고 시어머니를 자꾸 대답도 허고 구박도 허고 그랬어. 그러니까 진대석 그 사람은 아이고 나도 장가가서 잘못 장가가며는 시집와가지고 저 늙은 부모한테 저렇게 대답하고 멋허고 허민, 그래가지고 장가를 안 가가지고 이제는 효도를 허는디. 그래서 그 분네가 모친이 아팠는데, 그 뭐라고 하지 요사이 자꾸 텔레비에 나오드라마는, 땅속에 굴 파서 사는 짐승이 있어. 제주도에서 지달이라고 하는데, 그니까 좀해서는 못잡아 땅에서만 사는 때문에. 아 그 어머니가 아팠는데. 하루는 밭에 나무하러 갔는데 지달이가 나왔다가 지구멍 찾지 못하고 사람 만나니까 옆에 돌구멍으로 들어가니까 잡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건 그냥 사람 손으론 도저히 못 잡는 것인데, 아마 그 부모 효도를 잘해가지고 내렸다고 해서 표창상세를 하니까, 이제는 아마 왕조실록에도 나왔댄 말을 허는데 나는 직접 안 보고 들엇어.

표창을 해서 정려를 허는데, 다만 조건이 사전에 이 사람은 무식한 따문에 효자 정려를 주는 것이지 유식했으면 안 된다. 왜냐 그러면은 장개 안 간 것이 큰 불효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무식해서 그 예법을 모른 때문에 옆에 사람 장개 가가지고는 효도 못하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감복해가지고 못한 거니까. 그 남편 잘헌 것을 보면 본받으려고 하고, 못헌 것을 보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 뒈겠다고 하는 이 교훈이 있기 때문에 주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효자가 아닌데, 이 사람은 무식흔 때문에 이 사람은 정려를 준다. 효자 중에 그 효자가 무식흔 효자지.

- 핵심어 : 효자, 효녀, 정려, 장개, 진효자, 진대석

W_L_130 장사 막산이

2016년 12월 16일, 서귀포시 중문동 이성무씨 댁, 김선희 조사.
이성무(남, 1943년생, 서귀포시 중문동)

[조사자] 막산이 얘기 해 주십서.

[제보자] 막산이는 무남밧집 알칩이 살았는데 그 워낙 식량 배가 커서 먹는 걸 엄청 많이 먹어서 힘이 장사인데 그 전하는 바에는 알칩이 큰 폭낭 뒤에 뒷밧이 몬딱 알칩이 밧이라서. 조땅을. 조 있잖아 조.

[조사자] 예, 조.

[제보자] 그걸 크게 묶어서 던지면 그 폭낭 너머 마당에다 떨어졌다고.

[조사자] 아, 완전 힘이 장사구나예.

[제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먹다가 배고프니까 어디로 갔냐 하면, 창천에 강칩인가 갔다 그래. 거기 강 했는디다가 군산에 논 박을 때, 아마 군산 앞쪽인 거 같애. 논 박을 때다가 점심을 이제 몇 십인 분인디산지 모르주만은 암튼 해서 멘들어 당 점심만 쌍 보내면은 "자기가 내가 논을 다 박겠노라." 아 게서 했는디다가 강 보니까는, 점심 헤영 강 보니까는 그냥 잠만 자고 있어.

[조사자] 아이고.

[제보자] 그래서 그 밥을 다 먹은 다음에 힘을 내서 나중에 보니까는 흑먼지가 막 날려. 해서 나중에 가보니

"논을 다 박앗수다."

논을 다 멘들엇다고 해. 그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인데 거기서도 배불리 먹지 못하니까 굶어서 어디 나가서 나중에 산적질을 헷네, 어떻네 하고. 창천 그짝더레 가면 전설이 있긴 잇어.

[조사자] 배고파서 멀리 나갔구나예.

[제보자] 그런 이야기가 잇어.

- 핵심어 : 막산이, 무남밧집, 알칩, 장사, 논 박기, 산적질

W_L_131 장오리에 빠져 죽은 설문대할망

2016년 10월 6일, 제주시 봉개동 동회천마을회관, 김선희 조사.
신준희(여, 1930년생, 제주시 봉개동)

[조사자] 설문대할망 얘기는 안 들어봣수과?

[제보자] 설문대할망? 아, 그 장오리 강 빠졍 죽엇젠 허는 할망?

[조사자] 거난 그 얘기 알아지쿠과?

[제보자] 설문대할마니가 하도 커노난.

[조사자] 예.

[제보자] 설문대할마니가 커노난 옛날에 명지 아홉 동을 들여도 소중기를 못헤영 입언. 너미 커노난. 게난 바당물에 가도 발등도 안 ᄌᆞ무난 저 장오리 물에 가난 오물렉이 빠졍 죽어불엇젠 헤라. 나 그 말 들어난. 아홉 동으로 처대가 부족헤연. 장오리가 짚어낫젠.

- 핵심어 : 설문대할망, 장오리, 명지, 아홉 동, 소중기

W_L_132 저승서 살아온 신양리 저승팡

2016년 11월 26일, 성산읍 오조리 채종학씨 댁, 이현정 조사.
채종학(남, 1946년생, 성산읍 오조리)

[조사자]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저승 갔다왔다는 얘기, 혹시 이런 거 해주신 적 있어마씨?

[제보자] 저승 갔다왔다는 얘기는, 여기 오조리 사람이 그런 얘기헌 게 아니고, 저 신양리 들어간 데가 간도니.

[조사자] 어디?

[제보자] 신양리, 저, 신양리게 고성, 저 신양리. 그쪽에 그 제석팡이란 여자가 잇어낫주기.

[조사자] 제석팍.

[제보자] 제승.

[조사자] 제승.

[제보자] 응, 저승, 저승팡, 저승팡.

[조사자] 저승팡. 여, 이름이 저승팡마씨?

[제보자] 아니, 아니 보통 제주에서 육지부에서 어디 댁 어디 댁 허는 걸 제주도이선 팡이옌 허주게.

[조사자] 팡.

[제보자] 어. 느가 행원에, 여기 시집왓이면, 아, 거 행원팡이옌 허고.

[조사자] 아, 예.

[제보자] 건 육지서는 걸 행원댁이니 뭐니, 댁이라고 허잖아게. 거난 그, 저, 저승팡 예기도 저승댁 얘기도 그 얘, 그 얘기주게.

[조사자] 예, 어떤 얘기우꽈? 들려줍서.

[제보자] 아, 게, (불청) 뭐, 죽언 완전히 관 속에 영장허젠 했는데.

[조사자] 신양리 여자가?

[제보자] 응.

[조사자] 죽언.

[제보자] 응.

[조사자] 그믄 그 여자는.

[제보자] 거난 거 나이가 많은 사람이랜 지금 살아잇는 사럼이 아니고, 그 옛날에 돌아가신 분인데, 일단 인제 그, 뭐, 벵인년 호열잔가 아무튼 그 떰인 모냥이라. 벵인년 언 적에 호열자가 많이, 잇어, 창궐했던 모냥이라. 거난게, 죽언게 영장허젠, 저, 헤가니까게 그때야게 메칠만이 살아나가지고게, 거난 것도 옛날 뭐, 요즘 ᄀᆞ뜨민 확실히 과학적으로 이제, 이제 모든 이제 신체적 활동이 끗낫다 헹그네, 저, 사형, 저, 어떤 뭐로 진단을 내리거나 뭐허주만은. 옛날이야 거, 뭐, 그냥, 숨 안 쉬믄은 죽엇다고 생각헤영, 헷겟지게.

[조사자] 게그네, 그, 신양리에 그, 할머니는 며칠 만에 깨어낫덴마씨?

[제보자] 아이, 거, 뭐, 삼일만에 깨난 거지게.

[조사자] 삼일만에, 게근에 깨낭근에 자기가 저승 갔다왔덴 헌 거?

[제보자] 아이, 그니까. 어, “저승 이렇다 저렇다.” 헌 그 무슨 얘길 허니까 이제, 그때부터 인제 그, 그, 간, 그디 가 간도니 주, 간도니. 신양에 들어강 그 저, 이, 거난게, 간도니, 게난 그, 여, 할망보고 이제, 저승팡이옌 헌 얘기, 이 그 얘기 들엇는데, 오조리 쪽엔 죽엇다 살아난 뭔 엇다게.

[조사자] 어, 그믄 신양리에는 경 죽엇단 살아난 할망보고 저승에 갓당 왓댄 헨 저승팡이옌.

[제보자] 어, 게난, 아, 거난 저승팡이옌 허주.

[조사자] 아, 저승팡이옌.

[제보자] 어, 우리덜 어린 때 허는 얘긴 그, 누, 늙으신 그 늙신네 할머니덜, 그, 저승팡 얘길 뭐 대충 허지 뭐. 죽엇단 얘기, 뭐 삼일만에 살아낫저. 뭐헷저.

[조사자] 음, 저승팡.

[제보자] 응, 거난 그 얘기주 무신 뭐.

[조사자] 아, 그렇구나.

- 핵심어 : 저승, 신양리, 저승팡, 여자, 영장, 호열자, 관, 삼일

W_L_133 절부 고씨와 신재우 판사

2016년 10월 2일, 한경면 용수리 홍재운씨 댁, 김선희 조사.
홍재운(남, 1930년생, 한경면 용수리)

[조사자] 절부암 얘기도 해줍서 삼춘.

[제보자] 절부암은 우리 용수 절부암은 강사철이 하르방이 강사철이 하르방이 본 고향은 남군이라.

[조사자] 아, 예.

[제보자] 남군인데 강사철이 아방이 저 조수에, 한경면 조수레 안 친구가 있으니까 둘이 와서 산간에 와서 개간을 헤서 농사를 지엇다고.

[조사자] 친구영 둘이마씸?

[제보자] 응. 강사철이 하르방이 하다가 아방은 죽어비니까 도리없이 아바지하고 친구헤여 난 그 어른 앞이 가서, 그 어른 앞이 여ᄌᆞ식이 셔나니까. 우리 아바지에게 분향해 줄 ᄌᆞ식을 낳게구르 ᄌᆞ식을 줍서. 따님을 주십서, 헤엿주게.

고씨 집안에 갓주게. 고씨 집안에 결혼을 헤엿는디 그 강사철이 외가가 용수 이칩이라. 엿날은 이디 주무관할 용수리라고. 주무관할이라고 엿날 대정, 이제 대정읍 대정골이라고 잇어. 보성리가 엿날 대정골이주게. 보성리가 비교적 게믄 군청, 대정원이 신재호 판사가 그디 군수할 때인디.

강사철이 외가에 용수 이칩이 오니까 이디 결혼은 ᄒᆞ고. 헤 볼 도리 엇언 이젠 외가를 찾안 용수 이칩을 찾앙 오니까 이디 오니까 땅도 엇고 아무것도 엇고 엿날은 아무것도 엇으니까 바당 번 날은 바당에 가고 씬 날은 놈이 농사를 하멍 생활을 하다가 이젠 농한기에 농사 아니 지내는 엿날은 우리 제주도는 보리 고구마벢이 아니 ᄒᆞ니까 겨울에는 놀고. 요새는 야채가 나오니까 하는디 엿날은 농사를 겨울에는 고구만 이삭해 불민 보리만 씨 빼 불민 겨울에 ᄉᆞ오월간은 놀게 되니까 동짓ᄃᆞᆯ 열 사흗날 강사철이 하르방하고 홍칩이 하르방하고 나에게 고조 하르방이라 ᄌᆞ씨 하르방하고.

[조사자] 조씨 마씸?

[제보자] 아니 ᄌᆞᄌᆞ ᄌᆞ씨.

[조사자] 아, 좌씨 마씸?

[제보자] 응. 강씨 하고 우리 고조부 하르방하고 좌씨 하르방하고 서이 저 죽도옌 헌디 엿날은 차구도엔도 허곡 죽도가 대섬이주. 그디 대를 헤여다가 우리 엿날은 농촌에

는 가정용 가정 도구주게. 애기구덕도 멘들곡, 밥 차롱도 멘들곡. 요새 그 엿날 해녀들은 두렁박 담앙 뎅기는 두덕도 지엉 다니곡. 우리 제주도는 엿날 물허벅 있잖아, 물허벅.

[조사자] 예.

[제보자] 그거 허다가 구덕해서 멘들고 그걸 헤다가 생활도 하고.

차구섬이 십삼일날 갓다가 엿날은 요새추룩 베들에 아니오고 풍선 닮은 거 테베주게. 엿날은 나무로 짜서 견 베로 강 죽도에 강 오는 도중에 풍파 만나서 돌아가비니. 질 쳇날은 좌씨 하르방이 오르고 육상에. 신체가 올르니까 춧고. 이틀째엔 머리 엇인 하르방이 올랏어. 올르니까 신체를 얼굴 엇어비엉 누게냐 구분을 못하니까 강사철이 하르방하고 우리 고조 하르방하고 키가 엇비슷헤난 모양이라. 근디 얼굴 엇이비니까 누겐지 모르고 구분을 못하고. 읖집이 할망이 와서 사름을 구분을 시키는디, 신체로 구분을 못하니까 홍씨 하르방은 엿날은 지금은 몰라도 기지를 안팍 놧어. 누비옷이옌 허주게. 그 누비옷을 입엇덴 헤여.

[조사자] 누비옷을 입엉 다년마씸?

[제보자] 그 당시에 옷을 허믄 기지에 바늘로 해서 멘딱 해서 젠부 누비옷을 입엉 다니는데 홍씨 어른은 옷을 허다가 재단이 모자라니까 앞 안에 재단이 모자라니까 무신 색깔 한 아기 두데기, 엿날은 아기 두데기를, 요새는 고급으로 허주마는 엿날은 못 입단 나머지로 걸로 만딱 아이들 샅바도 체우면서 하니까.

[조사자] 예.

[제보자] 재단이 모자라니까 그 누비 색깔 한 걸로 안에 데영 허엿단 하니까 동네 어른들이 옷을 내령 보니까 그 기지가 맞댄 헤영. 그니까 그건 홍씨 하르방으로 보고.

[조사자] 예.

[제보자] 그니까 이젠 강씨 하르방, 고씨 할망은 밤에는 이녁대로 신 삼고 낮에는 이 구역을 이녁대로 지커영. 짚신, 엿날은 고무신도 엇고 아무것도 엇인 때니까 그걸 밤에는 이녁대로 그걸 신헤영. 짚도 이녁대로 급하게 허믄 ᄒᆞ루 강 오면은 일주 신체를 어느 트멍에 올랏인가 답사뎅기면서 ᄒᆞᆫ 메틀 해도 못 찾으니까 조사를 ᄒᆞᆫ 메틀 해도 못 찾으니까 절부암, 바다 아래, 저 후박나무에 목 메영 ᄌᆞ살을 헤엿다 말이여.

ᄌᆞ살하자마자 그날 저냑 밤이 시체가 올랏어. ᄒᆞᆯ 수 없이 십오일날 올르니까 그 당시 이칩이서 관리하니까 음력으로 동짓ᄃᆞᆯ 십팔일날 장사를 지냇주게. 장사를 지내는디 합장을 헤엿다고. 합장해서 이제 우리 고산광 용수 국도변에 그 오른쪽에, 일로 가믄 오른쪽. 고산으로 가민 웬쪽인디. 용수광 경계에 그것이 이칩이 밧이라. 이칩이 밧이니까 그기 가 장사를 지내엿어.

신재우 과거보레 엿날 저 서울 과거보레 가니까 그때는 목포로 오게 되니까

화숙집이 잠을 자게 뒈엇는디 동력선은 물 조류를 아니 보는데 범선은 물조류를 봐서 시간을 맞추어서 베질을 헤여야 무사히 오지. 엿날은 베가 요만히 헌 데다가 나무베가 어쩌면 욕보는 땀에.

[조사자] 아, 예.

[제보자] 화숙칩이 화숙을 하는디. 밤에 꿈을 봣다 말이라. 몽을 보니까 어떤 사복 입은 여성이 나타나서 베를 새ᄃᆞᆨ 울건 베를 출발하렌 하니까. 내 지금 문득 깨어낭 보니 여성이라 말이라. 베가 그 지 베 ᄒᆞ나만 아니고 몬제는 물 때만 맞추엉 오단 베는 제주도 강 욕 봐불고. 신재우 탄 베는 꿈에 시꾼 사복 입은 여성이 나타나서 쳇 ᄃᆞᆨ 울 건 출발하렌 했으니 그 베 하나만 무사히 조천에 도착하니.

제주도에 왕 보니 이만저만 해서 여론이, 엿날은 방송도 엇고 신문도 엇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이렇다 저렇다 절부암 역삿말을 하니까. 이거 어떤 말인가 하니까

"용수에 이만저만 해서 신랑이 대섬 가서 욕 보니까 할망이 춪당 못 춪아서 ᄌᆞ살허연 목 메엿수다."

헤연. 이디저디 주민들이 말하니까 신재우 판사가 이딜 용수, 고산에 왕 들으니까 멩칭을 절부암으로 멩글고. 용수 용당 저 경계에 봉분이 있으니까 자금을 얼마 주엇어. 삼월 보름날에 제를 지내주라고. 신재우 판사가 나상 하니까. 그때는 부락 유지들이 가서 산소에 가서 고산 일년 헤나면 뒷해에는 용수, 순화들이 하다가 누구 기금을 내 주는 사름도 엇고 하니까 기금이 떨어지니 고산서도 안 뎅기지.

절부암이렌 허는 건 용수에 있지. 산에 묘제 하는 것도 기금이 떨어지니까 고산서는 아니하겟다 헤비고. 이칩이서 해녀들만 모금을 헷어. 그때는 용수 해녀가 백명도 넘엇어. 그걸로 해서 밧을 삼백열일곱 평을 삿어. 그 밧을 이장직 돌아온 사람이 그 밧을 경작하고 제사를 지내라 하니. 일년 구장직 하믄 제사를 지내곡 하다가. 그때는 산에만 가서 묘제를 지냆어.

- 핵심어 : 절부암, 강사철, 용수 이칩이, 홍칩이 하르방, 좌씨 하르방, 죽도, 차구도, 풍선, 아기 두데기, 고씨 할망, 자살, 판사 신재우, 꿈, 용수 해녀

W_L_134 제주 오롬 만든 설문대할망

2016년 10월 6일, 제주시 봉개동 신준희씨 댁, 김선희 조사.
신준희(여, 1930년생, 제주시 봉개동)

[조사자] 막 재미난 얘기 잇수과?

[제보자] 재미나멍 말멍. 할머니가, 저 오롬들을 할머니가 다 만든 거랜. 그 말을 아니 골앙 집이 와정 생각해 보난 아따 말 하나 떼엉 골아졋구나, 생각헤연.

[조사자] 아, 기꽈. 떼엉 골아젼예?

[제보자] 치메깍에 흑 쌍 뎅기멍 저 오롬들을 다 만들엇댄 헤여. 그 할마니가. 이 오롬들을. 하하. 아이고 말하나 잘못 골아젼. 떨어졍 골아젼.

[조사자] ᄌᆞ근ᄌᆞ근 골아줍서. 어제 골아난 거영 골아줍서.

[제보자] 어제 골아난 거? 설문대할마님?

[조사자] 예.

[제보자] 설문대할마니가 멩지 아홉동을 허여당.

[조사자] 예.

[제보자] 소중기를 멘들아도 ᄋᆞᆼ 허리할 처지가 부족하난 죽어불젠 헤영 바당엘 가난 발등도 안 ᄌᆞ무난 이젠 장오리엔 가난 오물렉이 빠졍 죽어불엇댄.

[조사자] 아, 기꽈? 아깐 뭘 어떵 만들었댄예? 소중이? 바지꽈?

[제보자] 무시거? 응, 소중기. 엿날은 소중기렌 허주. 지금 우린 시방은 팬티. 영 ᄒᆞ는디.

[조사자] 아, 예.

[제보자] 그때는 소중기. 이만이 허는 소중기렌 허여. 게난 그거 허리허젠 허믄 멩지 아홉동을 들이난에 그 허리를 또 얼마나 더 크게 헐 거라게 허리로.

[조사자] 허리마씸?

[제보자] 게난 그것이 부작하난 죽어불주기 허연, 바당물에 가난 발등도 안 ᄌᆞ물안 얼마나 큰 할망인디.

[조사자] 게난 막 큰 할망이구나예.

[제보자] 큰 할망이나 경 헷주게. 겨난 장오리 물엔 가난 오물렉이 빠졍 죽어불연. 할망들 아장 곧는 말을 나가 아장 들엇주게. 우리집이 할아버지들 아장 노는 말을 나가 들엇주. 나가 무신 어디가 역불 들은 것도 아니고 엿날 우리집이 짓엉 오난 우리집이 노인네들 하영 모여낫어. 할아버지들이.

[조사자] 예.

[제보자] 설문대할망도 경 헷젠. 그 오롬을 만들엇젠 허고. 설문대할망이 그 치메가 멩지 아홉 동뒈도 건 그냥 치메나 만들고. 얼마나 크냐.

[조사자] 엄청 크지예.

[제보자] 게난 그 치메에 흑 담앙 그 오롬 산들을 다 만들엇젠. 견 말 잇어난.

- 핵심어 : 할머니, 큰 할망, 설문대할망, 치메, 치메깍, 오롬, 멩지, 아홉 동, 처지, 소중기, 장오리

W_L_135 제주 사람 위신 지킨 고경준 선생

2016년 11월 20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이현정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제보자] 고경준이라고 저기 제주시 오도롱, 오도롱 거기 분넨데. 이제 아주 조선 후기에 그 양반은 이제, 과거를 했던 분네여. 근데 여 과거 허기 전에 이제는, 과거 보러 서울가서 이제, 어디 좀 이제는, 그 식당이 아니고, 잘사는 집에 가서 좀 이제 머물렀지 좀, 중간층 관리가 된 집일 거요. 아, 그니께 제주도서 왔다고 업신여겨가지고 이제는, 그.

"제주도는 돼지를 인분 멕여서 키운다면서?"

"아, 그렇습네다. 인분 멕여서 키웁네다."

허니까, 것도 거 주인이 아니고 놀러온 동네 영감이 제주도라고 허니까 에찹아서 허는 거여.

"아, 그러면은 제ᄉᆞ 때 그 돼지고기로 제수를 만들어 올리는가?"

"그러지요."

"아, 그러면은 과거 보러 온 선비댁에도 그러는가?"

"예, 우리도 그럽니다."

"에이고, 그 추잡헤서 못 써. 딴 사름은 몰라도 과거 보러 왔으니까, 이제 선비는 그러지 말어."

"왜 그러십니까?"

"아이, 거 인분 멕인 고기를 어, 할아버지 그 제사상에 올려서 쓰는가?"

그 양반이 ᄀᆞ만히 있다가.

"예, 잘 배왔습네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댁에서는 거, 제사 때 그러면 쌀로 밥 짓고 떡 허고 헙니까?"

"아무렴 그러지." 허니까.

"아이고, 우리 제주도 조상덜은 그냥 무식허고 그러니까, 할 수 엇이 인분 멕인 돼지고기라도 제물을 헙니다만은. 선셍님댁에 조상님덜은 아주 그 높은 베슬허고 위대헌 조상님일텐데 그런 어른덜은 제사헌 데다가 쌀로 밥허고 떡짓고 해

서 제사를 모셔서 됩니까? 차라리, 대전식(代錢式) 제사를 허시오."

돈으로 대신 헌다는 말이요. 제일 있으면서두 인색해거지고 제사 음식 안 출리는 것을 대전식 제사라고 허는, 이거 아주 놀부ᄀᆞ뜬 놈이란 말이여, 실젯말 허믄.

"거 제물 올리지 말고, 대전식 제사허시오."

그니까는 얼굴이 시퍼래져가지고 말이여.

"아, 거 누구헌테다 그런 버릇없는 소리를 허냐!"

"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분 멕인 제주도 돼지는 바로 나온 벤하지 아니헌 인분을 멕이, 먹어서 그 돼지는 컷는데."

육지에선 나락밧디는 인분을 헤다가 삼 년 묵혀서야 거름이 더 잘 되거든.

[조사자] 그렇죠.

[제보자] "아니, 그 삼 년 묵은 인분을 줘가지구 키운 그 곡식으로 아, 그거 됩니까?"

말이 된 거 아니오?

[조사자] 맞는 말이주마씨, 예.

[제보자] 게니까 그, 주인이 옆이서 보다가.

"아, 가만 있으면은 중품이나 부뜰 것인데. 아니, 과거 보러 온 선비가 어, 저 영감탱이헌테 그저 말 얻어 멕일까로 헛짓거리 헤가지고는 그 욕을 얻어 당허요? 저 제줏선비, 흔 마디 좀 저놈 저, 덜게서 좀 교육시겨서 보내라." 고, 거기 저 고경준이가 그랬어.

[조사자] 아, 그렇구나. 고, 경, 준.

[제보자] 고경준이 거, 과거에 급제를 하신 분네거든.

[조사자] 그믄, 거기는 동네가 어디라마씨?

[제보자] 오일 시장 있는 쪽 간디, 오도동, 오도동인가? 지금 현재 이름은 모르겠네 옛날 오도롱, 오도롱 헌디. 거깃 분네요.

[조사자] 그믄 그분도 조선 후기 즈음에 한학자마씨?

[제보자] 아무렴, 과거에 급제했어. 그 양반.

- 핵심어 : 고경준, 오도롱, 돼지, 인분, 대전식 제사, 거름, 제줏선비, 과거급제

W_L_136 조방장을 놀린 벤인테

2016년 12월 11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이현정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조사자] 보통 벤인테 얘기 물어보면 거의 저 서쪽들은 아는데….

[제보자] 아니 벤인표는, 벤인테는 저 서귀포 그 서홍동, 그 변씨덜이 다 그 후손 아니겟주. 다 후손 맞습니다, 거 벤인테 후손.

[조사자] 실제 살아있던 인물이구나예?

[제보자] 아이, 실제 인물이여.

[조사자] 실제 인물.

[제보자] 그 서귀포 4·3사건 그 쓴, 변 아이고 그 양반 돌아간 나 이름을 잊어불엇다. 그 분네 말로 자기네 6대조라고 그러더구만. 후대 조선 막 오래지 안 현 후기엣 분이에요. 그 분넨 그, 뭐, 그, 그런 면으로는 아주 유명헌….

[조사자] 사기치고 다니셧구나. (웃음)

[제보자] 아니, 사기도 물론 뭐, 그렇게도 헷지만은 웨 그러냐 그러면은.
아주, 그, 춤, 그 서귀포 관노거든? 무식허고 헤도 기발허게 그렇게, 아주 그냥, 그, 머리를 잘 짜네는 양반이여. 그래서 그, 서귀포 이제 그, 조방장, 그 군대 대장이 조방장인데. 뭐, 춤 바르게 허는 조방장은 허주만은, 좀 그 백성덜 궤롭게 허거나 하믄 어떠헌 꿰를 써서라도 아주 복수를 헤여. 그 양반은. 그 벤인테가, 벤인테가. 그 말을 어떻게 어떻게 꾸며댓어. 아, 그, 한 번은 이제 시에서 조방장이 와가지고는, 이 아주 심보가 나쁘거든. 저, 그래가지고 이제, 것도, 성질은 궤팍헤가지고. 음식 쪼끔 헤도 자꾸 타박을 허고 그른데. 흔 번은 뭐.
"고기를 하도 좀 너무 타게 구어왓다."
아, 이제 허니까.
"하이고, 내가 뭐, 이, 다음부터 어떻게 구워야, 저기 안 타게 구웁니까? 내, 이, 다음부터 잘 굽겠습니다."
"아, 불에서 멀리 요리 들러가지고 구워야지! 너무 불 우에다 갖다 노니까 탄 거 아니냐?"
허거든. 게, 저녁 뒈난 밥상 온 디.
"지금 고기는 조끔 덜 구워져서, 좀 이따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허니까. 밥 다 먹엇는디 고기 반찬 안 가져와.
"야, 이놈아! 그 고기 구운다며 멧 시간을 그 속에 태웟냐?"
고 허니까.

"아, 지금 저, 고기 굽고 있습니다."

"아! 굽고 있음 웨 멧 시간을 굽냐?"

"아, 글씨 거 굽고 있습니다."

요리 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산불이 부뜬단 말이야. 산불 부뜨니까 고기를 적셔 나가 요리 저 마당이 들고 잇어.

"너 것 뭣허는 것이냐?"

"아, 거, 조방장께서 고기를 불에선 멀리 들어야 맛잇게 구워진다고 헤서, 나 이거 이리 굽고 있습네다." 허고.

[조사자] (웃음)

[제보자] 겅 헨 이제 조선시대에는 그 여기 가시나무라고 헌 나무가 민간에선 못 짜릅네다. 웨그냐 허면, 대정엔 그, 이, 장, 태장을 만들어야 뒈여, 걸로. 그래서 이제 걸 못허게 허는데. 그런 나무가 허기 때문에, 대게 이 농기구는 밧 가는 잠데는 다 도끼에다 다 썻어. 누게라고. 이제 그, 그, 조방장이 저기 쫄병들 시겨가지고, 그 서귀포를 이제 그, 바로 그, 곧, 이제 그, 곶자왈이 가까우니까 좀, 그 가시낭 헤가지고 잠데를 만들어가지고. 너, 이거 저, 그때는 성 안.

"너, 이거 성 안 우리 집이 져다 ᄃᆞ라. 갓다 놓고 와."

"예."

허니까 집은, 뻔히 알어.

"그, 아, 집이 근데 혼 번 갓다 온 디 지금 잘 모르것습니다.".

"야, 이놈아! 칠성통 골목 입구에 이놈아, 큰대문 아니가, 우리 집을 몰라? 이 자식 느 멧 번 갓다 와가지고."

"아, 예. 칠성통 입구에 큰대문헌 집. 제가 잘 갓다오겟습니다."

일부러 잠데 지고 와가지곤 지금 목관아가 칠성 우잇 거 아니여. 대문 팡팡 치믄서

"야! 조방장님 잠데 보냇으니 이거 받아가라."

대문을 팡팡 치니까. 거기 거, 관노덜이.

"이거 어떤 건방진 놈이…. 야, 이 자식아! 느 이거 어딘 줄 알고 이놈아 잠데를…. 여하튼 누구보고 이놈아!"

"나 저, 이, 서귀포 조방장 임마, 내 조방장 모시고 있는 하인이여! 우리 조방장님께서 임마 이거, 잠데 잘 만들어가지고, 어, 칠성통 입구에 대문 큰칩이 가져라고 헨 가져 왓어. 잘 갖다가 뒀다가 이 다음 밧헐 거라, 이놈들!"

"아, 이놈이 자식 이거, 갈수록 말이, 이 자식아!"

[조사자] (웃음)

[제보자] (웃음) 큰대문 집이 가져 간 것이지.

[조사자] 제일 큰대문이주마씨.(웃음)

- 핵심어 : 벤인테, 조방장, 고기, 산불, 가시낭, 태장, 목관아, 큰대문, 서홍동

W_L_137 조초막동산의 유래

2016년 12월 7일, 남원읍 태흥3리 오봉남씨 댁, 김선희 조사.
오봉남(남, 1922년생, 남원읍 태흥3리)

[조사자] 남원리 얘기도 좋고 태흥리 얘기도 좋고 재미난 얘기 헤줍서.

[제보자] 우리 동네는 올로 동쪽으로 가민 도네기통이라는 물이 잇엇고. 물이 들민 나고 싸믄 엇어져 불어. 이 서쪽으로 가민 태흥 지경인디 진새미골이라는 음료수가 잇엇고. 겐디 태흥리엔 가믄 포구 잇는데, 태흥2리에서는 조치명동산이라 헤서 그 동산을 얘기하는데 조초막동산인데, 조선 초기에 거기에 포구로 관베가 와서 말 싣겅 가고, 이방원이 시대에.

근데 조치명동산이라는 말은 아침에 꿩 우는 동산이라는 말이라. 나는 조선 때에 조초막, 초소를 짓어서 경비를 사난 동네라는 얘기야. 내가 하는 얘기라. 다른 사람들은 초소막이 뭔지 그런 걸 몰라요. 그런 걸 아니 생각하는 때문에. 근데 왜 조초막이냐 하믄 조선 때에 보초 사난 동산이 맞거든요. 조선 때에 보초 사난 동산이다 이거고.

저디서는 조치명동산, 아침 조자에 꿩 치자에 울 명자를 써 놔서 조치명동산. 나는 이조옌 헌 말을 조선 초기 이방원이 때에 경비 사난 말인데 어느 말이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내 골은 말을 많이 뭐 옳다 이래요.

- 핵심어 : 도네기통, 진새미골, 조치명동산, 조초막동산, 초소막, 꿩 우는 동산

W_L_138 졸이 장이 되다

2016년 10월 16일, 애월읍 유수암리 강충희씨 댁, 문경미 조사.
강충희(남, 1938년생, 애월읍 유수암리)

[제보자] 옛날에 육지 사람이 지리를 많이 보는 모양이라. 대정으로 넘어가다가 날이 저무니까 검은덱이 들렀습니다. 김씨집안 사람인데 하룻밤 자고 아침에 마당에 나와 보니까 지금의 경마장 쪽에 산이 보여요. 형제봉 노꼬메 산이 보이니까. 큰 흑가시나무가 보여요. 주인보고

"당신 저 흑가시나무 앞에 가서 산을 쓰면 졸(졸병)이 장(대장)이 될 것이요."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후하게 대접하고 보냈는데, 자기 할아버지를 거기에 묻었습니다. 묻어서 몇 개월 후에 목장 산디를 갈았습니다. 잘 됐어요. 대충 갈아서 보니까 여든 섬이라 양반들이 이걸 알며는 좀 뜯을라고 가져와라 할 텐데 어찌할까 하다가 유수암의 경민장(지금 이장)에게 가서

"금번 소인네가 산디 여덟 섬을 하였습니다. 그걸 마을에 바치겠습니다."

"어허, 기특허고 착허다. 그리 허라."

거뿐이야 바치면 어떻게 된 것도 모르고 헐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 참지영감이라고 해서 당시 병조참지가 있었습니다.

"참지어른, 이번에 산디 여든 섬을 하였습니다. 이걸 마을에 바칠까 합니다."

하니 참지가 가만히 듣더니

"그거 마을에 바쳐서 뭘 하겠느냐. 아무 이익도 없다. 바칠라면 관가에 가서 바쳐라. 관가에 가서 백 섬만 바쳐라."

"여든 섬밖에 못했습니다."

"관가에서 일일이 더해 본다더냐? 백 섬에 묶어라. 그리고 바쳐라."

그리하니까. 여든 섬을 백 섬으로 불려가지고 묶어서 관에 가서

"금번 소인네가 산디 백 섬을 했습니다. 이걸 바치려고 합니다."

목사가

"아, 기특하다 너 신분이 뭐냐?"

"저 목자입니다."

[조사자] 테우리.

[제보자] "그러냐, 너 목자에서 탈하라. 그리고 병참 시켜주마. 일반 평민으로 해라."

평민만 해도 출력도 안하고 부역도 안 하고 할 건데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산디 여든 섬 바쳐가지고 목자를 벗어난, 그게 '졸이 장 되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조사자] 것도 검은덱이에?

[제보자] 검은덱이에.

- 핵심어 : 졸, 장, 노꼬메, 경민장, 테우리, 목자, 검은덱이

W_L_139 종다리로 들어온 호종달

2016년 12월 15일, 표선면 성읍1리 성읍1리노인회관, 송정희 조사.
조인흥(남, 1934년생, 표선면 성읍1리)

[제보자] 호종달이렌 허는 사름이 여기 종다리로 들어온 사름인디, 그 호종달이가 중국에서 신하가 들어오는디, 이제 이 우리 제주도 분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이렇게 헤서 여기 그 영을 받아서 어떠런 뭣이 잇일 거니깐, 이것을 벌써 산 혈기를 떠불라고, 뜰라고 헷는디 이 사름이 ᄒᆞ나 알민 두 개, 두 개 알민 세 개 아는 그 머리를 가젼 이제 ᄒᆞ니깐, 자기가 저 넓은 대륙으로 들어오면은 자기 그 생명이 우험허니깐, 벌쏨이 섬으로 들어오랏어. 제주도부떠 먹엇어. 자기 그 뭣을 헐라고, 제주도를 장악헹 들어오는디, 종다리로 오랏어. 딱허게 섬으로 들엉 오는디, 종다리 뭣을 들어서

"여기가 어떻게 뒌 부락이냐, 성명이 어떻게 뒈냐?"

"종다립니다."

"이, 이럴 수가 잇냐, 웬 내 이름을 거느리냐? 뭐, 종다리가 어디 붙엇냐?"

"이거 종다립니다. 종다립니다."

세 사람신디 들어도 다 종다리렌 허니깐 '다 내 올 딜 벌쏨 올 운지를 알고 얘기를 허는구나.' 헤서 기냥 끄쳣는디, 끄쳔 오는디 다시 도로 지리는 보니깐 일로 남쪽으로 헤서 한라산 영 영지를 그 붋아서 들어갈라고 붋아서 들어오는디, 차츰 차츰 들어오는디 혈기를 다 뜨는 거라. 뜨면서 건디, 여기 표선면 저 토산. 토산으로 헤 와서 보니깐 토산 우이 큰 밧디 밧을 가는 사름이 잇엇어, 이제 거기서 쉬고 말을 물으니깐 벌쏨 이 못이 신하가 어떤 못이 잇이냐면 꼭 호종달이가 올 중 아니깐 혈기가 그 밧 가는 사름신디 뭐헤서 물을 파싹 먹구정 허니깐, 물을 떠다가 엣날엔 쉐에 잠대를 싣겅 간 질메가 잇주. 겅 헹 벳은 콰랑콰랑 나는디 이젠 허니깐 그 물을 떠다가 쉐질멧 강 쉐질메 아래 놓앗거든, 그 사름이 어떤 뭣이 나왓이냐 허믄, 꼬부랑 낭 아래 헹기물이란, 문자가 잇이니깐 여기 물혈을 뜰라고

"꼬부랑 낭 아래 헹기물이 헹기물이란 게 어딧소?"

"그런 얘기를 나 듣지 못헷소."

"그럴 리가 잇소? 여기 헹기물이란 게 잇다는데. 헹기물."

"어, 어,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딱 보내니깐 '할 수 없구나.' 헤서 이젠 뭐헷는디, 그 그 양반이 어떤 뭣이 잇인고 허민 그날 저냑에 누웡 자다가, 뭐허니깐

“당신 때문에 내 이 이름을 팔릴 걸 혈기를 떳이민 문은 혈기도 떠지고 저 죽어불곡, 자기 멩에가 엇날 건디, 이제 당신.”

그 물 물 파싹 먹구정 헹 그 헌 흔으로 꼬부랑 낭 아래 헹기물이라고 그 헹기, 놋사, 놋그릇 헹기 말 아니꽈? 그 놋그릇에 물을 떠단 그 아래 논 뭣이 그 문세엔 꼬부랑 아래 헹기물이렌 뭣이 써졋거든, 겅 헤서 그 얘기가 나오란에 허곡

“아 이젠 홀 수 엇다.”

헤서 어디 가는고 허니깐 저 위밀리 우이 저 나도 그런 얘기도 듣곡 뭐헷주만은 것도 점점 잊없저. 저 남원이 우이 저 예촌. 엣날은 예촌이렌 허는디 신려리 신려리 신려리 이젠 들어간 거기서 주연헤서 흔 사흘 사는디, 아 영헤도 문세가 아니 맞아 붸여, 영헤도 안 맞아 붸여. 자기가 오라서 고향에 돌아간 세에 이 혈기를 어떠런 혈기를 잡아서 들어가야 이제 자기가 큰 사름 뒈고 자기 그 뭣이 팔릴 건디 ‘안 뒈겟다.’ 헌 생각이 잇엇어 헌디, 받앙 받앙 보니깐 흔 말덜이 흔 멧 두가 잇어서 어느 뭣엔 영 나오란 보니깐, 그 아니고 그 사름이 그 호종달이가 이제 딱 가니깐 흔 사름을 딱 만나지니깐

“이거 어디라고?”

“이거 신려리.”

엣날은 예촌이라고 허는디, 예촌.

“예촌이라고 헌다.”

예촌이렌 말이 이제 거기 탁허게 뒈 있거든, 예촌이렌 허니깐

“이거 사실 이렇게 이렇게 헤서 허민 어떻게 뒌 거냐?”

고 허니깐, 그 에 이 시방 예촌에 가면은 그런 의미가 잇고 헌디, 거기서 이젠 흔 삼일 동안 다니는디, 위미 위밀리서 내려오랏어 그 뭣을 들어 헷는디 아 다니다 보니깐 사름이 ᄆᆞ쉬보레 간 사름이 잇엇어.

“아 사실 어떠어떠헌 지경을 쫌 알려 줍서.”

허니깐

“겅 헙주. 집더레 걸읍서.”

집이 강 그 그 영감을 흔 삼사일 같이 먹으멍 같이 헷는디 이제 이 이 양반이 곳사 바다에 가고 싶엉

“에 바다에 가야 뒌다.”

고 이 양반은 들에 들에 들어보레 땅이 어떵어떵 뒌 거 그런 사름이 딱 가니깐 감이 어떵 뒐 거 어떵 뒐 거 알안 나간 거죽. 나가니깐 아 바당에 간 오누렌 허난 오단 보난 말을 말이 드러누원 일어나질 못허는 말이 잇는디, 이 ᄆᆞᆯ을 일르지 못헤연 허는 양반이 잇어. 그 말을 일려 주니깐

"아 이거 이렇게 보민 어울린 사름이 잇이지 안 현?"

이젠 집이 오란

"아 오늘은 물 드러누웟언게만은 일러동 뭉게당 버쳔 어 궤기 낚으는 사름이 만허난 일러줫주. 경 헷어."

"경 헙디가."

겐디 그 하르방은 오란 그거 잊어불곡, 또 ᄒᆞᆫ 사나흘 잇단 또 가난 따시 또 또 그 물이 드러누원 영감 ᄒᆞ나가 그 물을 일르젠 허단 버쳔 물 일러줜. 아 이상허다. 그 운이 말 운이 그 영감 우이 탄 거라. 이젠 마끝엔 ᄒᆞᆫ 사나흘 잇단 가난 ᄯᅳ시 드러누원

"에, 멧 번 일러주난 원."

물을 일러주난

"당신이 허는 마음이 곱고 당신 헹실이 뭐허난 이거 당신 운이 탄 거나 당신이 아젼 갑서. 가졍 갑서."

요세ᄀᆞ뜨민 드러누웡 일어나지 못허는 말 나 가졍 뭘 헙미껜 허는디, 벌쏨 그 운으로

"경 경 헙주."

궤기 낚은 거 주원. 이젠

"그 물은 고맙덴."

헨 가진 거라. 가젼 오늘은 어떵 헌디 ᄒᆞᆫ 메칠 무시거 헷어 물을 이만저만 허는 사름이 물을 앗으렌 헤그네 헤서 몰앙 오주게 하네. 몰앙 오지 못헐라고 이제 또 ᄒᆞᆫ 댓세 잇당 따시 또 바다에 갈 일 잇어 간 보난, 일어난 제법 일어난 튿어 먹없어. 이거 이건 경 헷구나. 이제 ᄎᆞ츰ᄎᆞ츰 ᄒᆞᆫ 얼마 잇언 초봄이 나난, 제법 일어나 물 구실이 뒈니깐 물은 ᄒᆞ나 벌엇구나. 집이 가져단 부리멍 집에 메어 노난 세끼 낳고 세끼 낳고 세끼 낭.

어느 날은 산에 올린다고 산에 놔그넹에, 물 두녀체왕 뭘, 두녀렌 헌 건 곹이 벗 부찔라고 허니깐 ᄒᆞᆫ 일년 먹언 헌디 가는 곳 엇이 원 구신 모냥으로 싹 엇어젼. 암만 춪이허젠 헤도 춪일 못허난 에 이거 우리 운에 안 탄 거난 이게 내불주. 헹 내불엇는디, 아 그 토산 뒷벵디 농사진 건 물덜이 내려오란 문 먹없젠 막 야단쳔 그 사름 동네 사름이 저 사름덜 물 일러분 것들이나 내려완 먹엇이냐 강 보아. '경 헐 리가 잇수과?' '에 경 헤도 강 봐 강 봐.' 허난 어떵 네게는 안 주어도 특별헌 말이 잇엇던ᄀᆞ라 보난, 아 우리 거우다. 이렇게 물을 놔그넹에 한방에 놔그넹에 우리 농ᄉᆞ 어떻게 뭴 거냐고 아 경 헨마씨. 내가 잘못헌 게 아니라 이런 뭣이 잇이난 어떵헙니껜 허다게 그 물을 앞으로 잘 오양허곡 잘 방목허렌

헤연 물을 석방시켠 주엇인디 이 물이 어떻게 헤연 물이 춤 수십 두가 뒈언 뭐헨 허난, 이 장이 저 성산면 시흥리 우이로 시작헤그네 저 산버린내라고 산버린 목장이라고 산, 이 군마라고.

지금으로부터 에 삼벡칠십 년 전 그 전정을 헐라고 몽고군덜이 몽고말을 삼벡칠십 두를 어딜로 들어왓이냐믄 성산포로 들어왓다 헤여. 성산포로 드려다가 이 물을 이제 이 장에 노는디 이제 이 양반도 너무 이제 우리 제주도에 물이 이녁 물만 뭐허믄 뭐하난 자기 그때도 이름이나 날나고 국가에 바찐 거라.

국가에 바찌나네. 그 물이 군마가 뒈어서 뭐허는디 그 양반이 그때 옷을 받아서 옷을 입엇다고 옷기 옛날 옷기, 옷기렌 헌 부락이 잇엇주. 의기리가 옷기렌 헌 어 그래 헷다고 헌 뭣이 잇는디. (중략) 그후에도 그것에부떠서 얘기헐 것이 잇주만은 자그만치 내가 얘기허는 거죽. 그 양반이 뭐헤서 그, 저 김씨 감목 김씨, 감목관 감목 김씨가 이제 같이 그 말을 헌납헷는디 그 헌납헌 그 양반이 어떤 뭣이 잇냐허믄 이제

"내 당신 집이 오란 신세도 많이 끼치고 헷으니깐 당신 부친은 어디에 어디에 모셧냐고 당신 부친을 뭐허겟다."

고 허니깐

"겅 헙센."

겅 헤서 그 간 그 양반이 그 목장에 가서 그 뭣을 ᄀᆞ리쳔 산소를 보젠 암만 헤도 산터가 안 나완 산터가 안 나왓는디 한 삼일 뎅겨도 안 나왓는디 하루는 가서 ᄌᆞ근ᄌᆞ근 산터를 허는디, ᄌᆞ근ᄌᆞ근 혈기를 불라가다그네

"나 저 우이 강 내려온 세에 이디 ᄀᆞ만히 사십서."

허난 사 시렌 허난 ᄒᆞᆫ 두 발 삿인디, 불른 발이 우묵거련 발을 디디질 못헤연 허니깐 ᄒᆞᆫ동안 잇인디 암만헤도 젼디질 못허난 발을 확 들으난 기냥 기냥 비둘기 한 쌍이 그냥 놀아나불언. 내려오란 벌씀 당신 그 멕은, 당신 멕은 터 터 버렷다고 날려 버렷다고. 겅 헤도 여기 모셔 보렌 겅 헨 감목 김씨 집안이 그디 또 산을 썬 그 말 곳사 얘기헌 그 말도 뒛고 이 헨 살앗는디 그 산은 집 요 중간ᄁᆞ장은 그 집이 잇엇덴 허는디. 집을 어떤 식으로 뒛냐 허믄 옛날 초가집 짓젠 허믄 가운디 영 포메는디 포 바치젠 헌 지둥 잇주. 지둥을 우로 영 끈언, 이 낭을 그냥 잘 놓지 안 혀고 기냥 산 채 우로만 낭만 싹 끈어네, 그디 집 짓언 집이 잇엇젠 헤.

- 핵심어 : 종다리, 호종달, 중국, 제주도, 산혈기, 물, 예촌, 표선면, 토산리, 비둘기, 산

W_L_140 주인 잘 모신 영산이

2016년 11월 20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이현정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조사자] 영산이골은 어떻습니까? 영산이골 얘기는.

[제보자] 영산이골은 저쪽인데, 어, 그거는 지금 이제 그, 강씨, 여기 강씨허고는 다르고.

[조사자] 예, 파가 다른 거지예?

[제보자] 어, 저기 누구그믄 말바치 김만일 감관있잖아요.

[조사자] 예, 김만일.

[제보자] 김만일에, 부인이 그 강씨일 거요. 영산이골 그 딸일 거요.

[조사자] 아, 거, 그 딸입니까?

[제보자] 에, 그 딸일 거요. 그니께 강씨, 그것이 족보 보면은 거, 김만일의 부인이 거, 강씰 거요. 아니, 아니, 어 맞어. 부인이 강씨. 거니까 원래 이제, 거 강댁에서는 그, 김만일 바친 말이 전부 김만일 말이 아니고, 거 처갓집 말이 거의 삼분의 일 할이여. 근디 그냥 김만일이가 바쪄 불엇다고 지금도 후손덜이 불펭을 헤.

이제 근디 이제, 뭐냐 그러면은 그 김만일이네 이제에나 처가가, 이제는 말을 많이 키웠는데. 그 말을 보는 머슴이 이제, 영산이라, 영산이라.

이제, 그래서 이제는 영산인데, 거 이제 김만일이 거니까 장인이 돌아가서, 이제 그, 좋은 산터를 좀 보려고 허니까, 산터를 못 봐가지고 지관을 데려다가, 뭐 한 석달을 밥 멕여서 헤도 산터를 못 정헤서 한데, 그 영산이, 그 이제, 머슴이.

"아이, 난 무식헤서 그런 건 잘 모르주만은, 내가 말, 거, 끌어가면은 아, 거기, 그 동산 우에 뚜뜻헌 데가 있어가지고, 내 거기 들엉 누워서 자고 허는디, 아, 거, 뚜뜻헌디면 좋을 거 아닙네까?" 그러니까.

"아, 거긴, 저기, 그냥 언제나 해 발허고 뚜뜻헙네다."

"거, 한 번 가보자."

헤서, 아 그, 지관 데리고 가니까

"아, 여기가 아주 춤 아주 명당이라고 좋다."

아, 그래서 이제는 거기다가 지금 거 산소도 있고. 이제, 그, 산을 쓰고. 게니까 이제 후손덜이 그 영산이가 죽으니까, 이제 평생 그래서 그 좋은 산터도 알려 주고, 또 이제 그, 주인 말 잘 듣고 허니까, 여기 같이 묻어.

거기서 거의 바로 그 밧 안네다가 또 그 영산이를 이제 묻엇어.

[조사자] 묻언마씨? 같이?

[제보자] 어, 묻엇어, 어, 강씨는 안 묻고, 밧 안네 묻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지금 막 오랫지 뭐. 오래니까 이제는 그 묘제헐 때는 그 영산이, 그 안테도 제사를 헤, 그 자손덜이. 제사를 아마 멧 년 전에 아마 그 영산이 아마 그, 비석도 있어. 거 세워 줬을 거여. 거 나보고 비문 지어달라고 헤서, 내 지어 줬는데.

[조사자] 그렇구나, 그믄 영산이가 그 터를 봐 준 거마씨?

[제보자] 아이, 본 것은 아니고 터를 못 봐서 허니까, 못 봐서 허니까. 아이, 그 내가 그 물, 소 그, 보러 가면은 그저 좀 비슷헌 데도 언제나 그기가 산림이 뚜뚯헤가지고 나, 그냥 허는디.

"거, 뚜뚯허면 좋은 산터 아닙네까?"

"어디 혼 번 가보자."

그래서 인제 그기 가서 이제.

[조사자] 겐 복 받앙 같이, 그래도, 밧담 안네 같이 묻어 준 거구나예?

[제보자] 어, 경 헨 거 이제, 그, 산터도 봐 주고, 또 주인 잘 따르고 했으니까. 거 묻어줘야 뒌다고 헤서 거헷지 쩨끄만이 묻어줬어.

[조사자] 그면은 강칩이에서 영산이도 같이 제사도 지내는 거?

[제보자] 지금도 제사 곹이 헤.

- 핵심어 : 영산이골, 강씨, 김만일, 장인, 산터, 명당, 묘제

W_L_141 중문 주상절리대

2016년 12월 16일, 서귀포시 중문동 이성무씨 댁, 김선희 조사.
이성무(남, 1943년생, 서귀포시 중문동)

[제보자] 주상절리대는 지금 그 대포 주상절리라고 말하는데 대포지경이 아니고 그건 중문 지경인데. 저짝에 지삿개, 지샛개인데 지삿개라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뜻인고 하면 주상절리 동쪽에 움푹 들어 간 것이 있거든. 거기에 테우라고 알아져?

[조사자] 예, 예.

[제보자] 그것이 한 두 개 정도 들어와서 정박해서, 샛개라고 무사냐 하면 대포 큰개하고 베른내하고 사이에 샛개, 사이에 있는 작은 포구다 해서 지삿개, 지샛개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거기를 대포라고 했냐면 옛날엔 길이 뚫리지 않으니까 대포 그 마을로 다가 그 길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대포 지삿개라고 첫 정보를 잘못 줘 버려서 대포라는 이름이 되었고. 대포가 아니고 완전 중문.

[조사자] 원래 주상절리는 중문 지경인데 처음에 대포로 출입을 하다 보니….

[제보자] 처음에 길 만들기 전에 소로가 있었는데 길이 험하고 하니까 그 대포를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 첫 정보가 잘못 되어서 인식이 잘못 되어서 대포 주상절리라고 되는데 아니고 중문.

베른내 포구에서 되고. 바윗돌도 베른내 이짝에 서쪽부터 바위 이름이 전부다 틀려. 옛날에는 주장절리대가 물도 깊고 고기들도 많이 나고 그렇게 해서 큰 고기들도 많이 잡고 했는데 요즘은 어족 자원이 고갈되부니까. 어장으로 좋은 자원이고 또 경치도 좋고. 거기다가 그 바위에 대한 이름이 아진덕이니, 초상연이니 이름이 다 있어요.

[조사자] 주상절리대에는 내려 오는 전설이 없습니까?

[제보자] 신검물이라는 곳에는…. 주상절리라는 것이 예전에는 초상개라고 했어요.

[조사자] 초상개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제보자] 초상개는 뭐냐면 어쩌면 상제가 죽은 사람 초상을 사서 상제질 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 있고. 그 서쪽에는 싱거물이라는 옛날에 거 오름에다가 논 박았을 때는 물이 논 하류가 되는데 단물, 짠물 해서 싱거운 물이라고 해서 싱거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싱거물, 옛날에는 바닷가에 나가서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자꾸 올라왔다고 해서 싱거물이라고도 하는데. 확실히 아는 사람은 잘 없고. 이렇게 해서 들은 말.

- 핵심어 : 중문 주상절리, 지삿개, 지샛개, 대포, 테우, 샛개, 베른내, 초상개, 싱거물

W_L_142 중산간 돗드르

2016년 12월 7일,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포시보건소, 김선희 조사.
오응석(남, 1944년생, 서귀포시 토평동)

[조사자] 동네에 옛말은 엇수과?

[제보자] 우리 동네를 중산간 돗드르라고 헷어.

[조사자] 돗드르 마씸?

[제보자] 응, 돗드르. 전설이 그렇게 되다가.

[조사자] 그 전설이 뭐마씸?

[제보자] 돗드르, 그니까…. 병디에 옛날 이름이 병디. 그 촌락인데 그디 사람도 안 살고, 그 돼지 같은 거나 살고. 도새기…. 이런 정도로만 살던 지역이, 마을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 설촌에 정씨니, 오씨니, 그런 분들이 정착을 해서 살다가 막 어렵고 하니까. 중산간에서 해안가로 내려와 잡아먹기를 위해 가지고 살다가 막 어려우면 힘겨우면은 그 저, 지금 파라다이스호텔 위에 절벽이 있어요. 강행 떨어져 죽음도 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에야 와서는 밀감으로 주산을 해서 평화롭게 살고는 있는데 옛날 살기가 어려운 때 풍년을 들어야 밥 세끼를 먹어야 했지요.

[조사자] 돗드르는 어떵 헹 돗드르엔 허는 거마씸?

[제보자] 돼지들이 잇엉 돗드르. 돼지같은 그런 정도로 지역이었는데 그게 사람 살기가 한 오백년 전.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고.

- 핵심어 : 토평, 중산간, 돗드르, 병디, 도새기, 정씨, 오씨

W_L_143 참판 김명헌

2016년 12월 16일, 서귀포시 중문동 이성무씨 댁, 김선희 조사.
이성무(남, 1943년생, 서귀포시 중문동)

[조사자] 참판 김명헌이라고 알아지지예?

[제보자] 아, 아, 알지, 알지. 김명헌이라…. 이 사람은 광산 김씨인데 1414년 숙종 40년에 색달리 지금 관광단지 본부 있잖아, 여미지 그 쪽에 살다가 나중에 천주교 자리에 이사왕 살았는데.

이 사람은 죽으나 사나 가문과 고장의 명예를 위해서 과거 시험만 보려고 했는데. 옛날은 우리 제주도 사람은 육지로 나가는 게 금지되어서 못 가잖아요. 그런데다가 김상헌인가? 누구 저, 심낙수같다. 그 어사가 명으로 제주도 내려와서 제주도에 자꾸 민란이 생기니까 좀 달래라고 해서 했는데. 1794년 정조 18년 4월에 과거가 실시되었는데 근데 이건 서울 가서 본 게 아니고 제주 목관에 모여서들 시험을 봤는데. 이때 김명헌이 나이가 팔십일세라. 그때 대책과, 뭐 질문하면 빨리빨리 탁 대답하는 거. '신년은 구구요, 낙방은 삼삼이라.' 나이는 팔십일세고 낙방은 아홉 번 떨어졌다는 그 말이라.

그래서 1795년 2월 19일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간 걸로 되어 있어. 근데 그 조관한 때에, 관 짜서 한 때에, 그때야 방이 날아온 거야. 연락이 온 거지. 그러니 관이 둥둥 울렸다 그런 얘기가 전해져요. 지금 이 영감 비가 비젯동산이엔 헌 디가 잇어.

[조사자] 비젯동산.

[제보자] 비좃동산. 비라는 건 날 비, 새가 날아간다는 형이라 해서 비좃동산. 거기다 했는데 여기다 보면 김명헌은 대정 사람이다. 신년 대책거에 이등이다. 특명으로 호조참판이라는 명이 내려왔지. 그 당시는 유명한 사람이 같이 합격을 했는데 과거 본 것을 서울에 가서 임금에게 보이면 임금이 합격 불합격을 했다고 해. 모르는 사람은 서울에 가서 과거를 봤다고 해. 그건 아니고.

[조사자] 돌아가신 다음에 합격 통지서를 받아부니까.

[제보자] 그래도 참판, 그것이 계속 유지되니까.

- 핵심어 : 김명헌, 참판, 과거시험, 비젯동산, 비좃동산, 대정사람, 호조참판, 관

W_L_144 천제연 논골과 채구석

2016년 12월 16일, 서귀포시 중문동 이성무씨 댁, 김선희 조사.
이성무(남, 1943년생, 서귀포시 중문동)

[제보자] 옛날 오름에는 채구석이라는 분이다가 그 논을 박았다가 논골을 만들었잖아요. 채구석, 대정현감 분인데. 중문에 살면서 그 물을 이용하면 만인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논골을 박았는데….

[조사자] 어디 물을요?

[제보자] 천제연 물을. 그렇게 해서 논골을 박았는데 지금 그 천제연 물에다가 웃논골하고 알논골을 있는데 그 조면암 바위를 뚫을 때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화약을 조금 구해 와서, 서쪽에도 잇주만은 동쪽 거는 나중에 멘들고. 서쪽 거는 먼저 멘들었는데. 그 동쪽 멘들 때 채구석 영감이 만들었는데 그 조면암 바위를, 엄청나게 단단한 바위인데 그 돌을 깨서 논골을 한 이킬로 정도 만들어서 논을 박아서 논농사를 짓곡 했었는데.

[조사자] 논골이라는 게 수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보자] 응, 논골. 우리 중문에다가 사람들이 사는데 물하고 바로 천제연을 가져서 한 게 아니고 옛날은 물이 굉장히 귀했거든. 천제연 이용한 것은 오래지를 안 해여. 워낙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는. 그것을 한일합방시대에다가 그기에 계단을 만들고 이용하고 했지 그전에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통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다람지궤라고 지금도 흔적이 있는데 바위그늘집.

[조사자] 바위그늘집?

[제보자] 언덕 아래 굴같이 된 걸. 거기 그냥 물을 이용하고 굴 속에서 원시인들이 살았던 흔적도 있어요.

- 핵심어 : 대정현감, 채구석, 논골, 천제연, 웃논골, 알논골, 다람쥐궤, 바위그늘집

W_L_145 천제연 선녀

2016년 12월 16일, 서귀포시 중문동 이성무씨 댁, 김선희 조사.
이성무(남, 1943년생, 서귀포시 중문동)

[조사자] 천제연에는 선녀가 내려 온 얘기 없습니까?

[제보자] 옛날 천제연은 영주십경에도 안 들어가. 천제연은 폭포가 삼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짝에 나무 숲이 너무 무성해서 사람이 인접하기 어려워서 옥황상제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했다 해서 천제연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하는데.

[조사자] 아, 그래서 천제연이구나.

[제보자] 근데, 천제연은 이상하게도 사람이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없어. 그렇게 높아도. 웬일인지 그런 일이 안 생겨. 중문 천제연은 사람 떨어져 죽은 일이 없어. 그렇게 신성한 곳이라 해서 사람 죽은 일이 없어요.

- 핵심어 : 천제연, 영주십경, 선녀, 목욕, 옥황상제

W_L_146 최영 장군

2016년 12월 5일, 추자면 대서리 대서리노인회관, 문순덕(김은정 · 정이슬) 조사.
원용순(남, 1933년생, 추자면 대서리)

[조사자] 최영 장군과 관련된 뭐 이야기 내려오는 건 없습니까?

[제보자] 지금도 최영 장군 사당이 여기에 있고, 또 저희들이 봄, 가을 두 번을 풍어제를 지내고 또 최영 장군 사당에 당 크게 인자 모십니다. 모시는데, 그분이 인제 그니까 여기 보면은 약 한 이만 명이 왔답니다. 그 군사가 여기 주둔해가지고 있으려고 하면은 뭡니까? 우리 제기 차는 거 있죠? 질겡이?
이제 그 얘길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는 옛날 어느 군인들이 어느 지역에 주둔하면은 그 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제일 먼저 뿌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돋아나면은 우리 요즘 이 얘기하는 뭐라 그럽니까? 뭐 아까징기? 고런 거. 그거를 대용하기 위해서 그 씨를 뿌려가지고 일단…. 싹이 나면은, 그거를 또 째진 데나 곪은 데나, 또 아픈 데나 전부 붙이면 그게 나아요. 실지 어려서 그렇게 했으니까.

[조사자] 약초로 썼구나.

[제보자] 예, 약초로. 그걸 보면 길가에가 경장이 많습니다.

[조사자] 최영 장군이 추자도에 왔을 때가 대략 언제쯤, 멧 벡 년이라고 이야길 들었습니까?

[제보자] 그러니까 아마 고려 말기쯤 됐을 거예요. 공명왕. 제주도 석질리난(목호의 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왔댔으니까요.

[조사자] 아, 제주도 무슨 난?

[제보자] 석질리난. 몽고. 제주도로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추자도에서 머물렀죠.

[조사자] 아, 풍랑 만나서. 그럼 그 당시 와서 어떤 농사를 전달해 줬다고 들었습니까?

[제보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농사 기법에 대해서 전부 알으켜 준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모르잖아. 그 다음에 또 어망 짜는 방법, 그런 방법도 알으켜 주고. 어망을 짰으니까 고기 잡는 방법도 알으켜 주고. 구체적인 거,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줬는진 저희도 구체적으론 모르고 있지만은. 전설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서 그분이 당을 처음에는 지금 모셔져 있는 당이 아니었고, 지금 우리 여기 돈대산 그쪽에 가 있었어요. 그쪽에 있는 거를 이제 지역 분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지금 현 위치에다가 당을 새로 짓고, 현판을 써가지고 붙이고 당을 거기다가 만들었죠.

- 핵심어 : 최영 장군, 추자도, 질겡이, 농사, 풍랑, 약초, 농사 기법, 고려말, 제주도, 석질리난, 몽고

W_L_147 추자도 오씨와 황씨의 금혼

2016년 12월 5일, 추자면 대서리 대서리노인회관, 문순덕(김은정 · 정이슬) 조사.
원용순(남, 1933년생, 추자면 대서리)

[조사자] 오씨하고 황씨 이야기예.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제보자] 그러니까 약 한, 이백년, 신유박해 때니까. 그 당시 이제 그 황사영 씨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집행되지 안했습니까. 게, 그분의 어머니는 정난주 마리아라고 제주도로 유배를 왔기 때문에….

정난주 마리아가 제주도로 유배 올 때, 그 애기 우리 나이로 두 살베기, 그러니까 만 한 살된 애기를 안고 유배를. 그 당시는 해남이나 강진에서 이렇게 오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동력 풍선으로 오다보니까 추자도가 보인 거예요. 그레 추자돌 보니까 예초리 그때 섬 물생이끝 옆에 보니까 소들이 놓여 있거든요. 저녁땐데.

여기다가 애기를 놔두면은 혹시 저 소를 저녁에 거두러 오는 어부가 아마 만나지면 주울 거고, 못 만나면 죽을 거니까. 정난주 마리아가 사공에게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폐물을 놔두면서 '어차피 얘는 내가 제주도 데리고 가 봐야. 내가 노비로 가는데 죽을 건데, 여기서 죽었다 그러고, 죽어서 수장했다 그러고 이 섬에다 내려놓자.'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 애길 강보에다 싸가지고 그 예초리 물생이끝에다가 내려놓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저녁에 오씨 어부가 이제 그 소를 거두러 오다 보니까 멀리서, 애기 울음소리가 인자 들렸다는 거예요. 들리니까 이상해가지고 애기 울음소릴 따라가지고 쭉 갯가에 걸어서 가 보니까 이런 강보에 싸여서….

강보에 싸여서 애기가 울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애기를 안고 인제 집에 온 거예요. 집에서 인제 키우는데, 집에 놔두니까 애기가 배가 고파서 막 울 거 아니에요. 막 우는데, 그 오씨가 하도 애기가 울어서 혹시 너 젖이나 물려 보면

은 애기가 울음을 끄칠런지 모르니까 한 번 물려 봐라. 그래서 메누리가, 갓 시집 온 메누리가 에, 돌아서가지고 애 안고 젖을 먹이니까 그 새로 시집 온 메누리 젖에서 젖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제 황경한이 정난주 마리아의 아들을 인제 젖을 먹여서 키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오씨 그 할아부지가 이 애기는 우리 오씨네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의 혈통, 우리의 피를 먹고 자랐다.

그래서 이후, 오씨하고 황씨하고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 같은 가족이다. 친족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초리 오씨와 황씨는 결혼을 못하는 전설이 내려와서 오늘날까지도 예초리 오씨와 황씨는 결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조사자] 전설, 거니까 예초리 오씨하고 황씨만 결혼 안 합니까? 추자도 내에서?

[제보자] 아, 그러니까 추자도 내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 핵심어 : 추자도, 오씨, 황씨, 결혼, 예초리, 정난주, 황경한, 황사영, 유배, 제주도, 애기

W_L_148 추자도 지명유래

2016년 12월 5일, 추자면 대서리 대서리노인회관, 문순덕(김은정 · 정이슬) 조사.
원용순(남, 1933년생, 추자면 대서리)

[조사자] 이 추자도에서 나무가 다 타 버린 이야기나 뭐 그런 건 없겠습니까?

[제보자] 그니까 이 나무가 탄 얘기는, 에, 옛날에 추자라고 하는 그 명도 이 추 짜가 이 가래나무 추 자에요.

[조사자] 그럼 가래나무를 저 추자도 나무로 생각한 겁니까?

[제보자] 예예. 그랬는데 그 가래나무가 얼마나 많이 컸느냐면은 상추자하고 하추자하고 연결하는데 나무가 연결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조사자] 지금 다리 논 데?

[제보자] 예, 다리 논 데. 그러니 아마 좀 가까웠겠죠. 그 당시는. 그런데 그 불이 나가지고예. 인자 다 타 버렸다는 그런 전설도 있고.

또 그 최영 장군이 바람을 피해서 와 계실 때, 인제 풍파가 자고 가게 됐니까 그 가래나무를 다 짤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약 이만 군사가 왔고, 그 베들이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에다가 횃불을 켜기 위해서 그 가래나무를 다 짤라가지고 가가지고 추자도에 가래나무가 없어졌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주도에 최영 장군이 갈 때 전 베에다 횃불을 다 켜고 가니까 얼마나 많은 분이 그걸 베었을 거예요.

[조사자] 그래서 그 베가 제주도로 들어가고.

[제보자] 제주도 가가지고 난을 진압시키지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전설도 있고.

[조사자] 아, 두 가지구나.

[제보자] 예,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어느 거를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데….

[제보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 핵심어 : 추자도, 가래나무, 최영 장군, 횃불, 제주도

W_L_149 충심을 다헌 고성리 홍 효자

2016년 10월 18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이현정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조사자] 고성에 홍 효자 얘기도 그때 허셨었지예?

[제보자] 아, 홍 효자는 거 이제 실지로 이제는 그, 있었던 이제 인물인데. 어 물론 딴 데도 이제, 효자가 많고 뭐 열녀도 많고 이런데, 지금 그냥 효자 열녀 허면은 그 나라에서 표창해서 비석 지어준 걸로 생각허지만은, 물론 이 비석을 세와 주면은 그렇게 효자라고 비석 (불청)을 세와 주면은, 걸 정녀라고 허는데.

[조사자] 정녀.

[제보자] 정녀라고 허는데, 열녀도 세와 주고 허면은 그, 어떤 그 표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손은 그 종손만 후손이 다 가 아니고, 조선 왕조가 끝날 때꺼지 세금 면제, 병적 면제, 또 천민은 신분이 상승됩니다. 건 조선시대 제도입니다. 왜그러냐 허믄, 거 효자는 얼른 생각허믄 지금도 무슨 뭐 효도 허면은 거 뭐 가정 뭐 이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부모를 잘 섬길 줄 아는 사름이라야, 나라를 잘 섬길 줄 알기 때문에 효도를 잘허는 사람은, 그니까 바로 충신은 효자에 문에선, 효자에 집에서 난다 이거에요. 그래서 국가에 기둥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헌 사름은, 국가에서 이제는 그 돌봐 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허면, 취직도 시겨주고, 또 열녀도 마찬가집니다. 열녀도, 열녀도 그 열녀에 종손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꺼지.

[조사자] 세금 면제.

[제보자] 예, 세금 면제, 군인 면제, 또 헹교에 취직헐 수 있는 그 학생 공부 교육 받을 수 있는 거 이 혜택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홍 효자가 이제는 유명허다고 허는 것은, 이제는 원래 그 홍 효자는 이제 큰 양반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 이제는 효자가 되는데, 그 자손덜이 이제는 지금도 많고 이제 그, 자손들이 뒤에 이제는 딴 효자덜은 효자 정해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만 받고 이걸 말았는데, 제주도에 오는 목사라던지 정의현감이라든지 또 뛰어난 이제, 학자라든지 이런 분네헌티 그 홍 효자에 대헌 그 기록을 전부 받아뒀습니다. 찬양허는 시도 받아 듣고, 이제 그래서 그, 홍 효자가 이제 더

이제는 그, 소문이 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 효자는 사실은 이제 정열을 허는 것이고, 충신은 정열을 아니 허는데, 이제 그, 그 집안에서는 이거 홍 효자는 이제 충효를 겸했다고 헤서 옆에 크게 또 비석 세워놓고 그래요. 거는 뭔 말이냐 그러면 그 이제는 홍 효자가, 이제 그, 어, 이제 그, 효자가 된지, 그 뒤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국상이 나니까 임금님이 돌아가니까. 예전에는 뭐 집에 와서도 부모가 돌아가면 매달 초하루 ᄇᆞ름에는 음식을 체려 올리고 곡을 허는디, 국가에도 임금이 돌아가면 그럽니다. 거니까 이제 보통 임금은 돌아가민 장례 때꺼지는 마을마다 그 동네 북쪽에 가가지고 좀 높은 곳에서 북쪽을 향해가지고 향 피우고 곡을 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초하루 ᄇᆞ름인 안 허는디 홍 효자는 지금 이제 그, 성산읍 수산리에 살았는데, 지금 저 다랑쉬오럼 있지.

[조사자] 예, 다랑쉬오럼.

[제보자] 그 저 북쪽에 제일 높게 보이거든요. 실지로 높고 안 높은 건, 게니까 매월 초하루 ᄇᆞ름에 그, 북쪽을 향해여. 그 다랑쉬오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북쪽을 향해서 이제, 곡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주 이제 그 충신이라고 요렇게 이제, 그 허는 그 전설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충허고 효를 겸했다고 이렇게 헌데, 그러나 이제 정식으로 공명전은 이제 충은 아니고, 그냥 그 효자이지 정녀인데, 우선 그 기록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분이 홍 효자입니다.

- 핵심어 : 고성리, 홍 효자, 충심, 충신, 충효, 수산리, 다랑쉬오럼, 오름

W_L_150 큰할망

2016년 12월 7일, 서귀포시 호근동 호근동마을회관, 김선희 조사.
오남기(남, 1935년생, 서귀포시 호근동)

[제보자] 옛날에 한락산에서 내려오던 할망이 그 고근산 등허리에 걸련 방아기 글로 밀쳔 범섬 발로 나왓다고 헤여.

시오름은 두인배고, 저 발 두 개 벋으니까 저 범섬에 걸렷댄도 헷어. 한라산은 베개로 베고, 저 시오름은 벳도롱이고, 발 벋으니까 범섬 구녕 두 개 잇어. 글로 나왓댄. 삼승할망인가가.

- 핵심어 : 한락산, 한라산, 할망, 고근산, 범섬, 시오름, 삼승할망

W_L_151 태인송로즉음(泰仁送路卽吟)과 현덕문 선생

2016년 11월 20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이현정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조사자] 노형 사람.

[제보자] 현○○ 총장네가 아마 고조쯤 뒐 거여.

[조사자] 아, 고조. 거기 고조.

[제보자] 그래서 이 양반이 과거를 보러 간데, 과거 보러 가면은 대개 동네마다 그 동네 부잣집이 잇거든. 그면은 대개 이제, 그 부잣집이 들어 당장 공짜로 제와주고 멕여주고 그래. 저, 잘 살믄서 지나가는 나그네 안 멕여주믄은 삼대 안네 ᄌᆞ손 망헌다고 헷어. 조선시대 제도여. 근디 이젠 어뜬 땐 부자칩이 잇으면 이제, 대개 서당을 찾아가. 게, 이 양반도 이제, 태인 여기 태인.

[조사자] 태인?

[제보자] 어, 전북 태인. 거기 가서 이제는 날 저물었어. 그러니까 요리 보니까 어디 부자칩이 엇나 헤갖고, 그 서당이 잇어. 게, 이제 여기 와서, '밥 ᄒᆞᆫ 끼 얻어먹고 자고 가야 쓰것다.'고 헤서. 가보니께는, 거기 선셍님은 안 계시고, 이, 저, 학셍덜만 있어.

"아, 나가 지나가는 과객인데, 그냥 과객이 아니고, 나가 서울로 과거보러 가고 있소. 게,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주위 어디 뭐 큰 집도 없는 거 ᄀᆞ뜨고 헤서. 여기 들렀으니까, 오늘 밤 나 재워주고 좀, 이제 저녁 좀 멕여 달라."

고 허니까, 학생덜이 싫거든?

"아이, 선셍님도 안 계시고, 우리 그렇게 손님 데접헐 여유도 없습네다."

허고 대접을 안 헤 줘. 그래서 요 시를 지어놨소. 왜그냐 허면은 유가(儒家)의 기본이 인(仁), 의(義), 예(禮), 지(智)가 이거이 기본입네다. 인이 제일 첫 번째요. 실천해야 될 것이 그래서 이거, 태인은 인자가 들어갔단 말이여, 동네 이름에.

[조사자] 그래서 거기에 인(仁)자구나.

[제보자] 옳지, 시에 그래서 이제는, 그래 이제는, 인이라고 허는 것이 인, 의, 예, 지. 거서도 제일 으뜸머리 그 글자를 가진 이 동네가 그 말이여, 태인이.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밑에 요 번역을 보시면은 어느 때면 밝은 덕을 높아져서, 인

이 인으로 지명을 삼은 데서 인을 실천해야 뒈는디 지나간 사람 밥을 안 줘.

[조사자] 그렇죠.

[제보자] 거니까 은자면은 이 동네가 좀 이제는 유식헤질 거냐 그 말이지, 언제면은 그거 밝은 덕이 높아져서, 인이 높아져서 그 말이여. 인을 실천을 헷어, 마을 이름만 인이고 이 실천 안 헌다. 높아져가지고는 우아래가 이제는 구차함이 엇어질 거고, 그니께 '웃사람이나 선셍 엇다고 핑계대지 말고, 학생덜이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여. 요 것을 써 놓고 이제는 나왔어. 나와서 이제 또 '어디 어느 집을 가서 밥을 얻어 먹어볼꼬?' 허는디 선생이 돌아왔어. 그 이, 요 종이짝 요, 요, 이거, 시 써 놓고 굴러다니고 잇고.

"요고, 이거 누가 써 놧냐?"

"아까 어떤 손님이 지나가다가, 오널 밤 재워 둘라고 헤서 양식도 엇고 헤서, 못 재와 준다고 허니까 써 놓고 갑디다." 허니까.

"당장 가서 그 어른 가서 찾아서 모셔오니라. 보통 어른이 아니여."

태인, 마을 ᄀᆞ을 이름이 태인인디, 첫째 그 인 실천을 못허고, 글 공부 헌다고 떠들…. 엄청난 이것이 아주 욕이거든요?

[조사자] 큰 인인데예?

[제보자] 그래서 모셔다가 잘 대접헤서 보냈어. 게서 이제 그때부터 태인서는 '제주도가 이제 무식헌 곳이 아니다. 우리가 당허지 못허겟다.' 이렇게 다닌 거야. 그니까 이제는 이제는.

[조사자] 그래서 태인송로즉음(泰仁送路卽吟)이라.

[제보자] 옳지, 옳지, 옳지. 그래 이, 저, 이것이 유명헌 시여. 게, 이 양반 책도 많이 지엇다고 해도, 하나도 전허는 것이 엇어.

[조사자] 전하는 것이 엇구나예?

[제보자] 글자 한 가지 엇어.

[조사자] 그럼 이 현덕문 선셍은 제주도 그냥 학자라고….

[제보자] 학자지 뭐.

* 泰仁送路卽吟: 泰是三陽初/ 仁爲四德首/ 那時陽德崇/ 上下能無苟
(해석) 태인에서 길을 잃고: 태괘(泰卦)는 삼양으로 시작되고/ 인은 네 가지 덕목의 첫째인데/ 어느 때면 밝은 덕이 높아져서/ 위아래가 구참이 없어질런고

• 핵심어 : 태인송로즉음, 현덕문, 과거, 서당, 과객, 태인, 학자

W_L_152 태흥3리 설촌 유래

2016년 12월 7일, 남원읍 태흥2리 태흥마을회관, 김선희 조사.
오명옥(남, 1934년생, 남원읍 태흥3리)

[조사자] 여기는 마을을 누가 만들엇수과?

[제보자] 태흥3리에 설촌된 때가 이건 이백 년 남죽인데 우리…. 그전에도 사람이 살앗주만은 못 사는 사람들이 잠깐 왕 살안 일 년 아니면 이 년 살당 떠나곡 떠나곡 했는데. 우리 조상이,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가 태흥2리에 살았는디, 이디를 동벤디 동벤디 헤낫어.

사람도 안 살곡 농사도 잘 안 뒈곡. 그래서 왔는데. 땅이 넓은 디를 찾아와서 말 백 수, 소 백 수, 닭 백 수 삼백 수를 계산해서 여기를 왔다고 하는데. 말 백 수, 소 백 수는 했는데, 닭 백 수는 못했다고 해.

게난 우리 조상들이 사촌 형제가 이 동네 오랑으네 설촌을 시켜서 우리 할아버지네가 살게 되니까 딴 데서도 한 가구, 한 가구 들어와서 동네가 형성되었다고 해.

[조사자] 어디 무슨 성씨마씸?

[제보자] 오씨, 오씨.

- 핵심어 : 태흥3리, 동벤디, 말 백 수, 소 백 수, 닭 백 수, 오씨 하르방

W_L_153 태흥리 설촌한 오씨 하르방 물 무는 소리

2016년 12월 7일, 남원읍 태흥3리 오봉남씨 댁, 김선희 조사.
제보자1: 오봉남(남, 1922년생, 남원읍 태흥3리)
제보자2: 오명옥(남, 1934년생, 남원읍 태흥3리)

[조사자] 재미난 얘기 많은게마씸, 태흥은?

[제보자1] 겐디 우리 동네도 설촌한 디가 약 이백년 이만이. 이디 증조할아버지.

[조사자] 오칩이예?

[제보자1] 증조 할아버지가 저 큰 동네서 표선이서 이 태흥이리로 갈라왓어. 그 후에 혼 할아버지가 여기를 왓어. 그때는 여기가 무인 지경이니까.

[제보자2] 동벤디.

[제보자1] 동벤디 무인 지경이니까. 소 백 마리, 말 백 마리, 닭 백 마리 질루겟다고 해서 왔는데 쉐, 말은 백 마리 하고 빙아리는 빙애기는 아무리 해도 닭 백 마리를 못 채웠다 헷어.

[조사자] 무사 닭만 못 채왓인고예.

[제보자1] 모르죠. 하하.

[조사자] 소말은 한 디 닭은 엇어낫인가예?

[제보자1] 아, 뭐야 닭이 잇인디.

[제보자2] 닭이야 있었겠지만은 계획대로 못한 게, 소나 말은 돈이 되니까 열심히 키우고.

[제보자1] 그르체.

[제보자2] 빙아리는 뭐 돈이 안 되니까 그다지 신경을 안 썻다 이거주.

[제보자1] 그래서 옛날은 요즘은 밧 불린다는 말을 모르주이. 소말을 들여서 소로 밧 갈고. 말 불리고 해서 조같은 건 해 먹엇는데. 소말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저, 영아리 뒤에 가서 놨는데 밧 불릴 기회 되니까 장남들보고 말 춪아 오렌 하니까 춪으레 멧날 메틀을 춪아도 못 춪아완. 게난 그 할아버지가
"엣, 걸라들. 내가 같이 가면 될 것이다." 헤연.
"점심이나 잘 출려라." 하고 헤연.

그 태흥 목장 있는 영아리 등알에 강 높은 동산에 강 고운동산에 아자둠서 그 물 ᄆᆞ는 소리를 헷어이. 물 ᄆᆞ는 소리를 하니까 각지에 퍼저 있던 것이 한 딜로 오란 이렇게 한 줄로 삿단 말이여.

"이렇게 말을 츶는 거다."

게니까 이렇게 정남들한테 얘기했다 해요.

[조사자] 아이고, 흩어진 말을 말 모는 소리 하나로 다 찾았구나예.

[제보자1] 예, 예. 게니까 강 노믄, 지네 자유로다가 다니다가 할아버지 강 말 ᄆᆞ는 소리 허믄 경 허고 다른 사람이 허믄 아무리 해 봐도.

[조사자] 그 할아버지는 누구마씸?

[제보자1] 여기 이디 오칩이 증조할아버지가.

[조사자] 아이고, 대단한 할아버지인게마씸.

[제보자1] 예, 대단한 할아버지라. 옛날은 사농을 많이 헷어이. 이 여우네 사람들이 노루를, 개 해서 노루를 다울려서 하니까 이리로 막 뛰어 오니까. 그 할아버지 사는 더레 막 튀어 드니까. 할아버지는 약 폭허게 심엉으네 끌앙 앚앗어.

[조사자] 노루를마씸?

[제보자1] 응. 방석 들렁 폭 허게 끌앙 앚안. 그 노루 다울려 논 사람들은 틀림엇이 이 집 더레 들엇는디 할아버지가 똑 어디 곱진 거 닮긴 헌디 못 츶으크라.

"할아버지 이디 줍서게, 줍서게."

"느네가 츶아봐라. 츶아지믄 가졍 가믄 되겠네. 나, 노루 아이 봣다."

그렇게 헤여서. 장난도 옛날 어른들은 장난을 하엿어.

[제보자2] 우리 할아버지 처음 오란 살아난 집터가 바로 여기. 여기서 흔 백 오십메타?

[조사자] 바로 옆이구나예.

[제보자1] 이 큰 밧이 그 앞이 잇어난. 그건 겨울 되면은 물 바령하는 밧, 바령밧.

[제보자2] 바령밧이주, 바령밧.

- 핵심어 : 동벤디, 밧 불리기, 영아리 등알, 고운동산, 물 ᄆᆞ는 소리, 오칩이 할아버지, 사농, 노루사냥, 장난, 할아버지 집터, 바령밧

W_L_154 토산리 강갑댁

2016년 12월 14일, 표선면 성읍1리 송순원씨 댁, 송정희 조사.
송순원(남, 1937년생, 표선면 성읍1리)

[제보자] 성읍리서 어 성읍리가 아닌데 그 사람도 토산 사름인데 강갑댁이렌 허는 장군이 잇엇는디, 그 사람이 서울 갓어. 제주도 장군이라고 헷잖아. 겐 그 사람은 어째서 장군말을 들엇는고 허니깐 토산서 홀로 사는데 구렁팟 성읍2리가 구렁팟인데, 엣날은 구렁팟이렌 헷는데 지금은 성읍2리라고 하는데, 거기 마누라를 정헐라고 왓는데 그 여자가 성읍리 그 구렁팟에 박구장 각시렌 허는 사람인데 그 본 남편 허고 이혼헤도 그 마을에 살앗어. 사니깐 그 여자를 놔서 얻을려 결혼헐려고 하니깐, 구렁팟 청년덜이 막 모여들어서 반대를 헌다 말이여. 반대를 허니깐 반대허건 말라고 하고 막 가는디 엣날엔 동네별로 마을별로 들음돌이렌 헌 게 잇엇어. 들락허는 돌. 게난 이 하르방은 워낙 힘이 쎈 하르방이난 아 그 돌을 강 들러당 고랑창에 강 던져불엇다 말이라. 던져불이난 구렁동에서는 그 돌을 빠낼라고 아멩 힘써봐도 그 돌을 빠내지 못허니깐 그 원래 그 남저가 장가들려 헌 여자 본 남편이 허는 얘기가 게민 그 사름을 강 데려 와라. 데려 와서 이 돌을 뽑아내야지. 구렁팟에서 구렁동 사름으로선 뽑을 사람이 엇다. 구렁동에서 토산을 간 그 영감한티 강 그 영감이 아니지 그땐 젊을 때니깐 허니깐 왕 허는 말이

"당신 이 돌을 뽑아주면은."

그 본 남편이 허는 말이

"우리 본처허고 살아도 좋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돌을 뽑아내주니깐 그 본처허고 구렁동에서 같이 살앗어. 살다가 그 사람이 이젠 이 6·25가 닥치니깐 어디를 간고 허면 서울을 갓단 말여. 서울을 갓는데 홀 거는 엇고 이 마차 마차를 했는데, 물마차가 아니고 사람으로 끄는 마차를 헷다 말여 끄는 헷는디 이 사람이 뭘 헷는고 보니깐 그 건제사에 나무 베달허는 걸 헷어. 헌디 다른 사름덜은 물마차 실렁 가는 것도 뭐

헌디 이 사름은 물마차에 실르는 걸 자기 마차에 실렁 자기 혼자 끗엉 가거든. 끗엉 강 배달허곡 이렇게 허면서 살다가 게난 그 사름은 술 막 잇당 취헹 허면은 취하면은 질에 눠 잤이면은 지나가는 사람덜이

"아 제주도 장군 이디 잤이니깐 거찌지 말렌."

이렇게 허면서 살다가 돌아가셧는디.

[조사자] 김갑덱?

[제보자] 강갑댁이.

[조사자] 아니, 강갑댁.

[제보자] 응. 그 분 ᄌᆞ제분이 지금 구렁동 살아.

[조사자] 구렁동은 어디꽈? 구렁동?

[제보자] 성읍2리보고 구렁동이렌 헤.

[조사자] 구렁동.

[제보자] 엣날엔 구렁팟이렌도 허곡 구렁동이렌 헤여.

[조사자] 성읍2리.

[제보자] 구렁동이렌 허는 것은 용이 아홉이 나왓다고 구렁동이렌 헤여.

[조사자] 아 구렁, 구용동이구나.

- 핵심어 : 토산리, 성읍2리, 구렁동, 구용동, 들음돌, 서울, 물마차, 강갑댁

W_L_155 토산리 김당장

2016년 12월 14일, 표선면 성읍1리 송순원씨 댁, 송정희 조사.
송순원(남, 1937년생, 표선면 성읍1리)

[제보자] 처음에 그 사름이 힘 쎈 걸 몰랏는데, 그 사름이 그 토산서 그 마누라를 헤서 살아보질 못헷다고 헤, 게니깐 그 사름은 뭘 헤가지고 살앗는고 허니깐. 한라산에 강 도굴목헤당 초가집 짓는디 낭 풀아 먹으멍 살앗어. 게난 동네 사름보고 그때는 쉐로 강 그 굵은 낭을 싣그질 못허니깐 쉐에 시끄질 못허니깐 구녁 똘라그네 이디 줄 메영 쉐에 끗어. 쉐 ᄒᆞ나에 두 게 두 게를 끗엉 내려와그네, 그 낭을 풀안 풀곡 풀곡허면서 셍활허는 사름인디, 자꾸 헤가니깐 동네 사름덜이 쉐를 안 빌려주거든, 뭐 돈 ᄒᆞᆫ 푼 주질 안 혀곡 자꾸 쉐만 빌리렌 허니깐 안 빌려주니깐 안 빌려주건 말렌 헨 이 사름이 한라산에 간 집 초가집 서리 육십 개를 쫄란 딱 양끗엔 노끈으로 묶어네 가운디 졋다 말여. 지언 가름에 왕 다니니깐 길 너비보단 낭 너비가 넙거든 게니깐 놈이 울담이 다 씨러졍 엇어져 불언, 그만큼 힘이 세낫다는 거라.

[조사자] 그 사람이 이름이 김당장마씨?

[제보자] 응.

[조사자] 밥도 하영 먹어마씨?

[제보자] 밥은 그 사름은 베 ᄒᆞᆫ 밥을 못 먹어봣덴, 아무 많이 먹어봐도.

[조사자] 겡 헹 어떵 살안 죽엇젠?

[제보자] 혼자 살당 죽엇는디 그 하르방이 결과적으론 ᄌᆞ식도 엇어네 살당 죽엇는디, 토산에 우리 처하르부지 돌아가신 때 보니깐 그 하르방이, 그 하르방은 돌아가셔 불곡, 그 하르방 아덜이렌 헌 게 양제 아덜이라. 집 자석은 엇곡, 양제들언 사는 사람 얘기허는 거 보니깐 표선에서 표선 그 앞이 그 망오름이렌 헌 오름이 잇는디, 오름에 영장을 허레 벡오십 명이 표선에서 메영, 그 토산을 갓는데 간 그 영장헐 구뎅이 방중을 그 구뎅일 보고 방중이렌 허는디, 방중을 허다 보니깐 큰 돌이 멕현 도시 여기는 영장헐 수가 엇으니

"그 이걸 어떻게 허면은 뒈냐?"

허니깐, 흔 사름이 잇다가

"토산 가서 당팟당장이렌 헌 사름을 빌어오면은 이 돌을 뽑아낼 것이다."

경 허난, 이 하르방헌티 가네 그 ᄉᆞ실 얘길 허니깐

"게민 강 뽑아주주."

허는디 이 하르방이 가졍 갈 가면서 가졍 갈 것이 뭐냐 허면은 지금은 벳짚이렌 허는디 옛날은 산딧짚이렌 헤낫어, 산딧짚을 흔 단을 아젼 가는디 강 보니깐 큰 왕석이 구뎅이 판디 그 왕석 때문에 파지 못헌 게 잇이난, 하르방이 허는 말이

"게면은 내가 이거를 뽑아주면은 날 일당을 뭘로 주겟느냐?"

허니깐, 표선에서 영장허레 간 사름들이 벡오십 명 허는 얘기가

"돈으론 디릴 수 엇고 우리 벡오십 명 오늘 먹을 정심허곡."

피력이렌 헌 게 잇어 옛날은, 영장 끗나면 상젯군덜 술허곡, 떡헤그네 멕이는 게 그 피력인디 피력 피력.

"피력을 벡오십 명치 정심허곡 피력을 전부 디릴 테니깐 이걸 헤 주시오."

허니깐 그 하르방이 벳짚을 엉덩이에 놓고 돌에 강 앚언 돌 강 덴 쑥허게 밀리니깐 돌이 자절로 무너낫덴 헤. 그만큼 힘이 쎄난 장군이렌 헤. 그렇게 해서 그 하르방이 살단 죽엇는디.

- 핵심어 : 토산리, 김당장, 쉐, 초가집, 낭, 피력, 돌, 하르방, 힘

W_L_156 토산리 당팟당장

2016년 12월 15일, 표선면 성읍1리 성읍1리노인회관, 송정희 조사.
조인흥(남, 1934년생, 표선면 성읍1리)

[제보자] 저 옛날 힘쎈 사름은 당팟당장. 당팟당장이렌 허믄 요새는 기계톱이 잇어서, 그만 잇이민 낭이 탕탕 요거 끊겟다 허민 끊엇지만은 옛날은 그거 제곡, 뭐여 그 낭을 끊젠 허민 어려운디, 그 하르방은 상간집 집 초가집 흔거리칙 흔거리치를 등으로 지어그네 내려오랑 거 풀아먹곡 그 산 뭣으로 사는디, 상감이 이제 그 이 낭을 허는 줄 아니깐 찾아아젼 간 헤난에

"어떵 헹 오랏수과? 이거 허질 못헐 일인디 어떵 헹 험이꽈?"

말 성긋성긋허게 허난

"게민 어떵 험이꽈? 먹엉 살젠 허민 이런 일이라도 헤사 먹주."

허멍 허난, 경허난에 당신 허는 게 궤씸허니깐 옛날 말로도 궤씸허니깐

"당신 쫌 성명이랑 알앙."

"기영 허십주."

담베 폭삭폭삭 먹으멍

"담베나 흐쏠 테웁서."

흐쏠 안심시키곡 허난, 경허지 말아그네 빈 상지 오는디 거 방에도 파곡 낭도 헤영 풀아먹곡 헤여 했는데. 방엘 툭허게 허단 걸, 툭허게 데가리 우터레 영 쓰멍

"요 즈끗디 오랑 비 맞앙 안 뒙니다. 요레 옵서."

하르 말 곧단 중치멕현 겁난 그걸 앗안 다락 밀려비어 동

"으, 어디 상헐 건디."

아이고 이 이 하르방을 뭐헤민 안 뒈겟덴, 그냥 그 하르방

"제발 고양 잘 헤갑서."

헨 ᄉᆞ정헤연 하르방신디 ᄉᆞ정을 들을 사름이 ᄉᆞ정을 헤연 기냥 가 불엇는디,

그 후에 짐낭글헤난에 아래로 내려오젠 동네 강 쉘 빌릴라고 쉘 빌면 쉐에 싣경 올라고 헷는디 그 쉘 빌리렌 허니깐 이 사름신디 쉐나 사름이나 뭐 헷당은 힘이 세여노난에 당장 죽을 거난 빌려주지 말젠. 어떵어떵 핑계헤연 아니

"기영 헙주."

당신 힘으로 낭을 지어 아젼 동네 오란, 지금 질은 널럿주만은 그땐 요만헨ᄀᆞ라. 낭 지언 빙빙 도난 그 낭게 무거왓인지 게벼왓인지 옆이로 단 담을 다 ᄆᆞ레 지난 아이고 동네 사름덜이 손 박박 빌멍

"제발 나 쉐 빌려내키메 제발 그만 헤 줍서."

ᄉᆞ정허더라. 당팟당장. 토산.

- 핵심어 : 토산리, 당팟당장, 낭, 초가집, 쉐, 담베, 짐낭굴, 힘

W_L_157 토성 쌓은 김통정과 지집아이

2016년 10월 14일, 애월읍 수산리 수산리노인복지회관, 문경미 조사.
부규일(남, 1931년생, 애월읍 수산리)

[조사자] 뭐, '영헷다'하는 이야기를 골아주시면.

[제보자] 옛날에 김통정이가 토성을 쌓으라 헷거든. 토성을 백성들을 다 갖다 놓고 쌓는데 옛날엔 삽 목겡이 그런 것도 없어. 몇 달 몇 날 헤갖고 쌓는데. 먹을 것도 엇엇거든. 밥도 엇이니까. 똥이 마려워서 똥을 돌아앚아 이녁 똥을 줍아 먹으려고 하다가 똥 임제 먼저 줍아 먹었다 하여. 그 정도로 어려웟주게. 토성을 싸놓고 백성들 보고…. 그걸 닷 말인가 닷 된가 공출 허렌 허고. 가져오면 장군이 김통정인가. 달리면서 꼬리에 비차락 들러메고 팍팍팍팍 불꺽을 불리면은 안개가 잠매아지.

안개지면 적군이 오라도 안 보인다 이거여. 이거 허다가 봐도 김통정이가 도저히 갈 곳이 없으니까. 토성 알녁 편이 밧디 옛날에 기와 구워난 굴 있어. 굴. 가다 보난 김통정이 굴속에 들어가서 숨었거든. 숨어 잇는디 막 적군이 오라서 찾는디. 김통정 장군이 굴속에 있다는 말은 있는디. 굴을 팔 수가 없거든. 허다가 보니 한 열세 살 난 지집아이가 하나 있거든. 그 지집아이 보고

"어떻게 허면 이 굴속을 파서 헐 수가 있느냐?"

하니까 그 지집아이가 말허기를

"불미 걸어서 두 이레 열나흘만 붂없이믄 알아질 거라."

불미 걸엉 두 이레 열나흘 붂없이난 철이 녹앐어렌, 불에 문이 자락 씨러졋거든. 김통정 장군은 파짝 놀아나면서 저기 장숫물에 발로 팍 차면서

"백성들이 나 따문 고생들만 많이 허고, 이 나 발자욱이 물이나 먹고 잘들 살라." 하고 서쪽 나라로 도망갔다 허여. 도망가니 적군들이 오라도 못 찾았거든.

[조사자] 서쪽 나라렌 허민 어디를 말하는지?

[제보자] 모르지, 그것이 서쪽 나라가 어딘지.

- 핵심어 : 김통정, 토성, 불미, 지집아이, 서쪽 나라, 장숫물

W_L_158 풍수가 고전적

2016년 12월 7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문경미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제보자] 제주 고씬데 벼슬이 전적이니까 고전적이랜 헙니다. 이름이 홍진, 고홍진. 이원진 탐라지 교주헌 분네, 고홍진이가. 고홍진이가 이름이고, 벼슬이 성균관 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고전적 고전적허고.

요 얘기하고는 관련이 없지마는『탐라지』의 이원조가 쉽게 말하기로는 땅 보는 덴 아주 특출한 양반이요. 그전에는 우리 제주도는 그런 풍수가 없어. 땅보고 장사 안 하고 고전적이 그『탐라지』도 교주해 주고 이원진한테 풍수를 배운 거여. 정식은 아니주마는 그건 틀림이 없어. 그래서 땅을 잘 보니까, 후대에 고전적 허면 땅 잘 보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는디. 우리 집안에서는 고전적이 삼양, 화북 살았다고 하는데, 고씨 문중에서는 지금 오도롱 살았다고 후손들. 후손들 말이 맞을 텐데, 어디 산 것은 관계가 없고.

여기 보며는. 요 '현' 이라는데, 아들 정빈이가 문과에 급제하게 됩니다. 김춘택하고 사귀엇고, 오정빈이가. 요 현 이분네가 열 여섯 술 때 요 부친네가 돌아가셨대요. 이때가 고전적시대라. 그래서 소문에 땅을 봐서 장사를 지내며는 집안이 발복헌댄 허는데, 한번 집안 어른들이 열여섯 난 상주보고 제주 목안 찾아가서 초청을 해 오라고. 그래서 이 열여섯이 아니고 열두 살이라 했구나.

[조사자] 현이가?

[제보자] 어. 열두 살 고전적 집을 가니까. 그니까 물 탕 갓주마는 오후쯤 돼서 제주시 오도롱을 갔는데. 땀도 나고 여름이고 그러니까 또 그때는 상복 입어서 다닐 때고 허니까 바로 가서 고전적 집에 못 들어가고 올레 앚아서 땀도 들이고 갔다왔다 이렇게 하는데, 고전적 가족이 보고

"어떤 상주가 저기 와가지고 왔다갔다고 그럽니다."

그니까 아마 누가 땅 받으러 왔을 거라고 들어오라고 하라고. 고전적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지금은 이 후손들이 다 토평 살지마는 그땐 가시리 살 땝니다. 들어

가 인사드리고

“나가 저기 정의고을 사는데 상을 당했는데, 우리 부친 모실 땅을 와서 좀 봐 주십시오.” 하니까

한참 있다가 허는 말이

“집에 돌아가서 어른들한테 우리집에 장게를 오겠다고 하면 나가 가서 땅을 봐 주고, 그리 안 하면 산을 못 봐주겠다. 너 맘대로 안 되니까 그리 가서 의논들하고 오니라.”

기래서 일어서서 오려고 하니까.

“아이고 날도 저물고 산길에 못가니까 오늘저녁 여기 자고 내일 아침 밥 먹어서 일찍 가라.”

고 세상 모른 디 그때 시절에는 특별한 거주. 그래서 거기서 자고 아침 일찍 해 주니까 얻어먹고 집에 와서 이제 이 어른들한테 그 얘기를 허니까

“아마 그 딸이 시원치 못한 딸 일 거다.”

그러니까 가서 옛날에 곡식하면 마당에 널어서 말리거든. 옛날에는 새도 먹고 둑도 먹고 하니깐, 어린 애기들은 거기 앉아 가지고 둑도 쫓고 새도 쫓아, 둑 다 울린댄 해. 가서

“집에 뚤이 둑 다울릴 정도만 되면 장가를 오고 그 정도까지 못 된댄 허며는 못 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 ᄒᆞ니까 가서 이제는 그 어른들하고 의논들 허니까

“딸이 멍석에 둑 다올릴 정도만 되며는 장가를 가라고 헙디다. 그렇게 해오겠습니다.”

“아 우리 딸이 둑 다올릴 정도는 충분하고 밥 해 먹을 정도도 충분한데 다리가 한쪽이 짧아서 옛날엔 먼 데 물을 질러다 먹어야 되니까, 먼 데 물은 못 길어 오는데, 집에서 ᄒᆞ는 일은 둑뿐만 아니라 밥ᄁᆞ지 충분히 해 먹으니까 그러면 가서 그리 얘길 ᄒᆞ고, 겨믄 이제 며칠날 날짜를 정ᄒᆞ며는 가서 봐주겠다.”

해서 그 집에서 이제는 초청하면 ᄒᆞ루에 당장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 돌아다녀야 멩당을 보니까 그동안 밥도 해 멕에야 하고 요렇게 해야 하거든요.

이제 모셔 왔어. 고전적을. 모셔 와서 지금 서귀포 서홍동 위쪽 비스그름 헌디 거기 도리묵이라고 한데. 가시리에서 막 다 돌아뎅겻어. 거기 가서 ᄒᆞᆫ 군데를 봐

가지고는 매일 점심 싸가지고는 해서 거기 가서 요기 상주 데리고, 고전적이 데리고 가서 매일 거기 가서 누워서 이제는 요리 머리에 상투하니까 머리에 이가 입니다. 머리에 이 잡으라고. 게민 종일 누워서 이 잡다가 날 저물어가믄 가자, 이래서 오고. 또 경 석 둘을 그렇게 해. 석 둘을.

그니까는 집안에 부인들이 알아듣게는 안 혀고 부엌에서

"아이 정시가 말이여 딴 데도 안 가고 돌아다니지도 안 하고 한자리 가서 매일 니만 잡다 오랜 허여. 이거 석덜이민 저 뭐 밥 값은 고사하고 밥값 못한 정시지, 아니 석달이나 흔 군데 가서 앚앗다 앚앗다 ᄒᆞ면서 먼 짓거리여."

그 말을 고전적이 들어버렸어. 그 다음날은 상주보고 밥값은 못허고 잠깐만 허겠다. 오늘은 가서 나침반 하나 가지고 방향 정해가지고 줄로 양쪽에 딱 해서 꼽습니다. 그것이 제혈이라고 해요. 제혈. 옷 그 제단한다고 할 때, 혈자는 구멍혈, 땅을 마름질한다는 말입니다.

[조사자] 재, 혈, 예.

[제보자] 여기허고는 관계가 없지만 무속허는 사람들 말이여, 처음 당굿 시작헐 때 "천하지도 제혈허자."

해서 뭐 꽝꽝치고 춤추고 홀 때, 그때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 천하지도 높은 귀신을 아무데나 앚이게 홀 수가 없으니까 앚일 자리를 정하자 이 말이여 지금 정해 놔야 귀신을 여리로 오십사고 결정해야 될 거 아니요.

오늘 가서 게민 제혈을 해 주겠다. 가서 이제 제혈을 하면서, 참 여기가 땅은 좋은데, 대대로 장손으로 이어지지를 못할 땅이요. 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피해보려고 이제 맨날 와서 그걸 보는데, 벌써 집안에서 불평이 나니까, 너네 집 운수가 그만츰 밖에 안 되어서 여기 산을 쓰며는 당대에 문과 한자리는 하겠고, 삼백년 동안은 사랑문을 안 닫는다고, 부자로 살겠다는 그 말이요. 손님 모시고.

[조사자] 무신 거마씨?

[제보자] 사랑채 문을 안 닫겠다고 삼백년간은 부자가 되겠다. 옛날에 부젯집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을 다 공짜로 밥 멕여 주는 거여. 그래야 적선허는 거여. 사랑채는 그니께 손님을 위한 거여. 우리 제주도는 사랑채라 안 하고 손청이라고 해요. 밖거리는 그냥 지은 집이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히 지은 것은 손청이라고. 그래서 손청문은 삼백년간은 닫지를 않을 거다. 그러나 이 다음에도 자손들에게 유

언을 해서 양자를 들일 때에는 반드시 적은아들의 ᄌᆞ손으로만 양자를 들이라고 그렇게 해라고 해서. 이제는 거기에 산을 쓰고, 장가가서 고씨한테 장가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문과에 급제를 헌 겁니다.

[조사자] 정현? 아니 오정빈? 이 분이.

[제보자] 예. 문과에 급제를 했어. 거기에 산 쓰고 바로 그 아들이 문과에. 그래서 유명헌 겁니다. 그러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는 탈상ᄒᆞ고 장가가고, 그니께 토평이 지금은 마을이 큰데 그때는 사람이 별로 안 살았대요. 그냥 나무도 없고, 그냥 소나 치고 해서 잔디밧인데 사람이 그냥 거기 평지라가지고 거기 그 집터를 하나 봐가지고 여기 와서 집을 짓어서 살으라고 그 집터가 좋다고. 그래서 거기 집을 지어서 최근까지도 아마 그 집터 비워서 망헌 지가 십 년도 못되요. 삼백 년이 됐어. 우리 집안에선 아 운수가 다 됐다고 요렇게 하는데 집을 지었는데, 그 이제 바람이 세니까, 그냥 집에 자꾸 바람이 부는데, 고전적이 탐라지 교주도 해주고, 목사하고도 친하니까, 관청을 가는데

"불편한 거는 없습니까" 허니까

"아이 나는 불편한 거 없는디, 아주 편안ᄒᆞ게 사는데, 내가 시원치 못한 딸을 시집을 보내서, 그리저리 잘 지내는데 집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아이 그 바람이 세가지고 지금 울담을 못해가지고 그 걱정입니다."

하니까 목사가

"아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의가 고을이 네 개 면이거든. 나눠가지고 한 면에 한 모로 해서 아마 ᄒᆞᆫ 삼사천평 될 거요. 그 집터가. 그래서 울담을 성곽같이 쌓았어. 그 집 이름이 성안칩이라. 토평 가면 지금도 다 알 거요 성안칩 ᄒᆞ면은.

[조사자] 아 그런 집이 잇수과?

[제보자] 예.

[조사자] 뜯어불언마씨?

[제보자] ᄒᆞᆫ 십년 전에 터를 비왓다고 해요. ᄌᆞ손이 안 뒈가난 아마 풀아불엇겟지.

- 핵심어 : 고전적, 풍수, 정시, 혈, 산, 문과 급제, 고홍진, 손청

W_L_159 하가리 쉐죽은못

2016년 10월 14일, 애월읍 하가리 연화못 근처, 문경미 조사.
임치구(남, 1935년생, 애월읍 하가리)

[제보자] 쉐죽은못이라고 하는 것은, 과부가 소위 혼자 홀어멍이라는 거주.

들어보니, 점심을 동고량이라고 해서 이 밧을 다 갈아야 된다. 완 보니까 도저히 오늘 밧을 다 못 갈겠어. 헤니까 밧 가는 사람은 아 주인이 없는데, 에이, 쉐를 때리면서 어떻게 힘 내랜 해야 되겠다 헨. 쉐가 말 모르는 짐승인데. 물이 한없이 그리왓는데. 물이 한없이 그리왓는데 계속 맞아노니까. 지치니까 물을 먹으니까 양이 터진 거야 물을 막 먹어가니까.

그렇게 몹시 힘들게 해 부니까. 그래서 쉐가 죽어부니까 '쉐죽은못'이다 해서. 그러니까 그 일개 농부, 심부름을 한 장남은 집 밧 주인이 이걸 그냥 갈앗이랜 허믄 힘들게 밧을 간 거야. 그러니까 쉐는 양이 터져서 죽어버려서 '쉐죽은못'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내용이 붙여 있어.

- 핵심어 : 쉐죽은못, 쉐, 못, 양, 동고량, 홀어멍, 하가리, 농부

W_L_160 하늘에서 내려 온 할망

2016년 11월 9일, 구좌읍 세화리 김순자씨 댁, 송정희 조사.
김순자(여, 1947년생, 구좌읍 세화리)

[제보자] 아, 그 할망, 우리 할망이 곧는 거 보민, 완전 커 하늘에서 내려 왓덴 헌디 완전 어마어마헌 할망이라.

[조사자] 하늘에서 내려왓다고?

[제보자] 응. 그 할망이 이젠 그 할망덜 갈레질허는 삽 아니, 그걸로 흑 흔 걸레 치데겨 부난, ᄃᆞ랑쉬오름 뒛저. 월랑봉이 뒛저. 또 흔 걸레 치데겨부난 검은오름 뒛저, 이제 그 오름도 만들곡 한라산도 만들곡, 또 이제 옷이 옷이 다섯 필인가 만들어 입엇덴 헤네, 가네 이젠 또 소섬 가네 우도도 만들곡 겅 헷덴 그런 말 들어낫주게. "그런 할망이 다 제주 멘들앗이네. 게난 우리 이제껏 살앐이네." 허곡.

- 핵심어 : 할망, ᄃᆞ랑쉬오름, 검은오름, 한라산, 소섬

W_L_161 하도리 할미당의 신통력

2016년 10월 18일, 구좌읍 하도리 하도리사무소, 송정희 조사.
고영봉(남, 1950년생, 구좌읍 하도리)

[제보자] 문주란자생지 앞에 보면 바위가 큰 바위가 있어요. 거기는 그, 옛날부터 거기 올라가서 그, 놀거나 소리를 지르면 바람이 분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놀지도 못하게 하고, 소리도 못 지르게 했어요. 아이들이 가가지고 헤엄쳐 가가지고, 바다에 섬인데.

[조사자] 그 바위 이름이 뭐마씸?

[제보자] 잠깐요.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함.) 옛날부터 그 할미당이라고 해요. 할미당. 그렇다고 그 할미당에서 제를 지냈거나 그런 흔적은 없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할미당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거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해. 그곳에 대해서 다만 그곳 이름이 할미당이고, 심방이 굿할 때는 그, 그 쪽에 신명을 거느리죠. 할미당에 관해가지고.

[조사자] 그럼 거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막 놀면.

[제보자] 바람이 분다. 그래서.

[조사자] 바람이 불면 어떵 되는 거마씸?

[제보자] 파도가 친다는 말이지.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면, 바다에 나가서 일을 못한다는 거지. 해녀덜도 그렇고 배도 나가지 못하니깐, 해녀덜 일이나 베 하는 사람덜은, 이 바다에 파도가 치는 걸 원칠 안 허니깐, 그래서 거기서 소리 지르거나 뛰어 놀지 못하게 했어요. 옛날에, 앗. 이.

[조사자] 바위 이름이 할미당이꽈?

[제보자] 할미당이라 부르죠. 옛날에 그, 옛날엔 집을 지으면 돌담을 쌓아서 집을 짓거든. 제주도에는. 그래서 벽을, 흙을 이겨가지고 밟아. 저, 짚을 넣고 다져가지고, 벽도 바르고이. 벽만 바르는 게 아니라, 지붕도 우, 지붕도, 지붕도 이제 흙으로 덮고, 이 벽과 벽 사이에 칸막이도 전부다 흙으로 다 발랐거든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는이, 이 뼈대를 완성시킨 다음에 가장 많은 일손이 필요한 일이 바로 흙질

하는, 흙질, 흙을 밟아가지고 물을 주면서 밟아서 짓이겨가지고, 그 흙으로 전부 다 칸막이도 하고 벽도 바르고 지붕 우에도 얹히고 해야 했으니깐.

그러면 온 동네 사름들이 전부다 모여가지고 일을 도와줬어. 옛날에는, 이제 왜냐허면은, 서로가 하나이 그 뭐랄까, 우리 제주도 말로 그, 뭐라 그래요? 같이 일손 도와주고 이제.

[조사자] 수눔.

[제보자] 수눔을 했던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한 집에서 이제 그 집을 지어가지고, 흙, 흙질을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동네에, 그런데 그 시기가 바다에 물질 허레 가는 시기와 겹친 거여. 그래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는 며칠날 우리 집에 이레 이렇게 헤가지고 흙질을 하겠으 하겠노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려 알려 놓기는 했지만, 그날이, 돈벌이 허레 바다에 가는 날이 해녀덜이, 그래 이제 사람덜이 모자란 거죠. 배하는 사람, 고기잡이, 배하는 사람은 고기잡이로 나가야 하니깐, 그러니깐 그 여자 주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차, 이러면 되겠구나."

생각한 것이, 그날 저냑 밤에 그, 그 할미당에 헤엄쳐 가가지고, 그, 에, 그 바위 위에서 막, 춤 추면서 막, 고레 고레 소리를 지르는 거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아침 새벽에는 완전히 바다에 파도가 쳐가지고, 바다에 갈 수가 없었죠. 동네 사람덜이, 그래서 그 집에 모다들어 가지고 흙질을 도와주었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 핵심어 : 할미당, 바람, 소리, 신통력, 수눔

W_L_162 하르방 던진 오벡이터 할망

2016년 10월 18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이현정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조사자] 그 강씨 할머님하고 사는 할아부지는 거, 어떵.

[제보자] 그(웃음), 그 할아버지는 이제는 그리 저기, 이 힘이 안 센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는? 힘이 안 센 할아버지, 그 송댁인데.

[조사자] 송댁이 거기는, 송칩이구나?

[제보자] 응, 송칩인데, 할머니는 강씨고예?

[제보자] 예. 그니까 예전에도 그리 특별허게 그 이 동네도 그 말고, 오벡이터 할망이라고.

[조사자] 오벡이터 할망?

[제보자] 예, 그 할망 그렇게 힘은 안 세도 보통 힘셋어. 그 할망도 그리 헷는데. 이제는 흔 번은 어떻게 할아부지허고 싸움을 헤가지고, 이제 화딱지가 나니까 그냥 할아버지를 들러가지고 지붕으로 그냥 던져 불었어. 그니까 이제 할아부지가 이제 지붕에 가서 떨어진 거 아니요. 거난 동네사람들이 보니까는 할아부지는 완전, 기죽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던져 분 채가 아니고

"나가 이거 큰, 요 호박을 딸까, 이 호박을 딸까?"

이게 요렇게 헷어. 이제는 그 이제, 그, 그 동네 사람헌테 그 비웃음 안 당했다고 그래.

[조사자] 지붕 우에 호박이 잇엇던 모냥이주마씨?

[제보자] 응, 잇엇던 모양이지. 할아버지가 지붕으로 던지니까, 사름덜이 막 쳐다보니까, "아, 이거 이 호박을 딸까, 저 호박을 딸까?" 요렇게 헤서 넘겻다고.

[조사자] 무슨 일로 싸우셨는지는 기억 안 낲우과?

[제보자] 아이, 건 아주 오래 뒌, 거 그 할아부지 아덜을 우리가 봣으니까.

[조사자] 아, 깁니까, 그럼 이 동네 분인가마씨?

[제보자] 응. 이 동네 분이요, 거 유명해요. (불청) 게니까 마을마다 그런 간혹 그런 일이 다 있지.

- 핵심어 : 오벡이터 할망, 하르방, 힘 센 사람, 싸움, 호박

W_L_163 한세미 강당장

2016년 10월 19일, 한림읍 명월리 오관봉씨 댁, 이현정 조사.
오관봉(남, 1931년생, 한림읍 명월리)

[조사자] 마을에 굉장히 힘 막 쎈 사람 있다고 한 옛날 얘기는 안 들어 보션마씨?
[제보자] 아, 엿날덜사 힘쎈….
[조사자] 그런 얘기 좀 헤주십서.
[제보자] 그런, 그런 건 몰라. 그런 말은 엿날에 우리 부락이 아니라, 이 한림에서 멩월서 그 해변에 고기를 사레 가면은 잘 안 풀아주거든.
[조사자] 고기?
[제보자] 응. 바닷고기, 이렇게 헤가지고 허니까, 하도 부에가 나니까 말이야, 강당장이엔 한 사름이 잇엇어. 강당장이엔 헌 사름이 힘이 쎗어, 그 베를, 족은 베를 들러다가 요 한천동. 한천동 그 길가에 ᄀᆞ로로 딱 막아불었어. 그 이, 해변놈들 목장에 낭허레 다니지 못허게 길을 딱 막아 불었지. 경 헤니까 아이고 이거 한천리에서는.
"아, 이거 어뜬 놈이 이 베를 들러다가 이디 놔, 내버려 가지고."
이젠 놔서 막 사정을 헤가지고 또 ᄀᆞ져 갔다고 이런 말도 잇곡.
[조사자] 아, 강당장이?
[제보자] 응.
[조사자] 그믄 강당장이 아, 고기를 파는 사람이었구나예? 게믄.
[제보자] 아니, 고기를 사레 가니까. 우리 촌에서 사레 가니까, 해변 놈덜이 안 풀아준단 말이야.
[조사자] 무사, 무사 안 풀아주지?
[제보자] 그때는 그 잘 고기를 거 낚으지 못허고 헤여 노니까, 자기네덜만 먹을랴고 안 풀아 주니까 부엣질에 이제 베를 들러다가 이레 놔분 거야, 길을 막아 불엇지. 통헹금지를 시켜 분 거야.
[조사자] 겐 막 사정 사정헨.
[제보자] 경 헤부니까 이젠 와서 사정을 헷지.
"제발 고기덜 잘 풀아줄테니까 이 베를 들러당 놔 불라."
[조사자] 응, 들어다 달라고.
[제보자] 응, 그런 말이 잇어. 것도 나도 확실헌 말도 아니곡, 그런 말 그자, 그자 앚아지믄 ᄀᆞᆫ는 말이 그거지게.
[조사자] 한새미옌 헌 데가 어딥니까?
[제보자] 한새미 저 한천동을 말헤.

- 핵심어 : 한세미, 강당장, 힘 센 사람, 장사, 베, 통행금지

W_L_164 헌마공신 감목관

2016년 10월 23일, 안덕면 사계리 김여옥씨 댁, 문경미 조사.
김여옥(남, 1918년생, 안덕면 사계리)

[제보자] 그 쇠고챙이 빠 불멍 헌 그 하르방네 아들. 또 이젠 손ᄌᆞ, 증손이 사대거든. 사대 째는 물이 몇 천마리가 되는 거라. 말광 쉐가. 잘사는 하르방이주. 우리 하르방이. 에이 이만씩헌 거는 나라에 바쳐야겠다고. 게난 사또엔 헌 것은 도지사엔 헌 것이 사또라. 사또한테 강 보고를 했거든. 자진헹 보고를 해 온 거지.

"내가 물을 많이 길루엇는디, 결론은 나라에 바치겠소"

허니, 사또가 또 서울, 나라레, 임금더레, 펜지를 헌 거라.

"여기 제주도 백성이 말을 길르와서 나라에 바치겠소 하니 어떻소."

편질 헌 거야. 허니 임금이 펜지보고 글로 다시 회답한 거지. 그 백성을 서울로 보내라고. 올려 보내라고 하니. 우리 하르방보고 베 태워 준 거라. 그 사또가, 제주도 사또가 베 태와 줘. 나라에 찾아가 들어가 보라고.

인제 우리 하르방이 이름이 만제라. ᄉᆞ대손 그때 묻어진 증손이거든. 하르방이 그때 뒈난 나라에 바치켄 헌 거거든. 이젠 서울 나라의 임금한테 들어간 거거든. 들어가니 임금이 물은 거라.

"몇 마리 양육헹 질루왓소?"

그때 우리 하르방 말로

"ᄒᆞᆫ 몇 천 마리 됩니다" 헌 거지.

"그럼 나라에 바치면 몇 마리나 바치겠소?"

또 물은 거라. 허니

"쉐 이백오십, 물 이백오십. 오백두, 연연히 매해에 바치겠습니다."

아 그거 돈으로 치면 수억만원이거든. 지금까지도 물 한 마리가 얼매 가는 거라게. 물 ᄒᆞᆫ ᄆᆞ리가 족은 액수가 아니거든. 경하니 그 대가를 헤주젠 헌 거거든 임금이. 오백마리 바치겠소 하니. 증서 판서 영의정 좌의정 그것이 나라에서는 최고 벼

슬자리라고. 그것은 당대벢이 못헤먹는다고. ᄌᆞ기가 영리헤서 글도 좋고, 말도 좋고. 영리헤여야 헤여 먹지. 자식에게 또 미련하며는 자식은 또 못헤먹나고. 경 하니 감목관 직을 하면 좋겠다고. 이조 오백년 서울 도읍지가 오백년 땅이거든. 이조 오백년 그자 대대 ᄌᆞ손이 잘났건 못났건 대대 헤 먹으라고. 그것이 진사 판사 영의정 좌의정보다 더 좋지 않으냐고. 헤서 영조부터 감목관직을 둘아준 거라. 경 허니 대대에 경 바치는 거라. 더러 나라에 바치니까. 국세로 하는 거라. 국세 이름 거느리기를 국세. 나라에 바치는 세라 헌 말이주게. 진상세라고도 ᄒᆞ곡.

[조사자] 진상세? 진상세렌 핷다이.

[제보자] 나라에 올리는 것ᄀᆞ라 진상이엔 허거든. 세도 되고 진상받이도 뒈고게. 서감목 동감목 헷거든. 서감목은 제주시 원산 도청. 지금 도청이 그때는 ᄉᆞ또 팔앙 백성들 지배헹 잘 멕영 살리거든. 동감목은 우리 종가 아니라.

[조사자] 동 뭐마씸?

[제보자] 감목, 관. 관은 백성 관. 관청 할 때에. 제주도민 제주도 반은 사또가 관계하고 반으로 동쪽은 우리 감목관에서 챙기고. 법이주게 법이라. 경 헹 이조 오백년까지 이씨 조선 망할 때까지 헤 먹단. 우리 하르방도 나라에 물모쉬영, 나라에 하르방도 물모쉬영 테운 거고. 테운 거난. 우리 조상이 망헤가나네, 우리 하르버지 망헤가난 우리 감목관도 ᄎᆞᄎᆞᄎᆞᄎᆞ 망헤내. 물모쉬 이리 털어져 불엇주. 경 헹 합방뒈 불고 그 이후로.

[조사자] 아이고, 잘도 재미나게 들어졋수다. 최고우다, 할아버지. 아무래도 옛날 어르신이 옛날 말을 골아야 잘도 감칠맛낢다예.

[제보자] 종가가 망헷다 하는 거라.

- 핵심어 : 헌마공신, 물, 사또, 감목관, 진상세

W_L_165 형제섬의 물

2016년 12월 15일, 서귀포시 서귀동 강창홍씨 댁, 김선희 조사.
강창홍(남, 1947년생, 서귀포시 서귀동)

[제보자] 형제도에 누가 물을 갖다 놨다는 얘기는 옛날 들었는데 솔직히 감감하고. 아, 형제도에 물이 있는 것이 있거든.

[조사자] 아, 형제섬에도?

[제보자] 샘물 아닌 샘물 같은 건데. 콸콸 솟는 건 아닌데, 마르지는 안 해. 옛날 누가 가서 물을 부었다 뭐했다 얘기는 나오는데 그렇다고 마르지도 않고 솟아나지도 않으면서 거기 가는 사람 목을 축일 정도는 되어.

[조사자] 아, 아. 누가 갔다 놨다는 말이 있구나예.

[제보자] 근데 누가 했는지는 없어이. 그때는 거기 집도 하나 있었고. 샘터 같이 했는데 솟아나지 않아도 마르지는 않아.

- 핵심어 : 형제섬, 형제도, 샘물, 물, 샘터

W_L_166 호근동 각시바위

2016년 12월 7일, 서귀포시 호근동 호근동마을회관, 김선희 조사.
오남기(남, 1935년생, 서귀포시 호근동)

[조사자] 각시바위 알아집니까?

[제보자] 저기 각시바위인디. 봉우리가 두 개야. 앞 봉우지, 뒷 봉우지. 거기서 뒷 봉우지에서 처녀 총각이 술 먹엉 막 노래 부르멍 기분 좋앙 허당 떨어졍 죽언. 그런 전설이 잇어.

그 아래 무덤이 두 개나 잇어. 게난 저 무덤이 어떵 헹 된 거냐 하니까,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 옛사름들이. 게난 나가 그거 들음벰이. 난 그 무덤 확인헷는디. 각시바위 등어리에 가믄 잇어.

[조사자] 각시바위는 어디쯤 잇수과?

[제보자] 절로 중산간더레 가믄 저, 절간 가는 디로 올라가믄 뒈어.

- 핵심어 : 호근동, 각시바위, 처녀, 총각, 무덤, 중산간

W_L_167 호근동과 서호동 나눈 내력

2016년 12월 7일, 서귀포시 호근동 호근동마을회관, 김선희 조사.
오남기(남, 1935년생, 서귀포시 호근동)

[조사자] 오씨가 많은 디 오씨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왓수과?

[제보자] 아니, 이 마을은 허씨가 만들언. 허씨 하르방 일름은 모르는디 그 손지 지금 살아잇는디. 호근리, 서호리가 한 부락이엇어. 호근리, 서호리. 겡 헹 호근동, 서호동이 되었는데. 과거에 하나가 뒈엇어. 가시밧 서장이라고 문장인데. 그 하르방이 이제 부락이 너무 많으니까 반 갈라 불엇지. 동동네, 섯동네. 문장은 훈장이지.

[조사자] 가시밧 서장은 무슨 말이꽈?

[제보자] 그 하르방이 옛날, 여기 같으민 학교 선생이지게. 제자들 가르치고. 그 하르방이 문장인디. 그 하르방이 통솔했어, 이디를. 하나를 통솔헤나근에 그 하르방이 제일 똑똑헤난 모양이라. 게난 두 개로 갈라 불엇젠. 부락이 너무 크니까. 이젠 서호리, 호근리. 그런 전설이 잇주.

- 핵심어 : 호근리, 서호리, 가시밧 서장, 동동네, 섯동네, 문장, 허씨 하르방

W_L_168 호열제를 막은 신산리 본향

2016년 10월 22일, 성산읍 신산리 김옥종씨 댁, 이현정 조사.
김옥종(남, 1924년생, 성산읍 신산리)

[제보자] 거, 신산리가. 이, 여, 저, 뒤엣 중헉교 있던디가 포젯동산이옌 헷어.
[조사자] 포젯동산예.
[제보자] 어, 그 여기도 우리 제주도도 그 포제 다 지내, 거저 지내믄 아니, 지내는 데 있긴 있을 거야.
[조사자] 맞아마씨.
[제보자] 경헌디, 그딘 포젯동산이고, 그 다음에 저디 가민, 저, 본향이엔 헌 디가 잇어.
[조사자] 본향.
[제보자] 응, 글서 바다 ᄌᆞᆺ디 ᄋᆞᆫ 맏물이옌 헌 디 잇는디. 그디가, 저, 옛날에 저 ᄒᆞ일제 왓던 그 막, 울, 올 때에. 그, 할망이 거기 모시난 이래 신산리레 못 들어 온다는 거라.
[조사자] 어디에 아까, 어디에 모시난마씨? 호, 뭐할 때.
[제보자] 요, 요, 요, 요 맏물 잇는디, 거 집 짓엇주 지금도.
[조사자] 아, 본향에마씨?
[제보자] 응. 집 짓언에 저, 에, ᄎᆞᄒᆞ루 ᄇᆞ름 헐 땐 그, 이, 맡은 그 무당이 잇어, 무당이.
[조사자] 예, 심방 말씀하시는 거지예?
[제보자] 가그네, 제 지내곡 헤거든. 게, 뭐, 또, 그디 또 뎅기는 주로 해녀덜이 많이 뎅기지. 게, 해녀덜은 뭐, 이제 멧 명 있도 안 혀주만은. 가서 좀 ᄀᆞ사 지내고.
[조사자] 겐 못 들어온뎅 헨, 여기 신산리에 들어오고 싶은디, 그 할망이 못 들어온덴 헨.
[제보자] 할망이 못 들어오는게, 그 할망이, 에, 호열제ᄀᆞ뜬 그런 벵을 못 들어오게 헷다는 거지.
[조사자] 아, 병을, 호열제 ᄀᆞ뜬 병을 못 들어오게 헷다.
[제보자] 응, 신산리가. 게난 할망이 상당히 그거, 저, 세력이 강헌 할망이지. 게난, 저, 보통으론 뭐, 그디, 뭐옌, 뭣 곧지도 못헤 거기에 가민.
[조사자] 아, 함부로 말 못하고, 거기가믄 조용, 속솜헤야 뒈마씨?
[제보자] 응.

- 핵심어 : 신산리, 본향, 포젯동산, 맏물, ᄒᆞ일제, 벵(전염병)

W_L_169 호종단

2016년 10월 23일, 안덕면 사계리 김여옥씨 댁, 문경미 조사.
김여옥(남, 1918년생, 안덕면 사계리)

[조사자] 전설은 진짜 가짜 잇수과게. 전설은. 고종달 얘기?

[제보자] 호종단이 중국 사람? 그거 ᄀᆞᆯ으카? ᄀᆞᆯ아주카?

[조사자] 그거 ᄀᆞᆯ아줍서.

[제보자] 내가 경주 김씨고, 호종단이 땅 봔 그 땅 봐젼 묘 쓰니 우리 제주도 도민 전체라.

[조사자] 경주 김씨가 그거꽈?

[제보자] 응. 제주도 경주 김씨가 호종단이 오란 땅을 봐준 거. 우리 경주 김씬디, 나 위에 스무대조가 거기 뫼산이 잇어. 그 혈지에. 제주도 제혈인디. 제주도 제혈이 여덥 밧이라. 여덥 밧인디. 내 ᄀᆞᆫ건 들어봐이.

일 사라, 제주시 사라봉일 테지. 일 사라엔 헌건. 제일 일등이 사라봉이엔 헌 말이주기. 이 계목밧. 그 지경 도량 일름이주게. 그것은 북쪽 하로산에 좀 올라간 디. 땅 밑에서 영 산드레 올라간 디. 산 높은 디가 아니고. 영장도 그디 좋은 디라고 해서 묻엇고. 무덤덜 잇지게. 계목이엔 헌디. 북향지지. 북더레 ᄃᆞᆯ아진디 하로산에. 삼 영실. 영실오롬. 영실이 시 번째, 삼 번째. ᄉᆞ 도래. ᄉᆞ 도래엔 허는 건 교래리엔 말인가 몰라. 교래리가 도래리주게. 오 반하. 나 반하밧은 봣어. 반하이엔 헌 것은 우리 안덕면광 한림인가 애월읍인가 안덕서 올라가고 저디선 한림서 애월서 올라오는 정물오름이엔 허는디, 거기서 북향지긴디 산은 벤지룩하게 썻어 지금. 혈을 찾지 못헌지 몰라. 묘는 쳐 산담 붙이고 산담 붙이고 헹 벤지룩허게 써도 북향지기고 북더레 ᄃᆞᆯ아진 디고. 둘레가 서너창 둘레가 안터레 소북 들어온 디고, 육 반득은 우리 십오대조 하르방이 뫼 쓴 딘디 호종단이가 오랑 ᄀᆞ리쳐 준 셍이라. 아이 ᄀᆞ리쳐 주어라.

[조사자] 육. 아까 뭐마씨?

[제보자] 육 반득이. 반득이엔 헌건 저 남원읍 의귀리에서 의귀리는 ᄆᆞ을 이름이고, 의귀리 ᄆᆞ을로 올라 강 의귀리 지경은 지경인디 저기 목장더레 올라간 디라. 그건 우리 조상이난 나 강 보레 간에 봐 오고. 겐디 호종단이가 처음 온 걸 내 말허크라.

[조사자] 예.

[제보자] 저 호종단이가 중국 사람인디, 혈지를 막 발로 볼라. 죽영 혈. 그런 거에 막 능통한 양반. 알기도 막 알거니와 땅을 알거니와 죽임은 발로 막 볼랑 죽여부는 거. 처음은 어디로 내리느냐며는 어느 포로 내리냐면은 종달 터로 내리는 거라. 성산 넘어강 그것이 목안 쪽이라, 구좌읍.

고종단이가 거기 행인이 봐지니까 제주도 사름 봐지니까 종달 터 이름을 물은 거라. 종달이라고 허난. 종달이라는게 한문 글째로는 ᄆᆞ칠 종 제라. 삶이 종명한다고 썬. 죽나구. 죽나구 하는데 쓰는 제고, 맞아부는 거 아무 끗이 없는 글제 아니라게. 종달 막 어디어디가면 막 끗ᄆᆞ쳐부는 제. 이름이 종달이라는 글제가 두 제가 다 나쁜 제거든. 아 그 사람이 끔짝 놀랜 거라. 아 종달이라며은 안 좋네. 지명이 처음 발 디딘디가 '나쁜 지경에 도착해졌구나.' 이녁 생각으로 경 헷어. 이젠 재혈이 다 혈을 알거든 그 양반들은 재혈이 팔혈이고 소혈이 삼십육혈이라. 일후 혈지에 내가 죽어질런지도 모르니 재기 빨리 혈을 파 불자고. 경 헤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선조 십오대 조.

옥의 남원면 옥의 한참 올라가사 의귀 의귀린디 거기 도착헌 거라. 도착헹 베려 보니 들었거든. 중국에서 올 때는 철침을 가져온 거라 쒜고젱이. 쒜고쟁이 딱 혈 있는데 찔러그네 발로 혈 들어온 디를 발로 막 볼랑 죽여부는 거주. 철침을 가졍 오랏다가 혈이 들어 있거든. 혈을 딱 꼽은 거여. 정혈로 정 가운디. 그냥 딱 꽂아두고 또 영 산임인 영 들어온 디 우로 딱 두 개 꼽아두고

"이 놈으 혈이 어디서부터 시작헹 여기로 오랏인고?"

헤연에 이 혈 잇는 디를 우로 우터레 춪이레 간 거라. 헌디 거기서 상 보민 우리가 보기에 산방산 앞이만이 거리만큼 되어. 민악오름 자그마한 오름. 보기에는 산방산 부분만이 보이더구만. 거기ᄁᆞ지 올라간 거라 고종단이가. 올라강 보니 민악오름 거기서부터 우리 산 이제 쓴 디 그기 혈을 ᄂᆞ려올라거든. 조그조근 붋으멍 그 혈을 이건 묫자리고 그 민악오름은 일루 주욱 내령 오랑 일로 불루멍불루멍 오고 오랑 보니 쒜꼬쟁이 두 개가 찍어 놔둔 게 없어져. 없어져 부난. 이제는 우리 그 묻어진 디 묻어진 하르방 아덜 아덜이 그 당시엔 의중이 막 좋은 때거든. 흔 오백년 가 비엇을 땐 뒈나네. 사람덜이 막 드믄 때라, 사람덜이 막 엇일 때. 건디 호종단이가 오란 보난 철침도 없고 우리 선 대는 거기 보니 철침이 두 개가 찔러졌으니 버섯을 따레 갔다 온 거라. 버섯 알아져?

[조사자] 예. 버섯, 초기.

[제보자] 초기 말이주기. 그런 초기 낭에 붙은 초기. 그땐 그 기 곶밧이라낫을 때주게. 초기 따레 뎅기단 보니 쒜꼬쟁이가 두 개가 찔러졍 잇이니 우리 하르방이 생각하기를 '사름이 드믄디 사름이 여기 올라올 필요가 엇일 것인디 어째서 이 쒜꼬쟁이가 찔러져신고?' 쒜꼬쟁이 두 개를 다 빤 거라.

빤 집이 가졍 갓자 필요가 없어, 쓸모가 없으니 던져 분 거여. 그래 그 밑으레, 던져 두고 그 ᄉᆞ방에 버섯 따는 디 이 호종단이는 우루 혈을 붋안 오란 보니 쒜꼬쟁이가 없어. '하 이상허다, 사름이 오지 않을 건디 쒜꼬쟁이가 없구나' ᄉᆞ방 더레 영 베련 보니 사름이 하나 보이거든. 부른 거라 불른 것이 우리 하르방이라. 아 이제 묻어진 하르방 아덜이라.

"당신이 쒜꼬쟁이 여기 묻은 걸 봤소?"

"봤소."

우리 하르방이

"봤소."

ᄒᆞᆫ 거라. 이젠

"그 쒜꼬쟁이는 필요가 없어 던져버렸소."

ᄒᆞ니 이제는 호종단이가 우리 하르방을 ᄃᆞᆫᄃᆞᆫ이 보는 거라. ᄃᆞᆫᄃᆞᆫ이 얼굴을 보니 천복지인이라. 하늘에서 복을 헤운 얼굴이 천복을 헤운 거라 하니 '하, 이 양반이 좋은 땅이로구나. 이 양반을 줘 불자' 해서 사 보라고 그 디 자리를. 그 쒜꼬쟁이 찔른 자리를, 막 심 줭이네 알러레 멕 내려그네 사 보라고, 알더레 가 잇일 것이다, 시키는 대로 딱 삿지. 사니 알로 혈이 막 와락와락 땅이 더운 기가 열기가 막 올라오라가지고 ᄒᆞ니 산 발이 경 견디기가 힘드네게. 발이 영 ᄀᆞ쪄나 분 거라, 대보니. 발 이터레 ᄀᆞ쪄 사니 비둘기가 땅 소곱으로 푸르릉ᄒᆞ게 저레 ᄒᆞᆫ쌍이 ᄂᆞᆯ아간 거라. 호종단이 눈에 그렇게 ᄂᆞᆯ아가니 어처불상헌 거여. 그놈이 비둘기만 아니 잇이믄 아주 왕자 날 자리일지 모르거든.

"어차불상."

ᄒᆞ멍 그러나 ᄒᆞᆫ 쌍이 딴 데로 ᄂᆞᆯ라가도 승마천승지라. ᄐᆞ는 말 탕 ᄃᆞᆯ아다니는 ᄆᆞᆯ이 천 개는 난 땅이라는 거지. 그러니 딴 ᄆᆞᆯ들 많이 잇곡 그 외로 타는 ᄆᆞᆯ이 천 개라는. 그러니 그러나 땅은 비둘기 ᄒᆞᆫ 쌍은 ᄂᆞᆯ아가도 ᄐᆞ는 ᄆᆞᆯ은 천 개는 날 거라. ᄒᆞ곡 ᄌᆞ손 번창. 제주도 사람들 경주 김씨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라 지

금 현재. 다 그 사람들 ᄌᆞ손이거든 경주 김씨는. 그 하르방 ᄌᆞ식, 그디 묻어진 하르방 ᄌᆞ손이거든. 경ᄒᆞ고 또 돈도 만금을 얻겠다 했거든. 그땐 만금이엔 허민 지금은 수억대주게. 부제로 산다 헌 말이주게. 대 부제로.

경 허고 보니까 두건을 썼거든. 그때는 사람이 드믄 때고 정시들이 쉬와 땅이. 보는 사람들이 벨로이 없었거든. 경 허난에 산은 못하는 땅이여. 임시 토롱 임시 땅에 묻어동은에 한 사람은 돌아뎅기멍 좋은 땅을 봉그죠. 경 헌 사람들이 천지라 난. 경 허니까 죽어분 땅엔 하르방은 임시 그자 이녁 봉분에 묻은 거지. 임시 묻어둰 좋은 땅을 봉글랴고는, 좋은 땅은 정시 청허연 좋은 땅을 얻진 못허고, 두 번 허는 거라. 지금은 사름이 죽으면 ᄌᆞ식들이 그날 호루에 흑 벗엉 데껴둬그네 자기 볼 일 보레 다니주만. 옛날 구식 때에는 산 이장 전에는 복을 벗지 안 허는 거라. 두건. 이제 이런 두루막 닮은 그런 건 무덤헐 때 벗어두곡 허지만은, 두건은 아명 똠이 찰찰 흘쳐도 두건 벗지 안 허여. 두건을 썻거든. 상제 들엇거든.

"하, 상젠 상제로구나."

"내려가자."

헤연 비둘기가 내려간 데를 또 가는 거라. 호종단이가. 옥의로 갔거든. 옥의. 그때는 ᄆᆞ을에 사람이 하지 않을 때거든. 곶밧터라 거기 집터가. 나무들이영 가시낭이영 굶은낭이영 곶밧이 실 때거든. 게니 쿳낭에 헌 것이 모르지마는 쿳낭이렌 헌 것이 찔린 모양이라.

[조사자] 쿳낭?

[제보자] 가시낭. 사람 찔리민 막 피나. 곶밧이 알편 아니라.

"이 낭을 굽으로 그치지 말라."

호종단이가. 우로만 그창이네 영 ᄀᆞ르쳐준 데가 포거든. 포를 지둥더레 걸쳥 집을 짓엉 살라 지시헌 거라. 겡 헹 그 낭을 그땐 굽으로 그치지 안 헹에 우리 종가집을 그렇게 짓엇다 허여. 경 헤연 비둘기를 그디 오란 흔 쌍이 놀아왕 죽엇다.

- 핵심어 : 민악오름, 종달리, 비둘기, 호종단, 쒜꼬쟁이, 낭, 경주김씨, 육반득, 남원읍 의귀리

W_L_170 홍리 지장샘

2016년 10월 23일, 안덕면 사계리 김여옥씨 댁, 문경미 조사.
김여옥(남, 1918년생, 안덕면 사계리)

[제보자] 이제는 물혈을 죽일라고 생각허는 거라. 그 호종단이가.

[조사자] 물혈을?

[제보자] 물혈을 뜰라고. 물혈도 나는 디가 있는 거요. 한라산에 물혈이 두 밧딘디. 큰 물혈은 아마 한라산일 거고. 족은 물혈인디 것도 재혈은 재혈인디 물은 좋아. 홍리. 홍리 알아져? 홍리 지장샘이엔 헌 물 알아져? 거기. 그 물을 뜰랴고. 그 물은 물은 족아도 생전 ᄀᆞ물어도 물이 안 준다 허는 물 아니라. 그 물은 당연히 물 중에는 대물 아니라. 그 물을 떠 버렷이믄 제주도에는 물혈이 없다 이거라. 게난 그 물을 뜨지 못허난 물들이 내려완 질어 먹없주마는. 건디 그 물을 뜰랴고 계획을 세운 거라. 종가 집터에. 물혈을 지우려고 헌디. 곱은낭 아래 잇다고 그 수첩에 적어진 거라.

[조사자] 무신거에.

[제보자] 곱은 낭이라고 오그라진 낭. 하르방 모냥으로 고부라진 낭이 잇주게. 그 낭 아래 지하천이라. 물 이름이주게. 물이 잇다 박아진 거주게. 호종단이 수첩에. 그걸 찾앙 물혈을 뜰랴고 하는 거라.

마침 그 밑에서 밧 가는 농부가 잇엇어. 쟁기를 질메에 지완에 쉐 우터레 싣거네 가는 거거든. 헌디 그 농부가 밧으로 가는디 쉐질메 지앙 완 부려둰에 쟁기헤네 밧을 가는디. 호종단이가 거기 오라네 아, 귀신이 하르방.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 사람으로 헹 찾아 나오란. 사람으로. 늙은 하르방으로 찾앙 나오란. 나를 곱져 달라고, 밧 가는 농부보고. 어쩐 일로 당신을 곱지느냐. 나 찾아 체시가 금방 온다고. 올 거니까 당신 점심 먹으려고 물그릇 가져오지 않았느냐. 밧 가는 농부보고 물었거든.

"그런 그릇 가져오지 않았느냐?"

"예 가졍 왓수다."

그 그릇 아졍 강. 아, 놋그릇 놋그릇에 확 떠다그네 쇠질메에 들여놔신디 그 안에 놔 달라고. 겡 물은 크지 않은 물이나네 다행히 사발 가졍 강 물을 확 거리니 물이 바짝 몰라 분 거라. 몰라 불고 물사발에 물 거려다네. 물사발에 물 거려다네 그 하르방에게 가져가니, 그 귀신하르방이 그 물사발에 오물렉이 기어들어가 버련. 곱아 분거지.

[조사자] 아, 숨어 불엇구나. 곱아 불엇구나.

[제보자] 그리허니 호끔 이시니 호종단이가 그 물 춪이레 온 거라. 책 들르고, 동으로 서우로 동분서주해서 막 둘아뎅기단 보니, 물은 바짝 말라부니 엇고, 낭 아래 물이 하나도 없거든. 노시 춪지 못허연. 경 헤가난 기술도 엇어져 가고 막 난리라. 밧가는 농부보고

"여기 곱은 낭 아래 지하천이라는 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귀신 오란에 그디 곱져준 사람이 골아줄 거라게. 안 골아주거든. 아 모른다고 헨. 두 밧디 그만그만 실패 당헷거든. 우리 선대한테 그만 혈지 좋은 땅을 일렁 뺏겨 불고, 물 혈 춪지 못해그네 그만 일러부니 기술이 몬 ᄂᆞ려 없어져 가는 거라. 여기 이러다가 혈지에다가 내가 죽어질는지 모르니, 에이 이제 고만하고 고향 가 불자고. 헹 갈 때는 차귀도로 갓다 허여.

차귀도엔 헌 건 저 서쪽, 저쪽에 그때에 벨멩이 차귀도라 한 벨멩이 잇다 ᄒᆞ여. 슬퍼할 차 제에 돌아갈 귀 제. 호종단이가 혈 뜨러 왓다가 못 뜨고 돌아가니 슬퍼한 거거든. 울멍 돌아간 거라.

게난 그런 혈지가 하늘이 준 거지 사람이 준 거라. 하늘이 준 혈지를 호종단이가 뜨레 온 놈을 그냥 돌려보낼 거라게. 베질헹 나가가난 북 바다에 풍랑이 막 일어난 비양도 앞바당에서 베 치고 올리니 죽엇다 허여.

- 핵심어 : 한라산, 홍리, 지장샘, 물혈, 재혈, 호종단, 차귀도, 놋그릇

W_L_171 홍엄선 홍장군

2016년 10월 24일, 애월읍 신엄리 신엄리마을회관, 문경미 조사.
문창행(남, 1926년생, 애월읍 신엄리)

[조사자] 홍장군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우다게. 앉아그네 천천히.

[제보자] 중엄 가그네 홍인욱이 살앗이믄 잘 알 건디. 홍인욱이 위에 십팔대 뭘 처례주. 홍인욱이 아들러에 십팔대주. 홍장군이 엄헐 '엄'자에 착살 '선'자 주게 일름이. 홍엄선. 그 하르방 묘가 저 우렝이 싯고. 이제 홍인욱의 아들. 십팔대 손 될 처례주.

[조사자] 경 헌데 그분이 알아집니까게. 어르신이 이장도 허고 허난 알주. 게난 무슨 얘길 들어낫다는 거꽈? 하르방이 막 힘 세낫대메. 이 동네 막 좋은 일 많이 헷수과?

[제보자] 좋은 일은 허지 안허고. 간단히 나 말 알아지는 것만.

그 하르방이 어릴 때는 좀 불량헤낫거든. 불량헤서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가 때리젠 허니, 퀭 돌아나거든. 홍장군 아버지가 뒤좇안 다올렷거든. 다올리니까 저기 볼레낭 기정에 강 털어져 불거든.

[조사자] 어디에 강?

[제보자] 저디 기정 잇어. 높은 기정. 기정에 가가지고 그 아덜 털어져 불어. 그꼬지 뒈놀아간. 게난 하르방은 좋다고 지꺼졍 집에 돌아왕 보니까 벌써 집에 오라 싯거든. 이제는 하르방이 이제 요약헹 말 허면. 하르방이

"이거 큰일나겠다."

옛날은 그런 사람이 나오면 막 역적으로 몰리거든. 삼대를 죽이라 했거든. 이 할망 보고 술을 잘 만들어 노라 헨. 술을. 술을 독허게 잘 닦아노라고. 닦아놩 이제 아들한티 막 흔디 오라고 헨 이녁도 흔 잔 먹고 쉬면서 술을 막 멕엿거든. 술 먹엉 막 취허게. 취헹 자빠지니까 이제 옷을 벳겨 봣거든. 뱃겨 보니 명지끌레로 놀개를 꽉 묶어 잣거든. 놀개를. 그러니까 이젠 하르방이 이거 큰일났다. 그땐 조정에서 알며는 역적으로 나라 빼앗는다고 해서 삼족이 멸을 시켰다고 허거든. 그

러니까 하르방이 이거 큰일났다고 헤. 그거 ᄀᆞ새로 ᄀᆞᆺ아가지고 끌. 끌을 그어가지고 막 지져 불엇거든. 하르방이 깨어 보니까 놀개 끈엉 지져 부니까. 홍장군이 울면서 그디 지져 불고 일개를 끈어 불엇어. 이디. 막 병신을 멘들아 불언.

[조사자] 여기를 일개랜 헙니까?

[제보자] 일개. 심줄. 심줄을 끈어 부니까 홍장군이 울면서. 놀개 끈어 분 건 좋은디 심만 끈치지 안 헷이며는 내가 살 건디 다 그쳐 불언 죽겟다고 헨 헤낫젠 헤. 아들을 경 막 멘들아 분 거주게.

[조사자] 그 하르방은 그거 아들 아니꽈예?

[제보자] 아덜. 아덜이 그대로 허며는 조정에서 식구를 다 멸망시켜 불 테니까 그추룩 병신을 멘들아 분 거주기게.

- 핵심어 : 홍장군, 기정, 술, 놀개, 심줄, 홍인욱

W_L_172 휏부리 장수물

2016년 10월 13일, 애월읍 고성1길 골목, 문경미 조사.
진성출(여, 1928년생, 애월읍 고성1리)

[제보자] 김통정 하르방. 애기업게 들어놓지 않앙 문 덖어 부난게. 애기업게가 무시거 어디서 잡으레 오나네. 철문 덖엉 들어앚으나네. 문 못 부수난. 그 애기업게가 두 이레 열나흘 불 때민 그 문 쓰러지믄 이 문 올아진댄 허난. 두 이레 열 나흘 불 싸난. 그 쒜문 올아지난 그때 김통정 장군 잡으레 왓단 김통정 장군 놀아가단에 저레 놀아가단. 요 휏부리랜 허는디 간에 발 디뎐 백성들 물이나 먹엉 살랜 허난. 이제도 거기 물 나. 휏자국이라고 헤연.

[조사자] 햇자국?

[제보자] 휏자국, 휏자국. 김통정 놀아 가멍 탁 허게 발로, 물 산물 쫄쫄 나는 디 잇어. 극락사 절간으로 저 펜이 간디.

[조사자] 내창에마씨?

[제보자] 내 어염이라.

[조사자] 장수물이엔 헌디가?

[제보자] 장수물, 예예 장수물.

[조사자] 장수물이엔 헌디가, 휏? 뭐?

[제보자] 휏부리. 옛날에 휏부리옌 허고, 그디 장수물이라고. 장수발자국. 장수물이렌 헌 디가 거기라. 옛날 어른들은 옛날 사투리로 휏부리렌 골아낫어.

[조사자] 여기 주민들도 거기 강 물 먹어마씨?

[제보자] 우리 고성은 여기 구시물, 거기 가기 전이 샘물 이시난 그디 물은 안 먹고, 저 장전 사름 덜은 장전은 산물 엇이난 장전 사름덜은 ᄀᆞ믄 때 져단 먹어나고, 밧디 간 사름덜. 옛날은 밧디 가멍 그 물 질어단 먹언. 고성은 거기ᄁᆞ장은 가지 안 헤낫어, 산물이 잇이니까.

[조사자] 갈구미렌 허는 것은 뭐꽈? 굴구미?

[제보자] 굴구미, 거기가 굴구미라. 굴구미 내창 어염에 장수발자국이 잇어. 동녁짝으로

서녁짝으로 아니고, 동녘짝으로.

[조사자] 예예, 나도 가 보난 아는데, 그면 그 지경이 굴구미랜 하고?

[제보자] 예, 거기가 굴구미랜도 ᄒᆞ곡 훳부리렌도 허곡, 장수물이렌도 허고. 장수물은 장수발자국 시니까 장수물이엔 허는 거. 엿날은 굴구미옌도 굴아낫어.

[조사자] 김통정 하르방에 대한 다른 얘기도 또 있지 않아마씨?

[제보자] 김통정 하르방은 다른 건 들어도 다 잊어불엉 못 골아.

[조사자] 토성에 막 재 날리고 하는….

[제보자] 아아, 그거는 어디서 역군 오라가민 국민들신디 재 막 공출받아그네 재 성에 뿌려그네네 몬 조름에 비차락 둘앙 옛날 대비차락 알아져? 대비차락 둘앙 둘리민 재가 왁왁ᄒᆞ게 나오민 그 적군덜 오지 못허게, 그런 말도 있어요.

[조사자] 토성을 달령?

[제보자] 재 왁왁허연에 성으로 달려낫젠.

- 핵심어 : 김통정, 훳자국, 훳부리, 굴구미, 장수물, 발자국, 토성, 굴구미

W_L_173 힘쎈 강갑댁

2016년 12월 15일, 표선면 성읍1리 성읍1리노인회관, 송정희 조사.
조인흥(남, 1934년생, 표선면 성읍1리)

[제보자] 그 하르방 갑댁인 지금 나이가 흔 벡 흔 열둔 난 하르방인디 우리 잇허게시리 알아. 일도 흔디 헤 보고 영 헷는디 하르방이 어떤 일을 헷인고 허난, 이 사삼사건 그 후에 밧이 흔 삼사년 놀안 내부난 완전 띠가 들고 억세가 난 허는디, 양쪽을 양쪽 큰 밧 잇주. 안우꽈? 그 밧을 가는디 그 밧디 갈앙, 용ᄉᆞ허는디

"이놈이 쉐 줄바로 잘 안허민 잡앙 먹언 나냥으로 허키여."

말도, 사람 힘이 쎄곡 덕대가 크곡 허난 물도

"이놈이 쉐덜."

겅허곡, 그디 필 헤여그네 싣건 저레 싣건 가젠 허민 싣건 집더레 오단 어떵헹 쉐 고들게가 끈어젼, 그냥 짐을 벗게 뒈난 그 짐을 쉐앗베로 지엉 피 싣근 거지고 그 쉐질메 지고 쉔 그거 헤여그네 그냥 헷는디 그걸 뒤 앚이고 조름에 잇고게.

"어떵 헹 걸?"

"이놈이 쉘 이걸. (웃음) 벗언 짐 벗언 홀 수 엇이 내불순 엇곡 이거 아졍 갑죽."

겅 허던 하르방이 잇엇저게.

[조사자] 그 분이 강갑댁이마씨?

[제보자] 응.

- 핵심어 : 강갑댁, 힘, 쉐, 용ᄉᆞ, 하르방

W_L_174 힘쎈 진선달

2016년 12월 1일, 애월읍 애월리 애월리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양병연(남, 1928년생, 애월읍 애월리)

[제보자] 고성에도 아까 모양으로 센 하르방이 잇엇지. 진선달.

어떵 헹 진선달 팔명이 낫는고 허면은. 고성리에서 하귀 아니 동귀 군냉이 갯것에 왕 바릇을 잡아가거든. 옛날엔 바릇을 하영 잡을 때라. 바릇을 잡젠 허난 그디 동네 사람들이 바릇을 못 잡아가게 걸거든. 허난 심이로 그디 베를 하나 지어다네 저 바굼지오름 지금은 소낭들 쳐 낫지만 그때는 민둥오름. 거기 아져당 톡 앗젼 내부난 동네 사름들이

"아이고 이거, 저 고성 진선달 제간이지. 우리가 바릇 잡지 못허게 헤 부난 저기 갖다 놧저."

허난. 고기들 몇 ᄆᆞ리 썩 모이고 고성 가가지고, 아 이제 베를 지어다 도랜. 막 ᄉᆞ정 허난.

"아니 우리동네 사람들 강 바릇 잡게 허민 지어가쿠다."

경 허자 허연. 겡 헹 다시 지엉 내려 왓다.

[조사자] 그게 고성 진선달. 재밋다예.

- 핵심어 : 고성리, 진선달, 바릇잡이, 베, 소낭

W_L_175 힘이 세지는 샘물

2016년 12월 5일, 추자면 대서리 대서리노인회관, 문순덕(김은정 · 정이슬) 조사.
제보자1: 원용순(남, 1933년생, 추자면 대서리)
제보자2: 이강귀(남, 1938년생, 추자면 대서리)

[제보자1] 우리 할아부지 얘길 들으면은 저희 집 앞에 다릿돌이 있었거든요. 요만한 또랑이 저희들 발로 한 두 발 정도 되는데, 두 발도 더 되는데,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큰 돌을, 돌을 지게에다 지고 와서 그 다릿돌을 놨다는 겁니다.

[제보자2] 나막신 신고.

[제보자1] 어, 그 얘길 저희 할아부지가 얘기를 해요. 우리 집 바로 앞엔데. 할아버지 정말입니까? 정말이라는 거예요.

[조사자] 사람이 이제 나막신을 신고 돌을?

[제보자1] 예. 무거운 돌을…. 그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무 이동력이 없는데 거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당시 또 그러고, 이 저기 옛날 아까 그 얘길 했지만은 육지에서 쌀가마가 그때는, 그 온통 가마니가 팔십키로가 넘죠.

[제보자2] 팔십키로.

[제보자1] 저 다섯 말 들어가는 거 아녜요. 그러니까 건 팔십키로가 아니라 백키로가 될 거예요.

[제보자2] 옛날에는.

[제보자1] 이리 큰 거 온통.

[제보자2] 밑도리 뒈가 아니고 두 뒈였기 때문에 팔십키로, 저 거시기가 온 통. 온 통이어도 팔십키로. 옛날에는 두 뒈로 썼으니까. 밑도리 뒈가 아니니까.

[제보자1] 그런데 그걸 두 가마니를 지고 요만한 발판이 있어요. 발판 요만한 발판이 긴 발판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고, 이렇게 걸어 이렇게 왔다갔다.'는 그런 돌을 날랐다는 거예요. 힘이 장사, 거의가 날랐다는 거야. 거의가 이 동네에서.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샘에서, 샘이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만은 그 샘에서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사자] 그 빠져죽은 샘 이름.

[제보자1] 그러니까 지금 가보니까 '박덕기샘' 뭐라고 적어 놨는데 제대로 설명해 드릴 게요. 그 샘에 빠져 죽어서, 죽으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그 물 못 먹는다고 샘을 묻어버린 거예요. 멧 십 년 인제 흐르고 나니까 장사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힘을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장사가 생기는데 인자 나중에 후손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물을 먹었을 때는 이런 장사가 나왔는데 그 샘을 묻어버리고 셈이 없어져 버리니까 장사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가지고 그 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멧 십 년이 흘렀으니까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샘을, 그 샘을 판다고 헤서 하나 둘 세 갤 판 거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래 그 샘을 찾기 위해서 세 개를 팠다는 겁니다. 난 우리 할아부지한테 들어서 당연히 그걸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 가 보니까 무슨 이상한 간판이 붙어 있드라.

[조사자] 아, 그니까 동네 사람들이 힘이 쎘는데 그 물을 먹고….

[제보자1] 그렇죠, 그 물이 정기에 의해서…. 힘들이 쎘는데 그 후는 전부 다 사람들이 뭐 전부 약해져 버리고 장군이 안 나오니까 그 샘을 찾기 위해서 세 개를 팠다고 저희 할아부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 하셨습니다.

[조사자] 힘 쎈 사람들이 대서리 사람들이 되겠구나.

[제보자1] 예, 그렇습니다.

- 핵심어 : 추자도, 샘물, 장사, 박덕기샘

W_L_176 검은덱이 허씨할망(#)

2016년 10월 16일, 애월읍 유수암리 강충희씨 댁, 문경미 조사.
강충희(남, 1938년생, 애월읍 유수암리)

[제보자] 허씬데, 힘 쎈 여자 있다고 들었어요.

[조사자] 어떤 여자마씨? 어디 사는지는 모르고?

[제보자] 검은덱이. 어디산지는 모르겠어요.

[조사자] 혹시 기생이라고는 아니고?

[제보자] 기생말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주 목사가 대정현에 가서 문서 전달을 헤두고 오라 하면 오다가 날이 어두우니까 할 수 없이 검은덱이를 들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집에 가면 방도 있고 잡서."

헹 보내불엇어. 제일 막내 집에. 그러면 허씨할망이 그냥 두질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갔다 온 관헌이 밤새 그냥 허씨할망에게 시달림을 받으니까. 출근해서 목사 앞에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러니까

"니가 웬 일이냐 바른 대로 말하라. 간밤에 뭐 했느냐?"

그러니까. 검은덱이란 곳에서 여자에게 시달림을 받고 돌아왔다고 하니까, 목사가 나무로 만들었지요.

[조사자] 호패?

[제보자] 조팝처럼 만들어가지고 몸에 딱 붙여가지고 아무리 조여도 몸이, '이걸 끼어가지고 그 여자하고 놀아봐라.' 하니까 가서 하니까 여자가 아무리 용을 써도 나무로 했으니까.

- 핵심어 : 허씨할망, 힘 쎈 여자, 검은덱이, 제주목사, 대정현, 관현

W_L_177 날개 돋은 아기장수(#)

2016년 10월 16년, 애월읍 광령2리 광령2리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고우길(남, 1939년생, 애월읍 광령2리)

[조사자] 그러면 고씨댁 장사도 잇엇수과?

[제보자] 건 우리 고조부님. 저기 날개 돋앗젠 허는데, 건 우리 노인회장네 집안인데, 어린 때부터 날개 돋으니까.

[조사자] 어떤 얘기 들어난 마씸?

[제보자] 어릴 때 날개 돋으니까, 그래 날고 저래 날고 어릴 때부터 허나네. 아마 조상들이 그 날개를 꺾엉 지져 불엇댄 헌 모양이라. 관가에서 알면 뭐 헌다고. 날아 다녔댄 헌 말은 들었는디 나도.

[조사자] 그 다음엔 또?

[제보자] 그 다음엔 별 이야기 없고, 경 행 날개 짤라 불엇댄 헌말.

[조사자] 왜 날개를 짤라 불엇인고예?

[제보자] 관가에서 알민 심어갈 거 아니게, 관가에서 알카부댄.

[조사자] 그런 얘기를 고씨댁에서 고씨댁 장사가 있었다?

[제보자] 예. 어릴 때부터 천장에도 날아 강 붙고, 헷댄 허는 거주. 옛날 하르방들 말.

- 핵심어 : 날개, 아기장수, 고씨댁 장사

W_L_178 덕을 베푼 만덕님(#)

2016년 11월 26일, 성산읍 오조리 채종학씨 댁, 이현정 조사.
채종학(남, 1946년생, 성산읍 오조리)

[조사자] 김통정. 만덕할망 얘기는 들어나셧지예? 김만덕.

[제보자] 아, 게 만덕인게, 여기서 안헨 성안 사렴이니까.

[조사자] 성안 사람이니까.

[제보자] 어, 거니깐은 이저, 굉장히 저, 그 분은 어린 때부터, 그, 만덕이옌 헌 얘기는 많이 들어봣지게.

[조사자] 응, 어떤 일헷댄 헙니까?

[제보자] 아게, 어려운 사렴들 뭐 쏠도 주곡 뭐도 주곡 막 헷젠 허니까, 그건, 이, 저, 말 그대로 어려운 시절이니까, 쏠 한 쪽, 뒛박이라도 얻어, 이제, 그, 먹는 그, 고마움덜은 늘 이 전헤질 거 아냐게. 거난 우리 어린 때부터게 아이고, 하이튼 누게, 뭐, 주면은 할망덜이 아이고 요 저, 만덕님, 만덕님이엔 허거든. 만덕할망이엔 허는 게 아니고.

[조사자] 님이옌 헨?

[제보자] 응.

"아이고, 요 만덕님ᄀᆞ찌."

어, 누게, 영 (불청) 인심 잘 쓰면은, 그렇게 이제, 겐, 거믄 그냥 만덕이 누게꽈? 하믄 이, 저, 이만저만 물으거든.

"저 성네 살던 할망인데, 막, 숭년들언 멧 년, 3년 뒈가난 인제 날이 ᄀᆞ무니까, 먹을 거 엇언 다 죽어가는디, 만덕할, 저, 할망이 쏠덜 풀엉 다, 쏠덜 풀어줜, 풀엉. 살렷젠, 저 헌다."

허멍 이제 그 얘기로 이제.

[조사자] 음, 그런 얘기도 그래도 어르신덜이 하긴 하는구나.

[제보자] 아게, 그니까 놈헌티 덕을 베푼 사럼헌테.

“아이, 요 만덕할망ᄀᆞ찌.”

허여, 또 만덕님이옌도 허곡게.

[조사자] 만덕님이옌도 하고.

[제보자] 또 심방덜토 그, 만덕, 그, 할, 뭐를 많이 거느리지.

[조사자] 음, 만덕할망을?

[제보자] 이저, 응.

[조사자] 신으로.

[제보자] 아, 거난게, 그니깐게, 저, 심방덜이야게 이것저것 좋은 사럼 뭣덜 많이 영 입에 올리지 아녀느냐게? 그런 식으로덜 그 많이 허지게.

- 핵심어 : 덕, 만덕님, 쏠, 숭년, 인심

W_L_179 말 안 듣는 벤인테(#)

2016년 11월 26일, 성산읍 오조리 채종학씨 댁, 이현정 조사.
채종학(남, 1946년생, 성산읍 오조리)

[조사자] 벤인테 얘기 혹시 헤주실 수 잇수과?

[제보자] 아이, 확실히 잘 얘길 못허겟는데, 일단.

[조사자] 예, 괜찮아. 짤막짤막허게.

[제보자] 예, 그 사럼은 인제 그, 노비 (불청) 인젠 그, 저, 머슴이고.

[조사자] 예.

[제보자] 게, 주로 이제 그, 뭐, 머슴이옌 허믄 주로 이제 여기서는 소나 말 보고 이제, 이런 뭔데.

[조사자] 테우리 같은 거구나?

[제보자] 어.

[조사자] 예, 예.

[제보자] 근데 그 뭐 또 테우리만 허는 게 아니라 농사일도 돕고, 뭐 집에 잔 좋은 일허는데, 거, 청개구리 식으로 이제, 뭐 이거 허라 하믄 저거 허고, 하간 좌우지간 거, 숩게 말허면 말썽을 많이 부렸거든.

[조사자] 그런 하인.

[제보자] 응, 하인. (기침) 그대신 인제 그저, 굉장헷던 이제 그, 좀 코믹헌 뭣도 이제, 많이 잇엇던 모냥이라. 누게 뭐. 거난, 이제 그, 그 어, 저 아가씨안틴 저, 곧기는 무시거 허고.

[조사자] 아니요, 괜찮수다.

[제보자] 어, 저, 어떤 얘기, 뭐냐면은. 인젠 그, 주인이 저 어디 일 보러 가면서 이제, 너 너 누게, 저, 우리 집사럼헌티 누게 오지 못허게, 이, 저, (웃음).

[조사자] 그냥 말 하, 말 하셔도 뒈마씨.

[제보자] 아, 오지 못허게, 이제.

"너 손 잘 덖으고 이, 잇어라."

[조사자] 아, 손?

[제보자] 아, 게, 손을 자기 마누라 이제, 그, 그, 국부에다가.

[조사자] 아, 국부에다가.

[제보자] “잘 덮고 잇어라.”

아, 근데 그게 좀, 가만이 덮을 수가 잇어요게?

[조사자] 남녀 사이에 그럴 수가 엇지예?

[제보자] 어디가 겐, 결과적으로 이젠 그, 주인마님 이제.

[조사자] 음.

[제보자] 그런 거, 벤인테 거난 말 잘 안 들곡 허믄

“요 벤인테ʔ찌.”

[조사자] 아,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잇어마씨? 겐 주인이 돌아왕 뭘 어떵 헷다. 뭐 이런 예긴 엇어마씨? 뒤에.

[제보자] 아, 거난게. 주인게, 뭘게 알 게 무시거라, 일단은.

[조사자] (웃음) 하긴예, 알 게 무시 거라예?

[제보자] 겨난 그 식으로 이제 굉장히 저, 그런, 말 잘 안 듣고 헤민

“아유, 요 벤인테ʔ찌.” 헹그네.

[조사자] 말 잘 안 듣고 영 허면.

[제보자] 예, 게 말썽 부릴, 쉽게 말허민 좀 말썽쟁이지.

[조사자] 음.

[제보자] 겐 놈이 집 이제 그 소위, 장남으로 머슴으로 살며는, 좀,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야 뭘 거 아니게?

[조사자] 기지예.

[제보자] 그런데 하도 좀, 이제 꿰병만 허고 허니까, 어튼 간에 거 뭐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조사자] 예.

[제보자] 말 안 들어가믄.

“요 벤인테ʔ찌.”

- 핵심어 : 벤인테, 머슴, 청개구리, 국부, 주인마님

W_L_180 설문대할망(#)

2016년 11월 18일, 제주시 노형동 정존마을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김임생(여, 1931년생, 제주시 노형동)

[조사자] 설문대할망의 속바리란 말은 애월서 나왔는데, 그건 무슨말인고예?

[제보자] 설문대할망 그거는 애월할망이 아니고, 그건 전설인디. 그 할망이 우리 제주도에서 막 키가 큰 모양이라. 경 허난 여기서 저기 추자레 속옷 하나만 헤 주민, 옛날엔 이런 속옷이 아니고 잠녀들 입는 속곳이 잇엇주게. 게난 그거 하나만 헤주며는 제주에서 추자도까지 다리를 놔주켄 허난. 백 필을 들을 건디. 아흔아홉 필 벢이 구허지 못헨. 속옷을 못헤줫댄. 경 헤 부난 이디서 추자더래 다리를 못 놘. 겐디 전설이라.

- 핵심어 : 설문대할망, 추자도, 다리, 속옷, 제주도, 속곳

W_L_181 쉐죽은못(#)

2016년 11월 18일, 제주시 노형동 정존마을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김임생(여, 1931년생, 제주시 노형동)

[제보자] 저 거시기 하가, 하가는 어떤 할머니가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장남을 데령 사는디 거는 일로 산간도로로 가당 보민 잇어. 물이. 거기가 '쉐죽은못 쉐죽은못' 허주게. 건 할망이 장남ᄀᆞ라 밥을 많이 먹으랜. '밥이 일헌다 밥이 일헌다' 허난. 이 놈이 장남이 오꼿 잠자 불엇어.

게난 할망 막 부에나난 그 밧 다 갈아둰 거디간 쉐물 먹언. 할망도 죽고 쉐도 죽고. 게난 그 못이 쉐죽은못이엔 허주.

- 핵심어 : 쉐죽은못, 할망, 장남

W_L_182 신칩 며느리 홍할망(#)

2016년 10월 16일, 애월읍 광령2리 광령2리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신00(여, 1943년생, 애월읍 광령2리)

[조사자] 신칩 며느리 홍할망은 알지 안 헤마씸?

[제보자] 막 어려와네게. 저 한라산에 가네. 홍할망이랜 헤네. 막 힘이 세나네. 가시낭도 영 땅기고. 그때문 ᄆᆞ물. ᄆᆞ물 갈아그네 ᄆᆞ물가그네 장만헹 와야 하는데. 장만허지 못행 어떵허리 핸이믄 할망이 여산이 막 좋안.

옛날에 그 초집 지붕 위에 덖으는 새엔 헌 거 잇지 않우꽈 그런거 허여. 베어다네 영영 나란히 깔아네 장만헹 살앗젠 경 ᄀᆞᆯ읍디다. 난 거벢엔 몰라마씨.

- 핵심어 : 며느리, 홍할망, 한라산, 새

W_L_183 열녀할망 (#)

2016년 10월 24일, 애월읍 신엄리 신엄리마을회관, 문경미 조사.
문창행(남, 1926년생, 애월읍 신엄리)

[제보자] 원래는 이디서는 독개 독개 허긴 허는디. 옹포. 옹포 살았거든. 옹포 살다가 저 사름네 할아버지가 과거 보레 육지 간 모양이지. 예를 들어서는 가다가. 풍파를 만나니까 비바람이 쳐 부니까 무인도 이제 보면 관탈 닮은디 강 데껴부니까 거디가서. 그디간 하르방이. 새알만 먹으면서 사는디. 허다허다 버치난 하르방이 널착판에 글을 써가지고 '낮이랑 연기를 보고 밤이는 불꽃을 봐서 나를 찾아주시오.' 헹 널착판에 글을 썽 보냇거든.

글을 썽 바당에 띠왓어. 띠우니 이제 옹포에 저 사람네 조상네 사는디 내껴불고 오도 안 허니 이젠 돌아가분 줄 알고 그디선 애를 쓰는디 집에서 빨래를 허레 가는디 집에 살던 머슴보고 빨래 헤오렌 허니까. 물에 가가지고 빨래 허레 갓는디. 빨래 헸이니까 어떤 널짝이 들어오는 거라. 들어오니, 밀려불민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자꾸 허여. 게니 거기 사는 머슴이 글을 모르니까. 거 끝날 때까지 밀리믄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자꾸. 들어오니 허 이거 이상하다구 빨래헨 빨래에 널착판 끼고 집에 왔거든.

집에 오란 사실 영정 헹 널착판을 지고 오랏수다 허니. 주인네가 보니까 아까나 말헌 대로 써졋거든. 이젠 지금으로 허민 향교. 향교에 널착판을 가졍 간 뵈앗어. 뵈오니. 이제 낮때를 노앙 그 사람을 찾안. 찾음광 동시에 이것은 하늘에서 테와준 하르방이라. 이래가지고 저기 저 저편이 별급을 줫거든. 무슨 봉? 너네 집에 국가에서 준 봉 잇잖여.

[조사자] 수산봉도 아니고.

[제보자] 그때는 조정에서 하늘에서 보호헌 사람이다 헹 별급을 주젠 허는디 무엇이 필요허냐 허니, 아무 오름을 주면 좋습니다 허여. 나라에서 줫젠 허주게.

[조사자] 아하, 그런 오름도 있구나예.

[제보자] 박집이 무슨 오름산디 팔아불고 헷일 거라. 정월봉이지.

[조사자] 다음에 딸이 또 수절했다는 이야기는 모르고마씸?

[제보자] 삼정문이라는 건디. 거디 종이 널착판을 주어오니까. 종까지 올련 삼정문이주게. 고소락이 열녀 할머니 몸종. 몸종까지 헤연.

- 핵심어 : 열녀할망, 옹포, 오름, 삼정문, 고소락, 머슴

W_L_184 콩 한섬 하르방(#)

2016년 10월 2일, 한경면 용수리 김성준씨 댁, 김선희 조사.
제보자1: 김성준(남, 1946년생, 한경면 용수리)
제보자2: 김성아(여, 1948년생, 한경면 용수리)

[조사자] 용수에 내려오는 얘기 잇수과?

[제보자1] 큰 남방에이.

[조사자] 예, 남방에.

[제보자1] 큰 남방에. 그거 만들엉 왕으네 밥도 많이 먹곡 힘도 쎄영, 콩 한섬도 지곡. 경 허는 하르방.

[조사자] 용수에 살아난마씸?

[제보자1] 아니, 용수에 살아나진 않고 그 어디 딴 디 웃동네 살아난 셍이라. 그 큰 낭 끈엉. 그 남방에 만들젠 허민 무자게 큰 낭. 그거 멧 아름이라. 그걸 만들엉 지엉 오는 거라. 지엉 왕으네 줘동 가곡.

[조사자] 그런 하르방이 잇긴 헤난 모양이라예.

[제보자1] 그 콩 한섬도 진댄 허는 하르방이라.

[조사자] 그 하르방 다른 말은 엇수과. 힘이 막 세낫구나예.

[제보자1] 힘이 셋주게. 그 하르방이 동네 오라그네 밥도 워낙 하영 먹어난 모양이라. 그거 먹엉 올라가민 콩도 한 섬 지어 오고. 착구지 있잖아이. 이만이 헌 거.

[조사자] 착구지마씸?

[제보자2] 멕게, 멕.

[조사자] 아, 멕.

[제보자1] 영 담는 거. 그것도 찢어진덴 허난.

[제보자2] 여기 웅이네 아방은 우리 고산은 가나마나 보리 석 섬짜리엔 말헤낫저.

[제보자1] 그 하르방은 올라가민 낭 끈엉 남방에 만들엉으네 지엉 오곡. 남방에도 오죽 큰 것들이라. 저 집이가 남방에 최고 큰 거 셔낫어.

[조사자] 저 집이 어느 집이꽈?

[제보자1] 우리도 그거 셔난 거 알아져. 그 기와집이. 이문간에 잇다며.

[제보자2] 이문간은 우리 온제 후제까지 셔나고.

[조사자] 그 하르방이 만든 큰 남방에가 잇어낫구나예.

[제보자1] 응. 잇어난. 예펜들 그것에 놔그네 보리도 지곡, 나룩도 지곡. 경 해야 밥헹 먹을 거 아니라게. 그것도 ᄎᆞ례벡이 헤사. 요기 방에 둥그는 것도 요전이까지 셔나난.

[조사자] 이젠 동네마다 엇어예. 안 써 부난.

[제보자1] 점점 엇어졍 옛날 거 아무것도 엇다. 사진이나 찍어나두카. 옛날 우리 하르방들 살 때 나 어릴 때 나도 잢이믄 일령 나도 방에 세워낫네. 어린 때. 지원이 만할 땐가? 일곱 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난.

[조사자] 아까 말한 하르방은 지엉 다닌 짐이 한섬이나 콩 한섬 하르방이렌 핷인가마씸?

[제보자2] 경 헤엾주게. 그런 거 열닷말이주. 콩 한 섬이 열닷말이 한 섬.

[제보자2] 근디 경 힘 센 사름들이 술을 너무 좋아헤 부난. 오래 살지 못헤여. 술을 너무 좋아헤 부난. 옛날은 술을 닦은 술만 먹어 놓고.

[조사자] 아, 담근 술.

[제보자] 게난 그런거 드르 먹어불민 안주도 졸바로 아니 먹곡. 그런 술만 먹으민 제게 죽임벰이.

[제보자2] 옛날은 다른 일이 엇이난 센 거 잘 헤낫어. 들으는 거, 무신거.

- 핵심어 : 콩 한섬, 하르방, 남방, 한경면 용수리, 착구지

W_L_185 효자 고찬원(#)

2016년 10월 13일, 애월읍 고성리 강정씨 댁, 문경미 조사.
강정(남, 1928년생, 애월읍 고성리)

[제보자] 효자터라고 있어요. 여기 우리 밧이라. 그 이름 따 가지고. 우리 어릴 때 아니라. 삼십년까지는 평화로 아니라 효자문이라고, 효자문인디. 이름이 고찬원이라.

지금 도청의 경비원이라. 그걸 뭐라 하드라 직ᄒᆞ는 사람인디. 어멍이 불구자였던 모양이라. 맨날 업엉 뎅겻다 허여.

경 헹 사또가 한번은 보러 왓어. 보러 왓는디. 사또가 와도 나오지 안 헷이믄 천푠디. 하늘의 효잔디. 사또가 와서 나와 불엇거든. 게난 인효라.

- 핵심어 : 효자, 고찬원, 효자터, 사또, 효자문

W_L_186 힘쎈 강초관(#)

2016년 10월 16일, 애월읍 어음리 도로변, 문경미 조사.
문국부(남, 1941년생, 애월읍 봉성리)

[제보자] 힘이 세노니까. 남방애를 통나무를 비와가난 톡 쓰고 허연. 힘이 장사라낫는데.

[조사자] 그게 어디?

[제보자] 어음2리. 저 위에 장삼도랜 헌 지경이 잇는디. 출왓이라. 거기서 우리 방애를 만드는디. 사또들이 넘어가다가 그걸(나무를) 파가니까 그걸 못허게 허는디. 그걸 토치(도끼)로 탁 찍어둥 머리에 써 버렸거든게. 도치를 빼가지 못해서 나무를 못했다 허여. 그래서 사또가 겁나가지고 달아나버렸다 허여.

- 핵심어 : 남방애, 사또, 강초관, 도치

W_L_187 힘쎈 검은덱이(#)

2016년 10월 14일, 애월읍 유수암리 밭, 문경미 조사.
강창휴 (남, 1935년생, 애월읍 유수암리)

[조사자] 검은덱이는 뭐마씸?

[제보자] 검은덱이라고 위이 동네가 잇는디.

거기가 여기보다는 문저 설촌됀엇다는 말이 잇는디. 뭐냐면. 오소장, 말 기르기 위해서 오소장이 아니고 십소장이 물 국마를 길러가지고 공납헤 낫는디. 관에다가 헷는디. 거기 말 직허는 사람이 살앗다고. 말 보는 사람이 살아낫다고 하지.

[조사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 하는 이거는 안 들어봔 마씸? 힘이 세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보자] 여자가, 검은덱이 여자가 힘 쎈 사람이 잇어낫다고 하여. 거기선 또 남자도 힘이 좋은데, 일부러 물 질러 가서, 허벅 그 뭣고 허벅을 둘씩이나 놔가지고 짐을 져 가지고 물 내려오는 질에 일부러 그 할망하고 씨름할라고…(웃음)

[조사자] 하르방이? 아아. 그 할망은, 검은덱이에 힘 센 할망마씨?

[제보자] 그 할망은 그 하르방 기다렸다가 씨름하자고 ᄒᆞ여(웃음).

- 핵심어 : 검은덱이, 할망, 국마, 물, 하르방, 십소장

Ⅲ. 현지 조사 자료

민담

W_F_001 가파도 도체비와 영장

2017년 2월 21일, 대정읍 하모리 이정자씨 댁, 문순덕(김은정·정이슬) 조사.
강순화(여, 1935년생, 대정읍 가파리)

[조사자] 도체비 나온댄 헌 말은 안 들어봅디강?

[제보자] 하도 시대가 묽으난 안 헷주마는 그거는 하영 나왓주게. 하영 나와. 우리 하르방 살앗이민 이제 여든넷인디 우리 하르방네 총각 때도 다 보고랜.

[조사자] 그걸 굴아줍써

[제보자] 총각 때난 한밤중이 가당 예를 들엉 하동에서 놀당 올라가당 보민 가운디 가파도 가운디 방애가 잇어낫어. 그 방애에, 발을 쉐말추룩 그 방에 왕 닥닥닥 두드려동 동드레 돌앗젠. 뒷날은 보민 사람 죽엇저. 겅 허연. 그런 헛불은 많이 낫주게.

[조사자] 헛불이랜 굽니까? 도체비랜 안 허고?

[제보자] 헛불이주게. 응. 도체비 봣젱 헷주게.

언치낙 헛불 나완. 그추룩 헹 그 헛불이 동드레 돌안. 뒷날은 보민 영장낫저. 궂인 거 뎅기믄 아마도 영장. 연날에 우리 이칩이. 이칩덜이라. 우리 하르방네 날 때 겅 한 셍이라. 우리 시어멍도 굴안게.

이 집이 아기 나고 동서녁집이 아기낫젠 이제 우리 하르방 나고 여긴 다른 똘이 낫젠. 그때 바로 도체비가 다른 눈에 보엿젠. 도체비가 이렇게 멩텡이 지고 헹 그때 아기어멍이 어떵 허난 물 사다놓고 감감무중허난

"아휴, 도체비 뎅겼저, 뎅겼저,"

헹게. 하도 돌아나가난 침 주는 하르방들 다 흔 방에 눠젠. 아기어멍도 눕고 허난 갈 때는 몸이 다 자려 불엇젠. 몸이 다 자령 돌아난 사람이 연날은 문을 창문을 덖엇다 열엇다. 이렇게 가난 치메자락을 창문에 줍지난 돌아상 창문 올앙 그 치메자락 영 튀언 가야, 가 불어야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돌아낫저 없다. 이젠 춪자."

그땐 아무것도 엇일 때난 훳불. 훳불로 헹 찾아도 못 춪앙 뒷날은 보난 가파도 메구리 메는디 잇수다. 게염주리 매구리 메는데 그디 보선 한착 문드렷어랜. 시체도 못 찾앙 물에 강 션. 그건 우리 어머니네가 다 굽디다. 도체비도 하영 나난 셍.

[조사자] 경 허믄 어디 가믄 도체비 나는 자리난 멩심하란 말도 굴아낫수가?

[제보자] 멩심허라는 건 공동묘지서

"혼자 뎅기지 말라."

할머니, 어머니들이

"그딘 갈 때는 혼자 뎅기지 마라."

경 굴아난.

- 핵심어 : 가파도, 도체비, 헛불, 영장

W_F_002 각시 셋 헌 정승

2016년 11월 21일, 제주시 해안동 해안동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양익근(여, 1930년생, 제주시 해안동)

[제보자] 옛말에 이런 말도 잇어낫서. 이정승 삼정승 뚤이 잇인 거라이. 이정승 삼정승 뚤이 세 개. 어떤 남자 이쁜 남저가 그 집에 장개들젠 허난. 뚤집에 장개들젠 허난. 아무라도 하날 차지해야 하지. 세 각시가 다 이쁜 거라이. 이쁜 거난 이걸 어떵허민 좋고 헹 부모신디 오란

"정승 뚤이 세 성지가 이신디 걸 하나만 허기도 난허고. 걸 어떵 허민 좋암직 허꽈?"

부모신디 경 허난. 그럼 좋은 의견 내엉 세 성제신디

"그냥 장개들라."

"어떵 세 성지신디 장개듭니까."

건디 이정승 허민 그자 그 집에 장개 들 수가 엇수다. 경 헤도 드름심청행 한 번 가 보랜. 가 보난 첫 번은 대답을 허고 말고 어떵 헹 새서방 하나에 딸 세 성제를 줄 수가 잇어. 줄 수가 엇이니까 이젠. 어떵 허민 좋고 허당. 시험을 쳐가나니 합격이 뒈가지고. 아들 하나가 며느리 셋을 헷다 허여. 그 남자가 원체 좋아난 모양이라. 얼굴이영. 미남으로 싯고. 뚤도 이쁘난 경 허연. 일정승, 이정승, 삼정승. 그렇게 부재로 잘 살앗댄 허여. 그런 말은 들어낫어.

[조사자] 그건 어느 지경의 얘긴고예?

[제보자] 어느 지경인진 난 잘 몰라.

- 핵심어 : 일정승, 이정승, 삼정승, 각시, 정승, 장개

W_F_003 갈치와 도체비

2016년 12월 14일, 표선면 가시리 한신화씨 댁, 송정희 조사.
한신화(여, 1921년생, 표선면 가시리)

[제보자] 도체비, 요 동네 사름이 죽어빗어. 이젠 저 당낭밧디 가그넹에

"제 얻엉 먹엉 오라."

"예."

갈치 ᄒᆞ나 끌렝이 헤영 싼 제숙으로

"이거 아젼 가그넹에 식게 얻어 먹엉 오라."

"예."

요디 마저리동산이렌 헌디 잇어. 가단 보난 도체비가 난 막 ᄃᆞᆯ아뎅긴 거라 도체비가 난

"하이고 이거 이놈이 도체비 저냑에 내 ᄒᆞ나 죽여야 허지."

제숙 싸 가진 건천으로 싸 준 걸로 막 두들렷어.

[조사자] 도체비를?

[제보자] 도체비를. (웃음) 도체비가 아니고 불난디라. 불난디. 불난디 글로 ᄂᆞᆯ아뎅기고 절로 ᄂᆞᆯ아뎅기곡. 짓벌겅헤게시리 ᄂᆞᆯ아뎅기난, 그걸 도체비엔 그 끌레기 싸준 걸로 짓두드리당 보난(웃음) 궤기도 어디사 간디 끌레기만 손에 쥐어줜(웃음). 도체비 ᄒᆞ나 도체비 ᄒᆞ나 잡지도 못허영. 불난디만 ᄃᆞᆯ아뎅기당 그냥 제 얻어 먹으레 가난(웃음)

"허, 집이서 제숙도 아니 보내연?"

영 허난(웃음)

"갈치 ᄒᆞ나 끌레기에 싸 준 아바지가 싸 주언 당낭밧디 강 식게 얻어 먹언 오렌 헨 오단 보난 막 도체비가 쳐 난 ᄃᆞᆯ아뎅기난 그거 허연 막(웃음) ᄒᆞ나 잡젠 두드리난 보난 궤기도 엇어.(웃음) 어디 간 줄 몰르곡 도체빈 잡지 못허곡 헤연 겐 그냥 오랏수다."(웃음)

겅 헌 도레가 잇어.

- 핵심어 : 도체비, 당낭밧, 식게, 제숙, 갈치, 불난디

W_F_004 고산리 도체빗불

2016년 12월 15일, 한경면 고산리 서안생씨 댁, 김선희 조사.
서안생(여, 1932년생, 한경면 고산리)

[조사자] 이 동네는 도체비는 안 나와낫수과?

[제보자] 이디 도체비는 저, 읏디 가면은 추락구지, 질 쪼곰 나가면은 추락구지가 잇어. 그 추락구지에서 그 매고무동산에서 도체비가 나오면 그게 사람 조름에 졸졸졸 졸 쫓아 오다가 동네 들어 와가면 '씽'하면서 저 녹고물더레 놀아낫젠 헤여.

[조사자] 도체비가 마씸?

[제보자] 어, 도체비가. 도체빗불, 불, 불.

[조사자] 할머니는 안 봐낫수과?

[제보자] 우린 안 봐낫고. 들어본 소리. '씽'하게 저 녹고물더레. 그때 우리 시아주범님은 묘제 보러 저 애월 수산더레 가는디 거기가 본 고향인 셍이라. 이 박씨 집이가. 우리 하르방은 박씨주기. 그디 강으네 묘제 봐아졍 낮이 못 오주기. 밤이 오주기. 밤이 오민 또 매고무동산이엔 헌디 오민 도체빗불이 버룽하게 그디 앚앙. 아이고 저게 무신 불인고 허당 보민, 하르방 그디 걸어오당 보민 그 불이 ᄎᄎᄎ 곹이 와. 동네 다 오라가가민 '씽'하는 소리 나면서 저레 녹고물더레 저레 놀아가 분다고 그 말은 들엇구나.

- 핵심어 : 도체비, 녹고물, 도체빗불, 매고무동산, 사람 조름, 한경면 고산리

W_F_005 과부와 심방

2016년 10월 21일, 구좌읍 세화리 부신남씨 댁, 송정희 조사.
부신남(여, 1920년생, 구좌읍 세화리)

[제보자] 저 뎅기당 보난에 산에 업더져서 선제로 영 부껎어렌, 산을 산을 선제로 부껎이난에 이젠.

[제보자 딸] 풀 몰르렌.

[제보자] 그 엣날 대각이 막 그, 그 사름도 놀게 돋곡, 대각이 어떵 헹 막 놀아뎅기는 사름, 뭐 요 사름은 아무날 죽나 허민 죽곡 허는 사름이라낫젠. 경 헌디, 분첼 선제로 산에 업더전 영 영 부껎이난, 그 사름이 넘어가단

"이거 무시거 험디?"

허난 지네 서방 산 때

"나 죽건, 산에 풀이나 몰르건 서방 얻엉."

가렌 헤렌 아이고 경 허난, 그 이젠 그 사름은 장수엔 허는 사름은 그 확허난 몰라 볏어. 몰류난, 그 선제 뭐 줄 건 엇이난. 그 여잔 확 몰려주난 이젠 선젤 게와러레 찔러렌

"말덴, 말덴, 나 뭐 돈 이런 거 받젠 거 헷이냐. 나가 헤지는 기술이난 몰률 거렌라." 경, 집이 집이 오난 이젠, 여잔 이 저 선제 게와에 잇이난

"아 이거 무신 저을에 이제 무신 여름도 안 혀난디 선젤 게와에 놘."

영 오구룩허는 거 경 허난, 저 어떤 여자가 산에 업더젼 막 풀을 몰류ᄂᆞ이나네.

"에 이거 무시 거헒이난에?"

"우리 남편 산 때, 이 산에 풀이나 몰류건 남편 정헹 가렌 헤 부난 이거 제게 몰류렌 몰류누렌."

허난 아이고 그 예펜허는 말은, 각시허는 말은

"그거 몰률 셀 못 춤아그네 경 헷이네. 그거 몰률 셀 못 춤앙 서방 얻엉 가젠 그걸 선제 앗앙 강 몰랏이넨."

그 여잔 경 허난, 이젠, 그 남잔 이젠 그 풀을 제게 몰라준 그 장순, 셈을 받아보젠 막 잘사는 사름이 경 허난 이젠 저

"나 죽거들라그네, 난 아무날 죽을 거메 죽거들랑, 흔 둘만 이젠 성복헤여동 입관헤여그네 그 속에 놔도, 우이랑 덖으지 말곡."

이젠 호갠덜 하간 데서 오곡 헤여. 헤여도 이불만 덖엉 놩, 삼시 밥을 헤당 상

식을 헹 ᄒᆞ렌. 그 남제가 경 ᄀᆞᆯ앙, 경허난 이젠, 삼시 이젠 죽엇네. 성 성 성복헹 일포헹 이젠, 저, 그 관 차네, 관에 놓안 우인 아이 덖으곡 이불만 덖어네. 이불 덖어네 이젠 놓안, 놔둠어로 이젠, 막 공연허곡 헤연, ᄒᆞᆫ ᄃᆞᆯ이 지나가고 이젠 죽어난 이젠 묻진 안 혀도, 경 헹 ᄒᆞᆫ ᄃᆞᆯ ᄒᆞᆫ ᄃᆞᆯ 넘건 묻으렌 허난 이젠 귀양낼 거 아니라, 귀양내젠 허난

"아이구, 무신 올라다 봐민 능화도비 ᄂᆞᆯ려다 보민 갑진장판, 어느 누가 금산비단 한 이불에 저 저 이불은 누게가 덖으고?"

허난 심방이

"내가 덖으지." 영허고

"아이고 저 저 양복덜은 누게가 다 입을 건고?"

"나가 입지."

영 허멍 헤엿젠 이제 굿허는 사름은 경 헹 귀양내고 다 헤연 이젠 그 심방허곡 그 여잔 살아변, 살멍 구들에 한 편짝에 이불 덖언 누나네게 바레기 실으난 영 헌 창고 닮은 디 그 영장은 들어당 놔비젠, 들어다 놔네 이젠, 밥은 삼시 들언 걸어놘, 걸어놔난 먹언 먹으난 살앗지게 ᄒᆞᆫ ᄃᆞᆯ을, ᄒᆞᆫ ᄃᆞᆯ은 뒈어가난 이젠, ᄒᆞᆫ ᄃᆞᆯ 넘건 묻으렌 허난, 날 봥 묻젠 ᄒᆞ난네 이젠, 그 죽은 사름이 이젠 우인 덖으지 안 혓지. 아이 덖언 이불만 덖언 놓고 삼시 밥을 헤다 놓안, 내랑 삼시 술도 잔에 비와 놓고, 물도 다 헤다 놓고, 숭늉 물도 걸어가곡, 경 헹 묻젠 허난, 그 사름이 살안 일어나변, 묶으지 말렌 헤난 묶으도 안 혀네 그냥 그자 경 이불 ᄁᆞᆯ고 덖으곡 헨, 헛간에 놔도 ᄃᆞᆺ이게 헷젠, 게난 그 사름은 그 산에 풀이라도 ᄆᆞᆯ류와그네, 서방 얻어가렌 그걸 못 춤앗젠 각신 허난네

"아이고 미친 년이 다 싯젠." 허멍

그 사름신디에 막 욕헤연. 진 구들에 묻지도 안 현 때 이젠 얻어젠, 얻어그네 살멍 이젠 삼식을 데령허곡.

[제보자 딸] 말장시 말.

[제보자] "너년은 나 묻지도 안 혀그네, ᄒᆞᆫ 착 구들에 놔둠어로 서방이영 서방 얻엉 사는 년이."

그 사름ᄀᆞ라 욕헷젠 헤엿젠 그 말 들은 거 잊어벼지지 안혀.

[조사자] 선제가 뭐꽈? 선제? 부채? 풍채렌도 허곡 선제렌도 헤마씨?

[제보자 딸] 선제. 선제.

[조사자] 선제.

[제보자] 선제. 영 부끄는 걸로, 영 부꺼그네 불도 일어나곡 여름에 더우민 영 영 게여지는 거. 그런 선제.

[조사자] 아. 영 탁 접어지는 걸 부채 그런 부채를 선제렌.

[제보자] 그걸 영 페와네 그 산을 물랐어렌 풀을, 풀을 물리난 이젠.
[조사자] 옛날엔 그 선제가 귀헷우과?
[제보자] 어?
[조사자] 귀헨? 막 비싼 거?
[제보자] 그런 것이 귀허지게. 아, 겅 헨, 영 게여네 게와더레 찔러렌. 찔르난
"아이고 필요엇수다. 가졍 갑서." 헤도
"이거 너무 고마완, 이거 앗안 갑서." 헨. 게난 앗아 오란.
[조사자] 그 남자가 대각이꽈? 대각?
[제보자] 어?
[조사자] 대각이? 그 남자가 대각? 부대각?
[제보자] 남ᄌᆞ가.
[조사자] 부대각은 아니고?
[제보자] 부대각은 아니고. 아니고, 것도 옛날 막 놀게 돋곡 어떵헌 놀아뎅기는.
[조사자] 놀아뎅기는 장수과?
[제보자] 영 저냑이 ᄒᆞᆫ 시간이민 저 오름에 강 돌앙 오곡.
[조사자] 허는 남ᄌᆞ엿수과?
[제보자] 응.
[조사자] 응. 막 날아다는 남자구나.
[제보자] 그 여ᄌᆞ도 이제 어느 날 죽을 거 다 알안, 남자가 나 죽어그네, ᄒᆞᆫ 둘을 살아도 여제 어떵 안 헐 걸로 헹, ᄒᆞᆫ 둘 넘건 묻으렌 허난 ᄒᆞᆫ 둘 이젠 구들에 놓앗다네 이젠, 봐레기 실르난, 지네 두갓이 막.
[조사자] 게난 심방이랑 게난 심방이랑 살아불언?
[제보자] 심방이 이제 막.
[조사자] 막 재미지다에. 막 재미진 얘기.
[제보자] 금단도비 작베기에 금산이불 한 이불을 누게가 덖을 건고.
[조사자] 나가 덮지.
[제보자] 내가 덖으지.
[조사자] 저 좋은 양복은.
[제보자] 저 세베레 양복을 누가 입을 건고.
[조사자] 나가 입지.
[제보자] (웃음)

- 핵심어 : 과부, 심방, 부채, 선제, 무덤

W_F_006 그슨대

2016년 12월 7일, 남원읍 태흥3리 오봉남씨 댁, 김선희 조사.
오윤생(여, 1932년생, 남원읍 태흥3리)

[조사자] 도깨비 얘기도 해 줍서.

[제보자] 그슨대옌 헌 건이, 요 둘 엇곡 비나 축축 오고 오월 장마 같은 때 있잖아 그런 때가 구신은 잘 나. 장마졍으네 비 축축축 오고 안개 질 때. 경헌 때인디. 옛날은 우리가 메역을 허난, 갯것디 메역을 허난 바당 쎄면 그것을 올려. 올리난 메역을 바당 쎄민 물 싸민 그걸 허레 밤이 오는 거라이. 물 싸민 줍젠. 저 중앙에서 이 바당에 오난. 아이 두 개 둘곡 헤영 이딜 오난. 오단 보난 이디 소곰막이옌 헌 디 잇어, 요기.

[조사자] 소곰막마씸?

[제보자] 소곰막이엔 헌 디 요디, 절로 왓이민 요기 동떨어진 디 실 건디. 집 엇인 디. 저쪽 마을하고 우리 삼리허고 사이에 이디 바당.

[조사자] 해안도로 들어오는 디마씸?

[제보자] 으. 바당. 그짝에가 옛날 소곰 구워나난 디라.

[조사자] 아하.

[제보자] 옛날 소곰. 옛날 할망들, 하르방들 그디서 소곰 구웟인디 이젠 다 그디 메완 저 펜드레 보난 집들 짓엉으네 올리부터는 미깡 판매헸언게, 그디서. 게난 그디가 제일 무서운 디라이. 이거 메와 부난 헸주. 메우지 아니한 때는 그디가 높아. 저레도 높고, 이레도 높으민 이디가 막 ᄂᆞ차옵주게.

겨난 이제 마는 팡팡팡 하는 디 글로 오노렌 허난 일로 그자 크등한 것이 숙박 사난 왁왁헌 거주. 왁왁허고 읖이 오는 아이들은 안 보이난 몰른 거고. 겨난 오단 보난 크등하게 뭐가 삿이난에 옛날에 훼옌 헌 거 잇어. 이영 검질로 헤영 길게 묶은 거 잇저. 훈 밧 썩은 헤영 묶은 거. 그런 것에 빙빙 묶엉으네 성낭 아지고 헤연 이디 오란 불 싸가지고 헤연 메역 빠지믄 줍젠. 오노렌 허난 뭐가 그자 앞이 왁왁 숙박 산 거라이. 아이들은 기자 몰르고. 게난 아이들ᄀᆞ라

"야, 그디 훼 이디 앗아내라."

그것이 훼라이. 영 묶은 것이. 게난

"그 훳불 싸라." 영 허난에

"미시거 허쿠과. 미시거 허쿠과?"

"니네 몰른다게. 몰르건 나 곧는 더레 들으라. 훳불만 싸라."

허난. 불 척허게시리 성낭불 싸난 불 착 붙으멍 확 들르난 '에헴' 허멍 할망 음성이 막 큰 할망

"에헴 어드레."

허난 그게 확 사라져 분 거라이.

[조사자] 아, 예.

[제보자] 게난 아이들은 몰르난.

"삼춘 거 뭐? 삼춘 뭐허멘, 뭐허멘?"

"야, 몰라도 좋다게."

경 허멍 헤연. 그것이, 그슨대가 그런 건 몰랑 그 사람 강알로 넘어가 불민 그 사람 죽낸 헤여. 사람이 죽는 거. 경 허난 그 사람 그 할망 요디 살앗어. 살앙 어떵 헹 뎅기단 사고로 뻬가 막 그차져 부난 정신은 구짝허여도 양로원에도 못 가고 그자 똘네집이 살멍 사람 둘앙 똥 오줌 치우곡 허멍 사는 할망인디.

• 핵심어 : 그슨대, 오월 장마, 구신 잘 나는 날씨, 소곰막, 마, 왁왁, 크등한 거, 훳불, 강알

W_F_007 꿩 잡앙 망헌 집

2016년 12월 20일,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노인회관, 송정희 조사.
김보배(여, 1939년생, 구좌읍 종달리)

[제보자] 엣날에 아들 성제허고 어멍허고 이제 살아 그 동네를 살아, 살안 허난 이제 그 동네 집에 아덜 그 놈이 집이 동네 집이 놀러간 보니깐, 막 꿩을 잡아다가 꿩을 잡아다가 꿩탕을 헹 먹는 거라. 먹으난 그 어멍은 이제 그걸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온 거라. 먹고 와네. 아덜덜ᄀᆞ라.

"아이고 요집인 간 보난에, 막 꿩을 잡아다가 이제 먹다가 먹없이난 나가 먹어 오간에."

겅 허난 그 아덜 성젠

"우리도 낼 꿩 잡으레 가자."

"꿩 잡으레 가자."

게난에 꿩을 잡으레 간 거라. 꿩을 잡으레 가난에. 이젠 저 성ᄀᆞ란 그물을 놔 그네 이젠 그물을 놔 이 그물을 성ᄀᆞ라 지키렌 허곡 이녁은 그 우에 올라가그네 꿩을 달레민 여기 완 걸어진다 허는 거라. 성ᄀᆞ라. 겅 허난 아 이젠 아신 올라간 막 그 꿩을 다울리단 보난 막 그물에 완 막 걸어진 거라. 걸어지난 그 성은 멍청허니깐 아 그 꿩을 다 때멍 들러데껴 분 거라. (웃음) 들러데껴 벤 이젠 와네.

"성님 이디 꿩 아니 왓입디가?"

영허난

"아이 저 앞집이 장ᄃᆞᆨ이 둣집이 암ᄐᆞᆨ이영 막 왕 걸어젼 다 들러데껴 볏저."

"아이고 요 성님, 그거 무사 겅 들러데낍데가?"

겅허난 이제 성이 부에가 나네. 이젠 또 두 번차 가멍

"어멍이라도 왓거들랑 ᄀᆞᆯ아앚아 죽여붑서."

아시가 성ᄀᆞ라 겅 ᄀᆞᆯ은 거라이 겅 허난 어멍은 이제 꿩 잡으레 갓젠 헨. 정심을 헹 아덜아시 젼 온거 아니. 졍 오난게 어멍을 오꼿 ᄀᆞᆯ아앚안 죽여분 거라. 그 큰아덜이, 큰아덜이 겅 헹 왕 보난 어이가 엇인 거주게. 어이가 엇어네, 그 어멍을 이제 어느 밧데레 이제 끗어다가 놔두고 이젠 그디 간 영 눕져 동, 어멍이 이제 묻으라 허면은 이제 뭐 때거리가 엇일 거 아니게, 때거리가 엇이난, 이제 요 동네 강 도독질이라도 헤 와야 이 어멍을 동네 사름 빌엉 허겟다 헤연 결심을 아시가 헨. 잘 사는 집이 이제 쌀을 이제 도독질을 허레 간 거라. 밤중에, 밤중에 간

"성님, 성님이랑 자리 마다리랑 벌깁서. 나랑 쌀을 푸케메."

게난, 이젠 마다리를 벌이난 아, 요 아시가 영 흔 솔박 걸렁 놓으멍

“흔 솔박.”

허민

“흔 솔박.”

“두 솔박.”

허민

“두 솔박.”

허당 보난, 주연은 오꼿 알아먹어 분 거라게. 게난에 도독 들엇젠 헤난에, 아신 뛰어나가네. 도세기막에 강 곱곡 그 성은 그 엣날은 뒈아지 질러놘 이제 그저 돌 놔가지고 대변도 보고 막 뭐헤나지 안 현? 뒈아지, 통쉐 통쉐, 경 허난 그 똥 누는 지들팡 아래 곱앗던 모냥이라. 곱아나난 강 똥을 간 바락허게 싸니깐 그지 우터레 간 거 아니게

“아이고 나 머리에 베락이 떨어졋저.”

헹, 성이 막 웨연, 웨연 보난 경 똥을 질레지난, 이젠 경 헹 그 아시가 주연ᄀᆞ라 경 ᄀᆞᆯ은 거라. 사실을 경 ᄀᆞᆯ으니깐 그 주연은 ᄒᆞ는 것이 너무 이제 아덜이 그 득허니깐 쌀을 준 거라.

“이 쌀을 앗안 강 이제 어멍을 감장을 허라.”

게 이젠 쌀을 주난, 이젠 그 쌀을 앗아 완 죽을 쑨 거라. 아시가 죽을 쑤다가 성ᄀᆞ라 ᄀᆞᆫ는 말이

“요 동네덜 어른덜 우리집이 와그네 이제 음식을 자셔그네 우리 어멍 강 ᄒᆞ쏠 묻어주렌 강 ᄀᆞᆯ읍서. 난 이 죽을 쑤크메.”

경 허난, 경 허렌 아 이젠 성ᄀᆞ라 ᄀᆞᆯ으난 성은 이젠 그 동네 체죽허레 간

“동네 어른덜 와그네 우리집이 와그네 식사를 헹 우리 어머니 감장헤주소.”

헤시믄 헐 건디

“이 동네 늙은이덜 우리집이 오렌 핸우다.”

허멍 이제 막 ᄀᆞᆯ아부난, 하나토 안 온 거라게, 하나토 안 오난, 아신

“뭐렌 간 ᄀᆞᆯ아네 이제 이 동네 사름을 하나도 안 오게 멘들암네?”

허난, 아 영 정 영 ᄀᆞᆫ고렌, 아 경 허나난

“아 이 성님아. 경 ᄀᆞᆯ앙 누게가 옵네껜? 사름을 쫌 사정허는 얘기를 헤야지. 그렇게 허면은 누게가 옵네껜? 경 허들랑 이 죽을 쑤없이민 나가 강 동네 사름 돌아오쿠다.”

아 이젠 헤나난 아시 쑤던 죽을 성ᄀᆞ라 쑤렌 헤돈 아시는 이젠 그 동네 어른덜 청허레 가 분 거 아니 죽 쒀가민 발탁발탁허잖아. 발탁발탁허난 그 성은 지네 아방 말 ᄀᆞᆯ앐젠 솟고냥을 ᄆᆞᆫ딱 ᄄᆞᆯ라분 거라. 죽을 알러레 밋밋. 경 헹 헷단다. 엣날에.

- 핵심어 : 꿩, 성제, 쌀, 도독질, 도세기막, 통쉐

W_F_008 날아다니는 전복

2016년 12월 5일, 추자면 대서리 대서리노인회관, 문순덕(김은정 · 정이슬) 조사.
원용순(남, 1933년생, 추자면 대서리)

[제보자] 저희들이 전설로 들은 거로 생각하면은 그 당시는 전부 다 무동력이니까 풍선인데, 그니까 저희들도 들었으니까 걸 뭐. 에, 믿질 않을라 그러는데 요즘 이렇게 들으면은 전복이 날라다닌다, 날라다닌다고. 그 풍선이 오다가 그 전복 떼를 만나가지고 전복이 날라와서 다 붙으는 바람에 그 베가 결국 침몰됐다는 그런 전설도 있어요.

[조사자]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조업 끝나고 올 때?

[제보자] 조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농사짓는 것 가지고 일 년을 못 먹잖습니까? 이제, 멸치라든지, 갈치나 고등어라든지 뭐 잡아가지고, 또 미역 여러 가지 거를 잡아가지고 강진이나 해남으로 물물교환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준비했다가 가을에 가가지고.

그때는 전부 다 초가집 아니에요. 여기는 벼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볏짚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진이나 해남 가가지고, 이제 일 년에 한 번씩 지붕을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서 사 와야 되고, 이제 일 년 먹을 치 쌀, 보리, 콩 뭐 할 거 없이 찹쌀, 이런 것들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와요.

준빌 해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에 베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자기 아는 베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뭐 미역 요만큼 보내고, 멸치 요만큼 보내고. 뭐 잇인 거 전부 보내면서, 이거는 쌀 한 말, 이거는 보리 한 가마, 이건 뭐해서 전부 적어주면은 이제 그분이 가서 이제 그대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인제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해다가 갖다 주는데 이거는 인자 매년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일 년 사는 거예요. 추자도 사람들이 일 년 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물물교환하러 다니는데 그 풍선이 갔다 오다가…. 오는 길에.

[조사자] 어느 바당쯤 될 거 같습니까?

[제보자] 그러니까 이쪽에 범섬 쪽 있잖습니까. 그쪽에 들어오다가 거기서 그런 걸 당해가지고…. 전복이 날라오더니 기냥 전복 떼가 모아가지고 붙어버리니까…. 전부 주로 풍선이니까 제대로 뭐….

[조사자] 아, 가라앉아 버렸다?

[제보자] 예,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조사자] 그러면 그 전설이 있으면 뭐 조심하라는 말은 없….

[제보자] 그렇죠.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복 떼가 날아다니고 있다. 그 후에는 그런 일이, 요즘은 없지만은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저가 이렇게 물으니까 실지 전복이 날라다닌대요.

- 핵심어 : 추자도, 전복, 범섬, 풍선, 해남, 강진, 조업

W_F_009 남선비

2016년 11월 21일, 제주시 해안동 해안동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고정아(여, 1939년생, 제주시 해안동)

[조사자] 남선빈 뭐꽈?

[제보자] 남선빈 아들 일곱 성제 난 사는디. 그 족은각시 사람이 어디 아무디 그 사람을 보내랜 허난 옛날은 걸어만 뎅겻지. 게난 못 신 디 간 남선비 큰각시가 등땡이 밀어안내쿠덴 허멍 허연 거려밀련 죽여불언. 죽여부니까 이제 큰각신 죽어부난 나가 큰각시 일곱 성제 난 어멍이노랜 허연.

[조사자] 거짓말로예.

[제보자] 거짓말로 허연. 어멍이노랜 허연. 남선비가 그 하르방은 몰란.

"아야 배 아프다. 배 아프다. 아야 배야 돌돌 아야 배야 돌돌."

헌 건 뭣이냐 허민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엉 먹으민 나가 그 배를 좋으켄 허난. 아들 일곱 성제 경 허난 그 하르방은 칼을 ᄀᆞᆯ앐이난 ᄌᆞ끗데 할망이 그땐 성냥이 엇어낫주기.

게난 불 담으레 왓단, 하르방은

"이건 뭣허젠 ᄀᆞᆯ앐우과?"

허난 우리 애기어멍 막 배 아판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 먹으민 좋켄 허난 칼을 ᄀᆞ노랜 허난. 한 배에 둘썩 시 번만 나민 일곱 성제주기. 경 헹 이젠 허난. 그 하르방은 폭 고정 들언. 이제 그 칼을 ᄀᆞᆯ앐이난 그 불 담으레 온 사름은 그 불을 안 담고 그냥 나간. 그 아들들 ᄎᆞᆺ안. 하나신더레

"형들이영 아시들이영 몬딱 ᄎᆞᆺ앙 ᄃᆞᆯ아나 불라.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엉 먹어사 좋켄 허난 아방 칼 ᄀᆞᆯ앐저."

허난 족은아신지 성인지 하나 딱 놔 둰 요섯 성젠 이젠 ᄃᆞᆯ아나 부나네, 사람은 말 들어네.

"무시거 핸우과?"

"저 어멍 아판에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엉 먹으민 좋겐 허여네 골았저." 허나네 "아버지 손으로 허젠 허믄 뭐허고 나가 강 헤영 오건 아바지가 멕입서."

경허난 남선비엔 헌 사람은 그 아덜을 주엇주기, 주난. 산에 강 산토세기 일곱 개 애 내엉 왓주기.

[조사자] 무신거 일곱 개?

[제보자] 산토세기 일곱 개. 일곱 개 애 내엉와네

"이거 애 내엉 왓이메 아바지 허영, 어머니 낫거든 허고 아니 낫거든 나 아바지 손으로 허영 죽영 애 내엉 멕입서."

"아이고 고맙다."

헹 허나네 그 아들은 ?만히 곱앙 본 거라. 곱앙 보난 사람 걸 먹어져게. 톡톡 불랑 위알더레 묻어부나네 그게 그냥 먹는 척만 헨. 허나네. 그 아덜은 말째 문을 활딱 욜안

"어머니 영 오래 누민 내도 나고 나가 방 치우쿠다, 나가 방 치우쿠다."

"늙은이 눕는 방 칩지 안 헤도 뒈다뒈다." 허난.

확 헤여네 몬딱 시난 아덜 일곱 성제 살안 나오나네 살앗구나. 나완 화들짝 나와네. 죽엇인지 살앗인지 몰라. 심방 말미에 나오는 거라. 거 돗도구리여.

[조사자] 끝말이 어떵 된지는 모르고?

[제보자] 그거 잊어불엉 몰라. 할망이 심겨사 불어삿인지 도망사 갓인지 거 몰르주게.

[조사자] 그 할망은 무슨 디 모시는 신이 뒈일 거 아니?

[제보자] 그건 경허난 돗도구리여. 통시에 이런 디 칙간 영 앉안 똥 오즘 눕는 팡, 팡이여 경 허연. 동티 그걸로 나타나는 거라. 그 할망 죽언.

- 핵심어 : 남선비, 애, 산토세기, 아덜, 할망, 일곱 성제, 족은각시, 큰각시

W_F_010 낮도체비

2016년 12월 16일,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마을회관 앞, 김선희 조사.
제보자1: 이순옥(여, 1931년생, 서귀포시 중문동)
제보자2: 김순자(여, 1935년생, 서귀포시 중문동)

[조사자] 옛날 들어난 말들 엇수과?

[제보자2] 옛날 밤이 드르밧디나 가민 도체비나 나민 사금바치나 돌이나 뻣앙으네 싹 허게 뿌리면은 도체비가 삭아져 불주기.

[제보자1] 불란지 불 모냥으로 밤에 불 필롱필롱 나는 도체비는 무섭지 안 헌댄 헷주게.

[조사자] 그믄 뭐가 무서웁니까?

[제보자1] 낮도체비.

[조사자] 낮도체비도 잇수과?

[제보자1] 으게. 낮이옌 헌 건 우리 고사리 걲으레도 가면 바로 헤나민 낮이지. 사름으로 벤장허여. 도체비가. 헛게로게. 바로 사름으로 홀량.

그디 고사리 걲으레 간 사람ᄀᆞ추룩 헤영 ᄒᆞᆫ디 오렌 헤영. 경 허민 고사리 걲으레 간 사람이 그 도체비를 비치면 그 사람 말을 따라 가지게. 어디 아무디라도 거렁청헌디. 으게. 경 허영 죽어. 도체비 비청 죽어.

[조사자] 그게 낮도체비.

[제보자1] 낮도체비. 낮도체비가 무섭댄 허는 거. 밤도체비는 필롱필롱 불은 헤어도 홀리지는 아니허는 거.

[제보자2] 옛날에 우리어머니 사발 사레 가멍 도체비 나오란 홀리난 바로 내에 내 가운디 가졋댄. 나중에 베련 보난 내 가운디 사젓이난 확 냇돌 부수왕 돌로 닥닥 벌렁 앗앙 뿌리난 그 살아져랜.

[제보자1] 우리 어멍도 경 헤낫인게예. 고사리 걲으레 가난 누게가 그자 앞이 상 여기 고사리 잇젠 오랜 ᄒᆞ난 그 어른 조름에만 꽈짝 가난에. 밤이 고사리 걲으레 강 오랏어. 오지 안 허난. 우리 중문이난에, 친정이 중문이난 회수 성제가 사난 회수레 몬 전화하난 ᄂᆞ려오란. 춪으레 밤이 올라강 헤 봐도 어디랑 강 춪지 못헹 허당 보난. 뒷날 아침은 동네 사름들이영 춪으레 강 보난 저 ᄀᆞᆯ른오름이믄 안덕면 지경 저 우이. 그디까지 할망이 간. 비지근히 붉앙. 할망이 밤새낭 걸언. 그디ᄁᆞ지 가노렌 허난 비지근히 붉아가난에 할망이 정신이 낫인고라. 거렁청이 질 몰라 헤어젼. 경 헤신디 정신 출령 할망이 오랐언게. 경 헹 죽지 안 헹 춪아오라 낫어.

- 핵심어 : 도체비, 사금바치, 불난지 불, 낮도체비, 벤장, 헛게, 사람 홀리기, 냇돌

W_F_011 도깨비 조상과 도깨빗불

2016년 12월 10일, 제주시 이도1동 윤성인씨 댁, 이현정 조사.
윤성인(여, 1930년생, 제주시 이도1동)

[조사자] 도깨비 모셔난 집.

[제보자] 도깨비?

[조사자] 도체비.

[제보자] 아, 옛날에는 저 도깨비가, 도깨빈지 도체빈지, 모신 집에는 뭔 음식을 허면, 문저 그 도깨비부떰 웃봉으로 우리 제사 모시듯이, 모셔 뒁 가야 뒈여.

[조사자] 그러면 뭐 아침 먹거나, 점심 먹거나.

[제보자] 말고, 그게 아니고. 그냥 무신 거 어딧 드르엘 가나, 뭐 헤영 갈 때는 그 우로 문저 헹 멕여 뒁 가야 되는디. 그거 아니 헤 둰.

[조사자] 그 모시는 집에서?

[제보자] 응. 엿날은 조도 다 물로 막 불렷네. 거난, 밧디 가는디, 점심을 출령 가는디, 그 도깨비를 안 주고 그냥, 그냥, 거 밧디 갈 것만 막 헤영 밧디 갓어.

[조사자] 정신이 엇엇구나 그 사럼이.

[제보자] 그렇지. 오랜만이 거 다 출련 가젠 허난게, 밧 불리는 사럼하고 사럼이 많으니까 헨 간디, 밧데 가난 생각이 난. 완 보난, 비차락 도체비는 비차락허고, 얼레빗 그거,

[조사자] 얼레빗.

[제보자] 응 머리 빗는 엿날엔 얼레기 빗이라고 제주도에는 커낫어. 그런 빗허곡, 뭐 헤영 그걸로 뭐 부찐덴 불이, 네영. 거난, 막- 집꺼지 막 불 부찌레 둘아뎅겼이난.

[조사자] 아, 도깨비가.

[제보자] 도깨비가.

[조사자] 무사.

[제보자] 막 ᄉᆞ정헤연이.

[조사자] 잘못헷고렌?

[제보자] 졍 가던, 응, 졍 가던 그거 다 덜언 다 멕이고, 다. 헤 둰, 가난. 그 집이 불 안 난 살앗젠 허더라. 엿날에는 도깨비가 그렇게 아까(웃음) 그 옷 입은 도깨비ᄀᆞ찌 사럼이라. 사럼ᄀᆞ찌 헷덴 허더라. 게난 그, 우리, 좀 큰 때꺼지도, 그런 거 모시

는 집이는, 잘 뒈여, 부자로.

[조사자] 부자.

[제보자] 응, 도깨비 모시는 집이는.

[조사자] 막 잘 뒈?

[제보자] 응, 막 잘 뒈당 어떵허단 좀 거실어지믄.

[조사자] 도깨비랑 거실어지믄?

[제보자] 응, 그 도깨비허고 거시, 거실어지면 삽시에 망헤여. 그냥.

[조사자] 그믄 보통 도깨비 모시는 집덜은 뭐해? 뭐헹 먹고 살아마씨?

[제보자] 농사를 짓든 뭣허든 도깨비두 강, 어디 강 모셔오는 거지. 그 사럼덜토 모셔온 덴, 강 모셔당 노면은 그게 막 부자로 뒈영 잇당. 어떵 헹 거실어지믄 그냥 삽시로 망헤. 도깨비가 그만큼 무서운 거랏저. 엿날에는.

[조사자] 음.

[제보자] 저렇게 영리도 헷고, 아까 거기ᄀᆞ찌, 엿날엔. 견디 지금은, 허단 중간에는 도깨빈가 도체빈가가(웃음) 불로, 우리 어린 때는, 불이 번짝, 번짝, 번짝, 번짝, 번짝 막 놀아뎅겨. 불이. 저 지금 뭣고 그것ᄀᆞᆮ이 경 허는디 불이 크고, 막 불이 덩어리로.

[조사자] 날라뎅겨?

[제보자] 응, 막 왔다갔다 헤낫어. 견디 우리 어린 때만 헤도, 그게 도깨빗불이랏어, 겡 헨디.

[조사자] 근데, 도깨빗불은.

[제보자] 우린 그건 봣거든?

[조사자] 다른 데서는 비 막 오젠 헤민.

[제보자] 그렇지. 비 온 날에나, 척척한 날엔 더.

[조사자] 그런 날에만 보인데.

[제보자] 아, 그런 날도 보곡, 경 안 현 날도. 엿날은 많이 잇엇어. 겐디, 이젠 이게 막 총도 쏘우고, 사럼도 많고, 인구도 많고, 뭐허다 보니깐.

그게 엇어진 거지. 귀신이 엇어진 거지. 지금은, 엿날에는 밤질만 걸어도, 그런 그, 우리 어무니 본, 헛게비가 나왕, 뭣허곡. 막 우는 소리 나곡 막 헌덴.

[조사자] 우는 소리.

[제보자] 그렇지.

- 핵심어 : 도깨비 조상, 도깨빗불, 웃봉, 비차락, 얼레기빗, 불, 비, 척척한 날, 밤질, 우는 소리, 헛게비

W_F_012 도깨비 행세 헷당 원수 뒌 사위

2016년 12월 7일,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마을회관, 송정희 조사.
김춘옥(여, 1939년생, 구좌읍 종달리)

[제보자] 응 우리 종달리 마을 사람인디 도깨비 잇인 집인디 이젠이 그 집이 딸이 삼형젠디 사위가 잇는데, 이 첫 곡식이 나면은 이제이 도체비 구신한테 바쳐야 뒈여, 우리 종달리 본향당 돌 잇어. 게난이 범벅을 헤가지고 대충 수수 조밧 안에 수수를 갈아놧어. 거믄 쳇거당 그걸 장만헤가지고 수수범벅을 헤가지고 그 도체비 구신나시 바찌는 거라이. 겐디 바찌레 가젠 헌디 두 번째 사위가 딱 나타나서 보난 '아 요거 우리 장모님이 도체비 구신헤네 이거 바찌레 값구나.' 헨디, 우장이 우장 입고 헹 비오는 날인데, 딱 앚안 고낭 영 앚아가지고 딱 헹 왓이난 생전 그런 것이 엇는데 그 사름은이 딱 앚안.

"야."

"영 헤네 세곡식 헹 정성헹 앗안 왓우다."

"어 그레 놔두고 가라."

영 헹 불엇어게. 거난이 겁나네 그이 그 범벅 헹 간 사름은 겁나고 그 낭푼채 던져동 그냥 온 거라. 사위가 진짜로 사위가, 겐 이젠이, 장난헌 거. 사위가 그 범벅을 실컨 먹고이 이 경 헤난 쫌 잇이난이 흔 멧 둘을 멧 둘을 걸렷어이. 멧 둘을 걸련 이젠 헷는데. 이제 그 딸이 가보니깐 아, 그 저 가시어멍네 집에 똘네 집을 그 가시어멍이 갓거든. 강 보난 자기네 그 낭푼이 잇는 거라. 이 낭푼 잇이난이.

"아 요놈이 사위가 절대 구신이 나왕 얘길 아니 들어 봣는디 이거 응 사람이 사위가 들엉 그 지랄헷수다."

헤네이, 막 원수뒛어 원수, 원수 뒌 죽엇어. 장모허곡 사위가 원수뒈 불엇어. 사위는 장난끼 잇는 사람이니깐.

"아 우리 장모 헹 값구나 나가 강 복창 먹어줘야지."

복짱 먹어볏주게. 언덕진 데 그 고망 난 돌 잇어. 그 관광 오민 구경 흔 번 헷일 거라. 동굴 아래 도깨비 구신 모시는 디가 잇엇던 모냥이라. 구신 모시는 집에.

- 핵심어 : 종달리, 도깨비, 장모, 사위, 수수범벅, 구신, 구좌읍 종달리

W_F_013 도깨비와 친구

2016년 12월 20일,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마을회관, 송정희 조사.
김춘옥(여, 1939년생, 구좌읍 종달리)

[제보자] 한동 하르방인디 엣날은 학교가 엇어가지고 덕천을 이제 한문 베우레 서당이, 덕천에 잇엇어. 한동 하르방이 덕천을 가는디 억센 하르부지라, 틀도 좋고 막 억세니깐 이젠, 이제 밤이 무섭지도 안 혀그네 막 구신이 쳐 날 땐디, 걸어가노렌 헤네 어떤 구신이 나타나가지고 풀장 딱 끼고 헤네.

"어 너 구신이로구나. 너 도깨비로구나."

영 헹, 도깨비가 꼭 원숭이 닮아렌. 경 허난 이젠 그 사름이 이젠 덕천 간 공부헤여네 이젠 경 허난에 헹원 간 지네 친구덜한티 이렇게 말헷어.

"야 나 도깨비 봣저."

"야, 도깨비 어떵 헤니?"

"어떵 허난 꼭 원숭이 닮더라. 너네 도깨비 볼레? 나 데령 오마."

그 하르방이 이젠 흔 번은 이젠 덕천 간 공불 헤네 올 때 또 도깨비가 나타나렌

"야, 나영 같이 갈 디 잇저."

"가크라. 같이 가크라."

영 헨, 도깨비가 말헨, 이젠 헹원을 둘안 간 베우난

"이것이 바로 도깨비여."

경허난

"아이고야, 원숭이 닮다이 원숭이 닮다이. 원숭이 닮다 원숭이 닮다."

헌디, 그 동네 사름이 막 그냥이 도깨비 구신이 모신 사름이 막 부제가 뒌 거라. 부자가 부자가 막 뒈연. 바다에 베ᄒᆞ곡 허는 사름인디 부자가 뒈엇는디 이젠 그 사름이 이젠 흔 번은 이젠 부자 뒛는디. 그냥 모셧이민 좋을 건디 여자가 무신 그런 구신을 뭐 믿없이니 신랑한테 치우라고 경 헌디 벌써 치원 앗아난이. 그 집이 벌써 도깨비가 강 불 부쪄비언, 그 집이 복삭 망헤 빗덴.

도깨비 구신양 모시민 잘 뒌덴 헹 도깨빌 모셧는디 막 부자가 뒈분 거라. 부자 뒛는데 뭐 그냥 그 친구로 도깨비 모션 막 부자는뒛는데 막 그냥 각시가 각시가 털언

"뭔 놈으 구신이 잇느냐?"

고 경 헷는디 그 부자도 이젠 도망가 불곡 막 기냥이 못 살안 망헤 빗덴. 불을 오꼿 도깨비가 강 불을 부쪄 비연 집을. 잘사는 집을 강.

- 핵심어 : 도깨비, 구좌읍 덕천리, 원숭이, 친구, 각시, 불, 구신

W_F_014 도체빗불 줍젠 허당 물에 빠진 하르방

2016년 11월 9일, 구좌읍 세화리 조흥순씨 댁, 송정희 조사.
조흥순(여, 1924년생, 구좌읍 세화리)

[제보자] 엣날 도체비렌 헌 거,

[제보자] 술 흔 잔 먹어네. 그 우리동네 삼춘이 술 흔 잔 먹어네이. 저 밖에 나오니깐, 아 뭐 돌멩이 닮은 것이, 불이 요만이 헌 것이 벵벵 벵벵벵 돌아뎅기는 거라. 줍젠 허민 또 이젠 멀리 가불곡, 심젠 허민 멀리 가불곡, 이거 뭔고 뭔고 헨, 이제 막 그걸 따라 막 가는 거라. 가단 보나네. 이제 그 소 멕이는 물더레 퐁 빠져분 거라. 게난 하르방도 같이 빠져부나네. 물에 (웃음) 들어간이 허단에양. 나왓주게.

- 핵심어 : 도체빗불, 하르방, 소, 물

W_F_015 도체비와 도독놈

2016년 11월 29일,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마을회관, 송정희 조사.
차두선(여, 1923년생, 구좌읍 종달리)

[제보자] 저, 사둔치, 소금 풀레 종다린 소금헤낫주게. 소금 풀레 간 오다네, 양사둔이이 잇주게. 그 어른허곡 우리 시어멍허곡 소금 풀아오단 베가 쩨여불언 못 오랏어. 겡헹

"옵서. 사둔이랑 나랑 걸엉 가게."

"겅 헙세."

헹, 겅 헹 몽뎅이 짚으곡 건장건장 오단, 오는디 시흥리 ᄒᆞ쏠 강 뭐 허주게. 허난 아멩아멩 가면 거기 ᄒᆞ쏠 도체비 나는 데우다. 도독나곡 겅허난 이젠 도독나는 디 이것이 도독나는 디우다. 허연 푹꺽곡 도독놈이옌 몽뎅이로 사둔을 문 죽여.

"나우다. 나, 나 아니꽈? 나." (웃음)

- 핵심어 : 구좌읍 종달리, 시흥리, 사둔, 소금, 도체비, 도독

W_F_016 도체비와 해월스님

2016년 11월 9일, 구좌읍 세화리 조흥순씨 댁, 송정희 조사.
제보자1: 김순자(여, 1947년생, 구좌읍 세화리)
제보자2: 조흥순(여, 1924년생, 구좌읍 세화리)

[제보자1] 경 허고, 그 옛날 우리 우리 삼춘도, 우리 삼춘도 그 아지망 집이. 우리 삼춘 아지망 두서어멍 아지망.

[제보자2] 응.

[제보자1] 아지망네 집이양 그 이제 그 사둔이 돌아가니깐 그 저 뭘 이제 팥죽을 쒄 간 거라. 가나네이 당신 생각에 막 불이 잇는 거라이. 옛날에 집 가젠 헤도 불도 막 봐지곡 허난 어떵 헹 몸이 으쓱헌 거라양, 우리 어멍이 곧는 게 으쓱허난 아그디 간 죽도 먹고 쒄 가나네 먹어네 그 물허벅 지엉 영 오는디 아이 막 그것이 쫓아완 쫓아완양.

[조사자] 불이?

[제보자1] 응. 불이 쫓아완.

[제보자2] 도체비 잇인 집이게.

[제보자1] 응. 옛날 그 막 도체비 모시는 집이 영 보민 한동?뜬 디, 두망 두망 잇어낫어.

[제보자2] 옛날에 한동.

[조사자] 쫓아왕 어떵 헹마씨?

[제보자1] 쫓아오난, 쫓아와네 헤신디, 집 왕 엇어진 거지. 집이 들어 왕 엇어진 거지. 그 때 막 아판게. 아판 막 굿도 멧 번 허곡, 굿도 흔 삼년에 흔 번썩 일년에 흔 번썩 헷젠 헙디다. 삼춘? 두서어멍.

[제보자2] 경 헷저게.

[제보자1] 경 막 헤네. 그거 이젠 뭣고 굿헨 굿헤네. 그 천지대왕교. 해월스님 허는 거 시흥리에 잇어 그디, 그디 가면은 타불교도 가면은.

[제보자2] 바당 해 제. 그디.

[제보자1] 응. 그디 가면은 저 바다에서 구신 부뜬 사름덜, 또 이런 디서 그런 사름덜 그디 가면은 막 물로 헹 뿌리멍, 막 때리멍 저 헤그네 막 다 울려. 물에 무신 물에 부뜬 사름은 나 타불교 믿지 안 혀도 다녀낫주게.

[조사자] 타불교?

[제보자1] 응.

[제보자2] 타불교가 아니고 천지대양교.

[조사자] 천지대양교?

[제보자1] 응, 천지.

[제보자2] 천지대양교 시흥리.

[제보자1] 천지대양교렌 허그네 종달이도 노란집도 잇고 다 잇어. 그런 집도.

[제보자2] 옷도 오른쪽으로 둘앙 입곡. 이 짓도 바꽌.

[제보자1] 짓도 저고리도 우리는 한따이헤여. 한따이로 일본말로 한따이로. 우린 이렇게 짓 ᄃᆞ는디 그 사름덜은 오른쪽으로.

[제보자2] 오른쪽은 영.

[제보자1] 그디 가네. 때왓덴 말은 잇어.

[제보자2] 그 할망 그디 정 헹 살고 헌데이.

[조사자] 타불교는 뭐꽈?

[제보자1] 타불교는 타불교나네. 그것도 다 잇주. 그 이제 저 뭣고.

[제보자2] 해월스님 도술 좋아.

[제보자1] 종달도 그 타불교 잇어낫는데.

[조사자] 게난 잠깐만 그 천지대양교에 해월스님이.

[제보자1] 응.

[조사자] 도술이 좋아마씸? 도술이?

[제보자1] 바다 해 자 해월스님이렌 헌 건.

[조사자] 바다 해 자 해월스님?

[제보자1] 응. 바다 해 자 해월스님이렌 헌 그디 신이 잇어. 신이.

[조사자] 아, 신이.

[제보자2] 겅 허니깐 막 추운 날도 눈이 팡팡 오라도 그 언 물에 목욕허고 그 거세기.

[제보자1] 겅 헹 거기 가네이. ᄀᆞ찌 닮아. 거기서 고쳐네 이제 자식들 그 족은메누리는 쫌 다녀나고 막 그것이.

[제보자2] 음식도 막 굴령 먹단이 나이드난 아무거나 먹어 낫저.

[제보자1] 에, 에 겅 허난이, 자꾸 아파네 헷젠 허멍, 나가이 “어떵 헹 우리삼춘은 거기 다녔우과?” 영 허난, 우리 시어머니보고 말허니깐, 그때 경허네 구신 부떠완.

- 핵심어 : 도체비, 불, 천지대양교, 해월스님, 팥죽

W_F_017 도체빗불

2016년 11월 24일, 구좌읍 종달리 송미영씨 댁, 송정희 조사.
고순안(여, 1947년생, 구좌읍 하도리)

[제보자] 도체빗불은 상도 상도 안모살동네가 이제.

[조사자] 안보살?

[제보자] 안모살동네. 상도.

[조사자] 안모살.

[제보자] 모살 동네게. 그이 멘수동 강 그 그디. 그디 그 옛날 그 ᄉᆞ삼사건 후에 우리가 가서 사름 영 곧는 거 보면은 제사 먹으레 갈 때도 불 펜직허민 그디 넘어가젠 허민 돌을 헤서 딱딱헹 때리거든, 돌을 딱딱허민 그 도체빗불이 도망가 분덴 헤여. 도망가 분덴 허곡 막 구신 막 영 허민 쒜돈 내여. 옛날에 십원짜리 쒜돈 던져, 던져 동 이제 강 제사 엣날엔 밤중에 열두시 넘엉 제 파지 파지 뒈사 끝나거든. 이것 저것 생각 안 형 열두시 제파지 끝나그네. 집이 들어오젠 허민 한시가 뒈어, 한시가 뒈가면은 그 밤중이니깐 도체비 나타낫다 헤서 그디서 영 던져 동 둣날은 가보니깐 그것이 없더레. 그 돈이. 엇어졋어. 허니깐 그 모살동네난 파서 들어갓인지, 그 구신이 던질 때에 그걸 받앙 간 건지 우리는 몰라. 겡 그런 역사가 잇덴 헤여.

- 핵심어 : 상도리, 안모살동네, 도체빗불, 돌, 쒜돈, 멘수동

W_F_018 뒈지고기와 도체비

2016년 12월 14일, 표선면 가시리 안인순씨 댁, 송정희 조사.
제보자1: 안인순(여, 1935년생, 표선면 가시리)
제보자2: 정덕재(남, 표선면 가시리)

[제보자1] 가단 보난 도체비에 홀려네 혼이 나가부난 우리가 잇단 보난, 우리 저 가시리 왕 살아난 하르방이주만은 픗게 하르방, 밤이 뒈지. 게난이 밤이 뒈지고기 셍거 들렁 다니지 말렌 허주게. 그거 아젼에 똘신디 그 저 게구각시 송게구각시 그 사름신디가 그 똘이난 아젼 가다네.

[제보자2] 뒈지고기.

[제보자1] 셍거, 이 저 이딜 가야 뒐 건디 영아릴 간 거라. 고기 아젼. 간 막 똘을 쫓아가네. 똘신디레
"마, 이 뒈지고기 아젼 오고렌."
헨. 겅 골아동 보난에 똘도 엇고 영아리에 가낫젠 그때 ᄉᆞ믓 그런 건.

[조사자] 다시 잘 골아봅서. 뭐마씨? 어떵마씨? 게난 하르방이 셍뒈지고기를 들렁 똘레 집에 가는데 원레 이쪽으로 갈 건디 영아리 쪽으로 반대로 간 거라마씨?

[제보자2] 영아리는 반대, 한라산 쪽인데.

[조사자] 그 도체비가 똘같이 생긴 거마씨?

[제보자1] 응. 똘로 안 거주게.

[조사자] 게난 그 똘한테 야, 나 뒈지고기 아젼 왓덴 허난

[제보자1] 엇어져 불언. 엇어져 비언 하르방은 영아리.

[제보자2] 영아리 여기서 여기서 흔 칠킬로 가야 하는데.

[조사자] 칠킬로면 막 먼데 아니꽈?

[제보자2] 막 멀지. 한참 가야지. 한참. 칠킬로.

[제보자1] 요즘 곹으민 걸엉 상상도 못허지. (중략) 그 하르방 그루후제 오래 살지 못헹 죽구, 똘도 죽구. 똘도 젊을 때 그냥.

[조사자] 무사마씨?

[제보자1] 아프난 죽엇주게. 엣날에덜은 이 헛게, 헛게영도 허죽. 도체비영도 하곡. 헛게 만나나민 삼 년이나 살지 못헌덴 허죽. 죽어, 벵 들엉. 홀려그네 혼이 나가불어, 게난 누게 도체비나 헛게 봣저 허민
"아이고 그 사람 오래 못살켜."

- 핵심어 : 표선면 가시리, 도체비, 뒈지고기, 픗게, 영아리, 하르방

W_F_019 따라비오름 상여소리

2016년 12월 7일, 남원읍 태흥2리 태흥마을회관, 김선희 조사.
오명옥(남, 1934년생, 남원읍 태흥3리)

[조사자] 도체빗불은 안 들어봣수과?

[제보자] 도체빗불도 들어봣지.

[조사자] 사연을 골아줍서.

[제보자] 도체빗불이라는 게 나는 본 일이 없는데 옛날 어른들 곧는 거 들어보면은 천리하러 밤에쯤 저 어디 올라가 있으면은, 따라비오름이라고 잇어. 이 방향에 잇어. 따라비오름 뒤우로 영장 메가는 소리가 난다, 그렇게 그런 얘기 들어 봣고.

[조사자] 영장 매가는 소리 나가면 도체빗불이 보이는 거마씸?

[제보자] 그게 헛게라는 거지. 옛날 영장 매는 소리가 들린다고 헤낫고. 그런 소리 들린다고 해낫는데 나는 못 보고. 나는 우리 4·3사건 때 도체빗불이라고 해서 팔롱팔롱 가는 거 보면은 '저 도체비 낫저.' 했는데 나 눈에 보면은 불란지라.

[조사자] 건 뭐꽈?

[제보자] 불란지. 두메기 닮은 거. 나방 닮은 거. 나가 보건데 그건 불란지인데, 딴 사람들 보기에는 도체빗불이렌 헤여.

- 핵심어 : 도체빗불, 천리, 따라비오름, 영장 메가는 소리, 헛게, 팔롱팔롱, 불란지

W_F_020 멜 들엇덴 갈아주는 도체비

2016년 11월 24일, 구좌읍 행원리 행원리노인회관, 송정희 조사.
홍성하(남, 1932년생, 구좌읍 행원리)

[제보자] 엣날에 지금 행원리 그때 이조합에 박홍건이렌 헌 하르방이 살앗수다게. 그때 그 하르방이 살앗는데 그 하르방이 바당에도 부지런허곡, 육지에도 부지런허곡, 농사도 많이 지고 허는 하르방인디 이 바당에 더멩못이렌 헌 딜 강 갤 만들엇수다. 개. 개는 이제 그 울타리를 바당에 훈쪽부터 싸서 멜 걸은 거 들면은 이제 족바지로 걸이는 개 개 개 들엇는디 그 집안에 도체비란 걸 모셔난 모양입니다. 도체비.

겅 헷어 이제 그 도체비가 이제 이제 부엌에 밥을 허레 갈 때에도 탁 솟전에 ᄀᆞ만히 앚안 잇는 눈쎔이주 눈쎔에 딱 앚아 잇는 셈 뒈곡. 또 때가 뒈면은 이제 게 멜 들엇덴 허민 또 그 꿈에라도 도체비가 나서 멜 걸리레 가라고 일러주곡. 이렇게 헤서 그 상당히 많이 모셔서 죽 헤영 승승장구헤 헷입주게.

그러다가 뭐 이젠 그 이제는 그때가 뒌 왜냐면 그니깐 이제 사람 사람이 이제는 시대가 개명허곡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시대에 따라 가니깐 것도 자연히 엇어져 불곡. 그렇게 해서 이제 펜안히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 후손덜은 결국은 이제 다 육지로 가불곡. 이제 막 쫌 어려운 셍활을 지내고 잇수다. 지금 헌재. 헌재 헌재 그렇게 해서.

[조사자] 그 아까 게가 뭐꽈? 개.

[제보자] 돌담으로 둘러쌍. 돌담으로 둘러싸그네. 돌담을 쌀 거 아녀요. 돌담을 싸게 뒈민 물이 들게 뒈민 그 우이로 물이 물이 들어오거든요.

[조사자] 물이 나가면은.

[제보자] 나가면은.

[조사자] 멜은 못 나가고.

[제보자] 멜은 못 나가곡 그걸 그렇게.

[조사자] 그걸 돌담을 싼 거. 그걸 개라고. 그 분은 아까 그 분은 도체비 모신 분은 어떵허당 도체비 모신 거마씸?

[제보자]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미사마 모시듯이 일본사람 가미사마 모시듯이 이렇게.

[조사자] 집에서만?

[제보자] 어.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그렇게 모시 모시는 거주.

- 핵심어 : 구좌읍 행원리, 도체비, 멜, 돌담, 바다, 개

W_F_021 물 흔번 질레 가느니 아기를 나비켜

2016년 10월 2일, 한경면 용수리 홍재운씨 댁, 김선희 조사.
홍재운(남, 1930년생, 한경면 용수리)

[조사자] 용수에 힘이 센 큰 할망 얘기들은 엇수과?

[제보자] 아니 이디 저, 홍여옥 할망이 덩치도 크고….

[조사자] 아, 예.

[제보자] 그 할망이 잇어난디.

[조사자] 홍 누구마씸?

[제보자] 홍여옥이라고. 흔 할망이 덩치도 크고 한디. 그 할망은 여기는 물 한번 질어가낫 주게. 물 한번 질어갈 거민 아기 하나 나빌켄 헤난 할망 셔낫지게.

[조사자] 그 할머니 얘기 해줍서.

[제보자] 그 할망은 근본이 아무것도 읏어. 근본이.

[조사자] 근본이 엇어마씸?

[제보자] 아무것도 읏어.

[조사자] 경 해도 알아지는 거까지 굴아줍서.

[제보자] 아니, 힘이 쎈 할망이니까. 저 물 흔번 질레 가느니 아기를 나빌켄 헤낫지게. 우시게로.

[조사자] 이 할망은 이 동네 사람이라낫수과?

[제보자] 으. 이 동네.

- 핵심어 : 할망, 힘쎈 할망, 홍여옥 할망, 물 질기, 아기 낳기

W_F_022 바당에서 죽은 신산리 아홉 동서

2016년 10월 22일, 성산읍 신산리 김옥종씨 댁, 이현정 조사.
김옥종(남, 1924년생, 성산읍 신산리)

[제보자] 옛날에 덕판이옌 ᄒᆞᆫ 베가 잇어낫어.
[조사자] 덕판?
[제보자] 응.
[조사자] 예.
[제보자] 그, 느네덜은 잘 모를 거다. 나도 몰르는디, 덕판이옌 헌 베가 잇는디. 그 덕판이옌 헌 건, 그, 베 이름을 그, 덕판으로 이름을 지운 거지. 그, 앞, 그래서 베가 막 넓은 모냥이라 넓이가. 거니까 아홉 동서 탕, 바다이 고기 낚으레 가고는 헷는디. 아홉 동서가 것도 신산리 사럼덜인디 다 죽어불언.
[조사자] 어디가? 바다에서?
[제보자] 바다에서, 이 앞이서. 그 멀리도 아, 그, 거시기 함덕, 덕판이옌 헌 게 멀리도 안 나가는디. 그, 폭풍 만낭, 아홉 동서가 죽언. 그 (기침) 제ᄉᆞ 때에 나가민 ᄋᆞ디 ᄋᆞ, 거시기, 선창ᄀᆞ. 선창ᄀᆞ에를 (불청), 열 두시가 넘어가민 막, 그 아홉 동서 구신이 다 바당드레 나가젠 막 거시기 헌다고, 응? 경계를 옛날 어른덜이 경 ᄀᆞᆯ으긴 헌디. ᄋᆞ 뭐, 우리가 어린 띠 ᄒᆞᆫ 일이나난. 먼 옛날 일도 아니주.
[조사자] 그지예? 한 몃 십년, 한.
[제보자] 뭣, 이, 열두 시 넘어가면 막, 물 싸불믄은 못 나간덴 허믄, 막 와당와당 나갊젠 헌덴. 그런 말은 들어낫어.
[조사자] 와당와당 나갊젠 헌덴? 아, 아홉 동서가?
[제보자] 게난, 물을 든 때 나가야지 물 싸면 못 나가니까. 그렇게 말을 멘덜아 논 거지.
[조사자] 죽으러 갊젠, 죽으러 갊젠.
[제보자] 죽으레 가는 게 아이고, 죽을 구신이 올라왕 저ᄉᆞ 먹엉 나간다 얘기지, 바당더레.
[조사자] 죽은 귀신이 올라왕, 저ᄉᆞ 먹으레 나간다고.
[제보자] 응. 제ᄉᆞ 먹엉 나가는 거지.
[조사자] 아, 나가는 거.
[제보자] 어, 그런 말은 잇어. 겐디 건, 것도 뭐, 우리, 에, 출생 후에 헤여난 일이주, 뭐. 아주 옛날 말도 아이주 건.

- 핵심어 : 성산읍 신산리, 아홉 동서, 덕판, 폭풍, 바당

W_F_023 버버리 할망과 봉사 하르방

2016년 12월 20일,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마을회관, 송정희 조사.
김보배(여, 1939년생, 구좌읍 종달리)

[제보자] 옛날에 이제 봉사허곡 버버리 허곡 두 내우간 헹 산 거라. 이, 게난 이제 살다가 보니깐 동네 불이 난 거라. 불이 나난 이젠, 할망 이제 하르방은 이제 몰레기고, 할망은 버버리라. 버버리니깐 이제 할망이 동네 불낫다 허난 할망 이젠 하르방 이젠 그 불차지 강 폭을 폭 심으니깐

"아 불낫구나."

또 이제 ᄒᆞ쏠 잇이난, 이제 또 그 하르방 ᄀᆞ슴 강 할망이 폭 심으난

"ᄉᆞ데만 남앗구나." (웃음)

겅 헹 할망 하르방이 뭐 헷단다.

- 핵심어 : 봉사, 버버리, 할망, 하르방, 불

W_F_024 벡발노인 따라 저승 갓당 온 사름

2016년 12월 14일, 표선면 성읍1리 송순원씨 댁, 송정희 조사.
송순원(남, 1937년생, 표선면 성읍1리)

[제보자] 나가 하나 경험이 잇는디, 나가 오십년도 초에 군대를 갓는데 군대간 때 우리 제주도가 삼천육벡 명이 한꺼번에 군대를 갓는데 군대 강 교육 받앗네 부대베치를 받은 후에 그때는 자기가 밥 먹어난 건 자기가 물또랑에 강 시쳐와, 식기를. 시쳐오는데 여름 음력 음력 칠월달에 점심을 먹언 앚안 싯는디 이쪽엔 한림아이가 앚안 싯곡 난 이쪽에 앚안 식기를 영 싯는데, 물 깊이가 요정도벢이 안 뒈여. 물또랑이 크질 안혀 졸졸 흐르는 물인데, 아 이놈이 갑자기 물더레 툭허게 빠져. 툭허게 빠지니깐 난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앗지. 장난인 줄 알안 난 ᄀᆞ만히 앚안 ᄒᆞᆫ 멧 초 멧 분 기다려도 안 일어나난 영 확허게 옷 심엉 뗑기멍

"이런 세끼 장난 장난허나?"

허멍 확ᄒᆞ게 뗑경 보니깐 이놈이 벌써 죽어불엇어. 겡 위무대 연락을 허니깐 위생병들이 와가지고 이놈이 벌써 죽엇덴 허는 거라. 아 게난 우린 제주 사름이난에 아 차 한잔 하세요. 아, 그래 죽어불언 죽엇다고 허니깐 게민 어떻게 헐 거엔 허니깐 이건 제주 사람이니깐 제주 사름이 지켜라고. 막사를 쳐 놔가지고 이레 신체를 놓고 아 우리보고 지켜라고 하더라고 제주 사름이니깐 제주 사름덜이 지켜라고. 지켜는디 집에 연락을 허면은 부모네가 가야 이걸 시체를 ᄉᆞᆯ아ᄃᆞ렌 허민 ᄉᆞᆯ아주곡 시체를 안 ᄉᆞᆯ안 그냥 가졍 가켄 허민 보내줘어 집으로.

보내줄 땐디 사흘이 넘언 나흘 뒈도 안 간단말여 부모네가. 안 간 헤가니깐 이 사름이 젤 몬저 뭣이 빠지냐면 머리가 빠지더라고이 머리. 머리가 펜칙 빠젼. 오일이 뒈가니깐 손톱 발톱이 다 빠젼.

[조사자] 그거 봐집니까? 뭐라도 덮어 놔야.

[제보자] 아니 군복 입은양 그냥.

[조사자] 그 밖에마씨?

[제보자] 아니 그 천막 소굽에 놧주게. 천막 소굽에 놩 우리는 지키는 거라 영.

[조사자] 부모가 올 때까지?

[제보자] 응.

[조사자] 그거 살아그네. 화장헹 보내달렌 안 헤부난 시체.

[제보자] 아 그건 부모네가 와그네 확인헤사. 확인헤야만 헤주주. 게난 부모네가 확인헐 디만 올 디만 기다령 지켜는디 딱 칠일자 같으더라고 칠일만에, 칠일만에 가니깐 거의 이 뭐허는데 여기는 거뜩 안혀. 내복이 복장 잇는 디는이 거니깐 칠일만에 갓는디 어멍이 갓는디 아방은 돌아가시고 어멍 혼자만 사는디 어멍이 내중에 곧는 거 보니깐 자기 혼자만 길도 모르곡 우린 그때 저 경기도 전곡에 잇는 동네 질도 모르곡 어떵 갈 줄도 모르곡 돈도 엇곡 농촌이니깐

[조사자] 어머니가 혼자 경기도에 와야 뒈는 상황이구나.

[제보자] 돈 구헐려 질 안내자를 빌젠 허니깐, 자기 혼자만은 못 가니깐.

[조사자] 누구 데령 가야 하고.

[제보자] 그 사춘오빠 동셍 그 오빠 자식을 빌엉 가젠 허난, 그 사름 시간 맞추저. 이렇게 허다 보니깐 일주일이 걸령 딱 갓는데 간 허는게 가니깐 어멍이 자기 군복 입은 양 누웡 자기 자식 죽은 거 얼굴을 보면서 막 한탄을 허더라고. 막 손으로 강 막 땅을 치면서

"이놈아 이놈아."

허면서 막 울어. 기냥 울어가니깐 한 십분쯤 뒈니깐 이놈이 코에서 버끔이 가끔씩 훈 번씩 나오더라고이. 멧 초에 훈 번씩 버끔이 코에서 게니깐.

[조사자] 머리 다 빠지고 손톱 다 빠졋는데.

[제보자] 응. 하 이상하다 헤그네, 아 이제 위무대에 연락을 헤가지고 사실 이런 일이 잇다고 연락을 허니깐 위생벵이 이렇게 왕 봐그네.

"아 이거 군위관을 불러봐사쿠다."

이젠 군위관을 불르니깐 이젠 군위관이 영 봐네.

"아 이놈 죽지 안 혀, 살앗다."

는 거라. 게난 일주일이 여름철에 일주일 뒈니깐 다른 사름 곹으민 다 썩을 거 주게. 솔직히 말헹. 겅 헐 건디 아 이젠 이젠

"아 이거 육군벵원으로 호송시킨다."

겡 후송시켜네. 석 둘만에 이놈이 우리 부대에 또 돌아왓더라고. 완 곧는 거 보니깐

[조사자] 살안마씨?

[제보자] 응. 살안. 겡 헹 그때 오는 거 보니깐 머리도 숫자가 절반도 안 뒈고 손톱 난 거 허나 발톱 난 거 허나 전부 벵신이라. 따시 나긴 낫는데 겡 허는 거 보니깐 그때에 앚안 그릇을 영 씻노렌 허니깐 벡발노인이 백말을 탕 오다네. 자기한티 오니깐

"가게."

허멍 확 심엉 뗑기렌 허는 거라. 게난 자기가 말더레 씨러지고렌 헹 가는데 이 벡발노인이 자기 이 허리에 명주 명주를 꺼내서 칭칭 감아렌. 칭칭 감안 저 끗데 뗑기면서 허는 말이

"나가 뗑기는 양만 오라."

헨, 쫓앙 가는데 가다가 보니깐 큰 강을 만났는데 강을 만났는데 강은 그냥 베가 엇이민 지나가질 못허잖아. 경 헌디 거기는 이 사름 이렇게 넘어가는 돌멩이가 잇더란 거라. 쫌 물보다 높은 돌멩이가. 겐디

[조사자] 징검다리?

[제보자] 응. 그런 식으로 뒌 건디 갈 때는 이 사름이 톡허게 흔 번 뗑기민 요레 튀곡 또 흔 번 뗑기민 요레 튀곡 허멍 이 강을 건너가는데 가네 염녀데왕에 들어갓덴 허는 거라. 염녀데왕을 딱허게 들어가니깐.

[조사자] 땅? 염녀데왕이 있는 땅?

[제보자] 응. 염녀데왕에 들어가니깐 들어강 보니깐 그 서류 가진 놈이 앚안 졸앐어렌, 잠 잢어렌, 잠 자는디 이 데령 간 사름이

"아 누굴 데려왓습네다."

허니깐, 이놈이 확허게 일어낭 문서 영 걷어보더니

"아 이놈 아니라. 당신 잘못 잡아왓다. 돌려불라."

돌려불렌 허난에 그 놈이 따시 그 강을 건너줫으면은 자기가 못 살아날 건디 그 염녀데왕 문 베낏딜 나오니깐 강 건너기 전인 딱허게 허는 말이

"너 이젠 가고 싶으건 가곡, 실프건 말라."

헨, 그 놈은 딱 돌아가 버려렌, 돌아가 비난.

[조사자] 벡발노인이 돌아가.

[제보자] 응. 자기 데령 갓던 사름은 그 강을 건너주지 안 현 돌아가 버련. 돌아가 버리니깐 자기 혼자만 고민 고민허다가 욜로 튀면 갈 때 헤난 걸로 오는디 반쯤 오는디 탁 튀멍 허는 게 여길 가질 못허니깐 물에 털어졋다는 거라. 자기가이, 물에 탁허게 떨어질 때 깨나져렌 허는 거라. 겐 이거 보렌 허멍 확허게 옷 걷은 거 보니깐 이디 그 명주로 감아난 거 그믓이 건 죽을 때ᄁᆞ지 안 벗어진덴. 딱 그믓이 잇어. 겐 그런 걸로 보면은 몰라.

- 핵심어 : 군대, 6·25, 벡발노인, 백마, 염녀데왕, 명주, 저승

W_F_025 복 엇인 푸나무 장사꾼

2016년 12월 20일,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마을회관, 송정희 조사.
김보배(여, 1939년생, 구좌읍 종달리)

[제보자] 엣날에 푸나무 장사가 산 거라. 푸나무 장사가 허는디, 그날그날 푸나무 ᄒᆞᆫ 묵썩 헤다가 셍활을 헤다가 그 푸나무가 비가 오면은 이제 푸나무 허레 못 가니깐 이제 굶을 판이라. 이제 밥을 안 먹고 살 거 아니 게난 이제 요 사름이 안 뒈겟다. 비와 부난 날 좋을 때 푸나무 두 단 헤다가 ᄒᆞᆫ 단은 날 좋을 때 먹고 ᄒᆞᆫ 단은 비 오면은 풀아서 생활을 허자 헤가지고, 푸나무를 두 묵썩 헤 온 거라. 헤가지고 ᄒᆞᆫ 이삼일 ᄒᆞᆫ 다섯 단인가 멧 단인가 포겐 논 거라. 포게 놘 아, 둣날은 강 보난 푸나무 다섯 단이 엇어져분 거라.

아이고 이제 푸나무 누게 가져가 볏다고 이제 그 사름이 이제 또 푸나무를 헤다 놧다, 그 자리에 헤다 놘. 이제 오늘은 내가 여 여기 눵 누게가 가졍 가는고 이제 사름을 심을라고 그 푸나무 소굽에 눈 거라. 누워네 이젠 잠을 자는디 밤중엔 뒈나네 이젠 하늘에서 그 쉐가 쉐갈고리가 내려온 거라. 내려와가 그 푸나무를 오꼿 긁어서 하늘 우에 올라가분 거라. 게난 그 사름도 같이 올라 간 거라. 하늘에 간 게난

"너는 어떵 헹 왓느냐?"

헤난에, 그 하늘에 간 말 문답허는 사름이

"너는 어떵 헤서 여기 왓느냐?"

"나는 그날 그날 푸나무 ᄒᆞᆫ 묵썩을 비어다가 생활을 허다가 비 온 날엔 밥을 못 먹게 뒈난 두 묵썩 헤다놔네. ᄒᆞᆫ 번은 도독을 맞아가 이거 헤다놘 지키는 게 이제 이 여기ᄁᆞ지 왓수다."

"너는 푸나무 아무 복도 엇덴, 푸나무 ᄒᆞᆫ 단 복도 엇다."

허는 거라. 그 사름ᄀᆞ라. 경 헌디

"너가 웨 욕심을 내서 두 단을 헷느냐? 복이 아무 것도 엇다."

허는 거라. 그 사름ᄀᆞ라. 경허난 이제 그 말 문답허는 사름이

"ᄒᆞᆫ 번 그 복 주는 방에 강 보라, 너가 복을 탄 낫이냐 안 탄 낫이냐 강 보라."

허난, 강 보난 복이 아무 것도 엇어, 지에 엇인디 말젯 보난 저런디 복이 ᄒᆞ나 ᄃᆞᆯ아졋이난

"저 복은 어떵 헌 복이냐?"

허난에 이제 저, 저거 거지 복이옌 거지 복이난

“나도 거지난 저 복을 날 줍서.”

그 사람이 경허난

“넌 거지라도 너 복이 아니여.”

경 헨 이젠 그 사름이 복을 주렌 허난 복을 주난 걸 가지고 온 거라.

“아, 이 복을 가졍 강 이제 살다가 누게가 집이 들어왕 거지렌만 허거들랑 그 복을 그 사름을 줘 불라.”

헌 거라. 게 이제 그 복을 가졍 왕 산 거라. 그날 그날 살다가 보니깐 하루는 이제 달이 훤헌 날인디 이제 두부처 두갓이가 각시는 아기 베고 서방을 그자 이젠 둘이가 온 거라. 완 넘어가다가 여기 ᄒᆞ쏠 쉬엉을 멎언 가켄 허는 거라. 쉬언 멎언 가켄 허난

“아이고 요 정제라도 주연을 멎어주민 좋겐.”

하난, 이제 정제를 주연을 멎이난 밤중은 뒈난 막 애기 우는 소리가 나는 거라. 그 부엌에서 경 허난 이제 애길 낫어. 둘이가 그 부엌에서 애길 나네 허난에, 각시가 서방ᄀᆞ라 곧는 말이 이제

“아기 이름은 뭘로 짓느냐?”

고, 영 허난에

“오널은 날도 좋고 달도 청명허니깐 거지로 지우켜.”

이제 서방ᄀᆞ라 경 골으난, 아 이젠 거지렌 이름을 지우난 그 주연을 그 복을 탄 완 살던 사름이 거지렌 허난

“이제라그네 안방으로 들어오라, 안방으로 들어오라.”

“무사 안방으로 들어오렌 핸이냐?”

헨, 아니 경 허든 말든 무조건 안방을 들어간 안방을 ᄎᆞ질 헹 살렌, 경 헹 그 사실대로 들은 골으니깐 그 사름이

“우리 경 헐 필요가 없이 우리 요 제산을 꼭같이 우리 반썩 나눠그네 같이 살켜.”

경 헹 잘 살앗젠 엣날에. (웃음)

- 핵심어 : 푸나무, 하늘, 복 주는 방, 두갓이, 아기, 이름, 거지

W_F_026 불미귀신 도체비

2016년 10월 23일, 안덕면 사계리 김여옥씨 댁, 문경미 조사.
김여옥(남, 1918년생, 안덕면 사계리)

[조사자] 불미공예 하잖아예. 그것 때문에 영 뒤에 뭐 모시는 하르방 신이 있다 하는데, 들어봣수과?

[제보자] 귀신? 귀신은 덕수는 집 마당에 있다고 하는 거라.

[조사자] 그거 알아마씨? 그거 뭔 말이꽈?

[제보자] 그거 불미귀신. 불미는 솟불미. 솟 멘드는 거. 또 바깟데 보섭불미. 코쟁이난 거 갈아 가는 거. 또 흑을 눕지는 배. 그런 것들을 덕수벢에는 멘드는 디가 없거든 제주도에서. 덕수 거 멘들아 헌디. 우리 권당도 덕수 사는디. 우리 권당네 집에도 그 귀신을 위한다 허여. 귀신은 사람 눈으로 보진 못하는 거난게.

[조사자] 게난마씸.

[제보자] 경허난 그자, 밀고 뎅기고 올려그네. 베에 헐 때는 영 허곡. 아무 때나 허진 안 허는 걸 거고.

[조사자] 거 무슨 귀신이렌 헤마씨?

[제보자] 거 불미귀신이엔 허는 거주게. 도체비.

[조사자] 도체비랜 허는 거 들어봣지예? 뒷하르방이라고는.

[제보자] 뒷하르방. 그게 그거주게. 송칩이. 덕순 송가가 많은. 진도 벽파진이랜.

[조사자] 무신 거마씸?

[제보자] 벨파진. 진도 벨파진이랜 헌 지명 이름일 거라. 별이 귀신이 송칩에 왕 위한다는 말만 들었지 뭐.

[조사자] 김씨는마씨.

[제보자] 김칩인 불미귀신들 헨. 불미 허젠 허민 정성헤그네. 그디 밥도 헤 놓고 떡도 헤 놩 그저 올려놩 케우려둬그네. 정성 올리는 거.

- 핵심어 : 불미귀신, 뒷하르방, 덕수리, 도체비, 불미, 진도 벨파진, 송칩, 김칩

W_F_027 비 오면 나타나는 기신세

2016년 10월 18일, 구좌읍 하도리 김군자씨 댁, 송정희 조사.
김군자(여, 1940년생, 구좌읍 하도리)

[제보자]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이렇게 저, 비는 쪼금 보술보술 올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깐 큰, 저 구신인데 '기신세 기신세' 헤여. 경 헌 사름이 기냥 막, 거멀가치 사 가지고, 그냥 영 풀 벌견 산 딜로 무신, 지나갈 때 그 밑으로 그, 이 알로 지나 가면은 죽넨 헌 말은 들어낫지.

경 헤사 죽은 사름은 엇고게. 거기 나온덴 허는 말을 들어낫어. 그런 말만 들엇주.

[조사자] 거기가 어디마씨?

[제보자] 거긴 이 동네 어딘디. 학실한 장소는 몰라.

- 핵심어 : 구좌읍 하도리, 비, 구신, 기신세

W_F_028 사름 놀 피 내오민 엇어지는 도체비

2016년 10월 6일, 제주시 봉개동 동회천마을회관, 김선희 조사.
신준희(여, 1930년생, 제주시 봉개동)

[조사자] 할머니 여기 도체비는 안 나낫수과?

[제보자] 도체빗불? 그런 말은 나….

[조사자] 도체빗불은 안 봐낫수과.

[제보자] 도체빗불은 봐나긴 헤연.

[조사자] 아이고, 도체빗불도 봐낫수과?

[제보자] 응. 나이, 그 역적수울 물 질레 아침 세벡이 저, 침침한 날인디 ᄀᆞ슬 땐디 침침한 날엔디. ᄀᆞ슬 때가 아니고 봄이로구나.

[조사자] 예.

[제보자] 물 질레 나가는디, 밤이 ᄒᆞᆫ 네시건 뒈믄 아니 ᄒᆞᆫ 세시만 뒈믄 그디 물을 강 두어 번 강, 멀어노난에 두어번 강 질어동 강 밥을 허주게. 애기 ᄃᆞᆯ아놓고 밥허젠 헤가믄 막 바빠, 바쁘난. 물을 질레 아침 세벡이 나아정 물을 질레 가단 보난, 전 웬당 알아지카? 웬당

[조사자] 예? 원당봉마씸?

[제보자] 신춘 ᄌᆞ끗디.

[조사자] 예, 알아집니다.

[제보자] 그 웬당 넘은 딜로 무신 이만이 헌 초롱불, 초롱이 이만헌 게 벌랑벌랑 와가난, 아, 저건 요기 동섹이 할아버지 밧 시난에 밧디 무신 지들커 덖을 거 시난에 비 왐직허난에 덖으레 ᄂᆞ인가. 어우에 나가 요만이 간디 그냥 어염들에 바싹 기냥 파랑한 게 이만이 헌 게 벌랑벌랑 허난. 아따 나 모르겠다 그냥, ᄏᆞᆸ으로 니를 그냥 꽉 찔르난 피가 쫙 난 거라.

[조사자] 예, 예.

[제보자] 게난 그 피가 나오난 엇어져 불언.

[조사자] 겅 헤야 하는 거꽈? 도체빗불을 보면 영 피 내와야 뒈어?

[제보자] 피 내와야주게. 도체비는 사름 놀 피 나와 불민 엇어진댄.

[조사자] 아, 놀 피 나오민 엇어진댄 마씸?

[제보자] 응. 엿날 그런말 잇어낫어.

[조사자] 겅 헹 일부러 피 내왓수과?

[제보자] 응, 닛굽으로 딱 깨물앙 피가 나오니까 도체비 어느새라 간질 알앙 어디사 가빈지 몰라.

[조사자] 아아.

[제보자] 탁 앞이까지 둘앙 오당. 근디 그때도 경 ᄆᆞᄉᆞ와 베지도 안 헤고. 도체비다 허멍도. 아이고 딱 ᄒᆞ게시리 니빨을 딱 그치난 그자 피가 픽허게 난. 거자 엇어져 불언. 게난 아이고 도체비구나. 집이 오란 아장 그 말 ᄀᆞᆯ아낫주게. 아이고 도체비 영 헹 피 내오난 엇어졋저게 ᄀᆞᆯ아낮주게. 나 잇당도 ᄀᆞᆯ아저. 어디 놀래 가난도. 나 경 헌 거는 봐나서. 파랑헌 게, 등알등알.

[조사자] 파랑한 불예?

[제보자] 그 진드르 벵디레 이 새미가랑더레여 영 소낭밧 그디 신디. 영영 와 가난 아, 동섹이 하르방이렌 헌 건 이디 살아난 하르방 그디 밧 시난에 그거 덖으레 왓구나. 초담은 겅 생각을 헷인디. 어우에 그냥 그디 보딘디 와가. 아, 저거 도체비다 헤연.

- 핵심어 : 도체비, 도체빗불, 웬당, 원당봉, 벌랑벌랑, 사름 놀 피, 닛굽, ᄏᆞᆸ, 등알등알, 진드르

W_F_029 사름 홀리는 도체비

2016년 10월 21일, 구좌읍 세화리 부신남씨 댁, 송정희 조사.
부신남(여, 1920년생, 구좌읍 세화리)

[조사자] 옛날에 혹시 도깨비, 도체비, 도체비 얘기는 안 들어 봅디가?

[제보자] 어?

[조사자] 도체비?

[제보자] 도체비는 구신, 구신.

[조사자] 게난 그거 ᄒᆞ나 ᄀᆞᆯ아줍서.

[제보자] 도체비는 사름 홀리는 거.

[조사자] 사람 홀렷덴 허는 말 안 들어 봅디가? 어디 갓다그네 도체비 봣인디.

[제보자] 어디 갓다그네 들에 강 어둑언 오지 못허민, 밤이 오다가 도체비 홀령, 도체비가 헛게 닮은 사름 닮아. 그 사름이, 막, 꼽닥허게 ᄎᆞᆯ려그네 앞이 솔솔 강, 그 사름만 미치젠 허민, 미쳐가민 그 사름은 멀리 가비연 못 미치곡, 조름에 사름은 암만 미치젱 헤도 못미치곡, 어떵사, 사름이 따라오는 중 알아그네 멀리 가 불지. 겡, 그 사름 가는냥 갓당, 어디, 카, 덤벌러레도 강 밀려불곡, 물러레도 밀려불곡. 경 허는 거지. 옛날 도체비는.

[조사자] 경헹 사람 죽어마씸?

[제보자] 죽어 죽지, 죽기도 허지. 도체비 홀리당 어디, 밤중에 덤벌러레나 어디, 사름 못 나올 때에 데껴 불곡. 옛날엔 경 헤낫지. 이제는 경 안 헤여.

[조사자] 이젠 경 안 헤마씸? 이젠 경 안 헤?

[제보자] 이제는 그렇게 안 허지. 이제는 그 히발류내여 돌, 궂인 거 옛날에도 보민 돌을 닥닥 ᄆᆞᆺ아, 돌에 돌에 돌을 ᄆᆞᆺ이민 돌ᄏᆞ릇 내 나민, 것도 ᄃᆞᆯ아나곡. 나이타라도 영 내영 히발류내 내나민, 내나곡. 그 그거 절로 영 허민, 궂인 거 사름 잘 아이 뎅기는 디로 뭐, 옛날엔 뭐, 씨레기 엇이니 씨레기 헤당 나쁜 것덜 데껴 부는 고랑창이덜 싯지? 그런 거 데껴 분디, 그것이 글루 궂인 게 잘 나와.

나왕 그디 넘엉 오젠 허민, 그 목 넘어올 뗀, 사름이 곱게 ᄎᆞᆯ려그넹아, ᄀᆞ는대구덕, 이디 한사 하르방 산 때, 벨방 가시아방 죽어네, 저 일포제 지네영, 벨방서 옛날엔 차도 엇지. 걸언 이디 오난, 우린 그 뒷날 영장밧디 떡을 쳐 가젠, 막 열 시리, 막 궨당 한 디라. 열 시리나 열 시리나 친디, 치젠 허난 밤세낭 솟덕에랑 쳣지. 궨당덜은 그거 기계 엇인 때난, 그 ᄀᆞ루 밀멍, 치멍 헤연. 이젠 ᄑᆞᆺ씨 노멍 그 ᄊᆞᆯᄀᆞ루 헤단 ᄒᆞᆫ 시리 두 개로 치는디 하르방이 오라네 쫌쫌허주만은, 할망신더레

“에, 어, 요 석굴락 오난 곱닥헌 예펜이 둘이가 앚아네, 헤옇게 출려네 석자 수건 쓰곡, ᄀᆞ는대구덕 앞에덜 놓아네 그, 앚아 무시거렌 말 곧단 지 오라가난 일어산 저레, 산자이못에 펜짝더레 강, 지 오라가난 조름에 오라난게.”

경허난, 하르방 쫌쫌허주만은, 그 원서 어멍이 막 ᄒᆞ쏠 거시기 허주게. 이제는 할망이

“벨것덜 다 봣저.”

“나이타로 이제 불 내영, 담배 먹고 돌 앗안 닥닥 ᄆᆞᆺ아가난, 저 산자이못 펜 뭐 설러레 가 베렌.”

집이 오랑 이젠 그 말을 할망ᄀᆞ라 ᄀᆞᆯ으난, 할망은 엣날에 셋살이가 엇언, 지세 장텡이에 세수도 허곡 허지 안 혀, 영 헹 그 앞이 밧거리에 산 때라. 한서 어멍네 온 후제, 그 벨방 가시아방 죽은 때산디 가시어멍 죽은 때산디, 지세장 지세 장텡이 밧디서 난 거 영 에염에 놧이난, 하르방 우터레 바싹 메다 부쪄부난

“이년은 무사 미쳣나?”

하, 하르방은 정신이 멀쩡허게 그, 그런 거시길 보아도, 헛겔 봐도, 이것이 헛게다 헤영, 그런 엣말, 엣말 들엉, 엣날에 그런 무신 거 궂인 거 보민, 돌을 막 ᄆᆞᆺ곡, 남잔 담배먹는 사름은 엣날 그 돌 내영 나이타 체압으로 냇지. 이제는 폭 허민 나지만은 그땐 뭐 돌인가 담앙 허곡, 경 안 허민, 부시헤여그내 내곡, 불 콱콱 내여가민 그거 돌ᄏᆞ를 내나곡 허민 ᄃᆞᆯ아난덴 헤여.

겡 헹 그 할망 그 하르방은 ᄒᆞ쏠 유식헌 하르방이난, 아 그디 무시거 잘 엣날에도 난덴 허난 알아네, 저 벨방 강 상도로 오다네 그걸 봐네. 그 예잘 봐네, 지 일어상 하르방 오라가난 그자 일어상 오당, 하르방이 ᄒᆞ쏠 천천히 오민 천천히 제기 오민 제게 경 헤렌. 겡 헷덴 요세 요것덜 나이타로 불내멍 돌 앗안 닥허게 ᄆᆞᆺ곡, 들어데끼곡 허멍

“나 몰르카부덴”

허멍 하르방 웨엿지. 경 헹 지펭이 짚엉 오단, 닥닥허멍 헤영 나난 저 동더레 질이 잇어. 그래 가 베렌. 그래 가난, 그레 가난 아 웃어완, 아 우린 막 은엉이어멍네영 밖거리에서 떡 치는디, 할, 할망 하르방은 오란 그 말을 할망신더레 ᄀᆞᆯ으난 그 장텡이, 무시거 부떳젠 그 장텡일 데멩이 우터레 파싹 메다쳐 부난, 막 이젠 야단을 할망신더레

“무신 헛게비 쳥 오라그넹아, 허죽거리는 거동 허멍.”

할망이 ᄒᆞ쏠 할망도 하르방을 막 이기젠 ᄒᆞ는 할망이라난, 경 그때 봐낫어. 겡 헹 그 말을 ᄀᆞᆯ앙.

- 핵심어 : 구좌읍 세화리, 도체비, 헛게, 처녀, 돌ᄏᆞ릇내, 헛게비, 하르방

W_F_030 살인 누명 벗은 주인

2016년 12월 7일, 구좌읍 종달리 김보배씨 댁, 송정희 조사.
김보배(여, 1939년생, 구좌읍 종달리)

[제보자] 어떤 사름이 물을 타네 물을 타네 어디 과거를 보러 가는디, 물을 탕 과거를 보러 가는디 이제 가다가 보니깐, 헤가 저물어분 거라. 저물아부난 이젠 집을 이제 영 보난 막살이 하나가 잇인 거라.

그 집이 이젠 들어강 보나네 이제 여자가 하나 잇어. 여자가 하나 잇이나네 이젠 집을 ᄒᆞ쏠 방을 빌리렌 허난, 그 여자 방을 빌려준 셍이라. 빌려주언 헌디 물이 그 바로 물이 창 발라 멘 셍이라게, 메나네 이젠 그 오꼿허게 나오당 보난 남ᄌᆞ를 오꼿 발로 찬 물이 발로 찬 죽여분 거라. 물 발을 찬 죽어부난 이젠 그 주연을 이제 그 해명을 벗어나갈 수가 엇는 거라게.

어떵허민 이제 이 사름을 뭐헐 건고 헨 나갈 수가 엇이난에 ᄀᆞ만히 그 사름도 머리가 좋은 사름 아니과게. 훈짝 손엔 ᄀᆞ세를 심지곡 훈짝 손엔 물총을 심져네 물똣고냥에 강 그 사름을 눕진 셍이라게. 눕져네 그 헤명 벗어낫젠 헙디다게.

- 핵심어 : 물, 물총, ᄀᆞ세, 과거, 막살이

W_F_031 소곰밧 귀신

2016년 12월 7일, 남원읍 태흥2리 태흥마을회관, 김선희 조사.
오명옥(남, 1934년생, 남원읍 태흥3리)

[제보자] 아, 옛날 이야기 하나 잇저. 일로 한 이백미터 가면은 옛날 염밧 헤난 디가 잇어.

[조사자] 소곰밧마씸?

[제보자] 응 소곰밧. 그기에다가 밤에 무슨 귀신새라고. 귀신이…. 일주도로라면 이디도 염밧, 이디도 염밧인데 이렇게 상 잇어난댄 해여. 그게 구신이라고. 그런 구신이 나와낫다. 경 헹 이 밑으로 걸어가면은 걸어가난 사람이 죽엇다는 얘기가 잇어낫어.

[조사자] 거기 이름이 따로 잇수과?

[제보자] 거기는 소곰밧, 소곰밧 헤낫주. 진새미골. 그 진새미골이엔 헌 디가 비 오면은 물 내리는 골인데 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로 소곰밧디 와.

- 핵심어 : 염밧, 소곰밧, 귀신새, 구신, 귀신, 진새미골

W_F_032 소곰밧 헛게

2016년 12월 7일, 남원읍 태흥3리 오봉남씨 댁, 김선희 조사.
제보자1: 오봉남(남, 1922년생, 남원읍 태흥3리)
제보자2: 오명옥(남, 1934년생, 남원읍 태흥3리)

[제보자2] 소곰밧 에염이 기신새에 귀신 나오라낫젠 안 헙니까? 옛날.

[제보자1] 아니 귀신대는 아니고 그저 살아온 모냥 헛게마냥 그것가 옛날은 잇지이.

[조사자] 아, 예.

[제보자1] 헛불, 헛불하고 헛게.

[제보자2] 귀신, 귀신.

[제보자1] 응, 귀신, 그런….

[제보자2] 아무래도 도체비보다는 그 헛게가 조곰 높은 귀신인 거 닮아.

[제보자1] 그런 거 잇엇다 허는디.

[제보자2] 이렇게 다리 벌려서 사낫다고 해.

[제보자1] 그건 바로 귀신대. 큰 거고.

[제보자2] 귀신대게. 건디 나 믿어지질 안 헤여.

[조사자] 귀신대 굴아줍서.

[제보자1] 우린 그런 거 안 봐난.

[제보자2] 봐나지도 안 허고.

[제보자1] 저, 태흥리 강 놀당 밤, 그때가 이월달이라. 음력으로 이월달. 이월달인디, 이월 초승인디. 강 놀다가 비 축축하게 오라가고 헤연, 비 오라난 집이 오젠 허니까 누웟당 낼랑 가렌 해도 오젠 오는디 그디 오니까, 막 그 저 사람들 놀래 부르는 소리, 어린아이는 막 우는 소리가 나. 이게 또 뭣인고 헹, 이제 ᄀᆞ만히 왕 들었어. 알아지는 사람 노래도 똑 닮고. 다 모르는 사람 노래. 애기 우는 소리 막 나곡. 에에, 와 분데 왓는디. 다음 날은 언치냑 영영 뎅기당 이상헌 소리 나. 어, 자꾸 그런 소리 나와 헤여.

[조사자] 그게 헛게소리인가마씸?

[제보자1] 예, 예. 그것ᄀᆞ라 헛소리 헛소리엔 허여. 그디 그 외론 난 아이 봐난. 딴 사람들은 도망가나노라 해도 나는 원 아니 봐난.

[제보자2] 나도 글로 다녀도 안 봐난.

[조사자] 그 소곰밧 옆으로예?

[제보자2] 응.

[제보자1] 귀신대옌 헌 거, 아까 이영 헌 거 귀신대엔 헌 건디.

[조사자] 팔 벌리고 다리 영 벌린 거마씸?

[제보자2] 다리를 영 벌렸다고 이 밑으로 지나치면.

[제보자1] 넘어가민.

[제보자2] 지나가면은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

[제보자1] 글로 넘어가민 사흘 내에 죽엇젠 헤여.

[제보자2] 이렇게 다릴 벌령 잇지. 게난 그 밑으로.

- 핵심어 : 소곰밧, 기신새, 귀신대, 헛게, 헛불, 귀신, 도체비, 노래 부르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다리 벌리기, 사흘 내에 죽음

W_F_033 솟 우에 앚인 문어

2016년 10월 21일, 구좌읍 세화리 부신남씨 댁, 송정희 조사.
부신남(여, 1920년생, 구좌읍 세화리)

[조사자] 이 동네에.
[제보자] 엣날엔.
[조사자] 문어이야기 같은 거 엇입니까? 문어, 문어가, 문어, 문어.
[제보자] 문어?
[조사자] 응. 문어.
[제보자] 문어가 바당에 잇입주.
[조사자] 응. 그게 어떵 헹 솟 우이 앉아져 허는 애긴 안 들어봅디가?
[제보자] 물에 들어서 잡앗지 뭐.
[조사자] 그게 어떵 하당 보난, 솟뚜껑 우에 앚앙 잇어라 허는 얘긴 안 들어봅디가?
[제보자] 저 우이, 솟덕 우이 앚앗더라.
[조사자] 응.
[제보자] 엣날에 갯것이 강 바르 잡아당, 어떤 어떤 할, 저, ᄒᆞ쏠 모슬력 할망이지. 그 문에가 빠짝빠짝 부뜨지 안 허냐? 하간 것에. 몸에도 부뜨고, 구덕에도 부뜨곡, 허난, 보말 잡아네 ᄒᆞᆫ 디 노난 보말 솟더레 탁 비우나네 이젠, 그 문에는 떨어지지 아녀서 구덕에 부떠분 걸 몰랏어. (웃음) 몰랏어. 구덕을 영 ᄒᆞᆫ바짝더레 정지에 ᄒᆞᆫ짝더레 영 놩 네비지. 허난 그것이 이젠, ᄒᆞ꼼 뚯뚯헤가난, 그 보말 숢는 디 영 기어갓어, (웃음) 불치를 써 부난, 거멍헷지. 문에가. 거멍헷어 솟덕 우이에 앚이난, 걸 구신 나왓다고 헷지. 구신이 나왓다고. 겡 말제는 보난 몽둥이로 두드리멍 보난 문에라. 그것이, 구신이 아니고. 경헷다고 엣날 할망덜 말 곧지. 우리 우리 나기 전에지.

우리 난 때는 이녁냥으로 강 심곡, 갯것이 강 막 두들리곡, 허민 그 먹 내어불곡 허민, 죽어지지. 니빨도 빠 불곡. 그냥 산 차 심엉 구덕에 놧당은 바당에서도 일러비여. 갯것이에도 구덕 영 차그네, 뭐 보말도 잡아 놓곡, 우미 넣고, 메역도 튿아 놓고 허민 문에는 히어 뎅기당 영 돌 일르민 돌에 탁 잇곡. 경 허믄 문에는 심엉 구덕에 들이쳐당은 뭉게 일러비는 사름 만헤여. 거 말제는 거 돌에 강 탁탁 두드리멍 죽여서 놔야, 뭣에 묶엉을 노나 그러헤낫지.

- 핵심어 : 구좌읍 세화리, 솟, 문어, 갯것이, 구덕, 구신

W_F_034 솟강알에 불 부찐 도체비

2016년 12월 15일, 표선면 성읍1리 성읍1리노인회관, 송정희 조사.
조인흥(남, 1934년생, 표선면 성읍1리)

[조사자] 도체비 이야기는 들어본 게 엇수과?

[제보자] 정심 아젼 강 밧 가는 디 정심 아젼 강 보난 집이 정심을 딱 거려 놔동그넹에, 신이 잇이난 정심을 거려 놔동그네 허는디 걸 잊어불언 정심을 졍 간 생각헤 보난 어가라 왕 보난 솟강알에서 불 불엇어렌, 경 곧는 말을 나도 들엇주.

- 핵심어 : 도체비, 정심, 솟강알, 불

W_F_035 쉐뿔에 쳐 죽을 운

2016년 10월 18일, 조천읍 신촌리 허재군씨 댁, 이현정 조사.
허재군(남, 1948년생, 조천읍 신촌리)

[제보자] 글쎄? 그거는 그렇다지만 우리가 생각헐 직, 허기에는, 게고 하나는 그, 한 가지 얘기는 그, 쉐뿔에 쳐서.

[조사자] 예.

[제보자] 응, 쉐뿔에 쳐서 어, 죽었다는 얘기는 그 촌에덜은 이제 곧으믄은 이제는 잘 그것이 없주만은 옛날에는 이 촌에, 촌길에는 가름길에. 가름길에는 영, 골목 들어가는 ᄋᆞ 카드에 ᄋᆞ만한 돌덜 이렇게 팡돌 놔가지고, ᄋᆞ만헌 높이로 헷어.

[조사자] 예.

[제보자] 게서 이제, 이렇게 영, 한 줄 영 놔진 디가 있어. 카드 영 들어가는 디, 그런 데가 간간이 있는다고. 봄날씨가 딱 되니까 날은 따땃하고 할아부지 한 분이 그, 그 돌우에다가 이렇게 앚아서 놀고 있으니깐, 그 권제 받으레 다니던 스님이, 스님이. 권제, 권제란 말이 알지?

[조사자] 시주 받으러 다니는 거주마씨.

[제보자] 응. 시주 받으레. 권제 받으러 다니던 스님이 딱 지나가다가 그 할아부지 관상을 딱 본 거여. 지나가다가, 쑥 지나가다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할아부지헌테 허는 얘기가

"영감님은 오늘 하루 앚아가지고, 쉐뿔에 쳐서 죽을 운이니까, 죽을 운이니 조심하세요."

이렇게만 해두고 딱 가버린 거여. 이렇게만 딱해서 이제, 가 버리니깐, 아 이거 좀 듣기가 좀 기분 나쁘단 말이여? 응? 그래서 이제, 그 할아부지가 오끗허게 일어산 집에 들어강, 방에 강, 딱 앚앗어. 옛날 문은 지금 곧으면 이제 미닫이 문이주만, 옛날 문은 지겟문이라.

[조사자] 예.

[제보자] 여닫이문으로, 여닫이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벽장을 이렇게 대가, 대가지고

기대 앚안.

“미친놈, 내가 뭣, 방안에 가만히 앚아 있이믄, 내가 왜 쉐뿔에 쳐서 죽어?”

게서 저, 가만히 이렇게, 앚아 있으니까 이제, 아 심심하고 막 귀가 간지러, 가려워. 그래가지구 이제는, 그 문 한 짝을 이렇게 열어가지구, 문 영 열어서 제껴 놓곡, 벽장 우에다가 그, 귓밥 내는 것이 있었어. 그 귓밥 내는 것이 있어가지구, 걸로 이렇게 이제, 이제, 귀가 가, 가려우니까 이렇게 그걸로 이제 귓밥 내면서 이렇게 허다 보니까 바람이 와닥탁허게 분 거여. 게, 문이 탁 닫아지믄서 그냥 귓창 쑤셔, 쑤셔 죽언. 귓밥 내는 것이 그거 쉐뿔로 만든 거여.

[조사자] 아, 그래서.

[제보자] 응. 그래서 쉐뿔로 쳐서 죽는다.

- 핵심어 : 쉐뿔, 팡돌, 스님, 권제, 죽을 운, 귓밥

W_F_036 식게칩이 구신

2016년 12월 14일, 표선면 가시리 안인순씨 댁, 송정희 조사.
안인순(여, 1935년생, 표선면 가시리)

[제보자] 엣날에 구신이 어느 살해당헌 사람인디 그날 죽은 사름 식게라. 식겐디 것도 어디 성산쪽이렌 헌디, 차 탄 차 탄 보난에, 차 타네 어떤 손임이 차 타나네. 그 사름이 차를 타네 우리 집이 가켄 헨. 강 보나네. 지네 집이라. 그 저 손임네 집이

"잇이민 나 집에 강 차비 아젼 오쿠다."

헨, 가네 가네 이젠 저 강 보난에, 그 지 죽여분 사름이 그 집이 잇어. 잇이난 식게칩이 동넨ᄀᆞ라 잇이나네.

"아이고 ᄆᆞᄉᆞ완 저 사름 잇어부난 ᄆᆞᄉᆞ완 못 들어가켜."

헨 막끗데 보난 그 사름 식게렌, 식게랏젠, 엣날엔 살인나도 춪질 못헐 때 못 허는 사름이 하낫주.

- 핵심어 : 구신, 식게칩, 살인, 성산리, 차

W_F_037 식겟날 큰 비 오는 집

2016년 10월 2일, 한경면 용수리 김성준씨 댁, 김선희 조사.
제보자1: 김성준(남, 1946년생, 한경면 용수리)
제보자2: 김성아(여, 1948년생, 한경면 용수리)

[조사자] 힘 센 사람 얘기 또 엇수과?

[제보자1] 이칩이 제사가 기와집 그 이칩이 제사가 방에 트는 제사렌 헤낫어. 비가 하영 왕 방에 트는 제사렌 헤낫주. 그 집 제삿날 비가 하영 와난 셍이라. 이문간에 나둔 방에가 마당더레 터나가난 방에 트는 식게렌 허주게.

[조사자] 방에 들은 식게마씸?

[제보자1] 방에가 우리 키 사나 하는 그런 나무, 콕콕 쫓는 그거.

[조사자] 이칩이 제사 말은 뭐꽈?

[제보자1] 아, 우리 정희 하르방 이실 때는 잘 알아낫어. 죽어불언. 우리 외삼춘. 그때들 넘어가던 사름이, 정시가 딱 그집이 오난 이 집이 마당으로 물 나거드랑으네 집을 풀아동 나가 불라 경 헤엿젠 헤여. 정시가 경 굴아낫댄. 게난 마당으로 물 나가난 집 풀아동 나가 불언. 그 후엔 집안이 안 된다 하는 거라.

[조사자] 그건 무사 마씸?

[제보자2] 그 집터가 세어노난. 다 망헤연 나갓어.

[조사자] 집에서 물 나거들랑 나가 불라 한 거마씸?

[제보자2] 응. 물 나거들랑 나가 불렌. 좋지 아니허댄.

[조사자] 방에 잇어난 집 아니꽈?

[제보자1] 그 이칩이. 기와집. 그디 이찬화가 이장 헤낫주게. 구장, 옛날은. 이제 그디 주순들 엇어.

[조사자] 그 집이 이 씨 이장네 집마씸?

[제보자1] 응.

[조사자] 게난 정시가 넘어가당 굴은 말이구나예.

[제보자1] 응, 나가 불렌. 그것도 우리도 들은 말이주게. 우리 외삼춘이 이장네하고 육촌

아니가게. 그디하고 육촌이난 잘 알앙.

[제보자2] 가까운 디난 옛날은 다 안다 헤낫주게.

[조사자] 물 나믄 나가 불라 헤신디, 지금은마씸?

[제보자1] 그 후엔 그디 강 사는 사름은 다 안 뒈어. 만딱 망헤여 불언.

[제보자2] 그 집터가 세단 말이주게. 집터가 세 불민 이경 산 사름은 좋은디 경 안 하민 나빠.

[제보자1] 이건 우리도 아니 난 때, 그 집 짓엉 불이 나난 때 경 헷덴 헤라.

[조사자] 예.

[제보자1] 그 집 불 나난 하르방이 문만 덖으렌 허난 불이 그대로 꺼 불언. 상당히 튼튼하게 짓은 집이주. 큰아들 그 집 해여 주곡, 족은아들 집 헤영 주켄 낭허레 갓당 죽어불엇주. 그 하르방이. 그 하르방 죽은 식게 하젠 하믄 비가 하영 와. 그 큰 방에가 물에 방방 트게 비가 하영 내렷거든. 경허난 방에 트는 식게옌 ᄀᆞᆯ아낫어. 그 식게만 돌아와가민 비가 하영 와. 막 큰 내가 터져 낫어. 엄청나게 큰 방에가 물에 방방 떳이난.

[조사자] 방에가 뜨는 거마씸? 물에 뜨는 거?

[제보자2] 방에가 떠내려 가 불엇지.

[조사자] 무사 이칩이 제사를 방에 트는 식게옌 헤신고예?

[제보자2] 제사, 제사. 제사인디 그 이칩이 집주인 제사하젠 하믄 비가 와나난 그 식게 돌아와가민 아 방에 트는 식게구나 헤여. 그 ᄀᆞ리 뒈가민 비가 와가민

"아이고 아무날 방에 트는 식게 ᄂᆞ저."

하는 거주. 비가 계속 와 가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이칩이 방에 트는 식게 온 셍이여, 방에 트는 식게 온 셍이여."

경 허주게. 이칩이 제사하는 날 비가 너무 하영 와서 방에가 트난 방에 트는 식게옌. 이문간에 나둔 것이 마당에 다 떠 뎅견. 비가 그만치 많이 왓지. 막 냇물로. 방에가 ᄉᆞ못 오죽 큰 거가. 그 방에 우리 ᄋᆞᆨ을 때ᄁᆞ지도 셔낫어. 중간에 골동품 받으레 다니는 사람들허난 돈 얼마씩 주난 다들 줘 불언.

- 핵심어 : 이칩이, 제사, 식게, 정시, 불난 집, 기와집, 방에, 방에 트는 집, 큰 비

W_F_038 아기업게 말도 들으라

2016년 12월 1일, 애월읍 애월리 애월리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양병연(남, 1928년생, 애월읍 애월리)

[제보자] ‘아기업게 말도 들으라’ 헌 말이 잇어낫주.

[조사자] 그 얘기는 들엇수과?

[제보자] 김통정 장군이 기억이 섞어져그네. 게메 잘 ᄀᆞᆯ아질 건가. 그게 원수는 김방경인디 몽고 장수. 막 수세에 몰리니까, 그 저 원수들이 막 튀어들어 와가지고 막 수세에 몰리니 ᄒᆞᆯ 수 엇이 방에 가두와네 문을 ᄌᆞᆷ가가지고 들어 강 문을 딱 ᄌᆞᆷ가 불엇거든이.

[조사자] 성에예?

[제보자] 응. ᄌᆞᆷ가 불이니, 아 이제 적군들은 들어가 보니 문을 열지 못허니, 잡지도 못허고 허게 되니. 이제 아기업게보고

“이제 어떵 허민 될 거니?” 물으난

“두 이레 열나흘을 불미를 걸엉 ᄒᆞ면 철문을 ᄋᆞᆯ아진다.”

게니 두 이레 열나흘 불미를 걸엉 노니 철문이 활짝 ᄋᆞᆯ아지난 김통정 장군이 ᄃᆞᆯ아나면서 훳부리라고 물 나는 디가 잇어이. 거 알앐지?

[조사자] 예, 장수물.

[제보자] 응. 그디 디디어가지고 “이 발자국에서 물 ᄲᆞᆯ아 먹으멍 사람이랑 살라.” 헤가지고 바다레 ᄂᆞᆯ아가니까 무쉐방석을 ᄀᆞ졍 간 바다에는 ᄁᆞ니까 ᄀᆞᆯ라앚아 불고. 또 적군은 모기가 되어가지고 앵앵 허멍 김통정 장군 ᄂᆞᆯ아나는디 붙어 강 야게기에 붙으난 비늘 영 걷으니깐 칼로 영 확허게 목을 베엉 죽엇다. 그런 전설.

[조사자] 그래서 애기업게 말도 들어사 헌다.

[제보자] 아기업게 말도 들으니까니 문을 ᄋᆞᆯ아진 거주게.

[조사자] 그거 말고는 더 들은 거 엇수과? 기억나는 거.

[제보자] 그거 말고? 제주 도민들한티 토성을 영 둘렷는디 매일 아침 ᄆᆞᆯ 타그네 ᄆᆞᆯ 꼬리에 대비차락, 비 쓰는 대비차락을 멧 개 ᄃᆞᆯ아매어그네 성 한 바꾸 확 돌민 안개가 딱 쎄가지고, 이 고성도 성 두른 딜 잘 못 베려. 경 헹 이제 해마다 대빗ᄌᆞ록을 멧 개씩 제공허여. 경 헤낫다. 것도 잇고. 또 이제 성을 둘렁 보니까니 물을 내불어 둰 둘러졋거든. 구싯물 알지? 구싯물. 구싯물 밖에도 성을 두차 성을 두 벌 둘르고. 경 헷다 하여.

- 핵심어 : 김통정, 몽고, 아기업게, 훳부리, 토성, 말, 장수물, 구싯물, 모기, 안개, 문

W_F_039 애기무덤에서 나는 우는 소리

2016년 12월 7일, 서귀포시 서호동 허노생씨 댁, 김선희 조사.
허노생(여, 1932년생, 서귀포시 서호동)

[조사자] 귀신 봐난 얘기는 엇수과? 도체빗불은마씸?

[제보자] 도체빗불은 우린 안 봐난. 어떤 사름들은 제사 먹으레 가당 오당 뭐 무시거 헹, 펀즉펀즉하믄 말제인 뒤터레 가당 보민 탁 사가졍. 사람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헷젠 해도. 난 그런 건 봐나진 안 헤연. 들어만 봐낫주. 이 동네는 그런 거 아니 나완.

요즘은 다 혁신뒈 부난 핷주만은 애기들 어린 때 죽으민 그디 묻으는 산들 막 하여 잇어낫주게. 게믄 밤이 '글로 애기 우는 소리 낞저.' 헤도. 우리 그레 멀곡 그런 거 들어보지도 안 허곡.

- 핵심어 : 도체빗불, 펀즉펀즉, 애기무덤, 우는 소리

W_F_040 여우누이와 오빠

2016년 12월 7일,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마을회관, 송정희 조사.
김복희(여, 1939년생, 구좌읍 종달리)

[제보자] 엣날에 이제 두갓이 살아네이 애길 이제 낳는디 아덜ᄒᆞ고 똘ᄒᆞ고 오누이를 낫어. 오누이 나고 쉐를 다섯 ᄆᆞ릴 질롸어. 질롼 이젠 어느 날은 똘을 하나 더 낳겐 성드난 어떤 할망이 이 푸데를 가졍 왕 낭중에 보난 호렝이 가죽을 그걸을 씨엉 허민 고운 애기를 낳덴 허는 거라.

아 그 호렝일 씨엉 난 게 보난 곱닥헌 애길 난. 낭중 여우를 난 거라. 아 어느 날은 그 애길 어느 정도 큰디 아 일어낭 보난 쉐 뭐를 길롼는디양 그냥 죽어불언. 소가 죽어불언, 그 여우가양 하문으로 이제 그 베설 빠 먹는 거라. 내복을, 겅 헹 그 애기는 왕 톡허게 구덕에 누워부는 거. 또 ᄒᆞ끔 시민 응 또 자 또 둣날 보민 또 쉐 하나도 엇이. 쉐ᄆᆞᆯ이 다 죽은 거라. 다 죽으나네. 이제 아덜이 쫌 요망졋어이, 아덜이

"어머님 아바지 이 애기가 여우를 닮덴 하문으로 보나네, 나가 뒤에로 보난."

밤중에 막 그냥 그걸 본 거주게.

"하문으로 손 쑥 들러가지고 내장 빠난 다 죽어부난 이걸 어떵 허민 좋켜 허난 이 애기를 죽이나 어떵 허켜?"

허난 막 어멍 아방이 못 죽이게 막 그 아덜을 막 때려 분 거라. 그걸 막 죽이켄 막 때려 불엇어. 이제 아덜은 집 나가 불엇어. 뭣대로 허렌 잘못허민 지도 죽을 거난양. 게난 하 삼ᄉᆞ년 지낭, 어멍 아방이 다 죽엇인가 헹 이젠 절에 들어간 거라. 그 아이가 절에 들어강 그 말을 ᄀᆞᆯ으나네.

"게민 어멍 아방신디 가게 뒈면은 잘못허민 죽을 거난 이제 쳉빗허곡 이제 펭허곡 앗앙 가는 게 방법이우다."

겡 헹 그걸 앗앙 시님 말대로 집에 왕 보난, 아무도 엇고 어멍 아방도 다 죽여 불엇어. 아무도 엇곡 그 누이만 잇는 거라.

"어멍 아방 어디 가시네?"

허나네.

"저 다 죽어빗젠."

거난네 그 일목 그 여우는양 하이고 '이제 이 밥을 왓다.'고, 속으론 게난 이젠.

"누이야 동싱아 물을 물 ᄒᆞᆫ 그릇을 떠오라."

떠오렌 허난양 물에양 떠가분 가분 후젠 이젠 그냥 양 도망친 거라. 도망치영

허난 그냥 그 여우가 돌아온디 아 이제.

"아첨밥 이제 떠나볏다."

고양, 막 뛰어오는 거라. 그 동싱이 잡아먹젠 잡아먹젠 허난양 펭을 양 훅 데끼난양 물바다가 뒈 분 거라. 물바다난 나와지쿠꽈? 그 시님 굳은 대로, 겐 막 그냥 물로 세와가난양 또 이젠 쳉빗을 데끼난 대왓이 뒈 벼. 겐양 막 도망쳐 돌아오지 못헷젠 돌아오지 못헤연 걸로 끝. 그거 호렝이라.

[조사자] 쳉빗 데끼난 어떵 됀마씨?

[제보자] 쳉빗을 데끼난 세왓이 뒈 분 거.

[조사자] 세왓이 뭐꽈? 세왓?

[제보자] 세. 이 거시기 대왓. 대왓.

[조사자] 대왓?

[제보자] 대왓.

[조사자] 대나무.

[제보자] 대나무. 대나무 됀 그 시님 굳는 대로 뒈곡 펭이 데끼나네 물바다가 뒈 불곡. 그 시님 굳는.

[조사자] 물바다. 거 어디서 들읍디가?

[제보자] 시님. 옛말 하르방 저거라. 시님한테 그 아이는 시님신디 강 살당 그추룩 가민 어떵 시님이 그 헌 거라. 방법을. 살아나거들랑 이렇게 헹 가보라고. 게난 그 호렝이는 조반 틀리곡 정심밥 반찬 틀렷젠 막 그냥 동싱은 그 호렝인 웬 거라. 돌아오단 버치난. 경 헷젠 나도 들은 말 여우라. 여우. 흔 그릇 가져 오렌.

[조사자] 누이네 집 가난.

[제보자] 가난, 오빠가 이젠 물이 흔 잔 가져 오렌 허난 돌아나 분덴 안 돌아낫겐헨 그 여우가이 노끈 앗앙 오멍 게민 돌아나지 못허게 지 홀목을 오빠 홀목을 이제 묶으는 거라. 묶으곡 지 홀목을 묶으난 돌아나 불카부덴 게난 이젠 물 이젠 들레 가 분 후젠 그 지 홀목에 그 노끈을 풀언이 그디 그 의자에 묶엉동 돌아나 분 거라. 왕 보난 의자에 묶으난

"아이고 조반 반찬 응 떠나 불곡 정심반찬 떠나 불곡."

허멍 그 돌음박질헌 거라. 그 오빠 잡젠 경 허난에이 나가 그때 꺼꾸로 헷어. 경 헹 돌난 이제 쳉빗을 데끼난 이젠 세왓 그 뭐 뒈 빗어. 거시기 왕대밧. 왕대밧 뒈 불곡 또 막 돌아와가난이 그냥 펭을 데끼난이 물바다 뒈 부난 돌아오지 못헷어. 경 허난 그 동싱이 굳는 말이

"아이고 아침반찬 이제 뜰리곡 정심반찬 뜰려 빗저."

허멍 한탄허멍 웨다네 가 분 거라. 곳사 나 그거 꺼꾸로 굴앙 경 헌 거라.

- 핵심어 : 호랑이, 오누이, 여우, 간, 쳉빗, 펭, 대왓, 물바다

W_F_041 여자로 둔갑한 샘물의 도체비

2016년 12월 10일, 제주시 이도1동 윤성인씨 댁, 이현정 조사.
윤성인(여, 1930년생, 제주시 이도1동)

[조사자] 도체비. 아는 거 잇어마씨?

[제보자] 아, 도체비는 우리 친정 어머니가.

[조사자] 음.

[제보자] 묵은 도남 잇잖아.

[조사자] 묵은 도남.

[제보자] 도남 동산이 넘어강, 올라간 다음에 거기 마을이 잇엇어. 겨면, 엿날에는 우리 도남에서는 내에, 저, 지금 한내같은 디 잇잖아? 내엣 물을 먹어낫지이. 먹는 물은 먹엇인디. 그 물이 ᄲᅳ뜨면, 어딧 물을 먹느냐민 이제 도남 그, 동산 네려왕, 거기는 샘물이 잇엇어.

[조사자] 샘물?

[제보자] 샘물. 샘물이 잇이믄, 그 샘물을 아침 새벡이 왕 져가지. 물이 귀헌 때니까. 게믄 밤이 자당 어느 때도 모르고, 그때는 시계가 없으니까. 둘 뜨는, 헤, 저, 별 뜨는 걸로. 새별 뜨는 걸로 짐작을 헤서 물을 질레 뎅겻댄, 어머니가.
나는 어린 때난 몰라도. 게믄, (한숨) 그거를 짐작헨 내려왕 물을 질엉 가당 보면, 막 앞에 여자가, 막 걷는덴. 하얗게 출령, 막 걷는덴.
"저게 사럼인가, 귀신인가?"
헹 보면, 밑에가 없덴.

[조사자] 아, 아래가?

[제보자] 응, 아랫ᄃᆞ리가 없어. 우만 보여, 우만 보여졍. 겨믄 그냥 머리가(웃음) 다 일어사지. 경 헤도 그걸 참아가지고 걷당 보믄 없어진댄.

[조사자] 아, 거 엇어지는 거. 거믄 물 뜨레 다닐 때 주로 봣구나.

[제보자] 응?

[조사자] 도채비를 물 뜨레 다닐 때 주로 봣어.

[제보자] 그렇지. 겨난 그게 어무니가 그 말을 ᄀᆞᆯ아, 물 질엉 오당 보면, 물 질레 가당이나 오당 보면, 경 하얗게 저런 소복입은 여자가, 앞에서 걷는데. 걷는 거 보면 밑에가 없다고. 웃도리만 잇곡.

- 핵심어 : 여자, 둔갑, 도체비, 묵은 도남, 샘물, 새벡, 아랫ᄃᆞ리

W_F_042 오설룡뚜님아기

2016년 11월 24일, 구좌읍 종달리 송미영씨 댁, 송정희 조사.
고순안(여, 1947년생, 구좌읍 하도리)

[제보자] 오설룡뚜님아기. 이 하도리 오설룡뚜님아긴 엿날 이 오 오설룡 오설룡님이 아덜이 아기가 엇언. 공 디련 예공녀 탄싱허난 에 어린 때에 그디 막 물도 벡쉬 쉐도 벡쉬 거기 부제로 살앗주. 부제로 사난, 그 똘아기 나난 구덕에 눕져 눕져그네 흔들주. 흔들곡 영영허민, ᄒᆞ룰날은 이 아기씨가 이제 바령밧디렌 헌 건 엣날에 밧데 응 바령밧데 가네 이젠 그 상탕물이렌 헌 건 큰 큰 물. 영 겅 헤그네 그 하그 아기가 손으로 헤여그네 저 더운 설을 뻬영 저 엣날엔 씻을 뗀 영 헹 그 그릇에 씨쳔 소금 앗안 가곡. 접시 요만헌 접시 앗안 가곡 헹그네 소금에 적졍 먹엉 오민 듯날 아칙은 종하님이 나가보면은 이 상탕물두 죽어지곡 쉐도 죽어지거든. 게난

"필아곡절허다."

게난 상전 앞에 왕 들으난 이젠 종하님이

"나상 베레보라."

게난 이 밤 왕 저 밤새에 당허나네. 아기씨가 눕던 아기씨가 눕던 아기씨가 이젠 나가네 이 논두렁에 강 그 더운 설이렌 헌 건 녹미녹설 헹 먹언. 방에 들어완 구덕에 눕지난. '상전 앞이 머렌 골앗당 지네가 목이 걸령 죽을 거난 아니뒐로구나.' ᄒᆞ룰날은

"상전님아, 오늘랑 나 상전이 강 베레봅서."

게난 아기가 구덕에 눕지던 아기가 나오란 바령밧디 들어가네 그 더운 설을 뻬여내여네 물에 씨쳔 소금에 적션 먹으난 '이 아긴 영 헹 놧단 큰일 날로구나.' 손도 끊어불곡 발도 끊어불언 하르방이. 경 헹 저 서춘 가네. 죽으렌 헨 내부난에 어느 신춘인가 조춘 사이에 거 제주시엔가 강 허난 호첩 남의 첩으로 강 에 첩으로 강 살당 죽으난 친정에 돌아오라. 친정에 돌아오난 난데엇이 그후루 이

젠, 그 몰두 죽어가곡 쉐도 갑작시리 갑작시리 죽어가난 필아곡절헤 경 헹 문점 허난.

“아기씨가 에, 죽으렌 헹 내분 아기가 죽으난, 갈 때 올 때 엇언, 친정에 들어왓수다.”

“겅 허믄 어떵 허믄 뒙네껜?”

허난 그 굿헐 때랑 놀간 헹 산신 헹 거느령 이 산신군줄도 케우리곡 오설룡뚜님아기 언설, 단설, 녹미녹설, 설레산적 받아오던 조상 이제 저 올레로 케우리곡 산신놀이 헤영, 산신군줄덜 제사ᄒᆞ곡, 이제 영 허곡, 철갈이 헐 때엔 옛날에는 쉐막이 잇어낫거든. 엣 이제는 목장에 놧지만은 쉐막이 잇이난 쉐막에 허면은 철갈이 헐 때에 이 쉐막 메밧디 가그네 이 겔랄ᄒᆞ곡 뭐 헹 강 떡이영 강 묻는 디가 잇곡 두 밧디 강 묻는 디가 잇곡, 그냥 케우려그네. 이제 감주영 술이영 케우령 그디 상다 케우령 겅 헹 가난 그 집이 간 펜안헹 부제팔명헹 살아가난 이 조상 삼년에 오년에 ᄒᆞᆫ 번 조상간장 풀령 조상간장 풀리네 영 허난네, 그 북 터지게 굿헤여그네.

- 핵심어 : 오설룡뚜님아기, 소, 말, 간, 철갈이, 구좌읍 하도리

W_F_043 올레서 만난 기신세

2016년 12월 7일,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마을회관, 송정희 조사.
김춘옥(여, 1939년생, 구좌읍 종달리)

[제보자] 난이, 국민학교 사학년 땐디, 엣날 이 칠판닦이를 만들어오라고 선생님이 얘길 헷어, 이젠 칠판딱이를 이젠 양림이ᄒᆞ고 나ᄒᆞ고 진기ᄒᆞ고 서이가 이젠, 강멩이네 집게 저 어디 군선이네 집 올레, 이제 강 멘들안, 이젯 아이들 곹으민 요망정 그디 잣당 올 거주게. 그디 구신 많이 난덴 허난 이제 아이 막 어멍한테 욕들어지카부덴 새벽 ᄒᆞᆫ 두시 아니믄 세 시쯤 뒀어. 막 오느렌 허난 우리 그 이짝에 우리 셋아지망 골목에 그 청자네 감낭 잇잖아 그디 아 잇인디양 어떤 조그만ᄒᆞᆫ 할망이 나타난 거라. 게난 우리 서이가 다.

"아이고 할망ᄂᆞ 저. 아이고 저 할망이랑 우리 곹이 가게."

무서우난이 경 헹 이젠이 영 쳐다봐지는 순간에 완전 기신세가 뒌 게 한 층은 검고 한 층은 히곡 헹 딱 그 딱 담에 걸청 이렇게나 산.

"아이고 기신세 낫저."

헹, 서이가 겁난 막 돌아오는디 너무 지치난 겁나난 신이 신도 벗언 돌음도 못 돋더라. 힘이 버쳔 게난 그 앞가름에 나왕 보난이 그때 스물사흘날이라. 스물사흘날 달이 비쳔게 경헌디 진기ᄒᆞ고 양림인 오꼿 들어가 불곡 난 헉헉헉 막 뛰어강 막 지쳔 들어강 낭 아래 강 탁 앚안 헉헉 허난 이젠 우리 어머니가 나왕

"아이고 이 미친 년 멧 신디 이 밤이 왓젠."

허멍 막 난리데쓰는 거라.

"어멍 욕허카부덴 왓젠."

허멍 야 땀으로 몸 곰앙이 삼사일 아판 누원. 나. 삼사일 아판 누원. 건디 기신세가이, 바로 그거란 셍이라. 기신세가 처음엔 작다가 내중엔 커. 그냥 막 팔벌기더라게. 아이고 막.

[조사자] 경 헹 어떵 헹 나안마씨?

[제보자] 아니 옆길이난 막 뛰어완.

[조사자] 아니 아파난 다음에 어떵 헹 나앗수과?

[제보자] 아파네. 심방할망 빌러네. 그 세밧디할망 빌렁 뒀세헷어 뒀세헷어. 심방할머니 빌어다가 넋을 디려준 거라. 잡구신 붙엇이카부덴. 경헹 낫앗어. 나흘로 낫안. 나흘. 아파네.

[조사자] 심방할망 이름 뭐마씨?

[제보자] 그 할망 죽어불엇어. 저 세밧디할망이렌 헌 할망이 잇어.

[조사자] 세밧디할망? 여기 종달리.

[제보자] 응. 여기 종달리 살당 죽엇어.

- 핵심어 : 종달리, 올레, 기신세, 할망, 심방, 학교, 세밧디할망

W_F_044 왕의 후사가 된 영의정의 아들

2016년 10월 18일, 조천읍 신촌리 허재군씨 댁, 이현정 조사.
허재군(남, 1948년생, 조천읍 신촌리)

[조사자] 왕의 후사가 된 아이 얘기 골아주십서.

[제보자] 일곱 살짜리 그 아이가, 거, 아버지가 이제 영의정인데.

[조사자] 예.

[제보자] 영의정인데, 거, 왕이, 임금이 후가 엇어.

[조사자] 응응.

[제보자] 후가, 후가 엇언 헌데 그 중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 거, 왕헌테다가 저기를 허기를. 저, 뭐꼬 아니, 그러기 전에, 이, 저, 아이가 하도 그냥 놀기를 좋아허니까. 어, 아버지가 입궐을 하면서, 인제 그, 문제를 하나 냈는데. 좁쌀 한 되를 주면서.

"너는 오늘 놀지 말고 좁쌀 이거를 전부 숫자를 세 놔라."

는 거야. 게, 이 리터. 지금 말허자면 이 리터짜리, 이 리터짜리 좁썰 한 되를 주면서

"이거를 전부 오널 숫자를 다 세 놔라."

게 이걸 세다 보면 하루종일 해도 다 못 셀 거라고 아부지는 생각을 헌 거여. 그래가지구 허니까

"예, 걱정마십서. 다 해 놓겠습니다."

해가지고 입궐을 헷어. 입궐해가지고 퇴궐해서 딱 왕 보니까, 애가 막 그냥 신나게 노는 거야. 그냥 애덜허고, 그 이제.

"아무 거야, 너 집으로 와 봐라."

해가지고 가니깐, 아부지한테 딱 꿀려앚아가지고는.

"내가 오널 좁쌀을 줬는데, 그걸 숫자 세라고 허니까 다 셌느냐?"

"예, 거 뭐 시간 얼마 안 걸려가지고 다 세놨습니다." 허는 거라, 어 이게 이게, 희한헌 일이거든?

"게, 멧 방울이더냐?"

"아 아무 방울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 숫자를 어떻게 셌느냐?"

"아, 그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허는가? 거 푼쳇저울."

푼쳇저울이라면은 이 약 저울이에요 이 ᄋᆞ만헌 거, 푼쳇저울로 멧 방울 딱딱 세 놔가지고 이거를 딱 떠가지고.

[조사자] 아, 예 떠가지고.

[제보자] 응

"떠가지구 이거 한 번 뜨면 멧 개 멧 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세니까 금방 셌습니다. 허니까 뭐 그렇게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허니까는, '아, 이놈으 자식이 도대체 응? 이 나중에는 이놈이 뭐가 될라고 이러는고?' 겐 했더니, 아 어느 날 허루는 인제, 아버지가 입궐을 했다가 저 퇴궐을 해서 와서 그냥 머리에 다가 띠해서 짜메가지고, 누워가지고 입궐도 안 허고 그냥, 막 그냥 고민을 허면서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덜이.

"아, 아버님 에 에, 궐 안에서 무신 일이 있습네까? 뭐에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뜩 차 있습네까?"

"너, 너, 저 쪼메난 놈헌테 내가 얘기를 해 봐야 무신 소용이 있겠느냐? 가서 놀든지 뭐 허든지, 저기를 허라."고.

[조사자] 귀찮으난 설르라 가라, 겅 했구나.

[제보자] 귀찮으니까, 게도 얘가 갔다 또 들어와가지구.

"아버지 말씀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하도 졸라대니까. '아이고, 내가 이래도 죽을 거, 저래도 죽을 거, 게도 아덜헌테 말이라도 해 보고 나중에 죽든지 살든지 해야지.' 해서, 아들한테 허는 얘기가, 세상에 새끼 벤 ᄌᆞ메는 있어도 새끼 벤 우메는 엇다 이게. 우메라믄은 수놈 말이고, 좌메라믄은 암놈 말이거든?

게, 새끼 벤 ᄌᆞ메는 있어도 새끼 벤 우메는 엇어가, 인제 흠, 없는데. 중국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왕한테다가.

"새끼 벤 우메를 구해 와라, 거 새끼 벤 우메 말 ᄒᆞᆫ 필을 이제, 저기 해 놔라."

이렇게 해서 허니깐 왕이 임금이 대신들 앞이서 이러이렇게 아까 말허듯이.

"새끼 벤 우메를 이제, 마련해노라니, 이거를 구헐 방법이 없느냐? 영의정이 알아서 가가지고 이거를 제기를 해 놓으시오."

[조사자] 왕이?

[제보자] 응, 게서 허니깐, 아이 거는 왕도 두렁청 저, 임금 저, 저, 영의정도 들엉 보니 기가 막힌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신들헌티 나도 모르는 거를 대신들안티 이거, 저기를 허라 헐 수도 없는 일이고, 이 노릇을 어떻게 허믄 좋느냐?"

이거여. 겅 헹 아버지가.

"이거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해가지고 입궐을 못허고 있다."

"아이고 아버지, 뭐 그걸로 그렇게 고민을 헙니까? 그거 그렇게 고민헐 거 아닙니다."

"왜 너한테 방법이 있냐?"

"예, 있습네다."

"어떤 방법이냐?"

"내일 아버지가 입궐허는 시간에 아버지는 입궐을 허지 말고, 제가 아버지, 아버지 대신 입궐을 허겠습니다. 아버지 대신으로. 어쨌던 내가 가서 죽으민 아버지가 죽음이나, 이게 제기 안 되면은 뭐, 에, 죽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일단 제가 입궐을 하겠습네다."

"그럼은 그렇게 헤라."

해서 이렇게 다음 날 아침에 이에, 꼬마 아이가 거, 입궐을 헌 거여. 대신덜 딱 있는데, 제일 나중에야 이 꼬마 아이가 들어가가지고, 왕 앞에다가 딱 꿀련 큰 절을 올려가지고 고개를 안 드는 거여, 거니까 왕이 허는 얘기가

"너는 누구냐? 쪼메난 어린 놈이 어째서 여기를 왔느냐?"

헨 허니까, 인제, 그, 꼬마 아이가 고개를 안 들고 이렇게 숙여가지구.

"예, 저는 인제, 영의정 아무가이 자제분 된다."

"어째서 흠, 아버지가 안 오구 니가 이, 이제 왔느냐?"

"예, 저희 아버지는 지금 애기를 베가지구, 애깃배를 맞촤가지구 올 수가 없습네다."

"아니, 이놈아! 말같은 얘기를 해라, 말같은 얘기를 해라. 너의 어머니가 애깃배를 맞춰서 못 온다믄은 어, 말이 되지만은 아버지가 애깃배, 저, 임신을 해가지구 애깃배를 맞촤서 못 온다는 거 말이 되느냐?"

하니깐 아, 얘기 허는 말이 이제, 되받아쳐서 허는 말이.

"세상에 새끼 벤 ᄌᆞ메는 있어도, 새끼 벤 우메가 있을 수가 있습네까? 있을 수가 있습네까?"

해서 그 거기다가 마침 그, 중국 사신이 거기.

[조사자] 거기 있었구나예?

[제보자] 응, 거기 있었데. 그니깐 게난 그 중국 어데서 그거 저기 허는 것도 없는 것이 뻔한 건데, '과연 이 나라에 이럴 만한 인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그, 지금 말하자믄 지금 말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왕헌테다가 저길 헌 건데. 그래서 그 애가 거를 딱 얘기를 허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 이거 이거에 대해서 반문헐 제기가 못되거든? 아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다음날, 다음날을 그렇게

해서 돌아와가지구, 다음날은 갈 적이 얘가 다시 또 아버지 대신 또 간 거여.

[조사자] 응.

[제보자] 다시 입궐을 해가지고, 인제 계란을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거, 임금 자리에 다가 그거 계란을 탁 허게 놔가지고, 자기가 거기 가서 딱 품어서 앞은 거야, 탁 품어서 앞아가지고 임금이 이제 올 시간꺼지 거기. 게서 이제 대신들이 쫙 있는데 애가 거기 강 탁 저기 허니까 앞아 있는데 에, 저

"상감마마, 입시오!"

이렇게 핸 헐 때 야이가 이제, 그 으자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ᄑᆞ리락 ᄑᆞ득ᄑᆞ득 허면서 .

"꼬기오 꼭!"

이런 거여.

[조사자] 무사마씨?

[제보자] 거 얘길 들어봐.

"꼬끼오 꼭!"

이러니까, 인제, 그러면서 그 아이가 거 대신덜 앞에 허는 얘기가 여러 '대신덜은 암탁 소용밖이 안 뒌다.' 이거여.

[조사자] 암탉?

[제보자] 암탁 역헐밖이 안 뒌다 이거야.

[조사자] 아, 암탉 수준밖이 안 뒌다.

[제보자] 응응, 암탁 수준밖이 안 뒌다. 어, 적어도 이 조선에 남자고 나라를 정치를 해나갈 정도면은, 그만헌 머리를 가지고, 지헤를 가져야, 어? 어, 이런 제기가 들어오면은 응대를 해야 헐 건데 그것조차 하나 제대로 응대를 못 허니야, 암탁 소용밖이 안 뒌다 이거야. 응, 그래가지구, 그 아이가 그 임금이 후가 없으니까. 후가 없으니까, 상당히 그, 머리 쓰는 거고, 저기가 이 유능허니까 가이가 거, 그 임금 대신 후임으로.

[조사자] 후임으로 딱.

[제보자] 어,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잡고, 대신들을 다루고 정치를 했다.

[조사자]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거믄 그것도 할아버지한테 들으셨어요?

[제보자] 들엇주, 그럼 것도.

[조사자] 아, 그렇구나예?

[제보자] 응.

[조사자] 겐 기억 진짜 잘 하셤다예?

[제보자] (웃음) 아이 그러니깐 할아버지덜 얘기헐 때 내가 귀에 들어오는 말이 잇곡, 안 들어오는 말이 잇고, 뭐뭐 그런 거겠지 뭐.

[조사자] 그럼 그 얘기를 한 번, 한 번만 해 주션마씨, 계속?

[제보자] 한 번, 한 번 들은 거주 거 뭐,

[조사자] 한 번?

[제보자] 그거 뭐, 그 그, 할아부지가 무슨 헤엿던 얘기 다시 얘기허곡 그래? 혼 번.

[조사자] 지금 말하는 할아부지는 친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거라?

[제보자] 아니, 아니.

[조사자] 그러면?

[제보자] 동네 할아부지.

[조사자] 아, 동네 할아부지.

[제보자] 어, 거 동네 할아버지 가 구학문이 많이 들어 있는 분이라.

[조사자] 예.

[제보자] 건디 거를 써 먹지를 않에, 이 동네서, 이, 제일 구학문이 많이 들어있는데. 돌아가신지 혼 멧 년 되긴 했는데, 또 그 분, 그 할아부지가 목수라 목수.

[조사자] 목수 하시는 분이었구나예?

[제보자] 어, 목수 허시는 분인디, 원래 말이 무거워가지고. 그, 할아부지 형님 집에 그 우리가 밧거리에 살아낫거든? 게서 그 형님 집에 옛날 그 초가집 걷어가지고 쓰레트를 한참 일 때에, 그 할아부지가 어, 쓰레트를 형님 집에 와서 쓰레트를 일어주믄서도 대패를 이렇게 갈면서도, 옆에 나도 앚아 잇곡, 거 할아버지 형님도 앚아 잇곡 허는데. 대패를, 대패가 무끼니깐, 대팻날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봐선 날이 무께 베니깐. 거 쪼끔만 사름 같으믄 나보고라두 저 수돗가에 가서 물 좀 떠다달라고 헐 거 아니?

[조사자] 예.

[제보자] 게, 그런, 그런 것도 말을 안 헤가도 당신냥으로 그냥 수돗가에 가가지구, 거 수돗가에서 그냥, 숫돌 놔가지고 거. (숯돌 가는 시늉을 한다)

[조사자] 본인이?

[제보자] 응.

[조사자] 갈고?

[제보자] 응. 그럴, 그렇게 허니깐, 그 형님이 허는 말이

"저렇게도 말이 무겁는가? 거 나도 앚아 있고, 얘도 앚아 있고, 느도 앚아 있고 헌디, 거 물 좀 떠다주렌 허면은 뭘 거를."

- 핵심어 : 왕, 후사, 영의정, 중국 사신, 새끼 벤 우메

W_F_045 우스갯소리

2016년 12월 14일, 표선면 가시리 한신화씨 댁, 송정희 조사.
한신화(여, 1921년생, 표선면 가시리)

[제보자] 나 ᄀᆞᆯ아난 말이 홀아방이 하나가 살안. 오막살이 헤연 사난 저 거짓말을 잘헤영 거짓말을 잘헤연

"저레 송아지 막아줍서."

헷이민 헐 건디 송아지가 나오란 비들락 비들락허게 저레 ᄃᆞᆯ으난 그 하르방보고

"그 송아지 소리헙서."

겅 허난 이젠 그 하르방은 송아기 소리헙센 허난

"멩."

헌 기라. (웃음) 송아기 막아줍서. 허주만은 송아기 그 송아기 소리헙서. 멩 영 허난

"엣 하르방도 에 송아기 그거 막아주주 원."

"저 사름 그 송아기 막아줍서 헷이민 허주만, 송아기 소리헙서. 허난 나 멩 헷주게." (웃음)

겅 헌 도레가 잇어이.

겅허난 ᄒᆞ나 사름은, 거짓말은 하르방이 겅 잘 헤영그네 엣날엔 불 ᄉᆞᆷ단 내비동 저 궤기 사다그넹에 어디 일허는 디 정심반찬 헹 가주게. 거난, 불 ᄉᆞᆷ다네 나오란

"원 궤기장시가 오람직헌디 원 궤기장시가 아니 오란 원."

"메, 궤기 사젠?"

"예게."

"마 ᄀᆞᆺ사마 영 헤영 마 궤기장시 간 게."

게난, 이젠 불 꺼동 궤기장시를 ᄎᆞᆺ이난 ᄎᆞᆺ아져, ᄎᆞᆺ지 못헨

"저 하르방은 거짓말을 잘헤영."

"아 나ᄀᆞ라 거짓말만 헤렌 허는 거게 거짓말 아니허여게."

겅 헌 하르방이 잇어. (웃음)

- 핵심어 : 하르방, 거짓말, 송아기, 궤기장시, 불

W_F_046 위기 면한 강소은

2016년 10월 16일, 애월읍 유수암리 강충희씨 댁, 문경미 조사.
강충희(남, 1938년생, 애월읍 유수암리)

[제보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위기를 면한다는데, 강소은이란 분이 웃동네 사람 빌어서 밧 갈려고 가는데, 낮 되가니까 궷물에 가서 그 물을 길어다가 점심을 먹겠다고 물 길러 갔는데, 난데없는 벳을 가지고 왔단 말이여.

[조사자] 음. 호미 비슷하게 생긴 거?

[제보자] 예. 벳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거 어디 벳이냐?"

"저기 가다 보난에 밧을 잘 가는데 솜씨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벳이 특별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가져와 버려십주."

"아이고 그 사람 갈던 밧을 어떵 허랜 가져왓수과."

"헐 수 없주."

경 헹 점심을 먹는디 틀림없이 찾으러 올 거다 헹 소은이란 사람이 큰일나겠다. 점심때 된장국 먹으려고 된장을 가져갔던 걸 벳에 불르니까 흙에 닿았던 것처럼 삽시간에 벌겋게 되는 거라.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거 어떤 못된 놈이 밧 갈던 쇠를 세워 놔두니까 벳을 떼어 가져가 버려가지고 어떵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혹시 못 봅디가? "

"아이고 우린 못 봣수다. 요건 아니우꽈." 허니까

"아니, 내 건 허영 흔 거주. 벌겋게 녹슨 것이 아니주."

경 헹 그 사람이 지혜롭게 넘겼다는 이야기.

- 핵심어 : 궷물, 강소은, 궷물, 쇠, 벳, 지혜

W_F_047 잔칫집에 따라간 정읫골 벰조상

2016년 12월 10일, 제주시 이도1동 윤성인씨 댁, 이현정 조사.
윤성인(여, 1930년생, 제주시 이도1동)

[조사자] 응. 그 다음에 그, 토산 벰.

[제보자] 토산 벰, 정읫골.

[조사자] 정읫골.

[제보자] 응.

[조사자] 그 벰이 원래는 거기서 신으로 모셔마씨?

[제보자] 엿날에부떠 거기는 그 베염이, 세계는 베염, 세곈가. 것도 나도 모르긴 모르는데, 남자는 아니고, 아덜은 아니고, 여자는 딸은 나며는 그 베염이, 베염을 모셔야 뒈여.

[조사자] 음.

[제보자] 그면 거기 가며는 그, 베염, 그, 뭐가 할머, 조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럼은 어디 강 살아도, 그 베염을 모셔야 뒈고. 거기에서 또 딸이 나며는, 어디 시집 갈 때는 그 베염이 열 지어서 간덴.

[조사자] 열 지어서?

[제보자] 열 지어서, 그 잔칫집 남자네 집으로 가는데. 어느, 어뜬 사럼이 마데를(웃음) 만들아가지고 막앗데, 그 베염 가는 거를.

[조사자] 아, 그러면은 그, 정의고을 여자가?

[제보자] 어.

[조사자] 시집을?

[제보자] 딴 데를 결혼허는 날에는 베염이 줄져서, 이제 그, 신랑집으로 같이 가는 거야, 그 조상이. 가는데 그 자루를 줘가지고, 이렇게 막앙 서 잇는데. 다 들어가니까이, 이 차루를 묶어놧어. 묶어노니까. 그, 여자집에서는 사럼이 다 죽어가니까.

[조사자] 누가 거기 부모님이?

[제보자] 모르지.

[조사자] 음.

[제보자] 죽어가니까, 연락 허기를 이렇게 이렇게 허는데.
'무슨 일이 잇느냐?' 허니까.
사실대로 말한 거지.

[조사자] 음.

[제보자] 그러니까 그 여자 집에서는 '걸 풀어달라.'고,
"우리 조상이라고."
경 헨, 그렇게 헤서 조상, 그걸 풀어주니까.

[조사자] 아, 풀어줜.

[제보자] 음, 또 다 돌아갓데, 그게.

[조사자] 다, 그냥 돌아간 그쪽으로

[제보자] 어, 자기네, 자기네, 고향으로 온 딜로.

[조사자] 온 딜로.

[제보자] 겐디, 그 사럼은 그래서 괜찮엣는데, 다른 사럼덜은 거 토산 사럼이 딴 디 강 살앙, 그 토산 안 살고, 딴 모양으로 이사 강 살 거 아니?
겨면, 그걸 모르고, 따른 사럼이 이제 그 집이 딸헌테 결혼을 헤여. 거믄 그 베염이 글로 가. 토산이 글로 간다고.

[조사자] 아, 토산이 글로 간다고.

[제보자] 응, 그 딸을 따라서, 귀신이 가.

[조사자] 그믄, 거, 벰, 다른 사람들도 봐집니까?

[제보자] 아-, 그냥, 그, 그, 간 집이 사럼은 만약에 뭣 허믄, 제주도는 올레가 잇거든?

[조사자] 올레.

[제보자] 담으로 다운 올레가, 그 담 고망에다 막, 막 감아졍 잇어. 베염이 큰 베염도 아니고, 작으만씩 헌 베염이, 막 사려지멍 잇어.

[조사자] 응, 막 사려지멍. 그 남자네 동네는 어디렌마씨? 시집 간 남자네 동네.

[제보자] 그 동네는 모르지.

[조사자] 그 동네는 모르고.

[제보자] 우리 작은아부지는, 아, 중문이를 장게 갓는데.

[조사자] 중문이.

[제보자] 중문이를 장게 갓는데, 그런 디를 갓어. 그런 디, 그 집에는 우리 사춘 언니네가, 삼형젠디. 다 그렇게 헷어.

[조사자] 아, 다.

[제보자] 응, 아덜은 나믄 괜찮은, 똘은 나믄 괜찮헌디. 아들은 나믄 죽어.

[조사자] 아, 아덜은 죽어?

[제보자] 아덜은 죽어. 우리 둘째 언니는, 그, 저 뭣고. 화순, 안덕, 안덕면에 우리 형부는 안덕면 직원이고 헌디, 거기를 시집을 갓는데. 우로 딸 둘인가 나고, 밑에로 아

덜을 둘을 낫인디. 첨 나난 죽고, 두 번째 나난 죽어. 게난, 게난 뚤덜은 그걸 알아도, 우리는 죽어도 안 허, 안 모신다. 그렇게 헌 거지.

자기네 어머니만 그렇게 헷어. 우리 그 작은어무니 일칙 돌아가신 후엔 난 뭐 엇고, 나도.

[조사자] 기구나예.

[제보자] 게난, 그 다음에는, 우리 둘째 언니는, 두 번째 아들, 뚤은 둘은 살고, 아덜 둘은 죽으니까. 그 다음엔 우리 언니두, 그냥, 그냥 죽엇어. 죽고, 그 다음에 언니는 딸만 두 개 나고, 그게 안허니까. 그, 막, 그게 좇아완 뭣하난, 일본 갓인디, 그로 후젠 몰라.

[조사자] 그믄은 그, 토산 벰 조상 안 모시젠, 일본으로 도망간 거?

[제보자] 응, 죽어도 안 모신다고, 징그러우니까.

[조사자] 징그러우니까.

[제보자] 응, 그래, 그래서 일본 갓는데, 일본 가고 나고, 나도 또, 커서는 그디, 돌아보지 못허고 허니까, 어떻게 뒛는지 모르는데, 토산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베염이 잇어, 베염.

겐디 그 다음에는 그거, 그러고, 이, 사럼들이, 동촌 사럼들은 그래서 여자, 새각시를 아니허주기.

[조사자] 저, 어디? 정읫고을 사람들?

[제보자] 아니, 정읫골 아니라도 일로 동쪽더레는 사럼들이 결혼허는 걸, 피허여. 싫어허요.

[조사자] 동쪽은 무사마씨?

[제보자] 모르지, 사람덜이 인심이 박허고.

[조사자] 응, 그런 일.

[제보자] 또 김녕드레도 그런 뭐가 잇어, 경허고.

[조사자] 김녕?

[제보자] 어.

[조사자] 김녕도?

[제보자] 김, 김녕은 베염굴이 잇거든? 그래서 그렇고. 이, 조천으로 이 동더레는.

- 핵심어 : 표선면 토산리, 벰 조상, 정읫골, 여자, 딸, 잔칫집, 자루, 베염굴

W_F_048 저승 다녀온 명월리 할망

2016년 12월 10일, 제주시 이도1동 윤성인씨 댁, 이현정 조사.
윤성인(여, 1930년생, 제주시 이도1동)

[조사자] 그 저승 갓다온 할망 그때 얘기 들어낫덴 헷지예?
[제보자] 예.
[조사자] 예, 그 할망이 어딧 할망이렌 헙디가?
[제보자] 멩월 할머니.
[조사자] 한림 멩월?
[제보자] 응, 한림읍 멩월.
[조사자] 음, 그 할머니는 어떵 헨?
[제보자] 그때 막 노인네 할머닌디, 할머니가 살아가면서 웨롭게 살앗던 모냥이라.
나는 그때 젊은 때고 철 모른 때고, 이 할머니는 나이가 많이 잡수고.
경 헌디, 우린 점방허니까, 할무니가 날 찻아와. 경허믄 밥 헹(웃음), 할머니가 데리곡, 할머니가 앚앙 놀믄서. 그때 우리 애기덜은 어린 때곡 허믄 엿날 얘길 헤 줘. 겐디, 아이를 나니까, 아덜을 둘을 묻엇인디. 혼 다섯 설 요섯 설, 일곱 설쯤 나며는 죽더레.
게난, 그때에, 그 당시는 미녕에 파란 물을 들여그네, 두루메기를 헨 입젼 묻엇고렌이. 그때, 그 묻엇는데, 할머니가 죽엇어.
죽엇는데, 가믄서 보니깐, 그 멩월 나이든 양반덜 돌아가신 양반덜은, 책상에 앚안 사무 보는 것도 봐졋고, 다 봐도 모른 체허고. 또 가다보니깐, 당신 그, 아덜네 둘이가 꼿밧디 물을 주더레.
물을 주는데, 철주망은 이렇게 쳐졋곡 보니깐 아덜 둘이 물을 줜, 할무니는 반가웟는데, 본 체도 안 허고. 거난 또 그디서 가다보니까, 강아지가, 히얀 강아지가 헌들헌들 할무니 앞에 나선 걸어. 게난 할무니는 그냥 그 강아지만 따랑 가다가 보니까 다리가 잇더레. 다리가 잇는데, 그 다리를 건너 가다가, 다리, 발이 삐득 허니까 그냥 물로 털어진 거야, 할무니가.
[조사자] 물로 털어젼?
[제보자] 응, 물로 털어젼 또랑으로, 그 물 흘르는 디로 떨어지니깐, 깜짝 놀랜. 것이 깨어나니깐, 삼일동안 죽엇단 살아낫는데. 깨어난 보니깐 막 관에 들여 놓는데. 복장은 ᄯᅳ뚯헌 거지게.
[조사자] 아, 복장은 아, ᄯᅳ뚯허고.
[제보자] 응, 죽은 거라. 죽엇는데, 복장이 ᄯᅳ뚯허니까, 관을 뚜껭이를 못 덖으고 기다리는 거.
[조사자] 식을 때까지예.
[제보자] 응, 식을 때까지. 겐, 깨어낭 보난 그렇게 허더레.
[조사자] 아, 그믄 그, 할머니는 그 후로는 오랫동안 살당 죽엇인가?
[제보자] 혼 멧 년 살앗일 거라. 뎅이단 나이든 할머니난게.

- 핵심어 : 저승, 한림읍 명월리, 할망, 미녕, 두루메기, 꼿밧, 히얀 강아지, 다리, 물, 관

W_F_049 저승 다녀온 우도 할망

2016년 10월 22일, 성산읍 신산리 김옥종씨 댁, 이현정 조사.
김옥종(남, 1924년생, 성산읍 신산리)

[조사자] 우도 할망이 잇어낫우과?

[제보자] 잇엇던 말이주, 오랜 게 아니고.

[조사자] 죽엇단 살아난?

[제보자] 응, 살아난 왕, 그, 재산 돈 잇는 걸 좀 엇는 사름 쪼꼼 풀러줘 둰 간 거지. 게난 저승에서를 너는 돈 벌언 누게 엇는 사름도 안 주곡. 너만 먹고 살앗다. 헷어이, 저, 저승더러 나가렌 헨 살아나온 거라. 거, 꿈에도 그렇게 나오고 허니까, 나완 그 할망이 더러 재산을 이제 좀 엇는 사럼들 ᄒᆞ쏠 줘에.

[조사자] 그때야 저승에, 저승에서 받아줘?

[제보자] 받아줫지. 그런 말이 엿날 말인디, 아주 엿날도 아니지. 요 중간에 난 말인디. 그것도 춤 연구헐 만헌 말이주.

[조사자] (웃음)

- 핵심어 : 저승, 우도 할망, 재산, 꿈

W_F_050 저싱 사흘 이싱 삼십년

2016년 11월 24일, 구좌읍 종달리 송미영씨 댁, 송정희 조사.
고순안(여, 1947년생, 구좌읍 하도리)

[제보자] 이 저 종달리 옛날 옛날 사름인디 아주 옛날에 사삼사건 막 전에 ᄒᆞᆫ 벡오십 년 넘엇어. 벡오십 년 넘어신디, 그 처녀는 처녀는 막 가난허게 살곡 영 헤도 놈을 막 줘. 놈을 주다네 그 처년 죽엇거든.

또 경허곡 그 ᄆᆞ을에 부자 하르방은 막 부제로 살면은 에 장르빗지레 가그네 장르 ᄃᆞ렌 허주게. 빗져 줍센 허면은 이제 말허믄 ᄒᆞᆫ 뒈주면은 두 뒈 받곡 두 뒈 주민 석 뒈를 받앗어. 석 뒈를 받아 노나네. 그 하르방이 죽게 뒈난 하르방 입으로.

"스물넷 시간은 묶으지 말라."

입으로 말씀을 헨 모냥이라. 경헹 스물넷이 사름 죽으민 일곱메 묶으주게. 묶으질 안 현 내불엇어. 스물넷 시간을, 넷시간을 내불엇인디 저승을 가단 가단 간 보난 이제 그 우리 질칠 때 지옥문ᄀᆞ추룩 열두 문에 인정 걸멍 그 어느 문지기에는 뭐가 잇구나 허는 식으로 막 불난 디도 잇고, 막 베움 나오는 디도 잇고 이제 칼헤네 뭐 허는 디도 잇고 그거 넘으멍 넘으멍 넘으멍 간 저승을 갓인디, 이제 그 처녀가 저싱을 간 보난, 막 창고에 쏠이 많이 데메지곡, 하르방 창고에 간. 보니깐 산디짚 ᄒᆞ나벢인 없어. 하나벢인 엇이난

"너 이제 아직 올 시간이 멀엇이난, 가그네 니가 ᄆᆞᆫ딱 장네 받아온 거 다 주곡 경헹 굿헤도그네. 멧 년 뒈건 오라. 응 너가 멧 십 년 ᄒᆞᆫ 삼십 년은 더 살앙 오라."

게난 저싱은, 이싱은 삼십 년이민 저싱은 삼 년이여.

[조사자] 처녀한테 ᄀᆞᆯ은 게 아니고?

[제보자] 아니 아니. 그 처녀는 쏠이 많이 잇언. 데메졋이난, 그디 간 장네 빗젼 허난, 그 처녀가 허는 말이

"우리 집이 가민 막 곤란헷일 거난, 그 걸 헤여그네. 우리 동무덜 살게 헤동옵서." 겡 헹.

[조사자] 하르방한티?

[제보자] 하르방한티 곧고 하르방이 오단 보난, 이제 막 조칲가레기로 막 때렸어. 그 사름을 막 나쁜 짓 헌 사름을 조칲가레기로.

[조사자] 조칲가레기가 뭣과?

[제보자] 엣날 조, 조, 조 남 잇잖아. 그걸로 때리난 그것이 혼 번 때리고 두 번, 그것이 줴를 이제 벗이는 거렌. 저싱 간 헤난 막 때려 가난 멧 번을 때리난.

"너는 이젠 줴를 풀렷다." 경 헨.

[조사자] 다시?

[제보자] 응. 다시 이싱 가렌 허곡 보내곡.

[조사자] 하르방?

[제보자] 응. 하르방 딴 하르방이 경 헤영 보내연 이제 이싱더레 나왓고 지는 이젠 저싱 저 사자가 돌려보내난 거나네 스물네 시간 딱 뒈자 말자. 소앙기 불멍 살아낫거든 하르방이 살아난

"혼저 날 받으라. 아무집이 쏠 앗다다 주라. 아무디도 돈 앗다주라."

경 헤동 굿을 삼데틀어 놩 굿을 헷어. 굿을 헤서 옉을 막안. 경 허난 삼십년을 더 살앗다고 헤. 저싱을 사흘인데 이싱은 삼십년이라.

[조사자] 그 부자 하르방이 처녀.

[제보자] 처녀 집도.

[조사자] 처녀 집도 도와준 거?

[제보자] 응. 처녀도 경 헹 도와주고 그 저 그 저 줴를 벗어나오젠 허난 도와줘 동 나와네 헹헤난 그 후에는 잘 누게 돈 빗지레와도 하영 안 받고 쏠 드렌 헨 가도 하영 안 받고 헹 죽엇젠 그런 역사가 잇어.

- 핵심어 : 구좌읍 종달리, 저싱, 처녀, 부자, 하르방, 저싱 창고

W_F_051 적둑베기 일러분 가마귀

2016년 12월 14일, 표선면 가시리 한신화씨 댁, 송정희 조사.
한신화(여, 1921년생, 표선면 가시리)

[제보자] 겅 허난 유시에 어른 죽을 때 아이 죽곡 아이 죽을 때 어른 죽어이.
게난 옛날에이, 저 하늘옥항에서 적둑베기이, 적둑베기렌 헌 건, 가그네 ᄎᆞ레ᄎᆞ레 아이도 죽지 말곡 청년도 죽지 말곡 이제 우우로 ᄎᆞᄎᆞ 할망 하르방 아덜 손ᄌᆞᄁᆞ지 죽게 허젠, 적둑베길 하늘옥항에서 가마귀신디 보낸 거 아니. 보내난 쿰에 쿰언 풋닥풋닥 이승드레 저승서 이승드레 오단, 물을 잡앐어이. 아이고 물피나 ᄒᆞᆫ 점 얻엉 먹언 오젠, 그레 풋닥 저레 풋닥 놀아뎅기당 보난 적둑베길 일러분 거라. 일러부난

"아이고 이 노릇을 어떵 헤영 좋으코?"

적둑베길 일러부난, 이젠, 땅고낭으로 베엠이가이 멜롯허게 나오난

"나 적둑베기 봐져냐?"

허난, 세 멜롯. (웃음) 그냥 가다가다 ᄂᆞ려오단 보난 청태산 마고할망 나곧이 늙은 할망이 대바지 지어네 소근소근 소근소근 걸엄이난

"요놈이 늙은이나 죽으라."

허멍 발로 탁 차난, 일로 데바지 문짝허게 넘어난 파싹 벌러진 거라. 벌러져 이젠 저 이승 오란

"아이 갈 때 어른도 가라. 어른 갈 때 아이도 가라. 까왁까왁 까왁까왁"

겅 헤 부난 ᄎᆞ레가 엇어. ᄎᆞ레가 엇이 어른 죽을 때 아이도 죽곡 아이 죽을 때 어른도 죽곡, 겅허난 이제 그 고게 오름 문짝허게 넘어난 대바지 벌러지난 그 사름이 죽으면은 귀양냇다고이 귀양. 귀양내민 사름 영 헤영 누워난디 사그망추 헤영 살성ᄃᆞ리헤영 사그망추지. 대바지 벌러진 거나 허벅 벌러진 거나 항 벌러진 거나 헤영이, 영 누워난디 와싹와싹허게 쌀셍ᄃᆞ림이라고이 이디도 발 가난 디 머리 가난 디 그 법으로 쌀성을 드리는 거라. 그 할망 고게 넘어난 벌어난 걸로. 그 법으로.

[조사자] 쌀성?

[제보자] 응?

[조사자] 쌀성?

[제보자] 어. 쌀성. 쌀성ᄃᆞ림이렌 허죽. 굿헤영, 굿헤영이. 굿헤여그네게 발 가난 디 머리 가난 디 쌀성ᄃᆞ림이렌.

- 핵심어 : 하늘옥항, 적둑베기, 가마귀, 물피, 베엠, 청대산 마고할망, 대바지, 쌀성ᄃᆞ림, 귀양, 굿

W_F_052 전생 업보로 만난 남편

2016년 10월 18일, 조천읍 신촌리 허재군씨 댁, 이현정 조사.
제보자1: 허재군(남, 1948년생, 조천읍 신촌리)
제보자2: 전옥순(여, 1953년생, 조천읍 신촌리)

[제보자1] 그 어느 두 부부가, 두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거는 내가 그, 절간에 갔다가 잠시 그, 설법을 헐 때 거, 좀, 좀, 거, 잠시 들은 얘긴데, 들은 얘긴데.그, 두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하널에 해 박은 날은 이 남자가 집에 술을 먹곡 들어와가지구, 마누라를 계속 때리는 거여, 마누라를, 마누라를. 그래가지구 허니깐, 어느 날 ᄒᆞ루는 인제, 남편안티 그냥 뚜드려 맞아가지구, 앚아가지고 인제는 다리 이렇게 벋어가지고 앚아서 우는데, 이제, 권제 받으레 다니던 스님이 그 집일 들른 거여, 딱 들런, 들리니까, 인제.

"시주 왔습네다."

이렇게 목탁치고 저기 허니까, 인제, 거, 시주를 주면서, 그 부인이 이제 시주를 주면서, 인제, 스님헌테 허는 말이.

"스님, 나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허구헌 날 하늘이 해 박은 날은 남편헌티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살어야 됩니까? 이거를 피헐 방법이 엇입네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스님이 허는 얘기가 (기침) ᄇᆞ름달이 터 오는 날, ᄇᆞ름날, ᄇᆞ름달 이렇게 터 올 때에 (기침)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아 놓고, 평풍 쳐 놓곡, 거, 집 비는 세 있잖여. 초집 비는 세. 이거 한 뭇을 이제, 거, 딱 세와 놓고, 거기다가 남편 올 때까지 계속 절을 하고 있으라 이거여.

[조사자] (웃음) 네.

[제보자1] 세, 세, 셋단에다가 그, 저, 절을 허고 있으라. 그래가지구 허니깐

"아, 그러면 무슨, 제이가 됩니까?"

"그거를 허면은 알 ᄃᆞ리가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구 스님이 인제 가 버리니깐 ᄇᆞ름날이 기다려가지고 ᄇᆞ름날 딱 되니까 ᄇᆞ름달 터 올 무렵에, 마당에다가 이제 멍석 깔아 놓고, 평풍 쳐 놓고, 거 셋

단을 갖다 놓고, 계속 거기다 절허는 거여. 절허는데 남편이 이제 저녁 무렵에, 거, 진탕 술 마셔 가지구, 비틀비틀거리믄서 들어와서 보니, 기가 막히거든 이거, 이, 이 여자가 이거, 미쳐도 단단히 미쳥 해야지, 마당에다 멍석 펴 놓고 평풍 쳐 놔서 셋단에다, 셋단 세워놔 가지고 셋단에다, 절 허는 놈을, 응? 이거, 미쳐도 단단히 미친년이다. 그래가지고 그, 셋단으로 그냥, 복삭 때린 거야 마누라를. 복삭 때리난 셋단이 다 부서진 거 아니? 게, 다 부서지니깐, 인제 때릴 기구가 없으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 부린 거여.

방에 들어가가지구 해서 다음날부터는 술도 안 먹고, 마누라도 안 때리고, 이거 희한헌 일이거든? 그래가지고 인제, 이 부인이, 물어 물어 그, 인제, 그 스님이 있던 그. 암자를 인제 찾아 간 거여. 찾아가가지구.

"스님이 헤 주신 대로 인제, 허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그런 일이 없읍네다. 이게 원인이 뭡니까?" 해서 물어봤더니, "전생에, 전생에, 그 남편이 당신 에, 집에 소로, 소로 환생헤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소를 인제, 밀때 그냥 계속 걸어가는 소를 부인인 당신이 일 엇이 소를 훼초리로 계속 때렷다."는 거여.

[조사자] 아, 전생에.

[제보자1] 응, 전생에. 계속 때려가지구 허니깐, 그, 셋겁 수정이 매 숫자다 허는 거여. 그거를 흔번에 이제 다 그 숫자를 그걸로 셋단으로 전부 부서질 때ᄁᆞ지 맞앗으니깐, 그 빚을 그걸로 다 갚았다는.

[조사자] 그래서 안 때린 거구나?

[제보자1] 응.

[조사자] 전상이구나?

[제보자1] 전?

[조사자] 전상이주 뭐.

[제보자1] 응, 전, 전생에 그런 그, 죄를 그렇게 범헤가지구, 계속 소를 그렇게 때렸다고 해가지구.

[조사자] 건 언제 들으션마씨?

[제보자1] 아마, 으고는 흔 내가 저디, 구도헌 지가, 흔 열대, 열대섯 살 정도 된 때.

[제보자2] 오십년도 넘었지.

[제보자1] 응.

[조사자] 오십년 넘언마씨?

[제보자1] 응, 열대섯 살 정도.

[조사자] 절에?

[제보자1] 응?

[조사자] 어디, 이거 아까 절에, 절에서 설법할 때.

[조사자] 어디 절마씨?

[제보자2] 저.

[제보자1] 미륵부처님이렌 헨 절이 있어.

[조사자] 아, 기마씨? 거기서 설법하실 때, 아 설법할 때, 스님헌테 들으신 얘기지예? 스님이 설법할 때?

[제보자1] 아니.

[조사자] 본인이?

[제보자1] 스님이 아니고, 우리 그, 미륵절에는 스님은 없고, 거기에서 좀, 그, 직위가 좀 높으신 분, 또, 그, 이런, 그, 저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헌 분, 그런 때 그, 저, 설법은 아니고, 거, 설법을 헐 때는 그, 저기 앞에서 다 불 켜져 있는 상태서 허는디, 걸 엇엔 다음에, 인제, 앚아가지고, 이제.

[조사자] 그냥 도란도란 얘기허는 식으로.

[제보자1] 응, 응. 헐 때, 응. 그래서, 전생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술을 좋아허는 사름이며는, 이제, 저 세상에 가면은 물고기가 되가지고 실컷 들여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인저….

[조사자] 거믄 거기서 설법하시는 그 스님은 제주도 사람마씨?

[제보자1] 어, 제주도 사름.

[조사자] 아, 제주 사람.

[제보자1] 제주 사름.

- 핵심어 : 두 부부, 스님, 시주, 전생, 셋단, 절, 남편, 미륵부처, 인과응보, 설법

W_F_053 젊은 남자로 둔갑헌 도체비

2016년 11월 23일, 한림읍 월림리 고정녀씨 댁, 이현정 조사.
고정녀(여, 1939년생, 한림읍 월림리)

[제보자] 이제 병원에 갓젠 헌 할망은 어디 시 똘네 집이 강 오단에 헤낮이도 젊은, 젊은 남자가 탁 어깨 두두리멍이? 어깨 두두멍.

"삼춘 어디 값우과?" 허멍 허난.

"난 저 귀덕이옌 헌 디 가맨."

"나영 ᄀᆞ찌 그릅서."

"경 허주."

막 경 허멍 ᄀᆞ찌 가넨헌 것이 헛사름인가 나신ᄀᆞ라이. 어 차부옐 (불청) 싣거다 주켄 헤도 간 올 만헤신디 원, 차부가 안 나완. 제주 차부 저, 요 서중 그래 와그네, 찰, 시외버스 탕 오젠 헌디, 그 노형산 완 그디도 쪼끔 멀주만은, 할망은 또 춥 경허젠. 경 헨, 원 차분 안 나오곡 어떵헌 일이고 헷인디, 어떤 헤진 철 몰른디, 다 어둑어가고. 훈 다섯 신가 미깡 탈 때난 이때 ᄒᆞ꼼 넘엉이라, 미깡 거저 타고 한 때는, 어디 저, 광령, 광령이옌 헌 디.

[조사자] 애월, 저쪽에예?

[제보자] 애월 우에이, 광령이옌 헌디 그디 질레에 영 드러누웡 시난, 어떤 여자가 가멍.

"아이고, 이거 어떵헌 어른이꽈? 파싹헌디 이디 영 누웟수과? 큰일 날 어른이여, 큰일 날 어른이여!"

그땐 정신 난, 눈 턴 보난 질레에 누웟젠게. 겐 질레에 누워지난에.

"아고, 날 살려줍서 날 살려줍서."

"어딜, 어딜 갈 어른이꽈?"

"난 아멩헌디 가난 택시 불러 주라."

택시 탕 이젠 귀덕 오젠이?

"택시 불러 주라."

허난, 택신 불르난 거 아무덴 골으난 갓어렌게. 겐 가난 집 오란 돈도 보겠대

에 셔도 집이 오란 돈 어디 잇인 것도 몰르고, 돈 꿔단 물고 헷인디 그로후엔 할망 막 아판, 놀렌 굿도 허고이.

[조사자] 굿도 하션마씨? 도체비 때문에?

[제보자] 게 헤낫지. 경 허연이 그 할망 돈 많이 썻어. 넋드리레 간, 저 넋 굿당이옌 헌디 어디 시에 그디 간 넋드렷어. 돈 막 하영 내서 헤낫어. 근디 지금은 그런 거가 엇는디, 그 삼춘은 어떵 헨 막. 날이 ᄒᆞ꼼 축축헌 날이고 헤렌 헨게, 그 (불청)으로 계속 아팡, 막 허멍 허단, 이 태풍 올 때 또 놈이 집이 문 덖어도렌 허난 문 덖으레 밤이 갓단에, 그 가에당 ᄒᆞ꼼 영 헌 집이엔 허난. 그 가에당(계단)을 발을 잘못 디딘 셍이라게, 파들락 헹 탁 드러누우난 발 어떵 허연 다쳔게. 경헌 것이 한림 저 벵원에영 간, 영 임시 기브스 저 뭐 붕대 감는 거 그런 걸 헨. ᄒᆞᆫ 일주일 뒌 후에도 안 좋아가난 또 다른 벵원에 가난이? 기브스허렌 헤연.

[조사자] 아, 기브스허렌 헤연.

[제보자] 겐 기브스 일주일 헨, 기, 기브스 일주일 헨 푸난, 또 낫지 안 혀난 안 낫앙 어떵 하믄 존넨 헹 가난에, 큰벵원 가랜. 큰일나켄 이 할망 게, 이, ○○벵원 간 수술헤연. 수술헨 지 이제 ᄒᆞᆫ 둘 넘엇어.

[조사자] 게믄 그 도체비 만난 후로 계속 경 몸이 아프고, 다치고.

[제보자] 응 자꾸 아파 이게, 다치곡게, 아파. 다친 것두 이거 멧 번이라. 당신냥으로두 지네 집이서 무시거 높은 디가 선 이런 디 무시거, 영 끌안 앚은 방석 ᄌᆞ글락헌 것이 잇느녜이? 거 끌안 산네 올라산 허단 또 파들락이 넘어전에 다리도 삐언에이? 경허고 헤낫인디 요번에도 또 경 하고게. 겐 이제 벵원에 입원헨 엊그제 나도 강 봣인디.

- 핵심어 : 도체비, 둔갑, 젊은 남자, 굿, 넋드림, 축축헌 날, 애월읍 광령리

W_F_054 족은뚤과 마퉁이

2016년 12월 7일, 구좌읍 종달리 김보배씨 댁, 송정희 조사.
김보배(여, 1939년생, 구좌읍 종달리)

[제보자] 뚤을 난디, 이제 큰딸 족은딸 셋딸 영 헹 뚤을 세 성제가 난디, 큰뚤은 불런.

"너 누게 사냐?" 허난

"난 어머니 덕에 아버지 덕에 삽니다."

큰뚤은 그렇게 굴앗다 허여 큰뚤은 그렇게 곧곡, 셋뚤도 불르난 마치 그렇게 언니 곧는 대로 곧는 거라. 허난, 족은뚤은 불렁 굴으난

"난 어멍 덕에도 안 살곡, 아방 덕에도 안 살곡, 난 나 베또롱 아래 선그믓으로 살앐우다."

족은딸이 경 허난 이젠 어멍 아방덜이 이제 뚤 입어난 옷 시 설적에 입어난 옷 멧 설적에 입어난 옷, 몬 설렁 나가렌 족은뚤을 내쫓겨 볏다 헤여 내쫓가 부난 이제 족은뚤은 나간 거 아니? 나가난 이젠 그 족은뚤이 나가 부난 오꼿 아방덜이 거지가 뒈 분 거라. 어, 거지가 뭬 살 형편이 아니라. 이젠 게난 그 뚤은 그 옷을 져네 산천으로 가노라 가노라 허난, 어디 그 산천에 불이 베롱헌 디가 잇어. 잇이난 그딜 들어간 모냥이라. 들어가네 영 간 보난 쪼끌락헌 오막살인디 아무도 엇고 할망 혼자만 잇어. 할망 혼자만 잇이난

"아이고 이거 넘어가단 이 나그네 ᄒᆞ쏠 이 집이라도 요 무뚱이라도 빌려주라."

"어디랑 우리 큰마퉁이 궁둥이 뒈고 어디랑 우리 족은마퉁이 궁둥이 뒈고 빌려줄디가 엇다."

"아이고 겅 헤도 요디 ᄒᆞ쏠만 빌려만 주라."

하도 허난 이젠, 어디 정제구석인가 어디 빌려줘던 모냥이라. 빌려주난에 빌려줭 영 보난, 산천이라노난 엣날에 아덜은 그 할망은 세 변이냐 두 변이냐 마만 파당 먹어노난 솟이 솟이 아니라, 게난 이제 그 사름이 밤이 영 솟을 강 올앙 보난, 원 기가 차는 거라. 경허난 이젠 그 사람이 그 삼시세낀가 뭔가 걷어당 밤이 그 솟을 다 닦앗다 허여. 닦안 쏠 놔네 이젠 밥을 헤연 그 큰아덜신디 들렁 가난

"넘어가단 질간나이, 어디 간 버렝이 밥 헹 왕 지ᄀᆞ라 먹으렌 핸덴 안 먹켄."

(웃음)

그 밥을 안 먹언, 돌려분 거 아니, 돌려부난 셋아덜도 헤 가난 경 굴앙 꼭 언니곧은 듯 굴아네 안 먹은 거라. 족은아덜은 헤다 주난 막 막 맛잇게 그 밥을 먹어. 밥을 먹으난에 아, 아시 먹어가난 성이 막 불뢋던 모냥이라. 먹고판, 경허난에 영 사람이 영 보니깐, 그 마 파 먹으멍 그 돌 앗아단 젠 것이 그 사람 뚤 눈엔 다 금으로 보이는 거라. 응 금덩어리로 금덩어리로 다 보이는 거라. 돌덩어리

가. 게난 이젠 장 돌아오면은 그 딸이 여자가 그 족은아덜ᄀᆞ라

"하나 앗안가그네 풀앙 오라."

"그거 얼마 받아오민 뒈여?"

"가그네 둘아진 것만 주렌허라."

이것에 금을 치지 말앙 둘아진 금만 주렌 허민 사 가는 사람들이 알아그네 그 돈은 줄 거렌, 아 이젠 돌을 하나 앗앙 강 아 그걸 이젠 풀레 가니깐 돈을 지엉 올 수가 엇는 거라. 지엉 올 수가 엇언. 이젠 그걸 헹 어떵 헹 가졍 오난 아 이젠 이 돈을 어디서 낫이넨 허난에 이 돈을 어떵 헹 벌엇이네 막 그냥 동네 사름이 경 굴은 생이라. 경 굴으난 경헌 것이 아니고, 이제 나가 나 복이 많허니깐 이 담 둘레 놔진 것이 나 눈엔 다 금덩어리로 보였인게 경헤그네, 그땐 그 족은아덜이영 이젠 결혼사 헹 살앗인디, 사노렌 허난 막 어멍 아방덜이 거지가 뒌 거라. 거지가 뒌 허난 그 뚤이 잘살아가난

"ᄒᆞᆫ번 우리 거러지 잔치를 허게. 거러지 잔치를 허면은 이제 혹시 거러지덜이 다 올 거난, 거러지 잔치를 허게."

응 거러지 거러지 잔치를 헷다 허는 거라. 이제 일년가 메칠을 거러지 잔치를 다 허난, 원 세상 거러지는 다 와도 지네 어멍 지네 아방은 안 와. 안 오난

"아이고 우리 어멍 우리 아방은 죽엇구나."

죽엇구나 헤네 이젠 잇이난, 막 날 설르는 날은 영 보난 할망 하르방덜이 손심곡 작데기 짚으곡 헹 막 들어와 들어오는 거 보난 지네 어멍 아방이라 게난

"저디 오는 사름이랑 저디 오는 하르방이랑 밥이곡 국이곡 물이곡 ᄒᆞᆫ 직도 주지 말라."

그 뚤이 종덜ᄀᆞ라. 주지 말렌 허난 그 물을 안 줘 이제 그 할망 뭐하지 안 혓수과? 손님덜 다 가 부난 할망 하르방덜은 이젠 방으로 모신 거라. 뚤이 이 할망 하르방덜 다 몸 모욕을 시키렌, 종덜ᄀᆞ라. 모욕을 시키렌 허난 이젠 종덜은 그 사람 ᄆᆞᆫ딱 다 모욕을 시켠 이젠 옷을 헤다네 세 옷을 헤단 바짝 입져네 이제 할망 하르방덜이 앚인거 아니, 앚어네 이제 밥을 이젠 잘 출령 밥을 헤 온 거라. 어멍 아방나시 종덜이 헤여 오난에 그 밥을 영 허젠 허난 아이고 난 정말로 응, 줸 아무 줴도 엇노렌 게난 그 뚤이 저 할망 하르방덜 엣말이나 하나 굴읍센 그 밥을 먹으렌 앚이니깐 엣말이나 하나 굴으렌 허난

"난 들은 말도 본 말도 엇수다, 들은 말도 본 말도 엇인디 뚤 세 성제가 난디, 큰딸도 이제 어머니 아바지 덕에 사노렌 허곡, 셋뚤도 어머니 아버지 덕에 사노렌 헨 족은뚤은 이녁 베똥 선그믓 아래로 사노렌 헨 내쫓가 부난 우리가 이렇게 거지가 뒈어네."

"어머니 아버지 나 얼굴을 ᄒᆞᆫ 번 봅센."

겅 헹 보난 딸이라. 겅 헹 살앗덴 헙디다만은 뭐 엣말은 우리 할망 하르방 잇일 뗀 많이 들엇주만은 다 잊어비연 엣말 굴아지크라.

- 핵심어 : 족은뚤, 마퉁이, 복, 금, 거러지 잔치, 마, 베또롱 아래 선그믓, 큰뚤, 셋뚤

W_F_055 지붕우티 하르방

2016년 12월 14일, 표선면 가시리 한신화씨 댁, 송정희 조사.
한신화(여, 1921년생, 표선면 가시리)

[제보자] 예펜 할망이 막 힘이 쎄여. 힘이 쎄니깐 또 남ᄌᆞ 하르방은 조그만헤여. 응. 조그만헤난에, 하르방이 할망이 하르방을 심어네 지붕 우터레 훅 앗안 데낀 거라. 경허난

"하르방 무사 그 지붕 우이 올랏어?"

허난

"호박 ᄐᆞ레." (웃음)

할망 쎄연 데껴 불엇지만은 부끄로완. 게난

"무사 그 지붕 우이 올랏어?"

"호박 ᄐᆞ레." (웃음)

- 핵심어 : 할망, 하르방, 힘, 호박, 지붕

W_F_056 청나라 황제가 된 부씨

2016년 11월 20일,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 이현정 조사.
오문복(남, 1938년생, 성산읍 신풍리)

[제보자] 이제, 산소를 잘 쓰면은.

[조사자] 산소를?

[제보자] 응.

[조사자] 봉분예?

[제보자] 산엣 산소를 잘 쓰면은 아주 좋은데 쓰면은 왕후지지라고 헷어, 왕이 나. 그 다음에는 장산지지라 두 번째 좋은데 쓰면은 정승, 판서가 나요. 세 번째 이제 문필봉 좋은 데 쓰믄은 과거에 급제허는 사름이 나는 것이요. 착헌 일을 많이 헤야, 착헌 일을 많이 허면은 자연히 그 사름에게는 좋은 땅이 돌아가서, 발복을 허게 된다 이거에요.

[조사자] 그믄 어떵 헨 왕이 뒀인지, 여기서는….

[제보자] 왕이 된이 어떻게 됐냐 허면은, 삼대 적선을 헷어. 뭐라 그러냐믄 이제 어부를 허고 살았는데.

[조사자] 어느 동네에서? 어느 동네라고는 얘기 안 헙디가?

[제보자] 건, 어느 동네 몰라. 어부를 이제 허고 살았는데. 예전이는 어부들이 다 하찮은 신분이거든요. 보자꾼이라고 헷어. 아, 그랬는데 이저, 그, 어부를 허고 이제, 어부로 이제는 살았는데. 이따가 그, 제사 먹을 때 고기 살 돈이 없어서 허는 집도 있는 거 아니요? 그런 집 잇으면은 그냥, 고길 그냥 공으로 줘. 공으로 줘. 딴 거 큰 봉수는 못허더라도 내가 직접 가서 낚아 오는 거.

그 동네 이제 또 예전에는 이제, 노인덜이 벵들어가지고 뭣헷어. 허면은 이 음식이 이, 저, 뭣허고 허면은, 그 이제는, 고기나 그런 거 필요헌 거 아니요. 그런 집에는 그냥, 그냥 자기가 그냥 고기를 낚아다 줘. 이, 저, 공으로 줘 공으로, 이게. 그래 이제, 근디 찢어지게 가난, 그러니께 고기 풀아다가 매날 풀고 장사를 허고, 걸로 밥벌일 헤야 되는데, 그래 남 많이 줘 불고 자기는 좀 갖곡 허니께 언제나 이제 생활이 궁핍헐 거 아니요? 거, 이제는 그래도 그자 그리헷어. 그니까 그 아덜도 그렇게 허고, 이제 손자고 그렇게 허고.

[조사자] 음, 삼대네예? 삼대.

[제보자] 그러니까, 동네 사럼들이

"아, 거, 엣날부터 적선을 허면은 아 자손이 발복돼서 잘 된다고 허는데. 아, 원 저집이는 정말로 아, 원, 아 그리 적선을 헤도 원 저리 춤말로 가난을 못 멘헨 사니까는 아이고, 공자님 말씀도 거 거짓말."

이라고 으렇게 그 농담을 헷어, 했는데. 아, 거, 손자가 바다에 나가가지고는 풍랑 만나가지고 죽어불엇다고, 그러니께 사럼들이.

"아니, 그렇게 적선헷어 그렇게 착헌 사름이 제 집에, 아이, 저런 이제는 불행을 당헤서 안 됏다고."

이제 으렇게 했는데. 거, 이제 적선을 허니까는 바다에 가서 이제, 풍랑을 봐서 죽으니까는 아 시체가 이제, 땅바닥으로 가라앚을 거 아니요? 그런데 그 이제 그, 딱 갈아앚은 데가 왕후지지에 깔아앚은 것이요, 지금. 시체가. 아, 그래서 이제 그르니까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말이고, 하이튼 게, 그리….

[조사자] 죽엇어.

[제보자] 죽어서 이제 물이 빠져서 허니까 이제 울고불고 허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는 뭣이냐, 이제, 그, 시신을 못 찾으면은 초혼장이라고 헤가지고 이제 혼을 불러가지고, 뭐 무덤을 만드는 데도 있고, 그냥 요렇게 비석두 세우고 이제 그리해요. 요 사름이 그래서 이제 그 초혼장을 이제는 했는데. 초혼장을 했는데, 이제, 그 부씨요. (불청) 그랬는데 이제, 그 이제, 아까 말헌 대로 좀 이제 그, 신분이 높지 안현 그 이제 허니까. 그 바다에서 죽은 사름 아덜이지, 이제 증손자가 증손자가 이제, 공불 헤가지고 이제, 신분이 낮으니까, 과거에 급제는 안 혓고 이제는, 이, 통역관 중국말 허는 역관이 된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아, 이제는 사신을 따라서 흔 번 이제는 그, 이제는, 에, 중국에를, 이제는, 이제, 갔어. 중국엘 갔는디. 요 하나있, 큰 것 일댄디 요걸 합치면은 요거 부(夫) 아니요?

[조사자] 부죠.

[제보자] 부죠이? 아, 중국에를 이제, 그 이저, 사신으로 이제는 가서 이제는 통역으로 따라가니깐 높은 신분이 아니니까, 뭐 고관대작 집에는 가질 안 혀고, 그뜬 이제는 신분 이제 가진 집에 가서 유숙을 헷어. 이제는, 살았는데. 아, 이제는, 우연치 않게 이제는, 그 이제는, 그 집에가 이제, 이제.

"제사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음식도 체리고 뭣도 체리고 요렇게 헷어 그래서.

‘아이, 중국 제산 어쨌는가? 흔 번 이제는, 그, 좀 이제는, 이제, 구겡헤야 뒈겟다.’ 마음 먹고 있는데, 요 양반이.

“신분은 낮지마는 어, 이제는, 거, 우리는 이제 그, 이제, 우리 조상이 이제는, 이제는, 저기 뭣이냐. 이제, 우리 집에는 그 제사를 왕의 예법으로 허는 때문에.”

왕의 예법은 절이 달라요. 우리는 요리 서면 요기서 절을 허지만은, 요렇게 옆이 서서 요렇게 절을 허는 거요, 원래 예법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째서 이젠 당신네가 이제, 왕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신은 성이 뭐냐?”

그니깐, 성이 두 글자가 일대(一大)래요. ‘자기네 성은 일대.’ 라고.

[조사자] 일대? 음, 부씨다 이 말이구나.

[제보자] 일댄데, 이제는 일댄데, 이, 저, 어디 자기네는 지금,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신분은 아니지만은 자기네 이제는, 웃대 고조 할아부지가 이제는 그때부터 성씨를 일대라고 썼는데. 이 구슬 옥자.

[조사자] 구슬 옥.

[제보자] 응, 우리 이제는 그, 할아부지가 이젠이 옥도라고 허는 섬에서 이제 처음에 태어났는데, 옥도에서 섬에서 태어나서, 이제는, 처음에는 그 ᄀᆞ을에 자사가 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왕이 뒀는데.

[조사자] 뭐가 뒀다가마씨? 원래는?

[제보자] 왕이 뒀는데. 왕 되기 전에는 이 옥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옥도에 이제 우두머리가 뒀다가, 왕이 뒀는데 어떵 헨 뒀냐 그러면은 아 섬이 사니까 이제는, 그 이제는 뭣이냐, 중국도 아마 우리나라 모양으로 섬을 하찮게 봤던 모냥이라, 그래서 아.

“나는 평생 소원이 섬에를 살지 말고 좀, 땅 넓은 곳을 가서 흔 번 돌아다녀서 이제는 섬에 사는 그 천한 이름을 벗어야 뒈겟다.”

헤서 이제는 중원으로 갓는데, 중원에는 말도 모르고 또 이제 부칠 수가 엇어. 이제, 그래서 또 올라가는 것이 이제는 만주여.

[조사자] 만주.

[제보자] 응,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왕이 뒈가지고 이게, 이게 청나라라 그 말이여. 그래서 이제 퉁천자라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는 퉁천자가 뒈엿는데. 이제는, 그니께 이제, 왕이 뒌 그 할아버진 허고는 이제는, 그니까 이제, 두 번짼 아덜을 이제 왕자를 물려주면서

“사름이 자기 조상 근본은 잊어버리지 안 혀니까, 우리 조상은 그렇게 신분이

높은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큰아덜에 큰손자 아덜만은 다신 중간 신분을 가지고, 제사는 왕이 예법으로 헤서 헌다."

"아, 그래서 춤 성씨도 귀허다."

가만 생각헤 보니깐은 요, 요, 요, 이제는 일대가 요 부씨여, 부씨.

[조사자] 부씨.

[제보자] 응, 그래서 '아, 우리 이제는 그, 이제 옛 할아부지가 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물에서 돌아갔으니까 거기서 헐 뭣은 아니고 거, 춤 이상허다.' 요렇게 헷어. 이제는, 그 이제는, 중국 이제 그, 점 아주 잘 짓는 데 찾아가가지고는.

"내가 부씨고 여기와서 보니까, 부씨가 뭣헤서 왕이노라고 헤서 뭣허고. 자기네 조상 위헤서 헌데. 아,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예전에 아, 어부를 허다가 바다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아, 중국에 건너왓다는 말은 없는데 혹시며는 중국에 건너오지를 안 했을까?"

아 그 말은 안 허고 이제, 그래서.

"돌아가서 우리가 장ᄉᆞ도 지내고 제사도 허고 요래서 아, 흔데 아, 여기 대, 일대 부씨가 있는 것이 춤 그 이상허다."

이, 그, 점쟁이가 이제 아주 상통천문허는 점쟁이가 탁 보니까는.

"아이고, 그 양반이 그때 빠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물 속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땅이 이제 임금날 왕후지지로 빠졋어, 그래서 헌데, 아 그냥 이제, 남해용왕에서 아 이 사름 뛰어난 사름이 여기 올 사름이 아이고 내보내라고 헷어, 내보내서 이제는, 그, 만주로 가가지고, 지금 이제 왕이 뒛어, 아마 당신네 조상이 크게 아마 적선을 헷어, 그 이제는, 당신네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는, 요 퉁천자가 뒛다."

고, 퉁천자는 뭐 천천자라는 말이요, 지금. 그래 거, 부씨라 그래.

우리 제주도 부씨가 그랬다고 그래. 근데 그 중국으로는 이제 그, 일대, 그 중국서는 부라고 아니 혀고, 성이 두 글자 성이 일대 씨라고 허고.

- 핵심어 : 청나라 황제, 부씨, 산소, 왕후지지, 발복, 삼대 적선, 보자꾼

W_F_057 콩데기 풋데기

2016년 11월 9일, 구좌읍 세화리 조흥순씨 댁, 송정희 조사.
제보자1: 김순자(여, 1947년생, 구좌읍 세화리)
제보자2: 조흥순(여, 1924년생, 구좌읍 세화리)

[제보자1] 콩데기 풋데기 무신 헤그네, 이제 콩주 어머니 어멍은 죽어불곡 제주도 말로 죽어불고, 또 이제 작은 이제 어멍 헤오니깐, 콩주는 자갈밧만 메렌 허곡, 풋주는 밧 메는 것도 막 애기 ᄒᆞ나 데령 왓어. 그 작은어머니가 데령 오니깐, 그 밧도 막 그냥 이 흑땅에 존 존 존 디만 가서 모살밧디 메렌 헷인디, 이제 저 그거 그런 말 헷주게. 또 크니깐 저, 잔치집일, 자기네는 콩주허고 풋 어머닌 데령 가고, 또 콩주만 내비동 가멍, 물을 이제 항 그득허고 멩지 두 필인가 짜곡 헤 동가렌 헌 거라. 난 몰르크라. 잘. 가렌 헷인디 그 멩지는 이제 저 뭣고 새 새가 왕 짜 줘덴 헷인가? 허곡, 또 나룩 넌 건 이제 다 이제 벗겨동 가렌 허난, 새덜이 이젠 나룩은 다 벗겨주곡 날아왕, 이제 막
"이 새 저 새"
다 울려가난, 이제 막 놀아놔 부난에, 새가 날아강 보니깐 다 까졋어. 쌀이 다 까지고, 물도 이제
"구렁질라. 구렁질라."
막 헷덴 헌게, 허단 보난 두꺼비가.

[제보자2] 구렁질라는 그 터진 허벅에 물.

[제보자1] 항아리 터진 거에, 항아리.

[제보자2] 경 허난게 그 구렁질라 허는 거게.

[제보자1] "구렁질라. 구렁질라." 허단 보난 또 두꺼비가 그것이 그 밑에 이제 그 막 저 터진 딜 막으니깐 물도 까득 질언 가다가 이젠 아이고 이젠 옷은 입어 갈 거 엇언 어떵 헹 허당 보난, 옷도 이젠 그 비단옷 허곡, 신도 꼿신허곡 그거 어디 잇어. 간 보난에 그거 헹 신고 가당 보난에 그거 신 한 짝을 냇가에 빠뜨린 거라. 빠뜨려 동 이젠 간 보난 잔치도 다 끝난 와 불곡 헷인디.
이제 사또가 잔치 끝난 가가 보니깐 신은 한 짝을 주운 거라이. 주워그네 이제 그 신발을 찾지 못헨 신발을 찾으레 한 삼일 잇다가 온 거 아니. 말 타그네 오니깐 이젠, 팥지 어멍은 이젠 자기 똘 데령 강 자기네 똘 거렌 허멍 똘 거렌 허멍 콩지는 오지 못허게 허곡 신이 발에 맞앗지. 거난 이제 그 피, 발 막 피 막 발가락 이제 다 막 끄치멍 헤도 안 맞앙 허난 이제 내중엔 이젠 콩주가 나 왓인디 신어보렌 헹 신으니깐 맞은 거라. 맞이난 또 그 콩주가 이젠 데강만 줄거리만 굴앐주. 그거.

[제보자2] 잘 굴으라. 그거 콩 몰라그네.

[제보자1] 아니 아니 그 저 누게가 그 사또가 이제 한티 결혼헤가지고 잘살앗덴 허드라고.

- 핵심어 : 콩데기, 풋데기, 새, 항아리, 두꺼비, 콩주, 신 한 짝, 꽃신

W_F_058 콩데기영 풋데기영

2016년 12월 14일, 표선면 가시리 한신화씨 댁, 송정희 조사.
한신화(여, 1921년생, 표선면 가시리)

[제보자] 엣날에 콩데기 풋데기 잇어. 콩데기 풋데기가 잇인디 이녁 똘은 콩 저 풋데기. 풋이 맛 좋주겐. 또 놈 난 똘은 콩데기 경허난 콩 풋데긴 풋만 풋만 숢안 줘 부난 술지도 안 혀곡 빈데기만 일곡 원 바렌나우가 엇어 가. 놈 난 콩데기난 콩을 자꾸 주난 번들번들번들 콩 먹은 똘은 막 곱곡, 풋 먹은 똘은 막 궂어. 게난 똘 구허레 오난 이, 똘 구허레 오난

"이거 나 똘이난 구헹 가라."

허난, 저 똘을 구헤가곡 놈 난 똘 하도 콩만 먹어노난 막 그냥 술져네 술진 사름 고와. 경 허난 그 사름 구헹 가켄. 경허난 이젠 '콩데기 풋데기' 허난 풋데긴 풀지 못허곡 콩데긴 풀안 그런 말이 잇어. (중략)

어디 가멍 놈 난 똘ᄀᆞ라이

"저 굽 터진 항에 ᄀᆞ득 물을 질어 노라."

경 허난, 굽 터진 항에 만날 물을 질어 놓들 터진 항 ᄀᆞ득아게. 경 허난, 암만 물을 질어봐도 항이 ᄀᆞ득질 안 혀난 이젠 가마귀가 오란

"구렁지라. 구렁지라."

구렁지는 거 알아지크라? 모르주이. 항 터진 거 막앙지라 말이라.

"구렁지라. 구렁지라."

허곡, 터진 항을 막앙지라. 막아야 물이 ᄀᆞ득지. 터진 항에 물이 ᄀᆞ득느냐? 경 허난나 난 똘을 아니 놈 난 똘인니까, 터진 항에 물을 만날 질어 노민 ᄀᆞ득아. 경 허난 그 못뒌 년이 터진 항에 물을 ᄀᆞ득허게 질어노렌 헤 동 어디 가 부난, 암만 질어놔 봐도 항이 ᄀᆞ득질 안 혀난 가마귀가 오란

"구렁지라. 구렁지라."

경 허난, 이젠 항을 탁 뒈싼 보난, 창 터진 항이라. 거난 그놈을 이젠 막은 거라이. 막안. 막아지난 항이 ᄀᆞ득안. 아이고 경 헌 예펜도 잇어낫어.

- 핵심어 : 콩데기, 풋데기, 콩, 풋, 똘, 항, 물, 가마귀, 예펜

W_F_059 콩씨애기 풋씨애기

2016년 11월 21일, 제주시 해안동 해안동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양익근(여, 1930년생, 제주시 해안동)

[제보자] 우리 어릴 때 콩씨애기 풋씨애기 옛말은 몇 꼭지 들어낫주게.

[조사자] 그거 얘기헤 봅서.

[제보자] 콩씨애기 풋씨애기 허민 이제 이녁 난 애기는 풋만 삶으멍 주난 말제는 막 풋만 주멍주멍 허난. 곱질 안 허고. 다슴애기는 콩만 삶으멍 준 거라. 콩만 삶으멍 먹으난 얼굴이 비룩 사람이 경 허난. 이젠 풋씨애기허고 콩씨애기허고 우리 사워허게 갑주게 헨 가난. 강 이제 성님허고, 성님이엔 헌 건 큰어멍 아기주게. 등 밀어주켄 헹 영 헹 등밀단 과락 물더레 등 밀려부난 죽어부난 오난 걸려불언. 그런 말은 들어낫어.

[조사자] 그거 과락 밀려분 건 아까 남선비 얘기랑 비슷허우다.

[제보자] 옛날 콩씨애기 풋씨애기로 들어낫지. 그거하고 뚠 거. 등 밀어주켄 허당 자락 밀어부난 빠젼 말젠 물에서 죽언 꽃으로 환생헹 둥둥 떠 잇이난. 아이고 꼿 이뿌댄 헨. 그 꼿을 꺾어 완 문전에 둘아멩 놔두민게 들어 갈 때에 머리 톡 메고. 나올 때 박 메고.

[조사자] 들어갈 때 뭐 허여?

[제보자] 꼿이 고우난 문전에 둘아메난. 이쁘니까. 콩씨애기이 죽은 것이 꼿으로 환생헷어. 게난 그 풋씨애기가 들어가가민 그 콩씨애기가 머릴 그냥 족은어멍 난 거 영 허고(머릴 잡아 채는 것) 나올 때민 영 막 허연. 말제엔 베려보난 큰어멍 난 애긴 줄은 모르고. 그런 말은 들어낫어.

- 핵심어 : 콩씨, 풋씨, 다슴애기, 환생

W_F_060 파랑한 도체빗불

2016년 12월 7일, 남원읍 태흥3리 오윤생씨 댁, 김선희 조사.
오윤생(여, 1932년생, 남원읍 태흥3리)

[제보자] 봄나민 도체비옌 헌 게 벨롱벨롱헤도 나 눈에는 안 비추와, 게도. 그것도 비추는 사람, 안 비추는 사람이 잇곡. 도체비도 비추는 사람, 안 비추는 사람 하는 구라. 우린 도체비를 ᄒᆞᆫ 번도 못 봐서. ᄒᆞᆫ 번도.

딱 ᄒᆞᆫ 번 본 거. 나, 도체비옌 헌 거 일생 살앙 ᄒᆞᆫ 번 봣어이. 어디 봣이냐 허믄. 그것도 오월 장마. 사람이옌 헌 건 애기라도 ᄌᆞ끗디 잇이믄 막 의지가 크는 거라라. 옛날 막 보리 갈 때난. 이디서 갈 때민 저 어디 감만이나 뒈카? 멧 거리나 뒈코? 하튼이 가름 떨어진 디라이. 떨어진 딘디 냇 에염에 신 밧인디 강 보리 묶으노렌 허난에

"오늘 보리를 몬 묶어 비어사주, 낼은 비 오민 보리 썩어 버령 안 된다."

허난 우리 똘 그거 ᄋᆞ답술에 그걸 ᄃᆞᆯ앙 갓어이. 간 보리 묶엉으네, ᄒᆞᆫ 오월에 ᄒᆞᆫ ᄋᆞ답시난에 어슬어슬헷어. 겨난 어둑안 어슬어슬헤가난에 파랑한 불이 그디 원 동네도 엇고 질도 아닌딘디. 냇 에염으로 존질존질 올라왕 똑 사름ᄀᆞᆮ이 걷는 것ᄀᆞᆮ이 내터레 톡 들어가는 거라. 그땐 머릿발이 ᄆᆞᄉᆞ완 서는 거라. 이젠 똘더레 ᄆᆞᄉᆞᆸ댄 말도 못하고

"야, 가게. 집이 가게."

"보리 어떵 헤 동." 허관테

"내불라, 보리 젖고데고."

집이 그냥 와낫저. 그때 ᄒᆞᆫ 번, 딱 본 거. 내 눈에는 도체비는 안 뵈여. 매사름이 어디 가믄 봐졌저, 어디서도 봐져라 해도.

[조사자] 이 동네 도체비 잘 나는 디는 어디꽈?

[제보자] 도체비 잘 나는 디이, 일로 저러레 쏙 나가민 삼리 넘어사민, 저펜이 가면. ᄀᆞᆺ사 소곰막. 소곰막이엔 헌 디 있잖아. 이제 저 귤 판매핷어. 옛날이 그디가 젤로 무서운 디라낫저. 옛날에 그디 사람은 하영 아니 죽엇주만은. 옛날은 아기들이라도 죽으민 앗당 묻어부느녜. 그난 그디 사름 안 사는 디고 허난 그디 강 농사 안 짓는 디난 그디 에염더레 그런 걸 앗당 하영 논 셍이라. 게난 그디 젤 도체비 하영 난덴 허는 거.

- 핵심어 : 도체비, 벨롱 벨롱, 비추기, 파랑한 불, 소곰막

W_F_061 풋버렝이

2016년 12월 14일, 표선면 가시리 한신화씨 댁, 송정희 조사.
한신화(여, 1921년생, 표선면 가시리)

[제보자] 엣날에 저 풋버렝이 풋버렝이 알아져? 몰르죽.

[조사자] 예. 풋버렝이.

[제보자] 꼴리도 엇곡 헌 거. 그거 엣날에 하늘항제가 막 부젠디, 놈 고린 장 줘 부난 장 이녁은 든 장 먹곡 이제 빌레 간 건 고린 장을 줬어. 고린 장 줘 부난에 하늘항제 똘이 꼴리도 엇언네 풋버렝이로 내리와 빗어.

[조사자] 고린 장?

[제보자] 고린 장. 궂인 거게.

[조사자] 고린 거. 놈을 주난?

[제보자] 고린 걸 놈을 주난 지넨 든 장 먹곡, 겅 허난, 똘애길 하늘항제 똘애길 풋베렝이로 환승헤연 꼴렝이 잇지. 꼴렝이 든져네 하늘나라 보내 빗어.

[조사자] 하늘에 보내 버련?

[제보자] 응.

[조사자] 내려온 게 아니고?

[제보자] 응. 이 하늘나라에 내려와 빗어. 겅허난 부제가이 놈을 좋을 걸 안 줘. 궂인 걸 줘 부난 줼 짓언, 똘은 영 이제 풋베렝이로 환승헤연 꼴리 든젼 땅아래 내려와 빗어. 엇인 사름을 좋은 걸 줘야 헐 건디 나쁜 고린 장을 준 거라. 그런 말이 잇어.

- 핵심어 : 풋버렝이, 하늘항제, 부자, 고린 장, 든 장, 똘

W_F_062 한복 입은 여자로 둔갑헌 도깨비

2016년 10월 22일, 성산읍 신산리 김옥종씨 댁, 이현정 조사.
김옥종(남, 1924년생, 성산읍 신산리)

[조사자] 이 동네에서는 도깨비 봣덴 한 얘긴 엇입니까?

[제보자] 옛말에. 잇어.

[조사자] 잇어마씨? 헤 주십서.

[제보자] 저, 맏물 쪽으로, 내려온 건 직접 우리 할망이.

[조사자] 할망이.

[제보자] 응, 본 건디. 그 우리 셋처남, 아, 저, 족은처남 각시라. 그 온펭리 사름인디, 그 어른이 ᄌᆞ식을 나니까 젖이 안 나와. 경 허니까 이제, 그, 어디 맏물 물을 질어당, 나는 물, 나는 물을 질어당 먹으민 젖 나온덴 헹 그리 헹 말이 잇이라라. 그 물 질레, 시누이 성제가 갓어. 강, ᄋᆞ데 가믄 그 지척 양헤장 그 짓은 에염에 밧이 잇는데. 그 밧이 땅이 바닷물 들, 저, 것이라라 좀 높으게 쌋어. 거난 나는 물을 질레 밤이 사, 그, 이, 사럼 엇을 때, 아니 다, 보일 때 가는 거지. 사럼 보이민 안 뒌다 헷어.

[조사자] 부정타부난예.

[제보자] 응. 사럼 안 보인 정도로 헨, 밤중에 갓어. 갓는디. 아이, 뭣이, 저, 곤대바구리 잇잖아. 저게 저. 저거, 저.

[조사자] 예, 예.

[제보자] 저거 헹그네 옆동에 찌곡, 곱닥허게 치메 저고리 한복 입은 여자가 들어오거든. 들어오니까 눈에 보이는 게 우리 할망은 밧더레 그 담 에염드레 곱안 ᄀᆞ만이 보니까. 쭈욱 허게 일어나서 이 앞짝 들러레 들어오더라 헤연. 곤대바구니 쪽으로.

[조사자] 겐?

[제보자] 그, 그, 그.

[조사자] 그게 도깨비라?

[제보자] 도깨비.

[조사자] 아, 그 밤에?

[제보자] 밤에. 게난, 그, 거시기 ᄋᆞ기 가민은 지금 집이 잇어, 저, 그, 좀 지금 불교 짓은 할망이 그기 사는디. 그 집이 잇어. 그디 엿날에, 그, 부칩이 살아낫어.

[조사자] 부칩이?

[제보자] 어, 부○○이옌 헌 분이. 근디 원래가 그 사럼이 왜정 대부떠 운전수 질을 헌 거라. 일본서부떠도. 그, 또 낭중에 일본 그, 전쟁 때에 저, 거시기 또, 운전수로 헤연에 늘, 군인 생활허고 헤난 사럼인디. 그, 이, ᄋᆞ기 살멍 이젠, 그, 옛날 차 하나, 한 차 사네, 옛날 도요다옌. 헌 차가 있어. 거 산, 그 운용을 헷어게. 헌디, 그 사럼 뭐냐 허면. 구신이 뭐 있느냐고 엇댄혀. 헌디 그 앞으로 득, 도, 도깨비가 이레 들어오거든.

"하하, ᄋᆞ 구신이 있는 거로구나!"

그 사럼이 그렇게 생각헨. 그 사럼 지금 우리보다 훈 예서일곱 나 우인디, 죽어비엿지. 그 동생은 ᄋᆞ디 저 도로가에 그 지름집이 동생은 살고. 그 원래가 그 사럼이 '구신이 뭐 잇느냐'고.

결국은 그걸 보니까.

"하이고, 이거 구신이 있는 거로구나!"

[조사자] 겐 그 부칩에 그 부씨 어르신도 그, 귀신을 본 거구나.

[제보자] 본 거주. 봐 부난, 하 이, 그, 저 '있는 거로구나' 헷지.

[조사자] 어떵 도깨비는 경 곱닥한 여자만 경 나타나는 건고마씨?

[제보자] 그, 몰르주. 어떻게 되는 것이.

- 핵심어 : 여자, 둔갑, 도깨비, 한복, 구신(귀신), 부칩

W_F_063 해와 돌이 된 오누이

2016년 11월 24일, 구좌읍 종달리 송미영씨 댁, 송정희 조사.
고순안(여, 1947년생, 구좌읍 하도리)

[제보자] 어멍 제사 먹으레 가부난 오누이가 잇인디 오누이가 잇인디 밤중 당허나네.

"아이고"

아이 이름 부르멍

"나 제사 먹으레 강 왓저. 문 올라. 문 올라."

허나네. 문 이젠 열젠 허난, 이젠 오라방은 안 올곡, 누인 올아 주나네. 오라방은 베낏딜 나가네 그 사름 들어온 것 닮으나네 나간 나무 우이 간 앚아불곡, 이젠 누인 죽어나네 해와 돌, 해와 돌님 뒈엇젠. 그런 역사가 잇어.

[조사자] 온 사람이, 사람이라?

[제보자] 그거 저 아미도 구신이겟지. 구신이난게, 게난.

"어머니 뭐 먹없우꽈?"

"콩 먹없저."

"나 하나 줍서."

"마."

영 보민 아무것도 아니고.

"마"

영 보민 게난 줌자멍 꿈꾸는 식이라. 응. 콩 먹어 가멍.

"어머니 하나 줍서."

게난 경 헹 엇이난 오라방은 나무 위에 간 살아나곡 누인 그디서 죽곡 헤난 게난 돌이 뒌 거는 오라방이 돌과 같이 비춘다. 똘은 해와 같이 비춘다.

- 핵심어 : 제사, 오누이, 구신, 해, 돌, 제사

W_F_064 헛게 ᄯᅡ라 간 사름

2016년 10월 21일, 구좌읍 세화리 부신남씨 댁, 송정희 조사.
부신남(여, 1920년생, 구좌읍 세화리)

[제보자] 엣날에 저 거시기, 동거리, 거시기 아방, 저 누게, 영춘이아방 산 때, 어디 손당 그 하르방이 침주주게, 침 주레 뎅견 손당 간, 오다네 어디 목이 뜨선가? 헛게 미쳔, 그런 사름 앞에 산 강, 제게 가민 제게 가고, 뜨게 가민 뜨게 가곡, 그 헛게 둘란 가단, 헛게가 어디 덤불 속더레 간 밀러부난, 붉아네. 이젠 춪이레 나간 보난 막 양지 막 튿어지고 섬벌에서 죽지 안 혀만. 살안, 그때 오랜에 경 헤도 오래 살단 죽엇어. 영춘이아방. 경 헤낫젠 헤여.

- 핵심어 : 세화리, 헛게, 손당, 덤불

W_F_065 헛게 소리

2016년 12월 7일, 남원읍 태흥3리 오봉남씨 댁, 김선희 조사.
오봉남(남, 1922년생, 남원읍 태흥3리)

[조사자] 소곰밧이 귀신대랜 허는 거꽈?

[제보자] 나도 태흥이리가 놀당 이월 초순인데 비 축축 오라가난 집에 오젠 오는디 누웟당 낼랑 가렌 헤도 그냥 집이 오구정 헹 집이 오는디, 그디 오니까 막 사람들 노래들 부르는 소리, 어린아이 우는 소리. 나는 또 이게 뭣이고 헤영 ᄀᆞ만히 들엇어. 알아지는 사람 노래도 닮고. 모르는 사람 노래, 애기 우는 소리 막 나곡. 에에 그냥 와 분다 헹 넘어왔는데 넘어왕 다음날은 엇치냑 영영 헹 다니당 이상한 거, 어, 자꾸 그런 소리 나와, 헤여.

[조사자] 그게 헛게 소리인가마씸?

[제보자] 그것ᄀᆞ라 헛소리영 헤여. 그 외론 난 아이 봐난.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랜도 헤도. 다리 영 벌연 그 알로 넘어가민 사흘 내에 죽엇젠 헤여.

- 핵심어 : 소곰밧, 노래 부르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헛게 소리, 헛소리

W_F_066 호랑이와 해님 달님

2016년 11월 9일, 구좌읍 세화리 조흥순씨 댁, 송정희 조사.
제보자1: 김순자(여, 1947년생, 구좌읍 세화리)
제보자2: 조흥순(여, 1924년생, 구좌읍 세화리)

[제보자1] 그 호랑이, (웃음) 호랑이, 호랑이 이제 어멍, 이제 어멍이 떡 헹 가다네 이젠 또 저 옛날 옛날에 그 저, 떡 헨 머리 이엉 가다네, 무신 호랑일 만난 거라.

"떡 하나만 저 떡 하나만 주민 안 잡아먹지. 안 잡아먹지. 안 잡아먹지."

허당 보난

"팔 한 짝 주민 안 잡아먹지. 안 잡아먹지. 안 잡아먹지."

허단, 어멍 몸뚱아리 다 줘 볏어. 죽으난 이젠 똘 성제 잇는 집이 온 거라. 딸 성젠 누웟이난에 이젠

"큰년아 큰년아 무신."

우리 할망이 골앗어.

"큰년아 큰년아 무시거 헴디? 저, 나 느네 어멍이여. 문 율아주라."

허난, 문을 안 열어준 거라. 큰 큰 저 큰년이 문 안 율아주나네. 목소리가 아니렌 허멍 우리 어멍 목소린 이제 아니렌 우리 어머니 손 흔 번 내밀어 보렌 허난 손 내밀어 보렌 허난, 손 내미난 이젠 저 아니렌 까실락 까실락 까실락 아니렌 허난 또 이젠, 그 가네 지름을 불랑 왓어. 그 춥지름을 그 호랑이가 춥지름 불랑 완 손 영 내미난 이제 어멍카부덴 아 이젠, 보난 다른 동생은 다 잡아먹어 불곡 진 베껫디 나간 그 저 물이 못 우에 물이 잇어난 모냥이라. 게난 그 나무에 올라간 이젠 잇이나네. 또 호랑이가 그것도 먹젠 온 거 아니. 먹젠 와네 영 보난 이젠, 그 물 연못이. 통에 확하게 빠진 거라. 그 나무에 올른 걸 몰라네. (웃음) 몰랑 빠지나네. 아니난 영 보나네 그 사람 잇이난, 아이가 잇이난 큰 아이가 잇이난, 막 이젠 어떵 올라간디 들은 거라.

"큰년아, 큰년아, 어떵 헹 올라간디?"

들으난, 이제 자기가 도치로 아니 지름 불랑 올라 오렌 허난 또 지름 불랑 미

끌어 자빠지곡 헤난 또 이젠 어떵 헹 올라가난 막 헤난 도치로 찍엉 나가게 헌 거라. 도치로 탕탕 찍어가나네.

"하늘님아. 하늘님아. 날 살리커나네 저, 그 밧줄을 내리곡 좋은 밧줄."

[제보자2] 닷줄을 내리곡.

[제보자1] "닷줄을 내리곡, 나 죽이커랑그네 저 썩은 밧줄을 내리라."

헌 거라. 거난 이젠 밧줄을 내리난, 올라가불곡 호랑인 그 나무에 가네 또 꺼꾸로 말헌 거라.

"날 살리커라그네 썩은 밧줄 내리곡. 날 죽이커랑그네 새밧줄 내립센"

골아부난 썩을 밧줄 내리난 올라가단 털어젼 죽엇덴 헌 말도 골아 들어나곡. 것도 막 길어 길어. 말허민이 나가 잘 몰라네 그냥 데강만 허는 거죽.

[조사자] 그거는 제목이 뭐꽈?

[제보자1] 응?

[조사자] 그거는? 호랑이 그거는? 호랑이?

[제보자1] 그거는. 호랑인가? 뭔? 옛날 옛날에 허멍 들어나 부난 알아지크라?

- 핵심어 : 호랑이, 떡, 밧줄, 연못, 해님, 달님, 닷줄

W_F_067 힘쎈 벤할망

2016년 12월 15일, 표선면 성읍1리 성읍1리노인회관, 송정희 조사.
조인흥(남, 1934년생, 표선면 성읍1리)

[제보자] 벤할망 잇어낫주. 안 혀꽈? 그 방구게메 옆에 살아난? 그 굴렁짓 할망? 굴렁짓 할망. 어. 그 벤칩이 시집 간 할망. 벤칩이 할망. 게난 그 할망이 하도 물 질레 가는디 소가 돌아나가난 오롬에서

"그 쉐 훈펜이네 삽서. 그 쉐 찔릅니다. 찔릅니다."

막 우에서 웨는디, 뭔 쉐냐믄 산에서 산소가 ᄂᆞ려와. 산소 심엉 석전에 성읍리 그 석전이라고 정의 헹교에 제 지낼라고 흥지가 모여젼, 그 쉘 심자고 허는디 쉐가 기냥 막 내려완. 알러레 막 터젼 돈는디 할망은 물 젼 가단 어떤 일이 잇인고 허민

"저 할망 옆더레 들어갑서. 쉐 찔릅니다. 찔릅니다."

허난, 영 옆더레 삿단 쉐 폭허게시리 쉐 데가리 반 부쩐 폭 심으난 쉐가 엥 헹

"요 쉐 와 제기 심엉 가."

제기 심엉 가난. 게난 원 할망 봔, 아이고 이런 할망 잇이나 할망을 그냥 하늘 모시듯이 모셔낫젠 허여.

- 핵심어 : 벤할망, 힘, 소, 성읍리, 석전, 정의 헹교

W_F_068 힘쎈 할망

2016년 12월 14일, 표선면 가시리 안인순씨 댁, 송정희 조사.
안인순(여, 1935년생, 표선면 가시리)

[제보자] 할망이 그 하르방은 물리고 할망이 기 세니깐 하르방을 훅 던지난 지붕 우에 올라간 누게 오라네. 누게 누게 오란

"무사 지붕 우에 올라간디?"

허난

"호박 따러 왓젠."

겅 골아낫저 헌 말 들언.

- 핵심어 : 할망, 하르방, 지붕, 호박

W_F_069 꼬부랑개(#)

2016년 11월 21일, 제주시 해안동 해안동노인회관, 문경미 조사.
양익근(여, 1930년생, 제주시 해안동)

[제보자] 옛날에 꼬부랑개가 잇인디.

[조사자] 꼬부랑개?

[제보자] 또 꼬부랑 할망이 잇어낫어. 꼬부랑개가 말을 안 들엉 지붕에 올라 강 똥을 잘싸게. 게난 그 꼭닥할망이 꼬부랑막두기로 확 후리난 꼬부랑깍깍 꼬부랑깍깍 달아낫다 허여. 게난 나 어릴 때 놀멍 그런 말만 자꾸 ᄀᆞᆯ으멍 놀아나구랜. 옛날엔 놀면서 이디ᄀᆞᆺ이 ᄀᆞᆯ을 말이 엇이난 그런 말을 놀면서 인사같이 그 말만 ᄀᆞᆯ앙 살아나구랜. 놀멍도 잘 ᄀᆞᆯ아낫어.

[제보자] 옛날에는 손자들한테도 옛날 얘기 했었는데, 요새는 애들한테도 동화책이나 읽어주고 텔레비전에 게임에다가 뭐허니까 들을 기회도 없고. 하니까 전설은 자꾸만 잊어먹는 거주.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 핵심어 : 꼬부랑개, 할망

W_F_070 도체비와 반딧불(#)

2016년 12월 7일,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포시보건소, 김선희 조사.
오응석(남, 1944년생, 서귀포시 토평동)

[조사자] 귀신 말도 엇수과?

[제보자] 귀신 나온다는 얘기도 있지요. 귀신 나온다는 것은 그 옛날 가로등도 없고 전깃불도 없을 때, 그 장마철에 그 안개도 끼고 시커멓잖아요. 컴컴헌 때, 어질허면 일부로도 그렇게 한 거 같애요. 아가씨들 막 겁 주려고 해서 막 그런…. 저 귀신 난다, 도깨비 난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했는데 그 시절 그때나 그렇게 하겠지. 지금은 전깃불 켜고 하니까 귀신 날 수도 없고. 옛날에는 주로 귀신 난다 했지요. 사실 귀신도 많이 나고. 도체빗불도 많이 생기고.

[조사자] 도체빗불 봐낫수과?

[제보자] 아, 옛날 봤었지. 그 불 쫘락 가다가 없어지고. 그게 우리 흔 열살 때. 한 육십년 전. 횃불처럼 삭 가다가 없어지고. 주로 언제 그러냐 하면 안개 끼고 하는 날. 주로 여름에. 또 그 시절엔 반딧불도 많이 있었는데 이젠 반딧불도 사라지고. 도체빗불이 나타나면 정신 상태를 바짝 차려야 되어. 도체비가 나타난다고 할 때는 사람이 긴장될 때니까 머리카락이 거스릉해진댄 하던데. 주로 어떤 데가 있느냐 하면은 그이 천리 터, 이장했던 터에 주로 날아다닌다는 얘기가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의 인이 남아 잇댄 허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이제 와서는 도시가 되어 버리니까 나타날 수가 없고. 옛날 나이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렇게 느껴지고.

- 핵심어 : 귀신, 장마철, 안개, 도체빗불, 횃불, 반딧불, 도체비, 천리 터, 이장 터

W_F_071 재 닷 줄과 모래 닷 줄(#)

2016년 10월 13일, 애월읍 고성1리 길, 문경미 조사.
강양자 (여, 1942년생, 애월읍 고성1리)

[제보자] 사람들이 칼로 막 싸움 허는 거라. 내기를 허는 거라. 어떻게 허믄 싸움에 이길런가 헤가지고. 성도 다 무너불려고 허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재 닷 줄을 헨 논다 하고, 몽골 사람들은 모래 닷 줄을. 줄, 집 매는 줄. 그걸 닷 줄 닷 줄 허는데.

그 사람들은 모래 닷 줄 잉잉잉 허당 바람 휘 불면 날아가 불고, 그라니까 지고. 제주 사람들은 모래 닷 줄을 상헤가지고 불 태우는 거라. 성 위에다. 불 태왔는데, 몽골 사람들이 막 말 타고 싸우러 오니까. 그냥 제주 사람들은 말 꼬랑지에다가 빗자루 싸 메고. 재 막 날라와 부니까 그 사람들 눈에 다 들고 정신 없어가지고 져서 갔대요.

[조사자] 그런데 그 닷 줄이 무슨 닷인고, 무슨 닷 줄?

[제보자] 다섯 줄. 내기 한 거. 뭘 하겠냐고 하니까 제주 사람들은 재 닷 줄을 하겠다 한 거야. 쭉 줄을 다섯 개 놓고 놓아온다 하고. 그 사람들은 모래를 쫑쫑 다섯줄을 이슬하고 하니 막 힘들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결국 거 때문에 진 거라.

- 핵심어 : 재, 모레, 성, 제주 사람, 몽골 사람

부 록

1. 설화 관련 도서 목록
2. 「제주어 표기법」

부록 1. 설화 관련 도서 목록

감산향토지 발간추진위원회, 『감산향토지』,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2002.
강정향토지 발간추진위원회, 『강정향토지』,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1996.
강정식, 『동복리 본향당굿』, 문화관광체육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1.
강정식 外, 『동복 정병춘댁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건입동마을회, 『건입동지』, 건입마을회, 2001.
고산향토지 발간위원회, 『제주고산향토지』, 고산향토지 발간위원회, 2000.
고성리향토지 편찬위원회 편집부, 『고성리지』, 고성리향토지 편찬위원회, 1993.
고창석 外, 『제주 오현 조사』, 제주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0.
구좌읍 편집위원회, 『구좌읍지』, 구좌읍, 2000.
光令略史 편집추진위원회, 『光令略史』, 광령1리, 1990.
김민규, 『조천읍지』,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1.
김봉현, 『제주도유인전』, 제주시우당도서관, 2005.
김석익, 『제주속의 탐라 심재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김순이, 표성준,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 여름언덕, 2012.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5.
김헌선 外, 『제주도조상신본풀이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난산리향토지 발간추진위원회, 『난산리지』, 난산리, 1999.
남원읍 의귀리, 『의귀리지』,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2012.
남제주문화원, 『남제주의 문화유산』, 남제주문화원, 2006.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가스름』,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1988.
납읍향토지 편집위원회, 『납읍향토지』, 납읍향토지 편찬위원회, 2006.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온평리지』, 온평리, 1991.
담수계 저, 김익수 외 역,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5.
대정읍지편찬위원회, 『대정읍지』, 대정읍지편찬위원회, 2014.
대포마을회, 『큰갯마을』, 대포마을회, 2001.
도두동지 편찬위원회, 『도두동지』, 도두동 추진위원회, 2007.
동명향토지 편찬위원회, 『동명향토지』,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2009.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문무병, 『제주도큰굿자료 : 1997년 동김녕 문순실댁 중당큰굿』,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문무병, 『제주큰굿 : 원형기록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10.
문창헌, 『풍속무음 下』,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명월향토지 편찬위원회, 『명월향토지』, 한림읍 명월리, 2003.
몰래물 향토지 발간위원회, 『몰래물 鄕土誌』, 몰래물 향토지 발간위원회, 2000.
박수양, 『김녕리향토지』, 명성종합인쇄, 1986.
박용후, 『最南의 港都 모슬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법환향토지편찬위원회, 『법환향토지』, 법환마을회, 2000.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11호(1995), 12호(1996), 13호(1997), 14호(1998), 15호(1999), 16호(2000), 17호(2001), 18·19호(2004), 20·21호(2005), 22호(2006), 23호(2007), 24호(2008), 25·26호(2013).
부영성, 『구좌읍지』, 태화인쇄사, 1986.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 『둔지오름-한동리지』,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 1997.
북제주군 편찬위원회, 『군제실시 제60주년 기념 북제주군지(下)』, 북제주군, 2006.
뿌리깊은나무, 『한국의 발견 제주도』, 뿌리깊은나무, 1987.
서귀포문화원, 『우리고장의 설화』, 서귀포문화원, 2010.
서울대학교 제주학우회, 『제주신당의 내용 및 현황조사보고서』, 1973.
성산리마을회, 『성산포지 해뜨는 마을』, 성산리마을회, 2004.
성산읍 신풍리, 『냇가의 풍년마을-살아온 발자취』, 성산읍 신풍리, 2006.
삼도2동향토지 발간추진위원회, 『제주의 핵심 삼도2동』, 삼도2동향토지 발간추진위원회, 2003.
삼양동지 편찬위원회, 『삼양동지』, 『삼양동지』 편찬위원회, 2008.
상가리 편찬위원회, 『上加里誌』,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2007.
서홍동향토지 발간위원회, 『서홍로』, 서귀포시 서홍동, 1996.
성읍마을회, 『성읍마을』, 성읍마을회, 2015.
수산리원로회, 『수산리지』,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1994.
신효마을회, 『新孝마을』, 신효마을회, 1996.
아라동지 편찬위원회, 『아라동지』, 아라동지 편찬위원회, 2008.
아키바,아카마스, 『조선무속의 연구 上』, 대판옥호서점, 1986.
안덕면,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안덕면, 『안덕면지-총괄편』, 안덕면, 2006.
양중해,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연화친목회, 『연동향토지』, 연화친목회, 1986.
예래동원로회, 『예래동지』, 예래동원로회, 1993.

애월읍 상가리, 『상가리지』, 애월읍 상가리, 2007.
오라동주민자치위원회, 『오라동향토지』, 오라동향토지 발간위원회, 2003.
오성찬, 『제주의 마을 도두리』, 도서출판 반석, 1985.
오성찬, 『제주의 마을 오조리』, 도서출판 반석, 1986.
오성찬, 『제주의 마을 함덕리』, 도서출판 반석, 1986.
오성찬, 『제주의 마을 호근·서호리』, 도서출판 반석, 1986.
오성찬, 『제주의 마을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1987.
오성찬, 『제주의 마을 대정고을』, 도서출판 반석, 1988.
오성찬, 『제주의 마을 봉개리』, 도서출판 반석, 1988.
오성찬, 『제주의 마을 고성리』, 도서출판 반석, 2002.
오성찬, 『제주의 마을 곽지리』, 도서출판 반석, 2002.
오성찬, 『제주의 마을 보목리』, 도서출판 반석, 2002.
오성찬, 『제주의 마을 신도리』, 도서출판 반석, 2002.
오성찬, 『제주의 마을 추자도』, 도서출판 반석, 2002.
오성찬, 『제주의 마을 판포리』, 도서출판 반석, 2002.
오성찬, 『제주의 마을 표선리』, 도서출판 반석, 2002.
오성찬, 『제주의 마을 한림리』, 도서출판 반석, 2002.
오성찬, 『제주의 마을 화북동』, 도서출판 반석, 2002.
우도지 편집위원회, 『우도지』, 우도지 편찬위원회, 1996.
우도지 편집위원회, 『우도지』, 우도지 편찬위원회, 2007.
용담동지 편집위원회, 『용담동지』, 용담동지 편찬위원회, 2001.
용ᄆᆞ루 편찬위원회, 『용ᄆᆞ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 2015.
윤경노, 『향토 강정』, 도서출판 디딤돌, 2001.
외도동향토지 편찬위원회, 『외도동 향토지』, 외도동향토지 편찬위원회, 2005.
월평동향토지 발간추진위원회, 『다라쿳 월평동지』, 월평동향토지 발간추진위원회, 2001.
위미신용협동조합홍보위원회, 『위미리지』, 위미신용협동조합, 1991.
의귀리지 편찬위원회, 『말과 귤의 고장 衣貴』, 의귀리, 2016.
이긍익, 『연려실기술 제6권』, 한국고전번역원, 2004.
인성리 마을회, 『인성리향토지』, 인성리 마을회, 1998.
이도1동향토지편찬위원회, 『이도1동, 그 시간의 숨결을 느끼며』, 이도1동향토지편찬위원회, 2015.
이도2동지 편찬위원회, 『이도2동지』, 『이도2동지』 편찬위원회, 2009.
이두현, 『제주도 성주풀이』,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이두현, 『제주도 수산본향당 신과세제』, 문화체육관광부,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1.

사계리 마을회, 『사계리誌』, 사계리 마을회, 2015.
서귀포문화원, 『우리고장의 설촌유래』, 서귀포문화원, 2009.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의귀리지』,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2012.
在제주시귀덕2리친목회, 『귀덕2리지』, 在제주시귀덕2리친목회, 2000.
제주시 삼도1동지 편찬위원회, 『삼도1동지』, 제주시 삼도1동사무소, 2006.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제주도, 1985.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 (안덕면 덕수리, 애월읍 납읍리)』, 제7집, 1982.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창간호(1986), 2호(1987), 5호(1988), 6호(1989), 7호(1990), 8호(1991), 9호(1992), 10호(1994).
제주대학교박물관, 『寧坪마을』, 제주대학교박물관, 1991.
제주대학교인문대학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4집(1972), 제5집(1973), 제6집(1974), 제7집(1975), 재8집(1986), 제9집(1989), 제10집(1990), 제11집(1992), 제12집(1994), 제13집(1995), 제14집(1997), 제15집(2001), 제16집(2004), 제17집(2010), 제18집(2011), 제19집(2012), 제20집(2013), 제21집(2014), 제22집(2015).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7.
제주특별자치도, 『남원읍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제주특별자치도, 『표선면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9.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2010.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201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한림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2014.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8 마라도 학술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8.
제주특별자치도지회문화원연합회, 『애월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지회문화원연합회, 2013.
조수리향토사편집위원회, 『조수리향토사』, 조수리향토사편집위원회, 1988.
종달리, 『地尾의 脈』. 종달리, 1987.
진성기, 『남국의 민담』, 형운출판사, 1976.
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64.(초판은 1959년이나 현재 절판됨)
진성기, 『남국의 전설』(증보판), 학문사. 1979(초판은 1959년이나 현재는 절판됨)
진성기, 『남국의 전설』, 교학사, 1981.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진성기, 『제주도설화집(제1집)진성기편』, 제주도관광안내부출판부, 1960.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추자도』, 추자도지 편찬위원회, 1999.

토평동마을지 발간추진위원회, 『토평마을』, 서귀포시토평동마을회, 2004.
판포국민학교, 『향토지(판포, 금릉, 월령)』, 판포국민학교, 1987.
판포리향토지 발간추진위원회, 『판포리지』, 판포리향토지 발간추진위원회, 1995.
평대리지 편집위원회, 『평대리-비자림 군락의 촌-』, 평대리. 1990.
하도향토지 편집위원회, 『하도 향토지』 , 하도향토지 발간위원회, 2006.
표선리 원로회, 『표선리 향토지』, 표선리 원로회, 1996.
하례원로회 발간위원회, 『하례마을-가마귀ᄆᆞ루』, 하례마을회, 1999.
하원마을회, 『하원향토지』, 하원마을회, 1999.
하천리 편집위원회, 『냇끼』, 하천리, 1995.
하효동 마을회, 『下孝誌』, 하효동 마을회, 1987.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조천읍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2.
한남리향토지 편찬위원회, 『내고향한남리』, 한남리향토지 편찬위원회, 2007.
화순리, 『화순리지』, 화순리, 2001.
화북동운영위원회, 『禾北洞鄕土誌』, 화북동운영위원회, 1991.
허남춘 外, 『이용옥심방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허남춘 外, 『양창보심방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허남춘 外, 『고순안심방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허남춘 外, 『서순실심방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9-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①)』,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4.
현용준, 『제주도 민담』,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6.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제주도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제주도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3(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76.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부록 2.「제주어 표기법」

제1장 총 칙

제1항 목 적

제주어 표기법(이하 이 '표기법')의 목적은 한글 맞춤법의 취지를 따라 제주 사람들이 쓰는 말의 표기 방법을 정하는 데 있다.

제2항 원리 및 방법

1. 이 표기법은 형태소의 본디 꼴(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와 바뀐 꼴(변이형)을 적는 경우를 구별한다.
2. 표기가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허용한다.

제3항 범 위

이 표기법에서는 통합성과 포괄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주어를 적는다.

제4항 자 모

이 표기법에서는 제주어의 음소와 아래의 자모들이 일치하도록 하여 제주어를 적는다.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ㆍ ᄋᆞ

다만, 'ㅇ'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초성 글자로도 쓰고, 'ㅚ, ㅢ'는 한자 형태소를 적을 때만 쓴다.

제5항 합 자

1. 자음은 초성 글자와 받침 글자로 적고, 모음은 중성 글자로 적는다.

2. 제주어는 초성 글자와 중성 글자, 받침 글자를 모아서 적는다.

[붙임] 필요한 경우 자모의 결합도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본디 꼴을 적는 것

제6항 된소리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나는 된소리는 'ㄲ, ㄸ, ㅃ, ㅆ, ㅉ'으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ᄉᆞ끼　어따/아따　나쁘(~다)　마씀/마씸/마씨

주짝/조짝/쭈짝/쪼짝

2. /ㄴ, ㄹ, ㅁ,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

빈찍/핀찍　　술짝　　놈삐　　덩싹덩싹

다만, 하나의 어미 안에서 /ㄹ/ 뒤에 오는 된소리는 평음 글자로 적는다.

-을디/-을지　　-을수룩/-을수록

[붙임]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지 않는 /ㄱ, ㅂ/ 뒤의 된소리는 평음 글자로 적는다.

녹대　　역불로　　덕석　　낙지

겁데기　　놉새　　납작

제7항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것은 같은 자모로 적는다.

꼿꼿ᄒᆞ다　　딱딱ᄒᆞ다　　뻣뻣ᄒᆞ다　　쑥쑥

굽굽ᄒᆞ다/꼽꼽ᄒᆞ다　　눅눅ᄒᆞ다　　닥닥　　밋밋

식식　　족족　　독닥불미/똑딱불미

제8항 속 음

한자 형태소의 소리가 위치와 관계없이 본음에서 바뀐 것은 바뀐 대로 적는다.

곡석/곡ᄉᆞᆨ[穀食]　　공치새[功致辭]　　궨당[眷黨]　　농시[農事]

당쵀[當初]　　동세[同壻]　　모냥[模樣]　　멘장[面長]
포[袍]　　벵/펭[甁]　　삼춘[三寸]　　손지[孫子]
웬수[怨讐]　　ᄌᆞ석/ᄌᆞᄉᆡᆨ[子息]　　줌녜[潛女]

제9항 파생어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접두사와 어근을 밝혀 적는다.

홀아방　　홀어멍　　핫아방　　핫어멍
할아바지/할아부지　　할애비

2. '-이'나 '-음'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어근과 접미사를 밝히고 구별하여 적는다.

다듬이　　엇이/읏이　　굳이
끗들이　　살렴살이　　절룩발이　　ᄂᆞ직이
빙색이/벵삭이　　높이다　　쌓이다
돌음박질　　줍음

돋구다　　벗기다/벳기다　　울리다　　짚숙(~ᄒᆞ다)
좁작(~ᄒᆞ다)　　앉지다/앚지다　　높직(~이)　　놎추다
받후다　　굳히다

[붙임]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어근과 접미사를 구별하여 적지 아니한다.

귀마구리　　꼬락사니　　ᄉᆞ래기　　ᄉᆞ타귀/사타귀
이파리　　지동/지둥　　지붕

다만, 'ㄹ'로 끝나는 어근에 접미사 '-ㅁ'이 붙어서 파생된 말은 어근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ᄀᆞ뭄　　구뭄/그뭄　　수눔　　ᄌᆞ늠

제10항 체언과 조사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소리가 바뀌지 않거나, 바뀌더라도 꼭 바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체언과 조사의 본디 꼴을 적되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둑[鷄]	: 둑이	둑을	둑도	둑만
논[畓]	: 논이	논을	논도	논만
물[馬]	: 물이	물을	물도	물만
놈[他人]	: 물이	물을	물도	물만
웃둡[八]	: 웃둡이	웃둡을	웃둡도	웃둡만
꼿[花]	: 꼿이	꼿을	꼿도	꼿만
고장[花]	: 고장이	고장을	고장도	고장만
자리[蓆]	: 자리가	자리를/자릴	자리도	자리만

제11항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소리가 바뀌지 않거나, 소리가 바뀌더라도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

낚다[釣]	: 낚안	낚으민	낚으곡	낚나	낚는
넘다[越]	: 넘언	넘으민	넘곡	넘나	넘는
막다[墇]	: 막안	막으민	막곡	막나	막는
묻다[埋]	: 묻언	묻으민	묻곡	묻나	묻는
살다[生]	: 살안	살민	살곡	사는	
안다[抱]	: 안안	안으민	안곡	안나	안는
잇다[連]	: 잇언	잇으민	잇곡	잇나	잇는
잡다[把]	: 잡안	잡으민	잡곡	잡나	잡는
좇다[從]	: 좇안	좇으민/좇이민	좇으곡/좇이곡	좇나	좇는
춫다[索]	: 춫안	춫으민/춫이민	춫곡	춫나	춫는

제3장 바뀐 꼴을 적는 것

제12항 두음법칙

한자 형태소가 단어의 첫머리에 와서 본디 소리와 다르게 발음되는 것은 발음되는 대로 적는다.

낙방(落榜)	냥(兩)	냥쭝(兩-)	녹각(鹿角)
니ᄉᆞ무소(里事務所)	양펜(兩便)	여ᄌᆞ(女子)	열녀(烈女)

예도(禮度)　　요소(尿素)　　용담(龍潭)　　유리(琉璃)
이발(理髮)　　염치(廉恥)

[붙임] 모음과 /ㄴ/ 뒤에 오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나열(羅列)　비율(比率)　분열(分裂)　진열(陳列)

제13항 합성어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때 본디 소리와 다르게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ㄹ'로 끝나는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낱말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ᄀᆞ대　ᄯᅳ님　ᄆᆞ날[午日]　ᄆᆞ쉬　소낭/소남
2. 다른 어휘 형태소 뒤에서 어휘 형태소의 초성 /ㄱ, ㄷ, ㅂ, ㅈ/이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술쾌기　　몸쿡　　동카름　　보리크르
   ᄂᆞ물팟　　우영팟　조팝
   우녁칩　　할망칩　식게칩

3. 모음으로 끝나는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적에 /ㅂ/ 소리가 덧나는 것은 'ㅂ'을 앞 글자의 받침 글자로 적는다.
   좁쏠　　춥쏠

제14항 파생어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하르방하르바님하리비/하르비

제15항 체언과 조사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체언이나 조사의 소리가 바뀌는 것은 바뀌는 대로 적되,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안[內]　:　안네　　안네도　　안네만
질[路]　:　질레　　질레도　　질레만
바깟[外] :　바깟디　바깟디도　바깟디만

다만, 다른 소리가 덧나기도 하고 덧나지 않기도 하는 것은 덧나지 않은 꼴로 적는다.

내[川]에　시(市)에　질레에

[붙임] 서술격 조사 '이-' 앞에서 /ㅈ, ㅍ/ 등으로 나타나는 체언의 종성은 다른 조사 앞에서도 'ㅈ, ㅍ' 등으로 적는다.

낮이라도　낮이　낮을　낮도　낮만

앞이라도　앞이　앞을　앞도　앞만

제16항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어간이나 어미의 소리가 바뀌는 것은 바뀌는 대로 적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

갈다[耕] : 갈앗저　가난　갈지도　갈게　갈아도

걷다[步] : 걸엇저　걸으난　걸을지도　걷게　걸어도

아프다[痛] : 아팟저　아프난　아플지도　아프게　아파도

올르다[登] : 올랏저　올르난　올를지도　올르게　올라도

조랍다[瞌] : 조라왓저　조라우난　조라울지도　조랍게　조라와도

제17항 준말

준말은 준 대로 적는다.

1. 형태소 내부

(본딧말)	(준말)
무엇	뭣/뭐/멋/머
그것	그거/거
다섯	닷
기영/그영	경

2. 어간과 어미의 결합

(본딧말)	(준말)
ᄒᆞ여	헤
ᄒᆞ연	헨
좋은	존
ᄒᆞ엿저	헷저

3. 어미와 어미의 결합

(본딧말) (준말)

가키어 가켜

4. 조사와 조사의 결합

(본딧말) (준말)

보다는 보단

에서는/이서는 에선/이선

5. 단어와 단어의 결합

(본딧말) (준말)

어제ᄌᆞ냑 엊치냑/엊ᄎᆞ냑

저 아이 자이

그 아이 가이

이 아이 야이

제4장 굳어진 표기

제18항 /ㄷ/ 끝소리

본디부터 /ㄷ/이 아닌 음절의 끝소리는 'ㅅ'으로 적는다.

덧(~니) 섯(~둘) 숫(~구락) ᄉᆞᄆᆞᆺ

웃(~옷) 쳇(~새끼) 헛(~일)

제19항 한자 형태소

한자 형태소는 본음대로 적는다.

1. 표준어의 /ᅬ/가 /ㅣ/로 소리 나는 것

영희(英姬) 의원(醫院) 합의(合意) 희미(稀微)

2. 표준어의 /ㅖ/가 /ㅔ/로 소리 나는 것

계획(計劃) 은혜(恩惠) 폐백(幣帛) 혼례(婚禮)

3. 표준어의 /ㅚ/가 /ㅞ/로 소리 나는 것

괴이(怪異)　외국(外國)　쇠약(衰弱)　죄(罪)

최(崔)　퇴비(堆肥)　회의(會議)

제20항 합성어

고유어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때 본디 소리와 다르게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모음과 평음 사이에서 /ㄷ/ 소리가 덧나는 것은 'ㅅ'을 앞 글자의 받침 글자로 적는다.

귓벵뀃주시　댓순　수돗물

웃드르　정짓낭/정젯낭　정짓문/정젯문

[붙임] 자음 뒤에서 평음이 된소리로 바뀌는 것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몸국　당가름　엉도　알드르　톱밥

2. 모음과 /ㅣ/ 사이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ㅅ'을 앞 글자의 받침 글자로 적는다.

뀃입　농숫일　바깟일/바꼇일/배꼇일　베갯잇　ᄎᆞ롓일

부　칙

1. 지역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다른 제주어는 모두 인정하여 적는다.

싣그다/실르다　풀/쿨　품/쿰　신짝/신착

ᄆᆞ르다/ᄆᆞᆯ르다[乾/裁]　첫째/첫채/첫차

ᄀᆞᆯ겡이/ᄀᆞᆯ게/ᄀᆞᆯ각지　재열/재/자/자리/잴/잘

숫구락/숫가락　-을걸/-으컬　-을디/-을티

-광/-강/-과/-가/-꽝/-깡　부터/부떠

2. 이 표기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한글 맞춤법에 따른다.

제주문화원형-설화편 1

발행일 ‖ 2017년 6월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연구원
문의처 ‖ 064-710-3322 / 064-726-0500
인쇄처 ‖ 경신인쇄사(064-746-2044)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며,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JEJU

MYTH LEGEND FOLKTALE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 연 구 원